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한우의 기원과 역사

- I -

2008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연구진 구성

책임연구원 이형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장 · 국사학과 교수)

■ 역사분야

공동연구원 김호동(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위은숙(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이광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유기선(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 민속분야

공동연구원 이창언(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김미진(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 의학서분야

공동연구원 남경란(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김혜진(영남대학교 한국학과 석사수료)

- 목 차 -

제 I 편 『朝鮮王祖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7
--------------------------------------	---

[해제]

1. 자료정리 대상문헌과 정리목차	9
2. 『조선왕조실록』의 사료 상에 드러난 한우 자료의 특성	10

[자료]

1. 太祖實錄	26
2. 定宗實錄	32
3. 太宗實錄	35
4. 世宗實錄	67
5. 文宗實錄	250
6. 端宗實錄	255
7. 世祖實錄	265
8. 睿宗實錄	331
9. 成宗實錄	345
10. 燕山君日記	486
11. 中宗實錄	517
12. 仁宗實錄	643
13. 明宗實錄	645
14. 宣祖實錄	688
15. 宣祖修正實錄	806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김호동(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위은숙(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해 제

1. 자료정리 대상문헌과 정리목차

1차년도의 사업에서 고중세의 대표적 역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와 중국정사인 『25사』의 「조선전」에 나오는 소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12세기 고려인종대 중국인인 서공이 쓴 『고려도경』과 고대문서 중에 소와 관련된 가장 중요문서인 「신라장적문서」를 추가를 덧붙였다. 또한 문헌자료는 아니지만 『고구려고분벽화』 중에서 소와 관련된 그림도 정리하여 실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보고서에 나오는 소에 관한 자료도 정리하였다.

2차년도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소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세종실록』에 나오는 소 그림을 첨부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의 하나일 정도로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철종조까지의 역사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고,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시대에 별도로 정리되었다. 이번 자료 정리에서는 태조~순종조까지의 소에 관한 사료를 적출하여 각 왕별로 연대기로 정리하였다. 워낙 자료가 방대한 분량이라서 고·중세 사서류와 같이 편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지 못하였다. 향후 고·중세 사서류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행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관찬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은 주로 소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농업이 주업인 한국의 경우 농경과 관련된 소에 관한 기록이 『農書』에 많이 나온다. 특히 許筠(1569~1618)이 1610~1617년 사이에 편찬한 『閑情錄』에는 ‘養牛’편이 있는데, 양우 관계로는 우리나라 農書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의 사료 상에 드러난 한우 자료의 특성

우리나라에 서식하던 원시야생소가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한우로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이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응하고 한민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 기원과 고대 및 중세 고려시대까지의 한우의 역사에서는 1차 년도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2차년도인 경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한우의 사료를 정리하였다. 그 사료와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 한우자료의 성격을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의 실록이나 문집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흔히들 ‘소가 적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고종조의 홍양호는 ‘우축(牛畜)의 번성이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서울과 외방에서 도살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천 마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생산이 쉬지 않게 되니, 風土가 합당한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 홍양호의 말처럼 한국의 풍토는 소의 사육에 합당한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 왜 한국의 풍토가 우축의 번성에 적합한 것인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고종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 가운데서 콩과 소가죽 같은 것들은 각국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 것은²⁾ 그것을 소가 한국을 대표하는 가축임을 말해준다. 그러한 환경적 요인에 더하여 ‘우리나라 풍속에 손님 대접과 제사 반찬에 있어서 대신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³⁾ 수세기 동안 그 맛의 개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는 農耕, 食用, 乘輿·運輸, 儀禮(祭祀, 犧牲), 약재, 병장기, 朝官服章(服色, 車騎, 裝飾), 하사품, 朝貢, 歲貢, 선물, 뇌물 등의 용도를 갖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의 주된 용도는 농경과 식용에 있다. 먼저 우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의 용도에 따른 분류상 특징을 논해보기로 한다.

-
- 1) 『정조실록』 정조 7년 7월 18일의 洪良浩 상소. 조선후기의 인물인 박제가의 『북학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날마다 소 5백마리를 도살하고 있다. 국가의 제사나 犒餼에 쓰기 위하여 도살하고, 성균관과 한양 5부 안의 24개 푸줏간, 3백 여 고을의 관아에서는 빠짐없이 소를 파는 고깃간을 열고 있다”고 하여 날마다 소 5백마리를 도살하고 있다고 하였다.
 - 2) 『고종실록』 고종 21년 12월 24일. 이때 이현영 역시 부산(釜山)에서 수출되는 것을 보면 소가죽·콩·팥·미역류 등의 물품이 많은데 각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 3) 『정조실록』 정조 7년 7월 18일. 『대사헌 홍양호가 상소하기를 (중략) 옛적의 예법은 임금도 일이 없이는 소를 잡지 않았었는데,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법도가 없이 도살을 하게 됨은 대개 손님 대접과 제사 반찬에 있어서 대신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소는 생산이 본시 번성하는 것이어서 아주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농가(農家)에서 쟁기질하게 될 적에는 매양 구비되지 못하여 걱정하게 되니, 만일 지금부터라도 양을 많이 길러 제사 접시에 채우는 것을 대신하게 된다면, 소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게 되어 쟁기질하기에 남아도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1) 소의 사육

牛畜의 번성이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牛馬가 희소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홍양호는 그것을 “생산이 번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히 사육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부리기를 그의 성질대로 하지 못해서”라고 하였다.⁴⁾ 홍양호는 우마가 희소한 원인을 ‘牧養’에 있다고 하였다.

실제 고려시대까지는 구체적인 소 사육에 대한 전문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오면 소 사육과 관련된 책이 편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초 『신편우의방』(1399), 조선중기 許筠의 『閑情錄』(1610~1617), 그리고 洪萬選(1643~1715)의 『산림경제』 등에 ‘養牛’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조선말 ‘우역방’도 질병치료법뿐 아니라 소 사육 일반에 대한 전문서이다. 이렇듯 소의 질병치료나 사육에 대한 전문서가 조선초, 중기, 말기에 걸쳐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 훨씬 구체성을 가진 사육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의 사육과 관련된 책이 조선시대에 편찬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양호는 우마가 희소한 원인을 ‘牧養’에 있다고 하였을까? 조선시대 ‘목양’과 관련된 책은 許筠(1569~1618)의 농서인 『閑情錄』에 실려 있는 ‘養牛’편을 통해 추정해보기로 한다. 소에 관한 가장 많은 자료를 남긴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사료의 성격상 주로 소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목양’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소의 사육과 관련된 『한정록』 전문을 제시한다.

소는 농사를 지움에 간절히 필요한 가축이다. 소를 잘 기르는 자는 반드시 애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소의 혈기는 사람과 같아서 춥거나 덥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性情은 사람과 같아서 크게 피로하지 않도록 부려야 한다. 계절에 따라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맞추어주고 때에 따라 주리고 배부름을 알맞게 할 것이며 그 성정을 절제토록 쉬게 하여 그 혈기를 길러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한즉 피부나 터럭이 윤택하고 살찌 힘이 넘칠 것이며 늙어서도 쇠퇴하지 않으니 어찌 피곤하고 피로우며 마르게 기를 것인가?

봄이 되면 반드시 외양간에 가득 채워진 두엄과 쇠똥을 열흘마다 한 번씩 쳐내어 더러운 냄새를 없애야 하나니 외양간이 뜨고 답답하면 병에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발이 질퍽한 곳에 빠져도 병이 생긴다. 또 이 시기에는 소에게 입혔던 덩석도 제거하면서 상서롭지 않은 것은 깨끗하게 치우고 좋은 방법을 가려서 할 것이다.

목은 풀은 이미 시들고 더러우며 아직 새 풀은 나지 않을 때이므로 마땅히 깨끗한 벼짚을 잘게 썰어 밀기울 등과 콩 종류 등을 섞어 약간 습하게 한 다음 구유통에 담아 먹여야 한다.

봄, 가을 풀이 무성할 때에는 방목을 시킬 것이며 물을 마시게 한 다음 풀을 먹인즉 고창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겨울철이 되어 천기가 계속 그늘지고 눈바람이 불며 얼음이 많이 얼 때에는 따뜻한 곳에 옮기어 보호하고 죽을 썬어 먹여야 한다. 또 미리 콩잎이나 닳나무 잎을 거두었다가 쪼개 가루로 만든 후 쌀겨나 사초, 겨 종류와 같이 먹인다. 혹은 목화씨 깻묵을 먹이기도 하는 바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소위 때에 따라 잘 먹여 소의 성정을 알맞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양 소로 경운하는 달에는 방목을 하지 말고 밤에는 다시 배불리 먹이고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 전 5경에 천기가 서늘할 때 소를 부린즉 통상보다 힘이 배나 세어져 한나절 갈아서 하루 일거리를 하게 된다.

소가 더워 숨이 찰 때에는 쉬게 하여 힘이 다 빠져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하나니 이것이 남방에서 낮

4) 『증조실록』 정조 7년 7월 18일의 홍양호 상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에 갈을 때 행하는 방법이다. 만일 그 지방이 평평한 늪은 들이면 모두 밤에 갈도록 하고 낮에 더운 열기를 피하도록 할 것이며 야반에 쉼을 새김질하도록 하여 소의 기력을 도와주고 날이 밝아 오거든 발갈이를 끝내고 소를 놓아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소위 쉬도록 하여 그 혈기를 기름이라 이른다. 풀이나 짚 따위가 부족하면 주립을 채워주고 물이나 쇠죽이 부족하면 목마름에서 건져 주어야 한다.

열었거나 폭양에 쪼였거나 피곤하였거나 말랐거나 부렸거나 수고로운 위에 또 다시 채찍을 치며 부린즉 반 이상의 소가 죽게 된다.

주리면 먹이를 얻고자 하고 목마르면 마시고자 하는 것이 생물의 본성이다. 소를 부리어 피곤함에 이르러 숨이 차고 땀이 흐르면 부리던 자는 속히 먹이를 주거나 혹은 산에 방목하거나 물이 있는 곳으로 몰아야 한다. 소가 물을 얻으므로 인하여 七竅이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먹이가 떨어지게 되면 질병이 생기게 된다. 높은 산에 방목하면 피로하여 엎어지거나 미끄러지며 왕왕이 서로 낭패하게 되나니 서로의 힘을 이용하여야지 서로의 삶을 상하게 할 수 있으리오. 소를 사랑하며 기르는 도를 알아야 한다.

소의 병은 한 가지가 아니다. 약을 쓰는 것은 사람과 서로 같으나 다만 약재의 분량을 크게 하여 마셔야만 하나니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음이 없다. 血傷에 걸려 열이 나면 血藥으로 다스리고 冷結인즉 코가 마르나 혈떡거리지는 않는 바 發散하는 약을 써야 한다.

熱結인즉 코에 땀이 나며 숨이 찬바 이에 이로운 약을 써야 하며 혹 천연두에 걸리면 찌는 듯 열이 난다. 이와 같은 증상은 서로 전염되므로 다른 곳으로 격리시키고 덕석을 벗긴 다음 환부에 약을 쓰면 간혹 살릴 수가 있다.

소를 相보는 법은 눈은 서로 멀리 떨어지고 뺨은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하며 눈알은 마땅히 크고 눈 가운데 흰 맥이 동자를 관통하여 지나가며 정강이뼈는 길고 크며 뒷다리 무릎 사이가 넓고 시원스러우며 털은 뽀뽀하게 나야 하나니 드물게 나고 길면 추위에 견디지 못한다.

뺨이 가늘고 꼬리가 거칠며 길은즉 길하고 꼬리의 털이 어지럽고 꼬인 것은 명이 짧다. 어미 소의 털이 희고 젖꼭지가 붉은즉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다.

하룻밤에 대변을 세 번 보는 소는 일 년에 송아지 한 마리를 낳을 수 있으며 젖꼭지의 거리가 드물어지고 검어지면 능히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응급처치를 위한 간단한 처방

우장(牛瘴) : 편히 쉬게 하고 외양간에 향을 피운다.

우열(牛噎) : 고소한 쌀의 가루를 소의 코 속에 넣어놓고 가족신으로 꼬리와 亭骨 밑을 쳐준다.

개라(疥癩) : 움이 올라 지적지적한 곳을 메밀짚을 태운 재로 씻어낸다. 말도 또한 같다.

난견(爛肩) : 상처 부위에 묽은 풀솜 3량을 붙여 태운 후 삼씨기름(麻油)을 3일간 고르게 바르면 즉시 차도가 있다.

누제(漏蹄) : 자광(紫礦)을 분말로 만들어 돼지기름에 고루 섞어 누제된 속에 채워 넣고 쇠붙이에 불을 달구어 지진다.

상열(傷熱) : 참깨 이파리를 갈아 짜낸 즙을 먹이면 낫는다.

해소(咳嗽) : 소금 1량을 메주물 한 되에 타서 먹여야 한다.

뇨혈(尿血) : 당귀와 홍화 가루를 술에 담가 한 잔 정도 먹인다.

신상생충(身上生虫) : 당귀를 갈아 술에 하룻밤 담근 후 먹인다.

쇠꼬리가 마르고 물과 풀을 먹지 않는 병(牛尾焦不食水草) : 大黃과 白芷, 黃連 각 반량씩을 가루를 내어 계란 흰자와 함께 술에 타서 먹이면 효과가 나타났다.

소가 홀연히 위가 부어 오르고(고창증) 미친 듯 달리며 사람을 들이받는 병(牛忽肚脹狂走觸人) : 大黃과 黃連 각 5錢을 계란의 흰자와 한 개에 고루 타서 술잔 한 개 정도의 양을 먹인다.

소가 잡충을 먹어 배가 부어오르는 병(牛喫雜虫腹脹) : 제비 똥 한 홑을 물에 타서 먹인다.

소의 눈에 흰 막이 생겨 눈을 가리는 병(牛生白膜遮眼) : 붉은 소금과 대나무 마디를 태운 재를 섞어 곱게 간 다음 1錢 정도로 막 위에 붙여 둔다.

許筠(1569~1618)이 1610~1617년 사이에 편찬한 『閑情錄』은 治農의 방법이 적힌 農書이다. 소가 농경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養牛’편이 포함되어 있다. 소뿐만 아니

라 그 외 여러 가축에 관한 내용도 있다. 양우 관계로는 우리나라 農書 가운데 두 번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 상기 내용은 養牛에 있어서는 그 성정이 사람과 같음을 논하고 飼養과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함을 풀이한 후 발병 시 13종의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인데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외의 구체적 ‘牧養’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산림경제』 등 소의 사육과 관련된 기왕의 책 역시 이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처럼 소의 사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없이 농가에서 농민들이 주로 번식하는 ‘耕牛’ 위주의 養牛 지식 정도만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홍양호의 지적처럼 사육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우마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풍토는 우축의 번성에 적합하였다. 더욱이 농민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소 기르기(養牛)’는 농경의 원활한 수행뿐만 아니라 재산의 척도이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그래서 한우는 조선시대에 농경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여 왔었다. 따라서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 우역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거치면서 소의 손실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1910~1912년에 작성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분석에 의하면 전라도의 경우 牛當戶數는 평균 6.73호, 나주의 경우 5.55호 정도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풍토 그 자체가 소 사육에 대단히 적절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 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牛種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신편우의방』에는 소의 형상을 제외하고 빛깔에 따른 분류에는 黃牛, 黑牛, 白牛, 靑牛, 離牛(얼룩소), 鹿斑者 등의 종류가 나온다. 고려의 국가의례에 사용된 소는 청, 백, 적, 흑, 황색의 소를 사용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다섯 가지 빛깔로 구분되는 소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고, 뒤이은 조선왕조에서도 의례용의 소가 필요하였기에 위의 소들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실록』에 의하면 사실상 청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조가 내린 교서에 의하면 “親耕 때 靑牛는 푸른색으로 염색한 무명을 입히고 있다. 그런데 宗廟에 靑蓋·紅蓋란 것이 있으니, 이른바 청개란 곧 黑蓋이다. 『五禮儀』 靑牛條는 黑牛로 註를 달아 넣는 것이 옳다.”고 한 것으로 보아⁶⁾ 청우는 조선시대에 없어진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조선시대의 경우 주로 의례용의 소로 흑우와 황우를 사용하였다. 제사에 쓰이는 黃牛와 黑牛를 외방으로 하여금 都會官을 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다만 민간에 흑우는 희소하고 황우는 그래도 쉽게 구득할 수 있다 한 기록⁷⁾은 그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흑우는 희소하였기 때문에 우역으로 인해 흑우가 죽는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⁸⁾ 제사용 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목장을 설치하여 나누어 키우도록 할 것을 의논케 한 것은⁹⁾ 제사

5) 金榮鎭 역주, 『朝鮮時代前期農書』. 김영진은 이 책의 『閑情錄』 해제에서 “『農桑輯要』의 養牛條(치료법)와 같은 구절이 있기는 하나 『농상집요』 이외의 다른 농서에 의존한 감이 짙다. 또 1399년에 조준 등이 엮은 『新編集成馬醫方』에 부편되어 있는 『牛醫方』도 인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6) 『영조실록』 영조 19년 4월 20일.

7) 『중종실록』 중종 11년 11월 20일.

8) 『현종실록』 현종 4년 6월 2일, 5년 8월 23일.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용 흑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나온 구상이었다.

의례용에 있어서 흑우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皇壇¹⁰⁾의 경우 황우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로서 “명나라는 火德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駢牛를 써야 하는데, 駢은 짙은 황색으로, 황색은 駢에 가깝기 때문에 황색을 쓴다”는 것이다.¹¹⁾ 이런 이유 등 조선시대의 경우 의례용으로 황우를 많이 사용하였다. 의례용 소를 관장하는 典牲署에 황우를 속히 바치도록 하라고 전교한 기록으로 보아¹²⁾ 제사용으로 황우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우는 대체로 황우 위주로 종이 단순화되어 특성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한우 외에 물소와 젖소가 있었지만 전자의 경우 종의 번식에 결국 실패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도 우유가 민간에 보편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번식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시대 고종 대에 송나라로부터 물소가 도입되었지만 번식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국가적 차원에서 물소를 도입 사육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의 성립이후 북진개척으로 인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류의 개발에 조선왕조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활을 만드는데 水牛角만한 것이 없다. 물소는 군사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힘이 세고 밟가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서¹³⁾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에 들어와 기르려는 노력이 세종조에서부터 중종조에 이르기까지 간단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적 이유 때문에 물소의 해외무역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하여 그것의 수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렵사리 들여온 물소는 털이 짧고 추위를 타고 극심한 더위를 두려워하므로 적응을 하지 못해 결국 인종조 이후 도입의 시도를 그만 둔듯하다.

중국 강남 지역에 성장하고 있는 물소는 털이 짧고 추위를 타므로 중국의 남쪽 지방과 기후가 비슷한 전라도를 택하여 기르고 또 겨울철에 우리를 지어 잘 기른다면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¹⁴⁾ ‘임오년(1462)부터 올해(1479)까지 새끼 친 것이 겨우 70여 마리에 불과하다’¹⁵⁾고 한 기록에서 보듯이 물소의 번식은 생각만큼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水牛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두려워하니, 만약 전라도에 나누어 기르는 수우를 제주도 산 남쪽땅에 옮기면 뒷날의 번식을 기약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제주도는 땅이 따뜻하므로 번식할 수 있으나, 다만 이 소는 성질이 조급하므로 배에 싣고 가면 驚動하여 아마도 건너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하여 그 시도도 무산되었다.¹⁶⁾ 성종은 물소의 번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李昌臣·李瑄·權五福으로 하여금 『安驥集』의 『水牛經』을 번역하여 중외에 반포하도록 하였지만¹⁷⁾ 우리 땅의 소산이 아닌 물소의 번식은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9) 『중종실록』 중종 11년 11월 21일.

10) 조선시대의 경우 皇恩에 보답하는 도리는 오직 황단에 제사하는 데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황단을 설치 제사하였다(『영조실록』 영조 38년 3월 1일).

11) 『영조실록』 영조17년 2월 27일. 그 후 영조가 “황단에는 黑牲을 써야 한다”고 하니, 金時默이 말하기를, “『大明集禮』를 상고해 보았더니, 黑牛를 썼습니다.”라고 한 기록도 보인다. 『영조실록』 영조 38년 3월 1일).

12) 『연산군일기』 연산군 12년 8월 16일.

13) 『세종실록』 세종 14년 2월 13일.

14) 『세종실록』 세종 10년 11월 19일, 14년 2월 13일

15) 『성종실록』 성종 10년 2월 24일.

16) 『성종실록』 성종 24년 10월 4일.

17) 『성종실록』 성종 25년 4월 2일.

물소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군사적 목적 외에 힘이 세어 밭을 가는 것이 보통 소의 두 배나 된다¹⁸⁾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질이 본디 조급하여 밭을 가는 데에는 마땅치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른 땅에는 빨리 달려서 밭을 가는 자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濕한 땅에서는 물러서서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¹⁹⁾ 한국의 논밭의 경작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방개척에 적극적이었던 세종조나 성종조에서는 군사적 목적 때문에 물소의 번식에 적극적이었지만 물소의 번식의 국가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중종조부터 물소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다. 중종조에 오면 각 관에서 기르는 물소가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만 있으니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海島로 추방되었고, 민간에 나누어 주기에 이르렀다.²⁰⁾ 물소의 도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한국의 풍토가 한우의 생육에 적절한 것이었지만 우리 땅의 소산이 아닌 물소의 생육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젖소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사육되었던 것 같다. 특히 원간섭기 이후 고려에서는 몽고의 영향으로 유제품이 왕실, 귀족층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을 위해 젖소가 양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려 이후 젖소 양목은 그리 확산된 것 같지는 않다. 조선시대의 경우 왕실에 대한 우유의 供上을 목적으로 한 乳牛所의 존재가 태종조에 기록에 보이는데 세종조에 들어와 상왕전에 지공하는 乳牛는 仁壽府에 소속시키고, 주상전에 지공하는 유우는 예빈시에 소속시키게 하고, 그 여러 인원은 소재한 주·군의 軍에 보충토록 한 기사 가운데 혁파 당시 소속 관원이 200명이나 된 것,²¹⁾ 그리고 폐지된 유우소를 동부학당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²²⁾ 인원이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왕실에 대한 우유의 供上에 목적을 둔 젖소사육은 이후 司僕寺에서 담당하였다. 『실록』 자료에 의하면 젖소(乳牛)를 사육한 사복시의 민폐가 간혹 언급되고 있다. 사복시에서 소의 乳汁이 장차 다하면 그 소들을 京畿 고을의 백성들 젖소[乳牛]와 마음대로 바꾸니, 백성들이 자못 이를 괴롭게 여긴다는 지적이 있었고,²³⁾ 사복시에서 젖을 짜는 乳牛에 대해 날짜를

18) 『세종실록』 세종 14년 2월 13일.

19) 『성종실록』 성종 24년 10월 4일.

20) 『중종실록』 중종 4년 7월 20일, “중종조에서, 물소가 비록 우리 땅의 소산이 아니지만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한 것은, 孳息시켜서 우리나라 인민으로 하여금 耕種에 쓰도록 하고자 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소용이 없다 하여 海島로 추방하였으니, 필시 주리고 얼어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이는 선조의 뜻이 아니니, 청컨대 민간에 나누어 주고, 만약 物故하더라도 그 致死케 한 죄를 다스리지 말면, 재산이 있는 백성은 혹 능히 길러서 점차 경종을 익혀 백성이 그 이익을 입을 것입니다.”; 『중종실록』 중종 4년 7월 20일, “물소는 병조의 아뢰 바에 의하여 백성이 원하는 대로 주어 기르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중종실록』 중종 4년 11월 6일, “병조가 아뢰기를, ‘金壽童 등의 의논이, 물소[水牛]를 民願) 따라 題給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물소를 백성의 청원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하되, 혹 죽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죄를 다스리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중종실록』 중종 5년 9월 27일 “물소[水牛]를 祖宗朝 때부터 각 고을에 나누어 사양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사양하기를 꺼려 그것이 밭가는 데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청탁하면서, 섬에 放牧하기를 청합니다. 물소는 그 성질이 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 섬에 방목한다면 반드시 死傷이 많을 것이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이 일찍이 물소를 하사 받아 仁川의 농장에서 밭을 갈게 하였더니, 하루에 일한 것이 보통 소의 두어 날의 일보다 배나 되었습니다. 李孫이 金海府使가 되었을 때에 또한 물소를 부려서 밭을 갈았더니 그 성과가 과연 보통 소보다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방목하지 말고 돌보아 기르게 하소서.”

21) 『세종실록』 세종 3년 2월 9일.

22) 『세종실록』 세종 20년 3월 20일.

23) 『성종실록』 성종 1년 7월 6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분정하므로 農牛가 다 폐사하여 백성이 따라서 실업하게 되었다는 지적²⁴⁾은 그 예이다.

(3) 農耕用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농업은 소가 아니면 경작할 수 없다’²⁵⁾거나 ‘비록 농부는 있더라도 만일 소가 없으면 진실로 대신 경작할 수 없다’²⁶⁾거나 ‘땅이 오곡을 기르되 소로써 대신 경작하게 한다’거나 ‘소는 곡식을 생산하는 도구’²⁷⁾라는 표현이 술하게 나오는 바와 같이 소는 농사에 꼭 필요한 도구이다. 농경에 있어서 소는 특히 ‘起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農事直設』에 의하면 起耕은 牛耕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땅 갈이는 천천히 해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소도 피로하지 않는다. 봄과 여름갈이는 얇게 가는 것이 좋고 가을갈이는 깊이 가는 게 좋다. 봄갈이는 때에 따라 갈고 다스릴 수 있으나 가을갈이는 흙빛이 희게 마르기를 기다려 다스려야 한다. (『農事直設』 耕地)

천천히 기경하는 작업(徐耕) 방식은 쟁기를 끄는 소를 천천히 몰아서 땅을 급히 갈지 않게 함으로써 소가 피곤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 해 농사를 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에 대한 배려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균의 『한정록』에서도 소의 성정이 사람과 같음을 논하고 飼養과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함을 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축력을 이용하여 농기구를 작동시키는 힘은 소로부터 획득된다. 말을 이용해 논밭을 가는 경우인 馬耕도 있으나 소갈이, 즉 牛耕이 일반적이다. 起耕의 경우 농기구인 쟁기가 따른다. 우경을 기경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관행은 소가 쟁기를 끄는 주된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토의 기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생산수단이 필요한데, 하나는 농기구로서의 쟁기이고, 다른 하나는 쟁기를 끄는 축력으로서의 소이다. 소갈이의 경우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로 논밭을 가는 것을 ‘거리질’이라고 부른다.

18세기 후반에 禹夏永이 편찬한 『千一錄』에는 우경의 특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경이란 쟁기를 소에 매어 실시하는 기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소의 힘을 이용할 때의 쟁기와 두 마리의 소의 힘을 이용할 때 소에게 매는 쟁기의 크기와 형태, 구조가 다르다. 1794년(정조 18) 11월 應旨農書를 올린 金養直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耕法의 차이를 牛耕의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신이 생각하기에 東土의 務農은 산야에 다름이 있고, 남북으로 같지 않다. 영동은 두 마리 소를 옆으로 나란히 매어(橫駕) 耕하고, 호남은 두 마리 소를 앞뒤로 한 줄에 매어(連駕) 耕하며, 圻人은 한 마리 소를 홀로 매어(單駕) 耕한다. 橫駕와 連駕는 실로 深耕이 되어 지력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單駕하는

24) 『명종실록』 명종 21년 3월 15일.

25) 『세조실록』 세조 11년 5월 30일.

26) 『세조실록』 세조 11년 6월 1일 양성지 상소.

27) 『세조실록』 세조 13년 1월 4일.

것은 심경이 되지 않아 지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²⁸⁾

이에 따르면 영동과 호남은 두 마리의 경우를 이용하고, 경기는 한 마리의 소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심경의 여부, 곧 지력의 온전한 이용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양직은 관동과 호남, 경기에서 각각 경법을 달리하고, 쟁기에 매는 소의 숫자를 다르게 한 연유를 토질에서 찾고 있다. 즉 관동과 호남은 두터운 경작 가능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경해야만 적당한 토양 교란을 통해 작물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고, 경기는 산천과 地氣 자체가 심경하게 되면 그 기운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²⁹⁾

농경에 필수적인 것이 소이지만 농우를 직접 소유하거나 타인의 농우를 借養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농우가 없는 농민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집에서 잠시 빌릴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충청도의 경우 소 한 마리를 하루 이용했을 경우 한 사람의 3일 노동으로 보상해야 했다.³⁰⁾

1910~1912년에 작성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분석을 한 연구에 의하면 전라도의 牛當戶數는 평균 6.73호이며, 나주의 경우 우당호소는 5.55호이다.³¹⁾ 보다 시기가 오래된 조선 시대의 경우 농가당 소의 보유 숫자는 훨씬 적었다. 15세기 중반 무렵 강희맹이 경기 衿陽 지역에서 살핀 耕牛의 현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마을에 일백호의 농가가 있으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십여 호이다. 그나마 소를 가지고 있는 집도 1~2마리를 제외하고는 암송아지를 겨우 기르는 사람뿐이어서 일백 호의 논을 소 몇 마리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한낮에 소를 잡아먹거나, 재난이 없고 소가 있는 마을이라도 한 달에 8~9회의 초상이 나므로 고용된 농부 몇 밖에 없으니 아홉 사람의 힘이 소 한 마리에 미치지 못함을 몰라 내어찌 편안함을 탐하여 깊이 갈지 않겠는가?³²⁾

100여 집에서 겨우 열 마리도 못되는 소를 耕牛로 활용하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경우로 쓸 수 있는 소는 불과 몇 마리 정도일 뿐이라는 실정을 소개하고 있다.

소가 없을 때에는 사람이 직접 쟁기를 끄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식을 人挽犁라고 불렀는데 대량의 인력을 소비하는 것에 비해 그다지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姜希孟이 쓴 『衿陽雜錄』에 의하면 人挽犁는 9인이 나서야 겨우 소 한 마리를 대신할 정도였다. 그런데 9인의 노동력을 한 번에 동원한다는 것은 가족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9인의 노동력을 傭人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람이 쟁기를 끄는 人挽犁는 深耕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9인의 힘을 빌려도 한 소의 힘에 대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전토를 갈아엎는 기경작업은 기본적으로 畜力, 즉 소의 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牛疫으로 인해 耕牛가 부족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동원하여 기경할 수밖에 없었다.

28) 『승정원일기』 1806책, 정조 23년 3월 28일 병술(95-793나)

29) 『승정원일기』 1806책, 정조 23년 3월 28일 병술(95-793나). 엄정섭, 『조선시대 농법발달 연구』 태학사, 2002, 314~315쪽.

30) 김용섭, 「조선후기 양반층의 농업생산」 『중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 일조각, 251쪽.

31)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402쪽.

32) 姜希孟, 『衿陽雜錄』 「農談2」 “소가 없는 자는 아홉 사람을 부려서 쟁기를 끌게 하면 소 한 마리의 힘을 대신할 수 있고, 하루에 20~30 두를 파종할 곳을 갈 수 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16세기 후반에 柳彭老가 편찬한 『農家說』을 보면

(정월) 그믐 무렵에 미쳐서는 빠르게 해동하니 耕耨를 시작한다. 그 가운데 쟁기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고, 인가에 소가 없는 사람과 소가 있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1牛로 두 농가의 일을 하고, 司牧을 兩家가 같이 담당한다면 廢業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소와 쟁기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牛耕을 여러 농가가 서로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4) 食用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농우로서의 사용가치가 컸으므로 식용을 위해 사육되지는 않았다. 대개 농우로써의 생명이 끝나면 도축되어 식용으로 이용되거나 그 부산물은 다양한 용도로 전용되었다. 소가 농경에 투입되어 농우로써 이용되는 기간은 전근대 중국에서는 대략 10년에서 최대 15년 정도였다고 한다. 일제초기의 자료에서는 조선소는 대개 3세에서 7~8세까지 사역한 뒤 육용으로 판매했으며, 드물게 10세 이상의 老牛를 사역하기도 했다 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에도 기본적으로 식용을 위한 소는 농우로서의 생명력이 끝난 후에 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록』의 소에 관한 자료 가운데 도살 금지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고, 그 대부분이 농우의 부족을 초래할까봐 소 도살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손님 대접과 제사 반찬에 있어서 대신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³³⁾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도살된 소는 늙은 소만은 아니었다. 농경과 관련하여 도살을 금하는 금령이 그만큼 많다는 것 그 자체는 상당수의 소가 耕牛로서의 생명력이 다하지 않은 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식용을 위한 쇠고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정육점인 ‘懸房’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는 유본예의 『한경지략』 市廛 ‘懸房’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방: 쇠고기를 파는 푸줏간이다. 고기를 매달아서 팔기 때문에 현방이라고 한다. 도성 안팎에 모두 스물세 곳이나 된다. 모두 泮民들로 하여금 고기를 팔아 생계를 삼게 하고, 稅로 내는 고기로 太學生의 반찬을 이어가게 한다.

쇠고기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푸줏간인 현방은 국가로부터 정식 인허를 받은 공식적 가게로서 시전에 속한다.³⁴⁾ 서울에 현방이 23곳이나 되지만 『실록』에는 곳곳에 밀도살 금지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쇠고기의 수요가 얼마만큼 많은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

33) 『정조실록』 정조 7년 7월 18일. 『대사헌 홍양호가 상소하기를 (중략) 옛적의 예법은 임금도 일이 없이는 소를 잡지 않았었는데,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법도가 없이 도살을 하게 됨은 대개 손님 대접과 제사 반찬에 있어서 대신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소는 생산이 본시 번성하는 것이어서 아주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농가(農家)에서 쟁기질하게 될 적에는 매양 구비되지 못하여 걱정하게 되니, 만일 지금부터라도 양을 많이 길러 제사 접시에 채우는 것을 대신하게 된다면, 소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게 되어 쟁기질하기에 남아도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34)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다. 특히 연산군은 쇠고기를 좋아하였다. 『실록』 자료에 의하면 말년에 각 지방에 쇠고기를 봉진하게 하였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하루에 아홉 마리의 소를 잡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종종조에 봉진하지 않게 하였지만³⁵⁾ 왕실의 쇠고기 수요는 끊이지 않았다.

소의 주된 용도의 하나가 식용에 있었고, 왕실이나 양반 등 지배층이 그 수요의 주된 담당자였기 때문에 쇠고기의 육질을 개선하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의 개발을 위한 노력 또한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록』 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는 문집이나 일기류, 풍속화 등을 통해 자료를 발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⁶⁾

중국에도 알려진 맥적(貊炙)은 부여, 고구려계통에서 개발된 것으로 조미를 하지 않고 굽는 중국요리와는 달리 미리 조미해서 구워 먹는 것으로 불고기와 유사한 것이다. 조미한 이후에 굽는 것이 한국요리의 큰 특색이라 하는 데, 그 전통은 대단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洪錫謨(1781~1850)의 『東國歲時記』를 살펴보면 “요사이 한양 풍속에 화로에 숯불을 뿜뿜 피워놓고 변철을 올려놓은 다음 쇠고기를 기름·간장·계란·파·마늘·고춧가루에 조리하여 구우면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먹는다. 이것을 煖爐會라 한다.”고 한 것에서 화롯불에 구워먹는 육적이 쇠고기의 대표적 요리임을 알 수 있다.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에서 육적의 조리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우육을 썰어서 片을 만들고 이것을 칼등(刀背)으로 두들겨 연하게 한 것을 대나무 꼬챙이에 꿰어서 油鹽(간장)으로 조미해서 간장이 충분히 스며들면 숯불에 굽는다.

홍만선은 중국의 『西原方』이란 책을 인용해 위와 같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육적법 조리법이지만 간장을 위주로 한 불고기 제조법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외 날고기를 회쳐먹거나, 육포로 말리는 것 등은 고대로부터 있어 온 것 같다. 소의 식용이 오래되면서 소 내장요리도 같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음식디미방’(1670년 안동장씨저. 한글본)에는 소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요리법이 소개되고 있다.

소를 사육하면서 고기뿐 아니라 우유나 유제품도 식용하였는데, 연유, 치즈, 버터 등에 대한 자료가 나온다. 특히 유가공품은 원간섭기 이후에 몽고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 일찍이 ‘젖소’를 통해 우유를 짜서 먹었지만 한국인들은 우유를 거의 먹지 않았다. 우유를 즐기는 유럽사람들의 경우 우유 속의 락토오스를 분해할 수 있는 락타아제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락타아제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사』나 『실록』의 자료를 살펴보면 왕실에서 우유를 먹은 기록이 간간히 나온다. 특히 영조는 우유로 만든 타락죽을 즐겨 먹었다.³⁷⁾

煎藥은 조선시대에는 쇠가죽으로 만든 아교에 대추, 생강, 계피, 정향, 호초 등 각종 한약재와 꿀을 섞어 끓인 다음 굳혀서 먹는 음식으로 내의원에서 만들어 동지의 절식으로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 대표적인 궁중 음식이다.

35) 『중종실록』 중종 1년 9월 4일.

36) 주영하의 『그림속의 음식, 음식속의 역사』(사계절, 2005)를 보면, 「숯불 쇠고기에 한잔 술, ‘야연’의 회열」이란 글에서 작자미상의 ‘야연’ 그림을 통해 숯불 쇠고기에 한잔 술을 곁들이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37) 주영하, 「조선 시대, 궁중에서 우유를 줬다」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 사계절, 2005.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소는 가장 귀중한 희생용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종묘나 先農壇 제사 같은 큰 제사에는 반드시 소를 희생용으로 사용하였다.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올려 풍년을 비는 행사인 선농제는 경칩후 亥日에 선농단에서 지냈다. 이때에는 임금이 親耕을 한 다음에 희생으로 쓴 소를 많은 참례자에게 골고루 음복하기 위해 晔내장 등 어느 부분도 버리지 않고 국을 끓였는데, 이것을 ‘先農湯’ 또는 ‘설령탕’이라고 하였다.³⁸⁾

(5) 乘輿・運輸用

소는 농경에 이용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이 타거나 수송용으로 이용되었다. 4~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소 그림은 대체로 수레를 끌거나 축사에 있는 그림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고대, 중세를 막론하고 마차를 끌거나 짐을 수송하는 용도로 많이 이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악지대가 많아서 육상교통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였다. 조선 시대의 영남대로라 하더라도 수레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못할 정도의 小路에 불과하였다. 정조조의 홍양호는 수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도로가 험악하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홍양호는 여기에 더하여 수레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의 하나로 牛馬가 희소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홍양호는 또 『易經』의 ‘服牛乘馬’를 인용하여 소는 服箱하기에 합당하고 말은 騎乘하기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말에다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傳에서 ‘소로써 引重하고 말로써 致遠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여 인중이란 것은 수레를 끄는 것을 말한 것이지 등에다 무거운 것을 짊어짐을 말한 것이 아니요, 치원이란 것은 行進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물건을 먼 데까지 가져감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말은 타고 다니기에 합당한 것이지 引重하는 힘은 소와 같지 못하고, 소는 服箱하기에 좋지만 致遠하는 힘은 말만 같지 못하기 때문에 소에다 물건을 적재함을 알맞지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와 말이 모두 등에다 짐을 지게 되는데, 소는 그래도 가능하지만 말은 위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마의 특성을 말하면서 수레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안에도 수레를 사용하는 데가 많음을 보았는데, 嶺南의 安東과 義城, 海西의 長淵과 信川, 關北의 咸興 이남 六鎭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한두 마리의 牛車를 사용하여, 곡식을 운반하고 柴炭을 실어 나르느라 수백리의 사이를 오고가고 했다고 하였다.³⁹⁾

수레의 사용은 鄭錫猷도 적극 주장하였는데 그는 “수레 1대가 운반하는 양이 소 5마리에 싣는 것만큼이나 되니 한 사람이 수레 한 대를 쓰면 소 네 마리와 사람 네 사람을 줄이는 격으로 소와 사람의 노동력이 모두 여유가 있게 되는 바이고”, “소나 말이 모두 병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⁴⁰⁾

홍양호는 땅 위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소와 말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 그 生殖은 수효

38) 강면희, 『한국축산수의사연구』 향문사, 1994, 230쪽.

39) 『정조실록』 정조 7년 7월 18일.

40) 『정조실록』 정조 22년 11월 30일.

가 있는데 민생들의 需用은 한이 없게 되니, 필경에는 뒤를 이어 가는 것이 있는 다음에야 동이 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나귀와 양을 기를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는 당나귀와 양은 말이나 소와 同類이면서도 다른 무리라고 하면서 당나귀의 뽕뽕이는 말처럼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성질이 길들여 부리기 쉽고 값이 싸서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키우면서 이로써 수레를 매기도 하고, 이로써 물건을 싣기도 하며, 이로써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곡식을 갈기도 하고 물을 운반하기도 하여, 마음대로 부리기를 마치 동복 부리듯이 하므로, 사람의 노력을 대신해 주고 말의 힘을 분담함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 노새는 당나귀에서 나온 것인데 당나귀보다도 건강하여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어 소와 말의 장점을 겸하고 있으므로 燕京의 저갓거리에서 많이 사다가 목장에 놓아기르며 종자가 번식한 것을 가져다가 국가의 사용에 대비한다면, 타고 다닐 것이 여유가 있게 되고 戎馬도 자연히 족하게 될 것이며, 혹시라도 수레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타고 다니거나 싣고 다니기에 사용한다면 소와 말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어, 상인과 行旅들이 퍼지게 되고 민생들이 福利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牧畜 행정은 비용이 적고 이익이 원대해야 하는 법이니, 당나귀와 양을 기르는 곧 소와 말을 기르게 되는 것으로써, 소와 말이 번성하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군사가 강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⁴¹⁾

(6) 武器類

소뼈와 뿔, 힘줄 등은 활을 만드는데 이용되었고, 牛皮는 두텁고 튼튼한 재질로 인해 전장에서 갑옷의 안감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었다.

무기류 가운데 특히 활에 사용되는 水牛角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오로지 중국에 의뢰하였으나 중국이 엄격하게 금약을 기하여 수매하는 것을 하락하지 않았으므로⁴²⁾ 어렵사리 매번 구하였다. 그로 인해 수우각으로 만든 品帶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장을 장식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다.⁴³⁾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소(水牛)를 번식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활을 만드는데 필요한 筋角은 우마의 도살을 금지하기 위해 저절로 죽은 우마의 근각으로 만들도록 하였다.⁴⁴⁾ 활 만드는 외에 수우각·향각을 일체 엄금하였는데,⁴⁵⁾ 그것은 활의 수요가 많고, 한 개의 활에 거의 3, 4마리의 우마의 힘줄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⁴⁶⁾

갑옷의 경우 皮甲 안에 우마피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농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였다.⁴⁷⁾ 소와 말가죽을 재단하여 많은 옷칠을 하여 갑주를 만들면 화살촉과 총알이 모두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기록⁴⁸⁾으로 보아 갑옷의 용도로써 우마피의

41) 『정조실록』 정조 7년 7월 18일.

42) 『성종실록』 성종 8년 8월 26일.

43) 『단종실록』 단종 3년 5월 29일, 6월 21일.

44) 『세조실록』 세조 6년 5월 14일.

45) 『세조실록』 세조 12년 4월 18일.

46) 『성종실록』 성종 1년 1월 7일.

47) 『세조실록』 세조 6년 4월 13일, 9년 1월 5일.

48) 『숙종실록』 숙종 21년 7월 18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사용은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소의 교역

조선시대의 『실록』 자료에 의하면 소는 여진과의 교역이나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명·청과의 무역에서 소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의 교역은 주로 소가 적은 요동 등의 북방지역과 이루어졌다. 세종 13~14년에 요동에서 주둔군의 耕種에 사용할 소가 없다는 이유로 우척 교환을 명황제에게 주달하자 명나라는 소 1만 마리를 사들이게 하였는데 소 1頭에 絹 1필과 베(布) 4필로 하였다.⁴⁹⁾ 결국 중국 조정에서 무역할 소 6,000마리를 여섯 번 운반하여 요동으로 보낸 바가 있다.⁵⁰⁾

북방의 야인 땅에서 나는 초피는 야인들이 우리나라의 우마와 철물을 이롭게 여기기 때문에 북도의 우마를 야인들과 매매하지 못하는 법이 엄함에도 불구하고⁵¹⁾ 항상 농우로써 바꾸어 바칠 수밖에 없다.⁵²⁾ 『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사료도 제법 많이 보인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소가 요동까지는 서식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소의 전염병(牛疫)

牛疫은 여과성바이러스에 의한 소의 급성유행전염병으로 처음 발생한 처녀지에서는 소의 90~95% 혹은 그 이상, 이미 침해되어 면역성이 다소라도 존재하는 곳에서는 50~60%의 치사율을 보이는 가축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악성에 속한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처음 우역에 관한 사료가 등장하지만 고대에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사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염경로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것이다.

최근 우역의 피해는 거의 연례행사로 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역은 조선시대에도 피해가 매우 심하였다. 조선시대 우역의 경우 간혹 한 군데 정도 발생하였지만 피해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중종 36년이다. 이때의 우역은 지역적으로 평안도, 황해도에서 시작되어 경기도로 확산되었고, 1년 내내 지속되었다. 평안도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4,000여 마리가 병에 걸려 죽을 정도로 피해가 심하였다. 그러자 중종은 소가 제사의 희생이기 때문에 제사를 잘못 지낸 부덕의 탓으로 돌릴 정도였다.⁵³⁾ 그러나 “민간에서 소가 죽었다고 관청에 보고하면 관청에서 소의 힘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가 적고 보고해도 계본에 쓰는 것은 겨우 5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⁵⁴⁾ 실제 우역의 피해는 훨씬 더

49) 『세종실록』 세종 13년 12월 6일, 14년 5월 29일.

50) 『세종실록』 세종 14년 7월 11일.

51) 『중종실록』 중종 10년 2월 8일.

52) 『성종실록』 성종 6년 2월 2일,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 4월 17일.

53) 『중종실록』 중종 36년 3월 15일.

54) 『중종실록』 중종 36년 11월 17일.

심한 것 같다. 당시 소뿐만이 아니라 돼지의 피해도 심하였는데, 소의 전염병은 치료할 방법은 있지만 돼지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⁵⁵⁾ 우역에 대한 당시 소의 전염병 치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역은 그 후 인조 15년, 현종 5·11년, 영조 23·28·30년, 그리고 고종 9년에 전국에 걸쳐 발생하였음을 『실록』의 기록은 전한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근년 이래로 農牛가 우역에 의해 죽은 것이 수십만 마리가 된다는 기록⁵⁶⁾에서 보다시피 많은 피해를 주었다. 우역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마침내 병이 났을 수 있는데 저 무식한 백성들은 겁이 앞서 병들지 않은 소까지 걸핏하면 푸줏간에 팔아버리니 계속 이렇게 가다간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한 기록을 통해⁵⁷⁾ 날씨가 추워지면 사그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당시 우역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처방을 갖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9) 牛禁政策

『經濟六典』에 의하면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 되고, 곡식은 소의 힘으로 나오므로, 本朝에서는 禁殺都監을 설치하였고, 중국에서는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니, 이는 농사를 중히 여기고 민생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⁵⁸⁾라고 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牛禁의 시행은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농민을 안집 시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려는데 있다. 그것은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근원은 농사에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은 소[牛]에 있으니, 이것이 國典에서 소를 屠殺하는 법금을 중하게 한 이유”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⁵⁹⁾ 『조선왕조실록』의 곳곳에는 우금령이 간단없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다. 조선왕조 초기의 경우 才人·禾尺이라 불리우는 新白丁들이 주로 소를 도살하였으나 세조무렵부터는 서울 도성 안에서 우마를 도살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去骨匠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경외의 양민들마저 소를 잡으면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도살을 넘어 저자에서 판매를 위해 소를 잡기에 이르렀다.⁶⁰⁾

15세기말까지의 우금령은 대개 농우부족의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마도적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더 농후한 반면 조선후기 우금은 흉황을 타개하고 私屠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금령을 집행해야 할 官長과 禁吏들이 오히려 범법하고 있었고, 初屠者에 대한 贖錢 징수가 私屠를 조장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강해이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 ‘民不畏法’·‘民心漸惡’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우금령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여기에도 농민들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흉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우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도살하였다. 특히 매매된 농우는 대개 屠肆에서 도살되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흉황일수록 우금령이 강조되었지만 효과적인 대책은 없었다. 더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

55) 『중종실록』 중종 36년 11월 2일.

56) 『영조실록』 영조 28년 1월 3일.

57) 『고종실록』 고종 28년 10월 16일.

58) 『세종실록』 세종 7년 2월 4일.

59) 『영조실록』 영조10년 1월 15일.

60) 『세조실록』 세조 13년 1월 4일.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역에 대해 적절한 예방과 퇴치법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우확보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⁶¹⁾

(10)약재

실록은 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약재관련 기사는 주로 牛黃에 집중되어있다. 당시 국가차원에서 소용되었던 우황은 전국에서 공물로 받아 사용하였다. 우황과 더불어 소와 관련된 약재 진상에는 牛膽(쇠쓸개)도 함께 진상되었다.

우황으로 조제되는 약으로 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과 우황양격원(牛黃涼膈元), 우황육일산(牛黃六一散)이다. 우황청심원은 우황, 인삼, 산약 따위를 비롯한 30여 가지의 약재로 만든 알약으로 중풍으로 졸도하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데나 간질, 경풍 따위에 쓴다. 우황양격원은 목 안이 붓고 입 안과 혀가 헐고 턱과 뺨이 부으면서 열이 나고 담이 막히는 것을 다스린다. 우황육일산은 주로 열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황은 상당히 고가여서 조선중기경 우황1部가 포30필이었다는 기록이 있다.(중종실록 권 63 23년 10월 4일)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계(兪槩)가 내종(內腫, 일종의 암)에 걸려 우황을 복용해야 하는데 집이 가난하여 살수 없으므로 국왕에게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상소가 보인다.(현종실록 권8 5년 2월 23일) 유계는 1662년(현종 3) 예문관 제학을 거쳐 1663년 대사헌·이조참판에 올랐다가 병으로 사직한 인물이다. 고관대작을 지낸 인물이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우황이 그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소뿔(牛角)은 땀을 뜨는데 사용되었다. 대체로 작구(灼灸)는 쑥심지[艾柱]가 매우 작지만, 우각구(牛角灸)는 쑥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는 타지 않으면서도 뜨거운 기운이 배가되어 한 번의 땀으로도 효과를 얻는다고 하고 있다.

이외에 우유도 병중이나 병후의 보양식으로 궁중에서는 널리 이용되었다. 우유는 기혈을 보양하여 열과 갈증을 없앤다고 하고 있으며, 참쌀을 가루로 내어 우유와 섞어서 끓인 타락(醪酪)죽은 심열(心熱)을 제거할 수 있고, 위장에 자양을 주어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직접 약재와는 관련이 없지만 소와 관련하여 고종20년(1883)에는 서양에서 들여온 우두법(牛痘法)을 의정부의 건의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즉 “우두법(牛痘法)은 서양 의학에서 시작된 것으로써 백번 시험해도 백번 효과가 있으며, 만 번에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2,900여냥을 내어 충청감영(忠淸監營)에 우두국(牛痘局)을 설치하고, 감영(監營)에서 경상도(慶尙道)의 의원들에게 그 기술을 배워주도록 하며, 소용되는 기구와 여러 가지 비용은 다 타산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니 속히 내의원(內醫院)에서 해당 도(道)에 공문을 발송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에 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쓰기만 하면 즉시 효과를 내는 일은 권고하지 않아도 도입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局)을 설치하였으므로 기술만 배우면 성과를 기대

61) 김대길, 『조선후기 牛禁 酒禁 松禁 연구』 경인문화사, 2006, 15쪽.

할 수 있는 것만큼 우선 군영(軍營)과 고을에서부터 노력하도록 신칙(申飭)할 것입니다.”⁶²⁾라고 하여 국왕이 윤허하였다.

천연두예방법으로 우두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로 인두법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 우두법의 한국전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대체로 1882년 지석영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개화파로서 서구 의학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앞장섰던 그는 일본에서 우두를 들여왔다. 맨 처음 자신의 2살 난 처남에게 시술해 이 땅에 첫 번째 종두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구척사파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갑신정변 때 지석영의 종두학교는 성난 군중에 의해 불타버렸고, 그는 도피해야만 했다.

(11) 祥瑞

조선이전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기형소의 탄생인 牛禍는 재변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 시기는 대체로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있다. 기형소의 탄생은 조선왕조실록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실제로는 정종에서 정조대까지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 기형소의 등장에 대해서는 조선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재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세종조에는 해괴제(解怪祭)를 지내기도 하였으며(세종19년 7월12일), 天變災異를 군주의 부덕한 정치나 행위를 謹告하는 天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하였다.

즉 성종은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요물(妖物)은 함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잘못으로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경상도 울산군(蔚山郡)의 민가에서 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등에 세 발이 있으니, 사물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어찌 감응(感應)됨이 없이 이러하겠는가? 예전 기록에 혹은 발이 다섯 개인 송아지가 있다고 하고, 혹은 소가 말을 낳았는데 그 발이 여덟이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모두 당시에 도(道)를 잃은 것에 대한 감응이다. 이제 이 이변(異變)은 허물이 진실로 내게 있으니, 내가 진실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깊은 못과 골짜기에 떨어진 듯 하므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서 재앙을 없애고 근심을 막고자 한다. 경 등은 직책이 음양(陰陽)을 조화(調和)하는 데에 있으므로 의(義)가 한 몸과 같으니, 서로 다스림을 잘하여 나의 미치지 못함을 바로잡고, 중외(中外)에 유시(諭示)하여 각각 그 직책에 공경하고 부지런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도록 하라.”하였다.⁶³⁾

기형소의 출산에 대한 사료가 여러 시기에 나타나지만 가장 집중된 시기는 우역이 크게 돌았던 중종 연간이었다. 이 시기에 기형소의 출산이 집중된 것은 아마도 우역의 창궐이 기형소의 출산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때 우역은 국가제사에 쓰기 위해 키우던 희우(犧牛)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희우(犧牛)의 변(變)이라 하여 당시 국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2) 『고종실록』 20권 20년 9월 23일 壬子.

63) 『성종실록』 95권 9년 8월 19일 戊申.

자 료

1. 太祖實錄

- ▶ 1권 總序 1번째 기사(태조 이성계 선대의 가게.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삼척·의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하다)

穆祖由水陸路至時利,【卽利城.】其千戶以兵阻之. 穆祖語以歸順之意, 千戶宴慰甚厚, 穆祖亦以牛馬報之. 遂至開元路南京之幹東居焉. 寔宋理宗寶祐二年, 元憲宗四年, 高麗高宗四十一年甲寅也.

목조는 수로와 육로를 지나서 시리(時利)【곧 이성(利城)이다.】에 이르렀는데, 그 천호(千戶)가 군사로써 막으므로, 목조가 귀순한다는 뜻을 말하니, 천호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 말로써 그에게 보답하고, 마침내 개원로(開元路) 남경(南京)의 알동(幹東)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때가 송나라 이종(理宗) 보우(寶祐) 2년(1254)이요, 원나라 헌종(憲宗) 4년이요, 고려 고종(高宗) 41년 갑인이다.

- ▶ 1권 總序 3번째 기사(목조가 알동 부근의 해도에 석성을 쌓아 소와 말을 방목하다)

幹東東南三十餘里, 有海島曰者考羅, 北連於陸. 穆祖築石城, 以放牛馬.

알동의 동남쪽 30여 리에 해도(海島)가 있는데, 자고라(者考羅)라고 한다. 북쪽으로 육지에 연하였는데, 목조가 석성을 쌓아 소와 말을 놓아 먹였다.

- ▶ 1권 總序 102번째 기사(황소들의 싸움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으나 태조가 소를 두 손으로 잡고 말리다)

太祖在咸州，有大牛相鬪，衆人止之不得，或脫衣或然火以投之，猶不能禁。太祖以兩手分持之，牛不能鬪。

태조가 함주(咸州)에 있을 때 큰 소가 서로 싸우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되지 않으므로, 혹은 옷을 벗고 혹은 불을 태워서 소에게 던졌으나, 그래도 저지되지 않는지라, 태조가 두 손으로 나누어 잡으니, 소가 능히 싸우지 못하였다.

▶ 1권 1년 8월 28일 丁丑

丁丑/上在平州，率行在群臣，服皇太子喪舉哀，留都各司亦於是日舉哀。權仲和齋禮部錄示喪制來：“一，服制合衰服，用麻布製造及用粗布製巾，裹于紗帽上，帶垂于後。麻經帶百日而除。一，停樂十三日，禁屠三日，停嫁娶一月，停大小祀十三日。”

임금이 평주(平州)에 있었는데, 행재소(行在所)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태자의 상복(喪服)을 입고 거애(擧哀)하였다. 서울에 있는 각 관사에서도 또한 이날에 거애하였다. 권중화(權仲和)가 예부(禮部)에서 기록해 보인 상제(喪制)를 가지고 왔는데,

1. 복제(服制)는, 쇠복(衰服)은 마포(麻布)를 써서 제조하고 또 조포(粗布)를 써서 제조하며, 건(巾)은 사모(紗帽) 위에 싸서 쓰게 하고, 띠[帶]는 뒤로 드리우게 하며, 마질대(麻經帶)는 백일 만에 벗게 하고,

1. 13일 동안 음악을 정지하고, 3일 동안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1개월 동안 시집가고 장가감을 정지하고, 13일 동안 대사(大祀)와 소사(小祀)를 정지하는 것이었다.

▶ 2권 1년 9월 24일 壬寅

壬寅/都評議使司裴克廉、趙浚等上言二十二條：

~중략~

一，才人禾尺，彼此流移，不事農業，未免飢寒，常聚爲盜，宰殺牛馬。所在州郡，籍其生口，使之土著爲農，違者罪之。

이하생략~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하였다.

~중략~

1.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상시 모여서 도적질하고 소와 말을 도살하게 되니, 그들이 있는 주군(州郡)에서는 그 사람들을 호적에 올려 토지에 안착(安着)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주게 할 것이며,

▶ 3권 2년 4월 16일 庚寅

西北面都巡問使趙溫報：“秦王府差人，爲易換牛隻，到義州。”命都承旨李稷，議於都評議使司，修撰秦府回答咨文以來。

서북면 도순문사(都巡問使) 조온(趙溫)이 보고하였다. “진왕부(秦王府)에서 사람을 보내어 소[牛]를 무역하기 위하여 의주(義州)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승지 이직(李稷)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에 의논해서 진왕부에 회답할 자문(咨文)을 지어 오게 하였다.

▶ 3권 2년 4월 17일 辛卯

命前密直權鈞，齎咨往見秦府人，辭以易換之難，仍送遺內醢、苧麻布。

전 밀직(密直) 권균(權鈞)에게 명하여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서 진왕부(秦王府)의 사람을 보고 소를 무역하기가 어려움을 말하게 하고, 이내 내온(內醢)과 저포(苧布)·마포(麻布)를 보내주었다.

▶ 5권 3년 1월 27일 丁卯

丁卯/遣判義興三軍府事鄭道傳，以太牢祭蠶。道傳及與祭將士，皆以鐵甲行祭。祭畢，千戶俞瑞鳳暴死。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정도전(鄭道傳)을 보내어 태뢰(太牢)로써 독(蠶)에 제사지 내게 하니, 도전(道傳)과 제사에 참여한 장사(將士)들이 모두 철갑(鐵甲) 차림으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천호(千戶) 유서봉(俞瑞鳳)이 갑자기 죽었다.

▶ 7권 4년 5월 15일 丁未

丁未/右道觀察使金希善報都評議使司曰：“喬東人前別將李堤妻，百丁曹長壽之女，嘗爲倭所虜，守節而死。宜旌表其閭。”使司以聞，上從之。

우도관찰사(右道觀察使) 김희선(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교동(喬東) 사람 전 별장(別將) 이제(李堤)의 아내는 백정(百丁) 조장수(曹長壽)의 딸로서 일찍이 왜구에게 사로잡혀 수절(守節)하고 죽었사오니, 그 여리(閭里)를 정표(旌表)하소서.” 사사(使司)에서 임금에게 주달하여 그대로 따랐다.

▶ 8권 4년 7월 13일 甲辰

遼東百戶夏質淪死鴨綠江. 質護送進馬使楊添植到義州, 買牛還渡江, 時水方漲, 至中江, 牛驚跌墮, 舟遂覆, 同舟者皆死.

요동 백호(遼東百戶) 하질(夏質)이 압록강에 빠져 죽었다. 질(質)은 진마사(進馬使) 양첨식(楊添植)을 호송하고 의주까지 이르렀다가 소를 사 가지고 돌아갔는데, 강을 건널 때 물이 한창 분는 판이라, 강 가운데서 소가 놀라 넘어져 빠지면서 배가 엎어졌다. 함께 탔던 사람들 모두 죽었다.

▶ 8권 4년 8월 15일 丙子

丙子/上召憲司掌務教曰: “京畿閑曠之地, 爲豪強所占, 或爲牧馬之所, 民之芻蕘者, 不得往焉, 又其禾穀爲牛馬踏損, 宜分遣監察禁之.” 於是監察金啞、金鑰爲左右道行臺.

임금이 헌사 장무(憲司掌務)를 불러 전교하였다. “경기(京畿)의 빈 땅은 토호(土豪)들의 강점(強占)한 바가 되고 혹은 목마지(牧馬地)가 되어, 백성들은 마소의 꼴도 베이러 갈 수 없는데다 또한 그들의 벗곡은 마소들의 밟히는 바가 되어 손실이 많다고 하니, 마땅히 감찰을 나누어 보내어 금하게 하라.” 이에 감찰 김질(金啞)과 김약(金鑰)을 좌·우도의 행대(行臺)로 삼았다.

▶ 8권 4년 12월 25일 甲寅

知益州事閔由義上請革淫祠、立家廟、畜雞豚、養老病、供祭祀, 禁僧寺役婢執饌, 禁才人禾尺流移, 籍口給田, 上曰: “此皆已有著令, 第不能舉行耳.” 令使司移牒各道.

지익주사(知益州事) 민유의(閔由義)가 음사(淫祠)를 헐어 버리고 가묘(家廟)를 세우며, 닭과 돼지를 쳐서 늙고 병든 사람을 봉양하고 제사에 이바지하게 하며, 절간[僧寺]에서 여종을 시켜서 반찬 장만하는 것을 금하고,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의 유이(流移)를 금하고 호적을 만들어 토지를 주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이미 만들어 놓은 법령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 있으나, 다만 거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사사(使司)로 하여금 각도에 이첩(移牒)하게 하라.”

▶ 13권 7년 3월 17일 甲子

命濟州歲貢馬一百匹、牛一百頭.

제주(濟州)에 명하여 세공마(歲貢馬) 1백 필과 소 1백 두(頭)를 바치게 하였다.

▶ 13권 7년 3월 22일 己巳

濟州畜馬點考使呂稱、監察朴安義等來獻牛馬籍. 馬四千四百十四匹, 牛一千九百十四頭.

제주(濟州)의 축마 점고사(畜馬點考使) 여칭(呂稱)과 감찰(監察) 박안의(朴安義) 등이 와서 우마(牛馬)의 장적(帳籍)을 바쳤는데, 말이 4천 4백 14필이고 소가 1천 9백 14두였다.

▶ 14권 7년 7월 26일 己亥

己亥/戶曹給田司上言: “前朝之季, 紀綱紊亂, 田制先毀, 豪强兼并, 骨肉相訟, 公私俱竭, 故於己巳年間, 京畿及五道田, 并行打量作丁. 然當其時, 算術未熟, 刻期畢事, 致有輕重失中, 或至遺漏, 濱海之地, 亦未及量. 乞分遣朝官與諸州守令踏驗, 令觀察使考察, 以千字字號作丁, 以收其稅. 兩界之田, 都巡問使亦以一牛日耕多少改量, 其守令及委差之官, 不肯用心踏驗者, 依戶律決罪, 罷職不敘. 都觀察使、都巡問使, 失於覺察者, 申聞論罪.” 上允之.

호조의 급전사(給田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기강(紀綱)이 문란하여 전제(田制)가 먼저 무너지니, 호강(豪强)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합치고, 부자 형제의 사이가 서로 송사(訟事)하여 국가와 민간이 모두 곤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기사년무렵에 경기(京畿)와 5도(道)의 전지(田地)를 모두 타산(打算)하여 정(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산하는 기술이 익숙하지 못하여 시기를 한정하여 일을 마치게 되매, 경중(輕重)이 적중(適中)하지 못하고 혹은 빠뜨린 것도 있게 되며, 바다 가까운 땅은 또한 미처 계량(計量)하지도 못하였으니, 원컨대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어 여러 고을 수령(守令)들과 더불어 답험(踏驗)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고찰(考察)하여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로써 정(丁)을 만들어 그 세

(稅)를 거두게 하고, 동서 양계(兩界)의 전지는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또한 소[牛] 하루같이 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고쳐 계량(計量)하게 하되, 그 수령(守令)과 사무를 맡은 관원이 마 음을 써서 답험(踏驗)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 사람은 호율(戶律)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서용(敍用)하지 않게 하며, 도관찰사(都觀察使)와 도순문사(都巡問使)로 각 찰(覺察)하지 않는 사람은 신문(申聞)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15권 7년 9월 12일 甲申

上自庚辰齋戒，丙戌，備法駕詣太廟幄次。丁亥，上親裸以告即位訖，出於幄次，受群臣賀，駕還坐正殿，頒教旨：

~중략~

一，私宰牛馬，當有禁令，宜令漢城府掌之。

이하생략~

임금이 경진일로부터 재계(齋戒)하고 병술일에 법가(法駕)를 갖추어 태묘(太廟)의 악차(幄次)에 나아갔다. 정해일에 임금이 친히 강신제(降神祭)를 지내어 왕위에 오른 일을 고하기를 마치고, 악차(幄次)에 나와서 여러 신하들의 하례(賀禮)를 받고, 어가(御駕)가 돌아와 정전(正殿)에 앉아서 교지(教旨)를 반포하였다.

~중략~

1. 사사로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은 마땅히 금령(禁令)이 있어야 될 것이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할 것이다.

이하생략~

▶ 15권 7년 12월 8일 庚戌

禁殺牛馬.

소와 말을 죽이는 것을 금지시키었다.

2. 定宗實錄

▶ 2권 1년 7월 15일 癸未

癸未/前江陵府使李曄戶牛一生二犢.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엽(李曄)의 집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 2권 1년 8월 8일 乙巳

頒宥旨：王若曰，

~중략~

一，牛以耕田，有功於人，屠殺之禁，已有著令，頑暴之徒，尙不畏法，私自屠殺．自今中外官司，嚴加禁斷，違者痛治．

이하생략~

유지(宥旨)를 반포하였다.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중략~

1. 소는 밭을 갈므로 사람에게 공이 있다. 도살(屠殺)의 금지는 이미 나타난 영갑(令甲)이 있는데도, 완악하고 포악한 무리가 오히려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사로이 도살하니, 이제부터는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서 엄하게 금단(禁斷)하여, 어기는 자는 엄격하게 다스리라.

이하생략~

▶ 3권 2년 3월 8일 癸酉

憲司請令司轡所預養牛馬，以備國用，毋得奪諸民間，從之．

헌사(憲司)에서 사련소(司轡所)로 하여금 소와 말을 미리 길러서 국용(國用)에 대비하게 하고, 민간의 것을 빼앗지 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5권 2년 7월 25일 戊子

立賤隸騎馬之禁. 門下府郎舍上疏曰:

京都, 乃朝廷百官之所處, 禮樂文物之所在, 而四方之所取則者也. 前朝之季, 紀綱陵夷, 禮制先壞, 富賈豪商、公私賤隸之徒, 乘肥衣輕, 交錯於朝路, 朝廷百官之儀始卑, 尊卑貴賤之等不明, 式至于今, 其弊尙存, 良可惜也. 《易》曰: “上天下澤, 《履》, 君子以, 辨上下, 宅民志.” 伏惟特命有司, 別時散各品之儀表, 定工商賤隸之服色, 使尊卑貴賤之分, 秩然有序, 不相紊亂. 其工商賤隸牧豎樵童及孝服之人, **於京都內, 毋得乘馬騎牛, 如有犯令者, 所騎牛馬沒官**, 決杖八十, 亦令朝士九品以上, 皆得捕獲, 毋或故縱, **其私奴僕所騎本主牛馬**, 則止罰其奴, 不許沒官, 公私賤隸雖有職者, 毋得騎馬, 定爲恒式. 各殿差備內僚六品以上, 不在此限.

천예(賤隸)가 말을 타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웠다. 문하부(門下府) 낭사(郎舍)에서 상소하였다.

“서울은 조정 백관이 있는 곳이요, 예악 문물이 소재(所在)한 곳이어서, 사방이 범받는 곳입니다. 고려 말년에 기강이 헤이하여져 예제(禮制)가 먼저 무너지니, 부고(富賈) 호상(豪商)과 공사(公私) 천례(賤隸)의 무리가 살찐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조관이 다니는 길[朝路]에 서로 섞여 다녀, 조정 백관의 위의(威儀)가 비로소 낮아지고 존비귀천(尊卑貴賤)의 등급이 밝지 못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폐단이 아직도 있으니, 참으로 가석한 일입니다.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위는 천(天)이고 아래는 택(澤)인 것이 이괘(履卦)이니, 군자(君子)가 그것을 써서 상하(上下)를 분별하고 백성의 뜻을 정(定)한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바라건대, 특별히 유사(有司)에 명하여 시직(時職)·산직(散職) 각품(各品)의 의표(儀表)를 구별하고, 공상(工商)·천례(賤隸)의 복색을 정하여, 존비귀천의 분수로 하여금 정연(整然)하게 차서(次序)가 있어 서로 문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공상·천례·목수(牧豎)·초동(樵童)과 상복(喪服) 입은 사람은, **서울 안에서 말을 타고 소를 타지 못하게 하며, 만일 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타고 있는 소와 말을 관가에 몰수하고**, 장(杖) 80대를 때리며, 또한 조사(朝士) 9품(品) 이상으로 하여금 모두 잡아서 혹시라도 고의로 놓아주지 말게 하며, **그 사사 노복(奴僕)이 타고 있는 것이 본주인의 소와 말이면**, 다만 그 종만 벌주고 관가에 몰수하지는 말며, 공사 천례는 비록 직책이 있는 자라도 말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항구한 법식을 정하소서. 각전(各殿)의 차비(差備)와 내료(內僚) 6품(品)이상은 이 한계에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6권 2년 11월 13일 癸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流吏曹議郎尹穆于大興。初穆爲辨定都監副使，同僚有被劾者，都監欲備酒肉以慰之。令史告穆曰：“肉未易得也。請買牛以宰。”穆許之，乃人之所竊牛也。被竊者以告，憲司劾而流之。

이조 의랑(吏曹議郎) 윤목(尹穆)을 대흥(大興)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윤목이 변정도감(辨定都監) 부사(副使)가 되었는데, 동료 가운데 탄핵을 당한 사람이 있어, 도감(都監)에서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위로하고자 하였다. 영사(令史)가 윤목에게 고하기를, “고기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소를 사서 잡기를 청하였으므로, 윤목이 허락하였는데, 그 소가 바로 남이 훔친 것이었다. 도둑맞은 자가 헌사(憲司)에 고하니, 탄핵하여 귀양보냈다.

3. 太宗實錄

▶ 3권 2년 2월 17일 庚午

與諸君射侯，中者賞之。賜 義安大君和水牛角，上黨君李佇箭箚，清平君李伯剛弓

여러 대군(大君)들과 함께 과녁[侯]을 쏘고, 맞힌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에게 수우각(水牛角)을,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에게 전통(箭箚)을,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에게 활을 내려 주었다.

▶ 5권 3년 6월 27일 癸酉

都城牛一產二犢，一牝一牡。

도성(都城) 안의 소가 한 번에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는데, 하나는 암놈이고, 하나는 숫놈이었다

▶ 7권 4년 4월 18일 戊子

戊子/朝廷使臣掌印司卿韓帖木兒、鴻臚寺序班鄔修〔鄔修〕、行人李榮等來.鄔修〔鄔修〕等齎禮部咨文至：

其一爲農政事. 永樂二年二月二十二日，本部尙書李至剛同工部尙書黃福等官，早朝於奉天門，欽奉聖旨：“近因建文不遵祖訓，擅起兵端，軍民多被擾害. 如今天下太平，軍民各安生業，但遼東少些牛用. 朝鮮國與遼東接境，多產牛隻. 恁禮部便差人去，說與朝鮮國王知道，着他選堪用的耕牛一萬隻，送付遼東都司. 每一頭絹一匹、布四匹，着二部運去遼東與他. 就着遼東都司於鎮遼千戶所立市，若(郝)〔那〕裏人要將物貨來做買賣的，聽從其便.” 欽此，除欽遵外，今將聖旨事意，備云移咨本國知會. 其一，爲進貢事. 近該朝鮮國咨，送火者三十五名，差司譯院副使康邦祐，管送赴京. 除中途病故二名外，見到羅萬等三十三名，進送內府收訖. 永樂二年二月二十三日，本部尙書李至剛等官，晚朝於右順門，題奏前因，奉聖旨是：“內中有不乾淨的，還教領回去. 說與國王，別選幾箇好的來.” 欽此，除今來使康邦祐領去外，(擬)〔宜〕合移咨本國，欽依施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조정 사신(朝廷使臣) 장인사경(掌印司卿) 한첩목아(韓帖木兒)·홍려시서반(鴻臚寺序班) 오수(吳修)·행인(行人) 이영(李榮) 등이 왔다. 오수 등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왔다.

“1. 농정(農政)을 위한 일. 영락 2년 2월 22일에 <명나라>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지강(李至剛)이 공부 상서(工部尙書) 황복(黃福) 등의 관원과 함께 봉천문(奉天門)에 일찍 조회(朝會)하여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였는데, ‘근자에 건문(建文)이 조훈(祖訓)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서 군사와 백성들이 많은 해(害)를 입었는데, 지금은 천하가 태평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각각 생업(生業)을 편히 한다. 다만 요동(遼東)에는 소[牛]가 적고, 조선국은 요동과 접경(接境)하여 소가 많이 나니, 너희 예부(禮部)는 사람을 보내어 조선 국왕에게 말하여 알려져서, 저들로 하여금 쓸 만한 경우(耕牛) 1만 필을 뽑아서 요동도사(遼東都司)에 보내게 하되, 소 한 마리에 견(絹) 한 필, 포(布) 4필로 하고, 그것을 2부(部)로 운반하여 요동으로 가서 요동도사에 넘기고, 진료(鎭遼) 천호소(千戶所)에 저자[市]를 세워, 만일 저쪽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매매하기를 요구하거든, 그 편의를 들어주라.’ 하였으므로, 그대로 흠준(欽遵)하는 외에 지금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본국(本國)에 이자(移咨)하여 알린다.

▶ 7권 4년 4월 19일 己丑

置進獻色, 掌牛隻易換事. 令中外時散各品隨品納牛, 有自願納牛者聽, 且令各道觀察使抄火者

진헌색(進獻色)을 두어 소를 바꾸는 일을 맡게 하고, 중외(中外)의 시산(時散) 각품(各品)으로 하여금 품등(品等)에 따라 소를 바치게 하고, 자원하여 소를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 주게 하고, 또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화자(火者)를 뽑게 하였다 .

▶ 7권 4년 4월 28일 戊戌

遣大護軍梅原渚, 押初運牛一千隻赴遼東

대호군(大護軍) 매원저(梅原渚)를 보내어 초운(初運)의 소(牛) 1천 필을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으로 가게 하였다.

▶ 7권 4년 5월 5일 乙巳

遣知司譯院事張洪壽, 押二運牛一千隻赴遼東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장홍수(張洪壽)를 보내어 이운(二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가지고 요동(遼東)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5월 11일 辛亥

遣奉常令僕耐, 押三運牛一千隻赴遼東

봉상 영(奉常令) 설내(僕耐)를 보내어 삼운(三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5월 16일 丙辰

遣司譯院判官吳義, 押四運牛一千隻赴遼東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오의(吳義)를 보내어 사운(四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5월 21일 辛酉

遣司譯院副使康邦祐, 押五運牛一千隻赴遼東

사역원 부사(司譯院副使) 강방우(康邦祐)를 보내어 오운(五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5월 26일 丙寅

遣司譯院判官林密, 押六運牛一千隻赴遼東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임밀(林密)을 보내어 육운(六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6월 1일 庚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庚午朔/遣副司直唐夢龍, 押七運牛一千隻赴遼東

부사직(副司直) 당몽룡(唐夢龍)을 보내어 칠운(七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6월 6일 乙亥

遣知司譯院事俞巨海, 押八運牛一千隻赴遼東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유거해(俞巨海)를 보내어 팔운(八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6월 11일 庚辰

遣司宰少監任君禮, 押九運牛一千隻赴遼東

사재소감(司宰少監) 임군례(任君禮)를 보내어 구운(九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6월 16일 乙酉

乙酉/遣司譯院判官姜庾卿, 押十運牛一千隻赴遼東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강유경(姜庾卿)을 보내어 십운(十運)의 소 1천 마리를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에 가게 하였다

▶ 7권 4년 6월 22일 辛卯

使臣楊進保、敖惟善、鄔修〔鄔修〕、李榮還京師，上出餞于迎賓館．遣判軍器監事郭海龍，齎朝廷易換牛一萬隻數目及十運管押人姓名奏本，隨使臣赴京

사신 양진보·오유선·오수·이영이 경사(京師)로 돌아가니, 임금이 영빈관(迎賓館)에 나가 전송하고,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곽해룡(郭海龍)을 보내어 조정(朝廷)에서 무역한 소 1만 마

리의 수목(數目)과 십운(十運)의 소를 관압(管押)한 사람의 성명(姓名)에 대한 주본(奏本)을
싸 가지고 사신을 따라 경사(京師)로 가게 하였다.

▶ 8권 4년 8월 20일 己丑

己丑/命議政府，議臺諫上疏以聞。司憲府上疏：

~중략~

一，京畿所仰司宰、繕工、司僕、乳牛所、東西瓦窰等各司納正炭、燒木、穀草及凡
輸納之物，監司守令，未能及時督納，乃當正農之時，稱爲未收，嚴急徵納，以廢農業，民
不聊生。

이하생략~

의정부에 명하여 대간(臺諫)에서 상소(上疏)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사헌부(司
憲府)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중략~

1. 경기(京畿)에서 받드는 바, 사재(司宰)·선공(繕工)·사복(司僕)·유우소(乳牛所)·동서 와요
(東西瓦窰) 등의 각사(各司)에 바치는 정탄(正炭)·소목(燒木)·곡초(穀草) 및 모든 수납(輸納)
하는 물건을 감사와 수령이 능히 시기에 미치도록 감독해 바치지 못하고서, 농사가 한창 바
쁜 때를 당하여 수납하지 못하였다고 칭(稱)하고 엄하게 급히 징수하여 바치므로, 농업을
폐하게 해서 백성들이 자퇴하여 생활하지 못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정탄(正炭)·소목(燒
木)·곡초(穀草) 및 각사에 바치는 공물은 1년 경비의 수(數)를 도합 계산하여, 반드시 추수
한 이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해 바치는 것을 끝내도록 하여서, 전의 폐단을 고칠 것
입니다.

이하생략~

▶ 8권 4년 9월 8일 丙午

知司譯院事張弘壽，押補數牛十八隻，赴遼東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장홍수(張弘壽)가 숫자를 보충하는 소 18마리를 압령(押領)하여
가지고 요동(遼東)으로 갔다

▶ 8권 4년 9월 19일 丁巳

議政府議各品陳言以聞：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중략~

一, 參知議政府事崔迨陳言內: “外方各道弓馬有能者, 皆屬甲士及侍衛, 才人、禾尺弓馬有能者, 亦屬侍衛, 其餘老弱, 屬於各鎮 又於老弱之中, 擇其善者, 加屬侍衛, 故藩鎮單弱之兵, 隨日減少. 萬有邊警, 爲將帥者, 能獨禦乎? 願自今, 才人禾尺輩, 皆屬各鎮, 以實藩兵.”

~중략~

一, 壽寧府司尹崔安濬陳言內: “京畿之民, 賦役倍於他道, 或值使臣之來, 奪其牛馬而殺之. 願自今, 畜養牛馬, 以供宴享, 毋奪於人, 以減民怨.”

의정부에서 각품(各品)의 진언(陳言)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중략~

1.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최이(崔迨)가 진언(陳言)한 것 가운데에, ‘외방(外方) 각도에서 활과 말에 능한 자는 모두 갑사(甲士)와 시위(侍衛)에 속(屬)하게 하고, 재인(才人)·화척(禾尺) 가운데 활과 말에 능한 자도 또한 시위에 속하게 하고, 그 나머지 노약(老弱)한 자는 각 진(鎭)에 속하게 하고서, 또 노약한 자 중에서 팬찮은 자를 골라 시위에 더 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번진(藩鎭)에는 단약(單弱)한 병사(兵士)가 날마다 감소하는데, 만일 변경(邊警)이 있다면, 장수(將帥)가 된 자가 능히 단독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재인(才人)·화척(禾尺)의 무리는 모두 각 진(鎭)에 속하게 하여 번병(藩兵)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 나머지 노약(老弱)한 자는 각 진(鎭)에 속하게 하고서, 또 노약한 자 중에서 팬찮은 자를 골라 시위에 더 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번진(藩鎭)에는 단약(單弱)한 병사(兵士)가 날마다 감소하는데, 만일 변경(邊警)이 있다면, 장수(將帥)가 된 자가 능히 단독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재인(才人)·화척(禾尺)의 무리는 모두 각 진(鎭)에 속하게 하여 번병(藩兵)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였고,

~중략~

1. 수녕부(壽寧府) 사윤(司尹) 최안준(崔安濬)이 진고(陳告)한 것 가운데에, ‘경기(京畿)의 백성은 부역(賦役)이 다른 도의 배나 되는데, 혹은 사신이 오는 때를 당하면, 그 우마(牛馬)를 빼앗아 죽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우마(牛馬)를 길러서 연향(宴享)에 이바지하게 하고, 인민(人民)에게서 빼앗지 말아서 백성의 원망을 줄이도록 하소서.’ 하였다.

▶ 8권 4년 11월 6일 甲辰

甲辰/朝廷使臣宦官劉璟、國子監丞王峻用, 奉勅書及賞賜來, 設山棚結綵備饗禮, 上率百官, 迎于宣義門外, 至無逸殿受賜. 勅書曰:

勅朝鮮國王李諱. 王遣使送耕牛一萬, 已至遼東. 王之忠誠, 良可嘉尚. 使回, 特賜王綵幣, 用答慰勸之意, 王其領之. 故勅. 紵絲三十四、

중국 사신 환관(宦官) 유경(劉璟)과 국자감(國子監) 승(丞) 왕준용(王峻用)이 칙서(勅書)와

상사(賞賜)를 받들고 오니, 산붕(山棚)을 설치하고 결채(結綵)하고 나례(讎禮)를 마련하고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여 무일전(無逸殿)에 이르러 그 주는 것을 받았다. 칙서(勅書)는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李)【휘(諱).】에게 칙유(勅諭)한다. 왕이 사신을 차견(差遣)하여 경우(耕牛) 1만 필을 보내어, 이미 요동(遼東)에 이르렀으니, 왕의 충성은 진실로 가상하다. 사신이 돌아가는 데 특별히 왕에게 채폐(綵幣)를 하사하여, 왕의 은근(愍歎)한 뜻에 보답하게 하니, 왕은 이를 수령(受領)하라. 고(故)로 칙유(勅諭)한다.”

▶ 9권 5년 1월 15일 壬子

流檢校參贊議政府事趙瑚于平州. 朝廷之易換牛隻也, 瑚借人牛而納之, 及其受價, 牛主累索之而不與. 牛主訴于司憲府, 瑚被劾而受祿, 故憲府請徵其祿而流之

검교 참찬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事) 조호(趙瑚)를 평주(平州)로 유배(流配)시켰다. 명나라[朝廷]에서 소[牛]를 무역할 적에 호(瑚)가 남의 소를 빌려서 바치고, 그 값을 받을 때에 소의 임자가 여러 번 값을 요구하여도 주지 아니하므로, 소의 임자가 사헌부(司憲府)에 고소하였다. 호(瑚)가 탄핵을 당하고도 녹(祿)을 받았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그 녹(祿)을 징수하고 유배(流配)하기를 청하였다

▶ 10권 5년 9월 18일 庚戌

初六日四更, 於午門外, 兵部尙書在朝房問曰: “恁那裏又有一箇宰相來, 怎麼句當來?” 對曰: “來的句當, 不知道.” 又問曰: “爲猛哥帖木兒的句當來, 猛哥帖木兒怎麼不來? 上位卽位之初, 誥命印章也與了, 上位好生, 重爾朝鮮, 一箇猛哥帖木兒留下, 做怎麼不送將來? 與將來的是那? 不與將來的是那? 爾心裏如何?” 對曰: “有聖旨的上頭去年, 一萬匹牛隻, 兩三箇月內, 準備送將來. 凡事盡心向上, 若要聖旨着落, 要呵一箇猛哥帖木兒, 怎麼不送將來? 猛哥帖木兒, 只怕他自家有緣故不來, 臣等不知道.”

초6일 4경(更)에 오문(午門) 밖에서 병부 상서(兵部尙書)가 조방(朝房)에 있으면서 묻기를, ‘네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의 재상이 왔는데, 무슨 일로 왔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은 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맹가첩목아의 일로 왔는데, 맹가첩목아는 어째서 오지 않았는가? 황제께서 즉위하시던 처음에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주셨으니, 황제께서 너희 조선을 지극히 중하게 여기신다. 한 개의 맹가첩목아를 머물러 두어서 무엇을 하려고 보내지 않는가? 보내는 것이 옳은가? 보내지 않는 것이 옳은가? 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성지(聖旨)가 있으므로, 전하께서 간 해에 1만 필의 소[牛]를 두석 달 동안에 준비하여 보냈으니,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을 다해 황제께 향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합니다. 이처럼 성지(聖旨)를 순(順)히 할진대, 한 개의 멍가첩목아를 어째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멍가첩목아는 다만 자기 자신의 연고가 있어 오지 않는 것이니, 신 등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 11권 6년 2월 18일 己卯

己卯/兀狄哈金文乃等，寇慶源之蘇多老，兵馬使朴齡擊却之。初，野人至慶源塞下，市鹽鐵牛馬。及大明立建州衛，以於虛出爲指揮，招諭野人，慶源絕不爲市，野人憤怒，建州人又激之，乃入慶源界抄掠。

울적합(兀狄哈) 김문내(金文乃) 등이 경원(慶源)의 소다로(蘇多老)를 침략하니, 병마사 박영(朴齡)이 격퇴시켰다. 처음에 야인(野人)들이 경원(慶源) 요새 아래에 이르러 소금[鹽]·철(鐵)과 소[牛]·말[馬] 등을 무역하였는데, 명나라에서 건주위(建州衛)를 세워, 어허출(於虛出)을 지휘(指揮)로 삼아 야인을 초유(招諭)함에 미치자, 경원에서 절교(絶交)하고 무역하지 아니하니, 야인들이 격분하여 원망하고, 건주(建州) 사람이 또 이를 부추겨서 경원(慶源) 지역에 들어와서 초략(抄掠)하였다.

▶ 11권 6년 4월 24일 甲申

申韃靼禾尺宰殺牛馬之禁.

달단(韃靼) 화척(禾尺)에게 소와 말을 잡는 것을 금하도록 거듭 밝혔다.

▶ 11권 6년 6월 5일 癸亥

西北面都巡問使趙璞，啓土官之制。啓曰：

平壤府司元數，相考其數，至六百餘人受祿，故近處各官及平壤府外村接白丁，請托受職，規免軍役.

~중략~

陳設署掌鋪陳，小府寺掌鋪陳，二司合爲一司。都津司掌牛馬屠剪，軍器寺掌軍器，將作寺掌營繕炭燒木，五部掌戶籍，典禮司掌祭祀禮樂，醫學院掌醫藥，諸學院掌學校，閱樂院掌音樂，迎送都監掌飯奉，東西大悲院掌病人，司醞署掌酒味，正設署掌宴享，太倉署掌倉庫，鹽店掌貢鹽，典廐署掌雞豚，大盈署掌府官米，典獄署掌刑獄，漏刻院掌更漏。已上都津司已下各司，仍舊何如？西班牙各司，更加詳定何如？啓下議政府。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조박(趙璞)이 토관(土官)의 제도를 계달(啓達)하였다. 계달(啓達)은 이러하였다.

“평양부사(平壤府司)의 원수(元數)를 상고하니, 그 수가 6백여 명이나 녹(祿)을 받는 데 이릅니다. 그러므로 근처 각 고을과 평양부의 외촌(外村)에 사는 백정(白丁)들까지 직임을 받기를 청탁하여, 군역(軍役)을 면하기를 꾀합니다.

~중략~

진설서(陳設署)가 포진(鋪陳)을 맡고, 소부시(小府寺)가 포진을 맡으니, 두 사(司)를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들고, 도진사(都津司)가 마소를 잡는 일을 맡고, 군기시(軍器寺)가 군기(軍器)를 맡고, 장작시(將作寺)가 영선(營繕)과 탄소목(炭燒木)을 맡고, 오부(五部)가 호적(戶籍)을 맡고, 전례사(典禮司)가 제사와 예악(禮樂)을 맡고, 의학원(醫學院)이 의약을 맡고, 제학원(諸學院)이 학교를 맡고, 열악원(閱樂院)이 음악을 맡고, 영송도감(迎送都監)이 반봉(飯奉)을 맡고,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이 병인(病人)을 맡고, 사온서(司醞署)가 술[酒味]을 맡고, 정설서(正設署)가 연향(宴享)을 맡고, 대창서(大倉署)가 창고를 맡고, 염점(鹽店)이 공염(貢鹽)을 맡고, 전구서(典廐署)가 닭과 돼지를 맡고, 대영서(大盈署)가 부관(府官)의 쌀을 맡고, 전옥서(典獄署)가 형옥(刑獄)을 맡고, 누각원(漏刻院)이 경루(更漏)를 맡는데, 이상 도진사(都津司) 이하 각사(各司)는 예전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반(西班)의 각사(各司)는 다시 상정(詳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계달한 것을 의정부에 내렸다.

▶ 12권 6년 8월 4일 庚寅

朝廷遣還西北面孟州人金遂. 初, 遂因牽易換牛隻至遼東, 托疾留連, 都司以無號牌, 執送京城, 帝有而還之

중국[朝廷]에서 서북면(西北面) 맹주(孟州) 사람 김수(金遂)를 돌려보내었다. 처음에 김수는 중국에 교역하는 소[牛隻]를 끌고 가는 것으로 인하여 요동(遼東)에 이르러 병을 핑계하여 머물러 있었는데, 요동도사(遼東都司)에서 호패(號牌)가 없다 하여 잡아서 명나라 서울[京城]로 보내니, 황제가 용서하여 돌려 보낸 것이다

▶ 12권 6년 12월 21일 丙午

日本國丹州守、肥州守, 遣使來獻蘇木胡椒玉帶槍劍水牛角等物.

일본국 단주수(丹州守)와 비주수(肥州守)가 사신을 보내어 소목(蘇木)·호초(胡椒)·옥대(玉帶)·창검(槍劍)·수우각(水牛角) 등의 물건을 바치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2권 6년 12월 22일 丁未

丁未/朝廷內史韓帖木兒·楊寧等來. 上以時服, 率百官出迎于盤松亭, 結山棚, 百戲前導, 至昌德宮. 帖木兒宣勅, 賜王珊瑚間茄藍香帽珠一串、紵絲三十四、熟絹三十四、象牙二隻、犀角二箇、《通鑑綱目》、《漢準》、《四書衍義》、《大學衍義》各一部、片腦·沈香·束香·檀香·蘇合油·白花蛇·朱砂·麝香·附子·金櫻子·肉蓯蓉·巴戟·當歸·乳香·沒藥·藿香·零陵香·甘松香等藥材十八味. 帝喜我進銅佛, 故有是賜.

조정(朝廷)의 내사(內史) 한첩목아(韓帖木兒)·양영(楊寧) 등이 오니, 임금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반송정(盤松亭)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산봉(山棚)을 베풀고, 백희(百戲)로 전도(前導)하여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렀다. 첩목아(帖木兒)가 조칙을 선포하고, 임금에게 산호간가람향모주(珊瑚間茄藍香帽珠) 1관(串), 저사(紵絲) 30필, 숙견(熟絹) 30필, 상아(象牙) 2척(隻), 서각(犀角) 2개, 《통감강목(通鑑綱目)》·《한준사서연의(漢準四書衍義)》·《대학연의(大學衍義)》 각 1부(部), 편뇌(片腦)·침향(沈香)·숙향(束香)·단향(檀香)·소합유(蘇合油)·백화사(白花蛇)·주사(朱砂)·사향(麝香)·부자(附子)·금앵자(金櫻子)·육종용(肉蓯蓉)·과극(巴戟)·당귀(當歸)·유향(乳香)·몰약(沒藥)·곽향(藿香)·영릉향(零陵香)·감송향(甘松香) 등의 약재(藥材) 18종[味]을 하사하였다. 이것은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동불(銅佛)을 바친 것을 기뻐하여 하사한 것이었다.

▶ 13권 7년 1월 19일 甲戌

領議政府事成石璘, 上書陳時務二十條, 命下議政府議得. 書曰:

~중략~

宰殺牛馬, 國有禁令, 有司痛行禁治, 其禾尺才人等, 專以宰殺爲生業. 宜令所在之處, 完聚存恤, 給田耕種, 使不離散. 此輩豈無用處!

政府議得: “右二條, 一依已曾受判內, 申明舉行何如?”

이하생략~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이 상서(上書)하여 시무(時務) 20조(條)를 진달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상서(上書)에 이르기를,

~중략~

1. 소와 말을 잡는 것은 나라에 금령(禁令)이 있으니, 유사(有司)가 엄하게 금하여 다스리고, 화척(禾尺)·재인(才人) 등이 도살(屠殺)로써 생업을 삼는 자는 마땅히 소재처(所在處)로 하여금 모아들여 구제(完聚存恤)하게 하되, 전지(田地)를 주어 경작하게 하여 이산(離散)하지 않게 하소서. 이들 무리인들 어찌 쓸 곳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條目)은 한 결 같이 일찍이 수판(受判)한 것에 의하여 거듭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이하생략~

▶ 14권 7년 8월 10일 辛卯

西北面行臺監察李有喜復命。有喜啓：“黃太監迎逢遼東軍人 散入義州村落，易換牛馬，或有抑賣者，前都巡問使呂稱、義州牧使辛有定等，不能禁抑。”

서북면(西北面) 행대 감찰(行臺監察) 이유희(李有喜)가 복명(復命)하였다. 유희가 아뢰었다. “황태감(黃太監)을 맞이하러 온 요동(遼東) 군인이 의주(義州) 촌락(村落)에 흩어져 들어와서 우마(牛馬)를 바꾸는데, 혹은 강제 매매를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전 도순문사(都巡問使) 여칭(呂稱)·의주목사(義州牧使) 신유정(辛有定) 등이 금지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 14권 7년 8월 11일 壬辰

下旨申明東西北面事宜：

西北面軍事，土官千戶依前例考察，民事則團練使考察。東西北面牛馬成籍，已有著令，無識之人，貪得價物，所有牛馬，盡數放賣，至偷他人牛馬，亦行放賣，時或宰殺，其弊不少。道內牛馬，並皆點考，火印改籍，故失牛馬及他處交易牛馬，其主人及各里色掌，輒以毛色告所在官，成籍施行；每年秋節，以營中火印差官，付送各州守令，一同點考火印。改成籍時，隱漏無火印牛馬、成籍後生長牛馬、他處交易及買賣時不進告者，其主論罪，牛馬沒官，里內色掌，並照律論罪。

교지(敎旨)를 내려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의 사의(事宜)를 거듭 밝혔다.

“서북면(西北面)의 군사의 일[軍事]은 토관(土官) 천호(千戶)가 전례대로 고찰하고, 민간의 일[民事]은 단련사(團練使)가 고찰하라. 동북면·서북면의 우마(牛馬)를 성적(成籍)하는 일은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물가(物價)를 얻기를 탐내어, 소유한 우마를 수대로 방매(放賣)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우마까지 훔쳐서 방매하며, 때로는 혹 잡아 먹기도 하여, 그 폐단이 작지 않으니, 도내(道內)의 우마를 일체 모두 점고하여 화인(火印)을 찍어 개적(改籍)하고, 고의로 없앤 우마와 다른 곳에 교역(交易)한 우마에 대해서는, 그 주인(主人)과 각리(各里)의 색장(色掌)이 곧 〈그 말의〉 모색(毛色)을 소재지(所在地)의 관가에 고하여 성적(成籍)해 시행하고, 매년 가을에 영중(營中)에 있는 화인(火印)을, 관원을 차출하여 각 고을 수령에게 부쳐 보내어, 한 결 같이 이를 점고(點考)해 화인을 찍도록 하고, 개적(改籍) 성적(成籍)할 때에 은루(隱漏)되어 화인(火印)이 없는 우마와 성적이 뒤엔 생장한 우마를 다른 곳에 교역(交易)하거나 매매할 때에 관가에 나와 고하지 않은 자는, 그 주인은 죄를 논하고 우마는 관가에 몰수하되, 이내(里內)의 색장(色掌)도 아울러 율(律)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비추어 논죄하라.”

▶ 14권 7년 10월 20일 庚子

司憲府請罷校書校理李簡職，不允。簡嘗知龍州事時，遼東軍散入境內，私易牛馬，不能禁約，遞任赴都。憲司請罪，上曰：“可依見任守令之例，決笞五十，復職。”

사헌부에서 교서 교리(校書校理) 이간(李簡)의 직을 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이간이 일찍이 지용주사(知龍州事)로 있을 때에 요동(遼東)의 군인이 경내(境內)에 흩어져 들어와서 사사노비 우마(牛馬)를 무역하여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임(遞任)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헌사(憲司)에서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임(現任) 수령(守令)의 예에 의하여 태(笞) 50을 때려 복직(復職)시키라.”

▶ 14권 7년 10월 24일 甲辰

甲辰/議政府進時務數條. 啓曰:

~중략~

又馬政，軍國所重，近來未嘗舉行，孳息鮮小，非惟不給國用，進獻之際，倍價貿易，猶且不足。乞依前朝過庭馬例，各道各官，殘盛分揀，種馬定數，以今革去寺社奴婢身貢及觀察使道公反物色與諸道入放牛隻之價交易，且刷濟州放牧官牛，有馬各戶，換易出陸。上項種馬及京外時散各品自願孳息馬匹，竝於京畿及外方各官水草好處，牧場排置合放，牧子定體看養，所在守令，兼責孳息之任，司僕寺官以時點考，觀察使於守令褒貶之時，并考種馬(孳)〔孳〕息多寡，以憑黜陟。”皆從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條目)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중략~

또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인데, 근래에 이를 거행(舉行)하지 아니하여 번식하는 것이 심히 적어서, 국용(國用)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헌(進獻)할 즈음에 값을 배(倍)로 하여 무역하여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빌건대, 전조(前朝)의 과정마(過庭馬)에 의하여, 각도 각 고을의 조잔(凋殘)하고 번성한 것을 분간하여 종마(種馬)의 수를 정해, 지금 혁거(革去)한 사사노비(寺社奴婢)의 신공(身貢)과 관찰사도(觀察使道)의 공반물색(公反物色)과 여러 도(道)의 입방(入放)한 우척(牛隻)의 값으로써 교역(交易)하고, 또 제주(濟州)의 방목(放牧)하는 관우(官牛)를 쇄출(刷出)하여, 말이 있는 각 호(戶)에서 말과 바꾸어 육지로 내오고, 위의 종마(種馬)와 외방의 시산(時散) 각품(各品)이 번식시키기를 자원하는 마필(馬匹)을, 모두 경기(京畿)와 외방(外方) 각 고을의 수초(水草)가 좋은 곳에 목장(牧場)을 배치하고, 목자(牧子)를 두어 체제(體制)를 정해서 돌보아 기르게 하되, 소재지의 수령(守令)이

번식시킬 책임을 겸하여 맡고,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때때로 점고(點考)하며, 관찰사가 수령을 포폄(褒貶)할 때에 종마(種馬)를 번식시킨 것이 많은가 적은 가를 아울러 상고하여, 출척(黜陟)에 빙거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16권 8년 10월 17일 辛卯

左小監祁保、禮部郎中林觀還，上餞于慕華樓。西北面都巡問使上言：

祁天使迎逢遼東軍官軍人，擅渡鴨綠江，留連義順館，謀欲貿易牛馬，或六七十名成群，非獨近處民戶，至於五六十里村落，乘夜橫行，抑賣強奪，無所不至。此而不禁，弊將無窮。今後一依都司差批約束，毋得擅渡鴨綠江，雖或渡江，毋得擅行里落作弊之事，乞速移咨都司，以憑禁約。

上曰：“可及黃天使迎逢軍官未到來之前，疾速移文都司知會。”

좌소감(左少監) 기보(祁保)와 예부 낭중(禮部郎中) 임관(林觀)이 돌아가므로, 임금이 모화루에서 전송하였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상언하기를, “기 천사(祁天使)를 영접(迎接)할 요동(遼東) 군관(軍官)과 군인(軍人)들이 마음대로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의순관(義順館)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마(牛馬)를 무역하려고 하여, 혹 6, 70명씩 떼를 지어 근처의 민호(民戶) 뿐만 아니라 5, 60리(里)나 되는 촌락(村落)에까지 이르러 밤을 틈타 횡행하며 억매(抑賣)·강탈(強奪)하여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폐단이 장차 무궁할 것입니다. 금후로는 한 결 같이 도사(都司)의 차비 약속(差批約束)에 의하여 마음대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비록 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촌락에 돌아다니며 폐단을 짓지 말게 하도록 빨리 도사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금약(禁約)에 빙거(憑據)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가급적 황 천사(黃天使)를 영접할 군관이 오기 전에 빨리 도사에 이문(移文)하여 알리라.”

▶ 17권 9년 윤4월 29일 辛未

兔山縣牛產二犢.

토산현(兔山縣)에서 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 18권 9년 7월 17일 丁亥

丁亥/西北面都巡問使，啓遼東軍人擾民之事。啓曰：“去年十一月，天使祁保迎逢遼東軍人，乘夜散入民戶，據給縣布，奪牛一百十六隻、馬八匹。及過江之日，經歷李漬告于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天使，俾還牛馬，天使許之。後遼東都司，索其價布一千一百三十四，牛馬之主，或見或隱。”上曰：“已見價布，速還都司，將其犯令放賣牛馬，沒於官。”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요동(遼東) 군인(軍人)이 백성을 침요(侵擾)하는 일을 아뢰었다. “지난해 11월에 천사(天使) 기보(祁保)를 영봉(迎逢)하기 위한 요동 군인들이 밤을 틈타 민가(民家)에 흩어져 들어가서 강제로 면포(縣布)를 주고 소 1백 16척(隻)과 말 8필(匹)을 빼앗았습니다. 강을 건너던 날에 경력(經歷) 이지(李漬)가 천사(天使)에게 고하여 우마(牛馬)를 되돌려 달라고 하니, 천사가 허락하였습니다. 뒤에 요동도사(遼東都司)에서 그 가포(價布) 1천 1백 30필을 찾는데, 우마의 주인이 혹은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숨기기도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나타난 가포(價布)는 빨리 요동도사로 돌려보내고, 영(令)을 범하여 방매(放賣)한 우마(牛馬)는 관가(官家)에 몰수하라.”

▶ 19권 10년 1월 28일 乙未

一，工不居肆，業不能專，故舊京之時，布帛毛革器皿冠服鞋靴鞭勒，分店大市，至市牛馬，亦有常所，其他米穀之類，則各於所居。自遷都以來，雜處雲從之街，男女無別，商賈混淆，窺覷幾隙，務相攘竊。願令京市署一依舊京之制。

1. 공장이[工]는 가게[肆]가 없고 업(業)이 전일(專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경(舊京)에 있을 때는 포백(布帛)·모혁(毛革)·기명(器皿)·관복(冠服)·혜화(鞋靴)·편록(鞭勒) 등을 점(店)으로 나누어 크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마(牛馬)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며, 기타 미곡(米穀) 등류에 있어서도 각각 사[居]는 곳에서 매매하였는데, 천도(遷都)한 이래로 운종가(雲從街)에 잡처(雜處)하여 남녀(男女)의 분별이 없고, 상고(商賈)가 혼잡(混雜)하여, 기회와 틈을 엿보아 서로 훔치고 도둑질하기를 힘쓰니, 원컨대,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한 걸 같이 구경(舊京)의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

▶ 19권 10년 2월 7일 甲辰

定市塵。大市，長通坊以上；米穀雜物，東部則蓮花洞口，南部則薰陶坊，西部惠政橋，北部安國坊，中部廣通橋；牛馬則長通坊下川邊；閭巷小市，各於所居門前。

시전(市塵)의 대시(大市)를 정하였으니, 장통방(長通坊) 윗쪽은 미곡(米穀)·잡물(雜物)로 하여, 동부(東部)는 연화 동구(蓮花洞口), 남부(南部)는 훈도방(薰陶坊), 서부(西部)는 혜정교(惠政橋), 북부(北部)는 안국방(安國坊), 중부(中部)는 광통교(廣通橋)에 이르게 하고, 우마(牛馬)는 장통방(長通坊) 아래 천변(川邊)으로 정하였으며, 여항(閭巷)의 작은 저자[小市]는 각기 사는 곳의 문전(門前)에서 행하게 하였다.

▶ 20권 10년 11월 2일 甲子

甲子/命時散二品及各司西班牙大護軍以上，各進通行楮貨條目，令議政府揀擇以聞。議政府啓各司陳言內可行條件：

~중략~

一，才人禾尺身貢及漁梁船稅，國用魚物外，皆以楮貨收納。

이하생략~

시직(時職)·산직(散職) 2품 및 각사(各司)의 서반(西班) 대호군(大護軍) 이상에게 명하여, 각각 저화(楮貨)를 통행시킬 조목(條目)을 진언(進言)하게 하고,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간택(揀擇)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각사(各司)의 진언(陳言) 중에 행할 만한 조건을 아뢰었다.

~중략~

1. 재인(才人)·화척(禾尺)의 신공(身貢)과 어량세(魚梁稅)·선세(船稅) 중에서 국용(國用)의 어물(魚物) 외에는 모두 저화로 수납할 것.

이하생략~

▶ 21권 11년 1월 3일 甲子

崙啓曰：“臣之孽子永從良之事，憲司以限年未呈郤之。乞命受理。”上特許之，命司憲府曰：“河永良賤事，汝等謂以限內未呈，不當受理，然永母之祖，於久遠帳籍，以白丁施行，五十年以後，乃以稜尺施行，則不無疑慮也。宜更辨正。”

하윤이 아뢰기를, “신의孽子(孽子) 하영(河永)에 대한 종량(從良)의 일은, 헌사(憲司)에서 한년(限年)에 신청(申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물리쳤사오니, 빌건대, 명하여 수리(受理)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고 사헌부(司憲府)에 명하기를, “하영(河永)의 양천(良賤)에 대한 일을 너희들이 기한 내에 신청(申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리(受理)하지 아니하나, 하영의 어미의 조(祖)는 오랜 장적(帳籍)에 백정(白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50년 이후부터 속척(稜尺)으로 시행되어 왔으니, 의심스런 생각이 없지 않다. 마땅히 다시 변경(辨正)하도록 하라.”

▶ 21권 11년 1월 11일 壬申

禮曹上書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臣等謹稽古典，周制，秋分日，享壽星于南郊；太宗伯祀日月星辰，實牲體於積薪之上，燔燎而升煙，所以報陽也。又漢以牛祀靈星。然則祀星辰用牛，古之制也。本朝於老人星祭用牛，取法古制也，尙循前朝之弊法，陳牛而不燔，甚非用牲之意也。宜放周制，燔牲升烟。

이하생략~

예조에서 상서(上書)하기를, “신 등이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니, 주(周)나라 제도에 추분(秋分)날 수성(壽星)에게 남교(南郊)에서 제사지냈는데, 태종백(太宗伯)이 일(日)·월(月)·성신(星辰)을 제사할 때, 그 생체(牲體)를 썰터미 위에 얹어 놓고 구워서, 그 연기가 오르게 하였으니, 양(陽)에 보답하는 소이(所以)라 하였습니다. 또 한(漢)나라에서 소[牛]를 가지고 영성(靈星)에 제사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성신(星辰)을 제사하는 데 소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노인성(老人星)을 제사하는 데 소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에서 그 법을 취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전조(前朝)의 폐법(弊法)을 따라 소를 진설(陳設)하기는 하나, 이를 굽지 아니하니, 희생(犧牲)을 사용하는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周)나라의 제도를 따라 희생을 구워서, 그 연기가 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 21권 11년 1월 12일 癸酉

西川君韓尙敬上言，請圓壇之祭，一依禮制，從之。圓壇無神廚齋宮，且祭天之牲，當用犢，今用老牛，皆不合禮，故尙敬請焉。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이 상언(上言)하여, 원단(圓壇)의 제사를 한 결 같이 예제(禮制)에 의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단(圓壇)에 신주(神廚)와 재궁(齋宮)이 없고, 또 하늘에 제사지내는 희생(犧牲)은 송아지[犢]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늙은 소를 쓰는 것은 모두 예(禮)에 맞지 아니한 까닭에, 한상경이 이를 청한 것이었다.

▶ 21권 11년 3월 17일 丁丑

丁丑/禮曹上圓壇祭儀。上書曰：

前朝《古今詳定錄》，圓壇周六丈高五尺，十有二陛三壇，每壇二十五步；周垣四門。燎壇廣一丈高一丈二尺，戶方六尺。宋哲宗既建齋宮，謂臣下曰：“青城之費，三十餘萬，工又倍之，易以屋室，一勞永逸，所省多矣。”《禮記》曰：“祭天地之牛角繭栗，在滌三月。”謹按圓壇之制，代各不同，前朝《古今詳定》，壇周六丈，國朝因之，天皇大帝五方五帝之位，皆在壇上，故陳設酌獻，周旋進退，有妨狹窄。依宋朝之制，參以前朝之法築

壇，縱廣七丈，十有二陛，下作三墼，周垣四門。於壇南丙地，築燎壇，廣一丈高一丈二尺，戶方六尺。又依宋制，作神廚齊宮；依《禮記》牲用犢，在滌三月，永以爲式何如？從之。

전조(前朝)의 《고금상정록(古今詳定錄)》에는 원단(圓壇)의 주위[周]가 6장(丈)이고, 높이가 5척에, 12폐(陛)·3유(三墼)로 되어 있는데, 매 유(墼)는 25보(步)이며, 둘러친 담장[周垣]에는 네 개의 문(門)이 있고, 그 요단(燎壇)은 너비[廣]가 1장(丈), 높이가 1장(丈) 2척(尺)이며, 지계문[戶]은 방(方)이 6척(尺)이었습니다. 송(宋)나라 철종(哲宗)이 재궁(齋宮)을 세우고 신하에게 이르기, ‘청성(靑城)의 비용이 30여 만(萬)에다, 공인(工人)이 또한 여기에 배(倍)나 된다. 이를 바꾸기를 가옥[屋室]으로 한다면, 한 번의 수고로 영구히 편안하게 될 것이다.’ 하였으니, 그 비용의 생략이 많을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牛]는 그 뿔이 건물(藋栗)과 같아야 하며, 3개월을 두고 씻어야 한다.’ 하였 습니다.

삼가 원단(圓壇)의 제도를 살펴보면, 세대(世代)마다 각기 같지 않았습니다. 전조(前朝)의 《고금상정(古今詳定)》에는 원단의 주위가 6장(丈)으로 되어 있는데, 국조(國朝)에서 이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황 대제(天皇大帝)와 오방 오제(五方五帝)의 신위(神位)가 모두 단상(壇上)에 있기 때문에, 진설(陳設)과 작헌(酌獻)할 적에 돌아다니고, 진퇴(進退)함에 있어, 매우 좁아서 해로움이 있습니다. 청건대, 송(宋)나라의 제도에 의하고, 전조(前朝)의 법을 참고하시어 단(壇)을 쌓으시되, 종광(縱廣)이 7장(丈)에, 12폐(陛)로 하고, 그 아래에 3유(墼)를 만들며, 둘레의 담[周垣]에는 4문(門)을 내고, 단(壇) 남쪽 병지(丙地)에 요단(燎壇)을 쌓되, 너비[廣]가 1장(丈), 높이가 1장(丈) 2척(尺)으로 하고, 지계문[戶]의 방(方)은 6척(尺)으로 하소서. 그리고 또, 송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신주(神廚)와 재궁(齋宮)을 지으시고, 《예기(禮記)》에 의하여 희생(犧牲)을 송아지[犢]로 쓰시되, 3개월 동안 씻게 하여, 이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1권 11년 5월 11일 辛未

又曰：

謹按周制，牧人掌牧六牲，以供祭祀之牲，授充人，殊別繫養三月；小祀之牲，使司門養之十日。擇牲之法，君召牛納而視之，擇其毛而卜之吉，然後養之。祭天地之牛，角藋栗；宗廟之牛，角握；賓客之牛，角尺。前朝《古今禮》，大祀之牲，預養九旬，中祀三旬，小祀一旬，此皆敬神之至也。本朝於祭前，未嘗預擇而殊養之，其不能肥腴蠲潔，可知矣。願自今，本曹官一員與監察一員，詣典廐署，視其毛角而擇之，其預養之法，一依古制。竝從之

“삼가 주(周)나라 제도를 살펴보니, 목인(牧人)이 육생(六牲)을 관장하여 길러서 제사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쓰는 희생(犧牲)을 이바지하게 하고, 이것을 충인(充人)에게 주어서 특별히 기르게 하고, 3월달 소사(小祀)에 쓰는 희생은 사문(司門)으로 하여금 10일간 기르게 하였으며, 희생을 택하는 방법은, 임금이 소[牛]를 불러들여 오게 하여 이를 보고, 그 털[毛]을 가려서 택하여 길(吉)한 뒤에야 <희생> 기르게 하였사온데,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쓰고, 종묘(宗廟)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한 줌[握]차야 하고, 빈객(賓客)에게 쓰는 소는 그 뿔이 한 자[尺]쯤 되어야 합니다. 전조(前朝)의 《고금례(古今禮)》에 의하면, ‘대사(大祀)의 희생은 미리 90일 동안 기르고, 중사(中祀)의 희생은 30일 동안 기르며, 소사(小祀)의 희생은 10일 동안 기른다.’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神)을 공경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우리 조정[本朝]에서는 제사(祭祀) 전에 일찍이 미리 선택하여 특별히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찌고 깨끗할 수 없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본조(本曹)의 관원(官員) 한 사람과 감찰(監察) 한 사람이 함께 전구서(典廐署)에 나아가 그 털[毛]와 뿔[角]을 보고 선택하게 하시고, 제사 전에 미리 기르는 방법도 한 걸 같이 옛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2권 11년 8월 8일 丁酉

慶尙道安東民家, 有牴牛一產三犢.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 민가에 암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세 마리를 낳았다

▶ 22권 11년 10월 17일 乙巳

四曰, 宰牛之禁, 已載《六典》, 然而禾尺屯處僻地, 不事農務, 以業宰殺, 醜惡之風, 世久不變, 良由別處成屯, 自相婚嫁之致. 然其在永樂七年, 令雜處平民禁自相婚嫁, 已曾教下, 至今廢閣. 乞依前降條畫, 籍其戶數, 分出雜處, 與民婚嫁, 其自相婚嫁者, 離異論罪.

~중략~

下議政府議得: 中外禁酒, 來壬辰年爲始, 如疏施行. 禾尺之事, 亦以明年爲始, 都城三舍外移置, 申嚴禁殺, 違者依《六典》治罪. 京中五部官吏、各坊管領及外方各官守令、各里正長, 不能考察, 竝皆按律科斷. 從之.

넷째는 이리하였다.

“소[牛]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화척(禾尺)이 궁벽한 땅에 둔취(屯聚)하여 살아서 농업을 일삼지 않고 도살하는 것으로 업을 삼아 추악한 풍속이 여러 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서 부락을 이루어 저희끼리 서로 혼인

하기 때문입니다. 영락(永樂) 7년에 평민과 섞여 살게 하여 저희끼리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여 일찍이 교하(敎下)하였는데, 지금까지 폐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전에 내린 조획(條畫)에 의하여 그 호수(戶數)를 성적(成籍)하여, 나누어 나와서 섞여 살아서 백성과 더불어 혼인하고 저희끼리 서로 혼인한 자는 이이(離異)시키어 논죄하소서.”

~중략~

의정부(議政府)에 내리니, 의논하였다. “안팎에 술을 금하는 것은 오는 임진년부터 시작하여 소(疏)와 같이 시행하고, 화척(禾尺)의 일은 또한 명년부터 시작하여 도성(都城) 90리(里) 밖에 옮겨 두고, 도살을 금하는 것을 거듭 엄하게 하고 여기는 자는 《육전(六典)》에 의하여 치죄하고, 서울 안의 오부(五部) 관리(官吏)·각방(各坊)의 관령(管領)·외방(外方)의 각관수령(各官守令)·각리 정장(各里正長)으로서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율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23권 12년 2월 15일 庚午

又啓：“東西兩界之民，毋得與境外之人賣牛馬，曾有著令，無識之民，暗行買賣。自今犯者及官吏與把截人，知而故縱者、通同做賣者、隱匿不告者，乞重刑鑑後。”皆從之。

또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백성이 국경 밖의 사람과 우마(牛馬)를 매매하지 말라는 것은 일찍부터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도, 무식한 백성들이 비밀히 매매를 행합니다. 이제부터 범(犯)하는 자와 관리(官吏) 및 파절인(把截人)으로서 알면서 고의로 놓아준 자와 동모하여 매매를 주선한 자와 숨겨두고 고발하지 않은 자는, 빌건대, 중하게 형벌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모두 그대로 따랐다.

▶ 23권 12년 2월 20일 乙亥

議政府進水牛角十六隻.

의정부(議政府)에서 수우각(水牛角)16척(隻)을 바치었다.

▶ 23권 12년 5월 7일 庚寅

震人四牛三. 白州人申元·白同、延安人其每、永平人他乃及大牛二、喬桐人崔乙珍家大牛也.

사람 4인과 소 3 두가 벼락을 맞았는데, 배주(白州) 사람 신원(申元)·백동(白同), 연안(延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安) 사람 기매(其每), 영평(永平) 사람 타내(他乃)와 큰 소 2두, 교동(喬桐) 사람 최을진(崔乙珍)의 큰 소이었다.

▶ 23권 12년 4월 3일 丁巳

立西北面路引法. 議政府上言:

西北面都巡問使報: “遼東軍人到鴨綠江, 本國人民將牛馬放賣, 已有條禁, 故道內編戶牛馬, 烙印付籍, 以憑考察, 尙憂他道人民, 因父母族親相見, 往來買賣, 無憑可考. 自今皆受所在官司文憑, 所賣物貨, 一一施行, 以爲路引, 來付都巡問使, 置簿傳錄, 仍於本文背書印押. 其無文憑者, 比擬境外人相和買賣條論罪.” 本府議得: 京中留後司兩界往來者, 如呈施行; 兩界之民, 自相往來者, 亦依上例施行; 其無路引者, 杖八十, 所賣物沒官, 告者充賞.

서북면(西北面)의 노인법(路引法)을 세웠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보고하기를, ‘요동(遼東) 군인이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면 본국 인민이 우마(牛馬)를 매매하는 것을 이미 조령(條令)으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내 편호(編戶)의 우마에 낙인(烙印)을 찍어 장적(帳籍)에 올려서 고찰에 빙거하게 하였으나,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다른 도(道)의 인민이 부모·족친과 서로 만나보는 것으로 인하여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고찰할 만한 빙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두 소재(所在)한 관사(官司)에서 문빙(文憑)을 받되 싸 가지고 왕래하는 물화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노인(路引)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도순문사(都巡問使)에게 교부하면, 장부에 옮겨 기록하고 본문(本文)에 배서(背書)하여 인(印)을 누르게 하며 문빙(文憑)이 없는 자는 지경 밖의 사람이 서로 매매하는 조령에 의준하여 논죄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의논하여 정하기를, 서울과 유후사(留後司)에서 양계(兩界)에 왕래하는 자는 정문(呈文)과 같이 시행하고, 양계 백성이 서로 왕래하는 자도 또한 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고, 노인(路引)이 없는 자는 장(杖) 80대를 때리고 싸 가지고 있는 물건은 관가에 몰수하여 고한 자에게 상으로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24권 12년 7월 24일 丁未

全羅道順天府有牛生犢, 四耳, 十日生角.

전라도 순천부(順天府)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귀가 넷이고 10일 만에 뿔[角]이 났다.

▶ 25권 13년 1월 21일 辛丑

禮曹上宗廟社稷祭用牲之制：“宗廟用牛羊豕，社稷只用牛豕，先農先蠶只用豕。請自今依古制，社稷先農先蠶，並皆用羊。”從之

예조에서 종묘·사직제의 희생을 쓰는 제도[用牲之制]를 올리었다.

“종묘에서는 소·양·돼지를 쓰고, 사직에서는 소·돼지만을 쓰고, 선농(先農)·선잠(先蠶)에서는 돼지만을 썼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고제(古制)에 의하여 사직·선농·선잠에서도 모두 양을 쓰게 하소서.”

▶ 25권 13년 3월 4일 癸未

命沔城君韓珪，以甲士五百人，往田于廣州。仍傳旨于廣州曰：“才人禾尺，無遺聚會待令。”蓋欲奉上王觀獵也。

명하여 면성군(沔城君) 한규(韓珪)에게 갑사(甲士) 5백 인으로써 광주(廣州)에 가서 사냥하게 하고, 이어서 광주에 전지(傳旨)하기를, “재인(才人)·화척(禾尺)을 빠짐 없이 모아놓고 대령(待令)하라.”하니, 대개 상왕(上王)을 받들고 사냥을 구경하고자 함이었다.

▶ 25권 13년 3월 23일 壬寅

命朝廷使臣護送軍，除牛馬外，十升以下苧麻布人蓼皮物，許行貿易。從西北面都巡問使之報也。

명하여 조정 사신의 호송군(護送軍)에게 우마(牛馬)를 제외한 10새[升] 이하의 저포(苧布)·마포(麻布)와 인삼(人蓼)·피물(皮物)의 무역을 행하도록 허가(許可)하니, 서북면 도순문사의 보고를 따른 것이었다.

▶ 25권 13년 5월 9일 丁亥

議政府上畜馬事宜。啓：“各道分養孳息駒馬，共一百九十四匹，乞充內廐。”上曰：“或告予曰：‘亦宜畜牛，以供國用。’予欲以此馬易牛而畜之，可乎？”政府啓曰：“犧牲與乳牛有乏，則或取用於民間，多畜牛，最是美法。願擇良馬，以充內廐，餘皆易牛便。”從之。

의정부에서 축마(畜馬)의 사의(事宜)를 올리고 아뢰었다. “각도에서 나누어 기르는 번식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킨 구마(駒馬)가 모두 1백 94필(匹)이니, 바라건대, 내구(內廐)에 충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소[牛]도 길러서 국용(國用)에 이바지함이 마땅하다.’고 하니, 내가 이 말[馬]을 가지고 소로 바꾸어 기르고자 하는데, 그래도 좋겠는가?” 정부에서 아뢰었다. “희생(犧牲)과 유우(乳牛)가 떨어지면 혹 민가에서 가져다 쓰는데, 많이 소를 기르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원컨대, 양마(良馬)를 택하여 내구에 충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로 바꾸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26권 13년 8월 21일 丁卯

前仁寧府司尹黃子厚, 請行號牌之法. 上言: “國家雖令才人禾尺之徒, 毋得流移, 然未有號牌, 故移徙無常, 不事農業. 願自今, 非惟此徒, 且於凡民, 皆給號牌.”

전 인녕부 사윤(仁寧府司尹) 황자후(黃子厚)가 호패(號牌)의 법을 행하도록 청하였다. 상언(上言)하기를, “국가에서 비록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의 무리들로 하여금 유이(流移)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호패가 있지 않은 까닭으로 이사하는 것이 무상하고 농업을 일삼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비단 이러한 무리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호패를 지급하소서.” 하였다.

▶ 26권 13년 9월 16일 壬辰

命忠淸、慶尙、全羅道, 抄送驅軍. 上聞任實縣地禽獸之多, 欲巡幸也. 慶尙、忠淸道各一千名, 全羅道二千名, 本月二十四日, 期會錦州南濟院, 各齎十日糧. 全羅道則才人禾尺及各鎮番上軍官與番下侍衛軍, 盡數抄送.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명하여 구군(驅軍)을 뽑아 보내게 하였다. 임금이 임실현(任實縣) 지방에 금수(禽獸)가 많다는 말을 듣고 순행(巡幸)하고자 하여, 경상도·충청도에서 각각 1천 명씩과 전라도에서 2천 명을 본월 24일에 금주(錦州) 남제원(南濟院)에 모이도록 기약하였는데, 각각 10일 양식을 싸 오게 하였다. 전라도에서는 재인(才人)·화척(禾尺)과 각진(各鎭)의 번상(番上)한 군관(軍官)과 번하(番下)한 시위군(侍衛軍)을 전부 다 뽑아 보냈다.

▶ 27권 14년 6월 3일 甲辰

甲辰/傳旨全羅道觀察使, 進雲峰縣禾尺黑馬, 聞其良也.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운봉현(雲峯縣) 화척(禾尺)의 흑마(黑馬)를 바쳐라!” 하였으니, 그것이 양마(良馬)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 27권 14년 6월 13일 甲寅

豐海道都觀察使李垠啓禾尺才人納貢之法. 啓曰: “禾尺等曾不務農, 游手而食. 國家欲革其弊, 才人則貢楮貨五十張, 禾尺則貢楮貨三十張, 納于內資寺. 今則與平民雜居, 皆從軍役, 願除其貢, 以厚其生.” 上曰: “可.” 李膺駁之曰: “此人等貢于內資久矣, 不可遽革.” 韓尙德曰: “其中事農業付軍役者, 蠲免其貢何如?” 上曰: “此言誠是也.” 遂下敎施行.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 이은(李垠)이 화척(禾尺)과 재인(才人)의 납공(納貢)하는 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화척(禾尺) 등은 일찍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유수(游手)로서 먹으므로 국가에서 그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재인(才人)은 저화(楮貨) 50장(張)을, 화척(禾尺)은 저화 30장을 세공(稅貢)으로 내자시(內資寺)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민(平民)과 더불어 잡거(雜居)하고, 모두 군역(軍役)에 종사하니, 원컨대, 세공을 면제하여 생활을 후하게 하소서.” 임금이, “가(可)하다.”

이응(李膺)이 이에 반박하였다. “이들은 내자시(內資寺)에 납공(納貢)한 지 오래 되었으니, 갑자기 개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한상덕(韓尙德)이 “그 중에서 농업(農業)에 종사하고 군역(軍役)에 붙인 자는 그 세공을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 말이 참으로 옳다.” 하고, 드디어 하교(下敎)하여 시행하였다.

▶ 28권 14년 閏9월 3일 癸卯

癸卯/講武于江原道, 唯知申事李灌、左代言柳思訥從行, 二品以上亦不過二十, 侍衛及支應諸事, 皆從簡約. 上曰: “毋令弊及農民.” 發軍器監屬雜色軍丁、侍衛軍隊長隊副, 京畿當領船軍、才人、禾尺, 以充驅軍, 凡五千名.

강원도에서 강무(講武)하였다. 오로지 지신사(知申事) 이관(李灌)·좌대언(左代言) 유사눌(柳思訥)만이 따라갔고, 2품 이상도 또한 20명에 지나지 않았고, 시위(侍衛)하고 지응(支應)하는 여러가지 일도 모두 간약(簡約)한 데 따랐다. 임금이, “폐(弊)가 농민에게 미치지 말도록 하라.” 하여, 군기감(軍器監)에 소속한 잡색 군정(雜色軍丁) 시위군(侍衛軍)의 대장(隊長)·대부(隊副), 경기의 당령 선군(當領船軍)·재인(才人)·화척(禾尺)을 징발하여 구군(驅軍)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5천 명이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29권 15년 2월 29일 丁酉

丁酉/還宮. 兵曹啓曰: “衝突儀仗, 載在律文. 自今行在宿所、晝停所及路次儀仗內, 有突入人, 則其司禁、內禁衛、內侍衛、別侍衛鎮撫、步牌、槍牌、甲士等, 以教旨不從論; 忠扈衛、司饗房、司僕寺、乳牛所官員、諸員及洗手間別監, 容置雜人而不告, 亦依上論罪.” 從之.

임금이 환궁하였다. 병조에서 아뢰었다. “의장(儀仗)에 충돌(衝突)하는 죄는 율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행재숙소(行在宿所)와 주정소(晝停所) 및 노차(路次)의 의장 안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금위(司禁衛)·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별시위(別侍衛)의 진무(鎭撫)·보패(步牌)·창패(槍牌)·갑사(甲士) 등은 교지(教旨)를 따르지 않은 죄로 논하고, 충호위(忠扈衛)·사옹방(司饗房)·사복시(司僕寺)·유우소(乳牛所)의 관원(官員)·제원(諸員)과 세수간 별감(洗手間別監)은 잡인(雜人)을 용납해 두고 고하지 않는 경우도 또한 위의 것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29권 15년 3월 8일 丙午

丙午/議政府、六曹議啓和人心條目:

一, 二品已上婢妾所生, 已蒙上許限品受職, 三品已下婢妾所生, 未蒙并許. 三品所生限六品, 四品所生限七品, 五六品所生限八品, 七八品所生限九品, 九品權務所生限學生, 庶人所生限白丁, 以辛丑年後, 當身故者子孫及辛丑年前, 從良受職有明文者之子孫, 皆許稱爲限品子孫, 以立軍役. 上項各品賤妾子孫所生, 能自贖身者, 亦依上項例立軍役. 有以祖父母骨肉, 甘心役使, 不爲現告者, 許諸人陳告, 以其祖父母傳來奴婢, 一半告者充賞, 一半屬公.

이하생략~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인심을 화합하게 하는 조목을 아뢰었다. “1. 2품(品) 이상의 비첩(婢妾) 소생(所生)은 이미 성상의 윤허를 받아 한품(限品) 수직(受職)하였습지만, 3품 이하의 비첩 소생은 아직도 아울러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품 소생은 6품에 한하고, 4품 소생은 7품에 한하고, 5,6품 소생은 8품에 한하고, 7, 8품 소생은 9품에 한하고, 9품 권무(權務)의 소생은 학생(學生)에 한하고, 서인(庶人)의 소생은 백정(白丁)에 한하고, 신축년 뒤에 당사자가 죽은 자의 자손과 신축년 전에 양민(良民)이 되어 직첩(職牒)을 받은 자로서 명문(明文)이 있는 자의 자손을 모두 ‘한품 자손(限品子孫)’이라고 칭하는 것을 허용하여 군역(軍役)에 세우며, 윗 조목의 각 품관의 친척 자손의 소생으로 스스로 속신(贖身)할 수 있는 자도 윗 항목의 예에 의하여 군역에 세우며, 조부모의 골육(骨肉)을 역사(役事)시키기를 달갑게 여겨 현신(現身)하여 고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용하여, 그 조부모 전래의 노비를 한 반은 진고한 자에 상으로 충당하여 주고, 한 반은 속공(屬

公)하소서.
이하생략~

▶ 29권 15년 4월 6일 癸酉

濟昌縣金陽德家牛一產二犢.

제창현(濟昌縣)의 김양덕(金陽德) 집의 소가 한꺼번에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 29권 15년 5월 6일 壬寅

安東府官奴家牛一產二犢.

안동부(安東府) 관노(官奴)의 집에서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 29권 15년 6월 5일 庚午

其三，宰牛曾有禁令，比來宰殺尤甚。有能捕告者，將犯人家產充賞。大小人員毋得食牛肉，違者論罪。自死之肉，京中漢城府著稅，外方則受官司明文後，方許買賣，違者，亦依律論罪。

셋째, 소[牛]의 도살(屠殺)은 금령(禁令)이 있는데, 근래에 도살이 더욱 심하니, 이를 붙잡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범인의 가산(家產)을 상(賞)으로 충당하고, 대소 인원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논죄(論罪)하소서. 그리고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경중(京中)은 한성부에서 세(稅)를 매기고, 외방(外方)은 관사(官司)의 명문(明文)을 받은 뒤에 그 매매(賣買)를 허락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또한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 29권 15년 8월 23일 丁亥

減乳牛所車牛之半.

유우소(乳牛所)의 거우(車牛)의 반을 감하였다.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30권 15년 11월 15일 戊申

京畿都觀察使許遲上救荒事目，下六曹擬議。啓曰：“考飢民年例徭役，比他道倍多，況以今年固難支辦。司僕、乳牛所、禮賓、典廐、菜園、氷庫、牧監各處納藁草，三萬九千五百餘同，依教旨，失農尤甚喬桐、通津等九縣除免外，其餘各官分定，草數倍加於前，又各官所受牛馬養飼藁草，皆斂於民。自來二月至四月，上項各處所納藁草，乞於忠淸、江原水邊不失農各官，限今年移定何如？”

이하생략~

경기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허지(許遲)가 구황 사목(救荒事目)을 올렸는데,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굶주린 백성의 연례 요역(徭役)을 상고하면 다른 도에 비하여 배나 많은데, 하물며 금년에는 참으로 지판(支辦)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복시(司僕寺)·유우소(乳牛所)·예빈시(禮賓寺)·진구서(典廐署)·채원(菜園)·빙고(氷庫)·목(牧)·감(監) 각처에 바치는 짚[藁]이 3만 9천 5백여 동인데, 교지(教旨)에 의하여 실농이 더욱 심한 교동(喬桐)·통진(通津) 등 9현(縣)을 면제한 외에 그 나머지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한 짚의 수량이 전의 배가 더합니다. 또 각 고을에서 받는 우마를 기르는 짚을 모두 백성에게 거두니,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위의 항목의 각처에 바치는 짚을, 빌건대, 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 물가의 실농하지 않은 각 고을에 금년만 한하여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하생략~

▶ 31권 16년 3월 10일 壬寅

命減各殿供上漣酪，其餘諸處漣酪皆除之，因減乳牛而牧于長豐島，其取漣之馬，盡放于壺串，蓋以年饑省費也。

명하여 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던 종락(漣酪)을 감하고, 그 나머지 여러 곳의 종락은 모두 없애게 하였다. 인하여 젖소[乳牛]를 줄이어서 장풍도(長豐島)에서 치게 하고, 젖을 짜던 말도 다 호곶이[壺串]에서 방목하게 하니, 대체로 연시(年時)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인 것이다.

▶ 32권 16년 9월 8일 丙申

命乳牛所復進酪.

유우소(乳牛所)에 다시 낙(酪)을 바치라고 명하였다.

▶ 33권 17년 2월 4일 辛酉

豐海道船軍李哲家牛一乳三犢.

풍해도(豐海道)의 선군(船軍) 이철(李哲)의 집에서 기르는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3마리를 낳았다.

▶ 33권 17년 2월 5일 壬戌

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產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口, 男女并八十六. 麟雨之往還也, 再逢颶風, 僅得其生.

안무사(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土產物)인 대죽(大竹)·수우피(水牛皮)·생저(生苧)·면자(綿子)·검박목(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戶]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김인우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두 번이나 태풍(颶風)을 만나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 33권 17년 4월 15일 辛未

咸吉道都巡問使進東寧衛百戶金用貴所用木牌, 命藏之承文院. 都巡問使啓曰: “月初六日, 百姓廉生進告云: ‘以田獵事到甘音洞, 見東寧衛百戶金用貴、小旗劉案等六名于路中, 用貴等曰: 『內官張童兒、陳指揮奉聖旨, 率軍馬一千名, 以白頭山寺丹青事, 去正月十九日, 遼東離發, 彼土所何江邊來到, 造木寨營倉庫十二間, 輸入軍餽, 先送軍馬五百于山間, 其餘軍馬則留待雪消, 四月望時入來.』 因此過夏, 驢及農牛草地放牧事言之, 授我木牌而還.’ 今將木牌上送.”

함길도도순문사(咸吉道都巡問使)가 동녕위 백호(東寧衛百戶) 김용귀(金用貴)가 쓰던 목패(木牌)를 올리니, 명하여 승문원(承文院)에 간직하게 하였다. 도순문사가 아뢰었다.

“이달 초6일에 백성 염생(廉生)이 나아와 고(告)하기를, ‘전렵(田獵)의 일로 감음동(甘音洞)에 이르렀더니, 동녕위 백호(東寧衛百戶) 김용귀(金用貴), 소기(小旗) 유안(劉案) 등 6명을 길 가운데서 만났는데, 김용귀 등이 말하기를, 『내관(內官) 장동아(張童兒)와 진지휘(陳指揮)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군마(軍馬) 1천을 거느리고 백두산(白頭山)의 절[寺]을 단청(丹青)하는 일로 지난 정월 19일 요동(遼東)을 떠나, 저들의 땅인 소하강변(所何江邊)에 와서 목채(木寨)를 만들고 창고(倉庫) 12간(間)을 지었으며, 군량을 실어들이고 먼저 군마(軍馬) 5백을 산간(山間)에 보내었다. 그 나머지 군마(軍馬)는 머물러 눈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4월 보름에 들어오니 이 일 때문에 여름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나귀[驢]와 농우(農牛)를 초지(草地)에 놓아 먹이라.」는 일을 말하고, 나에게 목패(木牌)를 주고 갔습니다.’하기에, 이제 목패를 올려 보냅니다.”

▶ 33권 17년 5월 30일 乙卯

姜淮仲報云：“五月二十三日，鏡城出來摠旗修阿里答、童不花等二十名言內，內使張信齎陪聖旨，丙申十一月十四日，到遼東，率軍馬一千五百名，正月十九日離發，三月二十九日到羅延，置木柵造倉庫，輸入糧料後，擔來軍人隨即還送。千戶石脫里率軍人五百、農牛一百六十隻，亦於羅延等地農作。張信又率兵馬一千，四月十七日離發，二十八日到南羅耳，斫材木，令曰：‘毋令近地接兀良哈及朝鮮人等驚動。’又欲以元朝時，松骨鷹子所獲處吉州阿看、吾甫伊、西之委等地，沙所坐基趾看審爲意，乃率南羅耳接千戶羅吾、阿多毛等二人，指路而來事。’傳通。然西之委等處，鏡城初面二三日程途，不宜出送。且阿看等處，民多居生，以在前松骨捉得事，未聞爲對。”

姜淮중(姜淮仲)의 보고는 이러하였다.

“5월 23일에 경성(鏡城)으로 나온 총기(摠旗) 동아리답(修阿里答)·동불화(童不花) 등 20명이 말한 가운데에 ‘내사(內使) 장신(張信)이 성지(聖旨)를 가지고 작년인 병신 11월 14일에 요동(遼東)에 이르렀으며, 군마(軍馬) 1천 5백을 인솔하고 정월 19일에 떠나 3월 29일에 나연(羅延)에 도착하여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창고를 지어 양료(糧料)를 수입(輸入)한 뒤, 짐을 지고 온 군인은 그 즉시 환송(還送)했으나, 천호(千戶) 석탈리(石脫里)는 군인 5백 명과 농우(農牛) 1백 60척(隻)을 거느리고 또한 나연 등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하고, 장신은 또 병마 1천을 거느리고 4월 17일에 출발하여 28일에 남라이(南羅耳)에 이르러 재목을 작별(斫伐)하면서 명령하기를, ‘근방에 접해 사는 올랑합(兀良哈)과 조선인(朝鮮人)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하고, 또 ‘원(元)나라 때에 송골매[松骨鷹子]를 잡던 곳이라 하면서 길주(吉州)의 아간(阿看)·오보이(吾甫伊)·서지위(西之委) 등지의 사소좌(沙所坐) 기지(基趾)를 간심(看審)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남라이(南羅耳)에 거점한 천호(千戶) 나오(羅吾)·아다모(阿多毛) 등 2명이 길을 가리키며 왔다.’고 전통(傳通)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지위(西之委) 등지는 경성(鏡城)의 초면(初面)에서 2·3일 노정[程途]이니 나아가 맞이하도록 보냄이 옳지 못하고, 또 아간(阿看) 등지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전에 송골매를 잡은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33권 17년 閏5월 8일 癸亥

節日使通事金乙玄回自北京啓曰：“皇帝於二月十三日發南京，五月初一日下輦于北京。皇太子在南京，臣等向南京，行至宿州，謁皇帝大駕，帝曰：‘今來使臣，無乃諸妃之親

乎?’ 臣奏: ‘使鄭矩, 於鄭妃爲同姓之親.’ 帝召內官狗兒曰: ‘朝鮮人不食豬肉, 令光祿寺以牛羊肉供給.’ 遂命隨駕, 十日到北京.”

절일사 통사(節日使通事) 김을현(金乙玄)이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와 아뢰었다.

“황제(皇帝)가 2월 13일에 남경(南京)을 출발하여 5월 초1일에 북경에 하연(下輦)했었습니다. 황태자(皇太子)가 남경에 있었으므로 신 등이 남경으로 향해 가다가 숙주(宿州)에 이르러 황제의 대가(大駕)를 보았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지금 오는 사신이 제비(諸妃)의 친척이 아니냐?’하기에, 신이 아뢰기를, ‘사신 정구(鄭矩)는 정비(鄭妃)에게 동성(同姓)의 친척이 됩니다.’하였더니, 황제가 내관(內官) 구아(狗兒)를 불러 말하기를, ‘조선인(朝鮮人)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광록시(光祿寺)로 하여금 쇠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토록 하라.’하고, 수가(隨駕)하라고 명하여 10일에 북경(北京)에 이르렀습니다.”

▶ 33권 17년 6월 29일 癸丑

朝廷內史黃儼、海壽至義州. 平安道都巡問使報: “黃、海兩天使以其遼東護送軍所持物色買賣遲緩之故憤怒, 卽令節制使領軍前導, 自率遼東軍官, 畋于山野, 駐馬于山下李元寶家, 招判官曰: “前此民間牛馬, 散在寨里, 今不如古, 必是藏隱也.” 還館語牧使朴礎曰: “汝是秀才乎? 在前天使往來, 守令無不見辱. 今則不然, 何其買賣之遲緩乎? 吾之發行遲速, 在於買賣畢否耳.” 海壽拱通事盧卜龍而怒, 謂牧使曰: “前此護送軍買賣之時, 牛馬爲先, 至於雜物, 無不許賣也. 今牧使不顧前規而禁止, 吾將白於殿下矣. 且牧使榜文內, 只錄人蓼蘿布許賣, 而不及牛馬, 誠爲不當, 亦將白於殿下.” 遂取榜文而藏之. 礎乃告曰: “牛馬生產則火印成籍, 非守令所得擅賣也.” 據理以答, 怒猶未解. 黃儼則雖不現說, 下馬於寨里, 令其步從人等, 搜探牛馬於夜巡等處而未得也.

조정 내사(朝廷內史) 황엄(黃儼)·해수(海壽)가 의주(義州)에 이르니, 평안도 도순문사가 보고하였다. “황엄·해수 두 사신(使臣)이 요동 호송군(遼東護送軍)이 가지고 온 물건의 매매가 지완(遲緩)된 까닭으로 분노하였습니다. 즉시 절제사(節制使)로 하여금 영군(領軍)하여 전도(前導)하게 하였으나, 스스로 요동 군관(遼東軍官)을 거느리고 산야(山野)에서 사냥하다가 말을 산 아래 이원보(李元寶)의 집에 머물러 두고, 판관(判官)을 불러 말하기를, ‘이 앞서는 민간의 우마(牛馬)가 채리(寨里)에 산재하였는데 지금은 그전 같지 아니하니 필시 숨겨둔 것이다.’하고, 객관으로 돌아와 목사(牧使) 박초(朴礎)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수재(秀才)이요? 그전에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에는 수령들로 욕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오. 어찌 그 매매하는 것이 지완(遲緩)되는거요? 내가 떠나는 것의 빠르고 늦음은 매매가 끝나는 여부에 달려 있소.’하고, 해 수는 통사(通事) 노복룡(盧卜龍)을 매질하고 노하여 목사더러 말하기를, ‘이 앞서는 호송군(護送軍)이 매매할 때에 우마를 우선으로 하였고, 잡물(雜物)에 이르러서도 매매를 불허함이 없었는데, 지금의 목사는 전규(前規)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지하니, 내 장차 전하에게 아뢰겠으며, 또 목사의 방문(榜文) 안에 「단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인삼(人蔘)·추포(麤布)만 파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기록하고, 우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부당하니, 이것도 장차 전하에게 아뢰겠소.’하고, 드디어 방문(勝文)을 집어 넣었습니다. 박초가 고하기를, ‘우마(牛馬)가 생산되면 화인(火印)을 찍고 문적(文籍)에 올려야 하는 것으로 수령(守令)이 함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하고, 사리에 의거하여 대답해 주었지만, 노기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황엄은 비록 말하여 나타내지는 않았어도 채리(寨里)에서 말[馬]을 내려 그들의 보종인(步從人)들로 하여금 우마를 야순(夜巡)하는 곳에서 찾아 보았지만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34권 17년 8월 13일 丙申

命議政府、六曹，議待朝廷出來張內官便否．甲山僉節制使鎮撫孟玉來告曰：“今月初一日，東良北地面出來中國內官張信使送人睦好里大等六名，距甲山四日程加舍洞口子來到語曰：‘張大人以良馬交易及馬料青石礪覓歸事，軍馬率領，欲於今月晦時，出來甲山郡．’若張大人入來，許接與否，何以區處？”命議政府、六曹同議．啓曰：“磨遷來住張內官，若牛馬交易及馬糧，請乞依憑境內入來，則口子把截人等當語之曰：‘如有聖旨，而且有國家之命，則可以許接，無聖旨而許接，不可也．’儻或強入，僉節制使使人語曰：‘大人無聖旨，而越境不可，予亦無殿下之命，而私相交接不可．’僉節制使毋現身進退，但略備酒肉，且將米豆各十餘斗，遣可當人贈遺，仍語曰：‘是吾分裏物也．’若又請率來人馬糧料，當應之曰：‘國家米豆，雖一斗一升，爲人臣者不可擅自出入．’學義答了，城子不輕守護，臨機應變．”卽命兵曹書二件，一件送于平安道；一件授孟玉，送于咸吉道．

의정부·육조에 명하여, 중국 조정에서 나온 장 내관(張內官)을 접대하는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갑산 첨절제사 진무(甲山僉節制使鎮撫) 맹옥(孟玉)이 와서 고하기를,

“이달 초1일에 동량북(東良北) 지방에 나온 중국 내관(內官) 장신사(張信使)가 목호리대(睦好里大) 등 6명을 보내어 갑산에서 4일정(日程) 되는 가사동 구자(加舍洞口子)에 와서 말하기를, ‘장 대인(張大人)이 양마(良馬)를 교역(交易)할 것과 마료(馬料)와 청석려(靑石礪)를 찾아 가지고 돌아갈 일 때문에 군마(軍馬)를 거느리고 이달 그믐께 갑산군(甲山郡)에 나온다.’ 하였습니다. 만일 장 대인이 들어오면 허접(許接)하는 여부를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하니, 의정부·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마천(磨遷)에 와서 머물러 있는 장 내관(張內官)이 만일 우마를 교역하는 것과 말의 양료를 청구하는 일을 빙자하여 경내에 들어오면, 구자(口子)를 파수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말하기를, ‘만일 성지(聖旨)가 있고 또 국가의 명령이 있으면 허접(許接)할 수 있지만 성지가 없는데 허접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만일 혹시 강제로 들어오면 첨절제사(僉節制使)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대인(大人)이 성지가 없이 경계를 넘은 것이 불가하고, 나도 또한 전하의 명령이 없이 사사로이 서로 접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첨절제사가 현신(現身)하고 진퇴하는 일이 없이 다만 대략 주육(酒肉)을 갖추고, 또 쌀·콩 각 10여 두(斗)를 가지어 적당한 사람을 보내어 증유(贈遺)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분수 안의 물건이다.’

하고, 만일 또 거느리고 온 인마(人馬)의 양료를 청하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국가의 쌀과 콩은 비록 한 말[一斗] 한 되[一升]라도 신하 된 자가 임의로 출납할 수 없다.’ 하여, 의리에 의거하여 대답하고, ‘성자(城子)의 수호(守護)를 가볍게 하지 말고 사기에 따라 응변하라.’고 하소서.” 곧 병조(兵曹)에 명하여 두 건(件)을 써서, 한 건은 평안도(平安道)에 보내고, 한 건은 맹옥(孟玉)에게 주어 함길도(咸吉道)에 보내었다.

▶ 35권 18년 1월 13일 甲子

一, 碧骨堤下陳地, 幾乎六千餘結; 訥堤下陳地, 萬餘結, 但以其處居民, 未能盡耕. 慶尙道人稠地窄, 其無所耕, 革去寺社奴子七八百名, 抄出移置, 以各官陳穀, 牛隻二百餘首貿易給之, 加置國農所何如?

벽골제(碧骨堤) 아래 진지(陳地)가 거의 6천여 결(結)이고, 늘제(訥堤) 아래 진지(陳地)가 1만여 결(結)인데, 다만 그곳의 거민(居民)을 가지고서는 능히 다 경작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는 인구가 조밀하고 땅이 협착하여 그 경작할 땅이 없으니, 혁거(革去)한 사사 노자(寺社奴子) 7,8백 명을 뽑아서 옮겨 살게 하고, 각 고을의 묵은 곡식과 소[牛隻] 2백여 마리를 무역하여 주어서 국농소(國農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35권 18년 2월 25일 丙午

向等拜辭, 傳旨曰: “赴京如有人問黃儼馬匹易換事, 當答曰: ‘牛馬易換, 是我國所禁. 黃儼則非私出入, 是奉命之人, 將其價欲換, 故以不多之數, 許令易換.’”
이하생략~

윤향 등이 배사(拜辭)하니, 전지(傳旨)하였다. “부경(赴京)하거든 만약 황엄(黃儼)의 마필(馬匹)을 바꾸는 일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우마(牛馬)를 역환(易換)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바이나, 황엄은 사사로이 출입(出入)하지 않고 봉명(奉命)한 사람으로서, 그 값을 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까닭에 많지 않은 숫자를 바꾸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라.
이하생략~

▶ 35권 18년 5월 4일 癸丑

使還, 上大悅, 賜田五十結. 轉僉書承樞府事, 改參知議政府事. 瞻素黨閔氏, 及閔氏得罪, 瞻亦沈廢終身. 瞻諳練典故, 頗曉音律, 儀禮詳定, 瞻必與焉. 又奉旨校正雅樂, 然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其學駁雜，好佛氏奉道教，嘗上書請去文廟釋奠犧牛，爲有司所劾，士林譏之。卒年六十五。一子資敬。

사신이 돌아오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첨서승추부사(僉書承樞府事)로 전직하였다가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고쳤다. 김침이 본래 민씨(閔氏)에 당부(黨附)하였는데, 민씨가 죄를 얻게 되자, 김침도 또한 벼슬에서 쫓겨나서 몸을 마쳤다. 김침은 전고(典故)를 잘 알고 음률(音律)에 자못 밝아서 의례(儀禮)를 상정(詳定)하는데 김침이 반드시 참여하였고, 또 왕지(王旨)를 받들어 아악(雅樂)을 교정(校正)하였다. 그러나 그 학문이 순수하지 못하고 잡되어 불씨(佛氏)를 좋아하고 도교(道教)를 받들어, 일찍이 상서(上書)하여 문묘 석전(文廟釋奠)에 소[牛]를 희생(犧牲)하는 것을 없애자고 청하였다가 유사(有司)에게 탄핵을 당하니, 사림(士林)에서 이를 비웃었다. 졸(卒)할 때 나이가 65세였고, 아들이 하나이니, 김자경(金資敬)이었다.

4. 世宗實錄

▶ 3권 1년 3월 27일 辛未

刑曹參判洪汝方啓: “初立楮貨之法, 凡買賣禁用絺布, 今憲司之吏捕曳日多, 人甚苦之. 禁殺牛, 而喫牛肉者併罪之, 故雖喫自死牛肉者, 亦未免重刑. 請絺布及自死牛肉勿禁.” 上曰: “卿言是矣. 然不禁綿布, 則全不用楮貨矣. 若喫自死牛肉而被罪, 誠可惜也.” 元肅啓曰: “欲用楮貨, 而不禁綿布, 楮貨必全不用矣. 禁殺牛, 而不禁喫自死牛肉, 則潛殺牛者必多矣. 臣以爲, 法不可更改也.”

형조판서 홍여방(洪汝方)이 계하기를, “당초 저화(楮貨)의 입법이 무릇 매매에 있어 면포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지금 헌사(憲司)에서 잡아들이는 수효가 날로 증가되어, 사람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면서 쇠고기를 먹는 자까지 죄를 주기 때문에, 저절로 죽은 쇠고기를 먹은 자도 역시 중한 형을 면치 못하니, 면포 및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의 말이 옳다. 그러나 면포를 금지하지 않으면, 전혀 저화는 쓰지 않을 염려가 있지만, 만약 저절로 죽은 쇠고기를 먹고 죄를 받았다면, 진실로 가석한 일이다.” 하였다. 원숙이 아뢰기를,

“저화를 쓰도록 하면서 면포를 금하지 않으면 전혀 저화는 쓰지 않을 것이며, 소의 도살을 금하면서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한다면, 소를 밀살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신은 법을 자주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 5권 1년 9월 26일 戊辰

上王以未寧不臨, 然上王主喪, 停朝十日, 巷市五日. 斷音樂、禁屠殺及婚嫁, 限山陵前; 停大小祀, 限虞祭前, 社稷不在停限.

상왕은 몸이 불편하여, 임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왕이 주상(主喪)이 되고, 조정은 10일 동안, 향시(巷市)는 5일 동안 각각 정지시키고, 음악을 멈추고 도살과 혼인을 금지하여 산릉(山陵)에 모시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대소의 제사를 정지시켜 우제(虞祭) 전까지로 한정하고, 사직(社稷)의 제사만은 정지하는 제한 안에 두지 않았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6권 1년 12월 2일 壬申

金漸請定告殺牛者充賞之數, 上曰: “將犯人家產, 賞其告者, 乃父王成憲, 吾何敢改?”

김점이가, 소[牛]를 밀도살(密屠殺)한 자를 고발한 자에게 주는 상(賞)의 액수를 정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범인의 가산(家産)을 고발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이미 부왕께서 만드신 법인데, 내가 어찌 감히 고치겠소.” 하였다.

▶ 8권 2년 5월 11일 戊寅

刑曹啓: “告捕宰殺牛馬者, 將犯人家財楮貨二百張充賞, 其餘沒官. 犯人家財若不及二百張, 不必充賞.” 從之.

형조에서 계하기를, “소나 말을 도살한 자를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자에게는, 범죄한 자의 재산 중에서 저화(楮貨) 2백 장을 상금으로 주는데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관에서 몰수하게 할 것이요, 만약 범인의 재산이 2백 장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상을 주지 않아도 좋을 까 하나이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8권 2년 7월 10일 丙子

又啓: “巷市五日, 停朝十日. 自殯後至卒哭, 除社稷外, 大中小祀竝停之. 卒哭後, 大祀始用樂, 卒哭前, 禁嫁娶及屠殺.” 上王從之.

또(예조에서) 아뢰기를, “민간의 저자는 5일간, 조정의 조회는 10일간 정지하고, 민전에 모신 후로부터 졸곡에 이르기까지 사직을 제한 외에 대·중·소 제사를 모두 정지하오며, 졸곡 후에 비로소 큰 제사에 악(樂)을 쓸 것이고, 졸곡 전에는 혼인과 도살(屠殺)을 금할 것임니다.”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10권 2년 11월 7일 辛未

禮曹啓: 《元續六典》內: ‘各年判旨, 中外官吏或不奉行.’ 其不奉行條件, 謹錄以聞, 請申明舉行, 違者論罪. 一, 洪武二十五年司憲府受判, 節該: ‘無識之人, 以農牛賣於韃靼禾尺, 賣者買者, 皆以宰殺律論.’ 一, 永樂十七年議政府受判: ‘禾尺、才人不事農業, 唯以弓馬爲事, 不與良民婚嫁, 自成一羣, 聚散無常, 宰殺牛馬, 良民受害. 願令分

置，與平民相婚，俾令安業。其有尙循舊習者，沒其所畜頭匹，并罪里正長.’

이하생략~

예조에서 제하기를, “《원(元)·속육전(續六典)》 안에 실려 있는 여러 해 동안 내린 판지(判旨)를 서울에서나 지방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하지 아니하니, 그 받들어 시행하지 않는 조건을 삼가 기록하여 올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더욱 명백히 거행하도록 하고, 이에 어긴 자는 논죄하소서. 1. 홍무(洪武) 25년에 사헌부에서 수판(受判)된 일인데, 무식한 사람이 농우(農牛)를 갖다가 달단(韃靼)이나 화척(禾尺)에게 팔았으나, 판자나 사는 자를 모두 소를 몰래 잡아 먹는 죄에 처할 것이고, 1. 영락 17년에 의정부에서 수판(受判)한 것인데, 화척(禾尺)이나 재인(才人)들이 농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활 쏘고, 말 타는 것으로 일을 삼아서, 양민(良民)과는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저회끼리 한 때를 이루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를 한결같지 아니하며, 소나 말을 도살하여 양민(良民)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니, 청컨대, 이들을 각 지방에 나누어 두어서 평민과 혼인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안착하여 살도록 하고, 그래도 옛날 버릇을 고치지 않는 자는 그가 기르는 축산을 몰수하고 아울러 이정(異正)·장(長)까지 죄를 주라 하였다.

이하생략~

▶ 11권 3년 2월 9일 壬寅

兵曹啓: “乳牛所專爲供上而設, 置諸員二百, 每年遷轉, 官至五品, 而爲別坐者不考能否, 名存實無, 請罷乳牛所. 上王殿供上乳牛, 屬於仁壽府; 主上殿供上乳牛, 屬於禮賓寺, 其諸員令所在州郡充軍.” 從之.

병조에서 제하기를, “유우소(乳牛所)는 오로지 위에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모든 인원 2백 명을 매년 전직하여 승직시켜 5품에 이르면 별좌(別坐)가 된다는 것은, 능한가 능하지 못한가를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바라옵건대, 유우소를 혁파하고, 상왕전에 지공하는 유우(乳牛)는 인수부(仁壽府)에 소속시키고, 주상전에 지공하는 유우는 예빈시에 소속시키게 하고, 그 여러 인원은 소재한 주·군의 군(軍)에 보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5권 4년 2월 30일 丁巳

上謂知申事金益精曰: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一爲乾豆以奉宗廟, 則講武所獲, 宜皆薦於宗廟. 今止薦於秋, (河) [何] 據歟? 鹿醢皆造於秋, 此又何據歟? 若以春醢薦於夏秋, 秋醢薦於冬春何如? 其稽古典以聞.”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사시(四時)의 사냥은 모두 농한기에 무예(武藝)를 연습하고, 한편으로는 건두(乾豆)를 만들어 종묘를 받들었으니, 무예를 연습하여 잡은 짐승은 마땅히 모두 종묘에 제수(祭需)로 올려야 될 것인데, 지금 가을에만 제수를 올리게 되니,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녹해(鹿醢)는 모두 가을에만 만드니, 이는 또한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만약 봄에 만든 육장[醢]으로써 여름과 가을에 제수로 올리고, 가을에 만든 육장으로써 겨울과 봄에 제수로 올리는 것이 어떠한가. 고전(古典)에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이하생략~

▶ 16권 4년 5월 10일 丙寅

禮曹啓: “自殯後至卒哭, 除社稷外大中小祀, 一皆停之. 停朝十日, 巷市五日. 卒哭前禁嫁娶、屠宰, 三年不用樂, 卒哭後大祀始用樂.”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태상왕께서 돌아가신 뒤부터 졸곡(卒哭)에 이르기까지 사직(社稷)을 제외하고 대·중·소의 모든 제사를 정지하고, 정사는 10일간 정지하고, 시장은 5일간 정지하고, 졸곡 전에는 혼인과 도살도 금하고 3년 동안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하되, 졸곡 뒤 대사(大祀)에만 음악을 사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9권 5년 2월 5일 丙辰

左衛門大郎使人獻土物. 小旱河常嘉〔小旱河常嘉〕使人上禮曹書曰: 承先考皇帝登仙, 初聞悲駭, 至忘飲食. 想聖躬孝履戀哀之極, 坐感于懷, 海路渺然, 不能躬拜素幃, 無處乎逃罪. 是故差使行人釋祖禪奉書閣下, 伏願聞達. 今春奉書使回告曰: “甚受厚慰.” 并所付珍貺, 不堪欣喜者也. 不腆小禮, 香七十觔, 水牛角八本, 蘇木五百觔, 白練緯一段, 陳皮八十觔, 芭豆十觔, 當歸二觔, 常山五觔, 連翹二觔, 麒麟血二觔, 硫黃二千觔.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다. 소한하상가(小旱河常嘉)가 사람을 시켜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선고황제(先考皇帝)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받자와, 처음 듣고 놀라서 음식을 잇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상하건대, 임금의 효성으로 사모하고 슬퍼하심이 지극하사 〈멀리 있는〉 저의 마음까지 감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멀어서 능히 몸소 소위(素幃)에 나아가 뵈옵지 못해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신으로 행인(行人) 석조선(釋祖禪)을 보내어 각하(閣下)에게 서신을 올리오니 삼가 위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금년 봄에 서신을 가지고 온 사신이 돌아와서 알리기를, “후한 위로를 받고 아울러 진귀한 물품을 부쳐 보내니 기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다. 변변하지 못한 작은 예물(禮物)로서 향(香) 70근, 수우각(水牛角) 8본(本), 소목(蘇木) 5백근, 백련위(白練緯) 1단(段), 진피(陳皮) 80근, 파두(芭豆) 10근, 당귀(當歸) 2근, 상산(常山) 5근, 연교(連翹) 2근, 기린혈(麒麟血) 2근, 유황(硫黃) 2천근을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 20권 5년 4월 4일 甲寅

甲寅/傳旨于忠淸道監司: “以淸州國庫陳米豆, 易乳牛, 每日取酪, 饋于讓寧大君.”

충청도감사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청주(淸州)에 있는 국고(國庫)의 묵은 쌀과 콩으로 젖 짜는 소를 사서 날마다 우유를 받아 양녕대군에게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

▶ 20권 5년 5월 2일 辛巳

禮曹啓: “今久旱不雨, 乞依古典, 禁屠殺、斷傘扇、徙市.”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오랫동안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고전에 의하여 도살을 금지하고, 산선(傘扇)도 없애고, 저자도 옮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0권 5년 5월 8일 丁亥

丁亥/親傳太宗小祥忌(晨)〔辰〕齋香、疏文. 自是日至忌日, 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친히 태종(太宗) 소상(小祥) 기신재(忌晨齋)에 쓸 향(香)과 소문(疏文)을 전하였다. 이날부터 기일(忌日)에 이르기까지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형륙(刑戮)도 하지 아니하며, 도살(屠殺)도 금지시켰다.

▶ 21권 5년 7월 20일 戊戌

兵曹據京畿監司關啓: “道內各牧場馬匹, 冬節分養各官元數三百八十二匹料豆, 多至一千六百餘石, 大明串入放牛五十餘頭料豆, 亦一百六十餘石, 所費不費. 請令秋等點馬別監肥瘦點考, 只將瘦弱不堪雨雪馬匹, 依前例分養各官, 其餘竝於場內仍放, 其牛亦依此例.” 從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병조에서 경기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 각 목장(牧場)의 말을 겨울철에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한 원수(元數)가 3백 82필이므로, 사료(飼料) 콩[豆]이 많이 들어 1천 6백여 석(石)이나 되고, 대명곶[大明串]에 들여다 먹이는 소가 50여 두(頭)이므로, 사료 콩이 또한 1백 60여 석이나 되니,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가을에 말을 점고(點考)하는 별감(別監)으로 하여금 살찌고 여윈 것을 점고하게 하여, 다만 여위어서 비와 눈에 견디지 못할 말은 전례에 의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목장 안에 그대로 놓아먹이고, 그 소 또한 이 예에 의하소서.”하니 이에 따랐다.

▶ 22권 5년 10월 8일 乙卯

禮曹議改喪祭之文以啓:

~중략~

一, 《文獻通考》周制, 大喪, 封人飾其牛牲, 而朝夕奠, 用脯醢. 朔月、月半祖奠、大遣等奠, 皆用牡牢. 《文公家禮》, 朝夕奠, 設蔬菓脯醢, 朔望則具盛饌. 其朝夕、朔望奠饌之品, 自有隆殺. 我太祖之喪, 無朝夕奠, 只設晝奠, 而饌品則油蜜果、實果交排, 九果卓、三味湯水. 恭靖大王之喪, 始設朝夕奠, 而饌品依太祖晝奠例. 元敬王太后之喪, 初依太祖時例, 後改加油蜜果四行卓. 太宗之喪, 亦用四行卓, 饌品之盛, 幾於朔望. 一日之內, 再設殷奠, 有違古制. 今儀軌內, 朝夕奠饌品, 依太祖晝奠例, 以油蜜果、實果交排, 九果卓、三味湯水載錄.

이하생략~

예조에서 상제(喪祭)의 절문(節文)을 고쳐 의정(議定)하여 계하기를,

~중략~

1.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하면, ‘주제(周制)에 대상(大喪)에 봉인(封人)이 그 우생(牛牲)을 깨끗이 차려 놓고, 조석전(朝夕奠)에는 포(脯)와 해(醢)를 쓰며, 초하룻날과 보름날과 조전(祖奠)과 대견(大遣) 등의 전(奠)에는 모뢰(牡牢)를 쓴다.’하였고, 문공(文公)의 가례에 의하면, ‘조석전에는 소과(蔬果)와 포·해를 쓰며, 삭망(朔望)에는 여러 가지 찬품(饌品)을 갖추다.’하였으니, 그 조석과 삭망전의 찬의 품목이 융숭하고 감쇄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태조의 초상에는 조석전이 없었고, 다만 주전(晝奠)만을 설행하였으며, 찬품에 있어서는 유밀과(油蜜果)와 실과(實果)를 번갈아 배설하여 아홉 가지 과일과 세 가지 탕국[湯水]을 썼고,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초상 때에 이르러 비로소 조석전을 설행하였는데, 찬품은 태조의 주전(晝奠)의 여에 의하였으며, 원경왕태후(元敬王太后)의 초상에는 처음에 태조 때의 예에 의하였다가, 뒤에 이를 고쳐서 유밀과 너댓 줄의 탁자를 더 진설하였고, 태종의 초상에도 또한 그와 같은 너댓 줄의 탁자를 쓰니, 찬품의 융성함이 거의 삭망전과 같아서, 하루 동안에 두 번이나 은전(殷奠)을 진설하였으니, 이것이 고제에 어긋남이 있는가 합니다. 이번 의궤(儀軌)안의 조석전 찬품은 태조의 주전의 예에 의하여 유밀과와 실과로 번갈아 배설하여 아홉 가지 과일과 세 가지 탕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하생략~

▶ 23권 6년 3월 14일 庚寅

刑曹啓: “買賣牛馬宰殺者, 既杖一百, 家產沒官, 身充水軍, 其盜牛馬宰殺者, 只杖一百, 徒三年, 輕重失宜未便. 請依律文及教旨, 杖一百, 刺字, 身充水軍, 家產沒官.” 從之.

형조서 계하기를, “소나 말을 매매하여 도살한 자는 장(杖) 1백에 처하고, 가산은 관에서 몰수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보충시키고, 소와 말을 도적질하여 도살한 자는 다만 장(杖) 1백에 도(徒) 3년에 처단하였으나, 형의 경중이 적당하지 못하여 미편(未便)하니, 청하건대 율문과 교지(敎旨)에 의하여 장 1백에 자자(刺字)하고 몸은 수군에 보충시키고, 가산은 관에서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3권 6년 3월 15일 辛卯

兵曹啓: “東西北面牛馬點考烙印成籍之法, 詳在令甲, 然近來不肯舉行, 所有牛馬, 擅行放賣, 至有偷賣, 暗行宰殺. 又與遼東迎逢軍人將無印馬匹, 潛隱放賣, 誠爲未便. 請自今貿易及孳息者, 依已曾受教, 隨即烙印, 於元籍內注其緣由, 三年一次點考改籍.” 從之.

병조에서 계하기를,

“동·서·북면의 소와 말을 점고하여 낙인(烙印)하고 등록하는 법이 상세하게 법령에 있으나, 근래에 잘 시행되지 아니하여 소유한 우마를 마음대로 방매(放賣)하고 도매(盜賣)하며 몰래 도살하기도 하고, 또 요동(遼東)의 영봉 군인(迎逢軍人)과 함께 낙인이 없는 말을 가만히 갈무리하다가 방매하게 되니 진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무역하여 들어온 것이나 번식한 새끼는 일찍이 수교(受敎)한 법에 의하여 즉시 등록한 후 낙인하고 원적(元籍)에 그 사유를 주기(注記)하여 3년에 한 번씩 점고하여 개적(改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4권 6년 6월 14일 丁巳

禮曹啓太宗祔廟儀註: 前期, 三度習儀, 祈晴于社稷.

~중략~

殿下既升祿, 贊引引典祀官,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鑊, 實于一鼎, 次升羊實于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鼎, 次升豕實于一鼎, 【每室牛羊豕各一鼎.】皆設局羃. 祝史對舉,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奉俎官隨之, 俟殿下裸訖復位. 【樂止】執禮曰進饌, 祝史抽局委于鼎右, 除羃加匕畢于鼎. 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室牛羊豕各一匣.】次引薦俎官奉翼祖室俎, 奉俎官各奉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 【南門】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諸祝史俱進徹毛血槃, 自阼階授齋郎以出. 饌至泰階, 諸大祝迎於階上. 薦俎官詣翼祖神位前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奠訖, 啓牲匣蓋, 詣度祖室, 次詣桓祖室, 次詣太祖室, 次詣恭靖王室, 次詣太宗室奉奠, 竝如上儀訖, 【樂止】

이하생략~

예조에서 태종의 신주를 부모(祔廟)하는 의주(儀註)를 계하기를, “기일에 앞서 의식(儀式)을 세 차례 연습하고 사직(社稷)에 기청(祈晴)한다.

~중략~

전하가 이미 관창(裸鬯)을 올렸으며, 찬인이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고,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부엌[廚]에 나아가,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들어올려 정(鼎)에 담고, 다음은 양(羊)을 들어올려 정에 담고, 다음은 시(豕)를 들어올려 정에 담는데, 【실(室)마다 우(牛)·양·시가 각각 한 정씩이다.】 모두 경떡(局羃)을 설치한다. 축사(祝史)가 맞들고 들어가서 찬만(饌幔) 안에 진설한다. 알자(謁者)는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 찬소(饌所)에 나아가는데, 봉조관(奉俎官)이 따른다. 전하가 관창을 마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집례가 ‘진찬(進饌)’ 하면, 축사는 경(局)을 뽑아 정(鼎) 오른쪽에 두고, 떡(羃)을 벗긴 다음 비(匕)와 필(畢)을 정(鼎)에 얹어 둔다. 전사관(典祀官)이 비(匕)로 우(牛)를 들어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과 시를 들어 올려 각각 생갑에 담는다. 【실(室)마다 우(牛)·양·시가 각각 한 갑씩이다.】 다음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익조실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奉俎官)은 각각 생갑을 받드는데,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 【남문.】으로 들어온다. 조(俎)가 문에 처음 들어올 무렵에, 헌가(軒架)는 옹안지악(雍安之樂)을 시작한다. 여러 축사는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盤)을 걷어서 조계(阼階)를 통해 재랑(齋郎)에게 주어 보낸다. 찬(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大祝)이 섬돌 위에서 맞이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익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우(牛)를 드리고, 다음은 양, 다음은 시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의 뚜껑을 연다. 도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 다음은 태조실, 다음은 공정왕실,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면, 악은 그친다.

이하생략~

▶ 25권 6년 8월 11일 癸丑

禮曹啓: “去庚子年使臣禮部郎中趙亮齋來恭靖大王賜祭犧牲及癸卯年禮部郎中楊善齋

來太宗恭定大王賜祭犧牲，皆用羊豕。館伴議政府參贊黃喜問：‘犧牲何用騶？’楊善答云：‘雄牲有腥不肥大，故凡圓丘、宗社之祭，牛牲外皆用騶。’兼言擇牲預養之法尤詳。

이하생략~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경자년에 사신으로 온 예부 낭중 조양(趙亮)이 받들어 가지고 온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사제희생(賜祭犧牲)과 계묘년에 예부 낭중 양선(楊善)이 받들어 가지고 온 태종 공정대왕(恭定大王)의 사제 희생은 모두 거세(去勢)한 양과 돼지를 썼으므로, 그들을 접대하던 의정부 참찬 황희(黃喜)가 묻기를, ‘희생을 어찌하여 거세한 것을 쓰느냐.’고 하니, 양선이 대답하기를, ‘숫 짐승은 비리기도 하고 살지도 크지도 않으므로, 무릇 원구단(圓丘壇)이나 종사(宗社)의 제사에는 우생(牛牲) 외에는 모두 거세한 것을 쓴다.’ 하고, 겸하여 희생을 선택하여 미리 기르는 법을 더 자세하게 말하였다.

이하생략~

▶ 25권 6년 9월 1일 癸酉

禮曹啓：“去七月十八日，皇帝升遐，今九月初一日，以素服、黑角帶、烏紗帽舉哀，初四日成服，初七日除服。自舉哀日至釋服日，停朝市、去刑戮，斷音樂、禁屠殺，禁婚嫁、停大小祀。且喪服，一依洪武三十二年爲太祖高皇帝喪禮，京中四品以上、外方大小使臣、守令着喪服，其餘各品官吏，以白衣、烏紗帽、黑角帶終制，沿邊將帥及軍官，不用此例。”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7월 18일에 황제께서 승하하셨사오니, 이번 9월 초하루 소복(素服)과 흑각대(黑角帶)와 오사모(烏紗帽)로 거애(舉哀)하시고, 초4일에 성복(成服)하시고, 초7일에 복을 벗으시는 것입니다. 거애하는 날로부터 복을 벗으시는 날까지 조화와 저자를 정지하고, 형륙(刑戮)을 정지하고, 음악을 금지하고, 도살(屠殺)을 금하고, 혼인하고 시집가는 것도 금지하고,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게 하소서. 또 상복은 일체 홍무(洪武) 32년에 태조 고황제의 상례(喪禮)에 따라, 서울에서는 4품 이상, 외방(外方)에는 대소 사신(使臣)·수령은 최복(衰服)을 입고, 그 나머지 각 품의 관리들은 흰 옷에 검은 사모에 흑각대로 상례를 마치게 하고, 연변(沿邊)의 장수나 군관들은 이 예에 따르지 아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5권 6년 9월 25일 丁酉

咸吉道監司啓：“敬依曾降傳旨，欲換韃靼馬種，令慶源、鏡城居人問之，彼人有馬者求換穀食與牛馬，然穀食牛馬，營中所無。請穀食用各官國庫所儲，牛馬以布物買於民間，以易種馬。”從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함길도감사가 계하기를,

“지난번에 내리신 전지(傳旨)에 따라 달단 말[馬]의 종자를 바꾸려고 경원(慶源)·경성(鏡城)에 사는 백성을 시켜서 물으니, 저들 중에 말이 있는 자가 곡식이나 소나 말과 교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곡식과 소와 말은 감영 중에는 없는 것이온즉, 곡식은 각 고을의 국고에 저장된 것으로 소나 말은 포목과 그 외의 물건으로 민간에서 사서 종마(種馬)를 바꾸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6권 6년 10월 15일 丙辰

丙辰/登極使臣禮部郎中李琦、通政司參議彭璟入國，上率王世子以下群臣，幸慕華樓，以冕服迎詔，至景福宮行禮如儀。告訃使臣劉景、陳善 先升月臺上，行五拜叩頭禮。其詔曰：

~중략~

一，自永樂二十二年八月十五日以前遞年虧欠農桑諸色課程倉糧鹽課魚課等項并倒死馬駝驢騾牛羊虧欠孳生等畜及拖欠蘆柴各處納欠銅鐵顏料席麻竹木等物并追倍珍珠等物未納各項贓罰倍追未完段匹物件，盡行蠲免。

이하생략~

등극 사신(登極使臣) 예부 낭중 이기(李琦)와 통정사(通政司) 참의(參議) 팽경(彭璟)이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루에 거둥하여 면복(冕服)으로 조서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거행하였다. 부고 사신(訃告使臣) 유경(劉敬)·진선(陳善)이 먼저 월대(月臺) 위에 올라가 오배고두례(五拜叩頭禮)를 거행하였다.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중략~

1. 영락(永樂) 22년 8월 15일 이전 1년을 통하여 바치지 못한 농상(農桑) 여러가지 부과와 창량(倉糧)·염과(鹽課)·어과(魚課) 등 항목과 말·낙타·나귀·노새·소·양을 죽게 한 것, 생장 번식하는 목축을 죽낸 것, 노시(蘆柴)를 바치지 아니한 것, 각처에서 미납한 동철(銅鐵)·안료(顏料)·자리·삼·대나무 등 물건과, 배상하는 진주(珍珠) 등 물건을 미납한 것, 장벌(贓罰)의 배상을 끝내지 못한 단필(段匹)은 모두 감면한다.

이하생략~

▶ 27권 7년 1월 14일 乙酉

攝行春享于永寧殿。其儀注

~중략~

陳設:

~중략~

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 一實牛腥, 一實羊腥七體, 兩脾、兩肩、兩脅并脊, 而脾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 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牛羊次之, 凡俎皆有牲匣.】**

~중략~

晨裸:

~중략~

祝史取肝出戶, 燔於爐炭, 還尊所饋食. 獻官既升裸,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簠,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牛羊豕各一匣】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獻官裸訖復位. 執禮曰進饌, 謁者引薦俎官、捧俎官, 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 **【南門】**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祝史進徹毛血饌, 自阼階授齋郎以出. 饌至泰階, 大祝迎引於階上, **薦俎官詣神位前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大祝助奠】** 奠訖, 啓牲匣蓋, **【樂止】** 謁者引薦俎官以下, 降自阼階復位. 大祝取蕭黍稷, 擣於脂, 燔於爐炭, 還尊所.

이하생략~

영녕전(永寧殿)에서 춘향(春享)을 집행(攝行)하였다. 그 의주(儀注)에 이르기를,

~중략~

진설(陳設)에 관한 의절.

~중략~

조(俎)는 셋을 마련하되, 둘은 변(籩) 앞에 놓고, 하나는 두(豆) 앞에 놓는다. **【변 앞에 놓는 조는, 하나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쪽 허파와 양쪽 어깨와 양쪽 갈비에다가 등심을 아울러 쓰되, 허파는 양쪽 끝에 놓고, 어깨와 갈비는 그 다음에 놓고, 등심은 한가운데 놓는다. 두 앞에 놓는 조에는 시성(豕腥)의 칠체를 담는데, 그 배치하는 순위는 양성과 같이 한다.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놓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두의 오른쪽에도 조 셋을 배설한다. **【하나는 쇠고기로서 익힌 내장 위(胃)와 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고기로서 익힌 내장 위와 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고기로서 익힌 피부를 담는데,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쇠고기와 양고기는 그 다음에 놓는다. 대저 조에는 모두 희생을 덮는 갑(匣)이 있다.】**

~중략~

신관(晨裸)에 관한 의절.

~중략~

축사가 다시 간(肝)을 취하여 지계문을 나와 이를 노의 숯불에 구워 가지고 준소로 돌아가서 헌관에게 준다. 이미 관(裸)을 이루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다시 진찬(進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饌)할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방으로 나아가서,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건져 내어 생갓(牲匣)에 담고, 다음에는 양(羊)과 시(豕)를 건져서 각각 생갓에 담아 가지고, 【우와 양과 시를 각각 한갓씩 한다.】 찬만(饌幔) 안으로 들어가 벌여 놓으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찬소(饌所)로 나아가고, 봉조관도 따라가 현관이 관(裸)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진찬하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과 봉조관을 인도하여 각각 생갓을 받들어 올리고, 전사관은 찬수를 인도하여 정문【남문(南門).】으로 들어간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가면, 헌가에서 웅안(雍安)의 악을 연주한다. 축사는 나아가서 모혈반을 거두어 가지고 조계로부터 재랑(齋郎)에게 주어 내보내고, 찬수가 태계에 이르면, 대축이 조계 위에서 맞아 인도하고, 천조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드리되, 먼저 우(牛)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羊)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豕)를 드린다. 【대축이 전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생갓의 덮개를 열면, 악(樂)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하생략~

▶ 27권 7년 1월 14일 乙酉

司憲府啓: “乳牛所及典廐署藥草炊料柴木收納, 其司官員獨掌之, 多有泛濫, 弊及於民. 請自今委監察糾察.” 從之.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유우소(乳牛所)와 전구서(典廐署)의 〈사육용의〉 고초(藥草)와 연료의 시목(柴木)의 수납을 그 기관의 관원이 홀로 이를 관장하고 있는데, 범람한 일이 많아서 그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고 있사오니, 지금부터 감찰(監察)에게 위임하여 규찰하도록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7권 7년 1월 15일 丙戌

置京城內防護所十三處: 東面乳牛所北帖一處, 金輪寺東北帖一處, 北面興德寺洞源二處, 廣孝殿北帖一處, 嘉會坊洞帖一處, 景福宮北帖二處, 西面本宮南北二處, 南面南部學堂洞源帖一處, 水口門洞源一處, 開川柳坊築一處.

경성(京城) 안에 방호소(防護所)를 13개소에 설치하였다. 동면(東面)에는 유우소(乳牛所) 북점(北帖)에 1개소, 금륜사(金輪寺) 동북점(東北帖)에 1개소이며, 북면(北面)에는 흥덕사(興德寺) 동원(洞源)에 2개소, 광효전(廣孝殿) 북점(北帖)에 1개소, 가회방(嘉會坊) 동점(洞帖)에 1개소, 경복궁(景福宮) 북점(北帖)에 2개소, 서면(西面)에는 본궁(本宮) 남북에 2개소, 남면(南面)에는 남부학당(南部學堂) 동원점(洞源帖)에 1개소, 수구문(水口門) 동원(洞源)에 1개

소, 개천 유방축(開川柳坊築)에 1개소다.

▶ 27권 7년 2월 4일 甲辰

刑曹啓: “謹按《經濟六典》一款, 節該: ‘食爲民天, 穀由牛出.’ 本朝設禁殺都監, 上國有禁鬻牛肉之令, 所以重農而厚民生也. 其盜殺牛馬者, 專是新白丁, 故於永樂九年, 刷出新白丁, 移置都城三舍之外, 近來禁防陵夷, 乃於城中及城底, 竝還來住, 與閑雜人同盜牛馬, 恣行屠殺, 奸惡莫甚. 上項白丁及妻子, 盡行推刷, 竝遷之水邊各官, 充定軍役, 令所在官不時舉覈, 使不得逃還原住. 且喫牛馬肉者, 只加笞五十, 人皆輕之, 不問來處, 公然買喫, 以致盜殺不絕, 甚爲不當. 今後知情食肉者, 請亦以制書有違律論, 令漢城府搜捕, 嚴加禁斷.” 從之.

형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한 조목을 상고하오니,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 되고, 곡식은 소의 힘으로 나오므로, 본조(本朝)에서는 금살도감(禁殺都監)을 설치하였고, 중국에서는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니, 이는 농사를 중히 여기고 민생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하는 자는 오로지 신백정(新白丁)이기 때문에, 영락(永樂) 9년에 신백정을 조사 색출하여 도성으로부터 3사(舍) 밖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 금지법이 무너져, 드디어 성 안과 성 밑으로 모두 돌아와 살면서, 한가로운 잡인과 더불어 같이 우마를 훔쳐내어 도살(屠殺)을 자행하니, 그 간악(奸惡)함이 막심하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백정과 그 처사를 모두 조사 탐색하여 아울러 해변 각 고을로 옮겨,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수시로 핵문(覈問)하여 원주지로 도망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마의 고기를 먹는 자에게 다만 태형(笞刑) 50대를 가하니, 사람들이 이를 모두 가볍게 여기고, <그 고기가> 나온 곳을 묻지 않고 공공연하게 사서 먹으므로 도살이 근절되지 않고 있사오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금 후부터는 그 실정을 알고도 고기를 먹는 자에게는, 청컨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단하게 하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이를 수색 체포하여 엄중히 금단(禁斷)을 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7권 7년 2월 8일 戊申

漢城府啓: “自今馬肉買賣, 依牛肉買賣例, 京中則漢城府着標, 外方則受其官明文, 方許買賣, 違者依律論罪.” 從之.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지금으로부터 마육(馬肉)의 매매를 우육(牛肉) 매매의 예에 의하여, 서울 안에서는 한성부의 착표(着標)와 외방에서는 그 관청의 명문(明文)을 받아야만 비로소 매매를 허용하고 위반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따랐다.

▶ 28권 7년 4월 24일 癸亥

禮曹據典廐署呈啓: “祭祀國之大事, 故凡大小祭享犧牲, 養于淨處, 設其垣門, 不使群牲雜處, 錫潔豐肥. 然其進牲之際, 或牛馱或人負, 以致污穢, 有違誠敬之意. 請令繕工監作廂車, 除難載祭牛外, 羔羊及猪, 車載以進.” 從之.

예조에서 전구서(典廐署)의 보고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제사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소(大小) 제향에 쓸 짐승은 깨끗한 곳에서 기르는데, 담을 쌓고 문을 달아 다른 짐승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깨끗하고 살찌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을 바칠 때 소에 신기도 하고, 사람이 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되어 정성을 쏟고 공경을 드리는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컨대 선공감(繕工監)에 명령하시어 상자가 장치된 수레를 만들어 신기 어려운 제사소[祭牛] 외에는 염소나 양이나 돼지는 수레로 실어 바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8권 7년 6월 22일 庚申

徙市, 斷織扇, 禁屠殺.

저자를 옮기고, 양산과 부채를 폐지하고, 도살(屠殺)하는 것을 금하였다.

▶ 29권 7년 8월 30일 丙申

咸吉道察訪辛引孫啓: “本道人民, 或因杯酒小嫌, 或因鬪毆相惡, 或圖婚不成, 覬伺夙夜, 故燒人家, 闔戶人畜, 盡爲煨燼. 一歲之內, 被其禍者, 不啻百餘家, 其爲姦惡慘酷, 口不可言. 又其俗崇信巫覡, 必宰牛祀神, 且爲賓客之供、口腹之養, 連續屠宰, 一歲宰牛, 不啻數千. 民俗習以爲常, 雖有法令, 漫不知改. 乞令攸司, 嚴立禁防, 以救二者之弊.”

命下刑曹, 磨勘以聞.

함길도 찰방 신인손(辛引孫)이 계하기를, “본도 백성이 혹 술로 인한 조그만 혐의나, 혹은 싸움으로 인한 서로의 증오나, 혹은 혼인을 피하다가 성사가 안 되거나 함으로써, 바람 부는 밤을 타서 남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질러 집안의 사람과 가축이 모두 다 없어져서, 1년 동안에 화를 입은 자가 백여 가호가 될 뿐 아니라, 그 간악하고 참혹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

사육고, 또 그 풍속이 미신으로 무당을 숭상하여 반드시 소를 잡아 귀신에게 제사하고, 또 손대접이나 먹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를 잡는데, 1년 동안에 잡은 소가 수천 마리 뿐이 아닙니다. 민간 풍속이 습관으로 되어 예사로 여기어서, 비록 법령이 있으나 아랑곳없이 고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하오니 감독 관서로 하여금 금지 단속하는 방법을 엄중하게 세워서 이 두 가지 폐습(弊習)을 고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형조에 내려 마감(磨勘)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 30권 7년 11월 8일 癸卯

漢城府尹金素、大護軍高得宗啓：“江華府境內牧場可當之處，自南鎮江至大靑浦一萬一千六百尺，西至巾冬乙浦五千八百尺，其間閑曠之地，合爲一場，則周回可六十里，雖放萬馬，水草俱足．且以江華比之濟州，濟州風氣溫暖，草木經冬不枯，江華冬月雪深草枯，須預備芟草，隆冬養飼，然後可免瘦損之患．”

命下兵曹議之．兵曹議啓：“牛馬元是野獸，四時放牧，可以蕃息，但無可作場處耳．分養各官，收合穀草，虛費料豆，積年之弊，可勝言乎？請依所啓，令各官分受，築垣作場，將各官分養馬，合牧於其中，使各浦當領船軍，刈取芟草，積之場內，以備冬月喂養，則可以除積年分養之弊，最爲便益．其場內居民三百三十八戶，於衿川、開城、南陽、通津等革罷牧場之地，許從自願移居，其田四面，願築牆仍留者聽．”從之．

한성부 윤 김소대(金素大)와 대호군 고득종(高得宗)이 계하기를, “강화부 경내에 목장으로 적당한 곳은 남진강(南鎮江)에서부터 대청포(大靑浦)까지 1만 1천 6백 자[尺]이고, 서쪽으로는 건동을포(巾冬乙浦)까지 5천 8백 자이온대,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땅을 합쳐서 한 목장을 만들면 주위가 60리가량이오니, 비록 만 마리의 말을 먹일지라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합니다. 또 강화를 제주에 비하면, 제주는 기후가 따뜻하여 풀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도 마르지 아니하오니, 강화는 겨울에는 눈이 많고 풀이 마르므로, 모름지기 마른 풀을 예비해서 한 겨울에 먹여서 길러야만 여위고 죽은 걱정을 면할 것입니다.” 하므로, 병조에 내려 의논하기를 명하니, 병조에서 의논하여 계하기를, “소와 말은 원래 들짐승이므로, 사철 놓아 먹여도 번식할 수 있으나, 목장을 만들 만한 곳이 없어서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므로, 곡초를 수합하고 먹이는 쿡을 허비하게 되니, 여러 해 동안의 폐단을 어찌 다 말하리까. 청하건대 아뢴 바에 의하여 각 고을에 분담시켜서 담을 쌓아 목장을 만들고는, 각 고을에 나눠서 기르는 말을 그 안에다 모아서 먹이고, 각 포구(浦口)에 당한 영선군(領船軍)으로 하여금 풀을 베어 말려서 목장 안에 쌓아 두었다가 겨울에 먹일 준비를 하면, 가히 오랫동안 나눠서 기르는 폐를 없앨 것이오니 가장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그 목장 안에 거주하는 백성 3백 38호는 금천(衿川)·개성·남양·통진 등의 목장을 혁파(革罷)한 땅에 자원대로 이주하기를 허락하며, 그들의 전토(田土)에 담을 쌓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30권 7년 12월 5일 庚午

視事. 上曰: “盜殺牛馬, 既立法禁之, 而間或有之. 且有告者充賞之令, 而人無告之者. 立法, 欲其行也, 而今反如此, 將何術以處之?” 兵曹判書趙末生對曰: “都城西母岳之下, 新白丁聚居, 盜殺牛馬, 此輩之所爲, 宜黜畿外.” 上曰: “然.”

정사를 보았다. 임금의 말하기를, “소나 말을 몰래 도살(屠殺)하는 것은 이미 법을 세워 금지하고 있는데, 간혹 〈밀도살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법령이 있건만, 고발하는 자가 없다. 법을 마련한 것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리어 이와 같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대처(對處)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병조판서 조말생(趙末生)이 대답하기를, “도성(都城)의 서쪽 무악(母岳)산 아래에 새 백정[新白丁]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소와 말을 밀도살하는 것은 이 무리들이 하는 것이니, 마땅히 서울 밖으로 내쫓아야 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 31권 8년 1월 26일 辛酉

司憲府啓: “儀章服飾之節, 所以辨上下、明等威也. 本朝尊卑服飾, 皆有品秩, 粲然有文, 獨於靴鞋之節, 不曾詳定, 甚至市井工商、公私賤隸, 率皆着靴, 參外及無職人, 亦皆着套. 不唯上下無等, 皮價騰(湧) [踊], 禁殺之令雖嚴, 而竊盜牛馬者相繼, 弭盜之方, 亦不可不慮也. 伏望命禮曹詳定, 以明上下之分, 以塞盜竊之源.” 命下禮曹, 與政府諸曹同議.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의장(儀章)과 복식(服飾)의 절차는 상하를 구별하며, 계급의 위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계급에 따라 의복 제도가 모두 등급이 있어서 뚜렷한 형식이 갖추어졌는데, 다만 신발에 대한 제도가 아직껏 상세히 제정되지 아니하여, 심지어는 시장의 공인이나 상인과 공사 천례(公私賤隸)까지도 모두 가죽신을 신으며, 참외(參外)와 직업이 없는 사람까지도 모두 투(套)를 신고 있사오니, 이것은 상하 계급의 구별이 없게 될 뿐 아니라, 가죽 값이 뛰어올라서 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아무리 엄중할지라도, 몰래 소나 말을 훔쳐 가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도둑을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습니다. 바라옵건대 예조에 명하시어 상세한 제도를 제정하여 상하의 구별을 밝히며 도둑질하는 근원을 막게 하소서.”하니, 명령을 예조에 내리어 정부와 여러 조와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 31권 8년 2월 29일 己巳

戶曹啓：“今失火人家舍及貧窮未能自備蓋瓦者，請設別窯令燔瓦，輕價分給，其事件條列于後.

~중략~

一，踏泥牛二十頭，以各司鼠損布貨，許於自願人貿易.

이하생략~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화재를 당한 가옥과 빈궁하여 자기의 힘으로 기와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별요(別窯)를 설치하여 기와를 구워서 싼 값으로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에 대한 것을 조항 별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중략~

1. 흙 밟는 소[踏泥牛] 20마리는 각 관청에 있는 쥐가 쓸은 포화(布貨)로써 자원(自願)하는 사람에게 매매할 것을 허락할 것.

이하생략~

▶ 32권 8년 4월 19일 壬午

刑曹啓：“律文，籍沒家產者，皆爲死罪也。本朝欲嚴禁防，乃以一時權宜，立家產沒官之法，未便。請將各年受教，更議定奪.” 命下政府、六曹議. 議云：“看詳《大明律》，盜牛馬而殺者，杖一百、徒三年、刺字. 永樂十八年五月日受教：‘盜牛馬殺者，依本律，杖一百、刺字，身充水軍，家產沒官.’《大明律》錢法條：‘若阻滯不即行使者，杖六十.’ 洪熙元年二月日受教：‘不用銅錢所犯輕重分揀，重者典刑廣示，輕者決杖一百，身充水軍，家產沒官.’ 《大明律》：‘將馬牛軍需鐵貨銅錢段匹紬絹絲絛，私出外境貨賣及下海者，杖一百，挑擔馱載之人，減一等. 物貨船車，竝入官於內，以十分爲率，付告人充賞.’

이하생략~

형조에서 계하기를, “율문에 ‘가산을 적몰하는 것은 모두 사죄(死罪)에만 행한다.’ 하였는데, 본조(本朝)에서는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고자 하여 한때의 편법으로 가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해마다의 수교(受教)에 의거하여 다시 의논해서 임금의 재결(裁決)을 받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여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을 자세히 보면, ‘소와 말을 도적질하다 잡힌 사람은 곤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자자(刺字)한다.’ 하였으며, 영락(永樂) 18년 5월 일의 수교(受教)에는, ‘소와 말을 도적질하다 잡힌 자에게는 본률(本律)에 의거하여 곤장 1백 대에 자자(刺字)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가산은 관청에 몰수한다.’ 하였으며, 《대명률(大明律)》의 전법조(錢法條)에는, ‘만약 지체하여 즉시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곤장 60대를 친다.’ 하였으며, 홍희(洪熙) 원년 2월일의 수교에는, ‘동전(銅錢)을 쓰지 않은 것은, 범한 죄의 경중(輕重)을 분간하여, 중한 자는 일정한 형(刑)으로 널리 보이고, 경한 자는 곤장 1백 대에 몸은 수군에 충당하고, 가산은 관청에 몰수한다.’ 하였으며, 《대명률(大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明律》에는, ‘소·말·군수품(軍需品)·철화(鐵貨)·동전(銅錢)·단필(段匹)·주견(紬絹)·사면(絲綿)을 사사로이 국경 외에 내어다가 팔고 바다로 내어간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그것을 수송하고 운반한 사람은 1등(等)을 감형하고, 물화(物貨)와 배와 수레는 모두 관청에 거두어들이는데, 그 중에 10분(分) 율(率)로 하여 알린 사람에게 주어서 상으로 충당한다.’ 하였다.
이하생략~

▶ 32권 8년 5월 19일 壬子

禮曹啓:

~중략~

“本國秋分之朝, 祀老人星於南郊, 而并設角、亢二星位於其前. 禮料則老人星籩豆各八, 角、亢二星籩豆各二, 牲用犢一. 祝版云: ‘昭告于南極老人星尊君角二星、亢四星. 伏以云云.’ 其設位禮料, 皆違古制. 乞依元豐禮制, 不設角、亢, 只設老人星而祀之, 祭品亦依小祀例.” 從之.

이하생략~

예조에서 계하기를,

~중략~

“本國(本國)은 추분의 아침에는, 노인성을 남교에서 제사지내는데, 각·항 두 별의 자리를 그 앞에 아울러 설치하고, 예료(禮料)는 노인성에는 변(籩)과 두(豆)를 각각 8개씩 쓰고, 각·항 두 별에는 변과 두를 각각 2개씩 쓰고, 생(牲)은 송아지 1마리를 쓰고, 축판(祝版)에는 ‘삼가 남극노인성존군(南極老人星尊君)과 각이성(角二星)·항사성(亢四星)에게 명백히 아뢴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설위(設位)와 예료(禮料)가 모두 옛날 제도에 어긋났습니다. 원컨대 원풍(元豐)의 《예제(禮制)》에 의하여, 각·항의 자리는 설치하지 말고, 다만 노인성의 자리만 설치하여 제사지내되, 제품(祭品)도 또한 소사(小祀)의 예(例)에 의하게 하소서.”하니, 그 대로 따랐다.

이하생략~

▶ 33권 8년 7월 4일 乙未

咸吉道都節制使河敬復遣人進謝恩箋. 其辭曰: 星使忽來, 睿訓示獎. 天寵曲被, 感涕交流. 揆分踰涯, 銘骨圖報. 伏念臣猥將庸昧, 夙荷洪私. 危身奉公, 恒不忘於寤寐; 爲國禦侮, 敢辭難於搶攘. 第恐計算之乖, 未副委任之重. 欲竭駑鈍, 期以折衝. 乃今恩賜荐加, 勞慰增至. 感激之至, 罔知攸爲. 茲蓋伏遇精一執中, 敦大成裕. 旁救俊彥, 熙庶績於百工; 慎固封疆, 壯洪基於萬世. 謂臣粗諳其邊事, 俾臣匹休於古人. 臣敢不力繼前修,

益堅素守? 宣德威於獮俗, 佇見歸仁, 課耕牧於遐氓, 永底樂業.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河敬復)이 사람을 보내어 사은전(謝恩箋)을 올리니, 그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사신이 뜻밖에 와서 성훈(聖訓)의 포장(褒獎)하심을 보이니, 성상의 은총을 지나치게 입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를 뿐이옵니다. 분의(分義)를 헤아리옵건대 그 한도를 넘 사온지라 뼈에 새겨 보답하고자 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되게도 용렬하고 혼매(昏昧)한 사람으로 일찍이 큰 은사(恩私)를 입어, 어떠한 위험이 몸에 미치더라도 군국(君國)에 봉공할 것을 오매(寤寐)에도 항상 잊지 않았고, 나라를 위하여 외적의 모만(侮慢)을 방어하려 할진대 어찌 어지러운 때라하여 그 어려움을 사양하오리까. 다만, 계산의 착오로 위임하신 중책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노둔(駑鈍)한 힘을 다하여 적의 충돌을 꺾기를 기하였더니, 이제 은사(恩賜)를 더욱 더 하시고, 노고(勞苦)의 위안을 점점 더하시니, 감격함이 지극하매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는 대개 마음을 정(精)히 하시고 뜻을 한 결 같이 하사, 그 중정(中正)의 도(道)를 잡으시어 큰 것을 돈독히 하시는 것으로 치도(治道)의 법을 이루시고, 널리 준수(俊秀)한 선비를 구하여 백관의 공적을 넓히시고, 강역(疆域)을 삼가고 공고하게 하여 만세의 큰 기업(基業)을 장대(壯大)하게 하시는 때를 만나, 신이 변경의 일을 조금 안다 하시고, 신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고인(古人)과 필적(匹敵)하게 하시니, 신이 어찌 감히 전에 닦은 바를 힘써 계승하고 더욱 평소에 지키던 바를 굳게 하여 성상의 덕과 위엄을 추악한 무리들에게 선양(宣揚)하여 끝내 인(仁)으로 돌아옴을 지켜 볼 것이요, 전토(田土)의 경작과 우마(牛馬)의 목축을 변방 백성에게 권장 독려하여 길이 생업을 즐기는 데에 이르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35권 9년 2월 6일 甲子

禮曹啓: “《牛馬方書》, 令典醫監醫員并習, 革司僕寺《馬方》, 習讀權知直長, 分屬各司權知.”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우마방서(牛馬方書)》를 전의감(典醫監)의 의원(醫員)으로 하여금 모두 익히게 하고, 사복시(司僕寺)의 마방(馬方)을 혁파하고 습독(習讀)하던 권지직장(權知直長)은 각 관사(官司)의 권지(權知)로 나누어 소속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35권 9년 3월 25일 癸丑

黃海道監司啓: “甕津住鎮軍林思敬母召史狀告: “獨子思敬, 以與韃靼賣牛犯禁, 歲丙午, 決杖一百, 巡威梁水軍定役. 非特難繼思敬口糧, 九十一歲老母, 亦將飢死.” 據此移文覈實, 所告是實. 今詳律文, 凡犯死罪, 非常赦所不原, 而祖父母、父母老疾, 應侍家,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無以次成丁者，開具所犯罪名，奏聞取自上裁。若犯徒流者，止杖一百，餘罪收贖，存留養親。今思敬，請依此律收贖養親。”上嘉納之，命如所啓，并他道行移，特除思敬收贖。

황해도감사가 계하기를, “웅진(甕津)에 사는 진군(鎭軍) 임사경(林思敬)의 어머니 소사(召史)가 장계(狀啓)로 고하기를, ‘독자(獨子) 사경(思敬)이 달단(韃靼)에게 소를 팔았기 때문에 금법(禁法)을 범하여, 병오년에 곤장 1백 대에 순위량(巡威梁)의 수군(水軍)으로 정역(定役)되었는데, 다만 사경(思敬)의 식량만 이어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세의 노모(老母)도 또한 장차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문(移文)에 의거하여 사실을 조사해 보니, 고한 바가 사실입니다. 지금 율문(律文)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릇 사죄(死罪)를 범한 것은 보통의 사면(赦免)에서는 용서되지 않으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어 병들어 마땅히 집에서 모셔야 될 다른 장정이 없는 자는 범한 바의 죄명(罪名)을 갖추어 아뢰어, 위에서 재가(裁可)가 되면, 만약에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범한 자는 곤장 1백 대만 치고, 나머지 죄는 속전(贖錢)을 거두어, 집에 머물러 아버이를 봉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경은 이 형률에 의거하여 속전(贖錢)을 거두고 아버이를 봉양하게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어 받아들이고 계한대로 하기를 명하고, 아울러 다른 도(道)에 행문이첩(行文移牒)하도록 하고, 특별히 사경에게 속전 거두는 것을 면제시켰다.

▶ 36권 9년 4월 24일 壬午

昌盛進段子二匹、羅一匹、褐子一匹、旄牛尾一封。尹鳳進織金一匹、段子三匹、粉色沙鍾一。白彦進織金一匹、段子三匹、廣絹四匹、兜羅綿一匹、紫鷺翎一封、畫佛三軸。中宮，昌盛進段子一匹、紗二匹。尹鳳進段子二匹、兜羅綿一匹。白彦進段子三匹、生廣絹三匹。東宮，昌盛進段子一匹、羅一匹、象毛一封。尹鳳進織金一匹。白彦進段子三匹、生廣絹三匹、紫鷺翎一封。

창성은 단자(段子) 2필, 깃[羅] 1필, 갈자(褐子) 1필, 모우미(旄牛尾) 1봉(封)을, 윤봉은 직금(織金) 1필, 단자(段子) 3필, 분색사종(粉色沙鍾) 하나를, 백언은 직금(織金) 1 필, 단자(段子) 3필, 광견(廣絹) 4필, 도라면(兜羅綿) 1필, 자로령(紫鷺翎) 1봉, 화불(畫佛) 3축(軸)을 올리고, 중궁에게 창성은 단자(段子) 1필, 사(紗) 2필을, 윤봉은 단자(段子) 2필, 도라면(兜羅綿) 1필을, 백언은 단자(段子) 3필, 생광견(生廣絹) 3필을 올리고, 동궁에게 창성은 단자(段子) 1필, 깃[羅] 1필, 상모(象毛) 1봉을, 윤봉은 직금(織金) 1필을, 백언은 단자(段子) 3필, 생광견(生廣絹) 3필, 자로령(紫鷺翎) 1봉을 올렸다.

▶ 36권 9년 4월 24일 壬午

昌盛請銅罐子、牛皮衣籠、鍍金銅佛、筒竹燈籠，尹鳳請鞍子二面，命皆與之。

창성(昌盛)이 구리 주전자[銅鑪子]·쇠가죽 옷농[牛皮衣籠]·도금 구리부처[鍍金銅佛]·통대 등롱[筒竹燈籠]을, 윤봉(尹鳳)이 말 안장[鞍子] 두 벌을 청하므로, 명하여 모두 주게 하였다.

▶ 36권 9년 5월 19일 丙午

命司饗所, 日送牛酪于星山府院君李稷.

사편소(司饗所)에 명하여 날마다 소젖[牛酪]을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에게 보내게 하였다.

▶ 36권 9년 6월 10일 丁卯

濟州道察訪金爲民啓:

~중략~

一, 濟州土地窄, 而畜産繁, 貧民之田, 不過一二畝, 及其苗葉稍盛, 權豪之家, 恣放牛馬, 盡喫其苗, 而貧民畏威, 不敢告訴. 雖告於官, 反不得路, 此亦積弊也. 臣謂放牛馬, 損民穀者, 其家長, 不論職秩高下, 竝依律文及教旨坐罪, 以救民瘼.

이하생략~

제주도 찰방 김위민(金爲民)이 계하기를,

~중략~

1. 제주는 땅은 좁은데 축산은 번성합니다. 가난한 백성의 전토가 한두 떼기 밖에 안 되는데, 농작물의 싹과 잎이 조금 번성할 만하면 권세 있는 집에서 마소를 마음대로 놓아먹이므로, 그 싹을 다 뜯어 먹어도 가난한 백성은 위엄을 무서워하여 감히 고소하지도 못하고, 비록 관에다 고소를 한대도 아무런 방도도 얻지 못하니, 이것도 쌓이고 쌓인 폐단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마소를 놓아 먹여 백성의 곡식을 손상시킨 자는 그 집의 주인을 관직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조문과 교지에 따라 죄를 주어 백성의 고통을 구제해 줄 것.

이하생략~

▶ 36권 9년 6월 21일 戊寅

命減取酪乳牛.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우유 짜는 젓소를 줄이도록 명하였다.

▶ 38권 9년 10월 16일 庚午

司憲府啓:

~중략~

上曰: “宰牛之禁, 前朝立禁殺之官, 本朝去年, 亦立法堅禁, 宰牛者稍息, 今聞民間復興. 前者柳廷顯曰: ‘朝廷使臣外, 雖大宴饗, 除宰牛.’ 予則以爲本國君臣, 同宴朝廷使臣燕享外, 毋殺牛, 以示重於民可也.” 贊成權軫、判書許稠等對曰: “本國宰牛之宴, 一年不過二三, 何更除之? 臣等以爲禾尺等, 本以宰牛資生, 雖使雜處, 平民不得盜殺, 然逃隱僻處, 恒事宰殺, 須立考察之法, 無時遣人, 巡捕糾舉, 痛懲以法. 且近來大小人鞍籠, 皆用牛馬皮. 因此用皮之處, 倍於昔日, 皮價騰貴, 其利倍蓰, 故盜殺者日滋.” 上曰: “前日皮物禁令, 已議行之, 而因旱遂停爾, 承政院更考以聞. 禾尺禁殺之法, 刑曹亦商確以聞.”

이하생략~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소 잡는 것을 금하여 전조(前朝)에서는 금살(禁殺)하는 관원을 두었고, 본조에서도 지난 해에 역시 법을 세우고 군이 금하여 소를 잡는 자가 거의 없었더니, 지금 들으니 민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자엔 유정현(柳廷顯)이 말하기를,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 외에는 비록 큰 잔치일지라도 소 잡는 일을 없애자.’ 하였거니와, 나도 생각하건대, 본국 군신(君臣)이 명나라 사신과 함께 잔치할 때 외에는 소를 잡지 말아서 백성에게 그 중함을 보이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찬성 권진(權軫)과 판서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소 잡는 잔치는 1년에 두세 번에 불과하니 어찌 다시 없애겠습니까. 신들은 생각하건대, 화척(禾尺)들은 본시 소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어, 비록 평민과 함께 섞여 살게 하여 몰래 소를 잡을 수는 없으나, 저들은 구석진 곳에 도망해 숨어서 항상 소 잡는 것을 일삼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감시하는 법을 세워 무시로 사람을 보내어 순찰하고 체포하여 법으로 통렬(痛烈)히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근래 대소인원(大小人員)의 안롱에 모두 마소의 가죽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가죽을 쓰는 길이 옛날의 배가 되어 가죽 값이 등귀하고, 그 이익이 몇 곱절이나 되므로 몰래 잡는 자가 날로 늘어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에 피물(皮物)에 대한 금령(禁令)이 이미 의논되어 행하다가 한재 때 문에 드디어 정지하였으니, 승정원은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화척의 금살(禁殺)하는 법은 형조에서 또한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하생략~

▶ 38권 9년 11월 27일辛亥

刑曹啓：“請申明宰殺牛馬禁止之法、新白丁平民雜處之令。”從之。

형조에서 계하기를, “마소[午馬]의 도살(屠殺)을 금지하는 법을 거듭 밝히고 백정(白丁)과 평민의 잡처(雜處)하는 영(令)을 새로이 내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39권 10년 1월 6일 己丑

濟州按撫使報：島內地窄人多，牧場過半，因牛馬踐蹂，禾稼多損，居民專以賣馬爲生，近因雌馬出陸之禁，雖二歲雄馬，盡賣之。以故雌雄不適，孳息漸少，壯大者百無一二。然馬之留島者本多，故日夜踏損，草木不盛，雖當春月，不得豐肥，況值雪深，瘦死頗多。其私場雌馬，或三歲一次，或二歲一次，許令出陸，以蕃芻芻。從之。

제주안무사(濟州按撫使)가 보고하기를, “섬 안에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목장(牧場)이 절반이 넘어 소와 말이 짓밟기 때문에 벼농사에 손해가 많습니다. 거민(居民)들은 오로지 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사온데 요사이 암말을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비록 두 살짜리 수말이라도 다 팔아버리게 되니, 이 까닭으로 암말과 수말이 서로 고르지 못하여 번식(繁殖)이 점차 줄어들어 장대(壯大)한 것은 1백 마리에 한두 마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섬에 남아 있는 말이 본디 많기 때문에 밤낮으로 짓밟아 손상(損傷)시키니, 초목(草木)이 성하지 못하여 비록 봄철이 되어도 살이 찌지 못하는데, 하물며 눈이 많이 오게 된다면 파리해져 죽는 것이 꼭 많습니다. 그 사사 목장(牧場)의 암말은 혹 3년 만에 한 차례씩, 혹 2년 만에 한 차례씩 육지에 내보내도록 허가하여 말먹이 건초(乾草)를 번성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1권 10년 8월 10일 己丑

昌盛求茶鍾盤，頭目昌順・昌貴，求弓箭二部、縣布十四、小鑰六、馬粧二部，尹鳳求大鍾一、水獺皮二張，李相求白紬三四、綿子一斤十兩、白縣布一匹、牛皮靴黑斜皮靴各一、鑰行器一部、刀子三柄、鑰中鍾鑰瓶各一、中鑰三、鐵箭十八，頭目昌旺求鐵箭四，皆與之。

창성(昌盛)은 차종반[茶鍾盤]을 요구하고, 두목 창순(昌順)·창귀(昌貴)는 궁전(弓箭) 2벌, 면포(縣布) 10필, 작은 자물쇠[小鑰] 6개, 마장(馬粧) 2벌을 요구하고, 윤봉(尹鳳)은 대쟁(大鍾) 1개, 수달피(水獺皮) 2장을 요구하고, 이상(李相)은 백주(白紬) 3필, 면자(縣子) 1근 10냥쫘, 백면포(白縣布) 1필, 우피화(牛皮靴)·흑사피화(黑斜皮靴) 각각 1켢레, 유행기(鑰行器) 1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별, 칼 3자루, 유기로 만든 중쟁(中鍾)과 유병(鑪瓶) 각각 1개, 중자물쇠[中鑰] 3개, 철전(鐵箭) 18개를 요구하고, 두목 창왕(昌旺)은 철전(鐵箭) 4개를 요구하니, 모두 이를 주게 하였다.

▶ 41권 10년 9월 25일 甲戌

李相求白紬四十尺、銅湯灌一、昌盛求牯牛皮一張，頭目張信求矢服一部，雷勉求弓韉矢服各一部，昌海求大鐵箭六箇，皆給之。

이상(李相)은 백주(白紬) 40척(尺), 동탕관(銅湯灌) 1개를 요구하고, 창성(昌盛)은 암소 가죽[牯牛皮] 1장을 요구하고, 두목 장신(張信)은 시복(矢服) 1벌을 요구하고, 너면(雷勉)은 궁건(弓韉)·시복(矢服) 각 1벌을 요구하고, 창해(昌海)는 대철전(大鐵箭) 6개를 요구하니, 모두 주게 하였다.

▶ 42권 10년 11월 19일 丁卯

上曰：“造弓無如水牛角，予欲請於上國，置之全羅道不寒之地。”兵曹判書崔閔德對曰：“臣近日都試武士，見弓之脫弦，數矣而不折，皆水牛角也。”左議政黃喜曰：“水牛毛薄畏寒，方冬，築宇善養之，則可生。然買來甚難，若請之則帝豈不許？”上曰：“予亦以爲請之必得，買來則難矣。”

임금이 말하기를, “활을 만드는데 수우각(水牛角)만한 것이 없다. 내가 명나라에 청하여 전라도의 춥지 않은 지대에 두려고 한다.”하니, 병조판서 최윤덕(崔閔德)이 대답하기를,

“신이 근일의 도시무사(都試武士) 때 보니, 활의 시위[弦]가 자주 빠져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모두 수우각이었습니다.” 하고, 좌의정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수우(水牛)는 털이 얇고 추위를 타므로 한겨울철에 우리를 지어 잘 기른다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 오기는 매우 어려우니 만약에 청한다면 황제께서 어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청해 보려고 한다. 반드시 구매(購買)해 오려면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 43권 11년 1월 12일 辛巳

金滿求白細絛紬二匹、紅雌牛皮·靑斜皮，命與之。

김만이 백세면주(白細絛紬) 2필과 홍자우피(紅雌牛皮)·청사피(靑斜皮)를 요구하므로, 명하

여 이를 주었다.

▶ 43권 11년 2월 5일 辛巳

司憲府啓:

~중략~

一, 宰殺牛馬, 曾有禁令, 大小人員, 毋得食其肉. 其自死之肉, 京中漢城府烙印, 外方受官文後, 方許賣買, 違者禁止.

이하생략~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중략~

1. 우마(牛馬)의 도살은 일찍이 금령이 있었으니 대소 인원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며, 저절로 죽은 것은 서울에서는 한성부에서 검사하여 낙인(烙印)하고, 외방에서는 그 고을에서 검사한 공문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 매매를 허락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하생략~

▶ 45권 11년 7월 7일 辛亥

尹鳳求銅鐵鑪口等物, 昌盛求綿子牛皮等物, 命與之.

윤봉이 동철 노구(銅鐵鑪口) 등의 물품을 요구하고, 창성(昌盛)은 면자(綿子)·우피(牛皮) 등의 물품을 요구하니, 주라고 명하였다.

▶ 45권 11년 7월 8일 壬子

尹鳳求佛坐家及厚紙十張、緜三斤、湯灌一、犢牛皮一張, 昌盛求藍綃四尺、汗替五、油紙韃十、弓韃矢筒各一, 頭目李敬求鐵箭五箇, 李成、胡唐兒各求磬子一, 昌安求柳葉箭三箇, 李全求艾葉箭三箇, 皆與之.

윤봉이 불좌가(佛座家)와 후지(厚紙) 10장, 솜[緜] 3근, 탕관(湯灌) 1개, 우피(牛皮) 1장을 요구하고, 창성은 남색 생초[藍綃] 4척, 한체(汗替) 5, 유지천(油紙韃) 10, 동개[弓韃]·전통[矢筒] 각 1개를 요구하고, 두목(頭目) 이경(李敬)은 철전(鐵箭) 5개를 요구하고, 이성(李成)·호당아(胡唐兒)는 각각 경자(磬子) 1개를 요구하고, 창안(昌安)은 유엽전(柳葉箭) 3개를 요구하고, 이전(李全)은 애엽전(艾葉箭) 3개를 요구하니, 모두 이를 주게 하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45권 11년 7월 9일 癸丑

禮曹啓: “尹鳳求弓韃八, 昌盛求鑰燭臺四雙、舞鼓二、牛馬皮各五張、彩紋磁鉢十事、磁碗二十事、細綿布十四、豹尾一, 頭目房童兒·柴友·劉福海等, 求磬子各一, 請皆與之. 若綿布已給, 細布二十一匹, 勿復與之.” 從之.

예조에서 계(啓)하기를, “윤봉(尹鳳)이 동개 8개를 요구하고, 창성(昌盛)은 낫춥대[鑰燭臺] 4쌍, 무고(舞鼓) 2개, 우마피(牛馬皮) 각 5장, 채문자발(彩紋磁鉢) 10벌, 자완(磁碗) 20벌, 세면포(細綿布) 10필, 표미(豹尾) 1두(頭)를 요구하고, 두목 방동아(房童兒)·시우(柴友)·유복해(劉福海) 등은 각기 경자(磬子) 1개를 요구하오니, 다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5권 11년 8월 26일 庚子

兵曹啓: “上護軍高得宗等上言: ‘請於漢拏山邊四面約四息之地, 築牧場, 不分公私馬, 入放場內, 居民六十餘戶, 悉移於場外之地, 從願折給. 又窮推濟州逃來人戶, 於下陸初面海珍境內, 笠巖、於蘭兩處, 置館築城, 擇濟州子弟能幹事者, 差館丞, 下陸之馬, 驅入城內歇息乃行, 其敗船人口, 存恤活命. 且於往返時, 出來人, 則從濟州牧官行狀, 入歸人, 則從陸地各官行狀, 館丞嚴加考察, 無行狀者, 轉報監司還本, 使不得彼此流移, 館丞陞黜, 令其道監司主之. 本州土性瘠薄, 農夫於田內, 必造八場, 養牛取糞, 播種後必聚牛踏田, 乃能立苗. 今受教內, 令牛隻盡出陸, 本州之民, 無以耕農. 且牛隻孳息之戶, 本不多. 晝則放于人戶近處, 夜則入處八場, 與牧場之馬全不相雜. 請停牛隻出陸之令, 以慰民望.’ 命下本曹磨勘. 今詳漢拏山下築場牧馬及下陸初面設置館所, 請依所申. 館丞則勿令別差, 令其道驛丞兼任. 牛隻出陸, 則依宣德三年受教, 三年一次, 官給其直, 從自願貿易出陸.” 從之, 唯漢拏山築場, 則可遣官審定, 更移文全羅道監司, 訪問館所可設處, 回報云: “笠巖〔笠巖〕江邊, 無可設城館處, 距於蘭江邊十里許, 海珍南面狗山城內, 有田可耕, 且有水泉, 可置城館.”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상호군(上護軍) 고득종(高得宗) 등이 상언(上言)하여 청하기를, ‘한라산(漢拏山)가의 사면(四面)이 약 4식(息)쯤 되는 면적의 땅에 목장(牧場)을 축조(築造)하여, 공사(公私)의 말을 가리지 말고 그 목장 안에 들여보내어 방목(放牧)하게 하고, 목장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 60여 호는 모두 목장 밖의 땅으로 옮기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땅을〉 떼어 주도록 하고, 또 제주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을 끝까지 가려내기 위하여 하륙(下陸)하는 초입인 해진(海珍) 경내(境內)인 입암(笠巖)·어란(於蘭) 두 곳에 관(館)을 설치하고 성을 쌓은 뒤에, 제주자제(濟州子弟)로서 능히 일을 맡을 만한 자를 선택하여

관승(館丞)에 임명하고, 하륙한 마필(馬匹)은 성안으로 몰아넣어서 번식하게 하며, 또 파선(破船)하여 표류한 사람들을 구출하여 목숨을 살려 주는 일을 행하게 하며, 또 제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는, 제주에서 나오는 사람이면 제주 목관(濟州牧官)의 행장(行狀)에 좇고, 제주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육지의 각 고을의 행장에 좇아 관승(館丞)이 엄중하게 검사하며, 행장이 없는 자는 감사에게 보고(報告)하여 본래 있던 데로 돌려보내게 하여, 이쪽과 저쪽 사람들이 유이(流移)하는 일이 없게 하고, 관승(館丞)의 승진과 파면은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며, 제주는 토성(土性)이 메마르므로 농부들은 밭 가운데에 반드시 팔장(八場)이란 것을 만들어서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採取)하여 종자를 뿌린 뒤에는 반드시 소들을 모아다가 밭을 밟게 하여야 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교(受敎) 안에 소를 죄다 육지로 내보내라고 하여 본주(本州)의 백성들이 경농(耕農)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소를 번식시키고 있는 민호(民戶)는 본래 많지 않으며, 낮에는 사람의 집 근처에 방목(放牧)하고 밤에는 팔장(八場)에 들어가 있게 하기 때문에, 목장(牧場)의 말과는 전연 서로 섞이지 않으니,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을 정지(停止)시켜 백성들의 소망을 위안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상언(上言)을> 본조(本曹)에 내리시어 처리하라고 명령하였던 바, 이제 자세히 계품합니다. 한라산 아래에 목장(牧場)을 쌓아 말을 먹이는 것과, 하륙하는 초입에 관소(館所)를 설치하는 일은 상언(上言)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관승(館丞)은 따로 임명하지 말고 그 도(道)의 역승(驛丞)으로 겸임하게 하며,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은 선덕(宣德) 3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관에서 그 값을 주고 자원(自願)에 따라 매매(賣買)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만 한라산에 목장을 축조하는 것은 관리를 보내어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다시 전라도감사에게 이문(移文)하여 관소(館所)를 설치할 만한 곳을 찾아보게 하니, 회답에 말하기를, “입암(笠巖)의 강변(江邊)에는 성(城)과 관(館)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고, 어란(於蘭)의 강변에서 10리 거리에 있는 해진(海珍) 남면(南面)의 구산성(狗山城) 안에는 경작할 만한 밭이 있고, 또 물과 샘이 있어서 성과 관소를 설치할 만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46권 11년 10월 11일 甲申

司憲府啓: “上林園提舉大護軍金良, 以牛肉, 欲饋提調安壽山, 事證明白, 強辨不承, 請囚鞫之.” 下義禁府.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상림원 제거(上林園提舉)인 대호군 김간(金良)이 쇠고기를 제조(提調) 안수산(安壽山)에게 바치려던 사실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억지로 변명하고 승복(承服)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가두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하니, 의금부에 내렸다.

▶ 46권 11년 12월 9일 辛巳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上又曰：“驢之爲物，在中原甚利用．就遼東等處，交易來養若何？”稠對曰：“非特驢也．水牛之用，最有利於兵，倘入朝路梗，則難以得之．且此物非北方所產，又禁出外國．帝若移御南京，則奏請交易而來，孳長蕃息，其利甚多．”上曰：“予亦有志於此，卿言甚然．”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나귀란 놈을 중원에서는 몹시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니, 요동(遼東) 등지에 가서 교역하다가 기르는 것이 어떠할까.”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다만 나귀만이 아닙니다. 물소[水牛]의 이용도 군사(軍事)에 가장 긴요하운데, 혹시 들어갔다가 길이 막히면 얻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 이 물건이 북방의 소산이 아니고, 또 외국으로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사오니, 황제께서 만약 남경(南京)으로 이어(移御)하시거든 이를 주청(奏請)해서 교역하다가 기르고 번식시키면 그 이익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이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 경의 말은 참 옳은 말이오.”하였다.

▶ 47권 12년 3월 18일 戊午

詳定所啓諸學取才經書諸藝數目：

~중략~

醫學： 《直指脈》 《纂圖脈》 《直指方》 《和劑方》 《傷寒類書》 《和劑指南》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衍義》 《本草》 《鄉藥集成方》 《針灸經》 《補註銅人經》 《難經》 《素問》 《括聖濟總錄》 《危氏得効方》 《竇氏全嬰》 《婦人大全》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 .

이하생략~

상정소(詳定所)에서 여러 학(學)의 취재(取才)에 있어 경서(經書)와 여러 기예(技藝)의 수목(數目)에 대하여 아뢰기를,

~중략~

의학(醫學)은 《의학직지(醫學直指)》 · 《맥찬도(脈纂圖)》 · 《맥직지방(脈直指方)》 · 《화제방(和劑方)》 · 《상한류서(傷寒類書)》 · 《화제지남(和劑指南)》 · 《의방집성(醫方集成)》 · 《어약원방(御藥院方)》 · 《제생방(濟生方)》 · 《제생발수방(濟生拔粹方)》 · 《쌍중처사활인서(雙鍾處士活人書)》 · 《연의본초(衍義本草)》 ·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 《침구경(針灸經)》 · 《보주동인경(補註銅人經)》 · 《난경(難經)》 · 《소문(素問)》 · 《괄성제총록(括聖濟總錄)》 · 《위씨득효방(危氏得効方)》 · 《두씨전영(竇氏全嬰)》 · 《부인대전(婦人大全)》 · 《서죽당방(瑞竹堂方)》 · 《백일선방(百一選方)》 · 《천금익방(千金翼方)》 · 《우마의방(牛馬醫方)》 이요,

이하생략~

▶ 48권 12년 4월 6일 乙亥

判府事崔閔德啓: “盜殺牛馬者甚衆, 必皆皮工無賴者也. 今盜殺司僕馬, 請鞠其黨大懲.” 右議政孟思誠亦啓: “宜禁常人皮鞋與不繫皮物.” 上曰: “勢難禁之, 可令刑曹窮推其黨.”

판부사 최윤덕이 아뢰기를, “마소[牛馬]를 도둑질해다가 죽이는 자가 심히 많사온데, 이는 반드시 모두 갖바치[皮匠] 무뢰배들의 짓이옵니다. 이제부터 사복마(司僕馬)를 도살(盜殺)한 자는, 청하건대 그 무리를 국문하여 크게 징계하소서.” 하고, 우의정 맹사성(孟思誠)도 아뢰기를, “상인(常人)들의 가죽신과 긴요하지 않은 피물(皮物)은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편이 금하기에는 어려우니, 형조로 하여금 도살하는 무리를 철저히 추핵(推劾)하게 하라.” 하였다.

▶ 48권 12년 4월 14일 癸未

漢城府啓: “京中五部及城底十里物故牛馬, 審驗給立案後, 肉則着標, 皮則不着標, 故盜竊牛馬者常多. 請自今生皮納本府, 受漢字火印, 熟正, 及賣于市, 又告京市署, 京市署考其着標, 方許買賣, 卽收其標燒毀之. 如以無標皮, 私相買賣者, 京中則管領及五家長、城底十里, 則勸農方別監等, 輒報本府, 本府移文刑曹, 依無標牛馬肉買賣人例論罪, 皮則沒官, 其不告官管領五家長及勸農方別監等, 亦依律罪之. 外方各道, 以州名字號火印着標, 依上項例施行.” 從之.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서울 안 오부(五部) 및 성밑[城底] 10리(里) 안에 물고(物故)된 소와 말을 검사하여 입안(立案)을 준 뒤에, 고기는 표를 붙이고 가죽은 표를 붙이지 않는 까닭으로 마소를 도둑질하는 자가 항상 많으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날가죽[生皮]은 본부(本府)에 들어서 한자(漢字) 화인(火印)을 받게 하고, 숙정(熟正)하여 시장에 팔 적에도 또 경시서(京市署)에 고하면, 경시서에서는 그 표가 붙었는가를 조사한 뒤에 그 매매를 허가하고, 그 표는 곧 거두어 불태워 없애되 만일 표가 없는 가죽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에게는 서울 안에서는 관령(管領) 및 오가(五家)의 장(長)이, 성밑 10리 안에서는 권농(勸農)과 방(方)의 별감(別監) 등이 이를 곧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는 형조에 공문을 보내어 표 없는 마소 고기를 매매하는 예(例)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가죽은 관가에서 몰수하며, 그것을 관가에 고하지 않는 관령·오가의 장과 권농의 별감 등에게도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고, 지방 각도에는 그 고을 이름의 글자로 된 화인(火印)으로 표를 붙여서 윗 항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1권 13년 1월 28일 癸巳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上謂左右曰：“今聞遼東欲換本國牛一萬，奏請于帝，若許換易，則何以備之？” 權軫、許稠、申商等對曰：“牛之在民家者小，備之甚難。” 上曰：“予亦聞馬則家家有之，牛則罕少。且濟州人民，皆厭牛隻出陸。高得宗亦言：‘濟州馬多牛少，民家專賴牛以糞田，不可出陸。’儻勒令出陸，則未可也，優給其價，易換貢獻如何？” 軫對曰：“優給米豆，從其所願可也。” 上曰：“卿其致慮布置。”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들으니 요동(遼東)에서 우리나라 소 1만 마리를 교역하고자 황제께 주청(奏請)하였다 하는데, 만일 이 교역을 허락한다면 어찌 대비하겠는가?”하니, 권진(權軫)·허조(許稠)·신상(申商) 등이 대답하기를, “민가에 있는 소가 적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 역시 말은 집집마다 있으나, 소는 희소하다고 들었노라. 또 제주(濟州)의 인민들이 소를 육지로 내 보내는 것을 모두 싫어한다 하며, 고득종(高得宗)도 역시 말하기를, ‘제주엔 말은 많아도 소는 적으며, 민가에서 전답의 거름을 오로지 소에 의지하고 있어 육지로 내올 수 없는데, 혹 강제로 내온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니, 그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하고 바꾸어 어서 바치는 것이 어떤가.”하니, 권진이 대답하기를, “미곡이나 콩을 넉넉하게 주고서 그 원하는 대로 쫓는 것이 옳습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잘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라.”하였다.

▶ 51권 13년 3월 23일 丁亥

丁亥/進獻使通事俞宗秀回自京師啓：“帝準遼東所奏，令就本國買牛一萬隻，每牛絹一匹、布四匹。”

진헌사(進獻使)의 통사(通事) 유종수(俞宗秀)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황제께서 요동(遼東)에서 주달한 바를 허락하시고, 본국으로 가서 소 1만 마리를 사 들이게 하셨는데, 소 1두(頭)에 견(絹) 1필과 베[布] 4필이라 합니다.”

▶ 51권 13년 3월 23일 丁亥

又曰：“本朝牛隻甚少，今遼東奏準易換之牛，將以未得充數奏之乎？且牛隻雄少雌多，將相半以備乎？多備雌牛以換乎？” 思誠以爲：“宜將元額雄牛，進三分之一，其餘用雌牛。” 軫、稠等以爲：“先以雄牛三分之一進之，然後奏請減數。” 從思誠議。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소가 몹시 적은데 이제 요동(遼東)에서 우척(牛隻) 교환의 주달이 인준되었으니, 장차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주달해야 할 것인가. 또 소가 수놈은 적고 암놈이 많은데, 장차 자웅을 반반으로 갖추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암소를 많이 갖추어서

교환할 것인가.”하니, 맹사성은 아뢰기를, “원액수의 3분의 1을 황소로 바치고, 그 나머지는 암소를 쓰게 하소서.”하고, 권진·허조 등은 아뢰기를, “먼저 황소로 3분의 1을 바친 다음에, 수량의 감축을 주청(奏請)하소서.”하니, 맹사성의 논의를 따랐다.

▶ 51권 13년 3월 24일 戊子

戊子/置進獻色, 以易換牛隻也.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니, 이는 요동과 소를 무역하기 때문이었다.

▶ 51권 13년 3월 25일 己丑

己丑/孟思誠、許稠、吳陞、李孟昀等啓: “遼東準請牛隻貿易之文, 通事俞宗秀初請於遼東鎮撫王永, 永辭以時未頒降, 宗秀固請, 永不得已傳寫與之, 仍言毋泄. 今本國不待勅諭, 先設進獻色, 倘使臣來問, 則何以對之? 且已備充數, 而使臣來到輒進, 則彼不知本國難備, 必謂易辦, 頻見點退, 則其弊不貲. 請姑停進獻色, 待使臣來布置, 未晚也. 上御思政殿, 命知申事安崇善曰: “前日政府六曹擬議之時, 間有奏請減數者, 而其奏文, 當以本國牛隻, 適罹群疾缺小, 難堪充數, 予不取也. 予向朝廷至誠事之, 至此一事, 乃以詐言奏請減數, 豈理也哉! 是則爲山九仞, 功虧一簣, 予所不爲.” 崇善曰: “天下古今之事, 不過邪正二字, 豈以邪道事上國乎! 雖有此議, 請勿聽從.” 命崇善就政府擬議曰: “易換牛隻備辦事, 以米穀布貨貿易於民若何? 且使臣未到而預備乎? 待使臣來備之乎?” 思誠議謂: “不可以米穀布貨, 貿易民間, 宜倣進獻觀馬色例爲之, 須當使臣未到之前, 分定各道預備可也.” 稠、陞、孟昀議謂: “宜倣進獻觀馬色例施行, 待使臣來爲之, 未晚.” 稠又曰: “朝廷以布貨, 換本國民間牛則可矣. 若本國先以布米, 換於民間, 而朝廷所易之價, 則輸入於國, 實爲未便.” 崇善以啓, 上曰: “牛隻換易布置, 待使臣度江之後, 姑停進獻色.”

맹사성·허조·오승·이맹균 등이 아뢰기를, “요동(遼東)에서 우척 무역(牛隻貿易)을 청한 글을 통사(通事) 유종수(俞宗秀)가 처음에 요동 진무(遼東鎮撫) 왕영(王永)에게 청했던바, 왕영이 아직 반강(頒降)을 보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것을, 종수가 굳이 청하매 왕영이 마지못해 이를 등사해 주면서 인해 말하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국에서 칙유(勅諭)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였다가, 혹시 사신(使臣)이 와서 이를 힐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 미리 수효를 충당해 놓았다가 사신이 오는 즉시 이를 바치며, 저희들이 본국의 갖추기 어려운 사정은 모르고서, 반드시 관득하기 쉬운 것으로 여기고는 점검에서 자주 환퇴(還退)를 보게 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사오니, 청하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건대 아직 진헌색의 설치를 정침하시고 사신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포치(布置)해도 늦지 않습니다.”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지신사 안승선에게 말하기를, “전일의 정부와 육조가 이를 놓고 검토 논의할 때에 간혹 수량의 감축을 주청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주문(奏文)에 본국의 소들이 마침 병에 걸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량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자는 것을, 내가 채택하지 않았다. 내가 명나라에 대하여 지성껏 섬겨왔는데, 이 한 가지 일에 이르러서 거짓말로 그 수효의 감축을 청한다면 어찌 도리에 되겠는가? 이것이 곧 아홉 길의 산을 쌓아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공(前功)이 이지러지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하니, 승선이 대답하기를, “천하 고금의 일이 사정(邪正) 두 글자에 불과합니다. 어찌 사도(邪道)로 상국(上國)을 섬기겠습니까. 비록 이러한 건의가 있더라도 좇지 마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다. 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로 가서 의견을 묻기를, “요동과 무역할 소를 갖추어 얻는데 있어, 미곡과 포화(布貨)로 민간인과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사신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준비할 것인가.”하니, 맹사성의 의의(擬議)하기를, “미곡과 포화로 민간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진헌관마색(進獻觀馬色)의 예를 모방하여 할 것이며, 모름지기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각도에 이를 배정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하고, 허조·오승·이맹균은 의의하기를, “마땅히 진헌관마색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며, 사신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허조는 또 아뢰기를, “명나라에서 포화(布貨)를 가지고 본국의 민간 우척과 교환한다면 가하오나, 만약 본국에서 미포(米布)를 가지고 먼저 민간과 교환해 놓고 명나라와 교역하는 대가는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로 타당치 않은 일입니다.”하여, 안승선이 이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척 교환에 따른 조치는 사신의 도강(渡江)을 기다려서 하고, 진헌색(進獻色)도 아직 정침하게 하라.”하였다.

▶ 51권 13년 3월 28일 壬辰

兵曹啓: “牛之於國, 其用甚大, 不於公處畜養孳息, 誠爲闕典. 請自今除納生穀草京畿各官外, 留守、大都護府、牧官、授牝牛六首、雄牛三首, 都護府知官, 牝牛四首、雄牛二首, 縣令縣監牝牛二首、雄牛一首, 養以國庫料豆孳息, 載之會計, 令司僕寺掌之.” 命與政府諸曹同議, 僉曰: “在官在民, 孳息無異, 各官分養, 則喂養之際, 民必受弊. 宜訪各道可作牧場處, 換牛隻放養, 以充國用, 或聽民間貿易.” 命依所啓, 仍命曹與司僕寺提調, 議訪牧場處, “今考去丁末年牧場革除, 京畿陽城縣槐台吉串、水原府弘原串、仁川郡龍流島・無衣島、南陽府仙甘彌島、江華府注文島、黃海道海州睡鴨島、忠清道唐津縣孟串、泰安郡多利串、藍浦縣津串及曾革咸吉道安邊府押戎、龍津縣反上四訥、洪原縣馬郎耳島、北青府羅萬北島, 皆可放養. 又於慶尙、全羅道, 訪得水草俱足, 可以放牧處, 使之入牧. 其買牛隻, 則以各道魚鹽所出及各營公物貿易.”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소는 국가에 있어 그 용도가 심히 큰 것인데, 관에서 이를 길러 번

식하지 않는 것은 실로 궤전(闕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하읍건대 이제부터 생곡초(生穀草)를 납부하는 경기의 각 고을을 제외하고 유수(留守)·대도호부·목(牧) 등의 고을에는 암소[牝牛] 6두(頭)와 황소[雄牛] 3두를, 도호부와 지군사 등 고을에는 암소 4두와 황소 2두를, 현령(縣令)·현감(縣監) 등의 고을에는 암소 2두와 황소 1두를 배정하여 국고의 요두(料豆)로 길러 번식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실려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제조(諸曹)와 같이 이를 의논하게 한바, 모두 말하기를, “관이나 민이나 번식시키는 데는 다를 것이 없사온데,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되면 기르는 사이에 백성들이 반드시 그 폐해를 받을 것이오니, 각도의 목장(牧場)을 설치할 만한 곳을 물색해 놓고 소를 교역하여 놓아 길러서 국가 수용에도 충당하고 혹은 민간과의 교환도 들어주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이내 본조와 사복시제조에게 명하기를,

“목장으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해 찾으라.”하여, 지난 정미년에 혁파한 목장을 상고한바, 경기 양성현(陽城縣)의 괴태길관(槐台吉串), 수원부(水原府)의 홍원관(弘原串), 인천군(仁川郡)의 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도(仙甘彌島), 강화부(江華府)의 주문도(注文島)와 황해도 해주(海州)의 수압도(睡鴨島)와 충청도 당진현(唐津縣)의 맹관(孟串), 태안군(泰安郡)의 다리관(多利串), 남포현(藍浦縣)의 진관(津串)과 오래 전에 혁파한 바 있는 함길도 안변부(安邊府)의 압읍(押戎)과 용진현(龍津縣)의 반상사눌(反上四訥), 홍원현(洪原縣)의 마랑이도(馬郎耳島), 북청부(北靑府)의 나만북도(羅萬北島) 등은 모두 놓아 기를 만한 곳이며, 또 경상·전라도에서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여 방목(放牧)할 만한 곳을 찾아서 목장으로 만들게 하고, 소를 구입하는 데는 각도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과 각영의 공물(公物)로서 이를 바꾸게 하자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1권 13년 3월 30일 甲午

遣護軍趙深于白翎島，刷出野牛.

호군(護軍) 조심(趙深)을 백령도(白翎島)로 보내어 들소[野牛]를 색출하게 하였다.

▶ 52권 13년 6월 2일 甲午

兵曹啓: “濟州, 非惟牛馬放牧之場, 乃元朝入放麀子蕃殖之所, 今閑雜之徒, 鬻殺牛馬及麀子殆盡, 將來可慮. 乞令濟州旌義、大靜及東西監牧官, 審視牛馬放牧及麀子依接處, 以其附近居人, 量定考察.”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는 마소를 놓아 먹이는 장소일 뿐 아니라, 원(元) 나라에서 들여와서 놓아먹이는 고라니[麀子]를 번식시키는 곳인데, 지금 한잡(閑雜)한 무리들이 마소와 고라니를 잡아 죽여서 거의 다 없어졌으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제주 정의(旌義)·대정(大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靜) 및 동서 감목관(東西監牧官)에게 명령하여 마소를 농아먹이는 것과 고라니가 사는 곳을 살펴보고, 그 부근에 사는 사람으로서 감찰(監察)을 요량해 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52권 13년 6월 11일 癸卯

司僕寺提調啓: “本寺專掌牧養牛馬, 而各道島串, 未能周知, 不謄文案未便. 請令兵曹移文各道, 審視空閑島串私馬入場處以報, 更遣委差, 同其道監牧官, 察水路遠近、水草多小、牧養便否, 分其可放馬幾處、可放牛幾處, 具錄以啓. 本寺更磨勘成籍, 一置兵曹, 一置本寺, 一置各道, 以憑後考.” 從之.

사복시제조가 아뢰기를, “본시(本寺)는 마소를 먹여 기르는 것을 전장(專掌)하였사오나, 각도의 섬과 곳[串]을 두루 알 수 없어 문안에 등서(謄書)되지 아니한 것은 미편하오니, 청하건대, 병조로 하여금 각도에 이문하여 빈섬[空閑島]과 곳으로서 사마(私馬)가 입장하는 곳을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고, 다시 위관(委官)을 임명하여 보내어 그 도의 감목관과 같이 수로의 원근과 수초의 다소와 목양의 편부(便否)를 살펴, 말을 농아먹일 수 있는 곳이 얼마이며, 소를 농아먹일 수 있는 곳이 얼마인가를, 나누어 갖추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본시에서 다시 마감하여 문부를 만들어, 하나는 병조에 두고, 하나는 본시에 두고, 하나는 각도에 두어서 뒤에 상고하는 빙거(憑據)를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54권 13년 10월 14일 乙巳

召謂黃喜等曰: “農事專賴於牛, 曩聞朝廷易換牛隻之語, 日夜憂慮, 今寢其事, 使臣還時, 欲以牛隻稀少語之何如?” 喜等曰: “言之何害!” 上曰: “予當力陳之.” 又曰: “尹鳳向本國, 不如昔時, 發言又狂, 略無厚待之意, 將何以悅其心乎?” 喜等曰: “密贈布子爲可.” 上曰: “其數幾何?” 喜等曰: “七八十匹爲可.” 安崇善曰: “臣意以爲贈之無名. 雖密贈, 誰不知之? 莫若不贈之爲愈也.” 上曰: “不明之君在上, 宦官用事, 則雖中朝之臣, 尙且畏縮, 況在海外之國, 豈可守正而不事之哉? 宜以麻布七十匹, 潛給尹重富, 待鳳之還, 乘間贈之.”

황희 등을 불러 이르기를, “농사는 오로지 소에만 힘입게 되는데, 저번에 조정에서 소를 바꾸자는 말이 들렸으므로 밤낮으로 근심하였다. 지금 그 일을 그만 중지하고 사신이 돌아갈 때에 소가 적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힘써 말하겠다.”하였다. 또 말하기를, “윤봉이 본국을 대함인 그전 때와 같지 않으며, 말하는 것도 또한 광패하여 조금도 후하게 대접하는 뜻이 없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그 마음을 기쁘게 하겠는가?”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비밀히 베[布子]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수량이 얼마면 되겠는가?”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7, 80필이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안송선은 아뢰기를, “신의 의견은, 그에게 주는 일이 명목이 없사오니 비록 비밀히 주더라도 누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주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밖지 못한 임금이 위에 있고, 환관이 권세를 부리게 되니, 비록 중조의 신하일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몸을 움추리는데, 하물며 해외에 있는 나라가 어찌 정도를 지키고서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마포 70필을 몰래 윤중부에게 주어서, 윤봉이 돌아감을 기다려 틈을 타서 그에게 줄 것이다.”하였다.

▶ 54권 13년 12월 5일 丙申

召黃喜、孟思誠、權軫、許稠、申商、鄭招、尹淮等，命安崇善議事，
~중략~

其三曰：“我國牛隻本不多，近因失農，民食尙不足，其有餘力以養農牛乎？緣此可用之牛尤少。詮聞朝廷欲換牛隻一萬，果如此言，則本國民間農牛無遺，深以爲慮。將告于尹鳳云：‘先白大人，然後欲告昌大人，願指揮。’何如？”喜等曰：“上教是矣。”
이하생략~

황희(黃喜)·맹사성·권진(權軫)·허조(許稠)·신상·정초(鄭招)·윤희(尹淮) 등을 불러서 안송선(安崇善)에게 명하여 일을 의논하도록 했는데,
~중략~

그 셋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본래 많지도 않은데, 근래에는 실농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양식도 오히려 부족하니, 어찌余力(餘力)이 있어서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쓸 만한 소는 더욱 적어지는 편인데, 듣건대, 중국에서 소 1만 마리를 바꾸고자 한다 하니, 과연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본국의 민간에 있는 농우는 남김이 없게 될 것이니, 매우 염려가 된다. 윤봉(尹鳳)에게 알리기를, ‘먼저 대인에게 사된 후에 창대인(昌大人)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하생략~

▶ 54권 13년 12월 6일 丁酉

安崇善啓：“尹鳳與盧閑云：‘帝欲換牛馬各一萬匹，翰林院奏云：「朝鮮小國，今海青土豹捕捉事煩，不宜并換牛隻。」帝從之，不下勅書。吾還備奏牛隻不產之由，然於昌大人處，力言之甚可。’

안송선이 아뢰기를, “윤봉이 노한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소와 말을 각각 1만 필을 교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고자 하니, 한림원(翰林院)에서 아뢰기를, 「조선은 작은 나라이므로 지금 해청과 토표를 잡는 일로도 번거로운데, 소까지 교환하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하여서, 황제가 이 말을 따라서 칙서를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돌아가서 소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아뢰겠지마는, 창대인에게도 힘써 말하는 것이 매우 옳을 것입니다.’하였습니다.”하였다.

▶ 54권 13년 12월 13일 甲辰

幸太平館，設餞宴。上語使臣曰：“本國荒漠之地，凡物不阜，而牛隻尤不盛。近因水旱，民生艱食，救死不贍，安有養牛之資，因此農牛鮮少，民產可慮。今聞帝勅本國，令換牛隻一萬，心實惶懼。本國民戶有牛者，十之一，而其存者不過一隻而已。雖舉國索之，焉得萬隻？冀大人善奏蠲免，俾我東民偏蒙聖澤。”昌盛對曰：“殿下極慮民弊，而有是言，何敢不奏？前此金銀之貴，因吾奏達，帝即蠲之，況此牛隻乎？且易牛隻，非帝命也，遼東人欲以所有，易其所無耳。往者再換馬，以用於軍政也，牛則非朝廷所用也，殿下勿慮，但盡心捕進海青可也。”上曰：“弊邦之產，無物可進，但有海青土豹耳。帝再三勅諭，予盡心捕獲以進。予之此心，天地日月照臨，今者帝遣探捕軍，齎網捕之，深恐帝以本國爲未盡心，而有是命也。”盛等對曰：“帝非有此意而命之也，願殿下勿疑。”

태평관에 거둥하여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었다. 임금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본국(本國) 황막(荒漠)한 땅이므로 모든 물건이 풍성하지 못하고, 소[牛]는 더욱 많지 못하는데, 근년에는 수재(水災)·한재(旱災)로 인하여 백성이 식량이 어려워서 굶어 죽는 것을 구제하는 데 넉넉지 못하니, 어찌 소를 기를 만한 자력(資力)이 있겠소. 이로 인하여 농우(農牛)가 적으니 백성의 산업(產業)이 염려되는데, 지금 듣건대, 황제께서 본국에 명하여 소 1만 마리를 교환하라 하신다 하니, 마음이 실로 황공하오. 본국의 민호에 소가 있는 사람은 열 집에 한 집이 될 정도이며, 그 있는 것도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오. 비록 온 나라에서 이를 찾아내더라도 어찌 1만 마리를 얻겠소. 대인(大人)께서는 황제에게 잘 아뢰어 감면(減免)하여 우리 동방 백성에게 황제의 은택(恩澤)을 많이 입도록 하기를 바라오.”하니, 창성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백성에게 폐해 끼침을 매우 염려하시어 이런 말씀이 계시니, 어찌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먼저 금과 은 같은 귀한 물건도 저의 주달로 인하여 황제께서 즉시 감면하셨는데, 하물며 이 소이겠습니까. 또 소를 바꾸는 것은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 요동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물건으로 없는 물건을 바꾸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지난번에 두 번이나 말을 바꾼 것은 군정(軍政)에 사용한 것이었으나, 소는 조정에서 소용되는 것이 아니오니, 전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을 다하여 해청만 잡으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생산물로 바칠 만한 물건은 없고 다만 해청과 토표만이 있을 뿐인데, 황제께서 두세 번 칙서로서 타이르므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잡아서 올리니, 나의 이 마음은 천지와 일월이 굽어보는 바이오. 지금 황제께서 채포군을 보내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잡게 하시니, 황제께서 본국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하여 이런 명령이 있는가 매우 염려되오.”하니, 창성 등이 대답하기를, “황제께서 이런 뜻이 있어서 명령한 것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의심하지 마옵소서.”하였다.

▶ 54권 13년 12월 20일 辛亥

傳旨禮曹：日月食，天變之大者。宜斷音樂、去刑戮、**禁屠殺**、停朝市，以懼天變。其與詳定所提，調擬議以啓。

예조에 전지하기를, “일식과 월식은 천변의 큰 것이니 마땅히 음악을 끊고, 형륙(刑戮)을 제거하고,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조화와 시장을 정지시켜 천변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상정소제조와 함께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 54권 13년 12월 23일 甲寅

禮曹啓：謹按杜氏《通典》，天子合朔伐鼓，周制，日有蝕之，天子不舉樂素服，置五麾陳五鼓五兵及救日之弓矢。又以朱絲繫社，而伐鼓責之。又云：“夏官太僕掌軍旅田役贊王鼓，日月蝕，亦如之。”又云：“諸侯見天子入門，不得終禮者四，日蝕在一。晉咸寧三年四年，竝以正朝合朔，却元會。”又云：“蝕前三刻，皇帝服通天冠，卽御座，直衛如常，不省事。有變聞鼓音，則避正殿就東堂，服白袷單衣。”又云：“其日廢務，百官守本司。日有變，皇帝素服避正殿，百官以下皆素服，各於廳事前重行，每等異位向日立，明復而止。”請每當日月之蝕，停朝市斷音樂，**去刑戮禁屠殺。**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살펴보건대, ‘천자(天子)는 합삭(合朔)에 북을 치게 되고, 주나라 제도에는 일식이 있으면 천자는 풍악을 잡히지 않고 소복을 하고 오휘(五麾)를 설치하고 오고(五鼓)와 오병(五兵)과 해를 구하는 활과 살을 진설하고, 또 붉은 실로써 사(社)에 두르고 북을 치면서 자기를 책망한다.’ 했으며, 또 말하기를, ‘하관(夏官)에 태복이 군려와 전역을 맡아서 왕고를 찬조하고, 일식·월식에도 또한 이와 같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제후가 천자를 뵈오려고 문에 들어가서도 예를 마치지 못한 것이 네 가지인데, 일식이 그 한 가지이므로, 진(晉)나라 함녕(咸寧) 3년과 4년에 모두 정월 초하루가 합삭이 되어 원회를 물리쳤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일식 전의 3각에 황제가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어좌에 나앉되 직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정사를 보지 않으며, 변고가 있어 북소리를 들으면 정전을 피해서 동당(東堂)으로 나아가고 백협단의(白袷單衣)를 입는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그 날에는 정무를 폐하고 백관들은 본사를 지키게 되고, 해가 변고가 있으면 황제는 소복을 입고 정전을 피하고, 백관 이하도 모두 소복을 입고 각기 청사 앞에서 겹줄로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해를 향하여 서고, 해가 밝게 되면 그치게 된다.’고 했으니, 청하건대, 매양 일식과 월식을 만나면 조화를 정지하고 음악을 끊고 형륙(刑戮)을 없애고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55권 14년 2월 13일 壬寅

壬寅/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중략~

上又曰: “水牛力壯, 可使耕田, 予欲奏請易換. 但本國, 與中朝南方風, 氣不同, 恐或不盛.” 商曰: “臣聞水牛耕田, 倍於常牛. 全羅道風氣, 與南方相似, 可以畜養.” 稠亦言其利, 上曰: “高麗奏請, 欲換駝驢, 帝還其價, 賜駝驢三十匹, 仍諭曰: ‘予欲頒賜中外, 但畜養之數少而未果.’ 今請水牛, 無害於義, 可咨禮部請換, 禮部不許, 具辭奏達如何?” 僉曰: “可.”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의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중략~

임금이 또 말하기를, “물소[水牛]는 힘이 세고 밭 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중국 황제에게 주청(奏請)하여 바꿔 오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남쪽 지방과는 기후(氣候)가 같지 않아서 물소가 우리나라에서 번성(蕃盛)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 하니, 상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물소가 밭을 가는 것이 보통 소의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전라도의 기후는 중국의 남방과 비슷하니 사양(飼養)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조도 또한 그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에서 타려(駝驢)를 교역하고 싶다고 중국 조정에 주청하였더니, 황제가 그 값을 둘러보내고 타려 30필을 하사하고, 이어 유시하기를, ‘내 타려를 중의에 나누어 주고자 하나, 다만 사양한 수가 적어서 뜻대로 하지 못한다.’ 고 하였었다. 지금 물소를 청하여도 도리에 잘못 될 것이 없으니 중국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바꾸기를 청하는 것이 좋겠다. 예부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언을 갖추어 황제에게 주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 56권 14년 4월 3일 辛卯

上命安崇善, 議于政府曰:

尹鳳族人金雨霖回自京師云: “鳳屏人言: ‘兵部奏遼東牛隻請換事, 鳳在帝傍曰: ‘朝鮮自來不產牛隻, 且國王曾聞牛隻易換之語, 深用憂慮.’ 帝曰: ‘勿聽遼東之奏.’ ” 鳳語雨霖云: ‘勿泄此言, 密啓殿下.’ ” 予聞此言深喜, 欲賞雨霖, 反思之, 此言儻不實, 鳳後必羞愧, 處之何如?

孟思誠、許稠、崔士康、李明德等議曰: “鳳與昌盛之間, 正是兩虎, 不和久矣. 今先賞雨霖, 則昌必聞之, 以爲: ‘牛隻事, 余之所奏, 尹公何(予) [預] 焉!’ 且盛回還時, 再

三告殿下云：‘吾當力圖之。’彼必以爲己功，況今昌、尹同來，更聞其實，然後賞之未晚。”上從之。

임금이 안승선에게 명하여 정부(政府)에 의논하기를, “윤봉의 친척인 김우림(金雨霖)이 북경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윤봉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병부(兵部)에서, 요동(遼東)이 〈조선에서〉 소[牛]를 무역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아될 때에 황제의 곁에 있다가, 조선은 예전부터 소가 생산되지 아니하며, 또 국왕(國王)이 일찍이 소를 무역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황제가 요동의 주청(奏請)을 들어 주지 말라고 하였다.』 한다.’하고, 또 봉이 우림(雨霖)에게 말하기를, ‘이 말을 누설하지 말고 비밀히 전하게 아뢰어라.’고 하였더니, 내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서 우림에게 상을 주고자 하나, 다시 생각하니 이 말이 혹 실지가 아니라면 윤봉이 뒤에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매, 맹사성·허조·최사강·이명덕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윤봉과 창성은 그 사이가 바로 두 마리의 범 같은 것으로 불화(不和)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먼저 우림에게 상을 준다면 창성이 반드시 소문을 듣고, ‘소의 일은 내가 아뢴 것인데, 윤공(尹公)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고 할 것입니다. 또 창성이 돌아갈 때에 두세 번 전하게 아뢰기를, ‘내가 마땅히 힘써서 잘 해결하겠습니다.’고 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자기의 공로(功勞)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창성과 윤봉이 같이 온다니 다시 그 사실을 들은 뒤에 상을 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56권 14년 5월 14일 辛未

上又曰：“牛隻之事，許稠、崔士康等曰：‘本國牛隻，自來不敷，宜當奏請蠲免。’此議何如？”安純、李孟昀等曰：“宜當請免。”命崇善議于三議政。權軫曰：“宜爲半進獻，爲半請免。”孟思誠、黃喜等以爲：“自來勅進牛馬，則依數辦進，今乃請免未便。”崇善亦啓：“爲山九仞，功虧一簣。中國每稱我殿下，爲至誠事大，牛隻本國不產，又切於農，誠可愛惜，然不可不從。”

임금이 또 말하기를, “소[牛]를 〈교역(交易)하는〉 일을 허조·최사강(崔士康) 등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소가 많지 않으니 마땅히 〈명나라 천자에게〉 감면(減免)하여 주기를 주청(奏請)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이 논의는 어떤가.”하니, 안순·이맹균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면제(免除)하기를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므로, 승선에게 명하여 세 의정(議政)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권진은 아뢰기를, “마땅히 반수는 진헌(進獻)하고 반수는 면제하기를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맹사성·황희 등은 아뢰기를, “전부터 칙명(勅命)으로 인하여 진헌하는 소와 말은 정한 수대로 진헌하여 왔는데, 지금에 면제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하고, 승선도 아뢰기를, “산을 아홉 길 쌓아 놓고 공이 흠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번 우리 전하께서 지성(至誠)으로 사대(事大)한다고 말합니다. 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또 농사에 절실히 필요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한 것이니 진실로 사랑하고 아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요구에> 좇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의사도 또한 그러하다.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겠다.”하였다.

▶ 56권 14년 5월 16일 癸酉

孟孫又啓: “曾有上教云: ‘船匠及水牛, 將奏請上國.’ 今謝恩之行, 奏請否?” 上曰: “前朝恭愍王時, 奏請火藥, 高皇帝特賜火砲火藥, 此乃一視同仁之大度也. 我國東隣倭賊, 不得已而備戰艦, 未踰歲月, 已至朽敗, 蓋以工匠未盡造船之術也. 今宜先錄高皇帝賜火藥故事, 繼請造船良匠, 以爲禦倭之備. 朝廷雖不欲奏請, 然有高皇帝賜火藥之事, 必不能防之矣. 若水牛則或以爲珍禽奇獸, 不當奏請, 然此物不是奇獸, 耕田服車, 所繫甚重, 但今朝廷所求牛一萬隻, 若未措辦而請免, 則不可奏也. 其令李兢、金聽等, 議于承文院提調以啓.”

(권)맹손이 또 아뢰기를, “일찍이 주상께서 분부하옵시기를, ‘배 만드는 공장(工匠)과 물소[水牛]를 명나라 조정에 주청(奏請)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사은사(謝恩使)가 가는 길에 주청하게 하시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 공민왕 때에 화약(火藥)을 달라고 주청하였더니 명나라의 고황제(高皇帝)가 특히 화포(火砲)와 화약을 하사하였다. 이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큰 법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쪽으로 왜적(倭賊)과 이웃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전함(戰艦)을 준비하였으나, 그러나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미 부패(腐敗)하게 되었으니 대체로 공장(工匠)의 조선 기술(朝鮮技術)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마땅히 먼저 고황제가 화약을 하사한 옛일을 기록하고, 이에 배 짓는 훌륭한 기술자를 청하여 왜구를 막을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중국 조정에서 비록 황제에게 주청하지 않고자 할지라도 고황제의 화약 하사의 일이 쓰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지 못할 것이다. 물소 같은 것은 진기한 새 혹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주청하는 것이 부당(不當)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이 동물은 기이한 짐승이 아니고 밭을 갈며 수레를 끄는 등 소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만 지금 명나라 조정에서 요구하는 소 1만 필을 만약 마련하지 못하고 면제하여 주기를 주청한다면 <물소를 달라고> 주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이궁(李兢)·김청(金聽) 등으로 하여금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에게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 56권 14년 5월 28일 乙酉

命知申事安崇善, 議于政府六曹曰: “牛隻, 本國稀少之物, 措辦爲難, 且於農最切, 宜奏請蠲免. 然中朝每言朝鮮事大之心, 至誠無二, 今牛隻措辦雖艱, 然不係於社稷安危, 而煩爲奏請, 恐生嫌隙, 處之何如? 將爲半備進, 其餘未備者, 奏請蠲免乎? 請除其價, 爲半備進何如?” 奉礪、柳孟聞、崔士儀、李澄玉等以爲: “請除其價, 措辦以進, 則恐有

朝廷之議，宜從帝命，爲半貿易以進，其餘請免。”鄭招、許稠、權軫等以爲：“牛隻，農家重物，切於民生甚大，宜奏請。且此非海青之類，但因遼東奏請而已。臣等聞前年已準請，至今年乃下勅，非皇帝致慮之事明矣。爲半貿易以進，其餘奏請蠲免，必無生嫌。”崔士康以爲：“今折(哀)〔衷〕以進，其餘待孳息備進事，奏請爲可。”孟思誠以爲：“甲申年換牛之後，至今年乃有此勅，不可不依數。”上謂崇善曰：“大臣等以爲：‘牛隻宜進其半，具奏未得盡備之由。’今更見勅書，辭旨委曲，勢不可已，依數備進可也。”崇善曰：“臣亦以爲義難陳弊，宜從勅書。”

지신사 안송선에게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기를, “소[牛]는 우리나라에서 희소(稀少)하게 나는 동물로서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농사에 가장 긴절(緊切)한 것이니, 마땅히 감면을 주청(奏請)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번번이 말하기를, ‘조선의 사대(事大)하는 마음은 지극히 정성스러움이 둘도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소를 갖추어 바치는 일이 비록 어렵기는 하나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감면을 주청하면 혐오(嫌惡)하는 틈이 생길까 염려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차 반수(半數)만을 준비하여 진헌하고 나머지의 준비하지 못한 것은 감면을 주청할 것인가. 그 대가(代價)는 그만두고 반수만을 준비하여 진헌할 것을 주청하면 어떨까.”하니, 봉여(奉礪)·유맹문(柳孟聞)·최사의(崔士儀)·이징옥(李澄玉) 등이 아뢰기를, “그 대가는 그만두기를 주청하고 마련하여 진헌한다면, 중국 조정에 물의(物議)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마땅히 황제의 명령에 좇되, 반수(半數)만을 중국 물품과 무역하여 진헌하고, 그 나머지는 면제하여 주기를 주청하여야 하겠습니다.”하고, 정초·허조·권진 등이 아뢰기를, “소는 농가의 소중한 동물로서 민생에 긴절(緊切)함이 매우 큼니다. 마땅히 감면을 주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해청의 등류(等類)가 아니니, 다만 요동에서 주청한 것에 기인(起因)하였을 뿐일 것입니다. 신 등은 들으니, 전년에 이미 우리의 주청을 윤허(允許)하였다는데, 금년에 이르러 이와 같이 또 <소를 바치라고> 칙서를 내린 것은, 황제가 생각하여 한 일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반수를 <중국 물품과> 교역(交易)하여 바치고, 그 나머지는 감면을 주청하더라도 반드시 혐오를 초래(招來)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하고, 최사강은 아뢰기를, “지금 반수를 바치고, 그 나머지는 번식(蕃殖)되기를 기다려서 진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맹사성은 아뢰기를, “갑신년에 소를 교환한 뒤로는 금년에 이르러 이 칙서가 있는 것이니, 수대로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매, 임금이 송선에게 말하기를, “대신들이 소는 반수만을 바치고, 다 마련하지 못하는 사유를 자세히 주달(奏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나, 이제 칙서를 다시 보니 뜻이 자세하고 간곡하여서 사세가 그만둘 수가 없다. 수(數)대로 다 준비하여 바치는 것이 옳겠다.”하니, 송선이 아뢰기를, “신도 또한 도리 상, 그 폐해(弊害)를 하나하나 들어서 진술(陳述)하기는 어려우니, 칙서에 말한 대로 좇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 56권 14년 5월 29일 丙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丙戌/上率百官，迎勅于慕華館，至景福宮行禮如儀。勅曰：近遼東都司奏屯軍缺牛耕種，已勅山東布政司，運布絹詣遼東附近王國之處，收頓聽候。王可令國中人民，選堪用耕牛一萬隻，赴遼東市內貨賣。俱照永樂年間例，給與布絹，庶幾官民兩便，故勅。

~중략~

又勅曰：王恭事朝廷，自永樂至今，前後一誠，可謂卓然賢王矣。肆朝廷待王，亦前後一誠。所遣使臣，慮其中有小人，任情輕率，不顧大體，妄有需求，凡其所言，非勅書所諭者，王勿信從。前命山東布政司，運布絹於邊衛，與王國人民收買耕牛，給遼東屯軍。今得王奏，國中所產不多，朕已具悉，可隨見有者，送來交易，餘即止之。但海青飛放所用，而產於國中，若遣人來採捕，王可應付，故諭。”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儀式)대로 예를 행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요사이 요동도사(遼東都司)가 그곳 주둔군(駐屯軍)이 경종(耕種)에 사용할 소가 없다고 주청하였으므로 이미 산둥 포정사(山東布政司)에 칙서를 내려 베와 명주[絹]를 운반하여 요동의 귀국(貴國)과 가까운 곳에 가서 준비하여 놓고, 사후(伺候)하여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노라. 왕은 나라 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쓸 만한 경우(耕牛) 1만 필을 골라서 요동 시내(遼東市內)에 가서 매매(賣買)하게 하되, 모두 영락연간(永樂年間)의 전례에 비추어 베와 명주를 급여(給與)한다면 거의 관과 민간 양쪽이 편리할 것이다. 그 때문에 칙서를 내리노라.” 하였다.

~중략~

또 칙서에 말하기를, “왕은 중국의 조정을 공손히 섬겨 영락연간(永樂年間)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처음이나 끝이 한결 같이 정성스러우니, 우뚝이 뛰어난 어진 임금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서도 왕을 대우함을 또한 앞에서나 뒤에서나 한결같은 성의로 한다. 중국에서 보내는 사신은 그 중에 소인이 있어 제멋대로 경솔하게 굴어서,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대체로 그들의 하는 말이 칙서에 유시(諭示)한 것이 아닌 것은 왕은 그 말을 믿고 좇지 말라. 전일에 산둥 포정사에 명령하여 베와 명주를 변위(邊衛)에 운반하여 왕의 나라 백성들과 더불어 경우(耕牛)를 사들여서 요동 주둔군(遼東駐屯軍)에게 주라 하였더니, 이제 왕의 주달한 것을 보고, 국내에 생산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짐(朕)이 이미 자세히 알았다.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만을 보내와서 교역하게 하고, 나머지는 즉시 중지하게 하라. 다만 해청은 날려 내놓는 데에 쓸 것으로 귀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만약 사람을 보내어 포획하게 되거든 왕은 호응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때문에 유시(諭示)하노라.” 하였다.

▶ 56권 14년 6월 3일 庚寅

庚寅/視事。上謂左右曰：“昌盛、尹鳳等言：‘吾輩但傳勅書而已。其牛隻爲半易送，或依數進獻，斷在殿下之心。’其心以謂年前回還時語曰：‘牛隻之事，當奏聞蠲除。’今愧不如心，故乃有如是之言。”贊成許稠啓：“昌、尹之意，誠如上教。牛隻之事，勢難獲已，然

今年畢送，則民受其弊，宜於今年先送三四千頭，餘待明年爲便。”上曰：“然。”判書申商啓：“農民所用，牡牛爲重，牝牛爲輕。牡牛宜備十分之二，餘皆用牝牛。”上曰：“牝牛有生生之理，豈無其利？牡牛雖重，但資其力耳。”商曰：“民間牝牛甚多，而牡牛鮮少。”上曰：“依前日僉議，以牡牛四千頭、牝牛六千頭爲定。”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창성과 윤봉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다만 칙서를 전달할 뿐이고, 소를 반수(半數)만 교역(交易)하여 보내거나, 혹은 정한 수대로 다 진헌(進獻)하거나 그것은 전하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고 한다. 그들의 마음은 연전(年前)에 돌아갈 때에 말하기를, ‘소에 대한 일은 마땅히 황제에게 주문(奏聞)하여 면제하게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드디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 것이다.”하니,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창성·윤봉의 뜻은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소는 사세(事勢)가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 보내면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게 되니, 마땅히 금년에 먼저 3, 4천 두 보내고, 나머지는 명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니, 판서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농민이 쓰는 데에는 황소가 소중하고 암소가 가볍습니다. 황소는 마땅히 10분의 2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다 암소로 준비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암소는 생식하는 이치가 있는데 어찌 이(利)됨이 없겠는가? 황소가 비록 소중하나 다만 그 힘을 이용할 뿐이다.”고 하니, 상이 아뢰기를, “민간(民間)에 암소는 매우 많사오나 황소는 적습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여럿이 의논한 것에 좇아 황소 4천 두, 암소 6천 두로 정하라.”하였다.

▶ 56권 14년 6월 3일 庚寅

上曰：“尹鳳到重富家，語崔滌曰：‘牛隻事，親奏于帝，已允，適予不在而奏下，故未得更奏。禮部尙書胡濬言曰：「朝鮮小國，今運糧與捕海青、土豹等事，亦以煩擾，加以牛隻貿易奈何？」予曰：「既謂如此，胡不奏聞？」」濬曰：「帝不聽群下之言，難於奏請。」朝臣皆不以帝爲是，今若敷奏牛隻不產之弊，必蒙奏準，不爾則爲半請減，亦可也。」設使濬淺露，豈與本國宦官發如此言乎？必無是理。以鳳之言觀之，具弊請免似可，但帝待本國甚厚，視同一家，命除金銀貢，又賜世子梁冠，加以賞賚便蕃。自甲申年牛隻貿易之後，幾至三十年，今若陳弊請免，恐不順理，依數備進，庶幾便益。一心以爲一二運入送，則遼東必以體小而還之，當是時，具奏難辦之意何如？其議于黃喜、孟思誠等以啓。」喜等曰：“上敎至當，臣更何言？”

임금이 말하기를, “윤봉이 윤중부(尹重富)의 집에 이르러 최습에게 말하기를, ‘소에 대한 일은 친히 황제에게 아뢰어서 이미 윤허하셨는데, 그때 마침 내가 없는데 계주한 것이 내려왔으므로 다시 아뢰지 못하였다. 예부 상서 호영(胡濬)이 말하기를, 「조선(朝鮮)은 작은 나라이다. 지금 양곡(糧穀)을 운반하고, 해청과 토표를 잡는 등의 일도 또한 번거롭고 소요로 운데, 그 위에 소의 무역(貿易)까지 더한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미 그러한 줄 알면 어찌서 주문(奏聞)하지 않는가?」 하였더니, 영이 말하기를, 「황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가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주청하기 어렵다. 조신(朝臣)들은 다 황제의 처사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만약 소를 생산하지 않는 폐단을 자세히 주청한다면 반드시 윤준(允准)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수의 감면을 주청하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다.」 하였다.」 하니, 설령(設令) 호영이 천박하다 하더라도 어찌 본국의 환관(宦官)과 더불어 이러한 말을 했겠는가? 반드시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윤봉의 말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폐단을 자세히 적어서 면제(免除)를 주청하면 될 것 같기도 하였다. 다만 황제가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매우 후(厚)하여 한집안같이 본다. 금은(金銀)의 공납(公納)에 대하여 면제를 명한 일이라든가 또 세자(世子)에게 양관(梁冠)을 내려 주고, 그 위에 상(賞)을 내린 것이 많았다. 갑신년에 소를 무역(貿易)해 간 뒤 거의 30년이 되었으니, 지금 만약 폐해(弊害)가 있다고 진술하여 면제하기를 청한다는 것은 아마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닐 것이다. 지정한 수대로 준비하여 바치는 것이 온당하고 유익할 것 같다. 한 마음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한두 번 운송(運送)하면 요동(遼東)에서 반드시 체구(體軀)가 작다고 하여 돌릴 것이다. 그때에 가서 마련하기 어렵다는 뜻을 자세히 주달하면 어떨까. 이것을 황화·맹사성 등에게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회 등이 아뢰기를, “교지(教旨)가 지당하오니 신이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하였다.

▶ 56권 14년 6월 7일 甲午

進獻色啓: “今朝廷易換牛隻, 請令時散各品及受田無受田人, 以至經師巫女富居人工商, 科等收納.” 從之.

진헌색(進獻色)이 아뢰기를, “지금 조정에서 교역할 소를 청컨대, 시산(時散) 각품과 수전인(受田人)이나 무수전인(無受田人) 내지 경사(經師)·무녀(巫女)·부거인(富居人)·공장(工匠)·상인(商人)에 이르기까지 등급을 정하여 수납(收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57권 14년 7월 11일 丁卯

朝廷易換牛六千隻, 分六運解送遼東. 啓曰: 宣德七年五月二十九日, 欽差太監昌盛等官, 齎捧到勅書: “該近遼東都司奏屯軍缺牛耕種, 已勅山東布政司, 運布絹詣遼東附近王國之處, 收頓聽候. 王可令國中人民, 選堪用耕牛一萬隻, 赴遼東市內貨賣. 俱照永樂年間例, 給與布絹, 庶幾官民兩便.” 欽此. 竊照, 小邦自來牛隻孳產鮮少, 又且矮小, 緣係欽奉事理, 不敢有違, 除令在城大小官吏軍民及在外各道州縣官民, 但是有牛之家, 選揀到堪用雌雄牛隻, 分運陸續起解. 先將初運牛一千隻, 差陪臣上護軍金乙玄管押, 前赴遼東都司交割外, 今將牛隻毛色雌雄齒歲開坐, 合行移咨, 請照驗輔達施行, 希文回示.

중국 조정(朝廷)에서 무역할 소 6천 마리를 여섯 운(運)으로 나누어 요동(遼東)으로 보내

었다. 그 자문(資文)에, “선덕(宣德) 7년 5월 29일에 황제께서 태감(太監) 창성(昌盛) 등 관원을 보내어, 칙서(勅書)를 가지고 이르렀는데, ‘근일에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아뢰기를, 「둔군(屯軍)이 소가 없어 농사지를 수가 없습니다.」 하여, 이미 산동포정사(山東布政司)에게 칙유(勅諭)하여, 배와 비단을 운반하여 왕의 나라와 가까운 요동(遼東)에 쌓아 두게 하고 명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왕은 나라 안의 인민들로부터 쓸 만한 경우(耕牛) 1만 마리를 뽑아서 요동(遼東) 시장(市場) 안에 나아와서 매매(賣買)하도록 하라. 모두 영락 연간(永樂年間)의 예에 의거하여 배와 비단을 줄 것이니, 관청과 민간이 모두 편리할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다.’ 하셨는데, 소방(小邦)에서는 그전부터 소의 생산이 심히 적고, 또 몸집이 작으나,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함에 사리상 감히 어김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서울에 있는 대소 관리·군민(軍民)들과 지방에 있는 각도 주·현(州縣)의 관민(官民)들에게 영을 내려, 다만 소가 있는 집은 쓸 만한 암놈과 숫놈을 뽑아서 운(運)을 나누어 계속 보내게 하였으니, 먼저 초운(初運)으로 소 1천 마리를 배신(陪臣) 상호군(上護軍) 김을현(金乙玄)을 보내어 영솔하여 가져가게 하니, 먼저 요동도사(遼東都司)에 이르거든 교부하여 끊어 주시고, 또 이제 소의 털빛과 암수의 나이를 낱날이 열기(列記)하오니 함께 이자(移資)하시옵고, 청컨대 대조해 보시고 전달(轉達)하여 시행하고 글의 회시(回示)를 바랍니다.”하였다.

▶ 57권 14년 7월 15일 辛未

差判司譯院事趙忠佐, 管押二運牛一千隻, 解送遼東.

판사역원사(判司譯院事) 조충좌(趙忠佐)를 시켜 두번째 운(運)으로 소 1천 마리를 관리하여 요동으로 보내었다.

▶ 57권 14년 7월 22일 戊寅

差司譯院注簿吳貞貴, 管押三運牛一千隻, 解送遼東.

사역원 주부(司譯院主簿) 오정귀(吳貞貴)를 시켜 세번째 운(運)으로 소 1천 마리를 관리하여 요동(遼東)으로 보내게 하였다.

▶ 57권 14년 7월 25일 辛巳

差司宰副正俞興俊, 管押四運牛一千隻, 解送遼東.

사재 부정(司宰副正) 유흥준(俞興俊)을 시켜 네번째 운(運)으로 소 1천 마리를 관리하여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요동(遼東)으로 보내었다.

▶ 57권 14년 7월 27일 癸未

癸未/召三議政議曰：“曾令咸吉道築寧北鎮城，永興、安邊、高原、預原、龍津等官居人狀告：‘近因蝗蟲水旱之災，全失農業，民皆仰食義倉。今年六月，又值霖雨，損傷禾穀，而加以築城寧北鎮，交割易換牛隻于博川，又備貢物及鐵物，又設捕鷹機械，築孳息牛場，兼以支持使臣捕進獻年魚等事，一家之人，盡數出役，則非唯未備救荒之資，禾穀亦未收穫，產業艱苦，請於春節始役，姑停今年築城之役。’今觀此書，不欲一事役民，然春不役民，其法已立，於今秋始役，來秋畢役何如？”黃喜、孟思誠、權軫等以爲：“非獨此弊，吉州、鏡城等官大雨，人多死亡，禾穀亦傷，不可役民。春不役民，雖有成法，然不得已之役，則何計春節？而況從民願役民，王政美事，（謂）〔請〕從狀告施行。”

세 의정(議政)을 불러 의논하기를, “일찍이 함길도에서 영북진성(寧北鎮城)을 쌓도록 했는데, 영흥(永興)·안변(安邊)·고원(高原)·예원(預原)·용진(龍津) 등 고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狀)을 올려 알리기를, ‘요사이 황충(蝗蟲)과 수재·한재로 인하여 완전히 실농(失農)하여, 백성들이 모두 의창(義倉)에 의뢰하여 먹고 살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또 흄비를 만나 곡식이 손상되었는데, 더구나 영북진(寧北鎮)에 성을 쌓고, 중국과 무역할 소를 박천(博川)에서 교환하게 되고, 또 공물(貢物)과 철물(鐵物)을 갖추고, 또 매 잡는 기계를 설치하며, 소를 번식시키는 목장을 쌓아야 하고, 겸하여 사신의 접대와 진헌에 쓸 연어(鱣魚)를 잡는 등의 일로 인하여, 온 집안 식구가 모두 출역(出役)하게 되니, 다만 흉년을 구제할 자력(資力)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곡식도 또한 수확하지 못하여 산업이 간고(艱苦)하니, 청컨대 봄철에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금년에 성 쌓는 역사를 정지하소서.’ 하는데 지금 이 글을 보건대, 한 가지 일로 백성을 사역하지 않으려고 하나, 봄철에 백성을 사역하지 않는 것은 그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금년 가을에 역사를 시작하여 내년 가을에 역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황희·맹사성·권진 등이 아뢰기를, “유독 이 폐단뿐만 아니라, 길주(吉州)·경성(鏡城) 등 고을에 큰비가 와서, 사람이 많이 사망하고 벼도 또한 손상되었으니, 백성을 사역할 수 없습니다. 봄철에 백성을 사역하지 않는 것은 비록 만들어진 법이 있지만, 부득이 해야 될 역사이라면 어찌 봄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백성의 자원에 따라서 백성을 역사하는 것은 왕정(王政)의 아름다운 일이니, 장고(狀告)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하였다.

▶ 57권 14년 7월 29일 乙酉

禮曹啓社稷攝事儀注：曹與儀禮詳定所更議時日，書雲觀預於隔季，具時日【春秋二仲上戊及臘日】報禮曹，

~중략~

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一實牛腥, 一實羊腥七體、兩脾兩肩兩脅并脊, 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皆有牲匣.】

~중략~

謁者贊執笏俛伏興, 引初獻官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 贊跪摺笏. 執事者一人捧香合, 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 登歌止, 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 詣國稷后稷氏神位前, 樂作, 上香奠幣, 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訖, 登歌止, 謁者引降復位. 進熟: 初獻官既升奠幣,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簠,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位牛羊豕, 各一匣.】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初獻官奠幣訖復位. 執禮曰: “進饌.” 謁者引薦俎官, 捧國社之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 國社、國稷之饌, 入自正門, 配位之饌, 入自左闕.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國社、國稷之饌, 升自北陛; 配位之饌, 升自西陛, 諸大祝迎引於壇上. 薦俎官詣國社神位前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奠訖, 啓牲匣蓋. 次詣后土氏神位前西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이하생략~

예조에서 사직(社稷)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다시 시일을 의논하고,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서 시일을 갖추어 【봄·가을 두 중월(仲月)의 상무일(上戊日)과 납일(臘日)이다.】 예조에 보고하면,

~중략~

조(俎) 3개 중에서 2개는 변(籩) 앞에 있고, 1개는 두(豆)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俎) 한 개는 소의 날고기를 담고, 한 개는 양의날고기·칠체(七體)·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골을 담는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돼지의 날고기와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의 상(床)과 같다. 《석전 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무릇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룸이라 한다.】 두(豆) 오른쪽의 조(俎)는 3개이다. 【한 개는 소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양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돼지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俎)는 모두 성갑(牲匣)이 있다.】

~중략~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삶은 제수를 드린다.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비(匕)로서 소를 확(鑊)에서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고, 다음은 양(羊)과 돼지를 들어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담아【매 위(位)마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갑(匣)이다.】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고, 초헌관이 폐백을 드림을 기다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왼쪽 문[闕]으로 들어오게 된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올 때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오는데, 여러 대축(大祝)이 단위에서 맞아 인도한다. 천조관이 국사(國社)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여러 대축이 드리는 데 도운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를 연다. 다음은 후토씨(后土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이하생략~

▶ 57권 14년 8월 1일 丁亥

差僉知司譯院事李含, 管押五運牛一千隻, 解送遼東.

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이함(李含)을 시켜 다섯 번째의 운(運)으로 소 1천 마리를 관리하여 요동(遼東)으로 보내게 하였다.

▶ 57권 14년 8월 5일 辛卯

差司譯院判官唐夢賢, 管押六運牛一千隻, 解送遼東.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당몽현(唐夢賢)을 시켜 여섯 번째의 운(運)으로 소 1천 마리를 관리하여 요동(遼東)으로 보내게 하였다.

▶ 57권 14년 8월 16일 壬寅

又曰：“咸吉道向化人等婚姻之時，多送牛馬于婦家，甚爲不可，痛禁此風. 又令本國人相婚何如？”僉曰：“可.” 下禮曹立法.

또 말하기를, “함길도의 귀화인(歸化人)들이 혼인할 때에 신부 집에 소와 말을 많이 보내니 심히 옳지 못하므로, 이 풍속을 엄격히 금해야 될 것이며, 또 본국 사람으로 하여금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옳습니다.”하므로, 예조에 내려서 법을 만들게 하였다.

▶ 58권 14년 10월 6일 辛卯

辛卯/謝恩使鈴平君尹季童、副使李中至等，齎勅回自京師，上不豫，命世子率百官迎于慕華館。勅曰：

王恭事朝廷，自永樂至今，前後一誠，可謂卓然賢王者矣。肆朝廷待王，亦前後一誠。所遣使臣，慮其中有小人，任情輕率，不顧大體，妄有需求，凡其所言，非勅書所諭者，王勿信從。前命山東布政司，運布絹於邊衛，與王國人民收買耕牛，給遼東屯軍。今得奏，國中所產不多，朕已具悉。可隨見有者，送來交易，餘則止之。但海青飛放所用，而產於王國，若遣人來採捕，王可應付，故諭。

사은사(謝恩使)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부사(副使) 이중지(李中至) 등이 칙서(勅書)를 가지고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편찮으므로, 세자에게 명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왕은 조정(朝廷)을 공손히 섬기어 영락(永樂)으로부터 이제까지 전후(前後)가 한 결 같이 정성스러우니, 탁월한 현왕(賢王)이라 이르겠도다. 이에 중국이 왕을 대우함도 또한 전후가 한 결 같이 정성스러운데, 파견한 바, 사신(使臣) 중에서 혹 소인이 있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경솔히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망령되어 쓸 것을 요구함이 있다하니, 무릇 그들의 말하는 바가 칙서에 유시(諭示)된 것이 아니면, 왕은 믿고 따르지 말라. 전에는 산동포정사(山東布政司)를 명하여, 포·견(布絹)을 변방 위군[邊衛]에 운반하여 왕국 인민들에게 주고, 농사짓는 소[耕牛]를 모아 사가지고 요동 둔군(遼東屯軍)에게 주도록 했는데, 이제 주문(奏文)을 받아 본즉, 왕의 국내(國內)에서 생산되는 농사짓는 소가 많지 않다고 하매, 짐(朕)이 다 잘 알고 있으니, 현재 있는 대로 보내와서 교역(交易)함이 가(可)하고, 그 밖에는 그만두라. 다만 해청(海青)은 날려 사냥하는 데 소용되는 것으로, 왕의 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만일 사람을 파견하여 채포(採捕)하려고 하거든, 왕은 주선하여 주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시하노라.”하였다.

▶ 58권 14년 11월 16일 辛未

昌盛、張定安回自咸吉道，命右議政權軫、判書鄭欽之、右代言權孟孫，設宴于普濟院。命知申事安崇善，問安于太平館，張定安曰：“易換牛隻，得免乎?”崇善曰：“免矣。”昌盛曰：“奏聞乎?”崇善曰：“奏之。”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창성(昌盛)·장정안(張定安)이 함길도로부터 돌아오매, 우의정 권진(權軫)·판서 정흠지(鄭欽之)·우대언 권맹손(權孟孫)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지신사 안송선(安崇善)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에 문안하게 하니, 장정안(張定安)이 말하기를, “소[牛隻]를 바꾸는 일은 면하였는가?”하매, 안송선이 말하기를, “면하였다.”하니, 창성이 말하기를, “주문(奏聞)하였는가?”하므로, 안송선이 “주문하였다.”하였다.

이하생략~

▶ 58권 14년 11월 17일 壬申

盛又曰: “今勅書稱小人之言, 不是爲我輩說. 我輩自少侍從, 至今爲官人, 奉命到此, 如有不義, 安得掩之? 國人至小民每稱勅書恐動之. 易換牛隻之事, 我亦奏帝, 今得蠲免, 我輩曾受金銀幾許?” 上曰: “我國本無所產, 勅書之來, 適當使臣到國之時, 深切兢惶.”

또 창성이 말하기를, “이번 칙서에 소인이라고 칭한 말씀은 우리를 일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젊을 때부터 시종(侍從)하였고, 지금은 관인이 되어 명을 받들고 여기에 오게 된 것이오니, 만일 불의(不義)한 일이 있다면 어찌 숨길 수 있겠나이까. 나랏 사람으로 소민에 이르기까지도 매양 칙서라고 일컬으니 공동(恐動)하옵니다. 이번의 소[牛隻]를 바꾸는 일만 해도 역시 우리가 황제께 아뢰어 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찍이 얼마나 금은(金銀)을 받았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금은이 나지 아니할 뿐더러, 칙서가 온 것이 바로 사신이 우리나라에 이른 때라, 깊이 황송함을 느끼오.”하였다.

▶ 58권 14년 12월 3일 戊子

稠又啓: “昔王荊公云: ‘周公有大勳勞, 賜魯重祭. 周公有人臣不能爲之功, 成王賜人臣不當用之樂.’ 其後程子非之曰: ‘荊公, 不知人臣之道者也. 居周公之位, 行周公之事, 有何勞焉?’ 今養馬輩押領牛隻, 交付遼東. 以如此之微勞, 欲受官職, 乃敢擊鼓申聞, 亦何心哉? 在聖上雖不遺小功, 在臣下固不當如是.” 上曰: “此輩實爲冒濫, 宜下攸司, 推考懲之.”

이하생략~

허조가 또 아뢰기를, “옛날에 왕형공(王荊公)이 이르기를, ‘주공(周公)은 큰 훈로가 있으므로 노(魯)나라를 내려 주어 중한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주공은 인신(人臣)으로서 할 수 없는 공로가 있으며, 성왕(成王)은 인신으로서 쓸 수가 없는 악(樂)을 내려 주었다.’고 하였사운데, 그 뒤에 정자(程子)는 이것을 그르다 하여 말하기를, ‘형공(荊公)은 인신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공(周公)의 위치에서 볼 때에 주공은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이니, 무슨 노고가 있겠느냐.’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제 양마(養馬)하는 무리들이 소를 압령하고 요동에 가서 교부(交付)하였던 바, 이러한 조그만 노고를 하였다 해서 관직을 받고자 감히 격고하여 신문(申聞)하오니, 이 또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상께서는 비록 적은 공로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이와 같이 함은 부당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무리들은 실로 참람한 자들이니 마땅히 유사(攸司)에 내려 추고(推考)하고 징치하여야 할 것이다.”하였다.

이하생략~

▶ 60권 15년 4월 28일 癸亥

慶尙道監司辛引孫進純白雌牛.

경상도감사 신인손(辛引孫)이 순백색(純白色) 암소를 바쳤다.

▶ 60권 15년 5월 22일 甲戌

禮曹啓: “命(歸) [婦] 印信體制無等, 今依州府郡縣印信詳定. 一二品妻爲一等, 三品至六品妻爲二等, 參外妻爲三等. 一等印方一寸七分, 二等印方一寸四分, 三等印方一寸, 竝用造禮器尺, 上可以通下, 下不可以僭上. 且大小人鞍子無差等, 奢侈相尙, 物價亦湧, 今後鞍子, 臣下毋得用大狼皮白魚皮裹. 集賢殿副提學以下, 毋得用龜飛兒青斜皮穗兒三綠漆鑢鉸鐙子黃銅事件鉸事件水牛角邊青鹿角牙絲等物, 以別尊卑. 其令前已造者, 令攸司定限着標.”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명부(命婦)의 인신(印信) 체제가 등급이 없으므로, 이제 주·부·군·현의 인신에 의하여 상정(詳定)하옵니다. 1, 2품의 아내는 1등, 3품에서 6품까지의 아내는 2등, 6품 이하의 아내는 3등으로 하여, 1등의 인신은 방(方) 1촌 7푼, 2등의 인신은 방 1촌 4푼, 3등의 인신은 방 1촌으로 하였으되, 모두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는 통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위로는 참람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대소 관원의 안장[鞍子]이 차등이 없어서 저마다 사치를 숭상하여 물가가 오르면, 금후로는 안장을 신하는 대랑피(大狼皮)와 백어피(白魚皮) 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집현전 부제학 이하는 구비아(龜飛兒)·청사피 수아(靑斜皮穗兒)·삼록칠침(三綠漆鑢)·삼등자(鉸鐙子)·황동사건(黃銅事件)·삼사건(鉸事件)·수우각변(水牛角邊)·청록 각아사(靑鹿角牙絲) 등을 쓰지 못하게 하여 높고 낮은 신분을 분별하고, 그 전에 만든 것은 유사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고 표를 붙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61권 15년 9월 17일 丙申

司憲府啓: “禮曹受敎: ‘臣下母得用大狼皮、白魚皮裹鞍子, 集賢殿副提學以下, 母得用龜飛兒青斜皮穗兒、三綠漆韉、鈹鎧子黃銅事件、水牛角邊青鹿角牙絲等物, 以別尊卑. 其令前已造者, 令攸司定限着標.’ 然鞍子或至數十年不毀, 如或奸詐之徒, 限前新造, 托以着標, 長年行用, 則非惟法立不行, 臣子不得僭用之物, 着標行用, 尤爲不敬. 乞除着標定限一禁.” 從之.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예조에서 수교(受敎)하기를, ‘신하는 대랑피(大狼皮)나 백어피(白魚皮)로 안장을 싸지 못하며,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이하는 귀비아청사피(龜飛兒青斜皮)의 술[穗兒]과 삼록칠(三綠漆)의 다래[韉]·삼등자(鈹鎧子)에 황동(黃銅) 장식을 하고, 수우각(水牛角) 변죽에 청록각(靑鹿角) 아사(牙絲) 따위 물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존비(尊卑)를 구별하게 하되, 그 명령 이전에 만든 자는 유사(攸司)에서 기한을 정하고 표(標)를 붙이게 하라.’고 하시었으나, 그러나 안장은 혹 수십 년이 되도록 헐어 빠지지 않은 것이 있사온데, 만일 혹시라도 간사한 무리가 기한 전에 새로 만들어 표 붙였다고 청탁하고 여러 해를 사용한다면, 비단 법 세운 것이 실행되지 아니할 뿐이 아니옵고, 신하로서 참람하게 써서는 안 될 물건을 표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 불경한 것이 되오니, 표 붙이는 것을 없애고 기한 정하는 일을 일체 금하도록 하시기를 바라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61권 15년 9월 17일 丙申

崇善又以司僕提調鄭淵之言啓曰: “各道放馬之島四十七, 放牛之島九, 今年孳息馬匹之數, 五百餘匹. 以此觀之, 則不出數年, 馬匹之數, 必不能記焉. 本司官員相繼數遞, 誰肯用意磨勘? 乞以本司官員及兼官, 擇其可者, 分掌各道牧場, 俾久其任何如?” 上曰: “淵之策善, 與司僕提調同議以啓.”

승선이 또 사복제조 정연의 말로써 아뢰기를, “각도에 말을 놓아 먹이는 섬이 47군데이고, 소를 놓아 먹이는 섬이 9군데이온데, 금년에 번식된 마필의 수효가 5백여 필이오니, 이것으로 보면 몇 해 안 가서 마필의 수효가 필연코 셀 수 없을 만큼 되올 것인데, 사복시의 관원이 연이어서 자주 체임하면 누가 기꺼이 마음 써서 정리하겠습니까. 비읍건대 사복시의 관원과 겸직 관원들 중에서 적당한 자를 골라서 각도의 목장을 나눠 맡게 하고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연의 계획이 좋으니 사복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 61권 15년 9월 19일 戊戌

傳旨戶曹：平安道閭延・江界兩邑，既經賊患，又值凶歉，民生可恤，蠲減今年貢物。

司僕寺提調啓：“近因加設牧場，牛馬之數倍多，故其損失生產之數，官員二人不能精察，孳息多少，糾察無由。請於京畿牧場十七、忠清道七、咸吉道五、全羅道十二、平安道三、濟州二、慶尙道四、黃海道七，令本寺祿官兼官分掌，糾察其勤慢，令提調檢察。”

從之。

호조에 전지하기를, “평안도의 여연(閭延)·강계(江界) 두 고을은 이미 도적의 침해를 겪은 데다가 또 흉년을 만났으므로 민생을 구휼하여야 하겠으니, 금년의 공물(貢物)을 감면하게 하라.”하였다. 사복시제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목장을 증설하였기 때문에 마소의 수효가 갑절이나 많아졌으므로, 그 손실되고 생산된 수효를 관원 2명으로서는 정밀하게 살필 수 없어서 새끼 친 것의 많고 적음을 조사할 길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경기도 목장 17곳과, 충청도 7곳과, 함길도 5곳과, 전라도 12곳과, 평안도 3곳과, 제주도 2곳과, 경상도 4곳과, 황해도 7곳을, 사복시의 녹관(祿官)과 겸관(兼官)들을 시켜서 나눠 맡아 가지고 그 근면하고 태만한 것을 규찰하게 하고, 제조로 하여금 다시 검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3권 16년 1월 24일 壬寅

兵曹啓：“各島入放孳息牛隻，聽民情願分授，滿三年則收兒牛一首，其餘令民自用。若有故失者，勿令徵納，只收皮肉。若無自願人，則放賣民間。”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 섬에 들여보내서 방목해 기르고 있는 소를 백성들의 자원에 따라 나누어 주고, 만 3년에 송아지 1마리씩을 거두고, 그 나머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임의 사용하게 하며, 혹 고실(故失)한 것이 있더라도 이를 징수하지 말고, 다만 피육(皮肉)만을 거두게 하며, 만약 자원자가 없으면 민간에 매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3권 16년 3월 26일 癸卯

教旨：

濟州進上毛馬粧，皆粧以(腴)〔獮〕皮，故難備有弊。今後勿論獮皮、馬牛皮、狗皮，隨宜粧飾以進。

제주에 교지하기를, “진상하는 모마장(毛馬粧)은 모두 전피(腴皮)로 장식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전피를 취하지 말고 마·우피(馬牛皮)·구피(狗皮) 등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얻는 대로 장식하여 진상하라.”하였다.

▶ 64권 16년 4월 22일 己巳

漢城府啓: “工曹所納外方貢皮及諸道倒損牛馬之皮, 竝令著稅納之. 工曹每當無稅牛馬皮鍊熟之時, 亦令著稅, 以授其匠, 以憑後考, 其他各司所納牛馬之皮, 亦依上項例施行.” 從之.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공조(工曹)에 바치는 외방의 공피(貢皮)와 여러 도에서 도손(倒損)한 우마의 가죽은 아울러 세(稅)로 매겨서 상납하게 하시고, 공조에서 매양 세(稅)가 없는 우마(牛馬)의 가죽을 다룰 때에도 또한 세를 매기게 하여 그 장인(匠人)에게 주어 뒷날에 상고할 증거로 하소서. 기타 각사(各司)에 바치는 우마의 가죽도 위항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4권 16년 4월 24일 辛未

辛未/兵曹啓: “濟州牧子等, 公私屯牛馬, 或親自盜殺, 或黨他人宰殺, 因此(慈)〔孳〕息日減, 將來可慮. 限盜殺寢息、風俗歸正、馬匹蕃息之間, 牧子不能看守, 盜殺馬匹, 以歲準之馬, 依數徵之.”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에서 목자(牧子)들이 공·사둔(公私屯)의 우마(牛馬)를 혹은 친히 자기가 도살(盜殺)하고, 혹은 타인과 짜고 잡아 죽여서, 이 때문에 번식이 날로 줄어 가오니 장래가 염려되옵니다. 도둑질 해다가 죽이는 일이 없어지고, 풍속이 바로 돌아가서 마필(馬匹)이 번식할 기간까지 한정하여, 목자(牧子)가 잘 간수(看守)하지 못하여 마필을 도살하게 되거든 세준마(歲準馬)의 정수(定數) 대로 징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4권 16년 4월 24일 辛未

兵曹啓: “盜殺箭串牧場本宮牛三隻、私馬一匹, 已令牧場差備官員率養理馬等, 每夜巡行場內, 檢察雜人. 然其牛馬之賊, 未易捕獲, 或三日或五日或十日, 不定其期, 加送諸員, 令其官員率領豆毛浦、麻田浦、廣津江邊及峩嵯山、中良浦、踏深等處, 出其不意, 每夜巡行捕獲. 又令直宿興仁門、東小門、水口軍〔水口門〕護軍五員等, 待其平明, 搜其可疑馱載之物, 有能捕獲者重賞.” 乃命與司僕提調同議以啓, 僉曰: “可矣.” 又議未盡條件: “一. 無時發遣入番鎮撫, 檢其官員養理馬巡行勤慢. 一. 場內除農民外, 禁

其閑雜橫行之人. 散在場外近地新百丁, 竝黜五六十里之外. 一. 場內牧養公私馬養理馬等, 或潛隱乘馱, 或偷取放賣, 托以遺失逢賊. 今後偷取放賣者、潛隱乘馱者, 依律科罪, 有能捕告者充賞.”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살꽃이 목장[箭串牧場]의 본궁의 소 3마리와 사삿말 1필을 도둑질해다가 죽였으므로, 목장의 차비 관원(差備官員)으로 하여금 양리마(養理馬) 등을 인솔하고 밤마다 목장 안을 순행(巡行)토록 하여 잡인을 검찰하오나, 그러나 그 마소의 도둑을 붙잡기란 용이하지 못하옵니다. 혹은 3일 만에, 혹은 5일이나 10일만에 나타나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여러 인원을 더 보내어, 그 관원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두모포(豆毛浦)·마전포(麻田浦)·광나루 강변[廣津江邊]과 아차산(峨嵯山)·중랑포(中良浦)·답심(踏深) 등처에 뜻밖에 나타나 밤마다 순행하면서 붙잡게 하고, 또 흥인문(興仁門)과 동소문(東小門)·수구문(水口門)에 호군(護軍) 5인을 등대시켰다가, 날이 밝아지거든 의심될 만한 짐바리의 물건을 수색하게 하되, 도둑을 붙잡는 자가 있으면 중상(重賞)을 내리옵소서.”하니, 곧 사복제조(司僕提調)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매, 모두가 “웁습니다.”하였다. 또 미진(未盡)한 조건을 의논하되, “1. 일정한 때가 없이 입번 진무(入番鎭撫)를 보내어 관원과 양리마(養理馬)의 순행하는 것이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검찰하게 하시고, 1. 목장 안의 농민 외에 일 없는 잡인이 함부로 다니는 것을 금하시고, 목장 밖의 가까운 곳에 흠어져 사는 신백정(新白丁)은 모두 5, 60리 밖으로 내쫓으시고, 1. 목장 안에서 공·사마(公私馬)를 기르는 양리마(養理馬) 등이 혹은 짐바리를 숨겨 두거나 혹은 훔쳐다가 방매(放賣)하고는, 잃어버렸다거나 도둑맞았다고 핑계 하는 일이 있사운데, 금후로는 훔쳐서 방매한 자와 짐바리를 숨겨 두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죄를 주시고, 붙들어 고발하는 자는 상급을 내리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4권 16년 4월 25일 壬申

傳旨承政院:

今後文昭殿親行別祭時用牛, 以爲恒式.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문소전(文昭殿)에 친히 별제(別祭)를 행할 때에 소[牛]를 쓰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으라.”하였다.

▶ 64권 16년 6월 14일 己未

己未/兵曹啓: “濟州地窄人多, 生理艱苦, 盜殺牛馬資生者頗多; 商賈來往, 貿易牛馬皮, 以資其生者亦多. 因此盜殺倍多, 蓄息數少. 已見盜殺者, 令今去敬差官, 盡刷出陸. 陸地有主私賤, 各還其主, 平民及公賤, 徙于地廣民稀平安道海邊各官, 使之安業. 濟州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居人賤口，則以所犯度數，依律科罪。本主知情不首者、知而不禁者，奴子則出陸，本主則科罪。推刷出陸後犯禁人，則按撫使須卽推覈以啓，依他出陸有能告捕者充賞。漢拏山上及山下平地牧養可當處，并皆禁耕；前此場內起耕之地，雖是破場之後，勿令還耕；場外時耕之地，私自築場，禁耕陳地，以廣牧養。”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간고(艱苦)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牛馬皮)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 이 때문에 도살이 갑절로 많아지고 번식 하는 수효는 적사오니, 이미 도살자로 발견된 사람은 지금 가는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모두 찾아내어 육지로 내보내게 하되, 육지에 주인이 있는 사천(私賤)은 각각 그 주인에게 보내고, 평민과 공천(公賤)은 땅이 넓고 백성이 드문 평안도 해변 각 고을로 옮겨 안업(安業)하게 하며, 제주에 사는 천구(賤口)는 범한 바의 도수(度數)를 따라 율문에 의하여 과죄하소서. 본주인이 실정을 알고 고발하지 아니한 자와 알고도 금하지 아니한 자는, 노자(奴子)는 육지로 내보내고, 본주인은 과죄하되, 찾아내서 육지로 내보낸 뒤에 금령을 범한 자는 안무사(安撫使)가 모름지기 즉시 추핵(推覈)하여 아뢰게 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 출륙(出陸)한 자를 능히 고발하고 붙잡는 자는 상(賞)을 주도록 하소서. 한라산(漢拏山)의 산상(山上)과 산하(山下)의 평지에서 목양(牧養)할 수 있는 곳은 모두 경작을 금하고, 이 앞서 장내(場內)에 기경(起耕)한 땅은 비록 목장을 파한 뒤에라도 다시 경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장 밖에 현재에 경작하고 있는 땅도 사사로 자기가 목장을 쌓게 하고, 목은 땅을 경작하는 것도 금하여 목양을 넓히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4권 16년 6월 30일 乙亥

前禮曹參議高得宗上書曰：

臣鄉濟州，人物鮮少，草木茂盛時，良馬得以蕃息，自戊戌年以來，人多起耕，水草漸至不足。

~중략~

築場之策，實畜馬之長策也，馬之多損，非築場之故也。自築以後，馬匹驅入於山林，使之自生自育，則良馬多出，而無瘦損之弊矣。只因深山長谷馬賊興行，牧馬之人，徒懷目前不失之計，不思後日多損之弊，使不得任意自適，朝數暮計，如驅群羊，加以連歲旱甚，草木不盛，馬之多損，職此由也，而曰築場之故，則非臣之所知也。或謂牧場之築，土人之所利也。若以築場之後，田不私築爲言，臣鄉土習，糞田之牛，作群而放，騎載之馬，不爲牧養，其能私不築場，而爲稼乎？若以破場之地，人各占耕爲言，古場杳在東西兩極，土性尤甚浮薄，互相陳荒，乃可耕作，孰欲占耕，而爲利者乎？土人之願，莫若今場內山田耕稼而已，山田則(難)〔雖〕大旱，山雨或作，不爲甚旱。雖暴風，林木蔽翳，不能全損，其不欲築場，人人之所同也。而況橋里家舍、農田、山田之中，地品尤良，臣母所賴

以生者也，而見入於場基之內，臣若以利己爲心，則友良築場之策，豈肯而從之乎？

이하생략~

전 예조참의(禮曹參議) 고득중(高得宗)이 상서하기를,

“신의 고향인 제주(濟州)는 인물이 적고, 초목이 무성하였을 때에는 좋은 말[良馬]이 번식할 수 있었사오나, 무술년 이래로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갈아 일으켜서 수초(水草)가 점점 부족하게 되었나이다.

~중략~

목장에 담을 둘러쌓는 계책은 실로 말을 치는 장책(長策)이오니, 말이 많이 손상됨은 목장을 쌓은 까닭이 아니옵니다. 목장에 담을 쌓은 이후부터 마필을 산림에 몰아넣어 자생자육(自生自育)하였다면 좋은 말[良馬]이 많이 났을지언정 수손(瘦損)의 폐해(弊害)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산이 깊고 골짜기가 길기 때문에 마적(馬賊)이 횡행하지만, 말을 치는 사람들이 한갓 눈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계책만 생각하고 뒷날에 많이 손상하는 폐단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데다가, 말들을 제멋대로 놀며 다니지 못하게 하여, 아침에 썸하고 저녁에 수를 계산하며 마치 양떼를 몰고 다니듯 하옵고, 더욱 해마다 가뭄이 심하여 초목이 성하지 아니하오니, 말이 많이 손상함은 진실로 이 때문이요, 축장(築場)한 때문이라고 함은 신으로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목장을 쌓는 것은 토인(土人)에게 이익이라.’고 하옵니다. 만일에 목장에 담을 쌓은 뒤에 밭에 사사로이 담을 둘러쌓지 않는다면, 신의 고향 토습(土習)이, 농사짓는 소[耕牛]들이 때를 지어 돌아다니고, 사람이 타는 말이나 짐을 싣는 말을 집에서 목양(牧養)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풀어 놓아 헤쳐 놓아두오니, 사사로이 축장(築場)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나йка. 만일에 파장(破場)한 땅을 사람마다 제각기 점령하여 경작하게 허락한다면, 고장(古場)은 아득하게 동서의 양극(兩極)에 있어, 토성이 부박(浮薄)함이 우심하므로 해를 걸러 목허야만 겨우 경작할 만하게 되옵는데, 누가 점령하고자 하겠사오며, 누가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인들 하겠나йка. 지방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장내(場內)의 산전을 갈고 심는 것만 못하다 여길 뿐이옵니다. 산전으로 말씀하오면, 비록 큰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산 비[山雨]가 오기만 하면 그다지 심한 가뭄은 되지 아니하며, 비록 폭풍이 불지라도 임목이 막고 가리어서 전부 손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축장(築場)을 하지 아니하려고 함은 사람마다 같을 것이고, 더욱이 교리(橋里)의 가사(家舍)·농전(農田)은 산전 가운데의 땅이 더욱 좋습니다. 신의 어미도 이것에 힘입어 살던 것인데, 이제 장기(場基)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만일, 이기(利己)할 마음이 있었다면 장우량의 축장하려는 계책을 어찌 달게 따랐겠나йка.

이하생략~

▶ 65권 16년 7월 28일 癸卯

濟州按撫使啓: “本州頗有牛馬賊，盜殺無窮，其弊不貲。且恐良馬絕種，限風俗歸正，除考刺字，隨卽大懲。” 事下刑曹。刑曹議啓: “盜殺牛馬者，除考刺字大懲，律外之刑，未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可施行.”從之.

제주 안무사가 아뢰기를, “본주에는 마소의 도둑이 있어 도살(盜殺)하는 일이 끝이 없어 서 그 폐가 작지 아니하고, 또 좋은 말의 종자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하니, 풍속이 바로잡힐 때까지 한하여 상고하여 자자(刺字)하는 것을 그만두고, 곧 따라 크게 징치할 일로 형조에 내리니, 형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소를 도둑질해 죽인 자에게는 상고하여 자자하는 것을 제하고 크게 징치함은 법률 외의 형벌이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65권 16년 8월 2일 丙午

司憲府啓: “左承旨權孟孫、左副承旨鄭甲孫、右副承旨尹炯、同副承旨黃致身等, 今方時令不順, 宵旰軫慮之時, 以近臣不體至意, 憑藉餞客, 公然聚會卑賤人家, 招妓作樂, 且用牛肉, 固爲不當, 孟孫、致身掌辦是會, 尤爲不當.” 上謂近臣曰: “用牛肉, 人人之所犯也. 昔許遲爲大司憲時啓曰: ‘臣常犯杖一百之罪.’ 此言甚直. 達官之宴, 伶人娼妓之往參, 亦常事也, 予何咎焉? 但承旨職掌出納, 非他臣下之比, 權要出於議政之上, 今孟孫等, 不念予畏天謹災之意, 會于卑賤人之家, 恣行宴會, 當竝罷之. 但得人爲難, 其罷孟孫、致身之職, 令甲孫、炯就職.” 先是, 孟孫、甲孫、炯、致身等, 携妓夜飲于鑄字所, 又飲喪人司鑰李夏之家, 餞各道監司, 識者非之.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좌승지 권맹손(權孟孫)·좌부승지 정갑손(鄭甲孫)·우부승지 윤형(尹炯)·동부승지 황치신(黃致身) 등은, 이제 바야흐로 기후가 불순하여 밤낮으로 진념하시는 때에 근신(近臣)으로서 지극하신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손님 전송을 빙자하여 공공연하게 천인의 집에 모여서 기생을 불러 풍악을 잡히고, 또 쇠고기를 썼으니, 진실로 부당하옵니다. 맹손과 치신은 이 모임을 맡아 설비하였사오니, 더욱 부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쇠고기를 쓰는 것은 사람마다 범하는 바다. 예전에 허지(許遲)가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아뢰기를, ‘신이 항상 형장 1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합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곧은 말이다. 높은 벼슬아치의 연회에 광대[伶人]와 기생[娼妓]이 가서 참여하는 것도 예사이니, 내가 어찌 허물하랴마는, 다만 승지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전해 내는 직책을 맡았으니 다른 신하에 비할 바가 아니며, 권세와 중요함이 의정의 위에 있는데, 이제 맹손 등이 나의 천재(天災)를 두려워하고 삼가는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방자히 잔치를 행하였으니, 마땅히 함께 파면할 것이나, 다만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맹손과 치신은 파직시키고, 갑손과 형은 벼슬에 나아가게 하노라.”

하였다. 이 앞서 맹손·갑손·형·치신 등이 기생을 데리고 밤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술을 마시고, 또 상인(喪人)인 사약(司鑰) 이하지(李夏之)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각도의 감사를 전별

하니,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 65권 16년 8월 28일 壬申

前參議高得宗上書曰：

臣鄉濟州，曩在乙卯，車玄有、內成之輩爲馬賊，其時萬戶欲抄軍捕之，機洩反爲賊所害，賊益熾，欲專權背國，構逆扇亂，無所不至。土官等仗國之靈，克正其黨。蓋本州山林鬱密，幽穴甚多，作賊之人，聚爲淵(數)〔藪〕，每歲潛匿，盜殺公私牛馬。若此不禁，弊將難救。國家將上項之賊，竝令出陸，皆移平安道地面，此小臣素所願也。但今鄉人來言：“連歲凶歉，人無粒食，今則馬牛之賊尤多。”臣竊思之，君子雖當困窮之時，固守其節矣，小人則飢餓切迫之極，救死不贍，其能有廉恥之心，而不爲不義者乎？無恒心之徒，盜殺爲食者，乃多有之。若不問所犯之由，逮捕緣繫之人，皆於一時督令驅出，使父子不相見，兄弟妻子離散，則人皆浮動其心，群凶發憤，聚入山林，爲害不小，恐昔年之患，或作於今日矣。伏望殿下，察臣愚衷，再犯盜殺者外，今因年飢爲盜者，姑令仍置，以安反側，用改前心。自今以後作賊之人，雖初犯，隨即出陸，置之遐道，則庶幾馬賊自絕，而汚俗惟新矣。

上令三議政兵曹議之，僉曰：“依上書施行。”從之。

전 참의 고득종(高得宗)이 상서하기를, “신의 고향인 제주는 예전 을묘년에 차현유(車玄有)와 예성지(芮成之)의 무리들이 마적(馬賊)이 되었었는데, 그때의 만호(萬戶)가 군사를 뽑아서 잡고자 하였으나, 기밀이 누설되어 도리어 도둑에게 해한 바가 되자, 도둑이 더욱 성하여 권세를 오로지 잡아서 나라를 배반하려고 하여 역모(逆謀)를 꾸미고 난도를 일으켜, 그 해가 이르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토관들이 나라의 위령(威靈)을 힘입어 능히 그 무리들을 평정시켰습니다. 대저 본주는 산림이 울밀하고 깊은 굴혈이 심히 많아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이는 소굴로 되어, 매년 몰래 숨어서 공사(公私)의 마소를 도둑하여 죽이니, 이같이 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장차 그 폐해를 구제할 길이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 도둑들을 장차 육지로 모두 내보내어 평안도 땅으로 옮기려 하오시니, 이는 신의 본래의 소원입니다마는, 다만 이제 고향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은 마소의 도둑이 더욱 많다.’고 하옵니다. 신은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군자는 비록 곤궁할 때를 당할지라도 그 절개를 굳게 지키지마는, 소인은 굶주림이 극도로 절박하면 죽음을 구제하려 하여도 넘치지 못하거든, 어찌 능히 염치를 차리는 마음을 지니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아니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떳떳한 마음이 없는 무리들이 도둑 해다가 죽여서 먹는 자가 많이 있으니, 만약 범한 바의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체포하여 묶어 둔 자를 모두 일시에 서둘러서 몰아내게 하여, 아비와 아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갈리고 흩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이 들떠서, 모든 흉한 무리들이 분을 품고 숲속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면, 해가 작지 아니할 것이오니, 옛날 도둑의 근심이 혹 오늘에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살피시어, 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번 도살한 죄를 범한 자 외에는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자는 아직 그대로 두고 배반하는 마음을 안정시켜서 예전에 가졌던 마음을 고치게 하고, 이후로 도둑질하는 자는 비록 초범(初犯)일지라도 곧 옥지로 내보내어 먼 도에 두게 하면, 마적이 스스로 끊어지고 언짢은 풍속이 새로워질까 하옵니다.”하므로, 임금이 세 의정과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서에 의하여 시행하십시오.”하매, 그대로 따랐다.

▶ 66권 16년 12월 21일 甲子

傳旨兵曹:

濟州無知之民, 狃於盜殺牛馬, 屢犯罪罟. 差遣朝官, 刷出再犯者, 移于平安道, 冀其自新. 其有親而無兄弟者, 停留, 時到各官, 覈實還送, 時未出陸者, 令濟州敬差官, 分揀施行.

병조에 전지하기를, “제주의 무지한 백성들이 소와 말을 도살(盜殺)하는 데에 습관이 되어서 여러 번 죄를 범하였으니, 조관(朝官)을 보내어 두 번 범한 자를 찾아내어 평안도로 옮겨서 스스로 고치기를 바라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없는 자는 정류(停留)할 때에 각 관에 이르러 사실을 조사하여 도로 보내고, 아직 옥지에 나오지 않은 자는 제주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분간(分揀)하여 시행하게 하라.”하였다.

▶ 67권 17년 1월 3일 乙亥

上曰: “移置濟州牛馬賊時, 令所經各官, 優給衣糧, 無使飢寒, 婦女小兒, 無令凍餒.”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소나 말 도적들을 옮겨 배치할 때에, 그 경과하는 각 고을에 지령하여 의복과 식량을 넉넉하게 주어 기한(飢寒)이 없도록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도 얼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하였다.

▶ 67권 17년 1월 14일 丙戌

都承旨安崇善, 以領議政黃喜言啓曰: “今自濟州移置平安道盜殺牛馬者, 幾至六百五十餘, 豈皆盜殺之人? 或有食肉而連及者, 轉達分辨何如?” 上命兵曹, 逐人名下, 開寫罪名以啓.

도승지 안승선이 영의정 황희의 말을 아뢰기를, “이제 제주에서 평안도로 옮길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한 자가 6백 50명에 이르고 있으니, 어찌 다 도살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혹

은 고기를 먹고 연루(連累)된 자도 있사오니, 이를 전달(轉達)하게 하여 분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병조에 명하기를, “사람마다 그 이름 아래에 죄명을 명기하여 전달하게 하라.” 하였다.

▶ 67권 17년 1월 22일 甲午

戶曹啓: “濟州牛馬賊, 已曾刷出, 分置平安道. 命其道各官, 分授有恒產各戶, 使母子不相離, 依雇工人例, 供給役使. 其老弱疾病不能自存者, 賑給救恤.” 從之.

호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의 우마적(牛馬賊)을 이미 색출하여 평안도에 나누어서 배치하였사오니, 그 도의 각 고을에 명하여 항산(恒産)이 있는 각 호(戶)에 나누어 주어 어미와 자식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고공인(雇工人)의 예에 의하여 취역하게 하고, 그 노약(老弱)과 질병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자는 구호의 양곡을 지급하여 이를 구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7권 17년 1월 30일 壬寅

禮曹又啓: “二十七日前, 停大小祀及朝市, 禁屠宰、去刑戮、禁婚嫁.” 從之.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27일 전에는 대소의 제사와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도살(屠殺)을 금하며, 형륙(刑戮)을 제거하며, 혼인(婚姻)을 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7권 17년 3월 12일 甲申

召左議政仍令致仕孟思誠、司僕提調鄭淵、兵曹參判皇甫仁議曰: “初司僕啓: ‘濟州牛馬賊興行, 牧馬不蕃, 宜差人刷出, 徙于會寧、閭延, 以實邊塞.’ 議諸大臣, 皆曰: ‘不可.’ 司僕再三啓請, 爰遣司僕少尹趙順生, 刷出賊人, 海道遭風, 漂至中國, 或溺死海中, 予甚驚駭, 初不意生弊至此極也. 已入平安者已矣, 其在本州及出在全羅者, 農前未及移徙, 彼此失業, 何以區處乎? 予聞馬賊幾至千數, 無他, 本州人狃於土風, 殺自己牛馬, 祭而食肉者, 竝皆被刷, 未知實否?” 皇甫仁曰: “別遣朝官更覈, 如有食肉者, 連逮悉令還本. 其正賊內已出全羅者, 分置所在各官, 待秋徙於平安道, 未出陸者, 除獨子初犯外, 盜殺牛馬者, 令本州守令刷出, 永爲恒式.” 鄭淵曰: “別遣朝官, 反生搔擾之弊. 臣初聞濟州地窄民稠, 生理窮迫, 不逞之徒, 群聚山林, 盜殺牛馬, 以資其生. 土豪多占百姓役使, 今當刷出, 必生厭憚, 其曰食肉者竝被推刷, 未足信也. 順生亦豈如此妄刷乎? 順生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還則可得其實. 其中已出全羅者, 留置各官, 其未出者, 悉付案籍, 待秋刷出.”

이하생략~

좌의정으로 이내 치사(致仕)하게 한 맹사성과, 사복시제조 정연(鄭淵)·병조참판 황보인(皇甫仁)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처음 사복시에서 계달하기를, ‘제주(濟州)에 우마적(牛馬賊)이 성행하여 목장의 말이 번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이를 조사 색출하여, 회령(會寧)·여연(閔延) 등지로 이들을 이주시켜 변읍(邊邑)이나 채우게 하소서.’ 하므로, 여러 대신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사복시에서 이를 재삼 계청하기에, 사복소윤(司僕少尹) 조순생(趙順生)을 파견하여 도독을 색출하게 하였더니, 해상에서 바람을 만나 중국으로 표류하고, 혹은 바다에서 익사하였다니 내 몫시 놀랍고, 당초에 그 폐단이 여기까지 이르리라고는 뜻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평안도로 들어간 자는 도리가 없거니와, 본주(本州) 또는 전라도로 나올 자가 농사철이 오기 전에 이사하지 못하면 피차가 그 업을 잃게 될 것이니, 이를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내가 듣기에는 말 도독이 거의 천 명에 달한다 하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土風)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은 자까지도 모두 색출에 걸렸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니, 황보인은 아뢰기를, “별도로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다시 조사시켜 만일 고기를 먹은 자까지도 연루 피체된 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본거지로 귀환시키고, 그 진범 중에서도 이미 전라도로 나온 자는 현재 있는 각 고을에 분산해 두었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평안도로 옮기게 하고, 아직 육지로 나오지 않은 자는, 독자(獨子)와 초범자(初犯者)를 제외한 우마도살자(盜殺者)만을 본주 수령으로 하여금 조사 색출하는 것으로서 영구히 한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소서.”하고, 정연은 아뢰기를, “따로 조관을 보낸다면 도리어 소요스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신이 당초에 듣기로는 제주가 지역이 좁고 인민이 많은 관계로 생계가 궁박하여, 불순분자들이 산간에 군집해서 우마를 도살하여 생활을 도모하고 있고, 토호(土豪)들이 백성을 많이 점유하여 부리고 있다 하옵는데, 이제 이들의 조사 색출을 당하여 반드시 이를 꺼릴 것이며, 고기를 먹은 자까지 모두 조사 색출에 일괄 포함되었다는 말은 아직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조순생이 어찌 함부로 이같이 끌어냈을 리 있겠습니까. 순생이 돌아오면 그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중에 이미 전라도로 나온 자는 각 고을에 유치해 두게 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자는 모두 문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데리고 나오도록 하소서.”하였다.

이하생략~

▶ 68권 17년 4월 13일 甲寅

初, 左議政崔閔德啓備邊事宜: “

~중략~

一. 令平安道將犯禁沒入雜物, 就遼東貿水牛角眞絲, 以造角弓. 一. 用濟用監布物, 換水牛角眞絲於遼東, 令軍器監製造角弓.

이하생략~

처음에 좌의정 최윤덕(崔閔德)이 비변사의(備邊事宜)를 아뢰었는데,

~중략~

1. 평안도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범하여 몰입(沒入)된 잡물(雜物)을 가지고 요동(遼東)에 가서 물소뿔[水牛角]과 진사(眞絲)를 무역하여 각궁(角弓)을 만들게 할 것.

1. 제용감(濟用監)의 포물(布物)을 가지고 요동에서 물소뿔과 진사(眞絲)를 바꾸어 군기감으로 하여금 각궁(角弓)을 제조하게 할 것.

이하생략~

▶ 68권 17년 6월 8일 戊申

禮曹與議政府諸曹同議, 各品陳言以啓:

~중략~

一. 近年旱乾之災, 京畿尤甚, 徭役煩重, 民不聊生, 凡可移定者, 悉皆移定於他道; 可減省者, 量宜減省. 至若分禮賓典廐署乳牛所生穀草炊料木, 厥數猥多, 民甚苦之. 上項各司所養雜畜, 亦宜減省. 右條, 令戶曹禮曹同議量減.

이하생략~

예조에서 의정부(議政府)·여러 조(曹)로 더불어 각품(各品)이 진언(陳言)한 것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략~

1. 근년 한재는 경기(京畿)가 더욱 심한데, 요역(徭役)이 번다하고 과중하여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오니, 무릇 옮겨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른 도(道)로 옮겨 정하고, 감(減)할 것은 적당하게 감하고, 분예빈(分禮賓)·전구서(典廐署)·유우소(乳牛所)의 곡식과 풀과 연료·나무 같은 것도 그 수량이 대단히 많아서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오니, 위 항목의 각사(各司)에서 기르는 잡축(雜畜)을 또한 마땅히 감하여 덜어 버리자는 위의 조목은, 호조(戶曹)·예조(禮曹)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적당히 감하게 하소서.

이하생략~

▶ 69권 17년 8월 2일 辛丑

刑曹啓: “巖泰島放置賊人多, 而監守者少, 漸成黨類, 盜宰牛馬, 至欲殺其監守者, 深爲可慮. 且珍島放置賊人亦多, 若又連續放置, 則益成黨類, 非惟殺其監守者, 恐奪船隻, 將爲海寇. 乞分置沿邊各官, 假屬官奴妻孥, 竝皆完聚, 給空閑土田, 使安其業. 且令守令禁其出入, 嚴加檢察, 今後京外再犯竊盜, 竝依此例施行.” 從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형조에서 아뢰기를, “암태도(巖泰島)에 그대로 내버려둔 도적은 많은데도 감수(監守)하는 사람이 적으므로, 점차 당류(黨類)를 만들어 소와 말을 훔쳐 잡아먹고, 그 감수하는 사람까지 죽이고자 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또 진도(珍島)에 그대로 내버려둔 도적들도 또한 많은데, 만약 또 연달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더욱 당류를 만들게 될 것이니, 다만 그 감수하는 사람만 죽일 뿐 아니라, 배를 빼앗아 장차 해구(海寇)가 될까 염려됩니다. 원컨대, 연변(沿邊)의 각 고을에 나누어 둔 임시 소속된 관노(官奴)의 처자들을 모두 그 가족과 한 곳에 모아서 공한(空閑)한 토지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하도록 하고, 또한 수령들에게 그들의 출입을 금하여 엄중히 검찰 하도록 하며, 금후로는 경중과 외방의 두 번 범한 절도들은 모두 이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9권 17년 9월 4일 壬申

及第李迹造木牛以進, 上曰: “吾將親覽.” 下尙衣院.

급제(及第) 이적(李迹)이 목우(木牛)를 만들어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친히 관람하겠다.”하면서 상의원(尙衣院)에 내렸다.

▶ 70권 17년 11월 17일 甲申

甲申/禮曹啓: “謹按《大學》: ‘孟獻子曰: 「伐氷之家, 不畜牛羊.」’ 註: ‘伐氷之家, 卿大夫以上喪祭用氷者也.’ 又《詩》《七月篇》註: ‘四月陽氣畢達, 氷於是大發, 食肉之祿老病喪浴, 氷無不及.’ 以此觀之, 卿大夫之喪用氷, 其來尙矣. 且本國宗親及大臣功臣禮葬, 自四月至九月, 皆用氷盤, 已曾立法, 有司至今不舉行, 有違古制. 自今依古制及本國定制, 宗親、大臣、功臣禮葬用氷盤, 自初喪至大斂, 每日用氷二十丁, 五月望前、八月望後減半. 禮葬都監檢察, 并給氷盤.”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대학(大學)》에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얼음을 떠내는 집은 소와 양(羊)을 기르지 아니한다.’했는데, 그 주(註)에, ‘얼음을 떠내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의 초상과 제사에 얼음을 쓰는 사람을 이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시경(詩經)》 칠월편(七月篇)의 주에는, ‘4월에 양기(陽氣)가 다 발달되므로 얼음을 이에 크게 내어, 식육(食肉)의 녹(祿)과 늙고 병든 사람과 초상과 목욕에 얼음이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다.’고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경대부의 초상에 얼음을 쓴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또 본국(本國)의 종친과 대신·공신의 예장(禮葬)에도 4월부터 9월까지의 모두 빙반(氷盤)을 사용하여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유사(有司)가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으니 옛날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

부터는 옛날의 제도와 본국의 정한 제도에 의거하여 종친과 대신·공신의 예장에는 빙반을 사용하되, 초상에서 대렴(大斂)까지는 날마다 얼음을 20정(丁)을 사용하고, 5월 보름 전과 8월 보름 후에는 반을 감하게 하고, 예장도감(禮葬都監)에서 검찰하여 아울러 빙반까지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70권 17년 12월 13일 庚戌

漢城府啓: “國家嚴立宰殺牛馬之禁, 皮張肉塊, 亦令著稅, 防奸之法, 至爲纖悉, 然無著稅收納之限, 故妄冒買賣者多. 今後皮則限十五日, 肉則冬節限十日, 夏節限五日, 定限收納, 違者治罪.” 從之.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소와 말을 도살(屠殺)하는 금령을 엄하게 만들어, 가축과 고기덩이도 또한 세금을 정하여 협잡을 막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상설(詳悉)하였으나, 그러나 세금을 정하여 수납하는 기한이 없는 까닭으로 합부로 매매하는 사람이 많으니, 금후로는 가축은 15일을 기한하고, 살코기는 겨울철은 10일을 기한하고, 여름철은 5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수납(收納)하고, 어긴 사람은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72권 18년 5월 14일 己卯

議政府據禮曹呈啓: “今當農月, 雨澤未洽, 依前例斷繖扇、禁屠殺.” 從之.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해서 비가 흡족하지 못하오니, 전례에 의하여 산선(繖扇)과 도살(屠殺)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72권 18년 5월 28일 癸巳

京畿抱川縣雌牛一產二犢.

경기도 포천현(抱川縣)에서 암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 72권 18년 6월 20일 乙卯

議于政府曰：“先是，大臣獻議以爲：‘濟州地窄民稠，盜殺牛馬，以資其生者頗多，因此馬不蕃殖。請盜殺牛馬者，舉家出陸，其有主私賤，授本主。平民乃公賤，移置平安、黃海地廣民稀之處，使之安業。’予亦以爲小島之中，無賴之徒，潛聚山谷，盜殺牛馬，恣行無忌，不可不懲。且意其徒不過數百，遂從其議，令趙順生推刷出陸，其數至八百。自全羅至平安道，提挈老幼，絡繹于路，其辛勤艱苦，飢寒凍餒者，不知其幾。予乃軫慮，分遣朝官，曉諭監司守令，使之存恤撫綏，然重違大臣之議，未卽遽遏出陸之令，但其獨子，皆令送回，以養其親，數至百餘，而逋逃物故者亦多。我今思之，濟州邈居海島，其民不知禮義，且無恒心，潛匿山林，盜殺牛馬，習以爲常，是乃舊染汚俗，豈可同於陸地禮義之民，而痛繩以法乎？今遷徙者，遠離鄉曲，思親戀土，愁懷怨咨，必召傷和氣，故欲訪問賊徒，其願仍居陸地者，從願仍居，欲還本土者，許還本土，以絕愁怨何如？”僉曰：“上不忍賊徒遠離鄉曲，欲令還送，此天地生成之仁，然出陸未久，卽令放回，懲惡無門。且濟州地窄民多，已徙賊徒，不宜送回，宜令所在監司守令優給土田，俾安生業。”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이 앞서 대신이 헌의(獻議)하기를, ‘제주는 땅이 좁고 민가(民家)가 조밀하여, 소와 말을 도둑질해 죽이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자못 많사온데, 이로 인하여 말이 번식하지 않으니, 천하전대, 남의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이는 자는 온 집안을 육지에 내보내고, 그 주인이 있는 사천(私賤)은 본주(本主)에게 주되, 평민과 공천(公賤)들은 평안도나 황해도의 땅이 넓고 백성들이 드문 곳에 옮겨 두어서 안업(安業)하게 하소서.’ 하매, 나도 또한 작은 섬 가운데에 무뢰한 무리들이 남몰래 산골짜기에 모여서 소와 말을 도둑질해서 죽이기를 멋대로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 무리들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드디어 그 의논을 따랐더니, 조순생(趙順生)으로 하여금 추쇄(推刷)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매, 그 수효가 8백 명이나 되어, 전라도로부터 평안도에 이르기까지 높고 어린 것을 붙들고 업고서 길을 이어서 간다 하니, 그 몹시 고생하고 굶주리며 추위에 얼어 죽는 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것을 염려하여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어 감사와 수령에게 효유하여 물어 보아서 구휼하고, 편안케 무마하게 했으나, 그러나 거둬 대신들의 논의가 어긋나서 즉시 육지에 내보내라는 명령을 갑자기 막지 못했다. 그 독자(獨子)만은 모두 돌려보내어 그 아버지를 봉양하게 하니, 수효가 백여 명이 되었으나, 도망치고 죽은 자도 역시 많았다. 내가 지금 이를 생각하니, 제주는 멀리 바다 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예의도 알지 못하고, 또 안정된 마음도 없어 남 몰래 산림(山林)에 숨어서 소나 말을 도둑질해서 잡아먹기 보통이니, 이것은 더러운 옛 풍속에 물들은 것이라, 어찌 육지에서 예의를 아는 백성들과 같이 해서 법으로 아프게 다스리겠는가? 지금 옮긴 자들이 멀리 살던 곳을 떠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회포와 원망하는 말들이 반드시 화기를 불려서 상하게 할 것이므로, 적도(賊徒)들을 찾아 물어서, 그 소원이 그대로 육지에 살고자 하는 자는 소원대로 살게 하고, 본토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본토에 돌아가기를 허락하여 수심과 원망을 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차마 적도(賊

徒)로 하여금 멀리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돌려보내려고 하니, 이것은 천지(天地)가 낳아서 기르는 인자함이오나, 그러나 육지에 나온 지 오래 되지 아니하여 즉시 놓아서 돌려보낸다면 악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또 제주(濟州)는 땅이 비좁고 백성이 많아서, 이미 옮겨 놓은 적도를 돌려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있는 곳의 감사로 하여금 토지를 넉넉하게 주어서 살림살이에 편안하게 하소서.”하였다.

▶ 72권 18년 6월 23일 戊午

戊午/議于政府. 其一曰: “卿等以爲: ‘濟州牛馬賊出陸未久, 卽令放回, 無以懲惡.’ 其意固善. 然遠離本土, 已經三歲, 足以懲惡矣. 予憫其遠離鄉曲、思親戀土之情, 欲令還本, 以舒其情, 更議以啓.” 領議[政]黃喜等議: “妻孥之遷徙, 專以夫之罪也. 其正賊身死者妻孥, 竝還本土.” 參贊趙啓生等議: “濟州之人, 盜殺牛馬, 以資其生者, 專是地窄民稠, 不得耕種, 無恒產故也. 已令出陸, 官給田業, 俾遂其生, 皆有生生之望矣, 何必送還本土乎?”

정부에 의논하였다. 그 하나는, “경(卿) 등이 제주의 우마적(牛馬賊)을 육지에 내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즉시 돌려보내게 되면 악을 징계할 수 없다고 하니, 그 뜻이 진실로 좋으나, 그러나 멀리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년을 지냈으니, 족히 악을 징계한 것이었다. 내가 그들이 멀리 향곡(鄉曲)을 떠나서 아버이를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민망하게 여기어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그 정을 펴게 하고자 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하니, 영의정 황희(黃喜) 등이 의논하기를, “아내와 자식들을 옮기게 한 것은 오로지 지아비의 죄 때문이니, 그 도둑의 몸으로 죽은 자의 처자는 모두 본토(本土)로 돌려보내소서.”하고, 참찬 조계생(趙啓生) 등이 의논하기를, “제주 사람들이 마소를 도둑질하여 그 생계로 한 것은, 오로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조밀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이며, 향산(恒産)이 없는 까닭입니다. 이미 육지로 내보내어 관청에서 토지와 일거리를 주어서 생계를 이루게 하여 모두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 하필 본토(本土)로 내보내겠습니까.”하였다.

▶ 73권 18년 閏6월 15일 己卯

判官趙由禮、副校理趙由信等上書:

古之用人, 不係世累尚矣. 崇伯殛死, 而禹作司空; 蔡叔見廢, 而仲爲諸侯. 由是觀之, 不以父惡而廢子之善明矣. 載涉歷代之史, 母嫁民間, 而子爲顯相; 母行非義, 而子登宰相. 孔子曰: “犁牛之子, 騁且角, 山川其捨諸?”

이하생략~

판관(判官) 조유례(趙由禮)·부교리(副校理) 조유신(趙由信)이 상서(上書)하기를, “옛날에 사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람을 씌에 있어 세루(世累)에 구애하지 않았던 것은 오래입니다. 송백(崇伯)을 주살(誅殺)하고도 우(禹)를 사공(司空)에 임명하였으며, 채숙(蔡叔)이 방폐(放廢)되었으나, 채중(蔡仲)으로 제후(諸侯)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그 아버지가 악하다 하여 그 아들의 선(善)을 폐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역대의 사기(史記)를 더듬어 보건대, 그 어머니가 민간인에게 시집갔어도, 아들이 현달한 정승이 되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였어도 아들이 재상(宰相)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공자(孔子)는 말씀하시기를, ‘**얼룩소[犁牛]의 새끼라도 그 빛깔이 붉고 뿔이 바로 나면 <쓰지 않으려 해도> 산천(山川)이 농쟁는가?**’ 하셨습니다. …”

이하생략~

▶ 73권 18년 閏6월 18일 癸未

以前日四品以上所上制寇之策，抄寫二秩，送于平安道都節制使李藏，仍諭曰：“一方制禦之事，專委於卿，卿亦已悉予心矣。兵事難以遙度，今旁求制禦之策，抄寫以送，雖不合時措之方者多矣，然亦有可用之策、可法之事。卿常獨觀，細求其意，夙夜致思，如有長策，籌畫以啓。”

~중략~

一，濟州一島，地窄人衆，其俗類以草食充飢，因而賊殺牛馬，豈天性本惡而然歟？實因飢餓之所致也。今國家慮其賊徒興行，良馬之絕種，盡刷出陸，分置各官，寄接閭里，虛其軍丁，實爲未便。臣願上項之人，並皆移置閭延、慈城等各處，勸農安業，以添軍額。

이하생략~

전일에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制禦策) 두 질(秩)을 초출(抄出) 등사(謄寫)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藏)에게 보내고, 인하여 유시(諭示)하기를,

“서방(西方)의 제어(制禦)의 일을 경에게 전위(傳委)하였고, 경도 또한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군사(軍事)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제 널리 그 제어책을 구(求)하여 초출 등사하여 보내니, 비록 수시(隨時) 조치하는 방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더라도, 역시 쓸 만한 방책과 법판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이 항상 혼자서 보고 세밀히 그 뜻한 바를 구(求)하며,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깊이 생각하여, 만일 좋은 계책이 있거든 계획을 세워 계달하라.” 하였다.

~중략~

1. 제주(濟州)라는 한 섬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그 습속이 흔히 초식(草食)으로 기아를 면하며, 인하여 우마를 도둑질하여 도살하는데, 어찌 그의 천성이 나빠서 그러하겠습니까. 실은 기아로 인한 소치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적도들의 횡행과 우량마[良馬]의 절종을 우려하여, 이들을 다 색출하여 육지로 내다가 각 고을엔 분배하여 여염마을에 기우(奇寓)하게 함으로서, 그곳 군정(軍丁)을 허소하게 함은 실로 온당치 않은 일이오니, 신은 원컨대, 상기의 사람들을 모두 여연·자성 등 각처에 옮겨 두고 농사를 권장하여, 그 업에 안정케 하

여 군액을 늘리도록 하소서.
이하생략~

▶ 74권 18년 7월 13일 丙午

議政府據刑曹呈啓: “宰殺牛馬之禁, 載在《六典》, 然近者京都之內、宮城之傍, 屢有犯禁者, 其不畏邦憲如此. 乞令禁火都監同漢城府五部官巡行糾察, 申嚴宰殺之禁.” 從之.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소와 말을 잡아 죽이는 금령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사오나, 그러나 요사이 서울 안과 궁성(宮城)의 옆에서 여러 번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었사오니, 그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비읍건대, 금화도감(禁火都監)으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의 관원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규찰하여 짐승 죽이는 금령을 거듭 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75권 18년 11월 27일 戊午

兵曹啓:

“咸吉道近境野人, 或誘邊民、或招亡、或虜掠隱匿役使者, 不可不懲, 請依本國之例, 徵其役價, 其轉賣深處野人者及役使身死者, 或價錢、或人物, 隨宜徵之.

一, 咸吉道野人與本國邊民雜處, 其以瘦弱牛馬及布物, 換彼人良馬者勿禁, 但令必告所在官, 方許買賣.

이하생략~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의 가까운 경계에 있는 야인으로 혹은 변방 백성을 꼬이기도 하고, 혹은 도망한 사람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혹은 사로잡아 가서는 숨겨 놓고 사역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청컨대, 본국의 예에 의거하여 그 역가(役價)를 징수하고, 그 깊은 내륙에 있는 야인에게 전매(轉賣)한 사람과 사역하였다가 죽인 사람은 혹은 가전(價錢)이든지 혹은 인물이든지 적당하게 이를 징수할 것입니다.

1. 함길도의 야인은 본국의 변방 백성과 섞여서 살고 있으니, 그 파리한 우마(牛馬)와 포물(布物)로 저 사람들의 좋은 말과 바꾼 사람은 금지하지 말고, 다만 반드시 소재한 고을에 신고하고서 그제야 사고 파는 것을 허가할 것이며,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77권 19년 4월 19일 戊寅

竹山縣有雌牛，一產雌牛二。

죽산현(竹山縣)에서 암소가 한꺼번에 암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 77권 19년 6월 24일 壬午

戶曹啓：“來七月望前，分遣敬差官于八道，審定鹽場魚梁。鹽場則每一盆一番，定鹽漢五名，分二番役使，其鹽漢不足之數，令今去敬差官推刷鹽漢挾丁及沿海居住各司貢奴、各色軍戶隱漏餘丁、旁近各官奴婢、公私婢子嫁平民所生、犯罪徒役人等，以充其數。又鹽場官排置處、鐵盆土盆拘鐵所需及每一區耕牛之數、不用牛隻耕區便否，備細啓聞。魚梁則上中下三等漁箭及漁船網罟、一年所出魚物、民間貿易布貨米穀之數，亦使訪問以啓。

호조에 아뢰기를, “오는 7월 보름 전에 경차관(敬差官)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염장(鹽場)과 어량(漁梁)을 살펴서 정하되, 염장에는 한 분(盆)에 한 번(番)마다 염한(鹽漢) 5명을 정하고 두 번에 나누어 일을 시키되, 그 염한이 부족한 수는 지금 가는 경차관으로 하여금 염한 협정(挾丁) 및 바닷가에 거주하는 각사의 공노와, 각색 군호(軍戶)의 숨고 누락된 남은 장정과, 근방 각관의 노비와 공사비로서 평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과, 범죄 하여 도역(徒役)하는 사람 등을 죄다 뽑아서 그 수를 채우고, 또 염장관(鹽場官)을 설치할 곳과, 철분(鐵盆)·토분(土盆)·구철(拘鐵) 등 소용되는 수량과, 한 구(區)마다 경우(耕牛)의 수와, 소를 쓰지 아니하고 가[耕]는 구(區)에 일이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자세히 갖추어서 아뢰고, 어량은 상·중·하 세 등에서 어살[漁箭] 및 고깃배[漁船] 그물로 잡는 고기와 민간에 바꾸는 포화(布貨)·미곡(米穀)의 수량도 조사하여 아뢰게 하소서.”하였다.

▶ 78권 19년 7월 12일 庚子

慶尙道昌寧縣牛產雌牛，一頭兩口兩鼻四目，其牛卽死。命行解怪祭。

경상도 창녕현에 소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입이 둘이고 코가 둘이고 눈이 넷이었다. 그 소는 즉시 죽었는데, 해괴제(解怪祭)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 78권 19년 7월 27일 乙卯

刑曹啓: “牛馬禁殺之法, 非不嚴也, 姦猾之徒, 恣行不忌, 專是奉行官吏考察陵夷所致. 今不必更立防禁, 但申明《元》·《續典》所載及累降教條, 有能告捕者, 各部管領則賞職, 令史使令則給到百日.” 從之.

형조에서 아뢰기를, “소와 말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나, 간활한 무리들이 함부로 자행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은, 오로지 봉행하는 관리들의 고찰(考察)이 해이한 소치이옵니다. 이제 반드시 금방(禁防)하는 법을 다시 세울 것이 아니오라, 단지 《원전(元典)》과 《속전(續典)》에 실려 있는 것과 여러 번 내리신 교조(敎條)를 거듭 밝혀서, 능히 고(告)하여 잡은 각부의 관령(管領)이면 벼슬로 상을 주고, 영사(令史)나 사령(使令)이면 1백 일(日)의 도(到)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79권 19년 12월 23일 庚辰

刑曹啓: “京中則竊盜三犯者, 除杖刺字, 斷筋; 再犯者, 決杖刺字, 假屬官奴. 其中賊滿罪應徒流者, 盜殺牛馬罪應身充水軍者, 勿論良賤, 并皆徵贖. 外方各道則其犯竊盜者, 三犯斷筋, 再犯假屬官奴而已, 其賊雖至徒流及身充水軍, 更不徵贖. 非徒中外用刑各異, 輕重失宜, 懲惡無門, 今後一依京中例施行. 且本曹文牒, 所係匪輕. 今郎廳八房京外移牒, 泛稱刑曹, 不錄房名, 每遇憑考, 未得搜出, 及其年月已久, 八房文書, 雜錯混淆. 因此獄訟淹滯, 實爲未便. 今後京外文字行移時, 書詳覆司一房二房、考律司一房二房、掌禁司一房二房、都官司一房二房; 京外官回報時, 亦依此例施行.”

형조에서 아뢰기를, “서울에서는 절도 3범인 자는 장을 치지 않고 자자하여 단근(斷筋)하고, 재범인 자는 장을 치고 자자하여 임시로 관노로 붙입니다. 그 중에 장물이 많아서 죄가 도류에 해당하는 자와,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하여 죄가 수군에 충당될 자는, 양민·천민을 물론하고 아울러 속전을 받습니다. 외방 각도에서는 절도 3범인 자는 단근하고, 재범인 자는 임시로 관노로 붙일 뿐이며, 그 장물이 비록 도류에 이르는 자와 수군에 충수될 자라 하더라도 다시 속전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형벌하는 것이 각각 달라서 경중이 적당하지 못하니, 악함을 징계하는 것이 대중없습니다. 금후에는 한 결 같이 서울에서 시행하는 예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또 본조의 문서는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낭청이 8방인데, 서울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면서 모두 형조라고만 하고 방명(房名)을 기록하지 않아서, 매양 상고할 때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세월이 오래 되었고 8방문서가 잡다하게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옥사와 송사가 정체(停滯)되는 바, 실로 편리하지 못합니다. 금후에는 서울과 지방에 문서를 보낼 때에, 상복사(詳覆司) 1방·2방, 고율사(考律司) 1방·2방, 장금사(掌禁司) 1방·2방, 도관사(都官司) 1방·2방을 적고, 서울과 지방에서 회보할 때에도 또한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79권 19년 12월 24일 辛巳

辛巳/傳旨咸吉道監司、都節制使：

今見卿書：“中朝於夷狄，不惜除都督以下之職者，非欲侍衛也，欲其羈縻也。又國初，萬戶宣略將軍之職，不惜遙授，亦欲羈縻也。依中朝、國初例，上護軍以下之職，量宜添設，度其歸順誠意深淺，從自願除授，甚合時宜。”其策固爲善矣。然野人受中朝之職者多矣。其授指揮之職而帶金帶者，不知何等之職可授耶。本國帶金帶者，是堂上官也。豈可輕授堂上之職於野人，而乃曰合於時宜乎？假如授中朝都督之職而帶犀帶者，願授本國之爵，則亦將何等官號以授之耶？若曰無職者，可以遙授，則彼無職者，既授官爵矣，其有職者之請，何以沮之乎？卿等更度便否以啓。

함길도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경들의 상서를 보니, ‘중국 조정이 이적에게 도독(都督) 이하의 관직을 아낌없이 제수하는 것은 시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난폭한 짓을〉 기미(羈縻)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초기에도 만호와 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는 직계(職階)를 멀리에서 제수하기를 아끼지 않았음은, 또한 그들을 기미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조정과 우리나라 초기의 예에 따라 상호군 이하의 직계를 요량해 첨설(添設)하여, 귀순하는 성의의 알고 깊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원에 따라 제수하면, 시의에 매우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진실로 좋은 계책이다. 그러나 야인으로서 중국 조정의 직계를 받은 자가 많다. 그 ‘지휘(指揮)’라는 직계에 제수되어 금대(金帶)를 띤 자는 어떤 직계를 제수하여야 좋을까. 본국에 금대를 띤 사람은 곧 당상관인데, 이 당상관 직계를 어찌 가볍게 야인에게 제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하여야만 시의에 합당하겠는가? 가령 중국 조정의 도독이라는 직계로서 서각(犀角)띠를 띤 자가 본국의 관작에 제수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어떤 관명으로써 제수할 것인가. 만약 ‘직계도 없는 자를 멀리서 제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직계 없던 자가 이미 관작에 제수되어서, 그 직계가 있는 자가 청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경 등은 타당한가 않은가를 다시 헤아려서 아뢰라.”하였다.

▶ 80권 20년 1월 7일 壬辰

欽敬閣成。大護軍蔣英實經營之，其規模制度之妙，皆出睿裁，閣在景福宮燕寢之傍。上命右承旨金墩，作記曰：

若稽帝王發政成務，必先於明曆授時，而授時之要，在於觀天察候，此璣衡儀表所由設也。然考驗之方，極精至密，非一器一象所能取正。我主上殿下命攸司制諸儀象，若大小簡儀、渾儀、渾象、仰釜日晷、日星定時、圭表、禁漏等器，皆極精巧，夙越前規，猶慮制度未精，且諸器皆設於後苑，難以時時占察，乃於千秋殿西庭，建一間小閣，糊紙爲山，高七尺許，置於其中。

~중략~

又其下平地之上，十二神各伏其位，十二神之後，各有穴常閉。子時至則鼠後之穴自開，有玉女執時牌出而鼠起於前，子時盡則玉女還入，其穴還自閉鼠還伏；丑時至則牛後之穴自開，玉女亦出，牛亦起，十二時皆然。午位之前又有臺，臺上置欽器，器北有官人執金瓶以注之，用漏之餘水，源源不絕，虛則欽，中則正，滿則覆，皆如古訓。又山之東則作春三月之景，南則夏三月之景，秋冬亦然。依《豳風》之圖，刻木爲人物鳥獸草木之形，按其節候而布之，《七月》一篇之事，無不備具。閣名曰欽敬，取《堯典》欽若昊天敬授民時之(之)義也。

이하생략~

흙경각(欽敬閣)이 완성되었다. 이는 대호군 장영실(蔣英實)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이 마련한 것이며, 각은 경복궁 침전 곁에 있었다. 임금이 우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기문을 짓게 하니, 이에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제왕이 정사를 하고 사업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먼저 역수(曆數)를 밝혀서 세상에 절후를 알려 줘야 하는 것이니, 이 절후를 알려 주는 요결(要訣)은 천기를 보고 기후를 살피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기형(璣衡)과 의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상고하고 징험하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여 한 기구 한 형상만으로는 능히 바르게 할 수 없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이 일을 맡은 자에게 명하여 모든 의기(儀器)를 제정하게 하였는데, 대소간의(大小間儀)·혼의(渾儀)·혼상(渾象)·양부일구(仰釜日晷)·일성정시(日星定時)·규표(圭表)·금루(禁漏) 같은 기구가 모두 지극히 정교하여 전일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 오직 제도가 정밀하지 못하고, 또 모든 기구를 후원(後苑)에다 설치하였으므로 시간마다 점검하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여, 이에 천추전(千秋殿) 서쪽 뜰에다 한 간 집을 세웠도다.

~중략~

또 산 밑 평지에는 열두 방위를 맡은 신들이 각각 제자리에 엎드려 있고, 열두 방위 신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어 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자시(子時)가 되면 쥐 모양으로 만든 신 뒤에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玉女)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오며, 쥐 모양으로 만든 신은 그 앞에 일어선다. 자시가 다 가면 옥녀는 되돌아서 구멍에 들어가는 동시에 구멍이 저절로 닫혀지고 쥐 모양의 신도 제 위치에 도로 엎드린다. 축시가 되면 소 모양으로 만든 신 뒤의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옥녀가 또한 나오며, 소 모양의 신도 일어나게 되는데, 열두 시간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오방위(午方位) 앞에는 또 축대가 있고 축대 위에는 기울어진 그릇을 놓았고 그릇 북쪽에는 인형 관원이 있어, 금병(金瓶)을 가지고 물을 따르는 형상인데 누수 남은 물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흐르며, 그릇이 비면 기울고 반쯤 차면 반듯해지며, 가득 차면 엎어져서 모두 옛말과 같이 되어 있다. 또 산 동쪽에는 봄 3개월 경치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여름 경치를 꾸몄으며, 가을과 겨울 경치도 또한 만들어져 있다. 《시경》 빈풍도(詩經豳風圖)에 의하여 인물·조수·조목 여러 가지 형용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절후에 맞추어 벌려 놓았는데 칠월 한 편의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집 이름을 흙경이라 한 것은 《서경》 요전(堯典)편에 ‘공경함을 하늘과 같이 하여, 백성에게 절후를 알려 준다[欽若昊天, 敬授人時]’는 데에서 따온 것이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하생략~

▶ 80권 20년 3월 9일 癸巳

癸巳/受常參, 御經筵. 上謂承旨等曰: “予聞濟州多產牛, 今只貢馬, 而不貢牛. 近見《太祖實錄》, 有云: ‘濟州歲貢牛馬.’ 至何時而廢貢牛乎? 曩者予欲立貢牛之法, 時有一二臣請止之, 乃寢. 卿等考其廢貢之由以啓.”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의 승지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제주에는 소[牛]가 많이 생산된다는데, 오늘날 말[馬]만 공납하고 소는 공납하지 않았다. 근래에 《태조실록》을 보니, ‘제주에서는 해마다 소와 말을 공납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때에 와서 소를 공납하는 것을 폐하였는가? 저번에 내가 소를 공납하는 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그때에 한두 신하가 그만두도록 청하므로 중지 하였으나, 소의 공납을 폐하게 된 사유를 상고해서 계달하라.”
하였다.

▶ 80권 20년 3월 20일 甲辰

以東部學堂爲北平館, 乳牛所爲東部學堂.

동부 학당(東部學堂)을 북평관(北平館)으로 만들고, 유우소(乳牛所)를 동부 학당으로 만들었다.

▶ 81권 20년 4월 1일 甲寅

議政府據禮曹呈啓: “外方各官鄉吏公服, 有特賜犀帶者, 竝皆還收, 改賜玳瑁黑革帶. 又有戶長僭用玉環者, 竝皆禁斷.” 從之. 高麗舊制, 外方鄉吏比朝官文武班, 戶長有大相中尹左尹之號, 記官有兵正獄正之號, 都軍有都令別正校尉之號, 故都軍, 至今稱爲將校. 由是大官鄉吏, 例用犀帶象笏玉璫玉環, 至本朝皆禁之.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방 각 고을 향리(鄉吏)들의 공복(公服)에 서대(犀帶)를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를 모두 도로 거두시고 대모흑서대(玳瑁黑犀帶)로 고쳐 내리시옵소서. 또 호장(戶長)으로 참람하게 옥환(玉環)을 쓰고 있는 자가 있사오니, 이도 아울러 모두 금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高麗) 옛 제도에 지방 향리도 조관(朝官) 문·무반(文武班)에 따라

서 호장(戶長)에 대상(大相)·중윤(中尹)·좌윤(左尹) 등의 칭호가 있었고, 기관(記官)에는 병정(兵正)·옥정(獄正) 등의 칭호가 있었으며, 도군(都軍)에도 도령(都令)·별정(別正)·교위(校尉) 등의 칭호가 있었다. 그러므로 도군을 지금까지도 장교(將校)라 일컬어 왔고, 이로 말미암아 큰 고을의 향리들은 으레 서대(犀帶)·상홀(象笏)·옥영(玉纓)·옥환(玉環) 등을 착용하였으나, 본조에 와서는 모두 이를 금지한 것이었다.

▶ 81권 20년 5월 23일 丙午

議政府據禮曹呈啓：“今當農月，雨澤愆期，依前例斷織扇、禁屠殺。”從之。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의 혜택이 그 시기를 어기고 있사오니, 전례에 의하여 산선(織扇)을 단절시키고 도살(屠殺)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81권 20년 5월 27일 庚戌

軍威縣民家牛產二雌牛.

군위현(軍威縣) 민가에서 소가 암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 83권 20년 11월 23일 癸卯

司諫院上疏曰：

天人一理，顯微無間，人事感於下，則天變應於上，感應之理，固不可誣也．今我主上殿下以仁心而行仁政，民之所欲，與之聚之；所惡，罔或施焉，其恤民隱而謹天戒者至矣．當休徵日臻，以弛聖上宵旰之憂矣．近年以來，水旱相仍，飢饉荐臻，逮于今年，春夏亢陽，繼以淫霖，連月不霽．又當一陽來復之節，隱雷轟轟，震電曄曄，何譴告之屢彰若是乎？臣等俱以庸資，承乏諫臣，靜思其由，固無可言之事矣．昔成湯遇災，六事自責，遂成泰和之治；周宣閔雨，側身修行，終致中興之業．古之聖王，治化已洽，民生已寧，戒謹恐懼憂勤惕慮如是之切．方今刑政，雖無所失，民情雖無所壅，然殿下勿謂吾治已足，而猶恐治化之未洽；勿謂吾民已安，而猶慮民生之未泰，夙夜寅畏，克勤天戒，思所以弭災變而致泰和之道，此臣等之至願也．敢以一二管見，仰(瀆)〔瀆〕天聰，伏惟睿鑑裁擇．

一，立法，所以行之，

~중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一, 《元典》一款云: “州郡庶務, 一委都觀察使, 以責其成, 雜冗使命, 不許發遣.” 是乃慮驛路之凋弊, 省州縣之供費也. 近年以來, 使命寔繁, 殘鄉破驛之吏, 困於送迎. 願自今如點羊點牛點馬點船雜冗使命, 不許發遣, 委之監司, 以責其成.

이하생략~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여서 적은 것도 드러남이 다를 것이 없사옵나이다.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동 되오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감응하므로, 감동하고 응하는 이치는 진실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어지신 마음으로 어지신 정치를 행하시와, 백성들의 욕망하는 바를 허락하시고 세금을 거두는 데에도 싫어하는 바를 혹시라도 시행하심이 없사오니, 그 백성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경계하심을 삼가시는 것이 지극하시매, 마땅히 아름다운 상서가 날마다 이르게 되어서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는 것을 풀어드려야 할 것인데, 근년 이래로 수재·한재가 서로 잇따르고 기근이 연거푸 이르오며, 금년에 이르러서는 봄·가을에 몹시 가물다가 뒤이어 큰 장마가 닥쳐 여러 달 개이지 아니하였고, 또 일양내복(日陽來復)하는 절기를 당하와 숨은 천둥이 우르르 하고 밤 번개가 번쩍번쩍하니, 어찌 하늘의 건책이 여러 번 나타나기를 이같이 하는 것이옵니까?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써 간신(諫臣)의 지위에 승핍(承乏)하와, 조용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진실로 아뢴 말씀이 없사옵나이다. 예전에 성탕(成湯)이 재앙을 만나서 육사(六事)로 자책(自責)하여 드디어 태화(泰和)한 정치를 이루었고, 주(周) 나라 선왕(宣王)이 비를 민망하게 여겨서 몸을 삼가고 행점을 닦으니, 마침내 중흥(中興)의 업적을 이루었사옵나이다. 예전의 거룩한 임금들이 정치·교화가 이미 흠족하였고 민생이 이미 편안하였사오나, 경계하고 근신하고 공구(恐懼)하고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근심하기를 이같이 간절하게 하였사옵나이다. 지금 형정(刑政)에 실수한 바가 없사옵고 민정(民情)이 잘못된 바가 없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전하께옵서는 나의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여기지 마시와, 아직도 정치·교화가 흠족하지 못한가 두려워하시고, 우리 백성이 이미 편안하다 여기지 마시와 아직도 민생이 태평하지 못한가 염려하시며, 밤낮으로 삼가 두려워 하사 하늘의 경계하심에 지극히 부지런하시어, 재변(災變)이 그치고 태화(泰和)의 길을 이루실 바를 생각하시는 것이 신들의 지극한 소원이므로, 감히 한두 가지 좁은 소견으로 우러러 천聰(天聰)을 모독하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예감(睿鑑)으로서 재택(裁擇)하시옵소서.

1. 법을 세운 것은

~중략~

1. 《원전(元典)》 한 조목에 이르기를, ‘주군(州郡)의 서무(庶務)는 일체 도관찰사에게 위임하여 그 성취할 것을 책임지우고, 잡되고 쓸데없는 사명(使命)은 보내고 발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였사온데, 이것은 역로(驛路)의 조잔하고 폐되는 것을 염려하고, 주·현의 공대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이옵니다. 근년 이래로 사명(使命)이 실로 번다하니, 쇠잔한 고을 파괴된 역의 아전들이 이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양의 점검[點羊]·소의 점검[點牛]·말의 점검[點馬]·선박의 점검[點船] 등 잡스럽고 쓸데없는 사명은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고, 감사에게 위임하여 그 성취할 것을 책임지게 하소서.

이하생략~

▶ 83권 20년 12월 24일 甲戌

僉知中樞院事朴堧上言曰：

自今年臘享，凡祭享奠饌飯羹餅餌之屬，勿令預設，依文昭殿例，臨時供進。據更點以限其時，立掌饌以委其任，黍稷稻粱羹餅等物，須以極熟爲節，香臭方升，而後請行事。

下禮曹，與議政府同議。領議政黃喜等議：“本朝依宋朝時享儀，前五刻，宗廟令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丑前一刻，行事四更一點，其間時刻甚迫。飯羹餅餌，若臨時陳設，則恐不及時，以至失禮，**況牛羊腸胃肺豕膚，臨時熟薦**且宗廟生薦犧牲，與原廟不同，依舊制於三更三點，入實饌具，他奠物爲先入實，飯羹餅餌最後陳設，毋令前夕預設。”從之。

첨지중추원사 박연(朴堧)이 상언하기를,

“금년 납향(臘享)부터 모든 제향에 전(奠)·찬(饌)·메[飯]·국·떡·흰떡[餌] 등속을 미리 진설하지 말게 하고, 문소전(文昭殿)의 예에 의거하여 임시에 진설하게 하되, 경점(更點)에 의거하여 그 시간을 한정하고 장찬(掌饌)을 세워서 그 임무를 맡게 하고, 기장·피·벼·수수[粱]·국·떡 등의 물건들을 모름지기 극히 뜨거운 것으로써 때를 맞추게 하여서, 향내가 바야흐로 오르게 한 뒤에 제사를 행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정부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매,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본조에서는 송(宋) 나라 때의 제향하는 의식에 의거하옵는데, 전(前) 5각(刻)에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찬구(饌具)를 담는 것이 축전(丑前) 1각이고, 행사(行事)하는 것은 4경(更) 1점(點)이운데, 그 사이에 시각이 매우 촉박하여 메·국·떡·흰떡을 만약 임시하여 진설하면 시간에 못미쳐 실례하기에 이를까 두렵사오며, **더군다나 소·양의 창자·위·허파와 돼지고기를 임시하여 익혀서 올리고**, 또 종묘에는 날 것으로 희생(犧牲)을 올리므로 원묘(原廟)와 같지 아니하오니, 옛 제도에 따라서 3경(更) 3점(點)에 들어가서 찬구를 담게 하되 전(奠)드리는 물건들을 먼저 담게 하고, 메·국·떡·흰떡은 맨 나중에 진설하게 하고 전날 저녁에 미리 진설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84권 21년 1월 10일 己丑

北平館報禮曹曰：

忽刺溫弓知哈兀者衛指揮僉事都兒也言：“本衛管下人三百六十餘戶，軍數一千餘名。迤東三日程，有色割兒大山，迤北平衍無人，迤西不知里數，有達磨阿德處衛、朶忽論等衛，西南間十日程，有開原衛，東南間三十日程，乃是朝鮮國會寧府。大抵本土所產，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鹿居多, 熊虎次之, 土豹貂鼠又次之. 牛馬則四時常放草野, 惟所騎馬, 飼以芻豆, 若乏芻豆, 切獐鹿肉與水魚飼之. 其婚禮, 女生十歲前, 男家約婚後, 遞年三次筵宴, 二次贈牛馬各一, 待年十七八, 乃成婚禮. 父死娶其妾, 兄亡娶其妻. 丐知哈則父母死, 編其髮, 其末繫二鈴, 以爲孝服. 置其屍於大樹, 就其下宰馬而食其肉, 張皮鬣尾脚掛之, 兼置生時所佩弓箭. 不忌食肉, 但百日之內, 不食禽獸. 頭目女眞則火葬, 皮冠頂上, 綴白麤布, 前蔽面目, 後垂於肩, 仍穿直身衣. 每遇七七日, 殺牛或馬, 煮肉以祭, 徹而食之.”

북평관(北平館)에서 예조에 보고하기를,

“홀라온(忽刺溫) 우지합울자위(丐知哈兀者衛) 지휘첨사 도아야(都兒也)가 말하기를, ‘본위(本衛)의 관하 사람은 3백 60여 호(戶)에 군사 1천여 명이운데, 동쪽으로 3일 노정(路程)을 가면 색할아대산(色割兒大山)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평탄한데 사람이 없고, 서쪽으로 가면 리수(里數)를 알지 못하겠으나 달마아덕처(達磨阿德處)·위타홀론(衛朶忽論) 등의 위(衛)가 있고, 서남간으로 10일 노정을 가면 개원위(開原衛)가 있고, 동남간으로 30일 노정이 되는 곳이 조선국 회령부(會寧府)이다. 대체로 본토의 소산은 노루·사슴이 많고, 곰·호랑이가 그 다음이요, 토표(土豹)·돈피[貂鼠]가 또 그 다음이다. 소와 말은 사철로 항상 초야(草野)에다 놓아먹이되, 오직 타는 말은 꼴과 콩을 먹인다. 만약 꼴과 콩이 결핍되었다면 노루·사슴 고기를 썰은 것과 물고기를 먹인다. 그 혼인하는 예법은 여자가 태어나서 10세 전에 남자의 집에서 약혼(約婚)한다. 약혼한 뒤에는 나이 칠 때까지 세 차례 잔치하고 두 차례에 소와 말 각각 한마리를 주고서 나이 17, 8살 되기를 기다려서 혼례를 지낸다. 아비가 죽으면 그 첩에게 장가들고, 형이 죽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든다.

우지합(丐知哈)은 부모가 죽으면 그 머리를 땅아 늘이되 끝마다 방울 둘을 다는 것으로 상복을 삼는다. 그 시체는 큰 나무 아래에 놓아두고, 그 아래에 나아가서 말을 잡아 그 고기는 먹고 가죽과 갈기와 꼬리와 다리를 벌려 걸되, 겹하여 생시에 쓰던 활과 살을 둔다. 고기 먹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며 단 1백 일 안에는 금수의 머리카락이나 눈을 먹지 않는다. 여진인[女直]은 화장(火葬)한다. 가죽 갓[冠]의 꼭대기에는 회고 굵은 베[布]를 엮어 달아서, 앞으로는 얼굴과 눈을 가리고 뒤로는 어깨에 늘어뜨리고 그대로 곧게 내려가는 옷을 입는다. 매양 7, 7되는 날을 만나면 소나 혹은 말을 죽여서 고기를 지져서 제사지내고, 거두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 84권 21년 1월 16일 乙未

議政府據禮曹呈啓:

~중략~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籩十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形鹽在前, 魚乾棗栗黃次之. 第二行, 榛子在前, 菱仁芡仁次之. 第三行, 鹿脯在前, 白餅黑餅次之.】 豆十在右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菁菹鹿醢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兔醢筍菹次之. 第

二行，魚醢在前，脾折豚拍次之。】

이하생략~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중략~

다음은 제기(祭器)와 제수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위(位)마다 변 10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上)이 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건조(乾棗)·율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검인(仁)·녹포(鹿脯)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가 앞에 있고, 백병(白餅)·흑병(黑餅)이 그 다음이다.】 두(豆) 10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上)이 되며, 【첫째 줄에는 구저가 앞에 있고, 담해·무우 김치·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해(兎)·순저(筍)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魚)가 앞에 있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이 그 다음이다.】

▶ 84권 21년 2월 6일 乙卯

禮曹啓典廐署一年所需：“宗廟祭黑犢牛五頭、永寧殿祭黑犢牛二頭、社稷祭黑大牛三頭、文宣王釋奠祭黃大牛二頭、文昭殿別祭黃犢牛二頭，每於春秋，點牛別監選揀以送。今革點牛別監，請以水原府弘原串、陽城縣槐台吉串所放里牛，依數揀送。”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구서(典廐署)에서 1년 동안 소용되는 제수(祭需)로 종묘제 때의 검은 송아지 5두(頭), 영녕전제(永寧殿祭) 때의 검은 송아지 5두, 사직제 때의 검은 큰 소 3두, 문선왕 석전제(文宣王釋奠祭) 때의 큰 황소 2두, 문소전 별제(文昭殿別祭) 때의 누런 송아지 2두를 매양 봄·가을에 점우 별감(點牛別監)이 선택해 올렸사온데, 이제 점우 별감을 혁파하였사오니, 수원부(水原府) 홍원곶(弘原串)과 양성현(陽城縣) 괴대길곶(槐台吉串)에 방목하는 소에서 수에 따라 골라 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84권 21년 2월 16일 乙丑

初，前吏曹判書朴信上言：

我國家新白丁，無處無之，殺牛代耕，遊手而食，故自開國以來，屢降條令，禁殺牛，使耕稼而食。然其俗以農爲苦，乃曰：“農本不爲之事，豈易學之？”其殺牛如前，無有悛改，無利於國家，有害於生民甚矣。自今限十年，以新白丁農事實不實爲殿最，則守令皆盡心勸課，終必有成效矣。

下政府議之。政府啓曰：“此言甚合事宜。歷考條章，新白丁計口給田，賜鄉錄籍，與平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民雜處，相爲婚嫁，假托丐乞，成群爲盜者，竝奪其馬，勒令賣之，以絕爲賊之計，其爲立法，纖悉無遺。各官守令不體深意，皆未能奉行。請自今守令不能奉行者，依律抵罪。亦依上言，考其白丁安業務農與否，以憑殿最。”

從之。

처음에 전 이조판서 박신(朴信)이 상언(上言)하기를,

“우리 국가에서는 신백정(新白丁)이 없는 곳이 없사와 소를 잡는 것으로 농사를 대신하여 빈들빈들 놀고먹는 까닭으로, 개국 이래로 여러 번 조령(條令)을 내려 소 잡는 것을 금하고 농사를 지어먹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습속이 농사를 괴롭게 여기어 말하기를, ‘농사는 본래 하지 않던 일이니, 어찌 쉽게 배울 수 있는가?’하고, 소 잡는 것이 여전하와 개전(改悛)함이 있지 아니하니, 국가에도 이익이 없고 생민에게 해독이 심하옵니다. 이제부터는 10년을 한 하여 신백정(新白丁)이 농사를 실지로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전최(殿最)한다면, 수령들이 다 마음을 다하여 권면하게 되어 마침내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옵니다.”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 말이 매우 사의에 합당합니다. 조장(條章)을 역력히 상고하오면 신백정은 식구를 계산해 토지를 주고, 향리에 녹적(錄籍)을 주어 평민과 섞여 살면서 서로 혼인하게 하였고, 거지를 가탁(假托)하고 무리 지어 도적질하는 자는 모두 그들의 말을 빼앗고 억지로 팔게 하여 도적질하는 계획을 끊어 버렸사오니, 그 입법한 것이 상세하여 빠짐이 없었사온데, 각 고을 수령들은 깊이신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 봉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수령이 봉행하지 못한 자는 율(律)에 의하여 처벌하옵고, 또 상언(上言)에 의하여 그 백정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농사를 힘쓰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전최하는 데 빙거가 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87권 21년 10월 4일 己卯

慶尙道觀察使李宣馳啓: “臣巡至金海，親審邑城，西面道傍駕洛始祖首露王陵寢，湮沒水田，或開道踐履，或牛馬放牧，非惟簡慢無禮，而律有禁制。臣竊意首露雖據海隅(卯)〔卯〕生，異於常人，享國百有餘年，傳祚之久，幾於數百，比諸羅、濟始祖，厥功雖有優劣，當鴻荒之初，務農創業，民受其賜，一方按堵。乞依羅祖褒典，量其制禮，陵傍四面五十(少)〔步〕內田，竝使陳荒，禁耕栽松，爲之兆域，命豎表石，擇定守護一二戶，以時(茜)〔灑〕掃，敦示獎禮。”

下禮曹。禮曹啓: “首露王陵寢，不須立表石置守護，但令四面各限三十步，禁耕樵採。”從之。

경상도관찰사 이선(李宣)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순시차로 김해(金海)에 이르러 친히 살펴본즉, 읍내성[邑城] 서편 길옆에 가락국 시조(駕洛國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 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혹은 길을 내어 짓밟으며 혹은 마소를 방목(放牧)하기도 하오니, 다만 마음가짐이 소홀하고

행위가 무례한 것뿐이 아니옵고, 금제(禁制)하는 법률도 있사옵나니. 신이 그옥이 생각하옵 건대, 수로왕이 비록 해변 한구석에서 나라를 세웠고, 또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사오나, 나라 다스리기를 1백여 년이나 하였으며, 나라를 계승한 것도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신라나 백제의 시조에 비하면 그 공이 비록 우열은 있사오나, 상고 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나라를 창립하여 백성들이 그 은덕으로 한편에서 편안히 살았사오니, 비읍건대, 신라 시조를 숭앙(崇仰)하던 예전(禮典)에 의하여 그 제도와 예절을 참작하여 능 열 사방 50보 안에 있는 밭은 모두 묵히게 하여 갈고 심는 것을 금지하고, 소 나무를 심어서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표석을 세우게 하되, 수호하는 1, 2호(戶)를 선정하여 때때로 소제하게 하와 포장하는 예절을 베풀게 하소서.”하매, 예조로 내려 보내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게 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사면(四面)으로 각각 30보씩을 한정하여 밭 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87권 21년 10월 22일 丁酉

丁酉/平安道敬差官趙順生上備邊事目：

一，平安道監司及道內人民等皆言：“道內北方防禦各官居民，比及秋冬，皆令入保城內，暫構草廬，僅庇妻子，其牛馬露宿，因寒物故者，十常八九。且南道居民，一年再戍邊塞，道路遼遠，往來留戍，動經三月，一年之內，戍役居半，生業凋弊。加以每年赴京使臣往來之時，騎載無慮百數。至於船軍則自二月至九月，於本浦分番相戍，自十月至正月，皆赴北方，由是民生日益凋殘。且道內居民，本自無奴婢貧寒，其中富戶，尚不及下三道之殘戶。今者以南道居民七百戶，沿邊各官分定入居之時，各官守令刷出富實戶，或以二三戶爲一戶抄送。上項人等，名雖富實，實爲貧寒，本非一戶之人，其心不同，纔到入居地面，續續逃散，守令隨即移文推刷，而中間逃匿，不還本家者頗多。且南道之民時不入居者，恐其後年入居，謀欲避之，陽爲貧弱，或毀家結(募)〔幕〕，或游手廢農，竊恐不數年間，民戶減損殆盡。其已入居者，仍置赴防，其未入居者，更不加刷，他道富實民戶，移置安州以北閑曠之地，使之安業居生，則庶無遠戍之弊，而一歲之內，必不再行，民生日阜，防禦便益矣。

이하생략~

평안도 경차관 조순생(趙順生)이 변방 방비하는 사목을 올렸는데,

“1. 평안도감사와 도내의 인민들이 모두 말하기를, ‘도내 북방에서 방어하는 각 고을에 사는 백성들은 가을·겨울이 되면 모두 다 성내로 들어가 보호를 받으므로, 한동안 초막(草廬)을 짓고서 겨우 처자는 감싸주지만 그 우마(牛馬)는 노숙해야 되기 때문에, 추위로 죽게 되는 것이 열 가운데에 여덟아홉은 되오며, 또 남도에 사는 백성은 일년에 두 번 변방 국경에 수자리 살아야 하므로, 도로가 멀어서 왕래하고 머물러 수자리 살고 하노라면 석 달을 지나게 되어, 일년 내에 수자리 사는 것이 반이나 되니, 생업이 조잔한 데다 매년 북경에 가는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사신의 왕래 때마다 타고 싣고 하는 것이 무려 1백여 회(回)이며, 선군에 이르러서는 2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본 포구[本浦]에서 번갈아 가며 지켜야 하고, 10월부터 정월에 이르기까지는 다 북방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니, 이 때문에 민생이 날로 더욱 조잔(凋殘)하옵니다. 또 도내에 사는 백성은 본래부터 노비가 없이 빈한하므로, 그 중에 부호(富戶)라도 오히려 하삼도의 잔호(殘戶)에 미치지 못하옵는데, 오늘날 남도에 살던 백성 7백 호를 연변 각 고을에 분정하여 들어가 살게 할 때, 각 고을의 수령이 부실(富實)한 민호(民戶)만을 뽑아내어서 혹 2, 3호로 한 호를 만들어서 보냈사오나, 그 사람들이 이름은 비록 부실이라 하여도 실상은 빈한하고, 본래 한 호의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겨우 들어가 살 지방에 도착하면 계속하여 도망하여 흩어지옵니다. 수령이 즉시 공문을 보내어 찾아내게 하오나, 중간에 도망가 숨고 본가로 들어가지 않은 자가 꼭 많사오며, 또 남도의 백성은 현재는 들어가 살지 아니하지만 몇 해 뒤에는 들어가 살게 될까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계획하여서 거짓 빈약한 체 하노라고 혹은 집을 헐고 초막을 짓고, 혹은 손을 놀려서 농사를 폐지하오니, 수년을 지나지 아니하여 민가의 호수가 감손하여 거의 없어질까 그욕이 염려되옵니다. 그 이미 들어가 사는 자는 그대로 두어서 방수하는 데 나가게 하되, 그 들어가 살지 아니할 자는 다시 더 뽑지 말게 하시고, 타도의 부실한 만호를 안주(安州) 이북의 노는 빈 땅에 옮겨 두고 편안히 생업하면서 살게 하오면, 멀리 수자리 사는 폐해도 없어지고 일년 내에 반드시 두 번 가지 않게 되어, 민생이 날로 늘어나서 방어에 편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하생략~

▶ 88권 22년 2월 12일 乙酉

乙酉/議政府據兵曹呈啓: “竊詳各道牧場馬匹瘦損致死監牧官牧子治罪之法, 《大明律》牧養畜產不如法條: ‘牧養牛馬損失, 群頭群副, 每一頭答三十, 每三頭加一等, 過杖一百, 每十頭加一等, 罪止杖一百, 徒三年’. 宣德六年本曹受教: ‘牧場放飼馬匹死傷牧子, 依各官繫飼國馬物故守令例, 每二匹徵馬一匹. 監牧官則比律文群頭群副例坐罪, 罪至杖九十, 徒二年半’. 本曹與司僕寺提調同議牧場馬匹瘦損致死者, 若依律文施行, 則群頭群副之罪既輕, 罪不及於監牧官, 而怠棄職事之端, 從此而起, 甚違於軍國馬政. 若依宣德六年受教, 則繫飼放飼, 自有分辨, 而一體施行, 似爲未便. 自今牧子徵馬, 常時看養如無知串、江華等牧場, 則三匹物故者, 徵馬一匹; 雖有牧子, 若常時未得看養各島, 則四匹物故者, 徵馬一匹. 若其監牧官則每年春節孳息之狀, 親審措置. 且於場內如泥潭深坎馬匹致傷之處, 無遣巡審, 冬寒風雪, 喂養得宜, 勿令損傷, 使之蕃息, 斯乃職分之當爲, 而力所可及也. 大抵馬之蕃息與瘦損, 專係監牧官之勤怠, 豈與中朝數多山野牧養比倫哉! 依《大明律》乘官畜脊破領穿條, 各隨所管群頭多少, 通計論罪, 罪至杖一百徒三年, 驗數折算科罪, 不及數者, 不坐.” 從之.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도의 목장에 있는 마필(馬匹)이 수척하여 죽게 되면 감목관(監牧官)이나 목자(牧子)를 치죄하옵는데, 그 법을 상세히 보오니, 《대명률(大明律)》의 목양축산불여법조(牧養畜產不如法條)에는, ‘우마를 목양하다가 손실한 군두(群頭)·군부(群副)는, 매 1두(頭)에 태(笞) 30도, 매 3두마다 한 등을 더하여 장(杖) 1백에 그치게 하되, 매 10두마다 한 등을 더하여 장(杖) 1백에, 도(徒) 3년까지 처하게 된다.’ 하였사온데, 선덕 6년 본조(本曹)에 수교(受敎)한 것은, ‘목장에 방사(放飼)하는 마필을 사상(死傷)하게 한 목자는, 각 고을에서 매어 놓고 기르는 국마(國馬)를 물고(物故)한 수령의 예(例)에 의하여 매 2필에 말 1필을 징수하고, 감목관은 군두(群頭)·군부(群副)의 예(例)에 의하여 비율(比律)하여 좌죄(坐罪)하되, 장(杖) 90에, 도(徒) 2년 반까지 처하게 한다.’ 하였으므로, 본조(本曹)에서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와 같이 의논하오니, 목장의 마필이 수척하여 죽게 된 것을 만약에 울문에 의하여 시행하오면, 군두·군부의 죄도 가볍다고 하겠는데 감목관에게는 죄가 미치지도 아니하니, 직무를 태기(怠棄)하는 사단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으니, 매우 군국(軍國)의 마정(馬政)에 어긋나옵니다. 그러니 만약 선덕 6년에 수교(受敎)한 것을 따른다면, 매어 놓고 먹이는 것[繫飼]과 놓아서 먹이는 것[放飼]이 자연 구분이 있사온데, 일체로 시행함은 타당치 못한 듯하니, 이제부터는 목자에게 말을 징수하는 것은, 항상 보고 기르는 무지곳(無知串)이나 강화(江華) 등의 목장이면 3필이 물고한 데에 말 1필을 징수하게 하고, 비록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시로 간양(看養)하지 못하는 각 섬에서는 4필이 물고한 데에 말 1필을 징수하게 하며, 그 감목관은 매년 봄철에 번식되는 상태를 친히 살펴 조치하되, 또한 목장 안에 진흙탕, 깊이 구덩이로서 말이 부상(負傷)하게 될 만한 곳을 빠짐없이 순시하여, 추운 겨울에도 먹여 기르는 데에 마땅하게 하고 손상하지 않게 하여 번식하게 하는 것이 그의 직무의 당연한 일이며 힘써 할 일이니, 대저 말의 번식되는 것과 수척하여 죽는 것은 오로지 감목관의 부지런하고 태만한 데에 달려 있사오니, 어찌 중국의 수많은 산야(山野)의 목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명률》의 승관축척과령천조(乘官畜脊破領穿條)에 의하여 각기 관할하는 군두(群頭)의 다소(多少)에 따라 통계하여 논죄 하되, 죄가 장(杖) 1백에, 도(徒) 3년까지 이르게 하고, 수효를 따져서 계산하여 처벌하되, 수효가 차지 않는 자는 벌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88권 22년 3월 5일 丁未

初, 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上備邊之策曰:

臣於北方之事, 舉其大遺其小, 先其急後其緩, 故所有可行之事, 未遑上達. 今遭疾病, 不啓而死, 則臣罪固大, 力疾強記, 條具于後, 心昏氣弱, 未及纖悉, 儻蒙睿聽, 雖死無憾, 不勝隕越之至.

~중략~

一, 角弓比之於劍, 其用尤緊, 出處不可不慮. 本道北青以南造弓者鮮少, 端川以北稍多. 是故北青以北軍士, 皆持角弓, 而不良者不多, 洪原以南軍士所持, 率皆不良. 乞於咸興、永興、吉州、鏡城四界首官, 置造弓所於所屬各官, 例收民間故失牛馬角筋, 堅緻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造作, 只賣於軍士, 收其價利. 願修折弓者聽, 隨其所補多少, 亦收功利, 竝資造弓之費, 永爲恒式, 則庶幾良弓多矣. 下兵曹, 與議政府議之.

전에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비변책(備邊策)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북방의 일에 있어서 그 큰 것을 거행하고 그 작은 것을 남겨 놓고, 그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느즈러진 일을 뒤에 하는 고로, 시행해야 할 일도 상달(上達)할 겨를이 없었사온데, 이제 질병에 걸려 아뢰지 아니하고 죽으면 신의 죄가 진실로 큼으로, 병을 이기고 역지로 기록하와 뒤에 조목을 갖추어나, 마음이 어둡고 기운이 약하여 섬세한 것에 미치지 못하옵니다. 만일 예청(睿聽)을 입으면 비록 죽어도 유감이 없겠으니 지극히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중략~

1. 각궁(角弓)은 칼에 비하여 그 소용됨이 더욱 요긴하오니 출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本道)의 북청(北靑) 이남에는 활을 만드는 자가 드물고 단천(端川) 이북에는 좀 많으므로, 북청 이북의 군사들은 모두 각궁을 가졌사온데, 불량품이 많지 아니하오나, 홍원(洪原) 이남의 군사가 가진 것은 대개가 불량품이오니, 청하건대, 함흥(咸興)·영흥(永興)·길주(吉州)·경성(鏡城) 네 계수관(界首官)이 소속된 각 고을에 조궁소(造弓所)를 설치하고, **민간에서 사고로 죽은 우마의 뿔과 힘줄을 거두어 견고하고 치밀하게 조작하여**, 군사에게만 팔아서 그 가격의 이익을 거두게 하고, 부러진 활을 수리하기 원하는 자도 허락하여, 그 수리한 것의 다소에 따라 역시 이익을 거두어, 모두 활 만드는 소용에 쓰도록 하되,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면 좋은 활이 많게 될 것입니다.”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의논하게 하였다.

▶ 89권 22년 5월 12일 癸丑

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奉書承政院曰:

賊數十入茂山, 殺掠人畜, 又賊十三人入多溫梁, 射候望者, 候望者皆走匿, 掠奪馬七匹而去. 此非遠處之寇, 必皆旁近兀良哈與斡朶里也. 其所掠馬畜, 當窮推徵還, 至若殺人之賊, 則亦宜遣兵追捕, 大懲鑑後可也. 然今當遣人招撫斡朶里之時, 若遣兵追捕, 則深慮斡朶里搖動益甚, 臣欲姑待斡朶里等復還安業, 遣兵出其不意, 掩捕大懲何如?

下議政府議之. 領議政黃喜、右贊成河演等議曰: “若如都節制使所啓, 則入寇者兀良哈與斡朶里, 未知爲誰. 安業之後, 遣兵掩捕, 則彼必益懷疑懼, 莫若推見正賊, 鞫問以啓, 議罪爲便.” 右議政申概議曰: “虜入寇之日, 邊將乘機追捕, 則猶可及圖, 今已失機, 待其安業捕捉, 掠其馬者, 依律杖之; 射殺人者, 必須大懲. 今連被虜掠, 專是邊將不能備禦之致然也, 請皆推鞫治罪爲便.” 左贊成李孟昫、右參贊朴安臣等議曰: “待其安業後, 捕盜馬者杖之, 殺人者大懲, 不宜收贖.” 遂傳旨宗瑞曰:

大臣之議不一, 黃喜之議是矣. 然推其正賊, 啓達施行, 則似爲緩矣, 慮有失機之悔. 卿其隨宜斟酌措置. 申概、李孟昫、朴安臣之議則殺人者殺, 不可以贖, 此乃王法不赦之

罪也. 儻勢不可斬, 則悉徵還贓物, 杖其殺人之罪可也. 雖盜牛馬者, 佩弓箭白晝劫奪, 則實爲強盜, 固當分其強竊盜, 依律施行, 待韓朶里安靜之後, 隨宜區處, 毋致驚動, 實爲良策. 其防戍無狀, 以致殺擄人畜者, 推按以聞.

함길도(咸吉道)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가 승정원(承政院)에 봉서(奉書)하기를,

“적 수십 인이 무산(茂山)에 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질하였으며, 또 적 13인이 다온량(多溫梁)에 들어와 망(望)보는 자를 쏘아서, 망보는 자가 모두 도망하여 숨으매 말 일곱 필을 약탈하여 갔는데, 이것이 먼 곳의 도둑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 옆 근처의 올랑합과 알타리입니다. 약탈하여 간 마축을 마땅히 끝까지 추문하여 도로 찾아야 하고, 사람을 죽인 도적 같은 것은 마땅히 군사를 보내어 쫓아 잡아서 크게 징치하여 뒷일을 감계(鑑戒)하는 것이 가하나, 지금 사람을 보내어 알타리를 초무(招撫)하는 때를 당하여, 만일 군사를 보내어 쫓아 잡으면 알타리의 동요하는 것이 더욱 심할까 깊이 염려됩니다. 신이 아직 알타리 등이 다시 돌아와 생업을 편안히 하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보내어 출기불의(出其不意)하게 엄습하여 잡아서 크게 응징하려 하는데 어떠합니다.”

하였다.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니, 영의정(領議政) 황희(黃喜)·우찬성(右贊成) 하연(河演) 등이 의논하기를,

“만일 도절제사의 아뢰는 것과 같다면 들어와 도둑질한 자가 올랑합·알타리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생업을 편안히 한 뒤에 군사를 보내어 엄습하여 잡으면 저들이 반드시 더욱 의구심을 품을 것이니, 진짜 적을 찾아내어 국문하여 아뢰어서 죄를 의논함이 가장 타당합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신개(申概)는 의논하기를,

“오랑캐가 들어와 도둑질하던 날에 변방 장수가 기회를 타서 추격하여 잡았으면 오히려 도모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미 기회를 놓쳤으니, 본업을 편안히 하는 것을 기다려서 말을 약탈한 자를 잡아서 읍에 의하여 곤장을 때리고, 사람을 쏘아 죽인 자는 반드시 크게 징치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 잇달아 노략질을 당하는 것은 오로지 변장이 수비 방어를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청하건대 모두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좌찬성(左贊成) 이맹균(李孟畧)과 우참찬(右參贊) 박안신(朴安臣) 등은 의논하기를,

“본업을 편안히 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말을 도둑질한 자를 잡아서 곤장을 때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크게 징치하되, 속(贖)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드디어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대신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다. 황희의 의논이 옳으나 진짜 도적을 조사하여 계달하여 시행하면 지완될 것 같다. 기회를 잃은 후회가 있을까 염려되니 경이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조치하라. 신개·이맹균·박안신의 의논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속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이것이 왕법(王法)에 용사(容赦)할 수 없는 죄이기는 하나, 만일 혹시 사세가 베일 수 없거든 장물(贓物)을 모두 회수하고 살인한 죄는 곤장을 때리는 것이 가할 것이다. 소와 말을 도둑질한 자도 활과 화살을 차고 대낮에 겁탈하여 갔으니 실은 강도이다. 마땅히 강도·절도를 구분하여 읍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알타리의 안정한 뒤를 기다려서 형편에 따라 조치하여, 경동(驚動)을 일으키지 마는 것이 실로 좋은 계책이다. 방수(防戍)하는 것이 무상(無狀)한 것이므로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하게 만든 자는 조사하고 안문(按問)하여 아뢰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록 하라.”
하였다.

▶ 89권 22년 5월 25일 丙寅

丙寅/通信使僉知中樞院事高得宗、副使上護軍尹仁甫等回自日本，引見于思政殿，仍命左承旨成念祖饋之。其齋來日本國王書契曰：

二使惠然，傳書遠至，千里悠悠，實如晤對。況異產多色，荷恩惟重！陋邦世修隣好，思仰之情，無日無之，然國步多艱，不通安訊者有年矣。方今四方無事，訖可少康，爰煩慶賀，忻感倍恒。菲薄方物，見于別幅，聊表謝悃，伏希採納。綵畫扇一百把、金銅粧飾大刀一十把、大紅漆木車椀大小計八十四、大紅漆淺方盆大小計二十四、紅漆黑漆雜色木桶二事。

日本國防、長、豐、筑四州通守修理大夫多多良持世復書于禮曹曰：

嚮者當貴國信使，有癸丑海寇之艱，持世護送，兼納涓埃，誠安足綵錄矣？不圖忝達殿下清聰，特差通信使高公，與我殿下修好之，次見諭及殿旨，駭兢罔措。仍賜書契禮物，拜捧祇重，不勝謝悃。茲及高公還國，謹獻絲織成三匹、青練綃二匹、花白綾二匹、褶貼扇三十柄、牛皮一十張。不敢報厚意，萬一伏致涼薄之忱而已，遞徹是望。殿下萬慶，諸官千禎。

日本國管領京兆大夫源持之復書于禮曹曰：

我日域之州，雖接隣疆，而海壤萬里，僻在東裔，未能通好，徒向德風。己未之秋，殿下遣僉知中樞院事高公等官，來通遠信，不任慶幸抃躍之至。加以貴國名產，併荷仁恩，無勝感忱。今茲春行人告歸，輒齎弊邑鄙產大刀一腰、砂金十兩、白練緯三端、青練緯二端以獻焉。匪報厚貺，聊表不空，幸乞照察，宥惟珍重。

통신사(通信使)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고득중(高得宗)과 부사(副使) 상호군(上護軍) 윤인보(尹仁甫)가 일본(日本)에서 돌아오니,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하고 인하여 좌승지(左承旨) 성엄조(成念祖)에게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다. 싸 가지고 온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서계(書契)에 말하기를,

“두 사신이 고맙게 글을 전하여 멀리 이르니, 천리가 멀고며나 실로 이야기하여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색색의 진귀한 산물은 은혜를 입은 것이 중합니다. 누방(陋邦)이 대대로 인호(隣好)를 닦아 생각하고 양모하는 정이 없는 날이 없으나, 그러나 나라 운수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안부의 묻는 것을 통하지 못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사방에 일이 없어 소강(少康)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경하(慶賀)를 번거롭게 하였으니 기쁘고 감사하기가 평상시에 배나 됩니다. 변변치 않은 방물(方物)은 별폭(別幅)에 적어 사례하는 정성을 표하오니, 엮드려 채납(採納)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채화선(彩畫扇) 1백 개, 금동 장식대도(金銅粧飾大刀) 10개, 대홍칠목차완(大紅漆木

車碗) 대소 도합 84개, 대홍 칠천 방분(大紅漆淺方盆) 대소 도합 24개, 홍칠 흑칠 잡색 목통(紅漆黑漆雜色木桶) 21개이었다. 일본국 방주(防州)·장주(長州)·풍주(豐州)·축주(筑州)의 4주(州) 통수수리대부(通守修理大夫) 다다량지세(多多良持世)가 예조(禮曹)에 답서를 보내기를,

“지난번에 귀국의 통신사(通信使)가 계축년 해구(海寇)의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지세(持世)가 호송하였고, 겸하여 조그마한 물건을 바치었으니 진실로 어찌 족히 채록(採錄)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생각지 않게도 전하(殿下)의 청충(淸聰)에 상달되어 특별히 통신사(通信使) 고공(高公)을 보내어, 우리 전하와 수호(修好)하는 즈음에 전지(殿旨)로 이르심을 보게 되니 놀라고 황공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서계(書契)와 예물을 주시니, 절하고 받들기를 삼가 소중하게 하여 감사한 충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고공(高公)이 환국함에 미치어 삼가 채사(綵絲)로 짜서 만든 것 3필(匹)과, 청련초(靑練綃) 2필과, 화백릉(花白綾) 2필과, 첩첩선(摺貼扇) 30자루, 우피(牛皮) 10장을 드리웁니다. 감히 후의(厚意)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것이 아니옵고, 얇은 정성을 드릴 뿐이오니 전하여 통달하기를 바라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만경(萬慶)하시고 제관(諸官)께서는 천정(千禎)하소서.”

하였다. 일본국 관령(管領) 경조대부(京兆大夫) 원지지(源持之)가 예조(禮曹)에 답서를 보내기를,

“우리 일본 지역의 고을이 비록 이웃 지경을 접하였으나, 해양(海壤) 만리에 치우쳐 동쪽 끝에 있어 화호(和好)를 통하지 못하고 한갓 덕풍(德風)을 향할 뿐이더니, 기미년 가을에 전하께서 첨지중추원사 고공(高公) 등 관원을 보내어 와서 멀리 음신(音信)을 통하니, 경사스럽고 다행하여 지극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귀국의 명산으로 아울러 어지신 은혜를 입사오니 감사한 정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봄에 행인(行人)이 돌아가기를 고하므로, 폐읍(弊邑)의 소산인 대도(大刀) 1요(腰)와 사금(砂金) 10냥과, 백련위(白練緯) 3단(端)과 청련위(靑練緯) 3단을 짜서 드리니, 후하게 준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애오라지 공(空)이 아닌 것을 표하는 것이니, 다행히 조찰(照察)하기를 빌며 엎드려 진중(珍重)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89권 22년 6월 13일 癸未

禮曹撰進禩祭儀注:

~중략~

祭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坩】 陳幣簠於尊所;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籩八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形鹽在前, 魚次之. 第二行乾棗在前, 栗黃榛子次之. 第三行菱仁在前, 芡仁鹿醢次之.】 豆八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韭菹在前, 醯醢次之. 第二行菁菹在前, 鹿醢芹菹次之. 第三行兔醢在前, 筍菹魚醢次之.】 俎二, 一在籩前, 一在豆前.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예조(禮曹)에서 독제의주(蠡祭儀注)를 지어 바치었는데,

~중략~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놓아두고, 【점(坵)이 있다.】 폐백 광주리[幣]를 존소(尊所)에 마련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盒)과 촛(燭)을 신위(神位) 앞에 마련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마련하여 찬구(饌具)를 채우는데, 변(邊) 여덟 개는 왼쪽에 있어 세 줄로 하여 오른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가 다음이고, 둘째 줄에는 건조(乾棗)가 앞에 있고, 울황(栗黃), 진자(榛子)가 다음이고, 셋째 줄에는 능인(菱仁)이 앞에 있고, 감인(芡仁), 녹포(鹿脯)가 그 다음이다.】 두(豆) 여덟 개는 오른쪽에 있어 세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한다. 【첫째 줄에는 부추김치가 앞에 있고, 담해(醃醢)가 다음이고, 둘째 줄에는 무 김치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와 미나리 김치가 다음이고, 셋째 줄에는 토해(兔醢)가 앞에 있고, 죽순 김치와 어해(魚醢)가 다음이다.】 조(俎)는 두개인데, 하나는 변(邊)의 앞에 있고 하나는 두(豆)의 앞에 있다.

이하생략~

▶ 89권 22년 6월 17일 丁亥

咸吉道都觀察使李叔時奉書承政院曰：

會寧府百姓朴石金逃匿於幹朶里童多大家，百姓鄭夫金逃匿於幹朶里愁音佛家。右二人謀背本國，潛從他國之罪，已令差人推鞠。童多大、愁音佛等容匿亡命，宜按律科罪，追徵雇役，然今當幹朶里浮動之時，不宜抵罪。請依時具加湯可等例，嚴加詰責，追徵牛馬，以懲後來。

遂下傳旨回諭曰：

以卿之所啓，議諸政府大臣，皆從卿策。右議政申概以謂：“非但詰責，嚴加刼勅，追徵可也。”卿其知悉。

함길도(咸吉道) 도관찰사 이숙치(李叔時)가 승정원(承政院)에 봉서(奉書)하기를,

“회령부(會寧府) 백성 박석금(朴石金)이 알타리(幹朶里) 동다대(童多大)의 집에 도망하여 숨고, 백성 정부금(鄭夫金)이 알타리 수음불(愁音佛)의 집에 도망하여 숨었으니, 위 두 사람의 본국을 배반하기를 꾀하고 몰래 타국을 따른 죄를 이미 사람을 보내어 추국하게 하였고, 동다대·수음불 등이 망명한 자를 숨겨 준 것을 마땅히 율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여 고역(雇役)을 추징(追徵)하여야 하겠으나, 지금 알타리가 부동(浮動)하는 때를 당하여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청하옵건대 시구(時具)·가탕가(加湯可) 등의 예에 의하여 엄하게 힐책을 가하고 우마(牛馬)를 추징하여 뒷사람을 징계하게 하소서.”하니, 드디어 전지를 내리어 회유(回諭)하기를, “경의 아뢴 것을 정부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경의 계책을 따랐다. 우의정 신개(申概)는 말하기를, ‘다만 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엄하게 겁칙(劫勅)을 가하여 추

정하는 것이 가하옵니다.’ 하였으니, 경은 그리 알라.”하였다.

▶ 89권 22년 6월 29일 己亥

禮曹撰進厲祭儀注：

~중략~

祭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設城隍神座於壇上北方南向，席以莞；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籩四在左，爲二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乾棗次之。第二行栗黃在前，魚次之。】豆四在右，爲二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醯醢次之。第二行菁菹在前，鹿醢次之。】俎二一在籩前，一在豆前。

이하생략~

예조(禮曹)에서 여제 의주(厲祭儀注)를 지어 바치었는데,

~중략~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성황신(城隍神)의 자리를 단 위 북방에 남향하게 마련하고 완석(莞席)으로 간다. 향로·향합과 촛(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여 찬구를 세운다. 변(籩) 네 개는 왼쪽에 있어 두 줄로 하여 오른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은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건조(乾棗)가 다음이며, 둘째 줄은 율황(栗黃)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가 다음에 있다.】 두(豆) 네 개는 오른쪽에 있어 두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한다. 【첫째 줄은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담해(醢醢)가 다음이며, 둘째 줄은 무 김치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가 다음이다.】 조(俎)는 두 개인데 하나는 변의 앞에 있고, 하나는 두의 앞에 있다.

이하생략~

▶ 90권 22년 8월 4일 癸酉

癸酉/議政府據兵曹呈啓：“足食足兵，軍國急務。若民食不足，則兵力何自而强哉？雖民食有餘，而戰馬不敷，則攻取何(田)〔由〕而得哉？我國平安、咸吉之民，其耕耘皆賴於牛，故無牛則不得農作。然道內無牛之民，安得一一遍給乎？宜先其急而後其緩也。今咸吉道沿邊四邑內會寧府民有牛者少，而不得盡力於耕耘，未免艱食之嘆矣。願計其濟用監一年經費神布之數，量減咸吉道一年上納之布，買牛於吉州以南各官，分給會寧之民，則民得盡力於農畝，而邊邑稍實矣。若戰馬則國家深知緩急，各其牧場體小有咎馬，竝令分給。至於司僕寺馬匹，亦或入送，然馬匹數少，故軍士不受者頗多，戰馬無加於前日。願來辛酉年春節始，每年平安、咸吉兩道牧場所在馬匹，除可充國用馬外，竝皆刷出分給。且濟州牧場內體小有咎馬，無遺刷出，計〔除〕國用，其餘啓聞，分送兩道。全羅、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慶尙、忠淸、黃海道、京畿牧場馬匹，亦依此例刷出，計除國用，其餘亦送于平安、咸吉兩道都節制使，量宜分給。如此數年，則兩道戰馬，庶可敷矣。又令邊民及守禦軍士，毋令牧馬於極邊無人之處，違者，所在官吏考察論罪。脫有違禁，放養被虜者，則馬主及當該官吏，竝皆論罪。” 從之。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식량이 충족하고 군사가 많도록 하는 것이 군국(軍國)의 급무(急務)입니다. 만약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면 병력(兵力)은 무엇으로 강하여지며, 비록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여도 전마(戰馬)가 모자라면 공격력(功擊力)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평안도와 함길도 백성은 농사를 모두 소의 힘으로 하는 까닭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나, 도내(道內)에 소 없는 백성에게 어찌 두루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급한 대로 먼저 하고 다음은 천천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함길도 연변 네 고을 중에 회령부 백성은 소있는 자가 적어서, 농사를 힘껏 하지 못하므로 식량 곤란을 면치 못하는 바, 제용감(濟用監)의 1년 경비로 쓰이는 신포(神布)의 수량을 계산하고, 함길도에서 1년 동안 상납하는 포(布)를 적당히 감(減)하여서, 그것으로 길주(吉州) 이남 각 고을에서 소를 사 가지고 회령 백성에게 나누어 주면, 백성들이 농사를 힘껏 할 수 있고 변경 고을도 조금은 충실히 될 것입니다. 전마(戰馬) 같은 것은 국가에서 완급(緩急)을 깊이 알고, 각 목장에 몸이 작고 힘이 있는 말은 아울러 〈군사에게〉 나누어 주고, 사복시(司僕寺)의 말도 들여보낸 것이 가끔 있으나, 말의 수효가 적은 까닭에 말을 받지 못한 군사가 자못 많아서, 전마가 전일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습나다. 그러면서 오는 신유년 봄철에 시작하여 매년 평안·함길 양도의 목장에 있는 말로서 국용(國用)에 충당할 만한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말은 모두 찾아내어서 군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제주 목장에 몸이 작고 힘이 있는 말은 남김 없이 찾아내어서 국용(國用)을 요량하고 나머지는 계문(啓聞)한 다음 양도에 나누어 보내고, 전라·경상·충청·황해도와 경기도 목장의 말도 또한 이 예(例)대로 모두 찾아내어 국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한 평안·함길 양도에 보내면, 도절제사가 알맞게 요량하여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수년(數年)만 지나면 양도의 전마도 거의 넉넉할 것입니다. 또 변경 백성과 수어(守禦)하는 군사에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극변(極邊)에서 말을 먹이지 말도록 하고, 여기는 자는 소재 관리(所在官吏)가 고찰하여 논죄(論罪)하며, 만약 금방(禁防)을 어기고 농아기르다가 약탈당한 자가 있으면, 말 임자와 당해(當該) 관리를 아울러 논죄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90권 22년 8월 4일 癸酉

傳旨咸吉道都觀察使曰：

兵曹判書皇甫仁啓：“咸吉一道，野人聲息不絕。每聞事變，輒徵吉州以南各官軍士各官軍卒，踰越峻嶺，晝夜馳赴，及到四鎮，人疲馬困，留住數月，待其事變寢息，而後放還。又聞事變，則更令馳赴，到家纔數日而還發矣。如此數數往還，無歲無之。兵法所謂以逸待勞之意安在？眞所謂坐而疲弊者也。”自今總計端川以南各官下番甲士及正軍之數，

量其一年防禦緊緩之月，緊月則加數，不緊月則減數，預先分番赴防，每有事變，毋令急急徵發。

吉州、鏡城下番甲士及正軍，亦令量宜分番，常時休養，若有事變，都節制使率領防禦，亦勿令合番。且平安道沿邊各邑則山川險隘，無閑曠之處。咸吉道沿邊各邑則山川不險，多閑曠之地，宜置屯田，以備軍需。農牛則宜備之，農軍則次正軍之無才不堪爲卒者，量宜抽出，使之耕作，其收納費出之數，觀察使考察可也。且其軍士之分番赴防便否及沿邊各官置屯田便否，與都節制使同議訪問啓達。

함길도 도관찰사에게 진지하기를,

“병조판서 황보인(皇甫仁)이 아뢰기를, ‘함길 일도(一都)는 야인의 소식[聲息]이 끊임없는 데, 매양 사변(事變)이 났다는 소문이 있으면 문득 길주 이남의 각 고을 군사를 부르는바, 각 고을 군사가 준령(峻嶺)을 넘어 밤낮으로 달려오므로, 사진(四鎭)에 도착하면 사람이 고달프고 말도 고단하여집니다. 두어 달을 머물게 하였다가 사변이 가라앉은 다음에 돌려보내나, 또 사변 소문이 있으면 다시 달려오게 하니, 집에 온 지 겨우 수일(數日) 만에 도로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자주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으니, 병법(兵法)에 말한바, 「편한 군사로서 수고한 군사를 기다려서 공격한다.」 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앉아서 고달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천(端川) 이남의 각 고을 하번 갑사(下番甲士)와 정군(正軍)의 총수(總數)를 계산하고, 1년 동안 방어하는 데에 긴급을 요하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요량하여, 긴급한 달에는 군사의 수효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수효를 줄이되 미리 번(番)을 나누어 부방(赴防)하게 하고, 사변이 있을 때마다 급급하게 징발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길주와 경성에 있는 하번 갑사와 장군도 또한 적당하게 번을 나누어 상시(常時)에 휴식(休息)시켰다가, 만약 사변이 있으면 도절제사가 거느리고 방어하며, 또한 합번(合番)하지 말게 하소서. 또 평안도 연변의 각 고을은 산천이 험하고 막혀서 넓은 곳이 없으나, 함길도 연변의 각 고을은 산천이 험하지 않고 넓은 지역이 많은바, 둔전(屯田)은 설치하여 군수(軍需)를 준비하기에 마땅하니, 농우(農牛)는 관(官)에서 준비하고, 농군(農軍)은 차정군(次正軍)으로서 재능(才能)이 없이 군졸로 되지 못할 자를 알맞게 뽑아내어서 경작하게 하며,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숫자는 관찰사가 고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 하였다.”하였다. 그 군사의 번(番)을 나누어 부방(赴防)하는 편부(便否)와 연변 각 고을에 둔전을 설치하는 편부를 도절제사와 함께 논의하고 조사하여 계달(啓達)하게 하였다.

▶ 90권 22년 8월 10일 己卯

僉知中樞院事高得宗上書曰：

臣本貫濟州，因無站驛，應乘傳者，每於所至處，隨卽刷馬以傳，其來久矣。歲丙辰，獨念刷馬不均之弊，一應鋪馬，皆定以所耕，令五日爲次，民間牛馬，輪立於官門，無牛馬者，亦爲僕從之任，皆曠日在公，廢農之弊，莫此爲甚。 令兵曹據前按撫使韓承舜之報，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行移本州，欲設站路，實是美法也，但別置站驛與防護所驛子之任，皆以補充軍爲定，似有不可者三焉。凡人安土重遷，情所同也。本州及鏡城、慶源補充軍，各於所居處，從願立防，《續典》所載，故男婚女嫁，累代安業。若令毀其廬舍，棄其田土，強使之移聚，定其苦役，必致怨咨，其不可者一也。站路之設，周回本州，只設六站。兩站之間，或六十餘里，或七十餘里，其間相距，路遠且險，馬之困斃必矣。而州之田土，沙石瘠薄，非陸地驛田之比也。只將位田，所出甚少，難以立馬，其不可者二也。本州腴田少，所居之民，難以爲生，衆所知也。一朝奪諸平民本業之田，給之站驛，使其民無所耕作，因以失所，其不可者三也。站驛之設，本爲救民也，而復爲生弊至於此，願令補充軍一依《六典》，仍舊本役，勿使遷移。所居站驛，除別排於他處，皆合屬於諸防護所，喂養馬匹僕從之任，委之防護立番之人可也。其軍人立番五日，既未得自家來往，不離本所，無事終日，各於附近防護所，傳傳遞送，其不難矣。其考察之任，令防護所爲頭千戶主之，又擇附近所居鄉吏一二人，定爲都色色掌，以掌其事，而奪平民所耕之田，只收位田之租，每年趁時採備，所產魚藿等物，販賣取息，以立其馬。又買牝馬，隨宜孳息，以資其用，則雖不別立站驛，而實有鋪馬之利矣。視古刷馬之時，非啻爲優，而且無失所奪田之弊矣。適今遣敬差官，其便否利害，與按撫使訪問施行。

下兵曹，訪問便否，州人亦如得宗意。

첨지중추원사 고득중(高得宗)이 상서하기를,

“신은 본관(本貫)이 제주(濟州)입니다. 참역(站驛)에 당연히 타야 할 역말이 없기 때문에 도착하는 곳마다 쇠마(刷馬)를 타는데, 그 유래(由來)가 오래입니다. 병진년에 쇠마(刷馬)의 고르지 못한 폐단을 염려하여, 모든 포마(鋪馬)를 모두 경작하는 말로써 정하고 5일을 한 차례로 하도록 하니, 민간의 소와 말이 교대로 관문(官門)에 서고, 소와 말이 없는 자는 또한 종복(從僕)의 임무를 맡게 되어 모두 여러 날을 관가에 있으므로, 폐농(廢農)하는 폐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조(兵曹)에서 전 안무사(安撫使) 한승순(韓承舜)의 보고에 의거하여, 본주(本州)에 공문을 보내서 참로(站路)를 개설(開設)하고자 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역을 별도로 설치하고, 방호소(防護所)와 더불어 역자(驛子)의 임무를 모두 보충군(補充軍)으로써 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듯함이 세 가지입니다. 범인(凡人)이 고향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정(人情)으로서 같은 바입니다. 본주(本州) 및 경성(鏡城)·경원(慶源)의 보충군은, 각기 살고 있는 곳에서 원(願)에 따라 방수(防戍)에 번을 서도록 한다는 것이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가 혼인하여 여러 대(代)로 안업(安業)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의 집을 허물고 전지(田地)를 버리게 하며 강제로 옮겨서 고역(苦役)을 정한다면, 반드시 원망하게 될 것이니, 그 불가함의 첫째입니다. 참로(站路)의 설치가 본주(本州)를 주회(周回)하여 다만 여섯 참을 설치하였으므로, 두 참의 사이가 60여 리거나 혹은 70여 리나 되어,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험하니 말이 병들고 죽는 것은 필연합니다. 더구나, 본주의 전지(田地)는 모래와 자갈로서 척박(瘠薄)하기가 육지의 역전(驛田)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다만 위전(位田)만으로는 소출(所出)이 매우 적어서 입마(立馬)하기가 어렵사오니, 그 불가함의 둘째입니다. 본주에는 기름진 전지가 적어서 주민의 생활이 어려움은 모두 아는 바이운데, 일조(一朝)에 여러 평민(平民) 본업(本

業)의 토지를 빼앗아서 참역에 주고, 백성은 경작(耕作)할 땅이 없도록 하여 살 곳을 잃게 하니, 그 불가함이 셋째입니다.

참역의 설치는 본디 백성을 구(救)하려는 것인데, 다시 폐단이 생겨서 이런 데에까지 이르렀사오니, 원하옵건대, 보충군은 한 결 같이 《육전(六典)》에 의하여 예전대로 본역(本役)만 하여 거주하는 곳을 옮기지 말도록 하며, 역참은 다른 곳에다 따로 배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 방호소(防護所)에 합속(合屬)시켜서, 말을 먹이는 것과 수종[僕從]하는 임무를 방호소에 번서[立番]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합니다. 그 군인(軍人)이 5일 동안 번을 서게 되면 제 집에 내왕할 수가 없고, 본소(本所)를 떠나지 아니하여 종일토록 일이 없을 터이니, 각기 부근의 방호소에 전전(轉轉) 체송(傳傳遞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찰하는 임무는 방호소로 하여금 천호(千戶)를 우두머리로 삼아 이를 주장하게 하고, 또 부근에 거주하는 향리(鄉吏) 한두 사람을 가려서 도색(都色)·색장(色掌)을 삼아 그 일을 맡기소서. 평민이 경작하는 전지를 빼앗지 말고 다만 위전(位田)의 조세만 거두며, 해마다 본주에서 생산되는 생선과 미역 등물을 시기에 따라 채집 판매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 그것으로써 역말을 세우고, 또 암말을 사들여 알맞게 번식시켜서 그 용도에 보태면, 비록 별도로 참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실로 포마(鋪馬)의 이익이 있을 것이오니, 옛날 쇠마(刷馬)를 두던 때와 비교하여도 나을 뿐만 아니라, 또 살 곳을 잃거나 전지를 빼앗는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침 경차관(敬差官)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 편부(便否)와 이해(利害)를 안무사(安撫使)와 함께 조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이를 병조에 내려 편리 여부(與否)를 조사하게 하며, 고을 사람들도 또한 고득종의 의견과 같았다.

▶ 92권 23년 5월 2일 丁酉

咸吉道都節制使啓：沿邊各官屯田之法，當時急務，甚爲便益。然新設各鎮風氣，與南方頓殊，入居之民，不知水田之利。由是守令皆作旱田，所獲不多。慶源在五鎮之中，可爲水田之地四五百結，尙有空閑，宜抄五鎮次正軍無馬未敢爲軍者一百五十名，且將鏡城以南各官所儲之布，買牛三十頭，使之耕種，則其利倍多矣。五鎮及營中常養軍士，不過二百餘人，一年供費，亦不過一千三四百石。每當秋收，令差使員管掌，計口支給，則糧餉可增，轉輸之弊，亦可漸除矣。議諸政府。政府議以爲：“慶源遐隔，不可令四鎮之民，往來屯田。”遂不允。

함길도 도절제사가 아뢰기를,

“연변의 각 고을에 둔전(屯田)하는 법은 당시의 급무(急務)이오라 매우 편익합니다. 그러나 신설한 각진(各鎮)은 풍기(風氣)가 남방과 다르고, 입거한 백성도 논[水田]의 이익을 알지 못하여, 이 때문에 수령들도 모두 한전(旱田)을 만들어 수확이 많지 아니하오나, 경원(慶源)은 5진(鎭) 가운데 있어서 논을 만들 만한 땅이 4, 5백 결(結)이나 아직도 비어 있으니, 마땅히 5진의 차정군(次正軍) 중 말[馬]이 없어 군인이 될 수 없는 자 1백 50명을 뽑으시고, 또 경성(鏡城) 이남의 각 고을에 저장한 무명[布]을 가지고 소 30두(頭)를 사서, 그들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오면 그 이익이 배나 많을 것입니다. 또 5진(鎭)과 영중(營中)의 상양 군사(常養軍士)는 2백여 인에 불과하고, 1년의 공비(供費)도 1천 3, 4백 석에 불과하오니, 추수를 당할 때마다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호구를 헤아려 지급(支給)하게 하오면, 식량이 증가될 것이며 전수(轉輸)하는 폐단도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이를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경원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4진(鎭)의 백성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둔전하게 함은 불가하겠습니다.” 하니,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95권 24년 1월 15일 丁丑

傳旨咸吉道觀察使:

官買農牛一頭, 給指揮於虛里.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관(官)에서 농우(農牛) 한 마리를 사서 지휘(指揮) 어허리(於虛里)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 95권 24년 1월 17일 己卯

都體察使右參贊李叔時回自平安道啓: “撤沿邊民家, 令農民入處山谷, 其老弱男女及牛馬入保邑城四節恒居便否, 臣與都節制使李澄玉同議. 若是則民不得安心農業, 牛馬亦不得牧養, 請自今賊人通望處外民家, 並不撤去, 農時則依舊還接, 夫耕婦饁, 趁時生業爲便. 且臣審視定寧縣移於箭竹洞、方山兩處便否, 箭竹洞則土田瘠薄, 不宜置邑, 方山則土地沃饒, 居民阜盛, 上下道里, 相距適均, 宜於置邑. 故臣於方山, 已定城臺四千一百尺. 且以仇寧割屬朔川便否則已移朔川府於小朔州, 仍令朔川府使率兵, 於仇寧防禦, 右仇寧屬於傍近朔川爲便. 且於茂昌郡甫山・家估舍洞、閭延府薰豆・楸坡・下無路・榆皮・虞芮、玆城郡池寧恠、江界府餘屯烽(侯)〔墩〕臺、理山郡都乙漢、碧潼郡阿耳・小波兒・大波兒、昌城郡頭乞理、義州暗林・箭竹洞・水口・寶鎮場等十九處, 請加設萬戶, 與曾設趙明干、西解、高山里、山羊會、碧團、昌洲、青水等七萬戶, 各令防禦於其所. 又令慈城郡事於虛空橋、江界節制使於萬浦〔滿浦〕、理山郡事於央土里、茂昌・閭延・碧潼・昌城・義州及今所移定寧縣等守令, 各於本邑防禦. 自茂昌至義州三十六鎮, 將布列守護農民, 如有賊變, 及期相救, 以爲恒式. 且造築石堡, 每堡差萬戶, 則守禦似乎的實, 然於左右不築行城, 則堡內人民, 每當耕耘之時, 畏其賊變, 晚出早入, 廢農失所之弊, 南道軍馬連續徵聚, 江邊列立之苦、鼠竊之盜, 窺伺乘虛, 恣行殺虜之患, 無異前昔. 夫行城力役, 雖重於石堡, 然先從要害築之, 則城內人民老幼, 安心農作, 牛

馬亦皆布野，休養阜盛，誠爲良策。或曰：“千里長城，實爲難成。假使成之，誰能守之？”今此行城，不是延袤千里，但擇民居要害處造築，只役以忠清道以北軍人，庶幾七八年，事功畢矣。又設烟臺烽火，又候望賊變。且守令及新舊萬戶并三十六編裨將帥星羅碁布，分掌守護，則守城亦且無難。請先築行城，且棄行城之外，全不顧慮，則草莽成林，必似無人之境。請依下三道處置使及萬戶諸島搜探例，都節制使及各口子萬戶各鎮編將，無時領兵巡行，或伐木斬草，以示常守城外之意。”

下兵曹，與議政府議之。僉議啓曰：“可依叔時所啓。”從之。

도체찰사 우참찬 이숙치(李叔時)가 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연변(沿邊)의 민가를 철수시켜 산곡(山谷)으로 들어가 살게 하고, 그 중에 노약(老弱)한 남녀 및 소와 말은 읍성(邑城)에 들어 보호하게 하고, 춘하추동 사절(四節)에 걸쳐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신이 도질세사 이정옥(李澄玉)과 같이 의논하여 보니,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말과 소도 또한 기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적이 흰히 바라볼 수 있는 곳 이외에는 민가를 철거하지 말고서, 농사 때에는 전처럼 돌아가 살면서 남편은 밭을 갈고, 아내는 점심을 가져다 먹이어 때를 맞추어 생업(生業)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또 신이 정령현(定寧縣)을 전죽동(箭竹洞)과 방산(方山)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읍감이 좋을가를 살펴보니, 전죽동은 토지가 매말라서 읍을 설치하는 데 적당하지 못하나, 방산은 토지도 비옥하고 주민들도 번성하며 상하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도 적당하여 읍을 설치함에 마땅하므로, 신이 방산에 이미 <성을 쌓기 위하여> 4천 1백 척의 성터[城臺]를 정했습니다. 또 구령(仇寧)을 삭주(朔州)에 이속[割屬]시키는 편부(便否)에 대해서는 삭주로 읍감이 마땅하므로, 이미 삭주부(朔州府)를 소삭주(小朔州)에 옮기고 삭주 부사가 군병(軍兵)을 거느리고서 구령(仇寧)을 방어(防禦)하도록 하였사오니, 우구령은 그 곁에 가까이 있는 삭주에 속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또 무창군(茂昌郡)의 보산(甫山)·가사동(家舍洞)과 여연부(閔延府)의 훈두(薰豆)·추파(楸坡)·하무로(下無路)·유피(楡皮)·우예(虞芮)와 자성군(玆城郡)의 지령괴(池寧怪)와 강계부(江界府)의 여둔(餘屯)·봉후대(烽候臺)와 이산군(理山郡)의 도을한(都乙漢)과 벽동군(碧潼郡)의 아이(阿耳), 소파아(小波兒)·대파아(大波兒)와 창성군(昌城郡)의 두걸리(頭乞理)와 의주(義州)의 암림(暗林)·전죽동(箭竹洞)·수구(水口)·보진장(寶鎭場) 등 19처에는 만호(萬戶)를 더 설치하여, 전에 설치한 조명간(趙明干)·서해(西解)·고산리(高山里)·산양회(山羊會)·벽단(碧團)·창주(昌洲)·청수(靑水) 등 7처의 만호(萬戶)와 같이 그곳에서 적을 방어하게 하고, 또 자성 군사(玆城郡事)는 허공교(虛空橋)에서, 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는 만포(萬浦)에서, 이산 군사(理山郡事)는 양토리(央土里)에서, 무창(茂昌)·여연(閔延)·벽동(碧潼)·창성(昌城)·의주(義州)와 지금 읍을 옮긴 정령현(定寧縣) 등의 수령들은 각기 본읍에서 적을 방어하여, 무창에서 의주까지의 36곳에 진장(鎭將)을 배치하여 농민을 수호(守護)하게 하고, 만약 적변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서로 달려와 구원해 주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을 것입니다.

또 석보(石堡)를 축조하는데는 석보마다 만호를 시켜서 지키도록 하면 아주 적실하고 완전할 것이나, 석보의 좌우에 행성(行城)을 쌓지 아니하면, 석보 안의 인민들이 밭갈이할 때를 당하여 적변(賊變)이 두려워서 늦게 나가고 일찍 돌아오게 되어 폐농(廢農)하고서 살지 못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며, 남도(南道)의 군마가 연속해서 강변(江邊)에 징취(徵聚)되어 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어서는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쥐도적 같은 놈들이 옛보다가 이 틈을 타고 들어와 주민을 죽이거나 잡아가는 근심이 옛날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행성(行城)의 역사가 석보(石堡)보다는 크다고 하나, 먼저 요해처를 따라 쌓아 두면 성내에 사는 인민들과 노유(老幼)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말과 소도 들판에 마음대로 방목(放牧)하여 잘 자라고 번성할 것이니 진실로 좋은 방책이라 하겠습니까.** 어떤 자는 말하기를, ‘천리장성(千里長城)은 실로 완성하기 어려우며, 가령 완성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를 지키겠는가?’ 하기도 하나, 지금의 이 행성(行城)은 그 길이가 천리까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백성들이 사는 요해처(要害處)만을 가려서 축조하는 것이니, 오직 충청도 이북의 군인들만을 사역한다 하더라도 거의 7, 8년이면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또 연대(煙臺)와 봉화(烽火)를 설치하여 적변(賊變)을 후망(候望)하게 하고, 수령들이나 신구만호(新舊萬戶)들을 36처의 편비장(編裨將)들과 아울러 별[星]이나 바둑돌처럼 배열하여 맡은 바를 지키게 하면, 성을 수어(守禦)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니, 먼저 행성을 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성 바깥 지역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그곳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무인지경이 될 것이니, 청하읍건대, 하삼도처치사(下三道處置使)와 만호들이 여러 섬[島]을 수탐(搜探)하는 예에 의하여 도절제사 및 각 구자(口子)의 만호(萬戶)와 각진(各鎭)의 편장(編將)들이 수시로 군졸을 거느리고 순행하며, 혹 나무도 베고 풀도 깎아서 항상 성 밖의 지역을 수비한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이것을 병조와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숙치의 아뢰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97권 24년 7월 6일 甲子

傳旨平安道觀察使鄭弼曰:

道內昌城元居與新(徙)〔徙〕之人, 今年逃亡之數, 倍於他郡, 問其由於都節制使李澄玉, 澄玉曰: “臣問諸昌城故老人, 皆言: ‘入保太早, 不及秋收, 資糧乏絕. **且所持牛馬, 不能喂養, 多致物故,** 而(翼)〔翌〕年不能業農.’ 其逃亡, 職此由也. 臣又問於碧團千戶金忠順, 言: ‘民之流移, 非獨昌城, 往者碧潼郡人三戶爲一僧招誘, 向東而去, 卽差人追捕, 其僧中路病死, 不得問其所去之地. 然曾聞狄餘嶺之北有一洞, 其地可居五百餘戶, 意謂無賴之徒, 招引黨類, 潛隱屯居於此地矣.’ 臣亦以爲昌城之民去五六月間, 逃去者凡十餘戶. 如此盛農乏糧之時, 合戶逃去, 豈不預知可居之處而妄自流移乎?” 必依附元居民戶可得寄食, 以資其生, 豈謂逃往忠順所言之地也! 澄玉之言如此, 故又問於護軍田正理, 正理答曰: “狄餘之地則不曾聞矣, 但聞甲山、閭延、江界等各邑連境之間, 有人民可居廣闊之地.” 以此諸人之說觀之則其界流移之輩, 潛聚群居於如彼幽深之地, 而國家不知也. 卿之所聞何如? 如狄餘及甲山、閭延、江界等處, 果有人民可居與否, 廣行訪問. 且昌城人民逃向去處, 聞見以啓.

평안도관찰사 정분(鄭奉)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그 도(道) 안의 창성(昌城)에서 원주민(元住民)이나 새로 옮겨 간 사람으로서 금년에 도망한 자의 수는 다른 고을의 배나 되므로, 그 이유를 도절제사 이정옥(李澄玉)에게 물으니, 정옥이 말하기를, ‘신(臣)이 창성(昌城)에 사는 늙은이들에게 물으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보(保)에 들어간 것이 너무 일러서 추수(秋收) 때가 되기 전에 자금과 식량이 떨어졌으며, 또 가지고 있는 마소를 사양(飼養)하지 못하고 죽이게 되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때문입니다.」 고 합니다. 신은 또 벽단 천호(碧團千戶) 김충순(金忠順)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백성들이 흘러 옮겨 가는 것은 창성(昌城)만이 아닙니다. 전번에 벽동군(碧潼郡) 사람 3호(戶)가 한 중[僧]에게 유인되어 동쪽을 향해 가므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따라가 체포하였으나, 그 중이 중로(中路)에 병들어 죽었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들으니, 적여령(狄餘嶺)의 북쪽에 한 동학(洞壑)이 있는데, 한 5백여 호는 살 만하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무리배(無賴輩)들이 무리를 불러 들어서 이곳에 몰래 숨어서 둔거(屯居)하는 것 같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신(臣)도 또한 생각하기를, 창성의 백성으로서 지나간 5, 6월 사이에 도망해 간 자가 모두 10여 호나 되는데, 이와 같이 농사가 한창 바쁘고 식량이 결핍된 때에 여러 호(戶)가 모여서 도망간다는 것은 어찌 미리 살 수 있는 곳을 알지 않고서야 함부로 떠나가겠습니까. 반드시 원래부터 살고 있는 민호(民戶)에 의지하여 기식(寄食)하여야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충순(忠順)이 말한 곳에 도망해 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정옥의 말이 이러하므로 또 호군(護軍) 전정리(田正理)에게 물으니, 정리는 대답하기를, ‘적여(狄餘)의 땅에 대하여는 일찍이 들은 적이 없으나, 다만 갑산(甲山)·여연(閔延)·강계(江界) 등 각 고을의 경계가 연결한 사이에 인민(人民)이 살 만한 광활한 땅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고 하였다. 이 여러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그곳의 흘러 들어가는 무리들이 저와 같이 그윽하고 깊은 곳에 몰래 모여서 때를 지어 사는 것을 국가(國家)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경(卿)의 들은 바는 어떠한가. 적여(狄餘)와 갑산(甲山)·여연(閔延)·강계(江界) 등처에 과연 인민이 살 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널리 찾아 물어 보고, 또 창성(昌城)의 백성들이 도망해 간 곳을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97권 24년 7월 29일 丁亥

召右獻納尹士昀謂曰：“予聞僧徒撞鍾聚黨，持杖逐儒。以此言之，僧人之罪，固大矣，然予未知其實也。儒生二十餘人成群到寺，恣行狂妄，儒生之志，亦掃地矣。諺曰：‘童牛折轅，必成良牛。’此喻武士也。若儒生，以恭順爲道，潛心聖學而已。廢業閑遊，竊取佛經，破僧器皿，豈學道之士所可爲乎？國家設教官，非徒爲教訓句章而已，儒生之狂妄若此，而教官不之察，教官亦不爲無罪，其知之。”

우헌납(右獻納) 윤사운(尹士昀)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중의 무리가 종(鍾)을 쳐서 무리를 모아 가지고 몽둥이로 유생을 때려 쫓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았다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중들의 죄가 진실로 큰 것이나, 나는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 유생 20여 인이 떼를 지어 절에 가서 함부로 광망한 행동을 하였으니 유생의 뜻도 또한 매우 타락하였다. 속담에 송아지가 멩에를 꺾으면 반드시 좋은 소가 된다고 한 것은 무사(武士)에게 비유한 말이다. 그러나 유생이라면 공순(恭順)한 것을 도리로 하고 성인의 학문에 잠심(潛心)할 뿐이다. 학업을 폐하고 한가롭게 놀러 다니며, 불경을 훑쳐내고 중의 기물(器物)을 파괴하였으니, 어찌 도(道)를 배우는 선비가 할 것이겠는가? 국가가 교관(敎官)을 설치한 것은 한갓 장구(章句)나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유생들의 광망함이 이와 같은 것을 교관이 살피지 아니하였으매, 교관도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

▶ 97권 24년 9월 25일 壬午

議政府據禮曹呈啓: “今世俗, 凡諸服飾之物, 爭相則効, 或以石之似玉者或燔玉或瑪瑙石, 造環子笠纓雲葉兒, 以爲冠服之飾. 且帶烏角者, 或以羊角玳瑁爲帶. 外方鄉吏等或玉環子或玉纓瑪瑙纓珊瑚纓或犀帶, 任然僭用. 如此越禮亂分, 實爲未便. 請自今瑪瑙玳瑁, 一皆禁斷. 羊角帶及似玉白石燔造玉服飾, 堂上外亦皆禁斷. 若鈹花白羊角帶, 二品以上亦禁之. 鄉吏等犀帶瑪瑙纓玉環子玉纓珊瑚纓, 竝皆禁斷. 且禁鄉吏珊瑚水精纓及曾受賜玳瑁帶.” 從之.

의정부가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세상의 풍속에 모든 의복과 장식물을 다투어 서로 본받아 가면서, 혹은 옥같이 생긴 돌로, 혹은 번옥(燔玉)으로, 혹은 마노(瑪瑙)로 환자(環子)·갓끈·운엽아(雲葉兒)를 만들어 갓과 옷의 장식물로 하며, 또 오각대(烏角帶)를 띠는 사람이 혹은 양각(羊角)이나 대모(玳瑁)로 띠를 만들고, 지방(地方)의 향리(鄉吏) 등도 혹은 옥관자(玉貫子), 혹은 옥갓끈·마노 갓끈·산호(珊瑚) 갓끈을, 혹은 서대(犀帶)를 제멋대로 참람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제(禮制)를 넘고 신분의 구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실로 온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마노·대모는 일절 다 금지하고, 양각대(羊角帶)와 옥같은 흰 돌, 번조옥(燔造玉)의 복식(服飾)은 당상관 이외에는 또한 모두 사용을 금단(禁斷)하며, 꽃무늬를 조각한 흰 양각대[花白羊角帶]는 2품 이상에게도 또한 금지하며, 향리(鄉吏) 등의 서대(犀帶)·마노 갓끈·옥관자·옥갓끈·산호 갓끈은 모두를 다 금단(禁斷)하고 또 향리의 산호·수정(水精)의 갓끈과 일찍이 하사(下賜) 받은 대모띠도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98권 24년 10월 10일 丁酉

傳旨咸吉道都節制使：

卿使人諭野人曰：“汝等搶奪窮民之牛，論以國法，則罪(國)〔固〕重矣。然國家撫恤汝等，姑置之。” 仍令刷牛，還其本主。若殺而食之，則徵其價給之。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卿)이 사람을 시켜 야인(野人)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빈궁한 백성의 소를 빼앗아 갔으니, 국법(國法)으로써 논한다면 죄가 진실로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너희들을 무휼(撫恤)하므로 잠정적으로 그만두고 있다.’ 하여, 이내 소를 찾아서 그 본주인에게 돌려 주고, 만약 소를 죽여서 먹었다면 그 값을 징수하여 주게 하라.”

▶ 98권 24년 10월 16일 癸卯

傳旨平安道觀察使鄭笨：

賊虜突入無時，居民入保之期，不可不嚴。然於入保之時，所耕禾穀，未能盡輸，率皆藏於農幕，時時往來取食之，以過三冬。且喂養牛馬芻蒿，亦必輸來，其取糧節次，不可不定期也。一月之內，幾度取糧，實爲適中乎？卿於沿邊各官，廣行訪問，與都節制使同議，酌其道路遠近，定其取糧日次以啓。

평안도관찰사 정분(鄭笨)에게 전교하기를,

“적로(賊虜)가 갑자기 쳐들어옴이 일정한 시기가 없으니, 거민(居民)이 입보(入保)하는 시기를 엄(嚴)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입보할 때에 농사지은 곡식[禾穀]을 능히 다 운반하지 못하고, 거개 모두가 농막(農幕)에 간수하여 놓고 때때로 왕래하며 가져다 먹으면서 삼동(三冬)을 지나게 되고, 또 소와 말을 먹이는 꼴도 또한 반드시 운반해 오게 되니, 그 양식을 가져가는 절차를 기일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1월 안에 몇 번이나 양식을 가져가는 것이 실로 알맞겠는가? 경(卿)이 연변(沿邊)의 각 고을에 널리 방문(訪問)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와 함께 의논해서, 그 도로(道路)의 원근(遠近)을 참작하여 그 양식을 가져가는 날짜의 차례를 정하여 아뢰라.”하였다.

▶ 98권 24년 10월 23일 庚戌

初，咸吉道洪原縣監金兢，以白丁李難守及子牛同爲盜人牛，枉刑皆死。難守妻宜州請隣人前司直安英祿書告狀，訴于觀察使韓確。英祿素憾兢，竝錄兢過失。確與都事李英門反囚宜州，鞫寫狀人，拷掠至九十下。上遣吏曹正郎曹錫文覈之，兢贖杖一百徒三年，追埋葬銀；榮門贖杖九十；罷確職；英祿律當杖一百流三千里，黜鄉瀆宅，以功臣之子，只於本道深遠處，全家入居。上又以難守父子爲非罪殞命，特命賜宜州喪葬所需米布鹽醬。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처음에 함길도 홍원현감(洪原縣監) 김공(金兢)이, 백정(白丁) 이난수(李難守)와 그 아들 이우동(李牛同)이 남의 소를 도적질했다 하여 형법을 굽혀[柱刑]서 모두 죽게 하였다. 난수(難守)의 아내 의주(宜州)가 이웃 사람인 전 사직(司直) 안영록(安英祿)에게 청하여 고장(告狀)을 써서 관찰사 한확(韓確)에게 호소하였는데, 안영록이 본디부터 김공에게 감정이 있었으므로, 김공의 과실까지 아울러 기록하였다. 한확은 도사(都事) 이영문(李英門)과 더불어 의주(宜州)를 도리어 가두고, 고장(告狀) 쓴 사람을 국문(鞫問)하여 매질하기를 90대에 이르도록 하였다. 임금이 이조 정랑 조석문(曹錫文)을 보내어 이것을 조사하여, 김공은 속장(贖杖) 1백, 도(徒) 3년에 처하고 매장은(埋葬銀)을 추징(追徵)하고, 이영문은 속장 90대에 처하고, 한확은 파면시켰다. 안영록은 율(律)에 의거하면 마땅히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본향(本鄉)에서 내쫓고 그 집터에 못을 파는 데에 해당되나, 공신(功臣)의 아들인 까닭에 다만 본도(本道)의 깊은 먼 곳에 온 가족을 입거(入居)시켰다. 임금이 또 난수(難守)의 부자(父子)는 죄가 없이 운명(殞命)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명하여 의주(宜州)에게 상장(喪葬)에 쓰일 쌀·베·소금·장을 내리게 하였다.

▶ 98권 24년 11월 17일 癸酉

癸酉/正朝使趙惠到遼東馳啓：“去十月十八日，太皇太后崩。”議政府啓大行太皇太后舉哀節次：“一，聞喪翌日早朝，殿下率百官，具素服烏紗帽黑角帶舉哀，凡三日而除。

一，停朝市，斷音樂，**禁屠殺**，去刑戮，停嫁娶凡三日。

一，外方各道大小使臣及守令聞喪翌日早朝，具素服烏紗帽黑角帶，設闕牌行四拜，初哭十五舉聲，後又行四拜禮，凡三日而除。”

정조사(正朝使) 조혜(趙惠)가 요동(遼東)에 이르러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10월 18일에 태황태후(太皇太后)가 붕어(崩御) 하였습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대행 태황태후(大行太皇太后)의 거애 절차(舉哀節次)를 아뢰기를,

“1. 상사(喪事)를 들은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전하(殿下)는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어 거애(舉哀)하고, 무릇 3일 만에 제복(除服)하게 하고,

1. 조회(朝會)와 시장(市場)을 정지하고, 음악을 끊고, **도살(屠殺)을 금하고**, 형륙(刑戮)을 그만두고 가취(嫁娶)를 정지하기를 무릇 3일 동안을 하고,

1. 외방(外方) 각도의 대소 사신(大小使臣)들과 수령(守令)들은 상사(喪事)를 들은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고 궐패(闕牌)를 설치하여 사배(四拜)를 행하고, 처음 곡(哭)하면서 15번 소리를 낸 후에 또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무릇 3일 만에 제례(除禮)한다.”

하였다.

▶ 98권 24년 11월 24일 庚辰

禮曹啓宗廟四時及臘享王世子代行儀注：“時日，書雲觀預於隔季，以孟春上旬，擇吉報禮曹，【孟夏孟秋孟冬，竝準此。臘享則預於隔季，以季冬臘日報禮曹。】禮曹啓聞，散告攸司，隨職供辦。

~중략~

晨祿：享日丑前五刻，

~중략~

王世子既升祿，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簠，實于一鼎，次升羊實于一鼎，次升豕實于一鼎，皆設(局)〔局〕罍。祝史對舉，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王世子祿訖復位。執禮曰：“進饌。”祝史抽局委于鼎右，除罍加匕畢于鼎。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次升豕羊，各實于牲匣。次引薦俎官，捧翼祖室俎，捧(俎)〔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諸祝史俱進，徹毛血槃，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諸大祝迎引於階上，薦俎官詣翼祖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奠訖，啓牲匣蓋，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大王室，次詣太宗室，捧奠竝如上儀訖。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阼階復位。

이하생략~

예조에서 종묘(宗廟)의 사시제(四時祭)와 납향(臘享)에 왕세자가 대행(代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시일(侍日)은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 맹춘(孟春)의 상순(上旬)에 길일(吉日)을 가려서 예조에 보고하면, 【맹하(孟夏)·맹추(孟秋)·맹동(孟冬)도 모두 이에 준하고 납향(臘享)은 미리 계절을 걸러 계동(季冬)의 납일(臘日)로써 예조에 보고한다.】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게 나누어 알려져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중략~

제향(祭享)하는 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중략~

왕세자가 올라와서 강신(降神)을 마치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고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소를 가마[簠]에 올려서 한 솥[鼎]에 채우고, 다음에 양(羊)을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그 다음에는 돼지를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모두 국역(局罍)을 설치하며, 축사(祝史)가 마주 들고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는데, 왕세자가 강신(降神)을 마치기를 기다려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진찬(進饌)하라.’ 하면, 축사(祝史)가 국(局)을 뺏아 솥[鼎] 오른쪽에 버리고, 보자기[罍]를 걷어치우고, 비(匕)와 필(畢)을 솥에 얹어 둔다. 전사관이 비(匕)로써 소를 올려서 생갑(牲匣)에 채우고, 다음은 돼지와 양(羊)을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채운다. 다음에 천조관(薦俎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官)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의 조(俎)를 받들게 하면,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든다. 전사관이 제찬(祭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가는데, 조(俎)가 처음 문(門)에 들어가면, 헌가(軒架)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祝史)가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걸어치워 동계(東階)로 하여 재랑(齋郎)에게 주고는 나가고, 제찬(祭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大祝)들이 섬돌 위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익조(翼祖)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이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蓋]를 열고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桓祖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태조실(太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는 공정대왕실(恭靖大王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태종실(太宗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하생략~

▶ 99권 25년 2월 13일 己亥

傳旨咸吉道都觀察使都節制使:

投化野人願居本國內地者, 馳啓京師, 待回報處置, 則來往日久, 或致耕種失時. 今後有願居內地者則卿等量宜措置, 擇吉州以南膏腴土田, 完具家舍, 使之存接, 仍計口給衣糧鹽醬. 初年耕種時, 官給人牛以助之, 使之安業.

함길도관찰사와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전지하기를,

“들어와 귀화한 야인(野人)으로서 본국 내지(內地)에 살기를 원하는 자를, 서울에 치계(馳啓)하여 회보(回報)를 기다려서 처치(處置)하려면, 내왕하는 날짜가 오래 걸려서 혹 농사짓기에 때를 잃게 될 것이니, 이 뒤로는 내지(內地)에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든 경 등이 적당하게 생각하여 조치하되, 길주(吉州) 이남에 기름진 토지와 완전 구비된 집을 골라 들어 살게 하고, 곧 식구를 헤아려 의복·양식·소금·간장을 주고, 첫째 농사에는 관(官)에서 사람과 소를 주어 도와주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하였다.

▶ 99권 25년 3월 24일 己卯

咸吉道都節制使金孝誠馳啓: “本道東南大海, 西北大山, 間有一路, 使客往還, 野人來朝, 共由此路, 每當野人朝見, 藉言驛路之弊. 數百人中, 或揀一人上送, 不多月內, 其數不下百人, 支持之難, 固不細矣. 然野人以未得上京爲恨, 若潛來鼠竊, 則必興師禦之. 新邑之人, 亦皆入保, 如此數年, 新邑民食, 何自而出? 軍需何自而足? 興師動衆, 其弊倍於數百野人來往驛路之弊, 又野人所至各驛, 不能遞馬, 此亦不可不慮. 臣願上京野人中指揮及本朝四品以上受職人外, 皆許乘車, 每一小車, 駕以二牛, 二人牽牛. 野人五人

乘之，兼載所持之物，則可減騎卜馬六匹與隨從四人矣。野人十人，準到乘二車，則可減馬十四，人八名矣。彼若壓車來者少，則支持之弊自減矣。且馬價重牛價輕，馬料多牛料少，是亦郵吏之一幸也。令各站察訪審擇道路夷險，小車可行處，每一驛小車三四兩、壯牛六七頭，量宜預備，來秋爲始，用車試驗何如？”下兵曹。

함길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효성(金孝誠)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의 동남은 큰 바다이고 서북은 큰 산으로서, 사이에 길 하나가 있어서 중국 사신이 내왕하거나 야인이 조회하러 서울에 오거나 할 때 모두 이 길을 경유하옵는데, 매양 야인이 조회하러 올 때를 당하면, 역참 길처의 폐단 됴을 구실 삼아 수백 인 중에서 혹 한 사람을 가려서 올려 보내도 몇 달이 못 되어 그 수효가 백 명 가량이 되어서 치다꺼리하는 곤란이 참으로 적지 아니하옵습니다. 그래도 야인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 만일 가만히 와서 귀같이 도적질을 하면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방어하옵는데, 새 고을 사람들도 다 지키러 들어갑니다. 이같이 하기를 수년이 되오니, 새 고을 백성의 식량은 어디서 나오며 군대의 비용은 어디서 채울 수 있겠나이까. 군사를 일으키고 민중을 움직이는 데 대한 그 폐단은 야인 수백 명이 역참 길처에 내왕하는 폐단보다 갑절이나 더한 것입니다. 또 야인이 이르는 곳에 각 역참마다 능히 말을 갈아댈 수가 없사오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습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서울에 올라가는 야인 중의 지휘(指揮)와 본조의 4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모두 수레를 타게 하되, 자그마한 수레 한 대에 소 두 마리가 멩에를 메고 두 사람이 소를 몰게 하여 야인 다섯 사람이 타면서 겸하여 가진 물건까지 실으면, 타는 말과 짐 싣는 말까지 6필과 조치개꾼 네 사람을 줄일 수 있으며, 야인 10인이 두 수레에 타고 오도록 하오면 말 10필과 사람 8명이 줄어든 것이옵습니다. 저들이 만일 수레 타기를 싫어하여 오는 자가 적어지면 치다꺼리하는 폐단도 자연히 적어질 것이옵고, 또 말은 값이 비싼데 소는 값이 싸고, 말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소는 비용이 적게 드니, 이 또한 우리(郵吏)들의 한 가지 다행한 일이옵니다. 각 역참의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도로의 평탄하고 험준한 것을 살피어 가려서, 자그마한 수레의 다닐 만한 곳에 각역마다 자그마한 수레 서너 대와 황소 예닐곱 마리를 적당하게 준비하여 두고,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여 수레 쓰기를 시험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병조에 내렸다.

▶ 100권 25년 5월 14일 戊辰

以旱禁屠殺斷傘扇.

가뭄으로 인하여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산선(傘扇)을 금단하였다.

▶ 101권 25년 7월 6일 己未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咸吉道都節制使金孝誠馳啓: “各鎮傍近散居野人因其族親相見, 或東或西, 道經內地, 相雜民間, 彼此橫行, 誠爲盛事. 臣竊謂新邑居民, 冬月則入保城內, 農時則布散田野, 以至牛馬, 亦放之於野, 而獸心之徒, 擅行內地, 或盜軍民牛馬鷄犬雜物, 因此傷人. 儻雖彼人潛從內地, 窺我虛實, 而烟臺候望人, 亦以謂野人來往, 是其常事, 不能候察, 以致禍胎, 其漸可慮. 自今道經內地見族親野人等, 必於所居附近之官, 具辭進告, 其官具錄人口牛馬, 限日給文引, 令通事押領, 付于隣官, 以次護送. 還家之時, 亦依此例施行. 已還家者, 收取文引, 以杜禍胎.” 下兵曹, 與議政府同議以啓. 僉議啓曰: “野人曾與境內人民來往同處, 宜當視同一體, 常加撫恤. 若於往來之際, 人口牛馬, 盡行點考, 又給文引, 則非徒煩冗難行, 彼人等必生驚疑, 絕其往來, 生釁甚大, 依舊撫恤, 無有彼我之異.” 從之.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성(金孝誠)이 치계(馳啓)하기를,

“각진(各鎮)의 부근에 흩어져 사는 야인(野人)들이 그 친족과 서로 만나느라고, 혹은 동(東)으로 혹은 서(西)로 길[道]이 내지(內地)를 지나게 되어, 민간(民間)에 서로 섞여서 피차(彼此)에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오나, 신은 그옥이 생각하기를, 신읍(新邑)에 사는 백성들이 겨울에는 성내(城內)에 입보(入保)하고, 농시(農時)에는 전야(田野)에 흩어져 있으며, 우마(牛馬)에 이르기까지 역시 들에다 풀어놓아온데, 수심(獸心)의 무리들이 내지(內地)를 마음대로 다니다가 혹은 군민(軍民)의 우마(牛馬)와 계견(鷄犬), 잡물(雜物)을 도적질하여, 이로 인해서 사람을 상(傷)하게 하고, 혹시 저 사람들이 몰래 내지(內地)에 와서 우리의 허실(虛實)을 살핀다 하더라도, 연대(煙臺)에서 망보는 사람이 역시 야인의 내왕(來往)을 상사(常事)로 여겨서 잘 살피지 아니하여, 화근(禍根)이 될까 하오니, 그 장래가 염려됩니다. 이제부터는 길[道]이 내지(內地)를 경과하여 족친(族親)을 보려는 야인들은 반드시 살고 있는 부근의 고을에 사연을 갖추어서 진고(進告)하게 하고, 그 고을에서는 인구(人口)와 우마(牛馬)를 갖추 기록하고 날짜를 한정하여 문인(文引)을 주어서, 통사(通事)를 시켜 압령(押領)해서 이웃 고을에 넘겨서 차례로 호송(護送)하게 하고, 환가(還家)할 때에도 역시 이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며, 이미 환가(還家)한 자는 문인(文引)을 회수하여 화근(禍根)을 막게 하소서.”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야인이 일찍이 경내(境內)의 인민들과 내왕하면서 같이 지내왔사오니, 마땅히 일체(一體)로 보아주어서 항상 무휼(撫恤)을 가할 것이옵니다. 만약 왕래할 때에 인구(人口)와 우마(牛馬)를 다 점고(點考)하고, 또 문인(文引)을 주게 되면, 비단 번거롭고 복잡하여 실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놀라고 의심하여 그 왕래를 끊어, 혼단(釁端)을 일으킴이 매우 클 것이옵니다. 예전대로 무휼(撫恤)하여서 피아(彼我)의 다툼이 없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01권 25년 9월 27일 戊寅

幼學李崇老倣諸葛亮之制，作木牛以進，竝上書論其制作之由，皆孟浪無稽，其制度，亦不適於用.

유학(幼學) 이승로(李崇老)가 제갈양(諸葛亮)의 제도를 모방하여 목우(木牛)를 만들어서 올리고, 아울러 상서(上書)하여 그 제작한 연유를 논하였는데, 다 맹랑하여 보잘것없고, 그 제작한 것도 역시 소용에 맞지 아니하였다.

▶ 102권 25년 10월 16일 丁酉

司諫院上疏曰：

廉恥，士之大節；賞罰，國之重典．是故廉恥道喪，則貪墨之風不輯；賞罰失宜，則勸懲之道不著，豈可以貪污不廉之人，授邊鎮之重任，而失勸懲之道乎？金厚別無他能，但以武藝，特蒙上恩，任邊塞之重鎮，固當砥礪節義，圖報聖恩之萬一，乃不顧此，惟欲是從，既於部民，勒買牛馬，乃與彼人，私相質賣，輕犯邊禁，擅設屯田，私費所出，虛張人口，冒支公廩，其貪污不法，莫此爲甚．雖有射御之末技，何可復還其任，以爲一邑之表率乎？雖復用之，以如此之所犯，其能肅整軍令而鎮服民心乎？今此四鎮遠於京都，邦禁稍弛，境連彼土，利物繁滋，豈可赦金厚之罪，以啓萬人謀利之心乎？須當痛繩贓污之徒，以嚴邊鄙之令可也．況贓吏不斂之法，著在令甲，何至金厚，特垂恕假，輕毀成憲乎？大抵人之犯禁者，畏人之知而不敢恣行，若知而不禁，則非惟此人之無所忌憚，他人之聞此者，亦無所忌矣．且近年以來，禁部民之告訴，而守令犯禁者頗多．有如金厚之徒，毋或以貸，罰一勸千可也．《傳》曰：“禮義廉恥，是謂四維，四維不張，何以爲國？”又曰：“賞罰無章，何以勸沮？”此臣等所以再瀆聖聰而不已者也．伏望亟收是命，以勸廉恥，以明賞罰．不允．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염치는 선비의 대절(大節)이옵고 상벌은 나라의 중한 법전입니다. 그러므로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면 탐묵하는 풍습이 그치지 아니하고, 상벌이 중도를 잃으면 권하고 징계하는 도리가 뚜렷하지 않는 것이온데, 어찌 탐오하고 청렴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진(邊鎮)의 중임을 주어서 권하고 징계하는 도리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김후(金厚)는 별다른 재주도 없이 다만 무예로 특별히 성상(聖上)의 은혜를 입사와 변세의 중진(重鎮)을 맡았었으니, 마땅히 절의를 닦아서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도모했어야 하거늘, 이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욕심만 좇아 이미 부민(部民)에게 강제로 우마를 사게 하여 저들과 사사로이 무역하여 경솔히 변방의 금법을 범한데다, 제멋대로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사사로이 소출을 소비하고 허위로 인구를 늘리어 공름(公廩)을 속여 지출하였으니, 그 탐오하고 불법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활 쏘고 말 달리는 말기(末技)가 있더라도 어찌 다시 환임하여 한 고을의 표술(表率)을 삼을 수 있겠으며, 비록 다시 쓴다 하더라도 이와 같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은 범죄를 가지고 어찌 군령을 숙정(肅正)하고 민심을 진압하여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4진(鎭)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나라의 금법이 점점 해이하여지고, 지경이 저쪽 땅에 연접하여 이익되는 물건이 번성하게 불어나는데, 어찌 김후의 죄를 용서하여 만인의 모리하는 마음을 열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장물을 탐하는 더러운 무리를 통절히 다스려서 변방의 영(令)을 엄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물며 장리(贓吏)를 서용하지 않는다면 법이 영갑(令甲)에 나타나 있는데, 어찌 김후(金厚)만을 특별히 용서하여 성헌(成憲)을 가볍게 무너뜨리십니까. 대저 금법을 범한 자는 남이 알까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알고서도 금하지 않는다면 비단 이 사람만이 기탄이 없게 될 뿐 아니라, 이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또한 꺼릴 것이 없을 것이오며, 또 근년 이래로 부민(部民)의 고소를 금한 까닭으로 수령이 금법을 범하는 자가 꽤 많으니, 김후(金厚) 같은 무리가 있으면 혹시라고 용서하지 말아서, 한 사람을 벌하여 천 사람을 권함이 옳을 것입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예(禮)·의(義)·염(廉)·치(恥)를 가지고 사유(四維)라 하였으니, 사유(四維)가 해이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하였고, 또 말하기를, ‘상벌(賞罰)의 법이 없다면 무엇으로 권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신 등이 두 번이나 성충(聖聰)을 번독(煩瀆)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엇드려 바라옵건대, 빨리 이 명령을 거두시고 엄치를 권하고 상벌을 밝히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 105권 26년 7월 6일 癸丑

癸丑/議政府啓: “各處祈雨後, 迨今不雨, 請依古制, 禁屠殺斷傘扇.” 從之.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처에서 기우제를 거행한 뒤 지금에 이르도록 비가 오지 않사오니, 옛 제도를 따라 도살(屠殺)과 산선(傘扇)을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05권 26년 7월 17일 甲子

議政府據兵曹呈啓: “濟州牛馬賊眞犯人, 依已曾受教, 使之出陸, 入送平安道, 至於知情隣保人, 並皆一體科罪, 全家入居, 輕重失宜. 自今知情隣保人, 依刑典知情不首條, 分揀科罪.” 從之.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인(眞犯人)은 이미 일찍이 내린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육지에 나오게 한 뒤에 평안도에 입거(入居)시킨 것은 물론 범죄의 실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과죄(科罪)하여 전가(全家)를 평안도에 입거시키게 되어 형벌의 무게고 가벼움이 마땅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범죄의 실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는 형전

(刑典)의 ‘정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범과 구분하여서 과죄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05권 26년 閏7월 25일 壬寅

壬寅/下教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農者, 衣食之源, 而王政之所先也. 惟其關生民之大命, 是以服天下之至勞. 不有上之人誠心迪率, 安能使民勤力趨本, 以遂其生生之樂耶? 若古神農, 始爲耒耜, 以利天下; 少昊命九扈, 以掌農事, 此聖神所以繼天立極而爲億兆立命者也. 堯命羲、和, 敬授人時; 舜咨十二牧, 食哉惟時; 夏后氏盡力乎溝洫; 商宗知小人之依; 至于周家, 以農事開國. 《豳風》之詩、《無逸》之作, 無非拳拳於稼穡之艱難, 以成長治久安之業, 其盛矣哉? 漢文帝數下詔書, 歲勸種樹, 減租賜農, 海內殷富; 唐高祖詔牧宰, 務從簡靜, 使不失時. 太宗每謂群臣曰: “營衣食, 不失時爲本.” 其致斗米三錢之效, 豈無所由! 宋制置勸農司, 歲終賞罰, 又令州縣每歲載酒出郊, 延見父老, 諭以竭力耕田之意, 蓋亦有見於此歟? 洪惟我太祖應運開基, 首正田制, 拯民塗炭, 俾享耕鑿之利, 其勸課之條, 具在令甲. 太宗繼述, 益勤播獲之功, 特慮愚民昧於樹藝之宜, 命儒臣, 以方言譯農書, 廣布中外, 以傳于後. 寡予承緒, 夙夜兢惕, 仰惟前代時若, 惟祖宗是憲, 顧以農務, 當責近民之官, 是用愼簡, 親加勉諭. 且令逮訪州縣因地已試之驗, 輯爲《農事直說》, 務使田野之民曉然易知, 儻可以利於農者, 靡不悉心究舉, 期於人盡其力, 地無遺利, 而民無蓄積之餘, 歲一不登, 輒有飢色, 是吏奉吾教不力, 而從事焉尙寡也, 予甚慮焉. 嘗觀古之賢守, 能興利一方, 而民受實惠者, 莫不以勤勞而成. 龔遂爲渤海, 務勸農桑, 民有帶持刀劍者, 使買牛犢, 春勸趨田, 冬課收斂, 民皆富實. 召信臣爲 南陽, 好爲民興利, 躬勸耕農, 出入阡陌, 稀有安居, 行視水泉, 開通溝瀆, 以廣灌溉, 民得其利, 莫不力田. 任延爲九真, 其俗以射獵爲業, 不知牛耕, 每致困乏, 乃令鑄作田器, 教之墾闢, 歲歲開廣, 百姓充給. 辛纂爲河內, 督勸農桑, 親自檢視, 勤者資以帛物, 惰者加罪.

이하생략~

하교(下教)하기를,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인데, 농사(農事)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왕자(王者)의 정치에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오직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천명에 관계되는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勞苦)를 복무(服務)하게 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誠心)으로 지도하여 거느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써서 농사에 종사하여 그 생생지락(生生之樂)을 완수(完遂)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 옛날 신농씨(神農氏) 같은 이는 처음으로 쟁기와 보습[耒]을 만들어서 천하를 이롭게 하였고, 소호씨(少昊氏)는 구호(九扈)에게 명령하여 농사를 맡게 하였다. 이것은 고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대(古代)의 성군(聖君)이 하늘의 뜻을 이어 지극히 바른 도(道)를 세워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천명을 수행한 것이다. 요(堯)임금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령하여 공경하여 백성에게 농사짓는 때를 주게 하였으며, 순(舜)임금은 십이목(十二牧)에게 의논하기를, ‘먹는 것은 오직 농사의 때를 지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하후씨(夏后氏)는 구혁(溝洫)에 진력(盡力)하였고, 상(商)나라의 조상은 세민(細民)의 의지하는 바를 알았었다. 주(周) 나라에 이르러서는 농사로서 나라를 개척하였으니 《시경(詩經)》의 빈풍편(豳風篇)의 시에서나,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의 저작에 있어서 농사의 힘들고 어려움을 정성껏 마음에 지니지 않은 것이 없어서 깊이 다스리고 오래도록 편안한 왕업(王業)을 이루었다. 홀륭하게도 한(漢) 나라의 문제(文帝)는 자주 조서(詔書)를 내려서 해마다 나무 심기를 권하고 조세를 감하며 농경지를 주니, 나라 안이 은성하고 부유하였으며, 당(唐)나라의 고조(高祖)는 목재(牧宰)에게 조서를 내려 힘써서 간이하고 고요한 행정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농시(農時)를 잃지 않게 하였고, 태종(太宗)은 매양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영위(營爲)하는 데에는 농사 때를 잃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된다.’ 하였으니, 그가 쌀 한 말에 3전(錢)하는 실적(實績)을 이루게 한 것이 어찌 그 인유(因由)한 바가 없었겠는가? 송(宋) 나라의 제도에는 권농사(勸農司)를 두고, 연말에 그 성적에 따라 상벌(賞罰)을 시행하였으며, 또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매년 술을 준비해 가지고 들에 나가서 부로(父老)들을 맞이하여 보고 농사에 힘을 다하라는 뜻을 타이르게 한 것은, 아마 또한 여기에 보는 바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크게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천운(天運)에 순응하여 나라의 터전을 여니, 제일 먼저 전제(田制)를 바로잡아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 내어 농사의 이(利)를 누리게 하였으니, 그 농사를 권장하신 조목이 법령에 갖추어 있다. 태종(太宗)이 왕업을 계승하시어 더욱 씨 뿌리고 수확하는 일을 더욱 힘쓰셨다. 특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심고 가꾸는 방법에 어두운 것을 염려하셔서 유신(儒臣)에게 명령하여 우리나라의 말로 농서(農書)를 번역하게 하여 중앙과 지방에 널리 반포하시고 후세에 전하였다. 과덕(寡德)한 내가 왕업을 계승하여서는 밤낮으로 겁내고 두려워하노니, 우리러 전대(前代) 때에 이러하였음을 생각하고 오직 조종(祖宗)을 법으로 한다. 돌아보건대, 농무(農務)는 마땅히 백성에게 가까운 관리에게 책임을 맡겨야 하는 것이므로, 그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임명하고 친히 격려하고 효유하였다. 또 차례로 주현(州縣)에 물어서 그 땅에서 이미 시험한 결과를 모아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만들어 농민들로 하여금 흔히 쉽게 알도록 하기에 힘썼으며, 혹이나 농사에 이(利)로울 만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여 거론(擧論)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 힘을 다하고 땅에는 버려 둔 이(利)가 없게 되기를 기대하였는데, 백성들에게는 저축할 여유가 없어서 한번 흉년이 들면 문득 굶주린 얼굴들을 하니, 이것이 어찌 아전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들어 힘써 종사하지 않음이 적기 때문이겠는가? 내가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일찍이 옛날의 어진 수령들을 살펴보건대, 한편에서 이(利)로운 일을 일으켰을 때에 백성이 실지의 혜택을 받은 것은, 부지런히 노력(勞力)하여 이루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龔遂)가 발해(渤海)의 수령이 되어서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을 힘써 권장하였는데, 백성들이 도검(刀劍)을 차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소와 송아지를 사게 하였으며, 봄에는 밭에 나가 일하기를 권하고 겨울에는 곡식들을 거두어 모으게 하니, 백성들이 다 부유하고 충실하게 되었다. 소신신(召信臣)은 남양(南陽)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 백성을 위하여 이(利)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여 몸소 경농(耕農)을 권장(勸獎)하느라고 들에 나다니면서 편안히 앉아

있는 때가 적었다. 가다가 물이나 샘을 보면 도랑을 만들어 관개(灌漑)를 넓히니, 백성들이 그 이(利)를 얻어서 농사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임연(任延)이 구진(九真)의 수령이 되니, 그곳의 풍속은 사냥을 생업(生業)으로 하고 소를 부려 농경(農耕)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번번이 곤핍(困乏)하게 되므로, 이에 농기구(農機具)를 주조(鑄造)하여 개간(開墾)을 가르치고, 해마다 개간을 넓히니 백성들이 자족자급(自足自給)하게 되었다. 신찬(辛纂)은 하남(河南)의 수령이 되어서 농상(農桑)을 독려하고 권장하되, 친히 스스로 살펴보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포백(布帛)과 물화(物貨)를 주어 돕고, 게으른 자에게는 죄를 주었으며, 이하생략~

▶ 106권 26년 10월 9일 甲寅

甲寅/視事. 上謂左右曰: “今盜賊興行, 是予不能制民之產, 使之失所故也, 予甚愧焉. 往日, 卿等議弭盜之方云: ‘三犯竊盜, 勿論赦前, 置於法.’ 予觀隋史, 有二人共盜一瓜, 置之於死. 且古者刑亂國用重典, 其於盜賊, 固當用重典矣. 然《大明律》, 乃高皇帝參酌古制, 以爲萬世通行之法. 且《唐律疏議》, 盛唐之制, 而極爲詳明. 觀此二律, 未有勿論赦前之文, 豈可輕改律文而殺人乎? 然律文未見有赦後三犯之語, 則竊疑律文之意, 無乃本勿論肆赦之前後, 而我國特未之詳也? 若不如是, 則蓋刑罰不可無, 用刑亦不得已也. 我國用刑, 一依律文, 然一人死刑, 猶心有所不忍, 況可忍改律文而多殺人乎? 當更議重刑以懲之也. 曩者鄭淵爲刑曹判書時, 啓: ‘若勿論赦前, 則死者頗多.’ 予深然其言. 且丙辰丁巳年間, 多有死刑, 承旨許詡知刑曹, 常加刻慮, 予亦留意, 生活者甚多.” 右參贊權踞啓: “臣之農莊, 在衿川縣, 其里人無慮二十餘戶. 賊盜里人牛, 不二三年, 農牛殆盡. 臣又聞忠清道忠州一家有夫婦獨居者. 夜, 賊盜牛以去, 其家知之, 畏其遇害, 且慮後日之患, 遂不敢言, 亦未得訴於官. 賊盜暴橫, 至於此極, 若不早圖, 則其漸甚可畏也. 蓋高麗時, 全羅、忠清、慶尙三道, 寇賊盛行, 乃至興兵勦滅之. 又冠岳奴軍之賊, 父老至今傳言. 臣前此但聞才人禾尺爲盜賊矣, 今則賤(隸)〔隸〕商販者, 皆化爲賊, 竊彼而賣此, 竊此而賣彼, 其黨布散中外. 我朝屢頒赦宥, 賊徒預料恩赦, 尤恣爲盜賊, 以聖上欽恤之意, 固所不忍. 臣等竊念宜當早圖, 勿使滋蔓. 若不早圖, 悔無及矣.” 上曰: “不可預料後日之事而輕用重典也.” 禮曹判書金宗瑞啓: “臣聞故慶城府使金厚妻居於兎山, 夜群盜四十餘騎突至圍之, 或拔劍, 或持杖脅厚妻妾奴婢, 盡奪財產, 遂擊殺婢子. 如此之類頗多, 必將爲末流之患, 請勿論赦前科斷.” 上曰: “今年七月頒赦時, 政府啓: ‘赦文稱竊盜外.’ 予然其言, 但其時事出怱怱, 又懼天變嚴重, 竟未敢焉. 然赦者, 乃人君盪滌前日之罪惡, 與之更始, 其竊微物者, 並不赦宥, 無乃不可乎?” 踞又啓: “赦文稱竊盜外, 則臣意盜賊稍自弭矣.” 右副承旨朴以昌啓: “臣聞頃者盜賊聞朝廷勿論赦前三犯處死之議, 稍自寢息, 今復盛矣.” 上曰: “盜賊雖聞此言, 其効不應如此之速也.” 刑曹參判黃致身啓: “今有一見囚賊, 一月之內, 盜殺馬三四、牛二頭. 以此觀之, 竊慮民間牛馬, 將殆盡矣. 盜賊雖被斷跟, 後乃復續, 不以爲畏, 朝經赦宥, 夕爲盜竊, 略不懲艾.” 上曰: “斷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跟者, 果有復續乎? 然則我國之人, 無乃不知斷跟之法歟? 古有投畀有北之語, 則古亦罪重者, 流之遠地. 今盜私物者, 亦計贓, 以贓之多少, 定罪之輕重, 以至杖一百流三千里何如?” 跽又啓: “雖流三千里之外, 非久還逃, 盜賊如舊, 流之遠方, 無益於弭盜也.” 上曰: “雖皆還逃, 其往來之間, 亦已苦困矣.” 跽曰: “我國之地最遠者, 莫如兩界. 境連虜地, 彼皆無賴之徒, 使居于此, 亦可畏也.” 戶曹判書鄭萃啓: “虜地但隔一江, 若渡江投虜, 則非小事也.” 上曰: “濟州, 四方環海, 無相往之所, 流之濟州何如?” 萃對曰: “濟州, 產馬之地, 我國良馬, 皆出於此. 若盜賊聚居于此, 盜殺牛馬, 則亦不可也.” 大司憲李堅基啓: “昔者着皮鞋者鮮少, 今人人皆着, 故皮價湧貴, 盜牛馬者益多.” 上曰: “不得已用皮則固難禁也.” 上又曰: “予思盜賊黥面之法, 貧窮之民, 偶一竊盜被黥面, 則無所容迹而益致貧窮矣. 予甚憐之, 欲停此法, 何如?” 跽對曰: “盜賊, 非必貧民, 皆豪富強勇者也, 略無可憐也.” 萃啓曰: “臣家前有富人, 近日逮繫刑曹, 籍其家產. 臣家僕隸往見之, 盜賊時器械, 不可勝計矣.” 上曰: “予當更思弭盜之方, 卿等亦與議政府六曹熟議以聞.” 仍謂萃曰: “常慮漕轉之事, 未得其要. 前年平安漕轉, 予甚難之, 然賑民事急, 不得已而爲之, 乃致覆沒. 今尹得洪漕轉在十月上旬前, 則無敗覆之患, 然或有敗沒之時, 予以謂在人謀之不善也.” 萃對曰: “敗船之狀, 時未覆訖, 臣未得其詳. 然臣亦竊料凡敗船者, 皆於大海之中, 則實非人謀之可及, 率皆泊於浦口而致敗, 則誠如聖教在人謀之不臧也.” 上曰: “今凡干漕轉之事, 卿悉皆監掌措置.”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도적이 많이 다닌다 하니, 이것은 내가 백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살 곳을 잃은 때문이니 내 심히 부끄럽게 여기노라. 지난번 경 등이 도적을 줄이는 방법을 의논할 때, ‘3범(犯)한 절도(竊盜)는 은사(恩赦) 전이라도 상관할 것 없이 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수(隨)나라 역사를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참외 한 개를 도적질했는데 사형에 처하였다.’ 했고, 또 옛날에 문란함을 형벌함에는 나라에서 무거운 법을 썼으니, 도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거운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명률(大明律)은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옛날 제도를 참작하여 만세에 통용할 수 있게 만든 법이고, 또 당률소(唐律疏議)는 성당(盛唐) 때에 제정한 것으로서 극히 자상하고 분명한데, 이 두 법전에는 은사(恩赦) 전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으니, 어찌 가볍게 법조문을 고쳐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조문에 은사 후의 3범에 대한 말도 없으니,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조문의 본의가 본디부터 은사(恩赦)를 실시함에 전후는 상관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자상히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저 형벌이란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형벌을 실행하는 것도 또한 부득이한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서 형벌을 실행함에는 일체 법조문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오히려 마음으로 차마 못하겠거든, 하물며, 법조문을 고쳐 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무거운 형벌로 징계하는 것은 마땅히 의논할 일이다. 요전에 정연(鄭淵)이 형조판서가 되었을 때 아뢰기를, ‘만일 은사(恩赦) 전을 상관하지 않고 법대로 하면 사형될 자가 꽤 많을 것입니다.’ 하기에, 나도 그 말을 깊이 시인하였다. 또 병진·정사년 사이에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그 때 승지 허후(許詡)가 형조 일을 맡아 보면서 항상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나도 또한 유의

를 하여서 살아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 하였다. 우참찬(右參贊) 권제(權躋)가 아뢰기를, “신의 농장이 금천현(衿川縣)에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20여 호가 되었는데, 도둑놈이 마을 사람의 소를 도둑질해 가므로 2, 3년 안에 농우(農牛)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신이 또 들으니, 충청도 충주(忠州)에는 어떤 집에 부부(夫婦)만이 살고 있는데, 밤에 도둑놈이 소를 도둑질해 가는 것을 그 집에서 알고서도, 그 놈한테 피해당할까도 무섭고, 또 뒷날의 후환도 염려가 되어서 그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한 관에 고소하지도 못하였다 합니다. 도둑놈들의 포악하게 횡행함이 이렇게 극심하오니, 만약 일찍이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그 조짐의 결과가 매우 두렵습니다. 대저 고려 때에는 전라·충청·경상 3도에 도둑이 심히 성해서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그것을 소탕한 적도 있었고, 또 관악노군(冠岳奴軍)이란 때 도둑은 지금까지 늙은이들의 전하는 말인데, 신이 전에 듣기에는 다만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 따위가 도둑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은 천민이나 장사치들이 다 도둑놈이 되어서 저것을 훔쳐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훔쳐서 저기에 팔아, 그 동아리가 중외에 퍼져 있고, 국초 이래로 여러 번 은사령(恩赦令)을 베풀어 주니, 도둑들은 은사(恩赦)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더욱 도둑질을 자행하오니, 성상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뜻으로는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오나, 신들이 생각하기는 마땅히 일찍 잡도리해서 더욱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하겠사오니, 만약 일찍이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뒷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무거운 벌칙을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 하였다. 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신이 듣자오매, 죽은 경성 부사(慶城府使) 김후(金厚)의 처가 토산(兎山)에 사옵는데, 밤에 때도둑 40여 명이 말을 타고 갑자기 와서 포위하고 칼을 뽑아 든 놈, 몽둥이 가진 놈들이 김후의 처첩과 노비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다 빼앗고 계집종을 때려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따위의 일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장차 끝내의 후환이 되겠습니다. 은사(恩赦) 전을 상관할 것 없이 법대로 처단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7월에 은사(恩赦)를 반포하던 때에 정부에서 아뢰기를, ‘은사문(恩赦文)에 「절도외(竊盜外)」라는 글귀를 쓰시옵소서.’라고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다만 그때도 일이 총망중에 생겼던 것이고, 또 천변(天變)이 엄중하였음을 두려워해서 끝내 그것을 빼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임금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자는 것이니, 사소한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조리 용서해 주지 아니함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권제가 또 아뢰기를, “은사문에 절도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신의 의사로는 그렇게 하면 도적이 차차로 줄어 들 것입니다.” 하고, 우부승지 박이창(朴以昌)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지난번에도 도둑놈들이 조정에서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3범은 다 사형에 처하기로 의논한 것을 듣고서 약간 스스로 잠잠하더니, 요사이 다시 성해진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둑이 비록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 효과가 아마 이렇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형조참판 황치신(黃致身)이 아뢰기를, “지금 간혀 있는 도둑놈 하나가 한 달 동안에 말 3필과 소 2마리를 도둑질하여 죽였다 하오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민간의 말과 소가 장차 거의 없어질까 매우 걱정됩니다. 도둑놈은 비록 발꿈치를 베어버려도 뒤에 또 도적질을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은사를 받고도 저녁이면 또 도둑질해서 조금도 징계하여 고치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발꿈치를 베인 자도 과연 또 계속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꿈치 베는 법을 모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극북으로 쫓아낸다[投畀有北]는 말이 있으니, 옛날에도 죄가 무거운 자는 먼 지방으로 쫓아내었던 것이다. 지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장물을 계산하여 장물의 많고 적음으로서 죄의 경중을 정해서, 장(杖) 1백과 유(流) 3천 리까지로 함이 어떠할까.”하니, 권제가 또 아뢰기를, “비록 3천 리 밖으로 귀양 보낸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도망쳐 돌아와서 전처럼 도둑질할 것이니, 먼 곳에 보내 보아도 도둑이 적어지는 데는 유익이 없습니다.”하매, 임금의 말하기를, “비록 도망해 돌아온다 해도 그 왕래하는 동안에 역시 이미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것이 된다.”하니, 권제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땅으로는 가장 먼 것이 함경도·평안도 두 도의 국경이운데, 국경은 오랑캐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오랑캐들은 다 부랑한 무리이니 거기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하고, 호조판서 정분(鄭分)도 아뢰기를, “오랑캐 땅과는 강 하나 사이여서, 만약 강을 건너 가서 오랑캐에게 붙어 버리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 제주로 귀양 보냄이 어떠할까.”한즉, 분이 대답하기를, “제주는 말이 많이 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 좋은 말은 다 여기서 납니다. 만약 도둑들이 여기 모여 살게 되면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일 것인즉 그것도 불가합니다.”하고, 대사헌 이견기(李堅基)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가축신 신는 자가 드물더니, 요사이 사람들이 다 가축신을 신기 때문에 가축 값이 사뭇 치솟아 올라가매, 소와 말을 도둑질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하여 가축을 쓰면 실로 말릴 수도 없을 것이다.”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 도둑에게 경면(黥面)하는 법을 생각해보니, 가난한 백성이 어찌다 한번 절도질을 하였다가 경면을 당하면, 자기 자취를 어디에 용납할 수가 없어서 더욱 가난하고 궁하게 될 것이므로, 내 심히 안타까워서 이 법을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할까.”하니, 권제가 대답하기를, “도둑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두 호화롭고 부유하고 억세고 용맹한 자들이니 조금도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하고, 분(分)은 아뢰기를, “신의 집 앞에 부자가 있는데, 근일에 형조에 걸리어 그 가산을 압수하게 되었는데, 신의 집 하인들이 가서 본즉, 도둑질할 때에 쓰던 기구와 기계가 이루 셀 수가 없더라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도둑 없애는 방책을 다시 생각하려니와, 경들도 의정부 및 육조와 함께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하고, 정분에게 이르기를, “배로 곡식 실어나르는 일을 항상 걱정하되, 아직껏 요령을 얻지 못하였는데, 전년에 평안도에 곡식을 나를 때에 내가 매우 어렵게 여겼으나, 기민(飢民)을 진휼할 일이 급하기에 어쩔 수 없어서 하게 하였더니, 그만 복선(覆船)이 되었고, 이번 윤득홍(尹得洪)이 신고 간 것은 10월 상순 전이었는데 복선의 실패는 없었다. 그러나 혹 복선되는 때가 있는 것은 사람 기술의 잘못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하매, 분이 대답하기를, “복선(覆船)된 상황을 아직 다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나, 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릇 파선하는 것이 큰 바다 한가운데 같으면 실로 사람의 재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대개 포구(浦口)에 닿아서 실패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이 사람 기술의 잘못에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배로 나르는 데에 관한 일은 경이 다 보살피 맡아서 조치하라.”하였다.

▶ 106권 26년 10월 11일 丙辰

丙(申) [辰] / 領議政黃喜、右議政申概、左贊成河演、工曹判書崔府、兵曹判書韓確、左參贊權踞、吏曹判書朴安臣、禮曹判書金宗瑞、戶曹判書鄭笨、刑曹參判黃致身、禮曹參判尹炯、工曹參判安止、戶曹參判李季隣等議弭盜之方曰：“今盜賊滋熾，賊害良民，當用重典。請自今贓滿一貫以上者、**結黨二人以上者及盜牛馬者**，初犯依律決杖刺面，再犯斷筋，三犯依律處死。其無同黨，而未滿一貫者，除刺面斷筋，只依律文施行。如有赦宥，勿并赦竊盜。”右參贊李叔時議：“凡強盜，不計赦前，勿論徒黨贓物多少，不分首從，竝皆處斬，然未聞強盜衰息。今竊盜雖并置律外重刑，彼皆飢寒切身，何有改心？徒有煩刑之名，而恐無其効。已成之法，足爲詳密，令中外官吏申明考察爲便。**唯盜殺牛馬者，罪本匪輕，不待再犯，初犯假屬官奴爲便。**”從喜等議，但勿斷筋，初犯，右臉上，刺竊盜二字；再犯，左臉上，又刺竊盜二字。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申概)·좌찬성 하연(河演)·공조판서 최부(崔府)·병조판서 한확(韓確)·좌참찬 권제(權踞)·이조판서 박안신(朴安臣)·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호조판서 정분(鄭笨)·형조참판 황치신(黃致身)·예조참판 윤형(尹炯)·공조참판 안지(安止)·호조참판 이계린(李季隣) 등이 도둑을 없앨 방법을 의논하기를,

“지금 도둑이 많이 퍼져서 양민을 적해(賊害)하고 있으니, 마땅히 중형을 써야 하겠습니까.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장물이 1관(貫) 이상이 되는 자와 2인 이상으로 **도당(徒黨)을 지은 자와 소나 말을 도둑한 자는** 초범일 때는 법률에 의하여 결장(決杖)과 자면(刺面)에 처하고, 재범일 때는 단근(斷筋)에 처하고, 3범일 때에는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며, 그 중에 도당을 짓지 아니하고 장물이 1관이 되지 못한 자는 자면과 단근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은사(恩赦)가 있을 때라도 절도범(竊盜犯)은 은사하지 않기로 하소서.”

하고, 우참찬 이숙치(李叔時)는 의논하기를,

“무릇 강도에 범한 자는 은사 전을 관계할 것 없이, 또 도당(徒黨)이 있거나 없거나, 장물이 많거나 적거나 논할 것 없이, 또 두목이거나 졸개거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처참해 왔으나, 아직 강도가 줄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절도죄는 아무리 다 법조문 이외의 중한 형벌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다 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한데 어떻게 마음을 고칠 것입니까. 한갓 형벌만 번거롭게 하는 명색뿐이고,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법으로도 족히 자상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으니,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더욱 밝히고 고찰하게 함이 좋을까 합니다. **다만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죄가 본디 가볍지 아니하니, 재범을 기다릴 것 없이 초범부터 우선 관노(官奴)에 속하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황희 등의 의논에 따르게 하되, 다만 단근(斷筋)은 하지 말고 초범은 오른 뺨 위에 ‘절도(竊盜)’ 두 글자를 자자하기로 하였다.

▶ 106권 26년 10월 23일 戊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咸吉道都觀察使鄭甲孫馳啓：“臣觀五鎮守禦之狀，自北青至富居各官甲士二百九十四，充補甲士八十八，正軍九百四十五，摠計一千三百二十七。自洪原至安邊各官甲士一百三十七，充補甲士七十一，正軍一千二百三十三，摠計一千四百四十一。其當領甲士一百名則勿論事變有無，常在戍役，其餘則自北青至富居各官軍士自三月至五月，又自八月至十一月，使之赴防。無事變則量其聲息緊慢調發，或分爲一，或分爲二，分戍各鎮，如有不得已徵聚之事，則傳報兵曹，取旨施行，其法已立，而或有事變，擅自徵聚，有乖立法之意。今觀邊將馳報賊變之狀，野人或來謁見，先問賊變聲息，野人告變，則饋遺優厚，雖所告不實，竟無譴責，故爭先告變，邊將不分虛實，卽馳報都節制使，亦難遙度，馳傳移牒，使南道軍士贏糧合番，悉令赴防軍士等持器械備糗糧，或三十日或二十日或十五日，險遠道路，倍日兼程，其馬畜生還者無幾，防(戍)〔戍〕之苦，無歲無之，徵發相繼，還者未及其家，旅輒徵戍，其弊無窮。古人云：“一夫不耕，或受之飢；一女不織，或受之寒。”道內人民，本無奴婢，名爲甲士正軍者，皆身自業農，當赴防時，其帶去者，幾至三四人，其存者，但婦女老幼而已。由是產業日弊，流亡相繼，誠爲可慮。五鎮軍卒勇悍，器械精強，將帥知兵，善於應變，則蕞爾鼠竊，拘盜不假，南道疲卒，戰守有餘。自穩城至鍾城、童關，雖五鎮要衝，然已築行城，防戍稍輕。北青以北各官當番甲士外，其餘軍士，依洪原以南軍士舊例，分爲三番，無事變時則一番赴防，邊將分戍要害之地。至於五鎮邑城及賊變無虞各堡，則不必分戍，刺探賊變虛實，若實有其變，出軍多少，量聲息緊慢，徵聚洪原以南各官，除當番甲士外，毋得常令赴防。若有大舉之賊，量其軍數，報兵曹取旨施行。且都節制使軍官之廝養隸卒，稱爲隨營軍，發利城、端川、鏡城、吉州等人充之，其數二百餘人，番休裹糧，迭相來往，其弊不少。今觀都節制使營奴婢，數不下三百餘名，請以此代隨營軍之役。且觀察使，非但統察一方，職帶提調兵馬，而別例軍士徵聚時，專不干涉，有違統察之意。自今若值別例徵軍之時，都節制使移牒監司，以爲恒(或)〔式〕。”

이하생략~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5진(鎭)의 방어하고 수비하는 상황을 보오니, 북청(北淸)으로부터 부거(富居)에 이르기까지의 각 고을에 갑사(甲士) 2백 94, 충보 갑사(充補甲士) 88, 정군(正軍) 9백 45로 합계 1천 3백 27명이웁고, 홍원(洪原)에서 안변(安邊)에 이르기까지의 각 고을에 갑사 1백 37, 충보 갑사 71, 정군 1천 2백 33으로 합계 1천 4백 41명이웁는데, 그 중에 당령 갑사(當領甲士) 1백 명을 사변(事邊)의 유무를 물론하고 항상 수역(戍役)에 있고, 그 외에는 북청에서 부거까지 사이의 각 고을 군사는 3월부터 5월까지, 또 8월부터 11월까지 부방(赴防)하게 하는데, 사변이 없으면 성식(聲息)의 완급(緩急)을 헤아리어 소집하되, 혹 한 곳에 한 패씩으로 하든지 한 곳에 두 패씩으로 하든지 하여 각진(各鎭)을 나누어 방비하게 하고, 만약 부득이 징집할 일이 있으면 병조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이런 법이 이미 세워져 있사운데, 혹 사변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제 자작으로 징집을 하는 것은 법을 세

은 본의에 어긋남이 되웁니다. 지금 변방 장수가 적변(賊變)의 상황을 치보(馳報)한 것을 보옵건대, 야인이 혹 와서 알현(謁見)하면 먼저 적변(賊變)의 소식을 물어보는데, 야인이 사변을 고하면 음식과 물건을 후하게 주고, 비록 보고가 사실과 같지 않아도 문책(問責)하는 일이 없으므로, 야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면서 사변을 고합니다. 변방 장수는 그 보고의 허실(虛實)을 가리지 않고 즉시 치보(馳報)하고 도절제사도 역시 먼 곳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급히 서울로 이첩(移牒)을 하여, 남도(南道)의 군사들로 하여금 양식을 싸 가지고 번(番)을 합쳐서 모두 부방(赴防)하게 합니다. 군사들은 병기를 가지고 군량을 지고서 혹은 30일, 혹은 20일, 혹은 15일 동안이나 멀고 험한 길을 주야 갑절로 겸행하므로, 말 짐승[馬畜]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 없는 형편입니다. 방수(防戍)에 나가는 고생이 없는 해가 없이 징발이 잇달아서 갔다 오는 자가 제 집에까지 닿지도 못해서 뒤집어 곧 징발되기도 하여, 그 폐해가 끝이 없사옵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내가 농사짓지 아니하면 굶는 자가 생겨나고, 한 여자가 베를 짜지 아니하면 추위에 떠는 자가 생긴다.’ 했는데, 본도의 백성들은 본디 노비(奴婢)가 없고, 명색이 갑사(甲士)나 정군(正軍)이 된 자는 다 제 몸으로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자인데, 부방(赴防)할 때를 당하면 각기 데리고 가는 자가 거의 3, 4명씩 되므로 그 남아 있는 것은 다만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뿐이니, 이 때문에 산업이 날로 피폐해지고 도망가는 자가 서로 잇달게 되니, 참으로 염려되는 바입니다. 5진(鎭)은 군졸이 용감하고 역세며, 병기가 정밀하고, 튼튼하니 장수들이 군사 쓸 줄을 알고 임기응변을 잘할 것 같으면, 그까짓 쥐새끼 같고 개 도둑 같은 것들은 남도에서 올라온 피곤한 군졸의 힘을 빌지 않아도 전투와 수비에 넉넉합니다. 온성(穩城)으로 부터 종성(鍾城) 동관(童關)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5진(鎭)의 요충(要衝)이오나, 거기에는 이미 행성(行城)을 쌓았으니 막고 지키기가 좀 수월할 것이고, 북청(北靑) 이북의 각 고을은 당번갑사(當番甲士) 이외에 그 나머지 군사들을 홍원(洪原) 이남의 군사의 전례에 의하여 3번으로 나누어서 사변이 없을 때는 1번만 부방(赴防)하게 하고서, 변방 장수가 요해지(要害地)를 나누어 지키우고, 5진의 읍성(邑城)과 적변(賊變)의 걱정이 없는 각 보루(堡壘)에는 반드시 나누어 지킬 것 없이, 적변의 허실(虛實)이나 탐정해 보고, 만약 실지로 사변이라도 있을 때는 병력을 얼마나 낼 지 정보의 완급을 헤아려서 징집할 것이고, 홍원 이남의 각 고을은 당번 갑사를 제한 이외에는 상시로 부방하지 말게 하고, 만약 크게 일어난 도적이 있을 때는 적군의 병력을 요량해서 병조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아서 시행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도절제사 군관(軍官)들의 마소 먹이는 심부름 졸병[廝養隸卒]들을 ‘수영군(隨營軍)’이라 하여 이성(利城)·단천(端川)·경성(鏡城)·길주(吉州) 등지의 사람을 가져다가 충당하는데 그 수효가 2백여 명으로서 번갈아 쉬면서 양식을 싸 가지고 교대하여 내왕하니, 그 폐가 적지 아니합니다. 지금 보건대, 도절제사 영(營)에 있는 노비가 3백여 명이나 되니, 이것으로 수영군의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관찰사는 한 지방을 통찰할 뿐만 아니라 병마(兵馬)를 제조(提調)하는 직책을 떠었는데, 별례(別例)의 군사를 징집할 때에 전연 간섭하지 아니함은 통할하는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만약 별례의 군사를 징집할 때를 당하면 도절제사가 감사에 이첩(移牒)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06권 26년 12월 28일 癸酉

傳旨禮曹：

今後社稷春秋及臘享、永寧殿春秋大享、宗廟、文昭殿、健元陵、齊陵、獻陵四時大享臘享，齋戒三日。文宣王春秋釋奠、風雲雷雨雩祀先農先蠶，齋戒二日，竝親傳香祝。以上各處祈禱祭及先王先后忌(晨)〔辰〕祭，齋戒一日。凡齋戒日，宴樂田獵刑罰屠殺舉哀弔喪問疾穢惡茹葷飲酒等事，一皆禁斷；各司亦毋得行拷訊刑殺決罰等事。

예조에 진지하기를,

“이후로 사직(社稷)의 춘추(春秋) 및 납향(臘享)과 영녕전(永寧殿)의 춘추 대향(春秋大享)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재릉(齋陵)·헌릉(獻陵)의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납향에는 재계(齋戒)를 3일간으로 하고 문선왕(文宣王)의 춘추 석전(釋奠)과 풍운뢰우(風雲雷雨)·우사(雲祀)·선농(先農)·선잠(先蠶)에는 재계를 2일간으로 하고, 향축(香祝)은 모두 친히 전하며, 이상 각처의 기도제(祈禱祭)와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신제(忌晨祭)에는 재계를 1일간으로 할 것이며, 모든 재계하는 날에는 잔치·풍악·사냥·형벌(刑罰)·도살(屠殺)·거애(舉哀)·조상(弔喪)·문병(問病)·더러운 일[穢惡]·매운 음식[茹葷]·술마시기[飲酒] 등의 일은 일체 금단하며, 각 관아에서는 고신(拷訊)·사형[刑殺]·결벌(決罰) 등의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108권 27년 3월 5일 戊寅

議政府據戶曹呈啓：“咸吉道穀種口食一萬石，開城府口食三千石、牛料豆五百石題給.”從之。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경도에 곡식 종자와 먹을 양식으로 1만 석, 개성부에 먹을 양식 3천 석과 소먹이콩 5백 석을 제급(題給)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08권 27년 4월 3일 丙午

丙午/議政府據禮曹呈啓：“兀良哈都萬戶浪卜兒罕言：‘五鎮人民，數盜野人牛馬，雖告于官，不肯用心推鞠，因此野人缺望，不得存接.’臣等竊惟自古撫夷之道，待之以誠，示之以義，彼雖頑猾，或有觀感歸順者矣。否則反是。今五鎮人民，與野人雜處，盜竊牛馬，恣行不已，彼人忿怨，來訴於官，托以無贓，亦不鞠問，先失自治之道，安有感化之理？非惟不服，必生罅隙。請嚴立禁防，如有犯者，窮推徵還，益篤懷綏。”從之。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올랑합(兀良哈) 도만호 낭목아한(狼卜兒罕)이 말하기를, ‘5진(鎭)의 인민들이 야인의 마소를 자주 도둑질 하는데, 비록 관에 고할지라도 마음을 써서 추국(推鞠)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오니, 이로 인해 야인들이 실망하여 붙어 살 수 없다.’고 하옵니다. 신 등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예로부터 오랑캐를 어루만지는 도리란 정성으로 대접하고 신의(信義)를 보이면, 저들이 비록 완악하고 교활할지라도 혹 보고 감동하여 귀순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반대가 되는 것이옵니다. 이제 5진(鎭)의 인민들이 야인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마소를 도둑질하고 방자한 행동이 그치지 아니하매, 저들이 분하고 원망스러워서 관에와 고하면, 장물(贓物)이 없다고 핑계하고, 또 국문(鞫問)하지 아니하여, 먼저 자치(自治)하는 도리를 잃었사오니 어찌 감화(感化)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반드시 틈이 생길 것이오니, 청하건대, 엄하게 금하는 법을 세워서 만일 범하는 자가 있거든 끝까지 추핵하여 거두어 돌려주어서 회유(懷柔)하기를 더욱 돈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08권 27년 4월 23일 丙寅

議政府據漢城府呈啓: “盜賊禁防條件, 至爲詳密, 然或隱於城內空家及幽僻處, 或雜處閭閻之間. 由是被賊之家, 無日無之, 府及刑曹每當衙日, 令各坊管領及隣里人等捕告. 然畏其讎嫌, 知而不告, 盜賊日興, 益無忌憚. 竊稽甲寅三月司憲府受教內: ‘牛馬宰殺荒唐人戶, 無時搜探.’ 乞依此例, 凡盜賊隱接可疑處, 亦并搜探捕捉.” 從之.

의정부에서 한성부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둑을 금방(禁防)하는 조건이 지극히 자세하고 세밀하오나, 혹은 성안의 빈 집과 유벽(幽僻)한 곳에 숨고 혹은 여염(閭閻) 사이에 섞여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도둑을 맞는 집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한성부와 형조에서 아일(衙日)을 당할 때마다 각방(各坊)의 관령(管領)과 인리(隣里) 사람들로 하여금 잡고 고발하게 하였으나, 원수의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므로, 도둑이 날마다 일어나되 더욱 꺼리는 바가 없사온데, 그옥이 상고하건대, 갑인년 3월 사헌부의 수교(受敎) 안에, ‘마소를 잡는 황당(荒唐)한 사람의 집에는 때 없이 수색하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이 예에 의하여 무릇 도둑이 숨을 만한 의심스러운 곳은 또한 아울러 수색하여 잡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1권 28년 1월 15일 己未

義鹽色啓: “今各道敬差官試驗煮鹽, 江原道三陟鐵盆九所, 役船軍六十名, 四十日煮鹽一百七十石, 和賣得布七十三匹, 雜穀三十二石, 餘鹽二十石. 京畿南陽土盆十三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役船軍一百四十名，十八日煮鹽六百四十四石，和賣得布二百四十八匹，雜穀三十一石，耕區牛價鹽三十四石，餘鹽七十九石。黃海道瓮津土盆四所，役船軍三十名，二十八日煮鹽三百五十九石，和賣得布六十七匹，牛價鹽六石，餘鹽五石。慶尙道東萊土盆十二所，役船軍一百二十名，十四日；又土盆十九所，役船軍一百九名，十五日煮鹽六百十六石，和賣得布十四匹，餘鹽五百九十七石。忠清道泰安鹽井土盆十四所，役船軍二百名，四十八日煮鹽一千二十三石，和賣得布一百六十一匹，雜穀一百四十八石，餘鹽三百九十五石。全羅道興陽土盆十所，役艘軍一百名，二十日煮鹽六百八十一石，和賣得布一百七十八匹、穀一百石，牛價鹽十六石，餘鹽一百八十七石。”

의염색(義鹽色)에서 아뢰기를,

“지금 각도(各道)의 경차관(敬差官)이 자염(煮鹽)을 시험했는데, 강원도 삼척(三陟)에는 철분(鐵盆) 9개에 사역한 선군(船軍) 60명이 40일 동안에 소금을 구어 만든 것이 1백 70석(石)인데, 화매(和賣)하여 얻은 베[布]가 73필, 잡곡(雜穀)이 32석이고, 남은 소금이 20석이며, 경기도 남양(南陽)에는 토분(土盆) 13개에 사역한 선군 1백 40명이 18일 동안에 소금을 구어 만든 것이 6백 44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布]가 2백 48필, 잡곡이 31석, 경구(耕區)의 소 값[牛價]으로 지불한 소금이 34석이고, 남은 소금이 79석이며, 황해도 웅진(甕津)에는 토분 4개에 사역한 선군 30명이 28일 동안에 소금을 구어 만든 것이 3백 59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布]가 67필, 소 값으로 지불한 소금이 6석이고, 남은 소금이 5석이며, 경상도 동래(東萊)에는 토분 12개에 사역한 선군 1백 20명이 11일 동안에, 또 토분 19개에 사역한 선군 1백 9명이 15일 동안에 소금을 구어 만든 것이 6백 16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가 10필이고, 남은 소금이 5백 97석이며, 충청도 태안(泰安)의 염정(鹽井)에는 토분 14개에 사역한 선군 2백 명이 48일 동안에 소금을 구어 만든 것이 1천 23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가 1백 61필, 잡곡이 1백 48석이고, 남은 소금이 3백 95석이며, 전라도 흥양(興陽)에는 토분 10개에 사역한 선군 1백 명이 20일 동안에 소금을 구어 만든 것이 6백 81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가 1백 78필, 곡식이 1백 석, 소 값으로 지불한 소금이 16석이고, 남은 소금이 1백 87석입니다.”

하였다.

▶ 111권 28년 1월 23일 辛卯

議政府據戶曹呈啓：“慶尙道稻種十九萬五千二百石、黃豆種三萬六千石、雜穀種六千一百石，全羅道牛料豆二萬石題給。”從之。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에 벼씨 19만 5천 2백 석과 황두(黃豆) 종자 3만 6천 석과 잡곡 종자 6천 1백 석을, 전라도에 소사료[牛料] 콩 2만 석을 제급(題給)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1권 28년 2월 4일 壬寅

議政府據戶曹呈啓：“請給平安道牛料豆一萬石、全羅道口食五萬石、忠淸道七萬六千四百石。”從之。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평안도에 소 사료[牛料] 콩 1만 석, 전라도의 구식(口食) 5만 석, 충청도에 구식 7만 6천 4백 석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1권 28년 2월 28일 丙寅

丙寅/議政府據戶曹呈申：“京畿各官早穀種一萬三千五百石，平安道人民口糧雜穀四萬二千石，咸吉道鬼麥種一百三十八石、牛料豆三千石題給。”從之。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보고하기를, “경기도 각 고을의 올곡식[早穀] 종자 1만 3천 5백 석과 평안도 인민의 구량(口糧)인 잡곡 4만 2천 석과 함길도의 귀맥(鬼麥) 종자 1백 80석과 소 사료[牛料] 콩 3천 석을 제급(題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1권 28년 3월 10일 丁丑

議政府據戶曹呈申：“忠淸道稻種十萬石、豆種七萬二百五十石、口糧五萬石，全羅道牛料豆八萬，慶尙道口糧十萬石題給。”從之。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보고하기를, “충청도의 벼종자[稻種] 10만 석, 팔종자[豆種] 7만 2백 50석, 구량(口糧) 5만 석과 전라도에 소 사료[牛料] 콩 8만 석과 경상도에 구량 10만 석을 제급(題給)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1권 28년 3월 24일 辛卯

禮曹啓：“卒哭前，永寧殿春秋大享、宗廟、文昭殿、健元陵、齊陵、獻陵四時大享，竝皆停之，只行朔望及俗節祭，不用樂。顯德嬪魂宮仲朔祭及俗節祭墓所俗節祭，亦停之。社稷大祭及他祭用樂處，陳而不作。祈雨祭則依前爲之。卒哭後內外祭，皆用樂。期年前，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京外斷音樂，隣國客人饋餉，亦不用樂。卒哭前，禁婚嫁禁屠殺。隣國客人館待及饋餉，四月以前用素饌，五月始用乾肉及魚物。徒流以下罪，十三日後處決；大辟，卒哭後斷決，巷市五日。”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졸곡(卒哭) 전에는 영녕전(永寧殿)의 춘추 대향(春秋大享)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헌릉(獻陵)의 사시 대향(四時大享)은 모두 정지하고, 다만 삭망(朔望)과 속절제(俗節祭)만을 행하되, 악(樂)은 사용하지 않으며, 현덕빈 혼궁(顯德殯魂宮)의 중삭제(仲朔祭) 및 속절제와 묘소 속절제(墓所俗節祭)도 또한 정지할 것이며, 사직 대제(社稷大祭)와 다른 제사로서 악을 쓸 곳에는 베풀어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으며, 기우제(祈雨祭)는 전(前)대로 지내게 하며, 졸곡 뒤에는 내외제(内外祭)에 모두 악을 사용하게 하며, 기년(期年) 전에는 경외(京外)에 음악을 끊게 하며, 이웃나라의 객인(客人)을 궤향(饋餉)할 때에는 또한 악을 사용하지 않으며, 졸곡 전(前)에는 혼가(婚嫁)와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이웃나라 객인의 관대(館待)와 궤향(饋餉)에는, 4월 이전에는 소찬(素饌)을 사용하고, 5월에야 비로소 건육(乾肉)과 어물(魚物)을 사용하며, 도형(徒刑)·유형(流刑) 이하의 죄는 13일 뒤에 처결(處決)하고, 대벽(大辟)은 졸곡 뒤에 단결(斷決)하고, 향시(巷市)는 5일 동안 정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2권 28년 5월 1일 戊辰

諭平安道敬差官禹孝剛：

今茂昌被虜男女牛馬，予欲奏聞請還，然江邊人民等虜掠人口，每以爲諱，若奏聞內人口牛馬數，與中國推刷時人口牛馬數不同，則非小事也，及時推考以聞。

평안도 경차관(敬差官) 우효강(禹孝剛)에게 이르기를,

“이번 무창(茂昌)에서 잡혀 간 남녀(男女)와 우마(牛馬)를 아뢰어 돌려보내기를 청하고자 하나, 강가의 인민들이 잡혀 간 인구(人口)를 매양 숨기니, 만일 주문(奏聞)한 가운데의 인구와 우마가 중국에서 추쇄(推刷)할 때의 인구·우마의 수와 같지 않으면, 작은 일이 아니다. 때에 미쳐 추고(推考)하여 아뢰라.”하였다.

▶ 112권 28년 5월 11일 戊寅

遣通事崔倫于遼東，請刷還茂昌郡被擄人口牛馬。

통사(道事) 최윤(崔倫)을 요동(遼東)에 보내어 무창군(茂昌郡)에서 잡혀 간 인구와 우마(牛馬)를 쇄환(刷還)하기를 청하였다.

▶ 114권 28년 10월 28일 壬戌

壬戌/判中樞院事李順蒙上書曰：

臣伏觀國家聲教遠被，邊境無虞，生齒之繁、戶口之夥，而軍額不加者，以其民無定志而逃避差役者多也。其中公私賤口逃移他道，自冒兩班，婚姻有蔭之家，至有生子之後，見獲還賤者，其爲反常甚多。臣聞前朝之季，倭寇興行，民不聊生，然其間倭人不過一二，而本國之民，假著倭服，成黨作亂，是亦鑑也。今新白丁，與平民間居，相與作黨，爲盜宰殺牛馬之利，耳濡目染，以爲常事，或因嫌隙，故燒人家，將恐有難防之患。救弊之要，莫切於號牌。昔在太宗朝，號牌之法，試行數年，而流移鮮少，或議煩擾民間而廢之。此弊小矣，當時盜賊流亡之徒日盛，不可勝紀。臣願復行號牌之法，禁遊手之輩，弭盜賊之源，則良賤自別，而軍額日敷；獄訟弭，而民之生產物故，自明矣。

不報。時公私賤口及逃役良人彼此流移者，不知紀極。順蒙，羸人，亦憤其弊，乃上此疏。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삼가 보옵건대, 국가의 성교(聲敎)가 먼 곳까지 퍼져서 변경(邊境)이 근심이 없으며, 인민이 번식(繁殖)하고 호구(戶口)가 많은데도 군액(軍額)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이 안정된 뜻이 없어서 부역을 도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다른 도(道)로 도망해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兩班)이라 속이고는 문벌이 있는 집에 혼인하여 자식을 낳은 뒤에 잡혀 와서 도로 천인(賤人)이 된 사람까지 있게 되니, 그것이 상도(常道)에 어긋남이 매우 많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고려 왕조의 말기에 왜구(倭寇)가 흥행(興行)하여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왜인(倭人)들은 <10명에> 1, 2명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본국(本國)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왜인의 의복을 입고서 당(黨)을 만들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도 또한 감계(鑑戒)되는 일입니다. 지금 신백정(新白丁)이 평민들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서로 당(黨)을 만들어 도적이 되어,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이익으로써 귀에 젖고 눈에 익어서 보통의 일로 여기고 있으며, 혹은 혐극(嫌隙)으로 인하여 남의 집에 고의로 불지르기도 하니, 장차 방지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요령은 호패(號牌)보다 긴절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태종(太宗) 때에 호패(號牌)의 법을 시험해 시행한 지 수년(數年) 만에 유이(流移)하는 사람이 적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민간에 번거롭고 소란하게 한다고 비평하면서 이를 폐지시켰으나, 이 폐단은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적과 유망(流亡)하는 무리들이 날로 성하여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나, 신은 원하옵건대 다시 호패의 법을 시행하여 놓고 있는 무리를 금하고 도적의 근원을 그치게 한다면,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이 저절로 구별되어 군액(軍額)이 날로 넉넉해지고, 옥송(獄訟)이 그치게 되어 백성의 생산과 사망이 저절로 명백해질 것입니다.”하니, 회보(回報)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공천(公賤)·사천(私賤)과 부역을 도피한 양민(良民)들이 저곳과 이곳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한정이 없었으므로, 순몽(順蒙)은 추술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麤率)한 사람인데도 또한 그 폐단을 분개하여 이 소(疏)를 올렸던 것이다.

▶ 114권 28년 11월 9일 癸酉

癸酉/議政府啓: “各道牧場馬匹, 每當春秋, 發遣點馬別監, 刷出馬之良者, 各官分養, 其不良者, 聽民易換. 今聞各官守令暗行請托, 以其私馬擇換兒馬二匹, 留養衙中, 又納而又受二匹. 每歲如此, 以爲殖貨之本. 於國家馬匹易換之法, 似無妨害, 然守令, 近民之職, 民生休戚, 皆係一身. 芻豆供億之費, 固非鬼輸神轉, 而浚民膏血, 以養私畜, 豈爲民父母之道乎? **況古人有懸魚留犢者**, 今守令風節, 一至於此, 而不以法律戒其貪墨, 則將來之弊, 牧場兒馬, 反爲公衙之畜, 誠有累於士風. 自今兒馬易換時, 令點馬別監換馬人姓名及所居州縣, 明白開寫, 申聞施行. 守令冒法他人, 汎濫易換者, 以制書有違律論, 毋或小貸. 點馬別監如有知情者, 與犯人同罪, 以養廉恥, 以礪士節.” 從之.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목장 마필(牧場馬匹)을 매양 봄·가을을 당하면 점마 별감(點馬別監)을 보내어 말의 좋은 것은 찾아내어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하고, 그 좋지 못한 것은 백성에게 교환하기를 허가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몰래 청탁을 행하여 개인의 말로써 아마(兒馬) 2필을 가려 바꾸어 관아(官衙)에서 기르고, 또 바치고는 또 2필을 받게 되어, 해마다 이와 같이 하여 재물을 불리는 근본을 삼으니, 국가의 마필을 교환하는 법에는 방해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수령은 백성에게 친근한 직책이므로 민생(民生)의 휴척(休戚)이 모두 한 몸에 매여 있는데, 말의 사료를 공급하는 비용이 진실로 귀신이 운반해 주는 것이 아닌데도,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여 개인의 말을 기르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부모(父母)가 된 도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옛날 사람은 생어(生魚)를 달아 두고 송아지를 남겨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사이 수령들의 풍절(風節)은 한 결 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법률로써 그들의 탐묵(貪墨)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폐단은 목장(牧場)의 아마(兒馬)가 도리어 공아(公衙)의 가축(家畜)이 될 것이오니, 사풍(士風)에 누(累)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마를 교환할 때에 점마 별감으로 하여금 말을 교환하는 사람의 성명(姓名)과 거주하는 주현(州縣)을 명백히 써서 신문(申聞)하여 시행하되, 수령으로서 법을 속여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교환하는 자는 제서(制書)를 어긴 율(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말게 하며, 점마 별감으로서 만약 실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한 사람과 죄를 같이 처벌하여, 엄치를 기르고 사절(士節)을 힘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5권 29년 3월 21일 癸未

癸未/議政府啓: “奸詐無賴之徒, 不事農業, 日以盜賊爲生者, 古今通患. 然近來農事

不稔，民生艱苦，群聚爲盜者，比古爲甚。至於都城之下，亦且劫奪財物，盜竊牛馬，放恣無忌，軍國所重馬匹及農牛殆盡，實爲大患，弭盜之方，不可不急。竊稽《元典》一款：‘如有賣農牛於韃靼禾尺者及韃靼禾尺，皆論以宰殺牛馬律，身充水軍。有捕獲露告者，以本人家產充賞。’《續典》：‘宰殺牛馬者，漢城府及五部痛行禁止，犯者依《元典》施行，盜殺者杖一百刺字，身充水軍。捕獲充賞，亦依《元典》。’又明火賊劫掠人家，隣里人聚會追捕。如有罔聞，知不救者，以知情不首律，降一等論罪。

이하생략~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간사하고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농업은 일삼지 않고 날마다 도둑질로써 생업(生業)을 삼는 사람은 고금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의 생계(生計)가 고생스러워 무리지어 도적이 된 사람이 예전에 비하여 심한 편이 됩니다. 도성(都城)의 밑에까지도 또한 재물을 집탈하고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습니다. 전쟁의 일과 나라의 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과 농우(農牛)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큰 걱정이 되므로 도적을 금지시킬 방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옥이 《원전(元典)》의 한 항목을 상고해 본다면, 만약 농우(農牛)를 달단(韃靼)과 화척(禾尺)에게 매도한 사람이 있으면 달단과 화척을 모두 우마(牛馬)를 도살(屠殺)시킨 형률로써 논죄하여 자신(自身)을 수군(水軍)에 편입시키고, 잡아 숨김 없이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本人)의 가산(家產)으로써 충당해 상을 주며, 《속전(續典)》에는 우마(牛馬)를 도살시킨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에서 엄격히 금지하게 하며, 범한 사람은 《원전(元典)》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도둑질해 죽인 사람은 장(杖) 1백 개를 치고 자자(刺字)를 하고 자신(自身)을 수군(水軍)에 편입하게 하며, 잡은 사람은 본인의 가산으로써 충당해 상을 주기를 또한 《원전(元典)》에 의거하며, 또 명화적(明火賊)이 인가(人家)를 위협 약탈하는 것을 이웃사람이 모여서 뒤쫓아 잡게 하는데, 만약 듣고 알지 못한 척하면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실정을 알면서 복죄(服罪)하지 않는 형률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게 하며, ...”

이하생략~

▶ 116권 29년 4월 4일 乙未

傳旨禮曹：“輝德殿正朝別祭用牛，以爲恒式。”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휘덕전(輝德殿)의 설날 아침 별제(別祭)에 소를 잡아 쓰는 것을 예규[恒式]로 삼으라.”하였다.

▶ 116권 29년 5월 5일 乙未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禮曹進香醞五十瓶、牛羊雁鴨等物. 上御康寧殿, 令娼妓工人奏《龍飛御天歌》, 只以鄉唐樂, 被之管絃而已, 不令唱歌. 世子及大君以下, 皆不入侍.

예조(禮曹)에서 좋은 술 50병과 소·양·기러기·오리 등 물건을 진상하니,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와 창기(倡妓)와 재인(才人)으로 하여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연주하게 하였는데, 향악(鄉樂)과 당악(唐樂)을 관현악(管絃樂)으로만 하고, 노래는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세자(世子)와 대군(大君) 이하가 다 입시(入侍)하지 아니하였다.

▶ 116권 29년 5월 26일 丙辰

議政府據刑曹呈啓: “牛之於農、馬之於兵, 所係至重. 農家一朝被盜, 則生食之本以絕, 民之疾痛, 不可勝言. 軍士之於馬, 亦然. 前此雖有盜馬者, 不即宰殺, 轉轉放(實) [賣], 其馬尚在民間, 今則不然, 以皮肉販賣爲利, 盜馬而殺者亦甚. 以京畿之民視之, 用于耕田者, 十無一二, 未能深耕, 遂失農業. 且軍士點考之時, 逢賊改馬者, 十常八九, 至於國場之馬, 盜殺無忌, 戰馬日減. 如此數年則牛馬殆盡, 弊將難救, 誠國家之大患. 昔鄭子產謂子太叔曰: ‘爲政莫如猛. 夫火烈, 民望而畏之, 故鮮死焉; 水懦弱, 民狎而翫之, 則多死焉.’ 太叔爲政, 不忍猛而寬, 鄭國多盜, 取人於萑苻之澤. 太叔悔之曰: ‘吾早從夫子, 不及此.’ 興徒兵以攻(蕉) [萑] 苻之盜, 盡殺之, 盜少止. 仲尼曰: ‘善哉! 政寬則民慢, 慢則糾之以猛; 猛則民殘, 殘則施之以寬. 寬以濟猛, 猛以濟寬, 政以是和.’ 且《刑統》注云: ‘盜殺牛馬, 頭處死, 從者減一等.’ 今之盜牛馬者, 非他盜之比. 限風俗歸正, 權用重典, 初盜殺牛馬者, 決杖一百, 右小臂膊上, 刺盜殺馬、盜殺牛三字, 竝同居妻子放置巨濟、南海、珍島. 再犯者, 處絞. 初盜牛馬不殺者, 決杖一百, 右小臂膊上, 刺盜馬盜牛三字. 再犯者, 決杖一百, 左小臂膊上刺字, 并同居妻子, 放置巨濟、南海、珍島. 并不分首從, 勿論赦前後施行.”

從之.

의정부에서 형조(刑曹)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농사에 있어서의 소와 군사에 있어서의 말은 그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옵니다. 농가에서 하루아침에 소를 도둑맞으면 살 근본이 끊어져서 백성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오며, 군사에 있어서의 말도 또한 그러하옵니다. 기왕에는 비록 말은 도둑질한 자가 있어도 곧 잡아 죽이지 않고, 이리저리 팔아넘겨서, 그 말이 그대로 민간에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사와 가죽과 고기를 파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말을 도둑질하여 죽이는 자가 또한 심하여져서, 경기도 백성으로 보더라도 논밭을 가는 데에 사용하는 자가 열에 한둘도 못되어 깊게 갈 수가 없어서 그만 농업에 실농을 하고, 또 군사들을 점고할 때면 적병을 만나서야 말을 개비하는 자가 십상팔구(十常八九)이오며, 국영(國營)하는 목장의 말까지도 도둑질해서 죽이기를 꺼림 없이 하여서 전쟁에 쓸 말이 나날이 줄어 가오니, 이와 같이 수년이 되

면 마소가 거의 없어질 것이며, 폐단을 장차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오니, 진실로 국가의 큰 걱정이옵니다.

옛적에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아들 대숙(大叔)에게 이르기를, ‘정치하는 데는 맹렬하게 할 만한 것이 없나니, 대저 불은 맹렬하므로 민중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에 죽는 사람은 적고, 물은 무르고 부드러우므로 민중이 허물없이 여겨 함부로 보기 때문에 죽는 이가 많다고 하였는데, 대숙(大叔)이 차마 맹렬하게 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하였더니, 정(鄭)나라에 도둑이 많아져서 사람을 푸서리[菑苻之澤]에서 뽑아 쓰게 되매, 대숙(大叔)이 뉘우쳐 말하기를, ‘내 진작 부자(夫子)의 말을 따랐던들 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군사를 일으키어 푸서리의 도둑들을 쳐서 다 죽이니 도둑이 좀 그치게 되었습니다. 중니(仲尼)가 말씀하기를, ‘좋은 말이다. 정치가 관대하면 백성이 게을러지나니 게으르게 되거든 맹렬함으로써 바로잡고, 정치가 맹렬하면 백성이 쇠잔해지나니 쇠잔하게 되거든 관대함으로써 베풀어 주어서, 관대로써 맹렬을 구제하고 맹렬로써 관대를 구제하면 정치가 이로써 조화되느니라.’ 하였고, 또 형통(刑統)의 주(註)에 이르기를,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두목은 사형에 처하고 종범은 1등을 감한다.’ 하였는데, 요새 마소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른 도둑과 비교가 아니 되오니, 풍속이 바로잡힐 때까지는 권도로 중한 법을 써서 처음으로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결장(決杖) 1백을 하고 오른팔 아랫마디에 ‘도살우(盜殺牛)’나, ‘도살마(盜殺馬)’라는 세 글자를 자자(刺字)하고 동거하는 처자와 함께 거제(巨濟)나 남해(南海)나 진도(珍島)로 쫓아내고, 재범(再犯)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며, 처음으로 소나 말을 도둑질하되 죽이지 아니한 자는 결장(決杖) 1백을 하고 오른팔 아랫마디에 ‘도마(盜馬)’나 ‘도우(盜牛)’라는 두 글자를 자자하고, 재범한 자는 결장(決杖) 1백을 하고 왼팔 아랫마디에 자자하고 동거하는 처자와 함께 거제(巨濟)나 남해(南海)나 진도(珍島)로 쫓아내기로 하는데, 모두 수범이나 종범을 구별하지 않으며, 사전(赦前)이나 사후(赦後)임을 물론하고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6권 29년 6월 23일 甲申

世子謂承政院曰：“夏月進牛，已有舊例，且今停諸道進膳。與政府議進如何？” 於是，承政院遂與政府、禮曹欲進，上謂承政院曰：“古人云：‘君無故，不殺牛。’ 每夏，政府數進，於心未安，欲立法以禁之。然醫書云：‘良藥，且宜於老人。’ 如不得已而用之，則有妨於立法之意，不敢耳。其諭政府，毋得進焉。”

세자(世子)가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여름에 소[牛]를 진상하는 것은 이미 전례(前例)가 있으나, 또 이제 각도의 진상하는 물선(物膳)을 정지시켰는데, 의정부와 의논하여 소를 진상하게 함이 어떠할까.” 하니, 이에 승정원에서 의정부와 예조로 더불어 진상하게 하려 한즉,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은 연고 없이 소를 죽이지 않는다.’ 하였는데, 매년 여름에 정부에서 자주 진상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므로 법을 세워서 금하고자 하나,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좋은 약이라.’ 하였고, 또 ‘노인에게 좋다.’ 하였으니, 만일 부득이하여 쓰게 될 때는 법을 세운 뜻에 걸리게 되므로 굳이 하지 않을 뿐이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정부에 일러서 진상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 118권 29년 10월 11일 己巳

己巳/司僕少尹鄭孝康上書曰:

臣以庸愚,濫蒙聖恩,目見非是,不敢終默,謹以管見條列于後,伏惟賜覽.

~중략~

一, 臣於去秋, 見敦義門祈晴宰牲之所, 或於空家, 或於露地, 宰人屠殺, 時街童巷婦如堵而立, 其於禋祀致齋之義何如? 臣謂其門之側, 排設帳幕, 凡諸奠物, 令典祀官親監, 以供祭祀, 以盡誠敬. 且祭器如(邊)〔籩〕豆之屬, 或載馬, 或貫索而負, 雖曰滌漑, 其於敬謹何如? 臣謂別作櫃子入盛, 以致淨潔.

이하생략~

사복 소윤(司僕少尹) 정효강(鄭孝康)이 글을 올리기를,

“신이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서 지나치게 성은(聖恩)을 입었사온데, 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고 감히 끝내 민묵(泯默)하지 못하여 삼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조목조목 뒤에 열거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하람(下覽)을 주소서.

~중략~

1. 신이 지난 가을에 돈의문(敦義門)에서 비 개는 것을 빌기 위하여 생(牲)을 잡는 곳을 보았는데, 혹은 빈집에서 혹은 노지(露地)에서 재인(宰人)이 도살(屠殺)할 때에 거리 아이 동네 여자가 담처럼 둘러서 있으니 깨끗하게 제사하고 재계를 드리는 뜻에 어찌됩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그 문 옆에 장막을 배설(排設)하고, 무릇 모든 전물(奠物)은 전사관(典祀官)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 제사에 이바지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기(祭器)의 변(籩)·두(豆) 같은 것을 혹은 말에 싣고 혹은 새끼로 꼬아서 짊어지는데, 비록 씻는다 하더라도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에 어찌합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따로 궤를 만들어서 담아서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

이하생략~

▶ 118권 29년 11월 3일 壬辰

壬辰/議政府據戶曹呈申: “平安道年年失農, 民生可慮, 所貢義盈庫納黃蠟二百五十九斤十二兩, 限五年蠲減. 濟用監納毛獐皮一百二十三領, 減其半. 豹尾六筒、毛鹿皮十八領, 工曹納牛皮三十領、馬皮五領、山猪皮二十領, 軍器監納松脂二斗、熟麻九十斤, 竝皆永除.” 從之.

의정부에서 호조의 청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평안도의 연년 농사를 실패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의영고(義盈庫)에 공납(貢納)하는 황납(黃蠟) 2백 59근 12냥(兩)은 5년 동안 한하여 감면하고, 제용감(濟用監)에 바치는 모장피(毛獐皮) 1백 23령(領)은 그 반을 감하고, 표미(豹尾) 6통(筒), 모늬비(毛鹿皮) 18령(領)과 **공조(工曹)에 바치는 우피(牛皮) 30령**, 마피(馬皮) 5령, 산저피(山猪皮) 20령과 군기감(軍器監)에 바치는 송지(松脂) 2두(斗), 숙마(熟麻) 90근은 모두 영구히 면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1권 30년 8월 28일 辛巳

議政府據刑曹呈啓: “凡犯罪, **兩界入居及盜殺牛馬者**, 流放他處, 所以懲惡戒後, 終身不返也. 然其中系本賤人及船軍、鎭軍、驛子、牧子等有役者, 俱免其役, 任意過活, 反違懲戒之義. 今後公私賤人, 聽官主收貢; 外方州郡奴婢及船軍、鎭軍、守城軍、牧子、津尺、鹽干、峯火干、驛子等諸色人, 各於其役差定. 鄉吏則定驛吏, 侍衛牌則船軍, 補充軍則牧子, 其餘雜色軍及無役人則量宜定役附籍, 毋得擅自出境.”
從之.

의정부(議政府)에서 형조(刑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범죄 하여 **양계(兩界)에 입거(入居)하는 자와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를 다른 곳으로 유방(流放)하는 것은 악한 것을 징계하고 후대를 경계하여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계통이 본래 천인(賤人)이거나 선군(船軍)·진군(鎭軍)·역자(驛子)·목자(牧子) 등 구실이 있는 자는 모두 그 구실을 면하고 임의로 살아가니, 도리어 징계의 뜻에 어긋납니다. 금후로는 공사(公私) 천인(賤人)은 관(官)과 주인의 청을 들어주어 공(貢)을 거두고, 외방 주군(州郡)의 노비(奴婢)와 선군(船軍)·진군(鎭軍)·수성군(守城軍)·목자(牧子)·진척(津尺)·염간(鹽干)·봉화간(烽火干)·역자(驛子) 등 여러 잡색인(雜色人)은 각각 그 역사에 차정(差定)하고, 향리(鄉吏)는 역리(驛吏)로 정하며, 시위패(侍衛牌)는 선군(船軍)으로 하고, 보충군(補充軍)은 목자(牧子)로 하되, 그 나머지 잡색군(雜色軍)과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알맞게 역사를 정하여 적(籍)을 만들어서 임의로 지경을 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2권 30년 11월 9일 辛卯

辛卯/禮曹啓: “司寒祭在十二月月令, 而藏氷則每在十一月. 謹稽古制, 宋元豐中, 詳定所言: ‘熙寧祀儀, 孟冬選吉日, 祭司寒. 國朝祀令, 春分日開氷, 季冬月藏氷, 祭司寒於北郊.’ 《春秋》《左傳》曰: ‘古者, 日在北陸而藏氷西陸, 朝覲而出之. **其藏之也, 黑牡秬黍; 以享司寒**, 其出之也, 桃弧棘矢, 以除其災.’ 古者司寒, 唯以藏氷啓氷之日, 孟冬非有事於氷, 則不應祭享. 其祀儀, 孟冬選吉日, 祭司寒, 宜從寢罷. 唯季冬藏氷則享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司寒於氷井，務牲用黑牡羊，穀用秬黍，仲春開氷則但用羔而已。然則古者祭司寒，隨其時令而爲之。今後司寒祭，載諸十一月月令，然氣候不齊，或太早或太晚，藏氷亦或在於十月十二月。且雖十一月，不可預定日期，必當藏氷之時，擇日以祭。”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한제(司寒祭)는 12월 월령(月令)에 있고, 얼음을 간직[藏氷]함은 매양 11월에 있사오니,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옵건대, 송(宋) 나라 원풍(元豐) 연간(年間)에 상정소(詳定所)에서 말하기를, ‘《희녕사의(熙寧祀儀)》에는 맹동(孟冬)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한제(司寒祭)를 지낸다.’ 하였고, 국조 사령(國朝祀令)에는 춘분일(春分日)에 빙고(氷庫)를 처음 열고, 계동월(季冬月)에 얼음을 간직하며, 사한제를 북교(北郊)에서 지낸다.’고 하였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르기를, ‘옛적에는 해[日]가 북륙(北陸)에 있어야 얼음을 저장하고, 서륙(西陸)에 조적(朝覲)하여야 얼음을 낸다. 저장할 때에는 검은 수소[牡牛]와 검은 기장[秬黍]으로 사한제(司寒祭)를 지내고, 얼음을 낼 적에는 복숭아나무 활[桃弧]과 가시나무 화살[棘矢]로 그 재앙(災殃)을 없앤다.’고 하였으니, 옛적의 사한제는 오직 얼음을 저장할 때와 얼음을 낼 때에만 행하고, 맹동(孟冬)에는 얼음에 대한 일이 없으면 응당 제사하지 아니하며, 그 제사 의식은, ‘맹동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한제를 지내는 것은 마땅히 파하여 없애고, 오직 계동(季冬)에 얼음을 저장하면 빙정(氷井)에 사한제를 지내되, 생(牲)은 검은 숫양[牡羊]을 쓰고, 곡식은 검은 기장을 쓰며, 중춘(仲春)에 빙고를 열면 염소만 쓸 따름이라.’ 하였으니, 그러면 옛적의 사한제는 그 시령(時令)에 따라 하는 것이옵니다. 이 뒤로는 사한제가 11월 월령(月令)에 실려 있으나, 기후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너무 이르고, 혹은 너무 늦어서, 얼음을 저장하는 것도 혹 10월과 12월에 있으며, 또 비록 11월에 있을지라도 기일을 예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얼음을 저장할 때를 당하여 날을 택해서 제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2권 30년 11월 21일 癸卯

傳旨承政院: “來十二月初一日至初九日, 令各司禁屠殺及行刑.” 以設佛堂慶讚會也. 又命造假家于佛堂外乾川, 以爲外僧供饋之所.

승정원에 전지(傳旨)하여, 오는 12월 초하루에서 초9일까지 각사(各司)로 하여금 도살(屠殺)과 행형(行刑)을 금(禁)하게 하였으니, 불당(佛堂)에서 경찬회(慶讚會)를 베풀기 때문이었다. 또 가가(假家)를 불당(佛堂) 밖의 건천(乾川)에 짓기를 명하여 외승(外僧)의 공궤(供饋)하는 곳으로 삼게 하였다.

▶ 123권 31년 1월 22일 癸卯

癸卯/司諫院上疏陳時務:

~중략~

一, 設科取士, 國之重事, 不可不謹. 往者, 卞季良久典文衡, 深見科場之弊, 每以講經之非, 切切於獻議, 一以製述取士. 近年以來, 應舉之士, 全尙文詞, 不務實學, 國家患之, 復使講經, 是亦權時之宜, 不得已也. 如不得已而爲之, 則禁防之法, 不可不嚴也. 大抵人情, 易生於目接之際. 試官之於講生, 既知姓名而與之相對, 則不得無愛惡之情, 況其所知者乎! 況其有舊者乎! 況親屬與權勢子弟乎! 雖心堅不撓者, 不能不爲之少變. 此心一變, 則好惡其得不偏乎! 取舍其得無私乎! 齊宣見鬻鍾之牛而易之以羊, 夫牛與羊也, 同是無罪之物, 而生殺之心頓異者, 無他, 見與不見耳. 禽獸猶爾, 況人之於人, 其情尤切乎! 臣等願試官講經之時, 設袂帷於前, 臺省官分坐內外, 入門官在外門外, 抽牒呼講生姓名, 入坐帷外, 使試官不知其姓名, 不接其容貌, 講經後, 卽以通否牒, 出示于外, 使講生手書通否署名, 然後又以其簿, 入告于內, 以驗眞僞. 如此則無面對人情之弊, 講經之法, 庶幾公正矣. 且曰此法苟難而不可行, 則製述試取之時, 已有縫彌易書之法, 獨於講經, 隔帷何憚乎! 或曰: “雖在帷外, 聲音之接, 豈不相知乎!” 然其聲音, 豈使試官盡知之乎! 伏望嚴立此法, 以昭正道.

이하생략~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시무(時務)를 진술하였다.

~중략~

1.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뽑는 것은 나라의 중한 일이오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자에 변계량이 오래 문형(文衡)을 맡아서 과장(科場)의 폐단을 깊이 보고, 매양 강경(講經)의 잘못됨을 간절히 헌의(獻議)하여 일체 제술(製述)로써 선비를 뽑으니, 근년 이래로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가 오로지 문사(文詞)만을 숭상하고 실학(實學)에 힘쓰지 아니하므로, 국가에서 근심하여 다시 강경으로 하게 하니, 이것도 시대의 적당함에 맞추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한다면, 금방(禁防)하는 법을 엄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저 인정은 눈으로 마주 볼 즈음에 생기기 쉬우니, 시관(試官)이 강생(講生)에게 이미 성명을 알고 더불어 마주 대하면, 사랑과 미움의 정이 없을 수 없거늘, 하물며 그와 아는 자인가? 하물며, 그와 예전부터 친한 사이에서 오는가? 하물며, 친족과 권세 있는 자제들이 오는가? 비록 마음이 굳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마음이 조금 변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 마음이 한번 변하면 좋아하고 미워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으며, 뽑는 데에 사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종(鍾)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소를 잡아 그 피를 칠하려고 끌려가는 소를 보고 양(羊)으로 바꾸게 하였으니, 무릇 소와 양은 다 같이 죄 없는 물건인데, 살리고 죽이는 마음이 다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금수(禽獸)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그 정이 더욱 간절한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원하옵건대, 시관이 강경(講經)을 할 때에, 겹포장을 앞에 치고 대성관(臺省官)이 안팎에 나누어 앉고 입문관(入門官)은 바깥문밖에 있으며, 제비[牒]를 뽑아서 강생(講生)의 성명을 불러 포장 밖에 들어와 앉게 하여, 시관으로 하여금 그 성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명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얼굴을 대하지 못하게 하며, 강경(講經)을 마친 뒤에 곧 통(通)과 부(否)의 제비를 밖에 나와서 보이고, 강생으로 하여금 손수 통과 부를 쓰고 서명(署名)하게 한 뒤에, 또 그 장부를 안에 들어와서 고하여 참과 거짓을 정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굴을 대하여 인정을 쓰는 폐단이 없고, 강경하는 법이 거의 공정할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 법이 구차하고 어려워서 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술(製述)로 시험해 뽑을 때에도 이미 봉미역서법(縫彌易書法)이 있었는데, 강경에서만 포장으로 막는 것을 어찌 꺼리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비록 포장 밖에 있을지라도 음성(音聲)이 통하니 어찌 서로 알지 못할 것인가.’ 하나, 그 음성을 어찌 시관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할 수 있으리까? 옳드려 바라건대, 이 법을 엄하게 세워서 정도(正道)를 밝히소서. ...”
이하생략~

▶ 123권 31년 2월 27일 戊寅

戊寅/宗簿寺啓: “朴萬、元生等匿守道正德生家, 且牛骨埋在庭中. 請命內官搜檢, 先使軍士守把, 以備逃竄.” 上曰: “宗親之家, 不可如此也. 姑問德生, 亦可得情, 如或不服, 搜捕未晚.” 卽召德生問之, 不以實對, 遂命宗簿率宦官別監, 搜其家, 掘地得牛頭三十五、馬頭八, 餘骨甚多, 至有帶肉淋漓者. 德生, 恭靖大王庶子, 嘗爲僧, 上命髮之. 德生嘗聚朴萬、元生于家, 屠殺牛馬, 其主或知而追躡, 則德生當門拒之, 人莫敢發, 至是事覺.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박만(朴萬)·원생(元生) 등이 수도정(守道正) 이덕생(李德生)의 집에 숨어 살며 또 소뼈를 뜯 가운데 묻어 두었으니, 청하옵건대,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수색해 검거하게 하되, 먼저 군사로 하여금 파수보게 하여 도망해 숨는 것을 방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친의 집은 이처럼 할 수 없으니, 우선 이덕생에게 물으면 그 실정을 얻을 것이다. 만일에 혹 불복하거든, 수색해 잡는다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하고, 곧 이덕생을 불러 물으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매, 쇠머리 35개, 말머리 8개를 찾고, 남은 뼈도 심히 많았으며, 뼈에 살이 붙어 지저분한 것까지 있었다. 이덕생은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서자(庶子)이다. 일찍이 중이 되었는데, 임금이 머리를 기르기를 명하였다. 이덕생이 일찍이 박만·원생을 집에 모아서 소와 말을 도살(屠殺)하니, 그 임자가 혹 알고 뒤를 밝아 쫓으면, 이덕생이 문에 다다라 막으니, 사람들이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다.

▶ 124권 31년 4월 2일 辛亥

江界道節制使李穰上書曰:

本道罷都節〔制〕使, 分置江界、朔川道節制使, 本欲除弊, 以固防禦也. 然軍務不得

臨時獨斷，必受決於平壤，然後行之，事失期會．且所屬諸郡，亦以爲同一守令，無所畏憚，防禦日疎，誠爲可慮．臣觀賊路要衝，本府最緊，而滿浦尤緊．以野人之來見之，往年朱甫皮、王田浦，皆由滿浦而來．臣願江界、朔川，別置單府使，依慶尙左右道例，置江界道本營于滿浦，朔川道本營于仇寧，不兼民事，專掌防禦．且爲都節制使本營而有土官，則人物自然繁盛，防禦以實矣．

牛馬賊，皆送此界，本欲補江邊人物也，但賊改過遷善者，有幾人乎! 本以作賊爲生，不事農業，若不盜賊，何以爲生! 自賊人入來以後，江邊盜賊興行，且以頑惡之徒，置之彼土連境之地，臣心尤以爲慮．南道各官赴防軍，依他鎮軍水軍例，定處赴防，則邊將知正軍容貌，而冒名代立之弊除矣．長城，國家藩垣，不可不築，然此道連歲失農，民生艱難，請限一二年休息．

下議政府議之，不允．

강계도(江界道) 절제사(節制使) 이양(李穰)이 상서하기를,

“본도(本道)에 도절제사(都節制使)를 혁파하고 강계(江界)·삭천도(朔川道) 절제사(節制使)를 나누어 둔 것은 본래 폐단을 없애고 방어를 굳게 하자는 것이었사오나, 그러나 군무(軍務)를 그때그때 독단(獨斷)하지 못하고 반드시 평양(平壤)에다 결재를 받은 연후에 시행하게 되오니, 일이 기회를 잃게 되었고, 또 소속(所屬)되어 있는 여러 고을에서 동일한 수령(守令)이라 하여 두렵게 꺼리는 생각이 없어서 방어가 나날이 소루하여지오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신이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을 보옵건대, 강계[本府]가 가장 긴요하고, 만포(滿浦)가 더욱 긴요합니다. 야인(野人)의 오는 것으로 보면 왕년에 주보피(朱甫皮)·왕전포(王田浦)가 다 만포를 거쳐서 왔사오니, 신은 원컨대, 강계와 삭천에 각각 따로 단부사(單府使)를 두되, 경상(慶尙) 좌·우도(左右道)의 예(例)에 의하여 강계도(江界道)의 본영(本營)은 만포에 두고, 삭천도(朔川道)의 본영은 구령(仇寧)에 두어서, 백성 다스리는 일은 겸하지 말고 오로지 방어만 맡게 하고, 또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을 만들어서 토관(土官)을 있게 하오면, 인물(人物)이 자연히 번성하여지고 방어가 실(實)하여질 것입니다. **소나 말을 도둑질한 자를 모두 이 지경으로 보낸 것은 본래 압록강 연변에 인구들을 보충하고자 한 것인데, 다만 도둑이 개과천선한 자가 몇 사람이나 있나이까.** 본래 도둑질하는 것으로 생애를 삼고 농업을 일삼지 않았으니, 만일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적인(賊人)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압록강 연변에 도둑이 부쩍 성하고, 또 완악(頑惡)한 무리들을 저쪽 땅과 접경되는 땅에 두는 것은 신의 마음에 더욱 염려됩니다. 남도(南道) 각 고을에서 부방(赴防)하게 하오면, 변방 장수가 정군(正軍)의 용모를 알게 되므로 이름을 속이고 대신 번을 서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장성(長城)은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쌓지 않을 수 없으나, 평안도가 여러 해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살기가 어려우니, 한두 해만 쉬도록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124권 31년 6월 27일 乙亥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議政府據刑曹呈申: “牛馬盜賊, 一時竝現者, 從一賊多刺字.” 從之.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소와 말을 도둑질한 것이 일시에 아울러 나타난 자는 한쪽 장물(贓物)의 많은 것에 따라서 자자(刺字)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8권 五禮 吉禮序例 祭器圖說 犧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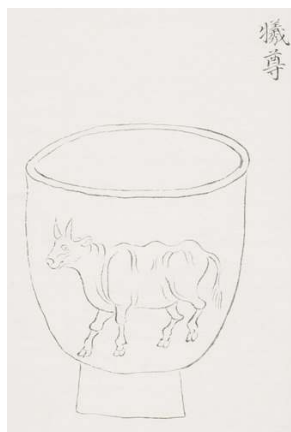
犧尊

《事林廣記》云: “犧尊, 飾以牛於尊腹之上, 口圓徑一尺二寸, 底徑八寸, 上下空徑一尺五分, 足高二寸.” 《禮書》云: “犧象, 周尊也. 牛大牲, 膏薌, 宜於春; 象, 大獸, 產於南越, 此先王所以用祠禴也.”

희준(犧尊)

《사림광기(事林廣記)》에 이르기를, “희준(犧尊)은 소[牛]를 준(尊)의 배 위에 장식한 것이니, 아가리의 원경(圓徑)이 1척 2촌이요, 밑바닥의 원경이 8촌이며, 위 아래의 구멍 지름[空徑]이 1척 5푼이요, 발[足]의 높이가 2촌이다.”고 하였다.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희준(犧尊)은 주(周)나라의 준을 본뜬 것이다. 소는 큰 희생(犧牲)이고, 기름[膏]이 향내가 나므로 봄의 형상[春象]에 적당하고, 큰 짐승이 남월(南越)에서 생산되니, 이것이 선왕(先王)께서 희준(犧尊)을 봄 제사와 여름 제사에 사용했던 까닭이다.”고 하였다.



▶ 128권 五禮 吉禮序例 祭器圖說 牛鼎

牛鼎

《聖宋頒樂圖》云: “牛鼎, 口徑底徑俱一尺三寸, 深一尺二寸二分, 其, 容一斛.” 【注云: “三斗, 爲大斗一斗.”】 聶崇義《三禮圖》云: “牛鼎受一斛. 天子飾以黃金, 諸侯飾

以白金。羊鼎受五斗，亦以銅爲之。豕鼎受三斗。牛鼎三足如牛，每足上，以牛首飾之。羊豕二鼎，亦如之。所謂周之禮飾器各以其類之義也。鼎局，【牛鼎局長五尺，羊鼎局長二尺五寸，豕鼎局長二尺，飾兩端以玉，各五寸。】鼎纂，【《儀禮》云：“纂者，若束若編。”注云：“凡鼎纂以茅爲之，長則束本，短則編其中，蓋令緻密，不洩氣也。”】鼎畢，【《三禮圖》云：“葉博三寸中鏤去一寸，柄長二尺四寸。漆其柄末，及兩葉，皆朱以棘木爲之。”】

우정(牛鼎)

《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에 이르기를,

“우정(牛鼎)은 아가리의 직경(直徑)과 밑바닥의 직경이 모두 1척 3촌이요, 깊이가 1척 2촌 2푼이며, 그 용량(容量)이 1곡(斛)이다.”

고 하였다. 【주(注)에 이르기를, “3두(斗)가 대두(大斗) 1두가 된다.” 고 하였다.】

섭송의(聶崇義)의 《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우정은 용량이 1곡이니, 천자(天子)는 황금(黃金)으로써 이를 장식하고, 제후(諸侯)는 백금(白金)으로써 이를 장식한다. 양정(羊鼎)은 용량이 5두(斗)인데, 또한 구리[銅]로써 이를 만들었으며, 시정(豕鼎)은 용량이 3두이다. 우정은 세 발[足]이 소와 같고, 발마다 위에는 쇠머리[牛首]로써 이를 장식하였으며, 양정과 시정도 역시 이와 같게 하였으니, 이른바 주(周)나라의 예(禮)에 ‘기명(器皿)을 장식할 적엔 각기 그 동류(同類)로써 한다.’는 뜻이다.” 고 하였다.

정경(鼎局) 【우정(牛鼎)은 경(局)의 길이가 3척이요, 양정(羊鼎)은 경의 길이가 2척 5촌이요, 시정(豕鼎)은 경의 길이가 2척인데, 옥(玉)으로써 양쪽 끝을 장식하여 각기 3촌이나 된다.】

정떡(鼎纂) 【《의례(儀禮)》에 이르기를, “떡(纂)은 묶은 것 같고 엮은 것 같다.”고 하였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무릇 정떡(鼎纂)은 띠풀[第]로써 만들었는데, 긴 것은 몸체를 묶고, 짧은 것은 그 중간을 엮었으니, 대개 울을 촘촘히 해서 기운이 새지 않게 함이다.” 하였다.】

정필(鼎畢) 【《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미늘을 붙인 3촌 중에서 1촌을 깎아 버리고, 자루의 길이는 2척 4촌인데, 그 자루 끝과 두 미늘에 모두 주색(朱色)으로써 칠하고, 가시나무로써 이를 만든다.” 고 하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觸.] 糝食, 【《儀禮通解續注》: “糝取牛羊豕之肉三, 如一小切之, 與稻米二肉一, 合以爲餌煎之. ○糝, 思減反.】 魚鱸【音洩.】 形鹽脾析, 【《儀禮通解續注》: “, 乾魚也. 形鹽, 鹽之似虎形者. 脾析, 牛百葉也.”】 豚拍, 【《儀禮通解續注》: “鄭大夫、杜氏, 皆以(栢)〔拍〕爲膊, 謂脅也.” 或曰: “豚拍, 肩也. 脾析豚拍不言菹者, 皆壘也. 壘, 菹之類, 菜肉通全物, 若牒爲菹, 細切爲壘.” 又云: “切之四寸爲菹.” 鹿醢、醢醢, 【《儀禮通解續注》: “醢, 肉汁也. 作醢者必先膊乾其肉, 乃後莖之, 雜以粱麴及鹽, 漬以美酒, 塗置中, 百日則成矣.” ○莖, 蒼臥反. 朱子《詩傳》云: “醢, 醢之多汁者也.” 今按醢醢, 不言其肉. 豕臠隨宜供進.】

이하생략~

찬실도설(饌實圖說)

무릇 변(籩)과 두(豆)를 각각 12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籩)에 건조(乾棗)·형염(形鹽)·어수(魚鱸)·백병(白餅)·녹포(鹿脯)·진자(榛子)·흑병(黑餅)·능인(菱仁)·검인(芡仁)·율황(栗黃)·구이(糗餌)·분자(粉飡)를 담고, 두(豆)에는 근저(芹菹)·순저(筍菹)·비석(脾析)·청저(菁菹)·구저(韭菹)·토향(兔醢)·어해(魚醢)·돈박(豚拍)·녹해(鹿醢)·담해(醢醢)·이식(醢食)·삼식(糝食)을 담는다.】 변과 두를 각각 10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구이와 분자를 감(減)하고, 두에는 이식과 삼식을 감한다.】 변과 두를 각각 8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또 백병과 흑병을 감하고, 두에는 또 비석과 돈박을 감한다.】 변과 두를 각각 4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형염·건조·율황·녹포를 담고, 두에는 근저·청저·녹해·어해를 담는다.】 변과 두를 각각 2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율황과 녹포를 담고, 두에는 청저와 녹해를 담는다.】 변과 두를 각각 1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변에는 녹포를 담고, 두에는 녹해를 담는다.】

보(簋)【도(稻)와 양(粱)을 담는다.】 케(簋)【서(黍)와 직(稷)을 담는다.】 등(甗)【대갱(大羹)을 담는다.】 형(鉶)【화갱(和羹)을 담고, 모활(芼滑)을 더한다.】 조(俎)는 3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소·양·돼지를 담는다.】 두(豆) 오른편의 조(俎) 3개는 【1개는 소의 익힌 내장(內腸)·위(胃)·폐(肺)를 담고, 1개는 돼지의 익힌 살을 담는다.】 조(俎)를 2개를 사용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소와 돼지를 담고, 그 나머지는 양과 돼지를 담는다.】 조(俎)를 1개를 사용한다. 【돼지를 담는다.】

구이(糗餌)【진씨(陳氏)의 《예기집설(禮記集說)》에 “구(糗)는 볶아 말린 쌀과 보리인데, 이를 찢어서 음식을 만든다. 대개 먼저 부수어서 가루를 만든 후에 물에 반죽을 하여 음식을 만드니, 단단하고 깨끗함이 옥(玉) 같은 음식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분자(粉飡)【진씨(陳氏)의 《예기집설(禮記集說)》에, “자(飡)는 도병(稻餅)이니, 쌀로 밥을 지어 이를 찢어 분자(粉飡)로 하고, 콩[豆]으로써 분삼(粉糝)을 만든다. 자(飡)는 상(上)이니, 자(飡)란 말은 자양(滋養)의 뜻이다.” 하였다. 자(飡)는 작자(昨資)의 반절(反切)이다.】

이식(醢食)【황씨(黃氏)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속주(續注)에 “이(醢)는 전(飪)이다.” 하였고, 《내칙(內則)》에는 “도미(稻米)를 취(取)하여 물에 반죽을 해서 조금씩 끊어서, 이리[狼] 가슴속의 기름과 도미(稻米)로써 함께 된죽을 만든다.”고 하였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의 제사공맹수(祭祀共猛獸) 주(注)에 이르기를, “낭축고(狼臠膏)는 먹을 만하다.”고 하였다. 이(醢)의 음(音)은 이(移)요, 전(飪)은 지연(之然)의 반절(反切)이요, 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糲)는 사류(思柳)의 반절이요, 수(洩)는 소류(所柳)의 반절이요, 촉(觸)의 음은 촉(觸)이다.】

삼식(糝食) 【《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삼(糝)은 소·양·돼지의 고기를 취하여, 세 가지를 한 걸 같이 작게 썰어서 도미(稻米) 2분에 고기 1분을 합하여 음식을 만들어, 이를 끓인 것이다.” 하였다. 삼(糝)은 사감(思減)의 반절(反切)이다.】

어수(魚鱸) 【음(音)은 수(洩)이다.】

형염(形鹽)·비석(脾析) 【《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수(鱸)는 건어(乾魚)이요, 형염(形鹽)은 소금이 범[虎]의 형상과 같은 것이요, 비석(脾析)은 소[牛]의 치엽[百葉]이다.” 하였다.】

돈박(豚拍) 【《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정대부(鄭大夫)와 두씨(杜氏)가 모두 박(拍)을 박(膊)으로 삼으니, 갈비[脅]를 이룸이다. 혹은 말하기를, ‘돈박(豚拍)은 어깨이다.’고 한다. 비석과 돈박에 김치[菹]를 말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제(齋)이기 때문이다. 제는 김치의 유(類)이니, 채소와 육류(肉類)를 전물(全物)을 통하여 얇게 썰은 것[腍]이 김치가 되고, 가늘게 썰은 것이 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4촌(寸)으로 썰은 것이 김치가 된다.”고 하였다.

녹해(鹿醢)·담해(醢醢) 【《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담(醢)은 육즙(肉汁)이다. 젓[醢]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육(肉)을 포로 떼서 말리고, 그 후에 잘게 썰어 [莖]서 수수로 만든 누룩과 소금에 섞고, 좋은 술에 담가 항아리 속에 백일(百日) 동안 두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좌(莖)는 창와(蒼臥)의 반절(反切)이다. 주자(朱子)의 《시전(詩傳)》에 이르기를, “담은 젓[醢]이 즙(汁)이 많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상고해 보건대, 담해(醢醢)는 그 육(肉)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돼지와 노루를 적당한 데 따라 공진(供進)한 것이다.】

이하생략~

▶ 128권 五禮 吉禮序例 牲牢

牲牢 【連皮煮熟.】

社稷親祭, 牛一、羊四、豕四. 攝事, 牛一、羊一、豕四. 祈報, 各豕一. 州縣社稷, 豕一. 宗親親享, 牛一、羊五、豕五. 七祀功臣, 各豕一. 攝事, 牛一、羊一、豕五. 七祀功臣, 各豕一. 歲時朔望及祈告報祀, 各豕一. 風雲雷雨、山川、城隍, 羊三、豕三. 祈雨, 豕一. 報祀同. 靈星, 豕一. 嶽海瀆, 各羊豕各一. 時早望祈, 豕一. 報祀同. 時早就祈, 各豕一. 報祀同. 名山大川, 各豕一. 就祈報祀同. 禋祭, 豕一. 報祀同. 先農親享, 牛羊豕各一. 攝事, 羊豕各一. 先蠶, 羊豕各一. 雩祀, 羊豕各三. 祈雨, 豕一. 報祀同. 文宣王王世子釋奠, 牛豕一. 有司釋奠同. 州縣釋奠, 【留後司及各界首官, 羊豕各二. 知官以上, 羊豕各一, 縣官豕一.】 檀君、箕子、高麗始祖, 各羊豕各一. 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 各豕一.

생뢰(牲牢) 【겉질까지 삶아 익힌다.】

사직(社稷)에 친제(親祭)할 적에는 소[牛] 한 마리, 양(羊) 네 마리, 돼지[豕] 네 마리를 쓰고, 대리 행사[攝事]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네 마리를 쓰며, 기고(祈告)와 보사(報祀)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주현(州縣)의 사직(社稷)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쓴다. 종묘(宗廟)에 친향(親享)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다섯 마리, 돼지 다섯 마리를 쓰고, 칠사(七祀)와 공신에게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며, 대리 행사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다섯 마리를 쓰고, 칠사(七祀)와 공신에게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쓴다. 세시(歲時)·삭망(朔望)과 기고·보사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풍운뢰우(風雲雷雨)와 산천(山川)·성황(城隍)에는 양 세 마리, 돼지 세 마리를 쓰고, 기우제(祈雨祭)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에도 이와 같다. 영성(靈星)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악·해·독(嶽海瀆)에는 각기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쓰고, 기후가 가물어 망기(望祈)할 적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에도 이와 같다. 기후가 가물어 그곳에 가서 기우(祈雨)할 적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報祀)에도 또한 이와 같다. 명산(名山)·대천(大川)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쓰고, 그곳에 가서 기원(祈願)할 적과 보사할 때도 이와 같다. 영제(祭)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에도 이와 같다. 선농(先農)에 친향(親享)할 적에는 소·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대리 행사할 적에는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며, 선잠(先蠶)에는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우사(雩祀)에는 양·돼지 각기 세 마리를 쓰고, 기우제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쓰고, 보사(報祀)에도 이와 같다. 문선왕(文宣王)에게 왕세자(王世子)가 석전(釋奠)할 적에는 소·돼지 한 마리를 쓰고, 유사가 석전할 적에도 이와 같다. 주현(州縣)의 석전【유후사(留後司)와 각 계수관(界首官)은 양·돼지 각기 두 마리를 쓰고, 지관(知官) 이상은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현관(縣官)은 돼지 한 마리를 쓴다.】 단군(檀君)·기자(箕子)·고려 시조(高麗始祖)에게는 각위(各位)에 양·돼지 각기 한 마리를 쓰고, 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에게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쓴다.

▶ 128권 五禮 吉禮序例 獻官 先農親享行事執事官

先農親享行事執事官

先農親享行事執事官：亞獻官【領議政有故，則次官.】終獻官【議政有故，則次官.】進幣爵酒官【吏曹判書有故，則參議.】薦俎官【戶曹判書有故，則參議.】奠幣爵酒官【吏曹參議.】典祀官【典祀判事有故，則尹.】執禮二【壇上三品、壇下四品.】正配二位，大祝各一.【內外製.】正配二位，祝史各一.【四品.】正配二位，齋郎各一.【五品.】正配二位，尊所各一.【六品.】正配二位，捧俎官各三.【參外.】掌牲令【典廐署令有故，則丞.】協律郎【禮曹佐郎.】雅樂令.【雅樂署典樂有故，則副典樂.】爵洗位【六品.】盥洗位二.【六品.】亞終獻官盥洗位【參外.】謁者二【六品.】贊者二【通禮門判官通贊.】贊引二【一六品，一參外.】監察二、應奉官禮儀使【禮曹判書有故，則參議.】近侍四【代言.】內侍二【大護軍.】判通禮二. 本官有故，則以他官充. 亞終獻官進幣爵酒官、薦俎官、禮儀使，皆有預差. 侍耕從耕官夾侍【備身上護軍二人.】正衣【扶策大護軍二人.】左右衛將軍【三軍都摠制二人.】近侍【代言一人，捧耒耜進，耕畢復受.】禮儀使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禮曹判書有故，則參議，贊導耕籍禮.】耕籍使【戶曹判書有故，則參議.】宗室宰臣【冢宰.】諸判書【吏曹兵曹判書各一人，有故，則參議.】臺諫【行首各一人，有故，則次官.】判典農【有故則尹授耒近侍.】判司僕【有故，則尹執牛.】典農寺尹【有故，則少尹帥典祀注簿，督視庶人鼓畝.】籍田令【典農判官解韜出耒授判典農，耕畢受耒，復于韜.】典祀注簿捧青箱官【典農注簿.】謁者. 已上合以祀先農行事執事官充. 有故，則他官. 畿內邑令【管籍具朝服，當耕籍時，立於田畔，候耕畢去.】耆民【四十人.】庶人【二十八人並青衣.】宗室宰臣助耕者各二人，諸判書臺諫助耕者各一人.【皆絳服介幘，用其本司隸.】執耒耜者【以籍田農民執之.】親耕耒耜一，具併韜.【飾以青色，覆以青帕，依農人所執者制造，不合服飾，事畢日收.】親耕青牛二頭【如無青牛，代以黃牛. 以青袍袂衣蓋衿.】隨牛人【每牛一人，並絳衣介幘，須以明閑農務者行之.】藉耒席一領. 宗室宰臣諸判書臺諫耒耜各一具，牛各二頭，隨牛人各二，畚三具，鍤三具，青箱一.【制如常箱，不施蓋. 兩頭設檯檣，飾以青色，內有九隔. 設九穀黍、稷、秬、稻、粱、大豆、小豆、大麥、小麥，覆以青帕.】

선농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때의 집사관

선농(先農)에 임금이 몸소 제향(祭享)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아헌관(亞獻官),【영의정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종헌관(終獻官),【의정(議政)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진폐작주관,【이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천조관(薦俎官),【호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전폐작주관,【이조참의.】전사관,【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집례(執禮) 2인,【단상(壇上)에는 3품관이 하고, 단하(壇下)에는 4품관이 한다.】정위와 배위의 이위(二位)에 대축이 각 1인,【내지제고·외지제고.】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축사가 각 1인,【4품관.】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재랑(齋郎)이 각 1인,【5품관.】정위와 배위 이위의 준소(尊所)에 각 1인,【6품관.】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봉조관이 각 3인,【참외(參外).】장생령(掌牲令),【전구서 령이 사고가 있으면, 승이 한다.】협물랑,【예조 좌랑.】아악령,【아악서 전악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이 한다.】작세위,【6품관.】관세위 2인,【6품관.】아헌관과 종헌관의 관세위,【참외.】알자 2인,【6품관.】찬자(贊者),【통례문의 관관과 통찬.】찬인(贊引) 2인.【1인은 6품관이 하고, 1인은 참외가 한다.】감찰 2인, 응봉관 예의사,【예조판서(禮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근시 4인,【대언(代言).】내시 2인,【대호군.】판통례 2인은 본관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한다. 아헌관·종헌관의 진폐작주관·천조관·예의사는 모두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해 둔다. 시경관(侍耕官)과 종경관(從耕官)이 곁에서 모시고,【비신 상호군(備身上護軍) 2인.】정의(正衣),【부책대호군(扶策大護軍) 2인.】좌위장군(左衛將軍)·우위장군(右衛將軍),【삼군도총제(三軍都摠制) 2인.】근시(近侍),【대언(代言) 1인이 뇌사(耒耜)를 받들고 나아와서 깔고, 이를 마치면 다시 받아 둔다.】예의사,【예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경적례(耕籍禮)를 도와 인도한다.】경적사,【호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종실(宗室)·재신(宰臣),【총제(冢宰).】여러 판서(判書),【이조판서든지 병조판서든지 각기 1인이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대간(臺諫),【행수 각 1인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판전농(判典

農), 【판전농이 사고가 있으면, 윤이 뇌사를 근시에게 준다.】 판사복(判司僕), 【판사복이 사고가 있으면, 윤이 소를 잡는다.】 전농시윤(典農寺尹), 【윤이 사고가 있으면, 소윤이 전사 주부를 거느리고 서인(庶人)의 견묘(畎畝)를 감독하여 살핀다.】 적전령(籍田令), 【전농 판관(典農判官)이 도(韜)를 풀어 뇌(耒)를 내어 판전농에게 주고, 밭갈기를 마치면 뇌를 받아서 도에 그전대로 둔다.】 전사 주부 봉청상관(典祀注簿捧靑箱官), 【전농 주부(典農注簿).】 알자(謁者). 이상은 합하여 선농(先農)을 제사하는 행사(行事)의 집사관으로 충당하는데, 유고(有故)하면 타관(他官)으로 한다. 기내(畿內)의 읍령(邑令), 【관직(管籍)이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고 적전을 갈 때에 밭가에 섰다가 밭 갈기를 마치기를 기다려 그제야 간다.】 기민(耆民), 【40인.】 서인(庶人), 【28인인데 모두 푸른 옷을 입는다.】 종실(宗室)과 재신(宰臣)으로 조정(助耕)하는 사람 각 2인, 여러 판서(判書)와 대간(臺諫)으로 조정하는 사람이 각 1인, 【모두 붉은 옷을 입고 머리싸개[幘]를 쓴다. 본사(本司)의 하례(下隸)를 사용한다.】 뇌사를 잡는 사람, 【적전(籍田)의 농민이 이를 잡는다.】 임금의 몸소 밭가는 뇌사 1구와 도(韜), 【청색(靑色)으로써 장식하고 청색 수건으로써 덮는다. 농인(農人)이 잡는 것에 의거하여 제조하면 조식(彫飾)에 합하지 않는다. 일이 끝나는 날에 회수한다.】 임금이 몸소 밭가는 청색의 소 두 마리, 【만약 청색의 소가 없으면 황색의 소로써 대체(代替)하고, 청포매의(靑袍袂衣)로 덮고 걸친다.】 수우인(隨牛人), 【소마다 한 사람씩 모두 붉은 옷을 입고 머리싸개를 쓴다. 모름지기 농사일에 밝고 익숙한 사람으로써 이를 행하게 한다.】 적뇌석(籍耒席) 1명(領)·종실·재신·여러 판서·대간의 뇌사 각 1구(具), 소 각 두 마리, 수우인 각 2인, 삽태기[耨] 3구(具), 삽(鍤) 3구, 청색 상자[靑箱] 1개이다. 【청색상자는 제도가 보통 상자와 같은데, 덮개는 베풀지 아니하고, 양쪽 머리에 드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청색으로 꾸미고, 안에는 아홉 개의 칸막이가 있어 아홉 가지 곡식인 서(黍)·직(稷)·출(秫)·도(稻)·양(粱)·대두(大豆)·소두(小豆)·대맥(大麥)·소맥(小麥)을 담고, 청색의 수건으로 덮는다.】

▶ 128권 五禮 吉禮序例 樂器圖說 雷鼓

雷鼓、雷鼗、靈鼓、靈鼗、路鼓、路鼗

《周禮圖》云：“鼓人，雷鼓鼓神祀，靈鼓鼓社祭，路鼓鼓鬼享。”鄭康成曰：“雷鼓八面，靈鼓路鼓四面。”陸氏【佃】是之。陳氏《禮書》云：“雷鼓，天聲也。雷鼓，鼓神祀。而鼓人：‘救日月詔王鼓，亦天事也。靈，地德也。靈鼓鼓社祭，而冥氏歐猛獸，亦地事也。路鼓，鼓鬼享，而司馬田獵、寢門達窮者亦用之。今建鼓，卽路鼓也。大司樂雷鼓則有雷鼗，靈鼓則有靈鼗，路鼓則有路鼗。鼗，小鼓也，手搖而擊之。大晟樂雷鼓八面，凡四鼓，鼗鼓亦四焉。靈鼓六面，凡三鼓，鼗亦隨之。路鼓、鼗亦各二，鼓爲四面焉。”鄭司農乃曰：“雷鼓六面，靈鼓四面，路鼓兩面。”陳氏所不取也。《樂書》注云：“雷鼓以馬革，乾爲馬故也。靈鼓以牛革，坤爲牛故也。”

뇌고(雷鼓)·뇌도(雷鼗)·영고(靈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

《주례도(周禮圖)》에 이르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고인(鼓人)이 뇌고(雷鼓)는 신사(神祀)에 치고, 영고(靈鼓)는 사제(社祭)에 치고, 노고(路鼓)는 귀향(鬼享)에 친다.”

고 하였다. 정강성(鄭康成)은 말하기를,

“뇌고는 팔면(八面)이요, 영고와 노고는 사면(四面)이다.”

고 하니, 육씨(陸氏) 【육전(陸佃).】가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진씨(陳氏)의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뇌고는 하늘의 소리[天聲]이다. 뇌고는 신사에 치는데, 고인이 일월(日月)을 구(救)하면 서 왕(王)에 고하고 치는 것은 또한 하늘의 일[天事]인 것이다. 영(靈)은 지덕(地德)이다. 영고는 사제에 치는데, 명씨(冥氏)가 맹수(猛獸)를 몰아내니, 또한 땅의 일[地事]이다. 노고는 귀향에 치는데, 사마(司馬)가 사냥할 때나, 침문(寢門)에 궁달(窮達)을 비는 사람도 또한 이를 사용하니, 지금의 건고(建鼓)는 곧 노고(路鼓)이다. 대사악(大司樂)에 뇌고는 뇌도(雷鼗)가 있고, 영고는 영도(靈鼗)가 있고, 노고는 노도(路鼗)가 있으니, 도(鼗)는 소고(小鼓)이다. 손으로 흔들면서 이를 친다. 대성악(大晟樂)에는 뇌고(雷鼓)는 팔면(八面)이니, 무릇 네 번 치고, 뇌도(雷鼗)도 또한 네 번 치며, 영고(靈鼓)는 육면(六面)인데, 무릇 세 번 치고, 영도도 또한 이에 따라 치며, 노고(路鼓)와 노도도 또한 각기 두 번 치니, 노고는 사면(四面)이 된 까닭이다.”

하였고, 정사농(鄭司農)이 이에 말하기를,

“뇌고는 육면이요, 영고는 사면이요, 노고는 양면(兩面)이라.”

하였으니, 진씨(陳氏)는 이 말을 취(取)하지 않았다. 《악서주(樂書注)》에 이르기를,

“뇌고는 말가죽[馬革]으로 만들었으니, 건괘(乾卦)가 말[馬]이 되는 까닭이요, 영고는 쇠가죽[牛革]으로 만들었으니, 곤괘(坤卦)가 소[牛]가 되는 까닭이다.”

고 하였다.



▶ 128권 五禮 吉禮序例 獻官 先農親享行事執事官

先農親享行事執事官

先農親享行事執事官：亞獻官【領議政有故，則次官.】終獻官【議政有故，則次官.】進幣爵酒官【吏曹判書有故，則參議.】薦俎官【戶曹判書有故，則參議.】奠幣爵酒官【吏曹參議.】典祀官【典祀判事有故，則尹.】執禮二【壇上三品、壇下四品.】正配二位，大祝各一.【內外製.】正配二位，祝史各一.【四品.】正配二位，齋郎各一.【五品.】正配二位，尊所各一.【六品.】正配二位，捧俎官各三.【參外.】掌牲令【典廐署令有故，則丞.】協律郎【禮曹佐郎.】雅樂令.【雅樂署典樂有故，則副典樂.】爵洗位【六品.】盥洗位二.【六品.】亞終獻官盥洗位【參外.】謁者二【六品.】贊者二【通禮門判官通贊.】贊引二【一六品，一參外.】監察二、應奉官禮儀使【禮曹判書有故，則參議.】近侍四【代言.】內侍二【大護軍.】判通禮二. 本官有故，則以他官充. 亞終獻官進幣爵酒官、薦俎官、禮儀使，皆有預差. 侍耕從耕官夾侍【備身上護軍二人.】正衣【扶策大護軍二人.】左右衛將軍【三軍都摠制二人.】近侍【代言一人，捧耒耜進，耕畢復受.】禮儀使【禮曹判書有故，則參議，贊導耕籍禮.】耕籍使【戶曹判書有故，則參議.】宗室宰臣【冢宰.】諸判書【吏曹兵曹判書各一人，有故，則參議.】臺諫【行首各一人，有故，則次官.】判典農【有故則尹授耒近侍.】判司僕【有故，則尹執牛.】典農寺尹【有故，則少尹帥典祀注簿，督視庶人鼓畝.】籍田令【典農判官解韜出耒授判典農，耕畢受耒，復于韜.】典祀注簿捧青箱官【典農注簿.】謁者. 已上合以祀先農行事執事官充. 有故，則他官. 畿內邑令【管籍具朝服，當耕籍時，立於田畔，候耕畢去.】耆民【四十人.】庶人【二十八人並青衣.】宗室宰臣助耕者各二人，諸判書臺諫助耕者各一人.【皆絳服介幘，用其本司隸.】執耒耜者【以籍田農民執之.】親耕耒耜一，具併韜.【飾以青色，覆以青帕，依農人所執者制造，不合服飾，事畢日收.】親耕青牛二頭【如無青牛，代以黃牛. 以青袍袂衣蓋衿.】隨牛人【每牛一人，並絳衣介幘，須以明閑農務者行之.】藉耒席一領. 宗室宰臣諸判書臺諫耒耜各一具，牛各二頭，隨牛人各二，耒三具，耬三具，青箱一.【制如常箱，不施蓋. 兩頭設檯櫓，飾以青色，內有九隔. 設九穀黍、稷、秬、稻、粱、大豆、小豆、大麥、小麥，覆以青帕.】

선농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때의 집사관

선농(先農)에 임금이 몸소 제향(祭享)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아헌관(亞獻官),【영의정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중헌관(終獻官),【의정(議政)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진폐작주관,【이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천조관(薦俎官),【호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전폐작주관,【이조참의.】전사관,【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집례(執禮) 2인,【단상(壇上)에는 3품관이 하고, 단하(壇下)에는 4품관이 한다.】정위와 배위의 이위(二位)에 대축이 각 1인,【내지제고·외지제고.】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축사가 각 1인,【4품관.】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재랑(齋郎)이 각 1인,【5품관.】정위와 배위 이위의 준소(尊所)에 각 1인,【6품관.】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봉조관이 각 3인,【참외(參外).】장생령(掌牲令),【전구서 령이 사고가 있으면, 승이 한다.】협물랑,【예조 좌랑.】아악령,【아악서 전악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이 한다.】작세위,【6품관.】관세위 2인,【6품관.】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헌관과 종헌관의 관세위, 【참외.】 알자 2인, 【6품관.】 찬자(贊者), 【통례문의 판관과 통찬.】 찬인(贊引) 2인. 【1인은 6품관이 하고, 1인은 참외가 한다.】 감찰 2인, 응봉관 예의사,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외가 한다.】 근시 4인, 【대언(代言).】 내시 2인, 【대호군.】 판통례 2인은 본관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한다. 아헌관·종헌관의 진폐작주관·천조관·예의사는 모두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해 둔다. 시경관(侍耕官)과 종경관(從耕官)이 곁에서 모시고, 【비신 상호군(備身上護軍) 2인.】 정의(正衣), 【부책 대호군(扶策大護軍) 2인.】 좌위장군(左衛將軍)·우위장군(右衛將軍), 【삼군도총제(三軍都摠制) 2인.】 근시(近侍), 【대언(代言) 1인이 뇌사(耒耜)를 받들고 나아와서 갈고, 이를 마치면 다시 받아 둔다.】 예의사, 【예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외가 경적례(耕籍禮)를 도와 인도한다.】 경적사, 【호조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외가 한다.】 종실(宗室)·재신(宰臣), 【총제(冢宰).】 여러 판서(判書), 【이조판서든지 병조판서든지 각기 1인이 사고가 있으면, 참외가 한다.】 대간(臺諫), 【행수 각 1인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판전농(判典農), 【판전농이 사고가 있으면, 윤이 뇌사를 근시에게 준다.】 판사복(判司僕), 【판사복이 사고가 있으면, 윤이 소를 잡는다.】 전농시 윤(典農寺尹), 【윤이 사고가 있으면, 소윤이 전사 주부를 거느리고 서인(庶人)의 견묘(畎畝)를 감독하여 살핀다.】 적전령(籍田令), 【전농 판관(典農判官)이 도(韜)를 풀어 뇌(耒)를 내어 판전농에게 주고, 밭갈기를 마치면 뇌를 받아서 도에 그전대로 둔다.】 전사 주부 봉청상관(典祀注簿捧靑箱官), 【전농 주부(典農注簿).】 알자(謁者). 이상은 합하여 선농(先農)을 제사하는 행사(行事)의 집사관으로 충당하는데, 유고(有故)하면 타관(他官)으로 한다. 기내(畿內)의 읍령(邑令), 【관적(管籍)이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고 적전을 갈 때에 밭가에 섰다가 밭갈기를 마치기를 기다려 그제야 간다.】 기민(耆民), 【40인.】 서인(庶人), 【28인인데 모두 푸른 옷을 입는다.】 종실(宗室)과 재신(宰臣)으로 조경(助耕)하는 사람 각 2인, 여러 판서(判書)와 대간(臺諫)으로 조경하는 사람이 각 1인, 【모두 붉은 옷을 입고 머리싸개[幘]를 쓴다. 본사(本司)의 하례(下隸)를 사용한다.】 뇌사를 잡는 사람, 【적전(籍田)의 농민이 이를 잡는다.】 임금이 몸소 밭가는 뇌사 1구와 도(韜), 【청색(靑色)으로써 장식하고 청색 수건으로써 덮는다. 농인(農人)이 잡는 것에 의거하여 제조하면 조식(彫飾)에 합하지 않는다. 일이 끝나는 날에 회수한다.】 임금이 몸소 밭가는 청색의 소 두 마리, 【만약 청색의 소가 없으면 황색의 소로써 대체(代替)하고, 청포매의(靑袍袂衣)로 덮고 걸친다.】 수우인(隨牛人), 【소마다 한 사람씩 모두 붉은 옷을 입고 머리싸개를 쓴다. 모름지기 농사일에 밝고 익숙한 사람으로써 이를 행하게 한다.】 적뇌석(籍耒席) 1명(領)·종실·재신·여러 판서·대간의 뇌사 각 1구(具), 소 각 두 마리, 수우인 각 2인, 삽태기[耒] 3구(具), 삽(鍤) 3구, 청색 상자[靑箱] 1개이다. 【청색상자는 제도가 보통 상자와 같은데, 덮개는 베풀지 아니하고, 양쪽 머리에 드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청색으로 꾸미고, 안에는 아홉 개의 칸막이가 있어 아홉 가지 곡식인 서(黍)·직(稷)·출(秫)·도(稻)·양(粱)·대두(大豆)·소두(小豆)·대맥(大麥)·소맥(小麥)을 담고, 청색의 수건으로 덮는다.】

▶ 129권 五禮 吉禮儀式 親祭社稷儀 陳設

陳設

~중략~

祭日未行事前, 典祀官及壇司, 各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 【各有玷.】陳幣簠各一於尊所,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之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邊十二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鱸乾棗、栗黃次之. 第二行, 榛子在前, 菱仁、芡仁、鹿脯次之. 第三行, 白餅在前, 黑餅、糗餌、粉飡次之.】豆十二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醢菁菹鹿醢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兔醢、筍菹、魚醢次之. 第三行, 脾析在前, 豚拍、醢食、糝食次之.】俎三, 二在邊前, 一在豆前. **【邊前俎, 一實牛腥, 一實羊腥. 七體, 兩脾、兩肩、兩脅竝脊, 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 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 皆有牲匣.】簠簋各二在邊豆間, 簠在左, 簋在右. 【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鉶三在簠簋後, 【實以和羹, 加芼滑.】爵三在簠簋前. 【各有玷.】設尊壺大社大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著尊二, 【一實明水, 一實盎齊.】山壺二, 【一實玄酒, 一實淸酒.】爲三行, 【第一行大尊, 第二行著尊, 第三行山.】皆加勺鬯, 在神位之左近北, 南向東上. 后土氏象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著尊二, 【一實明水, 一實盎齊.】山壺二 【一實玄酒, 一實淸酒.】於大社酒尊之西, 俱南向東上. 【凡尊實明水, 玄酒爲上. 凡祭神之物, 當時所無者, 以時物代之.】大稷后稷氏尊壺, 竝如大社后土氏之儀. 設福酒爵、【有玷.】胙肉俎各一於大社尊所, 又設大社俎一於饌幔內,**

이하생략~

진설(陳設)

~중략~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 놓고, 【각기 점(玷)이 있다.】 폐비(幣篚) 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축(燭)을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마다 각기 변(邊)이 12개로서, 왼쪽에 있게 하여 석 줄로 하되, 오른쪽을 위[上]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감인(芡仁)·녹포(鹿脯)가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백병(白餅)이 앞에 있고, 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飡)가 다음이다.】 두(豆)가 12개로서, 오른쪽에 있게 하여 석 줄로 하되, 왼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구저(韭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菁)·청저(菁菹)·녹해(鹿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토해(兔醢)·순저(筍菹)·어해(魚醢)가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비식(脾析)이 앞에 있고, 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다음이다.】 조(俎)가 3개로서, 둘은 변(邊) 앞에 있고, 하나는 두(豆) 앞에 있다. **【변(邊) 앞의 조(俎) 하나에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에는 양성 칠체(羊腥七體)를 담는데, 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심[脊]이다. 넓적다리[髀]는 양단에 있고, 어깨[肩]와 갈비[脅]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음이요, 등심[脊]이 가운데에 있다. 두 앞의 조에는 시성 칠체(豕腥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과 같이 한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룸이다.”고 하였다.】 두(豆) 오른쪽에 조(俎)가 3개이고, 【하나는 소[牛]의 익힌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羊)의 익힌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하나는 돼지[豕]의 익힌 살코기[膚]를 담는데, 돼지가 앞에 있고, 양·소가 다음이다. 무릇 조(俎)에는 다 생갑(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있으며, 보(簠)는 왼쪽에 있고,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도(稻)·양(粱)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형(鉶)이 3개인데, 보(簠)·궤(簋) 뒤에 있고, 【화갱(火羹)을 담는데 모활(茅滑)을 더한다.】 작(爵)이 3개인데, 보(簠)·궤(簋) 앞에 있다. 【각각 점(坩)이 있다.】 준(尊)과 뇌(罍)를 설치하는데, 대사에는 대준이 2개, 【하나를 명수(明水)를 담고, 하나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착준(著尊)이 2개, 【하나를 명수(明水)를 담고, 하나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산뢰(山罍)가 2개로서 【하나를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석 줄로 하고, 【첫째 줄에는 대준(大尊)이요, 둘째 줄에는 착준(著尊)이요, 셋째 줄에는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먹(鬯)을 얹어 놓는다. 신위(神位)의 왼쪽에 있게 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향(南向)하게 하고, 동쪽을 위[上]로 한다. 후토씨(后土氏)는 상준(象尊)이 2개, 【하나를 명수를 담고, 하나는 예제를 담는다.】 착준(著尊)이 2개, 【하나를 명수를 담고, 하나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산뢰(山罍)가 2개로서, 【하나를 현주를 담고,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 대사 주준(酒尊)의 서쪽에 있게 하되, 모두 남향(南向)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뇌(罍)는 명수(明水)와 현주(玄酒)를 담은 것이 위[上]가 된다. 무릇 신(神)에게 제사 드리는 물건으로서 당시(當時)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써 대신한다.】 대직(大稷)과 후직씨(后稷氏)의 준(尊)·뇌(罍)도 모두 대사(大社)·후토씨(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주작(福酒爵)과 【점(坩)이 있다.】 조육조(胙肉俎) 각 하나씩을 대사 준소(大社尊所)에 설치하고, 또 대사조(大社俎) 하나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이하생략~

▶ 129권 五禮 吉禮儀式 親祭社稷儀 進熟

進熟

殿下既升奠幣,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簠, 實于一鼎, 次升羊實于一鼎, 次升豕實于一鼎, 【每位牛羊豕各一鼎.】皆設局幕. 祝史對舉入, 設饌饌內. 謁者引薦俎官, 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殿下奠幣訖復位. 樂止, 執禮曰: “進饌.” 祝史抽局委于鼎右, 除幕加匕畢于鼎. 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 次承羊豕, 各實于牲匣, 【每位牛羊豕各一匣.】次引薦俎官, 捧大社之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 大社大稷之饌, 入自正門; 配位之饌, 入自左闕.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大社大稷之饌, 升自北陛; 配位之饌, 升自西陛, 諸大祝迎引於壇上. 薦俎官升自北陛, 詣大社神位前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奠訖, 啓牲匣蓋, 次詣后土氏神位前西向跪奠,

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次詣大稷后稷氏神位前，奉奠竝如大社后土氏之儀訖，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西陛復位。諸大祝還尊所，이하생략~

진숙(進熟)

전하가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렸으면, 찬인(贊引)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확(鑊)에서 소[牛]를 들어 올려 한 정(鼎)에 담고, 다음에 양(羊)을 들어 올려서 한 정(鼎)에 담고, 다음에 돼지[豕]를 들어 올려서 한 정(鼎)에 담는데, 【매위(每位)에 소·양·돼지 각 1정(鼎)씩이다.】 모두 경막(肩髀)을 설치한다. 축사(祝史)가 마주 들어서 찬만(饌幔) 안으로 들여다 진설하고, 알자(謁者)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로 나아간다. 봉조관도 이를 따른다. 전하가 폐백을 올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악이 그치기를 기다려, 집례가 말하기를,

“찬을 올리라.”

한다. 축사가 경을 뽑아서 정의 오른편에 놓고, 먹을 제치고 정에다 비(匕)와 필(畢)을 얹어 놓으면, 전사관이 비로써 소[牛]를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과 돼지를 들어 올려 각기 생갑에 담는다. 【매위에 소·양·돼지 각 1갑씩이다.】 다음에 천조관을 인도하여 대사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이 각기 생갑을 받들면,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대사 대직의 찬(饌)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배위의 찬은 좌간(左闕)으로 들어온다. 조(俎)가 처음으로 문에 들어올 때에 헌가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대사 대직의 찬은 북계로 올라가고, 배위의 찬은 서계로 올라가면, 여러 대축이 맞이하여 단상으로 인도한다. 천조관이 북계로 올라가서 대사 신위 앞에 남향하고 꿇어앉아서 올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여러 대축이 조전한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뚜껑을 열고, 다음에 후토씨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꿇어앉아서 올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여러 대축이 조전한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뚜껑을 열고, 다음에 대직 후직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받들어 올리는데, 모두 대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이 준소로 돌아간다.

이하생략~

▶ 129권 五禮 吉禮儀式 祭社稷攝事儀 陳設

陳設

~중략~

祭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玷。】陳幣篚各一於尊所；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每位各籩十二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繡乾棗、栗黃次之。第二行，榛子在前，菱仁、芡仁、鹿脯次之。第三行，白餅在前，黑餅、糗餌、粉餈次之。】豆十二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韭蒹在前，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醢醢、青菹、鹿醢次之. 第二行芹在前, 兔醢、筍菹、魚醢次之. 第三行, 脾析在前, 豚拍、醢食、糝食次之.】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 一實牛腥, 一實羊腥. 七體, 兩脾兩肩兩脅而竝脊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皆有牲匣.】 簠簋各二, 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 【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鉶三在簠簋後, 【實以和羹, 加毛滑.】 爵三在簠簋前. 【各有坩.】 又設尊壘大社大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 著尊二, 【一實明水, 一實盎齊.】 山壘二 【一實玄酒, 一實清酒.】 爲三行, 【第一行大尊, 第二行著尊, 第三行山.】 皆加勺罍, 在神位之(在) [左] 近北, 南向東上. 后土氏象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 著尊二, 【一實明水, 一實盎齊.】 山壘二 【一實玄(清) [酒], 一實清酒.】 於大社酒尊之西, 俱南向東上. 【凡尊實明水, 玄酒爲上. 凡祭神之物, 當時所 [無] 者, 以時物代之.】 大稷后稷氏尊壘, 竝如大社后土氏之儀. 設福酒爵 【有坩.】 胙肉俎各一於大社尊所. 又設大社俎一於饌幔內**

이하생략~

진설(陳設)

~중략~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축판 각 하나씩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각기 점(坩)이 있다.】 폐비(幣篚) 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축(燭)을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 마다 각기 변(籩)이 12개로서, 왼쪽에 있게 하여 석 줄로 하되, 오른쪽을 위[上]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감인(芡仁)·녹포(鹿脯)가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백병(白餅)이 앞에 있고, 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飡)가 다음이다.】 두(豆)가 12개로서, 오른쪽에 있게 하여 석 줄로 하되, 왼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구저(韭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토해(兔醢)·순저(筍菹)·어해(魚醢)가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비석(脾析)이 앞에 있고, 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다음이다.】 조(俎)가 3개로서, 둘은 변(籩) 앞에 있고, 하나는 두(豆)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俎) 하나에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에는 양성 칠체(羊腥七體)를 담는데,** 양비(兩髀)·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심[脊]이다. 비(髀)는 양단에 있고, 견(肩)·협(脅)이 다음이요, 등심[脊]이 가운데에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시성 칠체(豕腥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과 같이 한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름이다.” 하였다.】 두(豆) 오른쪽에 조(俎)가 3개이고, **【하나는 소[牛]의 익힌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의 익힌 장·위·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豕]의 익힌 살코기[膚]를 담는데, 돼지가 앞에 있고, 양·소가 다음이다.** 무릇 조(俎)에는 다 생갑(牲匣)이 있다.】 보(簠)·쾌(簋)가 각각 2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있으며, 보(簠)는 왼쪽에 있고, 쾌(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簠)에는 도(稻)·양(粱)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쾌(簋)에는 서(黍)·직(稷)을 담

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형(銅)이 3개인데, 보·궤 뒤에 있고, 【화궤(和羹)을 담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작(爵)이 3개인데, 보·궤 앞에 있다. 【각기 점이 있다.】

또 준·뇌를 설치하는데, 대사에는 대준이 2개, 【하나는 명수를 담고, 하나는 예제를 담는다.】 착준(著尊)이 2개, 【하나를 명수를 담고, 하나는 양제를 담는다.】 산뢰가 2개로서 【하나를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석 줄로 하고, 【첫째 줄에는 대준(大尊)이요, 둘째 줄에는 착준(著尊)이요, 셋째 줄에는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먹(鬯)을 얹어 놓는다. 신위(神位)의 왼쪽에 있게 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후토씨는 상준(象尊)이 2개, 【하나를 명수를 담고, 하나는 예제를 담는다.】 착준(著尊)이 2개, 【하나를 명수를 담고, 하나는 양제를 담는다.】 산뢰(山罍)가 2개로서, 【하나를 현주를 담고,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 대사 주준의 서쪽에 있게 하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과 뇌(罍)는 명수(明水)나 현주(玄酒)를 담은 것이 위가 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 드리는 물건으로서 당시(當時)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써 대신한다.】 대직(大稷)과 후직씨의 준(尊)·뇌(罍)는 모두 대사와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주작(福酒爵)과 【점이 있다.】 조육조(胙肉俎) 각 하나씩을 대사 준소에 설치하고, 또 대사조(大社俎) 하나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이하생략~

▶ 129권 五禮 吉禮儀式 祭社稷攝事儀 進熟

進熟

初獻官既升奠幣，贊引引典社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簠，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位牛羊豕，各一匣。】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初獻官奠幣訖復位。執禮曰：“進饌。”謁者引薦俎官，捧大社之俎，捧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大社大稷之饌，入自正門；配位之饌，入自左闕。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大社大稷之饌，升自北陛；配位之饌，升自西陛，諸大祝迎引於壇上。薦俎官詣大社神位前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詣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次詣后土氏神位前，西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次詣大稷后稷氏神位前捧奠，竝如大社后土氏之儀訖，樂止，

이하생략~

진숙(進熟)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소[牛]를 확(簠)에서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羊)과 돼지[豕]를 들어 올려서 각각 생갑에 담아서 【매위(每位)에 소·양·돼지가 각각 1갑(匣)씩이다.】 들여다 찬만(饌幔) 안에 진설하고,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로 나아간다. 봉조관이 이를 따른다. 초헌관이 폐백을 올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집례가 “찬을 올리라.”한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대사의 조를 받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고, 봉조관이 각기 생갑을 받들면, 전사관이 찬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대사 대직(大社大稷)의 찬은 정문(正門)으로 들어오고, 배위(配位)의 찬은 좌간(左闌)으로 들어온다. 조가 처음으로 문에 들어올 때에 헌가(軒架)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대사 대직의 찬은 북계[北陛]로 올라가고, 배위의 찬은 서계[西陛]로 올라가면, 여러 대축이 맞이하여 단상으로 인도한다. 천조관이 대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고 꿇어앉아 올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여러 대축이 조전(助奠)한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뚜껑을 열고, 다음에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꿇어앉아서 올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여러 대축이 조전한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뚜껑을 열고, 다음에 대직 후직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받들어 올리는데, 모두 대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이하생략~

▶ 129권 五禮 吉禮儀式 親祫宗廟儀 陳設

陳設

~중략~

次設祭器, 實饌具, 每位各籩十二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繡、乾棗、栗黃、榛子、菱仁次之. 第二行, 芡仁在前, 鹿脯、白餅、黑餅、糗餌、粉飡次之.】豆十二在右, 爲二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菁菹、鹿醢、芹菹、兔醢次之. 第二行, 筍菹在前, 魚醢、脾析、豚拍、醢食、糝食次之.】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 一實牛腥, 一實羊腥. 七體兩髀兩肩兩脅並脊, 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 皆有牲匣.】簠簋各四在籩豆間, 簋在簠前. 【簠實以稻粱, 簋實以黍稷.】甗鉶各六, 在簠簋後, 鉶居前, 甗次之, 【實以大羹, 實以和羹, 加毛滑.】

이하생략~

진설(陳設)

~중략~

다음에 제기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마다 각기 변(籩)이 12개로서, 왼쪽에 있게 하여 두 줄로 하되, 오른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건조·율황·진자·능인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감인이 앞에 있고, 녹포·백병·흑병·구이·분자가 다음이다.】 두(豆)가 12개로서, 오른쪽에 있게 하여 두 줄로 하되, 왼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구저가 앞에 있고, 담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순저(筍菹)가 앞에 있고, 어해(魚醢)·비석(脾析)·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다음이다.】 조가 3개로서, 둘은 변 앞에 있고, 하나는 두 앞에 있다. 【변 앞의 조 하나에는 우성을 담고, 하나에는 양성 칠체를 담는데, 양비·양견·양협과 등심[脊]이다.】

넓적다리[髀]는 양단에 있고, 어깨[肩]와 갈비[脅]가 다음이요, 등심[脊]이 가운데에 있다. 두 앞의 조에는 시성 칠채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과 같이 한다. 송나라 《석전의》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룸이다.”고 하였다.】 두 오른쪽에 조가 3개이고, 【하나는 소[牛]의 익힌 장·위·폐를 담고, 하나는 양의 익힌 장·위·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豕]의 익힌 살코기[膚]를 담는데, 돼지가 앞에 있고, 양·소가 다음이다. 무릇 조(俎)에는 다 생갓(牲匣)이 있다.】 보·쾌가 각각 4개인데, 번·두 사이에 있으며, 쾌가 보 앞에 있다. 【보에는 도·양을 담고, 쾌에는 서·직을 담는다.】 등(鬐)·형(銅)이 각각 6개인데, 보·쾌 뒤에 있으며, 형이 앞에 있고, 등이 다음이다. 【등에는 대갱(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담는데, 모활(毛滑)을 더한다.】
이하생략~

▶ 129권 五禮 吉禮儀式 親祫宗廟儀 饋食

饋食

殿下既升裸,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鑊, 實于一鼎, 次升羊實于一鼎, 次升豕實于一鼎, 【每位, 牛羊豕各一鼎.】 皆設局羃, 祝史對舉,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 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殿下裸訖復位, 樂止, 執禮曰: “進饌.” 祝史抽局委于鼎右, 除羃加匕畢于鼎. 典祀官以匕升牛,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室, 牛羊豕各一匣.】 次引薦俎官, 捧穆祖位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諸祝史俱進, 徹毛血槃, 自阼階授齋郎以出. 饌至泰階, 諸大祝迎引於階上, 薦俎官詣穆祖神位前北向跪奠, 【若詣北向神位, 即皆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 奠訖, 啓牲匣蓋, 詣次位捧奠, 竝如上儀訖, 樂止
이하생략~

饋食(饋食)

전하(殿下)가 이미 올라가서 관향(裸享)하였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 비(匕)로써 화(鑊)에서 소[牛]를 들어 올려 한 정(鼎)에 담고, 다음에 양을 들어 올려서 한 정에 담고, 다음에 돼지[豕]를 들어 올려서 한 정에 담는데, 【매위(每位)에 소·양·돼지 각 1정씩이다.】 모두 경막(局羃)을 설치한다. 축사가 마주 들어서 찬만(饌幔) 안으로 들여다 진설하고,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로 나아간다. 봉조관이 이를 따른다. 전하가 강신[裸]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악이 그치기를 기다려, 집례가 말하기를,

“찬을 올려[進饌]라.”

한다. 축사가 경(局)을 뽑아서 정(鼎)의 오른쪽에 놓고, 먹(羃)을 제치[除]고 정에다 비와 필(畢)을 얹어놓으면, 전사관이 비로써 소를 들어 올려 생갓(牲甲)에 담고, 다음에 양과 돼지를 들어 올려 각기 생갓에 담는다. 【매실에 소·양·돼지 각 1갓씩이다.】

다음에 천조관을 인도하여 목조위(穆祖位)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이 각기 생갓을 받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면, 전사관이 찬을 인도하여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조가 처음으로 문에 들어갈 때에 헌가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거두어, 동계(阼階)에서 재랑에게 주어 나가게 한다. 찬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이 계상(階上)에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이 목조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려 드리는데, 【만약 북향한 신위에 나아가면, 곧 남향하여 꿇어앉아 올려 드린다.】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여러 대축이 조전(助奠)한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감의 뚜껑을 열고, 다음 위로 나아가서 받들어 올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이하생략~

▶ 129권 五禮 吉禮儀式 祫享宗廟攝事儀 陳設

陳設

~중략~

享日未行事前, 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 【各有玷.】 陳幣篚各一於酌尊所;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之前. 次設祭器, 實饌具, 每位各簋十二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乾棗栗黃榛子菱仁次之. 第二行, 芡仁在前, 鹿脯白餅黑餅糗餌粉飡次之.】 豆十二在右, 爲二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菁菹鹿醢芹菹兔醢次之. 第二行, 筍菹在前, 魚醢脾析豚拍醢食糝食次之.】 俎三, 二在簋前, 一在豆前. 【簋前俎一實牛腥, 一實羊腥. 七體兩髀兩肩兩脅竝脊, 而脾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豕腥, 七體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 皆有牲匣.】 簠簋各四, 在簋豆間, 簋在前簠次之. 【簠實以稻粱, 簋實以黍稷.】 甗鉶各六在簠簋後, 鉶在前, 甗次之. 【實以大羹, 實以和羹, 加芼滑.】 爵六在簠簋前.

이하생략~

진설(陳設)

~중략~

제향일 행사하기 전에 종묘령·전사관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 각 하나씩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 놓고, 【각기 점이 있다.】 폐비 각 하나씩을 작준소(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축(燭)을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에 각기 변(簋)이 12개로서, 왼쪽에 있게 하여 두 줄로 하되, 오른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진자(榛子)·능인(菱仁)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감인(芡仁)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飡)가 다음이다.】 두(豆)가 12개로서, 오른쪽에 있게 하여 두 줄로 하되, 왼쪽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구저(韭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순저(筍菹)가 앞에 있고, 어해(魚

醢·비식(脾析)·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다음이다.】 조가 3개로서, 둘은 변 앞에 있고, 하나는 두(豆) 앞에 있다. **【변 앞의 조 하나에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에는 양성 칠체(羊腥七體)를 담는데,** 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심[脊]이다. 넓적다리[脾]는 양단(兩端)에 있고, 어깨[肩]와 갈비[脅]가 다음이요, 등심[脊]이 가운데에 있다. 두 앞의 조에는 시성 칠체(豕腥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과 같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룸이다.”고 하였다.】 두 오른 쪽에 조가 3개이고, **【하나는 소[牛]의 익힌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羊)의 익힌 장·위·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豕]의 익힌 살코기[膚]를 담는데, 돼지가 앞에 있고, 양·소가 다음이다. 무릇 조(俎)에는 다 생갸(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4개인데, 변·두 사이에 있으며, 궤가 앞에 있고, 보가 다음이다. **【보에는 도(稻)·양(粱)을 담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다.】** 등(甗)·형(鉶)이 각각 6개인데, 보·궤 뒤에 있으며, 형이 앞에 있고, 등이 다음이다. **【등에는 대갱(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담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이하생략~

▶ 129권 五禮 吉禮儀式 祫享宗廟攝事儀 饋食

饋食

初獻官既升裸瓚，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簠，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位，牛羊豕各一匣.】**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初獻官裸訖復位. 執禮曰：“進饌.” 謁者引薦俎官，捧穆祖位俎，捧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 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 諸祝史俱進，徹毛血幣，自阼階授齊郎以出. 饌至泰階，諸大祝迎引於階上，**薦俎官詣穆祖神位前北向跪奠，【若詣北向神位，即皆南向跪奠.】** 先薦牛，次薦羊，次薦豕. **【諸大祝助奠.】** 奠訖，啓牲匣蓋，詣次位捧奠，竝如上儀訖，**【樂止.】**

이하생략~

궤식(饋食)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서 관찬(裸瓚)하였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 비(匕)로써 확(簠)에서 소[牛]를 들어 올려 생갸(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羊)과 돼지[豕]를 들어 올려서 각기 생갸에 담는다. **【매위(每位)에 소·양·돼지 각각 1갸(匣)씩이다.】** 이를 들여다 찬만(饌幔) 안에 진설하면,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간다.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른다. 초헌관이 강신[裸]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한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목조위(穆祖位)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이 각기 생갸(牲匣)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간다. 조(俎)가 처음 문(門)에 들어갈 때 헌가(軒架)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모혈반을 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두어, 동계[阼階]에서 재랑(齋郎)에게 주어 나가게 한다. 찬(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이 계상(階上)에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이 목조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려 드리는데, 【만약 북향한 신위에 나아가게 되면, 모두 남향하여 꿇어앉아 드린다.】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여러 대축이 조전(助奠)한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뚜껑을 열고, 다음 위(位)로 나아가서 받들어 올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이하생략~

▶ 130권 五禮 吉禮儀式 四時及臘親享宗廟儀 陳設

陳設

~중략~

享日未行事前, 宮闈令帥其屬, 開室整拂神幄, 鋪筵設几如常儀. 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各室神位之右, 【各有玷.】 陳幣簠各一於各室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之前. 次設祭器實饌具, 每室各簠十二在左, 爲二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乾棗栗黃榛子菱仁次之. 第二行, 芡仁在前, 鹿脯白餅黑餅餌粉餈次之.】 豆十二在右, 爲二行左上. 【等一行, 韭菹在前, 醯醢苴鹿醢芹苴兔醢次之. 第二行, 笋菹在前, 魚醢脾析豚拍醢食次之.】 俎三, 二在簠前, 一在豆前. 【簠前俎一實牛腥, 一實羊腥. 七體兩脾兩肩兩脅并脊而脾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豆前. 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 皆有牲匣.】 簠簋各四在簠豆間, 簋居前, 簠次之. 【簠實以稻粱, 簋實以黍稷.】 甗鉶各六在簠簋後, 鉶居前, 甗次之. 【實以大羹, 實以和羹, 加芼滑.】

이하생략~

진설(陳設)

~중략~

제향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衛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실(祭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几]을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각기 하나씩 각 실(室)의 신위(神位) 오른쪽에 드리고, 【각기 점(玷)이 있다.】 폐백 광주리[幣簠]를 각실(各室) 존소(尊所)에 각기 하나씩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실(室)마다 각기 변(簠) 12개가 왼쪽에 있어, 두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을 상(上)으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진자(榛子)·능인(菱仁)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김인(芡仁)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餈)가

그 다음이다.】 두(豆) 12개가 오른쪽에 있되, 두 줄로 하여 왼쪽을 상(上)으로 하며, 【첫째 줄에는 구저(韭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가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순저(筍菹)가 앞에 있고, 어해(魚醢)·비식(脾析)·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그 다음이다.】 조(俎) 3개 중에서 2개는 변(籩) 앞에 있고, 1개는 두(豆)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俎) 한 개는 우성(牛腥)을 담고, 한 개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비(兩髀)·양견(兩肩)·양협(兩脅)·등심[脊]이다. 넓적다리[髀]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肩]와 갈비[脅]는 그 다음에 있고, 등심[脊]은 가운데에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시성(豕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과 같다. 송(宋)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른다.” 하였다.】 두(豆) 오른쪽의 조(俎)가 3개이고, 【한 개는 소[牛]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양(羊)의 삶은 장·위·폐를 담고, 한개는 돼지[豕]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俎)에는 모두 생갸(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4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있다. 궤는 앞에 있고, 보는 그 다음에 있다. 【보(簠)에는 도(稻)·양(粱)을 담고, 궤(簋)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다.】 등(甗)·형(銅)이 각각 6개인데, 보·궤 뒤에 있으며, 형이 앞에 있고, 등이 그 다음에 있다. 【등에는 대갱(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담는데, 모활(茅滑)을 더한다.】

이하생략~

▶ 130권 五禮 吉禮儀式 四時及臘親享宗廟儀 饋食

饋食

殿下既升祼,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鑊, 實于一鼎, 次升羊實于一鼎, 次升豕實于一鼎, 【每室牛羊豕, 各一鼎.】 皆設局羃, 祝史對舉,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殿下祼訖復位. 【樂止.】 執禮曰: “進饌.” 祝史抽局委于鼎右. 除羃加匕畢于鼎, 典祀官以匕升牛,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室, 牛羊豕, 各一匣.】 次引薦俎官, 捧穆祖室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諸祝史俱進, 徹毛血槃, 自阼階授齊郎以出, 饌至泰階, 諸大祝迎引於階上. 薦俎官詣穆祖神位前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 奠訖, 啓牲匣蓋, 詣翼祖室, 次詣度祖室, 次詣桓祖室, 次詣太祖室捧奠, 竝如上儀訖, 【樂止.】

이하생략~

궤식(饋食)

전하가 이미 올라가 강신(降神)을 마치면, 찬인(贊引)이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소를 가마[鑊]에 들어 올려서 한 술[鼎]에 담고, 다음에 양을 들어 올려서 한 술에 담고, 다음에는 돼지를 들어 올려 한 술에 담는데, 【매 실(室)마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술[鼎]이다.】 모두 경(局)·떡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羴)을 설치하며, 축사(祝史)가 마주 들고 들어와 찬만(饌幔)안에 진설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는데, 전하가 강신(降神)을 마치기를 기다려 제자리로 돌아가고 악(樂)이 그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찬(饌)을 올리라.”

하면, 축사(祝史)가 경(局)을 들어 술[鼎] 오른쪽에 두고 먹(羴)을 걷어치우고, 비(匕)와 필(畢)을 술에 얹어 둔다. 전사관이 비로써 소를 떠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은 양(羊)과 돼지를 떠올려 각기 생갑에 담는다. 【매 실(室)마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갑(匣)이다.】 다음에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목조실(穆祖室)의 조(俎)를 받들게 하면, 봉조관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든다. 전사관이 제찬(祭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오는데, 조(俎)가 처음 문(門)에 들어오면, 헌가(軒架)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祝史)가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걸어 치어 동계[阼階]에서 재랑(齋郎)에게 주어서 나가게 하고, 찬(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大祝)이 섬돌 위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이 목조(穆祖)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여러 대축(大祝)이 올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덮개[蓋]를 열고 익조실(翼祖室)로 나아가고, 다음에 도조실(度祖室)로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桓祖室)로 나아가고, 다음에 태조실(太祖室)로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樂)이 그친다.

이하생략~

▶ 130권 五禮 吉禮儀式 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陳設

陳設

~중략~

次設祭器，實饌具，每室各籩十二在左，爲二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乾棗栗黃榛子菱仁次之。第二行，芡仁在前，鹿脯白餅黑餅糗餌粉飡次之。】豆十二在右，爲二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醢菁菹鹿醢芹菹兔醢次之，第二行，筍菹在前，魚醢脾析豚拍醢食糝食次之。】俎三，二在籩前，一在豆前。【籩前俎一實羊腥，七體兩髀兩肩兩脅竝脊，而髀在兩端，肩脅次之，脊在中豆。前俎實豕腥七體，其載如羊。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豆右之俎三，【一實牛熟腸胃肺，一實羊熟腸胃肺，一實豕熟膚。豕在前，羊牛次之，凡俎皆有牲匣。】簠簋各四在籩豆間，簠居前，簋次之。【簠實以稻粱，簋實以黍稷。】甗鉶各六在簠簋後，鉶居前，甗次之。【實以大羹，實以和羹，加芼滑。】

이하생략~

진설(陳設)

~중략~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實饌具]를 설치하되, 매 실마다 각기 변(籩) 12개

가 왼쪽에 있어 두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을 위로 하며,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진자(榛子)·능인(菱仁)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겸인(芡仁)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糒)가 그 다음이다.】 두(豆) 12개는 오른쪽에 놓되, 두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하며, 【첫째 줄에는 구지(韭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가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순저(筍菹)가 앞에 있고, 어해(魚醢)·비식(脾析)·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그 다음이다.】 조(俎)가 3개인데, 2개는 변(籩) 앞에 있고 1개는 두(豆)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俎)에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심[脊]이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肩]와 갈비[脅]가 그 다음에 있고, 등심[脊]이 가운데에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시성(豕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과 같다. 무릇 조에는 모두 생갑(牲匣)이 있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앞에 있다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른다.”고 하였다.】 두(豆)의 오른쪽에 조(俎)가 3개, 【한 개는 소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양의 삶은 장·위·폐를 담고, 한 개는 돼지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 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俎)에는 생갑(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4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놓되, 궤가 앞에 있고, 보가 다음에 있다. 【보에는 도(稻)·양(粱)을 담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다.】 등(甗)과 형(鉶)이 각각 6개인데, 보·궤 뒤에 놓되, 형이 앞에 있고 등은 그 다음에 있다. 【등에는 대羹(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羹(和羹)을 담는데, 모활(茆滑)을 더한다.】
이하생략~

▶ 130권 五禮 吉禮儀式 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饋食

饋食

初獻官既升裸,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簠,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室, 牛羊豕各一匣.】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 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初獻官(課)〔裸〕訖復位. 執禮曰: “進饌.” 謁者引薦俎官, 捧穆祖室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諸祝史俱進, 徹毛血槃, 自阼階授齊郎以出. 饌至泰階, 諸大祝迎引於階上. 薦俎官詣穆祖神位前, 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諸大祝助奠.】 奠訖, 啓牲匣蓋, 詣翼祖室, 次詣度祖室, 次詣桓祖室, 次詣太祖室捧奠, 竝如上儀訖, 【樂止.】

이하생략~

궤식(饋食)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 강신(降神)을 마치면, 찬인(贊引)이 전사관을 인도하고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소를 가마[簠]에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羊)과 돼지[豕]를 들어 올려 각각 생갑에 담아, 【매 실(室)마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갑(匣)이다.】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고, 초헌관이 강신(降神)을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하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목조실(穆祖室)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감을 받들면,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정문(正門)으로 들어온다. 조가 처음 문에 들어오면, 헌가(軒架)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가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걸어 치위 동계[阼階]에서 재랑(齋郎)에게 주고는 나가고, 제찬(祭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이 섬돌 위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이 목조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여러 대축이 올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蓋]를 열고 익조실로 나아가고, 다음에 도조실로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로 나아가고, 다음에 태조실로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이하생략~

▶ 131권 五禮 吉禮儀式 親享先農儀 陳設

陳設

前享三日, 扈衛司設大次於齋宮, 南向; 小次於壇東階東南, 西向; 設文武侍臣次於齋宮之前, 文左武右, 俱相向; 設諸享官次於齋坊之內; 陪祭宗室及文武群官次又於其前, 隨地之宜. 前二日, 典祀官帥其屬, 掃除壇之內外, 設饌幔於內壝東門外, 隨地之宜. 雅樂令帥其屬, 設登歌之樂於壇上近南; 設軒架於壇下, 俱北向. 前一日, 典祀官帥其屬, 設帝神農氏神座於壇上北方, 南向; 后稷氏神座於壇上東方, 西向, 席皆以莞. 掌牲令牽牲詣享所. 執禮設殿下版位於壇下東南, 西向; 飲福位於壇上南陛之西, 北向. 贊者設亞獻官、終獻官、進幣爵酒官、薦俎官、奠幣爵酒官位於殿下版位之後道南, 西向; 執事者位於其後, 每等異位, 俱重行, 西向北上; 設監察位二於壇下近南, 東西相向, 書吏各陪其後; 執禮位二, 一於壇上, 一於壇下, 俱近東西向; 謁者、贊者、贊引在壇下執禮之後稍南, 西向北上; 協律郎位於壇上近西, 東向; 雅樂令位於軒懸之北, 北向; 設陪祭官位文官九品以上於東門之內道南, 每等異位, 俱重行, 西向北上; 武官九品以上於西門之內當文官, 每等異位, 俱重行, 東向北上; 設門外位享官及諸執事於東門外道南, 每等異位, 俱重行, 北向西上; 開瘞坎於壇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陛; 設望瘞位於瘞坎之南, 亞獻官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東, 俱重行西向北上. 典農寺設殿下耕籍位於壝南門外東南十步所南向, 隨地之宜. 【凡耕籍禮, 典農寺主之.】扈衛司設幄座於觀耕臺上, 南向; 小次於西階下稍北, 南向. 典農寺設殿下版位於耕籍所, 南向; 侍耕位在於東西階下, 北上; 從耕宗室宰臣位在東南, 諸判書臺諫位在其南, 皆西向北上; 【司諫稍却.】庶人位在其南少東十步外, 耆民陪耕位又在其南, 皆西向; 設耕耒席於宗室之北稍西, 南向. **司僕寺設親耕牛於親耕位之西稍北.** 雅樂署設登歌之樂於觀耕臺上, 軒架於庶人耕位西

南, 俱北向. 典農寺設耕籍使位於親耕位之東南向, 判典農在耕籍使東南, 籍田令在判典農之南少退, 俱西向北上; 奉青箱官位於其後, 典農寺尹位於庶人位之前, 典祀注簿位於典農寺尹之南少退, 皆西向北上; 判司僕位於親耕牛之東稍前南向; 畿內邑令位於庶人位之東, 西向; 執耒耜者位於從耕官之後執畚鍤者之前西向, 又設從耕耒耜及牛各於其位之前. 未後二刻, 典祀官帥其屬, 掃除壇之內外. 執禮先入壇下, 亞終獻以下竝集肄儀. 謁者引亞獻官, 贊引引監察, 俱以常服詣廚, 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膳, 俱還齋所. 晡後, 典祀官帥宰人, 以鑿刀割牲, 祝史以槃取毛血, 置饌所, 遂烹牲. 【連皮煮熟, 其餘毛血, 以淨器盛貯, 祭畢埋之.】 享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 【各有坩.】 陳幣篚各一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籩十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形鹽在前, 魚鱸乾棗、栗黃次之. 第二行, 榛子在前, 菱仁、芡仁次之. 第三行、鹿脯在前, 白餅、黑餅次之.】 豆十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菁菹、鹿醢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兔醢、荀菹次之. 第三行、魚醢在前, 髀析、豚拍次之.】 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一實牛腥, 一實羊腥. 七體兩髀兩肩兩脅并脊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豚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 皆有牲脔.】 簠簋各二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 【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甗鉶各三在簠簋後, 鉶居前, 甗次之. 【甗實以大羹, 鉶實以和羹, 加毛滑.】

이하생략~

진설(陳設)

제향 전 3일에 호위사(扈衛司)에서 대차(大次)를 재궁(齋宮)에다 남향하여 설치하고, 소차(小次)를 단(壇)의 동계[東陞]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문무시신(文武侍臣)의 막차(幕次)를 재궁 앞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왼편에, 무관은 오른편에 설치하되, 모두 서로 향[相向]하게 한다. 여러 향관(享官)의 막차를 재방(齋坊) 안에 설치하고, 배제(陪祭)할 종실(宗室)과 문무 군관(文武群官)의 막차를 또 그 앞에다 설치하는데,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한다.

2일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의 내외를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내유(內壝)의 동문(東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한다. 아악령(雅樂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악(登歌樂)을 단 위에다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단 아래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1일 전에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농씨(申農氏)의 신좌(神座)를 단 위의 북방(北方)에다 남향하여 설치하고, 후직씨(后稷氏)의 신좌를 단 위의 동방(東方)에다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끌고 향소(享所)로 나아가다.

집례(執禮)가 전하의 판위(版位)를 단(壇) 아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음복위(飮福位)를 단(壇) 위 남계[南陞]의 서쪽에다 북향하여 설치한다. 찬자(贊者)가 아헌관·중헌관·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폐작주관(進幣爵酒官)·천조관(薦俎官)·전폐작주관(奠幣爵酒官)의 자리를 전하의 판위(版位) 뒤 길[道] 남쪽에다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자리하게 하는데,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써 서향하게 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들을 단(壇) 아래에다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동서(東西)로 상향(相向)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각기 그 뒤에 배립(陪立)하게 한다. 집례의 자리가 둘인데, 하나는 단 위에, 하나는 단 아래에 있게 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찬인은 단 아래 집례의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남쪽으로 하여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協律郎)은 단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자리하고, 아악령(雅樂令)은 헌현(軒懸)의 북쪽에 북향하여 자리한다. 배제관(陪祭官)의 자리를 설치하는데, 문관 9품 이상은 동문(同門)안의 길 남쪽에 있게 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써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무관 9품 이상은 서문(西門) 안에 문관과 마주 대하게 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써 동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는데, 향관과 여러 집사는 동문(東門) 밖 길 남쪽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모두 겹줄로써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예감(瘞坎)을 단 북쪽 임지(壬地)에 파는데,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넣기에 넉넉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陛]을 낸다. 망예위(望瘞位)를 예감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아헌관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집례(執禮)·대축(大祝)·찬자(贊者)는 동쪽에 있게 하되, 모두 겹줄로써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전농시(典農寺)에서 전하(殿下)의 경적위(耕籍位)를 유(塿)의 남문(南門) 밖에 설치하는데, 동남쪽 10보(步)되는 곳에 남향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무릇 경적례(耕籍禮)는 전농시에서 주장(主掌)한다.】 호위사(扈衛司)에서 악좌(幄座)를 관경대(觀耕臺) 위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소차(小次)를 서계(西階) 아래에 조금 북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한다. 전농시에서 전하(殿下)의 판위(版位)를 경적소(耕籍所)에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시경위(侍耕位)는 동·서계(東西階) 아래에 있게 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종경(從耕)할 종실(宗室)과 재신(宰臣)의 자리는 동남편에 있고, 여러 판서(判書)와 대간(臺諫)의 자리는 그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사간(司諫)은 조금 물러 있게 한다.】 서인(庶人)의 자리는 그 남쪽에 조금 동쪽으로 10보(步) 밖에 있고, 기민(耆民)의 배경위(陪耕位)는 또 그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한다. 친경(親耕)할 쟁기의 자리[耒席]를 종실(宗室)의 북쪽에 조금 서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복시(司僕寺)에서 친경(親耕)할 소[牛]를 친경위(親耕位)의 서쪽에 조금 북쪽으로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에서 등가악(登歌樂)을 관경대(觀耕臺) 위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서인(庶人)의 경위(耕位) 서남쪽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전농시에서 경적사(耕籍使)의 자리를 친경위(親耕位)의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판전농(判典農)은 경적사의 동남쪽에 있고, 적전령(籍田令)은 판전농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있는데,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청상(靑箱)을 받든 관원은 그 뒤에 자리하고, 전농시 윤(典農寺尹)은 서인의 자리 앞에 자리하고, 전사 주부(典祀主簿)는 전농시 윤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자리하는데,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판사복(判司僕)은 친경(親耕)할 소의 동쪽에 조금 앞으로 남향하여 자리하고, 기내(畿內)의 읍령(邑令)은 서인의 자리 동쪽에 서향하여 자리하고, 쟁기[耒耜]를 잡는 자는 종경관(從耕官) 뒤, 분삽(畚鍤)을 잡은 자의 앞에 서향하여 자리한다. 또 종경할 쟁기와 소를 각기 그 자리의 앞에다 설치한다.

미시(未時) 뒤 2각에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내외(内外)를 소제하고, 집례

(執禮)가 먼저 단 아래로 들어오고, 아헌관·종헌관 이하가 모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모두 상복(常服)으로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척탁(滌濯)을 보고, 찬구(饌具)를 살펴보고, 희생의 충돈(充臚)을 보고 모두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포시(哺時)뒤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써 희생을 베고, 축사(祝史)가 반(槃)을 가지고 털과 피를 취(取)하여 찬소(饌所)에 두고, 드디어 희생을 삶는다. 【가죽채 삶아 익히고, 그 나머지의 털과 피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묻는다.】

제향일(祭享日)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각기 점(坫)이 있다.】 폐비(幣篚) 각 하나씩을 존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에 각기 변이 10개로서, 왼편에 있게 해서 세 줄로 하되, 오른편을 위[上]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검인(芡仁)이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가 앞에 있고, 백병(白餅)·흑병(黑餅)이 다음이다.】 두(豆) 10개가 오른편에 있게 해서 세 줄 하되, 왼편을 위로 한다. 【첫째 줄에는 구저(菹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토해(兔醢)·순저(筍菹)가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가 앞에 있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이 다음이다.】 조(俎)가 3개로서, 둘은 변 앞에 있고, 하나는 두 앞에 있다. 【변 앞의 조(俎) 하나에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에는 양성 칠체(羊腥七體)를 담는다. 칠체(七體)는 양비(兩髀)·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심[脊]인데, 양비는 양단(兩端)에 있고, 견(肩)과 협(脅)은 다음이요, 등심[脊]은 중앙에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시성 칠체(豕腥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성 칠체와 같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남쪽을 이름이다.” 하였다.】 두 오른편에 조(俎)가 3개요, 【하나는 소[牛]의 익힌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羊)의 익힌 장·위·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豕]의 익힌 살코기[膚]를 담는데, 돼지가 앞에 있고, 양·소가 다음이다. 무릇 조(俎)에는 다 생갑(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로서, 변(籩)·두(豆) 사이에 있는데, 보가 왼편에 있고, 궤가 오른편에 있다. 【보에는 도(稻)·양(粱)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등(甗)·형(鉶)이 각각 3개로서, 보·궤 뒤에 있는데, 형이 앞에 있고, 등이 다음이다. 【등에는 대갱(大羹)을 담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담는데, 모활(毛滑)을 더한다.】

이하생략~

▶ 131권 五禮 吉禮儀式 親享先農儀 饋享

饋享

殿下既升奠幣,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于鑊,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位, 牛羊豕各一匣.】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 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殿下奠幣訖復位. 樂止, 執禮曰: “進饌.” 謁者引薦俎官, 捧帝神農氏俎; 捧俎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諸祝史俱進徹毛血槃，自東陞授齋郎以出。饌至陞，諸大祝迎引於陞上，【正位之饌，升自南陞；配位之饌，升自東陞。】薦俎官升自南陞，詣帝神農氏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

이하생략~

궤향(饋享)

전하가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올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서, 비(匕)로써 소를 확(鑊)에서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돼지를 들어올려 각기 생갑에 담는다. **【매위(每位)에 소·양·돼지가 각기 1갑(匣)씩이다.】** 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찬만(饌幔) 안에 진설하고,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는데,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른다. 전하가 폐백을 올리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악이 그치기를 기다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

한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신농씨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이 각기 생갑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간다. 조가 처음으로 문(門)을 들어오면 헌가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거두어, 동계[東陞]로 재랑(齋郎)에게 주어서 나가게 한다. 찬이 섬돌[陞]에 이르면, 여러 대축이 맞이하여 계상[陞上]으로 인도한다. **【정위(正位)의 찬(饌)은 남계[南陞]로 오르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동계[東陞]로 오른다.】 천조관이 남계로 올라가서 신농씨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여러 대축이 조전(助奠)한다.】**

이하생략~

▶ 131권 五禮 吉禮儀式 王世子釋奠文宣王儀 陳設

陳設

前釋奠三日，扈衛司設王世子便次於廟東門外，西向；設陪祭宮官次於便次之後；設諸釋奠官次於齋坊之內。前二日，廟司帥其屬，掃除廟之內外，設譟幔於東門外，隨地之宜。前一日，雅樂令帥其屬，設登歌之樂於堂上前楹間，設軒架於廟庭，俱北向。掌牲令牽牲詣祠所。執禮設王世子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飲福位於堂上前楹外近東，西向。贊者設亞獻官、終獻官、分獻官位於王世子版位之後稍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俱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執事之南，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二，一於堂上前楹外，一於堂下，俱近東西向；謁者、贊者、贊引在堂下執禮之後稍南，西向北上；協律郎位於堂上前楹外近西，東向；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設陪祭宮官位於東門之內，每等異位，俱重行，西向北上；館官學官位於西門之內當陪祭宮官，每等異位，俱重行，

東向北上; 設學生位於庭中, 北向西上; 設門外位亞獻官、終獻官、分獻官於東門外道南, 執事者於其後, 每等異位, 俱重行, 北向西上; 開瘞坎於廟庭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陞; 設望瘞位於瘞坎之南, 王世子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 【大祝、贊者稍却.】未後三刻, 執禮先入明倫堂, 亞獻以下竝集肄儀. 謁者引終獻官, 贊引引監察, 俱以常服詣廚, 省鼎鑊視滌濯及視牲充膳, 俱還齋所. 晡後, 典祀官帥宰人, 以鑊刀割牲. 【連皮煮熟.】釋奠日未行事前, 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大成至聖文宣王、兗國復聖公、鄆國宗聖公、沂國述聖公、鄒國亞聖公神位之右. 【各有玷.】陳幣篚各一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之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籩十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鱸、乾棗、栗黃次之. 第二行, 榛子在前, 菱仁、芡仁次之. 第三行, 鹿脯在前, 白餅、黑餅次之.】豆十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菁菹、鹿醢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兔醢、筍菹次之. 第三行, 魚醢在前, 脾析、豚拍次之.】俎二, 一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實以牛腥, 豆前俎實以豕腥.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簠簋各二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 【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甄鉶各三在簠簋後, 鉶居前, 甄次之.

이하생략~

진설(陳設)

석전(釋奠)하기 전 3일에 호위사(扈衛司)에서 왕세자의 편차(便次)를 묘(廟)의 동문(東門) 밖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배제(陪祭)할 궁관(宮官)의 막차(幕次)를 편차(便次)의 뒤에다 설치하고, 여러 석전관(釋奠官)의 막차를 재방(齋坊) 안에 설치한다.

석전하기 전 2일에 묘사(廟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묘(廟)의 내외(內外)를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문(東門) 밖에다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설치한다.

석전하기 전 1일에 아악령(雅樂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악(登歌樂)을 당상(堂上)의 전영(前楹) 사이에다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끌고 사소(祠所)로 나아가고,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陛]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음복위를 당상의 전영 밖에다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찬자(贊者)가 아헌관·종헌관·분헌관(分獻官)의 자리를 왕세자의 판위 뒤에다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한다. 집사자는 그 뒤에 자리하는데,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써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립(陪立)한다. 집례(執禮)의 자리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당상(堂上)의 전영(前楹) 밖에, 하나는 당하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찬인은 당하의 집례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여 있다. 협률랑은 당상의 전영 밖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자리하고, 아악령은 헌현(軒懸)의 북쪽에 북향하여 자리한다. 배제할 궁관의 자리를 동문 안에 설치하는데,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써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관관(館官)·학관(學官)은 서문 안의 배제 궁관에 당(當)하여 자리하는데,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써 동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학생(學生)의 자리를 뜰 가운데에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해서 설치한다. 문외위를 설치하는데, 아헌관·종헌관·분헌관은 동문 밖의 길[道] 남쪽에, 집사자는 그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뒤에 설치하되,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써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예감(瘞坎)을 묘정(廟庭)의 북쪽 임지(壬地)에 파는데,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넣기에 넉넉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陞]을 낸다. 망예위를 예감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왕세자는 남쪽에 북향하고 있고, 집례·대축·찬자는 동쪽에 서향하고 있되, 북쪽을 위로 한다. 【대축·찬자는 조금 뒤로 물러 있다.】 미시(未時) 뒤 3각에 집례가 먼저 명륜당(明倫堂)으로 들어가고, 아현관 이하가 모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모두 상복(常服)으로써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정확(鼎鑊)을 살피고, 척탁(滌濯)을 보고, 그리고 희생의 충돈(充臚)을 보고 나서 모두 채소로 돌아간다. 포시(晡時) 뒤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써 희생을 벤다. 【가족제 삶아 익힌다.】

석전일(釋奠日) 행사(行事)하기 전에 묘사(廟司)와 전사관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대성지성문선왕·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성국종성공(鄭國宗聖公)·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의 신위(神位) 오른편에 올려놓는다. 【각기 점(玷)이 있다.】 폐비(幣篚) 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에 각기 변(邊)이 10개로서, 왼편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해서 오른편을 위[上]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검인(芡仁)이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가 앞에 있고, 백병(白餅)·흑병(黑餅)이 다음이다.】 두(豆)가 10개로서, 오른편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해서 왼편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구저(藟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토해(兔醢)·순저(筍菹)가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가 앞에 있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이 다음이다.】 조(俎)가 2개로서, 하나는 변 앞에 있고, 하나는 두 앞에 있다. **【변 앞의 조에는 우성(牛腥)을 담고, 두 앞의 조에는 시성(豕腥)을 담는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남쪽을 이 름이다.” 하였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로서 변·두 사이에 있는데, 보가 왼편에 있고, 궤가 오른편에 있다. 【보에는 도(稻)·양(粱)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 등(甄)·형(銅)이 각각 3개로서 보·궤 뒤에 있는데, 형이 앞에 있고, 등이 다음이다.

이하생략~

▶ 131권 五禮 吉禮儀式 有司釋奠文宣王儀 陳設

陳設

前釋奠二日, 扈衛司設行事執事官次於廟東門外, 隨地之宜. 廟司帥其屬, 掃除廟之內外, 設饌幔於東門外, 隨地之宜. 前一日, 掌牲令牽牲詣祠所. 雅樂令帥其屬, 設登歌之樂於堂上前楹間, 設軒架於廟庭, 俱北向. 執禮設初獻官位於東階東南, 西向; 亞獻官、終獻官、分獻官位於初獻官之後; 執事者位於其後, 每等異位, 俱重行, 西向北上; 設監

察位於執事之南，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二，一於堂上前楹外，一於堂下，俱近東西向；謁者、贊者、贊引在堂下執禮之後稍南，西向北上；協律郎位於堂上前楹外近西，東向；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設館官學官位於西階西南，東向北上；學生位於庭中，北向西上；設初獻官飲福位於堂上前楹外近東，西向；設門外位三獻官分獻官位於東門外道南，執事者於其後，每等異位，俱重行，北向西上；開瘞坎於廟庭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陞；設望瘞位於瘞坎之南，初獻官在南北向，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上。

【大祝、贊者稍却。】未後三刻，執禮先入明倫堂，獻官以下，竝集肄儀。謁者引終獻官，贊引引監察，俱以常服詣廚，省鼎鑊視滌濯及視牲充牣，俱還齋所。晡後，典祀官帥宰人，以鑾刀割牲。【連皮煮熟。】釋奠日未行事前，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大成至聖文宣王、兗國復聖公、鄒國宗聖公、沂國述聖公、鄒國亞聖公神位之右，【各有玷。】陳幣篚各一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每位各簋十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鱸、乾棗、栗黃次之。第二行，榛子在前，菱仁、芡仁次之。第三行，鹿脯在前，白餅、黑餅次之。】豆十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醯醢、菁菹、鹿醢次之。第二行，芹菹在前，兔醢、筍菹次之。第三行，魚醢在前，脾析、豚拍次之。】俎二，一在簋前，一在豆前。【簋前俎實以牛腥，豆前俎實以豕腥。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簋簋各二在簋豆間，簋在左簋在右。

이하생략~

진설(陳設)

석전(釋奠)하기 전 2일에 호위사(扈衛司)에서 행사할 집사관의 막차(幕次)를 묘의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설치하고, 묘사(廟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묘의 내외(內外)를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문 밖에다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설치한다. 1일 전에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끌고 사소로 나아가고, 아악령(雅樂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악(登歌樂)을 당상의 전영(前楹)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묘정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집례가 초헌관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분헌관(分獻官)은 초헌관의 뒤에 자리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자리하는데,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써 서향하되, 북쪽을 위[上]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립(陪立)하게 한다. 집례의 자리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당상(堂上)의 전영 밖에, 하나는 당하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찬인은 당하의 집례 뒤에 있는데,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은 당상의 전영 밖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자리하고, 아악령은 헌현(軒懸)의 북쪽에 북향하여 자리한다.

관관(館官)·학관의 자리를 서계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동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학생은 뜰 가운데에 자리하는데,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초헌관의 음복위(飲福位)를 당상의 전영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문외위를 설치하는데, 세 헌관과 분헌관은 동문 밖의 길 남쪽에 자리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있되,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예감(瘞坎)을 묘정의 북쪽 임지(壬地)에 파는데,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넣기에 넉넉하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망예위(望座位)를 예감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초헌관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집례·대축·찬자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대축·찬자는 조금 뒤로 물러 있다.】 미시(末時) 뒤 3각에 집례가 먼저 명륜당(明倫堂)으로 들어가고, 헌관이 하가 모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모두 상복(常服)으로써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정(鼎)·확(鑊)을 살피고, 척탁(滌濯)을 보고, 희생의 충돈(充頓)을 보고서 모두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포시(哺時) 뒤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써 희생을 벤다. 【가죽채 삶아 익힌다.】

석전일(釋奠日) 행사하기 전에 묘사(廟司)와 전사관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과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성국종성공(鄭國宗聖公)·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의 신위(神位) 오른편에 올려놓고, 【각기 점(玷)이 있다.】 폐비(幣篚) 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에 각기 변(簋)이 10개로서, 왼편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해서 오른편을 위[上]로 하고,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이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감인(芡仁)이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가 앞에 있고, 백병(白餅)·흑병(黑餅)이 다음이다.】 두(豆)가 10개로서, 오른편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해서 왼편을 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구저(菹菹)가 앞에 있고, 탐해(醢醢)·청저(菁菹)·녹해(鹿醢)가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가 앞에 있고, 토해(兔醢)·순저(筍菹)가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가 앞에 있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이 다음이다.】 조(俎)가 2개로서, 하나는 변 앞에 있고, 하나는 두 앞에 있다. 【변 앞의 조에는 우성(牛腥)을 담고, 두 앞의 조에는 시성(豕腥)을 담는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남쪽을 이 름이다.”고 하였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로서, 변·두 사이에 있는데, 보가 왼편에 있고, 궤가 오른편에 있다.

이하생략~

▶ 133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干

干

《書圖》, 干, 盾也. 今制有二, 長者曰長防牌, 長五尺六寸, 廣二尺二寸. 圓者曰圓防牌, 徑三尺. 鐵緣, 皆以板爲質, 外裹牛皮, 內裹白布. 面上, 以五采畫獸頭. 中軍赤, 左軍青, 右軍白.

[圓防牌]: 說見上.

간(干)

《서도(書圖)》에

“간(干)은 방패[盾]이다.”

고 한다. 지금의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긴 것은 ‘장방패(長防牌)’라고 하는데, 길이는 5척(尺) 6촌(寸)이고, 나비는 2척 2촌이며, 둥근 것은 ‘원방패(圓防牌)’라고 하는데, 직경(直徑)이 3척이고, 쇠로써 선을 두르고 모두 판목(板木)으로써 바탕을 하였는데, **겉에는 쇠가죽[牛皮]으로 싸고**, 안에는 흰 베[白布]로 쓴다. 면상(面上)에는 다섯 가지 채색(彩色)으로써 짐승의 머리를 그리는데, 중군(中軍)은 적색(赤色)이고, 좌군(左軍)은 청색(靑色)이고, 우군(右軍)은 백색(白色)이다.



▶ 133권 五禮 軍禮序例 車輻・角

角

《事物紀原》，黃帝與蚩尤戰，始命吹角，作龍鳴以禦之。今有大角，以銀爲之，又以木爲之，漆以朱，或漆以黑。中角，制同而差小。角以黃銅鍍金爲之，**或用牛角而以木爲柄，漆以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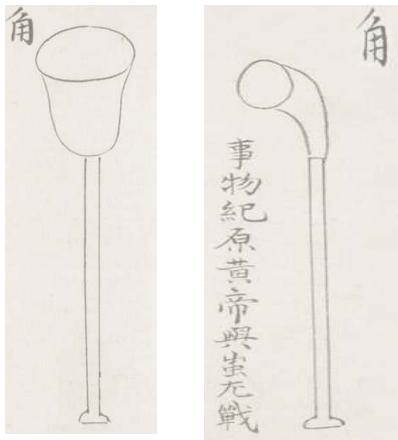
각(角)

《事物紀原(事物紀原)》에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와 싸울 적에 비로소 각을 불도록 명령하여, 용의 울음소리를 내어 적을 방어했다.”

한다. 지금은 대각(大角)이 있는데, 은(銀)으로써 이를 만들고, 또 나무로써 이를 만들어 붉은 색으로 칠하거나, 혹은 검은 색으로 칠한다. 중각(中角)은 제도가 위와 같으나, 각이 조금 작는데, 황동(黃銅)과 도금으로써 이를 만들고, **혹은 쇠뿔을 사용하여 나무로써 자루를 만들고, 붉은 색으로 칠한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좌측이 大角, 우측이 中角)

▶ 133권 五禮 軍禮序例 纛·旗·麾

纛

《韻會》, 以旄牛尾爲之, 載左駢馬首. 《廣韻》, 大如斗. 《貳儀實錄》, 以皂繪爲之, 似蚩尤之首. 軍發, 祭纛.

독(纛)

《운회(韻會)》에 “모우(旄牛)의 꼬리로 이를 만들고, 왼쪽 비마(駢馬)의 머리에 신는다.”고 한다. 《광운(廣韻)》에 “크기가 말[斗]만 하다.”고 한다. 《이의실록(貳儀實錄)》에 “검은 비단으로써 이를 만드는데, 치우(蚩尤)의 머리와 비슷하며, 군대가 출발할 적에 독에 제사지낸다.”고 한다.

▶ 133권 五禮 軍禮序例 矛·戟·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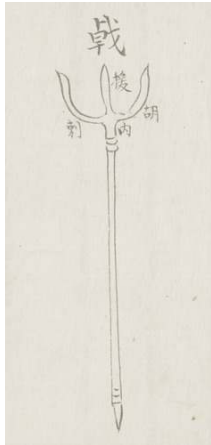
戟

韻府群玉, 長丈六尺, 廣寸有半. 雙枝爲戟, 單枝爲戈. 周禮圖, 援長七寸半, 胡長六寸, 刺長六寸, 內長四寸半. 戈二刃, 戟三刃, 則戈爲小戟爲大. 內謂胡以內接秘者, 胡謂矛之旁出者, 曲猶牛胡焉, 援謂直刃也. 秘, 謂柄也, 長十四尺八寸, 并內四寸半, 援七寸半, 共長丈六尺. 今矛戟依槍制, 柄用木, 下有冒鐵圓銳. 朱漆, 或漆以黑.

극(戟)

《운부군옥(韻府群玉)》에, “길이가 1장(丈) 6척(尺)이요, 나비는 1촌(寸) 반이나 된다. 두 가지는 극(戟)이 되고, 한 가지는 과(戈)가 된다.”고 한다. 《주례도(周禮圖)》에는, “원(援)

의 길이는 7촌 반이고, 호(胡)의 길이는 6촌이고, 자(刺)의 길이는 6촌이고, 내(內)의 길이는 4촌 반이다. 과는 날이 두 개이고, 극은 날이 세 개이니, 과는 작은 것이 되고, 극은 큰 것이 된다. 내(內)는 호(胡)가 안으로 창자루[秘]에 닿는 것을 말함이고, 호는 창이 옆으로 나간 것을 말함이니, **굽기가 소의 턱밑살[牛胡]과 같으며**, 원은 곧은 날을 말함이고, 비는 자루를 말함이다. 자루의 길이가 14척 8촌인데, 내의 4촌 반과 원의 7촌 반을 합하면, 모두 길이가 16척이 된다.”고 한다. 지금의 모(矛)와 극은 창(槍)의 제도에 의거하여, 자루는 나무를 사용하고, 아래에는 덮어씌우는 쇠[冒鐵]가 있는데, 둥글고 뽕족하며, 붉은 칠을 하고, 혹은 검은 칠을 하기도 한다.



▶ 134권 五禮 凶禮儀式 戒令

戒令

兵曹勒諸衛，謹守內外門及應宿衛之所．禮曹凡干喪事，報議政府，行移中外，各供其職，如沐浴飯含襲斂成殯成服治禭治葬停祭 【自初喪至卒哭，竝停大中小祀，殯後唯祭社稷．若內喪在先，則殿下服盡後，行祭如常．】 停樂 【三年唯大祀，卒哭後用樂．若內喪在先，則卒哭後凡祭，皆用樂．】 巷市 【五日．】 禁嫁娶 【卒哭後許嫁娶，借吉三日．】 **禁屠宰【卒哭前．】之類，**

이하생략~

계령(戒令)

병조(兵曹)에서는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팎의 문과 마땅히 숙위(宿衛)해야 할 곳에 조심스레 지키게 한다. 예조(禮曹)에서는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되는 일은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하는데, 목욕(沐浴)하고, 반함(飯含)하고, 습(襲)하고, 염(斂)하고, 성빈(成殯)하고, 성복(成服)하고, 치벽(治禭)하고, 치장(治葬)하고, 정제(停祭)하고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모두 정지하게 한다. 빈소(殯所)를 만든 후에는 다만 사직단(社稷壇)에만 제사 지낸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전하(殿下)의 상복(喪服)이 다 끝난 후에 제사를 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정악(停樂)하고 【삼년상(三年喪)에는 다만 대사(大祀)만 졸곡(卒哭) 후에 음악을 사용한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졸곡(卒哭) 후에는 모든 제사에 모두 음악을 사용한다.】 향시(巷市)를 【5일 동안.】 정지하고, 가취(嫁娶)를 금지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가취(嫁娶)를 허락하되 3일 동안의 길일(吉日)만 허가한다.】 도살(屠殺)을 금지하는 【졸곡 전(卒哭前).】 등류와 같은 것이다.

이하생략~

▶ 134권 五禮 凶禮儀式 服制

服制 【儀禮經典通解續及朱子家禮本朝已行禮典, 參酌詳定.】

王世子斬衰三年. 衣裳 【用極麤生布. 內喪則齊衰三年, 用次等麤生布.】 冠 【用絹細生布, 以麻繩爲武及纓. 內喪則以布爲武及纓.】 首經腰經絞帶 【竝生麻, 內喪則絞帶以布爲之.】 竹杖 【內喪則桐杖. 自衣裳至杖, 皆用朱子家禮之制.】 管屨. 【內喪則疏屨, 皆代用白綿布.】 嗣位, 服冕服. 卒哭後視事, 服白袍翼善冠 【笠則用白.】 烏犀帶白皮靴. 凡干喪事, 服衰服. 十三月練祭, 練冠去首經負版辟領衰. 二十五月祥祭, 黻袍 【禮部韻, 黻, 淺青黑, 本國深染玉色.】 翼善冠烏犀帶白皮靴. 二十七月禫祭, 玄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禫後, 衰龍袍玉帶.

이하생략~

복제(服制)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典通解續)》과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본조(本朝)에서 이미 시행하던 예전(禮典)을 참작하여 상정(詳定)한다.】

왕세자는 참취 삼년(斬衰三年)이니, 의상(衣裳)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면 재취(齋衰) 3년이니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관(冠) 【조금 울이 가는 생포(生布)를 사용하고, 삼노[麻繩]로써 무(武)와 영(纓)을 만든다. 내상(內喪)이면 베로써 무(武)와 영(纓)을 만든다.】 수질(首經)·요질(腰經)·교대(絞帶) 【모두 생삼[生麻]을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교대(絞帶)는 베로써 만든다.】 죽장(竹杖) 【내상(內喪)이면 동장(桐杖)을 사용한다. 의상(衣裳)으로부터 장(杖)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제도를 사용한다.】 관구(管屨)를 【내상(內喪)이면 소구(疏屨)를 사용하는데, 모두 백면포(白綿布)를 대용(代用)한다.】 착용(着用)하고, 왕위(王位)를 계승하면, 면복(冕服)을 입고, 졸곡(卒哭) 후에 정사(政事)를 볼 때는 백포(白袍)를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백피화(白皮靴)를 신는다.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首經)·부판(負版)·벽령(辟領)·최복(衰服)을 벗는다. 25개월의 상제(祥祭)에는 삼포(黻袍)를 입고, 【예부운(禮部韻)에 “삼(黻)은 얇은 청흑색(靑黑色)이라.” 한다. 본국(本國)에서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玉色)을 사용한다.】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백피화(白皮靴)를 신는다. 27개월의 담제(禫祭)에는 현포(玄袍)를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백피화(白皮靴)를 신는다. 담제(禫祭) 후에는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옥대(玉帶)를 띤다.
이하생략~

▶ 148권 地理志 京畿

京畿

藥材 : 牛膽黃(쇠쓸개)、虎脛骨、熊膽、猪膽、獺膽、狷膽、臘兔頭、狷皮、阿膠、露蜂房、蜈蚣、元蠶蛾、馬鳴退、班貓、蟬脫皮、蛇脫皮、蟾酥、蝦蟆、鼈甲、龜甲、桑螵蛸、乾鯉魚、鯉魚膽、牡蠣、蠶沙、五加皮、黃蘗皮、桑白皮、榆白皮、郁李仁、桃仁、杏仁、枳殼、槐實、槐花、松脂、蓮子、川椒、五信子、茯苓、【有赤白二種.】茯神、安息香、自然銅、禹餘糧、天圓子、兔(綠)〔絲〕子、覆盆子、五味子、牽牛子、【有白黑二種.】車前子、蒺梨子、白附子、白朮、蒼朮、菖蒲末、石菖蒲、馬兜苓、馬齒莧、馬蔕、蒲黃、澤瀉、桔梗、紫莞、薊草、【有大小二種.】天麻、赤箭、白斂、蚤休、續斷、漏蘆、藜蘆、細辛、葛根、瞿麥、地榆、當歸、山藥、括樓根、大戟、商陸、白鮮皮、京三稜、鶴蝩、百合、虎杖根、獨活、天南星、牛膝、獅子足、艾蒼耳、柴胡、升麻、芍藥、【有赤白二種.】蒿本、白芷、半夏、玄蔘、苦蔘、茵陳、(秦)〔秦〕芫、玄胡索、卷柏、土瓜根、黃芩、黃耆、木通、林下夫人、絡石、知母、貫衆、葳靈仙、草烏頭、放杖草、殺男、藍漆、蘭茹、萆薢、狼牙、旋覆花、金銀花、金燈花。【已上雜貢及藥材。今將土產稀貴者，錄于各邑之下。其每邑所產，但存其凡于此，不復錄云.】

이하생략~

▶ 148권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水原

牧場二，陽也串【在府西三十里，土場周回十五里，放國馬七十五匹.】洪原串，【在龍城縣西，放牛.】

수원

목장이 2이니, 양야곶이[陽也串]와 【부(府) 서쪽 30리에 있다. 토장(土場)의 둘레가 15리 인데, 나라의 말 75필을 놓아 먹인다.】 홍원곶이[洪原串]이며, 【용성현(龍城縣) 서쪽에 있는데, 소를 놓아 먹인다.】

▶ 148권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南陽都護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南陽

仙甘彌島、【在花之梁西，水路二里，周回五里，牛隻入放.】大部島、【在花之島西二里，長三十里，廣十五里. 有左道船軍營田百餘結，放國馬四百十八匹，鹽夫四戶入居看養.】小牛島、【在大部島西五里，周回十五里，有鹽夫二戶.】靈興島、【在小牛島西七里，長二十五里，廣十五里. 有鹽夫五戶.】召忽島【在靈興島西三十里，古稱召物島，周回二十里，無田地居人.】德積島、【在召忽島南六十里，古稱仁物島，周回十五里，放國馬二百五十七匹.】亏音島、【在府北水路三里，周回十三里. 有旱田五結，府人來往耕穫.】土也串. 【國馬入放.】

남양

선감미도(仙甘彌島) 【화지량(花之梁) 서쪽 수로(水路) 2리에 있으니, 둘레가 5리이며, 소를 놓아 먹인다.】 대부도(大部島) 【화지량 서쪽 2리에 있다. 길이 30리요, 너비가 15리이니, 좌도 선군영(左道船軍營) 밭이 1백여 결(結)이 있으며, 나라의 말 4백 18필을 놓아 먹이는데, 염부(鹽夫) 4호가 살면서 돌보게 한다.】 소우도(小牛島) 【대부도 서쪽 5리에 있으니, 둘레 15리이며, 염부(鹽夫) 2호가 있다.】 영흥도(靈興島) 【소우도 서쪽 7리에 있다. 길이 25리, 너비 15리이며, 염부(鹽夫) 5호가 있다.】 소홀도(召忽島) 【영흥도 서쪽 30리에 있다. 예전에는 소물도(召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20리이나, 밭이나 사는 사람이 없다.】 덕적도(德積島) 【소홀도 남쪽 60리에 있다. 예전에는 인물도(仁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15리인데, 나라의 말 2백 57필을 놓아 먹인다.】 우음도(亏音島) 【부 북쪽 수로(水路) 2리에 있다. 둘레 13리이며, 밭 5결이 있는데, 부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농사를 짓는다.】 새곶이[土也串] 【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 148권 地理志 京畿 陽城縣

陽城縣

牧場一. 【在縣西槐台吉串，斗入水原南境，周回七里. 今上十一年己酉，始放典廐署牛隻，水草饒美.】

양성현

목장이 1이다. 【현 서쪽 괴태기곶이[槐台吉串]에 있으니, 수원(水原) 남쪽 지경으로 쏙 들어갔고, 둘레가 7리이다. 금상(今上) 11년 기유에 비로소 전구서(典廐署)의 소를 놓아 먹이는데, 수초(水草)가 넉넉하고 좋다.】

▶ 148권 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江華都護府

江華

府西水路二里有煤島。【古之仇音島，周回六十里，放國馬三百二十七匹。牧子七戶，水軍十六戶入居，煮海爲生。島有廣博石，採之以爲國用。】又西水路七里有注文島，【周回三十里。】又西水路三十餘里有巴音島，【周回四十里。麻田百六結，右道水軍營田喬桐水軍八戶入居。傍有小島，長五里，廣二里，有田單五結，喬桐水軍四戶入居。】又西水路十五里有末島，【周回十餘里，有田三結，喬桐人往來耕穫。】又東水路十六里有今音北島，【長十里，廣二里，有田二十結，喬桐人七戶入居。】又東水路二百步有彌法島，【周回十五里。古稱買仍島，有田七結，喬桐水軍六戶入居。】**又南三十里有長烽島，【長四十里，廣五里。牛隻入放，通津縣掌之。】**又東六十里有信島。【周回三十里，放國馬三十六匹。】

강화

부(府) 서쪽 수로(水路) 2리에 글음섬[煤島]이 있고, 【옛날의 구음섬[仇音島]인데, 둘레가 60리이고, 나라의 말 3백 27필을 놓아 먹인다. 목자(牧子) 7호(戶)와 수군(水軍) 16호(戶)를 들여보내어 소금을 구워서 살게 한다. 섬에 광박석(廣博石)이 있는데, 캐서 국용(國用)에 쓰게 한다.】 또 서쪽 수로(水路) 7리에 주문도(注文島)가 있으면, 【둘레가 30리이다.】 또 서쪽 수로(水路) 30여 리에 밤섬[巴音島]이 있고, 【둘레가 40리이며, 밭 1백 6결(結)이 있는데, 우도 수군영(右道水軍營)의 밭이므로, 교동 수군(喬桐水軍) 8호(戶)가 들어가 산다. 옆에 작은 섬이 있는데, 길이 5리, 너비 2리이며, 밭 5결(結)이 있는데, 교동 수군(喬桐水軍) 4호가 들어가 산다.】 또 서쪽 수로(水路) 15리에 말섬[末島]이 있으며, 【둘레가 10여 리인데, 밭 3결(結)이 있는데, 교동(喬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농사를 짓는다.】 또 동쪽 수로(水路) 16리에 금북섬[今音北島]이 있고, 【길이 10리, 너비 2리이며, 밭 20결이 있는데, 교동 사람 7호가 들어가 산다.】 또 동쪽 수로(水路) 2백 보(步)에 미법도(彌法島)가 있으며, 【둘레가 15리이며, 옛날에는 매잉도(買仍島)라 하였다. 밭 7결이 있는데, 교동 수군 6호가 들어가 산다.】 **또 남쪽 30리에 장봉도(長烽島)가 있고, 【길이 40리, 너비가 5리이며, 소를 놓아 먹이는데, 통진현(通津縣)에서 관장한다.】** 또 동쪽 60리에 신도(信島)가 있다. 【둘레가 30리인데, 나라의 말 36필을 놓아 먹인다.】

▶ 149권 地理志 忠淸道

忠淸道

厥貢：虎皮、豹皮、熊皮、狐皮、狸皮、獐、鹿、**牛**、馬、山水獺皮、豹、虎尾、熊毛、黃毛、猪毛、雜羽、雄猪、乾鹿、乾獐、乾猪、天鵝、脯肉、**牛角肋(쇠뿔)**、鹿醢、兔醢、斑狍、紅魚、大蝦、乾水魚、魚沙魚、膠漆、墨、朱土、黃栗、菱仁、芡仁、榛子、乾蒲萄、五味子、川椒、胡桃、梨、紅柿子、細毛、黃角、青角、石茸、眞茸、烏足茸、松烟、松花、松脂、三股繩、兩股繩、馬衣、綿花、苧麻、各色紙、油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芑、莞席、草席、簞尾帚、各色磁器陶甕、各色木器、各色柳器、紫檀香、白檀香、弓幹木、木弓、自作木、燒木、營繕大木、椽木、栢木、黃楊木、棗、木椶木、楸木、廣板大中木、椶板、栢板、海竹、仍邑、朴船炭、正鐵。

藥材：獺膽、狷皮、臘狐肝、鹿角、羚羊角、鹿角膠、兔頭、牛膽(쇠쓸개)、阿膠、虎脛骨、牛黃(우황)、狼骨、鹿茸、熊膽、猪膽、烏阿、烏油、烏骨、鼈甲、龜甲、蟬脫皮、蝦蟆、蟾酥、桑螵蛸、虻蟲、水蛭、鯉膽、乾鯉魚、蜈蚣、桑寄生、五加皮、栢子仁楮實、槐花、枳殼、五倍子、枸杞子、茯神、茯苓、【有赤白二種.】地骨皮、牡丹皮、覆盆子、芍藥、【有赤白二種.】細辛、白芷、玄參、狼牙、葳靈仙、紫草、升麻、車前子、牛膝、大戟、大小菴草、紫胡、蛇床子、藁本、木通、半夏、蒼朮、白附子、藍漆、黃蓍、浦黃、桔梗、白朮、前胡、馬兜零、葛花、射干、蒺藜子、蓮子、蓮房、蓮葉、蓮花藻、茵陳、麥門冬、澤瀉、山藥、草烏頭、赤箭、瞿麥穗、龍膽、白斂、人參、天麻、當歸、破古紙、括樓、京三稜、何首烏、地榆、白芨、菖蒲、天南星、貫衆、天門冬、商陸、獨活、虎杖根、續斷、黃芩、萆薢、兔絲子、鴛栗殼、防風、芎藭、絡石、遠志、決明子、紫子、莞根、石葦、茅香、自然銅、滑石、班鳩、白膠香、安息香、旋覆花、金銀花、種養藥材、茴香、棗、元蠶蛾、甘菊花、蕒子、薏苡仁、木瓜、豆花、紅花、荊芥穗、香蒿、惡實、生地黃、薄荷、白扁豆、【有黑白二種.】大黃、眞瓜蒂、牽牛子、【有黑白二種.】黃菊、黃葵子。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慶尙道

厥貢：虎皮、豹皮、熊皮、鹿皮、獐皮、狐皮、狸皮、山水獺皮、馬皮、牛豬皮(쇠가죽)、占察皮、魚皮、皮絃、豹尾、狐皮、黃猪毛肋、雜羽、牛角(쇠뿔)、乾鹿、乾猪、乾獐、鹿脯、鹿尾、大口魚、文魚、沙魚、乾水魚、白條、全鮑、紅蛤、魚膠、藿海、毛牛(쇠털)、毛細、毛吾、海曹、漆、松煙、松脂、栗、棗、紅柿子、乾柿子、木瓜、石榴、梨、榛子、松子、松花、橘、胡桃、梔子、雀舌茶、石茸、眞茸、藁藁、芥子、乾竹筍、芝草、紅花、槐花、磊碌、苧麻、繩索、馬衣、紙筩、【有進獻表紙、國用表紙、擣鍊紙、眼紙、白奏紙、常奏紙、狀紙.】油芑、柳器、木器、磁器、哨磨、船席、【有進獻黃花席、彩花席、滿花寢席、滿花席、簾席、方席，他道所無，又貢國用滿花各色席、別文上席、踏席、常文踏席、白文席、草席.】竹皮、方席篠、【有烏竹、箭竹.】簞、【有全竹、片竹.】笠、草紫、檀香、白檀香、正鐵。

藥材：牛膽(쇠쓸개)、熊膽、麝香、酥油、猪膽、獺膽、狷皮、牛黃(우황)、阿膠、臘兔頭、鹿角、鹿茸、鹿角膠、【又有霜.】臘狐肝、羚羊角、虎脛骨、烏阿烏油、露蜂房、元蠶蛾、【又有晚蠶蛾.】馬鳴退、烏魚骨、班狹、鼈甲、蟬脫皮、龜甲、桑螵蛸、鯉膽、牡蠣、蝨蟲、白花蛇、蛇脫皮、五加皮、萆薢、筴、黃蘗皮、桑白皮、

榆白皮、小柿、枳殼、蕪荑、郁李仁、桃仁、杏仁、槐角、川椒、桑寄生、牡丹皮、五倍子、酸棗仁、皂莢、栗、楔、吳茱萸、山茱萸、五味子、厚朴、烏梅、鹽梅、白梅實、青皮、陳陂、杜沖、榧子、八角、海東皮、磁石、柿蒂、淡竹葉、椒目、蜀隨子、赤茯苓、白茯苓、茯神、安息香、自然銅、兔絲子、覆盆子、金銀花、旋覆花、蛇床子、蒺藜子、白附子、決明子、天仙子、人參、白合、白鮮皮、防風、天南星、菖蒲末、馬薊零、馬齒莧、京三稜、薺莖、蒲黃、澤瀉、虎杖根、鶴蝩、紫莞、大小薊草、天麻、赤箭、獨活、白斂、續斷、漏蘆、細辛、茺香、地榆、當歸、大戟、滑石、蓮花藥、蓮房、【又有子.】芡仁、林下夫人、冬草、獨走根、破古紙、芍藥、【有白赤.】藜蘆、枸杞子、地骨皮、石葦、天門冬、蔓荊子、香附子、苓陵香、玄胡索、澤蘭、豨心、麥門冬、牛膝、紫胡、前胡、升麻、蒿本、白芷、半夏、白芨、玄參、苦參、茵陳、秦艽、黃芩、黃耆、木通、知母、貫衆、葳靈仙、草烏頭、藍漆、蘭茹、楮實、豆豉、草薺、狼牙、【又有子.】忍冬草、瞿麥、蛄、葶藶、青蒿、水萍、海藻、龍膽、徐長卿、茺蔚子、木賊、射干、遠志、石斛、水泡石、何首烏、紫荷藥、【已上，雜貢及藥材，今將土產稀貴者，錄于各邑之下，其每邑所產，但存其凡于此，不復錄云.】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興海郡

興海郡

土貢：藿、牛毛、沙魚、全鮑、乾蛤、狐狸皮、獐皮、藥材、防風.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東萊縣

東萊縣

土貢：篠簜、紙、芝草、藁膏、橘、石榴、榧子、吾海曹藿、牛毛、細毛、海衣、早藿、青角、海參、乾蛤、生鮑、沙魚、大口魚、青魚、魴魚、魚膠、狐皮、狸皮、獐皮、鹿皮、占察皮、魚皮.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機張縣

機張縣

土貢：蜂蜜、黃蠟、藁膏、海衣、牛毛、細毛、乾蛤、沙魚、全鮑、紙、獐皮、狐皮、占察皮、魚皮.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長鬐縣

長鬐縣

土貢 : 蜂蜜、黃蠟、漆、松茸、全鮑、沙魚、乾蛤、廣魚、紅蛤、藿、海衣、牛毛、狐皮、獐皮、鹿皮.

▶ 150권 地理志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寧海都護府

寧海都護府

土貢 : 蜂蜜、黃蠟、漆、紙、紫檀香、篠、芝草、人蔘、松茸、牛毛、細毛、海衣、藿、大口魚、沙魚、全鮑、乾蛤、獐皮、鹿皮、狐狸皮.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晉州牧

土產 : 牛毛、細毛、靑角、藿、海蔘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金海都護府

金海

土貢 : 蜂蜜、黃蠟、鹿脯、沙魚、乾蛤、牛毛、藿、魚膠、紙、篠簞、鹿皮、狐皮、狸皮、獐皮、水獺皮.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昌原都護府

昌原

土產 : 藿、牛毛、細毛、大口魚、石花、海蔘、沙鐵. 【產部南岳上里夫乙無山.】鉛銅石. 【產府東北背寺洞, 中品.】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固城縣

固城縣

土貢 : 蜂蜜、黃蠟、藥膏、松茸、雀舌茶、沙魚、乾蛤、大口魚、文魚、生鮑、都音魚、藿、牛毛、細毛、魚膠、蕩、芝草、紙、漆、鹿皮、狐皮、狸皮、獐皮、山獺皮、藥材、麥門冬、防風.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巨濟縣

巨濟縣

土貢 : 大口魚、文魚、生鮑、藿、牛毛、藥膏、細毛.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泗川縣

泗川縣

土產 : 藿、青角、牛毛、細毛、海蔘、生鮑、洪魚、文魚、銀口魚、大口魚.

▶ 150권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河東縣

河東縣

土產 : 雀舌茶、生鮑、銀口魚、文魚、沙魚、洪魚、牛毛、細毛、藿、朱土、大口魚.

▶ 151권 地理志 全羅道

全羅道

厥賦 : 稻米、【粳米、糙米.】豆、【黃豆、小豆、菉豆.】小麥、芝麻、蘇子、苧布、厥貢, 蜂蜜、黃蠟、虎皮、豹皮、熊皮、牛皮(쇠가죽)、馬皮、熟鹿皮、熟獐皮、狐皮、狸皮、山獺皮、水獺皮、弓絃、豹尾、狐尾、黃毛、鹿猪兔、鄉猪、乾鹿、乾獐、乾猪、丁香、脯、鹿尾、猪毛、牛角(쇠뿔)、鹿角、阿膠、筋、雜羽、班貓、玳瑁、天鵝、沙魚、乾水魚、全鮑、生鮑、乾紅蛤、落地、石花、甘蛤、生蛤、銀口魚、紅大蝦、引鮑、條鮑、烏賊魚、玉頭魚、昆鮑、魚膠、漆、芥子、黃栗、棗、乾柿子、紅柿子、木瓜、石榴、梨、榛實、芡仁、柚子、柑子、榧子、乳柑、洞庭橘、金橘、青橘、山橘、麥仁、粉藿、常藿、早藿、海毛、牛毛(쇠털)、海角、黃角、莓山伊、海衣、甘答、烏海子、松茸、石茸、眞茸、藥膏、薑、蕨、芝草、槐花、梔子、雀舌茶、松花、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松烟、松脂、繇花、苧、麻、麻索、各色紙筍、【表箋紙、咨文紙、副本單子紙、奏本紙、皮封紙、書契紙、祝文紙、祝文紙、表紙、擣鍊紙、中幅紙、常表紙、甲衣紙、眠紙、歲畫紙、白奏紙、火藥紙、狀紙、常奏紙、油芭紙、油芭.】席、【別紋踏席、常紋踏席、白紋席、草席.】竹皮、方席、篠、烏竹、箭竹、海竹、土藤箱子、竹皮、乾筍、磁器、木器、柳器.

藥材 : 牛黃(우황)、牛膽(쇠쓸개)、虎骨、蝟皮、熊膽、鹿茸、鹿角霜、鹿角膠、兔頭、鹿角、獺膽、羚羊角、烏阿烏油、蟾蜍、桑螵蛸、鼈甲、烏魚骨、乾鯉、鯉膽、蜈蚣、蟲蟲、蟬脫皮、龜甲、石決明、人蔘、零陵香、藿香、舶上、茴香、鷄頭實、蓮花藥、金銀花、芍藥、牽牛子、木通、天門冬、麥門冬、瞿麥穗、天麻、澤瀉、兔絲子、紫莞、紫莞根、蓮子、貫衆、破古紙、蒼朮、藍、漆、虎杖根、當歸、旋覆花、括婁、芍藥、半夏、蒲黃、升麻、桔梗、馬蘭花、細辛、葛花、大戟、白鮮皮、天南星、牛膝、射干、苦蔘、白芷、前胡、草烏頭、鷄蘇、防風、蒿本、商陸、昆布、茅香、忍冬草、遠志、蘆根、菖蘆、芫蔚子、稀簽、酸醬、續斷、白頭翁、香附子、鬱金、赤前子、蘭香、紫草、玄蔘、紫胡、京三稜、白附子、澤漆、白斂、白芨、五味子、蒼耳、地榆、菖蒲、紫荷藥、水萍、甘菊花、茵陳、漏蘆、葳靈仙、薄荷、續隨子、茜草根、葶藶子、黃耆、蔓荊子、馬兜苓、薺芎、大小薊草、蓑荷、芭蕉、徐長卿、益貫草、決明子、白芍藥、苧葉、石薺、草薺、蒴藋、山藥、獨活、蜀有子、川練子、石榴皮、白梅、烏梅、枳殼、枸杞子、鹽梅實、茯苓、牡丹皮、楮實、竹茹、地骨皮、竹瀝、黃蘗皮、川椒、白茯苓、胡桃、五加皮、淡竹葉、躑躅花、皂莢、皂角刺、郁李仁、乾木瓜、杏仁、五倍子、桃仁、蚤休、側柏葉、棠、梨、松子仁、陳皮、海桐皮、青皮、厚朴、杜仲、松實、八角、茯神.

▶ 151권 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靈巖郡

靈岩郡

牧場二, 露梁、【放雌雄馬并一百三十九匹】臨縉島.【放雌雄牛二百二十一頭】

영암군

목장(牧場)이 2이니, 노량(露梁)【암·수 말 아울러 1백 39필을 방목(放牧)한다.】과 임치도(臨縉島)【암수 소 2백 21마리를 방목(放牧)한다.】

▶ 151권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濟州牧: 都按撫使、【三品則稱按撫使.】判官、【兼監牧官.】教授官、檢律、醫學教

諭. 州在全羅南海中. 其州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主山北麓有穴, 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木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 開石函出現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 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然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以來. 爾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歲次分娶之婚姻,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至十五代孫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중략~

土宜, 山稻、黍、稷、菽、蕎麥、麴麥. 土貢, 玳瑁、薰膏、牛毛、樺子、柑子、柚子、乳柑、洞庭橘、金橘、青橘、山橘、全鮑、引鮑、槌鮑、條鮑、烏賊魚、玉頭魚、昆布、山柚子木、二年木、樺子木、良馬. 藥材, 陳皮、山藥、石薺、草薺、川練子、白芷、八角、零陵香、五倍子、梔子、香附子、木瓜、柴胡、青皮、白扁豆、草烏頭、海東皮、厚朴、烏魚骨、杜沖、蔓荊子、石決明、半夏、黃菊、鹿茸、舶上、茴香、枳殼. 이하생략~

제주목(濟州牧)

도안무사(都安撫使) 【3품(三品)이면 안무사(安撫使)라고 칭한다.】·판관(判官) 【겸감목관(兼監牧官).】·교수관(敎授官)·검률(檢律)·의학 교유(醫學敎諭).

본주(本州)는 전라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그 주(州)의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초(太初)에는 사람과 물건이 없었는데, 신선[神人] 세 사람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지금도 주산(主山) 북쪽 기슭에 ‘모흥(毛興)’이라 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곳이다. 말을 ‘양을나(良乙那)’, 둘째를 ‘고을나(高乙那)’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하였다. 세 사람은 황량한 땅에서 사냥을 하여서 그 가족으로 옷을 해 입고 그 고기로 식량을 하였다. 하루는 자주 색깔로 칠하여 봉(封)한 목함(木函)이 두둥실 떠서 동쪽 바닷가에 이르는 것을 보고 가서 열어보니, 목함(木函) 속에 또 석함(石函)이 있었다. 붉은 띠[帶]에 자주색 옥을 입은 사자(使者) 한 사람이 있어서 석함을 열었는데, 푸른 옷을 입은 처녀[青衣處女] 세 사람과 망아지·송아지와 오곡(五穀)의 종자가 나왔다. 이어 말하기를, ‘나는 바로 일본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끄시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산[嶽]에 신선[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고,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고 오게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짝을 이루어서 대업(大業)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하고는, 사자(使者)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 차례대로 나뉘어 혼인하고, 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에 나아가서 화살을 쏘아 살 땅을 선택하였는데, 양을나가 사는 데를 ‘제일도(第一都)’, 고을나가 사는 데를 ‘제이도(第二都)’, 부을나가 사는 데를 ‘제삼도(第三都)’라고 하였다. 비로소 오곡(五穀)을 심고, 또 망아지와 송아지를 기르니 날로 부유하고 번창해갔다. 15대 손(孫)에 이르러, 고후(高厚)·고청(高淸)의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렀는데, 대개 신라가 번성할 때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중략~

토의(土宜)가 밭벼[山稻]·기장·피·콩·메밀·밀보리이다. 토공(土貢)이 대모(玳瑁)·표고·우무(牛毛)·비자·감굴·유자·유감(乳柑)·동정굴(洞庭橘)·금굴(金橘)·청굴(靑橘)·돌굴[山橘]·전복·인포(引鮑)·퇴포(槌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곤포(昆布)·돌유자나무[山柚子木]·이년목(二年木)·비자나무[榧子木]·좋은 말[良馬]이요, 약재는 진피(陳皮)·마뿌리[山藥]·석골풀[石]·초골풀[草]·소태나무열매[川練子]·구리대뿌리[白芷]·팔각(八角)·영릉향(零陵香)·오배자(五倍子)·치자·향부자(香附子)·모과·뫓미나리[柴胡]·푸른굴껍질[淸皮]·백변두(白扁頭)·바곳[草烏頭]·엄나무껍질[海東皮]·후박(厚朴)·오징어뼈·두충(杜沖)·순비기나무열매[蔓荊子]·석결명(石決明)·끼무릇뿌리[半夏]·누른국화[黃菊]·녹용·박상(舶上)·회향(茴香)·탱자껍데기[枳殼]다.

이하생략~

▶ 151권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旌義縣

旌義縣

土貢 : 玳瑁、藥膏、牛毛、藿、昆布、柑橘、靑橘、榧子、槌鮑、條鮑、烏賊魚、玉頭魚、全鮑.

▶ 151권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大靜縣

大靜縣

土貢 : 全鮑、藥膏、牛毛、藿、昆布、榧子、柑橘、乳柑、洞庭橘、靑橘.

▶ 152권 地理志 黃海道

黃海道

厥貢, 芥子、栗、榛實、橡實、梨、棗、松子、五味子、五倍子、獼猴、桃、菱仁、芡仁、眞茸、石茸、烏足耳、靑角、黃角、吾海子、乾鹿、乾獐、乾猪、兔醢、雁、醢、紫蝦醢、魚醢、民魚、沙魚、水魚、魚油、魚膠、天鵝、馬皮、牛皮(쇠가죽)、虎皮、豹皮、熊皮、鹿皮、猪皮、獐皮、山獺皮、水獺皮、狐皮、狸皮、黃毛、雜羽、鹿角肋、陶器、磁器、木器、柳器、藻草、刷子油、芭紙席、麻、馬衣木、弓弓、幹木、常炭、松烟、松脂、蠣灰、營繕大木、黃陽木、自作木、楸木、椴木、栢木、燒木、長木、槐花、紅花、芝草、靑苔、漆、葛皮、正鐵、鉛鐵、朱土、丁粉、蒿草. 【獨延安府所貢.】

藥材 : 牛膽(쇠알개)、熊膽、猪膽、獺膽、狴膽、狴皮、牛黃(우황)、阿膠、酥油、

臘兔、羚羊角、臘狐肝、烏阿鳥油、班鳩、露蜂房、亢蠶蛾、班貓、蟬脫皮、蛇脫皮、蟾酥、桑螵蛸、鼈甲、龜甲、蜥蜴、蝦蟆、鯉魚膽、牡蠣、盲蟲、神麴、石膏、自然銅、茯神、茯苓、【有赤白二種.】安息香、楓膏、五加皮、黃檗皮、桑白皮、榆白皮、牡丹皮、側柏葉、枳殼、蕪荑、栝子仁、郁李仁、杏仁、桃仁、桃梟、槐實、榆實、川椒、躑躅、栗、楔、桑寄生、酸棗仁、皂莢、人蔘、白朮、蒼朮、防風、天仙子、決明子、白附子、蒺藜子、車前子、蛇床子、兔絲子、芫蔚子、蓮子、菖蒲末、馬兜苓、馬齒莧、馬蘭、蒲黃、澤瀉、苦梗、紫莞、大小薊草、天麻、天南星、赤箭、白斂、白芷、白芨、白鮮皮、白頭翁、王不留行、蚤休、續斷、漏蘆、藜蘆、括婁、【用根與粉.】葛根、葛花、蘆根、地榆、細辛、當歸、山藥、大戟、商陸、京三稜、鶴蟲、百合、百節、虎杖根、獨活、麥門冬、牛膝、艾葉、柴胡、前胡、升麻、芍藥、【有赤白二種.】蒿本、半夏、玄蔘、苦蔘、茵陳、秦艽、黃芩、黃蓍、木通、通草、絡石、知母、貫衆、葳靈仙、草烏頭、藍、漆、蘭茹、葶藶、蘇狼牙、牙子、赤素葉、羅麻律草、藜蘆、茜草根、羊蹄、生菴、蘭蒿、忍冬、篇蓄、野葱、瞿麥、牻牛兒苗、葶藶、水萍、海藻、野生景、天酸醬、稀簽、龍膽、【一名觀音草.】徐長卿、雞蘇、木賊、射干、遠志、澤漆、石斛、何首烏、紫荷渠、三枝九葉。

이하생략~

▶ 152권 地理志 黃海道 海州牧 甕津縣

甕津縣

海島八, 磨蛤島、【水路五里.】小青島、【水路七十五里. 右二島, 皆在縣西, 有人家田畝舊基. 本屬海州, 太宗六年丙申, 來屬.】大靑島、【在縣西, 水路七十五里. 有古宮三間、溷室一間、墻垣舊基. 高麗忠肅王四年丁巳, 大元皇帝流魏王阿木哥于此島, 癸亥十月, 召還. 十一年甲子, 流勃刺太子于此島, 己巳三月, 召還. 十七年庚午, 流先帝太子陶于帖木兒于此島, 壬申十二月, 召還. 今牛隻入放.】麒麟島、【水路三十里, 放國馬九十一匹.】昌麟島、【水路四里, 放國馬一百三十四匹.】魚化島、【水路五十里, 右三島, 皆在縣南, 有屋廬田畝舊基.】飛斤鴨島、【在縣南, 水路九十里.】巨次島、【在縣南, 水路三十里.】

甕津縣

바다섬이 8이니, 마합도(磨蛤島) 【물길이 5리이다.】, 소청도(小青島) 【물길이 75리이다. 위 두 섬은 모두 현의 서쪽에 있는데, 인가와 발두독의 옛터가 있다. 본래 해주(海州)에 딸리었는데, 태종(太宗) 6년에 이에 붙어있다.】, 대청도(大靑島) 【현의 서쪽에 있는데, 물길이 75리이며, 옛 궁궐 3칸, 뒷간[溷室] 1칸과 담의 옛터가 있다. 고려 충숙왕(忠肅王) 4년에 원나라 황제가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이 섬에 귀양 보냈다가, 10년 10월에 소환(召還)하였고, 11년에 발라태자(勃刺太子)를 이 섬에 귀양보냈다가, 16년 3월에 소환하였으며,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17년에 선제(先帝)의 태자(太子)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를 이 섬에 귀양 보냈다가, 충숙왕 복위 원년(1332) 12월에 소환하였다. 지금은 소를 놓아먹인다.】 , 기린도(麒麟島) 【물길이 4리이며, 나랏말 91필을 놓아먹인다.】 , 창린도(昌麟島) 【물길이 4리이며, 나랏말 1백 34필을 놓아먹인다.】 , 어화도(魚化島) 【물길이 50리이다. 위 3섬은 모두 현의 남쪽에 있는데, 집과 밭두둑의 옛터가 있다.】 , 비근압도(飛斤鴨島) 【현의 남쪽에 있는데, 물길이 90리이다.】 , 거차도(巨次島)이다. 【현의 남쪽에 있는데, 물길이 30리이다.】

▶ 153권 地理志 江原道

江原道

厥貢 : 蜂蜜、黃蠟、松子、榛子、柿子、五倍子、芥子、木瓜、胡桃、梨、大棗、川椒、栗、芝草、紅花、松花、槐花、石茸、眞茸、全漆、每漆、牛皮(쇠가죽)、馬皮、狐皮、狸皮、貂皮、虎皮、豹皮、鹿皮、山獺皮、水獺皮、海獺皮、猪皮、魚皮、獐皮、熊皮、豹尾、狐尾、熊毛、猪毛、鹿脯、乾猪、文魚、大口魚、年魚、沙魚、水魚、魚油、全鮑、紅蛤鮑、甲牛鮑(쇠뿔)、斑猫、白檀香、紫檀香、鞍、枝木器、瓢、生麻、孰麻、三股繩、兩股繩、椶繩、松脂、油、芑、野葱、磁器、陶器、紙、休紙、席、雜、羽肋、柳器、葡萄、獼猴萄、葛皮、自作木、塑木、木弓、梓木、材木炭、松烟、馬衣、朱土、兔醢、生鹿、兔、家猪、藿.

藥材 : 虎骨、熊膽、牛黃(우황)、牛膽(쇠쓸개)、羚羊角、猪膽、酥油、獐油、獺膽、鹿角膠、馬鳴退、鹿角、虎脛骨、阿膠、臘兔頭、狷皮、白花蛇、蟾酥、蟬脫、射干、露蜂房、蜥蜴、石決明、水蛭、烏魚骨、蝨蟲、空青、臘肭臍、五味子、枸杞子、栢子仁、川椒、枳殼、牡丹皮、地骨皮、桑白皮、藥皮、茯神、安息香、白膠香、【松脂之煉者.】乾漆、白茯苓、杏仁、木通、赤茯苓、栢葉、栢胎木、方己、楮葉、桑寄生、郁李仁、桃仁、人蔘、苦蔘、蒼朮、前胡、半夏、黃耆、括蔘、續斷、澤蘭、當歸、蛇床子、秦艽、葛根、天麻、細辛、牛膝、藍、漆、葳靈仙、吉梗、地榆、酸醬、獨活、升麻、草烏頭、徐長卿、白芍藥、赤芍藥、海藻、山藥、蓮子、防風、紫荷藁、白芨、白斂、白鮮皮、白芷、白朮、白合、鸚栗殼、虎杖根、金銀花、旋覆花、漏草、商陸、葶歷子、茅香、石菖蒲、菖蒲、貫衆、蒿本、馬兜鈴、大戟、忍冬草、京三稜、紫胡、昆布、玄蔘、赤箭、何首烏、芍藥、木賊、天南星、莒茹、牽牛子、覆盆子、決明子、車前子、藜蘆、石膏、水泡石、磁石、赤石.

이하생략~

▶ 154권 地理志 平安道

平安道

厥貢 : 牛馬毛、狗皮、豹、鹿、獐、狐、狸、水獺、貂、青鼠、猪皮、乾鹿、乾獐、乾猪、丁香脯、水魚、民魚、沙魚、石首魚、加火魚、準魚、廣魚、烏賊魚、大蝦、石花、黃毛、羚羊角、猪膽、狷膽、漆、芝、麻油、【鄉名眞油】蘇子油、石蜜、蜂蜜、黃蠟、芝草、五味子、榛實、松子、眞茸、石茸、烏足茸、紅花.
이하생략~

▶ 155권 地理志 咸吉道

咸吉道

藥材 : 熊膽、鹿茸、麝香、牛黃(우황)、虎脛骨、牡蠣、露蜂房、松脂、安息香、五倍子、五味子、栝子仁、郁李仁、杏仁、椒實、茯苓、躑躅、五加皮、牡丹皮、桑白皮、淡竹葉、榛皮、榆皮、藥皮、山藥、芍藥、當歸、獨活、大戟、大黃、蒼朮、白朮、白芨、白芷、澤瀉、桔梗、蘭茹、藍漆、澤漆、商陸、貫衆、葳靈仙、徐長卿、防風、防己、續斷、蚤休、白斂、百合、細辛、半夏、射干、括樓、白蘚皮、地骨皮、車前子、白附子、覆盆子、葶藶子、兔絲子、荒蔚子、天麻、升麻、菖蒲、茴陳、蒲黃、蓮子、前胡、柴胡、蒿本、秦艽、紫莞、龍膽、牛膝、水萍、木賊、藜蘆、漏蘆、葛花、京三稜、草烏頭、蘆根、葛根、赤箭、玄胡索、白頭翁、羊蹄、馬藺、土瓜、地榆、蒼茸、玄蔘、苦蔘、人蔘、茜草、葎草、稀簽、扁蓄、天花粉、天南星.
이하생략~

▶ 155권 地理志 咸吉道 咸興府

咸興府尹一人,

藥材 : 熊膽、牛黃(우황)、安息香、蚤休、續斷、當歸、五味子、蓮子、茯苓、白芨、白附子、防風、大戟.
이하생략~

▶ 155권 地理志 咸吉道 永興大都護府 預原郡

預原郡

土產 : 黃毛、大口魚、年魚、古道魚、黃魚、松魚、行魚、全鮑、生鮑、紅蛤、細毛、牛毛.
이하생략~

▶ 155권 地理志 咸吉道 安邊都護府

安邊

藥材 : 熊膽、牛黃(우황)、牧丹皮、安息香、五味子、茯苓、白芨、當歸、防風、白附子、人蔘.

이하생략~

▶ 155권 地理志 咸吉道 吉州牧 端川郡

端川郡, 知郡事一人, 兼吉州道左翼兵馬, 久爲胡人所據, 別號豆乙外, 一作禿魯兀. 高麗大將尹瓘逐胡人, 置九城, 以郡爲福州防禦使. 洪武十五年壬戌, 改端州按撫使, 本朝太祖戊寅, 改知端州郡事. 太宗癸巳, 例改今名. 道德山、【在郡北, 郡人以爲鎮山.】伊板大嶺、【在郡東北, 今稱磨天嶺. 野人謂牛爲伊板, 昔有人賣犢, 母牛尋犢踰嶺, 人跡之, 因爲路.】

이하생략~

단천군(端川郡)

지군사(知郡事)가 1인이니, 길주도 좌익 병마(吉州道左翼兵馬)를 겸한다.

오랫동안 호인(胡人)에게 점거(占據)되었었는데, 별호(別號)를 두을외(豆乙外)라 하고, 또는 독로울(禿魯兀)이라고도 한다. 고려대장 윤관(尹瓘)이 호인(胡人)을 몰아내고 9성(九城)을 설치하여, 복주방어사(福州防禦使)로 삼았다가, 우왕(禔王) 8년 임술【홍무(洪武) 15년.】단주안무사(端州安撫使)로 고쳤다. 본조 태조 7년 무인에 지단주군사(知端州郡事)로 고쳤다가,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에 따라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도덕산(道德山)【군의 북쪽에 있는데, 본군 사람들이 진산(鎭山)으로 삼는다.】이판 대령(伊板大嶺)【군의 동북쪽에 있으며, 지금은 마천령(磨天嶺)이라고 일컫는다. 야인(野人)들이 소[牛]를 ‘이판(伊板)’이라고 이른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팔았더니, 그 어미소가 송아지를 찾아서 이 고개를 넘었다. 그 소 주인이 그 발자국을 쫓아 간 것이 길이 되었다.】

이하생략~

※ 五禮의 陳設에 醯醢를 사용하는 경우.

- 129권 五禮 / 吉禮儀式 / 親祭社稷 / 陳設
- 129권 五禮 / 吉禮儀式 / 祭社稷攝事 / 陳設
- 129권 五禮 / 吉禮儀式 / 親祫宗廟 / 陳設
- 129권 五禮 / 吉禮儀式 / 祫享宗廟攝事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四時及臘親享宗廟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四時及臘享宗廟攝事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祀風雲雷雨山川城隍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祀靈星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祭嶽海瀆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祭三角山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祭山川 / 陳設
- 130권 五禮 / 吉禮儀式 / 祭木覓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親享先農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享先農攝事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享先蠶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雩祀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王世子釋奠文宣王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有司釋奠文宣王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州縣釋奠文宣王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享朝鮮檀君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享高麗始祖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祀馬祖 / 陳設
- 131권 五禮 / 吉禮儀式 / 享司寒 / 陳設
- 134권 五禮 / 凶禮儀式 / 治葬

5. 文宗實錄

▶ 2권 즉위년 7월 7일 己酉

掌令河緯地啓: “臣等, 今見追崇王妃, 冊封世子儀注, 有曰殿下, 服冕服, 臨軒冊命. 臣等妄意, 方在喪中, 若卽位與受誥命, 則皆是重事, 雖服冕服可也, 今此追崇冊封等事, 與彼有間, 而亦服冕服, 於義何如? 中朝喪制, 二十七日而除, 我國之喪, 三年而畢, 其數雖不同, 喪則一也. 二十七日之內, 豈無冊封故事, 但未考閱, 不敢知也. 然用冕服, 恐爲不可. 潭陽君嘗以病避寓高仲陽家, 仲陽不謹慎, 遂致大故, 乃奪告身, 今命還給. 臣等以爲, 仲陽所犯, 非過誤, 旋還告身, 則彼將何懲? 請收是命, 以戒後來. 遼東貿易官, 迎送之弊不貲, 況中國道梗, 未能貿易? 徒勞往來, 貽弊驛路而已. 請姑停之.” 上曰: “追崇、冊命, 儀注雖如此, 予心亦以爲嫌, 當今攝事. 仲陽之事, 情涉曖昧, 且先王所撫恤者, 故還給之耳. 遼東貿易, 其來已久, 而道梗聲息, 亦未的知, 則其可預料而遽廢之乎? 況水牛角, 非本土所產, 而造弓爲重, 不可不備也. 然若勢難, 則亦當停之.” 緯地更啓曰: “冊命、貿易等事, 臣已聞命矣. 仲陽先王所撫恤之人, 則當謹慎, 圖報聖恩之萬一, 慮不出此, 反自不謹, 罪莫重焉. 願從臣等之請, 以懲後來.” 上曰: “初雖削職, 實無其罪.” 緯地固請, 竟不允.

장령(掌令) 하위지(河緯地)가 아뢰기를, “신 등이 지금 왕비를 추숭(追崇)하고 세자를 책봉하는 의주(儀注)를 보니, 전하가 면복(冕服)을 입고 헌(軒)에 나아가 책명한다는 말이 있는데, 신 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상중(喪中)에 있을 때 즉위(卽位)하는 것과 고명(誥命)을 받는 것 같은 것은 모두 중한 일이니, 비록 면복을 입더라도 가하지마는, 지금 이 추숭과 책봉은 저 일과 차이가 있는데, 역시 면복(冕服)을 입으면 의리에 어떠합니까? 중국 조정의 상제(喪制)는 27일 만에 복을 벗고, 우리나라의 상제는 3년에 끝나, 그 연수는 같지 않으나 상(喪)은 마찬가지입니다. 27일 내에 책봉한 고사(故事)가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고열(考閱)해 보지 못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복을 쓰는 것은 불가할까 합니다. 담양군(潭陽君)이 일찍이 병으로 고중양(高仲陽)의 집에 피해 있을 때 고중양이 근신하지 아니하여 드디어 대고(大故)에 이르렀으므로 고신(告身)을 빼앗았는데, 지금 도로 주라고 명하시니, 신 등은 생각건대, 고중양의 범한 것이 과오가 아닌데 곧 고신을 돌려준다면, 저 사람을 장차 무엇으로 징계합니까? 청컨대 이 명령을 거두시어 후대를 경계하소서. 요동 무역관(遼東貿易官)은 영송(迎送)하는 폐단이 적지 않은데, 하물며 중국에 길이 막혀 무역할 수 없는 때 이겠습니까? 한갓 왕래에 수고만 하고 역로(驛路)에 폐단을 끼칠 뿐입니다. 청컨대 잠간 정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숭과 책명은 의주(儀注)가 비록 이와 같으나, 내 마

음에도 또한 혐의스럽게 생각하니, 마땅히 섭행(攝行)하게 하겠다. 고종양의 일은 정상이 애매하고, 또 선왕께서 무휼(撫恤)하시던 자이므로 고신을 도로 준 것이다. 요동의 무역은 유래가 이미 오래고, 길이 막혔다는 소식도 또한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인데, 미리 예측하고 갑자기 폐지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물소 뿔[水牛角]은 본토의 소산이 아니고**, 활을 만드는 데에 중요하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세가 어려우면 마땅히 정지하겠다.”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책명(冊命)과 무역 등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거니와, 고종양은 선왕께서 무휼하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근신하여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없고 도리어 조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합니다. 청컨대 신 등의 청에 따라 후대를 경계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삭직(削職)하였으나 실로 죄는 없었다. 하였다. 하위지가 굳이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다.

▶ 3권 즉위년 8월 11일 壬午

命都承旨李季甸, 問安于使臣, 答曰: “昨日因酒, 恐有失禮之事, 十分惶恐. 殿下恩德, 說之不盡.” 季甸仍告曰: “本國防禦最緊, 須以水牛角造弓, 每使通事求買, 未易多得, 且今勅諭曰: ‘有能捕賊, 一體論賞.’ **願奏請水牛雌雄二十頭, 放養海島**, 以資造弓, 只在大人指揮.” 使臣答曰: “吾等前日聞此言, 已審殿下之意, 回還奏聞, 可得蒙允.”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을 명하여 사신에게 문안(問安)하게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어제는 술 때문에 아마 실례(失禮)한 일이 있는 듯하니 십분(十分) 황공(惶恐)합니다. 전하의 은덕(恩德)은 말로써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계전이 인하여 고하기를, “본국(本國)은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수우각(水牛角)으로써 활을 만들어야 하므로, 매양 통사(通事)로 하여금 구매(求買)하여도 쉽사리 많이 얻지 못했는데, 또 지금 칙서(勅書)로써 선유(宣諭)하기를, ‘능히 적(賊)을 잡는 이가 있으면 똑같이 논공행상(論功行賞)하겠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물소[水牛] 암수[雌雄] 20두(頭)를 해도(海島)에 놓아 길러서** 활 제조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황제에게 주청(奏請)하는 일은 다만 대인(大人)의 지휘(指揮)에 매여 있습니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전일에 이 말을 듣고서 이미 전하의 의사를 자세히 살폈으니 돌아가서 황제에게 주문(奏聞)한다면 윤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3권 즉위년 8월 19일 庚寅

鄭善, 以私賣牛角, 欲造弓, 請幹木、魚膠等物, 又請粧鞍大浪皮四張, 許之.

정선(鄭善)이 사사로이 가지고 온 우각(牛角)으로써 활을 제조하려고 하여, 간목(幹木)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어교(魚膠) 등의 물품을 청구하고, 또 말안장의 장식에 소용되는 대랑피(大狼皮) 4장(張)을 청구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 3권 즉위년 8월 29일 庚子

鄭善曰: “達達與狗無異” 父則狼, 母則白鹿, 只食牛馬乳, 牛馬乃達達父母也.” 安崇善曰: “達達人中, 豈無豪傑? 元世祖混一天下, 共稱聖人, 又其臣有如脫脫太師.” 鳳曰: “安宰相言是也. 中國亦稱元世祖, 與堯、舜同.”

정선(鄭善)은 말하기를, “달달(達達)은 개와 다름이 없으니, 아버지는 시랑[狼]이고 어미는 백록(白鹿)이며, 다만 소·말의 젖만 먹고 사니 소·말은 곧 달달(達達)의 부모(父母)인 셈입니다.” 하였다. 안송선(安崇善)은 말하기를, “달달인(達達人) 중에서도 어찌 호걸(豪傑)이 없겠습니까? 원(元)나라 세조(世祖)는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세상에서 모두 성인(聖人)으로 일컬게 되고, 또 그 신하에 탈탈 태사(脫脫太師)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하니, 윤봉(尹鳳)도 말하기를, “안 재상(安宰相)의 말씀이 옳습니다. 중국에서도 또한 원나라 세조는 요·순(堯舜)과 같다고 합니다.” 하였다.

▶ 4권 즉위년 10월 26일 丙申

司諫院右正言金孝給啓曰: “原平教導魏明禮, 漣川縣人也. 漣川縣監往原平, 監造鄭善家, 明禮從縣監而來, 乘時依勢, 奸鄭善姪女. 此女曾嫁百丁, 中棄之. 百丁聞善來, 思欲復娶, 明禮以官威奪娶之. 以此得拜教導, 其志趣, 卑陋甚矣. 教導雖微官, 職掌教訓, 以如此之人, 而爲師表, 則學生之心, 其無愧恥乎? 請須改正. 且忠清道洪州, 是界首官也, 今以李搜爲教導. 界首官, 例當遣教授、訓導官, 況搜非經明之人, 亦宜改之.” 上曰: “魏明禮, 予非不知其不可也, 不得已耳. 界首官, 必以教授差遣, 無有定法, 且吏曹未得文臣故也.” 孝給更啓曰: “明禮事, 已聞命矣. 李搜, 則其時雖無文臣, 如今新及第又多. 請差遣訓導.” 上曰: “予當改之.”

사간원(司諫院) 우정언(右正言) 김효급(金孝給)이 아뢰기를,

“원평 교도(原平教導) 위명례(魏明禮)는 연천현(漣川縣) 사람인데, 연천현감(漣川縣監)이 원평(原平)에 가서 정선(鄭善)의 집을 감독하여 지을 때 위명례가 현감을 따라왔다가 때를 틈타 세력을 믿고서 정선의 질녀(姪女)를 간통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일찍이 백정(白丁)에게 시집갔다가 중간에 버림을 당했는데, 백정(白丁)이 정선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취(娶)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위명례가 관(官)의 위세로써 빼앗아 장가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도(教導)에 임명되었는데, 그 뜻과 취향(趣向)이 매우 비루(卑陋)합니다. 교도(教導)가 비록 미미한 관직이나 직책이 교훈(敎訓)을 맡아 보는데 이 같은 사람으로써 사표(師表)를 삼는다면

학생(學生)들의 마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또 충청도 홍주(洪州)는 계수관(界首官)인데, 이제 이수(李授)로써 교도(敎導)로 삼았습니다. 계수관(界首官)은 오래 교수(敎授)·훈도관(訓導官)을 파견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수는 경전(經典)에 밝은 사람도 아니니, 또한 바꾸어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명례는 나도 그 불가(不可)함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부득이하였다. 계수관에는 반드시 교수(敎授)를 임명하여 보내는 것은 아직 정해진 법이 없고, 또 이조에서 문신(文臣)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하였다. 이효급이 다시 아뢰기를, “위명례의 일은 이미 명(命)을 들었습니다. 이수는 그때 문신(文臣)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신급제(新及第)가 또 많으니, 청컨대 훈도(訓導)로 임명하여 보내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바꾸겠다.”하였다.

▶ 9권 1년 8월 18일 癸未

議政府據兵曹呈啓: “黃海道禾穀皆不豐稔, 其烟戶軍五千名, 勿令赴役. 且棘城西五里許古丹林驛下, 陳水田二十一結, 棘城東八里許院頭之地, 陳旱田二十結, 其地力可用, 請定爲屯田之所, 農牛則以本道內牧場兒馬換得二十頭, 農器則以觀察使營會計付雜物, 貿易支給”從之.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의 벼농사가 모두 풍성하게 익지 않았으니, 그 연호군(煙戶軍) 5천 명으로 하여금 부역(赴役)하지 말도록 하소서. 또 극성(棘城) 서쪽 5리(里) 쯤의 옛 단림역(丹林驛) 아래에 묵은 논 21결(結)과 극성 동쪽 8리 쯤의 원(院) 머리에 묵은 밭 20결은 그 지질이 쓸 만하니, 청컨대 둔전(屯田)의 장소로 정하고, 농우(農牛)는 본도 내의 소재한 목장(牧場)의 아마(兒馬)로 20두(頭)를 바꾸어 얻고, 농기(農器)는 관찰사영(觀察使營) 회계부(會計付)의 잡물로 매매 교환하여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10권 1년 11월 28일 壬戌

上親製諭書, 下咸吉監司金文起曰:

今來啓本內, 屯田所出已具悉. 大抵新法, 利弊相雜, 故不可一向好事, 亦不可一向無爲, 當視輕重利害, 權而行之. 今屯田之事駁議者以爲: ‘所利不償所費.’ 予意則不然. 夫天下之民, 分爲四家, 士農工商是也. 以農之一家所作, 而四家皆足其食. 若如議者之說, 則農家自不償其所費, 何能足食士工商之三家也? 故予每以屯田之事爲言. 卿爲承旨時, 曾議此事, 卿之布置, 合於予意. 到今卿當其任, 果有成效, 此予所以嘉之也. 戶曹欲以此屯田所出, 會計施行, 然予意以爲, 凡事欲速不達, 故不計近功, 古人所重. 予將以今年所出, 不入國庫, 藏之別庫, 當來春屯田之時, 以此所出用於農牛, 又於力耕除草之時,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或作酒飯，隨役多少，餉以勸之，又或買農器、農牛，以補之。如此則爲者不厭，可以永行。如此而尚有贏餘，然後補乏軍需。況數年之後，田土良熟，則所出自倍，其爲有益必多矣。卿意以爲何如？磨勘啓達。

임금이 친히 유서(諭書)를 지어 함길도감사(咸吉道監司) 김문기(金文起)에게 내리기를,
“지금 온 계본(啓本) 안에서 둔전의 소출(所出)은 이미 모두 알았다. 무릇 새로운 법은 이익과 폐단이 서로 섞이는 까닭에 한 결 같이 좋은 일만 될 수 없고, 또한 한 결 같이 무위(無爲)한 것만도 될 수 없으니, 마땅히 경중(輕重)과 이해(利害)를 보아 권도(權道)로 행하여야 한다. 지금 둔전(屯田)의 일을 논박(論駁)하는 자(者)들은 말하기를, ‘이익되는 바가 허비하는 것을 갚을 수 없다.’고 하나, 나의 뜻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체로 천하의 백성들이 나뉘어서 4가(四家)가 되었으니, 사(士)·농(農)·공(工)·상(商)이 그것이다. 농(農) 1가(一家)가 짓는 곡식으로써 4가(四家)가 모두 그 먹는 것이 넉넉하다. 만약 의논하는 자들의 말과 같다면, 농가가 스스로 그 소비하는 것도 메우지 못하는데, 어찌 능히 사(士)·공(工)·상(商)의 3가(三家)를 넉넉히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내가 매양 둔전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 경(卿)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일찍이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경의 포치(布置)가 나의 뜻에 합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은 그 임무에 당하여 과연 효과를 이룬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까닭이다. 호조(戶曹)에서는 이 둔전의 소출(所出)을 회계(會計)하여 시행(施行)하고자 하나, 그러나 내 뜻에 생각하기로는, 모든 일을 속히 하고자 하면 달성(達成)하지 못하는 까닭에 가까운 공을 제책하지 아니함을 옛사람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나는 장차 금년 소출을 국고(國庫)에 넣지 않고 별도의 창고에 간직하였다가 오는 봄에 둔전할 때를 당하여 이 소출을 가지고 농우(農牛)를 사는 데 쓰겠고, 또 힘써 밭갈고 풀뽑을 때에 혹은 술과 밥을 만들어 역사(役事)의 다소에 따라 먹이어 권장(勸獎)하겠으며, 또 혹은 농기구와 농우(農牛)도 사서 보충하겠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 싫어하지 아니하여 영구(永久)히 행하여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있는 다음에야 모자라는 군수(軍需)를 보충하겠다. 더욱 수년 뒤에 전토(田土)가 잘 영글게 되면 즉 소출은 자연히 배나 될 것이니, 그 유익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경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떠한가? 마감(磨勘)하여 계달(啓達)하라.”
하였다.

6. 端宗實錄

▶ 1권 즉위년 5월 17일 己酉

議政府據禮曹呈啓: “一, 各道觀察使、節制使、處置使、牧使以上, 遣人進箋陳慰, 若二品以上外官, 則雖非牧使亦進箋, 沿邊官不舉哀. 一, 自初喪至卒哭, 竝停諸祀, 殯後唯祭社稷. 一, 徒流以下, 則二十七日後, 大辟, 則三年後斷決. 一, 不用樂三年, 卒哭後, 唯大祀用樂. 一, 卒哭前, 禁嫁娶屠殺.

이하생략~”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1.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목사(牧使) 이상은 사람을 보내어 전(箋)을 올려서 진위(陳慰)하고, 2품 이상 외관(外官)은 비록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한 전을 올리고, 연변관(沿邊官)은 거애(舉哀)하지 않을 것.

1. 초상(初喪)으로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여러 제사를 아울러 정지하고 성빈(成殯)한 뒤에는 오직 사직(社稷)만 제사할 것.

1. 도형(徒刑)·유형(流刑) 이하는 27일 후에, 대벽(大辟)은 3년 후에 단결(斷決)할 것.

1. 3년 동안 풍악을 쓰지 않고 졸곡 후에는 오직 큰 제사[大祀]에만 풍악을 쓸것.

1. 졸곡 전에는 가취(嫁娶)와 도살(屠殺)을 금할 것.

이하생략~

▶ 1권 즉위년 5월 19일 辛亥

議政府據禮曹呈啓: “前朝王氏奉祀條件. 一, 國初祠王氏於麻田縣仰巖寺, 然其祠宇隘陋, 不合神廟. 歲己巳, 令觀察使改構, 至今未成, 雨漏傾圯, 有違尊崇先代之意. 依古制, 改立祠廟, 春秋降香祝, 遣官致祭. 一, 前朝之君, 各有配享, 其中大有功於民者, 令春秋館詳考啓聞從祀. 一, 以傍近都官、典農寺奴, 定守僕六戶, 輪番守護. 一, 王氏祠廟稱某殿, 其奉祀子孫, 稱爲某殿某官. 令本縣準祿科給月俸. 一, 王氏之後牛知, 令移居麻田縣奉祀, 長子襲其職, 或不賢, 擇賢以嗣. 就祠宇傍近居人多田者, 擇膏腴十結, 給付王牛知, 限家產富實, 官給農牛、農器及口糧.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전조(前朝) 왕씨(王氏)의 봉사(奉祀)하는 조건을 아뢰기를,

1. 국초에 왕씨를 마전현(麻田縣) 양암사(仰巖寺)에서 제사하였으나, 그 사당집이 좁고 누추하여 신묘(神廟)에 합당치 못하므로 기사년에 관찰사로 하여금 고쳐 짓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여 비가 새어 기울고 퇴락 하였으니, 선대(先代)를 존숭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예전 제도에 의하여 사묘(祠廟)를 고쳐 세우고 봄·가을로 향축(香祝)을 내리어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소서.

1. 전조의 임금이 각각 배향이 있으니 그 중에서도 백성에게 크게 공이 있는 자는 춘추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하여 계문하게 하여 종사(從祀)하게 하소서.

1. 옆 근처의 도관(都官) 전농시(典農寺)의 종으로 수복(守僕) 6호(戶)를 정하여 윤번(輪番)으로 수호하게 하소서.

1. 왕씨의 사묘를 모전(某殿)이라 칭하고 그 봉사하는 자손을 모전 모관(某官)이라 칭하여 본현(本縣)으로 하여금 녹과(祿科)에 준하여 월봉(月俸)을 주소서.

1. 왕씨의 후손 왕우지(王牛知)를 마전현(麻田縣)에 옮겨 살며 봉사하게 하고 장자는 그 직책을 승습하게 하되, 혹시 어질지 못하거든 어진 자를 택하여 잇게 하고, 사우(祠宇) 옆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밭이 많은 자에게서 기름진 밭 10결(結)을 택하여 왕우지에게 주고, 가산이 부유하고 충실할 때까지 관에서 농우(農牛)·농기(農器)·양식을 주게 하소서.

이하생략~

▶ 1권 즉위년 6월 1일 壬戌

皇甫仁、南智、金宗瑞、鄭苯、李穰、許詡、姜孟卿等詣朝，啓廳問安，仍啓曰：“凡人雖在壯盛之年，居憂則必至心虛氣弱，今上幼沖，血氣未定，請進酪。且方夏月，天氣蒸溽，亦請少進燒酒。”從之。

황보인·남지(南智)·김종서·정분·이양(李穰)·허후·강맹경 등이 조계청(朝啓廳)에 나와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비록 장성한 나이로 있더라도 거상을 하면 반드시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약하게 되는데, 지금 주상께서 나이 어리시고 혈기가 정하지 못하시니, 청컨대 타락(醪酪)을 드소서. 또 바야흐로 여름 달이어서 천기가 찌고 무더우니, 또한 청컨대 소주(燒酒)를 조금 드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권 즉위년 7월 13일 甲辰

甲辰/議政府據兵曹呈啓：“平安道，去年專失農業，賴國家賑恤，不至餓殍。平壤、成川、寧邊、定州、義州、江界、閔延七都會官所造軍器；平壤、寧邊、定州三都會官所造銃筒箭；平壤、寧邊兩都會官所造別例弓，若一時并舉，則民不堪役，請依咸吉道例，

一年銃筒，一年軍器，輪次造作，以休民力。且本道所有牛角，用之已盡。今年則勿造別例弓，將道內所產綿紬、人蔘、皮物，付赴京使臣，買遼東水牛角造作。”又據禮曹呈啓：“顯陵穿壙，深十尺三寸得吉，依英陵穿壙例，用營造尺。”從之。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가 지난해에 농업을 완전히 실패하여 국가의 진휼(賑恤)에 힘입어서 굶어 죽는 데에 이르는 않았습니다. 평양(平壤)·성천(成川)·영변(寧邊)·정주(定州)·의주(義州)·강계(江界)·여연(閔延) 7도회관(都會官)에서 만드는 군기(軍器), 평양·영변·정주 3도회관(都會官)에서 만드는 총통전(銃筒箭), 평양·영변 두 도회관에서 만드는 별례궁(別例弓)을, 만약 일시에 아울러 시행한다면 백성들이 부역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함길도(咸吉道)의 예에 의하여 1년은 총통을 1년은 군기를 윤차(輪次)로 만들어서 민력(民力)을 쉬게 하소서. 또 본도(本道)에 있는 우각(牛角)은 이미 다 켜었으니, 금년에는 별례궁(別例弓)을 만들지 말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면주(綿紬)·인삼(人蔘)·피물(皮物)을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내어 요동(遼東)의 수우각(水牛角)을 사서 만들도록 하소서.”하고, 또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현릉(顯陵)은 천광(穿壙)의 깊이가 10척 3촌이어야 길(吉)하다 하니, 영릉(英陵)의 천광의 예에 의하여 영조척(營造尺)을 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권 즉위년 11월 1일 己未

咸吉道觀察使啓曰：“本道年穀不登，而六鎮及甲山、三水、安邊、德源、文川、龍津尤甚，謹啓救荒條件。一，今韃靼已無聲息，野人亦飢饉，勢未可入寇，而節制使營及諸鎮、諸堡軍官，倍於曩時，且吉州內地，而軍官亦多，徒費糧餉，請悉減軍官之半。一，諸邑貢物，除進獻外，請量減不緊貢物及往年未納者。一，除殺人、強盜、犯奸及一應侵損於人外，請停不緊雜訟。一，饑饉之餘，盜賊必興，請禁才人、禾尺乘夜出入，以防竊盜。一，諸鎮、諸邑入居人、率丁逃在今年者，宜卽刷還，在往年者，若竝刷還，則彼此失業，請限來年秋勿推。一，請禁京中商賈，齎布貨及無用之物，誘奪民食。”議政府啓曰：“諸司貢物，則用度皆緊，未可蠲減。諸鎮、諸邑軍官，則防禦最緊，不可減額，才人、禾尺出入，則不須考察，餘從所啓。”從之。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금년 곡식이 잘 익지 않았는데, 6진(六鎮)과 갑산(甲山)·삼수(三水)·안변(安邊)·덕원(德源)·문천(文川)·용진(龍津)이 더욱 심하여, 삼가 구황 조건(救荒條件)을 아뢰니다.”

1. 지금 달단(韃靼)이 아무 성식(聲息)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인(野人)도 역시 굶주려서 침입해 올 형세가 아닌데, 절제사 영(節制使營) 및 여러 진(鎭)·보(堡)의 군관(軍官)이 전일 보다 배가 되고 또 길주(吉州) 이남에도 군관이 또한 많아서 다만 군량만 허비됩니다. 청컨대 군관의 절반을 모두 감소하소서.

1.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 가운데 진헌(進獻)을 제외하고, 청컨대 긴요하지 않는 공물 및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지난해 바치지 못한 공물을 해아려 감핵하소서.

1. 살인·강도·범간(犯奸) 및 남을 해친 일체의 일을 제외하고 청컨대 긴요하지 않는 잡다한 소송(訴訟)을 모두 정지하소서.

1. 굶주린 나머지 반드시 도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청컨대 재인(才人)·화척(禾尺)의 야간 출입을 금지하여 절도를 막도록 하소서.

1. 여러 진(鎭)과 고을의 입거인(入居人)과 술정(率丁) 가운데 금년에 도망간 자는 마땅히 즉시 추쇄하여 송환시키되, 지난해에 도망한 자를 아울러 추쇄하여 송환시키면 피차에 생업을 잃게 될 것이니, 청컨대 내년 가을까지는 추쇄하지 마소서.

1. 청컨대 서울의 장사꾼이 포화(布貨)와 쓸데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백성들의 곡식을 피어 빼앗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소서.”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 관서의 공물(貢物)은 그 씬셈이가 모두 긴요하니 견감(蠲減)하는 것은 불가하며, 각진(各鎭)과 고을의 군관(軍官)은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니, 수를 감할 수 없고, 재인·화척의 출입은 반드시 고찰(考察)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아뢴 바대로 따르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권 즉위년 11월 27일 乙酉

乙酉/召掌令元孝然、右獻納鄭臣碩，傳曰：“金辛除職事，屢議大臣，皆曰：‘辛在庚午歲，監辦賜祭，故今亦脫衰任之例。’宜加資。”孝然、臣碩，又極言其不可，皆不從。又曰：“柳閭嘗爲沈藏庫別坐，耗欠藁草三百四十束、燒木二千四百斤，又用牛料黃豆四石，養自己馬匹，夏則將養牛生芻，潛移於家，日四十束，貪污莫甚。且郭保民子，在文宗朝，中武科，上言願勿除己職，還父告身，不從。今若還給，則爲惡之徒，無所懲戒，請竝勿給。”傳曰：“更與大臣議之。”

장령 원효연·우헌납 정신석(鄭臣碩)을 불러 전지하기를, “김신의 직사(職事)를 제수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대신들과 의논하였으나, 모두 말하기를, ‘김신은 경오년에 사제(賜祭)를 감독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지금 역시 상복을 벗고 임용(任用)한 예입니다.’ 하므로 마땅히 가자(加資)한 것이다.”하니, 원효연과 정신석이 또 그 불가함을 극언(極言)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유창(柳閭)이 일찍이 침장고 별좌(沈藏庫別坐)가 되어 벗집[藁草] 3백 40속(束)과 땔나무[燒木] 2천 4백 근(斤)을 축내었고, 또 소 사료(飼料)로 쓸 황두(黃豆) 4석으로 자기의 말을 길렀으며, 여름이면 소를 먹일 생꿀(生芻)을 하루에 40속씩 몰래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등 탐오(貪污)가 막심합니다. 또 곽보민의 아들은 문종조 때에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상언(上言)하기를 자기의 직임을 제수하지 말고 아버지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청원하였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 〈고신〉을 돌려주면 나쁜짓하는 무리들을 징계할 바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돌려주지 마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겠다.”하였다.

▶ 7권 1년 7월 6일 辛酉

議政府據兵曹呈啓：“司僕寺鷹師，舊分三牌，每牌，實差三十人、預差五六十人輪流番上，去壬申年，盡除預差。凡御廚及祭祀宴享所用禽獸，皆本寺所獵獲，而以鷹師三十人，逐日差送于承政院及松鵲坊、兵曹者，摠十人，又除有事故，現在者不過十餘。每當打獵之時，鷹師缺少。請每牌各加十人，考本邑有無役文憑，取才差定。”又據兵曹呈啓：“黃海道諸邑分養牛二百五頭，然無乳牛，又不合犧牲，徒費芻豆。請令秋等點馬別監，擇肥健可駕車者，送于司僕寺，餘皆付觀察使，均給貧民之無農牛者。司僕寺乳牛，皆索於京畿民戶，然皆不久病死，或不出乳汁。故更求民間，其弊無窮。請以諸牧場兒馬，買雌牛六十頭、雄牛一十頭，放養于京畿陽城槐台吉串牧場，擇乳牛，養于本司，以除民弊。”皆從之。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응사(鷹師)가 옛날에는 3패(牌)로 나누어 때마다 실차(實差) 30인과 예차(豫差) 5, 60인이 번갈아 번상(番上)하였는데, 지난 임신년에 예차를 모두 제(除)하니, 무릇 어주(御廚)와 제사·연향(宴享)에 쓰이는 금수(禽獸)는 모두 본시(本寺)에서 사냥하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응사 30인에서 날마다 승정원(承政院) 및 송골방(松鵲坊)과 병조(兵曹)에 차송(差送)되는 자가 모두 10인인데, 또 사고가 있는 사람을 제하면 지금 있는 자가 10여인에 불과하여 매번 사냥할 때를 당하여서는 응사가 모자랍니다. 청컨대 때마다 각각 10인을 더하되, 본읍(本邑)에 역(役)이 있고 없는 문빙(文憑)을 상고하여서 취재(取才)하여 차정(差定)하소서.”하고, 또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 여러 고을에 소 2백 5두(頭)를 나누어 기르고 있으나, 젖소[乳牛]는 없고 또 희생(犧牲)으로도 합당하지 않으니 풀과 콩만 헛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추등(秋等)의 점마 별감(點馬別監)으로 하여금 살찌고 튼튼하여 수레를 끌 만한 것은 뽑아 사복시(司僕寺)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관찰사에게 주어서 빈민(貧民)으로 농우(農牛)가 없는 자에게 균급(均給)하게 하소서. 사복시의 젖소는 모두 경기(京畿)의 민호(民戶)에서 색출(索出)한 것이나, 모두 오래지 아니하여 병으로 죽고 혹은 젖[乳汁]이 나지 않는 까닭에 다시 민간에서 구하니, 그 폐단이 무궁(無窮)합니다. 청컨대 여러 목장의 어린 말[兒馬]로써 암소 60두와 황소 10두를 사서 경기(京畿) 양성(陽城)의 괴대 길곳이(槐台吉串) 목장에 놓아 기르고, 젖소를 골라 본사에서 길러 민폐(民弊)를 덜게 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7권 1년 9월 25일 戊寅

世祖詣承政院，見都承旨朴仲孫曰：“古人知無不言，臣雖進見，未得從容建白，今略敘所懷，冀達天聰。若其舉行與否，臣未敢知。”因進封章，其詞曰：

~중략~

其四曰：弭盜賊。《書》曰：“怙終賊刑。”又曰：“刑故無小。”蓋盜賊，容有或起於貧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窮而可恕者，今觀盜賊日滋，成群者頗多，必用重典然後可。古者斬一錢、一瓜，雖若過爲酷暴，以聖人怙終、刑故之意觀之，不甚相遠。夫中人之產，則雖失十貫之資，猶得自活，若其下者，既失其產，則飢不得食、寒不得衣，因之有凍餒死亡之患。是則但不加刃於人耳。且馬固軍政之所大需，牛亦農事之所大用。夫一里之內有農牛者，不過一二家，以一家之牛，資一里之耕者，過半焉。若失一牛，是一里之人，俱不得時其耕耨也。以一牛之存亡，係一里之貧富，則牛之用，固大矣。且軍士之騎馬，其直，少者不下一二十貫，多者或高四五十貫。若失一馬，賣田、鬻產，僅能充立，豈可盜一馬、一牛而輕議其罪乎？願自今盜十貫以上贓物俱現者，盜牛馬其直亦十六貫以上者，隨即處斬，一切盜賊，雖未滿十貫，勿論赦前、赦後，再犯則處斬，期以數年，則盜賊庶可弭矣。且人皆盜賊，則誠不可勝誅，百人之中不過一人，千萬人之中不過數十人，乃何惜數十人元惡之命，以苦千萬人無辜之民乎？是則好生之德，偏重於元惡大憝，而博施之恩，反乏於良民善衆矣。一切處斬，雖或過中，然聖人辟以止辟之意、權時制治之方，庶可得矣。若惜一二元惡之命而不殺，則被盜破產之徒，將不勝其貧窮，皆起而爲盜矣。自古國家之敗亡，莫不由是，此非小節。臣學術荒疎，言不成章。然區區之誠，不能自己，謹冒昧以聞，伏惟殿下採擇焉。

세조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서 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을 보고 말하기를, “옛사람은 아는 것은 말을 아니함이 없었는데, 신은 비록 나아가 뵈지라도 조용히 건백(建白)하지 못하여 이제 간략하게 품은 바를 서술하여 천聰(天聰)에 상달되기를 바라며 그 거행 여부는 신은 감히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인하여 봉장(封章)을 올렸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중략~

그 넷째는 도적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허물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시킨다.’ 하고, 또 ‘고의(故意)로 지은 죄는 형벌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도적이 혹 가난과 곤궁(困窮)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은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나, 이제 보건대, 도적이 날마다 성하여 때를 이룬 것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중(重)한 법을 쓴 뒤에야 가합니다. 예전에는 돈 1전(錢)과 1과(瓜)를 훔친 것도 목을 베었습니다. 비록 지나치게 잔혹(殘酷)한 듯하나 성인(聖人)의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하고, 고의(故意)로 지은 죄는 형벌이 크다.’는 뜻으로 보면 서로 심히 멀지 않습니다. 무릇 중인(中人)의 재산은 비록 10관(貫)의 자산(資産)을 잃었을지라도 오히려 그대로 살 수 있으나, 만약 그 아래의 사람으로서 이미 그만한 자산(資産)을 잃었다면 굶주려도 먹을 것이 없고, 추워도 입을 것이 없게 되어 인하여 열고 굶어 죽을 근심이 있으니, 이는 다만 도적이 사람에게 칼을 대지 아니하였을 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또 말[馬]은 진실로 군정(軍政)에 크게 수요 되는 바이며, 소도 역시 농사에 크게 쓰이는 바인데, 무릇 한 마을 안에 농우(農牛)를 가진 자가 한두 집에 지나지 아니하니, 한 집의 소로 한 마을의 경작(耕作)을 의뢰하는 것이 반(半)이 넘는데, 만약 한 마리의 소를 잃으면 이는 한 마을의 사람이 모두 농사짓는 때를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소가 있고 없는 것으로써 한 마을의 빈부(貧富)가 관계되니 소의 쓰임이 진실로 큼니다. 또, 군사의 기마(騎馬)는 그 값이 적은

것도 1, 20관(貫)의 아래이지 아니하고, 많은 것은 혹 4, 50관까지 올라가니, 만약 말 한 필을 잃으면, 땅을 팔고 살림을 팔아야 겨우 채워낼 수 있는데, 어찌 한 필의 말, 한 마리의 소를 도둑질한 것을 가볍게 그 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10관 이상을 도둑질하여 장물(贓物)이 모두 나타난 자와 우마(牛馬)를 훔쳐서 그 값이 또 16관 이상인 자는 즉시 참형(斬刑)에 처하고, 모든 도적은 비록 10관 미만일지라도 사유(赦宥)의 전후를 논하지 말고 재범(再犯)은 참형에 처하고 두어 해를 기한하면 도적이 거의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두 도적이라면 진실로 다 죽일 수는 없으나, 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천만 사람 가운데 수십 사람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수십 명 원악(元惡)의 목숨을 아껴서 천만 사람의 무고(無辜)한 백성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원악대대(元惡大憝)에게는 지나치게 중하고, 널리 베푸는 은혜는 도리어 양민과 선중(善衆)에게 결핍되는 것입니다. 모두 참형에 처하는 것이 비록 혹 적중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인(聖人)의 형벌로써 형벌을 그치게 하는 뜻과, 때를 헤아려서 제치(製治)하는 방책에 거의 합당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두 사람 원악(元惡)의 목숨을 아껴서 죽이지 않으면, 도둑을 맞고 파산(破産)된 무리들이 그 빈궁(貧窮)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일어나서 도둑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가 패망(敗亡)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은 학술(學術)이 거칠고 허술하여 말이 글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구구한 정성을 스스로 마지못하여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아뢰니,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채택(採擇)하소서.”

▶ 10권 2년 2월 2일 癸未

癸未/以皇太子薨逝, 具翼善冠、白衣、烏犀帶、白靴, 出勤政殿階上幕次, 北向立. 宗親、文武百官以烏紗帽、白衣、烏角帶, 入殿庭, 四拜, 哭臨, 四拜而出, 還宮. 以黑衣、角帶終三日而除. 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斷音樂.

중국 황태자가 홍서(薨逝)하였으므로, 임금이 익선관(翼善冠)에 흰 옷을 입고 오서대(烏犀帶)와 백화(白靴)를 갖추고 근정전(勤政殿) 계상(階上)의 막차(幕次)에 나와 북향하여 서고,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은 오사모(烏紗帽)에 흰옷을 입고 오각대(烏角帶)를 띠고 전정(殿庭)에 들어와 사배(四拜)하고 곡(哭)하고, 사배하고 나갔다.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흑의(黑衣)에 각대(角帶)를 띠고 3일 동안 있다가 벗어 버렸다. 조회(朝會)와 저자[市]를 정지하고 형륙(刑戮)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도살(屠殺)을 금하고 음악(音樂)을 끊었다.

▶ 11권 2년 5월 16일 丙寅

議政府啓曰: “弭盜之法, 《六典》所載及各年受教, 至爲嚴密. 然中外賊盜日滋月盛, 良民受害, 獄訟繁多, 將有群盜竝起之漸, 不可不慮. 謹按《唐律》: ‘竊盜五十匹, 加役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流.’ 《疏議》曰：‘加役流者，舊是死刑.’ 然則竊盜以贓數定死刑，古有其制. 且傳曰：‘民慢，則糾之以猛.’ 如此慢法之徒，當權用重典. 請牛馬賊則勿論宰殺與否，初犯爲首處絞，爲從者依法刺字，放置于巨濟、珍島、南海；再犯則通計赦前，處絞. 其餘竊盜則通計累犯俱發之贓，竝贓十貫以上者，初犯爲首處絞，爲從及十貫以下，依法刺字；再犯則亦通計赦前，處絞.” 從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적을 다스리는 법은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와 각년의 수교(受敎)가 지극히 엄밀합니다. 그런데 중외(中外)의 도적이 날로 늘어나고 달로 성하여 양민이 해(害)를 받아서, 옥송(獄訟)이 번다(繁多)하여 장차 군도(群盜)가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당률(唐律)》을 상고하니, ‘50필을 절도한 자는 가역류(加役流)한다.’ 하였고, 《당률소의(唐律疎議)》에 말하기를, ‘가역류(加役流)라는 것은 예전에 사형(死刑)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절도는 장물(贓物)의 수(數)로써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전(傳)에 이르기를, ‘백성이 게으르면 규찰하기를 엄하게 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게을리하는 무리는 마땅히 임시로 무거운 법전을 써야 하니, 청컨대 우마적(牛馬賊)이 소를 죽였든지 죽이지 아니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초범(初犯)의 수죄(首罪)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從犯)은 법에 의하여 자자(刺字)하여 거제도(巨濟島)·진도(珍島)·남해도(南海島)에 방치(放置)하고, 재범(再犯)은 유사(宥赦)하기 전의 죄를 통산해서 교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 절도는 여러 번 범죄하여 아울러 발견된 장물(贓物)을 통산(通算)하여 아울러 장물이 10관 이상인 자는 초범(初犯)의 수죄(首罪)가 되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종범 및 10관 이하인 자는 법에 의하여 자자하고, 재범인 경우는 또한 사전(赦前)을 통산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권 2년 11월 28일 乙亥

議政府據兵曹呈啓：“平安道諸邑公私故失牛馬筋角，悉令上貢，然沿邊軍士，常事習射，角弓易致折毀，且諸邑角弓，亦因年久，多致折毀. 請自今本道公私筋角，勿令上納，使各自用，以補折毀.” 從之.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제읍(諸邑)의 공사(公私) 고실 우마(故失牛馬)의 근각(筋角)을 모두 상납[上貢]하게 하고 있으나, 연변(沿邊) 군사(軍士)들이 상사(常事)로 습사(習射) 하는 각궁(角弓)이 쉽게 부러져 못 쓰게 되고, 또 제읍(諸邑)의 각궁도 역시 만든 햇수가 오래 되어 많이 부러져 못 쓰게 되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본도(本道)의 공사(公私) 근각(筋角)을 상납하지 말게 하고, 각기 자비[自用]로써 부러져 못 쓰게 된 것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3권 3년 1월 14일 庚申

議政府啓曰：“曾下諭書于諸道，訪問屯田便否，今農務方興，若待回啓，必致稽緩，且諸道不可一時並舉。請姑令黃海道，自今春耕棘城閑曠之地，其穀種、口糧、農牛、農器，令戶曹及時布置。”從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여러 도에 유서(諭書)를 내리어 둔전(屯田)의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니, 만일 회계(回啓)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늦어질 것이고, 또 여러 도를 일시에 아울러 거행할 수 없으니, 청컨대 우선 황해도(黃海道)로 하여금 올 봄부터 극성(棘城)의 놀고 비어 있는 땅을 경작하고 그 곡식 종자와 양식과 농우(農牛)·농기(農器)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때를 놓치지 말고 포치(布置)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4권 3년 4월 10일 乙酉

議政府據刑曹呈啓：“京外當時所鞠竊盜捕告者，勿論贓多少，依受教賞給。自今除捕告牛馬賊及贓滿十五貫竊盜者外，其餘捕告竊盜者，決罪後錄其贓物，通計後次捕告待滿十五貫，乃論賞。”從之。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외(京外)에서 당시(當時)에 심문하는 절도(竊盜)를 포고(捕告)한 자에게 장물(贓物)의 다소(多少)를 물론(勿論)하고 수교(受教)에 따라 상을 주는데, 이제부터는 우마(牛馬)를 훔친 자와 장물이 15관(貫)에 차는 절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절도에게 죄를 주고 난 뒤에 그 장물을 기록하였다가 차후에 포고(捕告)한 절도의 장물이 15관에 차기를 기다려서 논상(論賞)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4권 3년 5월 29일 癸酉

癸酉/議政府據兵曹呈啓：“弓爲長兵，其用最重，唯水牛角合於造弓，而非本國所產，未易多得。五品以下朝官，用以造品帶不可，請自今禁用水牛角帶，其已造者，令該司烙標以給。”從之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활은 장병(長兵)으로서 그 쓰임이 가장 중(重)한데, 오직 수우각(水牛角)만이 활을 만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국(本國)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쉽게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5품 이하의 조관(朝官)이 품대(品帶)를 만드는데 쓰는 것은 옳지 않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 수우각의 품대(品帶)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하고, 이미 만든 것은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낙인(烙印)하여 표(標)를 해서 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4권 3년 6월 10일 甲申

司憲府啓: “通事張俊擅受遼東都司王祥所寄頭目吳守書及水牛角以來, 律應斬待時.”
奉教減三等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통사(通事) 장준(張俊)이, 요동도사(遼東都司) 왕상(王祥)이 두목(頭目) 오수(吳守)에게 기탁(寄託)한 서한(書翰)과 수우각(水牛角)을 마음대로 받아 가지고 왔으니, 율(律)에 처참(處斬)하되, 대시(待時)에 해당합니다.”하였으나, 3등(等)을 감(減)하라는 교지(教旨)를 받았다.

▶ 14권 3년 6월 21일 乙未

議政府據工曹呈啓: “水牛角, 於造帶已令禁之, 請竝禁飾鞍橋.”

의정부에서 공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수우각(水牛角)으로 품대(品帶)를 만드는 것을 이미 금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안장을 장식하는 것도 금하게 하소서.” 하였다.

7. 世祖實錄

▶ 1권 즉위년 7월 22일 乙未

諭平安道觀察使奇虔曰：“茂昌、閭延居民一千五百餘口，今徙龜城草莽之地，念北土早寒，調護失宜，必至凍餒。茲遣副正金瑱、本邑倅朴興藝，并授事目，卿體此意，與之同心布置，務要安集，毋使一人失所，以副予意。”并諭都節制使事目。

一，龜城傍近諸邑居民，量數抄定，多收芻茭及苫蓋草，且擇可居之地，預築土宇，待閭延、茂昌兩邑人來，隨即給付。當徙民時，兩邑守令與差使員一一管押，憑考戶籍，交付龜城郡事，其不用心管押，或致逃亡，或飢死者治罪。

一，茂昌、閭延人民，有牛馬者，不過什之一二，今年所收及舊蓄雜穀，非但不堪移於龜城，雖至慈城，道路險阻，經四五日乃達，若使自輸，則移徙必不及時，聽納所在邑倉，而令江界、慈城之民移輸其邑，用龜城傍近諸邑倉穀，準數給之。

一，龜城隣邑義倉之儲不足，且無私糶之處，新徙人民，生理甚艱，姑令觀察使，并軍資雜穀量數分給後啓聞。

一，牟麥若早穀，非正田不宜耕種，新徙之民，初無正田，只種晚穀，自夏徂秋，救荒爲難，就元居人裏正田多者，量宜折付客戶，其正田之價，用陳荒田地，準計折給，待客戶墾治既熟，其正田并還本主。

一，新徙之民，畜牛者少，開墾爲難，用本道及黃海道牧場馬一百五十匹換牛，先給殘戶勸耕。

이하생략~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기건(奇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무창(茂昌)·여연(閭延)에 거주하고 있는 민 1천 5백여 구(口)가 이제 귀성(龜城)의 황무지(荒蕪地)로 옮겨졌는데, 생각건대 북녘 땅은 일찍 추위가 오므로 어루만져 보호하는 것을 적의하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얼고 굶주림에 이를 것이다. 이에 부정(副正) 김필(金瑱)과 본읍(本邑) 수령[倅] 박흥예(朴興藝)를 보내고 아울러 그 사목(事目)을 주니, 경(卿)은 이 뜻을 몸받아 그들과 같이 합심해서 포치(布置)하여 되도록 안집(安集)에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처소를 잃지 않도록 하여 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아울러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유시하니, 그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귀성(龜城)에 인접한 여러 고을의 거주민 중에서 적당한 수효를 가려내어 풀[芻茭] 및 갈대[苫] 등의 이영 풀을 많이 거두어 지분을 덮도록 하고, 또 거처할 만한 땅을 가려서 미리 흙집[土宇]을 쌓아 세우고 여연(閭延)·무창(茂昌) 두 고을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 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시 급부(給付)하도록 하라. 사민(徙民)할 때에 당하여서는 두 고을 수령이 차사원(差使員)과 더불어 일일이 점검해서 안동[營押]하고 호적(戶籍)을 빙고(憑考)하여 귀성군사(龜城郡事)에게 교부하며 그 안동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혹 도망하거나 혹 굶어 죽는 자가 생기게 하면 그 죄를 다스린다.

1. 무창(茂昌)·여연(閔延)의 민으로 우마(牛馬)를 가진 자는 열에 한둘에 지나지 않으니 금년에 수확한 것과 그 전에 저축한 잡곡(雜穀) 등을 다만 귀성으로 감당해 옮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자성(慈城)으로 간다 해도 도로가 험하여 4, 5일을 지나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데, 만약 그들로 하여금 제 힘으로 옮기게 한다면 반드시 때를 맞추어 이사하지 못할 것이니, 그 소재지 고을의 창고(倉庫)로 들이도록 하고, 강계(江界)·자성의 인민으로 하여금 그 고을로 이를 옮겨 수송하게 하고는 귀성 부근 여러 고을의 창곡(倉穀)을 쓰게 하되 그 수량에 준해 지급하게 하라.

1. 귀성(龜城) 인근(隣近) 고을에 있는 의창(義倉)의 저축이 부족하고, 또 사조(私糶)하는 곳도 없어서 새로 이사한 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간고(艱苦)할 것이니, 우선 관찰사로 하여금 군자(軍資)에 쓸 잡곡을 아울러서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나누어 준 뒤에 계문(啓聞)하도록 하라.

1. 모맥(牟麥) 과 올곡[早穀]은 정전(正田) 이 아니면 경작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인데, 새로 이사하는 백성들이 당초 정전이 없어서, 다만 늦곡[晚穀]만을 지을 것이므로,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구황(救荒)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원거인(元居人) 속에 정전이 많은 자로부터 적당량을 객호(客戶)에게 절부(折付)해 주고, 그 정전의 값은 묵고 있는 전지에 준해서 계산하여 절급(折給)해 주고는 객호(客戶)의 개간이 잘된 뒤에 그 정전은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1. 새로 이사한 민들이 소를 기르는 자가 적어서 개간이 어려울 것이니, 본도 및 황해도(黃海道) 목장마(牧場馬) 1백 50필(匹)을 소로 바꾸어서 먼저 영세한 민호에게 주어 농경(農耕)을 권장하도록 하라.

이하생략~

▶ 2권 즉위년 9월 14일 丙戌

刑曹啓: “本年五月三十日受教, 京外流品及有蔭子弟外, 以常民五戶爲一統, 其統內有容匿盜賊者, 勿論強竊, 將犯人及統戶全家徙邊, 既徙之後, 所在諸邑, 不嚴禁防, 使之遊手閑役, 頻致流亡. 請自今除良人及私賤外公處奴婢, 令所在邑給空閑田地, 屬官奴婢役使. 且正統十三年八月二十八日受教, ‘凡犯法徙兩界人及盜殺牛馬, 進諸遐方人, 并妻子移徙者, 欲終身不返, 使之懲戒也. 今本係賤口及良人有役者, 移徙以後俱免本役, 任情過活, 有違懲戒之意, 其公私賤口, 聽官主收貢, 其官奴婢及船軍、鎭軍、守城軍、牧子、水夫、鹽夫、燧卒、驛吏並從本役, 鄉吏則驛吏, 侍衛牌則船軍, 補充軍則牧子, 其餘諸色人及無役人, 各以相當充役, 所在付籍, 不許擅便出境’, 請上項作賊徙邊公處奴婢, 除其官役, 一依正統十三年八月二十八日受教.”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본년 5월 30일 수교(受敎)에 경외(京外)의 유품(流品) 및 음직(蔭職)이 있는 자제(子弟)를 제외한 상민(常民) 5호(戶)로 1통(統)을 삼아 그 통 내에서 도적을 용납해 은익한 자는, 강도·절도(竊盜)를 논하지 말고 그 범인과 통호(統戶)의 전가(全家)를 변방으로 사민(徙民)하라 하셨는데, 이미 옮긴 뒤에 소재한 여러 고을에서 금방(禁防)을 엄히 하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지 않으면 한역(閑役)이나 시키다가 자주 유망(流亡)하기에 이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양인(良人) 및 사천(私賤)을 제외한 공처노비(公處奴婢)는 그 소재읍(所在邑)으로 하여금 놀리고 있는 전지(田地)를 주고 관노비(官奴婢)로 입속시켜 부리도록 하소서.

또 정통(正統) 13년 8월 28일 수교(受敎)에 ‘무릇 법을 범하여 양계(兩界)로 사민(徙民)한 사람과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하여 먼 지방으로 내쫓긴 자로, 아울러 처자(妻子)까지 이사케 한 자는 종신토록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징계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본래 천구(賤口)에 매어 있던 자 및 양인으로서 부역이 있던 자가 이사한 이후에는 함께 그 본역(本役)을 면하고,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지내고 있으니, 이는 징계한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니, 공·사(公私)의 천구(賤口)는 관(官)에 위임하여서 공물(貢物)을 거두는 것을 맡게 하고, 관노비와 선군(船軍)·진군(鎭軍)·수성군(守城軍)·목자(牧子)·수부(水夫)·염부(鹽夫)·수졸(戍卒)·역리(驛吏)는 모두 그 본역(本役)에 따르게 하는데, 향리(鄉吏)는 역리(驛吏)에, 시위패(侍衛牌)는 선군(船軍)에, 보충군(補充軍)은 목자(牧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제색인(諸色人)과 무역인(無役人)도 각각 그에 상당하는 역에 충당하여 소재지에 부적(付籍) 시켜서 임의로 경내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위의 도둑질하여 변방으로 옮겨간 공처노비(公處奴婢)는 그 관역(官役)을 면제해 주고 일체 정통 13년 8월 28일 수교에 의하여 하도록 하소서.”

▶ 3권 2년 3월 21일 庚寅

唐人押解官張義，回自遼東至博川，奉書于承政院以啓曰：“臣因遼東大人王祥，聞皇后二月二十一日崩逝。”禮曹據此啓：“今大行皇后舉哀，殿下率百官，素服、烏紗帽、黑角帶，望闕四拜，哭十五聲訖，又四拜，每日早朝臨哭，三日而除，停朝市、斷音樂、去刑戮、禁屠殺、停嫁娶，凡三日。外方大小使臣及守令，聞喪即日素服、烏紗帽、黑角帶，設闕位哭十五聲，每日臨如前，三日而除。”上從之，舉哀於勤政殿階上如儀。

중국인 압해관(押解官) 장의(張義)가 요동(遼東)으로부터 돌아와 박천(博川)에 이르러, 승정원에 봉서(奉書)하여 아뢰기를, “신은 요동 대인(遼東大人) 왕상(王祥)으로부터 황후가 2월 21일에 붕서(崩逝)했음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대행 황후(大行皇后)가 거애(舉哀)하였으니, 전하께서 백관(百官)을 인솔하여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로 망궐(望闕)하여 4배(四拜)하고, 곡(哭) 15성(十五聲)하기를 마치면 또 4배(四拜)를 하며, 날마다 조조(早朝)에 임곡(臨哭)하여 3일 만에 제복(除服)하소서. 조정과 시전을 정지하고 음악을 끊으며 형륙(刑戮)을 하지 말고 도살(屠殺)을 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며 가취(嫁娶)를 정지하기를 모두 3일 동안 하소서. 외방(外方)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수령(守令)도 문상(聞喪)한 그날로 소복·오사모·흑각대를 하고, 궐위(闕位)를 설치하여 곡 15성을 하며, 날마다 임하기를 앞과 같이 하여 3일 만에 제복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근정전(勤政殿) 뜰에서 거애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 6권 3년 1월 3일 戊辰

初威吉道觀察使咸禹治啓: “月課鐵葉兒甲, 數年之內, 貫皮磨絕, 功力多而無長久之計. 請自今除鐵甲三分之二, 用猪牛皮造作.” 上議于兵曹, 從之

처음에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 함우치(咸禹治)가 아뢰기를,

“달마다 철엽아갑(鐵葉兒甲)을 시험하니 수년(數年) 안에 관피(貫皮)가 닳아 끊어져서 공력(功力)은 많이 들었는데도 장구한 계획이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철갑(鐵甲)은 3분의 2를 덜어 버리고 저피(猪皮)와 우피(牛皮)를 사용하여 만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의논하여 그대로 따랐다.

▶ 6권 3년 1월 6일 辛未

禮曹啓: “《禮》‘祀天犢牛, 其角繭栗’, 然角繭栗者, 方飲乳, 不得喂以芻穀. 其二歲犢, 角雖稍大, 亦是犢牛, 且易以喂養, 請用之.” 從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예기(禮記)》에, ‘하늘에 제사할 적에는 송아지의 그 뿔이 고치[繭]나 밤처럼 조그맣게 난 것을 사용한다.’ 하였지만, 그러나 뿔이 고치나 밤처럼 조그맣게 난 것은 방금 젖을 먹고 있으므로 풀과 곡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살짜리 송아지는 비록 뿔이 조금 크더라도 또한 이것도 송아지이며 먹여 기르기도 쉬우니, 청컨대 이것을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6권 3년 1월 8일 癸酉

禮曹啓: “上帝犢一, (壁) [壁] 用蒼, 蒼帛一、【除緘成郊祀制帛四字.】籩十二、【實以形鹽、魚鱸、糗餌、粉餐、榛實、乾棗、白餅、黑餅、菱仁、芡仁、栗黃、鹿脯.】豆十二、【實以豚拍、鹿醢、醢醢、糝食、韭菹、醢食、魚醢、兔醢、芹菹、笋菹、脾析、菁菹.】簠·簋各一、【實以稻、梁、黍稷.】豆一、【實以毛血.】登一、【實以大羹、煮肉汁, 不用鹽醬.】簠一、【實以玉帛.】俎二、【一牲肉匣、一牲首

匣.】 俎二【一腥腸(胄)〔胃〕肺小匣， 一熟腸胃肺小匣.】 香爐一、香合一、燭二、(炮)〔匏〕爵三、【各在坫.】 祝版一.【有坫.】

皇地祇犢一，玉用黃琮，黃色帛一，已上席以藁秸. 太祖犢一，璧用蒼，蒼色帛一，陳設上同，藉以莞席. 上帝尊所，大尊二、【一實明水，一實泛齊.】 著樽二、【一實明水，一實醴齊.】 犧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 山罍二、【一實玄酒， 一實清酒.】 坫一、【飲福爵.】 俎一、【胙肉俎.】 籩一、【除飯籩.】 燭一， 爵坫玉帛簠， 先設於此壇上，【在上帝位東北向西上.】 席以藁秸. 皇地祇尊所，上同壇上，【在皇祇饌西北向西上.】 席以藁秸. 太祖尊所，上同壇上，【在上帝尊所東，北向西上.】 藉以莞席，有象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 已上皆倣前朝陳設圖，但上帝壇下，尊所徒設不薦，今除.

大明犢一、紅色帛一、籩十、【實以形鹽、魚鱸、榛實、乾棗、菱仁、芡仁、栗黃、鹿脯、白餅、黑餅.】 豆十、【實以魚醢、兔醢、鹿醢、醢醢、芹菹、笋菹、菁菹、豚拍、脾析.】 豆一、【實以毛血.】 登一、【實以大羹煮肉汁， 不用鹽醬.】 簠·簋各二、【實以稻粱黍稷.】 簠一、【帛.】 俎二、【一牲肉匣、一牲首匣.】 俎二、【〔一〕腥腸(胄)〔胃〕肺小匣， 一熟腸胃肺小匣.】 香爐一、香合一、燭二、匏爵三、【各有坫.】 席以藁秸.

夜明犢一、白色帛一、陳設上同，席以藁秸. 星辰，諸司職掌犢一、羊三、豕三，今犢一、白色帛一，陳設上同，加鉶一，【實以和羹.】 席以莞，下同. 已上倣諸司職掌及前朝本朝陳設圖參定.

이하생략~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제(上帝)에게는 송아지[犢] 한 마리, 벽(壁)은 창벽(蒼壁)을 사용하고, 창백(蒼帛) 1개【폐백을 봉한 후에는 ‘교사제백(郊祀制帛)’이란 4자가 없어졌다.】，변(籩) 12개【형염(形鹽)·어수(魚鱸)·구이(糗餌)·분자(粉糝)·진실(榛實)·건조(乾棗)·백병(白餅)·흑병(黑餅)·능인(菱仁)·검인(芡仁)·울황(栗黃)·녹포(鹿脯)를 담는다.】，두(豆) 12개【돈박(豚拍)·녹해(鹿醢)·담해(醢醢)·삼식(糝食)·구저(韭菹)·이식(醢食)·어해(魚醢)·토해(兔醢)·근저(芹菹)·순저(笋菹)·비식(脾析)·청저(菁菹)를 담는다.】，보(簠)·궤(簋) 각기 1개【도(稻)·양(梁)·서(黍)·직(稷)을 담는다.】，두(豆) 1개【모혈(毛血)을 담는다.】，등(登) 1개【대羹(大羹)·자육즙(煮肉汁)을 담고，염장(鹽醬)은 사용하지 않는다.】，비(簠) 1개【옥백(玉帛)을 담는다.】，조(俎) 2개【1개는 생육갑(牲肉匣)이고，1개는 생수갑(牲首匣)이다.】，조(俎) 2개【1개는 생고기의 장(腸)·위(胃)·폐(肺)의 소갑(小匣)이고，1개는 익힌 고기의 장·위·폐의 소갑(小匣)이다.】 향로(香爐) 1개，향합(香盥) 1개，촉(燭) 2개，포작(匏爵) 3개【각기 점(坫)이 있다.】，촉판(祝版) 1개【점(坫)이 있다.】입니다.

황지기(皇地祇)에게는 송아지[犢] 한 마리，옥(玉)은 황중(黃琮)을 사용하고 황색백(黃色帛) 1개인데，이상의 자리는 짚자리[藁秸]로써 깔며，태조(太祖)에게는 송아지[犢] 한 마리，벽(壁)은 창벽(蒼壁)을 사용하고 창색백(蒼色帛) 1개인데，진설(陳設)은 위와 같고，자리는 왕골 자리[莞席]로써 깔니다. 상제(上帝)의 준소(尊所)는 대준(大尊) 2개【1개는 명수(明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를 담고, 1개는 범제(泛齊)를 담는다.】, 착준(著樽) 2개 【1개는 명수를 담고, 1개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를 담고, 1개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산뢰(山罍) 2개 【1개는 현주(玄酒)를 담고, 1개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점(坫) 1개 【음복작(飲福爵)이다.】, 조(俎) 1개 【조육조(胙肉俎)이다.】, 변(籩) 1개 【반(飯)을 더는 변(籩)이다.】, 촉(燭) 1개, 작점(爵坫)과 옥백비(玉帛篚)를 먼저 이 단상(壇上)에 설치하고 【상제위(上帝位)의 동쪽에 있는데, 북향(北向)하고 서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황지기(皇地祇)의 준소(尊所)는 위와 같이 단상(壇上)에 설치하고 【황기찬(皇祇饌)의 서쪽에 있는데, 북향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태조(太祖)의 준소(尊所)는 위와 같이 단상(壇上)에 설치하고 【상제(上帝)의 준소(尊所) 동쪽에 있는데, 북향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자리는 왕골 자리로써 깔며, 상준(象尊) 2개가 있습니다. 【1개는 명수(明水)를 담고, 1개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이상은 모두 전조(前朝)의 진설도(陳設圖)를 모방했는데, 다만 상제(上帝)의 단하(壇下)에는 준소(尊所)만 그냥 설치하고 제수(祭羞)는 올리지 않으므로 지금은 제하였습니다.

대명(大明)은 송아지[犢] 한 마리, 홍색백(紅色帛) 1개, 변(籩) 10개 【형염(形鹽)·어수(魚鱸)·건조(乾棗)·능인(菱仁)·검인(芡仁)·울황(栗黃)·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을 담는다.】, 두(豆) 10개 【어해(魚醢)·토해(兔醢)·녹해(鹿醢)·담해(醢醢)·근저(芹菹)·순저(笋菹)·청저(靑菹)·돈박(豚拍)·비석(脾析)을 담는다.】, 두(豆) 1개 【모혈(毛血)을 담는다.】, 등(登) 1개 【대갱자육즙(大羹煮肉汁)을 담고, 염장(鹽醬)은 사용하지 않는다.】, 보(簋)·쾌(簋) 각각 2개 【도(稻)·양(梁)·서(黍)·직(稷)을 담는다.】, 비(篚) 1개 【백(帛).】, 조(俎) 2개 【1개는 생육갑(牲肉匣)이고, 1개는 생수갑(牲首匣)이다.】, 조(俎) 2개 【1개는 생고기의 장(腸)·위(胃)·폐(肺)의 소갑(小匣)이고, 1개는 익힌 고기의 장·위·폐의 소갑이다.】, 향로(香爐) 1개, 향합(香合) 1개, 촉(燭) 2개, 포작(匏爵) 3개이고 【각기 점(坫)이 있다.】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야명(夜明)은 송아지[犢] 한 마리,** 백색백(白色帛) 1개인데, 진설(陳設)은 위와 같고,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성신(星辰)은,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송아지[犢] 한 마리, 양(羊) 세 마리, 돼지[豕] 세 마리인데, 지금은 송아지 한 마리, 백색백(白色帛) 1개이고,** 진설(陳設)은 위와 같은데, 형(銅) 1개 【화羹(和羹)을 담는다.】를 더하고, 자리는 왕골자리로써 깔며, 아래는 같습니다. 이상은 《제사직장(諸司職掌)》 및 전조(前朝)와 본조(本朝)의 진설도(陳設道)를 모방하여 참고해서 정한 것입니다.

이하생략~

▶ 6권 3년 1월 9일 甲戌

諭諸道觀察使曰：

~중략~

一，農牛喂養，不可忽也。守令不趁時給料，農牛困斃，未能力農。今後料豆預先分給，毋使失時。

이하생략~

제도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중략~

1. 농우(農牛)의 사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수령(守令)이 시기에 맞추어 사료(飼料)를 주지 않아서 농우가 피곤해서 죽으므로 농사에 힘쓸 수 없게 된다. 금후에는 사료(飼料) 콩을 미리 먼저 나누어 주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이하생략~

▶ 6권 3년 1월 16일 辛巳

朴薑等啓: “巨濟縣令李孟保, 盜殺非進島、蓑島放養牛六首, 又托言進上奪人早稻, 自知其罪而逃, 殊無土行.” 命下司憲府.

박강(朴薑) 등이 아뢰기를, “거제현령(巨濟縣令) 이맹보(李孟保)가 비진도(非進島)와 사도(蓑島)에 놓아 기르는 소 여섯 마리를 도살(盜殺)하였으며, 또 진상(進上)한다고 핑계해 말하고서 남의 올벼[早稻]를 빼앗고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도망했으니, 선비의 행실이 전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헌부(司憲府)에 내리게 하였다.

▶ 6권 3년 1월 28일 癸巳

傳旨司憲府、漢城府曰: “禁令太多冗雜, 有司不能遍舉, 民間騷擾, 誤掛刑憲者多. 今後五十條件內, 父母不孝・兄弟不和・隣里不睦者、疎薄正妻・昵愛嬖妾者、良賤相婚者、無故棄妻者、牛馬宰殺者、自死牛馬不申官開剝者、移來移去者及牛馬皮肉著標掩骼埋胔、禁火、舊柩子考察事、丐乞人及遺棄孩兒、無親族寄食他家者救恤事、諸司奴婢生產物故、守信寡婦適他者、夫喪三年內改嫁者、不立祠堂者、過期不葬者、無標牛馬肉放賣者、年壯處女成婿物故人檢屍推考事外, 雖各年受教之事, 竝勿舉行.”

사헌부(司憲府)와 한성부(漢城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금령(禁令)에 융잡(冗雜)한 것이 너무 많아서 유사(有司)가 능히 모두 거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民間)의 소요(騷擾)가 잘못되어 형법(刑法)에 걸린 것이 많게 되었다. 금후에는 50조건(條件) 내에 부모(父母)에게 불효(不孝)하고, 형제(兄弟)에게 불화(不和)하고, 인리(隣里)에 불목(不睦)한 자,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하고 폐첩(嬖妾)을 지나치게 사랑한 자,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이 서로 혼인한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妻)를 버린 자, 소와 말을 도살(屠殺)한 자, 저절로 죽은 소와 말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부하여 쪼갠 자, 옮겨 오고 옮겨 간 자 및 우마(牛馬)의 피육(皮肉)을 착표(着標)하고, 드러난 뼈를 가리고, 썩은 고기를 땅에 묻고, 화재(火災)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 쓰는 일을 제한하고, 예전의 저울[秤子]을 고찰(考察)하는 일, 걸인(乞人) 및 유기(遺棄)된 어린아이, 친족이 없어 다른 집에서 기식(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食)하는 자를 구휼(救恤)하는 일, 여러 관사(官司)의 노비(奴婢)가 생산된 것과 죽은 것, 수신(守信)한 과부(寡婦)가 다른 곳으로 시집간 자, 남편이 죽은 지 3년 안에 개가(改嫁)한 자, 사당(祠堂)을 세우지 아니한 자, 기일이 지나도 장사(葬事)하지 아니한 자, 표지가 없는 소와 말의 고기를 방매(放賣)한 자, 나이 장성한 처녀(處女)와 성혼(成婚)하여 죽은 사람을 검시(檢屍)하고 추고(推考)하는 일 외에는, 비록 각년(各年)의 수교(受敎)한 일일지라도 모두 거행(舉行)하지 말라.”하였다.

▶ 7권 3년 5월 11일 癸酉

刑曹啓: “盜賊科罪之法, 累次受敎, 科條甚多. 外方官吏眩於施爲, 若不通論指示, 則恐失立法本意. 依前受敎, ‘竊盜賊滿十貫以上爲首者及牛馬賊爲首者, 勿論宰殺與否處絞, 有若白晝搶奪、盜倉庫錢糧, 一應犯盜計贓科罪者, 贓滿十貫, 則爲首者, 依上項例處絞, 爲從及未滿十貫者, 笞、杖、徒、流各從本律施行. 一貫以上黥面, 未滿一貫者, 膊上刺字, 再犯則通計赦前處絞.’ 律文內稱以監守自盜論者, 不拘此例. 但元典內 ‘無識之人, 稱農牛老病, 賣於韃靼禾尺者, 其賣者及韃靼禾尺, 皆以宰殺牛馬律論罪, 身充水軍.’ 今盜殺牛馬爲從者, 依本律施行, 則買殺者反重, 盜殺者反輕, 輕重失宜. 請以盜殺牛馬爲從者, 依元典買殺例, 決杖一百, 身充水軍.”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도적에게 과죄(科罪)하는 법은 여러 차례의 수교(受敎)에 과조(科條)가 매우 많으므로, 외방(外方)의 관리가 시행하는 일에 현혹(眩惑)되니, 만약 통론(通論)하여 지시(指示)하지 않는다면 아마 법을 제정한 본뜻을 잃을 듯합니다. 전의 수교(受敎)에 의거한다면, ‘절도(竊盜)는 장물(贓物)이 10관(貫) 이상이 된 주범자(主犯者)와 우마(牛馬)를 도적질한 주범자는 도살(屠殺)했는가의 여부(與否)를 논할 것도 없이 교형(絞刑)에 처하고, 만약 대낮에 물건을 빼앗고 창고의 전량(錢糧)을 도적질하여 대체로 도적의 범죄로써 장물을 계산하여 과죄(科罪)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물이 10관(貫)이 된다면 주범자(主犯者)는 위의 예(例)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자(從犯資) 및 장물이 10관(貫)에 차지 않은 자는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을 각기 본률(本律)에 따라 시행하고, 장물이 1관(貫) 이상인 자는 얼굴에 자자(刺字)하고, 1관(貫)에 차지 않은 자는 어깨 위에 자자(刺字)하고, 재차 범하면 사유(赦宥) 전까지 통틀어 계산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기로 한다.’고 하였는데, 형률(刑律)의 조문(條文) 안에는 감수자도(監守自盜)로써 논죄(論罪)된 자는 이 예(例)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전(元典) 안에, ‘무식(無識)한 사람이 농우(農牛)가 늙고 병들었다고 핑계하고서 달달화척(韃靼禾尺)에게 팔아 버린 사람은, 그 팔아 버린 사람과 달달 화척(韃靼禾尺)을 모두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한 형률(刑律)로써 논죄(論罪)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편입시킨다.’ 하였는데, 지금은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하여 종범(從犯)이 된 자를 본률(本律)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면 매살(買殺)한 자는 도리어 죄가 무겁게 되고, 도살한 자는 도리어 죄가 가볍게 되어 경중(輕重)이 적당함을 잃게 됩니다. 청컨대 우마(牛馬)를 도살

하여 종범(從犯)이 된 자는 원전(元典)에 매살(買殺)한 예(例)에 의거하여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몸은 수군(水軍)에 편입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7권 3년 5월 26일 戊子

日本國王使者全密等辭，爲書以答曰：

朝鮮國王奉復日本國王殿下．海天遼邈，音微阻隔，忽承辱价，禮意交至，深慰不已．我國與貴國，世敦隣好，以孤不德，幸蒙天之力，初定國亂，卽位日淺，未遑通問，以講信義爲愧，來示重新佛刹，欲得錢爲資，但本國錢幣不行已久，公私所儲不敷，謹收若干緡錢，庶助萬一．弘揚法教，彼此一致，隨喜隨喜．特送《大藏經》令部，以備潘閱，并將不腆土宜，就付來使，聊表禮信冀領留．聞貴國畫屏、畫扇，製造甚精，沈香雕佛，尤所珍妙，如以見惠，豈不幸哉？餘冀珍重自愛．《大藏經》一部、石燈盞五事、鞍子一面、諸緣具、白細綿紬二十四、紅細苧布一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方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銅錢一萬貫、人蔘一百觔、松子五百觔、五味子五斗、清蜜二十斗、豹皮心・虎皮邊・狍皮裏坐子一事、藍斜皮一十張、豹皮一十張、虎皮一十張、摺扇一百把、油芭一十張、**牛黃一十部**、乾虎臟五十二箇、乾虎骨四十二箇、乾虎肉四百七十條、乾虎肋肉帶骨六部、乾骨兒二部、乾虎脚肉帶骨四箇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 전밀(全密) 등이 하직하니, 서신(書信)을 만들어 답했는데, 내용은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일본 국왕 전하(日本國王殿下)에게 삼가 회답합니다. 바다 하늘이 아득히 멀어서 음신(音信)이 막혀서 통하지 못하였는데, 홀연히 사자(使者)가 와서 예의(禮意)가 번갈아 이르게 되니, 깊이 위안(慰安)됨이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귀국(貴國)과 더불어 대대로 인호(隣好)를 돈독(敦篤)히 하였는데, 나는 부덕(不德)한 몸으로서 다행히 하늘의 힘을 입어서 처음으로 국란(國亂)을 안정시키고 즉위(卽位)한 지도 시일이 오래 되지 않아서 통문(通問) 신의(信義)를 돈독(敦篤)히 할 겨를이 없는 까닭으로 부끄럽게 여겼는데, 온 서신에는 불찰(佛刹)을 중수(重修)하는 데 돈을 얻어 도움을 삼으려고 하지만, 다만 본국(本國)에서는 전폐(錢幣)가 시행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관청과 민간에 저장된 것이 넉넉지 못하니, 삼가 약간민(若干緡)의 돈을 거두어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佛敎)를 널리 드날리는 일은 피차간에 일치하니, 〈귀국의 좋은 일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고 따라서 기뻐합니다. 특별히 대장경(大藏經)의 영부(令部)를 보내어 펴서 열람하는 데 대비(對備)하게 하고, 아울러 변변치 못한 토산물(土產物)로써 우리나라에 온 사자(使者)에게 붙여서 부족하나마 예절과 신의(信義)를 표시하니, 받아 두기를 바랍니다. 듣건대, 귀국(貴國)의 그림 병풍[畫屏]과 그림 부채[畫扇]는 제조가 매우 정교(精巧)하며 침향(沈香)으로 새긴 부처는 더욱 진묘(珍妙)하다고 하니, 만약 보내 준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외(餘外)는 진중(珍重)하게 스스로 아끼소서.

대장경(大藏經) 1부(部), 석등잔(石燈盞) 5사(事), 안자(鞍子) 1면(面), 여러 가지 연식(緣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飾)하는 도구(道具),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동전(銅錢) 1만 관(貫), 인삼(人蔘) 1백 근(斤), 송자(松子) 5백 근, 오미자(五味子) 5두(斗), 청밀(淸密) 20두(斗), 표피심(豹皮心)·호피변(虎皮邊)·전피리(狹皮裏)로 된 좌자(坐子) 1사(事), 남사피(藍斜皮) 10장(張), 표피(豹皮) 10장, 호피(虎皮) 10장, 접선(摺扇) 1백 자루[把], 유둔(油苴) 10장, 우황(牛黃) 10부(部), 건호장(乾虎臟) 52개, 건호골(乾虎骨) 42개, 건호육(乾虎肉) 4백 70조(條), 건호륙 육대골(乾虎肋肉帶骨) 6부(部), 건호흉아(乾虎胸兒) 2부(部), 건호각 육대골(乾虎脚肉帶骨) 4개를 보냅니다.”

▶ 7권 3년 5월 27일 己丑

會僧徒一百八人于興天寺祈雨. 命左副承旨韓繼美行香, 禁諸司刑戮屠殺

중[僧] 1백 8인을 흥천사(興天寺)에 모아서 기우(祈雨)하게 하였다.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명하여 향불을 피우도록 하고, 여러 관사(官司)에 형록(刑戮)과 도살(屠殺)을 금하게 하였다.

▶ 8권 3년 6월 14일 丙午

戶曹啓: “今奉傳旨, 參詳黃海、平安兩道居民, 農力不裕, 不得墾田, 今將陳地耕墾條件謹錄于後. 一, 兩道諸牧場兒馬及病馬, 分授諸邑買牛, 量其陳地多少, 或三四首或五六首, 差等分授. 一, 民有欲以官牛耕墾者, 聽初年花利, 一半給佃戶, 一半官收, 補公廩及義倉, 所墾之田, 先給佃戶, 他無田者, 并隨宜折給. 一, 新墾田, 限二年勿收稅. 一, 監司每歲季, 具新墾田結負之數、諸人折給之數、公廩義倉補添之數以聞. 一, 諸邑守令, 有能勸課致墾田多者褒賞, 如或不量民力侵督耕墾者治罪. 一, 農牛料, 初年用諸邑軍資陳豆, 其後用新田所出, 軍資陳豆, 亦以新田所出充償.”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어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농사지를 힘이 넉넉지 못하여 전지(田地)를 개간(開墾)할 수 없으니, 지금 진지(陳地)를 경작(耕作)·개간(開墾)할 조건을 다음에 삼가 기록합니다.

1. 두 도(道)의 여러 목장(牧場)의 아마(兒馬)와 병든 말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 주고 소를 사서, 그 진지(陳地)의 다소(多少)에 따라 혹은 서너 마리, 혹은 대여섯 마리씩 차등 있게 나누어 주소서.

1. 백성들 가운데 관우(官牛)로써 경작(耕作)·개간(開墾)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첫해의 화리(花利)를 허락하여 한 반(半)은 관(官)에서 거두어 공름(公廩)과 의창(義倉)에 보충하며,

개간한 전지(田地)는 전호(佃戶)에게 우선적으로 주되, 별다른 전지가 없는 자는 모두 적당한 데 따라 절급(折給)하소서.

1. 새로 개간한 전지는 2년을 기한하여 세금을 거두지 마소서.

1. 감사(監司)가 매년 말에 새로 개간한 전지의 결부(結負) 수와 여러 사람에게 절급(折給)한 수와 공廩(公廩)·의창(義倉)에 보충하여 보탠 수를 갖추어서 아뢰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 가운데 능히 권과(勸課)하여 개간한 전지가 많은 자가 있으면 포상(褒賞)하고, 만약 혹시라도 백성들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경작·개간을 독촉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소서.

1. 농우(農牛)의 사료(飼料)는 첫 해에는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을 사용하고, 그 후에는 신전(新田)의 소출(所出)을 사용하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은 신전(新田)의 소출(所出)로써 보충하여 갚게 하소서.” 하였다.

▶ 9권 3년 9월 16일 丁丑

御慶會樓東偏房， 引見左議政鄭昌孫、右議政姜孟卿、左贊成申叔舟、右贊成黃守身、判院事權攄、左參贊朴仲孫、兵曹參判具致寬、都節制使洪允成、漢城府尹李純之、左副承旨權摯、右副承旨金碩、同副承旨鄭軾、左弼善任元濬、風水學魯穆·安孝禮·曹秀宗等，議前所相果川、原平山勢，上曰：“予不審所謂主山者，玄宮之上落脈處爲主山乎？逶迤出龍虎外十餘里有高峰，則以此爲主山乎？”元濬、穆曰：“落脈處爲主山。”純之、孝禮曰：“山脈起來最高處爲主山。”議者紛紜，竟未歸一。致寬因啓曰：“牛者，生民耕食之所賴，而我朝牛少馬多，請以諸道牧場兒馬換牛，放閑曠水草俱足之地，使之孳息。”金碩曰：“長生殿狹隘，請補以簷宇。”上曰：“予欲除弊，勿爲之。”叔舟曰：“功役甚少。”上猶不允。仍留昌孫、孟卿、叔舟、守身、攄、仲孫、碩、軾，命臨瀛大君璆、桂陽君璆飲之。

경회루 동편방(東偏房)에 나아가서 좌의정 정창손(鄭昌孫)·우의정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신숙주(申叔舟)·우찬성 황수신(黃守身)·판원사(判院事) 권남(權攄)·좌참찬 박중손(朴仲孫)·병조참판 구치관(具致寬)·도절제사 홍윤성(洪允成)·한성부 윤 이순지(李純之)·좌부승지 권지(權摯)·우부승지 김질(金碩)·동부승지 정식(鄭軾)·좌필선 임원준(任元濬), 풍수학 노목(魯穆)·안효례(安孝禮)·조수종(曹秀宗) 등을 인견하고, 전에 상지한 과천·원평의 산세(山勢)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른바 주산(主山)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현궁(玄宮) 위에 산맥(山脈)이 떨어진 곳이 주산이 되는 것인가, 산이 쪽 뺨어 내려가다가 용호(龍虎) 밖으로 10여 리를 나가서 높은 봉(峰)이 있으면 이것으로 주산을 삼는 것인가?”하니, 임원준·노목은 말하기를, “산맥이 떨어진 곳이 주산이 됩니다.”하고, 이순지·안효례는 말하기를,

“산맥이 생겨 나오다가 가장 높게 솟은 곳이 주산이 됩니다.”하여 의논이 분운(紛紜)하니, 마침내 귀일(歸一)을 보지 못하였다. 구치관이 인하여 아뢰기를, “소[牛]라는 것은 인민들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토지를 갈아 먹는 것을 의뢰하는 물건인데, 우리나라에는 소는 적고 말이 많으니, 청컨대 제도(諸道)의 목장(牧場)의 아마(兒馬)를 소로 바꾸어서 넓고 물과 풀이 다 풍족한 곳에 방목(放牧)하여 번식(蕃息)시키게 하소서.”하고, 김질이 아뢰기를, “장생전(長生殿)이 좁으니, 청컨대 처마[簷宇]를 달아 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폐단을 없애고자 하니, 그리 하지 말라.”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공역(功役)이 매우 적습니다.”하였으나, 임금이 그래도 윤택하지 않았다. 이어서 정창손·강맹경·신숙주·황수신·권남·박중손·김질·정식을 머무르게 하고,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와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璿)에게 명하여 그들을 먹이게 하였다.

▶ 11권 4년 2월 8일 丁酉

傳旨義禁府曰: “甲士金光守潛招白丁, 宰殺牛馬, 現有賊驗, 其鞫光守及隣近白丁等.” 光守, 居廣州草坪里, 鈴川府院君尹師路素所庇者. 上謂曹錫文曰: “光守藉鈴川之勢, 武於鄉曲, 今見捕, 亦必訴哀於鈴川, 須當窮訊. 非獨此也, 宰相田莊奴僕恣暴, 至如內需司奴亦必如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갑사(甲士) 김광수(金光守)가 몰래 백정(白丁)을 불러다가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하였는데, 나타난 장물의 증거도 있으니, 김광수와 인근의 백정들을 국문(鞫問)하라.”하였다. 김광수는 광주(廣州) 초평리(草坪里)에 사는데,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가 본디 비호하는 자이므로, 임금이 조석문(曹錫文)에게 이르기를,

“김광수(金光守)는 영천(鈴川)의 세도를 빙자하여 향곡(鄉曲)에서 무단(武斷)하였는데, 이제 체포당하였으니 또한 필시 영천에게 애소(哀訴)할 것이다. 모름지기 끝까지 신문(訊問)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독 이뿐만 아니라, 재상(宰相)의 전장(田莊) 노복(奴僕)도 방자하고 포악하니, 내수사(內需司)의 종[奴]같은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 하였다.

▶ 11권 4년 2월 11일 庚子

禮曹啓: “謹按《開元禮》省牲之法, 凡祀之特, 大祀九旬, 中祀三旬, 下祀一旬. 今典牲署祀天犢牛, 正牲六、副牲二、預備牲八, 每年十月上旬前受納. 然或輸納不齊, 或不中牲, 因此九旬內不得準數擇牲. 請自今令諸邑每年八月晦日內畢納, 十月十五日內揀擇, 違者重論.”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개원례(開元禮)》의 성생(省牲)의 법을 살펴보면, 모든 제사의 <희생에 쓰는> 수소[特]는 대사(大祀)에는 9순(旬), 중사(中祀)에는 3순(旬), 하사(下祀)에는 1순(旬)이었습니다. 이제 전생서(典牲署)의 사천(祀天)하는 데 쓸 송아지[犢牛]는 정

생(正牲)이 6이고, 부생(副牲)이 2이며, 예비생(預備牲)이 8인데, 해마다 10월 상순(上旬) 전에 수납(受納)합니다. 그러나 혹 실어다 바치는 것이 정제하지 못하든가 혹은 희생에 맞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9순(旬) 내에 수량을 채워 가리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제읍(諸邑)으로 하여금 해마다 8월 그믐날 안에 거둬들이는 것을 마치고, 10월 15일 안으로 간택(揀擇)하게 하되, 어긴 자는 중하게 논(論)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권 4년 2월 25일 甲寅

甲寅/受朝參, 御後苑觀射, 臨瀛大君璆、敬寧君禕、桂陽君璲、密城君琛、義昌君珪、翼峴君璉、寧海君瑒、烏山君澍、鈴川府院君尹師路、花川君權恭、延昌尉安孟聃、河城尉鄭顯祖、右議政姜孟卿、左贊成申叔舟、雲城府院君朴從愚、兵曹判書洪達孫、知中樞院事楊汀·洪允成、漢城府尹李允孫、仁壽府尹康袞、承旨及行上護軍魚得海、宣傳官、司僕等侍射. 賜勝者水牛皮各二張.

조참(朝參)을 받고, 후원에 나아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니, 임영대군 이구(李璆)·경녕군(敬寧君) 이비(李禕)·계양군 이증(李璲)·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의창군 이공(李珪)·익현군 이관(李璉)·영해군 이당(李瑒)·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영천 부원군 윤사로(尹師路)·화천군 권공(權恭)·연창위(延昌尉) 안맹당(安孟聃)·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우의정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신숙주(申叔舟)·운성 부원군 박종우(朴從愚)·병조판서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한성부 윤 이윤손(李允孫)·인수부 윤 강곤(姜袞), 승지와 행상호군 어득해(魚得海), 선전관·사복 등이 시사(侍射)하였다. 이긴 자에게는 수우피(水牛皮) 2장씩을 내려 주었다.

▶ 12권 4년 3월 24일 辛亥

兵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 “牧場鹿角城及避雨雪間架, 令諸邑造成, 典守者非徒不謹看守, 往往欲侵漁軍人. 故爲撤去, 每年發軍修葺, 其弊不貲. 請自今限三年修葺, 其限內頽圯處, 令本官典守者及牧子修葺. 且進上甲家鹿皮, 分定不產之官, 不獲已收價民間, 請自今官備牛馬皮造作.” 從之.

병조에서 경상도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목장(牧場)의 녹각성(鹿角城)과 우설(雨雪)을 피하는 간가(間架)를 제읍(諸邑)으로 하여금 조성(造成)하게 하였는데, 전수자(典守者)가 삼가서 간수(看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때로 군인(軍人)을 침어(侵漁)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철거(撤去)하게 되고 해마다 군인을 발하여 수즙(修葺)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3년을 기한하여 수즙하게 하되, 그 기한 안에 헐고 무너진 곳 [頽圯處]은 본관(本官)의 전수자(典守者)와 목자(牧子)로 하여금 수즙하게 하소서. 또 진상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는 갑가(甲家)의 녹비(鹿皮)를 생산되지 않는 고을에 분정(分定)하여 어쩔 수 없이 값을 민간에게 거두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관에서 우피(牛皮)·마피(馬皮)를 갖추어 조작(造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6권 5년 4월 10일 辛酉

命判內侍府事田昀齋脯、鱸、海菜、松子、清蜜等物，分贈明使，嘉猷不受，軌受之。嘉猷及軌遊觀漢江，館伴朴元亨·曹孝門及右贊成權肇、禮曹判書洪允成、行僉知中樞院事金守溫隨行。命都承旨尹子雲、左副承旨李克堪齋宣醢往慰明使。登濟川亭，徧觀題詠，與諸宰相行茶禮，乘舟泛流。都監設宴，司饗房網魚供之，明使歡甚。沿流而下至龍山江，子雲等又餽別宣醢及蒸羊、猪、雁、鴨。至加乙頭峯設宴，判中樞院事洪達孫又承命齋宣醢及別下程，來慰明使，相與飲懼而罷。嘉猷問：“誰是金守溫宰相？”左右指之，以素聞守溫能詩也。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昀)에게 명하여, 육포(肉脯)·건어(乾魚)·해채(海菜)·송자(松子)·청밀(靑蜜)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使臣)에게 나누어 주니 진가유(陳嘉猷)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왕월(王軌)은 받았다. 진가유와 왕월이 한강(漢江)을 유람하니, 관반(館伴)인 박원형(朴元亨)·조효문(曹孝門)과 우찬성(右贊成) 권남(權肇)·예조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김수온(金守溫)이 따라서 갔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과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극감(李克堪)에게 명하여 선온(宣醢)을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을 위로하게 하였다. 제천정(濟川亭)에 올라서 〈현관의〉 제영(題詠)을 두루 살펴보고는 여러 재상(宰相)들과 더불어 다례(茶禮)를 행하고 배를 타고 물 위에 띄웠다. 도감(都監)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옹방(司饗房)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바지하니 명(明)나라 사신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강물을 따라 내려와서 용산강(龍山江)에 이르니 윤자운(尹子雲) 등이 또 별선온(別宣醢)과 찢 양·돼지·기러기·오리를 공궤하였다. 가을두봉(加乙頭峯)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는데,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이 또 명령을 받들어 선온(宣醢)과 별하정(別下程)을 가지고 와서 명(明)나라 사신을 위로하면서 서로 더불어 술을 마시며 즐기고는 파하였다. 진가유(陳嘉猷)가 묻기를, “누가 김수온(金守溫) 재상입니까?”하니, 좌우(左右)에서 〈김수온을〉 가리켰는데, 평소부터 김수온이 시(詩)를 잘 짓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 16권 5년 4월 12일 癸亥

癸亥/命判內侍府事田昀齋鹿(及)〔皮〕鹿尾、脯、鱸、乾菌、胡桃、鰻魚鮓、銀口魚鮓、海衣、甘苔等物贈明使，嘉猷不受，軌受之。贈頭目脯、鱸、魚鮓等物，頭目不敢擅受，令金子安告于嘉猷，不諾，良久曰：“可。只受數物。”

임금이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畚)에게 명하여 녹비(鹿皮)·녹미(鹿尾)·육포(肉脯)·건어(乾魚)·건균(乾菌)·호도(胡桃)·복어젓[鰻魚鮓]·은구어젓[銀口魚鮓]·해의(海衣)·감태(甘苔) 등의 물품을 가지고 명(明)나라 사신에게 주게 하니 진가유(陳嘉猷)는 받지 않았으나, 왕월(王軌)은 이를 받았다. 두목(頭目)에게 육포(肉脯)·건어(乾魚)·어자(魚鮓) 등의 물품을 주니 두목(頭目)이 감히 마음대로 받지 못하므로 김자안(金子安)으로 하여금 진가유(陳嘉猷)에게 알리니, 진가유가 승낙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 말하기를, “다만 몇 가지 물품은 받는 것이 가(可)하다.”

▶ 16권 5년 4월 14일 乙丑

乙丑/命判內侍府事洪得敬齋脯、鱸、胡桃、松子、鹿尾、清蜜、魚鮓等物，分贈明使，陳嘉猷只受鹿尾，軌皆受之。又命都承旨尹予雲各贈黃毛筆一百枝、精烟墨十五丁、紫石硯一面、畫簇八幅、白厚紙一卷、法帖五部，皆受之。

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에게 명하여 육포(肉脯)·건어(乾魚)·호도(胡桃)·송자(松子)·녹미(鹿尾)·청밀(淸蜜)·어자(魚鮓)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하니, 진가유(陳嘉猷)는 다만 녹미(鹿尾)만 받고 왕월(王軌)은 모두 받았다. 또 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명나라 사신에게〉 각각 황모필(黃毛筆) 1백 지(枝), 정연묵(精煙墨) 15정(丁), 자석연(紫石硯) 1면(面), 화족(畫簇) 8폭(幅), 백후지(白厚紙) 1권, 법첩(法帖) 5부(部)를 주게 하니, 모두 받았다.

▶ 16권 5년 4월 22일 癸酉

兵曹啓：“才人、禾尺曾屬守城軍、侍衛牌者，已令試充補甲士，其無軍役者，則不許取才。此輩非他平民之例，雖無軍役者，請竝許取才以通仕路。”從之。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으로 그전에 수성군(守城軍)과 시위패(侍衛牌)에 소속된 자는 이미 시험을 보아 갑사(甲士)에 충보(充補)하도록 하였는데, 그들 중에 군역(軍役)이 없는 자는 취재(取材)를 허가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다른 평민(平民)들의 예(例)가 아니니, 비록 군역(軍役)이 없는 자일지라도, 청컨대 모두 취재(取才)를 허가하여 벼슬길에 통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6권 5년 6월 6일 丙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刑曹啓: “他人牛馬買殺者、自己牛馬宰殺者、知情放賣者, 一依《元典》及受教, 杖一百、身充水軍. 而盜殺牛馬者, 則依天順二年三月日傳旨, 杖一百、刺字、徒三年. 蓋徒年有限, 而充軍者終身不返, 若是則盜殺之律, 反輕於買殺、宰殺. 請自今盜殺者, 亦杖一百、刺字、身充水軍.”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다른 사람의 우마(牛馬)를 사서 죽인 자와, 자기의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한 자와, 정상(情狀)을 알고서 방매(放賣)한 자는 《원전(元典)》 및 수교(受教)에 한 결 같이 의거하여 장(杖) 1백 대에, 당자는 수군(水軍)에 충군(充軍)시키며, 우마(牛馬)를 도적질해 죽인 자는 천순(天順) 2년 3월 일의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하고 도(徒) 3년에 처합니다. 대개 도형(徒刑)은 햇수가 제한이 있지만 충군(充軍)된 자는 종신(終身)토록 돌아오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도적질해 죽인 형률(刑律)이 사서 죽인 자와 도살(屠殺)한 자보다도 도리어 가볍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질해 죽인 자도 또한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하고 당자는 수군(水軍)에 충군(充軍)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7권 5년 7월 29일 戊申

傳旨戶曹曰: “平安、黃海、江原三道之民, 或因年荒, 或因疾疫, 或因徭役, 流移他道者甚多. 人稀地廣, 沃壤多荒, 地有遺利. 予愍民失樂土寄生他鄉者, 雖欲還故鄉, 而勢難自致, 雖非流民, 欲就閑曠之地, 而難於始業. 故已令平安、黃海、江原三道新徙者給復七年, 且優給義倉米穀, 新墾者免稅五年, 又給諸邑農牛、農器. 官墾陳地以待來者, 隨其情願給付, 使民知樂土之利、國無曠地之憂. 予亦將往來平壤, 爲東西都以存撫之. 且黃海道疾疫已息, 新徙者亦多樂業, 江原道亦省講武場以業武. 其曉諭中外, 使百姓知予至意.”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 3도(道)의 백성(百姓)들은 혹은 연사(年事)의 흥년으로, 혹은 질병(疾疫)으로, 혹은 요역(徭役)으로 인하여 다른 도(道)에 유이(流移)한 사람이 매우 많아서, 사람은 드물고 땅은 넓은데 비옥한 토지가 많이 황폐되어 전지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백성이 살기 좋은 토지를 잃고서 다른 곳에 기생(寄生)해 사는 사람이 비록 고향(故鄉)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형세상 스스로 오기가 어려우며, 비록 유민(流民)이 아니더라도 한광(閑曠)한 땅에 나아가서 농업(農業)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을 민망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평안도·황해도·강원도 3도의 새로 이사(移徙)한 사람들로 하여금 요역(徭役)을 7년 동안 면제해 주고, 또 의창(義倉)의 미곡(米穀)을 넉넉히 주고, 새로 토지를 개간(開墾)한 사람은 5년 동안 지세(地稅)를 면제해 주고, 또 여러 고을에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주고, 관청에서 묵은 땅을 개간하여, 오는 사람을 기다려서 그 정원(情願)에 따라 급부(給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살기 좋은 토지의 이익을 알도록 하고, 나

라에는 토지를 비워 두는 근심이 없도록 하라. 나도 또한 장차 평양(平壤)에 왕래하면서 동도(東都)와 서도(西都)를 위하여 위안하고 무마(撫摩)할 것이다. 또 황해도(黃海道)는 질병(疾疫)이 이미 그쳤으니, 새로 이사(移徙)한 사람도 또한 생업에 안주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강원도(江原道)에서도 또한 강무장(講武場)을 살피서 무예(武藝)를 익히게 하니, 그것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지극한 뜻을 알도록 하라.”

▶ 17권 5년 8월 24일 癸酉

癸酉/右獻納申末舟啓: “讓寧大君禔就浴慶尙道東萊溫井, 而又欲往全羅見其女子. 沐浴治病則已矣, 不宜枉路遨遊以煩州郡. 且命於留宿之官抄給才人、白丁, 任情獵禽, 才人、白丁亦軍卒也, 王子抄軍, 漸不可長.” 傳曰: “業已發行, 不可中止.” 末舟又啓: “禔在前日罪關宗社, 屬籍已絕, 幸世宗特賜寬恩, 今益加厚遇, 賜浴湯泉, 已爲特恩. 全羅道之行與聚軍獵禽之事, 不宜竝許.” 不允.

우헌납(右獻納) 신말주(申末舟)가 아뢰기를,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경상도(慶尙道) 동래(東萊)의 온정(溫井)에 나아가 목욕을 했는데, 또 전라도(全羅道)에 가서 그 딸을 보려고 하니, 목욕을 하고 병을 치료했으면 그만인데 길을 돌려 즐겁게 놀면서 주·군(州郡)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유숙하는 고을에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뽑아 주도록 명하시어 마음대로 짐승을 사냥하였으니, 재인(才人)과 백정(白丁)도 또한 군졸(軍卒)인데 왕자(王子)가 군졸을 뽑아 폐단을 점차 커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미 길을 떠났으니, 중지(中止)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신말주(申末舟)가 또 아뢰기를, “제(禔)가 전일에 있어서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었으므로 속적(屬籍)에서 이미 끊어졌는데도, 다행히 세종(世宗)께서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내리셨으며, 지금 더욱 후대(厚待)를 베풀어서 탕천(湯泉)에 목욕하도록 해 주시니 이미 특별한 은혜가 되었으므로, 전라도(全羅道)에 가는 일과 군사를 모아 짐승을 사냥하는 일은 마땅히 아울러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 18권 5년 12월 1일 己酉

己酉朔/召領議政姜孟卿、左議政申叔舟、戶曹判書曹錫文、吏曹判書具致寬、兵曹參判金碩、都承旨尹子雲, 御書示之曰: “京畿之民多流移, 非細故也. 是予不聰之致, 然救之豈無術乎? 遣大臣發倉賑恤, 盡除徭役, 使安撫之何如? 速議以啓.” 孟卿等啓: “民多流亡, 而守令等專不賑恤, 觀察使亦不能檢舉, 請推問論罪. 且朔望進上及諸徭, 一皆蠲減, 則庶可復蘇. 又減司僕馬十之三四, 以除芻藁上納之弊, 其飢饉尤甚諸邑, 又減芻藁.” 傳曰: “黃孝源嘗爲忠清道觀察使, 民懷其德, 今以黃孝源爲京畿觀察使可也.” 又命以漢城府尹金淳爲賑恤使, 減司僕馬二百五十四、牛十五首.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호조판서 조석문(曹錫文)·이조판서 구치관(具致寬)·병조참판 김질(金漬)·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을 불러서 어서(御書)로 유시하기를, “경기(京畿)의 백성이 많이 유이(流移)하였으니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총명하지 못한 소치(所致)이지마는, 그러나 이를 구제(救濟)하는데 어찌 방법이 없겠는가? 대신(大臣)을 보내어 창고를 열어서 진휼(賑恤)하고 요역(徭役)을 다 면제하여, 그들을 안무(安撫)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강맹경 등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많이 유망(流亡)하였는데도 수령(守令)들이 제대로 진휼(賑恤)하지 아니하였고, 관찰사(觀察使)도 또한 검거(檢擧)하지 못했으니, 청컨대 추문(推問)하여 논죄(論罪)하소서. 또 삭망(朔望)의 진상(進上)과 여러 가지 요역(徭役)을 일체 모두 감면(減免)한다면, 거의 다시 소생(蘇生)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복마(司僕馬) 10분의 3, 4를 줄여서 꼴과 짚을 상납(上納)하는 폐단을 없애고, 그 기근(飢饉)이 더욱 심한 여러 고을로 또한 꼴과 짚을 감(減)해 주소서.”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황효원(黃孝源)이 일찍이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 덕을 사모했으니, 지금 황효원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는 것이 좋겠다.”하고, 또 명하여 한성부 윤(漢城府尹) 김순(金淳)을 진휼사(賑恤使)로 삼고, 사복마(司僕馬) 2백 50필과 소[牛] 15두(頭)를 감(減)하게 하였다.

▶ 18권 5년 12월 3일辛亥

咸吉道都觀察使鄭軾啓: “甫靑浦住兀良哈劉阿赤介等六人, 回還到吉州雄平站, 站吏以馬不足, 給豆伊應巨所乘牛, 豆伊應巨怒, 拔刀刺傷其牛.” 至是諭鄭軾曰: “野人豆伊應巨刺傷牛畜, 敢干邦憲, 宜置法懲後. 然遠人不可一一坐罪, 特有放還. 吉州牧使南尙亨不檢察野人所乘馬, 亦當論罪, 然既赦野人, 卿拿尙亨, 令與野人同跪, 將予意曲盡開諭乃赦.”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정식(鄭軾)이 아뢰기를, “보청포(甫靑浦)에 거주하는 올랑합(兀良哈)의 유아치개(劉阿赤介) 등 6인이 돌아와 길주(吉州)의 웅평참(雄平站)에 도착하였는데, 웅평참의 이속(吏屬)이 말이 부족하여 두이응거(豆伊應巨)에게 타는 소를 주었더니, 두이응거가 노하여 칼을 빼어서 그 소를 찢러 상하게 하였습니다.”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정식(鄭軾)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야인(野人) 두이응거(豆伊應巨)가 소[牛畜]를 찢러 상하게 하여 감히 나라의 법을 범했으니,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 뒷사람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 지방의 사람을 일일이 좌죄(坐罪)할 수가 없으므로 특별히 용서하여 놓아서 돌려보내도록 하라. 길주목사(吉州牧使) 남상형(南尙亨)은 야인(野人)이 탄 말을 검찰(檢察)하지 않았으니, 또한 마땅히 논죄(論罪)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야인(野人)을 용서했으니, 경(卿)이 남상형(南尙亨)을 잡아와서 야인(野人)과 같이 끌어앉게 하고는 나의 뜻을 가지고 곡진히 개유(開諭)하고 난 후에 용서해 주도록 하라.”

▶ 18권 5년 12월 18일 丙寅

丙寅/御書下敎政府曰：

予自卽位以來，專爲百姓，除其苛禁，寬其刑罰，抑制官吏，使民直來告予。朝士尙或不知予意，百姓焉能盡知？其不知者，每一令下，必有驚駭謗其紛更者，其不便於自己，則必有怨言胥動者，其便於自己，則必有稱美讚德者。此不能使人人盡同好德者也。國家以八道爲一家，而平安、黃海、江原三道人物凋殘，譬如一家一面無牆，安得不守？予欲募民移居三道，若有能應募者，良職賤良，十年復戶，優給土田，撫育倍他，豈無有志效力國家者乎？惟爾政府其議條件以啓。

議政府啓：

一，下三道良人應募者，自慶尙、全羅道移平安者，則有無職竝超五資，移江原、黃海者則三資，自忠清道移平安道者則四資，移江原、黃海道者則二資敍用，有欲爲其道士官者聽。一，下三道公私賤人應募者免賤，永良以通仕路，私賤則以年歲相當下三道住居公賤，聽主自願換給，若本主沮抑，使不得應募者，決杖一百，竝本主徙之，不許相換告者，良人賞職，賤人賞綿布三十匹。應募良人如有自願留丁以守本業者，量口聽留，許令往來相資。一，募徙人計丁數爲三等，擇沃饒可耕之地，一等給五十結，二等四十結，三等三十結，**農牛、農器，官備助之，復戶十年**。其新墾田免稅七年，穀種口糧以義倉給之，別加存恤。一，上項諸人如有受職免賤後逃還者，許人陳告，奪職還賤，依律論罪還送。陳告者以本人本業田產充賞，知而不告里正、色掌，決杖一百。一，移徙時所經諸邑給糧救藥，如有病不救而死者，守令論以制書有違律，永不敍用。一，新徙之民，皆置內郡，勿送極邊。

從之。命遣左輔德李翊于忠清道，兼副知承文院事權至于全羅道，成均司藝金永濡于慶尙左道，大護軍愼後甲于慶尙右道，推刷應募人。

어서(御書)로 의정부(議政府)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그 가혹한 금령(禁令)을 없애고 그 형벌을 관대(寬大)히 하여, 관리를 억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나에게 와서 알리도록 했으나, 조정에 있는 관원이 오히려 혹 내 뜻을 알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어찌 능히 다 알겠는가? 그들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양 한 번 영(令)이 내리면 반드시 몹시 놀라면서 그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반드시 원망하는 말로 〈인심을〉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반드시 칭찬하면서 덕을 기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은 능히 사람마다 다 덕을 좋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8도(道)를 한 집안으로 삼았는데도,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의 3도(道)는 인물(人物)이 조잔(凋殘)하여 한 집안에 비유한다면 한 면(面)은 담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수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백성을 모집하여 3도(道)에 옮겨 거주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능히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직(良職)과 천량(賤良)은 10년 동안 복호(復戶)하고 전지(田地)를 넉넉히 주어서 무육(撫育)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 갑절이나 더하게 할 것이니, 어찌 국가에 힘을 다하기를 뜻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오직 너희 의정부(議政府)에서 그 조건(條件)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1. 하삼도(下三道)의 양인(良人)으로 모집에 응하는 사람 중에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로부터 평안도(平安道)로 옮기는 사람은 관직이 있건 없건 모두 5자급(資級)을 뛰어 올리고,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黃海道)로 옮기는 사람은 3자급을 뛰어 올리고, 충청도(忠淸道)로부터 평안도(平安道)로 옮기는 사람은 4자급을 뛰어 올리고,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黃海道)로 옮기는 사람은 2자급을 뛰어 올려서 서용(敍用)하고, 그 도(道)의 토관(土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소서.

1. 하삼도(下三道)의 공사천인(公私賤人)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은 천인(賤人)을 면하고 양인(良人)으로 영속(永屬)시켜 벼슬길에 통하게 하며, 사천(私賤)은 나이가 알맞고 하삼도(下三道)에 거주하는 공천(公賤)으로써 주인의 자원(自願)에 따라 바꾸어 주도록 하고, 만약 본주인이 저지하고 억제하여 <사천(私賤)으로 하여금> 모집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본주인까지 아울러 옮기게 하고, 서로 바꾸기기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고발한 사람은 양인(良人)은 관직을 상주고 천인(賤人)은 면포(綿布) 30필을 상주도록 하며, 모집에 응한 양인(良人)이 만약 장정(壯丁)으로 남아서 본업(本業)을 지키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식구(食口)를 헤아려 남아 있도록 들어주고 왕래하면서 서로 도와주도록 허락하소서.

1. 모집해 옮긴 사람은 장정(壯丁)의 수효를 계산하여 3등으로 삼아, 비옥하여 경작할 만한 토지를 가려서 1등은 토지 50결(結)을 주고, 2등은 40결(結)을 주고, 3등은 30결(結)을 주며,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는 관청에서 준비하여 보조해 주고 10년 동안을 복호(復戶)하고, 그 새로 개간한 토지는 7년 동안 면세(免稅)하고, 곡식 종자와 구량(口糧)은 의창(義倉)의 곡식으로써 주고, 별도로 존휼(存恤)을 더하소서.

1. 위의 항목(項目)의 여러 사람들이 만약 관직을 받고 천인(賤人)을 면한 후에 도망해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용하여 관직을 빼앗고 천인(賤人)으로 돌아가게 하며,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여 돌려보내고, 진고(陳告)한 사람은 본인(本人)의 본업(本業)인 토지와 재산으로서 상(賞)에 충당하도록 하고, 알고서 고발하지 않은 이정(里正)과 색장(色掌)은 장 1백 대를 집행하도록 하소서.

1. 이사(移徙)할 때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는 양식을 주고 구료(救療)하는데, 만약 병을 치료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수령(守令)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도록 하소서.

1. 새로 이사(移徙)한 백성들은 모두 내군(內郡)에 두고 아주 먼 변방으로는 보내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좌보덕(左輔德) 이익(李翊)을 충청도(忠淸道)에, 겸부지승문원사(兼副知承文院事) 권지(權至)를 전라도(全羅道)에,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김영유(金永濡)를 경상좌도(慶尙左道)에, 대호군(大護軍) 신후갑(愼後甲)을 경상우도(慶尙右道)에 보내어 모집에 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 19권 6년 1월 16일 甲午

掌令李繼孫等上疏曰：

近將金海府使卞袍罪狀，累瀆天聰，言不能達其意，文不能盡其辭，未蒙俞允，不勝鬱悵，更封章以聞。臣等竊謂一星之火，至於燎原，一勺之水，至於滔天，是則撲滅之不早、防塞之不預也。爲天下國家者，可不辨之於早而慮患防微乎？袍之爲讓寧聚武士，雖實無情，將來之弊，不可不預爲之慮也。況未必無情乎？當讓寧下南之日，諭其道觀察使曰，“如欲田獵，抄給才〔人〕白丁。”武卒之聚如可擅便，不必有是命也。其不得擅徵，雖愚者可知，袍早知學術，受委邊鎮，非不知擅徵之不可。上無朝廷之命，下無主帥之令，而敢與讓寧徵武士射的，其情未易測，其漸不可長。此正燎原之始、滔天之漸，所當撲滅而防塞之也。且讓寧此行，車馬僕從郊野填喧，支待迎送，州郡相望。加之以徵武士閱藝，爲之擁衛，僭擬王侯之行，凡有耳目者，孰不驚駭？此臣等累請不已，而殿下所宜省念也。恭惟主上殿下留意兵事，須兵符制軍政，以嚴徵兵之律，而尙有如此之事，後世儻有弱主，臣而效此，將無所不爲。當以《春秋》之法推究其心，置之於法，以杜亂萌，殿下反教之曰，“叔父之事，何以爲之？”古者，天子之父，司寇執法而論，天子不得而私焉，況叔父乎？讓寧已矣，卞袍可舍乎？非特此也，隨從群少放恣無忌，輜重之多百有餘駄，所經守令，據何命而調發，所載之物，從何地而出之？是乃群少之所爲，亦令勿推，臣等愈懷憤抑，期於得請乃已。伏望殿下廓揮剛斷，特降俞音，將卞袍與所經守令，推明其罪，以正邦憲，國家幸甚。

傳曰：“卿等之言，固格言也，予甚嘉之。然不能從也。”

장령(掌令) 이계손(李繼孫)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근래 김해 부사(金海府使) 변포(卞袍)의 죄상(罪狀)을 가지고 여러번 천聰(天聰)을 번독(煩瀆)하였으나 말로써 그 뜻을 능히 전달(傳達)하지 못하고 글로써 그 사연을 능히 다하지 못하여 유운(俞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봉장(封章)하여, 아뢰니다.

신 등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한 점의 불티가 들판을 불태우기에 이르고 한 국자[勺]의 물이 하늘을 뒤덮기에 이르니, 이것은 불을 끄기를 일찍 서두르지 아니하고 물을 막기를 미리 하지 아니한 탓입니다. 천하(天下)의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일찍이 이를 가려내지 아니하고서 방미(防微)의 환(患)을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포가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위하여 무사(武士)들을 모은 것은 비록 실제로 정상(情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폐단을 미리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반드시 정상(情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녕대군이 남쪽으로 내려가던 날을 당하여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시기를, ‘만약 사냥을 하고자 하거든 재인(才人)·백정(白丁)·무졸(武卒)의 무리를 뽑아 주라.’ 하였으니, 만약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명령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군사를 징발(徵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알 수가 있는데, 변포는 일찍이 학술(學術)을 알아 변진(邊鎭)의 책임을 맡았으니, 군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것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 불가(不可)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조정(朝廷)의 명(命)이 없고 아래로는 주장(主將)의 명령도 없는데, 감히 양녕대군과 더불어 무사(武士)를 징발하여 표적(標的)을 쏘게 하였으니, 그 정상(情狀)을 쉽게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러한 조짐을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 들판을 태울 시초이요 물이 하늘을 뒤덮을 조짐이니, 마땅히 불을 끄고 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양녕대군의 이번 행차에 거마(車馬)·복정(僕從)이 들판을 매워서 떠들썩하였고, 지대(支待)하고 영송(迎送)하는데 주(州)·군(郡)이 서로 바라볼 지경이었는데, 그 위에다 무사(武士)들을 징발하여 무예(武藝)를 구경하고 그들에게 옹위(擁衛)하게 하여서 왕후(王侯)의 행차처럼, 참람(僭濫)하게 하였으니, 이목(耳目)이 있는 자들이 그 누구인들 놀라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여러 번 청(請)하여 마지않는 까닭인데, 전하께서도 마땅히 깨닫고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병사(兵事)에 유의(留意)하여 병부(兵符)를 갖추고 군정(軍政)을 제정하여 군사를 징발하는 율(律)을 엄하게 하시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후세에 만약 유약한 임금이 있을 때에는 신하들이 이를 본받아서 장차 하지 못하는 짓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춘추(春秋)》의 법(法)대로 그 마음을 추핵(推覈) 구명(究明)하여 법대로 처치하여 난역(亂逆)의 맹아(萌芽)를 막아야 하는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하교(下敎)하시기를 ‘숙부(叔父)의 일을 어찌 그리 할 수가 있겠는가?’ 하시니, 옛날에 천자(天子)의 아버지[父]를 사구(司寇)가 법대로 고집하여 논죄(論罪)하면 천자(天子)도 사정(私情)을 쓸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숙부(叔父)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양녕대군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변포야 그대로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뿐만 아니라 수종(隨從)한 군소배(群小輩)들이 방자(放姿)하여 거리낌이 없었고, 치중(輜重)이 많아서 1백여 마리[駄]였으니, 지나가는 고을의 수령(守令)이 무슨 명령에 근거하여서 조발(調發)하였으며, 실은 물건들은 어느 땅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군소배(群小輩)들이 한 짓인데도 또한 추핵(推覈)하지 말도록 하시니, 신 등이 더욱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청(啓請)의 허락을 얻어야만 그만두겠다고 기필(期必)하는 것입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확연(廓然)히 강단(剛斷)을 내리고 특별히 유음(俞音)을 내려서 변포와 지나간 고을의 수령(守令)에게 그 죄를 추핵하여 밝혀서 나라의 법(法)을 바로 잡으시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경(卿)들의 말은 진실로 격언(格言)이므로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능히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 19권 6년 3월 3일 庚辰

明使言：“將於初七日回程。請速遣通事報告遼東。”上命左承旨李克堪請留。張寧曰：“使事既完，不可虛留。”克堪曰：“雖大義如此，行邁甚勞，更留二三日，亦無害於義。殿下留之不得，則豈不失望？”寧曰：“然則爲殿下留一日，當於初八日起程。”武忠求牛黃、龍腦，命給之。寧等欲見太監尹鳳、鄭善、金有、金興族親，命行護軍尹吉生、行司勇鄭恒、金孝文往見之。

명(明)나라 사신(使臣)이 장차 초7일에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속히 통사(通事)를 보내어 요동(遼東)에 보고(報告)하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에게 명하여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장녕이 말하기를, “사신의 일을 이미 완수하였으니, 헛되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하므로, 이극감이 말하기를, “비록 대의(大義)는 그와 같지만, 길을 가는데 미우 고생스러운 것이니, 다시 2, 3일을 머물더라도 또한 의리에 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머무르게 할 수 없다면 어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하니, 장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하를 위해서 하루 더 머물고, 마땅히 초8일에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였다. 무충(武忠)이 우황(牛黃)·용뇌(龍腦)를 구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장녕 등이 태감(太監) 윤봉(尹鳳)·정선(鄭善)·김유(金有)·김흥(金興)의 족친(族親)을 보고자 하니, 행호군(行護軍) 윤길생(尹吉生)·행사용(行司勇) 정항(鄭恒)·김효문(金孝文)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 20권 6년 4월 1일 丁未

兵曹據點馬別監崔潤啓本啓: “陽城縣槐台吉串牧養牛故失者, 請以皮肉給牧子, 每一頭徵一頭. 兼監牧官, 考其孳息數, 依牧場馬孳息例褒貶.” 從之.

병조(兵曹)에서 점마 별감(點馬別監) 최윤(崔潤)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성현(陽城縣) 괴태길곶이[槐台吉串]에서 먹여 기르는 소 가운데 고실(故失)한 것은, 청컨대 가축과 고기를 목자(牧者)에게 주고, 매 1두(頭)에 1두(頭)씩 징수하게 하여 겸감목관(兼監牧官)이 그 번식한 숫자를 고찰하되, 목장(牧場)의 말을 번식시킨 예에 의하여 포폄(褒貶)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0권 6년 4월 13일 己未

己未/御忠順堂, 引見宗親及領中樞院事洪達孫、吏曹判書具致寬、承旨等, 議弭盜、造甲事. 致寬啓: “今軍士皆着公甲, 故不謹看守, 未久而破. 若令自備, 則不勞國家而甲完固矣.” 上謂左右曰: “卿等之意何如?” 臨瀛大君璆曰: “軍士等艱於衣食, 造甲之日無期.” 上曰: “大君之言, 非也. 立法督之, 則數年之間可畢矣. 其令兵曹磨鍊以啓.” 都承旨尹子雲啓: “私造, 則色樣各異, 軍容不整矣.” 上曰: “此言亦是. 然使之同色亦不難矣.” 致寬又啓: “盜賊斷筋之法雖行, 必無効矣. 今強盜皆置死刑, 然不懲艾, 繼踵而起. 近年以來, 凶荒太甚, 民之盜賊, 勢不得已. 莫若仍舊法以制之.” 上曰: “更議施行可也.” 自私造甲之令一行, 而殺農牛殆盡, 民多怨之. 臨瀛王子長於宮壺, 嘗知其弊, 欲沮其議, 時議多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종친(宗親)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이조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승지(承旨) 등을 인견(引見)하고 도적을 없앨 일과 갑옷을 만들 일을 의논하였다. 구치관이 아뢰기를, “지금 군사들이 모두 공갑(公甲)을 착용하는 까닭에 간수하는 데 조심하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 훼손됩니다. 만약 스스로 갖추게 한다면 나라에서 수고스럽지도 않고 갑옷이 완전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李)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경(卿)들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瑈)가 말하기를, “군사들이 의식(衣食)에도 곤란한데, 갑옷을 만들게 하는 날에는 <그 일을> 기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大君)의 말은 잘못이다. 법을 세우고 이들을 감독한다면 수년 사이에 끝낼 수 있다. 그것을 병조(兵曹)로 하여금 마련(磨鍊)하여서 아뢰게 하라.”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이 아뢰기를, “개인적으로 만들게 한다면 그 빛깔과 모양이 각각 다를 것이니, 군대의 위용(威容)이 정제(整齊)되지 못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도 옳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빛깔을 같게 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하였다. 구치관이 또 아뢰기를, “도적(盜賊)을 단근(斷筋)하는 법[斷筋法]을 비록 시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도(強盜)는 모두 사형(死刑)에 처하지만, 그러나 징계되어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잇달아 일어납니다. 근년 이래(以來)로 흉년이 크게 심하여 백성들 가운데의 도적을 어찌할 수 없는 형세이니, 옛 법 그대로 제정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였다. 개인적으로 갑옷을 만들도록 하는 법령이 한 번 시행되면서부터 농우(農牛)를 잡아서 거의 <비용으로> 다 쓰니, 백성들 가운데 이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임영 왕자(臨瀛王子)는 궁궐에서 자라났으나 일찍이 그 폐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의논을 막으려고 하였었는데, 당시 의논이 많았다.

▶ 20권 6년 4월 23일 己巳

兵曹議徙民條件以啓：

一，黃海道徙民一千戶、江原道二百七十三戶、平安道一千戶，須及農前分運入送，計人丁多寡爲三等，一等給田五十結，二等四十結，三等三十結，官給農牛、農器、種子、口糧，並以義倉穀給之，勤加勸耕，俾無飢寒，若不存恤，或至貧窮逃散，則守令罷黜。一，應募鄉吏所率人丁，雖兄弟親戚，並許免役，以通仕路。一，今者應募人路上供頓諸事，令站路諸邑備待，又令察訪次次押送，若察訪有故，則守令押送，如有不能支持救病以致隕命者，論以制書有違律，永不敘用。且應募人未得輸轉財產者，除不緊之物外，若衣服、布貨、農器、鋤鑄、鐵器及口糧五石以下，並令沿途諸邑輸轉。一，應募人前此所糶義倉之穀，自願還納者外，待徙居後產業饒富，令納于其邑，錄會計。一，新徙者，復戶十年，新墾田，免稅七年，其妻子雖係公私賤，並許入送，各其官主十年後依舊役使，若諸邑奴婢，則移屬新徙之邑。一，諸道軍資、義倉久陳黃豆各百石造醬，計丁均給，十年後還償。且令諸浦倍舊煮鹽，多採海菜，量宜分給。一，農牛未備者，用牧子當徵馬，易牛給之。

병조(兵曹)에서 사민(徙民)의 조건을 의논하여서 아뢰기를,

“1. 황해도(黃海道)의 사민(徙民)은 1천 호(戶)이고, 강원도(江原道)는 2백 73호(戶)이고, 평안도(平安道)는 1천 호(戶)인데, 모름지기 농사철이 되기 전에 운(運)을 나누어 들여보내어서 인정(人丁)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3등(等)으로 하여, 1등은 전지(田地) 50결(結)을 주고 2등은 40결(結)을 주고 3등은 30결(結)을 주며, 관(官)에서 농우(農牛)와 농기(農器)·종자(種子)·구량(口糧)을 주되, 모두 의창(義倉)의 곡식으로써 이를 주어, 부지런히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기를 더하여 기한(飢寒)에 떠는 자가 없게 하며, 만약 존恤(存恤)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빈궁하여 도망하여 흩어지는 지경에 이른다면 수령(守令)을 파출(罷黜)하소서.

1. 모집(募集)에 응한 향리(鄉吏)가 거느린 인정(人丁)은 비록 형제·친척(親戚)이라 하더라도 모두 면역(免役)을 허락하여서 벼슬길에 통하게 하소서.

1. 지금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노상(路上)에서 공돈(供頓)하는 여러 가지 일은 참로(站路)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준비하여 접대하게 하고, 또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차례차례로 압송하여 보내게 하되, 만약 찰방(察訪)이 유고(有故)하면 수령(守令)이 압송하여 보내며, 만약 능히 지대(支待) 하거나 병을 구료(救療)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게 하는 자가 있으면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하여 영원히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또 모집에 응한 사람 가운데 재산(財産)을 전수(轉輸)하지 못하는 자는 긴요하지 않은 물건을 제외하고, 의복(衣服)·포화(布貨)·농기(農器)·유주(鋤鑄)·철기(鐵器)와 구량(口糧) 5석(石) 이하 같은 것이라면 모두 연도(沿途)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전수(轉輸)하여 주게 하소서.

1. 모집에 응한 사람들로 이보다 앞서 의창(義倉)의 곡식을 대출(貸出)하고서 자원(自願)하여 도로 바치는 자 이외에는, 이사하여 자리잡은 뒤에 산업(產業)이 풍부하여지기를 기다려서 그 고을에 바치도록 하여 회계(會計)에 기록하게 하소서.

1. 새로 이사하는 자는 10년 동안 복호(復戶)하고, 새로 전지(田地)를 개간(開墾)하는 것은 7년 동안 면세(免稅)하며, 그 처자(妻子)가 비록 공사천(公私賤)이라 하더라도 모두 들여보내도록 허락하고, 각각 그 관주(官主)는 10년 뒤에 옛날처럼 역사(役使)시키게 하며, 만약 고을의 노비(奴婢)인 경우에는 새로 이사하는 고을로 옮겨 붙이게 하소서.

1. 여러 도의 군자(軍資)와 의창(義倉)의 오래 묵은 황두(黃豆)를 각각 1백 석(石)씩 장(醬)으로 만들어 인정(人丁)을 따져서 고루 나누어 주고 10년 뒤에 도로 갚게 하며, 또 여러 포구(浦口)로 하여금 자염(煮鹽)을 옛날의 배나 굵고 해채(海菜)를 많이 채취하여, 적당하게 요량해서 나누어 주소서.

1. 농우(農牛)를 갖추지 못한 자는, 목자(牧子)들에게서 징발해야 할 말들을 소와 바꾸어 이들에게 주소서.”
하였다.

▶ 20권 6년 5월 13일 戊子

戊子/傳旨議政府曰: “國寶有三: 馬也, 牛也, 黑角也. 馬不可載累, 牛不可授盜, 黑角不可習射. 自今以後雖予不復用黑角弓射侯, 其令兵曹諭中外將士効則焉. 取才不在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限.” 又令憲府禁黑角帶等一切弓外之物，又令兵曹載累務用車子，又令刑曹盜牛馬者初犯處絞。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나라의 보배에 세 가지가 있으니, 말[馬]이고 소[牛]이고 흑각(黑角)이다. 말은 여럿을 태울 수 없고, 소는 도둑에게 줄 수 없고, 흑각(黑角)은 연습으로 쓸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비록 내가 흑각궁(黑角弓)을 사용하여 다시는 사후(射侯)하지 않겠으니, 그것을 병조(兵曹)로 하여금 중외(中外)의 장사(將士)에게 효유(曉諭)하여 이 규칙을 본받게 하라. 취재(取才)인 경우에는 이러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 또 헌부(憲府)로 하여금 흑각대 등 일체 활 이외의 물건들을 금하게 하고, 또 병조(兵曹)로 하여금 여럿을 태우는 수레[車子]를 힘써 사용하게 하라. 또 형조(刑曹)로 하여금 우마(牛馬)를 도둑질한 자는 초범(初犯)이라도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 20권 6년 5월 14일 己丑

諭全羅、慶尙、忠清道觀察使曰：“筋角切於造弓，故每節季令具錄道內自斃牛馬筋角數上送。 然守令視爲常事，慢不舉行，故厥數不多，更加檢舉。且如濟州及沿海州縣牛角，必異於常品，須多得上送。”

전라도·경상도·충청도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근각(筋角)은 활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매칠 마지막에 도내(道內)의 저절로 죽은 우마(牛馬)의 근각(筋角)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령(守令)들이 보통 일로 보고 소홀히 하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다시 검찰을 더하여 시행하라. 또 제주(濟州)와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우각(牛角)은 반드시 보통 품질보다 뛰어날 것이니, 모름지기 많이 구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20권 6년 5월 27일 壬寅

刑曹啓：“曾降傳旨，‘比來牛馬賊恣行，民之畜牛馬者少。 京中今五月晦日、近道六月晦日、遠道七月晦日定限，限後犯者，勿論宰殺與否，初犯爲首者處絞，爲從者決杖刺字，再犯則通計赦前處絞.’ 據此參詳，前此買殺人牛馬者、宰殺自己牛馬者、知情賣與者，杖一百、身充水軍，盜殺者，杖一百、刺字、身充水軍，今若依上項傳旨，盜殺牛馬爲從者決杖刺字，則盜殺之罪反輕於買賣宰殺之禁。請盜殺牛馬爲從者，一依舊法，杖一百、刺字、身充水軍。 且其刺字，若依竊盜例刺竊盜二字，則再犯處絞時分揀爲難。自今牛馬

賊刺盜牛馬三字，以憑後考。”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내리신 전지(傳旨)에, ‘근래 우마(牛馬)의 도둑들이 합부로 횡행하니 백성들 가운데 우마(牛馬)를 기르는 자가 적어졌다. 경중(京中)에서는 금번 5월 그믐날까지, 가까운 도(道)에서는 6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에서는 7월 그믐날까지 기한을 정하여, 기한 이후에 범(犯)하는 자는 재살(宰殺)한 여부(與否)를 논하지 말고 초범(初犯)으로서 수죄(首罪)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중범(從犯)인 자는 장(杖)을 때려 자자(刺字)하고, 재범(再犯)이면 사유(赦宥) 전의 죄를 아울러 계산하여 교형(絞刑)에 처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상세히 참고해 보건대, 이보다 앞서 남의 우마(牛馬)를 사서 죽인 자와, 자기(自己)의 우마(牛馬)를 재살(宰殺)한자와, 정상을 알고도 팔아 넘긴 자는 장(杖) 1백 대에 당자를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도둑질하여 죽인자는 장(杖) 1백대에 자자(刺字)하여, 당자를 수군(水軍)에 충당하는데, 지금 만약 위의 항목(項目)의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우마(牛馬)를 도둑질하여 죽였는데도 중범(從犯)인 자는 장(杖)을 때리고 자자(刺字)한다면 도둑질하여 죽인 죄가 도리어 매매(賣買)하여 재살(宰殺)한 금령(禁令)보다도 가벼워집니다. 청컨대 우마(牛馬)를 도둑질하여 죽였으되 중범(從犯)인 자는 일체 구법(舊法)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하여 당자를 수군(水軍)에 충당하소서. 또 그 자자(刺字)는 만약 절도(竊盜)의 예에 의하여 ‘절도(竊盜)’ 두 자를 자자(刺字)한다면 재범(再犯)하여 교형(絞刑)에 처할 때에 분간(分揀)하기가 어렵겠으니, 지금부터 우마(牛馬)의 도둑은 ‘도우마(盜牛馬)’ 세 글자를 자자(刺字)하여 후일의 빙고(憑考)에 이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0권 6년 6월 6일 辛亥

兵曹啓徙民事目:

一, 前事目內, “鄉吏應募願留餘丁及應募入歸者, 永許免役, 通仕路.” 今更參詳, 願留餘丁, 本是安土者, 不宜永許免役. 其帶去人丁內兄弟親戚, 永許免役, 通仕路. 一, 前事目內, “自募人等雖有牛馬, 遠路馱載, 必至困斃, 令沿路諸邑隨宜輸轉.” 然既擇有牛馬富戶者徙之, 請分其家產, 一半自輸, 一半用沿路諸邑刷馬輸轉. 一, 應募鄉吏內, 如有盜用稅貢謀避徵納應募者, 畢徵後入送. 一, 應募人今年稅米, 令所在邑以皮穀收納.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사민(徙民)할 사목(事目)은 이러합니다.

1. 전의 사목(事目) 안에, ‘향리(鄉吏)로서 모집(募集)에 응할 때 머무르기를 원하는 여정(餘丁)과 모집에 응하여 들어가 사는 자는 길이 면역(免役)하여 벼슬길[仕路]에 통하도록 허락한다.’ 하였는데, 지금 다시 자세히 참고하건대 머무르기를 원하는 여정(餘丁)은 본시 고향에 안주(安住)하는 자이니, 길이 면역(免役)을 허락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이 데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려가는 인정(人丁) 안에 형제(兄弟)·친척(親戚)을 같이 면역(免役)하여 벼슬길에 통하게 하소서.

1. 전의 사목(事目) 안에, ‘스스로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이 비록 우마(牛馬)가 있더라도 먼 길에 짐을 싣고 가면 반드시 피곤하여 죽게 될 것이니, 연도(沿道)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편의한 데 따라 전수(傳輸)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미 우마(牛馬)가 있는 부호(富戶)를 골라서 이사(移徙)시키니, 청컨대 그 가산(家産)을 나누어서 한 반은 자신이 수송하게 하고, 한 반은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에서 말을 차출하여 전수(傳輸)하게 하소서.

1. 모집(募集)에 응한 향리(鄕吏) 가운데 만약 세공(稅貢)을 도용(盜用)하고 징납(徵納)을 피(避)하려고 피하다가 모집에 응한 자는 징납(徵納)을 끝마친 뒤에 들여 보내게 하소서.

1.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의 금년 세미(稅米)는 그 소재한 고을로 하여금 피곡(皮穀)으로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0권 6년 6월 13일 戊午

兵曹據平安、黃海道都巡察使啓本啓：

一，平安道自募人所用水鐵鑄成農器，請除本道水鐵匠稅，而收其鐵鑄給，其餘農器，令諸邑備給。一，自募人如有農牛故失者及貧不能自備者，以牧場兒馬易牛分給。一，自募人安業之狀及生產物故，觀察使每歲季啓聞。

이하생략~

병조(兵曹)에서 평안도·황해도 도순찰사(平安道黃海道都巡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1. 평안도(平安道)에서 스스로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이 쓰는 수철(水鐵)은 농기(農器)를 주조(鑄造)하여 만들 것이니, 청컨대 본도(本道)의 수철장(水鐵匠)의 세금을 면제하고 그 철(鐵)을 거두어서 주조(鑄造)하여 주고, 그 나머지 농기(農器)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준비하여 주게 하소서.

1. 스스로 모집(募集)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만약 농우(農牛)가 있었으나 고실(故失)한 자와, 가난하여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자는 목장(牧場)의 아마(兒馬)를 소와 바꾸어 나누어 주소서.

이하생략~

▶ 21권 6년 9월 11일 甲申

甲申/咸吉道都體察使申叔舟遣軍官金嶠、黃守正啓：“臣與諸將分道攻討，窮其窟穴而還，勦殺四百三十餘級，焚蕩室廬九百餘區，財產俱盡，殺獲牛馬千餘。” 上喜賜嶠段衣守

正紬衣各一領及弓箭. 命以平定北方, 告宗廟, 御勤政殿, 百官上箋陳賀. 箋曰:
이하생략~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신숙주(申叔舟)가 군관(軍官) 김교(金嶠)·황수정(黃守正)을 보내어 아뢰기를,

“신(臣)이 제장(諸將)과 길을 나누어 공격(攻擊)하고 토벌(討伐)하여 그 굴혈(窟穴)을 다 없애고 돌아왔는데, 잡아 죽인 것이 4백 30여 급(級)이고, 불태워 없앤 집[室廬]이 9백여 구(區)로 재산(財産)을 함께 없앴고, 죽이거나 사로잡은 우마(牛馬)가 1천여 마리입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김교(金嶠)에게 단의(段衣)를, 황수정(黃守正)에게 주의(紬衣)를 각각 1령(領)씩 주고, 궁전(弓箭)을 내려 주었다. 명하여 북방(北方)을 평정(平定)하였음을 종묘(宗廟)에 고(告)하게 하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니, 백관(百官)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였다. 그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이하생략~

▶ 21권 6년 9월 17일 庚寅

庚寅/司諫朴璘將本院議啓: “趙得仁以其祖璫坐賊, 未嘗授臺諫之職, 今除知刑曹事, 臣等以爲不可.” 傳曰: “若不用得仁則已矣, 如用之則何妨此職?” 璘更啓: “得仁監察亦未得拜, 而今拜此職, 都官雖非臺諫之比, 亦決事法官也, 臣等恐未可也.” 傳曰: “勿復言.” 上謂同副承旨洪應曰: “近者趙得仁爲執禮, 吾觀其爲人, 可用之材. 犁牛之子, 騂且角, 其勿用耶? 邇來言官每論世系, 其不通甚矣.”

사간(司諫) 박인(朴璘)이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조득인(趙得仁)은 그 조부(祖父) 조진(趙璫)이 장죄(贓罪)에 연좌(連坐)되었기 때문에 일찍이 대간(臺諫)의 직(職)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지형조사(知刑曹事)를 제수(除授)하시니, 신 등은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하나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만약 조득인을 등용(登用)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등용한다면 이 직(職)이 무슨 방해(妨礙)가 되겠는가?” 하였다. 박인이 다시 아뢰기를,

“조득인은 감찰(監察)로도 또한 제수(除授)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직(職)을 제수하시니, 도관(都官)은 비록 대간(臺諫)과 비(比)할 수는 없지만 또한 사건을 판결하는 법관(法官)이므로, 신 등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동부승지(同副承旨)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 “근자에 조득인이 집례(執禮)가 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됨을 보니 쓸 만한 인재(人材)였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바르면 <희생(犧牲)으로> 쓰지 않겠는가? 근래 언관(言官)들이 매양 세계(世系)를 논(論)하니 그 불통(不通)함이 심하다.” 하였다.

▶ 23권 7년 2월 23일 甲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京畿都觀察使李克培馳啓：“今徙居人等到樂生驛者，男女共二百二十八人，良才驛者二百六十九人，輜重馬牛倍於人數，其傳領諸邑人民，久事轉輸，人畜俱困，遮路呼泣，可憐悶。臣竊計今當農月，仍使貧民轉輸，則非惟道內人民失業，徙居之人未就新居，農節已過，恐失生業，請雖已離本道者，并還故居，待來秋入送。

이하생략~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이극배(李克培)가 치계(馳啓)하기를,
“지금 이주하여 살 사람들로 악생역(樂生驛)에 도착한 자가 남녀 모두 2백 28인이고, 양재역(良才驛)에 도착한 자가 2백 69인인데, 치중(輜重)과 마소[馬牛]가 인원수의 배나 되어, 그 전해 운반하는 여러 고을의 인민(人民)이 오랫동안 전수(轉輸)하는 데 종사한 나머지 사람과 가축이 다같이 피곤해 길을 막고 울며 호소하곤 하여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신이 그웁이 헤아려 보건대, 이제 농삿달을 당하여 그대로 빈민(貧民)으로 하여금 전수(轉輸)하게 하면 비단 도내(道內)의 인민(人民)이 생업(生業)을 잃을 뿐 아니라, 이주해 살 사람도 새 거소(居所)에 나아가지 못하여 농사철이 이미 지나 생업을 잃게 될까 두려우니, 청컨대 비록 이미 본도를 떠난 자라도 모두 옛 거소(居所)로 돌려보냈다가 오는 가을을 기다려서 들여 보내게 하소서.”

이하생략~

▶ 24권 7년 5월 24일 癸亥

癸亥/黎明有人過貞善坊石橋，聞橋下有喘息聲。疑是棄兒，呼隣人就視之，狀類人屍，裹以茵席，縛以藁索而置之。判漢城府事金師禹根隨人適至，曳出解縛見之，以衣領裹其項，以索束之。問之則曰：“我乃私奴仲山也。與私奴福龍及其子玉山隔壁而居，其人等有宿嫌，乃至於此。”師禹聞之，偕府尹李延縣馳往石橋，率仲山掩捕福龍、玉山及切隣人以啓。傳曰：“卿等能出奇捕之，予甚嘉焉。”命承政院鞫福龍及辭連人。仲山曰：“福龍等嘗盜牛屠殺，我告刑曹，勘禁杖訊後蒙赦。以此構怨毆打我無數，因而得病。去夜福龍父子見我問病，仍以手撫摩頭額，繼以衣領裹項搯之，其後不省。”問福龍及玉山，皆不承，卽下義禁府，命左承旨韓繼禧往鞫之。

밝아 오는 새벽에 어떤 사람이 정선방(貞善坊)의 돌다리[石橋]를 지나다가 다리 밑에서 헐떡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의심하고 이웃 사람을 불러서 가보니, 모양이 사람의 시체 같았는데, 왕골 자리로 싸서 벗짚 새끼로 묶어 놓았다.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김사우(金師禹)의 근수인(根隨人)이 마침 이곳에 이르러서 끌어내어 묶은 것을 풀고 보니, 옷깃으로 목을 싸고 새끼로 묶었다. 물은즉 말하기를,

“나는 사노(私奴) 중산(仲山)입니다. 사노 복룡(福龍) 및 그 아들 옥산(玉山)과 더불어 벽을 격(隔)하여 사는데, 그 사람들과 오래 된 혐의가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김사우가 이를 듣고 부윤(府尹) 이연손(李延孫)과 함께 돌다리로 달려가서 중산을 데리고 복룡·옥산 및 가까운 이웃 사람을 붙잡아 와서 임금께 아뢰었다. 전지하기를,

“경(卿) 등이 능히 기묘한 계책으로 체포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관련된 사람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중산이 말하기를,

“복룡 등이 일찍이 소를 도둑질하여 도살(屠殺)한 것을 내가 형조(刑曹)에 고하였는데, 구금되어 곤장으로 심문을 받은 뒤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나를 무수히 구타(毆打)해서 이로 인하여 병까지 생기었는데, 어젯밤에 복룡 부자(父子)가 나를 보고 병을 물으며 손으로 머리와 이마를 어루만지더니, 계속해서 옷깃으로 목을 싸고 움켜어서 그 뒤는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복룡 및 옥산에게 물으니 모두 부인하므로, 곧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좌승지(左承旨) 한계희(韓繼禧)에게 명하여 가서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 24권 7년 5월 25일 甲子

慶尙道觀察使金淳馳啓: “永川郡學生李順義家雌牛死屠之, 有兒雄牛, 一身二頭三耳四目一尾.”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순(金淳)이 치계(馳啓)하기를,

“영천군(永川郡)에 사는 학생(學生) 이순의(李順義)의 집에 암소가 죽었으므로 이를 잡았더니, 숫송아지가 있는데 몸이 하나에 머리가 둘이고, 귀가 셋, 눈이 넷, 꼬리가 하나입니다.”

하였다.

▶ 24권 7년 6월 9일 戊寅

平安道都觀察使曹孝門啓: “道內平壤民家牛一產三犢.”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조효문(曹孝門)이 아뢰기를,

“도내 평양(平壤)의 민가(民家)의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3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였다.

▶ 24권 7년 6월 23일 壬辰

知中樞院事金淳遞慶尙道觀察使而來, 上引見問本道禾穀如何? 淳對曰: “禾穀之盛, 無如今年, 唯星州等數邑稍不及他邑.” 上曰: “近任孝仁以舍利分身事, 虛捏啓達, 於監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司體何?” 淳對曰: “甚不可.” 上曰: “頃者卿啓‘屠牛得兒牛, 一身兩頭、三耳、四目、一尾.’ 是何謂也? 卿賢監司而有是啓, 仁孝之事無足怪者. 且卿得不以爲豐年之徵乎?” 淳對曰:

이하생략~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순(金淳)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그만두고 오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본도의 화곡(禾穀)이 어떠한가를 물었다. 김순이 대답하기를, “화곡의 잘 된 것이 금년만한 해가 없는데, 오직 성주(星州) 등 두어 고을이 조금 다른 고을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자에 임효인(任孝仁)이 사리 분신(舍利分身)의 일을 가지고 헛되이 주워 모아서 아뢰었으니, 감사(監司)의 체통(體統)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순이 대답하기를, “심히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아뢰기를, ‘소를 잡았더니 송아지가 있는데, 한 몸에 머리가 2, 귀가 3, 눈이 4, 꼬리가 하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경은 어진 감사인데도 이런 계달(啓達)이 있었으니, 임효인의 일은 족히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이다. 또한 경은 풍년의 징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순이 대답하기를,

이하생략~

▶ 25권 7년 7월 23일 辛酉

司僕寺提調啓: “濟州壤地褊小, 近年私放馬牛者頗多, 國馬屯於漢拏山上, 樹木蓊鬱, 水草不足, 不得任性放養. 因此孳產不敷, 馬種漸至體小, 請於壬午年春, 遣本寺官員, 盡刷私放馬牛區處, 且擇國馬, 分養諸牧場.” 從之.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땅이 좁고 작는데, 근년에 마소를 사사로이 방목(放牧)하는 자가 매우 많고 국마(國馬)는 한라산 위에 둔쳐 있으므로, 나무가 뻗뻗하고 물과 풀이 부족하여 마음대로 놓아 기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하고 말 종자가 점점 작아지니, 청컨대 임오년 봄에는 본시(本寺)의 관원을 보내어 사사로이 방목하는 마소를 죄다 끌어서 구처(區處)하고, 또 국마를 골라서 여러 목장(牧場)에 나누어 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6권 7년 10월 21일 丁亥

丁亥/先是, 索水牛於日本國大內殿, 至是大內殿遣僧能縣, 以雌雄二頭來獻. 至慶尙道熊川, 命行上護軍趙得琳往熊川喂養, 待春押來

이보다 앞서 물소[水牛]를 일본국(日本國) 대내전(大內殿)에 찾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내전에서 중[僧] 능면(能縣)을 보내어 암·수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경상도 웅천(熊川)에 이르니, 행 상호군 조득림(趙得琳)에게 명하여 웅천에 가서 조심해 기르다가 봄을 기다려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 26권 7년 10월 30일 丙申

丙申/都體察使韓明澮馳啓: “臣當初到界, 接見彼人, 皆云, ‘相戰被奪之物則已矣, 年前會寧府九十餘人來謁, 竝未還家, 其馬匹、衣服、頂子、耳璫等物乞須遣還.’ 答云, ‘此事其時將帥等所爲, 吾所不知也.’ 彼人不復開說. 金壽寧之去, 以給還彼人財物事, 啓達上允可, 今計馬匹, 皆散在驛路及民間, 無復可尋, 其餘零碎之物, 亦不可推, 姑不出給還之語, 以觀其勢. 今彼人以馬匹故失, 納其雌牛, 若後日索前項財物甚急, 則一二馬匹猶或可還, 其餘物故遺失頭畜雜物, 必不可還, 請畢刷還後給還.” 從之.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당초에 경계(境界)에 이르러 저쪽 사람을 접견(接見)하니, 다 말하기를, ‘서로 싸우다가 빼앗긴 물건은 그만두고라도 연전(年前)에 회령부(會寧府)의 90여 인이 내알(來謁)한 일이 있었는데 모두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그 마필(馬匹)·의복(衣服)·정자(頂子)·이당(耳璫) 등의 물건을, 빌건대 모름지기 돌려보내소서.’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 일은 그 때 장수(將帥) 등의 한 바이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라 하니, 저쪽 사람들이 다시 개설(開設)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령(金壽寧)이 간 것은 저쪽 사람들의 재물을 환급(還給)하는 일 때문이었는데 계달(啓達)하여 성상(聖上)께서 윤허하셨습니다만, 이제 마필(馬匹)을 계산하니 다 역로(驛路) 및 민간(民間)에 산재(散在)하여 다시 찾을 수가 없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물건도 또한 추심(推尋)할 수가 없으므로 우선은 돌려준다는 말을 내지 말고, 그 형세를 관망(觀望)하소서. 지금 저쪽 사람들이 마필을 고실(故失)하였다고 하여 그 암소(雌牛)를 헌납하였으므로, 만일 뒷날에 위 항목의 재물을 찾는 일을 심히 급히 하면 1, 2마필은 혹 돌려줄 수 있으나 그 밖의 물건으로 일부러 유실(遺失)시킨 두축(頭畜)이나 잡물(雜物)은 반드시 돌려줄 수 없으니, 청컨대, 〈이쪽의〉 쇄환(刷還)이 다 끝난 뒤에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6권 7년 11월 17일 癸丑

癸丑/左贊成黃守身、刑曹判書朴元亨啓: “前者遣敬差官卜承利, 移珍島人于黃原串, 移黃原牛馬于珍島. 今聞黃原串地窄, 而珍島人多, 若盡移之, 而地不能容, 則民必彼此失業. 請更遣諳事人, 審觀形勢, 隨宜布置, 如有欲遷者聽, 其不欲者勿強之, 以致失業.” 傳曰: “若又遣人, 無乃有弊乎?” 守身等更啓: “以單騎而去, 何弊之有?” 卽命守身爲全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羅道都體察使, 司僕寺少尹李尹仁爲從事官, 又諭承利, 姑停徙民.

좌찬성 황수신(黃守身)·형조판서 박원형(朴元亨)이 아뢰기를,

“전자(前者)에 경차관(敬差官) 복승리(卜承利)를 보내어 진도(珍島)의 사람을 황원곶이[黃原串]에 옮기고, 황원(黃原)의 소·말을 진도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황원곶이의 땅은 협착한데 진도의 사람은 많아서 만약 다 옮기면 그 땅으로는 능히 수용할 수가 없어, 백성이 반드시 피차(彼此) 생업(生業)을 잃을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일을 아는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형세를 관찰하여 마땅한 데에 따라서 포치(布置)하되, 만일 옮겨 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 주고, 그 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강요하여 생업을 잃는 데에 이르지 말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만약 또 사람을 보낸다면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하였다. 황수신 등이 다시 아뢰기를, “단기(單騎)로써 가게 하면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하니, 곧 명하여 황수신을 전라도 도체찰사(全羅道都體察使)로 삼고, 사복시소윤(司僕寺少尹) 이윤인(李尹仁)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또 복승리에게 유시하여 사민(徙民)하는 것을 우선 정지하도록 하였다.

▶ 27권 8년 1월 27일 壬戌

兵曹據慶尙道敬差官趙之夏啓本啓: 諸邑人口畢刷具錄四祖, 而才人、禾尺則不知內外祖名字者頗多, 族類各異, 良賤區別, 故以不知書之, 無害大體. 大小人員率居雇工, 則或少時父母俱歿, 遺棄小兒, 或失父母小兒, 爲人育養, 寄食他家, 父母名字、良賤元系, 實皆不知. 婢夫良人、奴良妻等, 不知父母名字者亦多. 請依號牌成給例, 姑以良賤未辨書之, 并諭他道. 從之.

병조에서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조지하(趙之夏)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인구(人口)들을 다 찾아내어 4조(祖)를 기록하였으나, 재인(才人)·화척(禾尺)은 내외조(內外祖)의 이름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파다(頗多)하고 족류(族類)가 각각 다르므로 양천(良賤)의 구별을 비록 알지 못한다고 짐짓 쓰더라도 대체(大體)에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대소인원(大小人員)이 데리고 있는 고용(雇工)은 혹은 어렸을 때 부모가 모두 죽어서 내버려진 어린아이거나, 혹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남에게 양육(養育)되어 다른 집에 기식(寄食)하여, 부모의 이름자와 양천(良賤)의 원 계보(系譜)를 실로 모두 알지 못합니다. 비부(婢夫)의 양인(良人), 종[奴]의 양처(良妻) 등으로서 부모의 이름자를 모르는 자도 또한 많습니다. 청컨대 호패(號牌)를 만들어 주는 예(例)에 의하여 우선 양천(良賤)을 변별(辨別)하지 못하였다고 쓰게 하고, 다른 도(道)에도 아울러 유시(諭示)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7권 8년 1월 28일 癸亥

初以左贊成黃守身濫受牙山田，下司憲府劾之，守身歷司憲府所劾六條上言訴冤：

~중략~

一，司憲府劾臣曰，“公衙買得時，奴子、伴人等以價高訴趙元祉，元祉更折其價。”謂臣爲抑買，臣初遣奴末金於牙山，推訪受賜田，又於移葬之地禁樵牧，末金到溫陽，請買公衙，以窓戶踏板，盡皆被盜，更請定價，還以告臣。臣意以爲“公家買得，必有後議，”不給其價。其後更不遣奴，至今牙山之內無有臣奴。以公衙材瓦造鄉校，其家尚在，憲府已知其實。折價抑買，臣實無之。

이하생략~

처음에 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이 아산(牙山)의 전지(田地)를 모람(冒濫)되게 받았다고 하여 사헌부(司憲府)에 내려서 이를 핵문(劾問)하게 하였는데, 황수신이 헌부(憲府)에서 핵문한 6가지 조목(條目)을 두루 진술(陳述)하고 상언(上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중략~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핵문하기를, ‘공아(公衙)를 사들일 때 노자(奴子)와 반인(伴人) 등이 값이 비싸다고 조원지에게 호소하여, 조원지가 그 값을 다시 절충하였다.’ 하면서, 신더러 강제로 샀다고 이릅니다. 신이 처음에 종 말금(末金)을 아산(牙山)에 보내어, 찾아가서 사전(賜田)을 받게 하고, 또 이장(移葬)할 땅에 나무하고 소 먹이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는데, 말금이 온양에 이르러 공아(公衙)를 사기를 청하였고, 그 창호(窓戶)와 답판(踏板)을 모두 다 도적당하였으므로 다시 값을 정하기를 청하고서 돌아와 신에게 고(告)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공가(公家)를 사들이면 반드시 뒷 논의가 있을 것이라.’ 하여, 그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종을 보내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산(牙山)의 경내에 신의 종이 있지 않습니다. 공아(公衙)의 재목과 기와로 향교(鄉校)를 지었고, 그 집이 아직도 있는데, 헌부(憲府)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값을 깎아서 억지로 산 일은 신에게 실로 없습니다.

이하생략~

▶ 27권 8년 2월 16일 辛巳

初，丙子年正月二十五日船軍梁成等濟州發船逢風

~중략~

一，衣服、飲食，男服則如本朝直領之制，但袖廣闊，色尙黑白，女服則衣裳一如我國，君臣上下男女，皆不冠巾。徒跣而行，無靴鞋等物。凡牛馬之皮，皆納官造甲，其食無匙筋，折亂草如筋而食

~중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一，禽獸，其畜則有牛、馬、猪、雞、犬，其禽則有鴉・雀，其俗好玩鸚鵡，常於中原買來。

이하생략~

처음에 병자년 정월 25일에 선군(船軍) 양성(梁成) 등이 제주(濟州)에서 배를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서 2월 초2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琉球國)의 북쪽 방면 구미도(仇彌島)에 이르렀었다. ~중략~

1. 의복과 음식은, 남자의 복장이 본국의 직령(直領)의 제도와 같았는데, 다만 소매가 넓을 뿐이었고, 빗깔은 흑색·백색을 좋아하였으며, 여자의 복장은 의상(衣裳)이 하나같이 우리나라와 같았으며, 군신(君臣)과 상하(上下)의 남녀(男女)는 모두 관(冠)이나 두건(頭巾)을 쓰지 않았다. 걸을 때는 맨발로 다니고 화혜(靴鞋) 따위의 물건이 없었고, 모든 소와 말의 가죽은 모두 관(官)에 바쳐서 갑옷을 만들었으며,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숟갈과 젓가락이 없었고, 완초(韮草)를 꺾어서 젓가락같이 만들어서 먹었다.

~중략~

1. 그 가축(家畜)은 소·말·닭·개가 있었고, 짐승은 노루·사슴이 있었고, 날짐승은 제비·피꼬리·까마귀·뺨꾸기·참새가 있었으나, 호랑이와 표범은 없었다.

이하생략~

▶ 28권 8년 4월 13일 戊寅

戊寅/先是，琉球國所進水牛二頭留養熊川，至是遣司僕寺尹朴徐昌取來，牛性畏暑，深伏水中，命養于昌德宮後苑，令司僕官員輪次看養。又命抄錄醫經及諸書養牛法，使醫生四人習之。

이 앞서 유구국(琉球國)에서 올린 물소[水牛] 2두(頭)를 웅천(熊川)에 두고 기르다가, 이에 이르러 사복시 윤(司僕寺尹) 박서창(朴徐昌)을 보내어 취하여 오게 하였는데, 물소의 성질이 더위를 두려워하고 물속에 깊이 엎드려 있거늘, 명하여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에서 기르게 하고,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보살피어 기르도록 하였다 또 의경(醫經)과 제서(諸書)의 양우법(養牛法)을 초록(抄錄)하여 의생(醫生) 4인으로 하여금 익히도록 하였다.

▶ 28권 8년 5월 28일 壬戌

壬戌/御思政殿，受常參、視事。上謂都承旨洪應曰：“今奏聞使《聞見事目》，野人等入中朝，買水牛角及火砲所入等物，事覺被劾，以此觀之，我國亦不得買水牛角于上國必矣。凡造弓之用，須多畜牛馬乃可，禁用牛馬皮可乎？切於民用，故盜牛馬者亦多，不可

不禁. 右承旨金謙光對曰：“禁之爲便.” 應對曰：“如有自死牛馬，則勿用其皮乎，如禁之則代用何皮？臣意謂，自死者，既不可棄，又無代用之物，不如仍舊.”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도승지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 “이제 주문사(奏聞使)의 문견 사목(聞見事目)을 보니, 야인(野人)들이 중국에 들어와 물소 뿔[水牛角]과 화포(火砲)에 들어가는 등의 물건을 샀다가 일이 발각되어 핵문(劾問) 당했다고 하니, 이로써 본다면 우리나라도 또한 물소 뿔을 중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은 필연한 일이다. 대저 활[弓]을 만드는 용구(用具)는 모름지기 우마(牛馬)를 많이 길러야 하는데, 이에 우마 가죽을 쓰는 것을 금(禁)하도록 하는 것이 가(可)하겠느냐? 민용(民用)에 절실한 까닭으로 우마를 도둑질하는 자도 또한 금하지 않을 수 없다.”하니, 우승지 김겸광(金謙光)이 대답하기를, “금(禁)하게 함이 편하겠습니다.”하고, 홍응이 대답하기를,

“만일 저절로 죽은 우마가 있다면 그 가죽은 쓰지 말게 할 것이나, 만일 금하게 하신다면 무슨 가죽으로 대용(代用)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 이르자면, 스스로 죽은 것은 이미 버림[棄]이 불가하고, 또 대용(代用)할 물건이 없으니 그전대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 28권 8년 6월 3일 丙寅

承政院奉旨馳書于諸道觀察使曰：“道內諸邑軍器、弓矢、甲冑、槍劍精造與否及其數軍器點火與否，辛巳、壬午兩年兼監牧守令牛馬孳息數，詳錄以聞.”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도내(道內) 제읍(諸邑)의 군기(軍器)·궁시(弓矢)·갑주(甲冑)·창검(槍劍)을 정(精)하게 만들었는지의 여부와 그 수량, 군기(軍器)의 점화(點火) 여부와, 신사년·임오년 두 해에 감목관(監牧官)을 겸한 수령(守令)은 우마(牛馬)의 번식한 수효를 자세히 기록하여 계문(啓聞)하라.”하였다.

▶ 28권 8년 6월 3일 丙寅

丙寅/御思政殿，受常參、視事。召右贊成具致寬、兵曹判書尹子雲、都承旨洪應等議六畜孳息等事，致寬等議作條件：

一. 京中大戶畜猪十五口、牛七頭、馬五匹，中戶猪十口、牛五頭、馬四匹，小戶猪五口、牛三頭、馬二匹以上者復戶. 一. 外方猪數與京中同，大戶畜牛十頭、馬八匹，中戶牛七頭、馬六匹，小戶牛四頭、馬三匹以上者復戶. 一. 宗親、宰樞及世家子弟，雖畜此數，勿復戶，不畜者限來正月論罪. 一. 京中漢城府，外方觀察使，每歲抄各其名下錄畜牧數以啓.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찬성 구치관(具致寬)·병조판서 윤자운(尹子雲)·도승지 홍응(洪應) 등을 불러 육축(六畜)을 번식하게 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구치관 등이 의논하여 조건(條件)을 작성하기를,

“1. 경중(京中)은 대호(大戶)는 돼지[豬] 15구(口), 소[牛] 7두(頭), 말[馬] 5필을, 중호(中戶)는 돼지 10구, 소 5두, 말 4필을, 소호(小戶)는 돼지 5구, 소 3두, 말 2필 이상을 기르는 자를 복호(復戶)하소서.

1. 외방(外方)은 돼지의 수는 경중(京中)과 한 가지이고, 대호(大戶)는 소 10두, 말 8필을, 중호(中戶)는 소 7두, 말 6필을, 소호(小戶)는 소 4두, 말 3필 이상을 기르는 자를 복호(復戶) 하소서.

1. 종친(宗親)·재추(宰樞)와 세가자제(世家子弟)는, 비록 이 수량을 기르더라도 복호(復戶)하지 말며, 기르지 않는 자는 오는 정월(正月)을 한하여 논죄(論罪)하소서.

1. 경중(京中)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外方)은 관찰사(觀察使)가 매 세초(歲抄)에 각각 그 이름 아래에다 축목(畜牧)하는 수(數)를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 28권 8년 6월 9일 壬申

壬申/兵曹啓: “兵器, 軍國先務. 須令諸邑分定造作, 以爲歲用, 庶合備戎之策. 請自今年, 留守府、牧、大都護府, 勿論鄉唐, 牛角弓·鹿角弓·木弓一十張、磨箭四部、皮·絲絃中四十箇、都護府·知官弓五張、箭三部、絃三十箇、縣官弓二張、箭二部、絃二十箇每歲抄觀察使摠數以啓, 納軍器監, 兩畏則勿令上納, 各其邑錄會計藏之.” 從之.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병기(兵器)는 군국(軍國)의 선무(先務)입니다. 모름지기 제읍(諸邑)에 나누어 정(定)하여 조작(造作)하게 하여서 세용(歲用)을 삼으면, 거의 응적(戎敵)을 방비하는 계책에 합당할 것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매년 유수부(留守府)·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는 우리나라 것인지 중국 것인지를 논하지 말고, 우각궁(牛角弓)·녹각궁(鹿角弓)·목궁(木弓) 10장(張), 마전(磨箭) 4부(部), 피현(皮絃)·사현(絲絃) 중(中) 40개(箇)를,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은 활[弓] 5장(張), 화살[箭] 3부(部), 현(絃) 30개(箇)를, 현관(縣官)은 활 2장, 화살 2부, 현 20개를 세초(歲抄)마다 관찰사(觀察使)가 총수(摠數)를 아뢰어 군기감(軍器監)에 납부하게 하되, 양외(兩畏)는 상납(上納)하지 말고 각각 그 읍(邑)의 회계(會計)에 기록하여 갈무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8권 8년 6월 13일 丙子

諭諸道觀察使曰：“曾令才人、禾尺不置諸里，不得聚居，觀察使、守令不能奉法，亦致聚居一處，相與作賊，可速分置，具由以啓。”

제도(諸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일찍이 재인(才人)·화척(禾尺)은 여러 고을에 두지 못하도록 하여 모여서 살 수 없는데도 관찰사와 수령이 능히 법을 받들지 못하고, 또한 한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는데 이르게 하여 서로 더불어 도둑질을 하게 하였으니, 가히 속히 나누어 두게 하고, 연유를 갖추어 아뢰어라.”하였다.

▶ 28권 8년 6월 22일 乙酉

乙酉/下敎曰：“刑獄重事，一或偏繫，見枉必多。至於治盜，尤爲難處，或因宿嫌誣引爲盜者，或指爲眞盜而實贓不現者，或贓物雖現而色樣相似有可疑者，且今盜牛馬爲首者，權用重典，則其辨首從不可不慎也，京外官吏用法深刻，務欲速成，不問正贓有無，例皆拷訊，言端雖不一，以贓物相同爲辭，贓物雖不同，以被盜者文案爲證，援引傳會，羅織成辭，至於枉法亂杖，捽髮批蹴，使患者誣服，以致無辜隕命，姦者幸免，是豈司獄者平反之道耶？其令治獄官吏，將上項可疑事件，精白虛心，本之仁恕，行之明允，要期得情，毋殺不辜。敢有似前違法，濫刑誣陷無罪者，當治罪不饒。惟爾刑曹體予至懷，曉諭中外。”

하교(下敎)하기를,

“형옥(刑獄)은 중한 일인데, 한 결 같이 혹 치우친 데 얽매어서 굽은 것을 보임이 필연으로 많다. 도적을 다스리는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 처치하기가 어려우니 혹은 오랜 혐의로 인하여 도둑질하였다고 무인(誣引)하는 자, 혹은 진짜 도둑이라고 지목하였는데 실상은 장물(贓物)이 드러나지 않은 자, 혹은 장물은 비록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빛깔이나 모양이 서로 같으되 의심할 만한 것이 있는 자, 또한 이제 우마(牛馬)를 도둑질한 수모자(首謀者)는 권도(權道)로 중한 형전(刑典)을 쓰니 그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변별하는 것은 삼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외(京外)의 관리(官吏)는 법(法)을 쓰는 데에만 심각(深刻)하게 하고, 속히 이루고자 하는 데에 힘써서 바른 장물(贓物)이 있고 없음은 묻지 아니하고, 으레히 모두 고신(拷訊)하여, 말의 실마리가 비록 한결같지 않더라도 장물이 서로 같은 것으로써 말을 하고, 장물이 비록 같지 않더라도 도적 맞은 자의 문안(文案)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 끌어다가 억지로 갖다 붙이며, 죄를 억지로 얹어서 말을 이루어 법(法)을 굽혀 난장(亂杖)하며 머리털을 꺼두르고 치고 차는 데에 이르니,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자복(自服)하여 무고(無辜)하게 목숨을 잃는 데에 이르게 하고, 간교한 자는 다행히 모면하니, 이것이 어찌 옥을 맡은 자의 평반(平反)하는 도리(道理)이겠느냐? 그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리로 하여금 윗항의 의심할 만한 사건은 정백(精白)하고 허심(虛心)하게 하여, 근본은 인서(仁恕)에 두고, 행하기는 분명하고 마땅하게 하되, 요(要)는 실정 얻기를 기약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라. 감히 전과 같이 법을 어겨서 남형(濫刑)하고 무죄한 이를 무함(誣陷)하는 자는,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마땅히 죄(罪)를 다스리고 용서하지 않도록 하라. 오로지 너의 형조(刑曹)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하였다.

▶ 29권 8년 10월 14일 乙亥

禮曹啓: “壬戌十一月大行太皇后舉哀則上未寧, 令文武百官具素服、烏紗帽、黑角帶, 設闕牌, 舉哀三日, 丙子三月大行太皇后舉哀, 則聞喪即日, 上率百官素服、烏紗帽、黑角帶舉哀, 每日早朝舉臨, 三日而除, 停朝市、去刑戮、**禁屠殺**、斷音樂、停嫁娶, 外方亦如之.” 御札下議政府曰: “親喪且以日易月, 外國停之何如?” 議政府議啓: “除舉哀, 只停朝市.”

예조에서 아뢰기를, “임술년 11월의 대행태황후(大行太皇后) 거애(舉哀) 때에는 주상께서 편참으시었으므로 문무백관(文武百官)으로 하여금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고 궐궤(闕牌)를 설치하고 3일간 거애하게 하였으며, 병자년 3월의 대행태황후(大行太皇后) 거애 때에는 상(喪)을 들은 그날로 주상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소복·오사모·흑각대를 갖추고 거애하고 매일 아침 일찍이 거애하기를 3일 만에 그만두었으며, 조회(朝會)와 저자를 정지하고 형록(刑戮)을 없애며 **도살(屠殺)을 금하고** 음악을 끊고 가취(嫁娶)를 정지하였으며, 외방(外方)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하니, 어찰(御札)을 의정부에 내리기를, “친상(親喪)도 또한 날[日]로 달[月]을 바꾸는데[以日易月], 외국(外國)에서는 이를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해 아뢰기를, “거애는 그만두고 조회(朝會)와 저자만 정지하게 하소서.”하였다.

▶ 29권 8년 12월 1일 辛酉

辛酉朔/正朝使柳守剛等先送事目于承政院以啓: “有建州右等衛、女直〔女眞〕都指揮, 指揮卜花禿等各自分投海西毛憐等衛, 句引都督寧哈答等, 起五百人馬, 毛憐等衛女直〔女眞〕都指揮尙冬加等人馬五百、卜花禿、趙乃刺等五百人等共千五百人馬, 會同十二月十八日都到東北幹阿地面取齊, 二十四日從婆猪江進去, **搶朝鮮國人馬牛畜大殺**, 一場出來, 到遼陽撫順所東北草河口入口, 到遼陽界上, **搶遼東人馬牛畜**, 就去朝鮮國愛州江上搶截人馬, 回還分用.”

정조사(正朝使) 유수강(柳守剛) 등이 먼저 사목(事目)을 승정원(承政院)에 보내어 아뢰기를, “건주우등위(建州右等衛)의 여직도지휘(女直都指揮)·지휘 복화독(卜花禿) 등이 각각 스스로 해서(海西)에 나누어 투항하여 모련등위(毛憐等衛)의 구인도독(句引都督) 영합답(寧哈答) 등 5백 인마(人馬)를 일으키고 모련 등위의 여직 도지휘 상동가(尙冬加) 등의 인마 5백과 복화독·조내라(趙乃刺) 등 5백 사람 등의 모두 1천 5백 인마가 같이 모여서 12월 18일에

모두 동북간아(東北幹阿) 지방(地方)에 이르러 취제(取齊)하고, 24일에 파저강(婆猪江)을 따라 나아가서 조선국(朝鮮國)의 사람·마소·가축을 빼앗고 한바탕 크게 살상(殺傷)하고 나와서 요양 무순소(遼陽撫順所) 동북 초하구(草河口) 입구에 이르러 요양(遼陽) 경계 위에서 요동(遼東)의 사람·마소·가축을 빼앗고 조선국(朝鮮國)의 애주(愛州) 강 위에 나아가서 인마를 빼앗아 돌아가서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 29권 8년 12월 2일 壬戌

御札傳旨禮曹曰: “自今宴享取旨, 然後殺牛馬羊.”

어찰(御札)로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제부터는 연향(宴享)에 취지(取旨) 한 뒤에 소·말·양(羊)을 잡게 하라.”하였다.

▶ 30권 9년 1월 5일 乙未

兵曹啓: “曾奉傳敎, ‘自備皮甲內, 用牛馬皮者一禁’. 臣等以爲宰殺者則已矣, 自斃牛馬皮亦且禁斷, 則貧窮軍士不能易辦, 請自今自斃牛馬申官開剝, 將其立案, 京中則告本曹, 外方則告巨鎮, 直簿納甲時憑考着標. 且軍士等或謀得仕到, 或要免己罪, 鐵皮甲不如法造作納官, 諸鎮亦謂已成之物, 例不却退, 非惟違國家立法本意, 徒費民財, 無益於用. 請送新樣皮鐵甲大中小葉兒于諸道都節制使營, 依樣造作, 分送巨鎮, 令諸邑守令檢察造作, 送巨鎮着標, 違者當身科罪, 并論所居邑守令及巨鎮將.”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전교(傳敎)를 받들으니, ‘스스로 갖춘 피갑(皮甲) 안에 우마피(牛馬皮)를 쓰는 것은 일체 금지한다.’ 하시니, 신 등의 생각에는 재살(宰殺)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절로 죽은 우마피도 역시 또 금단(禁斷)하면 빈궁(貧窮)한 군사(軍士)는 쉽게 마련할 수 없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저절로 죽은 우마(牛馬)는 관(官)에 신고하여 개박(開剝)하며 장차 그것을 입안(立案)하되, 경중(京中)은 본조(本曹)에 고하고, 외방(外方)은 거진(巨鎮)에 고하며, 직부(直簿)하여 갑옷을 납부할 때는 착표(着標)를 빙고(憑考)하소서. 또 군사들이 혹 사도(仕到) 얻기를 도모하고, 혹은 자기의 죄를 면하기를 바라서 철피갑(鐵皮甲)을 조작(造作)하는데 법대로 조작하여 관(官)에 납부하지 않고, 제진(諸鎮)에서도 또한 이미 이루어진 물건이라 하여 으레 물리치지 않으니, 국가(國家)의 입법(立法)한 근본 뜻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한갓 백성의 재물만을 허비하고 사용함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청컨대 새로운 모양의 피철갑(皮鐵甲) 대(大)·중(中)·소(小)의 엽아(葉兒)를 제도 도절제사 영(諸道都節制使營)에 보내어, 모양에 따라 조작하도록 거진(巨鎮)에 나누어 보내고, 제읍(諸邑)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조작하는 것을 검찰(檢察)하게 하고 거진(巨鎮)으로 착표(着標)를 보내되 어기는 자는 자신을 과죄(科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罪)하게 하고, 아울러 소거읍(所居邑)의 수령과 거진(巨鎭)의 장수도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30권 9년 1월 12일 壬寅

壬寅/先是, 中外號牌已成, 上慮其未精, 更作事目. “一, 號牌依《大典》, 改其體制, **【堂上官用象牙, 長三寸五分、廣一寸一分, 牛骨、鹿角通用. 三品以下至賤口用雜木, 長四寸、廣一寸五分, 用營造尺.】** 以乙酉年十二月晦日爲限更始. 京中漢城府、外方都會所必備三員, **【守令一人、敬差官一人、分臺一人.】** 大君以下奴子必準賤籍給牌. 이하생략~

이 앞서 중외(中外)의 호패(號牌)를 이미 이루었는데, 임금이 그것이 정(精)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다시 사목(事目)을 짓기를,

“1. 호패(號牌)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체제(體制)를 고치되, **【당상관(堂上官)은 상아(象牙)를 쓴다. 길이[長]는 3치[寸] 5푼[分], 너비[廣]는 1치 1푼이며, 우골(牛骨)·녹각(鹿角)도 통용한다.** 3품 이하 천구(賤口)에 이르기까지는 잡목(雜木)을 쓴다. 길이는 4치, 너비는 1치 5푼이며, 영조척(營造尺)을 쓴다.】 을유년 12월 그믐날[晦日]을 기한으로 하여 갱신(更新)한다. 경중(京中)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外方)은 도회소(都會所)에서 반드시 3원(員)을 **【수령(守令) 1인, 경차관(敬差官) 1인, 분대(分臺) 1인.】** 갖추고, 대군(大君) 이하 노자(奴子)는 반드시 천적(賤籍)에 준(准)하여 급패(給牌)할 것. 이하생략~

▶ 30권 9년 3월 14일 癸卯

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忠淸、全羅、慶尙、黃海、平安道、開城府及諸道察訪曰: “**偏車無牛馬之煩, 便於任載.** 今送偏車各二, 除道內路險諸邑外, 依樣造作興用.”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평안도(平安道)·개성부(開城府)와 제도 찰방(諸道察訪)에게 치서(馳書)하기를, “**편거(偏車)는 우마(牛馬)의 번거로움이 없고, 임재(任載)하기에 편리하다.** 이제 편거(偏車) 두 개씩을 보내니, 도내(道內)의 길이 험한 제읍(諸邑)을 제외하고는 모양을 따라 조작(造作)하여 흥용(興用)하라.”하였다.

▶ 30권 9년 5월 8일 丙申

傳旨漢城府曰: “**才人、白丁等多逃離本鄉,** 來寓京中, 盜賊漸盛, 其速推刷.”

한성부(漢城府)에 전지하기를, “재인(才人)·백정(白丁) 등이 많이 본향(本鄉)을 도리(逃離)하여 경중(京中)에 와 붙어서 도적(盜賊)이 점점 성하니, 그것을 속히 추쇄(推刷)하라.” 하였다.

▶ 30권 9년 7월 10일 丁酉

丁酉/先是, 將祭文昭殿, 司僕獵得獐鹿以供牲, 否則用羊, 秋享前一日, 大雨水漲, 道不通, 出獵者未回. 同副承旨金壽寧據禮曹啓: “請用羊”, 上曰: “姑待獵還.” 日向暮, 壽寧曰: “獵者今猶不至, 想必阻雨. 請早取羊付有司.” 上曰: “第且待之.” 夜二鼓傳于壽寧曰: “古人見牛未見羊, 今予待獵, 正猶是也. 可急宰羊. 予以牲故, 尙未就寢, 聞宰牲, 予乃臥矣.” 少頃中官三至, 趣之.

이 앞서 문소전(文昭殿)에 제사지내려고 사복(司僕)에게 사냥가서 노루[獐]와 사슴[鹿]을 얻어서 희생(犧牲)으로 바치든가 아니면 양(羊)을 쓰게 하였더니, 추향(秋享) 전 1일에 큰비가 내려 물이 창일(漲溢)하고 길이 불통(不通)하여 사냥 나간 자가 돌아오지 못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수녕(金壽寧)이 예조(禮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양(羊)을 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은 사냥 간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하였다. 날이 저물어, 김수녕(金壽寧)이 말하기를, “사냥 간 자가 지금도 이르지 않았으니, 반드시 비에 막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하건대 일찍 양(羊)을 취하여 유사(有司)에 붙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또 기다려라.” 하였다가, 밤 2고(鼓)에 김수녕에게 전교하기를, “옛 사람이 소[牛]는 보고 양(羊)은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내가 사냥 간 자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구나. 급히 양을 잡는 것이 옳겠다. 내가 희생(犧牲)의 연고로 아직도 취침(就寢)하지 못하였으니, 희생(犧牲)을 잡은 것을 들어야 내가 이에 눕겠다.” 하였다. 잠시 동안에 중관(中官)이 세 번이나 이르러 〈취침을〉 재촉하였다

▶ 33권 10년 4월 3일 乙酉

先是, 僧人雖有大罪, 但執之保授而已, 不得囚繫. 以此僧人雖犯大罪, 率皆逃免, 州縣不得拘執, 平民畏之如虎. 至於姦猾之徒, 欲爲不法, 皆先剃髮, 恣行無忌. 時平安道僧人成群作(耗) [亂], 至奪官軍器, 孝寧大君補請嚴刑止之. 御札下議政府曰: “僧人現有殺人及牛馬者, 現有贓物者, 現有妻子者, 奸所捕獲者, 先囚啓聞科罪.” 是命之下, 人皆快之, 然僧人狃於積習, 其勢猶熾, 州縣畏之, 莫能遵奉教旨.

이보다 앞서 승인(僧人)이 비록 큰 죄를 짓더라도 다만 붙잡았다가 보수(保授) 하였을 뿐이요, 수금(囚禁)할 수가 없었었다. 이 때문에 승인(僧人)이 비록 큰 죄를 짓고도 거의 대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가 도망하여 죄를 면하고, 주(州)·현(縣)에서 구속(拘束)할 수가 없었으므로, 평민(平民)들이 그들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였었다. 심지어 간활(姦猾)한 무리들이 불법(不法)한 짓을 하고 자 하여 모두 머리를 깎고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恣行)하였었다. 그 때 평안도(平安道)의 승인(僧人)이 무리를 지어 소란을 피우고 관(官)의 무기(武器)를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가 이를 엄벌하여 중지시키도록 청하였다. 어찰(御札)을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기를,

“승인(僧人)으로서 사람이나 우마(牛馬)를 살해한 증거가 나타난 자, 장물(贓物)의 증거가 드러난 자, 처자(妻子)를 거느린 증거가 나타난 자, 간통(奸通)하는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먼저 가두고 계문(啓聞)한 다음에 죄를 주라.”

하였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승인(僧人)이 오랜 인습에 젖어서 그 형세가 오히려 심해지니, 주(州)·현(縣)에서 겁을 내어 능히 교지(敎旨)를 준봉(遵奉)할 수가 없었다.

▶ 33권 10년 6월 5일 丁亥

戶曹啓: “明使支用所餘雜物肉脯鱸等物, 分送諸司, 令錄會計, 腥物若魚鮓之類, 請分給成均館四部學堂儒生.” 從之.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명(明)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데 사용한 나머지의 잡물(雜物)·육포수(肉脯鱸) 등의 물건을 여러 관사(官司)에 나누어 보내고 회계(會計)에 기록하도록 하고, 비린내 나는 물건으로 어자(魚鮓) 같은 따위는, 청컨대 성균관과 사부 학당(四部學堂)의 유생(儒生)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33권 10년 7월 25일 丙子

都體察使韓明澮啓: “前此祭脯, 令司僕寺獵獲以供, 近年始移定平安道, 因此抄軍馳獵, 土馬罷頓, 弊將難救. 請依舊司僕寺獵獲支用.” 從之.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제사의 육포(肉脯)는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사냥하여 잡아서 공급하였으나, 근년에 비로소 평안도(平安道)에 옮겨 정(定)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군사를 뽑아서 말을 달려 사냥하므로, 사마(土馬)가 고달프고 피폐(疲弊)하여 그 폐단이 장차 구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사복시(司僕寺)에서 사냥해 잡아서 지용(支用)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34권 10년 8월 4일 乙酉

傳旨刑曹曰：“京城內以屠牛馬爲業，號稱去骨匠者，令五部管領坊里人密封以告，無時搜捕。且盜賊亦依此例搜捕。”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서울 도성 안에서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아 거골장(去骨匠)이라고 부르는 자를, 5부(部) 관령(管領)과 방리인(坊里人)으로 하여금 밀봉(密封)하여 고발하게 하고, 무시(無時)로 수색(搜索) 체포(逮捕)하라. 또 도적(盜賊)도 또한 이와 같은 예(例)에 의하여 수색 체포하라.”

▶ 36권 11년 5월 25일 辛未

辛未/御勤政門，受朝參，仍御思政殿，召二品以上宗宰臺諫等，傳曰：“若等如有欲言之事，可盡言不諱。”如是者再，而一無進言者，仍命左承旨尹弼商進前，草諭八道捕賊書。其書曰：

盜賊害良民者日甚，群臣請竊盜初犯盡殺之，予特怜其有生就死。且因大慶，雖強盜，如不殺人，悉皆放赦，以開自新之路，盜賊不念予大恩，恣行無忌，以至攻掠官人，諭書後條件，卿其廣諭道內，必獲後已。大抵盜賊不息，專以守令慢法所致，所謂法者何也？稱流移投寄者，當速還本，因行路丐乞者，當察窺覘，其中蹤迹詭秘者，當囚推鞠。守令等不知所部居民來去，此盜賊所以容迹無忌也。今後如有強盜發於境內，而不能發摘者，其邑守令杖一百罷職，該吏杖一百定驛吏，切隣色掌全家徙邊。一，賊黨及白丁如有能捕告者，免其罪，賞職賞布，皆從自願。一，自今以後勿論贓物，以衆証爲定。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고, 이어서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2품 이상의 종재(宗宰)와 대간(臺諫)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말하려는 일이 있다면 말을 다하고, 숨기지 않는 것이 옳다.” 하고, 이같이 하기를 두 번 하였어도 하나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어서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에게 명하여, 앞에 나와 팔도(八道)에 유시하여 도적을 잡는 글을 초안하게 하였다. 그 글에 말하기를,

“도적(盜賊)이 양민(良民)을 해치는 자가 날로 심하여, 군신(郡臣)들이 절도(竊盜)의 초범(初犯)도 다 죽이라고 청하나, 내 특별히 그 생명이 있어 죽는 데 나아감을 불쌍히 여기었다. 또 큰 경사(慶事)를 인연하여 비록 강도(強盜)라도 만일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모두 다 방면하여서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 주었는데도, 도적은 나의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방자한 행동을 하여 거리낌이 없어서, 관인(官人)을 공략(攻掠)하기에 이르렀으니, 유서(諭書) 뒤에 있는 조건(條件)을 경(卿)은 널리 도내(道內)에 효유하여, 반드시 잡은 뒤에야 그칠 것이다. 대저 도적이 그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수령(守令)이 법을 만홀히 하여 일어난 소치이니, 이른바 법이란 무엇이겠는가? 떠돌아다녀서 남에게 몸을 의탁하였다고 일컫는 자는 마땅히 속히 본디대로 돌아가게 하고, 행로(行路)에서 구걸하는 자는 마땅히 엿보는 것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을 살펴서 그 가운데 종적(踪跡)이 괴이한 자는 마땅히 가두고 추국(推鞠)하라. 수령(守令) 등이 부거민(部居民)이 오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도적의 종적을 용납하여 꺼림이 없게 하는 소이(所以)이다. 금후로는 만일 강도(強盜)가 경내(境內)에서 발생함이 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자는 그 고을 수령은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파직(罷職)하고, 해당된 관리(吏)는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파직(罷職)하고, 해당된 관리(吏)는 장(杖) 1백 대를 때려 역리(驛吏)로 정속(定屬)하며 절린(切隣)·색장(色掌)은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겠다.

1. 도적의 무리[賊黨]와 백정(白丁)이 만일 능히 잡을 수 있도록 고(告)한 자는 그 죄를 사면하되, 벼슬로 상(賞)주고 면포로 상주는 것은 모두 자원(自願)하는 대로 따르게 하라.

1. 이제부터 이후로는 장물(贓物)을 논(論)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무고(誣告)를 가지고 정하게 하라.”
하였다.

▶ 36권 11년 5월 30일 丙子

丙子/召司憲持平盧好愼，傳曰：“民非農無以生，農非牛無以耕，牛之爲用甚大。今士大夫家凡宴賓，必宰牛，此風不可長也。爾憲府其糾察，隨聞隨(効)〔効〕以啓。”又傳曰：“孝子節婦隨聞褒賞，著在令甲，近來諸道監司，慢不致意，雖有節行卓異者，不卽訪問啓達，其亦行移，推鞠以啓。”

사헌 지평(司憲持平) 노호신(盧好愼)을 불러 전교하기를, “백성은 농업이 아니면 생업할 수 없고, 농업은 소[牛]가 아니면 경작할 수 없으니, 소의 쓰임새가 매우 큰데, 이제 사대부(士大夫) 집의 모든 잔치에 반드시 소를 잡으니, 이 풍습은 조장(助長)할 수 없다. 너희 헌부(憲府)는 그것을 규찰(糾察)하되, 듣고 핵실하는 대로 아뢰도록 하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효자(孝子)·절부(節婦)는 듣는 대로 포상(褒賞)함이 영갑(令甲)에 나타나 있는데, 근래에는 제도(諸道)의 감사(監司)가 게을리하여 뜻을 두지 않아서 비록 절행(節行)이 탁이(卓異)한 자가 있더라도 즉시 방문(訪問)하여 계달(啓達)하지 않으니, 그것도 또한 행문 이첩(行文移牒)하고 추국(推鞠)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 36권 11년 6월 1일 丁丑

知中樞院事梁誠之上書曰：

竊惟，人君之職，莫大於養民，養民之政，莫重於務農。然務農之本，在盡其力地而已。乞命諸道守令，率郡中品官勸農官等，親審境內堤堰、海澤、防川、塞浦舊基可修、新基可築處，具報觀察使，分遣大臣，一一更審，限三年每於農隙，少則守令率勸農官，役境內之民，大則觀察使定差使員，役隣邑之民修築，其有能修築者，勸農官差授散官職，守令量加資級，其中不用心勸農者充水軍，守令卽行罷黜，以至觀察使，亦行賞罰。如是則

地力無不盡，而天災亦不能爲之害矣。雖有堤堰，耕之者小，則與空地何以異哉！今京中遊手之徒甚多，乞大小朝官公私時役賤隸，諸色工匠人外，無役閑人，盡行推刷，竝勒還本，農時則使之緣南畝，暇日則習戰事。如是則人力無不盡，而地利亦無遺矣。**雖有農夫，苟無其牛，則固不能以代耕矣。近年外方牛畜屠殺倍古，京中市裏，一日買牛不下十數，皆用屠宰，如殺雞然，以邀厚利。**自今限風俗歸正，姑依軍法施行，**凡宰牛人，勿問盜殺買殺**，不分首從，俱卽處絞，告者以財產給賞，自願受職者超三資。其容止窩主家舍沒官，兩班則永不敘用，常人則全家徙邊，三切隣及知情賣牛、知情食肉者，各杖一百，京中管領、外方勸農不檢舉告官者，亦杖一百，全家徙邊。如是然後，外庶幾宰殺之風一變，而農牛不至於太減矣。雖有農牛，苟無糧種，則何以播百穀而耕且耘哉！近年義倉逋欠，所儲日減，加以守令不卽申聞發倉，播植失時，耕耘未力，農民失業，多因於此。乞令中外義倉之數，令該曹磨鍊，百戶之縣儲千石，千戶之郡儲萬石，其不足州縣，多方布置，或使烟戶計口納租，此非國家斂於民而用於公也，不過爲愚民置之外府而撙節以給之也。其守令不預先申聞，或過而不給者，令民告觀察使，隨卽罷黜。臣聞“有志者，事竟成。”今我殿下居代天之位，操馭下之權，每以養民之事特留宸慮。雖挾山超海之功，猶未足爲之，況裁成輔相，以佚道使民之事乎！但願擇其人而任之，任其事者，亦體殿下盛意，盡心力而爲之而已。伏惟睿鑑垂察。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그즉이 생각하건대 인군(人君)의 직분(職分)은 백성을 양육(養育)하는 것보다 큼이 없고, 백성을 양육하는 정치는 농업(農業)에 힘쓰는 것보다 중요함이 없으나, 그러나 농업을 힘쓰는 근본은 지력(地力)을 다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빌건대 제도(諸道)의 수령(守令)에게 명하여, 군중(郡中)의 품관(品官)과 권농관(勸農官) 등을 거느리고 친히 경내(境內)의 제언(堤堰)·해택(海澤)·방천(防川)·색포(塞浦)를 살펴서 옛터[舊基]를 수축할 만한 곳과 새터[新基]를 쌓을 만한 곳을 관찰사(觀察使)에게 갖추 보고하게 하고, 대신(大臣)을 나누어 보내어 일일이 다시 살펴서 3년을 한정하여 농한기마다 작은 것은 수령(守令)이 권농관(勸農官)을 거느리고 경내(境內)의 백성을 역사시키고, 큰 것은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이웃 고을의 백성을 역사시켜 수축하게 하되, 그 수축할 수 있는 자는 권농관(勸農官)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며, 수령은 해아려서 자급(資級)을 더하여 주되, 그 중에 권농(勸農)에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수군(水軍)에 충당하며, 수령(守令)은 즉시 파출(罷黜)을 행하고, 관찰사(觀察使)에 이르러서도 또한 상벌(賞罰)을 행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지력(地力)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천재(天災)도 또한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제언(堤堰)이 있더라도 경작하는 자가 적다면 공지(空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경중(京中)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먹는 무리가 많으니, 빌건대 대소 조관(大小朝官)이 공사(公私)에 때로 역사하는 천레(賤隸)와 제색(諸色)의 공장인(工匠人) 외에 구실[役] 없이 한가한 사람을 모두 다 추쇄(推刷)하여 아울러 역지로 본고장으로 돌려보냈다가 농사철이면 남무(南畝)를 인연하여 부리고, 한가한 날이면 전쟁에 관한 일을 익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인력(人力)이 다하지 않음이 없고 지리(地利)도 또한 잃음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농부(農夫)는 있더라도 만일 그 소[牛]가 없으면 진실로 대신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근년에 외방(外方)에는 우축(牛丑)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도살(屠殺)한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고, 경중(京中)의 시장 안에는 1일에 소를 사는 것이 수십 마리를 내리지 않으니, 모두 도살(屠殺)해서 닭을 죽이는 것과 같이 하여 많은 이득을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풍속(風俗)을 귀정(歸正)하기를 한(限)하여 우선 군법(軍法)대로 시행(施行)하되, 무릇 소를 잡는 사람은 도살(盜殺)이거나 매살(買殺)이거나 논하지 말고,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나눌 것 없이 모두 즉시 교형(絞刑)에 처하며, 고발한 자는 재산(財産)으로 상(賞)을 주되, 벼슬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3자급(資級)을 뛰어 주소서. 그 와주(窩主)를 용납하여 머물게 한 집은 관(官)에서 몰수하되, 양반(兩班)이면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고, 상인(常人)이면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며, 삼절린(三切隣)과 정상을 알고도 소를 팔았거나 정상을 알고도 고기를 먹은 자는 각각 장(杖) 1백 대씩 때리고, 경중(京中)의 관령(管領)과 외방(外方)의 권농(勸農)으로서 검거(檢擧)하여 관(官)에 고발하지 않은 자도 또한 장(杖) 1백 대를 때려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밖으로는 소를 잡아 죽이는 풍습이 거의 일변(一變)할 것이며, 농우(農牛)도 크게 감소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농우는 있더라도 만일 곡식의 종자(種子)가 없다면, 무엇으로써 백곡(百穀)을 뿌리며 경작하고 또 김매겠습니까? 근년에 의창(義倉)이 포핍(逋欠)되어 저장한 것이 날로 감소하여지고, 수령(守令)은 즉시 신문(申聞)하여 창고를 열지 않음이 더하여, 씨 뿌리고 심는 것이 시기를 잃고, 경작하고 김매는 데 힘쓰지 않으니, 농민(農民)이 생업을 잃음이 이런 데에 인함이 많습니다. 빌건대 중외(中外)의 의창(義倉)의 수(數)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백호(百戶)의 현(縣)은 1천 석(石)을 저장하고, 천호(千戶)의 군(郡)은 1만 석(石)을 저장하게 하며, 그 부족(不足)한 주현(州縣)은 다방면으로 포치(布置)하되, 혹 연호(煙戶)로 하여금 구수(口數)를 계교하여 조세(租稅)를 납부하게 하면 이것은 국가(國家)가 백성에게 거두어서 공용(公用)으로 씀이 아니고,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외부(外府)에 두었다가 존절(樽節)하게 주는 데에 불과(不過)합니다. 그 수령(守令)이 미리 먼저 신문(申聞)하지 아니하고, 혹 막고 주지 않는 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관찰사(觀察使)에게 고하게 하여 그 즉시 파출(罷黜)하소서. 신(臣)이 들으니,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마침내 성취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을 대신하는 지위에 계시고 아래를 거거하는 권세를 잡으시어, 매양 백성을 양육하는 일로써 특히 염려를 두셨습니다. 비록 산(山)을 안고 바다를 뛰어 넘는 공(功)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함이 되는데, 하물며 적당히 헤아려 일을 성취하고 도와주어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방도로써 사민(使民)하는 일이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그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임용하고, 그 일을 위임 받은 자도 또한 전하의 성의(盛意)를 몸받아 마음과 힘을 다하여야 할 따름이니, 앞드려 생각하건대 밝게 보시고 살피소서.”

▶ 36권 11년 6월 9일 乙酉

乙酉/先是前副司正李紹生上書曰:

盜賊之源, 起於貧窮, 此古昔聖哲明賢歷歷之訓也.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子曰, “苟子之不欲, 雖賞之不竊.” 管子曰, “禮義生富足. 盜賊起貧窮.” 《虞書》, “有養民之德而後, 有禦寇之刑.” 《周官》, “有散利薄稅之政而後, 用除盜之法.” 若先其刑法而後其

德政, 是魚肉生民而已, 豈爲民父母乎! 林林而居, 蠡蠡而群, 寒衣而渴飲, 孰不欲仰事俯育, 安其閭而遂其生哉? 然饑寒迫切, 困苦無聊, 小而爲竊盜, 大而爲强盜, 始則嚴刑以弭之, 終亦不勝治矣. 衣食不足, 盜之源也, 政賦繁重, 盜之源也. 不務養民之德, 而欲務止盜之方, 是猶止水而不塞其源也. 今我聖上務耕桑之業, 蠲宿債之徵, 惠養斯民之意至矣. **賣刀買牛之風, 何獨見美於渤海而獨不見於今日,** 外戶不閉之俗, 何獨行於李唐而獨不行於今日乎? 臣見近世盜賊之興, 甚於往昔, 聖上憐憫人命, 必驗贓物, 勿推援引, 在獄致死, 則罷黜官吏, 德至渥也. 然爲政之道, 貴於寬猛相濟, 蓋禮義所以化君子, 刑戮所以威小人, 使知其過而能改, 則小懲大戒, 小人之福也. 其或至於長惡不悛, 則刑故無小, 此聖人之所以不得已也. 眞西山曰, “隋文齊刑以戢盜, 非不嚴也, 盜卒不戢; 唐太宗輕徭薄賦, 開斯民衣食之門數年之間, 山行水宿, 外戶不閉, 其失其得, 可以鑑矣. 物有摠攝, 事有機會, 聖人操得其要, 道之斯行, 止之斯戢, 故不勞而治, 若豮豕之牙也.” 范文正公曰, “夫盜或迫於飢寒, 或驅於苛政, 或怵於誘脅, 起於小而至於大. 苟無小姦, 則豪猾之徒, 無以爲資, 當於始治之.” 方今盜賊日熾, 古人之言可慮, 故敢瀆聖聰, 伏望遠追歷代之策, 近體先王成憲, 國家幸甚. 至是命敍用.

이 앞서 전 부사정(副司正) 이소생(李紹生)이 상서(上書)하기를,
“도적(盜賊)의 근원은 빈궁(貧窮)한 데서 일어나니, 이것은 옛 성철(聖哲)과 명현(明賢)의 역력(歷歷)한 가르침입니다. 계강자(季康子)가 도적을 근심하여 공자(孔子)에게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그대[子]가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비록 상(賞)을 준다 하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관자(管子)》에는 말하기를, ‘예의(禮義)는 부유하고 넉넉한 데서 생기고, 도적(盜賊)은 빈궁(貧窮)하여 일어난다.’ 하였으며, 《우서(虞書)》에는, ‘백성을 양육(養育)하는 덕(德)이 있는 뒤라야 도적을 막는 형벌[刑]이 있다.’고 하였고, 주관(周官)에는, ‘이익을 흘리고 조세(租稅)를 박(薄)하게 하는 정사가 있는 뒤라야 도적을 제거하는 법을 썼다.’ 하였으니, 만약 그 형법(刑法)을 먼저 하고 그 덕정(德政)을 뒤로 한다면 이것은 생민(生民)이 어육(魚肉)이 될 뿐이니, 어찌 백성의 부모(父母)가 되겠습니까? 임림(林林)하게 살고 준준(蠡蠡)하게 무리지어 핫옷[寒衣]을 입고 목이 말라 마시니, 누가 위로하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그 집을 편안히 하고 그 생업을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한(饑寒)이 박절(迫切)하고 곤고(困苦)가 무료(無聊)하여 작게는 절도(竊盜)가 되고 크게는 강도(强盜)가 되니, 처음에는 엄한 형벌로써 그치게 하나 마침내는 또한 다스림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의식(衣食)의 부족(不足)은 도적의 근원이며, 정치와 부세(賦稅)의 번거롭고 무거운 것도 도적의 근원입니다. 백성을 양육하는 덕(德)에 힘쓰지 아니하고 도적을 그치게 하는 방도만을 힘쓰려 하니, 이것은 물[水]만을 그치게 하고 그 근원을 막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경상(耕桑)의 생업을 힘쓰고, 목은 빛의 정수를 건감(蠲減)하니, 이것은 백성을 은혜로 양육하는 뜻이 지극함입니다. **칼[刀]을 팔고 소[牛]를 사는 풍습을 어찌 유독 발해(渤海)에서만 아름답게 보고 홀로 오늘날에는 보지 못하겠으며,** 지계문(外戶)을 닫지 않는 풍속을 어찌 유독 이당(李唐)에서만 행하고 홀로 오늘날에는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신(臣)은 보건대, 근세(近世)에 도적의 흥행함이 그전보다 심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한 것은, 성상(聖上)께서 인명(人命)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장물(贓物)을 징험하여, 추국(推鞠)하여 끌어당기지 말게 하고, 옥(獄)에 있다가 죽기에 이르면 관리(官吏)를 파출(罷黜)하니, 덕(德)이 지극히 우약(優渥)합니다. 그러나 정치(政治)를 하는 도리는 너그럽고 사나운 것[寬猛]을 서로 구제함이 귀중하니, 대개 예의(禮義)는 군자(君子)를 교화하는 것이며, 형륙(刑戮)은 소인(小人)을 위엄하는 것이니, 그 허물을 알아서 고칠 수 있게 하면, 징계(懲戒)를 작게 하여 경계(警戒)를 크게 하는 것이니 소인(小人)의 복(福)입니다. 그 혹 악(惡)한 것을 조장(助長)하여 고치지 못하는 데 이르면, 형고(刑故)가 작지 않으니, 이것은 성인(聖人)의 부득이한 일입니다. 진서산(眞西山)은 말하기를, ‘수(隋)나라는 문(文)으로 하고, 제(齊)나라는 형(刑)으로써 도적을 그치게 한 것이 엄(嚴)하지 않음이 아닌데도 도적의 무리를 그치게 하지 못하였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요역(徭役)을 경(輕)하게 하고 부세(賦稅)를 박(薄)하게 하여서 이 백성의 의식(衣食)의 문(門)을 연지 수년 사이에, 산(山)을 다니고 들에서 자며 지게문을 닫지 않았으니, 그 잃은 것과 그 얻은 것을 귀감(龜鑑)할 수 있다. 물(物)은 총섭(摠攝)함이 있고, 일[事]은 기회(機會)가 있으니, 성인(聖人)은 그 요체를 잡아서 인도하면 잘 행하여질 것이요, 그치게 하면 잘 그쳐지게 되는 까닭에, 수고하지 않아도 다스려짐이 돼지[豮豕]의 어금니[牙]와 같다.’ 하였고, 범 문정공(范文正公)은 말하기를, ‘대저 도적은 혹은 기한(飢寒)에 꺾박하고 혹은 가혹한 정치에 몰리며, 혹은 달래기도 하고 올려대기도 함에 두려워하여 작게 일어났다 큰 데에 이르니, 진실로 소간(小姦)이 없다면 호활(豪猾)한 무리가 자뢰할 수 없으니, 처음 다스리는 데 당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도적이 날로 성하여, 옛사람의 말이 생각할 만한 까닭으로 감히 성충(聖聰)을 번득하였으니, 엿드려 바라건대 멀리는 역대(歷代)의 책략을 추구(追究)하고 가까이선 선왕(先王)의 성문 헌법(成文憲法)을 몸받으시면 심히 국가가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서용(敍用)하도록 명하였다.

▶ 37권 11년 11월 8일 壬子

刑曹啓: “竊盜禁防之法, 至爲詳密, 盜賊未息. 請自今, 竊盜初犯贓物, 公處則米三石, 私處則六石以上者斷筋, 牛馬賊爲從者, 并依此數, 計贓斷筋, 布貨雜物, 則以時直准計之. 京中則明年正月初一日, 近道則二月初一日, 遠道則四月初一日, 定限知會.”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절도를 금하고 막는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엄밀하나 도적은 종식되지 않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절도 초범으로 장물(贓物)이 공처(公處)에서 쌀 3석(石), 사처(私處)에서 6석 이상인 자는 단근(斷筋)하고, 우마(牛馬) 도적에 종범(從犯)이 된 자는 모두 이 수에 의하여 장물을 계산하여 단근하고, 포화(布貨)·잡물(雜物)은 시가(時價)에 준하여 계산하되 경중(京中)은 명년 정월 초1일, 가까운 도는 4월 초1일로 기한을 정하여 알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38권 12년 1월 21일 甲子

甲子/臨瀛大君璆往浴東萊溫井. 御書諭京畿、忠淸、慶尙道觀察使曰: “臨瀛大君之行, 守令躬親支供, 抄給擔夫. 忠淸道慰宴一度, 慶尙道二度, 凡其所需, 惟言之聽. 至於玉石、金銀、七寶所在, 勿防採取.” 又傳于兵曹曰: “臨瀛大君璆往東萊, 所過諸邑守令, 各於境上, 以二隊軍迎送. 溫井留連時, 近處軍士, 以二隊相遞護衛. 如欲打獵, 才人、白丁及驅軍, 不拘多少, 水陸諸將會獵, 以習軍威. 又諸驛, 聽臨瀛發馬.”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동래 온정(東萊溫井)에 목욕하러 가니, 어서(御書)로 경기·충청도·경상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임영대군의 행차에 수령(守令)이 몸소 친히 지공(支供)하고 담부(擔夫)를 골라 줄 것이며, 충청도에서 위연(慰宴)을 한 번 하고, 경상도에서 두 번 하라. 무릇 그 수요(需要)는 그 말대로 들을 것이며, 옥석(玉石)·금은·칠보(七寶)가 있는 곳에 이르더라도 채취하는 것을 막지 말라.”

하고, 또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임영대군 이구가 동래에 가는데, 경과하는 여러 고을 수령은 각각 그 경계에서 두 대(隊)의 군사로써 맞이하고 전송할 것이며, 온정(溫井)에 머물 때에는 근처의 군사가 두 대(隊)로써 서로 교대하여 호위하라. 만일 사냥하고자 하거든 재인(才人)·백정(白丁) 및 구군(驅軍)의 다소(多少)를 가리지 말고, 수륙 제장(水陸諸將)이 모여서 사냥하여 군사의 위엄을 연습하게 하며, 또 여러 역(驛)에서는 임영대군의 말[馬]을 내는 것을 들어주게 하라.” 하였다.

▶ 38권 12년 2월 24일 丙申

兵曹啓: “都草島兼監牧陳孝友牛一百八頭內, 三十八頭死; 露島兼監牧黃善輅馬六百六十八匹內, 二百十四匹死; 龍流島兼監牧閔孝悅馬一百六十四匹內, 五十八匹死; 昇荒島馬八十六匹內, 六十二匹死; 大山串兼監牧朴仲宗馬四百八十四匹內, 一百二十四匹死; 山達島兼監牧洪永河牛七十四頭內, 三十頭死; 元山島兼監牧金莘馬一百匹內, 八匹死; 沙邑時島兼監牧金貴命馬六十四匹內, 十七匹死; 興陽串兼監牧鄭淑馬四百二十五匹內, 三十六匹死; 大小山兼監牧張允愼馬二百三十六匹內, 四十四匹死. 罪在赦前, 雖不得追論, 請依法徵納.”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도초도겸감목(都草島兼監牧) 진효우(陳孝友)는 소 1백 8마리 가운데 38마리가 죽었고, 노도겸감목(露島兼監牧) 황선로(黃善輅)는 말 6백 68필 가운데 2백 10필이 죽었고, 용류도겸감목(龍流島兼監牧) 민효열(閔孝悅)은 말 1백 60필 가운데 58필이 죽었고, 승황도(昇荒島)는 말 86필 가운데 62필이 죽었으며, 대산곶이겸감목(大山串兼監牧) 박중종(朴仲宗)은 말 4백 80필 가운데 1백 20필이 죽었고, 산달도겸감목(山達島兼監牧) 홍영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洪永河)는 소 74마리 가운데 30마리가 죽었고, 원산도검감목(元山島兼監牧) 김신(金莘)은 말 1백 필 가운데 8마리가 죽었고, 사읍시도검감목(沙邑時島兼監牧) 김귀명(金貴命)은 말 60필 가운데 17필이 죽었고, 흥양곶이검감목(興陽串兼監牧) 정숙(鄭淑)은 말 4백 25필 가운데 36필이 죽었고, 대소산검감목(大小山兼監牧) 장운신(張允愼)은 말 2백 36필 가운데 44필이 죽었는데, 죄가 사유(赦宥) 전에 있어서 비록 추론(追論)할 수 없으나, 청컨대 법에 의하여 징납(徵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38권 12년 4월 18일 戊午

傳旨司憲府: “一, 造弓外, 水牛角, 鄉角, 一切痛禁. 一, 雲月兒, 大君用金, 堂上以上用銀. 大白玉及七寶交露金玉, 竝禁; 朱紅黃丹粘, 白羊角銀帶一禁. 一, 磁器, 自今進上外, 公私處行用, 一禁. 京外匠人, 潛隱燔造, 市裏及朝官、庶人家, 私相買賣者, 以違制律論.”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1. 활을 만드는 외에 수우각(水牛角)·향각(鄉角)은 일체 엄금한다.

1. 운월아(雲月兒)는 대군(大君)은 금을 쓰고 당상(堂上)이상은 은을 쓰며, 대백옥(大白玉) 및 칠보교로금옥(七寶交露金玉)과 아울러 주홍황단점(朱紅黃丹粘)을 금하고, 백양각삼대(白羊角銀帶)를 일체 금한다.

1. 자기(磁器)는 이제부터 진상(進上)하는 것 외에, 공사처(公私處)에서 널리 행하여 쓰는 것을 일체 금한다. 경외(京外)에 장인(匠人)이 몰래 숨어서 자기를 만들어 저자 안과 조관(朝官)·서인(庶人)의 집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위제율(違制律)로 논한다.” 하였다.

▶ 38권 12년 4월 30일 庚午

咸吉道觀察使啓: “道內六鎮, 則居民皆入保城內. 鏡城以南居民, 或一里或三四里, 稱爲一里, 多不過十餘戶. 處處散住, 設里門爲難. 前此本道, 盜賊不甚興行, 欄牆、馬廐, 專不遮蔽. 比來牛馬賊, 續續興行, 民家欄牆, 及馬廐牆壁, 務令牢實, 以防寇賊.” 從之.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가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육진(六鎭)에 거주하는 백성은 모두 성(城)안에 입보(入保)하나, 경성(鏡城) 이남에 거주하는 백성은 혹은 1리(里), 혹은 3, 4리인데, 1리라고 일컫는 것이 많아야 10여 호에 불과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이문(里門)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본도(本道)에 도둑이 심하게 다니지 아니하여 울타리·담장·마구를 오로지 막거나 가리지 아니하였는데, 근래에는 마소 도둑이 잇따라 일어나니 민가의 담장과 마구의 담벽을 힘써 튼튼하

게 하여 도둑을 막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41권 13년 1월 4일 辛未

辛未/大司憲梁誠之上書曰：

臣竊惟天生萬民，以食爲命；土養五穀，以牛代耕。故《禮記》稱無故不殺，律文論宰殺有罪。去年以來，外方農牛，屠殺倍古。京中市裏，一日買牛，不下數十，皆用屠宰，得利最厚，以成風俗。臣居南山之下，目擊南山松木之事，請以是反覆比之。南山之松，自定都以後，培養七十餘年，無慮百萬餘株。初則街童巷婦，竊負枯枝枯葉而鬻之；中則因造大倉，稱枯株而伐之；終則近山之人，無問貴賤，白晝成群，馱載生株，或有造家者焉。非徒造家，車載燔瓦之聲，流聞國中。以此伐之幾盡，纔餘人家園中數千株而已。臣愚以爲南山松木，固不可無，亦或可無。中外牛畜，耕食所資，決不可無者也。夫大倉，納穀之器也；牛畜，生穀之具也。若無生穀之牛，則雖有納穀之倉，將安用哉？昔者白丁、禾尺宰之，今則京外良民皆宰之；昔者多以爲筵宴之備而宰之，今則以市裏販賣而宰之；昔者盜於人而宰之，今則買於市而宰之。白丁有數也，而良民無數；筵宴有數也，而販賣無窮；盜殺有數也，而買殺無窮。以有數之牛，行無窮之殺於無窮之日，必如南山之松，盡伐而後已矣。昔爲宰牛賊，今稱去骨匠。閭閻處處，雜居爲之，大小隣里，專不爲怪。如有用肉之事，如取諸市，持價而往，求無不獲。臣聞衆心安定，謂之俗，此風已成矣。非大施刑罰，無以止之。自今限風俗歸正，始依軍法施行。凡宰牛人，勿問盜殺買殺，不分首從，俱卽處死，妻子全家徙邊。告者以財產賞給，自願受職者，超三資敘用。其容止窩主，家舍屬公。士夫則杖一百，永不敘用。庶人則杖一百，全家徙邊。三切隣，及知情賣牛，知情食肉者，亦依上項施行。京中管領，外方勸農，知情不檢舉告官者，亦杖一百，全家徙邊。如是然後，庶幾宰牛之風一變，而農牛不至於絕種矣。方今聖主在上，賢臣在下，言路可謂通矣，而天日之下，都城之松，盡伐無餘。又農牛宰殺，將至於盡。臣每每痛憤，不忍含默，敢冒妄訐之誚，仰塵天聰。伏惟聖慈，恕其狂僭，民生幸甚。

命下詳定所。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하늘이 만백성을 낳아서 먹을 것으로 목숨을 삼게 하고, 땅이 오곡(五穀)을 기르되 소[牛]로써 대신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무고(無故)하게 〈소를〉 살륙하지 말라.’ 하였고, 율문(律文)에도 육축(六畜)을 잡아 죽이면 죄가 된다고 논(論)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래로 외방(外方)의 농우(農牛)가 도살되는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고, 경중(京中)의 저자 안에서 하룻동안에 소를 사는 것이 수십 마리를 내리지 않는데, 이것은 모두 도살한 것을 쓰니, 이익을 취하는 데 가장 후(厚)하여 풍속(風俗)을 이루었습니다. 신이 남산(南山) 밑에 살고 있어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일을 직접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목격하여 이를 반복해서 언급하여 청하는 바입니다. 남산의 소나무는 도읍으로 정한 이후로 70여년 동안이나 가꾸고 길러서 무려 백만(百萬)여 주(株)나 되었는데, 처음에는 거리의 아들과 골목의 부녀자들이 삭정이[枯枝]나 술가리[枯葉]를 몰래 저다가 불을 때었고, 중간에는 큰 창고(倉庫)를 짓기 위하여 말라 죽은 나무라고 칭탁하여 베어냈으며, 나중에는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대낮에 때를 지어 생나무를 바리로 실어다가 간혹 집을 짓는 자가 있었고, 한갓 집만 지을 뿐만 아니라, 수레로 실어다가 기와를 굽는다는 소리가 온 나라 안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별채하였으므로 소나무는 거의 다 없어졌고, 겨우 남은 것이라곤 인가(人家)의 동산 안에 있는 수천 주(株)뿐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남산의 소나무는 진실로 없어서는 안되지만, 설혹 없다면 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외(中外)의 소[牛畜]는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데 자산(資産)이 되니,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저 큰 창고는 곡식을 들여다가 저장하는 그릇이고, 소는 곡식을 생산하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곡식을 생산하는 소가 없다면, 곡식을 들여다 저장하는 창고가 있더라도 이를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옛날에는 백정(白丁)과 화척(禾尺)이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경외(京外)의 양민(良民)들도 모두 이를 잡으며, 옛날에는 흔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 안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잡고, 옛날에는 남의 소를 훔쳐서 이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에서 사서 이를 잡습니다. 백정은 일정한 수(數)가 있으나 양민은 그 수가 무한(無限)하며, 잔치는 일정한 수가 있으나 판매하는 것은 끝이 없으며, 남의 것을 훔쳐서 잡는 것은 일정한 숫자가 있으나 소를 사서 잡는 것은 무궁(無窮)하니, 일정한 수요가 있는 소를 무궁한 날에 끝없이 잡는다면, 반드시 남산의 소나무와 같이 다 벤 다음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소를 잡는 도적[宰牛賊]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거골장(去骨匠)’이라 칭하고, 여염(閭閻)의 곳곳에 잡거(雜居)하면서 소를 잡아도 대소(大小) 인리(隣里)에서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쓸 일이 있어서 저자에서 구하려고 하면, 값을 가지고 가서 구하면 얻지 못함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安定)되어 이를 풍속이라고 이르니, 이러한 풍습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크게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치지를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풍습이 바르게 될 때까지 한(限)하여 우선 군법(軍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무릇 소를 잡은 사람은 도둑질하여 잡았거나 사서 잡았거나를 불문하고 수종(首從)을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즉시 사형에 처하되, 그 처자(妻子)와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소를 잡는 것을 고(告)한 자는 재산(財産)으로써 상(賞)을 주되, 벼슬로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세 자급(資級)을 뛰어서 서용(敍用)하고, 그 와주(窩主)를 용납하여 머무르게 한 자는 가사(家舍)를 관가에 속하게 하며, 사대부(士大夫)는 장(杖) 1백 대에 영원히 벼슬에 서용(敍用)하지 말고, 서인(庶人)은 장 1백 대를 때려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삼절린(三切隣)과 정실(情實)을 알고도 소를 판 사람이나 정실을 알고 고기를 먹은 자도 역시 상항(上項)의 예(例)에 따라 시행하고, 경중(京中)의 관령(管領)과 외방(外方)의 권농(勸農)으로 그 정실을 알고도 검거(檢舉)하지 않았거나 관가에 고하지 아니한 자도 역시 장 1백 대를 때려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소서.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면, 거의 소를 잡는 풍속이 아주 달라져 농우(農牛)가 절종(絶種)하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성주(聖主)께서 위에 계시고, 어진 신하들이 아래에 있어 언로(言路)가 가히 통(通)한다고 이를 만한데, 천일지하(天日之下)에 도성(都城)의 소나무가 모두 베어져 남은 것이 없고, 또 농우(農牛)가 도살(屠殺)되어 장차 절종(絶種)에 이르게

되었으니, 신은 매양 통분(痛憤)함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감히 망령된 언사(言辭)를 무릅쓰고 우러러 천聰(天聰)을 더럽히니, 엿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로 광망(狂妄)하고 참람(僭濫)됨을 용서하여 주시면 민생(民生)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하니, 명하여 상정소(詳定所)에 내리게 하였다.

▶ 41권 13년 3월 5일 庚午

慶尙道體察使曹錫文等啓曰: “臣等觀本道諸鎮置軍便否, 若於晉州鎮, 合泗川鎮軍, 置二旅; 安東、尙州兩鎮, 設節度副使, 置二旅; 迎日鎮, 合寧海鎮, 置二旅; 東萊、熊川兩鎮, 各置三旅; 巨濟、南海兩鎮, 各置二旅; 左右道節度使營, 各置四旅, 則庶幾應援得宜, 兵勢益壯, 實爲長策. 但南海鎮, 環海絕島, 四面受敵, 而常以縣南城峴爲賊路要衝, 悉軍以禦. 官府糧餉兵器, 則皆在城中, 而無一人守之, 殊失措置. 請自今謹烽燧遠斥候, 令軍士盡守城中.” 又啓: “密陽府守山堤屯田農夫, 請以本府居諸司奴七十名, 除番上役之. 農牛勿令諸邑分養, 而用屯田之穀, 養於本府. 監考等, 如有盡心農務, 得穀萬石者, 論賞; 其不致意, 所得最少者, 科罪. 又以省峴道察訪, 兼任監之.” 皆從之.

경상도체찰사(慶尙道體察使) 조석문(曹錫文)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본도(本道)의 여러 진(鎭)에 군사를 배치한 편부(便否)를 살펴보니, 만약에 진주진(晉州鎭)에 사천진(泗川鎭)의 군사를 합하여 2려(旅)를 두고, 안동진(安東鎭)·尙주진(尙州鎭)의 두 진(鎭)에 절도 부사(節度副使)를 설치하여 2려를 두고, 영일진(迎日鎭)에 영해진(寧海鎭)을 합하여 2려를 두고, 동래진(東萊鎭)·웅천진(熊川鎭)의 두 진에 각각 3려를 두고, 거제진(巨濟鎭)·남해진(南海鎭) 두 진에 각각 2려를 두고, 좌도절도사영(左道節度使營)과 우도절도사영(右道節度使營)에 각각 4려를 두면, 거의 응원(應援)하는 데 적의(適宜)함을 얻게 되고 군사의 형세가 더욱 왕성하게 될 것이니, 실로 장책(長策)입니다. 그러나 남해진(南海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도(絶島)라서, 사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도 한상현(縣)의 남쪽 성현(城峴)을 적로(賊路)의 요충지(要衝地)로 여겨 모든 군사가 다 이곳을 방어하지만, 관부(官府)의 군량[糧餉]과 병기(兵器)는 모두 성(城) 안에 있는데 한 사람도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니, 방어에 대한 조치(措置)를 매우 잃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봉수(烽燧)를 삼가고 멀리 척후(斥候)를 보내고, 군사들은 모두 성 안을 지키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밀양부(密陽府) 수산제(守山堤) 둔전(屯田)의 농부(農夫)는 청컨대 본부(本府)에 거주하는 제사(諸司)의 중[奴] 70명으로 하여금 번상(番上)하는 것을 면제하여 사역시키고, 농우(農牛)는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지 말게 하고, 둔전의 곡식을 써서 본부에서 기르도록 하고, 감고(監考) 등이 만약에 마음을 다하여 농사에 힘써서 곡시 1만 석을 내게 한 자가 있으면 논(論)하여 상(賞)을 주고,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가장 적게 낸 자는 죄를 주소서. 그리고 또 성현도찰방(省峴道察訪)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兼任)하여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43권 13년 7월 21일 甲申

其金、蒙寵介知、金同良、金奉回還。鏡城官奴永安・仲生、慶源官奴寶仲隨來，召見之。永安等啓曰：“五鎭之民，皆爲李施愛脅從，不知逆順。及見其金等齎去諭書，衆疑稍解，不應施愛徵兵，猶未盡信，使我輩細探朝廷消息，故來。”上曰：“將付汝諭書遣之。”遂賜永安等衣笠等物，其金等綿布各三十匹。穩城軍民等，使其金回啓曰：“今觀諭書，速捕施愛，獻馘軍前，臣等伏審聖旨，謹作事目，條列于後。一，康孝文聚水、陸軍，反逆之謀，已騰衆口。去四月兵船十三艘，來泊慶源厚羅土島，平安、江原兩道兵亦聚本道，欲盡殺居民，遂爲不軌。施愛密知其謀，討殺孝文及府使宋碩孫、判官金巖，將禦水、陸之兵，移文諸邑，徵會軍士而已，略無反逆之心，故未敢捕捉。一，孝文以方面主將，依憑築城，正當農月，於鍾城行營，大興土木，累月留連，虞候、評事、軍官、伴人、女妓、僕隸，從者如雲，擬於行幸，僭越莫甚。自慶興至五鎭，率十五日一次供饋，一次所需米穀，摠八十餘石，餘物稱是。官府蕩盡，民家雞犬亦爲之一空，日殺一牛爲饌，宴飲則二牛猶爲不足，濫刑供給之人。

이하생략~

기금(基金)·몽충개지(蒙寵介知)·김동량(金同良)·김봉(金奉)이 되돌아왔다. 경성 관노(鏡城官奴) 영안(永安)·중생(仲生)과 경원 관노(慶源官奴) 보중(寶仲)이 따라왔으므로, 임금(王)이 이들을 불러서 보니, 영안 등이 아뢰기를,

“5진(五鎭)의 백성들이 모두 이시애(李施愛)에게 협박당하여 따르는 것이지, 역순(逆順)을 알지 못합니다. 기금(基金) 등이 가지고 간 유서(諭書)를 보자, 여러 사람들의 의심이 조금 풀려서 이시애의 징병(徵兵)에 응(應)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다 믿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세히 조정(朝廷)의 소식(消息)을 탐지하게 하였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너에게 유서(諭書)를 부쳐서 보내겠다.”

하고, 드디어 영안(永安) 등에게 옷·갓[笠] 등의 물건을 내려 주고, 기금(基金) 등에게 면포(綿布) 각각 30필을 내려 주었다. 온성(穩城) 군민(軍民) 등이 기금(基金)을 시켜서 회계(回啓)하기를,

“지금 유서(諭書)를 보니, 이시애(李施愛)를 속히 잡아서 그 목을 군대 앞에 바치라 하였는데, 신 등이 엿드려 성지(聖旨)를 살펴보고 삼가 사목(事目)을 받들어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강효문(康孝文)이 수군(水軍)·육군(陸軍)을 모아서 반역(反逆)할 것이라는 음모(陰謀)가 이미 여러 사람의 입에 올랐으며, 지난 4월에 병선(兵船) 13척이 경원(慶源) 후라도도(厚羅土島)에 와서 정박(碇泊)하였고, 평안도(平安道)·강원도(江原道) 두 도(道)의 군사들도 또한 본도(本道)에 모여서, 거주민(居民)을 다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시애가 비밀히 그 음모를 알고서, 강효문(康孝文)과 부사(府使) 송석손(宋碩孫)·

관관(判官) 김암(金巖)을 토벌하여 죽이고, 장차 수군·육군의 군사를 막으려고, 여러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군사(軍士)들을 징발하여 모았을 뿐이요, 조금도 반역(反逆)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히 체포하지 못합니다.

1. 강효문(康孝文)이 한 지방의 주장(主將)으로서 축성(築城)한다고 핑계하고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중성 행영(鐘城行營)에서 토목(土木)을 크게 일으켜, 여러 달 동안 유련(留連)하면서, 우후(虞候)·평사(評事)·군관(軍官)·반인(伴人)·여기(女妓)·복레(僕隸)·종자(從者)가 구름 같아서 임금의 행차와 비슷하였으니, 그 참월(僭越)하기가 막심(莫甚)하였습니다. 경흥(慶興)에서부터 5진(五鎭)에 이르기까지 모두 15일에 한 차례씩 공궤(供饋)하고, 한 차례씩 수급(需給)한 미곡(米穀)이 총 80여 석(石)이었고, 그 나머지 물건도 이와 같았으므로, 관부(官府)가 탕진(蕩盡)되고 민가(民家)의 닭과 개 등이 이 때문에 하나같이 없었졌으며, 날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찬(饌)으로 만들었고, 연음(宴飲)할 때에는 소 두 마리도 오히려 부족(不足)하다고 공급(供給)하는 사람을 합부로 형벌하였습니다.

이하생략~

▶ 43권 13년 9월 14일 丙子

上幸大平館，設下馬宴．令通事李興德語白顥曰

~중략~

又曰：“世人種樹既成，虎來乳子，因傷養樹主人，今賊農牛農器婚嫁所需，皆是皇帝恩賜，今反害上國邊民，又犯貴國，正是惡極滅亡之期．”上曰

~중략~

顥曰：“物雖固，有時而弊．至如顥向殿下之心，銘刻於骨，沒身何忘？彼見物而後思人者，亦末耳．”應反覆請之，終不受曰：“顥，遼東一介賤人，與殿下對坐陪宴，榮亦足矣．又何所望？”應又於頭目處，欲以鴉青緇布單直身、白苧布帖裏、柳青綿紬襦帖裏、草綠綿紬襦帖裏、白絲綿紬襦裏肚、白綿布單帖裏各一領、寢席各二張、油芭各一部、油籠各五事、摺扇各十把、馬皮靴各一雙、草笠各一頂、鴉青段子貂皮冠各一事、鴉青段子貂皮耳掩各一事、白苧布、黑麻布各五匹、牛皮箭家箭具各一部、角弓各一張、綵囊各一事、甲各一領、兜鍪各一頂、鑼鍋各一事贈之．謂顥曰：“大人既不受，薄物請贈下人．”顥曰：“我已不受，彼豈敢受？”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을 베풀고 통사(通事) 이흥덕(李興德)으로 하여금 백옹(白顥)에게 말하기를,

~중략~

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 이미 무성하면 호랑이가 젖먹이[乳子]에게 나오고, 인하여 나무를 심은 주인(主人)도 상(傷)하게 한데, 지금 적(賊)들은 농우(農牛)·농기(農器)와 혼가(婚嫁)의 수요(需要)를 모두 황제(皇帝)께서 은사(恩賜)한 것인데, 지금 도리어 중국의 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방(邊方) 백성들을 해치고 또 귀국(貴國)을 침범하니, 바로 악(惡)이 지극하여 멸망(滅亡)할 시기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략~

백옹이 말하기를,

“물건이 비록 견고(堅固)하더라도 때에 있어서는 폐단이 있습니다. 백옹의 전하(殿下)를 향하는 마음에 이르러서는 뼈에 깊이 새기고 몸이 죽더라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가 물건을 보고 난 뒤에 사람을 생각하는 자이면 또한 말류(末流)입니다.”

하니, 홍응이 반복하여 이를 청하였으나 끝내 받지 아니하고서, 말하기를,

“백옹은 요동(遼東)의 일개 천인(賤人)인데, 전하와 더불어 대좌(對坐)하여 잔치를 모시니 영광(榮光)이 또한 족한데,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였다. 홍응이 또 두목(頭目)들이 있는 곳에 아청면포 단직신(鴉靑綿布單直身)·백저포 철릭(白苧布帖裏)·유청면주 유철릭(柳靑綿紬襦帖裏)·초록면주 유철릭(草綠綿紬襦帖裏)·백사면주 유과두(白絲綿紬襦裹肚)·백면포 단철릭(白綿布單帖裏) 각각 1령(領), 침석(寢席) 각각 2장(張), 유둔(油屯) 각각 1부(部), 유룽(油籠) 각각 5사(事), 접선(摺扇) 각각 10과(把), 마피화(馬皮靴) 각각 1쌍(雙), 초립(草笠) 각각 1정(頂), 아청단자 초피관(鴉靑段子貂皮冠) 각각 1사(事), 아청단자 초피이엄(鴉靑段子貂皮耳掩) 각각 1사(事), 백저포(白苧布)·흑마포(黑麻布) 각각 5필(匹), **우피 전가 전구(牛皮箭家箭具) 각각 1부(部)**, 각궁(角弓) 각각 1장(張), 채낭(綵囊) 각각 1사(事), 갑옷 각 1령(領), 투구[兜鍪] 각각 1정(頂), 나과(羅鍋) 각각 1사(事)를 주고자 하여, 백옹에게 이르기를, “대인(大人)께서 이미 받지 않았으니, 박물(薄物)을 하인(下人)에게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백옹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받지 않았는데, 저들이 어찌 감히 받겠습니까?” 하였다.

▶ 44권 13년 10월 27일 己未

己未/世子率六功臣，會盟于北壇。其儀：

王世子散齋四日，致齋三日，諸功臣執事官及侍從官，應從升者，竝散齋四日，致齋三日。前二日，典設司設王世子次於壇外之南近東西向，設諸功臣次於壇外東南北向，設饌幔於壇東。前一日，典儀設王世子版位於壇下道東近南北向，贊者設諸功臣【親功臣及六功臣親子、嫡長。下同。】位於壇南重行北向，西上。【用爵秩。】又設典儀、贊者、贊引位於東階西近北西向，北上。**掌牲令牽大、小牢及盟牲，【牡、雞、豕。】詣誓所。典祀案率宰人，割大、小牢如常，**設盟牲坎於壇北壬地，方深取足容物。設血盤案於壇下之西。其日未行事前，典祀官設神位於壇上南向，席以莞，奠誓文於神位之右。【有玷。】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牲匣，以西爲上。【先牛，次羊，次豕，并藉以莞席。】爵一在牲匣前，【有玷。】設尊於壇上東南隅北向，加勺罍，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槃匱。】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有玷。】又設執事盥洗於東南北向

이하생략~

세자(世子)가 6공신(功臣)을 거느리고 북단(北壇)에서 회맹(會盟)하였다. 그 의주(儀注)는 이러하였다.

“왕세자는 산재(散齋)가 4일이고 치재(致齋)가 3일이며, 여러 공신(功臣)과 집사관(執事官)과 시종관(侍從官)으로서 응당 따라서 올라갈 자는 모두 산재(散齋)가 4일이고 치재(致齋)가 3일이다. 전 2일에 전설사(典設司)에서 왕세자(王世子)의 위치(位次)를 단(壇) 밖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여러 공신(功臣)의 위치(位次)를 단(壇) 밖의 동남쪽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하고, 찬만(饌幔)은 단(壇)의 동쪽에 설치한다. 전(前) 1일에 전의(典儀)가 왕세자(王世子)의 판위(版位)를 단(壇) 아래 길 동쪽으로 남쪽 가까이 북향(北向)하여 설치하고, 찬자(贊者)가 여러 공신(功臣)의 【친공신(親功臣)과 6공신(功臣)의 친자(親子)·적장(嫡長)이다. 아래도 이와 같다.】 자리를 단(壇) 남쪽에 겹줄로 북향(北向)하여 설치하되 서쪽이 위가 된다. 【작질(爵秩)을 사용한다.】 또 전의(典儀)·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를 동쪽 계단의 서쪽에 북쪽 가까이 서향(西向)하여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된다. 장생령(掌牲令)이 대뢰(大牢)·소뢰(小牢)와 회맹(會盟)의 희생(犧牲)을 【소·닭·돼지이다.】 이끌고 서소(誓所)에 나아간다.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대뢰(大牢)·소뢰(小牢)를 할육(割肉)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하고, 회맹의 희생을 묻을 구덩이[坎]를 단(壇) 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설치하는데, 모나게 깊이 파서 제물(祭物)을 수용할 만하게 한다. 혈반안(血盤案)을 단(壇) 아래 서쪽에 설치한다. 그날 아직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신위(神位)를 단(壇) 위에 남향(南向)하여 설치하되, 왕골자리를 깔고 서문(誓文)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전(奠)드린다. 【점(玷)이 있다.】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생갑(牲匣)을 설치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먼저 소이고 다음이 양(羊)이고 다음이 돼지인데, 모두 완석(莞席)을 깔다.】 작(爵) 하나를 생갑(牲匣) 앞에 두고 【점(玷)이 있다.】 전(奠)을 단(壇) 위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하는데, 작(勺)과 떡(稾)을 가(加)하고 세(洗)를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槃匜)가 있다.】 뇌(壘)가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작(勺)을 가(加)하고 비(篋)가 세(洗)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 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篋)면 작(爵)을 담고 점(玷)이 있다.】 또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를 동남쪽에 북향(北向)으로 설치한다.

이하생략~

▶ 44권 13년 11월 9일 辛未

辛未/都承旨權孟禧奉書于承政院以啓曰：

臣於本月初五日到安州，與奏聞使高台弼、謝恩使趙瑾，點檢北征諸將所獲物件，其中主將單子所錄朝謝，乃福先男察述襲爵勅書也。而與家產雜物，例錄未安，欲於空押，禮部遼東等咨文，計開第一行，別行填云：“建州衛指揮僉事故福先男察述襲爵勅旨一道。”而奏本不及勅旨，恐相違異，請改書奏本以送。然奏本咨文，詳略不同，奏本則仍舊，咨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文則改書何如? 且虜獲頭畜內, 馬十八匹, 而見到者十七匹, 牛十五頭, 而見到者十頭, 皆先到義州, 故臣未得親點. 今謄寫前件勅旨以進, 一一轉啓.

承政院將此以啓, 卽命高靈君申叔舟、承文院提調李邊·宋處寬·田桐生等議之, 爲書以報云:

遼東回答及禮部咨, 計開第一行, 宜添入建州衛故指揮僉事福先男察述襲職勅諭一道. 從今送立筭內, 黃標書之字樣, 則一依勅諭本文. 汝所齎空押, 只一番, 故今加送二番, 隨宜用之. 奏本仍舊爲可, 但今所啓牛馬之數, 慮或與奏本所錄不同, 故又送空押, 奏本二番, 其以見在實數填寫.

도승지(都承旨) 권맹희(權孟禧)가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받들어 아뢰기를,

“신이 이달 초5일에 안주(安州)에 이르러, 주문사(奏聞使) 고태필(高台弼)과 사은사(謝恩使) 조근(趙瑾)과 더불어 북정(北征)한 여러 장수가 노획(虜獲)한 물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장(主將)의 단자(單子)에 기록된 조사(朝謝)는 곧 복선(福先)의 아들 찰술(察述)의 습작(襲爵)하는 칙서(勅書)였는데, 가산(家産) 잡물(雜物)과 더불어 예대로 기록하기가 미안(未安)하여 공압(空押)에다 예부(禮部)의 요동(遼東) 등의 자문(咨文)의 목차(目次) 제1행에 별행(別行)으로 채워 넣어, ‘건주위지휘첨사(建州衛指揮僉事) 고(故) 복선(福先)의 아들 찰술(察述)의 습작(襲爵)하는 칙서(勅書) 1통’이라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본(奏本)이 칙지(勅旨)에 미치지 못하여 서로 어긋남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주본(奏本)을 고쳐 써서 보내소서. 그러나 주본과 자문(咨文)이 상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않은데, 주본(奏本)은 옛날 그대로 두고, 자문(咨文)은 고쳐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노획한 두축(頭畜) 가운데 말이 18필(匹)이었으나, 지금 도착한 것은 17필(匹)이었고, 소는 15두(頭)였으나 지금 도착한 것은 10두(頭)였는데, 모두 의주(義州)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신이 친히 점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건(前件)의 칙지(勅旨)를 등사(謄寫)하여서 바치니, 일일이 전(轉)하여 아뢰어 주소서.”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뢰니, 즉시 고령군(高靈君) 신죽주(申叔舟),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 이변(李邊)·송처관(宋處寬)·전동생(田桐生) 등에게 명하여 이를 의논하고, 글을 만들어서 회보(回報)하여 이르기를, “요동(遼東)의 회자(回答)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서 목차(目次) 제1행에 마땅히 ‘건주위(建州衛) 고(故) 지휘첨사(指揮僉事) 복선(福先)의 아들 찰술(察述)의 습작(襲職)하는 칙유(勅諭) 1통’을 첨가하여 넣고, 지금 보내는 입차(立筭) 가운데 황표(黃標)로 쓰는 글자 모양은 한 결 같이 칙유(勅諭)의 본문(本文)에 의거하고, 네가 가진 공압(空押)은 다만 1번(番)이기 때문에 지금 2번(番)을 더 보내니, 적당하게 사용하라. 주본(奏本)은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가(可)하나, 다만 지금 아뢴 우마(牛馬)의 숫자가 주본(奏本)에 기록된 것과 같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또 공압(空押)을 보내니, 주본(奏本) 2번에 그 현재 있는 실제 숫자를 가지고 채워 쓰라.”하였다.

▶ 45권 14년 1월 16일 丁丑

掌苑署別監金好山·張孝之、都摠府羅將盧仁達、奴於里大·權伊·貴同·豆含、刑

曹書吏尹呂、兵曹奴鄭萬等，密封以啓：

一，部將所假書員十三人，擅放正兵，受賂事。一，白丁白珠、樂工牟貴同、補充軍李山、鎭撫所書員玄有·金楊善、水原鄉吏俞仲玄、羅將朴成未、良人洪老·崔有之·尹好山·金揮·崔仲文·池敬、私奴姜山·吾左未等，自代正兵立番，部將等以此人等，爲假書員，一委軍務。一，正兵以他人代之者甚多，令大臣一點閱，視號牌事。上令都摠府，拿致部將所假書員等。

장원서 별감(掌苑署別監) 김호산(金好山)·장효지(張孝之), 도총부 나장(都摠府羅將) 노인달(盧仁達), 종[奴] 어리대(於里大)·권이(勸伊)·귀동(貴同)·두함(豆含), 형조 서리(刑曹書吏) 윤여(尹呂), 병조(兵曹)의 종[奴] 정만(鄭萬) 등이 밀봉(密封)하여 아뢰기를,

“1. 부장소(部將所)의 가서원(假書員) 13인이 함부로 정병(正兵)을 놓아, 뇌물을 받은 일이고,

1. 백정(白丁) 백주(白珠), 악공(樂工) 모귀동(牟貴同), 보충군(補充軍) 이산(李山), 진무소 서원(鎭撫所書員) 현유(玄有)·김양선(金楊善), 수원 향리(水原鄉吏) 유중현(俞仲玄), 나장(羅將) 박성미(朴成未), 양인(良人) 홍노(洪老)·최유지(崔有之)·윤호산(尹好山)·김휘(金揮)·최중문(崔仲文)·지경(池敬), 사노(私奴) 강산(姜山)·오좌미(吾左未) 등은 스스로 정병(正兵)의 입번(立番)을 대신하고, 부장(部將)들은 이 사람들로써 가서원(假書員)을 삼아 일체의 군무(軍務)를 맡기었으며,

1. 정병(正兵)을 다른 사람으로써 대신하는 자가 심히 많으니,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일일이 점열(點閱)하게 하고, 호패(號牌)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도총부(都摠府)로 하여금 부장소(部將所)의 가서원(假書員) 등을 나치(拿致)하게 하였다.

▶ 45권 14년 2월 26일 丁巳

丁巳/傳旨義禁府曰：“沔川郡守金自省、前結城縣監韓玉山等，鞫白丁申哲山時，指爲水精寺強盜，初執石乙石妻，一不取招而放之。又所探現贓布衣裏布，非不足而不問，補以斑布之由，又不問斑布所餘多少，去處又不問。裁縫人且壯者皆散，而只捕微弱申哲山，拷訊勒招。又不問其帖裏不多，日問急急縫造之由，又不問帖裏乃自己所有，或是得於他處。又不問帖裏爲自己所着而縫之，或是他人爲自己所着而縫之，又無標斑布及負索，必目爲水精寺僧之物，質之爲贓。又哲山年少，而於招辭書以二十二歲，洪州判官朴元忠、保寧縣監崔塙等再覈時，一從金自省等，不詳悉讞問之案，抑勒取招，其各鞫問以啓。”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면천군수(沔川郡守) 김자성(金自省)·전 결성현감(結城縣監) 한옥산(韓玉山) 등은 백정(白丁) 신철산(申哲山)을 국문(鞫問)할 때에 지목하여 수정사(水精寺)의 강도(強盜)로 삼고는 처음에 석을석(石乙石)의 아내를 잡아다가 하나도 취초(取招)하지 아니하고 방면하였고, 또 찾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아서 드러난 장물(贓物)의 포의(布衣)의 이포(裏布)가 부족(不足)한 것이 아닌데도 묻지 않았으며, 반포(斑布)로써 기운 연유를 또 묻지 아니하였고, 반포(斑布)의 남은 것의 다소(多少)도 간 곳을 또 묻지 아니하였다. 재봉(裁縫)한 사람도 또 건장한 자는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는데, 단지 미약한 신철산(申哲山)만을 잡아 억지로 문초하며 고신(拷訊)하였고, 또 그 첩력(帖裏)이 많지 않은 것은 불문하고 날로 급급하게 꿰매어 만든 연유만을 물었으며, 또 첩력은 곧 자기(自己) 소유인지 혹은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인지도 묻지 아니하였다. 또 첩력은 자기가 입을 것을 꿰맨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입을 것을 꿰맨 것인지와, 또 반포(斑布)와 부색(負索)에 표지가 없는 것은 묻지도 않고서, 반드시 수정사(水精寺) 중[僧]의 물건이라 지목하여 질정하여 장물(贓物)을 삼았다. 또 신철산은 나이가 어린데도 초사(招辭)에 22세로 썼으며, 홍주판관(洪州判官) 박원충(朴元忠)·보령현감(保寧縣監) 최각(崔瓘) 등은 다시 핵실할 때에 한 결 같이 김자성(金自省) 등이 자세히 알지도 못한 언문(讞問) 한 안(案)을 따라 억지로 취초(取招)하였으니, 그것을 각각 국문(鞫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 45권 14년 3월 2일 壬戌

咸吉北道節度使許琮, 遣虞候李惇仁馳啓: “唐女三之、莫只被擄野人, 轉賣於柳尙冬哈, 逃來鍾城, 尙冬哈來言曰: ‘我以牛馬購奴婢, 若不及還, 親操耒耜必矣, 乞還之.’” 命申叔舟、具致寬等, 議還給便否. 叔舟等對曰: “彼人若曰非唐人, 則可還, 既稱唐人, 彼雖請之甚勤, 豈可還給?” 卽命叔舟等爲書, 諭許琮及觀察使魚世恭曰:

被擄逃來唐女三之、莫只, 依舊例上送. 而召柳尙冬哈諭之曰: “汝之婢子, 何不護視, 使之亡命乎? 是汝之過也. 今既逃來, 衆目所視, 雖欲還給得乎? 況前年所擄遼東人, 大明責還方急, 三之等皆前年所掠, 非汝久使婢子也. 汝本有功, 予所厚待, 今特憐汝, 命給鹽十石、綿布二十四, 汝其知之.” 如是開說, 今後近居野人等, 若曰非唐人者, 還給爲可.

함길북도절도사(咸吉北道節度使) 허종(許琮)이 우후(虞候) 이돈인(李惇仁)을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 “중국 여자[唐女] 삼지(三之)·막지(莫只)는 야인(野人)에게 사로잡혀서 유상동함(柳尙冬哈)에게 전매(轉賣)되었다가 도망하여 종성(鍾城)에 왔는데, 유상동함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우마(牛馬)로써 노비(奴婢)를 구입(購入)하였으니,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몸소 쟁기를 잡아야 할 것은 틀림없으니, 빌건대 돌려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신숙주(申叔舟)·구치관(具致寬) 등에게 돌려주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이 만약 중국인[唐人]이 아니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것도 가하겠지만, 이미 중국인이라 일컬었으니, 저가 비록 청하는 것이 심히 근실(勤實)하더라도 어찌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므로, 명하여 신숙주 등에게 글을 만들게 하여, 허종(許琮)과 관찰사(觀察使) 어세겸(魚世謙)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도망온 중국 여자 삼지(三之)·막지(莫只)는 구례(舊例)에 따라 올려 보내고, 유상동함(柳尙冬哈)을 불러 유시하기를,

‘너의 비자(婢子)를 어찌 보호하지 못하고 망명(亡命)하게 하였느냐? 이것은 너의 과실이다. 이제 이미 도망은 것을 많은 무리의 눈으로 보았으니, 비록 돌려주려고 해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지난해에 사로잡혔던 요동인(遼東人)도 명(明)나라에서는 돌려보내라는 재촉이 바야흐로 급한데, 삼지(三之) 등은 모두 지난해에 약탈한 것이니, 네가 비자(婢子)로 오래 부리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본시 공(功)이 있어 내가 후대(厚待)하였으며, 이제 특별히 너를 어엿비 여겨, 명하여 소금[鹽] 10석(石)과 면포(綿布) 20필(匹)을 주니, 너는 그것을 알라.’ 하고, 이와 같이 달래되, 금후로는 가까이에서 사는 야인(野人)들이 만약에 중국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돌려주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 45권 14년 3월 3일 癸亥

癸亥/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觀察使李季專曰: “水原囚人崔敬之、振威囚人崔敬孫、龍仁囚人崔有霖、南陽囚人崔玉泉·李無作、安山囚人北間等, 待還宮後, 差人押送于京.” 又馳書忠清道觀察使安哲孫曰: “公州囚人白丁佛丹等六名, 差人押送行在所.”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수원수인(水原囚人) 최경지(崔敬之), 진위수인(振威囚人) 최경손(崔敬孫), 용인 수인(龍仁囚人) 최유림(崔有霖), 남양수인(南陽囚人) 최옥천(崔玉泉)·이무작(李無作), 안산수인(安山囚人) 북간(北間) 등은 환궁(還宮)을 기다린 뒤에 사람을 임명해서 서울에 압송(押送)하게 하라.”하고, 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안철손(安哲孫)에게 치서하기를,

“공주수인(公州囚人) 백정(白丁) 불단(佛丹) 등 6명은 사람을 임명해서 행재소(行在所)에 압송(押送)하게 하라.”하였다.

▶ 45권 14년 3월 7일 丁卯

義禁府啓: “前沔川郡事金自省、結城縣監韓玉山, 以白丁申哲山, 爲强盜鞠之, 而不察疑辭, 遽加拷訊, 抑勒取招. 洪州判官朴元忠、保寧縣監崔塙等, 以考覈官, 蹈襲前案, 不更分辨罪, 應杖七十徒一年半.” 命已經赦, 只罷其職. 義禁府又啓曰: “前海美縣監李季禧, 率軍捕賊之時, 使姜思孝, 射白丁延壽致死, 罪應杖一百.” 命收告身.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면천군사(沔川郡事) 김자성(金自省)·결성현감(結城縣監) 한옥산(韓玉山)은 백정(白丁) 신철산(申哲山)을 강도(强盜)라 하여 국문(鞫問)하였으면서도 의심되는 말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고신(拷訊)을 가하여 억지로 취초(取招)하였고, 홍주판관(洪州判官) 박원충(朴元忠)·보령현감(保寧縣監) 최각(崔塙) 등은 고복(考覆)하는 관리로서 전안(前案)을 답습하고 다시 분변(分辨)하지 않았으니, 죄가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半)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이미 사유(赦宥)를 지냈으므로 단지 그 직임만 파(罷)하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아뢰기를, “전 해미현감(海美縣監) 이계희(李季禧)가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을 잡을 때에, 강사효(姜思孝)로 하여금 백정(白丁) 연수(延壽)를 쏘아서 치사(致死)케 하였으니, 죄가 장(杖) 1백 대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였다.

▶ 45권 14년 3월 27일 丁亥

贈日本國王牛黃四部. 藥師寺助緣, 綿布·麻布各二千匹, 綿紬五百匹, 并其寺額字.

일본 국왕(日本國王)에게 우황(牛黃) 4부(部)와 약사사(藥師寺)의 도와주는 것으로 면포(綿布)·마포(麻布)·각각 2천 필(匹), 면주(綿紬) 5백 필과 그 절의 액자(額字)를 아울러 주었다.

▶ 46권 14년 4월 2일 辛卯

試文科于慶會樓池邊. 策曰:

道有升降, 政由俗革, 自古願治之主, 非不欲化隆俗美也, 而常患人心漸薄, 風俗日漓, 其故何耶? 盜賊之源, 皆曰起於貧窮, 今之爲盜者, 率皆豪悍之徒, 其間才人、白丁, 十常八九, 雖使與平民雜處, 尙不從化. 數百年來, 自成一俗, 根株既未可盡去, 不去則寇盜不絕, 將何術以處之? 且刑以誥姦去暴, 而必欲窮治, 則官吏有濫刑之弊, 不嚴考訊, 則姦暴無伏辜之理, 欲使刑不濫而情必輸, 亦何術以致之? 聽民告訴, 欲其伸冤, 抑達下情也, 而告訐成風, 雖不干自己之冤, 部民訴守令, 胥徒告官吏. 欲禁之, 則言路塞, 而冤抑莫伸; 盡聽之, 則上下相陵, 而風俗日壞, 將何處而可乎? 此三者, 皆當世急務, 稽之於古, 亦皆有之, 子大夫講之熟矣, 援古證今, 悉陳無隱.

문과(文科)를 경회루(慶會樓) 못가에서 시험하였는데, 책문(策問)에 이르기를,

“도(道)는 오르고 내림이 있고 정사는 풍속을 개혁함에 말미암으니, 예로부터 다스리는 임금의 원(願)은 교화가 융성하고 은혜 입히는 것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항상 인심(人心)이 점점 박(薄)하고 풍속이 날로 병들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도적의 근원은 모두 빈궁(貧窮)한 데서 일어난다고 하나, 지금의 도적질을 하는 자는 모두 호한(豪悍)한 무리를 거느려, 그 사이에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은 10에 8, 9가 되니, 비록 평민(平民)과 섞이어 살더라도 오히려 교화가 따르지 못하였다. 수백 년 이래에 스스로 한 풍속을 이루어 뿌리를 다 제거할 수가 없었으니, 제거하지 않으면 도적이 끊이지 않는데 장차 무슨 방법으로 처리 하겠는가? 또 형벌로써 간사함을 깨우치고 포악함을 제거하여 반드시 다 다스리려 하면, 관리(官吏)가 형벌을 남용(濫用)하는 폐단이 있으며, 엄하게 고신(拷訊)하지 않으면 간사하고 포악한 것이 허물을 굴복할 리가 없으니, 형벌을 남용하지 않게 하고 실정을 반드시 나타내려는 것도 또한 무슨 방법으로 이루겠는가? 백성의 고소(告訴)를 듣고 그 원통함을 펴서 문득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하게 하려 하나, 고발하고 들춰내는 것이 풍

속이 되니, 비록 자기의 원통함이 간여되지 않았더라도 부민(部民)이 수령(守令)을 고소하고, 서리(胥吏)가 관리(官吏)를 고발한다. 이를 금하려고 하면 언로(言路)가 막히어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가 없고, 다 들어주면 상하(上下)가 서로 엇신여기어서 풍속이 날로 무너지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여야 좋겠는가? 이 세 가지는 모두 당세의 급무(急務)인데, 옛것을 상고하여도 또한 모두 있고 자대부(子大夫)의 강론(講論)함에도 자세하니, 옛일을 이끌어서 현금(現今)을 증명하여 다 진술하고 숨김이 없게 하라.”

하고,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 무거(武舉)를 친시(親試)하였다.

▶ 46권 14년 5월 7일 丙寅

丙寅/上將於十一日，觀獵于洪福山等處，迎慰明使，令承政院馳書于京畿楊州、廣州、抱川、積城、長湍、坡州、高陽、陽川、果川、衿川、楊根、龍仁、富平、金浦、通津、永平、漣川等邑，徵聚才白丁等。

임금이 장차 11일에 홍복산(洪福山)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며 명(明)나라 사신을 맞아 위로하려고 하여,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경기(京畿)의 양주(楊州)·광주(廣州)·포천(抱川)·적성(積城)·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양천(陽川)·과천(果川)·금천(衿川)·양근(陽根)·용인(龍仁)·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영평(永平)·연천(漣川) 등의 고을에 치서(馳書)하게 하기를, “재인(才人)과 백정(白丁) 등을 불러 모아라.”하였다.

▶ 47권 14년 8월 14일 辛丑

辛丑/上不豫，諸宗宰問安，引見設酌。召丘從直、鄭自英、崔池、林守謙、俞布益及安孝禮、崔灝元等，論難性理之說。從直進曰：“《易》自伏羲畫卦，文王、周公繼之，至我世宗及我主上殿下，窮探《易》道，精義入神，能繼四聖之《易》。”從直因與孝禮談禪，孝禮劇論，從直語塞，再拜叩頭曰：“吾今降矣。”上曰：“從直憊，可令灝元代之。”孝禮與灝元，各執是非相難，灝元謂孝禮曰：“汝是白丁之孫。”孝禮曰：“果我是白丁之孫，則汝乃我子也。”其所言皆類此，厲聲相罵，無所畏忌。大司憲梁誠之進上前，請劾孝禮不恭之罪。上曰：“此輩之來，本欲破寂，不足數也，其置之。”孝禮劇辯不已，誠之張目責之曰：“汝固如此，我當重劾。”孝禮稍抑然，諸臣猶恨誠之劾之不嚴。申叔舟退謂灝元曰：“孝禮不足道也，君亦不得辭其責矣。勿復如是。”孝禮出於氓隸，其於性理之學，亦無所知，特以口辯濟其說，以希上笑。灝元文臣也，素驕率無守。二人俱以稍知風水之理遇知，上亦以俳優畜之。

임금이 불예(不豫)하여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가 문안(問安)하니, 인견(引見)하고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술자리를 베풀었다. 구종직(丘從直)·정자영(鄭自英)·최지(崔池)·임수겸(林守謙)·유포익(兪布益) 및 안효례(安孝禮)·최호원(崔灝元) 등을 불러 성리설(性理說)을 논란(論難)하게 하였는데, 구종직이 나와서 이르기를, “역(易)은 복희(伏羲)가 괘(卦)를 그음으로부터 문왕(文王)과周公(周公)이 이를 계승하였는데 우리 세종(世宗)과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에 이르러 역도(易道)를 궁탐(窮探)하시어 뜻을 정밀히 하여 신비로운 데 들어갔으니, 능히 사성(四聖)의 역(易)을 계승한 것입니다.”하였다. 구종직이 인(因)하여 안효례와 더불어 선(禪)을 담론(談論)하였는데, 안효례가 격렬히 논란하니, 구종직이 말이 막히어 두 번 절하고 조아리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항복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구종직은 이미 피곤해졌으니, 최호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가(可)하다.”하였다. 안효례가 최호원과 더불어 각각 시비(是非)를 고집(固執)하여 서로 논란하였는데, 최호원이 안효례에게 말하기를,

“너는 백정(白丁)의 손자이다.”하니, 안효례가 이르기를, “과연 내가 백정의 손자라고 한다면 너는 곧 나의 아들이다.”하였다. 말하는 바가 모두 이런 종류였으며 성난 목소리로 서로 욕하면서도 외기(畏忌)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임금의 앞에 나아가 안효례의 불공(不恭)한 죄를 탄핵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무리가 온 것은 본래 파적(破寂)을 하고자 한 것으로 책할 것이 못되니 그대로 두라.”하였는데, 안효례가 극렬히 변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양성지가 눈을 부릅뜨고 이를 꾸짖기를, “네가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마땅히 중히 탄핵하겠다.”하니, 안효례가 조금 누그러졌으나, 여러 신하들은 오히려 양성지의 탄핵이 엄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였다. 신숙주(申叔舟)가 물러나 최호원에게 이르기를, “안효례는 족히 이를 것이 못되나 너도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하였다. 안효례는 맹례(氓隸) 출신으로 성리학(性理學)에 있어서도 또한 아는 바가 없었는데, 특히 구변(口辯)으로 그 설(說)을 성취시켜 임금의 웃음을 바랐던 것이며, 최호원은 문신(文臣)으로 평소에 추솔(麤率)하여 직함이 없었다. 두 사람은 모두 조금 풍수(風水)의 이치를 아는 것 때문에 지우(知遇)를 입었는데, 임금도 또한 배우(俳優)로 이들을 용납하였던 것이다.

8. 睿宗實錄

▶ 1권 즉위년 9월 9일 乙丑

禮曹啓: “今大行大王喪祭諸事, 請依文宗大王時例施行. 一, 宗親及文武百官, 以素服、烏紗帽、黑角帶, 每朝晡哭臨, 至成殯而止. 自初喪至卒哭, 及卒哭後朔望、有名日、四時、臘、練祥、禪祭, 竝勿許服制式暇謝前雜故. 一, 諸道大小使臣及外官, 皆於聞訃日, 設香卓於正廳, 以素服、烏紗帽、黑角帶, 入庭俯伏哭盡哀, 行四拜, 聞訃第六日成服, 著斬衰, 其服日限, 與下京官同. 諸道觀察使、節度使, 遣人進箋陳慰, 若二品以上外官, 雖非牧使亦進箋, 沿邊官不舉哀. 一, 自初喪至卒哭, 竝停大、中、小祀, 殯後惟祭社稷. 一, 禁用刑, 徒、流以下罪, 二十七日後處決, 大辟之罪, 三年後斷決. 一, 停樂三年, 惟大祀, 卒哭後用樂. 一, 禁嫁娶屠殺, 限卒哭前. 一, 巷市五日...”

이하생략~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대행대왕(大行大王) 상제(喪祭)의 모든 일은 청컨대 문종대왕(文宗大王) 때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종친 및 문무백관은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곡림(哭臨)하고 성빈(成殯)에 이르러서 그치며, 초상(初喪)에서 졸곡(卒哭)까지와 졸곡 후 삭망(朔望)·유명일(有名日)·사시(四時)·납일(臘日)·연상(練祥)·담제(禪祭)에는 모두 복제(服制) 식가(式暇)와 사전(謝前) 잡고(雜故)를 허락하지 마소서.

1. 제도(諸道)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외방의 관리는 모두 부음(訃音)을 들은 날에 향탁(香卓)을 정청(正廳)에 설치하고 소복·오사모·흑각대 차림으로 뜰에 들어와서 부복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네 번 절하며, 부음을 들은 제6일에 성복(成服)하여 참취(斬衰)를 입되, 그 복일(服日) 기한은 하급경관(下級京官)과 같으며, 제도(諸道)의 관찰사·절도사 는 사람을 보내어 전문(箋文)을 올려 진위(陳慰)하고, 만약 2품 이상의 외방 관리라면 비록 목사(牧使)가 아닐지라도 전문을 올리며, 변경 일대의 관리는 거애(舉哀)하지 말게 하소서.

1. 초상(初喪)에서 졸곡(卒哭)까지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모두 정지하고, 엄한 뒤에 사직(社稷)에만 제사하게 하소서.

1. 형벌 쓰는 것을 금하여 도형(徒刑)·유형(流刑) 이하의 죄는 27일 후에 처결하고, 대辟(大辟)의 죄는 3년 후에 처단하여 결정하소서.

1. 풍악(風樂)은 3년을 정지하되, 대사(大祀)에만 졸곡 후에 풍악을 쓰게 하소서.

1. 혼인[嫁聚]과 도살[屠殺]을 금하되, 졸곡 전에 한(限)하게 하소서.

1. 거리의 저자는 5일을 정지하게 하소서. ...”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하생략~

▶ 1권 즉위년 10월 25일 乙亥

上御便殿, 問趙穎達, 對曰: “臣與怡同里閭, 日與遊戲而已, 未聞謀逆之語.” 問自河, 對曰: “臣到怡家, 怡令人修甲, 戒臣云: ‘今在國喪, 無故修甲, 人聞之則必以爲異, 汝勿洩也.’ 未聞謀逆之語.” 問張戒之, 對曰: “怡嘗問云: ‘誰爲勇力者?’ 臣答以不知, 怡又云: ‘今有星變, 野人必起, 吾當擊平之.’ 唯此言耳.” 問姜利敬, 對曰: “臣與怡作契而已.” 上曰: “汝與怡相見幾日?” 對曰: “今纔五六日.” 問何言, 對曰: “怡言: ‘汝往任所何日?’ 臣答以從近, 怡云: ‘惜其時時不相見也.’” 時, 利敬拜軍威縣監未赴. 問卞永壽, 對曰: “臣以醫術見怡耳.” 并其子自義杖之, 不服. 問仲淳, 對曰: “怡云: ‘吾拜兵曹判書, 金國光、盧思愼、韓繼禧, 白上遷之. 彼人等貪婪, 素不與我同好者也.’ 臣但聞此言.” 又問致彬, 對曰: “臣以兼司僕入番, 怡亦以司僕將入直, 臣就怡直所, 怡方與李之楨圍碁. 怡以疏草, 請臣斤正, 其文有云: ‘正兵悉赴造寺之役, 兵衛虧疎.’ 且云: ‘釋氏之事, 未知其靈.’ 語多不恭, 臣以爲不可, 將欲修改, 未及就耳.” 問崇魯, 對曰: “南怡嘗求造弓之筋, 臣持至怡家, 會宣傳官李繼命, 持標信而至曰: ‘吾承奔競之命而來.’ 臣遂與辭別.” 時, 繼命入侍, 卽命鎖項. 繼命之往怡家也, 怡曰: “汝今承傳而來, 吾若擊碎汝頭, 則上謂我何如?” 繼命聞之, 猶不憚. **又問卓文兒, 悉言怡國喪成服前食肉之事. 怡初被執時, 牛肉數十斤在廚, 問怡曰: “汝始食肉何日?” 對曰: “臣有疾, 國喪七日後, 以母肉食之.”** 命琛、溥、叔舟、明澹、錫文、元亨、克增及刑曹判書姜希孟, 同義禁府、臺諫雜治之, 怡等猶不承服. 兼司僕向化童清周啓曰: “辛井保往洪原串, 怡語之云: ‘赴山陵時, 可及還乎?’ 井保答云: ‘可及.’ 怡云: ‘速來.’” 向化李巨乙加介又啓曰: “金繼宗往洪州, 怡云: ‘赴山陵時, 可及還乎?’ 繼宗云: ‘可及.’ 怡云: ‘速來.’” 卽命義禁府, 拿致井保、繼宗.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조영달(趙穎達)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남이와 더불어 같은 마을에서 날마다 놀고 희롱하였을 뿐이며, 모역(謀逆)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하고, 박자하(朴自河)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남이의 집에 이르니 남이가 사람을 시켜 갑옷을 수리하는데, 신에게 경계하기를, ‘이제 국상이 있는데 아무 연고 없이 갑옷을 수리하면 남이 듣고 반드시 이상하다고 할 것이니 너는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고, 모역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하고, 장계지(張戒之)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남이가 일찍이 신에게 묻기를, ‘용력(勇力)이 있는 이가 누구냐?’고 하기에 신이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남이가 또 말하기를, ‘이제 성변(星變)이 있어 야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내가 마땅히 처서 평정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이 말뿐이었습니다.”하고, 강이경(姜利敬)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은 남이와 계(契)를 만들었을 뿐입니다.”하므로, 임금이 묻기를, “네가 남이와 서로 만난 것이 며칠이 되었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이제 겨우 5, 6일 되었습니다.”하였다.

무슨 말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남이가 말하기를, ‘내가 임소(任所)에 어느 날 가느냐?’고 하기에, 신이 근일에 간다고 대답하였더니, 남이가, ‘그때에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이때 강이경이 군위현감(軍威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하였었다. 변영수(卞永壽)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은 의술(醫術)로서 남이를 보았을 뿐입니다.”하고, 아울러 그 아들 변자의(卞自義)를 매질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이중순(李仲淳)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남이가 말하기를, ‘내가 병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김국광·노사신·한계희가 주상께 아뢰어 옮겼다. 저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여 본디 나와 더불어 좋지 아니한 자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단지 이 말만 들었습니다.”하고, 또 문치빈(文致彬)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겸사복(兼司僕)으로 입번(入番)하니 남이도 사복장(司僕將)으로 입직하였는데, 신이 남이의 숙직하는 곳에 나아가자 남이가 바야흐로 이지정(李之楨)과 더불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이가 상소의 초안을 가지고 신에게 교정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글에 있기를, ‘정병(正兵)은 모두 절을 짓는 역사(役事)에 나가서 병위(兵衛)가 허술하다.’고 하였고, 또 ‘석씨(釋氏)의 일은 그 영묘(靈妙)함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여 불공(不恭)한 말이 많아서 신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장차 고치고자 하였는데, 미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하고, 정승로(鄭崇魯)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남이가 일찍이 활을 만들 힘을 구하였는데, 신이 가지고 남이의 집에 이르자 마침 선전관(宣傳官) 이계명(李繼命)이 표신(標信)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분경(奔競)을 금하라는 명을 받고 왔다.’고 하기에, 신이 드디어 작별하였습니다.”하였는데, 이때에 이계명이 입시하였으므로 곧 쇠향(鎖項)하도록 명하였다. 이계명이 남이의 집에 갔을 때에 남이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전지를 받들고 왔는데, 내가 만약 네 머리를 쳐부수면 주상이 나를 어떻다고 하겠느냐?”하였는데, 이계명이 듣고도 꺼리지 아니하였다. 또 탁문아(卓文兒)에게 물으니, 남이가 국상(國喪)의 성복(成服) 전에 육식(肉食)한 일을 다 말하였다. 남이가 처음 붙잡힐 때에 쇠고기 수십 근이 부엌에 있었는데, 남이에게 물기를, “네가 비로소 고기를 먹은 것이 어느 날이냐?”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병이 있어 국상(國喪) 7일 뒤에 어미의 명으로 먹었습니다.”하였다. 이침(李琛)·이부(李溥)·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조석문(曹錫文)·박원형(朴元亨)·이극중(李克中)·이극증(李克增) 및 형조판서 강희맹(姜希孟)이 의금부(義禁府)·대간(臺諫)과 같이 잡치(雜治)하였으나, 남이 등이 그래도 승복(承服)하지 아니하였다. 겸사복(兼司僕) 향화인(向化人) 동청주(童淸周)가 계달하기를, “신정보(辛井保)가 홍원곶이[洪原串]에 가는데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山陵)에 나아갈 때에 미쳐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니, 신정보가 대답하기를, ‘미쳐서 올 수 있습니다.’고 하자 남이가, ‘속히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하고, 향화인(向化人) 이거을가개(李巨乙加介)가 또 아뢰기를, “김계종(金繼宗)이 홍주(洪州)에 가는데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에 나아갈 때에 미쳐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니, 김계종이, ‘미쳐서 올 수 있습니다.’고 하자 남이가, ‘속히 돌아오라.’고 말하였습니다.”하므로, 곧 의정부에 명하여 신정보·김계종을 나치하도록 하였다

▶ 2권 즉위년 11월 6일 壬戌

上聞僧徒減價買牛，來賣京中，宰殺取利，且於漁場漁舶，主張專利，遂與高靈君申叔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舟、都承旨權城，議禁制條令。傳旨于禮曹，并諭諸道觀察使曰：“近來無賴僧徒，減價買牛於兩界及江原、黃海等道，增價賣諸京市，轉相屠殺，使農者乏牛；漁場漁舶，僧實主張，侵漁謀利。非徒貽弊於民，大乖本戒。自今所在諸邑，及所經站驛民吏，能捕告者，即以所得牛隻漁利給之，僧徒依律論罪還俗，當差并罪。本邑官吏正長，及牛主同利之人，如有告不以實者，以其罪罪之。又有憑此，侵虐僧人者，亦抵罪。”

승도(僧徒)들이 값을 줄여서 소[牛]를 사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팔거나 재살(宰殺)하여 이익을 취하고, 또 어장(漁場)의 어선(漁船)들을 주장하여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 드디어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도승지(都承旨) 권감(權城)과 더불어 금제(禁制)할 조령(條令)을 의논하고,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고,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아울러 유시(諭示)하기를, “근래에 무뢰(無賴)한 승도(僧徒)들이 값을 줄여서 양계(兩界)와 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 등의 도(道)에서 소를 사서, 값을 붙여서 경시(京市)에 팔거나, 전(轉)하여 서로 도살(屠殺)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소가 부족하게 하며, 어장(漁場)의 어선들을 승(僧)들이 실제로 주장하여 침어(侵漁)하고 모리(謀利)하니, 오로지 백성들에게만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본래 경계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부터 소재지 여러 고을과 지나가는 참역(站驛)의 백성과 아전(衙前)으로서 능히 체포하여 고발하는 자는, 곧 얻는 우척(牛隻)이나 어리(漁利)를 줄 것이며, 승도(僧徒)들은 율(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하고 환속(還俗)시키며, 당차(當差)는 아울러 죄를 줄 것이다. 본 고을에 관리와 정장(正長)과 소의 주인이 이익을 같이 나눈 사람 가운데 만약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줄 것이며, 또 이것을 핑계삼아서 승인(僧人)들을 침학(侵虐)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죄를 받을 것이다.”하였다.

▶ 2권 즉위년 11월 7일 癸亥

癸亥/被擄逃來義州人劉得吉來，命承政院，問其往來本末。得吉條對曰：“一，臣居義州，去辛巳年被建州衛野人李古赤等八十餘兵搶去，十日方到愁愁厚住修答馬赤家爲奴。本年七月十八日，入山採人參，因而逃往遼東。一，答馬赤酋長充尙，今年率麾下五百二十人，入朝大明，盡殺之，存者纔五十餘人。一，去年大明兵，與我軍夾攻後，野人等恐我軍再至，皆登山不得安業，因此貧劣，無報復之志。一，充尙弟充也，代爲酋長。一，野人以唐牛角，或以本土牛角自造弓，但其體，視我國弓差大。絃用皮，箭鏃質大明鐵自造，其制與我國西甫子箭同。一，去年我國軍，攻殺李滿住父子，舉部驚駭。一，每作賊時，與火刺溫兀狄哈甫乙可土、甫乙可大，及建州衛羅夏、李古赤等連兵。一，他麻赤家，東距李滿住部落三日程，北距火刺溫兀狄哈地面五日程，南距義州十日程，西南距遼東六日程。”

피로(被擄)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의주(義州) 사람 유득길(劉得吉)이 오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그 왕래한 전말을 물어보았다. 유득길이 조목별로 대답하기를,

“1. 신이 의주(義州)에 살다가 지난 신사년에 건주위(建州衛) 야인(野人) 이고치(李古赤) 등 80여 명의 군사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10일 만에 바야흐로 수수후(愁愁厚)에 사는 동답마치(修答馬赤)의 집에 이르러 노예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8일에 산에 들어가 인삼을 캐다가, 이로 인하여 도망하여 요동(遼東)으로 갔습니다.

1. 동답마치(修答馬赤)의 추장(酋長)은 충상(充尙)인데, 금년에 휘하(麾下) 5백 20인을 거느리고 명(明)나라에 입조(入朝)하였다가, 모두 죽었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50여 인입니다.

1. 지난해에 의 군사와 우리나라의 군사가 협공(夾攻)한 뒤에, 야인(野人)들은 우리나라 군사가 재차 올까봐 두려워하여 모두 산에 올라가서 생업(生業)에 안정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빈한(貧寒)하고 잔열(孱劣)하여 보복할 뜻이 없습니다.

1. 충상(充尙)의 아우 충야(充也)가 대신하여 추장(酋長)이 되었습니다.

1. 야인(野人)은 중국 쇠뿔[牛角]과 본토(本土)의 쇠뿔로써 활을 만드는데, 다만 그 체제가 우리나라의 활과 비교하여 조금 크며, 줄은 가죽을 사용하며, 전촉(箭鏃)은 의 철(鐵)을 무역하여 스스로 만드는데, 그 제도는 우리나라의 서보자전(西浦子箭)과 같습니다.

1. 지난해에 우리나라 군사가 이만주(李滿住) 부자(父子)를 공격하여 죽이자, 온 부족(部族)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1. 매양 도둑질할 때는 화라운 올적합(火刺溫兀狄哈)의 보을가토(甫乙可土)·보을가대(甫乙可大)와 건주위(建州衛)의 나하(羅夏)·이고치(李古赤) 등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합니다.

1. 동타마치(修他麻赤)의 집은 동쪽으로 이만주(李滿住) 부락(部落)과 거리가 3일 노정(路程)이고, 북쪽으로 화라운 올적합(火刺溫兀狄哈) 지방과 거리가 5일 노정이고 남쪽으로 의주(義州)와 거리가 10일 노정이고, 서남쪽으로 요동(遼東)과 거리가 6일 노정입니다.” 하였다.

▶ 3권 1년 1월 26일 辛巳

辛巳/成均生員李汝舟等上書曰：

伏聞闡揚王化，在乎儒術，而立天下之大法，成天下之大經，爲萬代禮樂之宗主者，自生民以來，未有如夫子也。是以古先帝王，莫不以殷禮祀之。臣等謹稽前史，漢高過魯，祀以大牢，先儒謂：“四百年之漢，實基於此。”自是厥後，遂爲盛典。至光武建武中，以大牢祀；明帝永平中，以大牢祀；章帝元和中，以大牢祀。晉武泰始中，以三牲並祭四時；明帝太寧中，四時之祀，亦如泰始故事。唐開元中，春秋釋奠，亦用牲牢。宋朝初，春秋二丁，皆用大牢。逮至大明，其文愈備，其儀愈隆，以犢一、豕一、羊一，尊祀焉。觀其職掌祠部，蓋可攷矣。惟我東方，列聖相承，凡所施爲，一遵華制，褒尊宣聖，享祀有儀。於春秋兩仲之奠，樂數牲牢，皆從王者之禮，其尊師重道之意，視古無讓矣。而比年以來，犧牛之用，廢而不舉，臣等竊惑焉。《易》曰：“東隣殺牛，不如西隣之禴祭。”今日誠敬之祀，何嫌於一牛之存亡？然於尊祀先聖之禮，恐有虧焉。昔子貢欲去告朔之餼羊，夫子止之曰：“我愛其禮。”蓋聖人之心，亦非不知無實而妄費也，猶且止之者，豈非所費者小而所存者大也？恭惟主上殿下，以天縱之聖，光紹祖宗之烈行，一事必合典禮，施一令必訪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古, 今修明舊章, 尊崇聖道, 在殿下英斷耳. 伏願殿下, 明勅有司, 備詳儀制, 乃於釋奠祀以大牢, 樂用八佾, 使當時後世之人, 皆知師道之可尊, 此初政一盛舉也. 臣等深蒙教育之恩, 愧無絲毫之補, 雖朝廷有司之事, 尙當言之, 況此籩豆之事, 其敢含默而不自白哉? 伏惟殿下留神焉.

上以先王制度, 難於紛更, 不允.

성균 생원(成均生員) 이여주(李汝舟) 등이 상서하기를,

“엿드려 듣건대, 임금의 덕화(德化)를 천양(闡揚)함이 유술(儒術)에 있으므로, 천하(天下)의 대법(大法)을 세우고 천하의 대경(大經)을 이루니, 만대(萬代)의 예악(禮樂)의 종주(宗主)로 삼은 이는 생민(生民)이 있는 이래로 부자(夫子)"와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옛날 제왕(帝王)들도 성대한 예(禮)로써 제사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삼가 옛 사기(史記)를 상고하니, 한 고조(漢高祖)"가 노(魯)나라를 지나다가 대뢰(大牢)로써 제사하였는데,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4백 년의 한(漢)나라는 실로 이에 기인(基因)하였다.’라고 하여, 이로부터 그 이후로 마침내 성전(盛典)으로 삼아, 광무제(光武帝) 건무 연간(建武年間)에 이르기까지 대뢰로써 제사하였고, 명제(明帝)" 영평(永平) 연간(年間)에도 대뢰로써 제사하였으며, 장제(章帝)" 원화(元和) 연간(年間) 때에도 대뢰로써 제사하였고, 진 무제(晉武帝)" 태시(泰始) 연간(年間) 때에는 삼생(三牲)으로써 모두 사시(四時)로 제사하였으며, 명제(明帝)" 태령(太寧) 연간(年間)에도 역시 태시(泰始)의 고사(故事)와 같이 하였고, 당(唐)나라 개원(開元) 연간(年間)에도 춘추 석전(春秋釋奠)에 또한 생뢰(牲牢)를 썼으며, 송조(宋朝) 초에도 춘추 이정(春秋二丁)에 모두 대뢰를 썼고, 명(明)나라에 이르러서는 그 예법이 더욱 갖추어지고 그 의식이 더욱 융성(隆盛)하여, 송아지[犢] 하나, 돼지[豕] 하나, 양(羊) 하나로써 제사를 받들었으니, 그 직장(職掌)한 사부(祠部)를 보면 대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동방(東方)은 열성(列聖)이 서로 이으셔서, 무릇 시행하는 바가 한 결 같이 중국의 제도를 좇고, 선성(宣聖)"을 포양(褒揚)하고 존봉(尊奉)하시어, 그 향사(享祀)가 의식이 있어서, 춘추(春秋) 두 중월(仲月)의 석전(釋奠)에 악(樂)의 수(數)와 생뢰(牲牢)를 모두 다 왕자(王者)의 예(禮)를 따르시어, 그 스승을 존경하고 도(道)를 중하게 하는 뜻이 예전에 견주어 보아 덜함이 없었는데, 근년 이래로 희우(犧牛)를 쓰는 것을 폐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신 등은 그옥이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동쪽 이웃집에서 소를 잡는 것은 서쪽 이웃집에서 지내는 소박한 제사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금일의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제사에 어찌 한 마리 소의 존망(存亡)을 혐의(嫌疑)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성(先聖)을 받들어 제사하는 예(禮)에 부족한 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옛날에 자공(子貢)이 〈노(魯)나라의 고삭(告朔)의 예식(禮式)은 시행하지 않으면서 양(羊)만을 희생시키는 일을 폐지하려고 하니, 부자(夫子)"가 말리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이름만의〉 예(禮)라도 아낀다.’고 하였으니, 대개 성인(聖人)의 마음에도 또한 실속이 없이 망령되게 허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도 오히려 또한 이를 말리신 것은, 어찌 허비하는 것을 작게 여기고 보존하는 것을 크게 여감이 아니겠습니까? 공경히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덕(聖德)으로써 빛나게 조종(祖宗)의 열성(烈聖)을 계승하시어,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심에 반드시 전례(典禮)에 합(合)하게 하시고, 한 가지 영(令)이라도 행하심에 반드시 옛것을 참고하시니, 이제 옛 법을 닦아 밝히시어 성도(聖道)를 존숭(尊崇)하심이 오로지

전하의 한 영단(英斷)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앞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밝게 유사(有司)에 신칙(申飭)하시어 의제(儀制)를 갖추 상고하게 하여, 석전(釋奠)에 대뢰(大牢)로써 제사하시교, 악(樂)은 팔일(八佾)을 사용하시어, 당시(當時)와 후세(後世)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사도(師道)를 존숭할 줄 알게 하심이 바로 이 조정(初政)의 한번 성거(盛舉)에 달렸습니다. 신 등이 전하의 가르쳐 길러 주신 은혜를 깊이 입었는데 조그마한 보탬도 드린 것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비록 조정(朝廷) 유사(有司)의 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변두(邊豆)에 대한 일을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 유의(留意)하소서.” 하니, 임금이 선왕(先王)의 제도(制度)를 분분(紛紛)히 고치기 어렵다 하여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 3권 1년 2월 21일 丙午

司憲府啓: “回換之法, 本欲募人納穀, 以實軍需. 今利城縣監盧仲淸, 多受賈人所贈綵段、綿紬、綿布、繭絲、黑牛角等物, 并許納綿布, 詐稱納穀, 報觀察使, 移文戶曹, 將所納縣布, 勒給窮民, 抑配收價. 又謀欲充入己物價, 擅發義倉穀二百餘石, 分付官奴婢作米. 其貪污無厭, 誣上行私, 至於此極, 自知贓滿, 亡命不現, 尤當痛懲. 請於京外根捕科罪.” 從之.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회환법(回換法)은 본래 사람을 널리 구하여 곡식을 납입(納入)하게 해서, 군수(軍需)를 채우고자 함인데, 지금 이성현감(利城縣監) 노중청(盧仲淸)은 장사하치 [賈人]가 증여(贈與)하는 채단(綵段)과 면주(綿紬)·면포(綿布)·견사(繭絲)·흑우각(黑牛角) 등의 물건을 많이 받고 면포(綿布)를 납입하도록 모두 허락하고는, 곡식을 납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칭(稱)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해서 호조(戶曹)에 이문(移文)하게 하고, 그 납입한 면포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주고, 그 값을 배당하여 거두어 들였으며, 또 그 물건값을 충당해 들이려고 꾀하여, 마음대로 의창(義倉)의 곡식 2백여 석을 내어서, 관노비(官奴婢)에게 나누어 주어 작미(作米)하였으니, 그 탐오(貪污)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위를 속이고 사리(私利)를 행함이 이처럼 극심한 데에 이르렀습니다. 제 스스로 장죄(贓罪)가 있음을 알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으니, 더욱이 엄히 징계(懲戒)해야 합니다. 청컨대 경외(京外)에서 살살이 찾아내어 체포해서 과죄(科罪)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3권 1년 2월 29일 甲寅

甲寅/行通禮院引儀高澤上書曰:

恭惟主上殿下, 新登寶位, 續承丕緒, 猶慮政之或缺, 弊之未祛, 屢下求言之教, 孰不盡竭所蘊? 臣鄉濟州, 邈在海外, 多有巨弊, 爲生民患害. 將臣所目覩, 敢條陳于後, 伏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惟聖鑑. 一, 馬之爲用, 軍國所係甚大. 濟州古稱房星所臨, 又無惡獸, 實育馬之地. 山林廣野, 水草俱足, 任性畜牧, 因此良馬多產, 歲益蕃息. 近年以來, 京中及諸邑盜賊, 率皆分置三邑, 賊人至者, 竊公私馬, 恣殺無忌. 又有強盜流人張吾乙未等, 與三邑壯健賊人, 廣植黨與, 造船分泊, 竊馬爲事. 東西相匿, 轉輾買賣, 牧子等慮其被盜, 築牧場不過數十步, 因此水草不足, 馬皆羸瘠, 孳息不蕃. **臣願陸地徙居賊人及元居牛馬賊, 依前例刷出.** 且陸地諸處閑雜人, 締結僧徒, 依憑商販, 多泊舟極浦, 與賊人, 盜公私場良馬, 乘夜出陸, 朝往夕返. 甚者雖諸浦監考禁察, 反縛致于無人海島而去. 近有咸德浦監考金知·林金都、近川浦監考姜自淸等三人, 僅得不死, 其爲強暴, 前昔所無. 且濟州商人所買馬, 節制使考交易文券, 烙市字印, 諸浦監考, 考市字有無, 方許出陸. 臣願自今, 全羅、慶尙道沿海諸驛吏, 得無市字馬者, 許令告官, 痛懲馬主, 仍以馬給告者, 則馬賊日減, 驛吏亦實矣.

행통례원인의(行通禮院引儀) 고택(高澤)이 상서하기를,

“공경히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큰 통서(統緒)를 이어받아, 정사(政事)가 혹 잘못되었거나 폐단이 제거되지 않음이 있나 염려하시어, 여러 차례나 구언(求言)의 교지(教旨)를 내리셨으니, 어느 누가 마음속에 품은 바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고향 제주(濟州)는 멀리 바다 밖에 처해 있는데, 큰 폐단이 많이 있어서, 생민(生民)들의 근심과 해(害)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목도(目觀)한 바를 가지고 감히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진술하니, 앞드려 생각건대 성감(聖鑑)하소서.

1. 말[馬]의 쓰임은 군국(軍國)에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큼니다. 제주(濟州)는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방성(房星)이 임(臨)한 곳이다.’ 하였고, 또 못된 짐승이 없어서, 실로 말을 기를 만한 곳입니다. 게다가 산림(山林)·광야(廣野)와 수초(水草)가 모두 풍족하여, 그 본성(本性)대로 놓아 먹여 기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양마(良馬)가 많이 나고, 해마다 더욱 번식(蕃息)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경중(京中)과 제읍(諸邑)의 도적(盜賊)들을 거의 모두 3읍(邑)에 나누어 두니, 적인(賊人)으로 〈제주에〉 온 자가 공사(公私)의 말을 훔쳐서 함부로 죽이기를 거리낌이 없이 하고, 또 강도(強盜)로 유배된 사람 장오을미(張吾乙未) 등이 있어 3읍이 장건(壯健)한 적인(賊人)들과 더불어 그 당여(黨與)를 널리 심고, 배를 만들어 나누어 정박하며 말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동서(東西)에 서로 숨겨 두고 전전(轉輾)하며 매매(賣買)하기 때문에, 목자(牧子)들이 도둑맞을 것을 염려하여, 불과 수십 보(步)로 목장(牧場)을 축조(築造)해서, 이로 말미암아 수초(水草)가 부족하여, 말들이 모두 파리하고 야위어서, 새끼를 쳐서 번식하지 못하니, **신은 원컨대 육지에 옮겨 사는 적인과 원래부터 살고 있는 우마적(牛馬賊)을 전례(前例)에 따라 모두 색출해 내소서.** 그리고 또 육지의 제처(諸處)에 살고 있는 한잡인(閑雜人)들이 승도(僧徒)들과 체결(締結)하여 장사[商販]를 망자하고, 많은 배를 궁벽한 포구(浦口)에 대어 놓고 적인들과 더불어 공사(公私) 목장(牧場)의 양마(良馬)를 도둑질해서 밤을 틔타 육지로 나가되,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되돌아옵니다. 이들의 심한 자는 제포(諸浦)의 감고(監考)가 금찰(禁察)한다 하더라도, 도리어 결박해서 무인(無人)해도(海島)에 두고 가버립니다. 근자에 함덕포(咸德浦)의 감고 김지(金知)·임금도(林金都), 근천포(近川浦)의 감고 강자청(姜自淸) 등 3인이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니, 그 강포(強暴)하기

가 전에 없던 바입니다. 또, 제주의 상인(商人)이 산 말은, 절제사(節制使)가 교역 문권(交易文券)을 상고해서 시자인(市字印)을 낙인(烙印)하고, 제포(諸浦)의 감고들이 시자(市字)의 유무(有無)를 고찰하여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 전라도·경상도의 모든 연해(沿海)에 있는 역리(驛吏)들에게 시자(市字)가 없는 말을 얻은 자는 관(官)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그 말 주인을 엄히 징계하시고, 인하여 그 말을 고발한 자에게 주시면, 말도둑(馬賊)은 날로 줄고, 역리(驛吏)도 또한 실(實)하여질 것입니다.

이하생략~

▶ 4권 1년 閏2월 27일 壬午

壬午/傳旨刑曹曰: “治盜之法已嚴, 大憝之輩, 尙不懲艾, 乃至殺越人于都城內外者, 間或有之, 實非細故. 自今盜賊中, 如殺害人者, 竝殺妻子; 牛馬賊爲首者, 竝殺其妻, 罔有赦. 然而子訴父、父訴子, 則甚不合於人倫. 若親族中, 知懷盜之心, 告之, 則實可賞, 誣可罪. 如有藏匿盜賊而不首者, 雖宗宰, 皆以盜論, 以期肅清. 惟爾刑曹, 曉諭中外.”

형조(刑曹)에 진지하기를, “도둑을 다스리는 법이 이미 엄한데도 크게 악한 무리들은 아직 징계되지 아니하여 도성(都城) 안팎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참으로 작은 연고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도적 가운데 만일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그 아내와 아들을 아울러 죽이고, 우마적(牛馬賊)의 우두머리는 그 아내를 아울러 죽여서 용서함이 없게 하라.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하는 것은 인륜(人倫)에 심히 합당하지 못하나, 만약 친족 중에서 도둑의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고하는 것은 진실로 상줄 만하며, 무고(誣告)하는 것은 죄줄 만하다. 만일 도적을 감추어 숨기고 자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종친과 재신일지라도 모두 도둑으로 논하여 숙청되기를 기할 것이다. 오직 너희 병조에 서는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하였다.

▶ 5권 1년 4월 22일 乙亥

乙亥/御經筵, 寧城君崔恒、左贊成金國光、刑曹判書姜希孟、禮曹判書任元濬、戶曹參判韓致仁及承旨等入侍. 同副承旨李崇元啓: “乘舟作賊人, 戮及妻子.” 上曰: “犯在何時?” 崇元對曰: “在法前.” 上曰: “若在法前, 活之可也.” 希孟啓曰: “牛馬賊爲首者, 并殺其妻, 罪無大於反逆, 猶不殺妻. 牛馬賊只是竊盜耳, 并殺其妻, 法似太重. 盜賊中殺害人者, 并殺妻子, 其不殺人而強盜者, 則妻子勿論, 其罪反輕於牛馬賊爲首者, 似未穩.” 上顧問恒曰: “此法如何?” 恒對曰: “果重矣.” 傳曰: “其與院相等更議.”

임금이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형조판서 강희맹(姜希孟)·예조판서 임원준(任元濬)·호조참판 한치인(韓致仁) 및 승지(承旨)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승원(李崇元)이 아뢰기를, “배를 타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처자까지 주륙(誅戮)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범(犯)한 것이 어느 때에 있었느냐?”하므로, 이승원이 대답하기를, “입법(立法)하기 전에 있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입법(立法)하기 전에 있었다면, 살려 주는 것이 옳다.”하니, 강희맹이 아뢰기를, “우마적(牛馬賊)의 수범자(首犯者)는 아울러 그 처(妻)를 죽이도록 하였으나, 그 죄가 반역(反逆)보다 더 클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처를 죽여서는 안됩니다. 우마적은 단지 절도(竊盜)일 따름인데, 그 처까지 아울러 죽인다면 법(法)이 너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도적(盜賊) 중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처자(妻子)도 아울러 죽이되,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강도질만 한 자는 처자(妻子)를 논죄(論罪)하지 아니하니, 그 죄가 도리어 우마적의 수범자보다도 가벼워서 온당(穩當)치 못할 것 같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최항을 돌아보며 묻기를, “이 법이 어떠하냐?”하니, 최항이 대답하기를, “과연 무겁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원상(院相) 등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 5권 1년 5월 1일 甲申

傳旨刑曹曰: “殺人強盜之子處絞, 妻永屬極邊官婢, 非殺人強盜及牛馬賊爲首者妻子, 永屬極邊官奴婢, 盜賊之妻, 其夫被罪, 又求嫁, 盜賊衆所共知者, 及子犯盜者, 依再犯處死.”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살인 강도의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하되, 처(妻)는 극변(極邊)의 관비(官婢)로 영속(永屬)시키고, 살인을 하지 않고 강도질한 자와 우마적(牛馬賊)의 수범자(首犯者)의 처자는 극변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시키며, 도둑의 처나 그 남편이 죄를 입은 자, 또 시집가기를 구(求)한 자, 도둑으로 못사람이 모두 아는 자 및 아들이 도둑질을 범한 자는 재범(再犯)의 예(例)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하라.”하였다.

▶ 5권 1년 5월 12일 乙未

承政院啓: “下三道問弊敬差官捕盜甚多, 而忠淸道至四百餘人, 他道所獲, 必不下此. 今方農時, 不宜滯獄, 請分遣朝官速決.” 命精選以送, 其齎去事目: “一, 初犯竊盜, 敬差官與觀察使同鞫決放, 牛馬賊及再犯竊盜、強盜等, 畢鞫啓聞定罪, 雖今犯未現, 素名大賊, 啓聞取旨. 一, 辭證明白而不服者, 杖訊得情. 一, 辭連人內, 功臣、議親、僧人, 亦卽禁身鞫啓, 有違端者, 啓聞杖訊. 一, 囚人內不干盜賊者, 觀察使同議卽放, 具由以啓.”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의 문폐 경차관(問弊敬差官)이 잡은 도둑의 수가 매우 많아 충청도(忠淸道)가 4백여 명에 이르니, 다른 도(道)의 포획(捕獲)할 것도 반드시 이보다 적지 않을 것임

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라 옥사(獄事)를 지체함은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서 조속히 처결토록 하소서.”

하니, 정선(精選)하여 보내도록 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초범 절도자(初犯竊盜者)는 경차관(敬差官)이 관찰사(觀察使)와 더불어 국문(鞫問)하여 결방(決放)하고, 우마적(牛馬賊)과 재범 절도자(再犯竊盜者) 및 강도(強盜) 등은 국문을 끝낸 뒤 계문(啓聞)하여 정죄(定罪)하고, 비록 이번 범행에는 드러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원래 대적(大賊)으로 이름난 자는 계문하여 취지(取旨)하게 하라.

1. 사증(辭證)이 명백한데도 불복(不服)하는 자는 장신(杖訊)하여 실정(實情)을 얻게 하라.

1.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 가운데 공신(功臣)·의친(義親)·승인(僧人)도 또한 즉시 구금(拘禁)하여 국문해서 아뢰고, 단서를 어김이 있는 자는 계문한 뒤 장신(杖訊)하게 하라.

1. 갇힌 사람 가운데 도둑에 간여하지 않았던 자는 관찰사가 함께 의논하여 곧 석방하되,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 5권 1년 5월 13일 丙申

韓明澮、具致寬、權城啓曰：“會盟祭用牛、羊、豕，功臣以吉服參祭。今當國恤，宗廟、社稷，尙未得親祀，況敢祭天地神祇乎？上不與祭，而功臣等獨祭未可，請俟喪畢行之。”從之。

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권감(權城)이 아뢰기를, “회맹제(會盟祭)에는 소[牛]·양(羊)·돼지를 사용하고 공신(功臣)이 길복(吉服) 차림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지금은 국恤(國恤)을 당하여 종묘(宗廟)·사직(社稷)에도 아직 친사(親祀)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감히 천지(天地)의 신기(神祇)를 제사하겠습니까? 성상께서 제사에 참여치 않으시고 공신 등만 홀로 제사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상기(喪期)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권 1년 6월 11일 癸亥

命左承旨李克增、右承旨尹繼謙，鞠豐儲倉守崔佺、直長金運秋、奉事許巖等飲酒狀及牛肉出處，又訊倉奴今音知等十九人，命分囚于西、南所。佺等囚于西所，罷佺、運秋、巖等職。佺無學識，巖虽妄，皆以門地補官，湏酒尸官。庫子罄其家所有，設盛饌爭索美酒供之，伺其醉，鑽倉庫穴隙以盜米。上聞之，命內豎往覘，佺等果醉臥，盃盤酒肉，狼藉於前。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과 우승지(右承旨) 윤계겸(尹繼謙)에게 명하여, 풍저창수(豊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儲倉守) 최정(崔挺)과 직장(直長) 김운추(金運秋)·봉사(奉事) 허암(許巖) 등의 음주(飲酒)한 정상(情狀)과 쇠고기 등의 출처(出處)를 국문하게 하고, 또 풍저창의 종 금음지(今音知) 등 19인을 신문하게 하고, 서소(西所)와 남소(南所)에 나누어 가두도록 명하였는데, 최정 등을 서소에 가두게 하고, 최정과 김운추·허암 등을 파직하였다. 최정은 학식이 없고, 허암은 비록 망령되어도, 모두 문벌[門地]로써 관직에 보임되어, 술에 빠진 시위 소찬(尸位素餐)의 벼슬아치였다. 그리하여 창고지기들이 제 집에 있는 것을 다하여 성찬(盛饌)을 차리고 다투어 좋은 술을 구하여 바치고, 그 취한 것을 살펴서 창고에 구멍을 뚫어 그 틈새로 쌀을 훔쳐내었다. 임금이 <이 사실을> 듣고 내시에게 명하여 가서 엿보게 하였더니, 최정 등은 과연 술에 취하여 드러누웠고, 술잔과 주육(酒肉)이 그 앞에 낭자하였다.

▶ 6권 1년 6월 27일 己卯

河東君鄭麟趾上書曰：

臣家與女子金由岳妻家相近，今六月二十七日，不記名四人，突入女子家寢房後庭，舉家驚惶。奴莫生者，曳出一人問之，答以追牛皮犯法者。臣欲辨眞僞，奪其號牌，具由告司憲府，司憲府不論衙前濫惡，聽膚受之譖，反答莫生爲埋沒所司，亂加拷掠囚之。又發隸十餘人，拿奴婢二人毆打無算，請下他司推明。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가 상서하기를, “신의 집이 제 딸 김유악(金由岳)의 아내의 집과 서로 가까운데, 이번 6월 27일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4인이 딸의 집 침실 뒷뜰에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온 집안이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 막생(莫生)이란 자가 한 사람을 끌고 나와 연유를 물었더니, ‘우피(牛皮)의 범법자(犯法者)를 쫓는 것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진위(眞僞)를 가리고자 하여 그 호패(號牌)를 빼앗아서 사유를 갖추어 사헌부(司憲府)에 고하였더니, 사헌부에서는 아전(衙前)들의 못된 짓은 논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하소연을 들어 도리어 막생을 허물하여 소속 관사에 매몰(埋沒)하고, 함부로 고문을 가하여 가두어 놓고서 또 조례(皂隸) 10여 인을 발하여 노비 2인을 잡아다가 수없이 구타하였으니, 청컨대 다른 관사에 내려서 추명(推明)하게 하소서.”하였다.

▶ 6권 1년 6월 29일 辛巳

工曹判書梁誠之上書曰：

臣伏觀主上殿下，以英明冠古之資，承先聖付托之重，嗣登大寶，勵精圖治，首革防納，以福我一國，次嚴治盜，以惠我良民，定逆賊而宗社固，受帝命而朝野慶，此正臣子精白一心，以承休德之時也。臣以庸劣，特蒙先王天地之私，未效涓埃之補，思欲圖報於殿下者，曷嘗斯須而弛于懷哉？僅將管見二十八事，條錄以獻，伏惟睿鑑垂察。

~중략~

一, 罷貢弓. 臣竊惟, 貢賦之定, 不可不量民力而爲之. 各道貢弓, 令官中備納, 則各官如順天、羅州有所產處外, 雖薄有所產, 利皆入官, 況取民有定制, 徵贖有其禁, 安能備貢弓如其數乎? 不得已皆徵於民, 則大抵農民, 竭三時之力, 而豐凶既又不等. 年雖豐登, 常稅之外, 征斂不一, 一家口食, 尚未能充, 明年糧種, 全仰義倉, 亦安能備貢弓如其數乎? 一之謂甚, 況每年乎? 若國家兵民富實, 則人可自備, 且藏之之久, 則當有腐敗之患, 必欲速成, 則如前日皮甲之造, 家家盡殺農牛, 幾至絕種, 其爲錯可勝言哉? 乞自今後, 弓矢皆令人自爲備, 軍士如內禁衛、兼司僕、甲士、別侍衛備三張, 正兵備二張, 船軍一張, 朝官如一二品三張, 三四五六品二張, 七品以下一張, 烟戶如大戶三張, 中戶二張, 小戶一張. 各鎮進上, 及軍器寺日課, 皆造鹿角弓, 仍限三年, 使得自備筋角以爲之弓, 且貢金貢絲, 亦議其弊而量減之, 生民幸甚, 國家幸甚.

이하생략~

공조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은 앞드려 보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영명(英明)하고 관고(冠古)하신 자질로 선성(先聖)의 부탁(付托)의 중함을 받아서 대보(大寶)를 이어 등극하시어,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셨으니, 먼저 방납(防納)을 혁파하여 우리 일국(一國)의 복(福)이 되게 하였고, 다음으로 도독을 엄하게 다스리시어 우리 양민(良民)에게 은혜(恩惠)를 베푸셨으며, 역적(逆賊)을 평정하여 종사(宗社)가 견고해졌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 조야(朝野)가 경사스러우니, 이는 신자(臣子)의 정백(精白)한 한 가지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휴덕(休德)을 이어받은 시기입니다. 신은 용렬한데도 특별히 선왕(先王)의 천지(天地)같은 사사로운 은혜를 입었으나, 조그마한 보답도 하지 못하여 전하에게 보답을 도모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일찍이 잠시라도 품은 바를 늦추겠습니까? 삼가 관견(管見) 28가지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올리니, 앞드려 생각건대 예감(睿鑑)을 드리워 살피소서.

~중략~

1. 활을 바치는 것[貢弓]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웁이 생각하건대, 공부(貢賦)를 정하는 것은 민력(民力)을 헤아려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도에서 바치는 활은 관(官)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니, 각 고을 가운데 순천(順天)·나주(羅州)와 같이 산출되는 바가 있는 곳 외에도 비록 산출되는 바가 적어도 이익을 모두 관에 들이게 되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서 거두라는 정한 제도가 있고 징속(徵贖)하는 것은 그 금하는 바가 있으니, 어찌 능히 바치는 활을 그 수와 같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 모두 백성에게서 징수하게 되므로, 대저 농민(農民)은 삼시(三時)의 힘을 다하게 되어 풍흉(豐凶)이 이미 또한 고르지 않게 됩니다. 해가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상세(常稅) 외에 세를 거두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한 가구(家口)가 먹기에도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고, 다음해의 양식은 전부 의창(義倉)을 바라보게 되니, 또한 어찌 능히 바치는 활을 그 숫자와 같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이라도 심하다고 이르는데, 하물며 매년이겠습니까? 만약 국가의 군사와 백성이 부실(富實)하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나, 또한 오랫동안 갈무리하여 두면 마땅히 부패(腐敗)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속히 이루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고자 하니, 즉 전일에 피갑(皮甲)을 제조하였던 것 같은 것은 집집마다 농우(農牛)를 모두 죽여서 거의 멸종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그릇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지금부터 이후로 궁시(弓矢)는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군사로서 내금위·겸사복(兼司僕)·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는 3장(張)을 갖추고, 정병(正兵)은 2장을 갖추고, 선군(船軍)은 1장을 갖추게 하며, 조관(朝官) 가운데 1·2품은 3장, 3·4·5·6품은 2장, 7품 이하는 1장을 갖추게 하고, 연호군(煙戶軍) 가운데 대호(大戶)는 3장, 중호(中戶)는 2장, 소호(小戶)는 1장을 갖추게 하소서. 각 진의 진상(進上)과 군기시(軍器寺)의 월과(月課)는 모두 녹각궁(鹿角弓)을 만들어 3년을 한하여서 스스로 근각(筋角)을 갖추어 활로 삼고, 또 금(金)을 바치거나 실[絲]을 바치며, 또한 그 폐단을 의논하여 헤아려서 감한다면, 생민에게도 매우 다행하겠고, 국가에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

이하생략~

▶ 6권 1년 9월 1일 辛巳

朔辛巳/宣傳官李石堅等, 捕宰殺牛馬者四人以啓, 命承政院, 令別監、各色掌, 亦捕之. 作論賞事目: “一, 捕宰殺自己牛馬一頭者, 給別仕二十, 捕盜宰者加十. 一, 一月內全不捕者, 削仕十. 一, 或捕而知情不告者, 許同類人陳告, 依律論罪, 告者給仕二十.” 從之.

선전관(宣傳官) 이석견(李石堅) 등이 마소[牛馬]를 도살한 자 4인을 잡아서 아뢰니, 승정원(承政院)에 명해 별감(別監)·각 색장(各色掌)으로 하여금 또한 잡게 하였다. 논상(論賞)하는 사목(事目)을 짓기를, “1. 자기의 마소 한 마리를 도살한 자를 잡으면 별사(別仕) 20을 주고, 훔쳐서 도살한 자를 잡으면 별사 10을 더 준다.

1. 한 달 안에 전혀 잡지 못한 자는 사일(仕日) 10을 삭감한다.

1. 혹 잡아서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동류인(同類人)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서 율문(律文)에 따라 죄를 논하고, 진고한 자에게 사일 20을 준다.”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9. 成宗實錄

▶ 2권 1년 1월 4일 癸未

司僕寺提調啓曰：“今考諸道點馬別監牛馬籍：京畿陽城槐台吉串，元放牛一百一，而故失二十三；長湍壺串，元放馬三百四十而，故失三十，遺失八；江華北一串，元放馬三百三十一，而故失四十九，遺失六；鎭江場，元放馬一千三百二，而故失一百二十二。忠清道泰安大小山，元放馬四百五十八，而故失一百十七，虎攬十九；薪串，元放牛七十七，而故失九，虎攬十四；知靈山，元放馬三百，而故失二十四，虎攬七；梨山串，元放馬三百二十二，而故失二十五，虎攬四十四；瑞山安眠串，元放馬三百五十四，而故失三十九，虎攬八；洪州元山島，元放馬一百二十二，而遺失十。全羅道靈光珍下山，元放馬二百十四，而故失四十；古耳島，元放馬二百十九，而故失五十三；康津新智島，元放馬二百九十九，而故失四十九；興陽道陽串，元放馬六百六十六，而故失一百六十三，遺失五；折爾島，元放馬三百六十四，而故失七十二；長興來德島，元放牛一百八十八，而故失二十六；海南黃原串，元放馬一千四百四十九，而故失一百五十二；珍島智歷山，元放馬一千三百十二，而故失一百三十一。慶尙道固城末乙上串，元放馬二百八十四，而故失五十九；海平串，元放馬七百四十二，而故失一百一；東萊吾海也項，元放馬七百九十三，而故失七十八，虎攬三十八；蔚山方魚津，元放馬三百六十，而故失五十七，遺失十一，虎攬六十七。咸鏡道端川豆彥台，元放馬一百三，而故失五十；北青羅萬北，元放馬三百八十九，而故失一百十九；文川反上四訥島，元放牛一百二十一，而故失二十六。黃海道瓮津昌比島，元放馬一百六十七，而故失二十六；康翎登山串，元放馬五百五十一，而故失一百二，虎攬四十九；黃州鐵島，元放馬七十八，而虎攬二十；豐川席島，元放馬一百二十二，而遺失五。平安道鐵山大串，元放馬一千二百九十三，而故失四百二十；椴島，元放馬一百四十五，而故失四十二；宣川身彌島，元放馬二百八十，而故失四十九；定州都致串，元放馬二百四十，而故失五十二。大抵馬政，軍國重事，而兼監牧官，慢於點檢，多致失亡，有乖委任之意。請令攸司推鞠，其亡失多者，罷黜。”從之。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지금 여러 도(道)의 점마 별감(點馬別監)의 우마적(牛馬籍)을 상고해 보니, 경기(京畿) 양성(陽城)의 괴대길곶이[槐台吉串]에는 본래 방목(放牧)한 소가 1백 1두(頭)였는데 고실(故失)이 23두이고, 장단(長湍)의 호곶이[壺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40두였는데 고실(故失)이 30두, 유실(遺失)이 8두이며, 강화(江華)의 북일곶이[北一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백 31두였는데 고실이 49이고, 유실이 6두이며, 진강장(鎭江場)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3백 2두였는데 고실이 1백 22두이며, 충청도(忠淸道) 태안(泰安)의 대소산(大小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4백 58두였는데 고실이 1백 17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9두이며, 신평이[薪串]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77두였는데 고실이 9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4두이며, 지령산(知靈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두였는데 고실이 24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7두이며, 이산곶이[梨山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22두였는데, 고실(故失)이 25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44두이며, 서산(瑞山)의 안면곶이[安眠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54두였는데 고실이 39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8두이며, 홍주(洪州)의 원산도(元山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22두였는데 유실이 10두이며,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의 진하산(珍下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14두였는데 고실이 40두이며, 고이도(古耳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19두였는데 고실이 53두이며, 강진(康津)의 신지도(新智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99두였는데 고실이 49두이며, 홍양(興陽)의 도양곶이[道陽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6백 66두였는데 고실이 1백 63두, 유실이 5두이며, 절이도(折爾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64두였는데 고실이 72두이며, 장흥(長興)의 내덕도(來德島)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1백 88두였는데 고실이 26두이며, 해남(海南)의 황원곶이[黃原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4백 49두였는데 고실이 1백 52두이며, 진도(珍島)의 지력산(智歷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3백 12두였는데 고실이 1백 31두이며, 경상도(慶尙道) 고성(固城)의 말을상곶이[末乙上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84두였는데 고실이 59두이며, 해평곶이[海平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7백 42두였는데 고실이 1백 1두이며, 동래(東萊)의 오해야항(吾海也項)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7백 93두였는데 고실이 78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38두이며, 울산(蔚山)의 방어진(方魚津)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60두였는데 고실이 57두, 유실이 11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67두이며, 함경도(咸鏡道) 단천(端川)의 두언태(豆彦台)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3두였는데 고실이 50두이며, 북청(北靑)의 나만북(羅萬北)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89두였는데 고실이 1백 19두이며, 문천(文川)의 반상사눌도(反上四訥島)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1백 21두였는데 고실(故失)이 26두이며, 황해도(黃海道) 웅진(甕津)의 창비도(昌比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67두였는데 고실이 26두이며, 강령(康翎)의 등산곶이[登山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5백 51두였는데 고실이 1백 2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49두이며, 황주(黃州)의 철도(鐵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78두였는데 범이 잡아 먹은 것이 20두이며, 풍천(豐川)의 석도(席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22두였는데 유실이 5두이며, 평안도(平安道) 철산(鐵山)의 대곶이[大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2백 93두였는데 고실(故失)이 4백 20두이며, 가도(椶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45두였는데 고실이 42두이며, 선천(宣川)의 신미도(身彌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80두였는데 고실이 49두이며, 정주(定州)의 도치곶이[都致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40두였는데 고실이 52두입니다.

대체로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인데도 겸감목관(兼監牧官)이 점검(點檢)하는 일에 태만하여 많은 망실(亡失)을 초래하였으니, 위임(委任)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담당 관서로 하여금 이를 추국(推鞠)하게 하여 그 망실이 많은 사람은 파출(罷黜)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권 1년 1월 7일 丙戌

大王大妃傳曰：“予侍世祖潛邸，見造弓時，令女奴裂筋，予亦親自爲之。所裂筋，意可造弓二十，而僅造六七張，造弓之難，予備知之。諸邑所貢弓數甚多，今禁宰牛馬甚嚴，民間何從得筋乎？是必苦之。頃下求言之教，欲聞如此弊事也。今陳言者有幾？”承政院啓曰：“時無陳言人。”申叔舟啓曰：“一弓之入，幾至三四牛馬之筋。今貢弓之數多，故弓價甚重，而軍士亦難備之。權除何如？”傳曰：“如其有弊，雖永除可也。院相其議啓。”

대왕 대비가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세조(世祖)를 잠저(潛邸)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활을 만들 때 여노(女奴)로 하여금 소 힘줄을 쪼개게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또한 친히 이를 하였는데, 쪼갠 소 힘줄이 생각에는 활 20개는 만들 만했는데도 겨우 6, 7장(張)을 만들게 되었으니, 활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을 내가 상세히 알고 있다. 여러 고을에서 바칠 활의 수효가 매우 많은데 지금 우마(牛馬)의 도살(屠殺)을 금지한 것이 매우 엄하니, 민간에서 어디로부터 소 힘줄을 얻겠는가? 이를 반드시 고통스럽게 여길 것이다. 지난번에 구언(求言)하는 교지(敎旨)를 내린 것은 이와 같은 폐단되는 일을 듣고자 한 것인데, 지금 직언(直言)을 진술한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현재는 직언(直言)을 진술한 사람이 없습니다.”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한 개의 활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3, 4마리 우마(牛馬)의 힘줄이 소요되고 지금 바칠 활의 수효도 많습니다. 그래서 활 값이 매우 비싸고 군사들도 또한 이를 갖추기가 어려우니, 임시로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만약 그것이 폐단이 있다면 비록 영구히 없애더라도 좋을 것이니, 원상(院相)은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 3권 1년 2월 14일 癸亥

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上疏曰：

臣等俱以妄庸，職忝言官，夙夜思惟，願裨萬一，而才智蹇淺，聞見寡陋，恐不副聖上責任之意，謹將便宜八事，條陳如左。(中략) 一. 伏觀傳旨，少不更事者，勿許用東班，甚美意也。然愚駭不任事者，猶在東班。夫乘田委吏，至微官也，然使會計而當，牛羊而茁，非少不更事者之所能也。乞如傳旨施行。且守令，近民之官，得人則一人受福，否則反是。今或不學無恥之輩，出拜守令，目不知書，心更黷貨，貽弊生靈者有矣。況今內重外輕，守令秩滿者，或投閑地，或試別坐，人人自不用心供職。乞依故事，應改品者，例除外任，非有事故，勿許更遞，於以均勞出入，幸甚。

이하생략~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모두 망령되고 용렬한데도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숙야(夙夜)로 생각하여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만분의 일이라도 돕기를 원하오나, 재주와 지혜가 천단(淺短)하고 문견(聞見)이 과루(寡陋)해서 성상의 책임하신 뜻에 부응(副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삼가 편의팔사(便宜八事)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조목(條目)으로 진계(陳啓)합니다.

~중략~

1. 엿드려 전지(傳旨)를 보건대, 조금이라도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동반(東班)에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으니, 매우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재빠르지 못해서 일을 맡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동반에 있습니다. 대저 승전(乘田)과 위리(委吏)는 지극히 미관(微官)이긴 하지만, 회계(會計)를 마땅하게 하고, 소[牛]와 양(羊)을 번식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는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빌건대 전지와 같이 시행 하소서. 또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관원이므로,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여러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 배우지 아니한 염치없는 무리가 수령으로 나가서 눈으로는 글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음은 다시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자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경관(京官)은 중하게 여기고 외관(外官)은 가볍게 여기니, 수령으로서 질만(秩滿)한 자는 혹은 한지(閑地)에 버려지거나, 혹은 별좌(別坐)에 시취(試取)하거나 하므로, 사람마다 스스로 마음을 써서 직무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고사(故事)에 의하여 응당 개품(改品)할 자는 으레 외임을 제수하고, 사고가 있지 않으면 체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출입(出入)을 고루 수고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이하생략~

▶ 3권 1년 2월 14일 癸亥

傳曰: “今觀諸司所啓公事, 掌隸院有天順二年起訟, 而今日始決; 刑曹有去正月牛皮犯禁, 而昨日乃決. 滯訟若是何歟? 其問以啓.”

전교하기를, “지금 제사(諸司)에서 아뢰는 공사(公事)를 보니, 장례원(掌隸院)에서는 천순(天順) 2년에 송사를 일으켰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판결한 것이 있고, 형조(刑曹)에서는 지난 정월에 쇠가죽을 금지한 것을 범한 것이 있는데, 어제서야 결절(決折)을 하였으니 송사가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을 물어서 아뢰라.”하였다.

▶ 3권 1년 2월 22일 辛未

禮曹啓: “文宣王春秋釋奠, 用大牢, 其來已久. 今只用羊、豕, 實是欠典. 請依舊用牛.”從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문선왕(文宣王)의 춘추 석전(春秋釋奠)에 대퇴(大牢)를 쓰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지금 양(羊)과 돼지[豕]만 쓰니, 실로 흠전(欠典)입니다.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소를 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권 1년 3월 3일 壬午

刑曹據陳言議啓: “一. 國制, 盜牛馬者, 初犯處死, 而去骨稱名者, 則專以盜殺爲業, 緣利重罪輕, 不知懲止. 今後, 初犯杖一百、徒三年, 再犯杖一百、刺字, 三犯杖一百、黥面, 四犯處絞. 切隣、管領知情不告者, 皆以制書有違律論斷. 一. 諸邑奴婢未滿額數者, 不可一一充給, 其有餘處, 餘數亦不多, 而官收其貢, 本邑又役之, 以致怒咨. 請諸邑奴婢勿定額, 其奴婢不足, 殘敝最甚者, 臨時取稟充給.” 從之.

형조(刑曹)에서 진언(陳言)에 의거하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나라의 제도에 소와 말을 도둑질한 자는 초범에도 사형에 처하는데, 거골(去骨)이라고 칭명(稱名)하는 자는 오로지 도살(屠殺)로 업을 삼아서 이익은 무겁고 죄는 가벼움으로 인연하여 징계하여 그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후로는 초범(初犯)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재범(再犯)은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하고, 삼범(三犯)은 장(杖) 1백 대에 경면(黥面)하고, 사범(四犯)은 교형(絞刑)에 처하되, 가까운 절린(切隣)과 관령(管領)으로서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모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論斷)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노비(奴婢)는 액수(額數)에 차지 못하는 것을 일일이 보충하여 줄 수 없고, 그 남는 곳이 있어도 남는 수효가 또한 많지 않은데, 관(官)에서는 그 공(貢)을 거두고 본 고을에서 또 역사시키니,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여러 고을의 노비는 액수를 정하지 말고, 노비가 부족하여 잔폐(殘弊)한 것이 가장 심한 곳에는 그때그때에 아뢰게 해서 충당하여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권 1년 3월 16일 乙未

戶曹議啓陳言內可行條件: “一. 本宮奴及勢家奴, 暗錄他人之田, 使逃避差役, 甚不當. 令推刷, 依律屬公. 一. 奉先寺取柴處不遠, 奴婢亦多, 埋炭無難. 自今年, 勿令諸邑備納. 一. 諸邑貢案付雜物, 百姓不知其數, 奸吏因緣濫收. 今後物數開寫, 官門掛榜知會. 一. 司僕寺納穀草, 每於歲前畢納, 緣此一時坌集, 裹糧留待, 其弊不貲. 今後依舊, 日次分定, 次次上納, 勿使滯留. 一. 司僕寺納生穀草, 雖定斤數, 守令任情加減, 未便. 今後依田稅例, 以田地結負數上納, 有別例喂養, 則臨時加定. 一. 諸邑貢物, 必差守令領納有弊. 今後布貨米畚外, 勿令守令領納. 一. 諸邑守令進上雜物, 別設除役, 濫收費, 又於民戶疊收未便. 一. 還上累次蠲減, 而守令不去其簿, 每歲徵督未便. 一. 下三道量田時, 陳荒者不以實書, 竝收田稅未便. 一. 貢墨其數百丁, 則阿膠所造牛皮不下五六張. 其一張價, 穀至十碩, 民戶督徵未便. 一. 貢炭民不能自納, 納價於貢吏, 貢吏倍徵, 侵民未便. 一. 狸皮一張價穀二碩, 黃毛一條價穀一碩, 本數雖至一張一條, 而守令濫收未便. 一. 守令雜物監納時, 所納七八合則必至於升, 七八升則必至於斗. 甚者納用大升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斗, 出用小者, 未便. 以上七條, 令觀察使, 嚴加糾察. 何如?” 從之.

호조(戶曹)에서 진언(陳言) 내에 행할 만한 조건(條件)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본궁(本宮)의 종[奴]과 세가(勢家)의 종이 몰래 다른 사람의 밭을 등록하여 차역(差役)을 도피하려 하니, 심히 부당합니다. 추쇄(推刷)하여 율에 의하여 속공(屬公)하게 하소서.

1. 봉선사(奉先寺)는 땔나무를 취하는 곳이 멀지 않고 노비가 또한 많아서 솟문이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금년부터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준비하여 바치게 하지 마소서.

1. 여러 고을 공안(貢案)에 들어 있는 잡물(雜物)을 백성들이 그 수를 알지 못하는데, 간교한 아전이 그것을 인연하여 지나치게 거두니, 금후로는 물건 수를 일일이 베껴 써서 관문(官門)에 방(榜)을 붙이어 고루 알게 하소서.

1.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곡초(穀草)를 매양 세전(歲前)에 다 바치는데, 이것으로 인연하여 한때에 모여들어서 양식을 싸가지고 머물러 기다려서 폐단이 작지 않으니, 금후로는 전과 같이 날짜 차례를 나누어 정하여 차례차례로 상납(上納)하여 체류(滯留)하지 말게 하소서.

1. 사복시에는 바치는 생곡초(生穀草)는 비록 근수(斤數)를 정하였으나, 수령(守令)들이 임의로 더했다 줄였다 하니 미편합니다. 금후로는 전세(田稅)의 예(例)에 의하여 전지(田地)의 결부(結負) 수대로 상납하고, 특별한 예로 외양(喂養)할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에 더 정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을 반드시 수령을 시켜 영솔(領率)하였는데, 폐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포화(布貨)·미면(米麪) 외에는 수령으로 하여금 영솔하여 바치지 말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이 진상하는 잡물(雜物)을 따로 제역(除役)을 베풀어 지나치게 거두어 허비하여 쓰고, 또 백성에게 이중으로 거두니 미편(未便)합니다.

1. 환상(還上)은 여러 차례 견감(蠲減)하였는데, 수령이 그 장부를 없애지 않고 매년 독촉하여 징수하니 미편합니다.

1. 하삼도(下三道)는 밭을 측량할 때에 묵은 밭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아울러 전세(田稅)를 거두니 미편합니다.

1. 공(貢)바치는 먹[墨]은 그 수량이 1백 정(丁)이면 아교(阿膠)를 만드는 쇠가죽 5, 6장(張)이 되고, 그 한 장의 값이 곡식 10석에 이르는데, 민호(民戶)에게 독촉하여 징수하니 미편합니다.

1. 공(貢)바치는 탄(炭)을 백성이 스스로 바치지 못하고, 값을 공리(貢吏)에게 바치면 공리가 갑절을 징수해서 백성을 침어(侵漁)하니 미편합니다.

1. 삶팽이 가죽[狸皮] 1장(張)의 값이 곡식 2석(石)이고, 황모(黃毛) 1조(條)의 값이 곡식 1석인데, 본래 수량은 비록 1장 1조이지만 수령이 지나치게 거두니, 미편합니다.

1. 수령이 잡물(雜物)을 감독하여 받을 때에 바치는 것이 7, 8홉[合]이면 반드시 1되[升]에 이르고, 7, 8되이면 반드시 1말[斗]에 이르며, 심한 자는 받아들이는 데는 큰되와 말을 쓰고 지출하는 데는 작은 되와 말을 쓰니 미편합니다.

이상 7조(條)를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엄하게 규찰(糾察)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권 1년 5월 11일 戊子

院相洪允成啓曰：“守令，苟非其人，則六載之間，民受其弊。臣聞欲爲守令者，至賂以第宅，彼非不愛惜第宅也，其所利者，倍於第宅故也。然則民之受害，何可勝言？鄭麟趾嘗言：‘有一守令，徵贖太甚，民不堪命，有以犢牛納贖者。守令云：「爾何納牛？其質布以納。」’民答云：‘無足布，尙能走于京，況具四足者乎？」’民之苦樂，係於守令之賢否，其任豈不重於監察乎？”傳曰：“孝瑄改差。”

원상(院相)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수령은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6년 동안 백성이 그 폐단을 받습니다. 신은 듣건대, 수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집을 뇌물로 바치는 데에 이른다고 하니, 그 사람이 집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 되는 바가 집보다 갑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해를 받는 것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정인지(鄭麟趾)가 일찍이 말하기를, ‘어떤 수령이 매우 심하게 징속(徵贖)하여 백성이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해서 송아지으로써 납속(納贖)한 자가 있었는데, 수령이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소를 바치느냐? 베[布]로 바꾸어서 바치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기를, ‘밭이 없는 베도 서울에 갈 수 있는데, 하물며 네 밭을 갖춘 것이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고락(苦樂)이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렸으니, 그 임무가 어찌 감찰보다 무겁지 아니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송효선은 개차(改差)하라.”하였다.

▶ 5권 1년 5월 21일 戊戌

司憲府持平洪濱、司諫院正言呂簾來啓曰：“前日，洪允成啓云：‘政曹堂上受人家舍，除守令職。’又有‘守令徵贖時，受民牛。’請問允成，推鞠其人。”傳曰：“此大行王時事，且經大赦，未可推鞠。”濱等更啓曰：“雖在赦前，受人家舍，乃執政大臣所犯，不可不鞠。”傳曰：“政曹堂上，安有受人家舍，而除人職乎？守令徵納牛者，間或有之，然未知爲某也。皆不可問。”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빈(洪濱)·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여호(呂簾)가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정조 당상(政曹堂上)이 집을 뇌물로 받고 수령을 제수하였다.’ 하였고, 또 어떤 수령이 속(贖)을 징수할 때에 백성의 소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홍윤성에게 물어서 그 사람을 추국(推鞠)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대행왕(大行王) 때의 일이고, 또 대사(大赦)를 지났으니, 추국할 수 없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비록 대사 전에 있었던 일일지라도 남의 집을 받은 것이 바로 정사를 잡은 대신이 범한 바이니, 국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정조 당상(政曹堂上)이 어찌 남의 집을 받고 벼슬을 준 자가 있겠느냐? 수령으로서 소를 징납(徵納)한 자는 간혹 있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나,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모두 국문할 수 없다.”하였다.

▶ 6권 1년 6월 11일 戊午

戶曹啓: “今年自春徂夏, 亢陽不雨, 必至失農, 而諸邑儲穀數少, 賑恤無由, 誠爲可慮. 救荒可行條件及寬民省費等事, 商議後錄. 一. 早穀, 愚民隨熟盡食, 明年之種可慮. 令守令, 用稂庫陳穀換納, 以備明年之種. 一. 諸邑貢物內, 輸轉不便物色, 及不緊可除貢物量減. 一. 諸邑分養馬及壺串、洪原串留養馬料黃豆, 一年, 四千一百五十八碩. 令司僕寺量減. 一. 諸邑分養牛料黃豆, 一年, 一千六百三十六碩, 而官無用牛處, 姑令從市直和賣, 納官倉. 一. 司僕寺馬料黃豆, 草長時量減. 一. 司僕寺山行人馬料, 以諸邑稂庫米、豆題給, 因此米、豆日減. 況楊州、廣州等官, 則黃豆無遺儲, 如官員及馬料則已矣, 諸員依他軍士例, 令自備糧, 若生草時, 則馬料亦減. 一. 司僕寺車牛料, 一年, 黃豆一百三十二碩. 右車牛, 專以輸轉馬料, 郊草而設. 今計一年馬料數, 令民直納於本寺, 郊草, 令諸員輸轉, 其車牛則和賣. 一. 東、西活人署幹事僧及病人、作作人料, 限明年秋成, 權除. 一. 中外公私不緊徵債, 限明年秋成, 停之. 一. 橡實, 救荒緊用之物. 令諸邑人戶, 勿論彼我境, 多數拾取.” 命院相議之, 申叔舟等議: “御乘馬料, 草長時五升, 今減一升; 左、右邊大馬四升, 今減二升. 馬料輸入事, 依啓目, 車牛量留, 除皆和賣.” 從之.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니, 반드시 실농(失農)하기에 이를 것이나, 여러 고을에서 저축한 곡식의 숫자가 적으니, 진휼(賑恤)할 길이 없으므로,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구황(救荒)하는 데 시행할 만한 조건과 백성들을 너그럽게 하고 비용을 줄일 여러 가지 일을 상의(商議)하여, 뒤에 기록합니다.

1. 올곡식[早穀]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익는 대로 다 먹으므로,明年的 종자가 염려스럽습니다.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숙고(稂庫)의 묵은 곡식을 가지고 바꾸어 바치게 하여, 明年의 곡식에 대비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 가운데에 전수(轉輸)하기에 불편한 물색(物色)과 긴요치 아니하여 면제할 만한 공물을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말과 호곶이[壺串]·홍원곶이[洪原串]에 머물러 두고 기르는 말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4천 1백 58석(碩)인데,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소[牛]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1천 6백 36석(碩)인데, 관(官)에서 소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우선 시장 값[市直]에 따라서, 화매(和賣)하도록 하여 관(官)의 창고에 바치게 하소서.

1. 사복시(司僕寺)의 마료(馬料)인 황두(黃豆)와 풀[草]은 오랜 시일 동안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

1. 사복시(司僕寺)에 산행(山行)하는 사람의 마료(馬料)는 여러 고을의 숙고(稂庫)의 쌀과

콩으로 제급(題給)하는데, 이로 인하여 쌀과 콩이 날마다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양주(楊州)와 광주(廣州) 등의 고을에서는 황두(黃豆)로서 저장된 것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관원(官員)과 그 마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원(諸員)은 다른 군사의 예(例)에 의해서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만약 생초(生草)를 줄 때에는 마료도 또한 줄이게 하소서.

1. 사복시(司僕寺)의 거우(車牛)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1백 32석(碩)인데, 위의 거우는 오로지 마료와 교초(郊草)를 전수(轉輸)하려고 마련한 것이니, 지금 1년의 마료의 숫자를 계산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본시(本寺)에 바치도록 하고, 교초(郊草)는 제원(諸員)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고, 그 거우(車牛)는 화매(和賣)하게 하소서.

1. 동활인서(東活人署)·서활인서(西活人署)의 간사승(幹事僧) 및 병자[病人]·오작인(作作人)의 요(料)는 명년 가을까지를 기한하여 임시로 제하게 하소서.

1. 중외(中外)의 공사(公私)에 긴요치 아니하게 징수하는 채무는 명년 가을철까지 기한하여 이를 정지하게 하소서.

1. 도토리(斗)는 구황(救荒)에 긴요하게 쓰이는 물건이니,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로 하여금 피아(彼我)의 지경(地境)을 물론하고 많은 숫자를 주워서 얻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의논하기를,

“어승마(御乘馬)의 요(料)는 풀이 자랄 때는 5승(升)으로 하였는데 지금 1승(升)을 줄이고, 좌우변(左右邊)의 큰 말[大馬]은 4승(升)이었는데 지금 2승(升)을 줄이며, 마료를 수송하여 들이는 일은 계목(啓目)대로 하며, 거우(車牛)는 적당히 남겨두고, 없앨 것은 모두 화매(和賣)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권 1년 7월 6일 壬午

戶曹啓: “前此, 司僕寺牛乳汁將盡, 則以其牛, 勒換畿邑民乳牛, 民頗苦之. 今後, 請以諸邑分養牛, 和賣綿布, 從民願換牝牛七十頭, 分養京畿諸邑取用, 如又不足, 以諸島牛, 量換乳牛, 分養待用.” 從之.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사복시(司僕寺)에서 소의 유즙(乳汁)이 장차 다하면 그 소들을 경기(京畿) 고을의 백성들 젖소[乳牛]와 마음대로 바꾸니, 백성들이 자못 이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금후로는, 청컨대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소를 면포(綿布)와 화매(和賣)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암소[牝牛] 70두(頭)와 바꾸어서, 경기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여 취용(取用)하게 하며, 만약 또 부족하면 여러 섬의 소를 젖소와 바꾸어 나누어 기르게 하여서 쓰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6권 1년 7월 9일 乙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兵曹據江原道觀察使芮承錫啓本啓：“第一條，館驛加設事。大抵置驛，固宜量道途遠近。而本道諸驛，自三陟史直驛抵臨溪驛八十餘里，自橫城葛豐驛抵白冬驛九十里，自原州安昌驛抵白冬驛七十餘里，皆無人之地，非徒馬力困斃，風雪日短之時，行旅無投宿處。可於三陟大嶺底四十餘里及葛豐、白冬兩驛中央，設一驛；安昌、白冬兩驛中央，設一驛爲便。但此地瘠薄，不得耕種，雖設驛、置吏，必至流散，姑設院宇，勿論良、賤，擇定院主三、四戶，給旁近可耕田，厚恤安接，冬節則多積郊草，以爲往來投宿之所。第二條，原州覺林寺鹽輸轉事。本寺，歲給鹽四十碩，前此寺僧輸轉，自丙戌年，令驛吏，受於江陵府，轉輸於寺，崎嶇六十餘里，牛馬多斃。若有虧欠，徵督隨之，不堪其苦。本寺多畜牛馬，四十碩之鹽，又非一時併用，令游手輩，漸次輸運，以除驛路之弊，何如？”從之。

병조(兵曹)에서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예승석(芮承錫)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1조는, 관역(館驛)을 더 설치하는 일입니다. 대저 역(驛)을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도정(道程)의 원근(遠近)을 헤아려야 합니다. 본도(本道)의 여러 역(驛) 가운데 삼척(三陟)의 사직역(史直驛)에서부터 임계역(臨溪驛)에 이르기까지는 80여 리(里)이고, 횡성(橫城)의 갈풍역(葛豐驛)에서 백동역(白冬驛)에 이르기까지는 90리(里)이고, 원주(原州)의 안창역(安昌驛)에서 백동역(白冬驛)에 이르기까지는 70여 리(里)인데,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서 한갓 말[馬]의 힘만 곤폐(困斃)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날이 짧을 때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투숙(投宿)할 곳이 없으니, 삼척(三陟)의 대령(大嶺) 아래 40여 리(里)와 갈풍역(葛豐驛)·백동역(白冬驛) 두 역(驛) 중앙(中央)에 1역(驛)을 설치하고, 안창역(安昌驛)·백동역(白冬驛)의 중앙에 1역(驛)을 설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다만 이 땅들이 척박(瘠薄)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비록 역(驛)을 설치하고 역리(驛吏)를 두더라도 반드시 유산(流散)하기에 이를 것이니, 우선 원우(院宇)를 설치하고, 양인(良人)이나 천인(賤人)을 논하지 말고 원주(院主) 3, 4호(戶)를 골라서 정(定)하며, 부근의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주어서 후(厚)하게 구휼(救恤)하여 안접(安接)하게 할 것이며, 겨울철에는 교초(郊草)를 많이 쌓아서 왕래하는 데 투숙(投宿)할 곳으로 삼게 하소서.”

제2조는,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에 소금을 전수(轉輸)하는 일입니다. 본 절에는 해마다 소금 40석(碩)을 주는데, 이보다 앞서는 절의 중[僧]들이 전수(轉輸)하였으나, 병술년부터는 역리(驛吏)로 하여금 강릉부(江陵府)에 주어서 절에 전수(轉輸)하게 하였으니, 꼬불꼬불한 길이 60여 리(里)이므로 우마(牛馬)가 많이 죽습니다. 만약 그 양(量)이 축난 것이 있으면 징수하여 독촉하는 것이 잇따르니,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 절에는 소와 말을 많이 기르며 40석(碩)의 소금을 또한 일시에 다 쓸 수가 없으니, 유수(遊手)의 무리들로 하여금 점차로 운수(運輸)하게 하여서 역로(驛路)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 6권 1년 7월 19일 乙未

日本國京城管領畠山左京大夫源義勝，遣僧向陽，來獻土宜。其書契曰：

頓首百拜，上復朝鮮國禮曹尊官大人閣下：恭惟，天啓嘉運，國逢太平，布惠澤於四裔，播休聲於萬邦。繇是人先父義忠，欽慕大國之仁政，而累致聘問。天順之初，虔進禮幣，因拜駿驥，牛黃、牝蜜之賜，特恩榮之，重出乎望外。不肖爲其後嗣，敢不繼先志乎？今慈謹差專使，獻上不腆土宜。具在別幅。

일본국(日本國) 경성 관령(京城管領) 전산전(畠山殿) 좌경대부(左京大夫) 원의승(源義勝)이 중[僧] 향양(向陽)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돈수백배(頓首百拜)하고 위로 조선국(朝鮮國) 예조(禮曹)의 존관대인각하(尊官大人閣下)께 복명(復命)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하늘이 아름다운 운수를 열어서 국가가 태평한 시대를 만나니, 은혜가 사예(四裔)에 퍼지고, 아름다운 명성이 만방(萬邦)에 퍼집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선부(先父)인 원의충(源義忠)이 대국(大國)의 인정(仁政)을 흠모하여서 여러 번 빙문(聘問)하기에 이르렀으며, 천순(天順) 초년에 삼가 예폐(禮幣)를 바치니, 인하여 준기장군(駿驥將軍)에 임명하고 우황(牛黃)과 첩밀(牝蜜)을 내려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영광이 무거워서 기대하던 밖이었습니다. 불초(不肖)한 제가 그 후사(後嗣)가 되어서 감히 지금까지 선부(先父)의 뜻을 계승하지 못하다가 삼가 전사(專使)를 임명하여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를 바칩니다. 토의는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습니다.”하였다.

▶ 7권 1년 9월 1일 丙子

傳旨戶曹曰：“凡長利收納，勿竝徵家財、牛馬、田地，違者罪治。 內需司丁亥年以上未收長利，蠲減，如有仍徵者，令受者告官。”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무릇 장리(長利)를 수납할 때 가재와 소와 말·전지를 징수(徵收)하지 말게 하고, 여기는 자는 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내수사(內需司)의 정해년 이전에 거두지 못한 장리는 삭감하여 주고, 만일 그대로 징수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를 관에 고발하게 하라.”하였다.

▶ 9권 2년 1월 23일 丙申

禮曹啓：“懿敬廟追崇祭，命依文昭殿親行大祭例，今考文昭殿親行大祭，無羊、豕，只用牛。 今追崇祭，則是初行大祭也。請用太牢。”從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경묘(懿敬廟)의 추송제(追崇祭)는 성상께서 명하시어 문소전(文昭殿)의 친행 대제(親行大祭)의 예(例)에 의하게 하였으나, 지금 문소전의 친행 대제를 상고하니 양(羊)과 돼지[豕]가 없고 다만 소[牛]만을 사용합니다. 지금 추송제(追崇祭)는 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음으로 행하는 대제(大祭)이니, 청컨대 대퇴(大牢)를 사용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9권 2년 2월 9일 壬子

傳旨刑曹曰: “宰牛之禁雖嚴, 而民間屠殺不忌, 專是法司不痛禁所致. 其嚴加防禁.”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소의 재살(宰殺)에 대한 금령(禁令)이 비록 엄하지만 그러나 민간에서 도살(屠殺)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니, 오로지 법사(法司)에서 엄하게 금지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것을 엄하게 방지하고 금지하기를 더하도록 하라.”하였다.

▶ 9권 2년 2월 18일 辛酉

命院相議捕盜事曰: “一. 近日盜賊之興, 非出於飢寒, 豪強成黨, 恣意刼掠. 至有汚人子女, 須用重典, 以救良民. 自今獷悍成黨, 強盜形跡顯著者, 用圓杖拷訊. 其或平民爲賊所援引者, 指告爲賊而無其實者, 凡干連逮而形跡不明者, 不可用圓杖. 若違法濫用, 則當以枉刑論. 一. 強盜率皆才人、白丁所爲, 是無他. 不農、不蠶, 素無產業. 祖宗以來, 分授里巷, 給田安業, 使不得隨意聚散, 已有著令, 奉行不謹, 徒爲文具. 今令京、外, 盡刷才人、白丁, 以民戶多少, 量屬諸部、諸邑, 分授各坊、各村, 明白錄籍, 一件各部本官, 一件漢城府、監司, 一件刑曹. 每於春、秋, 生產、逃亡、物故檢覈, 啓聞. 如有逃亡見捕者, 依徒、流逃亡人例處斬, 無田地者, 以絕戶及陳荒田地, 漸次折給. 二. 才人、白丁所居隣近, 有強盜及盜牛馬者, 令才人、白丁, 推捉得者, 從《大典》論賞; 知情不捕者, 依律論罪.

이하생략~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도적을 잡을 사목(事目)을 의논하게 하였다.

“1. 근일에 도적이 일어나는 것은 굶주리고 배 고픈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호협(豪俠)하고 강포(強暴)한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자기들 마음대로 겁탈(劫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의 자녀(子女)를 더럽히는 일도 있게 되니, 모름지기 중한 형벌을 써서 양민(良民)을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흉악하고 독살스런 자들이 무리를 지어 강도(強盜)질한 형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자들은 원장(圓杖)을 써서 고신(拷訊)할 것이며, 그 가운데 혹시 평민(平民)으로서 도적들에게 잘못 끌려든 자나 도적이라고 지목되어 고발하더라도 그 실상이 없는 자나, 무릇 사건에 관련되어 체포되었더라도 그 형적이 분명하지 않는 자는 원장(圓杖)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함부로 원장을 사용하면 왕형(枉刑)으로써 논죄 하소서.

1. 강도(強盜)질은 거의 대개가 재인(才人)·백정(白丁)들의 하는 짓들인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누예를 치지 아니하여 본디 산업(產業)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종(祖宗) 이래로 ‘그들이 나누어 이항(里巷)에 두고서 전지(田地)를 주어 생업(生業)에 안착(安着)하여 마음대로 모이거나 흩어지지 못하게 하라.’는 규정된 법령이 있는데도, 수령(守令)들이 봉행(奉行)하는 데 삼가지 아니하고 한갓 형식적인 법조문으로만 여깁니다. 지금 경외(京外)로 하여금 재인(才人)·백정(白丁)들을 다 추쇄(推刷)하여, 민호(民戶)의 많고 적은 숫자를 따져 서울의 여러 부(部)나 외방의 여러 고을[邑]에 적당히 붙여 서울의 각 방(坊)이나 외방의 각 촌(村)에 나누어 주고서 명백히 호적(戶籍)에 기록하되, 1벌은 각 부(部)나 본고을에 두고 1벌은 한성부(漢城府)나 감사(監司)에게 두고 1벌은 형조(刑曹)에 두어, 매년 봄·가을철에 출생·도망·사망을 조사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만약 도망하다가 체포당한 자는 ‘도형(徒刑)·유형(流刑)으로 도망하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하면, 전지(田地)가 없는 자는 호(戶)가 끊어진 전지와 진황(陳荒)한 전지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절급(折給)하게 하소서.

1. 재인(才人)·백정(白丁)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서 강도질이나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는 사건이 생길 때는 재인(才人)·백정(白丁)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잡게 하되, 잡는 자는 《대전(大典)》에 따라서 논상(論賞)하고 정상을 알고도 잡지 아니하는 자는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소서.

이하생략~

▶ 9권 2년 3월 11일 甲申

禮曹啓: “今謁聖, 請依丙戌年世祖大王親祭例, 用太牢.” 從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선성(先聖)을 배알(拜謁)하는데, 청컨대 병술년에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친제(親祭)하던 예(例)에 의하여 대뢰(大牢)를 사용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9권 2년 3월 14일 丁亥

戶曹啓: “今承傳敎: ‘京畿人民, 近因年荒, 流移者多, 至爲可矜. 其還本人撫恤節目, 商議以啓.’ 敬此, 條陳于後. 一. 還本人, 其元耕田, 依《大典》還給; 限後還者, 以無主絕戶, 屬公田給之. 一. 限三年復戶, 戶首及率丁, 限五年, 勿定軍役; 諸司奴婢, 限三年免貢. 一. 農器, 以營中所儲量給. 一. 食鹽, 限三年, 歲給一碩. 一. 無牛畜, 不能自耕墾者, 初年令同里人助耕, 守令亦隨宜助不給. 一. 利稅, 限三年減半, 已前所食還上, 減三分之[一]. 一. 守令殿最, 竝考人口還本多少, 以爲黜陟.” 從之.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들건대, ‘경기(京畿)의 인민(人民)들이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유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流移)하는 자가 많으니 지극히 불쌍하다. 그 본향(本鄉)에 돌아가는 사람을 무휼(撫恤)할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여서 아뢰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을 공경히 받들어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본토(本土)에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원래 경작(耕作)하던 땅을 《대전(大典)》에 의하여 환급(還給)하고, 뒤에 돌아가는 자에 한하여 주인(主人)이 없고 호(戶)가 끊어져 공전(公田)에 붙인 땅을 주도록 할 것.

1. 3년 동안 기한하여 복호(復戶)하며, 호수(戶首)와 솔정(率丁)은 5년 동안 기한하여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며,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는 3년 동안 기한하여 신공(身貢)을 면제할 것.

1. 농기(農器)는 영(營) 중에 간직한 것을 적당히 주도록 할 것.

1. 식염(食鹽)은 3년 동안 기한하여 해마다 1석(碩)을 주도록 할 것.

1. 우축(牛畜)이 없어서 능히 스스로 경작 개간(開墾)하지 못하는 자는 첫해에는 같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경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고, 수령(守令)들도 또한 적당한 형편에 따라서 넉넉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게 할 것.

1. 이세(利稅)는 3년 동안 기한하여 반(半)으로 줄이고, 이미 전에 먹은 환자[還上]는 3분의 1을 감(減)하도록 할 것.

1. 수령(守令)의 전최(殿最)에서는 모두 인구(人口)의 본토(本土)에 돌아온 다소(多少)를 상고하여 출척(黜陟)하게 할 것.”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10권 2년 5월 25일 丁酉

禮曹啓: “曾下校正廳單子, 一時遵行, 不載《大典》條件, 開坐以啓, 請令該曹, 仍舊奉行從之. 一. 平安道平壤庶尹、永安道北青判官權差. 一. 掖庭署別監去官後, 移屬掌苑署.

~중략~

一. 强盜及牛馬賊爲首者, 妻子竝極邊官奴婢永屬; 竊盜再犯處絞等事, 從立法後論斷. 强盜子年未滿者, 待年滿, 定屬; 雜犯死囚, 雖未待三年待秋之法, 依律文施行.

~중략~

一. 宰殺牛馬者, 初犯, 杖一百、徒三年; 再犯, 杖一百、刺字; 三犯, 杖一百、黥面; 四犯, 處絞. 其切隣、管領等知情不告者, 皆以制書有違律論.

~중략~

一. 宰牛馬人同黨在逃者, 事證明白人, 依賊人同黨在逃者, 卽同獄成收贖.

이하생략~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교정청(校正廳)에 내린 단자(單子)는 한때는 준행(遵行)하였으나 《대전(大典)》의

조건(條件)에 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목을 열거하여서 아뢰니, 청컨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그전대로 봉행(奉行)하여 따르게 하소서.

1. 평안도(平安道)의 평양 서윤(平壤庶尹)과 영안도(永安道)의 북청 판관(北靑判官)은 임시로 임명하소서.

1. 액정서 별감(掖庭署別監)이 거관(去官)한 뒤에는 장원서(掌苑署)에 이속(移屬)시키소서.
~중략~

1. 강도(強盜)와 우마(牛馬)를 훔친 수범(首犯)이 되는 자의 처자(妻子)는 아울러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여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 등의 일은 법을 세운 뒤에 따라서 논단(論斷)하며, 강도(強盜)의 자식으로 나이가 차지 못한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정속(定屬)시키고, 잡범(雜犯)의 사수(死囚)는 비록 3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대추(待秋)의 법(法)의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중략~

1. 우마(牛馬)를 재살(宰殺)한 자는, 초범(初犯)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을, 재범(再犯)은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를, 3범(三犯)은 장(杖) 1백 대에 경면(黥面)을, 4범(四犯)은 교형에 처하되, 그 절린(切隣)·관령(管領) 등의 지정 불고자(知情不告者)는 모두 제서 유휘(制書有違律)로 논죄하게 하소서.

~중략~

1. 우마(牛馬)를 재살한 사람의 동당(同黨)이 도망하여 있는 사증(事證)이 명백한 사람은, 적인(賊人)의 동당이 도망하여 있는 것에 의하여, 즉시 한가지로 옥성(獄成) 하여 수속(收贖)하게 하소서.

이하생략~

▶ 10권 2년 6월 11일 壬子

刑曹啓：“近來京外盜賊興行，非惟民受其禍，至有陵犯官府、拒敵官兵者，須用重典治之。前者，再犯竊盜者絞，牛馬賊爲首者絞，妻子極邊官奴婢永屬；爲從者杖一百、流三千里。五人以上成群作賊爲首者絞，爲從者減一等，拒捕者皆絞，持弓矢、金刃者皆斬。有名大賊三人以上聚會者，極邊安置；竊盜贓五貫以上，悉皆黥面；諸司奴婢盜其司財物者，勿論贓貫多少，皆置重典。獷悍強盜情迹顯著者，用圓杖拷訊；平民不事產業屯聚山野者，雖無現贓，竝處斬；強盜妻子，竝極邊官奴婢永屬。強盜窩主律不當死者，全家邊邑永屬；竊盜窩主初犯，刺竊窩二字，再犯處絞。法非不嚴，猶益橫恣，請限盜賊寢息，勿論贓貫多少，悉皆斷筋、黥面；竊盜五人以上成群作賊贓滿五貫者，不分首從，皆絞。”命竊盜初犯三人以上成群作賊者，不論贓多少，爲首者絞；爲從者斷筋、黥面；二人以下贓滿二貫以上者及犯強盜與窩主而律不死者，皆斷筋、黥面。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경외(京外)에서는 도적(盜賊)이 흥행(興行)하여, 백성만이 그 화(禍)를 받는 것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아니고, 관부(官府)까지도 능범(陵犯)함이 있으니, 관병(官兵)에게 거적(拒敵)한 자는 모름지기 중전(重典)을 써서 치죄하소서. 전자에도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였고, 우마적(牛馬賊)의 수범(首犯)이 된 자는 교형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는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하였으며, 종범(從犯)이 된 자는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里)에 처하였습니다. 5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작적(作賊)한 것의 수범(首犯)이 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종범(宗犯)이 된 자는 1등(等)을 감(減)하였으며, 포획할 때에 항거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고, 궁시(弓矢)와 칼을 가진 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였습니다. 유명한 대적(大賊)에 3인 이상 모은 자는 극변(極邊)에 안치(安置)하고, 절도(竊盜)한 장물(贓物)이 5관(貫) 이상이면 모두 다 경면(黥面)하였으며, 제사(諸司)의 노비(奴婢)가 그 사(司)의 재물을 훔친 자는 장물의 다소(多少)를 물론(勿論)하고, 모두 중전(重典)으로 처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질고 독살스러운 강도(強盜)로 정적(情迹)이 현저(顯著)한 자는 원장(圓杖)을 써서 고신(拷訊)을 하였고, 평민으로 산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산야(山野)에 둔취(屯聚)한 자는 비록 장물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아울러 참형에 처하였으며, 강도의 처자(妻子)는 아울러 극변의 관노비로 영속(永屬)하였습니다. 강도(強盜)의 와주(窩主)로 율(律)이 사죄(死罪)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전가(全家)를 변읍(邊邑)에 영속(永屬)하고, 절도(竊盜)의 와주(窩主)로 초범(初犯)이면 ‘절와(竊窩)’ 2자(字)를 자자하고, 재범(再犯)이면 교형에 처하였습니다. 법이 엄하지 않음이 아닌데도 오히려 더욱 방자하게 횡행하니, 청컨대 도적이 침식(寢息)할 때까지 장물의 관수(貫數)가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모두 다 단근(斷筋)·경면(黥面)하고, 절도 5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둑질하여 장물이 5관(貫)을 채운 자는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분별하지 말고 모두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절도(竊盜)의 초범(初犯)으로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다소(多少)를 논하지 말고 수범(首犯)이 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從犯)이 된 자는 단근(斷筋)·경면(黥面)하며, 2인 이하가 장물이 2관(貫) 이상을 채운 자와 강도와 와주를 범(犯)하였으나 율(律)이 사죄(死罪)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단근(斷筋)·경면(黥面)하게 하라.” 하였다.

▶ 11권 2년 7월 16일 丁亥

刑曹三覆啓: “典獄署囚昭格署奴者斤吾乙未盜紫門軍器寺鹿皮衣罪, 律該斬待時. 興海囚白丁朴吾乙未與私奴良奉盜殺牛罪, 朴吾乙未依《大典》絞待時, 妻子依受教永屬邊邑, 奴婢良奉杖一百、流三千里、刺字.”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수인 소격서(昭格署)의 중 자근(者斤)·오을미(吾乙未)가 자문 군기시(紫門軍器寺)의 녹비의(鹿皮衣)를 도둑질한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고, 흥해(興海)의 죄수인 백정(白丁) 박오을미(朴吾乙未)가 사노(私奴) 양봉(良奉)과 더불어 소[牛]를 도살(盜殺)한 죄는, 박오을미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그 처

자(妻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는 데 해당하며, 양봉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와 자자(刺字)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권 2년 7월 16일 丁亥

刑曹三覆啓: “尙州囚良人朴順之盜鄭潤禮馬罪, 順之依《大典》絞待時, 其妻子依受敎永屬極邊官奴婢. 典獄囚良人光進道者再犯竊盜罪, 依《大典》絞待時. 昌寧囚白丁成丹與私奴莫同、李松, 盜孔明老、朴今音同等家牛罪, 依《大典》, 成丹絞待時, 其妻子依受敎永屬極邊官奴婢, 莫同、李松杖一百、流三千里、刺字.”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상주(尙州)의 죄수인 양인(良人) 박순지(朴順之)가 정윤례(鄭潤禮)의 말[馬]을 도둑질한 죄는, 박순지는 《대전(大典)》에 의하여서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그 처자(妻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며, 전옥(典獄)의 죄수인 양인(良人) 광진도(光進道)라는 자가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며, 창녕(昌寧)의 죄수인 백정(白丁) 성단(成丹)이 사노(私奴) 막동(莫同)·이송(李松)과 더불어 공명로(孔明老)·박금음동(朴今音同) 등의 집의 소[牛]를 도둑질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성단은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처자(妻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막동·이송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와 자자(刺字)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권 2년 7월 21일 壬辰

刑曹三覆啓: “尙州囚良人朴順之盜鄭潤禮馬罪, 順之依《大典》絞待時, 其妻子依受敎永屬極邊官奴婢. 典獄囚良人光進道者再犯竊盜罪, 依《大典》絞待時. 昌寧囚白丁成丹與私奴莫同、李松, 盜孔明老、朴今音同等家牛罪, 依《大典》, 成丹絞待時, 其妻子依受敎永屬極邊官奴婢, 莫同、李松杖一百、流三千里、刺字.”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상주(尙州)의 죄수인 양인(良人) 박순지(朴順之)가 정윤례(鄭潤禮)의 말[馬]을 도둑질한 죄는, 박순지는 《대전(大典)》에 의하여서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그 처자(妻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며, 전옥(典獄)의 죄수인 양인(良人) 광진도(光進道)라는 자가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며, 창녕(昌寧)의 죄수인 백정(白丁) 성단(成丹)이 사노(私奴) 막동(莫同)·이송(李松)과 더불어 공명로(孔明老)·박금음동(朴今音同) 등의 집의 소[牛]를 도둑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질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성단은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처자(妻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막동·이송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와 자자(刺字)하는 데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권 2년 8월 24일 甲子

刑曹啓: “近年京外盜賊興行, 宰殺牛馬者多, 須用重典以禁之. 舊《大典》竊盜條: ‘再犯竊盜者絞, 勿揀赦前. 盜牛馬爲首者絞; 爲從者及殺他人牛馬者, 杖一百、流三千里; 私宰自己牛馬者, 杖一百、徒三年; 知情食肉者, 杖七十、徒一年半; 病死而不申官開剝者, 杖一百.’ 前此, 本曹遵用此法, 近日頒降遵守條件, 無上項各條, 竊恐法禁大疎, 爲盜者無所懲艾. 請限盜賊寢息, 用舊典.”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근년에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도적(盜賊)이 성행하여 우마(牛馬)를 도살하는 자가 많으니, 모름지기 중한 형전(形典)을 써서 이를 금지해야 하겠습니까. 《구대전(舊大典)》의 절도조(竊盜條)에,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되, 유사(宥赦)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가리지 않는다.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면, 수범(首犯)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從犯)인 자와 타인(他人)의 우마(牛馬)를 죽인 자는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하고, 자기의 우마(牛馬)를 사사로이 죽인 자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며, 실정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처하며, 병들어 죽었지만 관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잡아먹은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본조(本曹)에서는 이 법(法)에 준용(遵用)하였으나, 근일에 반강(頒降)한 준수조건(遵守條件)에는 위 항목의 각 조문이 없으니, 법금(法禁)이 크게 허술하여 도둑질하는 자를 징계할 길이 없을까 그웁이 두렵습니다. 청컨대 도적(盜賊)이 잠잠하여질 때까지 옛 법전을 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권 2년 8월 25일 乙丑

刑曹啓: “珍原縣囚良人鄭生盜牛罪, 依《大典》, 絞待時.” 命減死.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진원현(珍原縣)의 죄수인 양인(良人) 정생(鄭生)이 소를 도둑질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사형(死刑)을 감면하게 하였다.

▶ 11권 2년 8월 27일 丁卯

刑曹三覆啓: “鴻山囚人白丁朴今音同强奪人牛罪, 平山囚良人李根刦行人强盜罪, 並律該斬不待時, 妻子並依受教永屬邊邑奴婢.”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復)하여 아뢰기를, “홍산(鴻山)의 죄수인 백정(白丁) 박금음동(朴今音同)이 남의 소를 강탈(强奪)한 죄와, 평산(平山)의 죄수인 양인(良人) 이근(李根)이 행인(行人)을 위협하여 강도(强盜)질한 죄는, 모두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처자(妻子)는 수교(受教)에 의하여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권 2년 9월 13일 壬午

刑曹據慶尙道觀察使關啓: “凡行刑賊人, 妻子已皆依法, 永屬極邊官奴婢, 其强盜及牛馬賊爲首者, 服招後詳覆前逃亡、物故及獷悍成黨, 捕捉時逃亡者之妻子, 無定役條令, 請服招後物故、逃亡賊人及捕捉時逃亡贓證明白者之妻子, 限盜賊寢息, 並永屬官奴婢.” 從之.

형조(刑曹)에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형벌(刑罰)을 집행할 때 적인(賊人)의 처자(妻子)들은 이미 모두 법(法)에 의거하여 길이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나, 그 강도(强盜)나 우마(牛馬) 도적의 수범(首犯)이 되는 자가 복초(服招)한 뒤 상복(詳覆) 하기 전에 도망(逃亡)하거나 사망하는 자와, 포악하고 사납게 굴며 무리를 이루었다가 체포하여 잡을 때 도망하는 자의 처자(妻子)는 구실[役]을 정하는 조령(條令)이 없으니, 청컨대 복초(服招)한 뒤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적인(賊人)과 체포하여 잡을 때 도망하여도 장물(贓物)의 증거가 명백한 자의 처자(妻子)는 도적(盜賊)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하여 모두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권 2년 閏9월 10일 己酉

刑曹三覆啓: “慶山囚官奴金禾再犯竊盜罪, 會寧囚金升右盜殺朴末巾牛罪, 依大典, 絞待時, 依受教, 妻子永屬邊邑奴婢. 明川囚正兵金尙連刺殺金石罪, 律該斬待時.”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경산(慶山)의 죄수 관노(官奴) 김화(金禾)는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고, 회령(會寧)의 죄수 김승우(金升右)는 박말건(朴末巾)의 소를 훔쳐서 죽였으니, 죄가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하고, 수교(受教)에 의하여 그 처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는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永屬)시켜야 하며, 명천(明川)의 죄수 정병(正兵) 김상련(金尙連)은 김석(金石)을 찢러 죽였으니, 죄가 율(律)에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권 2년 閏9월 15일 甲寅

刑曹啓: “穩城囚良人全興敏盜殺金仲達、金無金牛罪, 依《大典》, 絞待時.” 特命減二等.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온성(穩城)의 죄수 양인(良人) 전흥민(全興敏)은 김중달(金仲達)·김무금(金無金)의 소를 훔쳐서 죽였으니, 죄가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 하여야 합니다.”하니, 특별히 2등을 감하기를 명하였다.

▶ 12권 2년 閏9월 23일 壬戌

傳旨戶曹曰: “去歲失農, 民食不裕, 今年不得已又舉大倉築牆之役, 盡徵京畿之民, 以赴之, 贏糧往來, 艱苦莫甚. 今辛卯年貢物, 如椽木、雜木、蘂索、羔、雞、牛角、雜羽、魚膠、槐花、生梨、休紙、軍器等物全除, 燒木、生豬減半, 已前未收貢物內已收合在官外, 皆蠲之. 藏氷軍除烟戶, 只用京軍, 以休民力.”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 해에 실농(失農)하여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데, 금년에 부득이하여 또 대창(大倉)의 담 쌓는 일을 거행하여 경기(京畿)의 백성을 모두 징발하여 부역하게 하였으니, 양식을 싸가지고 내왕하며 고생이 막심하였다. 금년 신묘년의 공물(貢物)로 연목(椽木)·잡목(雜木)·새끼 염소·닭·우각(牛角)·잡우(雜羽)·어교(魚膠)·괴화(槐花)·생리(生梨)·휴지(休紙)·군기(軍器) 등 물건은 전부 면제하고, 땔나무·생돼지는 반으로 감하며, 이전에 거두지 못한 공물 안에 이미 거두어 모아서 관에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건감(蠲減)하고, 장빙군(藏氷軍)은 연호(煙戶)는 없애고 경군(京軍)만 쓰게 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라.”하였다.

▶ 12권 2년 閏9월 24일 癸亥

刑曹啓: “慶州囚私奴加隱伊盜殺戶長朴上佐牛罪, 依受教, 絞待時.” 特命減死.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경주의 죄수 사노(私奴) 가은이(加隱伊)는 호장(戶長) 박상좌(朴上佐)의 소를 훔쳐서 죽였으니, 죄가 수교(受教)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 하여야 합니다.”

하니, 특별히 사형을 감하기를 명하였다.

▶ 12권 2년 閏9월 27일 丙寅

刑曹三覆啓: “居昌囚白丁趙仇德盜檢同家牛隻罪, 依受教, 絞待時.”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거창(居昌)의 죄수 백정(白丁) 조구덕(趙仇德)은 검동(檢同)의 집 소를 훔쳤으니, 죄가 수교(受教)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하여야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권 2년 10월 3일 辛未

永安北道節度使宣炯馳啓: “臣前承下諭, 巡行五鎮, 野人有來謁者, 語之曰: ‘自爾先祖父歸附我國, 安生樂業. 乃者, 浪孛兒罕父子負國厚恩, 自就夷滅, 遺孽阿卑車誘動族類, 再犯我邊鄙, 我世祖大王將大舉誅討, 期必掃滅. 爾酋長諸人稽顙來服曰: ‘諸野人不識義理, 爲阿卑車所誤, 妄動犯邊. 願自今効順.’ 其時都體察使矜愍之, 達于天聰, 世祖大王包荒大度, 命諸將勿入攻, 許其自新. 諸野人悔罪, 順服安業如舊, 得有今日, 此實爾等所目見也. 今者, 伐乙虛、阿下、者里等無故犯境, 殺我人民, 我若大舉問罪, 則延及無辜, 玉石俱焚, 爾等其歸語同類, 拿致罪人, 以自明, 可也. 不然, 後悔何及?’ 野人皆扣頭. 臣使會寧、鍾城等各鎮城底野人柳尙同介等, 率其類, 至伐乙虛、阿下等所居, 要其隣里族類, 開諭禍福, 使之同力拿來. 臣留在行營, 聲言徵聚諸鎮兵, 分道掩襲, 又諭以: ‘賊能早自來降, 罪止一身, 不然大兵一入, 躑躅無噍類矣.’ 野人聞之洵懼, 登山自保, 遙呼曰: ‘我等賊殺國民罪, 當萬死, 今既悔恨, 願以財產贖罪.’ 臣又遣虞候、評事, 整頓六鎮精兵, 又抄各鎮城底親信野人, 使爲指路, 若將入攻狀, 野人等扣頭請更歸拿賊而來, 臣許之. 野人等還告曰: ‘賊徒畏誅, 不敢來, 以牛五十頭、白玉小佛一軀, 爲殺錢, 付我等送呈.’ 臣語之曰: ‘彼無故犯邊, 殺掠人民, 而去逃匿山間, 要當入攻, 誅滅乃已.’ 如是開說遣之, 其牛及玉佛, 臣領受留置, 敢啓.” 命院相等議之. 鄭麟趾、鄭昌孫、申叔舟、韓明會〔韓明澮〕、崔恒、洪允成、尹子雲議: “頭畜, 野人所重惜, 而今進五十頭, 悔懼可知. 然犯邊賊, 猶不自來, 遽捨之, 彼必以我爲恐嚇, 取頭畜, 將生慢心. 今宜益嚴責辭, 示以不釋之意, 且勿迫之, 觀其所爲如何, 其牛畜分與死者之家, 玉佛付僧舍, 何如?” 命以此諭宣炯, 仍賜炯, 毛衣一領、靴一部.

영안북도절도사 선형(宣炯)이 치계하기를,

“신이 전에 하유(下諭)를 받고 오진(五鎮)을 순행하였는데, 야인(野人)이 와서 뵈는 자가 있기에 말하기를, ‘너희 선조부(先祖父)로부터 우리나라에 귀부(歸附)하여 편히 생활하였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나, 지난 번에 낭발아한(浪孛兒罕) 부자(父子)가 나라의 후한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유열(遺孽) 아버지(阿卑車)가 족류(族類)를 꺾어 움직여서 우리 변경을 다시 침범하므로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기필코 쓸어 없애려고 하니, 너희 추장(酋長) 여러 사람이 이마를 조아리며 와서 항복하여 말하기를, 「여러 야인들이 의리를 모르고 아버지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망령되게 변경을 범하였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순종하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므로, 그때 도체찰사(都體察使)가 가없이 여겨서 천총(天聰)에 상달(上達)하니, 세조 대왕께서 널리 포용(包容)하는 큰 도량으로 제장(諸將)에게 명하여 들어가서 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고치기를 허락하니, 여러 야인이 죄를 뉘우치고 순하게 복종하여 예전처럼 편히 살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진실로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이다.

지금 벌을허(伐乙虛)·아하(阿下)·자리(者里) 등이 까닭없이 변경을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죽였으니, 우리가 만약 크게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는다면 무고한 사람에게 화가 미쳐서 옥석 구분(玉石俱焚)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류(同類)들에게 말하여, 죄인을 나치(拿致)하여 스스로 죄를 밝히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야인이 모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신이 회령(會寧)·종성(鍾城) 등 각진(各鎭)의 성 밑에 사는 유상동계(柳尙同介) 등으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거느리고 벌을허·아하 등의 사는 곳에 이르러, 그 인리(隣里)와 족류(族類)에게 화복(禍福)으로 타일러서 힘을 합해 잡아오도록 요구하게 하고, 신은 행영(行營)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진(鎭)의 군사를 불러 모아 길을 나누어 덮치겠다고 성언(聲言)하고, 또 타이르기를, ‘도적이 능히 스스로 일찍 와서 항복하면 죄가 한 몸에 그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큰 병력이 한 번 들어가 짓밟아서 씨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 야인이 듣고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 스스로 보호하면서 멀리서 부르짖기를, ‘우리들 도적이 나라 백성을 죽였으니, 죄가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제 이미 뉘우치고 한스러워하니, 원컨대 재산으로 속죄(贖罪)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우후(虞候)·평사(評事)를 보내어 육진(六鎭)의 정병(精兵)을 정돈하고, 또 각진(各鎭)의 성 밑에 사는 친신(親信)한 야인을 뽑아서 길을 가리켜 인도하도록 하여 장차 쳐들어갈 형상을 하게 하니, 야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돌아가서 도적을 잡아 올 것을 청하기에, 신이 허락하였는데, 야인들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도적의 무리가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오지 못하고, 소 50두(頭)와 백옥 소불(白玉小佛) 1구(軀)를 살전(殺錢)으로 삼아 우리들에게 붙여 보내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저들이 까닭없이 변경을 침범하여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 가서 산속에 도망해 숨었으니, 마땅히 들어가 쳐서 죽여 없애고야 말겠다.’ 하고, 이와 같이 말하여 보냈습니다. 그 소와 옥부처[玉佛]는 신이 영수(領受)하여 머물러 두어서 감히 아웁니다.”

하였다. 원상(院相) 등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두축(頭畜)은 야인들이 소중히 아끼는 것인데, 이제 50두를 바쳤으니, 뉘우치고 두려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침범한 도적은 그래도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는데, 문득 놓아두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공갈하여 두축(頭畜)을 취하는 것이다.’고 생각하여 장차 거만한 마음이 생길 것이니, 지금 마땅히 꾸짖는 말을 더욱 엄하게 하여 놓아두지 아니할 뜻을 보이고 또 꺾박하지 말고 그 하는 바가 어떠한가를 볼 것이며, 그 소는 죽은 자의

집에 나누어 주고 옥부처는 절[僧舍]에 붙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이 의논을 가지고 선형에게 유시(諭示)하게 하고, 인하여 선형에게 모의(毛衣) 1령(領)과 화(靴) 1부(部)를 내려 주었다.

▶ 13권 2년 12월 2일 己巳

日本國王使光以藏主等辭，其答國王書曰：

敝邦無祿，我先王相繼棄世，寡人嗣守遺緒，方在喪疚，未及講好。今承專使，遠來相賀，竝致珍貺，仍諭國內多難，信使間關意，甚懃懇。良用感慰，卽欲報謝，第以敝邦人，未諳海路，先王遣使通聘，而中道覆沒，此貴國所知也。且聞貴國兵戈未戢，道路多梗，未果如志，慙負厚意。恕照示。及新印事，敢不承教？使者所求禽鳥，皆敝邦所無，但採山雞雌雄二雙呈。似不腆土宜，具載別幅，伏希留納。白細綿紬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豹皮心虎皮邊氈皮裏座子一事、鞍子一面、諸緣具虎皮一十張、豹皮一十張、藍斜皮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銅爐二事、銅盆二事、黃毛筆一百枝、**牛黃二部**、人蔘一百斤、清蜜二十斗、松子五百斤。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 광이장주(光以藏主) 등이 하직하니, 그 국왕(國王)에게 답(答)하는 글에 이르기를, “폐방(弊邦)은 복록이 없어, 우리 선왕(先王)이 서로 이어서 기세(棄世)하여, 과인(寡人)이 유서(遺緒)를 사수(嗣守)하고, 또 집상(執喪)의 슬픔이 있어 강호(講好)하는 데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신이 멀리 와서 서로 하례하고, 아울러 진귀한 물건을 보내 주시며 인하여 국내(國內)에 어려움이 많음을 고유 하시니, 신사(信使) 사이의 관계하는 뜻이 매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진실로 감위(感慰)하여 즉시 보답하는 사례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폐방(弊邦) 사람은 해로(海路)를 알지 못하여서 보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왕(先王)께서도 사신을 보내어 통빙(通聘)하였으되 중도(中道)에서 배가 뒤집혔으니, 이것은 귀국(貴國)에서도 아는 바입니다. 또 듣건대, 귀국에서는 병과(兵戈)가 그치지 못하고 도로(道路)가 많이 막히었다 하여, 과연 뜻과 같이 못하였으니, 후의(厚意)를 저버린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시한 신인(新印)에 대한 일은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使者)가 구하는 금조(禽鳥)는 모두 폐방에 없는 것이므로, 단지 산계(山雞) 자웅(雌雄) 2쌍(雙)을 잡아 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 같은 것은 모두 별폭(別幅)에 기록하오니, 유납(留納)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하고, 별폭에는,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표피심 호피변 전피리 좌자(豹皮心虎皮邊氈皮裏座子) 1사(事),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 호피(諸緣具虎皮) 10장(張), 표피(豹皮) 10장, 남사피(藍斜皮)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동로(銅爐) 2사(事), 동분(銅盆) 2사(事), 황모필(黃毛筆) 1백 지(枝), **우황(牛黃) 2부(部)**, 인삼(人蔘) 1백 근(斤), 청밀(淸蜜) 20두(斗), 송자(松子) 5백 근.”이라 하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3권 2년 12월 15일 壬午

傳旨刑曹曰：“牛馬賊爲首者處絞之法，我世祖初因盜賊盛行，權宜立法，欲止盜耳，非欲永爲遵守也。此法行之累年，盜已少止，而律外殺人，亦所不忍也。自今牛馬賊竝從律文施行，再犯者處絞。”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우마적(牛馬賊)의 죄수가 되는 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법(法)은 우리 세조(世祖)께서 처음에 도적이 성행(盛行)함으로 말미암아 권도[權]에 따라 법을 세워 도적을 그치게 하고자 함이요, 영구히 준수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법을 행한 지가 여러 해이고, 도적도 적어졌으니, 율(律) 이외의 살인(殺人)은 또한 차마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마적(牛馬賊)도 아울러 율문(律文)을 좇아 시행하고, 재범(再犯)하는 자는 교수형에 처하라.”하였다.

▶ 15권 3년 2월 9일 丙子

刑曹啓：“康津囚白丁每邑金等四人成群盜牛罪，依受教，絞待時。” 命減死.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강진(康津)의 죄수 백정(白丁) 매읍금(每邑金) 등 4인이 떼를 지어 소를 도둑질한 죄는, 수교(受教)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처하소서.”하니,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 16권 3년 3월 7일 癸卯

(司憲府持平金利貞)又啓曰：“時方旱甚，故已禁中外用酒，而許文、武科遊街，彼將宰牛辦宴，糜費不貲。上憂旱，而群下燕飲，可乎？請禁之。”又啓曰：“日者，以旱停公處營繕，獨大倉築墻及私營繕不停，請竝停之。”傳曰：“向擇侍女時，令侍女，各舉所知，簡非初不知恪愼有夫而薦焉，後乃知之而止。且簡非以病永出，雖留宿恪愼家，有何罪焉？文、武科遊街時，雖宰牛，乃其自備，不須禁也。勿禁私營繕者，頃緣閭閻失火而無家者多故也。不停大倉築墻者，倉庫無墻垣，不可耳。”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이정(金利貞)이) 또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심하므로, 이미 중외(中外)에서 술[酒]을 쓰는 것을 금하였는데, 문무과(文武科)의 유가(遊街)에는 이를 허락하여, 저들이 장차 소를 잡아 연회를 판비(辦備)할 것이니, 허비하는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위에서는 가뭄을 근심하고 있는데, 많은 아랫사람들이 연음(燕飲)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금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요사이 가뭄으로 인하여 공처

(公處)의 영선(營繕)을 정지하였는데, 오직 대창(大倉)의 담 쌓는 일과 사사로운 영선만은 정지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모두 정지하게 하소서.”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지난 번에 시녀를 택할 때에 시녀들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했기 때문에, 간비(簡非)가 처음에는 각신이 지아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천거하였다가, 나중에야 알고서 그만두었다. 그리고 또 간비는 병(病)으로 인하여 궁 밖으로 아주 나갔으니, 비록 각신(恪愼)의 집에서 유숙했다 한들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리고 문무과의 유가할 때에 비록 소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니, 반드시 금할 필요가 없다. 또, 사사로이 영선하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여염(閭閻)이 실화(失火)로 인하여 집이 없는 자가 많기 때문이며, 대창의 담 쌓는 일을 정지하지 않은 것은 창고가 장원(塙垣)이 없는 것이 불가해서일 뿐이다.”하였다.

▶ 19권 3년 6월 1일 丙寅

刑曹三覆啓: “泰仁囚白丁李得戒殺人強盜罪、羅州囚良人金存、姜今劫姜習等家強盜罪、靈光囚私奴朴明劫李奉家強盜罪、竝律該斬不待時、依受教、妻子永屬邊邑奴婢。金堤囚白丁李刈沙里、成萬乙珍、今音同等成群劫奪吳永壽家牛罪、依受教、斬待時。”皆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태인(泰仁) 죄수(罪囚) 백정(白丁) 이득계(李得戒)의 살인 강도죄(殺人強盜罪)와, 나주(羅州) 죄수 양인(良人) 김존(金存)·강금(姜今)이 강습(姜習) 등의 집에 들어가 위협하고 강도질한 죄와, 영광(靈光) 죄수 사노(私奴) 박명(朴明)이 이봉(李奉)의 집에 들어가 위협하고 강도질한 죄는 다 율(律)에 참형 부대시(斬刑不待時)에 해당하니, 수교(受教)에 의하여 그 처자(妻子)는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하소서. 김제(金堤) 죄수 백정(白丁) 이예사리(李刈沙里)·성만(成萬)·을진(乙珍)·금음동(今音同) 등이 오영수(吳永壽)의 집 소[牛]를 겁탈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참대시(斬待時)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19권 3년 6월 7일 壬申

刑曹三覆啓: “永川囚私奴介三再犯竊盜罪、益山囚私奴莫金再犯竊盜罪、竝依受教、絞待時; 金溝囚白丁金今山持兵器盜李莫同家牛馬罪、依受教斬待時。”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영천(永川) 죄수 사노(私奴) 개삼(介三)은 절도죄를 두 번 범하였으며, 익산(益山) 죄수 사노 막금(莫金)도 절도죄를 두 번 범하였으니, 아울러 수교(受教)에 의하여 교형대시(敎刑待時)에 처하고, 금구(金溝)의 죄수 백정(白丁) 김금산(金今山)이 병기(兵器)를 갖고 이막동(李莫同)의 집 소와 말을 도둑질한 죄는, 수교(受教)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에 의하여 참형 대시(斬刑待時)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9권 3년 6월 12일 丁丑

刑曹三覆啓: “楊州囚白丁水光聚黨劫金孝南家強盜罪, 律該斬不待時, 依受教, 妻子永屬邊邑奴婢; 務安囚奴龍萬持兵器盜知古里家牛罪, 依受教, 斬待時.”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양주(楊州)의 죄수 백정(白丁) 수광(水光)이 무리를 모아 김효남(金孝南)의 집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律)에 참형 부대시(斬刑不待時)에 해당하니,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킬 것이며, 무안(務安)의 죄수 종[奴] 용만(龍萬)이 병기를 들고 지고리(知古里)의 집 소를 도둑질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참대시(斬待時)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9권 3년 6월 22일 丁亥

戶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 “倭使一行所獻銅鐵、蘇木, 幾至三、四百駄, 農月轉輸, 其弊不貲. 令於浦所, 聽民貿易似便, 然興利之人, 潛挾禁物, 交通外人, 固不可. 銅鐵、蘇木、牛馬皮, 悉從公家貿易, 令民輸轉亦不可. 今後客人所獻物, 役當領船軍載船, 輸于星州花園縣, 宜於國用者, 俟農隙酌量上納, 其餘物, 聽民貿易.” 從之.

호조(戶曹)에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왜국(倭國)의 사신 일행(一行)이 바친 동철(銅鐵)·소목(蘇木)이 거의 3, 4백 짐[駄]에 이르니, 농삿달에 운반하는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포소(浦所)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무역(貿易)하게 하는 것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러나 상인이 은밀히 금물(禁物)을 가지고 외인(外人)과 교통을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동철(銅鐵)·소목(蘇木)·우마피(牛馬皮) 등은 모두 공가(公家)에서 무역(貿易)하는 값에 따라 백성으로 하여금 수전(輸轉)하게 하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금후에는 객인(客人)이 바친 물역(物役)은 당령선군(當領船軍) 이 배에 싣고 성주(星州)의 화원현(花園縣)에 수송하였다가 나라에서 쓸 만한 것은 농사의 틈을 기다려서 적당한 수량을 상납(上納)하게 하고, 그 나머지 물품은 백성들의 무역을 허락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0권 3년 7월 29일 甲子

戶曹啓: “今年京畿水災, 比他道尤甚, 今又風變至此, 如交河等諸邑, 禾穀損傷殆盡. 救荒事件, 具錄于後. 一, 有風災諸邑, 明年稻種, 可慮. 請許水田結負之數, 將京畿無風災諸邑及忠清道水路相通諸邑倉穀, 質換稻種, 推移均給.

~중략~

一, 京畿諸邑私占草場, 已令禁止, 然豪悍之徒, 不顧邦憲, 禁入自占者, 必多有之. 令觀察使, 痛行禁止, 許人刈取, 以備民間牛馬之食. …”

~중략~

從之.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경기(京畿)의 수재(水災)는 다른 도에 비교하여 더욱 심한데, 이제 또 바람의 변괴가 이와 같기에 이르러서 교하(交河) 등의 여러 고을은 화곡(禾穀)이 손상하여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황(救荒)할 사건(事件)을 뒤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1. 풍제(風災)가 있는 모든 고을은 명년(明年)의 벼 종자가 염려되니, 청컨대 수전(水田)의 결부(結負)의 숫자를 계산하여, 경기의 풍제가 없는 여러 고을과 충청도의 수로(水路)가 서로 통하는 여러 고을의 창고 곡식과 벼 종자를 무역하여 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중략~

1.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령하는 것은 이미 금지하게 하였으나, 호한(豪悍)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금하여 스스로 점령한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풀베는 것을 허락하여 민간의 소와 말의 먹이를 준비하게 하소서. …”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 25권 3년 12월 1일 癸亥

司憲府掌令許迪來啓曰: “仲奇之事, 刑曹堂上、郎廳皆與焉. 況權瑚爲李克墩五寸, 故一時郎廳皆承克墩指揮, 請竝罪克墩. 又姜希孟、梁誠之, 非不知枉道爲不可, 而濫乘驛騎, 請科罪. 鄭自英所言不孝、不友、疏薄正妻之事, 非但啓於上前, 揚言於經筵廳曰: ‘喪內, 殺牛食肉者有之; 有姓洪者, 薄待正妻.’ 及本府問之, 則慮取怨, 不言其名, 請問之.” 皆不聽.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

“중기(仲奇)의 일은 형조 당상(刑曹堂上)과 낭청(郎廳)이 모두 참여하였고, 더욱이 권호(權瑚)는 이극돈(李克墩)의 5촌(五寸)이 되는 까닭으로 한때에는 낭청(郎廳)이 모두 이극돈의 지휘를 받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이극돈도 죄주시고, 또姜희맹(姜希孟)·梁성지(梁誠之)는 정도(正道)를 그르침이 불가한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역말[驛騎]을 함부로 탔으니, 청컨대 과죄(科罪)하소서. 정자영(鄭自英)이 불효(不孝)하고 우애(友愛)하지 않으며 정처(正妻)를 소박하는 일을 말한 것은 다만 성상의 앞에서는 아뢰지 않았지만, 경연청(經筵廳)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상중(喪中)에 소를 잡아 고기를 먹은 자가 있고, 성(姓)이 홍(洪)이라는 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가 있어 정처(正妻)를 박대(薄待)하였다.’ 하여, 본부(本府)에서 이를 물으니, 원한을 취할까 염려하여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 27권 4년 2월 21일 壬午

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 上劄子曰:

柳子文爲人貪濁苛酷愎狠邪譎, 小人之尤者也. 其在任所五六年之間, 掊克斂怨淫縱不法等事, 不可勝言. 其敗露推劾者, 亦不下四十條, 然不暇一一歷陳, 姑舉其略. 奸淫平壤、碧潼兩官婢, 竝畜衙所, 坐耗公廩, 盜給官物, 占私田數十結, 擅發官民牛力耕穫, 歲收花利販鬻自私, 濫使官婢七八名, 紡績織紉, 以肥妻妾, 暗受他人贈給綿布五十匹, 轉換綿紬十匹、米二十碩, 入己事, 已發露, 計窮勢迫, 托稱姻家李堦布物, 然其子漢長見在李堦之家, 則其盜用情跡, 欲蓋彌彰, 又陰受富商金長壽等三人綿布一百五十匹, 每匹給價米二十斗, 及事露則托稱官用, 其飾詐類如此. …”

이하생략~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유자문(柳子文)은 사람됨이 탐탁(貪濁)하고 가혹하며 팽흔(愎狠)하고 사흉(邪譎)하니,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임소(任所)에 5, 6년 있는 동안에 가혹하게 수세(收稅)하여 원망을 사고 제 마음대로 불법(不法)을 행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드러나 추핵(推劾)한 것만도 마흔 가지가 넘으나, 날날이 두루 아될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그 대략만을 거론합니다. 평양(平壤)·벽동(碧潼) 두 고을의 관비(官婢)를 간음하고 모두 아소(衙所)에 두어 관곡(官穀)을 앗아서 축내게 하고 관물(官物)을 훔쳐서 주었으며, 사전(私田) 수십 결(結)을 차지하고 관민(官民)과 우력(牛力)을 마음대로 징발하여 경작하고 수확해서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해마다 거둬들여 사사로이 팔았으며, 관비 7, 8명을 함부로 부려 길쌈을 시켜서 처첩(妻妾)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남이 준 면포(綿布) 50필을 몰래 받아 면주(綿紬) 10필과 쌀 20석으로 바꿔서 자기 소유로 하였는데, 일이 이미 드러나게 되어 계책이 궁하고 형세가 급하니까 사돈인 이우(李堦)의 물건이라 핑계 대었으나, 그 아들 유한장(柳漢長)이 그 때 이우의 집에 있었으니 그 훔쳐 쓴 정적(情跡)을 숨기려 한 것이 분명하며, 또 부상(富商) 김장수(金長壽) 등 3인에게서 면포 1백 50필을 받고 한 필에 쌀 20두(斗)씩 값을 주었는데,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는 관용(官用)이라 핑계 대었으니, 그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

이하생략~

▶ 29권 4년 4월 28일 戊子

戶曹啓: “諸司所儲雜物, 以經費之數, 磨鍊可減之物, 酌定限年, 具錄以聞. 尙衣院彩花席、滿花席、生苧、正鐵、魚膠、黃蠟 限二年, 豐儲倉草紙 限三年, 軍器寺小藥線紙 限二年, 大藥線紙 限三年, 休紙・無名石 限四年, 斑猫 限二十年, 雉羽 限六年, 獐皮 限二年, 高佐木 限五年, 司贍寺休紙 限二年, 內資寺生苧 限十年, 義盈庫加士里 限二年, 竝減三分之一, 昭格署紫檀香 限三年, 濟用監狸皮 限一年, 奉常寺生苧 限四年, 繕工監木賊 限二年, 竝減三分之二, 長興庫皮竹席、油紙袋, 司宰監小全鰻 限三年, 竝減三分之一, 白條脯 限二年, 減三分之二, 內贍寺牛毛 限十年, 川椒 限五年, 竝減三分之二, 何如?” 從之.

호조에서 계달하기를,

“제사(諸司)에 저장한 잡물(雜物)을 경비(經費)의 수(數)로써 감할 만한 물건을 마련(磨鍊)하고 연한(年限)을 정하여 갖추 기록하여 아뢰입니다. 상의원(尙衣院)의 채화석(彩花席)·만화석(滿花席)·생저(生苧)·정철(正鐵)·어교(魚膠)·황랍(黃蠟)은 2년으로 기한하고, 풍저창(豐儲倉)의 초지(草紙)는 3년으로 기한하고, 군기시(軍器寺)의 소약선지(小藥線紙)는 2년으로 기한하고 대약선지(大藥線紙)는 3년으로 기한하고 휴지(休紙)·무명석(無名石)은 4년으로 기한하고 반묘(斑猫)는 20년으로 기한하고 치우(雉羽)는 6년으로 기한하고 장피(獐皮)는 2년으로 기한하고 고좌목(高佐木)은 5년으로 기한하며, 사섬시(司贍寺)의 휴지(休紙)는 2년으로 기한하고, 내자시(內資寺)의 생저(生苧)는 10년으로 기한하고, 의영고(義盈庫)의 가사리(加士里)는 3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1을 감하고, 소격서(昭格署)의 자단향(紫檀香)은 3년으로 기한하고, 제용감(濟用監)의 이피(狸皮)는 1년으로 기한하고, 봉상시(奉常寺)의 생저(生苧)는 4년으로 기한하고, 선공감(繕工監)의 목적(木賊)은 2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2를 감하며, 장흥고(長興庫)의 피죽석(皮竹席)·유지대(油紙袋), 사재감(司宰監)의 소전복(小全鰻)은 3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1을 감하고 백조포(白條脯)는 2년으로 기한하여 3분의 2를 감하며, 내섬시(內贍寺)의 우모(牛毛)는 10년으로 기한하고 천초(川椒)는 5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 30권 4년 5월 8일 戊戌

刑曹三覆啓: “新寧囚白丁劉亡、千與、金延等三人結黨, 盜崔宗右牛隻雜物, 罪依受教, 絞待時.”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신녕(新寧)의 죄수 백정(白丁) 유망(劉亡)·천여(千與)·김연(金延) 등 세 사람이 결당(結黨)하여 최종우(崔宗右)의 소[牛] 한 마리와 잡물(雜物)을 도둑질하였으니, 죄가 수교(受教)에 의거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32권 4년 7월 30일 己未

藝文館副提學李克基等上疏曰：

臣等伏見，日者旱暵示戒，陰沴告警，殿下畏天憂民，引咎責躬，追惟闕失，有事側修。臣等昵侍經幄，職備顧問，有懷而隱，是孤聖恩，敢將管窺，輒貢瞽說，伏惟殿下裁擇焉。其一曰，

~중략~

其二曰，正習俗。蓋自禮法毀，而士風不古，恬於苟且，名檢有所不顧，狃於豪侈，敦朴指爲鄙野，此風長而士失廉介，俗趨浮競，其來已久，而未有甚於此時。其流不渴，而又將有不可勝言者，有國家者，可不知所以戒之哉？臣等聞，孟軻氏有訓曰：“侍妾數百人，我得之，不爲也。”古之得志者，猶有所不爲也，是以有爲也。今之人，苟得以行其志，先爲其所欲爲，亦何所不爲也？近觀大小朝臣，冒占諸邑娼妓，而畜之於其家者，縷縷，其因則或以其爲觀察·節度使，於其道佐幕，於其道守令，於其官之隣，因緣請托，以屬於所識勳臣之家，籍爲丘史。由是外官之妓之有才技者，官不得而有之，至使驅役，不給於官。彼皆大臣也，皆顯官也，將朝廷紀綱，以黜陟人者也，司民命一邑，而爲之表率者也。而其所爲若是，庸非恬於苟且，而不顧名檢者乎？此風不可長也。願殿下，付之攸司，覈其人而治之士風，幸甚。自巢居穴處之既遠，上棟下宇之制興焉，然止於蔽風雨安寢食而已，堯不剪茅茨，禹卑宮室。彼貴爲天子，富有四海，而猶且然爾，況臣庶之家，禮制有限，財產有窮盡，而可以窮奢極侈爲乎？近觀公卿大夫，其居擬於王宮，士庶豪富，其居擬於公卿大夫，爭相效慕，鬪夸競麗，財竭而後已，滿意而後止，其弊至使求足於己，取辦於人，簠簋之誚，有所不辭也。耳目侈於外，中心(移)〔侈〕於內，陵僭之漸，有所不禁也。臣等謂，此風不可長也。自燔黍煑豚之既易，而有烹飪宴餉之禮。然取充飽，免飢渴而已。是故大夫無故不殺羊，士無故不殺犬豕，七十者，始食雞·豚·狗·彘之肉，飲食之節，自有品制，不可過也。**近觀大夫大之家，飲食無節，不緣賓祭，不爲養老，尋常居處，椎牛自奉，少有宴集，誇張百品，一人而兼數人之食，一日而用十日之費，暴殄天物，般遊無度，此非士習之細故也。**昏禮見於聖人之制者，納綵·幣、奠雁之外無聞焉。財賄之有無，且不可論，況其餘乎？近觀昏姻之家，裝具必欲其侈，贈遺必欲其厚，饋獻必欲其豐，綾段珠翠，非吾土產，而衾褥帳幕，無此莫可，男往女家，櫃函先導，婦謁舅姑，膳羞絲絡，誇示於里閭，爭優於二姓，否者閭里賤之，親戚蔑之。於是富者竭其力，貧者企而及之，企且不及，則至有失其時，而廢婚嫁者，大是風俗之累也。伏望殿下，申明禁章，以絕弊風，以正人心。

其三曰，革內需司。古者王者之富，藏於民，降而不能，乃藏於倉廩·府庫。藏於官府，猶謂之私，況藏於私乎？竊觀國家設內需司，以管臧獲之貢。土田之入，其穀之散在外方者，所在主守，歲一斂散，以取其息。凡有內用，不與於公有司，一須於彼，蓋以爲本是私有，固不害如是爲也。臣等以爲，王者以天地爲一家，萬民爲一體，尺地莫非其有，一民莫非其臣，內需司之奴婢，獨非國家之民，內需司之土田，獨非國家之地乎？出於民之田

者，國家之有也，出於內需司之田者，亦國家之有也。名雖異，其用皆歸於國家，果有公私彼此之殊乎？況斂散取息，乃凡民貨殖者之爲也，散之以升，斂之以斗，散之以斗，斂之以碩，如不及期，而償者其息殆且倍焉，斯則與一而取十也。古之大夫之家，不畜牛羊，至有拔園葵，去織婦者，蓋不欲與民爭利也。大夫猶然，況王者，富有一國，豈宜與民爭升斗之利乎？借曰國家本無爭利之心，當其斂之之時，追繫鞭撻，甚於凡人之家，馬牛財產，亦有所不保，其民安知不是爭利也？臣等乞罷內需司，將其所有，付之公有司，以闡王者無私之義。此臣等之望也。若猶未也，請罷斂散取息，以存國家之大體，亦去弊安民之一事也。

~중략~

其十曰，嚴法禁。《書》曰：“令出惟行，不惟反令”，出而不能行，則莫如勿令。今朝廷立法，非不詳且嚴也，有司失於奉行，邇來中外事，率多不如法者，豈非聖朝累乎？試以一二事言之，宰相伴人，本有定數，固不可濫也。向者法禁陵夷，率多冒占，應占五人者，至於十人，應占十人者，至於數十人，土田肥則占之，家財饒則占之，四方居民之有衣食者，皆宰相伴人也。今之宰相之數，居半於朝，其伴人之周布郡縣者，蓋可想已。比者申明條貫，無口傳差牒者，悉令定役，而京外素稱伴人者，皆如其舊，無一動搖，此則非法之不嚴，乃有司奉行之不如法也。宰牛之禁，夙著其令，然城中大小人家，朝夕之奉，與夫賓客宴享，率用禁肉，官家供給，亦或用之，是豈皆自斃者乎？日復一日，無有已時，正恐四方農民之畜漸空矣。如此之類，固不可悉舉，非不有朝廷之法也，奉行有未至也。大抵一法不行於前，則百法隨廢於後。願殿下，無易以立法，無輕以變法，申命有司，益嚴奉行，責其成效幸甚。命政丞等議之。第一條僉議：“會飲動樂，本有禁令，憲府申明痛禁幸甚。”第二條，鄭麟趾、鄭昌孫、崔恒、曹錫文、金碩、成奉祖議：“娼妓、居室、禁殺、婚姻，皆有法令，亦可申明舉行。”申叔舟、韓明濬、洪允成、尹子雲議：“居室過制，飲食無節，婚姻過侈，皆已受教著令，其冒占娼妓，今後禁止何如？”

~중략~

第十條，僉議：“伴倘宰牛等事，責在奉行有司。”

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이극기(李克基)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엿드려 보건대, 일전에 날씨가 가물어서 하늘이 경계(警戒)를 보이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하늘이 경고(警告)를 하니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민사(民事)를 걱정하시어 몸소 책임을 지시고, 뒤쫓아 과실(過失)이 없었는지를 생각하시며, 일이 있으면 몸을 삼가고 행동을 닦으셨습니다. 신 등이 가까이 경악(經幄)에 모시면서 직책(職責)이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있으니,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성상의 은혜(恩惠)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감히 좁은 소견을 가지고 문득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니, 엿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재택(裁擇)하여 주소서.

그 첫째는,

~중략~

그 둘째는, 습속(習俗)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대개 예법(禮法)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선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의 기풍(氣風)이 옛스럽지 못하여, 구차한 짓을 태연히 하여 명예와 절조를 돌보지 아니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서 둔박(敦朴)한 짓을 비야(鄙野)하다고 가리키니, 이러한 풍속이 자라나고 선비들이 염치와 절개를 잃어서 풍속이 부박(浮薄)하고 다투어 이익을 좇는 데로 흘러가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때보다도 심한 적이 없었으며, 그 유속(流俗)이 그치지 아니하여 또 장차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터인데도 나라를 가진 자가 이를 경계할 바를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맹가씨(孟軻氏)가 교훈하기를, ‘시첩(侍妾) 수백 인을 내가 얻을 수 있더라도 얻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옛날의 그러한 뜻을 이를 수 있었던 자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것이 풍속을 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진실로 그 뜻을 행하여 얻을 수만 있다면 먼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할 터인데, 또한 어찌 하지 아니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근래 대소 조신(大小朝臣)을 보건대, 여러 고을의 창기(娼妓)를 함부로 점유하여 그 집에서 기르는 자가 계속 잇따르는데, 그 원인은 혹은 그들이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가 되어서 그 도(道)의 좌막(佐幕)에게나 그 도의 수령(守令)에게나 그 고을의 이웃에게 청탁으로 인연하여 그 아는 바 훈신(勳臣)의 집에다가 붙이고서 구사(丘史)를 핑계하는 까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관(外官)의 기생[妓] 가운데에 채주와 기예(技藝)가 있는 자는 관(官)에서 그들을 소유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 구역(驅役)을 시키는 데도 관(官)에서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니 저들은 모두 대신(大臣)이고 현관(顯官)이며 장차 조정의 기강(紀綱)을 출척(黜陟)하는 사람들이며, 백성들의 목숨과 한 고을의 이익을 다스리면서 그 표율(表率)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어찌 구차한 짓을 태연하게 하고 명예와 절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이를 회부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핵실(覈實)하여 다스리신다면, 선비들의 기풍(氣風)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나무 위의 집에 살고 동굴에 살던 먼 옛날로부터 상동 하우(上棟下宇)의 제도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바람과 비를 막고 침식(寢食)을 편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을 따름이니 요(堯)임금이 모자(茅茨)의 띠를 가지런히 자르지 아니하고, 우(禹)임금은 궁실(宮室)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귀하기가 천자(天子)였고, 부(富)하기가 사해(四海)를 차지하였는데도 오히려 또한 그러하였는데, 더군다나 신하(臣下)나 서인(庶人)의 집은 예제(禮制)의 분수와 한도가 있고 재산에도 궁진(窮盡)함이 있는데도, 사치하기를 지극하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래 보건대, 공경대부(公卿大夫)는 그 거처(居處)가 왕궁(王宮)과 비슷하며, 선비[士]와 서인(庶人)들 가운데 부호(富豪)는 그 거처가 공경대부와 비슷한데, 다투어 서로 흠모하고 모방하며 다투어 크게 하고 다투어 아름답게 하여서 재산이 다한 다음에야 그만두고, 그 뜻이 찬 다음에야 그치니, 그 폐단은 자기에게 만족을 구하고 남에게 취관(取辦)하도록 하는 데에 이르니, 보케지초(簠簋之誚)를 사양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이목(耳目)은 바깥에서부터 사치하고 속마음[中心]은 안에서부터 사치하여, 윗사람을 능멸하고 참람(僭濫)하는 조짐을 금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 등은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장[黍]을 구워 먹고 돼지[豚]를 잡아서 먹던 생활이 이미 바뀐 때로부터 음식을 삶아서 손님들을 연향(宴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배불리 먹고 기갈(飢渴)을 면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大夫)는 까닭 없이 양(羊)을 잡지 아니하고 사(士)는 까닭 없이 개나 돼지를 잡지 아니하였으며, 70세가 된 자라야 비로소 닭이나 돼지나 개 따

위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飮食)의 절조는 품제(品制)가 있는 다음부터 지나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 사대부(士大夫)의 집을 보건대, 음식이 절조가 없어서 손님이나 제사 때문도 아니고 양로(養老)를 하기 위해서도 아닌데, 보통 때에 집에 거처(居處)하면서 소를 잡아서 자봉(自奉)하고, 조그마하게 모여서 잔치하면서도 백품(百品)이 모였다고 과장하며,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하루에 열흘치의 비용을 허비하여 천물(天物)을 함부로 없애고, 반유(般遊)가 절도(節度)가 없으니, 이것은 선비의 풍습(風習)에 있어서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혼례(婚禮)는 성인(聖人)의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납채(納采)와 납폐(納幣)와 전안(奠雁)의 제도 외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또 논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 나머지 것들이겠습니까? 근래 혼인하는 집을 보건대, 혼인하는 장구(裝具)는 반드시 그것을 사치스럽게 하고자 하고, 물건을 증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후하게 하고자 하고, 음식을 먹이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며, 능단(綾段)과 주취(珠翠)는 우리나라 토산물이 아닌데도 금침과 장막(帳幕)은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며,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함(函) 껍짜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부인이 시부모를 뵈올 때 선수(膳羞)와 사략(絲絡)을 동네에 자랑하여 보이어 두 집안간의 우위(優位)를 다투며, 그렇지 않은 자는 동네에서도 이를 천시하고 친척들도 이를 멸시합니다. 이리하여 부자는 그 재력(財力)을 다하고, 가난한 자는 그리 하고자 하여 이러한 수준에 미치고자 하는데, 그리 하고자 하여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혼인하는 시기를 놓쳐서 혼가(婚嫁)를 폐(廢)하게 되는 자도 있게 되니, 크게 풍속(風俗)에 누(累)가 됩니다. 얄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거듭 금지하는 법령을 밝히시어 폐단이 되는 풍속을 근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으소서.

그 셋째는, 내수사(內需司)를 혁파(革罷)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자(王者)의 부(富)는 백성에게 갈무리하였으나, 세월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에 나라의 창廩(倉廩)이나 부고(府庫)에 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부(官府)에 갈무리한 것도 오히려 왕자(王者)의 사사로운 것이라고 이를 만한데, 더군다나 왕자(王者)의 사사로운 데에 갈무리한 것이겠습니까? 그옥이 보건대, 국가에서 내수사(內需司)를 설치한 것은 노비[藏獲]와 공물(貢物)을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토전(土田)의 수입 가운데 그 곡물(穀物)이 외방(外方)에 흩어져 있는 것은 소재지(所在地)의 주수(主守)가 해마다 한 번씩 곡물을 거두었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이식(利息)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궁내(宮內)에 사용할 것이 있으면 공유(公有)의 관사(官司)에서 주지 아니하고 한 결 같이 저들에게 기다렸다가 주니, 대개 이것은 본시(本是) 사유(私有)라 하여 진실로 이와 같이 하더라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왕자(王者)는 천지(天地)를 한집안으로 삼고 만민(萬民)을 일체(一體)로 삼으니, 촌척(寸尺)의 땅이라도 그 소유가 아님이 없으며,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그 신하가 아님이 없는데, 내수사의 노비만이 홀로 국가의 백성이 아니겠으며, 내수사의 전토(田土)만이 홀로 국가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전토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의 소유이고, 내수사의 전토에서 나오는 것도 또한 국가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름이 비록 다르다 하나 그 용도는 모두 국가에 돌아가는 것이니, 과연 공사(公私)의 피차에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곡물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 주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곧 일반 백성들이 화식(貨殖)하는 자들의 일인데, 되[升]로써 나누어 주고 말[斗]로써 거두어들이고, 말로써 나누어 주고 섬[碩]으로써 거두어들이며,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값은 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가 그 이식(利息)을 거의 또한 갑절로 갚아야 하니 이것은 하나를 빌려 주고 열을 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부(大夫)의 집에서 소와 양을 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채소밭에서 아욱[葵]을 뽑아내고, 베짜는 부녀자를 없앤 것은 대개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고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부(大夫)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왕자(王者)가 일국(一國)의 부(富)를 가지는데도 어찌 마땅히 백성들과 더불어 되[升]와 말[斗]의 이익을 다투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본래 이익을 다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곡물을 거두어들일 때를 당하여 뒤쫓아 묶어 들이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마소[馬牛]와 재산도 능히 보존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니, 그 백성들이 어찌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는 줄로 알겠습니까? 신 등은 빌건대 내수사(內需司)를 혁파(革罷)하여 그 소유를 공유(公有)의 관사(官司)에 붙여서 왕자(王者)는 사사로운 것이 없다는 뜻을 천명(闡明)하게 하소서. 이것이 신 등이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청컨대 곡물을 거두었다가 나누어 주어 이식(利息)을 취하는 일이라도 혁파하여서 국가의 대체(大體)를 세우는 것도 또한 폐단을 없애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중략~

그 열째는, 금법(禁法)을 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명령이 한 번 나가면 오직 행할 뿐이요, 오로지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명령이 나가서 능히 행해지지 못한다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 조정(朝廷)에서 법(法)을 세우는 것이 상세하고 또 엄밀하지 아니한 바는 아니나, 유사(有司)에서 봉행(奉行)하는 데에 잘못하여 근래에 중외(中外)의 일이 대개 법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누(累)가 아니겠습니까? 시험 삼아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재상(宰相)의 반인(伴人)은 본래 정(定)한 숫자가 있어서, 진실로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금법(禁法)이 해이하여져서 대개가 많이 함부로 점유(占有)하니 웅당 5인을 점유하여야 할 자는 10인에 이르고, 웅당 10인을 점유하여야 할 자는 수십인에 이르며, 전토(田土)가 비옥하면 이를 점유하여 버리고 가재(家財)가 풍부하면 이를 점유하여 버리니, 사방(四方)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 의식(衣食)을 가진 자는 모두 재상(宰相)의 반인(伴人)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상의 숫자가 조정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반인(伴人)이 군현(郡縣)에 널리 퍼져 있는 자도 대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법 조문을 거듭 밝히고, 구전(口傳)의 차첩(差牒)이 없는 자는 모조리 구실[役]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경외(京外)에서 본래 반인(伴人)이라 칭하는 자는 모두 옛날과 같이 하고 하나도 동요됨이 없으니, 이것은 법이 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곧 유사(有司)에서 이를 봉행(奉行)하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소[牛]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찍이 그 법령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성중(城中)의 대소인(大小人)의 집에서 아침 저녁의 봉양(奉養)이나 빈객(賓客)을 연향(宴享)할 때에 대개 금지한 쇠고기를 쓰고, 관가(官家)에서 공급하는 것도 또한 간혹 이것을 쓰니, 이러한 고기들이 어찌 모두 저절로 죽은 것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날이 반복되어 그치는 때가 있지 아니하니 정히 사방의 농민들의 가축이 점차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유(類)를 진실로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조정의 법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봉행(奉行)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한 번 법이 앞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면 백 가지 법이 뒤에 폐지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워진 법을 바꾸지 마시고 가볍게 법을 변경하지 마시며, 유사(有司)에 거듭 명하여 더욱 엄하게 봉행(奉行)하

도록 하여서 그 성효(成效)를 책임 지우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金)이 정승(政丞)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제1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회음(會飲)하면서 풍악(風樂)을 잡히는 것은 본래 금지된 법령(法令)이 있으니, 헌부(憲府)에서 거듭 엄하게 금령(禁令)을 밝힌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고, 제2조에 대해서는,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최항(崔恒)·조석문(曹錫文)·김질(金漬)·성봉조(成奉祖)는 의논하기를, “창기(娼妓)·거실(居室)·금살(禁殺)과 혼인(婚姻)에 관한 것은 모두 법령이 있으니, 또한 거듭 법령을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하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홍윤성(洪允成)·윤자운(尹子雲)은 의논하기를,

“거실(居室)의 제도가 지나치고, 음식이 절도가 없으며, 혼인이 지나치게 사치한 것은 모두 이미 수교(受敎)에 법령이 나타나 있으니, 그 함부로 창기(娼妓)를 점유하는 것은 금후로는 금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중략~

제10조에 대해서는, 모두 의논하기를, “반당(伴僮)과 소를 도살하는 등의 일은 봉행(奉行)하는 유사(有司)에 책임이 있습니다.”하였다.

▶ 33권 4년 8월 9일 戊辰

戊辰/御經筵. 講訖, 正言李季通啓曰: “《大典》內, 私犯罪者, 經二年乃敍. 今趙得琳得罪見罷, 纔經數月, 遽卽敍用未便. 請依《大典》施行.” 上曰: “得琳功臣也, 其勿言.” 上問左右曰: “醴泉居白丁魯大山, 隨其兄, 移居聞慶, 兄歿後, 還于本邑, 今例以徙民逃亡論死, 予欲特減何如?” 領事韓明澮對曰: “白丁本無居室, 山屯野處, 成群爲盜, 日以宰殺爲業, 故國家嚴立禁防, 使之雜處民間, 與相婚嫁, 其法嚴矣. 世祖朝慮兩界土廣人稀, 拔南道鄉戶以實之, 然徙民思戀舊土, 悉皆逃還, 不得已立徙民逃亡者論死之法. 今若小貸, 臣恐後弊難救.” 曹錫文曰: “此人之罪, 與徙民逃亡者異矣.” 左承旨申靜啓曰: “前此慶尙道觀察使鄭孝常啓: ‘才人白丁等, 私相出入買賣者, 例以徙民逃亡論斷, 自是不得生理, 所在騷然’ 因此其出入買賣, 資生節目, 已令刑曹擬議矣.” 上曰: “今此白丁之罪, 非徙民者例也.”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정언(正言) 이계통(李季通)이 아뢰기를, “《대전(大典)》 내에 사적(私的)인 범죄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서용(敍用)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득림(趙得琳)은 득죄(得罪)하여 파면된 지 겨우 수개월이 지났는데 곧 서용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金)이 말하기를,

“조득림(趙得琳)은 공신이니, 말하지 말라.”하였다.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예천(醴泉)에 사는 백정(白丁) 노대산(魯大山)이 그 형(兄)을 따라 문경(聞慶)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형이 죽은 후에 본읍(本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의 예(例)로는 사민(徙民) 중 도망자로 사형을 논죄하였으나, 나는 특별히 감형(減刑)하려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백정은 본래 거실(居室)이 없이 산야(山野)에 둔처(屯處)하여 무리를 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어 도둑질하고 늘 도살(屠殺)을 업(業)으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들로 하여금 민간(民間)에 섞이어 살면서 더불어 혼가(婚嫁)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법을 세웠으니, 그 법이 엄합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양계(兩界)가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문 것을 염려하여 남도(南道)의 향호(鄉戶)를 선발하여 이곳에 채웠으나, 사민(徙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여 모두 다 도망하여 돌아가니, 부득이 사민(徙民) 중 도망자는 사형(死刑)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용서하여 준다면, 신은 뒷날의 폐단을 구제하기가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하니 조석문(曹錫文)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죄는 사민(徙民) 중의 도망자와는 다릅니다.”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신정(申靜)이 아뢰기를, “이에 앞서 경상도관찰사 정효상(鄭孝常)이 아뢰기를, ‘재인과 백정(白丁) 등이 사사로이 서로 출입하며 매매한 자는 사민(徙民)으로서 도망한 사람의 사례로 논죄하여 처단하니, 이로부터 생계(生計)를 얻지 못해서 살길이 막연하여졌다.’고 하였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출입하면서 매매하여 자생(資生)하도록 하는 절목(節目)을 이미 형조(刑曹)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 백정의 죄는 사민자(徙民者)의 예가 아니다.” 하였다.

▶ 33권 4년 8월 9일 戊辰

日本國防、長、攝、泉四州太守大內別駕多多良政弘遣源周德，來獻土宜。其書契曰：

比年，我國人，朝于上國歸來者，異口同辭僉賀曰：“陛下龍鳳之姿，天日之表，聖德嗣興，仁化方盛，亦猶宣光中興矣”，孰肯不向西而笑焉？矧政弘有南巢北嘶之私者乎？

~중략~

不腆土宜，注名于後，大刀二把，扇子十把，鏡奩十箇，螺甲二，硯十面，樽一雙，梔子百斤，牛皮五十枚，厚茶百斤。

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 4주 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 별가(大內別駕)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원주덕(源周德)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상국(上國)에 조공(朝貢)하고 돌아온 자는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모두 축하하며 말하기를, ‘폐하의 용봉(龍鳳)과 같은 자태는 천일(天日)의 표상이라 성스러운 덕이 계속 일고, 인자한 교화(教化)가 바야흐로 풍성하여 역시 중흥(中興)을 선광(宣光)할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누군들 서쪽을 향해 기꺼워하지 않을 자 있겠습니까? 향차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은 남소(南巢)의 북시(北嘶)에 있는 사사로운 자로서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중략~

보잘것 없는 토산물의 이름을 다음에 주기(注記)하니, 대도(大刀) 2파(把), 부채[扇子] 10파, 거울[鏡奩] 10개, 나갑(螺甲) 2, 벼루[硯] 10면(面), 술병[樽] 1쌍, 치자(梔子) 1백 근, 우피(牛皮) 50매(枚), 후다(厚茶) 1백 근입니다.” 하였다.

▶ 33권 4년 8월 17일 丙子

丙子/御經筵. 講訖, 同副承旨金紐啓曰: “戶曹啓: ‘山名殿使送瑛亮西堂齋來牛皮價, 彼云: 「大牛皮一張, 綿紬二匹, 中牛皮一張, 一匹半, 小牛皮一張, 一匹.」 以其價高, 更使郎廳, 據例開諭, 曾不信從.’ 前此, 大牛皮一張, 絺布二匹, 中則一匹, 或一匹半, 小則一匹例也. 若從其言, 其加給綿布, 總二百五十六匹. 以是開端, 終至難防, 令禮曹, 開諭以送.”

이하생략~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유(金紐)가 아뢰기를, “호조에서 아뢰기를, ‘산명전(山名殿)의 사송(使送)인 양영서당(亮瑛西堂)이 우피(牛皮)의 값을 가지러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대우피(大牛皮) 1장(張) 값은 면주(綿紬) 2필(匹)이고, 중우피(中牛皮) 1장 값은 1필 반(半)이고, 소우피(小牛皮) 1장 값은 1필이라.」 고 하니, 그 가격이 비싸므로, 다시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상례(常例)에 의거하여 타이트도록 하였으나, 믿고 따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대우피(大牛皮) 1장 값이 면포 2필이고, 중우피(中牛皮)는 1필 혹은 1필 반이며, 소우피(小牛皮)는 1필이 상례였으니, 만약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그들에게 더 줄 면포는 총 2백 56필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단(事端)을 삼는다면 끝내 막기가 어려울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타일러서 보내도록 하소서.”하였다.

이하생략~

▶ 35권 4년 10월 22일 庚辰

刑曹三覆啓: “濟州囚私奴性義、文面山、金元民、德命、宋石松、宋自山盜殺牛馬罪, 依受教, 斬待時.” 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계달하기를, “제주(濟州)의 죄수 사노(私奴) 성의(性義)·문면산(文面山)·김원민(金元民)·덕명(德命)·송석송(宋石松)·송자산(宋自山)이 마소를 훔쳐서 죽인 죄는, 수교(受教)에 의하여 참대시(斬待時)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35권 4년 10월 23일 辛巳

刑曹三覆啓: “恩津囚奴丁元等三人, 結黨盜牛罪, 依受教, 爲首者絞待時.” 命減死.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계달하기를, “은진(恩津)의 죄수 중 정원(丁元) 등 세 사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 무리를 지어서 소를 도둑질한 죄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우두머리 된 자는 교대시(絞待時)에 처하소서.”하니 사형(死刑)은 감하도록 명하였다.

▶ 36권 4년 11월 22일 己酉

刑曹三覆啓: “咸安囚奴白哲與白丁莫山等三人, 盜南孝仁等家牛馬罪, 依受敎, 三人以上成群爲盜, 爲首者絞待時. 安山囚白丁朴檢同·朴貞、南陽囚白丁從南·趙山、水原囚白丁吳得夫·金末同·徐孟雨, 劫陳叔良家強盜罪, 律該斬不待時, 依受敎, 妻子永屬所居邑奴婢.” 皆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함안(咸安)의 죄수 중 백철(白哲)은 백정(白丁) 막산(莫山) 등 3인과 더불어 남효인(南孝仁) 등의 집에서 우마(牛馬)를 도둑질하였는데, 수교(受敎)에 의하여 3인 이상 떼를 지어 도둑질하면 우두머리 된 자는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안산(安山)의 죄수 백정 박검동(朴檢同)·박정(朴貞), 남양(南陽)의 죄수 백정 종남(從南)·조산(趙山), 수원(水原)의 죄수 백정 오득부(吳得夫)·김말동(金末同)·서맹우(徐孟雨)는 진숙량(陳叔良) 집에 들어가 강도질하였으니, 죄가 율(律)에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는 데, 수교(受敎)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해야 합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37권 4년 12월 28일 甲申

戶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 “今救荒, 各戶人一口, 一日給醬二合, 則勢將難繼. 一日一合計, 得摠七千三百碩, 口食及農牛料, 竝計二萬石. 請以軍資監陳豆題給, 撙節救恤.” 從之.

호조(戶曹)에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구황(救荒)하는데 각호(各戶)에 사람 1명마다 하루에 장(醬) 2홉[合]을 주니, 장차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루에 1홉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모두 7천 3백 석(碩)인데, 사람의 식량과 농우(農牛)의 사료를 합하여 계산하면 2만 석이 됩니다. 청컨대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콩[陳豆]을 주어 절약하면서 구휼(救恤)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38권 5년 1월 25일 辛亥

都承旨李崇元等啓曰: “李陽生爲捕盜將, 多領健卒, (托)〔託〕捕盜而役使於家, 如有

宿嫌者，雖非盜賊，係累鞭撻，無所不至．積威所劫，屠牛無賴之徒，輻輳其門，公然受賂．臣等意謂，臨時命將，捕賊耳，不須恒置捕盜將．”命罷之．

도승지(都承旨) 이승원(李崇元) 등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은 포도장(捕盜將)이 되어 튼튼한 병졸(兵卒)을 많이 거느리면서 도둑을 잡는다고 핑계대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켰으며, 만약 오랜 혐의(嫌疑)가 있는 자가 있으면 비록 도둑이 아닐망정 엮어매어 채찍으로 때리는 등 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쌓이고 쌓인 위세에 겁을 먹고, 소를 잡는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그 문(門)에 모여들어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포도장은 임시로 장수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을 뿐이니, 포도장을 상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 39권 5년 2월 7일 壬戌

正言安琛啓曰：“京城中無賴之徒，日以屠牛爲業，名爲去骨匠，以規厚利者甚多，不可不痛禁．前者稱外知部者，皆徙邊，今依此例，盡刷業屠牛者徙邊．”上問左右．領事崔恒對曰：“去骨匠，固可罪也．但刷遣之時，或有誤逮者，則不可．”金礪曰：“京中舊無去骨匠，士族家婚姻祭祀時，必請於司饗所而爲之，今則稱去骨匠者，無處無之，隨其現露，徙邊爲便．”上曰：“可．”

정언(正言)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서울 안의 무뢰한 무리로서 날마다 소를 도살하는 것으로 업을 삼으며 거골장(去骨匠)이라 이름하여 후한 이익을 노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엄히 금지해야 됩니다. 앞서 외지부(外知部)라 일컫는 자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겼으니, 지금 이에 따라 소를 도살하는 자를 모두 찾아서 변방으로 옮기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최항(崔恒)이 대답하기를, “거골장은 본래 죄를 줄 만합니다. 다만 찾아서 보낼 때에 혹은 그릇 체포되는 자가 있으면 옮지 못합니다.”하고, 김질이 말하기를, “서울에는 옛날에 거골장이 없었으므로 사족(士族) 집에서 혼인이나 제사할 때에는 반드시 사려소(司饗所)에 청해서 하였는데, 지금은 거골장이라 일컫는 자들이 없는 곳이 없으니, 나타나는 대로 변방에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 40권 5년 3월 1일 丙戌

永安道甲山府人張弛等上言，條陳本府之弊：“其一，乙酉年所定貢案，以貂皮一百十五張、鼠皮二百六十張、樺皮三百七十五張，爲本府歲貢，今定貢案，加貂皮六十五張、鼠皮二十張、樺皮三百五十張．貂、鼠、樺皮，雖產於本府，而未易多得，又不可越入胡地以取之，無以充貢，其價之重，至於以一牛，易一貂皮，民不能堪．願量減貂、鼠皮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貢, 又以樺皮, 移於北靑、咸興.

이하생략~

영안도(永安道)의 갑산부(甲山府) 사람 장이(張弛) 등이 상언(上言)하여 본부(本府)의 폐단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는데, 그 상언에 이르기를, “첫째, 을유년에 정한 바의 공안(貢案)은, 초피(貂皮) 1백 15장(張), 서피(鼠皮) 2백 60장(張), 화피(樺皮) 3백 75장(張)을 본부(本府)의 세공(歲貢)으로 삼았는데, 지금 정한 공안에는 초피 65장, 서피 20장, 화피 3백 50장을 더하였습니다. 초피·서피·화피는 비록 본부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많이 얻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 오랑캐 땅[胡地]에 넘어 들어가서 이를 취(取)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공물(貢物)을 충당할 수가 없으며, 그 값도 비싸서 소[牛] 1두(頭)를 가지고 초피 1장과 바꾸는 형편이니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초피·서피의 공물을 헤아려 감하고, 또 화피는 북청(北靑)·함흥(咸興)에 옮기게 하소서.

이하생략~

▶ 41권 5년 4월 8일 壬戌

刑曹三覆啓: “河陽囚金連妻戒德, 與女壻羅順同相奸, 順同爲首, 謀殺金連未行罪, 律該各斬不待時, 平壤囚良人嚴伊、桂山、康春, 與在逃白丁桂同, 同燒張石剛、魯興德家, 強奪馬牛衣服罪, 律該斬不待時, 在逃者追捕斬. 依受教, 妻子永屬所在官奴婢.” 竝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하양(河陽)의 죄수(罪囚) 김연(金連)의 처(妻) 계덕(戒德)은 사위인 나순동(羅順同)과 간통(奸通)을 하고, 나순동이 주모(主謀)하여 김연을 죽이려다가 미수(未遂)에 그친 죄는 그 율(律)이 각각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며, 평양(平壤)의 죄수인 양인(良人) 엄이(嚴伊)·계산(桂山)·강춘(康春)이 도망간 백정(白丁) 계동(桂同)과 같이 장석강(張石剛)·노흥덕(魯興德)의 집에 불을 지르고 우마(牛馬)와 의복(衣服)을 강탈(強奪)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고, 도망한 자는 추포(追捕)하여 참(斬)하는 데 해당됩니다. 수교(受教)한 것에 의하여 그들의 처자(妻子)는 관할 관청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41권 5년 4월 21일 乙亥

乙亥/刑曹啓: “今承傳教: ‘輪對者有言: 『《刑典續錄》載, 『強盜及牛馬賊爲首者, 妻子竝永屬所居邑奴婢.』 今牛馬賊爲首者免死, 而其妻子, 猶依《續錄》, 與強盜妻子同論, 用法失宜.』 其議以啓.’ 臣等參詳, 牛馬賊爲首者, 旣以竊盜論, 而其妻子反蒙重罪, 情法失宜, 請勿屬官奴婢.”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전교(傳敎)를 받으니, ‘윤대(輪對)하는 자의 말이, 『《형전속록(刑典續錄)》에는, 『강도와 마소[馬牛]를 도둑질한 도적의 죄수는 처자(妻子)와 아울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마소를 도둑질한 자의 죄수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는데도 그 처자는 《대전속록》에 따라 강도를 한 처자와 같은 죄로 논단(論斷)하고 있으니, 이는 법을 씌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니 그러한 점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신(臣) 등은 고찰하건대, 마소를 도둑질한 자의 죄수도 이미 절도(竊盜)로 논죄(論罪)하고서 그 처자만 중죄(重罪)를 받게 하는 것은 정리(情理)와 법에 있어서 타당성을 잃은 것이오니 바라건대, 관노비(官奴婢)로 영속시키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1권 5년 4월 25일 己卯

刑曹啓: “《刑典續錄》只載宰殺牛馬者, 三犯杖一百黥面, 而不明言黥某字. 請今後宰牛者, 黥宰牛二字, 宰馬者黥宰馬二字.”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형전속록(刑典續錄)》에는, 마·소[馬牛]를 잡은 자는 이를 세 번 범하면 장(杖) 1백 대에, 경면(黥面)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글자를 자자(黥)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후로는 재우(宰牛) 한 자는, ‘재우(宰牛)’라는 두 글자를 자자하고, 재마(宰馬) 한 자는, ‘재마(宰馬)’라는 두 글자를 자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43권 5년 6월 9일 壬戌

刑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 “前軍威縣監辛永理, 許留居京新良人李壽山于衙內, 饋以公廩, 又以諸司納牛皮等貢物, 許壽山防納, 及事發, 逮捕壽山及辭連人, 分囚新寧、尙州等官, 永理潛遣官奴養獄. 永理今雖不服所犯, 壽山及事干人, 皆已輸情, 事雖經赦, 不可全釋. 請收永理職牒, 徵壽山所食公廩及防納之物.” 從之, 命勿收永理職牒.

형조(刑曹)에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 군위현감(軍威縣監) 신영리(辛永理)는 서울 사는 신량인(新良人) 이수산(李壽山)을 아내(衙內)에 머물러 두고 공름(公廩)을 먹였고, 또 제사(諸司)에 바치는 우피(牛皮) 등 공물을 이수산이 방납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일이 드러나서 이수산과 옥사(獄辭)에 관련된 사람을 잡아 신녕(新寧)·상주(尙州) 등 고을에 나누어 가두었는데 신영리가 몰래 관노(官奴)를 보내어 옥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신영리는 지금 범한 죄를 승복하지 않으나, 이수산과 사간인(事干人)은 다 실정을 불었으니, 일이 사유(赦宥) 이전에 있었더라도 전석(全釋)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신영리의 직첩(職牒)을 수탈(收奪)하고 이수산이 먹은 공름과 방납한 물건을 추징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신영리의 직첩을 수탈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43권 5년 6월 28일 辛巳

御經筵. 講訖, 掌令李瓊全啓曰: “捕盜守令論賞, 睿宗朝權宜之法也. 今《大典》刪而不錄. 《大典》萬世常法, 豈可輕毀之乎?” 上曰: “若無勸賞之典, 孰肯盡力捕盜?” 瓊全更啓曰: “如張永奇獷悍成黨拒敵官軍, 則其捕獲者, 雖陞堂上, 未爲過也, 其餘鼠竊狗偷, 捕獲不難, 例皆加賞可乎? 且守令治化, 以奸猾自戢爲貴, 今不能爾, 以致盜賊恣行, 雖得捕之, 免罪足矣, 何賞之有? 此法一行, 臣恐守令僥倖恩賞, 誣指平民爲盜賊者必多.” 正言安琛啓曰: “捕盜守令必賞, 則希恩飾詐, 如王成僞增戶口者有矣. 世祖嘗患牛盜, 有捕告者, 必賞職, 其後知猥濫之弊, 命追奪所賞階級. 今賞捕盜, 則其猥濫將無異於捕牛盜者矣.” 上曰: “當更商量.”

경연(經筵)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장령(掌令) 이경동(李瓊全)이 아뢰기를, “도둑을 잡은 수령을 논상(論賞)하는 것은 예종조(睿宗朝)에서 권도(權道)로 마땅하게 한 법입니다. 이제 《대전(大典)》에는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으며, 《대전》은 만세의 떳떳한 법인데, 어찌 가벼이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장하여 상주는 법이 없으면, 누가 힘을 다하여 도둑을 잡으려 하겠는가?” 하였다. 이경동이 다시 아뢰기를, “장영기(張永奇)처럼 거칠고 사나우며 무리를 이루어 관군(官軍)에게 항거한 경우라면 잡은 자를 당상(堂上)으로 올리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 나머지 좀도둑은 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으레 다 상준다면 옳겠습니까? 또 수령의 치화(治化)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제 능히 그러지 못하여 도둑이 횡행하게 하였으니, 잡았더라도 죄를 면해 주면 족하거니와, 무슨 상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법이 한번 시행되면, 아마도 은상(恩賞)을 바라고 거짓으로 평민을 가리켜 도둑이라 하는 수령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하고, 정언(正言)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도둑을 잡은 수령을 반드시 상주면, 은혜를 바라고 거짓을 꾸며서 마치 왕성(王成)이 거짓으로 호구(戶口)를 늘린 듯이 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조께서 일찍이 소도둑을 걱정하여 잡아서 고발한 자에게 반드시 벼슬을 상주했으나, 그 뒤에 외람된 폐단을 아시고 상주었던 계급을 추탈(追奪)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도둑 잡은 것을 상주면, 그 외람된 것이 장차 소도둑을 잡은 자에게 상준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헤아리겠다.” 하였다.

▶ 44권 5년 閏6월 17일 庚子

庚子/御經筵. 講訖, 領事洪允成啓曰: “今旱甚, 必有所召. 臣意都城內有稱去骨匠者, 以屠牛爲業, 國家雖立法嚴禁, 其利甚厚, 故人不畏法爭效爲之, 至以骨骼積置路傍, 感傷和氣, 恐由於此. 請盡刷此輩, 進諸遐裔, 以痛懲之.” 正言安琛啓曰: “臣見坊曲之間,

頗以牛頭骨置溝渠中，以通行焉，其屠殺之多可知。傷和召怨莫甚。請全家徙邊，痛絕其弊。今國家驅南方無罪之民，以實西北空虛，況此爲惡之徒，何足惜乎？”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자,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이제 한재(旱災)가 심한 것은 반드시 부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뜻하기에는 도성(都城) 안에 거골장(去骨匠)이라 칭하는 자가 소 잡는 것으로써 직업을 삼고 있는데, 국가에서 비록 법을 세워 엄격히 금지하지만 그 이윤이 매우 후한 까닭으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투어 본받아 심지어 골격(骨骼)을 길가에 쌓아 두어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하게 하니,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컨대 이 무리를 다 쫓아내(刷出)하여 먼 시골로 보내어 통렬히 징계하소서.”

하고, 정언(正言) 안침(安琛)은 아뢰기를,

“신이 방곡(坊曲) 사이를 보니 자못 우두골(牛頭骨)로써 구거(溝渠)를 메워 그 곳으로 통행하니, 도살한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기(和氣)를 손상하고 원한(怨恨)을 불러움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가 사변(全家徙邊)하여 그 폐단을 통렬히 근절하소서. 지금 국가가 남방(南方)의 죄 없는 백성을 몰아서 서북방의 공허한 곳을 채우는 실정인데, 더구나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무리가 무엇이 아깝습니까?”하였다.

▶ 44권 5년 閏6월 19일 壬寅

刑曹三覆啓: “萬頃囚私奴仇叱達、白丁趙介叱同・金玉山刦行人掠奪牛馬衣服罪，律該斬不待時，妻子依受教，屬所居邑奴婢。”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만경(萬頃)의 죄수 사노(私奴) 구질달(仇叱達), 백정(白丁) 조개질동(趙介叱同)·김옥산(金玉山)이 행인을 겁탈하여 우마와 의복을 약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처자(妻子)는 수교(受教)에 의하여 거주하는 읍의 노비로 정속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44권 5년 閏6월 24일 丁未

丁未/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劄子曰:

我朝列聖相承，明刑弼教，可謂至矣，而空獄之事，蓋未多聞也。唯世祖朝，李克堪爲刑曹判書，適值三大赦之後，啓以空獄，人皆傳笑，世祖亦不行賞。其後咸禹治、李鐵堅以空獄受賞，李繼孫等又從而效之，至蒙恩獎，其獻諛甚矣。本府捕宰牛者，多繫於獄，以此觀之，奸慝之徒，尙多有之。繼孫等慕刑措虛名，以欺殿下，殿下不責其實，反加賞焉。臣等恐後之希恩幸賞者，爭慕效之，虛僞之風日滋也。伏望追還賞賜，明正其罪幸甚。

傳曰: “獄訟太煩，留滯未決，今無赦而獄囚盡空，故賜物褒之耳。其勿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우리 조정은 열성(列聖)이 서로 계승하여 형(刑)을 명확히 하고 교화를 도왔으니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만, 옥(獄)이 비었다는 일은 대개 많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세조(世祖)에 이극감(李克堪)이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어 마침내 3번 대사(大赦)를 치른 뒤에 옥(獄)이 비었다고 아뢰니 사람이 모두 비웃었고 세조(世祖)도 또한 상(賞)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함우치(咸禹治)·이철건(李鐵堅)이 옥(獄)이 빈 것으로써 상(賞)을 받았는데, 이계손(李繼孫) 등도 또 따라서 본받아 은장(恩獎)을 받고자 하는 데 이르렀으니 아첨을 바친 것이 심합니다. 본부에서 소를 도살한 자를 체포하여 옥(獄)에 계류시킨 것이 많은데 이것으로써 본다면 간특한 무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계손(李繼孫) 등은 형조불용(刑措不用)의 허명(虛名)을 사모하여 전하를 기망(欺罔)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그 사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상을 더 주시었습니다. 신 등은 뒤에 은혜를 바라고 상을 노리는 자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 허위(虛僞)의 풍습이 날로 자라날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바라건대 상사(賞賜)하신 것을 추환(追還)하여 그 죄를 명백히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니, 전지하기를, “옥송이 너무 번거롭고 유체(留滯)하여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사면(赦免)하지 않았는데도 옥수(獄囚)가 다 빈 까닭으로 물건을 내려 주어 포상하였으니, 말하지 말라.”하였다.

▶ 44권 5년 閏6월 29일 壬子

傳曰: “今後宰殺牛馬者, 勿論良、賤, 全家定役于沿路諸邑、諸驛.”

전지하기를, “이 뒤로는 우마를 제살(宰殺)하는 자는 양민·천인을 논하지 말고 온 집을 연로(沿路)의 제읍과 제역에 정역(定役)하게 하라.”하였다.

▶ 45권 5년 7월 27일 庚辰

日本國防、長、攝、泉四州太守大內別駕多多良政弘遣人來, 獻土宜. 其書契曰:

恭惟皇帝陛下仰明德之超乎日月, 祝聖壽之富于春秋, 至禱至祝. 上國與我先祖通好, 至政弘, 二十有六代也. 因上國與對州, 未同盟之先, 屢及兵爭矣. 臣之先人, 爲上國遣救之兵, 士卒盡戰死而無一人之歸于國, 而今八十餘歲也. 加之承尊命, 水牛牝牡進之,然則先人於上國, 其忠不少者歟? 政弘爲其後胤, 壬辰歲初, 以使者修先人之舊好, 寓合違舊而甚無愛惠之趣. 執事其遺忘舊盟歟? 抑又依使者之不肖者歟? 不審不審. 雖然猶依尊命, 卽又重遣使船, 伏聞命者也. 次自琉球國賜麝香一匹, 承尊命可進貢之. 政弘數歲之先, 救山名左金吾之戰而留京師者有年矣. 去歲三月十八日, 金吾已逝去, 同四月二十日細川京兆亦逝去, 因而兩家之子弟, 漸以和睦矣. 於茲我殿下將遣使船於大明國, 臣承

命以粧船，云公云私，其費鉅多也。偏仰上國之餘波，俯垂恩賜，自今以往，愈以舊盟抱忠節者也。其大明國、琉球國之於臣也，恩問尤厚矣，上國獨似忘舊盟。交盟若爲無所益者，依報命以得其心，伏布腹心。不腆土宜，聊表微志耳。

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4주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별가(大內別駕)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삼가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 명덕(明德)이 일월(日月)보다 빛나고 성수(聖壽)가 장래에 장구(長久)하시기를 빌고 빕니다. 상국(上國)과 우리 선조(先祖)가 통호(通好)한 지 정홍(政弘)까지 26대째입니다. 상국과 대주(對州)와 아직 동맹(同盟)하기 전에 자주 전쟁하였는데, 그 때에 신(臣)의 선인(先人)이 상국을 위하여 구원병을 보내어 사졸이 죄다 전사하고 한 사람도 귀국하지 못한 것이 이제 8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게다가 존명(尊命)을 받들어 수우(水牛) 암수를 바치기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인의 상국에 대한 충성이 적지 않았다 하겠습니까. 정홍은 그 후사(後嗣)로서 임진년에 처음 사자(使者)를 보내어 선인이 맺어 온 구호(舊好)를 닦았는데, 그때 구례(舊例)에 어그러지는 일을 당하여 아껴 주시는 뜻이 매우 없었습니다. 집사(執事)가 옛 맹약(盟約)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사자가 변변치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존명에 따라 곧 거둬 사선(使船)을 보내어 명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구국(琉球國)에서 보내 온 사향(麝香) 1필(匹)을 존명을 받들어 바칩니다. 정홍이 몇 해 전부터 산명좌금오(山名左金吾)의 군사를 돕느라고 경사(京師)에 머문 지가 몇 해 되었는데, 지난해 3월 18일에 금오가 서거(逝去)하고 그달 28일에 세천 경조(細川京兆)도 서거함에 따라 두 집안의 자제들이 점점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殿下)가 대명국(大明國)에 사선(使船)을 보내고자 하매, 신이 명을 받들어 배를 꾸미는데, 공사간(公私間)에 그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상국의 풍부한 재물의 나머지로 은사(恩賜)를 곱어 내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갈수록 옛 맹약에 따라 충절(忠節)을 지키고자 합니다. 대명국과 유구국에서는 신에 대하여 은문(恩問)이 더욱 후한데, 상국만이 옛 맹약을 잊으신 듯합니다. 교맹(交盟)이 보탬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명(報命)에 따라 그 뜻을 알아서 엮드려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토의(土宜)나마 작은 뜻을 표합니다.”

▶ 49권 5년 11월 11일 壬戌

諭永安道觀察使金瓘、北道節度使魚有沼曰：“近來諸種野人來朝者，多訴我國人偷其牛馬，然彼亦潛偷我牛馬，轉賣遠處，患不在大，恒自於小，若是不已，將構釁隙。當先戢我人，使不得爲非，然後可以責彼，宜痛治我人，使不得盜彼牛馬，以絕邊釁。”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 김관(金瓘)과 영안북도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어유소(魚有沼)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근래에 여러 종류의 야인(野人) 가운데 내조(來朝)하는 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그들의 마소를 훔친다고 호소하는 것이 많으나, 저들도 우리 마소를 몰래 훔쳐서 먼 곳에 전매(轉賣)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니, 사변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데에서 나는데, 이처럼 그치지 아니하면 장차 틈이 생길 것이다. 마땅히 먼저 우리나라 사람을 단속하여 잘못을 못하게 한 뒤에야 저들을 꾸짖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우리나라 사람을 엄하게 다스려서 저들의 마소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여 변경의 틈이 나는 것을 끊게 하라.”

하였다.

▶ 50권 5년 12월 7일 戊子

司憲府執義李亨元等上劄子曰：

臣等聞，東陽正徐命只收丘史。臣等竊念，徐以宗親，交結去骨匠金山，使其奴卵同，許於其家屠牛，及爲本府吏所捕，不自畏縮，乃與其弟率丘史，成群劫奪狂妄不道，罪犯至重。此而不治，何以懲惡？大抵去骨匠者，類皆借大家垣牆局鑄嚴固處屠殺，欲其不爲禁亂吏所發也。宗親之家門戶深邃，禁亂吏卒尤不得到，故交結無賴之人，恣行屠殺。事覺又不嚴治，則宗親將無所懲艾。謹按《大典》：“宰殺牛馬者，初犯杖一百徒三年，其切隣、管領、里正知情不告者，竝以制書有違律論。”又受教內：“去骨匠宰殺牛馬者，勿論良賤，全家定役于路傍各官各驛。”今徐家奴卵同與金山，同黨屠牛，已屬驛吏，徐爲家主，其宰牛也，知情借家，其犯禁也。成群據奪，其罪豈止收丘史而已乎？世宗朝守道正德生屠牛事覺，盡收職牒，遠方付處，縱不能如《大典》受教之法，請依德生例罪之。

傳曰：“徐之罪，非德生例也，勿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이형원(李亨元)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듣건대 ‘동양정(東陽正) 이서(李徐)는 다만 구사(丘史)만을 거두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서(徐)는 종친(宗親)으로서 거골장(去骨匠) 김산(金山)과 교결(交結)하여, 그 종[奴] 난동(卵同)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소를 잡도록 허락했다가 본부(本府)의 관리에게 잡히게 되었는데도, 스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우와 더불어 구사(丘史)를 거느리고 떼를 지어 겁탈(劫奪)하고 광망(狂妄)하며 부도(不道)하게 하였으니, 죄(罪)를 범한 것이 지극히 중(重)합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악(惡)을 징계하겠습니까? 대저 거골장(去骨匠)이란 자들은 모두가 다 대가(大家)의 원장(垣牆)이나 문단속[局鑄]이 엄하고 견고한 곳을 빌어서 도살(屠殺)을 하는데, 그것은 금란(禁亂)하는 관리에게 발각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종친의 집은 문호(門戶)가 깊고 으늑하여 금란하는 이졸(吏卒)들이 더욱이 이를 수가 없어서, 무뢰한 사람과 교결하여 도살을 자행(恣行)하는 것입니다. 일이 발각되었는데도 또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종친을 장차 징계[懲艾]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대전(大典)》을 상고해 보건대, ‘소나 말을 재살(宰殺)한 자로 초범(初犯)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이며, 그 절린(切隣)과 관령(管領)·이정(里正)으로 실정(實情)을 알고도 고(告)하지 아니한 자도 아울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論)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교(受教) 안에는 ‘거골장으로 소나 말을 재살한 자는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전가(全家)를 노방(路傍)의 각 관청이나 각역(各驛)에 정역(定役)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지금 이서(李徐)의 가노(家奴) 난동은 김산과 더불어 동아리가 되어서 소를 도살했기 때문에 이미 역리(驛吏)로 붙였는데, 이서(李徐)는 집주인이 되어 가지고 그 소를 재살하는데 정을 알면서도 집을 빌려 주었으니, 그것은 범금(犯禁)입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되어서 거탈(據奪)하였으니, 그 죄가 어찌 구사를 거두는 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세종(世宗) 때에 수도정(守道正) 이덕생(李德生)이 소를 잡은 일이 발각되어, 직첩(職牒)을 다 거두고, 원방(遠方)에 부처(付處)하였으니, 비록 《대전(大典)》이나 수교(受敎)의 법과 같이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청컨대 덕생의 예(例)에 따라 죄를 주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이서의 죄는 이덕생의 예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하였다.

▶ 50권 5년 12월 8일 己丑

御經筵. 講訖, 掌令李瓊全、正言卜承貞請論東陽正徐之罪, 上問左右. 領事鄭昌孫對曰: “臺諫言是也. 宗親之犯法, 宜抵罪以懲之. 今若只收丘史, 則彼既不懲, 他亦不復忌憚, 後必冒犯大法, 不得不罪. 而罪之則傷恩, 故宗親所犯, 必須依律科斷, 以示懲戒.” 領事曹錫文啓曰: “東陽正既犯邦憲, 又輕蔑法司, 成群劫奪, 尤爲可罪. 請須嚴斷.” 上曰: “守道正則家內常自宰牛, 故收職牒遠方付處矣. 此則非其例也, 其考例以啓.”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장령(掌令) 이경동(李瓊全)과 정언(正言) 복승정(卜承貞)이 동양정(東陽正) 이서(李徐)의 죄를 논청(論請)하므로,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종친(宗親)의 범법(犯法)도 마땅히 죄를 주어서 이를 징계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 구사(丘史)만을 거두면, 그가 이미 징계되지 아니하여 다른 종친이 또 다시 기탄(忌憚)하지 아니하고, 뒤에 반드시 큰 법을 함부로 범할 것이니,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주면 은혜를 상하게 되므로, 종친이 범한 바는 반드시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해서 징계(懲戒)를 보이소서.”하고, 영사(領事) 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동양정(東陽正)은 이미 국법을 범하고, 또 법사(法司)를 경멸(輕蔑)하였으며, 동아리를 이루어 겁탈하였으니, 더욱이 죄를 주어야 옳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엄단(嚴斷)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도정(守道正)은 집안에서 항상 스스로 소를 잡았기 때문에 직첩(職牒)을 거두고 원방(遠方)에 부처(付處)한 것이다. 이것은 그 예(例)가 아니니, 그 예를 상고하여 아뢰라.”하였다.

▶ 51권 6년 1월 14일 甲子

禮曹啓: “《親耕籍田儀禮》, 參考古制, 一, 前三日, 司農以青箱, 奉九穀、種稷之種, 進內前, 二日, 皇太后率六宮, 獻之于帝, 次日授司農, 以待耕事.

~중략~

一, 太常率其屬庶人, 【量用二十八人】 右庶人耒耜十部, 並牛令東籍田備進.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一, 籍田日大祝令以大牢祀先農, 如帝社儀, 王制云: ‘諸侯祭社, 小牢黝色.’

~중략~

上項古制, 請添入儀註.” 從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하는 의례(儀禮)의 옛 제도를 참고(參考)하니, 이리하였습니다.

1. 3일 전에 사농(司農)이 청상(靑箱)으로 구곡(九穀)·동륙(種陸)의 1종자를 받들어 내전에 올리고, 2일 전에 황태후(皇太后)는 육궁(六宮)을 거느리고 황제(皇帝)에게 바치면, 다음 날 사농(司農)에게 주어서 경종하는 일을 기다린다.

~중략~

1. 태상(太常)은 그 소속된 서인(庶人)을 【28인을 헤아려 쓴다.】 거느리되, 위의 서인(庶人)은 너사(耒耜) 10부(部)에 아울러 소를 몰고 동적전(東籍田)으로 갖추어 올리게 한다.

1. 적전일(籍田日)에 대축(大祝)으로 하여금 대뢰(大牢)로써 선농(先農)에 제사하게 하되 제사의(帝社儀)와 같이 하며,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제후(諸侯)는 사(社)에 제사하되 소뢰(少牢)에 유색(黝色)으로 한다.’ 하였다.

~중략~

위 항목의 고제(古制)를 청컨대 의주(儀州)에 첨입(添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1권 6년 1월 19일 己巳

禮曹啓: “親耕籍田時應行節目, 參考古制, 一, 《文獻通考》宋親耕儀, ‘帝服通天冠、絳紗袍, 至文思殿, 降自西階, 至小次, 降輦至耕籍位. 今儀註但言, ‘享先農, 還大次, 禮儀使導殿下, 出至耕籍位.’ 而不言乘輦, 觀耕畢還大次時, 獨言乘輦, 自大次至觀耕位, 地步闊遠. 請自大次至觀耕臺乘輿, 左、右通禮挾引, 至南階下降輿, 禮儀使前導, 至耕籍位, 還大次時, 則東西狹窄, 竝宜乘輿. 一, 《文獻通考》唐玄宗開元二十三年親耕籍田, 侍中執耒, 太僕執轡. 請令近侍一人與高品中官共執耒, 司僕寺正執轡. 一, 儀註, 設 ‘執耒耜者位於從耕官之後, 執耒耜者之前’, 又設 ‘從耕耒耜及牛, 各於其位之前’, 今觀耕臺下從耕官及諸執事侍立之地狹窄. 請執耒耜者及從耕官耒、牛, 各設於耕田位. 이하생략~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할 때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節目)을 고제(古制)에서 참고하니, 이리합니다.

1.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송(宋)나라 친경의(親耕儀)에는, ‘제(帝)가 통천관(通天冠)에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문사전(文思殿)에 이르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 소차(小次)에 이르고, 연(輦)에서 내려 경적위(耕籍位)에 이른다.’ 하였는데, 지금 의주(儀註)에는 다만 선농(先農)에 제향(祭享)하고 대차(大次)에 돌아오면, 예의사(禮儀使)가 전하(殿下)를 인도하여 경적

위(耕籍位)까지 나온다고 말하고, 연(輦)을 타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며, 관경(觀耕)하기를 마치고, 대차(大次)로 돌아올 때에 홀로 연(輦)을 탄다고 말하였는데, 대차(大次)로부터 관경위(觀耕位)까지는 걸어서 가기가 먼 것 같습니다. 청컨대 대차로부터 관경대(觀耕臺)까지는 여(輿)를 타고,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가 인도하여 남계(南階) 아래에 이르러 여(輿)에서 내리면, 예의사(禮儀使)가 앞에서 인도하여 경적위(耕籍位)에 이르게 하고, 대차(大次)로 돌아올 때에는 동서(東西)가 협착(狹窄)하니, 아울러 마땅히 여(輿)를 타게 하소서.

1. 《문헌통고》의 당(唐)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23년(735년)에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할 때에도 시중(侍中)이 쟁기를 잡고, 태복(太僕)이 고삐를 잡았습니다. 청컨대 근시(近侍) 1인과 품계가 높은 품관(品官)으로 하여금 함께 쟁기를 잡고,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고삐를 잡게 하소서.

1. 의주(儀註)에, ‘집되사자(執耒耜者)의 위치는 종경관(從耕官)의 뒤, 집분삽자(執畚鍤者)의 앞에 설정(設定)한다.’ 하고, 또 ‘종경(從耕)하는 너사(耒耜)와 우[牛]는 각각 그 위치의 앞에 늘어서게 한다.’ 하였는데, 이제 관경대(觀耕臺) 아래의 종경관(從耕官)과 제집사(諸執事)의 시립(侍立)하는 장소가 협착합니다. 청컨대 집되사자(執耒耜者)와 종경관(從耕官)의 쟁기[耒]·소[牛]는 각각 경전하는 위치에 설치하게 하소서.

이하생략~

▶ 51권 6년 1월 22일 壬申

畠山殿源義勝使僧不二等辭. 其禮曹答書曰:

祇承芳翰, 得審動履清佳, 開慰. 所獻禮物, 謹啓收訖, 略將黑麻布一十五匹、**牛黃五部, 就付回使**, 惟照納, 所索白粉, 本非我國所產, 未得從諭. 就中頃在癸巳, 貴使照隣等將還, 下海漂溺, 答書、禮物竝致腐毀, 其時邊吏不報, 今見書辭, 始知其故. 問諸邊吏, 實爲漂溺, 不勝驚駭, 方治邊吏不告之罪, 并采春寒珍重, 不宣.

전선전(畠山殿) 원의승(源義勝)의 사승(使僧) 불이(不二) 등이 하직하였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삼가 방한(芳翰)을 받고 체도가 청가(淸佳)함을 살필 수 있어 위안(慰安)이 됩니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받았으며, 간략하게 흑마포(黑麻布) 15필(匹), **우황(牛黃) 5부(部)를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부쳐 보내니**, 조납(照納)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백분(白粉)은 본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고유(告諭)를 따르지 못합니다. 특히 근자의 계사년에 있었던 귀하의 사자(使者) 조린(照隣) 등이 돌아가다가 바다에서 표류(漂流)하여 답서(答書)와 예물(禮物)이 모두 부패하고 훼손되었다 하는데, 그 당시의 변방 관리가 보고하지 않아서 이제 서신의 내용을 보고 비로소 그 까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관리에게 물었더니, 진실로 표익(漂溺)하였다고 하므로, 경해(驚駭)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야흐로 변방의 관리의 불고지죄(不告之罪)를 다스렸으며, 아울러 봄 추위에 건강에 진중(珍重)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칩니다.”하였다.

▶ 51권 6년 1월 25일 乙亥

享先農儀。前享六日，禮曹啓請齋戒，殿下散齋三日於別殿，致齋二日，一日於正殿，一日於齋宮。前享三日，籍田令以青箱，奉九穀種桂之種進內，前二日，王妃率內命婦，獻于殿下，次日授籍田令，以待耕事。陳設，前享三日，典設司設大次於東墻門外道北南向，設侍臣次於大次之後南向，諸享官次於齋坊之內，陪享官次於其前，隨地之宜俱北向。前二日，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典設司設饌幔於東墻門外。前一日，典樂帥其屬，設登歌之樂於壇上近南，軒架於壇下，俱北向。典祀官帥其屬，設帝神農氏神座於壇上北方南向，后稷氏神座於壇上東方西向，席皆以莞。執禮設殿下位版於壇下東南西向，飲福位於壇上南陛之西北向。贊者設亞獻官、終獻官、進幣爵酒官、薦俎官、奠幣爵酒官位於殿下位版之後近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重行西向北上。監察位二於壇下近南，東西相向，執禮位二，一於壇上，一於壇下，俱近東西向。贊者、謁者、贊引在壇下執禮之後，稍南西向北上。協律郎位於壇上近西東向，典樂位於軒懸之北北向。設陪享官位，文官一品以下於東門之內道南，每等異位，重行西向北上，宗親及武官一品以下，於西門之內當文官，俱每等異位，重行東向北上，設門外位，諸享官於東門之外道南。文官一品以下於享官之東少南，每等異位，重行北向西上，宗親及武官一品以下於西門之外道南，俱每等異位，重行北向東上。設望瘞位於瘞坎之南，亞獻官在南北向，執禮、贊者、大祝在東，重行西向北上。奉常寺設殿下耕籍位於南墻門外，東南十步所南向隨地之宜。典設司設幄座於觀耕臺上南向，小次於西陛下稍北南向。奉常寺設殿下位版於耕籍所南向，侍耕位於東西階下北上。左・右通禮、謁者、贊儀位於東階下，又贊儀位於西階下，相向北上。從耕宗親宰臣位在東南，諸判書臺諫位在其南，皆西向北上。庶人位在其南少東十步外，耆民陪耕位又在其南皆西向。設親耕耒席於宗親之北稍西南向，司僕寺設親耕牛於親耕位之西稍北。典樂設登歌之樂於觀耕臺上，軒架於庶人耕位西南，俱北向。奉常寺設耕籍使位於親耕位之東南向，奉常寺正在耕籍使東南，籍田令在奉常寺正之南少退，俱西向北上。奉青箱官位於其後，奉常副正位於庶人位之前。主簿位於副正之南少退，皆西向北上。司僕寺正位於親耕牛之東稍前南向，畿內邑令及諸縣令位於庶人位之東西向。從耕官位於親耕位之東，執畚鍤者之西稍北西上。又設從耕耒耜及牛，各於其位之前。百官序立位於諸執事之後稍南。享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陳幣篚各一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每位籩十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鱸・乾棗・栗黃次之，第二行，榛子在前，菱仁、芡仁次之，第三行，鹿脯在前，白餅、黑餅次之。】豆十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醯醢、菁菹、鹿醢次之，第二行，芹菹在前，兔醢、荀菹次之，第三行，魚醢在前，髀析、豚拍次之。】俎三，二在籩前，一在豆前。【籩前俎一實牛腥，一實羊腥七體，兩髀、兩肩、兩脅并脊，而脾在兩端，肩、脅次之，脊在中。豆前俎實以豕腥七體。】豆右之俎三【一實牛熟腸、胃、肺，一實羊熟腸、胃、肺，一實豕熟膚，豕在前，羊、牛次之。】簠、簋各二，在籩、豆間，簠在左，簋在右【簠實以稻、粱，粱在稻前，簋實以黍、稷，

稷在黍前.】 甄銅各三，在簠・簋後，銅居前，甄次之.【甄實以大羹，銅實以和羹，加芼滑.】 爵三，在簠、簋前.【各有玷.】 正配位各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 象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 山罍二，【一實玄酒，一實淸酒.】 爲三行，【第一行犧尊，第二行象尊，第三行山罍.】 皆加勺・幕，在壇上東南隅，北向西上.【配位尊、罍竝在正位尊・罍之東.】 設福酒爵、胙肉俎，各一於正位尊所，又設正位俎一於饌幔內，設御洗於南陛東南北向. 亞、終獻洗，又於東南，俱北向俱罍，在洗東加勺，簠在洗西南，肆實以巾. 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執尊、罍、簠、幕者位於尊罍簠幕之後.

향선농의(享先農儀)는 이러하였다. 제향 전 6일에 예조(禮曹)에서 계문(啓聞)하여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전하(殿下)께서 3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 하는데, 1일은 정전(正殿)에서 1일은 재궁(齋宮)에서 한다. 제향 전 3일에 적전령(籍田令)이 청상(靑箱)으로써 구곡(九穀)의 종자와 종륙(種陸)의 종자를 받들어 내전(內殿)에 올리고, 전 2일에 왕비(王妃)가 내명부(內命婦)를 거느리고 전하에게 바치면, 다음날에 적전령(籍田令)에게 주어서 경적하는 일을 기다리게 한다. 진설(陳設)은 제향 전 3일에 전설사(典設司)에서 대차(大次)를 동쪽 유문(塿門) 밖에다 길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시신(侍臣)의 막차(幕次)를 대차(大次)의 뒤에다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제향관(諸享官)의 막차는 재방(齋坊)의 안에 배향관(陪享官)의 막차는 그 앞에다 땅의 형편에 따라서 모두 북향하여 설치한다. 2일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내외(內外)를 소제하고, 전설사(典設司)는 찬만(饌幔)을 동쪽 유문(塿門) 밖에 설치한다. 1일 전에 전악(典樂)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악(登歌樂)을 단(壇) 위에다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단 아래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신농씨(帝神農氏)의 신좌(神座)를 단 위의 북방(北方)에다 남향하여 설치하고, 후직씨(后稷氏)의 신좌(神座)를 단 위의 동방(東方)에다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집례(執禮)는 전하의 위판(位版)을 단(壇) 아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음복위(飮福位)를 단(壇) 위 남계(南階)의 서쪽에다 북향하여 설치한다. 찬자(贊者)가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천조관(薦俎官)·전폐작주관(奠幣爵酒官)의 자리를 전하의 위판(位版) 뒤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에 위치하게 하는데,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모두 겹줄로써 향하게 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둘을 단(壇) 아래에서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동서(東西)로 상향(相向)하게 하고, 집례(執禮)의 자리는 둘인데, 하나는 단(壇) 위에, 하나는 단(壇) 아래에 있게 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은 단 아래 집례의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남쪽으로 하여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協律郎)은 단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위치하고, 전악(典樂)은 헌현(軒懸)의 북쪽에 북향하여 위치한다. 배향관(陪享官)의 자리를 설치하는데, 문관(文官) 1품 이하는 동문(東門) 안의 길 남쪽에 있게 하되, 매 품등마다 위치를 달리 하고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며, 종친(宗親)과 무관(武官) 1품 이하는 서문(西門) 안에 문관과 마주 대하게 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써 동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는데 제향관(諸享官)은 동문(東門) 밖 길 남쪽에 자리한다. 문관 1품 이하는 향관(享官)의 동쪽에서 조금 남쪽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써 북향하되 서쪽을 위로 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는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서문(西門) 밖 길 남쪽에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써 북향하게 하되, 동쪽을 위로 한다. 망예위(望瘞位)를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아헌관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집례(執禮)·찬자(贊者)·대축(大祝)은 동쪽에 있게 하되 모두 겹줄로써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전하(殿下)의 경적위(耕籍位)를 남유문(南墀門) 밖에 설치하는데, 동남쪽 10보(步) 되는 곳에 남향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전설사(典設司)에서 악좌(幄座)를 관경대(觀耕臺) 위에다 남향하여 설치하고, 소차(小次)를 서계(西階) 아래에 조금 북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한다. 봉상시에서 전하(殿下)의 위판(位版)을 경적소(耕籍所)에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시경위(侍耕位)는 동계(東階)·서계(西階) 아래에 있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알자(謁者)·찬의(贊儀)의 자리는 동계(東階)에 있게 하고, 또 찬의(贊儀)의 자리는 서계(西階)에 있게 하되 상향(相向)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종경(從耕)하는 종친(宗親)·재신(宰臣)의 자리는 동남편에 있고, 제판서(諸判書)와 대간(臺諫)의 자리는 그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서인(庶人)의 자리는 그 남쪽에 조금 동쪽으로 10보(步) 밖에 있고, 기민(耆民)의 배경위(陪耕位)는 또 그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한다. 친경(親耕)할 쟁기의 자리[耒席]는 종친(宗親)의 북쪽에 조금 서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복시(司僕寺)에서 친경(親耕)할 소[牛]는 친경위(親耕位)의 서쪽에서 조금 북쪽인 곳에 둔다. 전악(典樂)이 등가악(登歌樂)을 관경대(觀耕臺) 위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서인(庶人)의 경위(耕位) 서남쪽에 설치하는데, 모두 북향하게 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경적사(耕籍使)의 자리를 친경위(親耕位)의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봉상시 정(奉常寺正)은 경적사의 동남쪽에 있고, 적전령(籍田令)은 봉상시 정(奉常寺正)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서 있는데,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청상(靑箱)을 받든 관원은 그 뒤에 위치하고, 봉상 부정(奉常副正)은 서인(庶人)이 위치한 앞에 위치한다. 주부(主簿)는 봉상 부정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자리하는데,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사복시 정(司僕寺正)은 친경(親耕)할 소[牛]의 동쪽에 조금 앞으로 남향하여 자리하고, 기내(畿內)의 읍령(邑令)과 제현령(諸縣令)은 서인의 자리 동쪽에 서향하여 위치한다. 종경관(從耕官)은 친경위(親耕位)의 동쪽 분삽(畚鍤)을 잡은 자의 서쪽에서 조금 북서쪽 위에 자리하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또 종경(從耕)할 쟁기[耒耜]와 소[牛]를 각기 그 자리 앞에다 설치한다. 백관(百官)의 서립(序立)은 제집사(諸執事)의 뒤 조금 남쪽으로 자리한다.

제향하는 날 아직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폐비(幣篚) 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에 변(邊) 10개가 원편에 있게 해서 세 줄로 하되, 오른쪽을 위로 한다.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을 앞에 놓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은 다음에 놓으며, 둘째 줄에는 진자(榛子)를 앞에 놓고, 능인(菱仁)·감인(芡仁)은 다음에 놓으며, 셋째 줄에는 녹포(鹿脯)를 앞에 놓고, 백병(白餅)·흑병(黑餅)은 다음에 놓는다.】 두(豆) 10개는 오른쪽에 있게 해서 세 줄로 하되, 원편을 위로 한다. 【첫째 줄에는 구저(菹菹)를 앞에 놓고, 담해(醢醢)·청저(靑菹)·녹해(鹿醢)는 다음에 놓으며,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를 앞에 놓고, 토해(兔醢)·순저(筍菹)는 다음에 놓으며, 셋째 줄에는 어해(魚醢)를 앞에 놓고, 비석(脾析)·돈박(豚拍)은 다음에 놓는다.】 조(俎)가 3개인데, 둘은 변(邊) 앞에 있고, 하나는 두(豆) 앞에 있

다. 【변 앞의 조(俎) 하나에는 우성(牛腥)을 채우고, 하나에는 양성 칠체(羊腥七體)를 채운다. 칠체(七體)는 양비(兩髀)·양협(兩脅)과 등심[背]인데, 비(髀)는 양단(兩端)에 놓고, 견(肩)과 협(脅)은 다음에 놓으며, 등심[背]은 중앙에 놓는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시성 칠체(豕腥七體)를 담는다.】 두(豆) 오른쪽에는 조(俎)가 3개이다. 【하나는 소[牛]의 익힌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羊)의 익힌 장·위·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豕]의 익힌 살고기[膚]를 담는데, 돼지를 앞에 놓고, 양·소는 다음에 놓는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로서 변(簠)·두(豆) 사이에 놓는데, 보를 왼편에 놓고, 궤를 오른편에 놓는다. 【보(簠)에는 도(稻)·양(粱)을 담는데, 양은 도 앞에 놓으며, 궤(簋)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직은 서 앞에 놓는다.】 등(甗)·형(鉶)이 각각 3개로서 보·궤 뒤에 놓는데, 형은 앞에 놓고, 등은 그 다음에 놓는다. 【등(甗)에는 대갱(大羹)을 담고, 형(鉶)에는 화갱(和羹)을 담는데, 모활(毛滑)을 더한다.】 작(爵)은 3개로서 보·궤 앞에 놓는다. 【각기 점(坩)이 있다.】 정배위(正配位)에 각기 희준(犧尊) 2개, 【하나는 명수(明水)를 담고, 하나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상준(象尊) 2개, 【하나는 명수(明水)를 담고, 하나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산뢰(山罍) 2개를 설치하는데, 【하나를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세 줄로 하고, 【첫째 줄에는 희준이요, 둘째 줄에는 상준이요, 셋째 줄에는 산뢰이다.】 모두 작(勺)과 먹(鬯)을 얹어 놓되, 단(壇) 위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게 하되, 북향하게 하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배위(配位)의 준(尊)·뇌(罍)는 아울러 정위(正位)의 준·뇌 동쪽에 있다.】 복주작(福酒爵)과 조육조(胙肉俎) 각 하나를 정위(正位)의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또 정위(正位)의 조(俎) 하나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하고, 어세(御洗)를 남계(南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아헌(亞獻)·종헌(終獻)의 세(洗)를 또 동남쪽에 모두 북향하여 뇌(罍)를 갖추되, 세(洗)의 동쪽에 놓게 하여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巾]을 담아 놓는다. 제집사(諸執事)의 관세(盥洗)를 아헌·종헌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먹자(執鬯者)는 준·뇌·비·먹의 뒤에 자리하게 한다.

▶ 51권 6년 1월 25일 乙亥

饋享. 殿下既升奠幣, 贊引引典祀官, 出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鑊,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 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殿下奠幣訖復位, 執禮曰: “進饌.” 謁者引薦俎官, 捧帝神農氏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 入自正門.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諸祝史俱進, 徹毛血幣, 自東陞, 授齋郎以出. 正位之饌升自南陞, 配位之饌升自東陞, 諸大祝迎引於壇上. 薦俎官詣帝神農氏神位前, 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 奠訖, 啓牲匣蓋, 次詣后稷氏神位前, 東向跪奠, 竝如上儀. 訖, 樂止.

이하생략~

궤향(饋享)은 이러하였다. 전하가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올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서 비(匕)로써 소(牛)를 확(鑊)에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들어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돼지를 들어올려 각기 생갑에 담아 가지고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진설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는데,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른다. 전하가 폐백을 드리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 한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제신농씨(帝神農氏)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간다. 조(俎)가 처음으로 문(門)에 들어오면 헌가(軒架)에서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祝史)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거두어, 동계(東階)로 재랑(齋郎)에게 주어서 내보낸다. 정위(正位)의 찬(饌)은 남계(南階)로 올리게 하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동계(東階)로 올리게 하는데, 여러 대축(大祝)이 맞이하여 단상(壇上)으로 인도한다. 천조관이 제신농씨(帝神農氏)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뚜껑을 열고, 다음에 후직씨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주악(奏樂)이 그친다.

이하생략~

▶ 52권 6년 2월 8일 丁亥

戶曹兵曹議啓平安道蘇復之條. 其一曰, 前此本道諸邑田稅減三分之一收之, 今則使命煩多, 防禦亦繁, 今年田稅減半, 其被賊變理山、昌洲、碧團居民及戍卒, 全數蠲免. 其二曰, 正朝使迎送軍及騎卜馬, 前此以黃海道充遣, 而近來停廢, 請限蘇復以黃海道充遣. 其三曰, 本道諸邑恒貢內, 淸(密)〔蜜〕、黃蜜、山猪毛、熟鹿皮、熟獐皮、毛獐皮、貂皮、鼠皮、雜羽、狐皮、狸皮、羊皮、弓槩木、狗皮、黃楊木、少脯、乾鹿、乾獐、乾猪、鄉牛角、鹿角、全漆、雞羽、松花、熟麻、五味子、栢子、生梨、生麻、熊皮, 限三年全減. 其四曰, 本道軍卒, 以使臣迎送往來防戍, 馬多困斃, 相枕於道, 固非細慮. 請令來秋等點馬官, 捉出京畿、下三道、黃海道、平安道諸牧場兒馬, 分運送付本道節度使, 以給無馬軍卒. 其五曰, 前此全羅、忠淸、慶尙道歲輸箭竹, 觀察使、節度使不給軍卒, 積置本營, 歲久生蠹, 終至無用. 今者本道軍卒數, 與賊交鋒, 射矢殆盡, 而北道本不產竹, 私備實難, 請令觀察使、節度使, 盡出歲輸箭竹, 分授軍士, 預治戎器.” 從之.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에서 평안도를 소복(蘇復)할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첫째는, 이 먼저 본도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를 3분의 1을 줄여서 거두었는데, 이제 는 사명(使命)이 번거롭고 많으며 방어도 긴요하니, 금년의 전세는 반(半)으로 줄이고 적변(賊變)을 입은 이산(理山)·창주(昌洲)·벽단(碧團)의 주민과 수졸(戍卒)은 전체 수량을 면제하게 하소서.

그 둘째는, 정조사(正朝使)의 영송군(迎送軍)과 기복마(騎卜馬)를 이 먼저는 황해도에서 채워 보냈는데, 근래에 정폐(停廢)하였으니, 청컨대 소복할 동안 황해도에서 채워 보내게 하소서.

그 셋째는, 본도 여러 고을의 항공(恒貢) 가운데 청밀(淸蜜)·황밀(黃蜜)·산저모(山猪毛)·숙늑비(熟鹿皮)·숙장피(熟獐皮)·모장피(毛獐皮)·초피(貂皮)·서피(鼠皮)·잡우(雜羽)·호피(狐皮)·이피(狸皮)·양피(羊皮)·궁삭목(弓槩木)·구피(狗皮)·황양목(黃楊木)·소포(少脯)·건록(乾鹿)·건장(乾獐)·건저(乾猪)·**향우각(鄉牛角)**·늑각(鹿角)·전칠(全漆)·치우(雉羽)·송화(松花)·숙마(熟麻)·오미자(五味子)·백자(栢子)·생리(生梨)·생마(生麻)·웅피(熊皮)는 3년 동안 전체를 감하도록 하소서.

그 넷째는, 본도의 군졸이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며 방수(防戍)에 왕래함으로써 말이 많이 피곤하여 죽은 것이 길에 즐비하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청컨대 오는 가을에 점마관(點馬官)으로 하여금 경기(京畿)·하삼도(下三道)·황해도·평안도 여러 목장의 아마(兒馬)를 운(運)을 나누어 본도 절도사에게 보내어 붙여서,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도록 하소서.

그 다섯째는, 이 먼저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서 해마다 보낸 화살대[箭竹]를 관찰사와 절도사가 군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본영(本營)에 쌓아두었으므로 해가 오래되어 썩이 생겨서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도의 군졸이 자주 적과 교전하여 화살이 거의 다하였는데, 북도(北道)에는 대나무가 본래 생산되지 아니하여 사사로이 준비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청컨대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해마다 보내는 화살대를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 미리 병기(戎器)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2권 6년 2월 17일 丙申

禮曹啓: “今懿敬王加上冊寶祭, 依辛卯年封崇祭例, 用大牢.”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의경왕(懿敬王)의 책보(冊寶)를 더하여 올리는 제사는 신묘년 봉숭제(封崇祭)의 예(例)에 의하여 대뢰(大牢)를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6권 6년 6월 4일 辛巳

辛巳/御經筵. [講] 訖, 上曰: “前聞: ‘日本國兵革未弭, 畠山擁兵不解’, 然豈至今不戢? 今欲遣通信使何如?” 領事鄭昌孫對曰: “兩國通好, 古之道也. 但聞彼不願我遣使. 臣意不遣爲便.” 領事洪允成啓曰: “世祖每欲遣使通信, 慮海路險遠未果, 適大內殿使來獻水牛, 因言曰: ‘我國敬事大國, 大國何一不通信乎?’ 請之甚切, 不獲已遣宋處儉. 以倭向化李藝子宗實知水路, 同遣之. 宗實貪糧物, 船載甚重, 又風候不順, 處儉欲不發, 宗實勸處險酒, 乘其醉, 以單衾裹置船上, 發船未幾便沒溺, 此自取敗也. 前此使臣, 皆無事來往. 如卞孝文、申叔舟、元孝然、金好仁是已, 如欲遣使, 不宜以海路險遠爲辭.” 上曰: “兵亂之時, 遣使臣, 得無難乎?” 昌孫曰: “倭使既往來無礙, 其不路梗可知. 但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倭人厭我遣使耳.” 上曰: “去冬, 日本國使正球首座請遣使, 且云: ‘若遣使則吾當偕歸’, 觀此則彼豈厭之?” 其以此教禮曹.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이르기를, “그 전에 들으니, ‘일본국(日本國)은 전쟁[兵革]이 그치지 아니하여 전산전(畠山殿)이 주둔시킨 군사를 풀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어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 통신사(通信使)를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하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두 나라가 통호(通好)하는 것은 옛날의 도리입니다. 다만 저들은 우리가 사신(使臣)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매양 사신을 보내어 통신(通信)하고자 하였으나, 해로(海路)가 험하고 먼 것을 염려하여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 대내전(大內殿)의 사신이 와서 물소[水牛]를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대국(大國)을 공경하여 섬기는데, 대국은 어찌하여 한 번도 통신을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청하는 것이 심히 간절하므로, 마지못하여 송처검(宋處儉)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倭)로서 향화(向化)한 이예(李藝)의 아들 이종실(李宗實)이 수로(水路)를 알므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종실이 양식과 물건을 탐내어 배에 실은 것이 매우 무거웠고, 또 날씨가 순조롭지 못하여 송처검이 출발하지 아니하고자 하였으나, 이종실이 송처검에게 술을 권하여 그가 취한 틈을 타서 홀이불로 싸서 배 안에 두고 배를 출발시켰으므로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는 스스로 실패를 취(取)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의 사신들은 모두 무사히 내왕(來往)하였습니다. 변효문(卞孝文)·신숙주(申叔舟)·원효연(元孝然)·김호인(金好仁)과 같은 사람이 이들이니, 만일 사신을 보내고자 한다면 해로(海路)가 험하고 멀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병란(兵亂)의 시기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하므로, 정창손이 말하기를, “왜의 사신이 이미 왕래하는 데에 막힌 바가 없었으니, 길이 막히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왜인(倭人)이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 것을 싫어할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겨울에 일본국의 사신 정구수좌(正球首座)가 사신을 보내주도록 청하였고, 또 이르기를, ‘만약 사신을 보내면 내가 마땅히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면 저들이 어찌 이를 싫어하겠느냐?”하고, 이것을 예조(禮曹)에 하교하였다.

▶ 57권 6년 7월 14일 辛酉

“臣聞諸有詔, 興利人貿易貂·鼠皮, 北方鉅弊. 國家雖減貂·鼠皮之貢, 而弊猶不祛者, 俗尚奢侈, 服飾必用貂·鼠皮. 朝士階陞四品, 則與從三品相混, 故必着貂皮耳掩, 且毛裘宜於老者, 而年少婦女, 皆服貂裘, 無此則羞與爲會, 數十婦女之會, 無一不服者. 貂皮價高, 謀利者雲集北道, 市索無已, 至以牛馬鐵物買之. 野人箭鏃, 昔皆用骨, 今則皆以鐵爲之, 良由我國人用鐵, 換皮之故也.”

이하생략~

유지(柳耆)가 아뢰기를, “신(臣)이 어유소(魚有沼)에게 들었는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초피(貂皮)와 서피(鼠皮)를 무역(貿易)하고 있어 북방의 큰 폐단이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비록 초피(貂皮)와 서피(鼠皮)의 공물(貢物)을 줄였으나, 폐단이 오히려 제거되지 않은 것은,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여 복식(服飾)을 반드시 초피(貂皮)와 서피(鼠皮)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사(朝士)로서 관계(官階)가 4품에 승진되면 종3품과 서로 어울리므로, 반드시 초피(貂皮)의 이엄(耳掩)을 착용(着用)하며, 또 모구(毛裘)는 노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나이 젊은 부녀(婦女)들도 모두 초구(貂裘)를 입는가 하면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모이기를 부끄럽게 여겨, 수십 명의 부녀(婦女)들의 모임에는 한 사람도 입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피(貂皮)의 값이 오르면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북도(北道)에 구름처럼 모여서 사기를 구하여 그치지 않아 심지어는 우마(牛馬)와 철물(鐵物)로써 이를 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야인(野人)의 화살촉은 옛날에는 모두 뼈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쇠로써 만드니, 이는 진실로 우리나라 사람이 철물(鐵物)을 가지고 초피(貂皮)를 교환하였기 때문입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58권 6년 8월 10일 丙戌

司憲府啓: “宰牛禁制, 備載《大典》, 而無知小民, 曾不疑畏, 識理朝士, 亦公然宰牛, 宴飲放恣無忌, 請自今其知情食肉者, 依辛巳年《大典》, 論以制書有違律.”從之.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소를 잡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도는 《대전(大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무지(無知)한 소민(小民)들은 일찍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사리(事理)를 아는 조사(朝士)들도 또한 공공연히 소를 도살(屠殺)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방자(放恣)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그들이 실정(實情)을 알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신사년의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論罪)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60권 6년 10월 3일 己卯

司憲府啓: “藝文館檢閱曹偉冒酒禁宰牛, 設油蜜果, 勳樂, 待教表沿沫、李禮堅、奉教安晉生、檢閱鄭淮, 新屬人侵虐, 群聚會飲, 司藝崔漢良、司果俞造、正郎朴叔達、修撰朴處綸、監察辨哲山〔卞哲山〕, 以先生隨參, 監察鄭以僞忌日參宴, 聽樂飲酒罪, 偉依《大典續錄》, 杖一百、徒三年、告身盡行追奪, 漢良、叔達、處綸、哲山、沿沫、禮堅、晉生、淮, 依律各杖七十、奪告身二等, 以僞杖八十、奪告身三等.”命偉只收告身, 外方付處, 參宴者竝答五十, 功臣則解見任別敍, 新屬人侵虐者, 除杖奪告身二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조위(曹偉)는 술을 금(禁)하는 것을 무릅쓰고, 소를 잡고 유밀과(油蜜果)를 베풀어 풍악을 올리었으며, 대교(待敎) 표연말(表沿沫)·이예건(李禮堅), 봉교(奉敎) 안진생(安晉生), 검열(檢閱) 정회(鄭淮)는 신속인(新屬人)에게 강요하여 무리가 모여서 마시었고, 사예(司藝) 최한량(崔漢良), 사과(司果) 유조(兪造), 정랑(正郎) 박숙달(朴叔達), 수찬(修撰) 박처륜(朴處綸), 감찰(監察) 변철산(卞哲山)은 선생(先生)으로 수참(隨參)하였으며, 감찰(監察) 정이교(鄭以僑)는 기일(忌日)인데도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풍악을 듣고 술을 마신 죄를 범한 조위는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하여 장(杖) 1백 대, 도(徒) 3년(年)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고, 최한량·박숙달·박처륜·변철산·표연말·이예건·안진생은 율(律)에 의하여 각각 장(杖) 70대에, 고신(告身) 2등을 추탈하고, 정이교는 장 80대에, 고신 3등을 추탈하소서.”하니, 명하여 조위(曹偉)는 단지 고신(告身)만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잔치에 참여한 자는 아울러 태(笞) 50대에 치되, 공신(功臣)은 현직을 해면시키고 좌천시키며, 신속인(新屬人)에게 강요한 자는 장은 제(除)하고, 고신(告身) 2등을 추탈하도록 하였다.

▶ 63권 7년 1월 8일 癸丑

禮曹啓: “在前親行大祭, 則用牛一、羊・豕各七, 陳於七室, 今懷簡大王祔廟則加一位. 故加羊、豕各一, 而牛腥則各室分薦, 其頭及脊, 自來不薦. 臣等參詳《禮記》郊特牲曰: ‘用牲於庭, 升首於室.’ 註云: ‘用牲於庭, 謂殺牲也, 升首於室, 謂升牲之首也.’ 又曰: ‘首也者直也.’ 註云: ‘牲體首在前, 升首而祭, 取其神坐相直也.’ 《宋史》《禮志》宗廟時饗儀, ‘牲首俎在牖下’, 則廟祭并薦牲首明矣. 且本朝釋奠時, 文宣王位薦牲首, 今後大祭及朔望別祭, 牛豕腥, 則太祖室薦首, 餘皆依前以牲體次分薦何如?” 從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일에는 친히 대제(大祭)를 지낼 적에는 소 1마리, 양(羊)과 돼지를 각기 7마리씩을 써서 칠실(七室)에 진설(陳設)했는데, 지금 회간 대왕(懷簡大王)이 부묘(祔廟)를 한다면 일위(一位)가 증가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양(羊)과 돼지는 각기 1마리씩을 더쓰고, 소의 날고기는 각실(各室)마다 나누어 올리기로 하였는데, 그 머리와 등골은 그전부터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臣) 등이 《예기(禮記)》의 교특생(郊特牲) 장(章)을 자세히 참고해 보니, ‘생(牲)을 정(庭)에서 쓰고, 머리는 실(室)에 올린다.’고 했으며, 주(註)에는 ‘생(牲)을 정(庭)에서 쓴다는 것은 생(牲)을 죽이는 것을 이룸이고, 머리를 실(室)에 올린다는 것은, 생의 머리를 올리는 것이다.’ 하였고, 또 수(首)란 것은 마주 대[直]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주(註)에는 ‘생(牲)의 몸뚱이는 머리가 앞에 있으니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지내는 것은 그 신좌(神坐)와 서로 마주 대[直]하는 것을 취한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송사(宋史)》 예지(禮志)의 종묘시향의(宗廟時饗儀)에 ‘생(牲)의 머리를 담은 적대[俎]가 들창 밑[牖下]에 있다.’고 했으니, 종묘(宗廟)의 제사에 생(牲)의 머리까지 올린 것이 명백합니다. 또 본조(本朝)의 석전(釋奠) 때에도 문선왕(文宣王)의 위(位)에는 생(牲)의 머리를 올렸으니, 지금 이후부터는 대제(大祭)와

삭망(朔望)의 별제(別祭)에 소와 돼지의 날고기는 태조(太祖)의 실(室)에서는 머리를 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전일에 의거하여 생(牲)의 몸뚱이로써 차례대로 나누어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 63권 7년 1월 13일 戊午

兵曹啓: “慶尙道金海金丹串放養牛, 不繫於國用, 許令和賣補軍資, 放馬孳息何如?” 從之.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김해(金海)의 금단곶이[金丹串]에서 놓아 기르는 소는 국용(國用)에는 긴요하지 않으니 화매(化賣)하도록 허가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하고, 말을 놓아먹여 새끼를 낳아 번식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 66권 7년 4월 4일 丁丑

藝文館啓: “今考宗廟及文宣王祭薦牲首古制, 《文獻通考》親享太廟別廟陳設條, ‘俎六在豆右爲三重, 以北爲上’, 注, 第一重實以羊豕首. 《宋史》宗廟時享儀, ‘九俎設于豆之東, 三三爲列, 以南爲上, 脚俎一當腊俎之北, 縱設之牲首俎, 在北牖下.’ 《杜氏通典》太子釋奠于孔宣父陳設條, ‘享日未明, 太官令率宰人, 以鑾刀割牲, 祝史以豆取毛血, 置於饌所享牲.’ 註, ‘其牲用大牢二, 正座及先師首俎, 皆升右胖十一體, 左丘明以下析分餘體升之, 國學太公, 竝同.’” 命院相, 鄭昌孫、曹錫文、尹子雲、尹士昕、金國光議: “《文獻通考》、《杜氏通典》、《宋史》皆薦首, 依此例薦牛首於太祖室.” 從之.

예문관(藝文館)에서 아뢰기를,

“지금 종묘(宗廟)와 문선왕(文宣王)의 제사를 상고해 보니, 희생(犧牲)의 머리를 천(薦)하는 데 있어서 옛 제도와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친향태묘별묘진설조(親享太廟別廟陳設條)에는 ‘조(俎)가 6개로써, 두(豆)의 오른쪽에 두고 석 줄로 하되, 북쪽을 위[上]로 한다.’ 하였고, 주(注)에는 ‘첫번째 줄에는 양(羊)과 돼지[豕]의 머리를 담는다.’ 하였습니다. 《송사(宋史)》의 종묘 시향의(宗廟時享儀)에는 ‘9조(俎)로써 두(豆)의 동쪽에 설치하여 삼삼(三三)으로 열(列)을 짓게 하되, 남쪽을 위[上]로 하고, 각조(脚俎) 하나는 마땅히 석조(腊俎)의 북쪽에 두며, 세로로 설치한 희생(犧牲) 머리의 조(俎)는 북쪽의 들창 아래에 둔다.’ 하였는데, 《두씨통전(杜氏通典)》의 태자 석전우공선보진설조(太子釋奠于孔宣父陳設條)에는 ‘제향(祭享)하는 날, 날이 채 밝기 전에 태관(太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鑾刀)로써 희생(犧牲)을 베면, 축사(祝史)가 두(豆)를 가지고 털과 피[毛血]를 받아서 찬소(饌所)에 두고 희생(犧牲)을 삶는다.’ 하였고, 그 주(注)에는 ‘그 희생(犧牲)은 태뢰(太牢) 2를 쓰되, 정좌(正座)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및 선사(先師)의 수조(首俎)는 모두 우반(右胖) 11체(體)를 올리고, 좌구명(左丘明) 이하에게는 나머지 몸을 절단해서 나누어 올리는데, 국학(國學)의 태공(太公)도 아울러 같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보이도록 하니, 정창손(鄭昌孫)·조석문(曹錫文)·윤자운(尹子雲)·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이 의논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두씨통전(杜氏通典)》·《송사(宋史)》에는 모두 〈희생(犧牲)의〉 머리를 천(薦)한다 하였으니, 이 예(例)에 의하여 태조실(太祖室)에 소의 머리[牛首]를 천(薦)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70권 7년 8월 1일 辛未

司憲府大司憲尹繼謙等上劄子曰：

伏聞慶尙道觀察使柳輕獻《十漸疏》書屏，殿下以輕居外不忘君進箴戒，特遣中使，御書褒美，兼賜衣物。臣等竊惟大奸似忠，大詐似信。人主苟不至明以照之，則未有不爲其所賣者。何者？奸詐之人，用謀深巧，必因可信之事，藉以爲名而陰濟其私，故其奸其詐無迹可尋，無形可見，而世果以是爲忠爲信，過矣。夫人臣任職居官，但當各供其職而思不出其位。爲委吏，則思會計之必當，爲乘田，則思牛羊之必遂，至於百職，莫不皆然。今輕受鉞嶺南，專制方面，則黜幽陟明，承流宣化，使一道之民，無不得其所，乃其職也。若夫箴頌銘戒之事，則殿下已令取前代可戒之跡，圖之屏風，出入觀省。而殿下又聰明天性，緝熙聖學，凡古今成敗之迹，始勤終怠之失，莫不旁通燭照，而其接於旒纁者，非止魏徵之疏，則箴警之或闕，非輕之所宜慮也。況今安東之境，地道不寧，山崩水溢，陵谷變遷，人民死傷，蓋以十數，其爲災變，近古所無。輕不引咎自責以謝宣化之無狀，而乃區區遽獻此屏何哉？雖其疏中之語未必無補於觀省，然此豈殿下之所未見而求之者乎？臣等謂輕之心，非出於忠誠，正欲市恩耳。傳曰：“要君者無上”，輕之謂也。臣聞輕之爲是屏也，緣用金，質用綃，衣用段，臣等未審是段、是綃、是金出於輕乎，出於民乎？出於輕則已矣，若出於民，則是厲民以媚上也。大抵人主之好尙，不可不謹。一或不謹，則必有奸臣所乘。輕嘗在政院，習見殿下不喜聲色遊畋，於此數者，無隙可乘，而惟箴頌銘戒之事，可以中之。故雖其貢外之物，私獻而不疑也。殿下何不却之，而反尊寵賜賚，以開奸臣私獻幸賞之漸乎？已成之命，雖不可追，願自今令諸道監司常貢之外，毋得私獻幸甚。

이하생략~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듣건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유지(柳輕)가 십점소(十漸疏)를 쓴 병풍을 바쳤더니, 전하께서는 유지가 외방(外方)에 있으면서 임금을 잊지 않고 잠계(箴戒)를 바쳤다고 하여, 특별히 중사(中使)를 보내어서 어서(御書)로 아름다운 행실을 칭찬하고 겸하여 의물(衣物)을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신 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크게 간사함은 충성과 같이 보이고 큰 사기는 믿음성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밝게 판단하지 못하다가는 그 계교에 넘어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간사한 사람은 피를 쓰는 것이 매우 교묘하여 꼭 믿을 만한 일을 빙자해 가지고 그의 속셈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 간교함과 거짓을 알아낼 수도 없고 발견할 형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진실하며 미답다고 본다면, 이는 잘못입니다. 신하로서 직책을 맡아서 관직에 있으면, 다만 각기 그 직무에 충실하고 그 이상의 생각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고를 맡은 관리는 출납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목축을 맡은 관리는 소[牛]와 양(羊)이 잘 번식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관직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유지는 영남(嶺南) 지방을 맡아서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좋은 사람은 등용하고 나쁜 사람은 제거하여 선정(善政)을 받들어 펴서, 온도(道)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경계와 반성에 필요한 글 같은 것은 전하께서 벌써 전대(前代)의 경계가 될 만한 사적을 골라서 병풍에다 그려 놓게 하여 드나드실 적마다 보고 반성하고 계십니다. 전하께서는 또 총명한 천성(天性)으로 학문이 깊으시어 모든 역사상 성공과 실패의 사례와 처음에 근면하다가 종말에 태만하여 잘못된 일들을 환하게 알고 계시니,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으시는 것이 위징(魏徵)의 상소썸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계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안동(安東) 지역은 도로 사정이 나쁜데다가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서 언덕과 골짜기가 변모되고 있으며, 백성들은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어서, 근래에 없는 재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이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며 정책을 잘못된 사죄는 하지 않고, 도리어 변변치 못하게 이런 병풍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소 가운데의 내용이 전하께서 보시고 유념하시기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아직까지 보지 못하여 이를 요구한 것입니까? 신 등은 유지의 마음이 충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환심을 사기 위한 행위라고 여깁니다. 전(傳)에, ‘임금에게 요구하는 자는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유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은 들으니, 유지는 이번에 만든 병풍에 금으로 선을 두르고 바탕은 생사[緞]로 하였으며, 비단으로 싸개를 했다고 하니, 신 등은 이 비단과 생사와 금이, 유지 개인의 것인지 백성에게서 짜낸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것이라면 그만이었으나, 이것이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여 임금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의 기호품에 대하여 삼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삼가지 아니하다가는 간신(奸臣)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유지는 일찍이 승정원(承政院)에 있으면서 전하께서 향락이나 사냥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음을 알았으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는 환심을 살 수가 없고 경계를 환기시키는 문장이라야 기호에 맞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물(貢物)에 들어가는 물건이 아닌데도 서슴지 않고 사적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 물리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총애를 베풀어 물품까지 내려서, 간신들이 물품을 사적으로 바치고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이미 내린 명령이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부터는 여러 도(道)의 감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공물(貢物) 이외에는 사적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74권 7년 12월 29일 戊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義禁府啓: “忠順衛李亨門以其奴土山背逃, 割兩耳、刺右腮曰牛賊, 熏灼兩膝臙脰罪, 律該決杖一百、盡奪告身、削仕還屬.” 命決杖, 邊遠充軍, 玉山屬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충순위(忠順衛) 이형문(李亨門)은 제 중[奴] 옥산(玉山)이 배반하고 달아났다 하여 두 귀를 자르고, 오른쪽 볼에, ‘소도둑[牛賊]’이라 자자(刺子)하고, 두 무릎과 오금을 지졌으니, 죄에 대한 율(律)은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으며 사일(仕日)을 삭감하여 환속(還俗)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니, 〈이형문은〉 장을 때려서 변방에 충군(充軍)하고 옥산은 속공(屬公)하라고 명하였다.

▶ 75권 8년 1월 16일 乙卯

司憲府啓: “凡屠殺牛馬者, 恐其見捕, 必投兩班家, 其家主亦利於分肉而許之, 官差難於發摘. 請自今雖宗宰、兩班家, 若有可疑之跡, 臨時密啓, 取旨搜探. 前此府受教: ‘宰殺牛馬者, 勿論良賤, 全家定路傍諸邑、諸驛奴婢.’ 然利重罪輕, 犯之者愈衆. 請今後決杖一百, 全家絕島官奴婢定屬, 許接家主, 兩班有職者, 杖一百, 收告身, 永不敘用, 無職者, 杖一百, 外方付處, 庶人, 決杖一百, 邊遠充軍, 知情不告, 三切隣, 管領以制書有違律論斷, 有能捕告者, 每牛馬一, 賞綿布五匹, 至三十五匹而止, 本部官吏不能檢舉者, 竝罪之.” 從之.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마소를 잡는 자는 잡힐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양반 집에 의탁하는데, 집주인도 고기를 나누어 받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허락하므로, 관차(官差)가 적발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종재(宗宰)나 양반의 집이라도 의심할 만한 자취가 있으면, 임시해서 비밀히 아뢰어 분부를 받아서 수색하게 하소서. 전에 본부(本府)에서 분부받기를, ‘마소를 잡은 자는 양인(良人)·천인(賤人)을 물론하고 온 가족을 역로(驛路)가의 고을과 역(驛)의 노비(奴婢)로 정속(定屬)하라.’ 하셨으나, 이익은 많고 죄는 가벼우므로 범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온 가족을 절도관(絶島官)의 노비로 정속하며, 붙여 살게 한 집주인은 유식한 양반이거든 장 1백 대를 때리고서 고신(告身)을 거두어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고, 무식한 자이거든 장 1백 대를 때리고서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서인(庶人)이거든 장 1백 대를 때리고서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며,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삼절린(三切隣)과 관령(管領)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여 처단하며, 잡거나 고발한 자가 있으면 마소 한 마리마다 면포(綿布) 5필(匹)을 상주되 35필까지로 한정하며, 검거하지 못한 본부(本部)의 관리는 모두 죄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75권 8년 1월 25일 甲子

傳曰：“今來通事言：‘水牛角事，朝廷今方推鞠，而牛角屬公。’皇帝必知之，從實奏陳若何？”都承旨玄碩圭等啓曰：“水牛角，非東土所產，必買諸中原。今而奏聞，則雖皇帝優貸，而有司必繩之矣。今犯禁牛角，其數無幾，而中國不必以爲公貿易，姑勿奏陳，徐觀之何如？”傳曰：“皇帝已知而不奏陳，於予心未安。其召政丞、六曹、臺諫議之。”上黨府院君韓明澮、昌寧府院君曹錫文、上洛府院君金碩、右贊成徐居正議：“通事傳聞之語，不可盡信，且水牛角，我國最緊之物，未知朝廷區處，不宜先自奏陳，若朝廷責問，則當從實以對。待謝恩使回還，更議施行。”右議政尹子雲、坡川府院君尹士昕、左贊成尹弼商、吏曹判書洪應、左參贊任元濬、兵曹參判柳暎議：“水牛角，兵備最切之物，必須買於中朝。今若從實奏聞，而無譴責則可矣，如未得許買，終不買乎？況無勅旨詰責，則不必陳奏其由。”右參贊魚有沼、禮曹判書李承召、工曹判書李芮、刑曹參判洪道常、工曹參判尹孝孫議：“水牛角貿易事，今已現露，理當從實奏聞。然水牛角之禁久矣，先自奏聞，而朝廷問以擅買之故，則何辭以對？若無朝廷責問，則姑置之何如？”大司諫崔漢禎、司諫尹愍、掌令朴孝元、持平尹起璠、獻納姜居孝、正言卞哲山議：“公貿易事，朝廷若已知之，則飾以他辭，於義未安。臣等以爲中朝待外國使，不得持寸兵入境，獨於我國使臣，凡諸弓矢之屬，皆許挾帶，以示內外無間之意。不知貿角之禁併及我國，故頃因使价俾之貿易，今聞以犯禁論執，不勝惶恐，以此具由奏聞何如？”議入，傳曰：“今雖不奏，謝恩使入朝，若有問者，所答之辭議啓。”尹子雲書啓曰：“朝廷若問牛角禁物，何故犯禁？”答曰：“朝廷待本國無外，故凡諸有無，皆得相資，因循貿易耳。若問：‘汝國知而貿易乎？帶行人貿易乎？’則答曰，‘不干我事，未及知矣。’”

전교하기를, “이번에 온 통사(通事)가 말하기를, ‘물소뿔[水牛角]의 일은 중국 조정에서 이제 바야흐로 추국(推鞠)하고 물소뿔을 속공(屬公)하였다.’ 한다. 황제가 반드시 알 것이니,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 어떠한가?”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 등이 아뢰기를, “물소뿔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중국에서 사야 합니다. 이제 와서 아뢰면 황제는 너그러이 용서하더라도, 유사(有司)에서는 반드시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금령(禁令)을 범한 죄뿔은 그 수가 얼마 안되어 중국에서는 반드시 공무역(公貿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아직 아뢰지 말고 천천히 관망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므로, 전교하기를,

“황제가 이미 아는데 아뢰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미안하다. 정승(政丞)·육조(六曹)·대간(臺諫)을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碩)·우찬성(右贊成) 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통사가 듣고 전한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 물소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요한 물건이니, 아직 중국 조정의 처분을 모르면서 먼저 스스로 아뢰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중국 조정에서 따져 묻거든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은사(謝恩使)가 돌아오거든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파천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훈(尹士昕)·좌찬성(左贊成) 윤필상(尹弼商)·이조판서(吏曹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書) 홍응(洪應)·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병조참판(兵曹參判) 유권(柳睞)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물소뿔은 군비(軍備)에 가장 절실한 물건인데, 반드시 중국에서 사야 합니다. 이제 만약 사실대로 아뢰었다가 전책(譴責)이 없으면 괜찮겠으나, 사는 것을 허가받지 못하면 끝내 살 수 없으며, 더구나 황제의 칙지(勅旨)로 힐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연유를 아뢰는 것이 없겠습니다.”하고, 우참찬(右參贊) 어유소(魚有沼)·예조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공조판서(工曹判書) 이예(李芮)·형조참판(刑曹參判) 홍도상(洪道常)·공조참판(工曹參判)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물소뿔을 무역하는 일은 이제 이미 드러났으므로 이치로는 사실대로 아뢰어야 하겠으나 물소뿔의 금령이 오래 되었는데 먼저 스스로 아뢰었다가 중국 조정에서 마음대로 산 까닭을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따져 묻지 않으면 아직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대사간(大司諫) 최한정(崔漢禎)·사간(司諫) 윤민(尹愍)·장령(掌令) 박효원(朴孝元)·지평(持平) 윤기반(尹起礪)·헌납(獻納) 강거효(姜居孝)·정언(正彦) 변철산(卞哲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공무역의 일을 중국 조정에서 이미 알았다면, 다른 말로 꾸며대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신 등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중국에서 외국 사신을 대우하기를, 작은 병기라도 가지고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 우리나라 사신에게 만든 모든 궁시(弓矢) 등속을 다 휴대하도록 허가하여, 안팎을 차별하지 않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쇄뿔을 무역하는 금령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치는 줄 모른 까닭에, 지난번 사신 편에 무역시켰는데, 이제 듣건대 금령을 범하였다고 논집(論執)한다 하니, 황공하여 전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유를 갖추어 아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의논이 입계(入啓)되니, 전교하기를, “지금 아뢰지 않더라도 사은사(謝恩使)가 입조(入朝)하였을 때에 묻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대답할 말을 의논하여 아뢰라.”하므로, 윤자운이 써서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만약에 ‘쇠뿔은 금하는 물건인데 무슨 까닭으로 금령을 범하였느냐?’고 물으면,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외국처럼 대우하지 않으므로, 모든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구습(舊習)에 따라 무역하였다.’고 대답하고, ‘너희 나라에서 알고 무역한 것이냐, 데리고 온 사람이 무역한 것이냐?’고 물으면, ‘우리에게 관계되지 않는 일이므로 미처 몰랐다.’고 대답하게 하소서.”하였다.

▶ 76권 8년 2월 3일 壬申

義禁府啓: “通事芮亨昌赴京公貿易牛角, 不慎密犯禁罪, 律該杖一百贖.” 命贖答四十.

의금부에 아뢰기를, “통사(通事) 예형창(芮亨昌)이 경사(京師)에 가서 공무역(公貿易)한 우각(牛角)을 은밀히 하는 데 주의하지 아니하여 금제(禁制)를 범하였으니, 그 죄의 율(律)이 장(杖) 1백 대의 수속(收贖)에 해당합니다.”하니, 임금이 명하여 태(笞) 40대를 수속하게 하였다.

▶ 76권 8년 2월 4일 癸酉

上御宣政殿，引見沈澹、李克墩，問聖節使之行，弓角犯禁之由。澹對曰：“近帝命太監二、校尉十六，察玉河館內事，通事芮亨昌潛買牛角，令牙子分載四車，期會通州。校尉知之，告太監以奏，沒入牛角，竝收其直，牙子充軍。臣等聞，與牙子爭利者，陰囑太監，以至生事。”上曰：“中朝法嚴，今後必不得買矣。”克墩曰：“中朝待我國甚厚。高皇帝嘗賜火炮”，鄭同亦曰：“若奏請買角，意必蒙準。”又啓曰：“中朝有怪事，皇帝闕內設道觀，崇奉道教，甚至有怪獸，狀如黑狗，夜則見多害人，欲搏之，便開口噓氣，人輒腫。有以此奏者，帝不信。一日帝御早朝，獸乃見，給事中及諸大臣極論奉道之非，帝即命壞觀。人言黑屬北，其狀如犬，恐有犬戎之禍。”上曰：“帝之壞觀得矣。李封言：‘赴京時見三日竝出’，卿等亦得見聞乎？”

이하생략~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심회(沈澹)와 이극돈(李克墩)을 인견하고 성절사(聖節使)의 행차에서 궁각(弓角)의 금법(禁法)을 범한 까닭을 물었다. 심회가 대답하기를, “근자에 황제께서 태감(太監) 2명과 교위(校尉) 16명에게 명하여 옥하관(玉河館) 내의 일을 살피게 하였는데, 통사(通事) 예형창(芮亨昌)이 은밀히 우각(牛角)을 사서 아자(牙子)로 하여금 4대의 수레에 나누어 싣게 하고 통주(通州)에서 만나기로 기약(期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교위가 알고 태감에게 고하여 <황제께> 아뢰어서 우각을 몰수해 들이고, 그 값도 아울러 거두어 받았으며, 아자는 충군(充軍)시켰습니다. 신 등이 들으니, 아자와 이(利)를 다투던 자가 은밀히 태감에게 부탁해서 일을 내게 하기에 이르렀다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법이 엄하니, 금후로는 반드시 <우각을> 살 수 없을 것이다.”하니, 이극돈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대우하기를 심히 후하게 합니다. 고황제(高皇帝)께서 일찍이 화포(火炮)를 내려 주셨습니다.”하고, 정동(鄭同)도 또한 아뢰기를, “만약에 우각을 무역하기를 주청(奏請)하면, 생각건대 반드시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는 괴이(怪異)한 일이 있습니다. 황제께서 궐내(闕內)에 도관(道觀)을 설치하고 도교(道教)를 숭봉(崇奉)하시며, 심지어 괴이한 짐승까지 있는데, 그 모양이 검은 개[黑狗]와 같고, 밤이면 나타나서 사람을 많이 해치는데, 이를 칠러고 하면, 곧 입을 벌리고 기(氣)를 내뿜어, 사람은 문득 종기(腫氣)를 앓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아뢰는 자가 있으면 황제께서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황제께서 이른 아침에 거둥하셨는데, 이 짐승이 나타나서, 급사중(給事中)과 여러 대신(大臣)들이 도교를 숭봉하는 것의 옳지 못함을 극론(極論)하여, 황제가 즉시 명하여 도관(道觀)을 헐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흑(黑)이 북(北)에 속하고, 그 모양이 개[犬]와 같으니, 건융(犬戎)의 화(禍)가 있을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도관을 헐은 것은 잘하셨다. 이봉(李封)이 말하기를, ‘경사(京師)에 갔을 때에 세 개의 해[日]가 함께 출현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경들도 또한 보고 들었는가?”하였다.

이하생략~

▶ 77권 8년 閏2월 6일 甲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正朝使尹壕・副使洪利老回自京師復命. 其聞見事件曰:

一. 太監鄭同送家人傳韓氏語曰: “韓氏族親, 今亦不來乎? 韓致仁患風疾, 弟致禮何不來?” 答曰: “致仁病向愈, 致禮則宰相中循還差送, 故不敢摺前來.” 一. 會同館張榜, 凡朝貢夷人, 不許出入市肆與人交通透漏事情, 本國人亦依是例, 錦衣衛把門阻當, 不得任情出, 太監鄭同據前傳奉聖旨內: “朝鮮使臣照舊買賣”, 令序班陳智開書告示于該管太監後, 方許本國人出入. 一. 聖節使李封赴京時牛角買賣事發, 拿致科罪, 館牌馮全、劉寬及角主吳宜等三人皆坐杖一百, 邊遠衛分充軍, 角與價拘收入官. 一. 親王世子冠服, 問諸禮部, 皆不言, 於會同館問西藩王使臣湖廣, 則云: “嗣子年十五歲, 受玉圭, 朔望及正至、聖節凡賀禮時, 皆穿圭服.” 汴梁殿下使臣云: “世子朔望則穿時服, 聖節、正至、生辰凡賀禮時則穿圭服.”

정조사(正朝使) 윤호(尹壕)와 부사(副使) 홍이로(洪利老)가 북경[京師]에서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다. 그 문견 사건(聞見事件)에 이르기를,

“1. 태감(太監) 정동(鄭同)이 가인(家人)을 보내어 한씨(韓氏)의 말을 전하기를, ‘한씨의 족친(族親)이 이번에도 오지 않았습니까? 한치인(韓致仁)이 풍질(風疾)을 앓고 있다는데, 그 아우 한치례(韓致禮)가 어째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한치인의 병은 나아가고, 한치례는 재상(宰相) 가운데에서 차례로 돌려가며 차송(差送)하기 때문에 감히 <이번에> 빨리 앞서 오지 못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1. 회동관(會同館)에 방(榜)을 써 붙여서, 모든 조공(朝貢)하는 이인(夷人)들은 시사(市肆)에 출입하여 사람들과 서로 통해 사정(事情)을 누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본국인(本國人)도 또한 이 예(例)에 따라 금의위(錦衣衛)에서 문을 지키고 막아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는데, 태감 정동이 전번에 전(傳)해 받은 성지(聖旨) 가운데, ‘조선(朝鮮) 사신(使臣)은 예전에 비추어서 매매(買賣)하라.’고 한 데에 의거하여, 서반(序班) 진지(陳智)로 하여금 개서(開書)하여 해관(該管) 태감(太監)에게 고시(告示)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본국의 출입을 허락하였습니다.

1. 성절사(聖節使) 이봉(李封)이 북경[京師]에 갔을 때 우각(牛角)을 매매(買賣)한 일이 발각되어, <이봉을> 잡아다 과죄(科罪)하고, 관패(館牌) 풍전(馮全)·유관(劉寬)과 각주(角主) 오의(吳宜) 등 3인은 모두 장(杖) 1백 대를 맞고 변원위(邊遠衛)에 나누어 충군(充軍)되었고, 우각과 그 값은 몰수하여 입관(入官)되었습니다.

1. 친왕세자(親王世子)의 관복(冠服)에 대해 예부(禮部)에 물었는데, 모두 말하지 않으므로, 회동관에서 서번왕(西藩王)의 사신(使臣) 호광(湖廣)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사자(嗣子)의 나이가 15세이면, 옥圭(玉圭)를 받아서, 삭망(朔望)과 정지(正至)·성절(聖節), 모든 하례(賀禮) 때에는 모두 규복(圭服)을 입는다.’고 하고, 변량 전하(汴梁殿下)의 사신은 말하기를, ‘세자(世子)는 삭망이면 시복(時服)을 입고, 성절과 정지(正至)·생신(生辰), 모든 하례 때에는 규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81권 8년 6월 6일 辛丑

辛丑/琉球國王尙德遣內原里主等來聘. 其書曰: 宓惟

~중략~

菲瑣土宜, 具如別幅, 采甄別幅: 丹木一萬斤, 臘子五千斤, 胡椒千斤, 丁香三百斤, 香二百斤, 紫檀百斤, 檀香百斤, 木香百斤, 甘草百斤, 大肚子五十斤, 砂糖百斤, 水牛角百本, 天竺酒甕二箇, 藤二千本, 鮐皮二百枚, 種樹器青磁一對, 青磁香爐一箇, 孔雀羽二百.

유구 국왕(琉球國王) 상덕(尙德)이 내원리주(內原里主) 등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중략~ 하찮은 토산물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어 보냅니다.”하였고, 그 별폭에는, 단목(丹木) 1만 근(斤), 납자(臘子) 5천 근, 호초(胡椒) 1천 근, 정향(丁香) 3백 근, 향(香) 2백 근, 자단(紫檀) 1백 근, 단향(檀香) 1백 근, 목향(木香) 1백 근, 감초(甘草) 1백 근, 대복자(大肚子) 50근, 사탕[砂糖] 1백 근, 수우각(水牛角) 1백 본(本), 천축주옹(天竺酒甕) 2개(箇), 등(藤) 2천 본(本), 태피(鮐皮) 2백 매(枚), 종수기청자(種樹器青磁) 1대(對), 청자 향로(靑磁香爐) 1개(箇), 공작우(孔雀羽) 2백이었다.

▶ 81권 8년 6월 20일 乙卯

刑曹啓: “牛馬宰殺之禁, 不爲不嚴, 而發摘甚難, 無由懲戒, 請依外知部例, 衆所共知屠牛者, 全家徙絕島.” 從之.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마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엄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워 징계할 길이 없으니, 외지부(外知部)의 예(例)에 의하여 못사람이 소를 잡은 것을 아는 자는 온 가족을 절도(絶島)에 옮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81권 8년 6월 24일 己未

戶曹啓: “平安道諸邑貢物內, 清蜜、黃蠟、山猪毛、中鹿皮、小鹿皮、獐皮、毛獐皮、貂皮、鼠皮、雜羽、狐皮、狸皮、山羊皮、狗皮、黃楊木、小脯、乾鹿、乾猪、鹿角、全漆、松花、熟麻、五味子、栢子、生梨、生麻、熊皮, 來戊戌年爲始限三年, 高佐木限六年, 雉羽、牛角限十年, 弓槩木限二十年, 芎窮、赤〔茯〕苓(茯)、茯神、鵜鴣油限五年蠲減. 江界、渭源、理山、碧潼、昌城、朔州、義州等邑貢物, 限民間蘇復全除, 雜羽、松花、生梨、斑猫、蓮子、虎頭、惡實、蛇床子、五未子, 永除何如?” 從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 안에서 청밀(淸蜜)·황랍(黃蠟)·산저모(山豬毛)·중록비(中鹿皮)·소록비(小鹿皮)·장피(獐皮)·모장피(毛獐皮)·초피(貂皮)·서피(鼠皮)·잡우(雜羽)·호피(虎皮)·이피(狸皮)·산양피(山羊皮)·구피(狗皮)·황양목(黃楊木)·소포(小脯)·건록(乾鹿)·건저(乾豬)·늑각(鹿角)·전칠(全漆)·송화(松花)·숙마(熟麻)·오미자(五味子)·백자(栢子)·생리(生梨)·생마(生麻)·웅피(熊皮)는 오는 무술년부터 시작하여 3년, 고좌목(高佐木)은 6년, 치우(雉羽)·우각(牛角)은 10년, 궁삭목(弓槩木)은 20년, 궁궁(芎藭)·적복령(赤茯苓)·복신(茯神)·제고유(鵜鴒油)는 5년 동안에 한하여 견감(蠲減)하고, 강계(江界)·위원(渭源)·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 등 고을의 공물(貢物)은 민간이 소복(蘇復)할 때까지 온전히 면제하며, 잡우(雜羽)·송화(松花)·생리(生梨)·반묘(班貓)·연자(蓮子)·호두(虎頭)·악실(惡實)·사상자(蛇床子)·오미자(五味子)는 영구히 면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83권 8년 8월 26일 庚申

遣議政府左贊成尹弼商、同知中樞府事柳輕如京師、奏請收買弓角。其奏曰：

竊惟小邦北連野人，南隣島倭，隄備小疎，輒肆凶獮，凡干兵械，務要精備。況又五兵之用，長兵爲最，然而弓材所需牛角，自來本國不產，專仰上國，目今例比達子、女眞，嚴加禁約，不許收買。臣竊念小邦遭遇聖朝以來，累蒙高皇帝詔旨，一視同仁，不分化外。欽此洪武六年十月間，陳請捕倭般隻合用火藥，洪武七年五月間，頒降成造火筒火砲合用物料則例。且凡朝貢諸夷到關，逐一搜檢，不得操寸刃，至於小邦不禁，又如回還，東八站一路，特撥官軍護送，其待遇異於諸藩。臣常懷感激，復有何望，更希聖恩？但念小邦世作東藩，捍衛天朝，弓角一事，軍需所繫至重，不獲已敢此籲乎。伏望聖慈特許收買弓角，不勝至願。

의정부 좌찬성 윤필상(尹弼商)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유지(柳輕)를 보내어 중국에 가서 궁각(弓角)을 수매(收買)할 것을 주청(奏請)하게 하였다. 그 주문(奏文)에 이르기를,

“그즉이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야인(野人)과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도왜(島倭)와 인접하여, 방비[隄備]가 조금 소홀하면, 〈저들이〉 문득 흉포[凶獮]를 자행하여, 모든 병기[兵械]에 관계되는 것은 힘써 정비(精備)를 요(要)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오병(五兵)의 사용에 있어서는 장병(長兵)을 가장 중요하게 삼는 것인데, 궁재(弓材)에 수요되는 우각(牛角)이 예로부터 본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중국(中國)에 의뢰하였으나, 지금은 으레 달자(達子)와 여진(女眞)과 같이 하여, 엄격하게 금약(禁約)을 가하여 수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성조(聖朝)를 만난 이래로 여러 번 고황제(高皇帝)의 칙지(勅旨)를 입어 일시동인(一視同仁) 하시어 화외(化外)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홍무(洪武) 6년 10월에는 왜(倭)의 선척(船隻)을 잡을 것을 진청(陳請)하여 화약(火藥)을 만들어 썼고, 홍무 7년 5월에는 화통(火筒)과 화포(火砲)를 만들 것을 반강(頒降)하시어 물건을

만들어 썼으니, 이것이 곧 그 예(例)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조공(朝貢)하는 오랑캐들이 관문에 이르면, 일일이 〈행장을〉 수검(搜檢)하여, 조그마한 칼도 가지지 못하게 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이를 금하지 않았고, 돌아올 때에도 동팔참(東八站) 일로(一路)에서 특별히 관군(官軍)을 발하여 호송하게 하시어, 그 대우하심이 모든 변국(藩國)보다 특이하였습니다. 신은 항상 감격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무슨 바랄 것이 있어서, 성은(聖恩)을 다시 바라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대로 동쪽의 울타리가 되어 중국[天朝]을 방위[捍衛]하는데, 궁각(弓角)에 대한 한 가지 일만은 군수(軍需)에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여서, 부득이 감히 이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 궁각(弓角)을 수매할 것을 특별히 허락하시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 88권 9년 1월 19일 壬午

傳旨刑曹曰: “前者京居屠牛者, 竝分配巨濟、南海、珍島, 而所在守令保授不嚴, 防禁解弛, 致令續續逃還, 又不上聞, 有違奉法之意. 今後有逃亡者, 其保授切隣里正等, 竝以制書有違律, 該節匿不以聞守令, 罷黜.”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전자에 서울에 살며 소를 잡는 자를 모두 거제(巨濟)·남해(南海)·진도(珍島)에 나누어 유배(流配)하였는데, 그 소재관(所在官)의 수령이 보수(保授)를 엄하게 하지 않고 금하는 것이 해이하여 속속 도망하게 만들고 또 위에 아뢰지도 않았으니, 법을 받드는 뜻에 어김이 있다. 금후로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보수(保授)한 절린(切隣)과 이정(里正) 등을 모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고, 그 숨기고 아뢰지 않은 수령은 파면하라.”하였다.

▶ 93권 9년 6월 1일 辛卯

司憲府據全羅道觀察使啓本啓: “羅州囚故司直權儉妻良女石非, 夫喪三年內奸前萬戶金克己, 宰牛宴飲罪, 律該決杖一百、徒三年收贖、離異, 前萬戶金克己, 喪女石非和奸, 知情食肉罪, 律該決杖一百・告身盡行追奪.” 命石非屬官婢, 克己充軍.

사헌부(司憲府)에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나주(羅州)의 죄수 고(故) 사직(司直) 권검(權儉)의 처(妻)인 양녀(良女) 석비(石非)가 남편의 삼년상(三年喪) 안에 전(前) 만호(萬戶)인 김극기(金克己)와 간통(奸通)하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 도(徒) 3년(年)에, 수속(收贖)·이혼[離異]하게 하는 데에 해당하고, 전 만호 김극기(金克己)가 남편의 상중(喪中)에 있는 석비와 간통하고 사정을 알면서 고기를 먹은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석비는 관비(官婢)에 소속시키고, 김극기는 충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充軍)하게 하였다.

▶ 95권 9년 8월 3일 壬辰

壬辰/開城府留守金良璈來啓曰：“今因豐德郡民上言，令本府民屬西籍田農夫。臣觀府民有田者少，雖間有數頃田者，長在城中，雇人耕耨，專事販賣，若屬籍田，臣恐不堪其役，將至流移。開城舊都，且使臣經由之地，尤不可使之殘敝。前此籍田農民，官爲饋餉，且給牛料，故豐德郡民不憚爲之。今則供饋牛料一切裁減，加以雜役，致有道遠難役之訴耳。且籍田農夫，以豐德郡民三百名爲額，而免三千結貢賦，其所餘田必不多，竝蠲貢賦，專事籍田，供饋牛料，俱依舊制，則彼必樂於趨事矣。”傳曰：“豐德郡民專屬籍田，竝蠲貢賦。”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김양경(金良璈)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풍덕군(豐德郡) 백성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본부(本府)의 백성으로 하여금 서적전(西籍田) 농부(農夫)에 속하게 하였던 바, 신이 보건대 본부의 백성은 땅을 가진 자가 적고 비록 간혹 두어 경(頃)의 땅을 가진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성(城)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고용(雇用)하여 농사짓고 오로지 장사[販賣]만 일삼는데, 만약 적전(籍田)에 속하게 하면 신은 〈백성들이〉 그 역(役)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차 떠나가는 데에 이를 듯합니다. 개성은 옛 서울[舊都]이며 또 사신(使臣)이 경유하는 곳이므로 더욱 잔폐(殘弊)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적전의 농민에게 관(官)에서 음식을 먹이고 또 우료(牛料)를 주었기 때문에 풍덕군의 백성이 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음식 먹이는 것과 우료를 일체 감하고 잡역(雜役)을 더함으로써 길이 멀고 역(役)이 어렵다는 호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적전의 농부를 풍덕군의 백성 3백 명으로 액수(額數)를 정하고 3천 결(結)의 공부(貢賦)를 면제하면 나머지 땅은 반드시 많지 아니할 것이니, 모두 공부를 감면하여 오로지 적전에만 전념하게 하고, 음식 먹이는 것과 우료(牛料)를 모두 예전 제도대로 하면 저들이 반드시 일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풍덕군의 백성을 오로지 적전(籍田)에 소속시키고 공부(貢賦)를 아울러 면제하라.”하였다.

▶ 95권 9년 8월 18일 丁未

丁未/慶尙道觀察使朴槿馳啓：“蔚山郡民申金家有牛生犢，背上有三足，同根而生。”傳曰：“此妖也，古亦有之乎？其考前史以啓。若史官記之，不可不親見其形。”右副承旨李瓊全、同副承旨金季昌對曰：“《三國史》多載之，然別無其應矣。”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박건(朴槿)이 치계(馳啓)하기를, “울산군(蔚山郡)의 백성 신금(申金)의 집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등 위에 세 발이 있어 같은 자리에서 났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는 요물(妖物)이다. 예전에도 있었는가? 전사(前史)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만약 사관(史官)이 기록한다면 그 모양을 친히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全)과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대답하기를, “《삼국사(三國史)》에 많이 실려 있으나, 그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하였다.

▶ 95권 9년 8월 19일 戊申

傳旨議政府曰：“妖不妄興，惟人所召。乃者慶尙道蔚山郡民家牛生一犢，背有三足，物之反常如此，豈無所感而然耶？其在前誌，或有五足之犢，或牛生馬而其足八，要皆當時失道之應。今茲之異，咎實在予，予實驚懼，若墜淵谷，思欲敬天勤民，消災弭患。卿等職在調燮，義同一體，尙克交修，以匡不逮，仍諭中外，恪勤乃職，以答天戒。”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요물(妖物)은 함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잘못으로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경상도 울산군(蔚山郡)의 민가에서 소가 송아지 한마리를 낳았는데 등에 세 발이 있으니, 사물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어찌 감응(感應)됨이 없이 이러하겠는가? 예전 기록에 혹은 발이 다섯 개인 송아지가 있다고 하고, 혹은 소가 말을 낳았는데 그 발이 여덟이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모두 당시에 도(道)를 잃은 것에 대한 감응이다. 이제 이 이번(異變)은 허물이 진실로 내게 있으니, 내가 진실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깊은 못과 골짜기에 떨어진 듯하므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서 재앙을 없애고 근심을 막고자 한다. 경 등은 직책이 음양(陰陽)을 조화(調和)하는 데에 있으므로 의(義)가 한 몸과 같으니, 서로 다스림을 잘하여 나의 미치지 못함을 바로잡고, 중외(中外)에 유시(諭示)하여 각각 그 직책에 공경하고 부지런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도록 하라.”하였다.

▶ 95권 9년 8월 19일 戊申

都承旨孫舜孝、左承旨朴叔藁啓曰：“今七足之牛，乃邪異之物，邪物不可竝育於天地之間，臣等謂宜令瘞之，不可目覩其形。” 右承旨洪貴達、左副承旨金升卿、右副承旨李瓊全、同副承旨金季昌啓曰：“若今瘞之，則必馳書于監司、守令矣。如此妖怪之物，不可謄於文字之上，又不可親見其形。臣等意以爲自古妖物之生不久，置之爲便。” 傳曰：“予之所謂親見其形者，非有他意。史官記之，必須詳悉，恐郡守所圖，未盡詳故云耳。”

도승지(都承旨) 손순효(孫舜孫)와 좌승지(左承旨) 박숙진(朴叔藁)이 아뢰기를, “이번의 발이 일곱 개 달린 소는 바로 부정(不正)한 물건인데, 부정한 물건은 천지(天地) 사이에 함께 기를 수 없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땅에 묻어서 그 모양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하니, 우승지(右承旨) 홍귀달(洪貴達)·좌부승지(左副承旨) 김승경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金升卿)·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全)·동부승지(同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만약 이제 땅에 묻는다면 반드시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에게 치서(馳書)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괴(妖怪)한 물건은 기록에 올릴 수 없으며, 또 그 모양을 친히 볼 수 없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예로부터 요물(妖物)은 오래 살지 못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이른바 그 모양을 친히 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관(史官)이 기록하자면 반드시 상세히 하여야 할 것인데, 군수(郡守)가 그런 것이 자세하지 못할 듯하므로 말한 것뿐이다.”하였다.

▶ 98권 9년 11월 28일 乙酉

先是義禁府照律前京畿觀察使李繼孫、黃海道觀察使李封及守令・萬戶等罪以啓，命議于政丞等。鄭昌孫、韓明澮、尹士昕議：“李繼孫公然求索食物，李封從繼孫之請，令各官辦給，各官守令亦皆承監司風旨，多數贈送，並不當。義禁府照律甚合罪名。然近來大小人員婚姻喪葬，不賴官家者蓋寡。今宰牛之禁太甚，不得已請借肉味，上裁。”沈澮、尹弼商議：“依義禁府所啓。”金國光議：“食物則祖宗朝亦虛論，食物外物件，科罪何如？”傳曰：“今觀擬議，或曰：‘婚姻喪葬不賴官家者蓋寡，今牛禁太甚，不得已請借肉味。’或曰：‘食物則祖宗朝虛論。’然則於卿等意不欲科罪此人等乎？何以發此言也？更議以啓。”

이보다 앞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전(前)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손(李繼孫)·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봉(李封)과 수령(守令)·만호(萬戶)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명하여 정승(政丞) 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이계손이 공공연하게 음식물(飮食物)을 요구하니, 이봉이 이계손의 청에 따라 각 고을로 하여금 준비해서 주게 하였고, 각 고을의 수령(守令)도 모두 감사(監司)의 뜻에 따라 많이 보내 주었으니, 모두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금부의 조율이 죄명(罪名)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대소(大小)의 인원(人員)으로 혼인(婚姻)이나 장례 때에 관가(官家)의 힘을 입지 않는 자가 대체로 적습니다. 지금 소를 잡는 것을 너무 심하게 금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육미(肉味)를 빌려 주기를 청하는 실정이니, 성상(聖上)께서 재량(裁量)하소서.”하고,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뢴 대로 따르소서.”하였으며, 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음식물(飮食物)에 대해서는 조종조(祖宗朝)에서도 헛되이 논의(論議)되었으니, 음식물 외의 물건(物件)에 대해서만 과죄(科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의논한 것을 보건대, 혹은 말하기를, ‘혼인(婚姻)과 상장(喪葬)에 있어서 관가(官家)의 힘을 입지 않는 자가 대개 적은데, 지금 소를 잡는 것을 너무 심하게 금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육미(肉味)를 빌려 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음식물은 조종조에서 헛되이 논의된 것입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卿) 등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과죄(科罪)하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하였었다.

▶ 101권 10년 2월 9일 丙申

御後苑. 會武科初、重試講書, 取重試楊澹等十七人、初試李成達等九人. 又引見前經歷李仁畦, 問日本之事, 對曰: “去癸亥年, 卞孝文奉使日本, 尹仁寶〔尹仁甫〕爲介, 申叔舟爲書狀官, 臣以孝文子弟從行. 三月發船, 三島之間風濤甚惡, 或若登山, 或若墜谷, 咫尺之間, 二舟之人不得相見矣.” 上曰: “對馬島主接待何如?”

~중략~

上曰: “此風尤不美也. 倭亦知學乎?” 對曰: “但解題詠耳, 經書則不學也. 寺僧好詩, 求詩於申叔舟, 叔舟卽賦三十篇, 僧見之心服, 欲和而未能也.” 上曰: “有水牛乎?” 對曰: “無之. 其國無物產, 凡物多貿於南蠻而用之. 只有黃金, 其直與我國無異也.” 上曰: “有樂乎?” 對曰: “但有腰鼓、笙、管. 聞我國音樂, 或有起舞者.”

후원(後苑)에 나아가 무과(武科)의 초시자(初試者)·중시자(重試者)를 모아 강서(講書)하여 중시의 양담(楊澹) 등 17인과 초시 이성달(李成達) 등 9인을 뽑았다. 또 전 경력(經歷) 이인규(李仁畦)를 인견(引見)하여 일본(日本)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난 계해년 변효문(卞孝文)이 일본으로 사신 갈 때에, 윤인보(尹仁甫)가 부사(副使)가 되고 신숙주(申叔舟)가 서장관(書狀官)이 되었으며, 신(臣)은 변효문의 자제 군관(子弟軍官)으로 따라갔습니다. 3월에 배를 띄웠는데, 삼도(三島) 사이는 풍파가 매우 험하여 산에 이르는 듯도 하고 골짜기로 떨어지는 듯도 하였으며, 지척 사이에 있는 두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접대가 어떠하던가?”하니,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그 풍속은 더욱 아름답지 않다. 왜인도 학문을 알던가?”하니, 대답하기를, “제영(題詠)을 알 뿐이고, 경서(經書)는 배우지 않습니다. 절의 중[僧]이 시(詩)를 좋아하여 신숙주(申叔舟)에게 시를 구하였는데, 신숙주가 곧 30편(篇)을 지으니, 중이 보고서 심복(心服)하고 화답하려 하였으나 못하였습니다.”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물소[水牛]가 있던가?”하니,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물산(物產)이 없으므로, 모든 물건은 흔히 남만(南蠻)에서 사서 씁니다. 다만 황금이 있는데, 그 값은 우리나라와 다름없습니다.”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음악이 있던가?”하니, 대답하기를, “요고(腰鼓)·생(笙)·관(管)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을 듣고 혹 일어나서 춤추는 자가 있었습니다.”하였다.

▶ 101권 10년 2월 24일 辛亥

辛亥/受常參, 視事. 左承旨金升卿將司僕寺提調單子啓: “諸邑分養水牛, 自壬午年至今年, 孳息僅七十餘頭. 自今守令有能蕃息者, 請加資勸獎.” 上問左右, 右議政尹弼商對曰: “雖厚賞可矣.”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이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의 단자(單子)를 가지고 아뢰기를,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물소[水牛]가 임오년부터 올해까지 새끼친 것이 겨우 70여 마리입니다. 이제부터 잘 번식시키는 수령(守令)이 있거든 가자(加資)하여 권장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우의정(右議政)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후하게 상주어도 괜찮겠습니다.” 하였다.

▶ 102권 10년 3월 21일 丁丑

傳旨戶曹曰: “永安道六鎭所貢如土豹皮、狼尾、牛黃等物, 以軍士馬輸京有弊, 今後令觀察使, 竝鏡城貢物, 傳驛上送, 以除民弊.”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영안도(永安道)의 육진(六鎭)에서 공물(貢物)로 바치는 토표피(土豹皮)·낭미(狼尾)·우황(牛黃) 등과 같은 물건을 군사와 말로 서울까지 운반하므로 폐단이 있으니, 금후로는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경성(鏡城)의 공물과 함께 역마(驛馬)로 전해서 올려 보내어 민폐(民弊)를 없애도록 하라.”하였다.

▶ 103권 10년 4월 17일 癸卯

傳旨刑曹曰: “東北邊民, 盜取彼人牛馬, 轉賣內地, 因此重利, 遂成風俗, 勢不可遏. 魚有沼爲節度使時, 受敎, 當以死罪, 其後以不錄《大典》, 不舉行. 雖人命至重, 而邊釁或生, 亦非細故, 其依前受敎施行.” 仍傳曰: “此法良是, 然死刑甚重, 不可輕易爲之, 其議于政丞.” 昌孫、明澮、沈澮、士旰議: “依傳旨施行.” 國光、弼商議: “觀其所犯, 情理甚憎者, 臨時定罪, 其餘, 依律施行爲便.” 從昌孫等議.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동북쪽 변방의 백성들이 저쪽 사람들의 소와 말을 도둑질해다가 내지(內地)에 팔아서, 이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자, 드디어 풍속(風俗)을 이루게 되어서 형세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어유소(魚有沼)가 절도사(節度使)가 되었을 때의 수교(受敎)에는 마땅히 사죄(死罪)로 하였는데, 그 후 《대전(大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거행하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하기는 하나, 변방에서 변고라도 혹 생기게 된다면 또한 작은 일이 아니니, 전의 수교(受敎)대로 시행하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법이 참으로 옳기는 하나, 사형(死刑)은 매우 중하므로 가볍게 할 수 없으니, 정승에게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旰)은 의논하기를, “전지(傳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그 범한 바를 보고서情理(情理)가 매우 미운 자는 그 때에 임하여 죄를 정하고, 그 나머지는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 103권 10년 4월 21일 丁未

禮曹啓：“本曹，饋餉大內殿使送瑞興等及僉知平國忠等時，瑞興言：

~중략~

‘一，大內殿，前此通信中朝，請得水牛雌雄并四首。去辛巳歲，將雌雄二首，來獻貴國，只留二首，孳息不敷，因此絕種。我等離本土，到一岐州那衍，聞貴國水牛蕃息，使人來諭曰：「前往請得，若蒙允許，來歲當粧船出送。」貴曹如不信此言，則當以本國通書爲質。」仍出示之，乃其執事人求水牛書也。

이하생략~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대내전(大內殿)의 사송(使送) 서흥(瑞興) 등과 첨지(僉知) 평국충(平國忠)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을 때에 서흥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중략~

1. 대내전이 이보다 앞서 중국(中國)에 통신(通信)하여 물소[水牛] 암수[雌雄] 아울러 4마리를 청하여 얻었습니다. 지난 신사년에 암수 2마리를 가지고 귀국에 와서 바쳤으므로 2마리만 남았는데, 번식이 잘 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종자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본토(本土)를 떠나 일기주(一岐州)에 도착하였을 때 나연(那衍)이 귀국의 물소는 번식하였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와서 유지하기를, ‘전에는 가서 청하면 허락을 받았으니, 만약 윤희(允許)를 받는다면, 내년에 마땅히 배를 단장하여 떠나보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조(貴曹)에서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마땅히 본국(本國)에 서신을 보내어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하여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을 담당 한 사람이 물소를 구하는 서신이었습니다.

이하생략~

▶ 104권 10년 5월 4일 己未

司憲府啓：“江陵艷陽寺依止僧弘智，削髮良民禹孫，既還俗定役後，因仍率居罪、金自義等三人家舍撤去，其田地或奪耕，或抑換，或令陳荒成賂罪，私債未納人處，牛隻奪取罪，本寺四山，擅自立標禁代罪、與兩班子弟，爭田擅自毆打罪，狗兒牛馬寺內竝畜罪，他人麻田開溝引水罪，私債分給時，私役受債人耕種，或燒木收納罪，律該從重決杖一百還俗。當差奪取田地牛隻還主，且蒜山提堰內，久遠民田，各還其主，餘田及連谷營代田等，竝屬屯田，以補軍資。艷陽、珍寶兩處，私債斂散之際，橫行閭閻，搜索人家，或奪頭畜，或奪人田，以至撤人家舍，作弊多端，皆是學悅所使。請并推鞫。”命先王已賜之物，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仍舊，學悅勿推，弘智減一等贖，勿還俗，私債其來已久，勿禁。”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강릉(江陵) 염양사(艷陽寺)에 의지(依止)하고 있는 중 홍지(弘智)가 양민(良民) 우손(禹孫)을 삭발(削髮)하였다가 이미 환속(還俗)시켜 정역(定役)한 뒤에도 그대로 솔거(率居)한 죄(罪)와, 김자의(金自義) 등 세 사람의 가사(家舍)를 철거(撤去)시키고, 그 전지(田地)를 혹은 빼앗아 경작(耕作)하거나, 혹은 억지로 바꾸거나, 혹은 묵혀서 황폐해지게 하고는 뇌물을 받은 죄와, 사채(私債)를 미처 내지 못한 사람의 집에서 소[牛]를 탈취(奪取)한 죄와, 본사(本寺)의 사산(四山)에다 제마음대로 표(標)를 세워 벌채(伐採)를 금한 죄와, 양반(兩班)의 자제(子弟)와 전지(田地)를 다투다가 함부로 구타(毆打)한 죄와, 강아지와 소·말을 절 안에서 아꼴러 기르는 죄와, 다른 사람의 마전(麻田)에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는 죄와, 사채(私債)를 나누어 줄 때에 사사로이 사채를 받는 사람을 부려서 경종(耕種)을 시키거나 혹은 소목(燒木)을 거두어들인 죄는 율(律)이 중중(從重)으로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환속(還俗)시키는 데 해당됩니다. 마땅히 탈취(奪取)한 전지(田地)와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또 산산(蒜山)의 제언(堤堰) 안은 오랜 옛날에 민전(民田)이었으므로,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전지 및 연곡(連谷)과 영대(營代)의 전지 등은 모두 둔전(屯田)에 소속시켜 군자(軍資)를 보충하게 하소서. 염양(艷陽)과 진보(珍寶) 두 곳에서 사채(私債)를 거두어들일 즈음에 여염(閭閻)을 횡행(橫行)하면서 남의 집을 수색하여 혹은 두축(頭畜)을 빼앗고, 혹은 남의 땅을 빼앗으면서 남의 가사(家舍)를 철거하기도 하였으니, 작폐(作弊)가 다단(多端)한데, 이는 모두 학열(學悅)이 시킨 바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추국(推鞠)하소서.”하니, 명하기를, “선왕(先王)께서 이미 하사(下賜)한 물건이니, 옛날대로 할 것이며, 학열은 추국하지 말고, 홍지는 1등을 감하여 속(贖)을 바치게 하고, 환속(還俗)시키지 말며, 사채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 전부터이니 금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 105권 10년 6월 10일 乙未

乙未/濟州漂流人金非衣、姜茂、李正等三人，還自琉球國，言所歷諸島風俗，甚奇異。上令弘文館，書其言以啓。其言曰：“俺等，丁酉二月初一日，與玄世修、金得山、李清敏、梁成突、曹貴奉，陪受進上柑子，同騎一船，開洋向楸子島，忽值東風大起，西向漂流。自初發至第六日，海水澄碧，自第七日至八日，行一晝夜，渾濁如泔，第九日，又遭西風，向南漂流，海水澄碧。第十四日，望一小島，未及泊岸，舵折船毀，餘人皆溺死，裝載盤纏，亦皆滄失，俺等三人，騎坐一板。漂蕩間，適有漁舟二隻，各有四人騎坐，見我輩，收載而去，到島岸。島名閨伊是鷹。【其俗，謂島爲是鷹。】人家，環島而居，周回可二日程，島人男女百餘名，刈草結廬於海濱，將俺等住止。俺等自發濟州，大風激浪過額，水滿舟中，舷不浸者數板。金非衣、李正，操瓠挹水去之，姜茂執櫓，餘皆眩暈而臥，不能炊爨，勺飲不入口者，凡十四日，至是島人，將稻米粥及蒜本來饋。自其夕，始饋稻米飯及濁酒、乾海魚，魚名皆不知。留七日，移置人家，輪次饋餉，一里饋訖，輒遞送次里。一

月後，分置俺等於三里，亦輪次饋餉，凡饋酒食，一日三時，一島人容貌，與我國同一。其俗穿耳，貫以青小珠，垂二三寸許，又貫珠繞項三四匝，垂一尺許，男女同，老者否。一，男女，皆徒跣無鞋。

~중략~

一，家有鼠，畜牛雞猫，不食牛雞肉，死則輒埋之。俺等云：‘牛雞肉可食，不可埋。’島人唾而哂之。

~중략~

一，有鐵冶，而不造耒耜，用小鍤剔田去草以種粟。水田則十二月間，用牛踏播種，正月間移秧，不鋤草，二月稻方茂，高一尺許，四月大熟早稻，四月畢刈，晚稻五月方畢刈。刈後根芟復秀，其盛愈於初，七八月收穫。未穫前，人皆謹慎，雖言語亦不厲聲，不蹙口爲嘯，或有捲草葉吹之以杖擬之，而禁，收穫後乃吹小管，其聲甚微細。一所穫稻，連稻束之，置於樓庫，以竹枚鐮之，舂以步臼。

~중략~

凡留六朔，至七月晦，候南風，島人十三名，將俺等齎糧及酒醪，同騎一船，行一晝夜半，至一島。島名所乃是麿，護送者，留八九日，還本島。去所乃是麿狹而長，周回可四五日程。其言語、飲食、衣服、居室、土風，大概與閩伊島同，供饋俺等亦同。一，婦人穿鼻兩旁，貫小黑木，狀如鬚焉。足脛繞繫小青珠，其廣數寸許。一，用稻與粟，粟居稻三分之一。所收禾，積於近居閑地，高俱二丈許。同里人，聚積于一處，多者或至四五十餘所。一，家有鼠，畜牛、雞、猫、狗，屠牛食之，不食雞肉。一，山有豕，島人持槍牽狗捕之，熏其毛，刳而烹之，獵者獨食，雖至親不與，與人則難獲云。

~중략~

俺等凡留五朔，至十二月晦，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騎一小船，行一晝至一島。名捕月老麻伊是麿。其地平衍無山，皆沙石之地，周回比所乃島稍小。其言語、飲食、衣服、居室、土風，大概與閩伊島同，供饋俺等，亦同。一，有黍、粟、牟、麥，無水(日)[田]稻米，貿易於所乃島。一，種牟、麥，當秋月，用牛糞，以手掬置於田，用鍤起土覆之，二三月方熟。刈畢後，治田種之九種粟，亦於十月間播種，二三月收穫訖，後種之，七八月又收穫。一，飛禽有鳩、黃雀、鷗。一，家有鼠，畜牛、雞、猫，屠牛而食，不食雞肉。

~중략~

俺等，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騎一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捕刺伊是麿。護送人，翌日還本島。其地平衍無山，周回可二日程。人家僅四十餘，其言語、衣服、飲食、居室、土風，大概與閩伊島同，供饋俺等，亦同。一，其俗以青珠，繞繫臂及脛，男女同。一，飛禽有鳩、黃雀、鷗。一，有黍、粟、粳、麥，無稻，稻米貿易於所乃島。一，家有鼠，畜牛、雞、猫，屠牛而食之，不食雞肉。

~중략~

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駕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欽尹是麿。護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送人，翌日還本島。其地平衍無山，周回可一日程。其言語、飲食、衣服，亦與閩伊島同。一，有黍、粟、粳、麥，無稻，稻米貿易於所乃島。一，飛禽有鳩黃、雀、鷗。一，家有鼠，畜牛、雞、猫，屠牛而食之，不食雞肉。

~중략~

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騎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伊羅夫是鷹。護送人，翌日還本島。周回可二日程。其言語、飲食、居室、土風，大概與閩伊島同，其衣服，與他羅馬島同，(洪)〔供〕饋亦同。一，婦人，掛水精大珠於頂。一，有黍粟粳麥，亦有稻。稻居粳麥十分之一。一，少有山谷，有櫻、桑、竹，亦有材木。一，家有鼠，畜牛、雞、猫，屠牛而食之，不食雞肉。釀酒用米麴。

~중략~

留一朔，候南風，島人五名，將俺等，同騎小船，行一晝，至一島。島名覓高是鷹。護送人，翌日還本島。其地平衍無山，周回五六日程。其言語、飲食、居室、土風，大概與閩伊島同，衣服與他羅馬島同，供饋俺等亦同。釀酒與伊羅夫島同，有稻、黍、粟、牟、麥。一，炊飯用鐵鼎，無足似釜，乃貿易於琉球國者也。一，婦人掛珠於項，亦與伊羅夫島同。一，家有溷廁。一，家有鼠，畜牛、雞、猫、狗，屠牛食之，不食雞肉。

~중략~

留一朔候南風，島人十五名，將俺等，同騎一船，行二晝夜半，至琉球國，海勢洶湧，波濤險惡，島人亦皆病暈。國王褒賞護送人，人各賜青紅綿布，厚饋酒食，醉倒終日。其人等，以所賜綿布，造衣穿着，留一月，還本島。國人及通事，來問俺等：‘爾是何國人？’俺等答曰：‘朝鮮人。’又問曰：‘爾釣魚漂流至此乎？’俺等共議答曰：‘俱係朝鮮國海南人，輸運進上米，向京都，遭風至此。’通事將俺等言，開寫而去，達于國王，俄而遣數官人，迎致俺等，處於一館。距海未五里，以板蓋屋，有門戶窓壁，外有石牆，高二丈，牆有門，夜則加扃鐃。又有官舍在傍，有守令二人，監考二人，別有一庫，藏貯財物、錢布、魚醢。凡出納，守令監之，通事云：‘此猶汝國郡邑之有官廳也。’供饋俺等，日三時，亦有酒。一，家受五日糧米酒醢魚醢於官廳，供饋訖，次家，又受而輪次供饋。率五六日，守令，一見俺等，饋酒肴，又教館人，常時饋餉豐厚。俺等適見國王之母，出遊，乘漆輦，四面垂簾，舁者幾二十人，皆着白苧衣，以帛裹首。軍士持長劍，佩弓矢，擁衛前後，幾百餘人，吹雙角、雙太平嘯，放火炮。美婦四五人，着綵段衣，表着白苧布長衣。俺等，出道傍拜謁，駐輦以二鑊瓶，盛酒，酌以髹木器俺等，其味與我國同。有小郎，稍後別行，年可十餘歲，貌甚美，髮垂後不辮，着紅綃衣束帶，乘肥馬。執轡者皆着白衣，騎馬前導者四五人，扶擁左右者，亦甚衆。衛士持長劍者，二十餘人，持傘者，竝馬而行，以障日。俺等，亦拜謁見，小郎下馬，以鑊瓶盛酒饋之，飲訖，小郎上馬去。國人云：‘國王薨，嗣君年幼，故母后臨朝，小郎年長，則當爲國王。’一，七月十五日，諸寺刹造幢蓋，或用彩段，或用彩繒，其上作人形及鳥獸之形，送于王宮。居民選男子少壯者，或着黃金假面，吹笛打鼓，詣王宮，笛如我國小管，鼓樣亦與我國同。其夜，大設雜戲，國王臨觀，故男女往觀者，填街溢巷，馱載財物，詣宮者亦多。一，自海岸距王宮，十餘里，俺等遙望，一殿甚高，問之，乃國王

所居也. 人家或蓋瓦, 然板屋甚多. 一, 男女推髻於頂邊, 以帛裹之, 庶人皆白苧衣. 婦人推髻於腦後, 皆着白苧布衫, 白苧布裳, 或着白苧布長衣, 其貴者亦服綵段, 有襦襖兒、襦裳. 其守令, 用班染繒裹髻, 着白細苧布, 衣帶紅染帛, 出則騎馬, 從者數人. 一, 水田陸田, 相半, 而陸田稍多. 水田則冬月播種, 五月稻皆熟收穫訖, 又以牛踏之, 更播種, 七月移秧, 秋冬間又收穫. 陸田則用小鍤治之, 種粟, 亦於冬月始播, 五月收穫, 六月更播種, 八月始垂穎向熟.

~중략~

一, 家有鼠, 畜馬、牛、羔、猫、猪、狗、雞、鵠鵝、鴨, 屠馬、牛食之, 或賣於市, 亦食雞. 飛禽有鳥、鵲、黃雀、鷹、燕、鷗、鷗、鷗、鷗. 一, 菓有梅、桃、柚子、青橘. 一, 菜有蹲鴟、茄子、眞瓜、冬瓜、韭、葱、蒜、葵、瓠、芭蕉.

~중략~

右閩伊島以下, 凡物産, 俺等所見, 止此.”

제주(濟州)에 표류(漂流)했던 사람 김비의(金非衣)·강무(姜茂)·이정(李正) 등 세 사람이 유구국(琉球國)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지나온 바 여러 섬의 풍속(風俗)을 말하는 것이 매우 기이(奇異)하므로, 임금이 홍문관(弘文館)에 명하여 그 말을 써서 아뢰라고 하였다. 그 말에 이르기를,

“우리들이 정유년 2월 1일에 현세수(玄世修)·김득산(金得山)·이청민(李清敏)·양성돌(梁成突)·조귀봉(曹貴奉)과 더불어 진상(進上)할 감자(柑子)를 배수(陪受)하여 같이 한 배에 타고 바다로 출범(出帆)하여 추자도(楸子島)로 향해 가다가, 갑자기 크게 불어오는 동풍(東風)을 만나 서쪽으로 향하여 표류하였습니다. 처음 출발한 날로부터 제 6일에 이르러서는 바닷물이 맑고 푸르다가, 제 7일부터 제 8일까지 1주야(晝夜)를 가니 혼탁(渾濁)하기가 뜨물과 같았으며, 제 9일에 또 서풍(西風)을 만나서 남쪽을 향하여 표류해 가니 바닷물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 14일 췌에 한 작은 섬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미처 기슭에 대이지 못하여 키가 부러지고 배가 파손되어 남은 사람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장비도 모두 물에 빠져 잃어버렸으며, 우리들 세 사람은 한 판자에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탕(漂蕩)하는 사이에 마침 고기잡이배 두 척이 있어서 각각 네 사람이 타고 앉아 있다가 우리들을 발견하고는 거두어 신고 가서 섬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윤이시마(閩伊是廬)라고 【그곳 풍속에 섬을 일컬어 시마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인가(人家)가 섬을 둘러 살고 있고, 둘레는 이틀 길이 될 듯하며, 섬사람은 남녀 1백여 명으로 풀을 베어 바닷가에 여막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제주(濟州)를 출발한 때로부터 큰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파도가 이마[額] 위를 지나고, 물이 배 가운데 짝 차서 뱃전이 잠기지 않은 것은 두어 판자뿐이었습니다. 김비의와 이정(李正)이 바가지와 물을 퍼내고, 강무는 노(櫓)를 잡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다 배 멀미를 하여 누워 있어서 밥을 지을 수가 없어 한 방울의 물도 입에 넣지 못한지가 무릇 열나흘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섬사람이 쌀죽[稻米粥]과 마늘을 가지고 와서 먹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처음으로 쌀밥 및 탁주(濁酒)와 마른 바다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 이름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7일을 머문 뒤에 인가(人家)에 옮겨 두고서 차례로 돌려가며 대접을 하는데, 한 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을에서 대접이 끝나면 문득 다음 동네로 체송(遞送)하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우리들을 세 마을에 나누어 두고 역시 차례로 돌려가며 대접하는데, 무릇 술과 밥은 하루에 세끼였으며, 온 섬사람의 용모(容貌)는 우리나라와 동일(同一)했습니다. 1. 그 나라 풍속은 귀를 뚫어 푸르고 작은 구슬로써 꿰어 2, 3촌쯤 드리우고, 또 구슬을 꿰어 목에 3, 4걸을 둘러서 1자[尺]쯤 드리웠으며, 남녀(男女)가 같이 하는데 늙은 자는 안했습니다. 1. 남자·여자 모두 다 맨발로 신이 없었습니다.

~중략~

1. 집에는 쥐·소·닭·고양이가 있으나, 소와 닭의 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곧 몰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르기를, ‘소·닭의 고기는 먹을 만한데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더니, 섬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비웃었습니다. ~중략~ 1. 철야(鐵冶)는 있으면서도 쟁기[耒耜]를 만들지 않고 작은 삽을 사용하여 밭을 파헤치고 풀을 제거하여 조[粟]를 심습니다. 수전(水田)은 12월 사이에 소를 사용하여 밭아서 파종(播種)을 하고, 정월 사이에 이양(移秧)을 하되 풀을 베지 않으며, 2월에 벼가 바야흐로 무성하여 높이가 한 자쯤 되고, 4월에 무르익는데, 올벼[早稻]는 4월에 수확을 마치고 늦벼[晚稻]는 5월에 바야흐로 추수를 마칩니다. 벼 뒤에는 뿌리에서 다시 자라나 처음보다 더 무성하며, 7, 8월에 수확합니다. 수확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근신(謹慎)하여, 비록 말을 하더라도 소리를 크게 하지 아니하고, 입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지 아니하며, 혹 풀잎을 말아서 불면 막대기로 이를 금하다가, 수확을 한 뒤에야 작은 피리[管]를 부는데, 소리가 매우 가늘었습니다. 한번 수확한 벼는 이삭을 연달아 묶어서 누고(樓庫)에 두고, 대나무 막대기로 이를 털어서 디딜방아로 찧습니다.

~중략~

무릇 6삭(朔)을 머물고, 7월 그믐에 이르러 남풍(南風)이 불어오는 것을 기다려서 섬사람 13명이 우리들과 같이 양식과 탁주(濁酒)를 준비해 가지고 같이 한 척의 배를 타고서 1주야(晝夜) 반을 가니,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소내시마(所乃是麿)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자(護送者)들은 8,9일 동안을 머물다가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내시마는 좁으면서 길었는데, 둘레는 4, 5일정(日程)이 될 만하였고, 그 언어(言語)·음식(飲食)·의복(衣服)·거실(居室)·풍토(風土)는 대개 윤이시마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1. 부인은 코를 양쪽으로 뚫어 조그마한 검은 나무를 꿰었는데, 모양이 검은 사마귀와 같았고, 정강이에는 조그마한 푸른 구슬을 둘러매었는데, 그 넓이가 수촌(數寸)쯤이었습니다. 1. 벼와 조를 쓰는데 조는 벼의 3분의 1쯤 되었습니다. 1. 수확한 나락은 가까이 있는 빈터에 쌓아 두었는데 높이가 모두 두 길쯤이었고, 같은 마을 사람은 한곳에 모여서 사는데 많은 것은 4, 50여 소(所)에 이르렀습니다. 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개를 기르는데, 소는 도살하여 이를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1. 산에는 산돼지가 있는데 섬사람이 창을 가지고 개를 끌고 가서 사냥해 잡아다가 그 털을 태우고, 베어서 삶아 먹으나, 사냥한 자만 먹고 비록 지극히 친한 자일지라도 주지 않으니, 만일 남에게 주면 잡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중략~

우리들은 무릇 5삭(朔)을 머물다가, 12월 그믐에 이르러서 남풍(南風)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과 같이 한 척의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갔더니,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포월로마이시마(捕月老麻伊是麿)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

고 넓어서 산이 없었는데 모두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었고, 둘레는 소내도(所乃島)에 비교하여 조금 작았습니다. 그 언어와 의복·거실·풍토는 대개 윤이도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논과 벼는 없어서, 소내도에서 무역(貿易)해 온다고 하였습니다. 1. 밀·보리를 심고, 가을이 되면 우분(牛糞)을 사용하되 손으로 움켜서 밭에 넣고, 삽을 사용하여 흙을 일으켜서 덮으며, 2, 3월에 바야흐로 익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밭을 일구어 심는데 아홉 종류의 곡식을 심고, 또 10월 사이에 파종(播種)하여 2, 3월에 수확해서 마치고, 다시 심어서 7, 8월에 또 수확하였습니다. 1. 날짐승으로는 비둘기·황작·갈매기가 있었습니다. 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를 잡아 먹으나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다.

~중략~

우리들은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한 척의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포라이시마(捕刺伊是鷹)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2일정이 될 만 하였습니다. 인가(人家)는 겨우 40호 남짓하고, 언어·의복·음식·거실·토풍(土風)이 대개 윤이도와 같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1. 그 풍속은 푸른 구슬로써 팔 및 정강이를 둘러감아 매었는데 남녀가 같았습니다. 1. 날짐승으로는 비둘기·황작·갈매기가 있었습니다. 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벼는 없었으며, 쌀은 소내도에서 무역해 온다고 하였습니다. 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를 잡아 먹는 데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다.

~중략~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에 올라서 하루 낮 동안을 가니, 한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섬의 이름은 홀윤시마(歙尹是鷹)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은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1일정이 될 만하였으며, 그 언어·음식·의복은 또한 윤이도와 같았습니다. 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벼는 없는데 쌀은 소내도에서 무역한다고 합니다. 1. 날짐승은 비둘기·황작·갈매기가 있었습니다. 1.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는 잡아 먹어도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다.

~중략~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를 타고 하루 낮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이라부시마(伊羅夫是鷹)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둘레는 2일정이 될 만하고, 그 언어·음식·거실·토풍은 대개 윤이도와 같았으며, 그 의복은 타라마도와 같고,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1. 부인은 수정(水精)으로 된 큰 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기장·조·밀·보리가 있고, 또한 벼도 있었는데 벼는 보리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1. 작은 산골짜기가 있어서 종려나무·팽나무·대나무가 있고, 또한 재목도 있었습니다. 1.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며, 소는 잡아 먹는데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다. 술을 빚는 데에는 쌀 누룩[米麴]을 사용하였습니다.

~중략~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작은 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타고 하루 낮을 가서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섬의 이름은 먹고시마(覓高是鷹)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고, 들레는 5, 6일 정이었으며, 그 언어·음식·거실·토포는 대개 윤이도와 같았고, 의복은 타라마도와 같았으며, 우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술을 빚는 것은 이라부도와 같았으며, 벼·기장·조·밀·보리가 있었습니다. 1. 밥을 짓는 데에는 쇠 솥[鐵鼎]을 사용하는데, 발은 없고 가마와 비슷하였으며, 이는 곧 유구국(琉球國)에서 무역한 것이었습니다. 1. 부인은 구슬을 목에 걸었는데 또한 이라부도와 같았습니다. 1. 집에는 뒷간이 있었습니다. 1. 집에는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개를 기르며, 소는 잡아 먹어도 닭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중략~

한 달을 머물다가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15명이 우리들을 데리고 같이 한 척의 배를 타고 2주야 반을 가서 유구국(琉球國)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닷물의 기세가 웅숭음치고, 파도(波濤)가 험악(險惡)하여, 섬사람도 모두 배멀미를 했습니다. 유구국(琉球國)의 국왕(國王)이 호송인을 포상(褒賞)하여 각각 청홍 면포(靑紅綿布)를 하사(下賜)하고, 술과 밥을 후하게 먹이어 종일토록 취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은 하사받은 바 면포로써 옷을 만들어 입고 한 달을 머물다가 본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 사람과 통사(通事)가 와서 우리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므로, 우리들이 대답하기를, ‘조선 사람이다.’라고 하니, 또 묻기를, ‘너희들은 고기잡이를 하다가 표류되어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하므로, 우리들은 같이 의논하여 대답하기를, ‘다 함께 조선국 해남(海南) 출신 사람인데, 진상(進上)할 쌀을 싣고 경도(京都)로 향해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통사는 우리들이 한 말을 써가지고 국왕에게 아뢰었는데, 조금 있다가 두어 관인(官人)을 보내어 와서 우리들을 맞아 한 객관(客館)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 집은 바다와의 거리는 5리(里)가 되지 못했는데, 판자로써 집을 덮었고, 문호(門戶)와 창벽(窓壁)이 있었으며, 돌 담장이 있었는데 높이가 두 길이요, 담장에 문이 있어 밤에는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또 관사(官舍)가 곁에 있었는데, 수령(守令) 두 사람과 감고(監考) 두 사람이 있었고, 따로 하나의 창고를 두어 재물(財物)·전포(錢布)·어염(魚鹽)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무릇 출납(出納)하는 데에는 수령이 이를 감독하였는데, 통사가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나라에 군읍(郡邑)의 관청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대접하는 데에는 매일 세 끼이고, 술도 있었습니다. 1. 한 집에서 5일의 양미(糧米)와 탁주(濁酒)와 생선젓을 관청에서 받아 대접하기를 마치면, 다음 집에서 또 받아서 윤차(輪次)로 대접하였습니다. 대개 5, 6일마다 수령이 한 번 우리들을 찾아와 술과 안주를 대접했고, 또 관인(館人)으로 하여금 상시(常時)로 풍후(豐厚)하게 대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마침 국왕의 어머니가 출유(出遊)하는 것을 보았는데, 칠련(漆輦)을 타고 사면(四面)에 발을 드리웠으며, 맨 자가 거의 20인으로 모두가 흰 저의(苧衣)를 입고 비단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군사는 긴 칼을 가지고 활과 화살을 찾는데, 앞뒤를 옹위(擁衛)한 자가 거의 1백여 인이었고, 쌍각(雙角)·쌍태평소(雙太平嘯)를 불었으며, 화포(火砲)를 쏘았습니다. 아름다운 부인 4, 5인이 채단(綵段) 옷을 입고, 곁에는 백저포(白苧布)의 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이 길 곁에 나가서 배알(拜謁)하니, 연을 멈추고 두 개의 납병(鐵瓶)에다 술을 담아서 검은 칠을 한 목기(木器)로써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그 맛이 우리나라의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소랑(小郎)이 조금 뒤에 따로 갔는데, 나이는 10여 세가 될 만하고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머리를 뒤로 드리우고 땅지 않았으며, 붉은 비

단옷을 입고 띠를 묶었으며, 살찐 말을 탔습니다. 말굴레를 잡은 자는 모두 다 흰옷을 입었고,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4, 5인이며, 좌우(左右)에서 부옹(扶擁)하는 자도 매우 많았습니다. 위사(衛士)로서 긴 칼을 가진 자가 20여 인이요, 일산(日傘)을 가진 자는 말을 나란히 타고 가면서 햇빛을 막았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배알하여 뵈이니 소랑이 말에서 내려 납병에다 술을 담아서 대접하는데, 마시기를 마치자 소랑은 말에 올라서 갔습니다. 국인(國人)이 이르기를, ‘국왕(國王)이 흥(薨)하고, 사군(嗣君)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모후(母后)가 임조(臨朝)하게 되었는데, 소랑이 나이가 들면 마땅히 국왕이 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1. 7월 15일에는 모든 사찰(寺刹)에서 당개(幢蓋)를 만드는데, 혹은 채단(彩段)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채증(彩纒)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인형(人形) 및 조수(鳥獸)의 형상을 만들어 왕궁(王宮)에 보냈습니다. 거민(居民)은 남자 가운데 소장(少壯)한 자를 뽑아서 혹은 황금 가면(假面)을 쓰고 피리[笛]를 불고 북을 치면서 왕궁으로 나아가는데, 피리는 우리나라의 작은 피리[管]와 같고, 북 모양도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크게 잡희(雜戲)를 벌이고 국왕이 임석하여 관람하였으므로, 남녀로 가서 보려는 자가 길을 메우고 거리에 넘쳤으며, 재물을 말에 싣고 왕궁으로 나아가는 자도 많았습니다. 1. 해안(海岸)에서 왕궁과의 거리는 10여 리였는데, 우리들이 멀리 바라보자 한 전각이 매우 높으므로 물어보았더니, 곧 국왕의 거처라고 하였으며, 인가(人家)는 간혹 개와(蓋瓦)였으나 판옥(板屋)도 매우 많았습니다. 1. 남녀가 상투를 이마의 가장자리에 틀어 올렸는데, 비단으로 싸고, 서인(庶人)은 모두 다 백저(白苧) 옷을 입었습니다. 부인은 머리 뒤에 머리카락을 쪽 지어 올렸고, 모두 다 백저포(白苧布)의 적삼과 백저포의 치마를 입었고, 혹은 백저포의 장옷을 입었으며, 그 귀한 자는 또한 채단을 입었고 유오아(襦褌兒)·유상(襦裳)도 있었습니다. 그 수령은 아롱지게 물들인 비단을 사용하여 상투를 싸고 백세저포(白細苧布)를 입었으며, 의대(衣帶)는 붉은 물을 들인 비단이고, 나갈 때에는 말을 타며 종자(從者)가 수인(數人)이었습니다. 1. 논과 밭은 서로 반반이었는데, 밭이 조금 많고 논은 겨울에 파종을 해서 5월에는 벼가 다 익어 수확을 마치며, **또 소[牛]로서 이를 밟아 다시 파종을 해서 7월에 이앙(移秧)하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또 수확을 하였습니다.** 밭은 작은 삽으로 이를 일구어서 조를 심는데, 또한 겨울에 처음으로 파종하고 5월에 수확하고, 6월에 다시 파종하면 8월에 처음으로 이삭을 드려우고 익어갑니다.

~중략~

1. 집에 쥐가 있고, 말·소·염소·고양이·돼지·개·닭·집비둘기·거위·오리를 기르며, 말과 소를 잡아 먹기도 하고 혹은 저자에 팔기도 하며, 또한 닭을 먹었습니다. 날짐승으로는 까마귀·까치·황작(黃雀)·매·제비·갈매기·바다 가마우지·올빼미가 있었습니다. 1. 과실로는 매화·복숭아·유자·청귤(靑橘)이 있었습니다. 1. 채소로는 토란·가지·참외·동과(冬瓜)·무우·파·마늘·해바라기·박·파초(芭蕉)가 있었습니다. 1. 곤충으로는 모기·파리·두꺼비·개구리·거북·뱀·달팽이·벌·나비·사마귀·잠자리·등에[蠱]·연가시새끼[蟬]·지네·거미·매미·빈대[臭蟲]·지렁이·개똥벌레가 있었고, 또한 메뚜기와 비슷하며 큰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먹었으므로 혹 저자에 팔기도 하였고, 또 박쥐가 있었습니다.

~중략~

이상 윤이도(閔伊島) 이하 여러 물산(物産)을 우리들이 본 것은 이 정도입니다.” 하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18권 11년 6월 11일 庚申

上引見金升卿、成倪，議奏請冊妃及弓角收買事，仍命召禮曹判書李承召，草奏本，承召製進。其請冊妃奏云：

朝鮮國王臣姓諱謹奏。臣竊惟成化十三年二月，欽蒙聖恩，封臣妻尹氏爲繼妃，賜誥命、冠服，臣不勝感激，庶資內助，共鎮藩城，不意尹氏性度違戾，不克欽承寵命，失德滋甚，大失臣民之望，不獲已於成化十五年月日，承臣祖母尹氏、臣母韓氏之教，廢置外第。顧惟配偶，係是本承宗祀，不可久缺，以副室尹氏爲妻，理宜陳奏，敢具由以聞。伏望聖慈，特賜誥命、冠服。不勝至望。

其請弓角收買奏云：

竊惟弓材所需水牛角，本非小邦所產，專仰上國，頃因禁約，不許收買。於成化十三年八月日，具由陳承，欽蒙聖恩，許於每年一次收買五十副，不勝感激。第念本國，三方受敵，近日又與野人構釁，邊圉若被侵擾，兵備不可疏虛。矧惟國人，不慣槍劍，專業弓矢，爲禦敵之備，只緣弓張製造雖多，堪用者尠少，兼又易致折毀，所有五十副，不裕於用，臣竊悶焉。伏望聖慈，於收買時分，特許不拘額數，以廣軍需。

임금이 김승경(金升卿)·성현(成倪)을 인견(引見)하고 왕비 책봉을 주청하는 것과 궁각(弓角)을 수매(收買)하는 것을 주청하는 일을 의논하고, 인하여 명해서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를 불러 주본(奏本)을 초안하게 하니, 이승소가 지어 올리었다. 왕비 책봉을 청하는 주본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臣) 성(姓) 휘(諱)는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성화(成化) 13년(1477) 2월에 성은(聖恩)을 흙몽(欽蒙)하여 신의 처(妻) 윤씨(尹氏)를 봉하여 계비(繼妃)를 삼고 고명(誥命)·관복(冠服)을 주시었으니, 신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거의 내조(內助)를 자퇴하여 함께 변성(藩城)을 진수(鎮守)할까 하였더니, 뜻밖에도 윤씨가 성도(性度)가 어긋나고 이그려져 총명(寵命)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고 실덕(失德)하는 것이 점점 심하여 크게 신민(臣民)의 소망을 잃으므로, 부득이하여 성화(成化) 15년(1479) 월 일에 신의 조모(祖母) 윤씨(尹氏)·신의 어머니 한씨(韓氏)의 가르침을 받아 바깥 사제(私第)에 폐치(廢置)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배우자(配偶者)는 본래 종사(宗祀)를 잇는 것이므로 오래 비워 둘 수 없어서, 부실(副室) 윤씨(尹氏)를 처로 삼았으니, 사리에 마땅히 진주(陳奏)하여야 하므로 감히 사유를 갖추어 아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자(聖慈)는 특별히 고명(誥命)과 관복을 주소서. 지극한 소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궁각(弓角)을 수매하기를 청하는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궁재(弓材)에 필요한 수우각(水牛角)은 본래 소방(小邦)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중국(中國)에 의뢰하였는데, 지난번에 금약(禁約)으로 인하여 수매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화(成化) 13년(1477) 8월일에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여 성은(聖恩)을 흙몽(欽蒙)하여 매년 한 차례 50부(副)를 수매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본국(本國)이 세 방면으로 적을 받는데다가 근일에 또 야인(野人)과 혼단(釁端)을 엮었으니, 변방이 만일 침공을 당하면 병비(兵備)를

허소(虛疎)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국 사람이 창·칼을 쓰는데, 다만 활을 만드는 것이 비록 많으나 쓸 만한 것이 적고, 또 쉽게 부러짐으로 인연하여 가지고 있는 50부가 용도에 너적지 못하니, 신이 매우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성자(聖慈)는 수매할 때에 특별히 액수(額數)에 구애하지 말도록 허락하시어 군수(軍需)를 넓혀 주소서.”하였다.

▶ 120권 11년 8월 19일 丙寅

丙寅/遣同知中樞府事韓僞, 奉表如京師, 賀聖節, 上, 率百官, 拜表如儀. 其齎去別進獻物目, 萬歲牌十座、鳳的五座、孔雀的五座、紫綿紬五十四、綠綿紬五十四、大紅絨紬三十四、黃絨紬三十四、茶褐綿紬四十五、柳青綿紬四十五、草綠絨紬三十四、水綠綿布十四、白細苧布五十四、苧絲兼織布二十四、紫綿布三十四、綠綿布三十四、大紅綿布三十四、黃絨布三十四、茶褐絨布三十四、柳青綿布三十四、草綠綿布三十四、水綠綿布十四、白苧布衫兒十一件、黑麻布衫兒十一件、白苧布裙兒十件、黑麻布裙兒二件、大紅綿紬袂帖裏二件、茶褐綿紬袂搭胡一件、草綠綿紬袂直身一件、白苧布帖裏一件、黑麻布直身一件、草綠苧布搭胡一件、大紅綿紬袂襖兒一件、茶褐綿紬袂襖兒一件、草綠綿紬袂裙兒一件、水綠綿布袂裙兒一件、髹篋三百把、貂鼠皮三百張、土豹皮七張、中樣硯石十事、匣具小樣硯石十事、匣具大樣黃毛筆三百枝、中樣黃毛筆三百五十枝、兔毫筆三百五十枝、龍香圓墨二百笏、龍香方長墨二百笏、強弓二十五張、中弓二十五張、弱弓三十張、臺古都里四十枝、豆乙彥古都里一百四十枝、小古都里一百二十枝、居里箭一百二十枝、西甫子一百二十枝、象牙雕刻龍等各樣十流、壽山等各樣十流、龍船等各樣十流、八吉祥二十流、八寶二十流、飛魚等各樣十流、草獸等各樣十流、獅子等各樣十流、鴛鴦等各樣十流、鸚鵡等各樣十流、牯瓜鴨兒等十流、葫蘆七十流、牛骨葫蘆七十流、黃楊木葫蘆一百流、眞葫蘆少的四十流、眞葫蘆瓢兒一百箇、眞葫蘆圓的五十箇、各樣虎牙兒刻龍頭一百流、獐牙兒刻龍頭一百流、山羊角刻龍頭一百流、細巧文蛤二百五十流、回蛤二百五十流、班蛤二百五十流、各樣茄袋兒四十流、各樣繡囊兒四十箇、各樣貼囊兒四十箇、葫蘆針家兒二十箇、針家兒六十箇、青瓜兒一百箇、青鳩兒三十箇、綠鴨兒三十流、菱角兒三十流、蓮花兒三十流、鼓兒三十流、上品白厚紙十卷、中品白厚紙十卷、細竹扇六百把、畫面扇一百把、圓把扇一百把、小竹扇四百把、邊花席四十張、滿花席四十張、三事刀子一百二十部、五事刀子一百二十部、大樣單刀一百三十部、少樣單刀一百三十部、大鹿脯三十束、鹿片脯四百箇、乾文魚四百尾、乾大口魚六百尾、乾全鰻魚四百束、乾烏賊魚一千六百尾、乾廣魚四百尾、乾秀魚四百尾、乾鱧魚二百尾、昆布四百斤、塔土麻四百斤、海衣二百斤、海菜耳二百斤、香蕈二百斤、石菌一百斤、紅燒酒二十瓶、白燒酒二十瓶、松子四百斤、人蔘一百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한한(韓僞)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北京)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싸가지고 가는 별진헌(別進獻)의 물목(物目)은 만세패(萬歲牌) 10좌(座), 봉적(鳳的) 5좌, 공작적(孔雀的) 5좌, 자면주(紫綿紬) 50필, 녹면주(綠綿紬) 50필, 대홍면주(大紅綿紬) 30필, 황면주(黃綿紬) 30필, 다갈면주(茶褐綿紬) 45필, 유청면주(柳靑綿紬) 45필, 초록면주(草綠綿紬) 30필, 수록면포(水綠綿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0필, 저사겸직포(苧絲兼織布) 20필, 자면포(紫綿布) 30필, 녹면포(綠綿布) 30필, 대홍면포(大紅綿布) 30필, 황면포(黃綿布) 30필, 다갈면포(茶褐綿布) 30필, 유청면포(柳靑綿布) 30필, 초록면포(草綠綿布) 30필, 수록면포(水綠綿布) 10필, 백저포 삼아(白苧布衫兒) 12건, 흑마포 삼아(黑麻布衫兒) 11건, 백저포 군아(白苧布裙兒) 10건, 흑마포 군아(黑麻布裙兒) 2건, 대홍면주 겹철릭(大紅綿紬袂帖裏) 2건, 다갈면주 겹담호(茶褐綿紬袂搭胡) 1건, 초록면주 겹직신(草綠綿紬袂直身) 1건, 백저포 철릭(白苧布帖裏) 1건, 흑마포 직신(黑麻布直身) 1건, 초록저포 탐호(草綠苧布搭胡) 1건, 대홍면주 겹오아(大紅綿紬袂襖兒) 1건, 다갈면주 겹오아(茶褐綿紬袂襖兒) 1건, 초록면주 겹군아(草綠綿紬袂裙兒) 1건, 수록면포 겹군아(水綠綿布袂裙兒) 1건, 체비(髭篋) 3백 파(把), 초서피(貂鼠皮) 3백 장(張), 토표피(土豹皮) 7장, 중앙 연석(中樣硯石) 10사, 갑구 소양 연석(匣具小樣硯石) 10사, 갑구 대양 황모필(匣具大樣黃毛筆) 3백 지(枝), 중앙 황모필(中樣黃毛筆) 3백 50지, 토호필(兔毫筆) 3백 50지, 용향 원묵(龍香圓墨) 2백 홀(笏), 용향 방장묵(龍香方長墨) 2백 홀, 강궁(強弓) 25장(張), 중궁(中宮) 25장, 양궁(弱弓) 30장, 대고도리(臺古都里) 40지, 두을언 고도리(豆乙彦古都里) 1백 40지, 소고도리(小古都里) 1백 20지, 거리전(居里箭) 1백 20지, 서보자(西甫子) 1백 20지, 상아조각룡(象牙雕刻龍) 등 각양(各樣) 10류(流), 수산(壽山) 등 각양 10류, 용선(龍船) 등 각양 10류, 팔길상(八吉祥) 20류, 팔보(八寶) 20류, 비어(飛魚) 등 각양 10류, 초수(草獸) 등 각양 10류, 사자(獅子) 등 각양 10류, 원앙(鴛鴦) 등 각양 10류, 앵무(鸚鵡) 등 각양 10류, 참외[栝瓜]·압아(鴨兒) 등 10류, 호로(葫蘆) 70류, **우골 호로(牛骨葫蘆) 70류**, 황양목 호로(黃楊木葫蘆) 1백 류, 진호로 소적(眞葫蘆小的) 40류, 진호로 표아(眞葫蘆瓢兒) 1백 개, 진호로 원적(眞葫蘆圓的) 50개, 각양 호아아 각룡두(各楊虎牙兒刻龍頭) 1백 류, 장아아 각룡두(獐牙兒刻龍頭) 1백 류, 산양각 각룡두(山羊角刻龍頭) 1백 류, 세교문합(細巧文蛤) 2백 50류, 회합(回蛤) 2백 50류, 반합(班蛤) 2백 50류, 각양 가대아(各樣茄袋兒) 40류, 각양 수랑아(各樣繡囊兒) 40개, 각양 첩랑아(各樣貼囊兒) 40개, 호로 침가아(葫蘆針家兒) 20개, 침가아(針家兒) 60개, 청과아(靑瓜兒) 1백 개, 청구아(靑鳩兒) 30개, 녹압아(綠鴨兒) 30류, 능각아(菱角兒) 30류, 연화아(蓮花兒) 30류, 고아(鼓兒) 30류, 상품 백후지(上品白厚紙) 10권(卷), 중품 백후지(中品白厚紙) 10권, 세죽선(細竹扇) 6백 파, 화면선(畫面扇) 1백 파, 원과선(圓把扇) 1백 파, 소죽선(小竹扇) 4백 파, 변화석(邊花席) 40장, 만화석(滿花席) 40장, 삼사 도자(三事刀子) 1백 20부(部), 오사 도자(五事刀子) 1백 20부, 대양 단도(大洋單刀) 1백 30부, 소양 단도(小樣單刀) 1백 30부, 대록포(大鹿脯) 30속(束), 녹편포(鹿片脯) 4백 개, 건문어(乾文魚) 4백 미(尾), 건대구어(乾大口魚) 6백 미, 건전복어(乾全腹魚) 4백 속, 건오징어[乾烏賊魚] 1천 6백 미, 건광어(乾廣魚) 4백 미, 건수어(乾秀魚) 4백 미, 건연어(乾鰱魚) 2백 근, 곤포(昆布) 4백 근, 다시마[塔土麻] 4백 근, 김[海衣] 2백 근, 미역[海菜耳] 2백 근, 향심(香蓴) 2백 근, 석균(石菌) 1백 근, 홍소주(紅燒酒) 20병, 백소주 20병, 잣[松子] 4백 근, 인삼(人蔘) 1백 근이었다.

▶ 124권 11년 12월 9일 甲寅

遣上黨府院君韓明澮、同知中樞府事李季全，齎奏本如京師。

~중략~

(其奏本) 三曰：

臣竊惟弓材所需水牛角，本非小邦所產，專仰上國。頃因禁約，不許收買，於成化十三年八月二十六日，具由陳請，欽蒙聖恩，許於每歲一次，收買弓角伍拾副，臣不勝感激。第念本國，三方受敵，近日又與野人，構釁邊圉，數被侵擾，兵備尤不可疏虞。矧惟國人，不慣槍劍，專業弓矢，以爲禦敵，只緣弓張，製造雖多，堪用者尠少。兼又易致折毀，所有伍拾副，不裕於用，臣竊悶焉。敢此籲呼，伏望聖恩，憐憫於收買時分，特許照依先年事例，不拘額數收買，以廣軍需。其進獻禮物，黃細苧布貳拾匹、白細苧布貳拾匹、黑細麻布五十四、龍文簾席四張、黃花席一拾張、滿花席一拾張、滿花方席一拾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一百斤、雜色馬二十四。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계동(李季全)을 보내어 주본(奏本)을 가지고 북경[京師]에 가게 하였는데,

~중략~

그 (주본의) 세 번째에는 이르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궁재(弓材)에 소용되는 물소 뿔[水牛角]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중국에만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약(禁約)으로 인하여 수매(收買)를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성화(成化) 13년 8월 26일에 사유를 갖추어 진청(陳請)함에 따라 공경되게 성은(聖恩)을 입어 매년 한 차례씩 궁각(弓角) 50부(副)를 수매(收買)하도록 허락하시니, 신은 감격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세 방면으로부터 적의 침입을 받는데다가 근일(近日)에는 또 야인(野人)이 변경에서 혼란(釁端)을 꾸며 여러 번 침요(侵擾)하니, 병비(兵備)가 더욱 소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라 사람들이 창검(槍劍)을 익히지 아니하고, 오직 궁시(弓矢)만을 업으로 삼아 적(敵)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활에만 의존하니, 비록 제조(製造)하는 것은 많다 하더라도 감당하여 이를 쓸 수 있는 자는 적습니다. 겹하여 또 쉽사리 부러져 훼손되니, 50부를 가지고는 소용되는 데 넉넉하지 못하여 신은 적이 민망스럽습니다. 이에 신은 감히 호소하며 삼가 성은을 바라오니, 불쌍히 여겨 수매할 때의 몫을 지난해의 사례(事例)를 조사하고, 그에 의하여 액수(額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수매하도록 허락하여 군수(軍需)를 넉넉하게 해 주소서. 진헌(進獻)하는 예물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 50필, 용문염석(龍文簾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 잡색마(雜色馬) 20필입니다.”하였다.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25권 12년 1월 11일 丙戌

禮曹據成均館牒呈啓: “《五禮儀註》, 犧形者犧尊, 象形者象尊, 山罍則尊腹, 刻畫山形, 牛鼎、羊鼎、豕鼎, 則其足形, 如牛、羊、豕之頭, 依《禮》文, 詳定圖畫. 而文廟祭用尊罍, 則其形如缸. 而其腹刻犧者爲犧尊, 刻象者爲象尊, 刻山者爲山罍, 而鼎足, 又不爲牛、羊、豕之形, 其與《禮》文體制不類. 請一如《儀註》圖象, 改鑄.” 從之.

예조(禮曹)에서 성균관(成均館)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오례의주(五禮儀註)에 소[犧]를 형상한 것은 희준(犧尊), 코끼리를 형상한 것은 상준(象尊)이며, 산뢰(山罍)는 술잔의 가장자리에다 산(山) 모양을 새기거나 그림니다. 그리고 우정(牛鼎)·양정(羊鼎)·시정(豕鼎)은 그 발 모양이 소·양·돼지의 머리 부분과 같도록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그림을 상정(詳定)하였는데, 문묘(文廟)의 제사에 사용하는 준(尊)과 뇌(罍)는 그 모양이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소를 새긴 것이 희준(犧尊), 코끼리를 새긴 것이 상준(象尊), 산을 새긴 것이 산뢰(山罍)인데, 술의 발은 소·양·돼지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예문의 체제와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한 결 같이 오례의주의 도상(圖象)과 같이 고쳐서 주조(鑄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28권 12년 4월 19일 癸亥

奏聞使書狀官權健, 進聞見事件: “一, 臣等到玉河館, 鄭同, 卽自禁內馳到, 先問殿下安否, 次問別獻之物幾何.

~중략~

同又言曰: ‘帝問弓角事, 我對曰: 「弓角, 非本國土產, 故前此不拘多少, 任其收買, 近來只許每年一次收買, 不過五十副, 不裕於用, 故今復奏請耳.」’ 一, 使於韓氏前呈書契, 其辭曰: ‘姪男議政府左議政韓明澮, 謹拜上姑孃尊前. 姪男今有所懷, 仰達左右, 伏希敷奏. 竊惟廢妃尹氏, 性度違戾, 不順于王祖母及王母, 失德滋多, 不克共承宗祀. 殿下承祖母及母之教, 告于宗廟、社稷, 廢置外第. 顧惟內助不可久缺, 以副室尹氏爲妃. 是用陳奏, 伏望具此事由, 曲達御前, 特賜誥命、冠服, 不勝至願. 且念本國三面受敵, 近日再勅本國, 夾攻野人. 因此構釁不淺, 兵備不可疎虞. 而弓材所需水牛角, 非本國所產, 專仰上國. 頃緣建議者以爲: 「本國人收買弓角, 轉賣野人」始立禁防. 我國與野人, 構釁既久, 何敢販賣弓材, 以資敵人? 我國自祖宗朝以來, 敬事朝廷, 深蒙恩眷, 累賜書籍、樂器. 且火藥, 兵家所最重, 而洪武七年間, 高皇帝賜之不疑. 欽惟我陛下臨御以來, 曲施恩寵, 凡有所奏, 必賜允許, 而獨於弓角有禁, 一國臣民咸悶焉. 於成化十三年, 具由陳請, 獲蒙聖恩, 許於每歲一次, 收買五十副, 一國臣民, 不勝感激之至. 然弓張製造雖多, 堪用者鮮少, 兼又易致折毀, 所有五十副, 不裕於用. 伏望并將此意, 曲達御前, 特

許照依先年事例，每於本國使臣之來，隨所齎價錢多少，不拘數收買，不勝至願.’

이하생략~

주문사 서장관(奏聞使書狀官) 권건(權健)이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건을 바치기를,

“1. 신 등이 옥하관(玉河館)에 이르자, 정동(鄭同)이 즉시 금내(禁內)에서부터 말을 달려 이르러 먼저 전하(殿下)의 안부를 묻고, 다음에 특별히 진헌(進獻)할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중략~

정동이 또 말하기를, ‘황제가 궁각(弓角)의 일을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궁각(弓角)은 본국(本國)의 토산(土產)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서는 숫자의 다소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그 수매(收買)를 맡겼는데, 근래에 단지 매년 한 차례 수매(收買)를 허락하여 50부(副)를 넘지 못하니, 용도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청(奏請)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사신 하나가 한씨(韓氏) 앞에 서계(書契)를 바쳤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조카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한명회(韓明澮)는 삼가 고모님 존전(尊前)에 배상(拜上)합니다. 조카는 지금 가슴에 품은 생각이 있어 좌우(左右)에 양달(仰達)하여, 엎드려 부주(敷奏)하기를 희망합니다. 그웁이 생각하건대 폐비(廢妃) 윤씨(尹氏)는 성격이 패려(悖戾)하여 왕조모(王祖母)와 왕모(王母)에게 불순(不順)하고, 덕(德)을 잃는 것이 상당히 많아 종사(宗社)를 능히 잘 받들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조모님과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 종묘(宗廟)·사직(社稷)에 고(告)하고 궁 밖의 사제(私第)에 폐(廢)하여 두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내조(內助)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으므로, 부실(副室) 윤씨(尹氏)로써 왕비(王妃)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진주(陳奏)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이러한 사유(事由)를 갖추어 어전(御前)에 곡진히 주달(奏達)하여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특별히 하사(下賜)하게 해 주소서. 지극한 소원(所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본국이 3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는데, 근일에는 두 번이나 본국(本國)에 조칙(詔勅)하여 야인(野人)들을 협공(挾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혼단(釁端)이 생긴 것이 적지 않으므로 군사 방비(防備)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활의 재료로 필요한 수우각(水牛角)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바가 아니므로 오로지 중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建議)하는 자가 「본국인(本國人)이 궁각(弓角)을 수매(收買)하여 야인(野人)들에게 전매(轉賣)한다.」 고 하였던 탓으로 인하여 비로소 금방(禁防)의 법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인(野人)들과 혼단(釁端)이 생긴 지는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감히 활의 재료를 판매하여 적인(敵人)을 돕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중국 조정을 공경하고 섬겨서 은혜를 깊이 입었고, 여러 차례 서적(書籍)·악기(樂器)를 하사하였습니다. 또 화약(火藥)은 병가(兵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인데도 홍무(洪武) 7년 동안에 고황제(高皇帝)가 이를 의심 없이 하사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폐하(陛下)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곡진히 은총을 베풀어서, 무릇 주달(奏達)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윤허(允許)를 내려 주었는데, 오로지 궁각(弓角) 문제만은 금지를 하시니, 온 나라 신민들이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성화(成化) 13년에 사유를 갖추어 진청(陳請)하여 성은(聖恩)을 받게 되어, 매년 한 차례씩 50부(副)를 수매(收買)하도록 허락하시니,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지극한 감격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궁장(弓張)의 제조를 비록 많이 하지만 용도를 감당할 재료는 아주 적으며, 겹하여 또 쉽게 꺾어지거나 훼손(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損)되는 지경에 이르니, 가지고 있는 50부(副)로서는 용도에 넉넉지 않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아울러 이 뜻을 가지고 어전(御前)에 곡진히 진달(陳達)하여 특별히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해의 사례(事例)를 참작하여 매양 본국의 사신이 올 때마다 가지고 오는 값이나 돈의 다소에 따라서 숫자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수매(收買)하게 해 주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
이하생략~

▶ 129권 12년 5월 4일 戊寅

戊寅/京畿觀察使孫舜孝來啓曰: “天使支持, 本道別貢之猪三百餘口, 大邑十五口, 小縣則七八口. 非體大肥腠者則不得納, 故一口之直, 或至二十四. 臣受任方面, 聞其弊, 不可不啓. 臣意, 謂或裁減其數, 或許納中猪. 今大牛之直, 不過十匹, 而猪則倍之. 古人, 於賓祭, 皆用牛、羊、豕. 以牛一頭, 準猪四口, 雜用之何如?” 承旨等皆笑曰: “豈可以殺牛之言啓乎?” 舜孝曰: “十人飢死, 何如一牛之死哉?”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天使]을 접대하기 위해 본도(本道)에서 별공(別貢)하는 돼지[猪]는 3백여 구(口)인데, 큰 고을에서는 15구(口)이고, 작은 현(縣)에서는 7, 8구(口)입니다. 몸체가 크고 살이 찌지 아니한 놈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값이 혹은 포목 20필(匹)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이 한 지방의 감사(監司)를 맡아서 그러한 폐단을 듣고서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써는 혹은 그 숫자를 재량하여 줄이기도 하고, 혹은 중간치 돼지를 받기를 허락하기도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큰 소의 값이 포목 10필(匹)을 넘지 않는 데, 돼지는 그 갑절이나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모두 소·양·돼지를 썼습니다. 소 한 마리를 돼지 네 마리에 준(准)하게 하고, 섞어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승지(承旨) 등이 모두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 소를 죽이자는 말을 아낄 수가 있겠는가?”하므로, 손순효가 말하기를, “열 사람이 굶어 죽는데, 소 한 마리 죽인들 어떠하겠는가?”하였다.

▶ 131권 12년 7월 13일 丙戌

內出御書小簡:

一, 名日進上晝物、別晝物及常供豆湯、駝駱, 竝全除. 一, 香醞非懿旨, 勿進. 一, 諸司供上油、芥子、醋醬、豆腐, 減半, 牛毛, 醬瓜兒, 酒房杻炬, 全除. 一, 諸道三大妃殿朔膳, 黃海道則全除, 他道則除望前後, 一度封進, 京畿則一度進生物. 一, 大殿、中宮差備人朔料米, 各減一斗. 一, 減膳間江原道外物膳, 竝勿封進.

대내(大內)에서 어서(御書)한 소간(小簡)을 내보냈는데, 그 소간에 이르기를,
“1. 명일(名日)에 진상하는 주물(晝物)·별주물(別晝物) 및 늘 공상(供上)하는 두탕(豆湯)·타락(駝駱)은 모두 전량(全量)을 제감(除減)하라.

1. 향온(香醢)은 의지(懿旨)가 아니면 바치지 말라.

1. 제사(諸司)에서 공상(供上)하는 기름·개자(芥子)·초[錯]·장(醬)·두부는 반을 줄이고, 우모[牛毛]·장과아(醬瓜兒)와 주방(酒房)의 축거(杻炬)는 전량을 제감(除減)하라.

1. 여러 도에서 세 대비전(大妃殿)에 바치는 삭선(朔膳)을 황해도는 전량을 제감하고, 다른 도는 망전(望前)·망후(望後)를 물론하고 한 번만 봉진(封進)하고, 경기는 날것을 한 번 바치라.

1. 대전·중궁의 차비인(差備人)의 삭료미(朔料米)는 각각 한 말을 줄이라.

1. 감선(減膳)하는 동안에는 강원도 이외의 물선(物膳)을 모두 봉진하지 말라.”하였다.

▶ 133권 12년 9월 17일 戊子

刑曹三覆啓: “茂長囚私奴孫夫、船軍金時守、與在逃李乙萬、殺張德龍、強奪牛馬、衣服罪、律該斬不待時、乙萬追捕斬、妻子屬所在官奴婢。”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무장(茂長)의 죄수인 사노(私奴) 손부(孫夫), 선군(船軍) 김시수(金時守)와 도망 중에 있는 이을만(李乙萬)이 장덕룡(張德龍)을 살해하고 우마(牛馬)와 의복(衣服)을 강탈(強奪)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고, 이을만은 뒤쫓아 잡아서 참(斬)하는데 해당되며, 처자(妻子)는 소재지의 관노비(官奴婢)로 예속시켜야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134권 12년 10월 22일 癸亥

刑曹三覆啓: “長興囚白丁張致雲、李牛同、飛龍寺明火強盜罪及古阜囚白丁黃守山、黃守生、金得和與在逃金莫同、刼驛吏朴貴山家、強奪牛隻罪、律該斬不待時、莫同追捕斬、妻子、依《大典》、屬所在官奴婢。”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장흥(長興) 죄수 백정(白丁) 장치운(張致雲)·이우동(李牛同)이 비룡사(飛龍寺)에 명화 강도(明火強盜)한 죄와 고부(古阜) 죄수 백정 황수산(黃守山)·황수생(黃守生)·김득화(金得和)와 도망중인 김막동(金莫同)이 역리(驛吏) 박귀산(朴貴山)의 집을 겁탈하여 소를 강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김막동은 체포하여 참(斬)하고 처자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사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정속하게 하소서.”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36권 12년 12월 22일 壬戌

壬戌/聖節使韓致亨, 奉勅來自京師. 上幸慕華館迎勅, 還駕受勅于仁政殿如儀. 其勅曰:

朕惟, 爾世守東藩, 恪守職貢, 顧忠誠之有加, 肆待遇之不替, 彼此相孚, 古今罕比. 茲後, 但值朕誕辰, 可遣韓族輪流一人, 齎方物來賀. 致亨往來勤勞, 王宜進秩以酬之, 仍錄用其家子弟之賢者一二人. 王國中所製所產器物可進御者, 著爲例, 每歲貢獻于庭用, 表王事上至意. 各樣雕刻象牙等物件, 務要加意造作, 細膩小巧如法, 毋得粗糲. 紫綿紬三十四、綠綿紬三十四、大紅綿紬二十四、黃綿紬二十四、茶褐綿紬二十五匹、柳青綿紬二十五匹、草綠綿紬二十四、水綠綿布一十四、白細苧布三十四、苧絲兼織布一十四、紫綿布二十四、綠綿布二十四、大紅綿布二十四、黃綿布二十四、茶褐綿布二十四、柳青綿布二十四、草綠綿布二十四、白苧布衫兒三十件、黑麻布衫兒五十件、上品白厚紙五件、中品白厚紙五件、中樣硯石五事匣具、小樣硯石二十事匣具、龍香圓墨一百笏、龍香長墨一百笏、強弓十五張、中弓十五張、弱弓二十張、臺古都里二十枚、豆乙彥古都里一百枚、小古都里六十枚、居里箭六十枚、西甫子六十枚、牛骨葫蘆一百流、黃楊木葫蘆一百流、眞葫蘆小的三十流、眞葫蘆瓢兒一百箇、虎牙兒刻龍頭一百流、獐牙兒刻龍頭一百流、山羊角刻龍頭一百流、各樣繡囊兒二十箇、觀音臍五百流、細巧文蛤五百流、回蛤五百流、斑蛤五百流、細巧文蛤觀音臍共一掛一百流、茄袋兒二十流、各樣鼓囊兒二十箇、各樣貼囊兒二十箇、葫蘆針家兒一十箇、針家一百箇、青瓜兒三百流、青鳩兒五十流、綠鴨兒五十流、菱角兒二十流、蓮花兒二十流、鼓兒五十流、茄兒五十流、鬚篋五百把、畫面扇三百把、圓靶各樣畫面扇一百把、三事刀五十部、五事刀五十部、大樣單刀一百把、中樣單刀二百把、貂鼠皮五百張、土豹皮三十張、象牙靶鑽花彩粧單刀三十把、內【大樣十把、中樣十把、小樣十把.】象牙彫刻彩粧獅子筆架三座、象牙彫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三座、象牙彫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春盛每樣四箇三層四季果盒兒、四層龍盒兒、海棠花盒兒、花果盒兒、七層花果翎毛春盛水草金魚銀錠盒兒、枯荷螃蟹腰子盒兒、禽鳥花果盒兒、牡丹花盒兒、花果腰子盒兒、花果翎毛盒兒、人物故事方勝盒兒、花果翎毛八角盒兒、雲龍犀牛角盒兒、花匾盒兒、草獸廂兒、花果盒兒、寶相花回文鎖口盒兒、象牙彫刻彩粧各樣玩戲兒每樣五件、睡娃娃、耍娃娃進、寶波漸回回、

이하생략~

성절사(聖節使) 한치형(韓致亨)이 칙서(勅書)를 받들고 중국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동해서 칙서를 맞고, 환가(還駕)하여 인정전(仁政殿)에서 칙서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짐(朕)은 생각하노라. 그대는 대대로 동쪽 변방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직공(職貢)을 지키

고 있으니, 돌아보건대 충성을 다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니, 피차에 서로 믿음은 고금(古今)에 드문 일이다. 지금 이후로는 짐이 탄신(誕辰)을 맞으면 한씨(韓氏)의 족인(族人)을 한 사람씩 보내어 돌려가며 방물(方物)을 가지고 와서 하례(賀禮)하게 하라. 한치형(韓致亨)은 왕래(往來)하느라 근로(勤勞)하였으니, 왕(王)은 직질(職秩)을 높여 보답하고, 이어서 그 집안의 자제(子弟) 가운데 어진 자를 한두 사람 녹용(錄用)하도록 하라.

왕의 나라에서 제조한 것과 생산되는 기물(器物)로서 진어(進御)할 만한 것은 예(例)를 만들어 해마다 중국 조정에 공헌(貢獻)하여, 왕이 중국을 섬기는 지극한 뜻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 물목(物目)은 아래와 같으니,> 각종의 조각(雕刻)한 상아(象牙) 등의 물건(物件)은 유의(留意)하여 조작(造作)하도록 힘쓸 것이며, 세밀하고 교묘히 하기를 법대로 하여 거칠어짐이 없게 하라. 자색면주(紫色綿紬) 30필, 녹색면주(綠色綿紬) 30필, 대홍색면주(大紅色綿紬) 20필, 황색면주(黃色綿紬) 20필, 다갈색면주(茶褐色綿紬) 25필, 유청색면주(柳靑色綿紬) 25필, 초록색면주(草綠色綿紬) 20필, 수록색면포(水綠色綿布) 10필, 백색세저포(白色細苧布) 30필, 저사겸직포(苧絲兼織布) 10필, 자색면포(紫色綿布) 20필, 녹색면포(綠色綿布) 20필, 대홍색면포(大紅色綿布) 20필, 황색면포(黃色綿布) 20필, 다갈색면포(茶褐色綿布) 20필, 유청색면포(柳靑色綿布) 20필, 초록색면포(草綠色綿布) 20필, 백색저포삼아(白色苧布衫兒) 30건(件), 흑색마포삼아(黑色麻布衫兒) 50건, 상품백색후지(上品白色厚紙) 5건, 중품백색후지(中品白色厚紙) 5건, 갑(匣)을 갖춘 중앙연석(中樣硯石) 5사(事)와 소양연석(小樣硯石) 20사, 용향원묵(龍香圓墨) 1백 홀(笏), 용향장묵(龍香長墨) 1백 홀(笏), 강궁(强弓) 15장(張), 중궁(中宮) 15장, 약궁(弱弓) 20장, 대고도리(臺古都里) 20매(枚), 두을언고도리(豆乙彦古都里) 1백 매, 소고도리(小古都里) 60매, 거리전(居里箭) 60매, 서보자(西甫子) 60매, **우골호로(牛骨葫蘆) 1백 류(流)**, 황양목호로(黃楊木葫蘆) 1백 류, 진호로소적(眞葫蘆小的) 30류, 진호로표아(眞葫蘆藻兒) 1백 개, 호아아각용두(虎牙兒刻龍頭) 1백 류, 장아아각용두(獐牙兒刻龍頭) 1백 류, 산양각각용두(山羊角刻龍頭) 1백 류, 각양 수량아(各樣繡囊兒) 20개, 관음제(觀音臍) 5백 류, 세교문합(細巧文蛤) 5백 류, 회합(回蛤) 5백 류, 반합(班蛤) 5백 류, 세교 문합과 관음제를 함께 걸어 놓은 것 1백 류, 가대아(茄袋兒) 20류, 각양고랑아(各樣鼓囊兒) 20개, 각양첩랑아(各樣貼囊兒) 20개, 호로침가아(葫蘆針家兒) 10개, 침가(針家) 1백개, 청과아(靑瓜兒) 3백 류, 청구아(靑鳩兒) 50류, 녹압아(綠鴨兒) 50류, 능각아(菱角兒) 20류, 연화아(蓮花兒) 20류, 고아(鼓兒) 50류, 가아(茄兒) 50류, 체비(髭篋) 5백 파(把), 화면선(畫面扇) 3백 파, 원과 각양화면선(圓靶各樣畫面扇) 1백 파, 삼사도(三事刀) 50부(部), 오사도(五事刀) 50부, 대양단도(大樣單刀) 1백 파, 중앙단도(中樣單刀) 백파, 초서피(貂鼠皮) 5백 장, 토표피(土豹皮) 30장, 상아과찬화채장단도(象牙靶鑲花彩粧單刀) 30파, 【그 가운데 대양(大樣)이 10파, 중앙(中樣)이 10파, 소양(小樣)이 10파이다.】 상아조각채장사자필가(象牙彫刻彩粧獅子筆架) 3좌(座), 상아조각채장산출수용필가(象牙彫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 3좌, 상아 조각채장각양인물조수화과합아(象牙彫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 춘성(春城) 매양(每樣) 4개(箇), 삼층사계과합아(三層四季果盒兒), 사층 용합아(四層龍盒兒), 해당화합아(海棠花盒兒), 화과 합아(花果盒兒), 칠층화과영모춘성수초금어은정합아(七層花果翎毛春盛水草金魚銀錠盒兒), 고하방해요자합아(枯荷螃蟹腰子盒兒), 금조화과합아(禽鳥花果盒兒), 모란화합아(牧丹花盒兒), 화과요자합아(花果腰子盒兒), 화과영모합아(花果翎毛盒兒), 인물고사방승합아(人物故事方勝盒兒),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화과영모팔각합아(花果翎毛八角盒兒), **운룡서우각합아(雲龍犀牛角盒兒)**, 화편합아(花匾盒兒), 초수상아(草獸廂兒), 화과합아(花果盒兒), 보상화회문쇄구합아(寶相花回文鎖口盒兒), 상아조각채장(象牙彫刻彩粧) 각양완희아(各樣玩戲兒) 매양(每樣) 5건(件), 수왜왜(睡娃娃), 요왜왜(耍娃娃), 진보파사회회(進寶波漸漸回回), …”

이하생략~

▶ 139권 13년 3월 8일 丙子

丙子/正朝使漢城府右尹李克基、副使大護軍韓忠仁來復命，仍進《清華集》、《劉向新語》、《劉向說苑》、《朱子語類》、《分類杜詩》及《羊角書板》啓曰：

~중략~

書狀官丁壽崗，上聞見事件曰：“順天府爲收買弓角事，奉工部筭付虞衡清吏司案、呈準禮部主客清吏司手本、奉府送該通政使司連狀，送據朝鮮國差來通事崔有江等狀告：**‘先年蒙聖旨，準買牛角一百箇，又於成化十七年，內蒙聖旨，準買牛角三百箇，今要收買，爲此具告等因，送司案。’**查前事，成化十三年，**欽準朝鮮國王，每歲許買弓角五十副，近奉本部送準兵部咨，該朝鮮國王奉要添買弓角，成化十七年二月二十一日，兵部左侍郎張等覆奏，次日奉聖旨，每歲再準一百五十副，欽此欽遵咨部送司備照。**今該前因除稟堂外，合用手本，前去工部該司，煩爲呈堂，(經)〔徑〕自施行，手本到司案查，先準兵部咨，該朝鮮國王奏稱：**‘牛角自來，本國不產，專仰上國。目今比例達子〔獐子〕女直〔女眞〕嚴加禁約。伏望聖慈，(持)〔特〕許收買弓角。’**本部議擬合無行，令禮、工二部，今次許國王差來陪臣人等收買弓角，一次多不過三五百副而止，禮部將人譯審明白，轉送工部，行取順天府鋪戶，審有所數，送入會同館，聽其兩平，收買不許，容令出入市肆，完日亦聽，自置木櫃，裝盛給與，伴送人員、公文令其親齎照，出邊關等因。成化十三年十一月初十日，本部官具題奉聖旨，是但外國奏乞懇心，準於每歲一次收買弓角五十副，不許過多，**欽此欽遵備咨到部。**除各年照例收買外，又於成化十六年十二月內，該朝鮮國王奏稱：**‘蒙許於每歲一次收買弓角五十副，不裕於用，要照先年事例，不拘額數收買，以廣軍器。’**等因咨行兵部議得緣，已奉有前項欽定五十副，不許過多事例，但稱本國三方受敵，野人構釁，數被侵擾，邊備不可疏虞。’情詞懇切，令每歲只許一次，照前收買，惟復俯從聽。請量增前數，本府未敢擅擬。伏乞聖明，奪定等因。’成化十七年二月二十一日，本部司，具題奉聖旨，每歲再準，買一百五十副，**欽此欽遵**，又經備行順天府，轉行各縣，督令鋪戶，送買去後，今準前因案呈，到部合就筭仰，本部轉行大興、完平二縣，着落當該官吏，即便照依兵部，節次奏奉，欽依內事理，欽遵督令該吏，帶領弓角，作急赴部，轉送收買施行，毋得遲悞。”

정조사(正朝使)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극기(李克基)와 부사(副使) 대호군(大護軍) 한충인(韓忠仁)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청화집(淸華集)》과 《유향신어(劉向新語)》

와 《유향설원(劉向說苑)》과 《주자어류(朱子語類)》와 《분류두시(分類杜詩)》와 양각 서판(羊角書板)을 진상하면서 아뢰기를,

~중략~

서장관(書狀官) 정수강(丁壽崗)이 보고 듣고 한 사건[聞見事件]을 올려 말하기를,

“순천부(順天府)에서 궁각(弓角)을 사들이는 일로 인하여, ‘공부(工部)의 우형 청리사(虞衡淸吏司)에 조회하는 공문[案]과 예부(禮部) 주객청리사(主客淸吏司)에 통보한 수본(手本)과 순천부에서 해당 통정사사(通政使司)에 보내는 연장(連狀)을 받들어 보냈는데, 조선국에서 차송(差送)되어 온 통사(通事) 최유강(崔有江) 등의 장고(狀告)에 의거하면, 「지난해에 성지(聖旨)로 우각(牛角) 1백 개를 사들이는 것을 인준받았고, 또 성화(成化) 17년에는 성지로 우각 3백 개를 사들이는 것을 인준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우각을 사기 위하여 이렇게 그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청리사에 보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상고하니, 성화 13년에는 조선 국왕에게 해마다 궁각 50부(副)를 허매(許買)하는 것을 인준받았고, 근자에는 본부(本部)에서 보낸 병부의 인준을 받은 공문을 받들었는데, 조선 국왕이 궁각을 더 사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성화 17년 2월 21일에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郎) 장등(張等)이 복주(覆奏)하여서, 다음날 성지(聖旨)로 해마다 1백 50부를 더 사도록 다시 인준받아 명을 받들어 시행하라는 본부의 자문(咨文)을 청리사에 보내어 비조(備照)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전의 사유에 대하여 품당(稟堂)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수본(手本)을 써야 하므로, 전에 공부(工部)의 해당 청리사에 보내어 정당(呈堂)을 번거롭게 하여 시행했던 수본을 해당 청리사에 가져다가 과거에 인준한 병부의 공문을 상고하니, 해건을 조선 국왕이 주청(奏請)하기를, 「우각은 본래 본국에서는 생산되지 아니하여 오로지 중국(中國)을 우러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는 달자(達子)와 여진(女眞)에 비례(比例)하여 엄하게 금약(禁約)을 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로써 궁각(弓角)을 사들이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本部)에 의의(議擬)하였으나 시행할 수가 없어, 예부와 공부로 하여금 이번에 국왕이 차견(差遣)하여 온 배신(陪臣)들이 사들이는 궁각은 한 차례에 많아도 3백 부에서 5백 부를 초과하지 않게 하는 한편, 예부(禮部)에서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분명하게 하여 공부(工部)에 전송(轉送)하고, 순천부의 포호(鋪戶)에 가서 수(數) 있는 대로 점검(點檢)한 다음 회동관(會同館)에 보내어 양편이 공평하게 들어주되, 궁각을 사들이는 것은 허용(許容)하지 않으며, 시사(市肆)에는 출입(出入)하게 하여 완납(完納)되는 날짜에 들어주고, 스스로 나무 채[木樵]를 비치하게 해서 담아 포장하게 하여, 반송(伴送)하는 인원과 공문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친히 가져가 내조하고 변관(邊關)을 나가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화 13년 11월 10일에는 본부(本府)의 관원이 사유를 갖추어 제본(題本)을 만들어 아뢰고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이는 다만 외국(外國)의 주청(奏請)이 간절함으로 인하여 해마다 한 차례 궁각(弓角) 50부를 사들이는 것을 허락하나 초과하지는 못하게 했는데, 이 흠지(欽旨)를 받들어 공문을 갖추어 해당 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例)에 따라 사들이는 것을 제한 외에 또 성화 16년 12월에 조선 국왕의 주청에는, 「해마다 한 차례 궁각 50부만 사가라는 허락을 받았으나, 이것을 가지고는 용도(用途)에 부족하니, 전해의 사례(事例)를 참고하여 액수(額數)에 구애 없이 사다가 군기(軍器)를 보광(補廣)하게 해주소서.」 하는 사유를 공문으로 병부에 보내 의논케 하였는데, 전항에 이미 50부만을 흠정(欽定)하여 지나치게 많이 사가지 말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국(本國)은 세 방면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에서 적(敵)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야인(野人)들이 분쟁을 일으켜 자주 침요(侵擾)를 받고 있으므로 변방의 경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한 사정의 말이 간절하니, 매 해에 다만 한 차례씩 전례에 따라 사가도록 허락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청허(聽許)해 주소서. 그리고 전의 수보다 더하여 달라는 데 대하여도 본부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옳드려 빌건대 성명(聖明)으로 정하여 주소서. 한 데 대해서는 성화 17년 2월 21일의 사유를 본부의 청리사에서 제본(題本)을 만들어 아뢰고 성지를 받들어 해마다 1백 50부를 사가도록 다시 인준하였으므로, 이를 받들어 시행하고, 순천부를 경유하여 각 현(縣)에 돌렸으며, 포호(鋪戶)들을 독촉하여 사서 보내게 한 뒤 이제 인준한 사유의 문서가 본부에 이르렀기에 차자를 올리는 한편, 본부에서 대흥(大興)과 완평(完平) 두 현(縣)에 통지하여 만들게 하고, 해당 관리는 곧 조회하고 병부에 의거하여 시행할 절차(節次)를 아뢰며, 문서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해당 관리를 독촉하여 궁각(弓角)을 가지고 급히 본부(本部)에 나아가 전송(轉送)해 주어서 수매(收買)를 시행하여 지연(遲延)되거나 잘못됨이 없게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하였다.

▶ 141권 13년 5월 12일 庚辰

日本國王源義政使僧榮弘、夷千島主遐叉所遣宮內卿辭。其答日本國王書曰：

我國與貴朝，世敦信睦，而滄海遼隔，久切企想。今因貴使，備諮動履佳勝，蒙厚貺，良用欣感。所示助緣及《大藏經》，就付回使，具在別幅。象牙符，本爲兩國相驗，以防奸僞耳，何必一二次第齋來，而後可信耶？來使未諳本意，欲置而去，故付使回送，照亮。胡椒劑藥所需，其種幸因來使寄與。

別幅綿紬三百匹、綿布三百匹、正布四百匹、大藏經一部、白細綿紬一十四、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一十四、人蔘一百斤、豹皮五張、虎皮五張、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一事、藍斜皮一十張、海松子五百斤、清蜜二十斗、厚紙一十卷、蠟燭一百柄、大鐃鉢一事、中鐃鉢一事、法鼓一面、鑰錚一事、中磬一事、雲板一事、犀角一隻、莞青二兩、白龍骨一斤、何首烏二斤、礪砂一十兩、雌黃一斤、朴硝一斤、陽起石三兩、蘆薈三兩、石鍾乳五兩、光明砂一十兩、自然銅一斤、蛇床子一斤、臘肭臍三部、葶藶二斤、山茨菰一斤、牛黃三部、敗龜四部、澤瀉二斤、白鮮皮二斤。其答夷千島主書曰：

今承惠書，備審示意，所獻禮物，謹啓收納。仍將土宜綿布三匹、正布四匹，就付還使。所示《大藏經》，則日本國王遣使求請，又因諸酋求去，殆盡無餘，未得從諭。且足下居夷千島及島之有無，前所未聞，而來使之言，亦且錯亂，眞與僞不無可疑。

일본(日本) 국왕(國王) 원의정(源義政)의 사승(使僧) 영홍(榮弘)과 이천도(夷千島)주(主) 하차(遐叉)가 보내 온 궁내경(宮內卿)이 하직하였다. 그 일본 국왕에게 답(答)한 글은 이러하였다.

“우리나라는 귀조(貴朝)와 더불어 대대로 신뢰와 화목을 돈독히 하였습니다만 창해(滄海)가 멀리 가로놓여 그리운 생각이 오래도록 간절하였는데, 이제 귀사(貴使)로 인(因)하여 귀체[動履]의 건강하심[佳勝]을 잘 알았으며, 후(厚)한 선물을 받아서 진실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조연(助緣)과 《대장경(大藏經)》은 별폭에 적은 대로 회사(回使)에게 부쳐 보냅니다. 상아부(象牙符)는 본래 두 나라가 서로 징협을 삼아서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한두 차례 가지고 온 뒤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사(來使)가 본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두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사신에게 부쳐서 회송(回送)하니, 조량(照亮)하십시오. 호초(胡椒)는 제약(劑藥)에 쓰이는 바인데, 그 종자를 내사를 인하여 부쳐 주셨으므로 다행하게 여깁니다.”

그 별폭(別幅)에는 면주(綿紬) 3백 필(匹), 면포(綿布) 3백 필, 정포(正布) 4백 필, 《대장경(大藏經)》 1부(部),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豹皮) 5장, 호피(虎皮) 5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표피심 호피변 녹비리 좌자(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 1사(事), 남사피(藍斜皮) 10장, 해송자(海松子) 5백 근, 청밀(淸蜜) 29두(斗), 후지(厚紙) 10권(卷), 납촉(蠟燭) 1백 자루[柄], 대요발(大撓鉢) 1사, 중요발(中撓鉢) 1사, 법고(法鼓) 1면(面), 유쟁(鑪錚) 1사, 중경(中磬) 1사, 운판(雲板) 1사, 서각(犀角) 1척(隻) 완청(莞靑) 2냥(兩), 백용골(白龍骨) 1근, 하수오(何首烏) 2근, 망사(礪砂) 10냥, 자황(雌黃) 1근, 박초(朴硝) 1근, 양기석(陽起石) 3냥, 노회(蘆薈) 3냥, 석중유(石鍾乳) 5냥, 광명사(光明砂) 10냥, 자연동(自然銅) 1근, 사상자(蛇床子) 1근, 온눌제(膸肭臍) 3부, 정력(葶藶) 2근, 산자고(山茨菰) 1근, 우황(牛黃) 3부(部), 패구(敗龜) 4부, 택사(澤瀉) 2근, 백선평(白鮮皮) 2근이었다.

이천도(夷千島)주(主)에게 답하는 글은 이러하였다.

“이제 혜서(惠書)를 받고 보이신 뜻을 잘 알았으며, 보내 준 예물(禮物)도 삼가 아뢰고 수납(收納)하였습니다. 이에 토산품으로 면포(綿布) 3필, 정포(正布) 4필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보냅니다. 말한 바 《대장경(大藏經)》은 일본(日本) 국왕(國王)이 사신을 보내서 구하여 갖고, 또 여러 추장(酋長)들이 구하여 감으로 인하여 거의 다 되고 남은 것이 없어서, 부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족하(足下)가 사는 이천도와 섬의 있고 없음을 전부터 들은 바가 없고, 내사(來使)의 말도 또한 착란(錯亂)해서 진위(眞僞)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 145권 13년 閏8월 2일 戊辰

平安道兵馬節度使李克均馳啓: “野人請朝, 且欲互市.” 命議于領敦寧以上及兵曹. 鄭昌孫、沈澹、尹士昕、尹弼商、洪應、尹壕議: “野人成群, 數到江邊, 託言謁見, 意必窺覘虛實, 令節度使整軍馬待變爲便.” 盧思愼、李克培議: “前日彼人請牛馬互市, 已議下諭禁之, 今趙丐老哈之請, 何可聽從? 若更來請, 當答云: ‘我地牛畜尠少, 民不肯賣. 大抵買賣, 從其情願, 何以強之?’ 如此答之爲便. 其來朝事, 前日李巨右等, 累次來說, 其誠、僞難知. 若達罕親到請朝, 則接待上送事, 已下諭, 今達罕之言如此, 其非誠心可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知. 然達罕以一族被殺之故, 懷嫌不已, 沈汝弄可近日亦構隙者也, 沈汝弄可、李巨右, 若更來請朝, 則接待上送, 一以開說前日入攻之意, 一以開說沈阿時哈被殺之由. 如此則達罕自有歸順來朝之理. 達罕歸順, 則邊方自此無虞. 但三下伊等, 前日殺擄我人事, 臣未之聞, 必是邊將匿不以聞, 當推鞠以啓. 以此下諭何如?” 李繼孫、辛鑄、李孟賢、柳洵議: “達罕請朝及互市等事, 前下諭書已盡之, 更無餘辭. 但近日野人, 或稱效順, 或因田獵, 邊地出入無常, 窺覘虛實, 乘間鼠竊, 亦未可料. 江邊隄備, 曲加措置何如?” 從思慎等議.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야인(野人)이 내조(來朝)하기를 청하고, 또 무역[互市]하고자 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병조(兵曹)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澹)·윤사흔(尹士昕)·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야인(野人)이 무리를 이루어 자주 강변(江邊)에 이르러서 알현(謁見)하겠다고 핑계대어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허실(虛實)을 엿보고자 함이니,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군마(軍馬)를 정제(整齊)하여 사변(事變)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慎)·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전일에 저들이 우마(牛馬)의 무역(貿易)을 청한 것을, 이미 의논하여 유서(諭書)를 내려 금(禁)하였는데, 지금 조우로합(趙巧老哈)의 청(請)을 어찌 듣는 대로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와서 청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우리 땅에는 소[牛畜]가 적어서 백성들이 팔려 들지 않는다. 대저 매매(賣買)란 것은 마음속의 원(願)하는 바에 따르는 것인데, 어찌 강제로 하겠는가?’ 하여, 이처럼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조(來朝)에 관한 일은, 전일에 이거우(李巨右) 등이 여러 차례 와서 말하였으나, 그 진위(眞僞)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달한(達罕)이 친히 와서 내조하기를 청하면 접대(接待)하여 상송(上送)할 일에 대해서 이미 유서(諭書)를 내렸는데, 지금 달한의 말이 이와 같으니, 그것이 성심(誠心)이 아닌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나 달한은 일족(一族)이 피살(被殺)된 까닭으로 인하여 혐의(嫌疑)를 품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심여롱가(沈汝弄可)도 근일에 또한 틈이 난 자이니, 심여롱가와 이거우가 만약 다시 와서 내조하기를 청하면, 〈이들을〉 접대하여 상송해서, 한편으로는 전일에 입공(入攻)한 뜻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심아시합(沈阿時哈)이 피살된 이유를 말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달한도 자연히 귀순(歸順)하여 내조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달한이 귀순하게 되면, 변방(邊方)이 이로부터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삼하이(三下伊) 등이 전일에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한 일은 신이 아직 듣지 못하였는데, 이는 필시 변장(邊將)이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추국(推鞠)하여 아뢰게 하소서. 이것으로써 하유(下諭)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계손(李繼孫)과 신주(辛鑄)·이맹현(李孟賢)·유순(柳洵)이 의논하기를,

“달한이 내조와 무역 등을 청한 일은 전에 유서(諭書)를 내려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다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근일에 야인(野人)들이 혹은 귀순(歸順)한다 청탁하고 혹은 사냥[田獵]을 이유로 하여 변지(邊地)를 출입(出入)함이 일정한 때가 없으니, 허실(虛實)을 엿보고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할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강변(江邊)의 방비(防備)를 더 곡진(曲盡)하게 조치(措置)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노사신 등의 의논에 따랐다.

▶ 145권 13년 閏8월 4일 庚午

諭平安道觀察使李崇元、節度使李克均曰：“今悉所啓，彼人等請買牛畜與來朝等因。彼若以好馬來賣，則只易以鹽醬、布物，餘皆勿許事，前已下諭，今趙丐老哈等之請，不可許也。後若更請，則當答之曰：‘大抵買賣，從兩情願，我地牛畜尠少，民不肯賣，何可強之乎？’且前日達罕，欲來歸順之語，固疑其難信，而今巨右之言如此，其非誠心可知。且達罕以一族被殺之故，懷嫌不已，汝弄可亦以阿時哈之事，含憤不少，國家前日入攻之意，與阿時哈被殺之由，不可不開說，以釋其疑也。若李巨右、汝弄可等，更來請朝，出於誠心，則宜即接待上送。且三下伊等，擄去我人等事，前此未聞。此必邊將匿不以聞，卿其推問以啓。今我與彼構釁非一，而彼人托以歸順，乍往乍來，若非欲得鹽醬等物，必是窺覷虛實。防禦諸事，益加措置，常如敵至，毋或少弛。”

평안도관찰사 이승원(李崇元)과 절도사 이극균(李克均)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아뢰 바, 저들이 소[牛畜]를 사겠다고 청(請)한 것과 내조(來朝)하겠다는 것 등을 잘 알았다. 저들이 만약 좋은 말을 가지고 와서 팔면 다만 염장(鹽醬)과 포물(布物)로써 교역(交易)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락하지 말라는 일을 전에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지금 조우로합(趙丐老哈) 등의 청(請)은 허락할 수 없다. 뒤에 만약 다시 청한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대저 매매(賣買)란 양쪽의 정원(情願)에 따르는 것인데, 우리 땅에는 소가 적어서 백성들이 팔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강제로 하겠는가?’하라. 그리고 전일에 달한(達罕)이 와서 귀순(歸順)하겠다는 말은 진실로 의심스러워 믿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거우(李巨右)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성심(誠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 달한은 일족(一族)이 피살(被殺)된 까닭으로 인하여 혐의(嫌疑)를 품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롱가(汝弄可) 역시 아시합(阿時哈)의 일로 인하여 분(憤)한 마음을 품은 것이 적지 않으니, 국가(國家)에서 전일에 입공(入攻)한 뜻과 아시합이 피살된 이유를 말해서 그 의혹(疑惑)을 풀지 않아서는 안된다. 만약에 이거우와 여롱가 등이 다시 와서 내조(來朝)하기를 청하는 것이 성심(誠心)에서 나온다면, 마땅히 즉시 접대(接待)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삼하이(三下伊)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일을, 이 앞서에는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변장(邊將)이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것이니, 경은 그것을 추문(推問)하여 아뢰어라. 지금 우리와 저들이 혼단(釁端)을 만든 것이 한 가지가 아닌데, 저들이 귀순(歸順)을 칭탁(稱託)하고 언뜻 왔다가 언뜻 가니, 만약에 염장(鹽醬) 등의 물건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것은 허실(虛實)을 엿보는 것이다. 방어(防禦)에 관한 제반(諸般) 일들을 더욱 더 조치(措置)를 가하되, 항상 적(敵)이 이른 것과 같이 하여, 조금이라도 해이(解弛)됨이 없게 하라.”하였다.

▶ 145권 13년 閏8월 12일 戊寅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戊寅/受常參，視事。同副承旨金礪石三覆啓：“典獄囚私奴仲斤殺牛，詐稱聽其主閔涵教令宰殺罪，比子孫罵祖父母、父母律，絞待時，羅州囚私奴介同，火甲士辛貴孫家罪，律該斬待時。”從之。初覆啓慶源囚私奴郭善雨偽造印信事。上曰：“其情可矜，特減死。”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여석(金礪石)이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전옥(典獄)의 죄수 사노(私奴) 중근(仲斤)이 소[牛]를 죽이고 사칭(詐稱)하기를, 그 주인(主人) 민함교(閔涵敎)의 명령을 듣고 도살(屠殺)하였다’고 한 죄는, ‘자손(子孫)이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를 욕(辱)한 율(律)’에 비의(比擬)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나주(羅州)의 죄수 사노(私奴) 개동(介同)이 갑사(甲士) 신귀손(辛貴孫)의 집에 불을 지른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르고, 경원(慶源)의 죄수 사노(私奴) 곽선우(郭善雨)가 인신(印信)을 위조(偽造)한 일을 초복(初覆)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상(情狀)이 가궁(可矜)하니 특별히 사형(死刑)을 감(減)하라.”하였다.

▶ 145권 13년 閏8월 17일 癸未

癸未/刑曹三覆啓：“慶興囚百姓金山老鄭禿同，盜殺野人丐益伐阿牛隻罪，律該斬待時。”從之。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경흥(慶興)의 죄수 백성(百姓) 김산로(金山老)와 정독동(鄭禿同)이 야인(野人) 우익벌아(丐益伐阿)의 소[牛隻]를 훔쳐 도살한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149권 13년 12월 21일 乙酉

御晝講。講訖，侍讀官李世佑啓曰：“近日宗廟膳肉，味甚惡，以犧牲不肥腠故也。國家重祭祀，而如此，甚不可。且該司收納祭牛，或以色駁牛，染黑而納之祭。執事齋戒時，醉酒爲常，因而失儀。典祀官當親受奠物，而委諸下人，因此祭物多不淨潔。此非細事。”上謂承旨曰：“此言是也。”令該曹，議啓。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근일에 종묘(宗廟)의 번육(膳肉)의 맛이 몹시 나쁜데, 그것은 희생(犧牲)이 살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제사를 중하게 여기는데,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해사(該司)에서 제사에 쓸 소를 거두어들이는 데에 간혹 얼룩빛 소를 검게 물들여서 그것을 바쳐서 제사하기도 하고, 집사(執事)가 재계할 때에 술이 취하는 것이 예사이고 인하여 거동에 실수를 하며, 전사관(典祀官)이 친히 전물(奠物)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인(下人)에게

말기므로 제물이 정결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옳다.”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156권 14년 7월 10일 庚子

庚子/副天使使頭目, 齋綵段、藥材、牛角等物來進. 命饋頭目等, 仍給人情物件.

중국 부사(副使)가 두목(頭目)을 시켜 채단(綵段)·약재(藥材)·우각(牛角) 따위의 물건을 가져와서 바치니, 명하여 두목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어서 인정 물건(人情物件)을 주게 하였다.

▶ 157권 14년 8월 18일 戊寅

遣同知中樞府事韓儼, 奉表如京師, 賀聖節, 百官拜表如儀. 別進獻物件. 紫綿紬三十匹, 綠綿紬三十四,

~중략~

牛骨葫蘆一百流, 黃楊木葫蘆一百流, 眞葫蘆小的三十流,

~중략~

雲龍犀牛角盒兒二箇, 花區盒兒二箇,

~중략~

人參五十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한찬(韓儼)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北京)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였는데, 백관들이 표문(表文)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따로 진헌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자면주(紫綿紬) 30필, 녹색면주(綠綿紬) 30필,

~중략~

우골호로(牛骨葫蘆) 1백 류(流), 황양목호로(黃楊木葫蘆) 1백류, 진호로소적(眞葫蘆小的) 30류,

~중략~

운룡서우각합아(雲龍犀牛角盒兒) 2개, 화구합아(花區盒兒) 2개,

~중략~

인삼(人蔘) 50근이었다.

▶ 158권 14년 9월 16일 丙午

命都承旨李世佐, 齋進獻雜物, 詣太平館, 上使以病不出, 副使與世佐及館伴盧思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許琮共坐封褰. 紫綿紬三十四, ~중략~ 西甫子六十枝, 牛骨葫蘆一百流, 黃楊木葫蘆一百流,

~중략~

花果翎毛八角盒兒、雲龍犀牛角盒兒、花匾盒兒、

~중략~

私人情, 中樣三事刀子二十部,

~중략~

黃楊木葫蘆四十流, 牛骨葫蘆四十流, 眞葫蘆十流,

~중략~

副使處私人情, 中樣三事刀子二十部,

~중략~

黃楊木葫蘆十五流, 牛骨葫蘆十流, 眞葫蘆五流,

이하생략~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진헌(進獻)할 여러 가지 물건을 싸 가지고 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상사(上使)는 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고, 부사(副使)가 이세좌와 관반(館伴) 노사신(盧思愼)·허종(許琮)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봉(封)을 썼다.

그 품목은 자면주(紫綿紬) 30필,

~중략~

서포자(西甫子) 60기(枝), 우골호로(牛骨葫蘆) 1백(流), 황석목호로(黃楊木葫蘆) 1백 류(流),

~중략~

화과령모팔각합아(花果翎毛八角盒兒)、운룡서우각합아(雲龍犀牛角盒兒)、화변합아(花匾盒兒)、

~중략~

사사로이 주는 인정물[私人情物]은, 중앙삼사도자(中樣三事刀子) 20부,

~중략~

황석양목호로(黃楊木葫蘆) 40류(流), 우골호로(牛骨葫蘆) 40류(流), 진호로(眞葫蘆) 10류(流),

~중략~

부사(副使)에게 사사로이 주는 인정물은 중앙 삼사 도자(中樣三事刀子) 20부(部), 황석목호로(黃楊木葫蘆) 15류(流), 우골호로(牛骨葫蘆) 10류(流), 진호로(眞葫蘆) 5류(流),

이하생략~

▶ 159권 14년 10월 19일 戊寅

戊寅/野人趙伊時哈等八人辭. 命都承旨李世佐賜酒, 仍問曰: “汝衛男婚女嫁, 何以爲禮?” 答曰: “男往女家.” 又問: “有納采、納幣之禮乎?” 答曰: “婿家, 先以甲冑、弓矢

爲幣，而送于女家，次以金盃，次以牛二頭、馬二匹，次以衣服、奴婢。各因其家之貧富，而遺之，富者三四年，而成禮，貧者雖至十年之久，而猶未得成禮。”又問：“婚娶之日，有宴飲之禮乎？”答曰：“壻往之夕，女家宰牛宴飲，翌日邀壻之親戚，而慰之。”又問：“同生兄弟，若有先死者，娶其妻，然乎？”李木長哈曰：“兄妻若貌美，而多財者，則娶之。”童巨右同遽止之曰：“汝何發此言？貴族，則安有此風乎？此特奴輩之事耳。”又問：“我殿下欲使人于汝衛，汝等何以接待？”答曰：“三衛各出兵馬一百以迎之。”又問：“我殿下，今送諭書于汝衛，有識字者乎？”答曰：“朝鮮文字雖或不知，蒙古書，則多有知之者。”又問：“有祭祀之禮乎？”答曰：“祭天，則前後齋戒，殺牛以祭，又於月望，祭七星。然此非常行之事，若有疾病祈禱，則有之耳。親死，則殯於家，亦殺牛以祭，三日後，擇向陽處葬之，其葬之日，常時所服之物，并葬之。且殺其所乘之馬，去其肉，而葬其皮。”

이하생략~

야인(野人) 조이시합(趙伊時哈) 등 여덟 사람이 사조(辭朝)하니,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술을 내려 주게 하고, 인하여 묻기를, “너희 위(衛)에서는 남녀의 혼인을 어떤 예식으로 하느냐?”하니, 대답하기를,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갑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납채(納采)와 납폐(納幣)의 예식이 있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사위 집에서 먼저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폐물(幣物)로 삼아서 여자 집에 보내고, 다음은 금배(金杯), 다음은 소 두 마리와 말 두 필, 다음은 의복과 노비(奴婢)를 보내는데, 각각 그 집의 빈부(貧富)에 인하여 주며, 부자는 3, 4년 만에 예식을 이루고 가난한 자는 비록 10년의 오랜 세월에도 이르러서도 예를 이루지 못합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혼인하는 날에 잔치하여 술을 마시는 예식이 있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사위가 가는 날 저녁에 여자 집에서 소를 잡아 잔치하여 술을 마시고 이튿날 사위의 친척을 맞이하여 위로합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같은 형제가 만약 먼저 죽는 이가 있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간다고 하는데, 그러한가?”하니, 이목장합(李木長哈)이 말하기를, “형의 아내가 만약 얼굴이 아름답고 재물이 많으면 장가갑니다.”

하자, 동거우동(童巨右同)이 급히 중지시키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귀족(貴族)에게 어찌 이런 풍습이 있겠습니까? 이는 다만 종의 무리들의 일일 뿐입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전하께서 너희 위(衛)에 사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접대하겠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세 위에서 각각 병마(兵馬) 1백을 내어서 맞이하겠습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전하께서 이제 유서(諭書)를 너희 위(衛)에 보내려고 하는데, 글을 아는 자가 있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조선 글자는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몽고 글은 아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하였다. 또 묻기를, “제사지내는 예가 있느냐?”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에 제사하면 전후에 재계(齋戒)하고 소를 잡아 제사하며, 또 보름에 칠성(七星)에 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행하는 일이 아니고, 만약 병이 있어 기도하게 되면 행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집에 빈(殯)하고, 또한 소를 잡아서 제사하며, 3일 후에 양지바른 곳에 골라서 장사하되, 장사하는 날에 평상시에 입던 옷가지를 아울러 매장합니다. 또 그 타던 말을 죽여서 그 고기는 버리고 그 가죽을 장사합니다.”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62권 15년 1월 7일 乙未

兵曹啓平安、黃海道徙民安接事目. 一, 諸邑閒曠可居之地, 令所在守令, 預先審定, 計徙民丁數, 酌量折給, 使之完聚成村而居.

~중략~

一, 無農牛者, 令所在守令, 以元居人農牛給耕.

이하생략~

병조(兵曹)에서 평안도·황해도의 사민 안접 사목(徙民安接事目)을 아뢰었는데, 이러하였다.

“1. 여러 고을 빈 곳에 살 만한 땅을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미리 먼저 살펴 정하게 하고, 옮긴 백성의 장정 수(數)를 계산하여 참작해 헤아려 절급(折給)해서 성(城)을 만들어 백성을 모아 마을을 이루어 살도록 한다.

~중략~

1. 농우(農牛)가 없는 자는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본래 사는 사람의 농우를 주어서 갈게 한다. ...”

이하생략~

▶ 162권 15년 1월 7일 乙未

兵曹啓: 忠淸、全羅、慶尙道徙民抄定事目. 一, 徙邊人, 同居子、孫、女、壻、同生兄弟并計, 三丁以上有財産者, 抄定. 其子、孫、女、壻, 勿論同、異居, 準丁抄定. 若不準丁, 則奴婢、雇工并計抄定.

~중략~

一, 徙邊人等, 路次供給, 以諸邑官倉米穀支用. 其牛馬草料及柴炭, 令所到諸邑預備.

이하생략~

병조(兵曹)에서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사민 초정사목(徙民抄定事目)을 아뢰었는데, 이러하였다.

“1. 변경에 옮기는 사람은 동거(同居)하는 아들·손자·사위와 동복 형제를 모두 계산하여 장정이 세 사람 이상으로 재산이 있는 자를 뽑아 정한다. 그 아들·손자·사위는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것을 물론하고 장정(壯丁)을 기준하여 뽑아 정한다. 만약 장정에 미달되었으면 노비(奴婢)·고공(雇工)을 아울러 계산하여 뽑아 정한다.

~중략~

1. 변경에 옮기는 사람들을 길에서 공급함은 여러 고을 관창(官倉)의 미곡으로 쓴다. 그 마소를 먹이는 풀과 땔나무를 이르는 곳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한다. ...”

이하생략~

▶ 169권 15년 8월 24일 戊寅

聖節使齋去別獻物目：紫紬十四，綠紬十四，大紅紬十四，黃紬十四，茶褐紬十四，柳青紬十四，草綠紬十四，水綠緜布十四，紫緜布十四，綠綿布二十四，大紅綿布十四，黃綿布三十四，茶褐綿布三十四，柳青綿布二十四，草綠綿布二十四，白細苧布四十四，苧絲兼織布十四，白苧布衫兒四十件，(墨)〔黑〕麻布衫兒六十件，中樣硯石五事，匣具小樣硯石二十事，匣具龍香圓墨一百笏，龍香長墨一百笏，三事刀子二十部，五事刀子二十部，大樣單刀五十把，中樣單刀一百把，象牙靶鑽花彩粧單刀十五把內大樣五把、中樣五把、小樣五把，強弓十五張，中弓十五張，弱弓二十張，臺古都里四十枝，豆乙彦古都里一百五十枝，小古都里一百枝，巨里箭一百枝，西甫子一百枝，上品白厚紙七卷，中品白厚紙七卷，牛骨葫蘆五十流，黃楊木葫蘆一百五十流，眞葫蘆小的三十流，眞葫蘆瓢兒一百箇，虎牙兒刻龍頭二十流，獐牙兒刻龍頭一百流，山羊角刻龍頭一百流，各樣繡囊兒十箇，各樣扣囊兒十箇，各樣貼囊兒十箇，葫蘆針家兒十箇，針家兒五十箇，茄袋兒十流，青瓜兒二百流，鼓兒三十流，蓮花兒二十流，菱角兒二十流，青鳩兒三十流，綠鴨兒三十流，觀音臍五百流，細巧文蛤五百流，回蛤五百流，斑蛤五百流，髭篋三百把，畫面扇三百把，圓靶各樣畫面扇一百把，貂鼠皮一百張，土豹皮五張，象牙彫刻彩粧獅子筆架一座，象牙彫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一座，象牙彫刻彩粧各樣人物、鳥獸、花果盒兒、春盛每樣一箇，三層肆季果盒兒，肆層龍盒兒、海棠花盒兒、花果盒兒、七層花果翎毛春盛、水草金魚銀錠盒兒、枯荷螃蟹腰子(盆)〔盒〕兒、禽鳥花果盒兒、牧丹花盒兒、花果腰子盒兒、花果翎毛盒兒、人物故事方勝盒兒、花果翎毛捌角盒兒、雲龍犀牛角螃兒花果盒兒、草獸廂兒花果盒兒，寶相花回紋鎖口盒兒、象牙彫刻彩粧各樣玩獻兒每樣一件，

이하생략~

성절사(聖節使)가 가져가는 별헌(別獻)의 물목(物目)은, 자주(紫紬) 10필(匹), 녹주(綠紬) 10필, 대홍주(大紅紬) 10필, 황주(黃紬) 10필, 다갈주(茶褐紬) 10필, 유청주(柳靑紬) 10필, 초록주(草綠紬) 10필, 수록면포(水綠綿布) 10필, 자면포(紫綿布) 10필, 녹면포(綠綿布) 20필, 대홍면포(大紅綿布) 10필, 황면포(黃綿布) 30필, 다갈면포(茶褐綿布) 30필, 유청면포(柳靑綿布) 20필, 초록면포(草綠綿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40필, 저사겸직포(苧絲兼織布) 10필, 백저포삼아(白苧布衫兒) 40건(件), 흑마포삼아(黑麻布衫兒) 60건, 갑(匣)을 갖춘 중앙연석(中樣硯石) 5사(事), 갑을 갖춘 소양연석(小樣硯石) 20사, 용향원묵(龍香圓墨) 1백 홀(笏), 용향장묵(龍香長墨) 1백 홀, 삼사도자(三事刀子) 20부(部), 오사도자(五事刀子) 20부, 대양단도(大樣單刀) 50과(把), 중앙단도(中樣單刀) 1백과, 상아과찬화채장단도(象牙靶鑽花彩粧單刀) 15과 안에서 대양(大樣) 5과, 중앙(中樣) 5과, 소양(小樣) 5과, 강궁(強弓) 15장(張), 중궁(中弓) 15장, 약궁(弱弓) 20장, 대고도리(臺古都里) 40지(枝), 두을언고도리(豆乙彦古都里) 1백 50지, 소고도리(小古都里) 1백지, 거리전(巨里箭) 1백지, 서보자(西甫子) 1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백 지, 상품 백후지(上品白厚紙) 7권(卷), 중품 백후지(中品白厚紙) 7권, **우골호로(牛骨葫蘆) 50유(流)**, 황양목호로(黃楊木葫蘆) 1백 50유, 진호로(眞葫蘆) 작은 것 30유, 진호로 표아(眞葫蘆瓢兒) 1백 개(箇), 호아아각 용두(虎牙兒刻龍頭) 20유, 장아아각용두(獐牙兒刻龍頭) 1백 유, 산양각각용두(山羊角刻龍頭) 1백 유, 각양수낭아(各樣繡囊兒) 10개, 각양구낭아(各樣扣囊兒) 10개, 각양 첩낭아(各樣貼囊兒) 10개, 호로 침가아(葫蘆針家兒) 10개, 침가아(針家兒) 50개, 가대아(茄袋兒) 10유, 청과아(靑瓜兒) 2백 유, 고아(鼓兒) 30유, 연화아(蓮花兒) 20유, 능각아(菱角兒) 20유, 청구아(靑鳩兒) 30유, 녹압아(綠鴨兒) 30유, 관음제(觀音臍) 5백 유, 세교 문합(細巧文蛤) 5백 유, 회합(回蛤) 5백 유, 반합(斑蛤) 5백 유, 체비(髭篋) 3백 파(把), 화면선(畫面扇) 3백 파, 원과각양화면선(圓靶各樣畫面扇) 1백 파, 초서피(貂鼠皮) 1백 장(張), 토표피(土豹皮) 5장, 상아조각채장사자필가(象牙彫刻彩粧獅子筆架) 1좌(座), 상아조각채장파산출수룡필가(象牙彫刻彩粧巴山出水龍筆架) 1좌, 상아조각채장의 각양 인물(人物)·조수(鳥獸)·화과(花果)의 합아(盒兒)·춘성(春盛) 매양(每樣) 1개, 삼층사계과합아(三層肆季果盒兒)·사층 용합아(肆層龍盒兒)·해당화합아(海棠花盒兒)·화과합아(花果盒兒)·칠층화과 영모 춘성(七層花果翎毛春盛)·수초금어은정합아(水草金魚銀錠盒兒)·고하방해요자합아(枯荷螃蟹腰子盒兒)·금초화과합아(禽鳥花果盒兒)·모란화합아(牧丹花盒兒)·화과요자합아(花果腰子盒兒)·화과 영모합아(花果翎毛盒兒)·인물고사방승합아(人物故事方勝盒兒)·화과영모팔각합아(花果翎毛捌角盒兒)·**운룡서우각방아화과합아(雲龍犀牛角螃兒花果盒兒)**·초수상아화과합아(草獸廂兒花果盒兒)·보상화회문쇄구합아(寶相花回紋鎖口盒兒)·상아조각채장의 각양 완희아(玩戲兒) 매양 1건, 이하생략~

▶ 172권 15년 11월 20일 癸卯

癸卯/刑曹判書魚世謙等來啓曰：“曩者內擿奸時犯禁者多，實由臣等不能檢察也。然近日捕得宰殺牛隻者，多出於士大夫家行廊。士大夫家，若非內使，則搜得甚難。請自今，雖士大夫家，有疑處，則搜之。”傳曰：“行廊奴僕所居，其所爲，主必不知。以奴之犯，不可竝罪其主，士大夫家，搜索似難。卿等其議以啓。”世謙等啓曰：“如有可疑處，啓達後搜索，則事皆漏洩，擿發爲難。凡士大夫家行廊，與內室阻隔，搜索何妨？”傳曰：“以此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判書。”鄭昌孫議：“若有見跡，雖朝士、宰相家行廊，搜之可矣。不然，恐傷大體。”韓明澮議：“〔才〕〔本〕白丁，以宰殺爲業，京中來接者多，朝士若許接，恣其所爲，固宜重論。婦女接處外，搜探何如？”沈澮議：“大抵家舍搜探，當大事，不得已爲之。無顯跡，而許令搜探，則恐致紛擾。必待有顯跡，搜探何如？”尹弼商議：“宗宰及朝士之家，一切搜探，似妨大體。然犯法之家，時或有之，欲救此弊，不可不如是也。”洪應議：“搜探士大夫家，臣意以謂：‘後將有弊。’有恨者曰：‘某家有賊賊，’紛紛來告，該司不論尊卑，闖入搜探，上下遑遑，頗失財物，不可搜探。”盧思愼、尹壕議：“依刑曹所啓，施行何如？”李克培議：“但當推刷宰殺者，區處而已，宰相、朝士之家，豈可使之搜探？若有可疑處，則依前例，啓達搜捕，何如？刑曹所啓，雖快於一時，恐傷事體。”徐居正議：“今朝士之不謹行者、衣冠子弟之無賴者、寡婦之無幹家者，與屠牛人，

相爲表裏，犯法者，比比有之，是宜大懲。然今搜探，只稱兩班，不細分節目，臣竊疑之。臣意以爲，小小秩卑朝士、有蔭子弟、軍士、寡婦之家，雖名兩班，非國家尊敬者，則刑曹以所聞搜捕，似亦無害。若宗宰、大夫之家，不可遽索，但犯之，則嚴加痛懲，何如？”許琮議：“雖兩班家，不可謂：‘無犯禁之人。’然無跡，而遽令搜之，則非國家待士人之體。若有辭連者，則依刑曹所啓，施行何如？”魚世恭議：“兩班之家，皆是士族，雖曰行廊，亦是一家之內。若官差無緣突入搜探，有違待士族之體。況無實而見搜，則有愧瞻視，似乎不可。若現有可疑之因，又因人指告，則不可不搜。”孫舜孝議：“今宰牛爲業者，不得接跡於外，皆入都城之內，寄不義之家，或接空家，恣行無忌。請益嚴捕盜之令，又使捕盜將，率軍捕捉，則庶幾可弭矣。”權攢議：“宰殺牛、馬之禁，立法嚴矣，宰殺豈識理兩班所爲哉？若有兩班家，知情犯禁，則以四犯宰殺之法，論斷何如？識理朝士，斷不爲如此事，雖行廊之內，不宜搜捕。”李崇元議：“士大夫之家，孰有宰殺者？若搜士大夫之家，恐傷大體。但盜賊及宰殺爲業者，或投接空家，宜竝搜索。”御書曰：

人君之待士大夫，不可不重，予雖昏闇，豈有重牛，而輕士大夫之心哉？但以該曹所稟，博採群言耳。果若群言，寧失萬牛，不可失待士夫之禮，搜捕之事，斷不可施行。

仍傳旨刑曹曰：“止奸莫如嚴令，待士當以隆禮。今屠殺牛、馬者，不畏刑法，惟利是求，如此之民，不可易種。依前受教，隨所聞捕捉，輒卽論斷，放之遠裔。搜索時，竝搜士大夫之家，則殊無待士之體，其勿竝搜。如有所聞的實，唯當不避權勢，啓聞推考，以副予弭盜賊，禮臣下之意。”

형조판서(刑曹判書) 어세겸(魚世謙)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간악(奸惡)한 자를 적발하여 들일 때에 범금자(犯禁者)가 많았던 것은 진실로 신 등이 검찰(檢察)하지 못한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소를 잡은 자를 체포하였는데,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행랑(行廊)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대부 집은 내사(內使)가 아니면 수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비록 사대부의 집안일지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수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행랑은 종이 거처하는 곳이므로 그들의 하는 바를 주인이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며, 종이 범한 것으로 그 주인을 아울러 처벌할 수 없으니, 사대부 집안을 수색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경(卿) 등은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어세겸 등이 아뢰기를,

“만일 의심스러운 곳이 있을 때 아뢰 뒤엔 수색하면 일이 모두 누설되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사대부 집 행랑은 내실(內室)과 막혔으니, 수색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판서(六曹判書)에게 의논하라.”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만약 드러난 자취가 있으면 비록 조사(朝士)나 재상(宰相)의 집 행랑이라 하더라도 수색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마도 대체(大體)에 손상될 듯합니다.”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은 소를 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 서울 안에 와서 있는 자가 많은데, 조사(朝士)가 만약 허접(許接)하여 그 하는 바를 함부로 하게 하면 진실로 중하게 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부녀(婦女)가 있는 곳 외엔 수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대저 집을 수색하는 것은 큰일을 당하여 부득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자취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없는데 수색하기를 허락하면 아마도 분요(紛擾)를 일으킬 것이니, 반드시 드러난 자취가 있기를 기다려서 수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종재(宗宰)와 조사(朝士)의 집을 일체 수색하면 대체에 방해가 될 듯하나 법을 범하는 집이 때로는 더러 있으니, 이 폐단을 구제(救濟)하려고 하면 이처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사대부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뒤에 장차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원한을 가진 자가 말하기를, ‘아무개의 집에 도둑의 장물(贓物)이 있다.’고 하여 어지럽게 와서 고하면 해당 관사(官司)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수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하가 허둥지둥하여 자못 재물을 잃을 것이니, 수색할 수 없습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형조(刑曹)에서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다만 마땅히 소를 잡은 자를 추쇄(推刷)하여 조치할 뿐인데 재상과 조사(朝士)의 집을 어찌 수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전례(前例)에 의해서 계달하고 수색하여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조에서 아뢰는 것은 비록 한때 개운하겠으나 아마도 사체(事體)에 손상될 듯합니다.”하고, 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지금 조사(朝士)로서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와 외관 자제(衣冠子弟)의 무뢰자(無賴者)가 과부로 집을 주관하는 이가 없는 자와 소를 잡는 사람과 서로 안팎이 되어 법을 범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이는 마땅히 크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색하는 데 있어서 다만 양반이라고만 일컫고 절목(節目)을 세분(細分)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그욕이 의심스럽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소소하고 계급이 낮은 조사(朝士)·유음 자제(有蔭子弟)·군사(軍士)·과부(寡婦)의 집은 비록 양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존경하는 자가 아니니, 형조에서 아뢰는 바대로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도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종재(宗宰)나 대부(大夫)의 집은 갑자기 수색할 수는 없지만, 범한 것이 있으면 엄하게 징계를 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비록 양반의 집이라 하더라도 범금(犯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형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색하게 하면 국가에서 사인(士人)을 대우하는 체면이 아닙니다. 만약 사련자(辭連者)가 있으면 형조(刑曹)에서 아뢰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어세공(魚世恭)은 의논하기를, “양반의 집은 모두 사족(士族)이므로 비록 행랑(行廊)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한 집안의 안인데, 만약 관차(官差)가 사연이 없이 뛰어들어와서 수색하면 사족(士族)을 대우하는 체통에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실이 없는데도 수색을 당하면 남이 보고 듣는 데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니, 옳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드러나게 의심스러운 만한 원인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여 고한 것이라면 수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이제 소를 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가 외방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여 모두 도성(都城) 안에 들어와서 불의(不義)한 집에 기탁하고 있거나, 혹은 빈집에 머물면서 방자하게 행하고 꺼림이 없으니, 청컨대 도둑을 잡는 영(令)을 더욱 엄하게 하고, 또 포도장(捕盜將)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잡게 하면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하고, 권찬(權攢)은 의논하기를, “소와 말을 잡는 것을 금하는 것은 법을 세운 것이 엄한데, 도살[宰殺]하는 것이 어찌 도리를 아는 양반의 소위(所爲)이겠습니까? 만약 양반의 집에서 사실을 알고 금하는 법을 범하였으면 ‘사범채살법(四犯宰殺法)’으로 논단(論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리를 아는 조사(朝士)는 결단코 이같은 일은 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비록 행랑 안이라 하더라도 수색해서 체포하게

할 수 없습니다.”하며,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누가 도살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대부의 집을 수색한다면 대체(大體)에 손상될 듯합니다. 다만 도둑이나 도살로 직업을 삼는 자가 혹시 빈집에 와서 살고 있으면 아울러 수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 “임금이 사대부를 대우하기를 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비록 〈사리에〉 어두우나 어찌 소를 중히 여기고 사대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는가? 다만 해조(該曹)의 품(稟)한 바를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하려는 것일 뿐이다. 과연 여러 사람의 말과 같이, 차라리 많은 소를 잃을지언정 사대부를 대우하는 예(禮)는 잃을 수 없으니, 수색해 잡는 일은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

하고, 인하여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간사함을 막는 데에는 엄격한 법령만한 것이 없고 사대부를 대우하는 데에는 융성한 예(禮)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소와 말을 도살하는 자가 형법(刑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利)만 추구하니, 이같은 백성은 종자(種子)를 바꿀 수 없으므로 앞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듣는 대로 잡아서 즉시 논단(論斷)하여 먼 지방으로 내칠 것이다. 수색할 때에 사대부의 집을 아울러 수색하면 자못 사대부를 대우하는 체면이 없으니, 아울러서 수색하지 말라. 만일 소문이 확실함이 있으면 마땅히 권세를 피하지 말고 계문(啓聞)하여 추고(推考)하여서, 내가 도둑을 없애고 신하를 대우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하였다.

▶ 173권 15년 12월 17일 庚午

漢城府禁亂書吏、皂隸，於宗廟署奴其叱同家，搜得牛皮二張，并拿其叱同而去。豐山君沈膺要於路，奪牛皮與奴，匿于其家。事聞，命義禁府鞠之。

【史臣曰：“膺，武士也，田舍在金浦，膺多奪占民田。父子爲本縣京在所官，侵虐鄉吏，徵贖入己，或有求於縣，未滿其慾，則輒詈主守，其貪惡類此。”】

한성부(漢城府)의 금란 서리(禁亂書吏)와 조례(皂隸)가 종묘서(宗廟署)의 종인 기질동(其叱同)의 집에서 쇠가죽 두 장을 수색하여 찾아내고 기질동도 아울러 체포해 가는데, 풍산군(豐山君) 심응(沈應)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쇠가죽과 종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숨겨 두었다. 일이 알려지자 의금부에 명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심응은 무사(武士)로서 김포(金浦)에 전사(田舍)가 있었는데, 심응이 백성의 전지(田地)를 빼앗아 점유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부자(父子)가 본현(本縣)의 경제소(京在所)의 관원으로서 향리(鄉吏)를 학대하였으며, 속전(贖錢)을 징수한 것은 자기가 차지하였고, 혹 고을에 요구하였다가 그 욕심에 차지 아니하면 바로 수령을 꾸짖었는데, 그 탐약(貪惡)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 176권 16년 3월 17일 戊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戊戌/四道巡察使洪應來復命，上引見，謂曰：“今設堡之地，皆要害乎？”

~중략~

應又啓曰：“牧場多，而水、草不敷，不合牧馬處，多。臣所經如九千場、永登場，馬多蕃息，牛場牧養之牛，有同野獸，不可耕田，亦不可用於犧牲，固無用之物。臣以爲‘牛場內水，草周足處，則放馬；不然，則廢其場，而牧子軍定於他役，則於國家，不爲無益。’”

上曰：“召司僕提調，議之。”

이하생략~

사도순찰사(四道巡察使) 홍응(洪應)이 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지금 보(堡)를 설치하는 곳은 다 요해지(要害地)인가?” 하니,

~중략~

洪應이 또 아뢰기를, “목장(牧場)은 많으나, 물과 풀이 모자라서 말을 기르기에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신이 지나온 구천장(九千場)·영등장(永登場)으로 말하면 말은 많이 번식하였으나, 우장(牛場)에서 기르는 소는 들짐승과 같아서 말을 갈 수 없고 희생(犧牲)에도 쓸 수 없으므로, 실로 쓸데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장 중에서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은 말을 놓아기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목장을 폐지하여 목자군(牧子軍)을 다른 역(役)에 차정하면, 국가에 무익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를 불러서 의논하라.” 하였다.

이하생략~

▶ 176권 16년 3월 17일 戊戌

司僕寺提調尹壕、李鐵堅來啓曰：“牛隻，則國用不繁，牛場可革也。待秋，遣暗練朝士，點視施行，何如？但馬政，國之大事，牧場比古減少，且其水、草未敷處，則點馬逐年往審，推移放牧，固不可廢也。居民利於耕墾，如堤堰、牧場，皆欲廢之，不可開端也。” 傳曰：“牛場，其依所啓，施行。”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 윤호(尹壕)·이철건(李鐵堅)이 와서 아뢰기를,

“소[牛]는 국가의 용도에 긴요하지 않으니, 우장(牛場)은 폐지할 만합니다. 가을이 되거든 일에 익숙한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점검하여 보고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만 마정(馬政)은 나라의 큰 일인데 목장이 예전보다 줄었고, 또 물과 풀이 넉넉하지 못한 곳은 점마(點馬)가 해마다 가서 살펴보고 옮겨서 기르니, 진실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은 경작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제언(堤堰)·목장 같은 것을 다 폐지하기를 바라나 단서를 열 수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우장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177권 16년 4월 7일 戊午

義禁府啓: “多大浦萬戶曹叔淵擅放軍人五名, 收正布二十二匹、綿布二十一匹; 又役軍人, 捕取魚皮五張、猪皮一張; 用銃筒造餘鐵, 造鎌五十五; 又用官鹽, 買牛馬皮各一張私用罪, 決杖一百、刺字、奪告身、錄案.” 命除刺.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다대포만호(多大浦萬戶) 조숙연(曹叔淵)이 군인(軍人) 5명을 함부로 놓아주고 정포(正布) 22필과 면포(綿布) 21필을 거두고, 또 군인을 부려 어피(魚皮) 5장과 저피(猪皮) 1장을 잡아 가지며, 총통(銃筒)을 만들고 남은 철(鐵)을 사용하여 낫[鎌] 55개를 만들고, 또 관염(官鹽)을 사용하여 우피(牛皮)·마피(馬皮) 1장씩을 사서 사사로이 사용한 죄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자자(刺字)하며 고신(告身)을 빼앗고 장리안(贓吏案)에 기록하소서.”
하니 명하여 자자(刺字)는 면제하게 하였다.

▶ 181권 16년 7월 6일 甲寅

前日下御書, 令政院陳民間利害. 政院啓曰: “寺社田稅僧輩收斂時, 或稱佛油, 或掃箒, 或席子, 或脚力價等物, 多般督斂, 民弊不貲. 先王陵寢所在寺刹外, 永永革罷何如? 且田稅所收, 乃寺僧共食之, 而住持及侍奉僧私畜用之, 尤爲未便.” 傳曰: “前已蠲減, 不可更減也.” 政院又啓曰: “司畜署畜牛猪, 藥費不貲, 請減數. 歸厚署貢納板, 皆弊及於民不貲. 請以本署所在布貨, 就此水上貿易, 如私貿易之例爲之, 且限一二年停貢木. 瓦署土木素儲不少, 請限一二年除貢. 貂鼠皮, 永安道備納, 今年本道旱荒尤甚, 請姑除. 軍器監放火所用白厚紙, 素儲有餘, 請限二三年蠲減.” 傳曰: “司畜署養牛馬, 爲天使也. 天使出來有時, 而常養未便. 天使之來, 臨時備之未晚. 猪亦減數. 瓦署納吐木, 限丙午; 歸厚署納貢板木, 限丁未年蠲減. 貂鼠皮則用處多. 放火所用白厚紙, 則邊境繁用, 勿減.”

전일(前日)에 어서(御書)를 내려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민간(民間)의 이해(利害)를 진달(陳達)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사사(寺社)의 전세(田稅)는 승려(僧侶)가 거둘 때에 혹 불유(佛油), 혹 소추(掃箒), 혹 석자(席子), 혹 각력가(脚力價) 등의 명칭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거두어 민폐(民弊)가 적지 않습니다.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이 있는 곳의 사찰(寺刹) 이외에는 영구히 혁파(革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전세(田稅)로 거둔 것은 절의 중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인데도 주지(住持)와 시봉승(侍奉僧)만이 사사로이 저축(儲蓄)하여 쓰고 있으니, 더욱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이미 견감(蠲減)하였으니, 다시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사축서(司畜署)에서 소와 돼지를 기르기 위하여 쓰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그 수(數)를 줄이기를 청합니다. 귀후서(歸厚署)에 공납(貢納)하는 판목(板木)은 그 폐해(弊害)가 백성에 미치는 것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본서(本署)에 있는 포화(布貨)로 수상 무역(水上貿易)을 행하되 사무역(私貿易)의 예(例)와 같이 하고, 또 1, 2년에 한(限)하여 공목(貢木)을 정지하게 하소서. 와서(瓦署)의 토목(土木)도 평소에 저축(儲蓄)한 것이 적지 않으니, 1, 2년을 한하도록 하여 공납(貢納)을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초서피(貂鼠皮)는 영안도(永安道)에서 준비하여 바치는 것인데, 올해에 본도의 한황(旱荒)이 더욱 심하니, 임시로 공납을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군기감(軍器監)의 방화(放火)에 쓰는 백후지(白厚紙)는 평소에 저축한 것이 여유가 있으니, 2, 3년을 한도로 하여 견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축서에서 소와 말을 기르는 것은 중국 사신(使臣)을 위한 것이다. 중국 사신이 나오는 것이 때가 있는데 항상 기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중국 사신이 올 때에 임박하여 대비(對備)하여도 늦지 않으며, 돼지도 수효를 줄이도록 하라. 와서(瓦署)에 토목을 바치는 병오년까지 귀후서에 공납하는 판목(板木)은 정미년까지 한도로 하여 견감하고, 초서피는 쓰는 곳이 많고, 방화에 쓰는 후백지는 변경(邊境)에서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니, 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184권 16년 10월 7일 甲申

(禮曹正郎鄭光世) 又曰:

謹言禮曹三大人足下. 昨蒙勅命之旨, 拜納信受焉. 今偶有予來朝之船, 爲之南針, 遣信使則幸也. 而今歲民間必可有太旱之憂, 遣船則可有郡國之費、用人民之勞役. 但以員名四五人爲差遣使, 付達予船者最可也. 然則予輩固護之, 歸到日本國, 以聖旨諭臣政弘, 尋覓胡椒種子於所有之邦, 明年來朝闕下. 正統四年李藝飄流吾邦來時, 修舟楫送還; 同五年船軍金延逗留長州赤間關, 同年高得宗來時付之還. 同八年遣許詔祭臣祖父持世來. 天順四年蒙勅命獻水牛牝牡, 自爾以來, 依無勅命之求, 但獻輕薄之物, 蒙莫大之恩賜而已. 臣往年待殿下使船, 今付回使某等遣信使, 則以爲幸. 大內殿使僧元肅奉.

이하생략~

(예조 정랑(禮曹正郎) 정광세(鄭光世)가) 또 이르기를, “삼가 예조 3대인 족하(足下)에게 말합니다. 어제 칙명(勅命)의 뜻을 삼가 절하고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연히 제가 내조(來朝)하러 타고 온 배가 길을 안내할 수 있으니 통신사(通信使)를 보내면 다행이겠습니까 마는, 금년에는 백성들이 너무 가무는 근심이 있으니 배를 보내면 고을과 나라의 비용이 있어야 하고 백성의 노역을 써야 하니, 다만 4, 5명의 인원을 차견사(差遣使)로 삼아 제 배에 부쳐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실로 호위하여 일본국에 돌아가서 성지(聖旨)로써 신(臣) 정홍(政弘)을 효유하여 후추[胡椒]의 종자(種子)를 갖고 있는 나라를

찾아가서 명년에 궐하(闕下)에 내조하겠습니다. 정통(正統) 4년에 이예(李藝)가 표류하여 우리나라에 올 때에 배와 돛대를 수선하여 송환하였고, 동(同) 5년에 선군(船軍) 김연(金延)을 장주(長州) 적간관(赤間關)에 머물게 하였다가 동년에 고득중(高得宗)이 왔을 때에 부치어 돌려보냈으며, 동(同) 8년에 허후(許詡)를 보내어 신의 조부(祖父) 지세래(持世來)를 제사 하였고, 천순(天順) 4년에 칙명(勅命)을 받고 수우(水牛) 암수[牝牡] 한 쌍을 바치었습니다. 이 후부터는 칙명으로 구함이 없음을 따라 다만 경박(輕薄)한 물건만을 바치고 비길 바 없이 큰 은혜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신이 지난해에 전하의 사선(使船)을 기다렸는데, 이제 돌아가는 편에 모(某) 등을 신사(信使)로 보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대내전(大內殿) 사인(使人) 중 원숙(元肅)은 받들니다.”

이하생략~

▶ 184권 16년 10월 11일 戊子

御經筵. 講訖, 侍講官金訢啓曰: “今聞國家求胡椒種於倭使. 大抵待遠人, 來者勿拒, 去者勿追而已, 不可有求於彼也. 往年李亨元爲日本通信使, 臣爲書狀官, 到對馬州問胡椒產地, 其人言產於南蠻、琉球等國, 日本所無也. 然則雖求之, 未易得也. 倭人多詐, 徒爲彼所誑耳. 臣攷《本草》, 胡椒產於西戎, 或云產於南海諸國, 中國亦無有也. 臣謂物性各有土宜, 古云: ‘橋渡淮爲枳.’ 我國濟州產柑子, 而不得移種於此地. 今雖得胡椒種, 必不生長矣.” 上曰: “此言果然. 然如鸚鵡孔雀, 則雖來獻, 當却之矣. 此則藥用緊切, 求之何害? 水牛來自琉球, 蕃育於我國, 胡椒安知必不生長乎?” 領事洪應曰: “世祖朝我國人漂流到琉球, 見胡椒, 乃草實也. 其莖與實, 與蕎麥相似.”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국가에서 후추 종자를 왜사(倭使)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대저 먼데 사람을 대우함에 있어 오는 자는 막지 말며 가는 자는 쫓지 말 따름이니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형원(李亨元)이 일본통신사(日本通信使)가 되고 신이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대마주(對馬州)에 도착하여 후추의 생산지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남만(南蠻)과 유구국(琉球國) 등에서 생산되고 일본에는 없는 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구하려 해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倭人)은 거짓이 많으니 공연히 저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신이 본초(本草)를 상고하건대, 후추는 서융(西戎)에서 생산되고 혹은 남해(南海)의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다 하고, 중국에도 없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물건의 성질은 각각 토지에 알맞은 것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르기를, ‘굴(橋)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주(濟州)에는 굴감이 많이 생산되지만 그것을 이곳에 옮겨 심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제 비록 후추 종자를 얻는다 하여도 반드시 잘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그러하나 앵무(鸚鵡)와 공작(孔雀) 같은 새는 비록 와서 바치더라도 내 마땅히 물리쳐 받지 않겠지만, 이것은 약용(藥用)에 긴절(緊切)하니 구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수우(水牛)도 유구(琉球)로부터 우리나라에 왔건만 잘 번식되고 잘 자라니, 후추라고 해서 반드시 잘 자라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이르기를, “세조조(世祖朝)에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하여 유구에 이르러 후추를 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풀씨였습니다. 그 줄기와 열매는 교맥(蕎麥)으로 더불어 서로 흡사했습니다.”하였다.

▶ 186권 16년 12월 9일 丙戌

丙戌/受常參，視事。刑曹三覆啓：“開城府囚僧學洪與百姓趙洪忠、朴實等謀殺僧人信戒，奪取牛及雜物罪，竝律該斬不待、時妻子依《大典》屬所在官奴婢。”從之。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의 죄수 중[僧] 학홍(學洪)이 백성(百姓) 조홍충(趙洪忠)·박실(朴實) 등과 승인(僧人) 신계(信戒)를 모살(謀殺)하고 소와 잡물(雜物)을 탈취(奪取)한 죄는 아울러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며, 처자(妻子)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있는 곳의 관노비(官奴婢)로 소속시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199권 18년 1월 23일 甲子

司諫院大司諫金首孫等上疏曰：

臣等謹採帝王可行之道、國家可祛之弊，條陳于左。

~중략~

臣等伏聞昔齊宣王見牽牛而過堂下者，曰：“舍之。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也。”孟子曰：“是心足以王矣。”蓋仁民而愛物，固帝王之道也。今我殿下以好生之德，推博愛之仁，鳶魚之化，洋中溢外，猶慮一物之不被吾仁也。在卽位之八年，特立禁章，使宰殺牛馬者，勿論良賤，皆杖一百、於絕島諸邑全家定屬，其有許接之家，有職人則收職牒，永不敍用，無職人則杖一百，外方付處，庶人則杖一百，邊遠充軍。其仁恩之及禽獸也，可謂至矣，豈特宣王之愛一牛哉？然近年以來，禁網疎闊，屠牛者遍處閭閻之間，或假寓他人之家，以行其事，爲其主者，亦利其利而不畏忌焉。以之積骸累骨，填街滿巷，其故何也？蓋小民求利之心，無所不至矣，苟利之所在，則雖水火蹈焉，白刃冒焉，況不待蹈水火、冒白刃而其利自倍者乎？臣等竊聞牛之爲物也，當其生也，其直輕焉，及其見殺也，其取直之外，尚有餘利焉。然則今日國家之法，其能止小人冒利之心乎？昔鄭子產有言曰：“夫火烈，人望而畏之，故鮮死焉；水柔弱，民狎而玩之，故多死焉。伏願殿下申明舊章，以懲其罪。如有借人以第而分其利者，則亦以罪罪之，使小民知所畏而避之，不至於狎而玩之，則其於仁民而愛物也，可以兩全矣。

~중략~

故臣等敢以正心爲萬目之綱，而終始獻焉。伏願殿下潛心焉。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중략~

沈澮議：

~중략~

第十二條宰殺牛馬者，申明痛禁。 第十三條一歲飯僧之費，開慶、正因、奉先、津寬、藏義等寺則爲先王先后，似不可廢也。其餘寺社米、豆、鹽、醬、麻布、縣布、照刺赤等減除事，舉行何如？”

~중략~

李崇元議：

~중략~

宰殺牛馬者，近來不戢，然更法則勢難，令該司依法嚴禁。 開慶等寺歲給鹽米等物，其數太多，量減何如？若正心等語，殿下所當留意。” 傳曰：“舉行便否，各令該司議啓。”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손(金首孫)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 등은 제왕(帝王)이 행할 만한 도(道)와 국가에서 없앨 만한 폐단을 삼가 채집하여 조목(條目)별로 아래에 진술합니다.”

~중략~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예전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소를 끌고 당(堂)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내가 그 떨면서 죄 없이 죽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이 마음이 왕도(王道)를 펴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대저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제왕(帝王)의 도(道)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널리 사랑하는 어지심을 미루어서 연어(鰣魚)의 교화(敎化)가 중외(中外)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 물건이라도 어진 은혜를 입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즉위하신 지 8년에 특별히 금장(禁章)을 세워서 마소를 도살하는 자는 양인(良人)·천인(賤人)을 물론하고 모두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절도(絶島) 여러 고을에 전가족을 정속(定屬)시키며, 허접(許接)한 집이 있으면 관직(官職)이 있는 사람은 직첩을 거두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며 관직이 없는 사람은 장(杖) 1백 대에 전가족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서인(庶人)은 장 1백 대에 먼 변방에 충군(充軍)하였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금수(禽獸)에 미친 것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어찌 제나라 선왕이 한 마리 소를 사랑한 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로 금망(禁網)이 성기고 넓어져서 소를 도살하는 자가 여염(閭閻) 사이에 두루 있으며, 혹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빌어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주인 된 자 역시 그 이로움을 탐하여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짐승의 뼈가 쌓여서 거리를 메우고 골목에 가득하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저 소민(小民)들의 이(利)를 구하는 마음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므로, 만일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물불이라도 밝고 시퍼런 칼날이라도 무릅쓰는데, 더구나 물불을 밝거나 칼날을 무릅쓰지 않아도 그 이익이 갑절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그욕이 듣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전대, 소의 물건됨이 살아서는 그 값이 적으나 도살됨에 미쳐서는 그 값을 취하는 외에 오히려 남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국가의 법이 소인(小人)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 정(鄭)나라 자산(子產)의 말에 이르기를, ‘대저 불은 뜨거우므로 사람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는 자가 적고, 물은 부드럽고 약하므로 백성이 가볍게 여기고 희롱하기 때문에 빠져 죽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옛 법을 거듭 밝혀서 그 죄를 징계하고 만일 남의 집을 빌려서 그 이익을 나누는 자가 있으면 또한 그 죄로 죄를 다스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것을 알아서 피하게 하고 친압하여 가볍게 여기는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데에 두 가지가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심희(沈熙)는 의논하기를,

“~중략~ 제12조의 마소를 도살하는 것은 법을 거듭 밝혀서 엄금하게 하소서. 제13조의 1년에 드는 반승(飯僧)의 비용은, 개경사·정인사·봉선사·진관사·장의사 등의 절은 선왕(先王)·선후(先后)를 위한 것이므로 폐할 수 없을 듯하며, 그 나머지 사사(寺社)의 쌀·콩·소금·장·마포·면포·조라치 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은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중략~

이승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중략~ 소와 말을 도살하는 자가 근래에 그치지 아니하나 법을 고치는 것은 형세가 어려워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엄금하도록 하소서. 개경사 등의 절에 해마다 주는 소금·쌀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너무 많으니, 양을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을 바로잡는 등의 말은 전하께서 마땅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거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아니한가를 각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 201권 18년 3월 11일 辛亥

御經筵. 講訖, 掌令洪興啓曰: “忠清道觀察使蔡壽, 與吏曹正郎柳麟童, 四寸兄弟也. 麟童往本道榮親, 其親居陰城, 而壽令設宴于清州, 壽乃陪其父母赴宴. 壽又受假往慶尙道, 其父申保肩輿從行, 到忠州, 壽設宴慰其父, 其弊可知. 臣意謂父母所在, 子不當任監司也.” 上曰: “如此顯著事, 壽必不隱, 當鞫問, 且當改差.” 特進官李季全啓曰: “中原人馱載皆用騾. 中原騾價甚賤, 廣貿以來, 或交牛、或交馬取種, 則七八十年之後, 可大蕃息.” 上曰: “曾令每行貿驢, 今宜檢舉貿來取種也.”

이하생략~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홍흥(洪興)이 아뢰기를,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채수(蔡壽)는 이조정랑(吏曹正郎) 유인동(柳麟童)과 사촌 형제입니다. 유인동이 본도(本道)에 가서 영친(榮親)하는데, 그 부모는 음성(陰城)에 삽니다.

채수가 청주(淸州)에다 잔치를 베풀게 하고 채수는 그 부모를 모시고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채수는 또 휴가를 받아서 경상도(慶尙道)에 가는데, 그 아비 채신보(蔡申保)가 가마를 타고 따라가면서, 충주(忠州)에 이르러 채수가 잔치를 베풀어 그 아비를 위로하였으니, 그 폐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부모가 있는 곳에는 자식이 감사(監司)를 맡아서 안된다고 여겨집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현저한 일은 채수가 반드시 숨기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국문하고 또 개차(改差)하여야 하겠다.”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계동(李季全)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은 짐을 실을 적에 모두 노새를 쓰는데, 중국은 노새 값이 대단히 싸입니다. 널리 무역해다가 혹 소에 교접시키고 혹 말에 교접시키어 취종(取種)하면 7, 80년 뒤에는 크게 번식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갈 때마다 나귀를 무역하게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무역하여 온 것을 검색하여 취종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이하생략~

▶ 201권 18년 3월 14일 甲寅

甲寅/受常參. 視事. 大司憲金自貞論啓: “大部島置屯田開墾, 專用牧子之牛, 必廢私農, 雖未永罷, 請待來年開墾.” 上曰: “可.” 自貞又啓曰: “韓明澮托沐浴往公州溫井, 其意欲觀淸州農莊也. 忠淸諸邑, 聞明澮行由斜路, 爭先役民治路. 鎭川縣監及察訪等, 預至境上迎待, 其弊不貲. 請勿許.” 上曰: “政丞之疾, 衆所共知, 豈托稱哉? 況病患, 當及其未深而治之. 既許往, 不可更止也. 但守令役民治路不當, 令憲府鞫之.”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大司憲) 김자정(金自貞)이 논계(論啓)하기를, “대부도(大部島)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개간(開墾)하게 되면 오로지 목자(牧子)의 소를 쓸 것이니, 반드시 사농(私農)을 폐(廢)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영구히 파하지는 않더라도, 청컨대 내년을 기다려 개간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김자정이 또 아뢰기를, “한명회(韓明澮)가 목욕(沐浴)을 하겠다는 핑계로 공주(公州) 온천(溫泉)에 가는데, 그 뜻은 청주(淸州)의 농장(農莊)을 보려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서 한명회가 사잇길로 간다는 말을 듣고 앞을 다투어 백성을 역사시켜 길을 닦고, 진천현감(鎭川縣監)과 찰방(察訪) 등은 미리 경상(境上)에 이르러 영접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허락하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병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것인데, 어찌 핑계삼아 말하겠는가? 하물며 병은 깊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이미 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다시 그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수령(守令)이 백성을 역사시켜 길을 닦는 것은 부당하니, 헌부(憲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하였다.

▶ 201권 18년 3월 21일 辛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傳于承政院曰：“南陽大部屯田，憲府以爲不可，而宰相亦或有非之者。然戶曹備器備牛，業已始役，不可中止。都承旨其往審以啓。”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남양대부(南陽大部)의 둔전(屯田)을 헌부(憲府)에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재상도 역시 그르게 여기는 자가 있었으나 호조에서 농기구를 준비하고 소를 세내어 이미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중지할 수가 없다. 도승지(都承旨)가 가서 살피보고 아뢰라.”하였다.

▶ 202권 18년 4월 9일 戊寅

御晝講. 講訖, 侍講官閔師騫啓曰: “宗廟牛則分薦于各室, 羊豕則體薦可也. 而去其頭薦之, 此必因循之誤也. 凡牲云者, 以全體而言也, 朔望祭竝其頭薦之, 而大祭則去其頭, 尤不可.” 上問左右, 同知事金宗直對曰: “請考禮文.” 上曰: “然.”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종묘(宗廟) 제사에 소[牛]는 나누어서 각 실(室)에 올리고 염소와 돼지는 통째로 올리는 것이 옳은데, 머리는 제거해버리고 올리니, 이는 반드시 잘못 인습(因襲)해오는 일입니다. 무릇 희생(犧牲)이란 것은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삭망(朔望) 제사에는 머리까지 아울러 올리고 대제(大祭)에는 머리를 제거하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동지사(同知事) 김종직(金宗直)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예문(禮文)을 상고 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 209권 18년 11월 30일 乙丑

乙丑/義禁府啓: “豐川人文仲、金非羅等五人, 冒受本邑路引, 潛往臨江獐子島, 捕水牛, 遭颶風漂泊海洋島, 爲金州邏卒所獲罪, 律該竝杖一百、徒三年.”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李克培議: “依所啓施行何如?” 尹弼商議: “金非羅等非徒過海犯境, 其被捉放回事, 匿不告報. 請并招此辭, 從重科斷.” 洪應議: “越境信有罪矣. 然獐子島受路引往來, 其來已久.’ 以私越冒度例論, 似重.” 傳曰: “左議政云: ‘受路引往來, 其來已久.’ 何以知之?” 應對曰: “臣意獐子島雖在海中, 常時受路引往來, 採捕海物資生, 則不可以私越冒度例論. 故如是議啓.” 傳曰: “依啓本施行.”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풍천인(豐川人) 문중(文仲)과 김비라(金非羅) 등 5인이 합부로 본 고을의 노인(路引)을 받아, 몰래 임강(臨江)의 장자도(獐子島)에 가서 수우(水牛)를 잡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漂流)하여 해양도(海洋島)에 닿아 금주(金州)의 나졸(邏卒)에게 잡힌 죄는, 율(律)이 모두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영돈녕(領

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희(沈澹)·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김비라 등은 바다를 건너 〈남의 나라〉 경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잡히었다가 석방되어 돌아온 일을 숨기고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컨대 아울러 이 말을 공초(供招)하여 종중과단(從重科斷) 하소서.”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국경을 넘은 것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도는 노인(路引)을 받아 왕래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사월 모도(私越冒渡) 한 사례로 논(論)하는 것은 중(重)한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좌의정(左議政)이 이르기를, ‘노인을 받아 왕래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를 아는가?”하였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 장자도는 비록海中(海中)에 있으나, 상시(常時)로 노인을 받아 왕래하며 해물(海物)을 체포(逮捕)하여 생활해 왔으니, 사월 모도한 사례는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논하여 아뢴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라.”하였다.

▶ 212권 19년 閏1월 25일 庚寅

傳旨戶曹曰:

親耕時庶人二十八、執耒耜人八、隨牛人十四、治畝人一百等, 各給籍田陳租一碩.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친경(親耕) 때의 서인(庶人) 28명,耒耜(耒耜)를 잡은 사람 8명, 소를 부리던 사람 14명, 밭이랑을 다스리던 사람 1백 명 등에게 각각 적전(籍田)의 묵은 벼 한 섬을 주라.”하였다.

▶ 214권 19년 3월 12일 丙子

丙子/典翰李昌臣書啓曰:

臣伏聞詔使云迎詔時, 不宜乘輦, 臣意以爲不然. 夫禮, 稱人情而爲之節文者也. 記曰: “禮有以文爲貴者: 天(于) [子] 之冕, 朱綠藻十有二旒, 諸侯九, 上大夫七, 下大夫五, 此以文爲貴者也.” 有 “以素爲貴者, 大輅越席.” 註: “大輅, 敬祭天之車, 此以素爲貴者也.” 以此觀之, 禮不可當文而爲素, 亦不可當素而爲文也. 天子祭天具冕服、乘大輅者, 乃所以尊天也, 豈敢慢天而自尊乎? 今殿下之迎詔冕服乘輦, 亦如天子乘輅尊天而已, 豈有他哉? 詔使猶駁之, 則抑有說焉. 《記》曰: “天子適諸侯, 諸侯膳用犢.” 註: “天子祭天, 惟用一牛. 若巡狩而過諸侯之境, 則諸侯奉膳亦止一牛. 其尊君之禮, 亦如君之尊天也.” 臣妄意以是答之何如?

傳曰: “以昌臣所啓之意, 因閑話言於天使何如?” 承旨等僉啓曰: “上教允當. 天子之敬天, 猶諸侯之敬天子也. 此言有據, 當說與天使.” 傳曰: “可.”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전한(典翰) 이창신(李昌臣)이 서계(書啓)하기를,

“신(臣)이 앞서려 들건대, 조사(詔使)가 이르기를, ‘조서를 맞이할 때, 연을 담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저 예(禮)는 인정(人情)에 맞추어서 절문(節文)을 하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예(禮)는 문(文)을 귀(貴)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천자(天子)의 면(冕)에는 주록(朱綠)의 조(藻)가 십이류(十二旒)고, 제후(諸侯)는 9, 상대부(上大夫)는 7, 하대부(下大夫)는 5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문(文)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소(素)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대로월석(大輅越席) 주(註)에 ‘대로(大輅)는 제천(祭天)을 공경하는 수레[車]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박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예(禮)에는 문식을 해야 할 적에 소박하게 할 수가 없으며 소박하게 해야 할 적에 문식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천자(天子)가 제천(祭天)할 적에 면복(冕服)을 갖추고 대로(大輅)를 타는 것은 곧 하늘을 높이는 것이지 어찌 감히 하늘을 업신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함이겠습니까? 지금 전하가 조서를 맞이하심에 면복(冕服)하고 연을 탐도 또한 천자가 대로(大輅)를 타고 하늘을 높이는 것과 같을 따름이니,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조사(詔使)가 오히려 이를 박론하면 또한 말할 것이 있습니다. 《예기》에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제후(諸侯)에게 가면, 제후는 <천자에게> 송아지[犢]를 선(膳)으로 쓴다.’하고, 주(註)에는 ‘천자가 제천(祭天)함에 1우(牛)를 쓰니, 만약 순수(巡狩)하고서 제후(諸侯)의 지정[境]을 지나면, 제후가 봉선(奉膳)함도 또한 1우(牛)에 그친다.’고 하였으니, 임금금을 높이는 예(禮)도 또한 임금이 하늘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이로써 대답함이 어떠할까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창신(李昌臣)이 아뢰는 뜻으로써 한담할 적에 중국 사신에게 말함이 어떻겠느냐?”하니, 승지(承旨) 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聖上)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천자(天子)가 하늘을 공경함도 마치 제후(諸侯)가 천자(天子)를 공경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근거가 있으니, 마땅히 중국 사신에 말해주어야 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하였다.

▶ 217권 19년 6월 4일 丙申

丙申/賜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李鐵堅、韓致禮水牛牝牡各一頭。使之孳息。

심희(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철건(李鐵堅)·한치례(韓致禮)에게 물소[水牛] 암수 각각 1두(頭)씩을 내려 주고 잘 기르라고 하였다.

▶ 218권 19년 7월 7일 戊辰

戊辰/視事。左副承旨金克儉將刑曹三覆啓本啓：“威安囚末同殺人奪牛罪，律該斬不待

時.” 司僕寺正姜龜孫將刑曹三覆啓本啓: “星州囚金末同謀殺白仁亨罪, 律該絞待時.” 皆從之.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극검(金克儉)이 형조(刑曹)의 삼복 계본(三覆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함안(咸安) 죄수인 말동(末同)이 사람을 죽이고 소를 빼앗은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였고, 사복시 정(司僕寺正) 강귀손(姜龜孫)은 형조의 삼복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성주(星州) 죄수인 김말동(金末同)이 백인형(白仁亨)을 죽이려고 꾀한 죄는, 율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따랐다.

▶ 224권 20년 1월 13일 壬申

司憲府持平朴承燾來啓曰: “崔興孫嘗爲羣山萬戶, 以汎濫見貶, 其人可知. 國家用人, 當觀其才行, 興孫爲人狂妄無知, 且無武才, 其不可用也明矣. 今遽陞堂上, 以授重鎮, 甚爲未便, 請改正. 林重嘗爲修理都監郎廳, 濫役軍人, 使伐松木, 潛輸其家, 廉節掃地. 今授義禁府經歷, 亦爲未便, 請改正. 鄭有智以捕盜將, 聽李秩之言, 放牛賊, 被推於憲府而命棄之. 臣等亦以爲甚未便也. 且內則有刑曹, 外則有守令, 雖無捕盜將, 亦可以捕之矣, 有智多率無賴之徒, 恣行不義於中外, 請革罷捕盜將.” 傳曰: “興孫雖爲萬戶見貶, 然人有一失, 終身棄之乎? 且武臣當其未老時用之, 況興孫嘗臨敵善戰, 非有武才能之乎? 林重則果犯是罪, 然歲月已久, 且其子上疏, 故曾下敍用之命矣. 有智放牛賊, 此實無情, 何必罪之? 雖有攸司, 予意以謂不如有捕盜將.” 承燾啓曰: “爵賞, 人主之大柄, 不可輕授非才. 今興孫遽陞堂上, 以任重鎮, 孰云稱職? 穩城重地也, 倘撫御乖方, 必構邊釁, 尤不可不擇. 事既違誤, 雖悔何及? 林重素無廉介, 而所行如此, 若舉用之, 則廉恥道喪, 士習日卑, 貪風何時而絕乎? 有智偏聽李秩之言, 輕釋有罪之人, 是豈無情之事乎? 請加罪, 罷捕盜將, 甚便.” 傳曰: “興孫事, 當召武臣問之. 林重姑勿用之.”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박승약(朴承燾)이 와서 아뢰기를, “최흥손(崔興孫)이 일찍이 군산만호(群山萬戶)가 되어 범람(汎濫)하다고 하여 폄출(貶黜)을 당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 만합니다.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에는 마땅히 그 재주와 행실을 보아야 할 것인데, 최흥손은 사람됨이 망령되고 무지(無知)하여 무재(武才)도 없으니, 그 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이제 갑자기 당상관(堂上官)에 올려 중진(重鎭)에 제수하니, 매우 적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임중(林重)은 일찍이 수리도감낭청(修理都監郎廳)이 되어, 군인(軍人)을 함부로 부려서 소나무를 베어 그 집으로 몰래 운반하게 하였으니, 청렴한 절개가 땅을 쓴 듯이 없습니다. 이제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을 주었으니, 역시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정유지(鄭有智)는 포도장(捕盜將)으로서 이질(李秩)의 말을 듣고 소도둑을 놓아주자 사헌부의 추책을 입었는데 버려두기를 명하셨으니, 신 등은 역시 매우 적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또 안에는 형조(刑曹)가 있고 밖에는 수령(守令)이 있으니 비록 포도장이 없을지라도 잡을 수 있는데, 정유지는 무뢰배(無賴輩)를 많이 거느리고 중외(中外)에 불의(不義)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방자히 행하였으니, 청컨대 포도장을 혁파(革罷)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최홍손이 비록 만호가 되어 궐출을 당하였으나, 사람이 한 번 실수가 있다고 하여 종신토록 버릴 것인가? 또 무신(武臣)은 늙지 아니할 때에 당하여 쓰는 것인데, 하물며 최홍손은 일찍이 적(敵)에 임하여 잘 싸웠으니, 무재(武才)가 있지 아니하면 능히 하겠는가? 임중은 과연 이 죄를 범하였으나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또 그 아들이 상소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서용(敍用)의 명을 내렸던 것이다. 정유지가 소도독을 놓아준 것은 진실로 사실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이를 죄주겠는가? 비록 유사(攸司)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생각으로는 포도장(捕盜將)이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긴다.”하였다. 박승악이 아뢰기를, “작상(爵賞)은 임금의 큰 권(權)인데 적재(適才)가 아닌 사람에게 가볍게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최홍손이 갑자기 당상관에 올라서 중진(重鎭)을 맡으면 누가 직위에 맞다고 이르겠습니까? 온성(穩城)은 중요한 땅인데, 만일 사졸을 어루만지고 제어하는 방략을 잃으면 반드시 변경의 틈을 구성할 것이니, 더욱 사람을 고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이 이미 어긋나고 잘못되면 아무리 후회할지라도 어찌 미치겠습니까? 임중은 본래 청렴한 절개가 없고 행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만약 들어 쓴다면 염치의 도(道)가 없어지고 선비의 풍습이 날마다 낮아져서 재리를 탐하는 풍습이 어느 때에 끊어지겠습니까? 정유지는 치우치게 이질(李秩)의 말을 듣고 죄가 있는 사람을 가볍게 석방하였으니, 이는 어찌 사실이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청컨대 죄를 가하고 포도장을 파면하는 것이 매우 적당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최홍손의 일은 마땅히 무신(武臣)을 불러 물을 것이며 임중은 아직 쓰지 말도록 하겠다.”하였다.

▶ 225권 20년 2월 22일 庚戌

特進官李淑琦啓曰: “永安道五鎭貢貂鼠皮, 質於野人以充其賦; 所易之物, 非農器釜鬻, 則必耕牛也. 由是我之耕牛、農器、釜鬻, 悉爲彼有, 雖國家禁之, 莫得禦也. 且今貂鼠, 平安及永安內地亦多有之, 請除五鎭之賦而移于內地, 其內地他賦, 又移于他郡, 則雖不市於彼人, 而國用自足矣. 且國家用楮幣, 入於官者多, 出於民者少. 以是積於司贍者漸至腐壞, 而民無以得之. 雖國法八十張準綿布一匹, 而市人準以二三十張, 無他, 出於市者稀貴也. 請以司贍寺所藏, 出市於民, 其腐壞不用者, 準其數改造, 則楮幣不至甚貴, 而官獲其利矣.” 上曰: “令戶曹議啓.”

특진관(特進官) 이숙기(李淑琦)가 아뢰기를,

“영안도(永安道) 오진(五鎭)에서 공납(貢納)하는 초서피(貂鼠皮)는 야인(野人)과 무역하여 그 구실을 채우는데, 바꾸는 물건은 농기(農器)나 가마솔이 아니면 반드시 경우(耕牛)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우·농기·가마솔 등이 모두 죄다 저들의 소유가 되고 국가에서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초서(貂鼠)는 평안도와 영안도 내지(內地)에도 많이 있으니, 청컨대 오진의 부(賦)를 없애고 내지로 옮기고 내지의 다른 부는 다른 고을에 옮기면, 저 사람들에게 바꾸지 않더라도 국용(國用)이 저절로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저폐(楮幣)를 쓰는데 관에 들어온 것은 많고 백성에게 나간 것은 적으니, 이

때문에 사섬시(司贍寺)에 쌓인 것이 점점 썩어 문드러지는 데 이르렀으나 백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국법으로는 80장으로 면포 한 필에 준하나 시장 사람은 2, 30장으로써 한 필에 준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에 나오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사섬시에 간직한 것으로써 백성에게 내어 팔고 썩어서 쓰지 못할 것은 그 수량에 준하여 다시 만들면, 저폐가 그다지 귀한 데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관에서는 그 이(利)를 얻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하였다.

▶ 225권 20년 2월 28일 丙辰

下書永安道觀察使李封曰：

今聞貂皮本不產於五鎭，而錄於貢案，五鎭之民不得已，將牛馬、農器潛市野人。果如斯言，必須移賦內地諸邑而後可。然不可以一人之言，輕改貢案也。卿其親詢邊將，兼訪老民，五鎭民雖不遠市，可以依貢案備納與否及移賦內地，而復其採捕之戶則可支與否，急速馳啓。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봉(李封)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듣건대, 초피(貂皮)는 본래 오진(五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데 공안(貢案)에 기록되었으므로, 오진의 백성이 할 수 없어서 마소와 농기(農器)를 가지고 몰래 야인(野人)과 바꾼다고 하니, 과연 이 말과 같으면 반드시 내지(內地) 여러 고을에 옮겨서 부과(賦課)한 뒤에야 가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로써 공안을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경(卿)이 변장(邊將)에게 친히 묻고 겸하여 늙은 백성에게 물어서, 오진 백성이 비록 멀리 가서 바꾸지 아니하더라도 공안(貢案)에 의하여 갖추어 바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내지에 옮겨서 부과하여 그 초피를 잡아 바치는 호(戶)에 구실을 면제하면 지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급속(急速)히 치계(馳啓)하도록 하라.”하였다.

▶ 227권 20년 4월 2일 庚寅

庚寅/司憲府大司憲宋瑛等上劄子曰：

古人云：“知過爲難，改過尤爲難。”誠能知過而改，則雖爵之崇秩，何妨於義？今源坐貞熹王后發喪翌日私奸娼妓，付處外邑，當改過自新，反益驕淫，強淫孀婦，以是移謫他道，奪人土田牛馬。頑不改過，故犯罪惡，按之於律，當服(怪)[怙]終之刑，豈止付處？昔楚王戊爲薄太后服，私奸服舍，削郡終身，源之罪尤甚於戊。王后昇遐翼日，凡爲臣庶，皆驚惶僻踊，近屬宗室摧痛之心，宜倍於臣庶。而源乃忍爲不忍爲之事，遠黜于外，終身不齒，臣等猶以爲輕，況復爵而齒諸宗班乎？宋等以爭財不睦抵罪，未幾復其爵，今又猝陞極品，至爲不可。伏望亟收成命。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不聽.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송영(宋瑛) 등이 차자(笏子)를 올리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허물을 알기는 어렵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였습니
다. 참으로 허물을 알고 고친다면, 비록 높은 작질(爵秩)을 준다 하더라도 의리상 무엇이 해
롭겠습니까? 이제 이원(李源)은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발상(發喪) 이튿날 창기(娼妓)를 사통
한 것으로 죄를 받아 외방 고을에 부처(付處)되었으니 허물을 고쳐 새로워져야 하는데도 도
리어 더욱 교만하고 음란해져 청상과부를 강간하였으며, 그 때문에 적소(謫所)를 다른 도로
옮겼는데, 남의 전토와 우마를 빼앗아 완악하여 허물을 고치지 않았으니 고의로 범한 죄악
을 율(律)에 비추어 보면 호종(怙終)의 형에 해당되지, 어찌 부처에 그치겠습니까? 옛날 초
왕(楚王) 무(戊)가 박태후(薄太后)의 복(服)을 입으면서 복사(服舍)에서 간통을 해 군(郡)을
종신토록 삭제했습니다. 이원의 죄는 무보다 더욱 심하여, 정희 왕후가 승하한 이튿날에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놀라서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는데, 가까운 종실(宗室)들은 절통한
마음이 신하나 백성들보다 배나 더할 것입니다. 이원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차마 하였으
므로, 외방(外方)으로 멀리 내쳐서 종신토록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해도 신들은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작위를 회복시켜 여러 종실의 반열에 끼게 하겠습니까? 이심(李穡)
등은 재물을 다투며 화목하지 못하여 죄에 저촉되었는데, 얼마 안되어 작위를 회복했고, 이
제 또 갑자기 극품(極品)으로 올리시니, 지극히 불가합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
命)을 거두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228권 20년 5월 30일 丁亥

丁亥/御經筵. 講訖, 掌令安潤孫啓曰: “臣近在北方, 飽聞民瘼. 國家以五鎭之民, 困於防戍, 令減雜徭, 但賦土豹皮、貂皮、鼠皮而已. 然不能支, 故賜減十五年, 而其期已盡. 請復賜減, 以待蘇息.” 上曰: “前日議者云: ‘貂·鼠皮不產於五鎭, 故以牛馬農器, 易諸野人, 請移定于內地, 以除此弊.’ 予下書問之, 監司啓云: ‘內地雖產此物, 不合進上, 故必貿於野人. 而野人非牛馬農器則不與之易, 故不得不爾.’ 已令戶曹議啓矣.”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안윤손(安潤孫)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 북방에 있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5진(五鎭) 백성
들이 방수(防戍)에 고단하다고 하여 잡역은 감하게 하고 단지 토표피(土豹皮)·초피(貂皮)·서
피(鼠皮)만을 부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탱할 수 없어 15년을 감해 주었는데, 그 기
한이 이미 다하였으니, 청컨대 다시 감해 주어 소복(蘇復)하기를 기다리소서.”하니, 임금
이르기를, “전일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피와 서피는 5진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우
마나 농기구로써 야인(野人)들에게서 바꾸어 오니, 내지(內地)로 이정(移定)하여 이러한 폐
단을 제거해 달라.’고 하였었다. 내가 감사(監司)에게 하서(下書)하여 물어 본 즉, 감사가 아
뢰기를, ‘내지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기는 하나 진상(進上)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만드

시 야인(野人)들과 무역을 하는데, 야인들은 우마(牛馬)나 농기구가 아니면 바꾸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 234권 20년 11월 5일 己未

前觀象監副奉事李志遜上書言：

臣得牛角灸法於醫僧，以此灸人，雖痼疾，無不立效。臣請往黃海道依方治療。

傳曰：“姑試都中病人。”

전(前) 관상감 부봉사(觀象監副奉事) 이지손(李志遜)이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신이 의술(醫術)을 아는 중에게서 우각구법(牛角灸法)을 구득했는데 이로써 사람들이 땀을 뜨면 비록 고질(痼疾)이라 하더라도 금방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황해도(黃海道)에 가서 방문대로 치료해 보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도성(都城) 안의 병든 사람들에게 시험해보라.”하였다.

▶ 234권 20년 11월 14일 戊辰

御經筵。

~중략~

佶啓曰：見今盜賊興行，奪人財物，深可慮也。前日才白丁等勿令區別。臣聞才白丁散居都下，以屠牛爲事，凡人之遭賊者追尋，則必得於其人家，此不可不糾治。外方則付之隣保，使不得恣意出入，又於六衙日考點有無，故白丁等亦皆自戢。今者雖不使之區別，請令點檢錄案，使知其居里。”上顧問左右，特進官金升卿對曰：“古者才白丁不得居都下，卽今散處閭閻，無異編氓，日以殺牛爲事，甚未便。必須推刷以付隣保。”上曰：“前者以爲不可區別而出城外，故勿令區別耳。當令漢城府推刷點檢之，第未知該司能舉行如何耳。”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중략~

정관이 아뢰기를, “지금 도둑들이 퍼져 횡행(橫行)하며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니, 깊이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날에 재인(才人)·백정(白丁)들을 구별하지 말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신이 듣건대, 재인과 백정들이 도성(都城) 안에 흩어져 살며 소 도살(屠殺)을 직업으로 하는데, 무릇 도둑맞은 사람들이 쫓아가 찾아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찾게 된다 하니, 이들을 단속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방(外方)에서는 인보(隣保)에게 맡기어 임의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육아일(六衙日)에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고(點考)하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때문에 백정들이 또한 모두 스스로 가만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비록 구별하지 말도록 하기는 했지만, 점검(點檢)해서 녹안(錄案)하여 사는 동리(洞里)를 파악하고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특진관(特進官) 김승경(金升卿)이 대답하기를, “옛적에는 재인·백정이 도성 안에 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여염(閭閻)에 흩어져 살고 있어 편氓(編氓)과 차이가 없게 되고 날마다 소 도살을 일삼아 하여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반드시 추쇄(推刷)하여 인보에게 맡겨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번에 구별하여 도성 밖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구별하지 말도록 했던 것이다. 마땅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추쇄하여 점검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해사(該司)에서 거행하기를 어떻게 할는지 알지 못하겠다.”하였다.

▶ 235권 20년 12월 10일 癸巳

御經筵. 講訖, 上問曰

~중략~

啓沃啓曰: “臣嘗爲刑曹佐郎, 觀本曹用律不合. 竊盜則盜一貫以上, 皆刺字, 至於三犯則處絞. 盜牛馬者, 只罰以徒三年, 不刺字, 雖十犯, 不至於死, 用律乖違. 臣意以爲以盜一貫, 概諸盜牛馬, 則輕重不侔, 而生死有異. 自今盜牛馬者皆刺字, 三犯處絞何如?” 上顧問左右, 成俊對曰: “盜牛馬者刺字, 甚合情法.” 世謙曰: “我國則配徒流者不役之, 中朝配役甚苦, 一日常兼數人之事, 備嘗艱苦. 但不至於死, 故盜牛馬者不刺字也.” 上曰: “盜牛馬者, 刺字爲是. 令該曹議其可否.”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묻기를,

~중략~

황계옥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형조 좌랑(刑曹佐郎)이 되어 본조(本曹)의 율(律)을 쓰는 것을 보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절도(竊盜)에 대해 1관(貫) 이상을 도둑질한 것은 모두 자자(刺字)하고 삼범(三犯)에 이르면 교형(絞刑)에 처하는데, 소나 말을 도둑질한 자는 단지 도(徒) 3년만 벌(罰)하고 ‘자자’는 하지 아니하며 비록 십범(十犯)이라 하더라도 사형에 이르지 아니하니, 율을 쓰는 것이 어긋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1관을 도둑질한 것을 소나 말을 도둑질한 것에 비하면 경중(輕重)이 같지 아니한데, 실리고 죽이는 것이 다름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제부터 소나 말을 도둑질한 자는 모두 자자하고 삼범은 교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성준이 대답하기를, “소나 말을 도둑질한 자에게 자자하는 것은 인정과 법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였다. 어세겸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도(徒)·류(流)의 형(刑)으로 귀양가는 자는 역(役)을 하지 아니하나, 중국에서는 귀양살이하는 자의 역이 몹시 괴로워서 하루에 항상 몇 사람의 일을 겸하므로, 고생을 갖추 겪으면서도 단지 사형(死刑)에만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소를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자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나 말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자자하는 것이 옳다. 해조(該曹)

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 238권 21년 3월 14일 丙寅

丙寅/江原道觀察使趙益貞, 據平海郡守李箴牒報馳啓: “本郡來居向化金丹多茂告狀云: ‘國家給家舍、田地、男牛、農器及穀種, 使得耕食, 且限二年給口糧. 然我等不知自手農業, 將飢死. 請往妹夫太好時乃、姪子童清禮家住活.’”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尹弼商、尹壕議: “退限一二年, 加給朔料, 令安接居生.” 洪應議: “丹多茂年老不能耕作, 窮困已極. 若不給料, 生理無門, 移置京中, 完聚一族, 資生何如?” 盧思慎議: “令該曹擬議便否何如?” 從應議.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익정(趙益貞)이 평해군수(平海郡守) 이잠(李箴)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본군(本郡)에 와서 사는 향화(向化)한 김단다무(金丹多茂)의 고장(告狀)에 이르기를, ‘국가에서 가사(家舍)·전지(田地)·농우(農牛)·농기(農器) 및 곡식 종자를 주어서 농사지어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2년 기한으로 구량(口糧)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직접 농사지를 줄 몰라서 장차 굶어죽게 되었으니, 청컨대 매부(妹夫) 태호시내(太好時乃)와 조카 동청례(童淸禮)의 집에 가서 거주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희(沈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기한을 1, 2년을 물려서 삭료(朔料)를 더 주어 안접(安接)하여 살도록 하소서.”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김단다무(金丹多茂)는 연로(年老)하여 농사지를 수 없어서 궁색함이 이미 극심합니다. 만약 삭료(朔料)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으니, 경중(京中)으로 옮겨 두고 한 가족이 완취(完聚)하여 의지해서 살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노사신(盧思慎)은 의논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적당한지의 여부를 의의(擬議)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 240권 21년 5월 27일 戊寅

御經筵. 講訖, 特進官李克墩啓曰: “今命遣弓匠于兩界, 又送弓槩木及筋. 臣意兩界弓匠, 本不乏, 遣之徒費國廩, 請勿遣. 弓槩木, 兩界本多有之. 牛馬筋, 則無處無之, 請勿下送.” 上曰: “兩界弓匠有無, 可問于監司, 節度使而處之.” 領事沈澮啓曰: “今年收稅數甚多, 米豆皆露積, 若經年必至腐敗矣. 軍資本監之西, 奉常寺牆內, 有隙地, 於此構庫屋三十餘間, 貯之何如? 軍資分監, 亦有隙地, 可造二十餘間, 請於此, 亦構庫屋.” 上曰: “今年田稅數, 未知與祖宗朝何如. 但恐過多也.” 澮對曰: “多多益善.” 知事李崇元曰: “雖多亦好.” 克墩曰: “連歲豐稔, 則必至於此. 世祖朝, 曹錫文爲戶曹判書建議: ‘田稅二分納京倉, 一分納州倉.’ 京倉多積最好.” 上曰: “可依所啓.”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지금 활 만드는 장인(匠人)을 양계(兩界)에 보내고 또 활과 창을 만들 나무와 힘줄도 보내라 명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계에는 활 만드는 장인이 본디 모자라지 않은데 보내는 것은 한갓 국고[國庫]만 허비할 뿐이니,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활과 창 만드는 나무도 양계에 본디 많이 있습니다. 소와 말의 힘줄도 없는 곳이 없으니, 내려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계에 활 만드는 장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아뢰기를, “금년에 거둬 세곡(稅穀)은 수량이 매우 많은데, 쌀과 콩을 모두 노천(露天)에 쌓아 놓게 되면 해를 넘길 경우 필경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군자감(軍資監)의 본감(本監) 서쪽 봉상시(奉常寺)의 담 안에 빈 터가 있는데, 여기에다 창고 30여 칸을 지어 세곡을 저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자감의 분감(分監)에도 빈 터가 있어 20여 칸을 세울 만하니, 이곳에도 창고를 짓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전세(田稅)의 수량이 조종조(祖宗朝)와 비교하여 어떤지 모르겠다. 다만 너무 과다할까 걱정이 된다.”하였다.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많을수록 좋습니다.”하고, 지사(知事) 이숭원(李崇元)은 말하기를, “아무리 많더라도 좋습니다.”하고, 이극돈(李克墩)은 아뢰기를, “해마다 풍년이 들었으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조석문(曹錫文)이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어 건의(建議)하기를, ‘전세(田稅) 중에서 2분은 경창(京倉)에 납부하게 하고 1분은 주창(州倉)에 납부토록 하자’고 했었는데, 경창에 많이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된 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 243권 21년 8월 13일 癸巳

癸巳/宗廟提調盧思愼·李念義、禮曹判書愼承善、參判李陸、參議朴楬等來啓曰：
“牛、羊、豕鼎，宗廟各室皆有，而獨於永寧殿一室闕焉。鼎之設也，蓋欲各烹所祭之肉也，今也牛、羊、豕之肉，各盛布袋，同烹於一鼎，似乖制作本意。請依禮文爲之。”從之。

종묘제조(宗廟提調) 노사신(盧思愼)·이념의(李念義), 예조판서(禮曹判書) 신승선(愼承善), 참판(參判) 이육(李陸), 참의(參議) 박미(朴楬) 등이 와서 아뢰기를,

“우정(牛鼎)·양정(羊鼎)·시정(豕鼎)은 종묘(宗廟)의 각실(各室)마다 모두 있는데, 유독 영녕전(永寧殿) 1실(室)에만 빠졌습니다. 정(鼎)을 설치함은 대저 각각 제사지내는 고기를 삶으려 함이어늘, 이제 우(牛)·양(羊)·시(豕)의 고기를 각각 포대(布袋)에 담아서 같이 한솥에 삶으니, 제작(制作)한 근본 뜻에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청컨대 예문(禮文)에 의하여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243권 21년 8월 14일 甲午

甲午/視事. 左副承旨許琛, 將刑曹三覆啓本啓: “茂長囚甲士金孟蕃, 射殺異父同生妹德只罪, 律該斬待時, 慶源囚正兵姜成孫, 盜牛賣與彼人罪, 律該絞待時.” 竝從之.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허침(許琛)이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무장(茂長) 죄수 갑사(甲士) 김맹번(金孟蕃)이 이부 동생매(異父同生妹) 덕지(德只)를 사살(射殺)한 죄(罪)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고, 경원(慶源) 죄수 정병(正兵)姜成孫이 소를 훔쳐 팔아서 야인(野人)에게 준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 243권 21년 8월 18일 戊戌

戊戌/視事. 刑曹三覆啓: “海州囚寺奴莫同, 殺李同奪牛罪, 驪州囚學生尹升老奸其子金萬伊妻訥斤罪, 竝律該斬不待時.” 從之. 掌令李禮堅、正言柳濱, 啓任士洪不宜差管押使, 不聽.

정사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해주(海州) 죄수 사노(寺奴) 막동(莫同)이 이동(李同)을 죽이고 소를 빼앗은 죄와 여주(驪州) 죄수 학생(學生) 윤승로(尹升老)가 그 아들 김만이(金萬伊)의 처(妻) 눌근(訥斤)을 간음한 죄는 아울러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이예건(李禮堅)·정언(正言) 유빈(柳濱)이 임사홍(任士洪)을 관압사(管押使)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250권 22년 2월 18일 甲子

永安道觀察使許琮馳啓曰: “前此兀狄哈被擄人物, 每令城底居野人刷還, 既刷還後論功. 雖十餘人共買一人, 竝令上京, 而彼人皆言: ‘一人之價, 牛馬則二十餘頭, 他物稱是.’ 故兀狄哈等, 視我國人物爲奇貨, 伺間抵隙, 期必擄去. 城底野人, 雖厚齎刷還, 一度上京, 可償其直, 乃導之擄去, 而陽爲刷還者, 間或有之. 已前小寇, 置而不問, 今者突入城堡, 搶虜人畜, 以至殺將戮軍, 羞辱不小. 諸種野人, 視此舉, 以爲輕重. 今若依前, 徒務刷還, 而一不懲艾, 則國家威武不揚, 非徒兀狄哈, 近居彼人等, 將生侮慢之心, 不可不慮. …” 下議于兵曹.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許琮)이 치계(馳啓)하기를,

“이 앞서 올적합(兀狄哈)에게 사로잡혀 간 인물(人物)을 늘 성(城) 밖에 살고 있는 야인(野人)으로 하여금 쇄환(刷還)하도록 하고, 이미 쇄환한 뒤에는 공(功)을 논합니다. 비록 10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산다 하더라도 아울러 서울에 올라 오도록 하는데, 피인(彼人)들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모두 말하기를, ‘한 사람의 값이 마소인 경우 20여 두(頭)이며, 다른 물건도 여기에 맞도록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올적합 등이 우리나라의 인물(人物) 보기를 기이한 보화로 여겨 틈을 엿보면서 반드시 사로잡아 가려고 기약합니다. 그러니 성밀의 야인이 아무리 후하게 주고 쇠환하였다 하더라도 한 번 서울에 올라가면 그 값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사로잡아 가도록 유도(誘導)하고 거짓으로 쇠환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앞서 조그마한 노략질은 내버려 두고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성(城)과 보(堡)에 돌입(突入)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고 장수와 군사를 죽였으니, 부끄럽고 욕된 것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 종족(種族)의 야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서 경중(輕重)을 삼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앞서처럼 쇠환하기만 힘쓰고 한 번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위무(威武)가 드날리지 않으며, 올적합 뿐만 아니고 가까이 사는 피인(彼人)들이 장차 업신여기고 거만한 마음을 낼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병조(兵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 261권 23년 1월 16일 丁亥

傳于刑曹曰：“推刷屠牛人，全家徙絕島.”

형조(刑曹)에 전교하기를, “소를 도살(屠殺)한 사람을 추쇄(推刷)하여 전가(全家)를 절도(絶島)로 옮기도록 하라.”하였다.

▶ 262권 23년 2월 24일 乙丑

乙丑/刑曹啓禁牛隻宰殺條：“一，去骨匠錄簿，保授管領、切隣，本曹或遣人撻奸，其有犯者，依律論罪，全家徙邊，其管領、隣保，以知情藏匿罪人律科斷。一，捕告者，依《大典》論賞，并給所宰牛皮肉。”

형조(刑曹)에서 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 조문(條文)을 아뢰기를,

“1. 거골장(去骨匠)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령(管領)·절린(切隣)에게 보증[保授]하게 하고, 본조(本曹)에서 간혹 사람을 보내어 그 간악(奸惡)함을 적발하게 하되, 범한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해서 전가사변(全家徙邊)하게 하고, 그 관령과 인보(隣保)는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준 율(律)로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1. <범인을> 잡아서 고한 자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논상(論賞)하고, 아울러 잡은 소의 가죽과 고기도 주게 하소서.”하였다.

▶ 273권 24년 1월 12일 戊寅

琮又啓曰：“海浪島在上國之境，而吾民潛往來捕水牛，立重法痛禁何如?”上曰：“然.”

허중이 또 아뢰기를, “해랑도(海浪島)는 중국의 지경에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몰래 왕래하면서 물소[水牛]를 잡아오니, 중한 법을 세워서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 276권 24년 4월 13일 丁未

御經筵.

~중략~

柱曰：“我國牝馬之直，不過綿布五、六匹，得段子一匹則利倍，故法不能禁. 遼東人與義州人往來交際若隣里然，平安道事煩役重，中原無事，故皆欲逃去.” 自新曰：“永安道五鎮之民，以牛馬鐵物，收賣皮物於野人，不自靳惜，請一切禁之. 且減進上皮物.” 特進官韓致禮啓曰：“臣聞，北征時兀狄哈家多有我國農器，是必以皮物收賣也.” 上曰：“買賣之禁，考前例重罪之可矣.”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중략~

권주(權柱)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암말 값은 면포(綿布) 5, 6필에 지나지 않는데, 단자(緞子)로 한 필을 얻는다면, 이익(利益)이 갑절이나 되기 때문에, 법(法)으로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동(遼東) 사람들이 의주(義州) 사람과 왕래(往來)하면서 인리(隣里)와 같이 교제(交際)합니다. 그러나 평안도(平安道)는 일이 번거롭고 부역(賦役)이 무거운데다가 중원(中原)은 일이 없기 때문에 모두 도망해 가고자 합니다.”하고, 여자신(呂自新)은 말하기를, “영안도(永安道) 오진(五鎭)의 백성들이 마소[牛馬]와 철물(鐵物)을 가지고 야인(野人)에게서 피물(皮物)을 수매(收買)하며 스스로 아까와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일체 금하도록 하시고, 또 진상(進上)하는 피물을 감(減)해 주소서.”하고, 특진관 한치례(韓致禮)는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북정(北征) 때에 울적함(兀狄哈)의 집에 우리나라의 농기(農器)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피물(皮物)로써 수매(收買)한 것일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매매(賣買)를 금하는 것은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죄를 무겁게 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 278권 24년 閏5월 16일 己酉

遼東都指揮使司移咨曰：“據經歷司呈抄，蒙欽差分守遼陽等處，副總兵羅批文，據委官定遼左衛管操指揮使陳鉞呈，蒙差委卑職管領官軍，護送朝鮮國，已故陪臣韓堰靈柩，於本年十月初九日，到地名鳳凰山，該管隊百戶申庚，看見高麗馱帶明盔一頂，隨稟卑職，拘換通事龔秀孫當官，審得愛州尉甲士全隆萬供稱男全萬均. 於弘治五年六月內，跟隨咨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文賚進官裴止, 到於遼東高麗市, 用細麻布二匹, 與買頭唐倫, 買到明盔一頂, 備供連盔呈稟, 據此照得犯人唐倫. 弘治四年行使, 違禁牛角弓面, 事發有罪, 遇蒙赦宥釋放, 今又仍蹈故轍, 累犯不悛, 合發問理, 爲此仰本司呈堂, 行送法司, 從公勘問明白, 依律照例, 議擬轉呈, 合干衙門, 詳允發落. 蒙此備呈, 行據定遼左等, 陸衛鎮撫等官哈英等呈, 將發下犯人唐倫, 連日會審本犯執供. 弘治五年二月內, 倫因違使弓面事發, 斷事司追問間, 遇蒙本年三月初八日赦宥釋放, 本年五月二十七日, 蒙欽差分守遼陽等處, 副總兵羅將倫拘, 發定遼後衛鎮撫, 收監二十八日, 轉發定遼中衛鎮撫, 收監二十九日. 本衛批差小甲封鉞, 將倫押送遼東馬跟單堡靜遠墩, 更替軍人張必刺禿守, 還至七月內, 被軍人劉添兒, 告蒙按察司, 行本衛提倫, 於八月二十一日, 解到廣寧問理, 九月二十日問完回衛. 本年十月內, 有定遼左衛指揮陳鉞管領人馬, 護送朝麟國〔朝鮮國〕, 已故陪臣韓堰靈柩到於鳳凰山, 被管隊百戶申庚, 得見來接, 高麗馱帶明盔一頂, 隨拘通事龔秀孫, 審得是愛州衛甲士全隆萬供說男全萬均. 弘治五年六月內, 跟隨賚進官裴止, 到於遼陽高麗市, 用細麻布二匹, 與買頭唐倫, 買到明盔等情, 據此緣係一面之詞, 兼係違禁重情, 未得明白, 有礙問報呈, 乞轉行查照等因案, 照前事已行發問去後, 令該前因, 合行查勘, 爲此除外, 合咨前去, 煩拘全隆萬男全萬均, 正身從公, 審問要見於何年月日在於何處地, 方用何布物買到, 是何姓名之人, 頭盔彼時交易曾有何人知見, 備查的確明白, 咨來以憑施行, 此係監人待報事理, 請勿遲錯.”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 이자(移咨)하기를,

“경력사(經歷司)의 정문(呈文)에 ‘뵈아 베껴 받은 흠차 분수 요양 등처 부총병(欽差分守遼陽等處副總兵) 나(羅)의 비문(批文)에 위하면, 위관(委官) 정료 좌위 관조 지휘사(定遼左衛管操指揮使) 진월(陳鉞)의 정문에 「위임받은 비직(卑職)이 관령(管領)하는 관군(官軍)이 조선국의 죽은 배신(陪臣) 한언(韓堰)의 영구(靈柩)를 호송하여 이해 10월 9일에 봉황산(鳳凰山)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관대 백호(管隊百戶) 신경(申庚)이 고려(高麗)의 짐에 명회(明盔) 한 정(頂)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비직에 딸린 통사(通事) 공수손(龔秀孫)이 관사(官司)에 데려가서 심문하여 정상을 알았는데, 애주위(愛州衛)의 갑사(甲士) 전용만(全隆萬)이 공초(供招)하기를, 아들 전만균(全萬均)이 홍치(弘治) 5년 6월에 자문 재진관(咨文賚進官) 배지(裴止)를 따라 요동에 가서 고려의 저자에서 통용하는 고운 삼베 두 필을 매두(買頭) 당윤(唐倫)에게 주고서 명회 한 정을 사 왔다고 하였으므로, 공초와 투구를 갖추어 바치며 여쭙니다.’ 하였으므로, 알아보니 범인 당윤은 홍치(弘治) 4년에 우각궁(牛角弓)의 금령(禁領)을 어긴 일이 드러나서 죄가 있었으나 마침 사유(赦宥)를 받아 석방되었는데, 이제 또 그대로 예전 잘못을 되밟아 거듭 범하고 고치지 않았으므로 보내어 신문시켜야 마땅하거니와, 본사에 바라건대 당상(堂上)에게 신보하고 법사(法司)에 알려 보내어 공정하게 명백히 신문하여 율문(律文)에 따르고 전례에 비추어 죄를 의논하고 관장하는 상급 아문(衙門)에 다시 신보하여 상세하고 마땅하게 결정하라 하였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적어 신보합니다.

또 정료 좌위(定遼左衛) 등 육위(陸衛)의 진무(鎭撫) 등 관원 합영(哈英) 등에게 알려 회보 받은 정문에 의하면, 범인 당윤을 보내려고 날마다 모여 범인을 심문하여 받은 공초에 「홍치 5년 2월에 당윤이 우각궁의 금령을 어긴 일이 드러나 단사(斷事)하는 관사에서 불러다

신문하는 사이에 마침 그해 3월 8월에 사유받아 석방되어, 그해 5월 27일에 흠차 분수 요양 등처 부총병 나(羅)의 명을 받아 당운을 구속하여 정료 후위 진무(定遼中衛鎮撫)에게 보내어 수감하고 28일에 다시 정료 중위 진무(定遼中衛鎮撫)에게 보내어 수감하고 29일에 본위(本衛)에서 비차(批差)한 소갑(小甲) 봉월(封鉞)이 당운을 그 동쪽에 있는 마근단보(馬跟單堡)의 정원돈(靜遠墩)에 압송하여 군인 장필랄독(張必刺禿)과 교체하여 지키게 하고 돌아왔는데, 7월에 이르러 군인 유첨아(劉添兒)에게 고발되어 안찰사(按察司)의 행문(行文)을 받아 본위에서 당운을 포박하여 8월 21일에 보내어 광녕(廣寧)에 이르러 신문받고 9월 20일에 신문이 끝나서 본위에 돌아왔다.」 하였고, 그해 10월에 정료 좌위 지휘 진월이 관령하는 인마(人馬)가 조선국의 죽은 배신 한언의 영구를 호송하여 봉황산에 이르렀을 때에 관대 백호 신경에게 고려의 짐에 명회(明盃) 한 정(頂)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지휘에게 딸린 통사 공수손이 심문하여 알아낸 애주위의 갑사 전용만의 공초에, 「아들 전만균이 홍치 5년 6월에 재진관 배지를 따라 요양에 가서 고려의 저자에 행용하는 고운 삼베 두 필을 매두(買頭) 당운에게 주고 명의 투구를 사 왔다.」 하였습니다. 한편의 말에 관계되고 금령을 어긴 중대한 정상에 관계되는데 명백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였으므로, 전의 일은 이미 행문하고 보내어 신문하게 하였거니와, 위의 사유로 아들 전만균을 구속하여 공정하게 심문하여,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어떤 포물(布物)로 사 왔고 성명이 무엇이라는 사람이며 투구를 교역(交易)할 때에 누가 보았는지를 상세히 살펴서 확실하고 명백하게 알려 주어 증빙이 되게 하되, 이것은 수감된 사람에 관계되어 회보를 기다리는 일이니, 지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였다.

▶ 278권 24년 閏5월 17일 庚戌

尹孝孫議: “牛馬之禁, 其來已久, 況載《大典》不可輕改, 其摘發節目, 依所啓施行.”
李陸、權從議: “禁防節目, 備在《大典》, 但當申明舉行耳. 不必別立新條.” 命更議于六曹、漢城府. 韓致亨、盧公弼、呂自新、洪貴達、李陸、申從濩、韓健、金克忸、李淑城、安琛、金首孫、曹淑沂議: “若許義州人買馬遼東, 則人將據此貿易, 弊將難禁, 宜禁私買, 只令公買取種, 以爲國用, 似爲利益, 姑試何如?” 朴樸、尹孝孫、權從議: “許民互市, 固不可行, 以雌馬易良驥, 於國家誠爲利益, 但今日利益, 安知爲異日之弊? 況輕毀《大典》之法, 恐爲未安.” 命示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李克培、尹壕、許琮、柳輕議: “依前議施行.” 盧思愼議: “臣於前議已盡, 今觀諸議, 其曰不許民買, 恐爲不可, 沿邊軍民, 買得駿馬, 國家之利也, 有何不可, 必欲禁之耶?” 李鐵堅、鄭文炯議: “牛馬等物買賣之禁, 載在《大典》, 不可輕改. 但摘發節目, 則當如戶曹所啓施行.”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우마(牛馬)의 금령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고, 더구나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적발하는 절목(節目)은 아뢴 대로 시행 하소서.” 하고, 이육(李陸)·권정(權從)은 의논하기를, “금방(禁方)하는 절목이 《대전》에 갖추어져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할 따름이고, 새 법조를 따로 세울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에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한치형·노공필·여자신·홍귀달·이육·신종호·한건·김극유·이숙감·안침·김수손·조숙기는 의논하기를, “만약 의주 사람에게 요동에서 말을 사는 것을 허가한다면, 사람들이 이에 따라 무역할 것이므로 폐단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니, 사사로이 사는 것을 금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매(公買)하게 하여 씨를 받아 국용(國用)으로 하면 이익이 될 듯하니, 우선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박건·윤효손·권정은 의논하기를, “백성들에게 서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진실로 시행할 수 없지만, 암말을 좋은 말과 바꾸는 것은 국가에 참으로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익이 뒷날의 폐단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구나 《대전》의 법을 가벼이 훼손하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보이라고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허중(許琮)·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전의 의논대로 시행하소서.”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신은 전의 의논에서 이미 죄다 아뢰었습니다. 이제 여러 의논을 보면, 백성에게 사는 것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아마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연변(沿邊)의 군민(軍民)이 준마(駿馬)를 사는 것은 국가의 이익인데, 무슨 안될 것이 있기에 반드시 금하려고 합니까?”하고, 이철견(李鐵堅)·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우마 따위 물건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금령은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발한 절목은 호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 281권 24년 8월 20일 壬午

壬午/下書諸道觀察使曰: “今有水原、南陽畜養水牛, 抵觸傷害人, 非徒此牛性惡而然, 守者常時不加意擾習, 或放于原野, 與野獸無異, 以致忌人故也. 其傷害人者, 不得已殺之, 使不得蕃息, 是豈可乎? 今後令守者, 朝夕調習, 使之馴擾可也.”

제도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에 물소[水牛]를 기르는데, 사람을 받아서 상해(傷害)하였다고 한다. 이는 소가 성질이 사나워서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상시로 마음을 더하여 길들이지 아니하고, 혹은 들판에 놓아두어서 들짐승과 다툼이 없게 되어 사람을 꺼리게 한 때문이다. 사람을 상해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죽여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 뒤로는 지키는 자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283권 24년 10월 4일 乙丑

乙丑/傳于承政院曰: “予聞水牛日滋, 齒老無用, 欲布於民間, 以資耕田何如?” 承旨等

啓曰：“此牛性本躁急，不宜於耕田，燥地則疾走，耕者不及行，濕地則却立不前。李克培嘗受賜，用以駕車輸物，未幾病死。宰相之家尙不能畜，況民間乎？宜畜于官府。”同副承旨權景祐啓曰：“臣嘗奉使濟州，觀山北風氣寒勁，草木易枯；山南冬無雪霜，木葉不彫，馬畜甚肥，水牛畏酷熱隆寒，若以全羅道分養水牛，移於濟州山南之地，則可指日蕃滋矣。”傳曰：“民間則果不可頒賜矣。濟州地暖，可致蕃息。但此牛性躁，舟載而行，恐驚動難濟也。”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들건대, 수우(水牛)가 날로 번식하나, 늙어서 소용이 없으니, 민간에 나누어 주어 밭을 가는데 쓰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이 소는 성질이 본디 조급하여 밭을 가는 데에는 마땅치 못합니다. 마른 땅에는 빨리 달려서 밭을 가는 자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습(濕)한 땅에서는 물러 서서 앞으로 가지 아니합니다. 이극배(李克培)가 일찍이 하사(下賜)를 받아서 수레에 메워 물건을 운반하였는데, 얼마 아니되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재상의 집에서도 오히려 기르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민간(民間)에서하겠습니까? 관부(官府)에서 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祐)는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제주(濟州)에서 사명(使命)을 받들고 가서 보니, 산 북쪽은 바람 기운이 춥고 세어서 초목이 쉽게 말라 죽고, 산 남쪽은 겨울에도 눈과 서리가 없어서 나뭇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말을 기르면 매우 살이 찹니다. 수우(水牛)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두려워하니, 만약 전라도에 나누어 기르는 수우를 제주도 산 남쪽 땅에 옮기면 뒷날의 번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민간에는 과연 반사(頒賜)할 수 없다. 제주도는 땅이 따뜻하므로 번식할 수 있으나, 다만 이 소는 성질이 조급하므로 배에 싣고 가면 경동(驚動)하여 아마도 건너기가 어려울 듯하다.”하였다.

▶ 283권 24년 10월 20일 辛巳

辛巳/御經筵. 講訖,
~중략~

正言柳崇祖啓曰：“上之戒謹天譴，欲民無弊至矣。然而守令未有能體上意者也。臣聞，諸邑要害岐路，皆設捕盜幕，其監考不時摘奸，若有闕守，或告官徵贖，或恐嚇受賂，盜賊不息，而民先受困。請勿設捕盜幕，各於其家具弓矢以備盜，又國馬及水牛，分養于諸邑，其喂養芻草，田一結定一束，令守吏監納，富强者行賂得免，貧窮無賴者獨受其弊，納官之際，以一駄草僅充一束，不獨此也，戶收細切草輪次飼養，而其監養者以不謹喂養輒訴之，守令不察虛實而罪之。又諸邑設捉鷹架子及捕虎檻穽，守令屢行摘奸，徵贖太濫，監考亦因緣恐嚇，多行侵漁，請禁之。”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중략~

정언(正言) 유송중(柳崇祖)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하늘의 견책을 경계하고 삼가셔서 백성에게 폐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 능히 성상의 뜻을 체득하는 자가 있지 아니합니다. 신이 듣건대 여러 고을 요해처(要害處)의 갈림길에 모두 포도막(捕盜幕)을 설치하고 그 감고(監考)가 불시에 적간(摘奸)하여 만약 지키기를 꺾(闕)하면 혹은 관에 고하여 속전(贖錢)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위협하여 뇌물을 받기도 하니 도둑은 지식되지 아니하는데 백성이 먼저 곤란을 받습니다. 청컨대 포도막을 설치하지 말고 각각 그 집에서 활과 화살을 갖추어서 도둑을 방비하게 하소서. 또 국마(國馬)와 수우(水牛)를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는데, 그 먹여 기르는 풀을 밭 1결(結)에 1속(束)으로 정하여 수리(守吏)로 하여금 감독해 바치게 하니, 부강(富強)한 자는 뇌물을 주어 면하고 빈궁하여 의뢰할 데 없는 자만 그 폐단을 받아서 관에 바치는 즈음에 한 바리[駄]의 풀이 겨우 1속(束)에 채워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戶)에 가늘게 자른 풀[細切草]를 거두어 돌려가면서 먹여 기르는데, 그 기르는 것을 감독하는 자가 먹여 기르기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득 수령에게 신고하면, 수령은 허실(虛實)을 살피지 아니하고서 그를 처벌합니다. 또 여러 고을에 매[鷹]를 잡는 가자(架子)와 호랑이를 잡는 함정(檻穽)을 설치하여 수령이 여러 번 적간(摘奸)하여 속전을 징수하는 것이 크게 지나치며, 감고(監考)도 이를 인연하여 많은 침어(侵漁)를 행합니다. 청컨대 이를 금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하생략~

▶ 284권 24년 11월 3일 甲午

義禁府判事鄭恬、知事李季全、刑曹判書成健、參判李陸等啓曰: “《大明律》私借官車船條: ‘凡監臨主守, 將係官車船店舍碾磨之類, 私自借用, 或轉借與人及借之者, 各答五十, 驗日追雇賃錢入官, 若計雇賃錢重者, 各坐贓論加一等.’ 名例: ‘其估贓者, 皆據犯處當時中等物價估計定罪, 若計雇工錢者, 一人一日爲銅錢六十文, 其牛駝騾驢車船碾磨店舍之類, 照依犯時雇工賃直賃錢雖多, 各不得過其本價.’ 解頤: ‘車船以下大小不同, 間要有異, 竝依借時賃直, 不可準常價爲估.’ 辨疑與此同. 疏議: ‘凡監臨主守之人, 將係官車船碾磨店舍之類, 私自借用, 或轉借與人及借用之者, 各答五十, 驗其借過之日, 每日追雇賃錢六十文, 入官雇賃者, 車與船可以行走, 故謂之雇店舍碾磨不動之物, 就其處以用之, 故謂之賃, 若計雇賃錢多, 重於答五十者, 各於坐贓論, 上加一等治罪.’ 臣等竊觀解頤、辨疑, 釋名例之意, 雖因時賃直爲準, 律條疏議以每日追雇賃錢六十文爲數. 律條疏議最後出, 斟酌解頤、辨疑而定之, 律有可疑處, 當以疏議爲主, 若坐贓致罪, 則借與官物者, 非受財之例, 安得各主通算而科罪乎? 以日數多者爲主, 擬斷何如?”
이하생략~

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 정관(鄭恬)·지사(知事) 이계동(李季全), 형조판서(刑曹判書) 성건

(成健)·참판(參判) 이육(李陸) 등이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 사차관거선조(私借官車船條)에 ‘무릇 감독하며 지키는 자로서 관(官)의 거선(車船)·점사(店舍)·연자매[碾磨] 따위를 사사로이 빌려쓰거나 혹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와 빌려 쓴 자는 각각 태(答) 50 대에 처하고, 그 날짜를 조사하여 하루마다 고임전(雇賃錢)을 <계산하여> 추징(追徵)해 관(官)에 들인다. 만약 고임전을 계산하여 죄가 무거운 자는 각각 좌장(坐贓)으로 논(論)하여 한 등(等)을 더한다.’고 하였는데, 명례(名例)에는 ‘고장(估贓)하는 것은 모두 범죄 당시의 그곳의 중등 물가(中等物價)에 의거하여 계산 과죄(計算科罪)한다. 만약 고공(雇工)의 임금(賃金)을 계산하는 것이 <사람이면> 1인당 하루에 동전(銅錢) 60문(文)으로 하고, 소·낙타·노새·나귀·거선(車船)·연자매·점사(店舍) 따위라면 범죄 당시의 고공 임금(雇工賃金)에 의거하여 계산하되, 그 <산출한> 임금 액수가 비록 많더라도 각각 그 본가(本價)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이(解頤)에는 ‘거선(車船) 이하는 대소(大小)가 같지 않고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모두 빌린 당시의 임금(賃金)에 의거할 것이며, 일정한 가격에 준하여 값을 준하여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변의(辨疑)도 이와 같습니다. 또 소의(疎議)에는, ‘무릇 감독하여 지키는 자로서 관(官)의 거선(車船)·연자매·점사(店舍) 따위를 사사로이 스스로 빌어 쓰거나 혹은 돌려서 빌려 준 자와 빌려 쓴 자는 각각 태(答) 50 대에 처하고, 그 빌려 쓴 날을 조사하여 하루마다 고임전(雇賃錢) 60문(文)씩을 추징하여 관(官)에 들인다. 고임(雇賃)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와 배는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고(雇)」라 하고, 점사(店舍)나 연자매는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기에 그것이 있는 자리에 가서 사용하므로 「임(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고임전(雇賃錢)을 계산한 것이 많아서 태(答) 50대보다 <죄가> 무거운 자는 각각 좌장(坐贓)으로 논하여 한 등(等)을 더하여서 치죄(治罪)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해이(解頤)와 변의(辨疑)를 보고 명례(名例)의 뜻을 해석해 보건대, 비록 범죄 당시의 임금(賃金)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였으나, 율조(律條)의 소의(疏議)에서는 하루마다 고임전(雇賃錢) 60문(文)을 추징한다고 수(數)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율조의 소의는 가장 뒤에 나온 것으로, 해이(解頤)와 변의(辨疑)를 참작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律)에 의심스런 곳이 있다면 마땅히 소의(疏議)를 위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좌장(坐贓)으로 치죄(治罪)한다면 관물(官物)을 빌려 준 것은 재물을 받은 예(例)가 아니니, 어찌 각기 통산(通算)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과죄(科罪)할 수 있겠습니까? 날짜가 많은 것을 위주로 하여 의단(擬斷)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이하생략~

▶ 285권 24년 12월 14일 甲戌

甲戌/下書諸道觀察使曰: “諸邑守令, 國馬水牛養飼芻草, 分定民間, 其收納委諸吏手, 富强者行賂得免, 貧殘者將一駄之草, 僅充一束, 猶以爲不足, 又於民間逐日徵納細切草, 其爲猥濫, 一至於此, 且諸邑設捕鷹架子, 捕虎檻穽, 不時撻奸, 汎濫徵贖, 因緣侵漁, 民受其害, 卿其嚴加檢察.”

제도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국마(國馬)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물소[水牛]를 사육[養飼]할 풀[芻草]을 민간(民間)에 나누어 정하면서 수납(收納)하는 것을 여러 아전의 손에 위임(委任)하니, 부유하고 강성(强盛)한 자는 뇌물(賂物)을 주고 면제(免除)받으나, 가난하고 잔약(殘弱)한 자는 한 마리[駄]의 풀을 가지고 겨우 1속(束)을 채우는데도 오히려 부족(不足)하게 여기며, 또 민간(民間)에서 날마다 잘게 자른 풀을 징납(徵納)하니, 그 외람(猥濫)됨이 한 결 같이 이에 이르렀다. 또 여러 고을에서 매[鷹]를 잡는 가자(架子)와 호랑이를 잡는 함정(檻穽)을 설치하였는데, 불시에 적간(摘奸)하고는 함부로 지나치게 징속(徵贖)하며 인연하여 침탈[侵漁]하니, 백성들이 그 폐해(弊害)를 받고 있다. 경은 더욱 엄하게 검찰(檢察)하도록 하라.”하였다.

▶ 289권 25년 4월 2일 庚申

庚申/傳于承政院曰: “《安驥集》、《水牛經》翻譯事, 已令李昌臣、李瑠、權五福爲之. 牛宜於耕, 馬宜於乘, 皆不可闕. 今之治牛馬病者, 皆用賤見之方, 而不倣於古, 故不能治療, 或致其死, 宜急翻譯, 印頒中外, 以至閭巷父老無不周知可也.”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안기집(安驥集)》의 《수우경(水牛經)》을 번역하는 일을 이미 이창신(李昌臣)·이거(李瑠)·권오복(權五福)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소는 밭갈이하는 데 알맞고, 말은 타는 데 알맞으므로, 모두 빠뜨릴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우마(牛馬)의 병을 치료하는 자들이 모두 천박(淺薄)한 소견(所見)의 처방을 쓰고, 옛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능히 치료하지 못하여 혹은 그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마땅히 급히 번역하여 중외(中外)에 인쇄 반포해서, 여항(閭巷)의 부로(父老)에 이르기까지 두루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291권 25년 6월 27일 甲申

傳旨司諫院: “當日義禁府門外人家屠牛, 見獲於中官, 官府之側, 縱恣如此, 是必該司不能糾察也. 其鞫刑曹、憲府官吏.”

사간원(司諫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당일(當日) 의금부(義禁府)의 문 밖에 있는 인가(人家)에서 소를 잡다가 중관(中官)에게 잡혔다. 관부(官府)의 곁에서 방자함이 이와 같음은 반드시 해사(該司)에서 능히 규찰(糾察)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형조(刑曹)·헌부(憲府)의 관리(官吏)를 국문(鞫問)하라.”하였다.

▶ 291권 25년 6월 28일 乙酉

乙酉/傳于吏曹曰：“憲府官員方被推，諫院宜速遞差。”

【史臣曰：“鄭敬祖等，處言官，可言而不言，其所言，不合國家大體。至是以不能禁殺牛見遞，非其職也，然人甚快之。”】

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 “헌부관원(憲府官員)이 이제 추문(推問)을 받고 있으니, 간원(諫院)은 속히 체차(遞差)함이 마땅하겠다.”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경조(鄭敬祖) 등은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말할 만한 것은 말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은 국가(國家)의 대체(大體)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소 잡는 것을 능히 금(禁)하지 못하여 체임(遞任)을 당하였으니, 그 직책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히 쾌(快)하게 여겼다.” 하였다.

▶ 295권 25년 10월 9일 甲子

弘文館副提學成世明等上劄子曰：

臣等聞中部民家，有雌雞三足，物怪甚異，不勝駭愕。

~중략~

世明等曰：“臣等初聞雞妖，深駭物怪，據古事以啓，欲殿下修省耳，非謂殿下某事失而有是應也。然妖不妄作，殿下當警省不暇，豈可委之卿士小民而謂爲膠固牽合之說乎？慈壽宮佛事，豈無上命而官爲設幕治道乎？今教曰：‘予所不知’，臣竊驚愕。宮闈佛事，內人出入，殿下不知可乎？臣等聞佛事適有雞妖，不敢不啓耳，非謂因佛事致是妖也，又非刺斥歸咎於上也。”傳曰：“妖怪之物，自古有之，人有一乳生三子者，向有獻白牛者，予怪而却之，其時無言其怪者。古云：‘牝雞之晨，惟家之索’雞或有夕鳴者，此乃一家之妖，豈皆上之人有以致之？慈壽宮佛事，予所不知。內人之往，雖大妃之命，豈盡告於予？慈壽宮有事，例送帳具，非爲佛事也，其治道路，非予所命，旣云：‘(困)〔因〕佛事而有是怪’，又云：‘非因佛事而致是怪’，何前後言之異歟？爾等職在論思，以非予所爲，動輒歸咎，可乎？”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성세명(成世明)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신(臣) 등이 듣건대 중부(中部)의 민가(民家)에 세 발이 달린 암탉이 있는데, 물건이 괴상하고 심히 이상하다고 하니, 몹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

~중략~

하였다. 성세명 등이 말하기를,

“신 등이 처음에 답의 요괴한 일을 듣고는 물건이 괴이(怪異)한 데에 깊이 놀라 고사(古事)에 의거하여 아뢰는 것은 전하께 수정(修省)하시게 하려고 함이고, 전하께서 아무 일을 실수하셔서 응험(應驗)이 있다고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괴로움은 망령되게 일어나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경계하고 반성하시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어찌 경사(卿士)와 소민(小民)에 맡겨서 교고(膠固)한 견합지설(牽合之說)을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수궁(慈壽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宮)의 불사(佛事)가 어찌 임금의 명이 없는데도 관(官)에서 장막(帳幕)을 설치하고 도로를 닦았겠습니까? 이제 하교(下敎)하시기를, ‘내 알지 못하는 바이다.’고 하시었으니, 신은 그웁이 몹시 놀랐습니다. 궁위(宮闈)의 불사(佛事)에는 나인(內人)이 출입(出入)하는데 전하께서 알지 못하심이 옳겠습니까? 신 등은 불사(佛事)를 듣고 마침 닭의 요괴한 일이 있었으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불사(佛事)로 인해서 이 요괴(妖怪)한 일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허물을 성상께 돌리어 자척(刺斥)함도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괴한 물건은 예로부터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한 태 안에서 세 아들을 낳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번에는 백우(白牛)를 바친 자가 있었기에 내가 괴이(怪異)하게 여기고 물리쳤는데, 그 때에는 그 괴이함을 말한 자가 없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다. 닭이 혹 저녁에 우는 것이 있으면, 이는 바로 한 집안의 요괴한 일인데, 어찌 모두 위에 있는 사람이 불러일으킨 것이겠는가? 자수궁(慈壽宮)의 불사(佛事)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며, 나인(內人)의 가는 것은 비록 대비(大妃)의 명(命)이라 하더라도 어찌 다 나에게 고(告)하겠는가? 자수궁(慈壽宮)에 일이 있으면 으레 장구(帳具)를 보냈으나, 불사(佛事)를 위함이 아니며, 그 도로(道路)를 닦은 것은 내가 명(命)한 바가 아니다. 이미 ‘불사(佛事)로 인해서 이 괴이(怪異)함이 있다.’ 하고서는 또 ‘불사(佛事)로 인해서 이 괴이(怪異)함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어찌 전후(前後)의 말이 다른가? 그대들은 직책이 논사(論思)함에 있다. 나의 소위(所爲)가 아닌 것을 가지고 걸핏하면 곧 허물을 돌림이 옳겠는가?” 하였다.

▶ 295권 25년 10월 17일 壬申

義禁府啓: “良人張芴叱同等, 違禁入海浪島, 取水牛脯二千七帖、皮一百一張、穀八十碩輸來罪, 律該爲首芴叱同絞待時.” 政院啓曰: “前此來往海浪島者, 但照以越度緣邊關塞, 律杖一百徒三年. 今當以死罪, 所犯同而照律異.” 傳曰: “其問于會賓廳諸宰.” 弼商等啓曰: “海中滄波, 不可盡爲此疆彼界. 無知小民, 往來無涯之境, 固非出境外者比也. 況此來往者, 已按以不死之律, 今之論死, 恐過重.” 傳曰: “出境之罪, 固不可赦. 然群議如是, 其減死.”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양인(良人) 장잉질동(張芴叱同) 등이 금령(禁令)을 어기고 해랑도(海浪島)에 들어가 수우포(水牛脯) 2천 70첩(帖), 가죽[皮] 1백 1장(張), 곡물[穀] 80 석(碩)을 취(取)하여 실어온 죄는 율(律)이 수범(首犯)인 잉질동(芴叱同)에게는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해랑도(海浪島)를 내왕(來往)한 자는, 다만 연변(緣邊)의 관새(關塞)를 넘어갔다고 하여 율(律)이 장(杖) 1백에, 도(徒) 3년으로 조율(照律)하였습니다. 이제 사죄(死罪)를 당(當)하여 범한 바는 같은데 조율(照律)함은 다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빈청(賓廳)에 모인 여러 재상에게 물어라.” 하였다. 윤

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바다 가운데의 창파(滄波)는 이 지경[疆]과 저 경계[界]가 됨을 그을 수 없는데,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이 무애(無涯)한 지경을 왕래함은 진실로 경외(境外)로 나가는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러한 내왕자(來往者)는 이미 불사(不死)의 율(律)로써 안률(按律)하였으니, 지금의 논사(論死)는 아마도 과중(過重)한가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외(境外)로 나간 죄(罪)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나, 군의(群議)가 이와 같으니, 그를 감사(減死)하라.”하였다.

▶ 296권 25년 11월 11일 丙申

丙申/義禁府啓: “金自松等, 潛渡海, 入海浪島, 捕水牛, 載皮肉而來, 罪律該斬不待時.” 命議之. 尹弼商、李克培、盧思愼、韓致亨、鄭文炯、柳輕議: “前此金飛羅等減死. 今自松之罪, 與彼無異, 請減死.” 傳曰: “可.”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김자송(金自松) 등이 몰래 바다를 건너 해랑도(海浪島)에 들어가 물소[水牛]를 잡아 가죽과 고기를 싣고서 온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유지(柳輕)가 의논하기를, “이 앞서 김비라(金飛羅) 등을 감사(減死)하였는데, 지금 김자송의 죄는 그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감사(減死)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10. 燕山君日記

▶ 4권 1년 3월 10일 癸巳

(持平崔)漣又啓 “閑雖有武才，其所行如此。訓練院，乃武士所聚之地，麤悍者多、識理者少。須得有名望心行者居之，然後可以鎮其下。閑遞慶源來時，其所奸妓，登高而呼曰：‘閑乎，閑乎！汝棄我去，我將誰托。’閑之無行，至使呂妓，斥呼其名，其人果將何用？不可不遞。霖之近妾，若在卒哭外，則臣等不敢復啓。着衰服往來妾家，不可不懲。近來風俗不古，方在國喪，有搥牛宮內者；有以戚里、朝士，帶妓自恣者；有以前銜宰相，宰牛而食者。臣等方鞠之，若霖則其罪已著。若此不罪，則他無所懲。” 命議于院相。 “尹弼商啓： “霖之妾固非新娶。然服君喪近妾，不可以爲是，姑從臺諫之言。陸閑武才卓異，終不可棄，臺諫所論者，以不合都正耳，遞之爲便。” 傳曰： “田霖以時推照律，陸閑其遞之。” 傳于院相曰： “若用某人，則臺諫必摘其小過，而來啓。予亦以臺諫所言，不可不聽。故因而遞之。臺諫之勢甚張，此風豈可長乎？” 弼商啓： “固有如此之弊。然臺諫之言，斷在上意耳。” 承旨權景祐，從旁言曰： “臺諫之言，豈得不聽？言人過失者，惟有臺諫耳。若不聽信，則雖有過失，將何所聽聞乎？” 弼商聞其言，卽曰： “臺諫之言，雖有可責，亦當容受。” 又曰： “上教允當。”

(지평 최)보가 또 아뢰기를,

“한이 비록 무재는 있으나 그 행실이 이와 같으니, 훈련원은 무사들의 모인 곳으로 거칠고 모진 자가 많고 이치를 아는 자는 적으므로, 모름지기 명망과 행검이 있는 사람을 얻어서 그 자리에 둔 연후에야 그 아랫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인데, 한이 경원에서 갈려 올 때에 그가 관계한 기생이 높은데 올라서 소리를 질러 ‘한아, 한아, 네가 나를 버리고 가니, 나는 장차 누구에게 의탁할꼬.’ 하였으니, 한의 부정한 행실이 그 고을 기생으로 하여금 이름을 부르게까지 하였으니, 그런 사람을 과연 어디에 쓰겠습니까. 관직을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이 첩을 가까이 한 것이 만일 졸곡(卒哭) 뒤에라면 신들이 감히 다시 아뢰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복을 입고서 첩의 집에 왕래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풍속이 예와 달라서 국상 중에서도, 궁(宮) 안에서 소를 때려잡는 자도 있고, 척리(戚里)와 조사(朝士)로서 기생을 데리고 방자히 노는 자도 있고, 전직 재상으로서 소를 잡아먹는 자도 있어, 신들이 방금 국문하고 있사온데, 임과 같은 자는 그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이런 것을 죄주지 아니하면 다른 이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게 하매, 윤필상이 아뢰기를, “임의 첩이 새로 얻은 것이 아니나, 임금의 상복을 입고 첩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으니, 우선 대간의 말을 좇으소서. 육한은 무

재가 특수하니, 마침내 버릴 수는 없으나, 대간의 논한 것은 훈련도정(訓練都正)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니, 직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전임은 법에 의해 처치하고, 육한은 직을 갈라.”하고, 원상(院相)에게 전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을 쓰면 대간이 반드시 그 작은 허물을 캐내어 와서 아뢰는 것인데, 나도 역시 대간이 말한 바를 듣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직을 갈았으나, 대간의 세력이 심히 세니 이 풍습을 어찌 기를 수 있겠는가?”하였다. 필상이 아뢰기를, “진실로 이와 같은 폐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말을 듣는 것도 전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하였다. 승지 권경우가 옆에서 말하기를, “대간의 말을 어찌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말할 수 있는 자로는 오직 대간이 있을 뿐인데, 만일 들어 믿지 않으면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장차 어디에서 듣겠습니까.”하였다. 필상이 그 말을 듣고 곧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비록 책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또한 마땅히 용납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하였다.

▶ 4권 1년 4월 15일 戊辰

戊辰/司畜署提調尹殷老, 書牛、羊、猪、鴨喂養, 鹽、豆、糟糠之數以啓曰: “所飼不敷, 因此疲瘦. 天使之來, 不合支供. 請倍飼之.”從之. 院相鄭恬、承旨等議啓: “各司如有所啓, 則當先報該曹, 轉達于上. 今各司提調, 雖不緊事, 必皆親啓. 如殷老所啓, 豈宜親啓者乎? 彼斗升細事, 非人主所當知. 請今後, 悉報該曹, 勿令直啓.”

사축서제조(司畜署提調) 윤은로(尹殷老)가 소·염소·돼지·오리들에게 먹이는 소금·콩·겨의 수량을 적어서 아뢰기를, “먹이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몹시 여위어서,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진공하기에 알맞지 않아오니, 먹이를 배로 늘려 주소서.”하니, 그 청에 따르매, 원상(院相) 정괄과 승지들이 의계하기를, “각사(各司)에서 만약 아뢰는 일이 있으면 먼저 해조(該曹)에 보고하여 위에 전달(轉達)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각사의 제조(提調)가 낯하지 않은 일이라도 반드시 다 친계(親啓)하고 있습니다. 윤은로의 아뢰는 바와 같은 것이 어찌 친계해야 할 일입니까. 저 한 말 되 따위 작은 일은 임금으로서 아셔야 할 바가 아니오니, 이 뒤로는 모조리 해조(該曹)에 보고하고 직계(直啓)하지 말게 하소서.”하였다.

▶ 5권 1년 5월 5일 丁亥

禮曹據忠淸道觀察使書狀, 啓: “緇流之徒, 當國之喪, 多畜鷹犬, 公然調放. 廣占田園, 蕃育牛馬. 或(對)〔帶〕妻育子、或通官妓, 容隱年丁, 誑誘愚民. 或稱社長、或稱道士, 男女雜處, 相奸無忌, 敗毀風俗, 漸不可長. 畜鷹犬僧人, 請出其不意, 掩捕科罪; 稱社長、道士者及知而不告維那, 竝推鞠科罪; 違法創造寺社, 亦依書狀, 撤去其寺刹; 奴婢、牛馬、布穀, 令該曹區處.”傳曰: “僧人等果有所犯, 則固當依法治罪. 然亦是吾民, 所居之舍, 不可遽令撤去.”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예조에서 충청도관찰사의 서장(書狀)에 의하여 아뢰기를, “중의 무리가 국상을 당하여 매·개[鷹犬]를 많이 길러 공공연하게 길들이며 널리 전원(田園)을 차지하고 소·말을 번식 양육하며, 혹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기르며, 혹은 관기(官妓)를 통간하고 장정[年丁]을 숨기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유인하며, 혹은 사장(社長)이라 칭하고 혹은 도사(道士)라 칭하며, 남녀가 함께 모여 간음하기를, 거리낌없이 하여 풍속을 무너지게 하니, 그 버릇을 그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매·개를 기르는 중들은 불의에 업습하여 잡아서 죄를 주고, 사장·도사라 칭하는 자 및 알고서도 고하지 않는 유나(維那)는 모두 추국(推鞠)하여 죄를 주고, 법을 어기고 절이나 사사(寺社)를 지은 것은 역시 서장에 의하여 철거하되, 그 사찰의 노비(奴婢)나 소·말·배·양곡은 해조(該曹)에서 처리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중들이 과연 범행이 있다면 의당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나, 역시 우리 백성들이 거쳐하는 집이니, 줄지에 철거하게 함은 불가하다.”하였다.

▶ 5권 1년 5월 16일 戊戌

前兪知沈湄, 方在國恤, 連宰二牛. 司憲府, 按律以錄敗常案, 杖一百、徒一年半, 入啓. 承政院啓: “徒役, 庶民之事. 宰相有罪, 使之徒役, 未便.” 傳曰: “然則付處, 似可, 而無有期限, 反重於徒. 其更議于院相.” 尹弼商議: “徒年有限; 付處無期, 上教允當. 然二品宰相定徒役, 於事體未便.” 傳曰: “只錄案.”

전 첨지(兪知) 심미(沈湄)가 바야흐로 국상 중인데 잇달아 소 2마리를 잡았으므로, 사헌부가 패상안(敗常案)에 기록하고 장 1백, 도(徒) 1년 반으로 안률(按律)하여 입계(入啓)하고, 승정원이 아뢰기를, “도역(徒役)은 서민의 일입니다. 재상이 죄가 있다고 도역하게 하는 것은 미편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부처(付處)함이 가할 듯한데, 기한이 없으므로 도리어 도형보다도 중하니, 다시 원상에게 의논하라.”하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도형은 기한이 있지만 부처는 기한이 없으니, 상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2품 재상을 도역에 정하는 것은 사체에 미편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녹안(錄案)하기만 하라.”하였다.

▶ 7권 1년 7월 10일 辛卯

臺諫又啓: “上教思愼書啓之辭, 異於臣等所聞. 非徒避嫌, 又別有他意, 而但以傳聞之事, 不可上達, 故請見耳. 朝廷之事, 臺諫所當知, 而今不示之, 未知上意何如, 湯老事若以爲母后之弟, 而不鞠, 則沈湄, 照憲王后〔昭憲王后〕之三寸姪, 而主沈氏之祀, 頃以國喪內宰牛之罪, 既錄敗常案, 又收職牒. 湯老之罪浮於湄, 而切親則無異, 只罷其職, 其用法不均, 不可以存沒, 而輕重其罪也. 印經事上教云: ‘若不勞民傷財, 則爲之何害?’ 本宮之民, 亦國家之民, 其財亦國家之財, 則其可不爲勞民傷財乎? 當謹其微, 而諫止之

耳.”不聽. 臺諫又啓: “大臣之職, 坐而論道, 君有美德, 則將順之; 君有過舉, 則匡救之. 頃者臺諫言事, 而囚係之, 此殿下之過舉也. 大臣聞之, 則將奔走匡救之不暇, 思愼乃曰: ‘上教允當.’ 其無大臣之意甚矣, 故臣等欲鞫之耳. 自古大臣欲用事, 則先塞臺諫之口, 使之不言, 然後恣其所爲. 臣等聞其書啓之辭, 曰威斷, 曰喜賀. 此若實言, 則其有關於國家大矣, 豈不寒心哉? 此實杜塞臺諫口, 欲用事之漸也. 且宰相之過, 臺諫不言, 則殿下何以知乎? 此臣等所以請見不已也.”不聽.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신 사신(思愼)의 서계한 사언이 신들이 들은 것과는 달라서 한갓 피험할 뿐 아니라, 또 별도로 다른 뜻이 있는 모양이지만 전해들은 것이어서 상달할 수 없으므로 보여 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조정의 일은 대간이 알아야 할 것이인데, 이제 보여 주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알 수 없사오며, 탕로(湯老)의 일에 대하여는 만약 모후(母后)의 아우라 하여 국문을 아니한다면, 심미(沈湄)는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친정 삼촌 조카로서 심씨의 제사를 맡은 처지로되 지난번 국상(國喪) 중에 소를 도살한 죄로써 이미 패상안(敗常案)에 기록되었고, 또 직첩(職牒)까지 환수하였사오니, 탕로의 죄는 심미보다 더하옵고 친(親)으로 따져도 다름이 없사온데, 과직만 시키는 것은 국법을 사용함이 고르지 못하오니, 왕후(王后)가 살아 계시고 안 계신 것으로써 그 죄가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경 박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상교에 ‘만약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들 무엇이 해로우냐.’ 하시지만, 본궁(本宮)의 백성도 국가의 백성이요, 그 재물도 국가의 재물이오니, 어찌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상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세미한 것부터 삼가하여 간해서 말리셔야 할 것입니다.”하니, 듣지 않으매, 대간이 또 장계하기를, “대신(大臣)의 직책은 앉아서 도(道)를 논하며, 임금의 아름다운 덕이 있으면 받들어 순종하고, 임금이 그릇된 처사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운데, 지난번에 대간이 간언(諫言)을 하는데 잡아 가두었으니, 이는 전하의 그릇되신 행동이오라, 대신이 그것을 들었다면 장차 분주하여 바로 잡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사신(思愼)은 곧 말하기를 ‘상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으니, 그 대신의 직을 하찮게 여기는 뜻이 너무도 심하므로 신들이 국문하려는 것이옵니다. 예로부터 대신이 용사(用事)하려고 하면 먼저 대간의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한 뒤에야 그 소행을 마음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신 등이 그의 서계한 사언을 듣자오니, 위단(威斷)이다거나 기뻐서 치하한다거나 하였다 하오니, 이것이 만약 참말이라면 국가에 관계됨이 너무도 큼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까. 이는 실로 대간의 입을 막아서 용사(用事)하려 할 조짐입니다. 또 재상의 과오를 대간이 말하지 않으면 전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으리까. 이것이 신들이 보여 주시기를 청해 마지않는 것입니다.”하니, 듣지 않았다.

▶ 21권 3년 2월 1일 癸酉

朔癸酉/禮曹書啓曰:

《文獻通考》宗廟考註云: “籩前之俎爲二重, 第一重實以牛腥七體, 兩脾、兩脅、兩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肩、竝脊，而兩脾在兩端，兩肩、兩脅次之，脊在中。第二重實以羊腥七體，其載如牛。豆前之俎實以豕腥七體，其載如羊。頭右之俎爲三重，第一重牛、羊、豕首各一。”我朝《五禮儀》註云：“籩前俎一實牛腥，一實羊七體，兩脾、兩肩、兩脅、并脊，而脾在兩端，肩脅次之，脊在中。豆前俎實豕腥七體，其載如羊，而牛、羊、豕首無稱，與古文小異。詳究本意，未知其詳。今後羊、豕首連脊尾爲一體薦之何如？且羔、羊一類，然羊非本國所產。故詳定時，社稷臘、春、秋大祭，親行羊四口，攝行羊一口。緣此，攝行時用羔。今羊多蕃息，雖攝行之時，用羊何如？

傳曰：“議之。”尹弼商議：“今羊蕃息可繼之，但用羔已久，令禮曹、弘文館廣考古制。”盧思愼、愼承善議：“禮文凡祭祀之牲，用牛、羊、豕，而無用羔之文。我國宗廟用羊，社稷用羔。雖未知其所以然，宗廟、社稷一體，不可有異，依宗廟用羊恐爲得禮。”魚世謙、韓致亨、鄭文炯、李克敷、柳輕議：“大祀用牢，則牛、羊、豕。先王朝宗廟用羊，社稷用羔，未知何據而然。但羊與羔，等是牲耳，豈有別乎？先王舊章，不可輕改，令禮官詳考祖宗朝制禮之意，參酌古制，更啓後擬議施行。”成俊議：“以羔代羊之由，臣未得知。然均是大祀，依宗廟禮，用羊似當。”王從俊議。

예조가 서계(書啓)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 중 종묘고(宗廟考)의 주에 이르기를, ‘변(籩) 앞의 조(俎)가 두 줄[重]이다. 첫째 줄은 소의 날고기 체(體)로 채우니 두 다리[脾]·두 갈비[脅]·두 어깨와 등허리인데, 두 다리가 양쪽 끝에 있고 두 어깨·두 갈비가 그 다음이요, 등허리는 가운데에 둔다. 둘째 줄은 양의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소와 같고, 두(豆) 앞의 조는 돼지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양과 같다. 그리고 머리 오른쪽의 조는 세 줄이 되는데, 첫째 줄은 소와 양과 돼지의 머리 하나씩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아조(我朝) 《오례의(五禮儀)》 주에는 이르기를, ‘변 앞의 조는 하나를 소의 날고기로, 하나는 양의 7체로 채우는데, 두 다리 두 어깨 두 갈비와 등허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리가 두 끝에 있고 어깨 갈비가 그 다음이요 등허리가 가운데 있고, 두 앞의 조에는 돼지의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양과 같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돼지의 머리를 말한 것이 없으니, 옛 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본 뜻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았지만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양과 돼지의 머리를 등허리 꼬리에 이어서 하나로 하여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염소와 양은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양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을 마련할 때, 사직(社稷)과 납일(臘日)과 봄 가을 큰 제사에 친행(親行)할 때에는 양 네 마리로 정하였고, 섭행(攝行)할 때에는 양 한 마리로 정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섭행할 때에는 염소를 썼습니다. 지금 양이 많이 번식하였으니 섭행할 때에라도 양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게 하라.”하자,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양이 번식하였으니 쓸 수는 있겠지만 염소를 쓴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예조와 홍문관에서 널리 제도를 상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신승선(愼承善)은 의논드리기를, “예문에 보면 모든 제사의 희생(犧牲)은 소와 양과 돼지를 쓰고, 염소를 쓴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묘에는 양을 쓰고 사직에는 염소를 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종묘와 사직은 일체(一體)이므로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묘에서 하는 대로 양을 쓰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을까 합니다.”하

고, 어세겸(魚世謙)·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이극돈(李克墩)·유지(柳輕)는 의논드리기를, “큰 제사에 희생[牢]으로 쓰이는 것은 소와 양과 돼지입니다. 선왕조에서 종묘에는 양을 썼고, 사직에는 염소에 썼던 것이 어디에 근거하여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과 염소가 같은 희생이니 어찌 구별됨이 있겠습니까. 선왕의 옛 법을 가볍게 고칠 수는 없으니, 예관(禮官)에게 조종조에서 예법 만든 뜻을 자세히 상고하게 하고 옛 제도를 참작하여 다시 아뢰게 한 후에 의논을 보아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염소로 양을 대신한 이유를 신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큰 제사이니 종묘의 예절에 따라 양을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는데, 왕이 성준의 논을 좇았다.

▶ 23권 3년 5월 9일 庚戌

庚戌/傳曰: “雄水牛四隻, 其送于內需司.”

전교하기를, “숫물소 네 마리를 내수사(內需司)로 보내라.”하였다.

▶ 24권 3년 6월 24일 甲午

下書于諸道監司曰:

我國多畜水牛, 而不習耕田, 無益於用. 其令各官具農器習耕, 能耕與否聞奏.

각도감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우리나라에서 물소[水牛]를 많이 기르는데 밭갈이에 익숙하지 못하니 실용에 도움될 것 같지 않다. 각 고을에서 농구를 갖추어 갈기를 익혀 보게 하여, 밭갈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아뢰라.”하였다.

▶ 25권 3년 7월 18일 丁巳

領事韓致亨曰: “各牧場耕墾殆盡, 有妨牧馬. 量田後加耕處一禁.” 特進官李克均曰: “馬政甚大. 今九千場則樹木茂密, 人民鮮少, 馬不蕃息. 臣意, 絶影島可牧馬處也. 請去所放之牛, 九千場馬移牧此島.”

영사(領事) 한치형(韓致亨)은 아뢰기를, “각 목장(牧場)이 거의 다 농경지로 개간되어 말 먹이기에 방해되오니, 밭을 측량해서 더 경작한 곳을 일제히 금하소서.”하고, 특진관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마정(馬政)은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 구천 목장(九千牧場)은 수목이 울창하고 인민이 희소하여 말이 잘 번식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 절영도(絶影島)가 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먹일만한 곳입니다. 청컨대 방목하는 소를 치우고 구천 목장의 말을 이 섬으로 옮겨서 먹였으면 합니다.”하였다.

▶ 27권 3년 9월 22일 庚申

笠山君孝植妻沈氏訟其父湄罪，命議之。尹弼商、韓致亨、柳輕議：“請依刑曹所啓。”慎承善、朴安性議：“湄實爲卒哭內宰牛，則罪固非輕。但以時推照律，不無曖昧之情。”鄭文炯議：“湄王室至親，位至二品，上恩至重，且非不知事理者。卒哭內宰牛，情理所不忍。然其時決罪錄案，今未得輕議。但上言內：‘欲至死發明，而以時推照律，誤受重罪。’其時推案，更令政院考啓。”李克墩、尹孝孫議：“湄乃昭憲王后父溫之奉祀嫡孫，國家所宜收錄。但既已定罪，罪名不細，伏惟上裁。”成俊議：“觀其上言，則不可無疑。凡宰相、朝士家，內外隔絕者多，奴婢所爲，或不能盡知。今湄家奴被推時，不知其主罪之輕重，畏杖誣服，不無其理。況斷罪時，以時推照律，恐或曖昧。”李世佐議：“湄若知情宰殺，雖終身廢錮，猶不贖罪。但家長庸暗，威令不行，豪奴不義之事，或有不知之理。湄不輸情，而以時推定罪，恐或曖昧。命該司，更考推案，知情與否，詳議施行何如？”從世佐議。

축산군(笠山君) 이효식(李孝植)의 아내 심씨(沈氏)가 그 아버지 심미(沈湄)의 죄를 송(訟)하므로 명하여 수의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유지(柳輕)는 의논드리기를, “청컨대 형조(刑曹)에서 아뢴 것을 따르시옵소서.”하고, 신승선(慎承善)·박안성(朴安性)은 의논드리기를, “심미(沈湄)는 졸곡(卒哭) 안에 소[牛]를 잡았으니, 죄가 확실히 가볍지 않으나 다만 시추(時推)로써 율(律)을 참조한다면 애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드리기를, “심미는 왕실의 지친(至親)이며 지위가 2품(品)에 이르렀사오니, 상은(上恩)이 지중하옵고 또 사리를 모르는 자도 아닌데, 졸곡(卒哭) 전에 소를 잡은 것은 정리상 차마 못할 바입니다. 그러하오니 그때 죄를 판결해서 문안(文案)에 기록하였으니, 지금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언(上言) 내에 죽도록 발명하고 싶었는데 시추(時推)로써 율(律)을 참조하기 때문에 그런 중죄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그때의 추안(推案)을 다시 승정원으로 하여금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소서.”하고, 이극돈(李克墩)·윤효손(尹孝孫)은 의논드리기를, “심미는 바로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아버지 심온(沈溫)의 제사를 받드는 적손(嫡孫)이므로 국가에서 마땅히 수록(收錄)해야 하는데 다만 이미 죄가 결정되고 그 죄가 경미하지 않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그 상언(上言)을 살펴보면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무릇 재상(宰相)이나 조관(朝官)의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동떨어진 것이 많아서 노비(奴婢)의 하는 것을 혹은 모두 알지 못하옵니다. 지금 심미의 집 종이 심문을 당할 적에 제 상전의 죄가 가볍고 무거운 것은 모르고서 형장(刑杖)이 두려워 거짓 자복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죄를 결단할 적에 시추(時推)로써 율(律)을 참조하였으니, 혹시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옵니다.”하고, 이세좌(李世佐)는 의논드리기를, “심미가 만약 사정을 알면서 소를 잡았다면 종신토록 폐고(廢錮)를 당한다 해도 오히려 속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가장(家長)이 용렬하고 암매해서 위엄과 명령이 행하지 못

하오면 거센 종들의 옳지 못한 일을 혹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미가 자복하지 않는데 시추(時推)로써 죄를 결정한다는 것은 혹시 애매하지 않을까 하오니, 청컨대 해사(該司)에 명령하여 다시 추안(推案)을 상고하여 진실 여부를 알아낸 연후에 자세히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하니, 세좌(世佐)의 의논을 좇았다.

▶ 28권 3년 11월 12일 己酉

尹弼商議：“沈湄既已定罪，勢難追改。然原其情，國喪一朔內，再度宰牛，非人臣所忍爲也，而況方欲自明，以時推照律，恐或曖昧。”李克墩、尹孝孫議：“事在數年之前，更究得情爲難。”傳曰：“事涉可疑，其許通。”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심미(沈湄)는 이미 죄가 결정되었으니, 형편상 추후해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루어 생각하오면 국상(國喪)이 난 지 한 달 안에 2번이나 소를 잡았는 것은 인신(人臣)으로서 차마 그랬으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방금 스스로 해명하려고 하는 터이오니 시추(時推)로 율(律)에 참조한다는 것은 혹시 애매하지 않을까 하옵니다.”하고, 이극돈(李克墩)·윤효손(尹孝孫)은 의논드리기를, “일이 수년 전에 있었던 것이오라, 다시 추구하여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가의(可疑)에 가까우니 통청(痛淸)을 허하도록 하라.”하였다.

▶ 28권 3년 11월 17일 甲寅

臺諫啓：“臣等論宦官遞兒加設事，已踰旬月，而未蒙允可。宋琚犯私罪見罷，未經年敍用。沈湄以宰相，卒哭內宰牛，敗常莫甚，人所共憤，而特命許通。此皆毀成法，累聖德。”不聽。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신 등이 내시 체아(遞兒)를 가설(加設)하는 일은 논박한 지가 이미 한 달인데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며, 송거(宋琚)는 사죄(私罪)를 범하여 파직을 당하였는데, 1년이 채 못 되어 서용(敍用)이 되었으며 심미(沈湄)는 재상(宰相)으로서 졸곡(卒哭) 안에 소를 잡았으니 윤상(倫常)을 무너뜨림이 막심하여 사람마다 분히 여기는 바이온데, 특별으로 통청(通淸)을 허하시니, 이는 모두 성법(成法)을 무너뜨리고 성덕(聖德)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 28권 3년 11월 29일 丙寅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臺諫上疏, 略曰:

日者許通沈湄, 而壞綱常之道; 敍用宗灝, 而釋不忠之罪. 殿下之壞法亂紀, 何至於此極乎? 臣等伏閣論執, 迄未蒙允, 不勝痛心. 夫人之異於禽獸者, 以其有綱常也. 人而無此, 則冠裳而禽犢矣. 沈湄性本狂愚, 一無知人也. 但以戚里, 位至乘軒. 當國恤, 忘哀宰牛, 與禽獸何擇? 刑官之推鞠錄案, 固已當其罪矣. 若曰: “時推錄案, 事涉曖昧.” 則敗常之罪, 誰肯隨問猝服乎? 律有據證定罪之法. 辭證已明, 則其書名廢錮, 何足怪哉? 若曰以議親則律有十惡之罪, 不在八議之內. 豈可以此而許通乎? 李宗灝以草茅賤士, 出身科第, 位至二品. 成宗擢拔之恩, 糜粉難報也. 當昇遐之日, 敢行醺子之禮, 其不忠之罪, 固當廢棄終身矣. 若謂宰相皆曰可用, 則是亦宗灝之徒耳. 夫君親一也. 豈有爲人臣子, 而推薦不忠之臣子於君父乎? 《書》曰: “稱非其人, 惟爾不任.” 今之宰相, 當受不任之責矣. 烏可徇其謬舉, 而遽命敍用乎? 伏願殿下, 虛懷聽納, 亟收成命.

不聽.

대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근일 심미(沈湄)에게 통청(通淸)으로 윤택하여 강상(綱常)의 도를 무너뜨리시고, 종호(宗灝)를 서용(敍用)하여 불충(不忠)한 죄를 면해 주셨으니, 전하께서 법을 무너뜨리시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심이 어찌 이같이 극에 이르시나이까. 신 등이 함문(閤門)에 엎드려 논집(論執)하였지만, 지금까지 윤택을 얻지 못하오니 마음 아픔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무릇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강상(綱常)을 지닌 때문이니 사람이 강상이 없다면 관 쓰고 옷 입은 금수인 것입니다. 심미(沈湄)는 성질이 본시 광패(狂悖)하고 우매하여 하나의 무지한 인간인데, 단지 척리(戚里)라는 이유로 지위가 초헌(輶軒)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상(國喪)을 당하여 슬픔을 잊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하였으니 금수와 무엇이 다르오리까. 형관(刑官)이 추국(推鞠)하여 죄안(罪案)에 기록하였으니 진실로 그 죄를 받아 마땅하거늘, 만약에 시추(時推)해서 죄안에 기록하는 일 자체가 애매한 데 가깝다고 한다면, 강상을 무너뜨린 죄를 누가 물음에 따라서 선뜻 굴복하려 하오리까. 율(律)에, 증거를 잡아 죄를 결정하는 법이 있는데 말과 증거가 이미 명백하니, 그 이름을 써서 폐고(廢錮)시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오리까. 만약 의친(議親)의 법으로 따질지라도 율(律)에 십악(十惡)의 죄는 팔의(八議)의 안에 있지 않다.’는 조문이 있사오니, 어찌 이로써 통청(通淸)을 허할 수 있사오리까. 이종호는 초야(草野)의 천한 선비로 과거(科擧)에 출신하여 지위가 2품에 이르렀으니, 성종(成宗)께서 발탁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가 어려울 것인데, 승하(昇遐)하신 날에 감히 자식의 혼인을 치렀으니, 그 불충한 죄는 진실로 종신토록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상(宰相)들이 모두 쓸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들 역시 종호의 무리입니다. 대범 임금과 아버지는 한 가지인데, 어찌 남의 신자(臣子)가 되어 불충한 신자를 군부(君父)에게 추천합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람을 적절하지 못하게 천거하는 것은 오직 네 임무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재상은 당연히 제 임무를 저버린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그 그릇된 추천에 따라서 선뜻 서용(敍用)할 것을 명하시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옵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28권 3년 12월 2일 己巳

大司憲李諱、大司諫金永貞等上疏曰：

殿下初膺大寶，君臨黎庶，固當爲國家扶綱常，爲生民立人極。如有棄禮義、捐廉恥，以虧臣子之節者，則必罰而無赦，以正四方之耳目可也，不宜有所寬貸，以傷治化。宗灝特蒙成廟擢拔，再任喉舌。沈湄貢緣戚里，濫叨宰樞。斯二人雖捐躬，不足以報罔極之恩，而天崩之日，冒哀醺子；卒哭之內，宰牛食肉，是可忍也，孰不可忍也？臣等嘗聞，成廟登遐之後，盜在赦列者，相聚而哭；三浦倭奴，爭撤魚梁，彼尙感戴哀慕如此，況士大夫乎？斯二人者，名爲大夫，乃反如是，同朝臣僚，皆切齒唾罵，羞與爲伍。錄案廢棄，物論猶未快，殿下反欲賞之，釋綱常之罪，除已錄之案？

不報。

대사헌 이집(李諱), 대사간 김영정(金永貞)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처음으로 대보(大寶)를 받아 만백성에게 군림 하였으니, 진실로 국가를 위하여 강상을 붙잡고, 민생을 위하여 인극(人極)을 세우셔야 하옵니다. 만약에 예의를 버리고 엄치를 무시하여 신자의 절조를 무너뜨린 자가 있다면, 반드시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아, 사망의 이목을 바르게 하시는 것이 가하옵고, 관대히 용서하여 치화(治化)를 손상하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종호(李宗灝)는 특별히 성묘(成廟)의 발탁을 입어 두 번째 후설(喉舌)의 직책을 맡았으며, 심미(沈湄)는 척리(戚里)를 인연하여 외람되이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비록 목숨을 바쳐도 망극한 은혜를 보답할 수 없을 것인데, 천붕(天崩)의 날에 슬픔을 무릅쓰고 제 자식의 혼사를 치렀으며, 졸곡(卒哭) 안에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었으니, 이 일을 차마 한다면 어느 것을 차마 못하오리까. 신 등은 일찍이 듣자 오니, 성묘(成廟)께서 승하(昇遐)하신 뒤에 도둑들로 특사의 열에 낀 자들은 서로 모여서 곡(哭)을 하였으며, 삼포(三浦)의 왜놈들도 다투어 어랑(魚梁)을 철폐하였으니, 그들도 오히려 은혜에 감동하여 슬퍼하고 사모함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사대부이리까. 이 두 사람은 명색이 대부(大夫)인데 마침내는 도리어 이와 같으니, 조정을 같이한 신료(臣僚)들이 모두 이를 갈며 침 뱉고 꾸짖어 더붙어서 짝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므로 녹안(錄案)을 폐기한 것도 물론(物論)은 오히려 쾌하게 생각지 않는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용서하고자 강상의 죄를 놓아주시고 이미 기록된 안(案)을 삭제합니까?”하였으나, 보(報)하지 않았다.

▶ 28권 3년 12월 10일 丁丑

丁丑/大司憲李諱、大司諫金永貞等書啓：

殿下敎曰：“汝等所言，非徒可笑於今時，後世如有超出之人，亦必笑之矣。”臣等待罪言官，知無不言，言無不盡，乃其職也。今劾沈湄、宗灝等敗常、不忠之罪，累旬伏聞，不見採納，是失其職也。失其職而冒居不避，義所未安，故敢懇辭再三，輒命就職，臣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進退，實爲狼狽．假有超出之人，生於後世，非獨笑臣等不得其言，而苟容不退，亦笑殿下徇私意、排公論，而不恤綱常之壞矣．臣等所論，皆係於人倫，合於義理，豈有外人倫、悖義理，而超出者乎？如釋氏之類，以無父、無君之教，鼓張一世，自以爲超出者，則必笑臣等之區區爭是非也．**臣等聞，臣之事君，猶子之事父．今有人焉，持父之服，而宰牛食肉；聞父之喪，而宴飲婚娶，則謂之人子可乎？**以此推之，沈湄、宗灝之爲人，其不可許通、敘用也決矣．管子曰：“禮義廉恥，謂之四維．四維不張，國乃滅亡．”賈生曰：“上設禮義廉恥，以遇其臣，臣不以節行報其上者，則非人類也．”此輩固非人類，豈復見用於世乎？夫上開一源，下生百端．此輩若復見用，則凡四方不忠、無行之徒，皆連茹而進，孰不飾事君之禮，而內懷背上之心哉？然則國家其能長治久安乎？三綱不正，四維不張，天命、人心去就離合之幾，實在於此，甚可懼也．殿下何惜此輩，而不顧祖宗百年之基業乎？臣等反覆論執，非不詳且盡也，而殿下固拒不納，臣等固知其由矣．豈不以大臣之議，倚以爲重，而成命頒下已久，勢難還收乎？夫事有是非，理有曲直．據大臣之議，參臣等之論，則事理孰是孰非？《易》曰：“不遠復，無祇悔．”《書》曰：“后從諫則聖．”伏願殿下，快從公論，亟收成命，則所謂不遠之復，從諫之聖，殿下兼有之矣．

不聽，辭職．

대사헌 이집(李集), 대사간 김영정(金永貞) 등이 서계하기를,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것은 한갓 오늘 이 시점에서만 가소로운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만약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역시 반드시 웃을 것이다.’ 하였사오나, 신 등이 언관(言官)으로 대죄(待罪)하고 있는 이상,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말을 하면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지금 심미와 이종호 등의 패상(敗常)하고 불충한 죄를 탄핵하여 수십 일을 함문(閤門)에 얹드렸으되, 받아들이심을 보지 못하오니 이는 그 직무를 상실한 것이오며, 그 직무를 상실하고 그대로 앉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미안하므로 재삼 간곡히 사면한 것이온데, 문득 명하여 직에 나가라 하시니 신 등의 진퇴가 실로 낭패입니다. 가령 뛰어난 사람이 후세에 생겨난다면 비단 말을 들어 주지도 않는데 그저 용열(容悅)만 하고 물러나지 않는 신들을 비웃을 뿐 아니라, 또한 사의(私意)를 따라 공론을 배척하고 강상(綱常)의 무너짐을 걱정하지 아니하신 전하도 비웃을 것입니다. 신 등의 논한 바가 모두 인륜에 관계되고 의리에 합당하온데, 어찌 인륜을 도외시하고 의리(義理)를 위배하고서 뛰어난 인격이 있으리까. 저 불씨(佛氏)의 유처럼 아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교리로 한 세상을 고무하며 스스로 뛰어났다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신 등이 굳이 시비를 다투는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신 등은 듣자오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 하는데, 지금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복을 입고서 소를 잡아 고기를 먹었거나 아버지의 상(喪)을 듣고 잔치 술을 마시며 혼인을 하였다면, 사람의 자식이라 이를 수 있으리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심미와 이종호의 사람됨이 통청(通淸)을 허하거나 서용(敘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관자(管子)는 말하기를,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사유(四維)라 이르면, 사유가 펴지 못하면 나라가 마침내 망한다.’ 하였고, 가생(賈生)은 말하기를, ‘군상(君上)이 예·의·염·치를 베풀어서 그 신하를 대우하는데도 그 신하가 절행(節行)으로써 그 군상(君上)에서 보답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류가 아니다.’ 하였으니, 이런 무리들은 확실히 인류가 아닌데, 어찌 다

시 세상에 등용된단 말입니까? 대범 위에서 한 근원을 열어 놓으며 아래는 백 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만약 다시 등용 된다면 무릇 사방의 불충(不忠)한 자와 무행(無行)한 무리들이 모두 연여(連茹) 같이 나아갈 것이오니, 누구라도 겉으로만 임금을 섬기는 예를 갖추고 안으로는 군상을 배반 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어찌 능히 장구한 치안(治安)을 가질 수 있으리까. 삼강(三綱)이 바르지 못하고 사유(四維)가 펴지 못하며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거취하고 이합(離合)하는 기미가 실로 여기에 있으니, 매우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를 아끼어 조종(祖宗)의 백년 기업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신 등이 반복해서 논쟁하고 고집한 것이 자상하고 또 극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 등이 확실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어찌 대신(大臣)의 논의(論議)를 중히 여기시고, 성명(成命)을 반포한 지가 이미 오래여서 형세 상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릇 일에는 시비가 있고 이치는 곡직(曲直)이 있는 것이니, 대신의 논의에 의거하여 신 등의 논의를 참작해 보시며 누가 옳고 그르다는 사리가 환히 나타날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멀지 않아서 회복한 지라 후회함이 없다.’ 하였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임금이 간하는 말을 들으면 성(聖)이 된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쾌히 공론에 따라서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면 이른바, ‘멀지 않은 회복’과 ‘간하는 말에 따르는 성인(聖人)’을 전하께서는 겸하여 지니신 것이 되옵니다.”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므로, 사직하였다.

▶ 28권 3년 12월 18일 乙酉

乙酉/受常參，御經筵。侍講官金詮啓：“臺諫不可一日無也，而近日經筵累不入侍，以殿下不聽其言也。成宗朝臺諫辭職，雖夜必留門召之。今則雖經日不命召，是臺諫具位而已。當天崩之日，雖閭巷無知小民，莫不哀號失措，而湄以至親，宰殺牛畜於卒哭之內，不忠之罪，無所逃矣。國家臧吏、敗常竝錄案者，所以礪節義也。固不可輕易抹之也。”檢討官姜澂亦論之，王不答。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시강관(侍講官)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대간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데, 요사이 경연에 여러 번 입시(入侍)하지 아니하니, 전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종조에는 대간이 사직을 하면 아무리 밤중일지라도 반드시 문에 머무르게 하여 불렀사운데, 지금은 하루가 지나가도 명하여 부르지 아니하시니, 이는 대간이 자리만 갖추었을 따름입니다. 천붕(天崩)의 날을 당하면 아무리 시골구석의 무지한 소민(小民)일지라도 애통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심미(沈湄)는 가까운 친척으로 졸곡(卒哭) 안에 소를 잡아먹었으니, 불충한 죄는 도피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장리(臧吏)나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자를 아울러 죄안(罪案)에 기록하는 것은 절의(節義)를 격려하려는 것이오니, 진실로 경이하게 말할해서는 아니 됩니다.”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강징(姜澂)이 또한 논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29권 4년 4월 17일 癸未

癸未/咸鏡道觀察使呂自新上疏曰：

穩城富強之策，令臣與北道節度使曹叔〔曹淑〕沂同議以聞。聖念至此，邊民之福也。軍民之困，豈獨穩城乎？五鎮皆然。今觀六鎮之困，甚於往者，非他，邊將非其人故也。國家於除授邊將時，令吏、兵曹同議擬啓，其選任之方至矣。然而恬靜、愷悌之人寡，而刻薄、貪戾之徒多，而視防禦爲餘事，不恤民力，掊斂百端，交誘彼人，務求皮物。是以民窮於內，虜窺於外，邊鎮之害莫大於此。臣愚以爲，精選有武才、廉謹者，隨其職秩，以授邊任，其清能表著者，不次擢用，以爲勸懲之方，則爲邊將者，必愛惜名節，不爲貪污之事矣。國家誠能限十餘年，如是勸戒，則軍民富強，雖賞之不逃。且野人等利我國牛馬、鐵物，常備貂鼠皮，以求買賣，而邊民亦不堪侵漁之苦，以農器釜鼎交市於虜。又有京中興販之徒，馱載絺布，周行邊鎮，貿備鐵物、牛隻，交結通事，日事和賣，雖賢守令亦不能禁。臣愚以爲，國家依中朝山海關例，於阻絕可關之地，設一關門，擇慷慨有名節者，借御史職銜，周年相遞，以嚴糾察，考其行狀及馬文、關帖，點名出入，如有不法之事，大者啓達，小者自斷，則興販之人不得亂入邊鎮矣。今聖上以邊鎮軍民逃散，兵力單弱，爲之軫念，而臣區區選將、設關二事，上瀆天聽者，非故爲迂闊也，亦妄有所見聞者。昔西域得班超而安，遇任尙而擾。穩城之民亦何異此？昨之逃散者，今已歸聚矣。由是觀之，其要固在得人也。又六鎮則全減貢物進上，但防禦而已。將得其人，則民之富強，可刻日待也。

命議于政丞、曾經政丞、六曹。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 여자신(呂自新)이 상소하기를,

“온성(穩城)을 부강하게 하는 계책을 신과 북도절도사(北道節度使) 조숙기(曹淑沂)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으니, 성념(聖念)이 이에 이르신 것은 실로 변방 백성의 복이옵니다. 군민(軍民)의 곤함이 어찌 유독 온성(穩城)만이겠습니까. 오진(五鎮)이 모두 그러하옵니다. 지금 육진(六鎮)의 궁곤함이 지난날보다 심한 것은 다름 아니라 변장(邊將)이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이오니, 국가에서 변장을 제수할 적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가 함께 의논하여 의계(擬啓)하게 한 것은, 그 선임(選任) 방법이 지극히 좋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진실한 사람은 적고 각박하고 탐학한 무리가 많아서 방어(防禦)를 예사로 알 뿐더러, 백성의 힘을 걱정하지 않고 백방으로 거두며 저쪽 놈들을 사귀고 꼬여서 피물(皮物)을 구하므로 백성은 안에서 궁하고 오랑캐는 밖에서 엿보니 변진(邊鎭)의 해가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무재(武才)가 있고 청렴하며 근신한 자를 정선하여 그 직질(職秩)에 따라 변임(邊任)을 제수하되, 그 청백과 재능이 현저한 자는 불차(不次)로 발탁해서 권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삼으면, 변장된 자가 반드시 명예와 절개를 애석히 여겨 탐오(貪污)한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10여 년을 한정하고 이와 같이 권장과 경계를 한다면 군민이 부강하여 비록 상(賞)을 준다 해도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야인(野人) 등이 우리나라의 우마(牛馬)와 철물(鐵物)을 이롭게 여겨 항상 초피(貂皮)나

서피(鼠皮)를 준비하여 매매하기를 구하는데, 변민들이 또한 침어(侵漁)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농기(農器)와 가마솔을 가지고 오랑캐와 교역을 합니다. 또 서울 안에서 흥판(興販)하는 무리들이 바리바리 면포를 신고 변방 진(鎭)을 두루 횡행하며 철물과 우척(牛隻)을 사 가지고 통사(通事)와 결탁하여 날마다 팔아 넘기기를 일삼으니, 비록 어진 수령(守令)이라도 역시 능히 금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중국 산해관(山海關)의 예에 의하여 지세(地勢)가 막히고 끊어져서 가히 관문(關門)을 둘 만한 곳에 관문 하나를 설치하고, 강개(慷慨)하여 명절(名節)이 있는 자를 가려서 어사(御史)의 직함을 주어 1년 만에 한 차례씩 교체해서, 사찰을 엄하게 하고 그 행장(行裝)과 마문(馬文) 관첩(關帖)을 고찰해서 이름을 점호하여 출입하게 하되, 만약 불법(不法)이 있을 경우에는 큰 것은 주달(奏達)하고 작은 것은 스스로 결단하게 하면 흥판(興販)하는 사람이 변진(邊鎭)을 어지럽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변진이 군민은 도망해 흩어지고 병력은 단약(單弱)함을 깊이 염려하시는데, 신이 구구하게 변장을 선택하고 관(關)을 설치하는 두 가지 일로써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짐짓 오활(迂闊)한 것이 아니옵고, 또한 망령되게나마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서역(西域)이 반초(班超)를 얻어서는 편안하였고 임상(任尙)을 얻어서는 들끓었으니, 온 성의 백성도 어찌 이와 다르리까. 어제 도망해 흩어진 자가 지금 돌아와 모이니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그 요점은 진실로 사람을 얻은 데 있습니다. 또 육진(六鎭)에 있어서는 공물(貢物)과 진상을 전부 감하시고 단지 방어만 하게 되었으니, 장수만 적격자를 얻으면 백성의 부강(富強)은 날짜를 정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니, 정승과 증경 정승, 육조에서 수의하도록 명하였다.

▶ 29권 4년 4월 21일 丙戌

丙戌/魚世謙、鄭文炯、李克墩、成俊、李世佐、朴安性、洪貴達、李季全、尹孝孫、朴崇質、姜龜孫、鄭錫堅、鄭叔堉、李堪、安瑚、李昌臣、洪瀚議：“邊將，吏、兵曹選授，又有監司、節度使同議褒貶。所以揀擢去取之道，固無餘策，何必使人各舉，而別立勸懲之方乎？本道南北只一路，監司之營，正當其要，凡守令貪廉，商賈往來，靡不知之。且節度使常巡諸鎭，苟能用心，何禁不止？其行商與彼人交市，夙有禁令，在檢察之何如耳。自古設關防，所以防外虞也；置御史，所以束官吏也。況咸鏡一道亦是吾民，豈可設關防、置御史，以別他道乎？臣等意以爲，錄名將、設關防之策，無益於事，或反有弊，恐不可行也。”李克均議：“吏、兵曹選授邊將，間有不得其人，以致厲民者。今宜選錄賢能，以備後用。近年興利之徒多賣物貨，周行北鎭，賣鐵物、牛馬，以市虜人皮物，請無時揀遣御史糾察。”從克均議。

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박안성(朴安性)·홍귀달(洪貴達)·이계동(李季全)·윤효손(尹孝孫)·박승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정석견(鄭錫堅)·정숙지(鄭叔堉)·이감(李堪)·안호(安瑚)·이창신(李昌臣)·홍한(洪瀚)은 의논드리기를, “변장(邊將)에 있어서는 이조·병조에서 뽑아서 제수하고 또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가 동의하여 포폄(褒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貶)을 하니, 그 간택하고 거취(去就)하는 방법이 진실로 남은 계책이 없는데, 하필 사람을 시켜 각각 천거하게 하여 따로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세울 까닭이 있습니까. 본도는 남북이 단지 한 길이고 감사의 영(營)이고 요충(要衝)에 자리잡고 있으니, 무릇 수령(守令)이 탐오(貪汚)하고 청렴한 것과 상고(商賈)가 가고 오는 것을 알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 절도사가 항상 여러 진(鎭)을 순행돌고 있으므로 진실로 마음만 쓴다면 무엇을 금지시키지 못하리까. 그 행상(行商)이 저쪽 사람들과 교역하는 문제는 진작부터 금령이 있으니 검찰 여하에 달렸을 뿐입니다. 예로부터 관방(關防)을 설치하는 것은 외환을 방지하고, 어사(御史)를 두는 것은 관리를 검속(檢束)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함경(咸鏡) 일도는 역시 우리 백성이거늘 어찌 관방을 설치하고 어사(御史)를 두어서 판 도와 구별한단 말입니까. 신 등의 의사로는, 명장(名將)을 녹용(錄用)하고 관방을 설치하는 계책이 일에 유익됨이 없고, 혹 도리어 폐단이 있을 듯하오니 아무래도 시행하는 것이 불가할 것입니다.”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이조·병조에서 변장(邊將)을 뽑아 제수한다 해도, 간혹 그 적임자를 얻지 못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있사오니, 지금은 마땅히 어질고 능한 자를 선록(選錄)하여 뒷날의 용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년에 모리[興利] 하는 무리들이 많이 물화(物貨)를 싸가지고 북진(北鎭)을 두루 다니면서 철물(鐵物)과 우마(牛馬)를 사들여서 오랑캐들의 피물(皮物)과 바꾸어 오는 모양이오니, 청컨대 수시로 어사(御史)를 뽑아 보내서 사찰을 강화하도록 하십시오.”하니, 극균(克均)의 의논을 좇았다.

▶ 34권 5년 7월 1일 己未

朔己未/傳曰: “熟狗皮十張、牛皮五張、刺燭三百柄入內.” 命弘文館入直員, 製秋夜玩月七言律詩以進.

전교하기를, “숙구피(熟狗皮) 10장과 쇠가죽 5장, 자촉(刺燭) 3백 자루를 쥔내에 들이라.” 하고, 홍문관 입직원(入直員)에게 명하여, 추야완월(秋夜玩月)에 대한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 36권 6년 1월 18일 癸酉

癸酉/受常參, 御經筵. 吏曹判書姜龜孫曰: “聞, 忠清道民間黃豆頓乏, 而義倉亦無所儲, 民何以養農牛乎? 況貧乏郵吏, 喂馬亦難, 請移傍近全羅、慶尙等道所儲給之. 且義倉穀, 守令隨意斂散, 軍資倉穀, 則不得擅發. 軍資倉黃豆, 請并給之.” 領事成俊曰: “今年非特黃豆, 百穀皆不熟, 故民多飢饉而流離. 臣於前日啓其救荒之事, 已令戶曹議啓, 而迨不舉行, 請諭諸道監司, 措置救荒. 且黃豆乏絕, 則無以養農牛, 請發豐儲倉穀, 以賑畿甸之民.” 皆從之.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이조판서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들으니 충청도에는 민간에 콩이 아주 모자라고 의창(義倉)에도 저축한 것이 없다 하오니, 백성들이 무엇으로 농우(農牛)를 기르겠습니까? 더구나 빈핍(貧乏)한 우역(郵驛)의 이속은 말을 먹이기가 역시 어렵다 하니, 부근인 전라·경상도에 저축한 것을 옮겨다 주게 하소서. 또 의창의 양곡은 수령(守令)이 마음대로 거두고 분산시키고 하지만, 군자창(軍資倉)의 양곡은 마음대로 꺼내지 못하니, 군자창(軍資倉)의 콩을 함께 주소서.”하였다. 영사(領事) 성준(成俊)은 아뢰기를,

“금년은 콩만이 아니라 백곡이 모두 영글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많이 굶주려서 유리 걸 식합니다. 신이 전일 구황(救荒)에 대한 일을 아뢰어서 이미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는 아직 거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하읍건대 여러 도 감사에게 유시하여 구황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소서. 또 콩이 없으면 농우를 기를 수 없습니다. 풍저창(豐儲倉)의 양곡을 내어서 기전(畿甸) 지방의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좇았다.

▶ 36권 6년 2월 30일 甲寅

甲寅/京畿觀察使鄭眉壽來啓: “去年本道禾穀不登, 黃豆尤甚. 水原地廣民稠, 居京畿三分之一, 而亦無所畜. 今方耕種之時, 農牛飢疲, 無豆可飼, 未得耕種. 如此則雖今年雨水調洽, 何望其豐登乎? 請發京倉黃豆二萬碩, 分給京畿人民.” 傳曰: “其給一萬碩.”

경기관찰사 정미수(鄭眉壽)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 해 본도에 곡식이 흉작인데, 콩은 더욱 심했습니다. 수원(水原)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경기 지방의 3분의 1이나 되지만 역시 저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발갈고 씨뿌릴 때가 되어 농우(農牛)가 주리고 지쳤지만 먹일 콩이 없으니, 발갈고 씨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년에 비가 고르고 흉작하다 하더라도 어찌 풍작을 바라겠습니까. 청하읍건대 경창(京倉)의 콩 2만 석을 내어 경기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1만 석을 주라.”하였다.

▶ 37권 6년 4월 15일 戊戌

大司諫安瑬、司諫李孝篤、執義金克恢啓: “前臺諫抵罪曖昧. 政府論啓, 必有所聞, 請問其由.” 不聽. 初李坩爲執義時, 成俊奴犯牛肉禁. 俊使群奴縛憲吏, 奪其奴婢肉. 臺官金麟厚等以俊縱奴犯禁, 而縛憲吏, 啓請推鞠, 又於經筵相詰. 俊銜之, 陰自臺諫過誤, 欲摠宿憤. 至是坩同時臺官, 猶有存者, 而林宗之遞, 其迹似挾私. 俊欲因是竝中傷之, 將使後來臺諫無敢抗者. 及其鞠問, 發林宗事者, 乃其所厚楊稀枝也. 及王收議, 俊申救甚至, 故獄事稍寬, 其操弄陰險類是.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대사간 안호(安瑬)와 사간 이효독(李孝篤)·집의 김극회(金克恢)가 아뢰기를, “전 대간이 논죄(論罪)되는 것은 애매합니다. 정부에서 논계한 것은 반드시 들은 데가 있을 것이니, 그 경위를 물어보소서.” 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당초 이점(李站)이 집의(執義)로 있을 때에, 성준(成俊)의 종이 우육 금지령에 걸렸으므로 성준이 여러 종을 시켜 헌부의 이속을 결박하고 그 노비의 고기를 빼앗았었다. 대관(臺官) 김인후(金麟厚)가, 성준이 종을 시켜 금지령을 범하고도 헌부(憲府)의 이속을 결박하였다고 하여 추국(推鞠)하기를 계청(啓請)했었고, 또, 경연(經筵)에서 서로 힐난하였다. 성준이 감정을 품고 은밀히 대간의 과오를 노려 전일의 분을 풀려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점(李站)이 그 당시의 대관으로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요, 박임중(朴林宗)의 체임이 그 자취가 사정을 낀 것 같으므로, 성준이 이것을 가지고 아울러 중상하여 앞으로는 대간이 감히 항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 한 것이었다. 국문에 당하여 박임중의 일을 발설한 사람은 바로 그와 교분이 두터운 양희지(楊稀枝)였으므로 왕이 수의(收議)하게 되자, 성준이 구원하기를 매우 지극하게 하였기 때문에 옥사가 다소 너그러웠으니, 그의 농간과 음흉이 대개 이랬던 것이다.

▶ 38권 6년 6월 28일 庚戌

海浪島招撫使田霖使從事官趙元紀馳啓: “臣等至海浪島, 則居人盡移他處, 只有家基十九而已, 有耕牛三頭放牧. 且有人跡尋之, 則有四人乘船泊於島東二里許水牛島, 卽圍立捕之. 訊其餘人去處, 答云: ‘移居于小長山島, 俺等爲耕田, 來此耳.’ 遂入長山島, 捕唐人七十八, 我國人三十四而還, 已到龍川. 搜捕時唐人李敬射殺咸從甲士平自中” 傳曰: “今觀書狀, 有唐人李敬爲魁首, 其人武勇耶? 且小長山島距海浪島幾里, 其島大小幾許, 形勢及土地饒瘠何如, 所產何物?” 元紀啓: “敬壯勇者也. 長山島在海浪島西二日程, 物產甚多. 其地若作水田, 則可至千餘結矣.”

해랑도(海狼島)의 초무사(招撫使) 전임(田霖)이 종사관(從事官) 조원기를 시켜 치계(馳啓)하기를, “신 등이 해랑도에 이르니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집터만이 19개가 있을 뿐인데, 경우(耕牛) 3마리가 방목되어 있고 또 사람의 발자취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보니 4인이 배를 타고 해랑도 동쪽 2리(里)쯤 되는 수우도(水牛島)로 가서 정박하므로 즉시 이들을 포위하고 잡아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간 곳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소장산도(小長山島)로 옮겨 갔는데 그들은 발같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장산도(長山島)까지 들어가 중국 사람 78명과 우리나라 사람 34명을 잡아 돌아와서 이미 용천(龍川)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수색하여 잡을 때 중국사람 이경(李敬)이 함중(咸從) 갑사(甲士) 평자중(平自中)을 쏘아 죽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서장(書狀)을 보건대, 중국사람 이경(李敬)이 괴수가 된 모양인데, 그 사람이 무용(武勇)이 있느냐. 또 소장산도(召長山島)는 해랑도와 서로 상거가 몇 리나 되며, 그 섬의 크고 작은 것이 얼마나 되며, 형세(形勢)와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이 어떠한지, 생산되는 물품은 어떤 것이냐.” 하니,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이경(李敬)은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장산도

(長山島)는 해랑도 서쪽 2일 노정(路程)에 있는데, 물산이 매우 많으며, 그 토지를 만약 논을 만든다면 천여 결(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 39권 6년 11월 17일 丁卯

琉球國使臣肅拜. 其國王書云:

琉球國中山王尙眞謹啓朝鮮國王殿下. 伏以, 推誠結信, 天理之共由; 歃血要盟, 人心之獨得. 第見貴國仁恩廣被, 德化彌弘. 是以, 自先祖因建天禪寺, 謂無經傳, 特差正使普須古、副使蔡璟等, 齎捧咨文、禮物, 詣前求請大藏尊經全部, 到國外. 每欲遣使, 梯山航海前來, 乃不諳水路阻隔, 鱗鴻久曠, 莫能詣前. 近來鼎建興國禪寺, 思無經典, 想懷之間, 有日本客商船一隻到國, 仍特遣正使梁廣、副使梁椿等, 謹齎咨文并禮物, 順搭前捧獻, 求請大藏尊經全部, 萬望賢王, 啓山海之量, 納涓杓之誠, 乞賜到國開諷, 永鎮國家, 無任瞻仰之至. 弘治十二年七月十七日.

禮物, 柳靑龜勝團花錦一段、大紅遍地金段二匹、金黃牧丹花段一匹、天竺上等五彩手巾一條、四番上號異樣手巾一條、象牙二條、犀角六箇、牛角四箇、錫二千觔、蘇木一千觔、胡椒一千觔、木香二佰觔、檀香二佰觔、丁香二佰觔、金結束腰刀二把、天竺白花酒一埕【埕其盛酒器也.】王卽下一壺于政院曰: “其嘗之.” 味極香烈溫醇.

유구국 사신이 숙배(肅拜)하였는데, 그 국왕의 글에 이르기를, “유구국 중산왕(中山王) 상진(尙眞)은 삼가 조선 국왕 전하께 아웁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의를 다하여 신의(信義)를 맺는 것은 천리(天理)로 된 동일한 길이요 피를 먹으며 맹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심(人心)의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대, 귀국의 인자로운 은혜가 널리 덮여지고 덕 있는 교화가 가득히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선조(先祖) 때부터 천선사(天禪寺)를 지어놓고 경전(經傳)이 없다 하여 특별히 정사(正使) 보수고(普須古)와 부사(副使) 채경(蔡璟) 등을 파견하여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싸들고 가서 《대장존경(大藏尊經)》 전부(全部)를 구득하여 국외(國外)로 왔던 것입니다. 매양 사신을 파견하여 험한 산을 넘고 먼 바다를 건너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바다 길을 알지 못하여 막히고 서신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져 갈 수 없었습니다. 근래에 바야흐로 흥국선사(興國禪寺)를 세워놓고 경전(經典)이 없다 하여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일본 사람의 상선(商船) 1척이 우리나라에 도착했기로, 이편에 인하여 특별히 정사 양광(梁廣)과 부사 양춘(梁椿) 등을 보내어, 삼가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싸가지고 순조롭게 타고 가서 바치고, 《대장존경(大藏尊經)》 전부(全部)를 구득해 오도록 한 것이오니, 천만 바라옵건대, 현명하신 왕께서 산해(山海) 같은 아량을 베푸시어 조그만 정성을 받아들이고, 그 책을 우리나라로 가지고와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영구히 국가를 안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건달 수 없습니다. 홍치(弘治) 12년 7월 17일.”이라고 했다. 예물(禮物)은, 유청귀승단화금(柳靑龜勝團花錦) 1단(段), 대홍편지금단(大紅遍地金段) 2필, 금황목단화단(金黃牧丹花段) 1필, 천축상등오채수건(天竺上等五彩手巾) 1조(條), 서번상호이양수건(西番上號異樣手巾) 1조, 상아(象牙) 2조, 서각(犀角) 6개, 우각(牛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角) 4개, 석(錫) 2천 근(觔), 소목(蘇木) 1천 근(觔), 호초(胡椒) 1천 근(觔), 목향(木香) 2백 근(觔), 단향(檀香) 2백 근(觔), 정향(丁香) 2백 근(觔), 금결속요도(金結束腰刀) 2자루, 천축백호주(天竺百花酒) 1정(垓)이었다. 왕이 즉시 술 1병을 승정원에 내려주며 이르기를, “맛보라.”하였는데, 맛이 지극히 향기가 풍기고 온화하며 순순하였다.

▶ 41권 7년 8월 8일 癸丑

癸丑/受常參, 御經筵. 參贊官李坵曰: “觀曹淑沂所獻策, 臣雖不知邊事, 今年越江觀兵, 明春又如是, 則彼必畏遁, 不得安居, 適以生邊釁矣. 淑沂詭爲偷桃喻說, 以動聖聽, 其罪不可不問.” 領事李克均曰: “淑沂目觀西民不得安居, 不勝憾憤, 既不得大舉問罪, 故欲觀兵, 使彼知所畏懼, 而如是啓之矣. 彼人得我國之民一名, 其價至牛馬七八, 其利大. 故獵獸之際, 必虜我民. 越江耀兵, 世祖亦嘗欲爲之. 今若以一千兵, 越江耀武, 則彼以謂, 舉兵入攻, 奔竄無暇, 則少有所懲畏矣. 臣在滿浦時, 與黃衡率軍, 嘗審邊路, 衡失路, 適逢溫下衛、建州衛等野人, 野人曰: ‘請勿擊我輩.’ 莫不震懼, 今若觀兵則可矣.” 王曰: “彼每侵虜, 而一不示威, 則坐受其辱, 安所懲乎?”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참찬관(參贊官) 이점(李坵)이 아뢰기를, “조숙기(曹淑沂)가 바친 계책을 살펴보건대, 신이 비록 변방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금년에 강을 건너서 군사의 위세를 보이고 내년 봄에 또 이와 같이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두려워 도망하여 편안히 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마침내 변방의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조숙기가 괴상하게도 투도(偷桃)에 비유하는 설을 만들어서 성청(聖聽)을 움직이게 했으니, 그 죄를 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영사(領事)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조숙기가 서도(西道)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보고 원한과 분노를 이기지 못했으나, 이미 크게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을 수 없으므로 군대의 위세를 보여 오랑캐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아뢴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나라 백성 한 명을 잡으면 그 값이 소나 말 7, 8마리만큼 그 이익이 큰 까닭에, 짐승을 사냥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강을 건너서 군대의 위세를 보이는 일은 세조(世祖)께서 또한 이미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만약 1천 명의 군사로 강을 건너서 군사의 위세를 보이면, 저들은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온다 하고 달아나 도망치기에 여가가 없을 것이니, 조금은 징계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신이 만포(滿浦)에 있을 때에 황형(黃衡)과 더불어 군대를 거느리고 일찍이 변방의 길을 살피다가 황형이 길을 잃었는데, 마침 온하위(溫下衛)와 건주위(建州衛) 등지의 야인(野人)을 만났습니다. 야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을 공격하지 마소서.’ 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지금 만약 군대의 위세를 보이면 좋을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저들이 매양 침략을 하는데 한번도 시위(示威)하지 않으면 앉아서 그들이 욕을 받는 셈이니, 어찌 징계가 되겠는가?”하였다.

▶ 43권 8년 3월 11일 癸未

傳于戶曹曰：“各道犯盜及宰殺牛馬，應配徒流人內，魁首者絕島，隨從者平安道，竝全家入送。”

호조에 전교하기를, “각 도(道)의 도범(盜犯)과 소와 말을 도살한 자로 도류(徒流)에 해당되는 자 가운데, 죄수는 외딴 섬으로, 따라 한 자는 평안도로, 모두 온 가족을 들여보내라.” 하였다.

▶ 43권 8년 3월 18일 庚寅

禮曹啓：“日本國使周般西堂等示書(啓)〔契〕於臣等云：‘鶴法師者居壹岐州，國人往還貴國，多資其力。曾爲司直，請加一級。且今之偕來國次者，通好於琉球國，得牛角、孔雀尾等物，以獻於貴國，功甚大者也。’臣等卽答云：‘官爵則非臣等所擅，當啓殿下，以決可否。如孔雀尾等物，殿下本不喜玩，但嘉汝勤苦來獻之誠耳。’”傳曰：“加爵事，收議于政丞。”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 사신 주반서당(周般西堂) 등이 신 등에게 서계(書契)를 보이며 말하기를, ‘학법사(鶴法師)라는 사람은 일기주(壹岐州)에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국에 내왕하려면 그의 힘을 많이 입고 있으며 일직이 사직(司直) 벼슬을 했으니, 한 등급을 올려 주소서. 또 함께 온 국차(國次)라는 사람은 유구국(琉球國)과 사귀어 소뿔·공작 꼬리 등의 물건을 구득하여 귀국에 바쳤으니, 공이 큰 사람입니다.’ 하기에, 신 등은 즉시 대답하기를 ‘관작(官爵)은 신 등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전하(殿下)께 아뢰어 가부를 결정할 것이고, 공작 꼬리 같은 것은 전하께서 본래 좋아하지 않으시고 다만 너희들이 애써 가지고 와 바치는 정성을 가상히 여기실 뿐이다.’ 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벼슬을 올려 주는 일을 정승들에게 수의(收議)하라.”하였다.

▶ 43권 8년 3월 19일 辛卯

命議日本國使臣周般等所請鶴法師、國次加職事于政丞。尹弼商、韓致亨、成俊議：“周般、昌琇之請，其情甚懇，不可不從。雖從之，於國不甚損害，若拒之則遠人失望。水牛角之獻，利於我國，除職褒獎何如?”李克均議：“司直國次於我國別無顯功，周般、昌琇僞其功勞，勤請不已，當從權加給，以慰遠人在我別無所損，而在彼有感矣，更令該曹，考例取稟施行何如?”傳曰：“令禮曹考例更啓。”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일본국 사신 주반(周般) 등이 청한, 학법사(鶴法師)와 국차(國次)의 관직을 올려 주는 일을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 의논드리기를, “주반(周般)·창수(昌瑬)의 청(請)은 그 뜻이 매우 간절하니 좇지 않을 수 없으며, 비록 좇는다 하더라도 손해될 것이 없지마는, 만약 거절하면, 먼 데 사람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무소 뿔을 진상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로우니, 벼슬을 제수하여 표장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사직(司直) 국차는 우리나라에 별로 드러난 공이 없으나, 주반(周般)과 창수(昌瑬)는 공로가 보이며, 꾸준히 청해 마지않으니 마땅히 권도로 벼슬을 올려주어 먼 데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될 것이 없고 그들 입장에서 감사하게 여길 것이니, 다시 해조(該曹)에서 전례를 상고한 다음 취품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예조가 전례를 상고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 43권 8년 3월 20일 壬辰

壬辰/太白晝見. 禮曹啓: “日本國使臣周般等所請鶴法師、國次加職事, 命考前例[有]無矣. 臣等意, 鶴法師曾受司直, 今雖加職無妨. 但周般所示書契云: ‘鶴法師西海路船賊之雄.’ 今若加職, 以似從周般恐嚇而然也. 且國次來獻孔雀羽、水牛角等物. 牛角則有關軍國之用, 孔雀羽則特戲玩之具耳. 況國次曾不除職, 今若受職, 則他日必主一船而來, 其所費不亦多乎? 敢稟.” 傳曰: “更議于政丞. 且所謂西海路船賊之雄者, 無乃周般等亦以鶴法師爲懼而然耶? 其問禮曹.”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 사신 주반(周般) 등이 청한, 학법사(鶴法師)와 국차(國次)에게 벼슬을 올려주는 일은 전례를 상고하라 하셨는데, 전례가 없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학법사는 일찍이 사직(司直) 벼슬을 받았으니 지금 비록 벼슬을 올리더라도 무방하지만, 주반(周般)이 보인 서계(書契)에 ‘학법사는 서해로(西海路) 해적(海賊)의 우두머리다.’ 했으니, 지금 만약 벼슬을 올려준다면, 주반의 공갈에 따라 그렇게 한 것같이 됩니다. 또한 국차가 와서 바친 공작 깃과 무소 뿔 등의 물건은, 무소 뿔은 군용(軍用)에 관계가 있지만, 공작 깃은 특히 노리개감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국차는 일찍이 벼슬을 제수한 일이 없는데 지금 벼슬을 받으면 뒤날에 반드시 배 1척을 가지고 올 것이니, 그 비용이 또한 많지 않겠습니까? 감히 품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정승들에게 의논하라. 또한 이른바 ‘서해로 해적의 우두머리’란 것은 주반 등이 학법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조에 물어보라.”하였다.

▶ 43권 8년 4월 18일 己未

承政院啓: “前瑞山郡守金震犯賊生紆一百斤, 折價縣布五十匹. 當錄案, 然以賊之多

寡，上下其罪，生紵價折似過重。且白丁金每邑山兩月宰殺九牛，以全家徙邊照律。臣等意，每邑山宰牛，非出其意，聽書員孫原指揮，當分首從。今與孫原同論，似爲曖昧，請竝收議。”傳曰：“依所啓。”

승정원이 아뢰기를, “전 서산군수 김진(金震)이 생모시 1백 근을 너물로 받는 죄를 범했는데, 그 값을 면포(綿布) 50필로 정하여 마땅히 죄안(罪案)에 기록해야 하지만, 장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죄를 오르내려야 하는데, 생모시 값을 정한 것이 과중한 것 같습니다. 또 백정(白丁) 김매읍산(金每邑山)이 두 달 동안에 소 7마리를 도살한 것을 온 가족을 변방으로 유형(流刑)하는 율[全家徙邊]에 비추었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김매읍산이 소를 도살한 것은 그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서원(書員) 손원(孫原)의 지휘에 따른 것이므로 마땅히 주범과 종범을 구별해야 할 것인데, 지금 손원과 같은 벌을 내리는 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의(收議)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 43권 8년 4월 22일 癸亥

承政院啓: “白丁李每邑山聽書員指揮宰牛，不分首從，同律科罪未便。故臣等啓之，而政丞之議亦同。請今後首從分揀科罪，永爲恒典。”傳曰：“可。”

승정원이 아뢰기를, “백정 이매읍산(李每邑山)이 서원(書員)의 지시를 받아 소를 도살한 것을 주범(主犯) 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율로 죄를 과(科)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므로 신 등이 아뢰었는데, 정승들의 의논도 또한 같았으니, 지금부터는 주범과 종범을 분간하여 죄를 과하는 것을 영구한 법으로 삼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하였다.

▶ 44권 8년 5월 19일 庚寅

鄭眉壽書啓曰： 平安道被虜人物，咸鏡道五鎭諸部落野人從而刷還，要功於國家，其來已久。然而近來平安道被虜人物，視舊倍蓰，而咸鏡道彼人刷還之數亦多。自言：‘一人刷還之價，牛馬不下十餘頭，或至十五，其所償牛馬，非一人之有，或〔一〕人出一二頭，求買往來，亦甚艱。’質諸被刷人，則其言不甚相遠。彼人之強爲刷還，其慾不止求索本價而已，必欲上京耳。國家若充償本價，則不勝其費，而虜情亦不厭，況於盡令上京乎？此皆必不可爲之事也。

이하생략~

정미수(鄭眉壽)가 서계(書啓)하기를, “평안도의 사로잡힌 인물(人物)을 함경도의 5진(鎭)의 여러 부락 야인(野人)들이 쇄환(刷還)하고는 국가에 공(功)을 바라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평안도의 사로잡힌 인물이 그전보다 몇 곱절이나 되고 함경도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저 사람들이 쇠환하는 수효도 또한 많으며,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쇠환하는 대가(代價)는 소와 말 10여 마리에 내리지 않고 혹은 15마리까지 되며, 판상(辨償)한 소와 말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다 한 사람이 한두 마리를 내므로 살데를 찾으려 왕래하기가 또한 매우 고생스럽다.’ 하는데, 쇠환된 사람에게 물어 보니 그 말이 그다지 서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억지로 쇠환되는 것은 욕심이 본가(本價)를 요구하는 데만 그칠 뿐이 아니고, 반드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약 본가를 채워 갚아 주기로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오랑캐의 마음도 또한 만족하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그들을 모두 서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필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하생략~

▶ 44권 8년 5월 20일 辛卯

傳于司憲府曰：“市中商賈之徒，謀欲專利，私相結約，人之所賣之物，則雖價重，從輕折之；己之所賣之物，則雖價賤，從重折之。一折價之後，無復上下其直，致令愚民減受其價，至於愚民所賣之物，公然奪取者或有之。牛馬市肆人亦自符同，互稱牙保，任意折價，使人不得措手，利專於己，害及于民，至爲泛濫，治罪節目磨鍊以啓。”

사헌부에 진교하기를, “시중(市中)이 장사치들이 이익을 독점하려고 사사로이 서로 약속을 맺어 남이 파는 물건은 비록 값이 비싼 것이라도 헐한 값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파는 물건은 비록 값이 싼 것이라도 비싼 값으로 결정하며, 한번 값을 정한 뒤에는 그 값을 다시는 올리고 내릴 수 없게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값을 덜 받도록 하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파는 물건을 공공연히 빼앗는 자가 더러 있으며, 소·말의 시장 사람들도 또한 각자 부동(符同)하여 서로 아보(牙保)라 일컫고는, 제 마음대로 값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여 이익은 자기만 차지하고 손해는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너무도 지나친 짓을 하니, 죄를 다스리는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아뢰라.”하였다.

▶ 44권 8년 6월 4일 甲辰

刑曹啓：“宰殺牛馬者，勿論良民，全家徙路邊各官各驛，而自謂罪輕，犯法者有之。故更受教，犯者決杖一百，全家徙爲絕島官奴婢，許接人內，士族有職人則收職牒，永不敍用；無職人則決杖一百，外方付處；庶人則決杖一百，邊遠充軍。知情不告三切隣、管領則以制書有違律，論斷；有能捕告人則牛一隻，給絁布五匹至三十四匹而止；不能檢舉所居部官吏則重論，而近不奉行，依律輕論，以致易犯，請申明受教。”從之。

형조가 아뢰기를, “소와 말을 도살한 자는 양민(良民) 여부를 논할 것이 없이 온 가족을

각 고을이나 역(驛)의 길가에 옮겨졌는데도 스스로 죄가 가볍다 여겨,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게 되므로, 다시 수교(受敎)하여 범한 사람은 장(杖) 1백 대를 치고 온 가족을 옮겨 외딴 섬의 관노비(官奴婢)를 삼게 하고, 의탁을 허용하는 사람 중에 사족(士族)으로서 관직이 있는 사람은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장 1백 대를 쳐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서인(庶人)은 장 1백 대를 쳐 먼 변방의 군사에 편입시키며, 실정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가까운 세 겨린과 관령(官領)은 제서를 어긴 형률[制書有違律]로써 죄를 논하고,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 1마리와 면포 5필에서 30필까지 주고, 검거하지 못한 거주지 관리는 중죄(重罪)로 논단하도록 하였는데, 근래에 받들어 수행하지 않고 형률에 의거하여 경죄(輕罪)로 논하기 때문에 쉽사리 범하게 되니, 수교를 거듭 밝히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

▶ 45권 8년 8월 12일辛亥

正言趙玉崑曰：“臣居全羅道扶安。實相寺田結甚多，請屬學田。且各官分養水牛，守令令民喂養，其弊不貲。於國用無益，請放養牧場。”王曰：“角無所用，又不耕田，果如所啓。”玉崑曰：“民之不耕而稅者有之。前者量田時，雖已分揀，然委官不能詳察，若依山田畝則其陳雖未久，樹木易茂，故論以久陳；平地則其陳雖至三十餘年，樹木不茂，故稱爲起耕，錄於正案，從而稅之，甚曖昧，請令分揀。”

정언 조옥곤(趙玉崑)이 아뢰기를, “신이 전라도 부안(扶安)에 살 때에 실상사(實相寺)의 전결(田結)이 매우 많았으니, 학전(學田)에 소속시키기는 청합니다. 또 각 관아(官衙)에서 나누어 기르는 무소는 수령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육하게 하므로 폐단이 아주 많고 국가의 용도(用度)에도 이익이 없으니 목장에 놓아 기르기를 청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무소는 풀이 소용없고 또한 논밭도 갈지 못하니, 과연 아뢴 바와 같다.”하였다. 조옥곤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젓번 토지를 측량할 때 비록 이미 분간은 했지만, 위관(委官)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만약 산에 있는 전답은 그것이 묵은 지가 비록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수목이 무성하기 쉬운 까닭으로 오래 묵었다고 논정(論定)하고, 평지의 논밭은 묵은 지가 비록 30여 년이 되더라도 수목이 무성하지 않은 까닭으로 기경(起耕)한 논밭이라 일컫고는 정안(正案)에 기록하고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니 매우 애매합니다. 이를 분간하기를 청합니다.”하였다.

▶ 45권 8년 8월 12일辛亥

傳曰：“正言所啓量田事，今可爲耶？問諸政丞。水牛 其放於牧場。”

전교하기를, “정언이 아뢴 바 토지를 측량하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느냐? 정승들에게 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어 보라. 무소는 목장에 놓아 먹여라.”하였다.

▶ 45권 8년 8월 14일 癸丑

兵曹啓: “水牛本極南海中之獸, 性不耐寒. 先王朝畜養司僕寺, 冬節則暖廐, 草長日暖, 則放箭串. 其後孳息漸多, 不得已分養各官, 其弊不貲. 雖南方海島, 其風氣非如中國極南之地, 則冬(夏)〔節〕放養, 必致凍傷. 姑令慶尙、全羅道監司, 海島氣暖可放處, 磨鍊啓聞後, 請放養以試.” 從之.

병조가 아뢰기를, “무소는 본래 아주 먼 남쪽 바다의 짐승이어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므로, 선왕(先王) 때에는 사복시(司僕寺)에서 사육하게 하여 겨울철에는 외양간을 따뜻하게 하고, 풀이 자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전곳(箭串)에 놓아 먹였습니다. 그 뒤에 새끼를 낳아 점점 수효가 많아져서 부득이 각 고을에 나누어 사육시켰는데 폐단이 아주 많았습니다. 비록 남쪽 바다의 섬이라도 기후가 중국의 극남(極南) 땅과 같지 않으므로 방목하면 반드시 동상에 걸릴 것이니, 우선 경상도·전라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섬에 기후가 따뜻하여 방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계문(啓聞)한 후에 방목을 시험해 보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

▶ 47권 8년 12월 20일 戊午

戊午/御經筵. 大司諫閔暉曰: “弭盜之方, 於城中則措置至矣. 向者往心里近處有牽牛而行者, 盜殺而奪之. 如此而不之禁可乎? 請於門外更設捕盜之方.” 掌令柳世琛曰: “古云: ‘外戶不閉, 道不拾遺.’ 此皆善措置弭盜之方故耳. 請於門外無人處, 設伏以捕. 明春則民間尤艱, 盜必倍起, 至所以弭之之方, 不可不預爲之圖.” 王曰: “加設之法, 令該司磨鍊. 然法立而弊隨以生.” 世琛曰: “前者以有弊, 革坐更之法者, 以其貧民無丁者, 付統紀摘奸徵贖故耳. 若抄坊內有丁者, 使之坐更則可矣.” 王曰: “是亦有弊, 然且問之.”

경연에 납시었다. 대사간 민휘(閔暉)가 아뢰기를, “도둑을 방지하는 방도가 성중(城中)에는 조치가 지극합니다만, 전일에 왕심리(往心里) 근처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둑이 죽이고 소를 빼앗아 갔으니, 이와 같은데도 금하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성문 밖에도 다시 도둑을 잡는 방도를 설치하기를 청합니다.”하고, 장령 유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옛말에 ‘바깥 문을 닫지 않고 길에서는 흘린 물건을 줍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도둑 막는 방도를 잘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의 사람이 없는 곳에 복병(伏兵)해 놓았다가 잡기를 청합니다. 내년 봄에는 백성들이 살기가 더욱 어려워져 도둑이 반드시 갑절로 일어날 것이니, 도둑 막는 방도를 미리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더 설치하는 법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그러나 법을 만들면 폐단이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하였다. 유세침(柳世琛)은 아뢰기를, “전자에 폐단이 있어서 좌경(坐更)

하는 법을 고친 것은, 가난한 백성으로 장정이 없는 사람을 통기(統紀)에 적어 놓고 적간해서 속전(贖錢)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坊) 안에서 장정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로 하여금 좌경을 하게 하면 가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도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물어보라.”하였다.

▶ 48권 9년 1월 7일 乙亥

通禮院引儀李壘曰: “國家爲先王陵寢, 創建五寺. 其中奉先寺、正因寺, 特賜土田、奴婢與長利之穀, 以育髡首資用. (社)〔寺〕田已侈矣, 又何用長利哉? 兩寺之債, 遍滿列郡, 被緇之徒, 不計年凶, 橫行閭里, 催督侵奪, 民產已竭, 弊將難救. 豈可使游手之人, 坐享民膏乎? 況佛, 清淨寡欲, 慈悲廣大, 而多蓄牛馬, 業農爲務, 甘心取利, 貽患赤子, 則於其道有負, 而貽弊於民不貲. 今後, 禁其髡, 以充軍額; 收其穀, 以助軍需, 邦本益固矣, 且軍額可實, 而不可疎也. 國家立法節目詳嚴, 而軍額不實者, 逃役之夥, 而給保之未周也. 古者, 一家從軍, 則七家奉之. 故國資於兵, 兵資於農. 今牽以三丁爲準, 而閑丁鮮少, 爲軍者無一保, 幸而得之, 非貧病老羸, 則必乳下之童, 而厭役投緇之徒, 莫之禁也. 在成宗朝, 禁度〔牒〕之教, 昭如日星, 而奉行者, 未能體之. 及我殿下即位之初, 首下衰佛之教, 四方忻忭, 而其根不除, 至今滋蔓, 此, 聖明之疵政, 而耗軍之大蠹也. 伏願殿下, 上遵先王成憲; 下念初政本旨, 慎終如始, 日新又新. 《詩》云: ‘率由舊章.’ 臣爲殿下, 深有望焉.”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이간(李壘)은 아뢰기를, “국가에서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을 위하여 다섯 절을 창건했고, 그 중에서 봉선사(奉先寺)와 정인사(正因寺)는 특별히 토지와 노비(奴婢)와 장리(長利) 곡식을 하사하여, 머리 깎은 중들이 먹고 사는 비용에 충당하게 했습니다만, 사전(寺田)이 이미 넉넉한데 또 장리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두 절의 빛은 여러 고을에 가득하여 검은 옷을 입은 중들이 흉년을 계교하지 않고 마을에 횡행하여, 독촉해 뺏아서 백성들의 재산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그 폐단을 장차 구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어찌 놀고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앉아서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빨아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부처는 청정(淸淨)하여 욕심이 적고 자비심(慈悲心)이 광대(廣大)하다는데, 소와 말을 많이 기르고 농사짓기를 힘쓰고 돈놀이를 기꺼이하여 백성들에게 근심을 끼치니, 그 도(道)에 저버림이 있을 뿐더러,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머리깎는 것을 금지해서 군대의 수효에 충당시키고, 그 곡식을 거두어 군대의 비용을 도우면 나라의 근본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또 군대의 수효는 채워야 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여 그 절목(節目)이 자세하고 엄중한 데도 군대의 수효가 차지 못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고 보정(保丁)을 준 것이 두루 미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서 종군(從軍)을 하면 일곱 집이 이를 도왔으므로, 국가는 군사에게 의뢰하고 군사는 농사에 의뢰했는데, 지금은 〈한 군인이〉 세 장정(壯丁)을 거느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으나, 놀고 있는 장정이 적어서 군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의 보정(保丁)도 없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으며, 다행히 보정을 얻는다 해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나 늙고 쇠약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병역(兵役)을 싫어하여 중이 되는 무리들을 금지시키지 못합니다. 성종 때에는 도첩을 금지하는 교령(敎令)이 환하기가 해와 별 같이 밝았는데도 받들어 거행하는 자가 능히 몸 받지 못하더니,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제일 먼저 불도(佛道)를 쇠약하게 하는 전교를 내리시므로 사방에서 기뻐했는데, 그 근본을 제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무성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명(聖明)한 시대의 흠이 되는 정치요, 군대 수효를 줄게 하는 큰 해독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을 준수하시고, 아래로는 초정(初政)의 본뜻을 생각하시어 일의 끝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시어, 날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소서.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옛 법도를 준수하라.’고 했으니, 신은 전하를 위하여 깊이 희망을 가집니다.”하였다.

▶ 49권 9년 4월 4일 庚子

庚子/京畿觀察使洪貴達啓: “臣近者巡行各官, 道見耕牛僵仆, 問其故, 答曰: ‘前年凶歉, 無豆菽, 不能喂養故也.’ 今當農時, 牛不可不養, 請糶官倉久陳黃豆以給飢民, 尤當趁時賑救.” 時, 王急於興作, 下皆順之, 競以掊克爲能, 以言民瘼爲諱者久矣, 貴達能以恤民隱爲言, 時論多之.

경기관찰사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신이 근일에 각 고을을 순행하다가 길에서 농우[耕牛]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 연고를 묻자, 대답이 ‘지난해 흉년이 들어 콩이 없으므로, 잘 먹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농사철이므로 소를 먹이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관창(官倉)의 오래 묵은 콩을 대출하여 주고, 주린 백성도 더욱 제때에 구제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이때 왕이 집짓는 일에만 급급하므로 아랫사람들이 모두 순종하여 거두어들이는 것만 능사로 알고, 백성의 피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 지 오래였는데, 귀달이 능히 백성의 고통을 구제할 것을 말하니, 당시의 의논이 대단하게 여겼다.

▶ 53권 10년 5월 12일 辛丑

傳曰: “象足與黃犀, 令尙衣院入內, 無則賃入.”

전교하기를, “코끼리 발과 누런 무소 뿔을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대내에 들이게 하되, 없으면 사서 들이게 하라.”하였다.

▶ 54권 10년 7월 28일 丙辰

傳曰：“食治牛脾、腎各一部內入。”

전교하기를, “식치우(食治牛)의 비(脾)와 신(腎) 각 1부(部)를 대내에 들이라.”하였다.

▶ 57권 11년 1월 7일 癸巳

戶曹啓：“外貢牛馬皮無遺儲，請令八道，各備一百張以進。”從之。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외공(外貢)의 우마피(牛馬皮)는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 팔도로 하여금 각 1백 장(張)을 장만하여 바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

▶ 57권 11년 4월 20일 乙亥

乙亥/傳于承政院曰：“前此宴享時，不用牛肉，爲農事也。然中朝饋我國人，尙用牛肉，今可用之。況宴非常事，用之無妨。竝問政丞及禮官。”承旨等啓：“愚民不知農事之本在此，而妄爲屠殺，故禁之。然於供上，用之無妨。”政丞及禮曹啓：“上教允當。”又傳曰：“前此無故屠牛者，全家徙邊，國有法禁，不服則至於刑訊。然其間豈無犯法，又豈無曖昧者乎？今後牛或病或老，不能服事田畝者，令本主進告，京則漢城府，外則所在官檢驗烙印，宰(剝)〔殺〕後，又申官更驗，皮張烙印，每節季，主名及牛數開錄以啓。且一應宴享，竝用牛肉。”政丞及禮曹啓：“老病之牛無可用，畜之勢難，告官宰殺甚可。且宴享時用牛肉，則獐鹿不必多用，此亦良法。上教允當。”自是，常時供饋興清，皆用牛肉，日屠十餘頭，車載以入。行路駕車載物之牛，皆奪而屠之，民皆號哭。又令郡縣續進，近道則生肉，遠道則作脯。且王好食牛胎，故乳牛之脹腹者雖不胎，無不見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앞서 연향(宴享) 때에 쇠고기를 쓰지 않았음은 농사를 위해서이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공궤(供饋)함에는 오히려 쇠고기를 쓰니, 이제 쓸 수 있으며, 더구나 연향은 여느 일과 다르니 써도 무방하리라. 아울러 정승 및 예관(禮官)에게 물으라.”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농사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줄 모르고 함부로 잡으므로 그것을 금지하였으나, 공상(供上)에는 써도 무방합니다.”하고, 정승 및 예조는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하니, 또 전교하기를, “앞서 까닭 없이 소를 잡은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나라에서 법금(法禁)이 있는데, 승복(承服)하지 않으면 형신(刑訊)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중에는 어찌 범법(犯法)이 없겠으며, 애매한 자가 없으랴! 앞으로는 소가 병들거나 늙어서 농토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본주(本主)가 고하거든, 서울에서는 한성부(漢城府)가 외방에서는 소재관(所在官)이 검험(檢險)하여 낙인(烙印)해 주고, 잡아서 가죽을 벗긴 뒤에 또 관가에 신고하면, 다시 검험하여 가죽에 낙인하여 절계(節季)마다 본주의 이름 및 소의 수를 개록(開錄)하여 아뢰라. 또 모든 연향에 모두 쇠고기를 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라.”하매, 정승 및 예조가 아뢰기를, “늙거나 병든 소는 쓸데 없고 먹이기에 형세가 어려우니, 관가에 신고하여 잡는 것이 매우 옳으며, 또 연향 때에 쇠고기를 쓰면 노루·사슴을 많이 쓸 것 없으니, 이 또한 좋은 법입니다.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하였다.

이로부터 여느 때의 홍청을 공제하는 데에도 다 쇠고기를 쓰니, 날마다 10여 두(頭)를 잡아 수레로 실어들였다. 노상에 수레를 끌거나 물건을 실은 소까지도 다 빼앗아 잡으니, 백성이 다 부르짖어 곡(哭)하였고, 또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바치되, 가까운 도(道)에서는 날고기로, 먼 도에서는 포(脯)를 만들게 하였다. 또 왕이 소의 태(胎)를 즐겨 먹으므로 새끼를 낳은 배가 부른 소는 태가 없을지라도 잡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 59권 11년 9월 25일 丙午

傳曰: “李貴孫倭牛皮一千張, 每一張給好品縣布十四匹.”

전교하기를, “이귀손(李貴孫)의 왜우피(倭牛皮) 1천 장은, 1장에 품질 좋은 면포(縣布) 10 필씩 주라.”하였다.

▶ 60권 11년 10월 3일 甲寅

承旨韓恂啓: “市裏貂皮品惡, 請於兩界貿來.” 傳曰: “遣尙衣院二員, 貿二萬領來.” 野人貴牛, 兩道之牛, 盡於貿貂, 民至有駕馬而耕者.

승지 한순(韓恂)이 아뢰기를, “시중에 있는 초피(貂皮)는 품질이 조잡하니, 양계(兩界)에서 사오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상의원(尙衣院) 관원 두 사람을 보내어 2만 영(領)을 사오게 하라.”하였다. 이때 야인(野人)들이 소[牛]를 귀중히 여기므로, 양도(兩道)의 소를 모두 초피 사는데 써버리어, 백성들은 말을 가지고 밭을 가는 일도 있었다.

▶ 60권 11년 12월 21일 辛未

傳曰: “今日供膳牛二頭, 遲緩入內, 司畜署該掌員, 囚密威廳鞠之.”

【史臣曰: “自祖宗朝禁宰牛, 祭享外一皆勿用, 至是王好啗牛肉, 或生(蹈) [啗] 之. 令八道封進, 爲守令者, 憑公侵督, 迫於星火, 民皆失業, 相聚爲盜.”】

전교하기를, “오늘 찬수로 공상(供上)하는 소 2마리를 늦게 대내로 들였으니, 사축서(司畜署)의 담당관 원을 밀위청에 가두고 국문하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소 잡는 것을 금하여 제향 외에는 일체 쓰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 왕이 쇠고기를

좋아하여 혹 생으로 씹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팔도에 명하여 봉진하게 하니, 수령들이 공사(公事)를 핑계 삼아 침독(侵督)하기를 성화 같이 하므로, 백성들은 모두 생업을 잃고 서로 모여서 도둑질을 했다.

▶ 61권 12년 1월 20일 庚子

傳曰：“其燒牛矢於薊英院。”王畏疫，每於臨幸之地，先燒牛糞禳之。

전교하기를, “쇠똥[牛矢]을 너영원(薊英院)에 불태우라.”하였다. 왕이 역질을 두려워하여 매양 임행(臨幸)하는 곳에는 먼저 쇠똥을 불태워 물리치게 했다.

▶ 61권 12년 1월 22일 壬寅

王沈酗聲色，窮奢極欲，狃於宴安，不欲聞亂亡之事。然自度無狀，恐未能終保，記王建宮詞甚惡之，壽不解王意，故怒之。仍賜李希輔釵花銀帶，令即着，夜深乃罷。壽嘗在父喪，不拘檢。一日崔溥往見，壽對溥食牛心炙，略無難色。溥出曰：“居喪有病，但食肉汁，何至於啖肉炙？自安於心耶？”

왕이 성색(聲色)에 침혹하고 사치와 욕심에 극하고, 연안(宴安)에 젖어서 난망(亂亡)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변변치 못함을 헤아리고 끝내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왕건(王建)의 궁사(宮詞)를 기억하고는 매우 싫어하였는데, 채수(蔡壽)가 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노한 것이다. 그리고 이희보(李希輔)에게 꽃을 새긴 은띠를 하사하고 그 자리에서 곧 띠게 하면서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채수는 일찍이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다. 하루는 최부(崔溥)가 가보니, 부(溥)를 대하여 우심적(牛心炙)을 먹는데, 조금도 어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부가 나오면서 말하기를, ‘거상하는데 병이 있으면 육즙(肉汁)은 먹을지라도 어찌 고기 적까지 먹는가?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가?’ 하였다.

▶ 61권 12년 3월 14일 甲午

下蒸牛兒于承政院，傳曰：“令司畜署，多畜牛，供上何如？此物非但犧牲，常用爲便。”承旨等啓，“上教允當。”王好食黃牛肉，每於內宴，不時供進，司畜署未能及備，奪行路牛隻，椎殺而進，怨呼者盈路。

전 송아지[蒸牛兒]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사축서(司畜署)를 시켜 소를 많이 길러 위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물건은 희생(犧牲)뿐만이 아니라 상용(常用)에도 편리하다.”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하였다. 왕이 쇠고기 먹기를 좋아하여, 대양 대내에서 잔치할 때에는 불시(不時)에 올리라 하므로, 사축서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는, 길가는 소를 빼앗아 때려 잡아서 바치니, 원망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다.

▶ 62권 12년 4월 27일 丙子

丙子/命入牛糞殺鬼丸.

우분 살귀환(牛糞殺鬼丸)을 들이도록 하였다.

▶ 62권 12년 5월 19일 戊戌

傳曰: “牛糞、殺鬼丸不進官吏, 其鞠之.”

전교하기를, “살귀환(殺鬼丸)과 우분(牛糞)을 바치지 않은 관리를 국문하라.”하였다.

▶ 62권 12년 6월 23일 辛未

諭各道進牛脯, 若日寒進生肉. 前此弛殺牛之禁, 又令公宴用牛肉, 自此闕內用之無忌, 內人私辦宴具以進, 至一殺八九牛, 他費稱是.

각도에 유시하여, 쇠고기 포를 진상하되 만약 날씨가 차면 생육(生肉)으로 진상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소 도살의 금령(禁令)을 풀었고, 또 공연(公宴)에는 쇠고기를 쓰도록 하므로 이때부터 궐내에서는 쇠고기를 꺼림 없이 쓰고, 나인이 사사로이 잔치를 마련해 드리는 데에도 한꺼번에 8,9마리의 소를 잡았으며, 다른 비용도 이와 맞먹었다.

▶ 63권 12년 8월 16일 癸亥

傳曰: “典牲署黃牛, 其令速進.”

전교하기를, “전생서(典牲署)에 황우를 속히 바치도록 하라.”하였다.

11. 中宗實錄

▶ 1권 1년 9월 4일 庚辰

下書于八道，令勿封進牛肉。【廢王末年，以各道上貢物膳，猶爲不適於口，馳書于各道，令封進牛肉，各官守宰畏罪，一日之內，有殺九牛者。】

팔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지 말게 하였다. 【폐왕 말년에 각도의 상공(上貢)하는 물건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각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게 하였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하루에 아홉 마리의 소를 잡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 1권 1년 9월 11일 丁亥

政丞等啓曰：“近來諸陵，皆設禁標，參奉等不得入處，守護虛疎，香火久絕。卽位之初，當先舉祀事，遣大臣慰祭何如？”傳曰：“可。”又啓曰：“宰牛之禁，著在令甲，成廟朝常加痛禁，頃者群臣上下，宰殺日甚，幾至絕種，耕農之資，從此盡廢。伏望申明舊典，嚴加禁斷。”又啓曰：“講武場禁標內居人，前皆徙邊，此人等，皆非作罪者。請竝放還。”傳曰：“可。”

정승 등이 아뢰기를, “근래 여러 능(陵)에 모두 금표(禁標)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참봉 등이 들어가 거처할 수 없어서 수호(守護)가 허술하고, 향화(香火)가 오랫동안 끊겼습니다. 즉 위하신 처음에 마땅히 먼저 제사하는 일을 거행해야 하니, 대신들을 보내어 위제(慰祭)를 올리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 잡는 것을 금한 것은 법령에 밝혀져 있으며 성묘조(成廟朝)에는 항상 엄금하였었는데, 요즘에는 상하 신하들의 소잡는 폐단이 날로 심하여 거의 종자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니, 밭갈이하고 농사짓는 자용(資用)이 이로부터 모두 없어지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거듭 옛 법전을 밝혀서 엄중히 금단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강무장(講武場)의 금표 안에 살던 사람을 앞서 모두 변방으로 옮겼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은 자는 아닙니다. 아울러 놓아 돌려보내소서.”하니, ‘그렇게 하라.’ 전교하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권 1년 9월 28일 甲辰

又曰：“廢王朝，以皮物貿易事，北道之民，受弊太甚，所持牛馬，盡輸於城底野人，野人又結婚於北虜。野人強盛，而我國之人，日益困弊，北道節度使擇差爲當。”

이하생략~

또 아뢰기를, “폐왕조에 피물(皮物) 무역하는 일로 북도의 백성이 폐해를 입음이 너무 심하여, 가졌던 소와 말을 모두 성 아래 야인(野人)에게 팔아버렸으며, 야인은 또 북로(北虜)와 혼인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인은 강성해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날로 더욱 피해를 여겼으니, 북도의 절도사를 가려 차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1권 1년 10월 5일 庚戌

領事朴元宗曰：“廢朝徵歛貂皮，無有紀極，一皮之直，至一大牛。以此民生日困，牛馬賣盡于胡人，穩城牛馬見存者，僅四十餘口。臣意以爲‘依成宗朝辛亥年例，’限民蘇復，蠲減何如?” 上曰：“可.”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폐조에서 담비 가죽을 징렴(徵斂)하기를 한없이 하므로, 한 장의 가죽 값이 한 마리의 큰 소값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민생이 날로 곤란하여지고 소와 말은 호인(胡人)에게 모조리 팔아버린 결과 온성(穩城)의 소와 말이 현재 있는 것이 겨우 40여 마리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성종조 신해년의 예에 의하여 백성의 생활이 나아갈 때까지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 1권 1년 11월 6일 辛巳

傳于司饗院曰：“依成宗朝故事，每一朔醢一缸。快脯三十條，賜弘文館。”

사옹원에 전교하기를, “성종조 고사에 의하여 매월에 젓[肉醬] 1항아리와 쾌포(快脯) 30조(條)를 홍문관에 내리라.”하였다.

▶ 1권 1년 12월 3일 丁未

丁未/聽朝啓。同副承旨李惟清啓：“咸鏡道野人牛馬賊金俊山、全都致罪當處斬。” 上

曰：“僉意何如？”右議政柳順汀曰：“事狀明白，當依律矣。且行刑於彼人地境，則彼人之心必快。”上曰：“可。”

조계(朝啓)를 들었다. 동부승지 이유청이 아뢰기를, “함경도 야인(野人) 우마적(牛馬賊) 김준산(金俊山)·전도치(全都致)는 죄가 참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하였다. 우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일이 명백하니 마땅히 형률대로 하여야 합니다. 또 저 야인 지역에서 형벌을 집행하면 저들의 마음이 반드시 상쾌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4권 2년 12월 25일 甲午

獻納朴祥啓曰：“臣以母病相見，歸光州，頗聞守令不法。順天府使李公信貪婪無比，刑罰刻薄，又畜樂安官婢於衙內，請托公行，作弊多端。同福縣監李懇，以田八結，作一牛，從名輪駄，駄價縣布，一結收一匹，輪督民間，用之於官。南平縣監宋麒孫刻木爲人，名曰木將校，用以施令，一刻稽留，罰徵縣布、米、太，性又柔懶，牽制奸吏。礪山郡守李元英多率奴婢，又率成雙子弟，凡官廳出納之物，令其子弟監之，多行不法，請皆罷職，以警其餘。又聞定難功臣金良彥覬親于湖南，率奴三十餘名，所經各官，多般侵虐。監司令珍原、金溝等倖，檢舉支供，不由直路，橫行各官，煩擾太甚。良彥特蒙上恩，初陞堂上，所當謹慎，而驕縱如此，監司亦委定差使員，致令作弊，不得無罪，請皆推問。”

이하생략~

헌납(獻納) 박상(朴祥)은 아뢰기를, “신이 어미의 병환을 보고자 광주(光州)에 갔을 때에, 수령(守令)이 불법하던 말을 들었습니다. 순천 부사(順天府使) 이공신(李公信)은 탐욕이 비할 데 없고 형벌이 너무 각박한가 하면, 낙안 관비(樂安官婢)를 관아 안에 거느리고 있었고 청탁을 공공연히 받아들이며 작폐가 많았습니다. 동북현감(同福縣監) 이간(李壑)은 밭 8결(結)에 소 한 마리씩을 세워 윤타(輪駄)라 칭하고 짐삿은 면포(綿布)로 받되 1결(結)에 면포 1필을 거두어들이고, 민간에 윤번으로 독촉하여 그것을 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남평현감(南平縣監) 송기손(宋麒孫)은 나무를 깎아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목장교(木將校)라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명령을 행하는데 쓰게 하고는 일각이라도 지체되면 면포·쌀·콩을 거두어 들였으며, 또한 성품이 유연하고 나약하여 간사한 이속(吏屬)들의 견제를 당하였습니다. 여산군수(礪山郡守) 이원영(李元英)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또한 결혼[成雙]한 자제를 데리고 있으면서 관청에 출납하는 모든 물건을 그 자제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모두 파면시켜서 다른 관리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 또 정난공신(定難功臣) 김양언(金良彦)은 호남(湖南)에 근친(覬親)할 때 노비 30여 명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경유하는 고을마다 여러 가지로 침학(侵虐)하였으며, 관찰사는 진원(珍原)·금구(金溝) 등 수령으로 하여금 음식 등을 바치도록 하였으며, 바른 길로 지나지 않고 여러 관가를 돌아다니면서 번잡한 짓을 자행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양언은 특별히 상의 은총을 받아서 처음으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당상에 올랐으니 마땅히 근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방자함이 이와 같으며 관찰사도 차사원(差使員)을 위정(委定)하여 폐단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무죄가 될 수 없으니, 모두 추문(推問)하도록 하소서.”

이하생략~

▶ 5권 3년 2월 23일 辛卯

辛卯/御朝講. 掌令金克福〔金克福〕、獻納閔愼啓, 原從付標族親堂上及崔有井, 爲團練使作弊之事. 領事成希顔曰: “臣之赴京, 有井爲團練使, 供億之費, 不倍於他. 臣屢過嘉山, 每見(彫)〔凋〕殘, 今則飲食器具, 皆極精潔.” 克福〔克福〕曰: “臣非謂有井, 獨厚待希顔也. 因支客之辦, 侵督民間, 至於徵牛, 其用心如此, 不恤民事, 可知.” 又啓許輯、辛允武等事. 特進官洪景舟曰: “臺諫所啓撫夷堡人物被擄, 雖云十五名, 安知有匿不以聞者乎? 先王朝重邊事, 故評事竝治罪, 今辛允武果有罪焉. 第以廢朝, 北道罷弊, 貿易皮物, 不可勝計. 民特一牛, 換一貂皮, 牛馬幾盡. 往時騎馬軍士, 可千餘名, 今則僅有四五十名, 雖有邊警, 將何以扞禦? 辛允武在京, 常慮此事, 及赴任, 凡軍士弊事, 一切祛之. 觀察使高荊山亦知邊事, 與允武同力措置. 今雖罷其職, 得可代者難矣, 不如不遞.” 克福等反覆論啓, 皆不允.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극핍(金克福)과 헌납 민원(閔愼)이 원종 공신을 부표하고 족친(族親)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린 일과 최유정(崔有井)이 단련사(團練使)가 되어 폐해를 끼친 일을 아뢰었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은 아뢰기를, “신이 북경(北京)에 갈 적에 최유정이 단련사(團練使)가 되었는데, 접대하는 비용이 다른 곳보다 배가 들지 않았으며, 신이 여러 번 가산(嘉山)을 지날 적에 매양 민력(民力)이 쇠잔함을 보았었는데, 지금은 음식과 기구(器具)가 모두 매우 정결했습니다.” 하였다. 김극핍은 아뢰기를, “신은 최유정이 성희안만을 유독 후하게 대접했음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객(使客)을 지공(支供)하는 판출(辦出) 때문에 민간을 침해 독촉하여 소를 징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의 마음씀이 이와 같다면 백성에 관한 일을 돌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또 허집(許輯)과 신윤무(辛允武) 등의 일을 아뢰었다. 특진관 홍경주(洪景舟)는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바, 무이보(撫夷堡)의 인물(人物)을 사로잡아 간 것이 15명이라고 하지마는, 어찌 숨기고 알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선왕조(先王朝)에서는 변방의 사무를 중요시한 까닭으로 평사(評事)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렸으니, 지금 신윤무는 과연 죄가 있습니다. 다만 폐조(廢朝) 때는 북도(北道)가 피폐한 때문에 무역한 피물(皮物)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초피(貂皮) 한 장을 바꾸게 되어 소와 말이 거의 다 없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탄 군사가 1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겨우 40~50명만 있을 뿐이니,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있더라도 장차 무엇으로 적을 방어하겠습니까? 신윤무는 서울에 있을 적에 상시 이 일을 염려하더니 후에 부임해서는 모든 군사에게 폐가 되는 일은 일체 이를 제거했습니다. 관찰사(觀察使) 고형산(高荊山) 또한 변방의 사무를 알르

로 신윤무와 더불어 힘을 합하여 조치(措置)했습니다. 지금 비록 그 직책을 파면시킨다 해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개체시키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고, 김극렴 등도 되풀이하여 논계(論啓)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 6권 3년 8월 16일 辛巳

辛巳/御朝講. 執義安彭壽、正言宋好義, 啓濫加改正, 申恭不合水使, 史局漏洩等事, 領事柳順汀、知事宋軼、特進官張順孫·李世英等亦論之. 順汀曰: “臣以宣陵獻官, 見祭服甚陋, 且有惡臭, 心甚未安. 以此見之, 則他陵亦同, 祭享之事, 甚重, 請令考察.” 宋軼曰: “臣以遠接使, 往還平安道時, 聞在廢朝, 多定貂皮等物于邊氓, 邊氓得之無由, 必以牛隻, 貿易於野人.至今因循, 爲弊已久, 若一朝禁止, 則恐有邊釁, 故守令欲禁而未果也. 又義州人民, 必以馬匹, 貿段子於唐人, 此亦成風已久, 難以禁止. 今牛則盡歸於野人, 馬則盡入於唐人, 甚不可也.其令觀察使、節度使痛禁.” 順汀曰: “廢朝時皮物, 必求於野人, 不得則守令亦被重罪, 雖知其弊, 而不能禁止, 且護送軍, 托以逢賊, 以其所騎馬, 必反賣而還云. 又聞北道人民, 饑荒太甚, 求鹽海邊, 以牛隻反賣於野人, 憚官吏禁止, 必乘夜以往, 因爲野人所擄, 轉賣於深處野人云. 如此則非徒牛馬, 人物亦甚可慮.” 彭壽曰: “臣以檢察官, 赴京時, 成希顔、申用漑, 亦聞此弊, 令臣檢舉. 然使書狀, 雖欲檢舉, 而猶未能焉. 如團練使類, 皆別侍衛、甲士之徒, 先爲如此之事, 若罪團練使, 則庶可禁戢. 平安道宰牛饋客成風, 如義州官, 則赴京使客往來時, 殺牛與殺鷄無異. 且助防將, 以其道守令差遣, 類皆武班人也, 崇尚飲食, 必殺牛供之, 其馱載必用牛者, 蓋欲宰殺用之而然也. 其濫莫甚, 亦皆可禁.”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안팽수(安彭壽)·정언(正言) 송호의(宋好義)가, 외람된 가자의 개정, 신공(申恭)이 수사(水使)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사국(史局)의 일을 누설한 것 등의 일을 아뢰고,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지사(知事) 송일(宋軼)·특진관(特進官) 장순손(張順孫)·이세영(李世英) 등도 이를 논했다. 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선릉(宣陵)의 헌관(獻官)으로, 제복(祭服)이 매우 더럽고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살피고서 마음에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능도 같을 것인데, 제향(祭享)하는 일은 매우 중하니, 고찰(考察)하게 하소서.”하고, 송일이 아뢰기를, “신이 원접사(遠接使)로 평안도에 다녀 올 때에 듣건대, 폐조(廢朝)에서 초피(貂皮) 따위 물건을 변방의 백성에게 많이 분정(分定)하였는데 변방의 백성이 얻을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를 가지고 야인(野人)에게서 사왔습니다. 이제껏 옛 습관을 따라 폐해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니, 만약 하루아침에 금지하면 아마도 변방의 말쑥거리가 있을 듯하므로, 수령(守令)이 금지하고 싶으나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의주(義州)의 백성은, 반드시 말을 가지고 당인(唐人)에게서 단자(段子)를 사니, 이것도 버릇이 된 지 이미 오래여서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소는 다 야인에게 돌아가고, 말은 다 당인에게 들어가니 매우 불가합니다.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철저히 금하게 하소서.”하고, 순정이 아뢰기를, “폐조 때에 피물(皮物)은 반드시 야인에게서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면 수령이 또한 중죄(重罪)를 입으므로, 비록 그 폐해를 알지라도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호송군(護送軍)이 도둑을 만났다고 핑계하여 그 타던 말을 도리어 팔고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북도(北道)의 백성은 흉년이 너무 심하여 바닷가에서 소금을 구하고 소를 야인에게 파는데, 관리가 금지하는 것을 꺼려서 반드시 밤을 타서 가기 때문에 야인에게 사로잡혀 심처(深處)의 야인에게 옮겨 팔린다고 합니다. 이러하면, 마소뿐 아니라 사람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하고, 팽수가 아뢰기를, “신이 검찰관(檢察官)으로 부경(赴京) 하였을 때에, 성희안·신용개도 이런 폐단을 듣고서, 신을 시켜 검거(檢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장관(書狀官)을 시켜서 검거하려 하여도 오히려 잘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단련사(團練使)는 거의 다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의 무리인데 먼저 그런 일을 하니, 만약 단련사를 죄주면 아마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는 소를 잡아서 손[客]에게 먹이는 것이 풍속이 되어, 의주(義州) 고을 같은 데서는 부경하는 사객(使客)이 가고 올 때에 소를 잡는 것이 답을 잡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조방장(助防將)은 그 도의 수령으로 차견(差遣)하는데, 거의 다 무반(武班) 사람이어서 음식을 숭상하므로 반드시 소를 잡아서 공궤(供饋)하니, 짐을 싣는 데에 반드시 소를 쓰는 것은 대개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외람됨이 막심하니 또한 다 금해야 합니다.”하였다.

▶ 6권 3년 8월 16일 辛巳

傳曰：“平安道人民，馬則與唐人貿易綾段，牛則與野人貿易皮物，至爲不可，今後痛禁事，下諭于觀察使。” 政院啓曰：“若令觀察使禁止，則一時之令，必不能遽革積累之弊，收議大臣，嚴立法禁何如？” 傳曰：“可。”

전교하기를, “평안도 백성이, 말은 당인과 능단(綾段)을 바꾸고 소는 야인과 피물(皮物)을 바꾸는 것은 아주 불가하니, 앞으로는 엄하게 금할 것을 관찰사에게 하유(下諭)하라.”하자,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만약 관찰사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면, 한때의 영으로는 반드시 쌓인 폐단을 갑자기 고칠 수 없을 것이니, 대신에게 수의하여 법금(法禁)을 엄히 세움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6권 3년 8월 21일 丙戌

政丞及兵曹堂上，會賓廳議曰：“六鎮流移人刷還事，該司已曾受教。今觀辛允武所啓，其前刷還人，聞許接人不治罪，旋即逃還云，此可慮也。令本道監司、兵使，將允武推刷之案，審前日受教之意，定剛明差使員，刻期刷還，具由馳啓。如推刷時，隱匿者及許接戶首、切隣，刷還後，不能存撫，致令還逃守令，一依《大典》科罪何如？六鎮人物，使不得互相移居事，前日該曹受教行移。而但軍民互相移居，巧避軍役，防禦虛疎，職此之由，南道人民，移居北道者，不可刷還。今後北道各鎮人民，互相移接者，一切禁防，各依

原籍，安業爲便．兩界邊鎮守令往來，例皆給馬，假如品馬不足，不得已抄發衙前、軍戶之馬，當不過數三四，而多數抄發者，其馱載之物必多，其犯罪可知．非特守令爲然，邊方教授、訓導，亦有品馬，而或有騎馱儒生馬匹者，其弊不貲．令各道觀察使嚴禁，犯者重論何如？咸鏡各官於軍民每戶，收布一匹，名爲神布，一輸觀察使，一輸節度使，一爲上納，一爲官用，其來已久．邇來軍民，困窮已甚，何忍取布？況此弊法，他道所無乎？限軍民蘇復間，勿收甚當．廢朝時，邊民因皮物貿易，持牛馬，或於唐人，或於野人處，潛相賣與，各鎮將亦迫於督責，不能禁防，因循至今，犯法滋甚，果如宋軾所啓．《大典》內，‘潛賣牛馬於上國及隣國者絞．’令觀察使、節度使，申明此法痛禁，而若有依前犯禁者，鎮將亦重論何如？柳順汀啓曰：“義州境連上國，上國使臣初到之路，而且野人接見之地也．今牧使李允儉有才能，宜授其任，然職品止於通政，請以二品宰相除授．會寧徒以野人觀視之地，而猶以二品授之，況此義州乎？”

정승(政丞) 및 병조 당상(兵曹堂上)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의논드리기를, “육진(六鎭)에서 흘러나간 사람을 쇄환(刷還)하는 일은 해사(該司)가 이미 일찍이 수교(受敎)하였습니다. 이제 신윤무(辛允武)가 아뢴 바를 보건대, 전에 쇄환된 사람들이, 목허 준 사람[許接人]을 죄로 다스리지 않음을 알고서 곧 도망해 돌아간다고 하니, 이는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병사(兵使)로 하여금 윤무의 쇄환하는 안(案)을 가지고 전일에 수교한 뜻을 살펴서, 강명(剛明)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기한을 정해서 쇄환하고, 연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게 하되, 쇄환할 때에 숨겨 준 자 및 목허 준 호수(戶首)·절린(切隣)과, 쇄환한 뒤에 잘 어루만지지 못하여 도로 도망하게 한 수령(守令) 등은 한 결 같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라 죄줄이 어떠하겠습니까? 육진 사람들은 서로 옮겨 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전일에 해조(該曹)가 수교(受敎)하여 행이(行移)하였으나, 다만 군민(軍民)이 서로 옮겨 살아서 교묘히 군역(軍役)을 피하므로 방어(防禦)가 허술하고, 이 때문에 남도(南道)의 백성으로 북도에 옮겨 사는 자는 쇄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북도 각진(各鎭)의 백성이 서로 옮겨 사는 것은 일체 금지하여 각각 원적(原籍)에 따라 생업에 안정하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양계(兩界)의 변진(邊鎭)의 수령이 왕래할 때에는 으레 다 급마(給馬)를 하니, 가령 품마(品馬)가 모자라서 부득이 아전(衙前)·군호(軍戶)의 말을 징발하더라도 두 세 필에 지나지 않아야 할 터인데, 많은 수를 징발하는 것은 그 신는 물건이 반드시 많아서일 것이니, 그 범죄를 알 만합니다. 수령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교수(敎授)·훈도(訓導)도 품마가 있는데 혹 유생(儒生)의 말에 타거나 짐 신는 자가 있으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각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엄금하게 하되 범하는 자는 중론(重論)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함경도 각 고을은 군민에게서 호(戶)마다 베[布] 1필(匹)을 거두되 신평(神布)라 이름 하여, 한편 관찰사에게 나르고 한편은 절도사(節度使)에게 나르며, 한편은 상납(上納)하고 한편은 관용(官用)으로 하는데,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근래 군민의 곤궁이 심하거늘 어찌 차마 베를 받았습니까? 하물며 이 폐법(弊法)이 다른 도에는 없는 바가 있겠습니까? 군민이 되살아나기까지는 거두지 않음이 매우 온당합니다. 폐조(廢朝) 때에 변방 백성이 피물(皮物)의 무역 때문에 마소를 가지고 당인(唐人)이나 야인(野人)에게 몰래 서로 팔아넘기되, 각 진장(鎭將)도 독촉에 쫓겨 금지하지 않아서 이제까지도 옛 버릇을 따라 범법(犯法)이 더욱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심함(宋軼)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대전(大典)》에, ‘몰래 마소를 상국(上國) 및 인국(隣國)에 파는 자는 교형(絞刑)한다.’ 하였거니와, 관찰사·절도사로 하여금 이 법을 더욱 밝혀서 엄하게 금지하되, 만약 여전히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장도 중론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유순정이 아뢰기를, “의주(義州)는 경계가 상국에 이어져 상국 사신이 처음 이르는 길이며, 또한 야인을 접견하는 곳입니다. 이제, 목사(牧使) 이윤검(李允儉)이 재능이 있으므로 그 직임에 제수되어 마땅하나 직품(職品)이 통정(通政)에 그쳤으니, 2품인 재상(宰相)으로 제수하소서. 회령(會寧)은 한갓 야인을 살피는 곳인데도 오히려 2품으로 제수했는데 하물며 의주이겠습니까?”하였다.

▶ 6권 3년 8월 22일 丁亥

光弼又曰: “都城及外方宰殺牛馬者甚多, 非徒民間, 各司公然用之. 先是非不立法, 而猶不禁戢, 或有司中宰殺者, 自今見捉者, 痛治官吏. 且都城之內, 不論妻妾, 皆乘轎子, 外方守令, 則雖如縣監, 其衙眷, 必乘轎子, 本邑轎軍來迎, 而又請出於各官, 其弊不貲. 非處女及堂上官妻, 一切禁斷.”

광필이 또 아뢰기를, “도성(都城) 및 외방(外方)에서 마소를 잡는 자가 매우 많아, 민간에 서만이 아니라 각 관사(官司)에서도 버젓이 합니다. 이에 앞서 법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금지하지 않아 혹 관사 중에는 잡는 자가 있으니, 이제부터 잡히거든 관리(官吏)를 매우 다스리소서. 또, 도성 안에서는 처·첩(妻妾)을 막론하고 다 교자(轎子)를 타며, 외방의 수령(守令)은 비록 현감(縣監)일지라도 그 아권(衙眷)이 반드시 교자를 타므로, 본읍(本邑)의 교군(轎軍)이 마중 나오는데도 또 각 고을에서 나오기를 청하여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처녀(處女) 및 당상관(堂上官)의 아내가 아니면 일체 금단하소서.”하였다.

▶ 6권 3년 8월 23일 戊子

戊子/傳于政院曰: “昨日大司憲所啓, 外方守令衙眷乘轎子及各司牛肉禁止事, 令憲府節目磨鍊以啓.”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어제 대사헌(大司憲)이 아뢴, 외방 수령의 아권(衙眷)이 교자를 타는 일 및 각 관사의 쇠고기를 금지하는 일은, 헌부(憲府)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해서 아뢰게 하라.”하였다.

▶ 7권 3년 11월 2일 丙申

希曾曰：“臣聞平安道邊民，以農牛、農器，就滿浦貿易毛物，無所忌憚，交通外夷，其漸可長。請令觀察使、節度使禁戢。且滿浦僉使高自謙，不解文且暗劣，何能措置？請擇差。”傳于政院曰：“邊將須用武才，不必能文。今高自謙，果不合於滿浦耶？政院豈無所聞見？其啓之。且聞咸鏡道觀察使高荊山，治民防禦甚善。不拘箇滿，欲仍任，賜表裏以勸獎。若有前例，其考以啓。”

희증(希曾)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평안도 변민(邊民)이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가지고 만포(滿浦)로 가서 모물(毛物)을 무역하되, 기탄(忌憚)하는 바 없다 하니, 외이(外夷)와 교통하는 폐단이 두렵습니다. 청컨대 관찰사·절도사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소서. 또 만포첨사 고자겸(高自謙)은 글을 모르고 또 용렬하니, 어찌 이러한 일을 조치하겠습니까? 청컨대, 가려서 임명하게 하소서.”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변장(邊將)은 모름지기 무재(武才)를 임용하는 것이니, 반드시 문학에 능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고자겸이 과연 만포(滿浦)에 합당하지 아니한가? 정원이 어찌 듣고 본 바가 없겠는가? 그대로 아뢰라. 또 듣건대, 함경도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은 치민(治民)과 방어(防禦)를 매우 잘한다 하니, 그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유임시키고 표리(表裏)를 하사하여 권장코자 한다. 만약 전례가 있으면 이를 고찰하여 아뢰라.”하였다.

▶ 7권 4년 1월 6일 己亥

傳于憲府曰：“觀崔夢錫推案大略，其被殺者，初以盜牛囚繫，終無盜牛形迹，必夢錫懷憤殺之也。被殺人等，當初以衙中數外馬二匹，將告訴監司，夢錫疾之，乃托以盜牛而濫刑，父子、兄弟相及者八人。凡枉刑殺人，雖一人猶不可，況八人乎？此雖蒙宥，憲府觀事之輕重，當論啓，而不爲。予意此事已甚，若全釋，則無以懲後人。”

사헌부(司憲府)에 전교하기를,

“최몽석(崔夢錫)의 추안(推案)의 대략을 보건대, 그 피살자를 처음 소도둑으로 수감하였으나 마침내 소를 도둑질한 형적이 없으니, 이는 반드시 몽석이 분한(憤恨)을 품고 죽인 것이리라. 피살된 사람들이 당초에 그 관아(官衙) 안에 있는 정수 이외의 말 2필을 장차 감사에게 고발하려 하므로, 몽석이 이를 미워하여 소도둑으로 몰아 남형(濫刑)을 한 것이며, 부자·형제에 서로 연루된 것이 8인이다. 무릇 형벌을 잘못 시행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비록 용서를 받았다 해도 사헌부에서 일의 경중을 보아 당연히 논계(論啓)해야 할 터인데 아니하니, 나의 뜻으로는 이 일이 너무나 심한 것 같다. 이를 만약 모두 풀어준다면 후인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하였다.

▶ 8권 4년 5월 25일 丙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丙辰/御朝講. 大司諫崔淑生、持平柳雲, 論啓前事. 淑生又曰: “畿甸之民, 納生穀草甚苦. 司僕馬及洪原串馬, 請量減其數, 各官所養水牛, 無益於國, 有害於民, 亦宜去之. 諸道各場馬, 出給軍士, 俾之調習, 有馴良者則國用, 其餘仍給之, 以備緩急之用.”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최숙생·지평 유운이 앞의 일을 아뢰었다. 숙생이 또 아뢰기를, “기전(畿田) 백성은 생곡초(生穀草)를 납품하느라 매우 괴로워합니다. 사복시(司僕寺)의 말 및 홍원곶(洪原串) 말을, 청컨대 그 수를 헤아려 감하게 하소서. 각관(各官)에서 기르는 수우(水牛)도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만 있으니, 또한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 도의 각 목장 말은 군사에게 내어 주어 조습(調習)하게 하여 길이 잘 든 것이 있으면 나라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주어 위급할 때 쓰게 하소서.”하였다.

▶ 8권 4년 5월 25일 丙辰

政院將崔淑生所啓司僕馬及洪原串馬, 量減, 諸牧場馬, 分給軍士調習, 水牛宜去等事, 取稟. 傳曰: “令該曹磨鍊以啓.”

정원에서 최숙생이 아뢴, 사복시의 말 및 홍원곶 말을 헤아려 감할 것과, 여러 목장의 말을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 조습할 것, 수우(水牛)를 버려야 할 것 등의 일을 가지고 취품(取稟)하니, 전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 8권 4년 7월 20일 庚戌

兵曹兼判書柳順汀·判書金應箕啓曰: “北道人潛賣人物於城底野人, 已爲成風, 吾民日漸減少, 至爲可慮. 前者各鎮城內居人, 作爲五統, 統有長, 每月季點閱, 雖闕一名, 必罪統長. 近來守令, 不行此法, 故賣人者尤爲恣行. 請下諭于其道監司、兵使, 申明統長之法, 以爲禁防. 且祖宗朝水牛, 雖非我土之產, 而分養各邑者, 欲其孳息, 而使我土人民, 用於耕種. 近者以爲無所用, 放之海島, 勢必飢凍盡死, 非先祖之意也. 請分給民間, 若物故, 勿治其致死之罪, 則有財之民, 或能養之, 漸習耕種, 民蒙其利.” 傳曰: “賣人事, 依啓下諭, 水牛事, 議之可也.”

병조 겸판서 유순정·판서 김응기가 아뢰기를, “북도 삼람이 몰래 성 아래 야인에게 사람을 팔아서 이미 풍습을 이루었으니, 우리 백성이 날로 점차 감소되어 지극히 걱정됩니다.

전자에 각 진(鎭)의 성안에 사는 사람을 5통(五統)을 만들고 통에는 장을 두었으며, 매월 월말에 점열(點閱)하여 비록 한 명이 빠지더라도 반드시 통장을 죄 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수령이 이 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파는 자가 더욱 방자하게 행동하니, 청컨대 그 도(道) 감사와 병사에게 하유하여 통장의 법을 거듭 밝혀 금방(禁防)하게 하소서.

그리고 조종조에서, 물소가 비록 우리 땅의 소산이 아니지만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한 것은, 자식(孳息) 시켜서 우리나라 인민으로 하여금 경종(耕種)에 쓰도록 하고자 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소용이 없다 하여 해도(海島)로 추방하였으니, 필시 주리고 얼어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이는 선조의 뜻이 아니니, 청컨대 민간에 나누어 주고, 만약 물고(物故)하더라도 그 치사(致死)케 한 죄를 다스리지 말면, 재산이 있는 백성은 혹 능히 길러서 점차 경종을 익혀 백성이 그 이익을 입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사람 파는 일은 아된 대로 하유하고, 물소 일은 의논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 8권 4년 7월 20일 庚戌

永嘉府院君金壽童等議, “災傷敬差官, 常於收穫後發遣, 只見白根, 則禾穀實不實, 無由知也. 且踏驗似是良法, 然一境之內, 結負數多, 守令豈能出入壠畝, 一一踏驗乎? 不得已委於吏, 則必有奸僞, 徒爲紛擾而無益. 今次敬差官, 可擇秩高勤謹朝官, 兼帶御史, 收(獲)〔穫〕前發遣. 布價及雜物價, 依數題給, 則國儲不裕, 若全不給, 則亦爲未便. 但其時因物價騰踊, 定價猥濫, 可令該司, 適中改市准, 漸次題給. 遮日帳, 豈盡是廢朝入內不出? 其間官吏, 不謹看守, 致令遺失者亦多. 然追徵無據, 可令該司, 磨諫減錄會計. 水牛依兵曹所啓, 從民願給之, 使養爲當.”皆從之.

영가 부원군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은 항상 수확한 뒤에 발견(發遣)하여 다만 흰 뿌리[白根]만 보게 되니, 벼곡식의 실·부실(實不實)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험이 양법(良法)인 듯싶으나, 그러나 한 지경 안의 결부(結負) 수가 많으니 수령이 어찌 능히 논두렁을 출입하며 일일이 답험하겠습니까? 마지못하여 아전에게 위임하면 반드시 간위(奸僞)가 있어서 한갓 분요스럽기만 하고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경차관은 품질(品秩)이 높고 근근(勤謹)한 조관(朝官)을 택하여 어사를 겸대(兼帶)하고 수확하기 전에 발견하도록 하소서. 베값[布價]과 잡물 값은 수대로 제급하면 국저가 넉넉하지 못하고, 만약 전혀 주지 않으면 또한 편치 못한데, 다만 그 때 물가가 치솟음을 인하여 값 정하기를 외람되게 하였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알맞게 시준(市准)을 고쳐 점차 제급케 하소서. 차일장(遮日帳)은 어찌 모두 폐조에서 궐내에 들여와 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관리가 잘 간수하지 않아 유실하게 한 것도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할 근거가 없으니, 해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감하여 기록해서 회계하게 하소서. 물소는 병조의 아된 바에 의하여 백성이 원하는 대로 주어 기르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모두 이를 따랐다.

▶ 10권 4년 11월 6일 甲子

兵曹啓: “金壽童等議: ‘水牛從民願題給爲當.’ 云, 請各官分養水牛, 從民情願, 分授耕田, 如或故失, 勿令治罪.” 依允.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병조가 아뢰기를, “김수동(金壽童) 등의 의논이, 물소[水牛]를 민원(民願)에 따라 제급(題給)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물소를 백성의 청원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하되, 혹 죽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죄를 다스리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10권 5년 1월 23일 庚辰

庚辰/受常參. 御朝講. 大司諫成世貞曰: “金世瑀冒錄不取才軍士于取才之列者, 多至三十餘人. 用心不正, 不可不推治.” 知事金應箕曰: “國家徒民實邊, 欲其阜盛人物, 以備邊方耳. 元居私賤人, 或賣入胡地, 或買來於此, 至於奉使之入, 亦有買來者. 有限人物, 如此買賣, 則其能阜盛乎? 或云: ‘與其入居他人, 寧禁買賣元居私賤可也.’ 且初設互市之法, 欲胡人和親, 懋遷有無而已, 然猝禁則夷虜生嫌, 令監司因便禁止可也.” 大司諫曰: “今國人利於貿易毛物, 盡賣牛畜, 或以此易彼之所得中原綾段, 至廢朝尤甚.” 憲洪淑曰: “今後猥濫買賣者, 在所當禁. 前日奉使人員, 亦有買來者, 請推考懲戒.” 應箕曰: “咸鏡道人物, 雖私賤, 勿令買賣, 使之阜盛, 則緩急可以爲用也.” 又曰: “在前堂下官差任處, 今皆以堂上差遣, 人物不足, 官爵猥濫, 釜山浦僉使, 本以堂下官差任, 而近以鎮服倭虜事建議, 以堂上任之, 至如江界、富寧、訓戎等處, 亦皆置堂上官, 安得不至於猥濫? 人之賢否, 不在堂上、堂下, 但擇人而已, 仍用舊制似當.” 上曰: “人之賢否, 果不在堂上, 只在擇人, 可更議處之.”

상참(常參)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성세정(成世貞)이 아뢰기를, “김세우(金世瑀)가, 취재(取才) 되지 않은 군사를 취재된 가운데에다 허위로 기록한 것이 30여 인이나 됩니다. 마음이 부정하니, 추문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지사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백성을 옮겨 변방을 채우는 것은, 인물을 풍부하게 하여 방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주하는 사천인(私賤人)이 혹은 호지(胡地)로 팔려 들어가고 혹은 이곳으로 팔려오며, 심지어는 사절로 다녀오는 사람 중에도 사오는 자가 있습니다. 한정된 인물을 이렇게 매매하면 인물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들어가 살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래 거주하는 사천의 매매를 금함이 가하다.’ 합니다. 또 처음에 호시(互市)의 법을 마련한 것은, 호인(胡人)들과 화친하고,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바꾸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물(毛物) 무역에 이익을 보려고, 소와 가축을 다 팔고, 혹 이것으로 저곳에서 얻는 중국의 비단을 바꾸어 오는데, 폐조 때에 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금하면 오랑캐들이 싫어할 것이니, 감사로 하여금 형편을 보아서 금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대사헌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금후로 외람되게 매매하는 자는 당연히 금하여야 하겠지만, 전일 사신으로 갔던 사람 중에도 사온 사람이 있으니, 청컨대 추고(推考)하여 징계하소서.”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함경도의 인물은 비록 사천이라도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사람을 풍부하게 하면, 유사시에 쓸 수 있습니

다.”하고, 또 아뢰기를, “전에는 당하관(堂下官)으로 임명하던 곳을 지금 모두 당상관으로 임명하여 보내니, 인물이 부족하고 관작이 외람됩니다. 부산포첨사(釜山浦僉使)를 본래 당하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근자에 왜로(倭虜)를 진압하기 위하여 건의하여 당상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강계(江界)·부령(富寧)·훈융(訓戎) 등처까지 모두 당상관을 두니, 관작이 어찌 외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아니함은 당상관이나 당하관이나에 달려 있지 않고, 사람을 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옛 제도로 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은 과연 당상관이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을 가리는 데에 달려 있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함이 가하다.”하였다.

▶ 10권 5년 2월 10일 丙申

領事柳順汀曰: “宣王內修政事, 外攘夷狄之事, 於《車攻》、《吉日》、《六月》等篇可見. 廢朝流民, 庶幾安集, 而猶未盡者, 字牧之道, 未盡修舉. 大抵役民, 不可不均. 殘弊如高陽、積城等邑, 賦役同於大邑, 殆不能支, 小邑之役, 分定大邑, 使之均役可也. 且今雖無獫狁之亂, 然夷狄之虞, 不可不備. 臣見南方箭竹, 例輸北道者, 率皆稚竹, 小大不齊. 請令南方箭竹, (栽)〔裁〕正作編, 連水則船輸, 連陸則陸輸, 以備軍用. 兩界例納鄉牛角, 宜令軍器寺造弓, 分與軍士之有才無弓者. 且絕島放牧之馬, 逐年點考, 人有溺水之弊, 可移放陸場. 平安道入居, 抄定已久, 而時未入送. 其丁多富實者, 入于平安道, 其丁弱而不實者, 請徙于積城、長湍等處.” 上曰: “流民至今不得安集, 可爲憐悶. 蘇復節目, 朝廷曾已詳定, 下諭各道, 而守令不能舉行. 今可申明, 下諭各道觀察使.”

영사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선왕(宣王)이 안으로 정사를 닦고, 밖으로 이적(夷狄)을 물리친 일은 거공·길일·유월 등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조 때 유리한 백성들이 거의 안 집되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것은 지방관의 백성을 애무(愛撫)하는 행정이 다 거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저 백성을 부리는 것은 고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양(高陽)·적성(積城)과 같은 잔폐(殘弊)한 고을의 부역이 큰 고을과 같아 거의 지탱할 수가 없으니, 작은 고을의 부역을 큰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부역을 고르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험윤(獫狁)의 난 같은 것이 없지만 이적의 우환은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북도로 실어가는 남방의 전죽(箭竹)을 보니, 거의 다 어린 대나무로 대소(大小)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남방의 전죽을 일정하게 끊어 엮어서, 수로로 연결되는 곳은 배로 나르고, 육로로 연결되는 곳은 육로로 날라서 군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양계(兩界)에서 연례로 상납하는 향우각(鄉牛角)을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활을 만들어 군사 중 재주는 있으나 활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또 외딴 섬에 놓아기르는 말을 해마다 점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폐단이 있으니, 육지 목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평안도에 입거(入居)할 사람을 조정(抄定)한 지 오래데, 아직도 들여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민정(民丁) 중에 가멸하여 실한 자는 평안도로 들여보내고, 잔약하여 부실한 자는 적성(積城)·장단(長湍) 등지로 옮기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리한 민중이 지금껏 안집하지 못하였으니, 불쌍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고 민망한 일이다. 조정에서 일찍이 그 소복(蘇復) 절목(節目)을 상정(詳定)하여 각도에 유시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이 거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금 더욱 밝혀서 각도관찰사에게 하유하라.”하였다.

▶ 10권 5년 3월 26일 辛巳

特進官李蓀曰: “古者民間多牛, 故無牛者相資以耕. 臣近見田野耕牛鮮少, 又無放牧之犢, 民用犁鋤, 墾田付種. 古云: ‘深耕易耨.’ 農事非牛, 無以爲功. 臣竊念無牛之由, 無賴之徒, 多聚城中, 以屠牛爲業, 牛之自外方來者, 盡斃於屠人之手. 此而不禁, 則勢至於一國之牛, 盡殲無遺, 牛盡則屠人必將相聚爲盜, 此亦可慮. 國家與其驅無罪之民, 以實邊, 不若推刷此輩, 依外知部【掌隸院古稱‘都官知部’無賴之徒, 諳誦法律, 僞造文券, 教唆訟, 若訟而得勝, 則已取其利, 名曰: ‘外知部.’】例, 全家徙邊. 且犯此者, 絕島入送, 已有著令, 然罪重, 故皆忍杖發明, 無有一人如法被罪者. 臣意一皆推刷徙邊, 則此弊庶可祛矣.” 經筵官退賓廳. 傳曰: “臺諫啓陰陽失和, 花草不榮. 大抵四時運行, 各順其序, 理之常也. 今春桃杏無花, 且有旱氣, 故已令祈雨, 而雨則始下矣, 然予意以爲, 冤抑未伸也. 疏放徒以下之罪何如?” 朴元宗、李蓀、李站、朴說、申儼、安處誠、蘇世良、蘇世讓等啓曰: “下旨不爲不數, 求言, 亦非一再, 謹天戒至矣. 臣等意賞善罰罪, 乃天之道. 前年已爲疏放, 夫數赦, 小人之幸, 今不可疏放也. 求言則不妨. 且官吏不謹奉法照律, 或有輕重獄訟, 或滯不決, 使有冤枉, 今後勿令如此, 以此竝錄于求言之旨, 以諭中外爲當.” 上曰: “啓意已悉之. 李蓀所啓屠牛人推刷徙邊事, 今收議于府院君以上.” 又傳曰: “韓汲事干, 急速憑推. 若遲緩則恐有容詐之弊.”

특진관(特進官) 이손(李蓀)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민간에 소가 많으므로, 소 없는 자도 서로 융통하여 밭갈이하였습니다. 신이 근일 보니, 전야에 밭가는 소가 드물고, 또 농아먹이는 송아지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쟁기와 가래를 써서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립니다. 옛말에 ‘깊이 갈면 김매기 쉽다.’ 하였거니와, 농사는 소가 아니면 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소가 없는 이유는 무뢰배가 많이 성 안에 모여들어 소 잡는 것을 업으로 삼으므로, 외방에서 오는 소는 모두 도인(屠人)의 손에 죽습니다. 이래도 금하지 않으면, 장차 한 나라의 소가 다 죽고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소가 다 없어지면 도인들은 반드시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할 것이니, 이 또한 염려되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몰아서 변방을 채우는 것보다는 이 무리들을 추쇄(推刷)하여 외지부(外知部)【장례원(掌隸院)을 옛날에 도관지부(都官知部)라 하였다. 무뢰배가 법률을 잘 외어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다. 이것을 이름하여 외지부라고 하였다.】의 예에 의거하여 온 집을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범하는 자는 외딴 섬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중하기 때문에 모두 형장의 고통을 참으면서 발명하여, 한 사람도 법과 같이 죄를 입은 자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모두 추쇄하여 변방으로 옮기면, 이 폐해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경연관(經筵官)들이 빈청(賓廳)으로 물러 가고 나서, 전교하기를, “대간이,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화초가 번영하지 않는다고 아뢰었다. 대저 사시(四時)의 운행은 각각 그 차례에 따르는 것이 떳떳한 이치이다. 지금 봄인데 복숭아와 살구 꽃이 피지 않고, 또 가물어 이미 비를 빌게 하였는데, 비는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나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도형(徒刑) 이하의 죄를 소방(疏放)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박원종(朴元宗)·이손(李蓀)·이점(李站)·박열(朴說)·신엄(申儼)·안처성(安處誠)·소세량(蘇世良)·소세양(蘇世讓) 등이 아뢰기를, “전지를 자주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요, 구언(求言)한 것도 또한 한두 번이 아니니, 하늘의 경계를 지극히 조심한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착한 이를 상주고, 죄 있는 자를 벌주는 것은 하늘의 도입니다. 전년에 이미 소방하였으니 대저 자주 사(赦)하는 것은 소인의 다행이니, 지금 소방하는 것은 불가하고, 구언(求言)은 무방합니다. 관리가 조심히여 법을 받들어서, 조율(照律)에 혹 경중(輕重)이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옥송(獄訟)이 혹 지체되어 결단되지 않아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게 하니, 금후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게 하고 이 뜻을 구언하는 전지에 함께 적어서, 중외에 유시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뢴 뜻은 이미 잘 알았다. 이손이 아뢴 도우인(屠牛人)을 추쇄(推刷)하여 변방으로 옮기는 일은, 지금 부원군(府院君) 이상에게 수의(收議)한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한급(韓汲)의 관련자는 급속히 전 조사에 빙거하여 심문하라. 만일 더디면 사위(詐僞)가 끼어들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10권 5년 3월 26일 辛巳

金壽童、柳順汀、成希顔等議：“宰殺牛馬，法非不嚴，而邇來未聞有犯禁被罪者，是官吏奉行陵夷之故也。李蓀所啓屠牛爲業者徒邊，於一時救弊似便，令漢城府刻期推刷，全家徒邊，且令中外，申明宰牛之法，嚴加禁斷爲當。” 朴元宗、盧公弼、朴安性、鄭眉壽等議亦同。傳曰：“近來屠牛者無忌，農牛幾盡，故有欲刷屠牛，今悉徙于邊，救一時之弊宜矣。第念國家欲實邊鄙，不得已方徙南民於北道，既已憐悶，又刷此輩實邊，則京外騷擾矣。今方謹天戒之時，民之冤抑，皆欲伸之。此輩雖不可謂無罪，然一朝遠徙，豈得無冤？傷和召災，未必不由於此。在廢朝，正兵代立者，皆令徒邊，是亦救弊之舉，而街巷騷然，冤呼盈路。此予所同觀也，厥後代立者，猶不止。今雖盡徙屠牛人於邊鄙，後豈無犯者乎？(兄)〔況〕當推刷時，不無奸僞，罪魁者或漏，而非(辛)〔辜〕橫罹，則訴冤者又蜂起矣。法禁非不詳且嚴，而官吏慢不奉行，故其恣行不忌如此。自今嚴加糾摘，隨其現露，一切徒邊，猶且不戢，然後更議徒邊何如？以李蓀所啓之辭，與予意，更議于政府、六曹判書及判尹。”

김수동(金壽童)·유순정·성희안(成希顔) 등이 의논드리기를, “우마를 도살하는 데 대한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근래에 금령을 범하고 죄를 받은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이는 관리가 법을 소홀히 봉행(奉行)하기 때문입니다. 이손이 아뢴바 도살을 업으로 하는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자들을 변방에 옮기는 것이, 일시 폐해를 구제하는 데에 편할 것 같습니다.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고 추쇄하여 온 집을 변방에 옮기게 하소서. 또 중외로 하여금 도우법(屠牛法)을 더욱 밝혀서, 엄히 금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하고, 박원종(朴元宗)·노공필(盧公弼)·박안성(朴安性)·정미수(鄭眉壽) 등의 의논도 같았다. 전교하기를, “근래에 도우(屠牛)하는 자가 꺼리지 않고 잡아서, 농우가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도우하는 자들을 추쇄하여 변방으로 옮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일시의 폐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나, 생각하면, 국가에서 변방 지역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방 백성을 북도에 옮기는 것도 가엾은 일인데, 또 다시 이 무리들을 쫓아서 변방에 보낸다면, 서울과 지방이 다 소란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때에 있어서,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모두 풀어 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하루 아침에 멀리 옮기면 어찌 원한이 없으랴? 화기를 상하고 재변을 부르는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폐조(廢朝)에 있어서, 정병(正兵)을 대신 세운 자를 모두 변방에 옮기게 하니, 이 또한 폐해를 구하는 일이었으나, 거리가 소란하고 원망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직접 본 일이며, 그 뒤에도 대신 세우는 자가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 지금 도우인을 변방에 다 옮기더라도 뒤에 어찌 범하는 자가 없으랴? 하물며 추쇄(推刷)할 때에 간사한 짓이 없지 않을 것이다. 죄가 큰 자는 혹 빠지고 죄 없이 잘못 걸리면,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또한 벌때 같이 일어날 것이다. 법금이 자세하고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요, 관리가 태만하여 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망자한 행동하기를 꺼리지 않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엄하게 살펴 적발하여, 드러나는 대로 일체 변방에 옮기고, 그대로 그치지 않을 때에 다시 추쇄하여 옮기는 일에 대하여 의논함이 어떠한가? 이손의 아뢴 내용과 나의 의견을 가지고 다시 정부와 육조판서 및 판윤(判尹)에게 의논하라.”하였다.

▶ 10권 5년 3월 26일 辛巳

金壽童議: “徙民重事也. 國家欲實邊, 爲此不得已之舉. 無罪者尙且徙之, 況屠牛爲業者, 其罪甚重, 雖徙邊, 豈有傷和召災之理? 故前以李蓀之議爲當. 但於推刷時, 或漏其有罪, 而無辜橫罹, 則不無冤枉, 令該司詳加推刷, 得其罪大者, 悉徙邊, 以警其餘, 救以一時之弊爲便.” 朴安性、鄭眉壽、辛允武議類此. 朴元宗議: “今觀傳教之辭, 上教甚當. 去骨匠, 【即屠牛者也.】曾立禁斷之法, 非不詳且嚴也, 緣官奉法不謹, 犯法不止. 今後嚴加糾摘, 而如不自戢, 令推刷全家徙邊無妨.” 姜渾、權鈞、洪景舟、申用漑、李季男議類此. 柳順汀議: “以屠牛爲業者, 人所大惡, 一朝盡刷徙邊, 實快於人心, 人心所快, 天意亦可知矣. 但當推刷時, 或有奸僞, 使有罪脫漏, 無辜橫罹, 則不得無冤, 令該司詳密推刷, 一無容僞, 則其於救一時之弊, 未爲不可. 前日正兵代立者, 外知部者, 其罪有間於屠牛者, 而竝刷徙邊. 其後代立者, 皆得免放而還, 以此代立, 今猶不止. 然視前不甚放恣, 實有所懲也.” 成希顏議: “牛於畜物最鉅, 耕農所賴甚大, 實養人者也, 而屠牛爲業者, 恣行宰殺. 一人一年所殺, 或過百餘, 傷天地、生物之心, 干時君不忍之政, 其罪何可勝言? 近來尤不畏法, 無忌益甚. 適李蓀建白, 其救積弊, 爲計甚當, 故前以推刷

徒邊爲議.” 李季男議: “李蓀所啓果當. 禁屠殺之法, 既詳且嚴, 官吏奉行糾摘, 自無其弊. 今刷出徒邊, 非徒騷擾, 恐有橫罹無辜之冤, 令該司嚴加申明禁戢, 何如?” 上從元宗議.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백성을 옹기는 것은 중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변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득이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도 옹기는데, 하물며 도우(屠牛)로 업을 삼는 자이리까? 그 죄가 매우 중하니, 변방에 옹기더라도 어찌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일으킬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에, 이손(李蓀)의 의논을 좋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추쇄할 때에 혹 죄 있는 자가 빠지고, 죄 없는 자가 잘못 걸린다면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추쇄하여, 그 중에 죄가 큰 자를 변방으로 옹겨서, 그 나머지를 경계하여 일시의 폐해를 구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하고, 박안성(朴安性)·정미수(鄭眉壽)·신윤무(辛允武)의 의논도 이와 비슷하였으며, 박원종(朴元宗)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전교의 사언을 보니, 상교가 매우 마땅합니다. 거골장(去骨匠)에 대하여 일찍이 금단(禁斷)하는 법을 세운 것이 자세하고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관리들이 법을 잘 봉행하지 아니하여 범법하는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금후에는 엄히 살펴 적발하고, 만일 자제하여 그치지 않으면, 추쇄하여 온 집을 변방에 옹기는 것이 무방합니다.”하고, 강혼(姜渾)·권균(權鈞)·홍경주(洪景舟)·신용개(申用漑)·이계남(李季男)의 의논도 이와 비슷하였으며, 유순정이 의논드리기를, “소 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는 사람들이 크게 미워하는 바이니, 하루아침에 추쇄하여 변방으로 옹기면 실로 인심이 통쾌해질 것입니다. 인심이 쾌하게 여기는 것은 하늘의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추쇄할 때에 혹 간사한 짓을 하여, 죄 있는 자는 빠지고 죄 없는 자가 잘못 걸리게 되면, 원통함이 없을 수 없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세밀히 추쇄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게 하면, 일시의 폐해를 없애는 데에 불가하지 아니합니다. 전일에 정병 대립자(正兵代立者)나 외지부(外知部) 같은 것은 그 죄가 도우자(屠牛者)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변방에 옹겼는데, 그 뒤에 정병 대립자는 모두 면방(免放)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립자가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비하여 방자하지 않으니, 실로 징계된 것입니다.”하고, 성희안(成希顔)이 의논드리기를, “소는 가축 중에서 제일 크고, 농경(農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 실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우(屠牛)로써 직업을 삼는 자들이 함부로 도살하여, 한 사람이 1년에 도살하는 것이 혹 백여 두를 넘으니, 천지의 만물을 낳아 기르는 마음을 상하고, 시군(時君)의 차마하지 못하는 정사에 관계되니, 그 죄를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근래에는 더욱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꺼리지 않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마침 이손이 그 쌓이고 쌓인 폐해를 구할 것을 건의하고, 그 계책이 매우 마땅하므로, 전에 추쇄하여 변방에 옹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하고, 이계남(李季男)이 의논드리기를, “이손의 아뢰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다. 도살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자세하고도 엄하니, 관리들이 이를 봉행하여 규찰하면 자연 그 폐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추쇄하여 변방으로 옹기면, 소요가 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잘못 걸리는 원통한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엄하게 법을 밝혀 금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였는데, 상이 원종의 의논을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1권 5년 4월 11일 丙申

慶尙道金海府, 有雌牛, 產五足黃雄犢. 前右腳邊, 又生一脚, 短而小, 不及地, 蹄亦三拆.

경상도(慶尙道) 김해부(金海府)에서 암소가 다리 다섯 달린 누런 숫송아지를 낳았는데, 앞 다리 오른쪽 가에 또 하나의 다리가 달려 있었으나 땅에는 닿지 않았고, 굽은 세 쪽으로 쪼개어져 있었다.

▶ 11권 5년 4월 28일 癸丑

遣都承旨宋千喜, 宣慰南征將士, 仍賜藥及笠帽, 又內出紫金丹三千丁, 石牛黃六十斤, 付宣慰使曰: “爾其賫去, 與都元帥同議, 元帥以下差等頒給.”

도승지 송천희(宋千喜)를 보내 남정한 장사를 선위(宣慰)하는데, 인하여 약과 갈모[笠帽]를 주고 또 궁내에서 자금단(紫金丹) 3천 정(丁)과 석우황(石牛黃) 60근을 내어 선위사(宣慰使)에게 부치고 이르기를, “네가 가지고 가서 도원수와 상의하여 원수 이하에 차등 있게 나누어 주라.” 하였다.

▶ 12권 5년 9월 24일 丁丑

金壽童、柳順汀、成希顔、金應箕、洪景舟、辛允武、洪淑等議: “滿浦互市, 在所痛禁. 若因循不禁, 本道牛馬鐵物, 終皆爲野人之資, 其弊不可勝言. 以此前日, 已議一切禁斷, 依前議嚴禁爲當. 野人若要買賣, 留連不歸, 且有怨言, 令鎮將開諭曰: ‘凡物隨時貴賤, 價亦從而低昂, 乘時射利, 小民之事也. 前日如毛皮段子等物, 有切於用, 故民間就爾等求買, 今則不切於用, 自無求買者. 大抵買賣, 各從情願, 不可抑使爲之也.’ 以此反覆開諭, 入送爲便.” 從之. 先是滿浦僉使崔三俊陞辭時, 將此意啓之, 命議諸大臣, 至是議啓.

김수동·유순정·성희안·김응기·홍경주·신윤무(辛允武)·홍숙(洪淑) 등이 의논드리기를, “만포(滿浦)에서 서로 매매(買賣)하는 것은 엄금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인순(因循)하여 금지하지 않는다면, 본도의 마소와 철물(鐵物)은 마침내 모두 야인(野人)의 밑천이 되고 말 것이니, 그 폐해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일에 이미 일절 금단(禁斷)할 것을 의정(議定)하였으니, 전일의 의정에 따라 엄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인이 만약 매매를 요구하여 계속 머무르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원망하는 말이 있을 것이니,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사리(事理)를 들어 타이르기를 ‘무릇 물건은 때에 따라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한 것으로서 가격도 또한 그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는 것이니, 때를 노려서 이(利)를 취하는 것은 천한 백성의 일이다. 전일에 모피(毛皮)·피륙 등의 물건은 용도가 긴절하기 때문에 민간(民間)에서 너희들에게서 구매(求買)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구매하는 자가 없는 것이다. 대저 매매라는 것은 각기 제 소원에 따르는 것이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반복해 타일러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편의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만포첨사(滿浦僉使) 최삼준(崔三俊)이 폐사(陞辭) 할 때에 이 뜻을 아뢰는 일이 있어서 여러 대신들에게 수의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계(議啓)한 것이다.

▶ 12권 5년 9월 27일 庚辰

順汀曰: “水牛自祖宗朝, 分養於各官, 各官憚於養飼, 托其不宜於耕田, 請放於島以牧之. 此牛其性畏寒, 若放於島, 則必多死傷, 甚未便. 臣嘗受賜水牛, 耕田於仁川農庄, 一日之役, 倍於常牛數日之役. 李蓀爲金海府使時, 亦用水牛耕田, 其功果倍於常牛云. 請勿放看養.” 得江、世昌, 啓安潤德、俞懷哲及王后尙宮族親不宜從良事. 典經柳墩, 亦請從臺諫之言. 上皆不答.

순정이 아뢰기를, “물소[水牛]를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각 고을에 나누어 사양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사양하기를 꺼려 그것이 밭가는 데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청탁하면서, 섬에 방목(放牧)하기를 청합니다. 물소는 그 성질이 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 섬에 방목한다면 반드시 사상(死傷)이 많을 것이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이 일찍이 물소를 하사 받아 인천(仁川)의 농장에서 밭을 갈게 하였더니, 하루에 일한 것이 보통 소의 두어 날의 일보다 배나 되었습니다. 이손(李蓀)이 김해 부사(金海府使)가 되었을 때에 또한 물소를 부려서 밭을 갈았더니 그 성과가 과연 보통 소보다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방목하지 말고 돌보아 기르게 하소서.” 하였다. 득강·세창이, 안윤덕(安潤德)·유회철(俞懷哲)의 일과 왕후·상궁의 족친을 종량(從良)하지 말 것을 아뢰고, 전경(典經) 유돈(柳墩)도 대간의 말에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13권 6년 1월 7일 戊午

戊午/御朝講. 執義尹希仁、獻納成世昌, 啓具壽永、金貞幹、申壽麟、任浩、朴兼仁及魚箭事, 不允. 領事成希顔曰: “外方守令, 支供使命之際, 皆用酪粥. 民之有牛者, 長立官門, 及牛瘦瘠, 則鄉吏賤直抑賣, 民受其弊. 請諭觀察使禁斷.” 上曰: “欲矯時習, 當自京師始. 京師則令法司禁之, 外方則觀察使當禁之. 其以此下書于八道觀察使.”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윤희인(尹希仁)·헌납(獻納) 성세창(成世昌)이, 구수영·김정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신수린·임호·박겸인 및 어전(魚箭)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외방 수령(守令)이 사명(使命)에게 음식을 접대할 때에, 모두 타락죽[酪粥]을 사용하므로 소를 가진 백성들은 오랫동안 관청 문전에 서 있게 되고, 소가 여위어지면 향리(鄕吏)가 헐값으로 억지로 팔아 백성이 폐해를 입습니다. 관찰사에 유시(諭示)하여 금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습(時習)을 바꾸려면 경사(京師)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경사는 법사(法司)를 시켜 금하게 하고, 외방은 관찰사가 의당 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팔도관찰사에게 글을 내리라.”하였다.

▶ 13권 6년 5월 8일 丁巳

宗廟牆外, 人家失火連燒者, 六十七區, 延蕪牆內松木.

【史臣曰: “災也未幾, 雷震廟園松木. 又犧牛入廟門自斃, 又祭豕逸, 皆變之大者也.”】

종묘(宗廟)의 담장밖 인가에서 실화로 연소된 것이 67구(區)나 되었으며, 담장안 소나무에 까지 번졌다. 사신은 논한다. 재변이 있고 얼마 안 되어, 벼락이 종묘 동산 소나무를 치고, 또 희생(犧牲)할 소가 사당 문 안에 들어와서 저절로 죽으며, 또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가니, 모두 큰 재변이다.

▶ 15권 7년 1월 18일 甲子

京畿觀察使李自堅請: “依水原人禦侮將軍朴長孫所告, 濟州農牛, 許令出陸私貿, 以便耕作.” 啓下戶曹.

경기관찰사 이자건(李自堅)이 수원(水原) 사람 어모장군(禦侮將軍) 박장손(朴長孫)이 고하는 말에 따라 제주(濟州) 농우(農牛)를 육지에 내다가 사사로이 무역할 것을 허락하여 경작(耕作)에 편리하게 할 것을 주청하니,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

▶ 16권 7년 閏5월 28일 辛丑

辛丑/咸鏡北道節度使尹熙平馳啓曰:

上甫乙下居彼人中樞李伊里哈進告, 每下子速古乃等, 率軍四百名, 二百名則退屯, 二百名則來于其家, 以朝鮮人物擄來時, 進告會寧府, 無價刷還爲怒, 打被窓門, 奪牛三頭. 彼人巨弄哈進告, 虛濟居吾郎哈將帥巨乙夫, 率軍三十餘名, 前五六日魚游澗等處向歸, 會寧鎮羅也灘居吾郎哈中樞脫列進告, 虛濟居吾郎哈巨老, 率步兵五十餘名, 端川吾乙足指向云.

傳曰：“措置諸事，其令議政府、府院君、六曹參判以上會議。”左議政柳順汀等議曰：“今速古乃等，居近我境，世蒙國恩，一朝托以微釁，侵掠不已，是必知我邊備疎虞，乃敢爾也。觀其勢，非止速古乃，吾郎哈巨乙夫，亦聚兵作耗，他部將繼竊發，大爲邊患，未可知也。臣等所議事件，逐一開具。其一，安邊、德源、文川、高原、永興、定平、咸興、洪原等官軍糧，姑先輸入北道，江原、慶尙等道軍糧，輸運充數。其二，以牛馬，易胡人毛物，已有禁令，以馬易馬，曾無禁防。邊人因此給我牛馬七八頭，易胡馬一匹，以是胡人馬畜日繁，邊方畜產日減。自今雖以馬易馬，亦令痛禁，犯者以潛賣禁物條論斷，不糾檢兵使及鎮將，亦重論。其三，京畿、江原、忠清、全羅、慶尙道，凡徵贖布貨，限北道軍糧周足，令各道監司，盡數輸送北道，本道監司，分付各邑，貿穀以補軍糧。其四，司贍寺常縣布，每年勿論南北道，量數入送貿穀，且依平安道，許令換(穀)〔穀〕，內需司租穀，亦納本道，以京倉米換給。其五，國家以時徙南民實邊，旋即逃還。且邊將或非其人，非但多市邊馬而來，其遞還，多率從馬，遠路困頓，全還者蓋寡。因此北道人馬，日就減耗。加以興販之徒，馱載不繁物貨，久留邊方，耗費邊粟，且市軍士牛馬，轉與彼人，交易毛物，其弊難禁。亦倣中朝山海關，於磨天嶺上，設關門，擇遣五品以上有物望文臣一員，兼帶御史，周年相遞糾察。其六，凡禦敵，若無鐵甲，則掩心衣，最爲便好，邊方軍士，貧不能辦。司贍寺鼠破縣布，積於無用，量宜分付各司，染皂用紙爲絮，造一千領，分送兩界甚當。”仍啓曰：“鍾城府使南順宗，雖能治民，短於武才。須更擇有武才人差遣。臣等意弼中，若不許和，必不懇請。事有機會，許和爲便。”傳曰：“僉議甚當。許和事甚關，更議歸一以啓。”

함경북도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 윤희평(尹熙平)이 치계(馳啓)하기를,

“상보 올하(上甫乙下)에 사는 야인[彼人]의 중추(中樞) 이이리합(李伊里哈)이 진고(進告)하기를, 매하(每下)의 아들 속고내(速古乃) 등이 군사 4백 명을 거느리고 와서 2백 명은 뒤에 둔치고 2백 명이 그의 집에 와서 ‘조선 사람을 잡아왔을 때, 회령부(會寧府)에 진고하고 대가(代價)도 없이 쇄환(刷還)했다.’는 것으로 화를 내어, 창문을 부수고 소 세 마리를 빼앗아 갔다고 하며, 또 야인 거룡합(巨弄哈)은 진고하기를, 허제(虛濟)에 사는 오랑합(吾郎哈) 장수 거을부(巨乙夫)가 군사 30명을 거느리고 5~6일 전에 어유간(漁遊澗) 등지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령진(會寧鎭) 나야탄(羅也灘)에 사는 오랑합의 중추(中樞) 탈렬(脫列)이 진고하기를, 허제에 사는 오랑합 거로(巨老)가 보병 50여 명을 거느리고 단천(端川) 오을족(吾乙足)으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하니, 전고하기를,

“조치할 모든 일을, 의정부·부원군(府院君)·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에게 회의(會議)하게 하라.”

하자, 좌의정 유순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속고내 등이 우리 국경에 가까이 살면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루아침에 하찮은 일을 가지고 침략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의 변방 방비가 허술함을 알고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야인들의 형세를 보면, 속고내뿐만 아니라, 오랑합의 거을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또한 군사를 모아 작란을 하니, 다른 부(部)에서도 앞으로 계속 절발(竊發)하여 크게 변방의 걱정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신 등의 의논한 바 안전을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안변(安邊)·덕원(德源)·문천(文川)·고원(高原)·영흥(永興)·정평(定平)·함흥(咸興)·홍원(洪原) 등 고을의 군량을 우선 북도(北道)로 실어 보내고, 강원도·경상도 등의 군량을 수송하여 그 수를 채우소서.

둘째, 마소[牛馬]로 호인(胡人)들의 모물(毛物)과 바꾸는 것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으나, 말과 말을 바꾸는 것은 전부터 금방(禁防)이 없으므로, 변방 사람들이 이 때문에 우리나라 마소 7~8두(頭)를 주고 호마(胡馬) 한 마리와 바꾸니, 이 때문에 호인들의 마축(馬畜)은 날로 번성하고 변방의 축산은 날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는 비록 말과 말을 바꾸더라도 엄하게 금하고, 범한 자는 금물(禁物)을 잠매(潛賣)하는 과조(科條)로써 논란하고, 적발하여 단속하지 아니한 병사(兵使)·진장(鎭將)도 중죄로 논하소서.

셋째,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의 속(贖)으로 받아들이는 포화(布貨)를, 북도의 군량이 흡족할 때까지 각도의 감사들로 하여금 있는 대로 다 북도로 수송하게 하고, 본도(本道) 감사는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곡식을 사서 군량을 보충하게 하소서.

넷째, 사섬시(司贍寺)의 상면포(常緜布)를, 해마다 남·북도를 막론하고 적당하게 들여보내어 곡식을 사게 하고, 또 평안도의 곡식을 바꾸어 주는 예에 의하여 내수사(內需司) 조곡(租穀)도 본도(本道)에 바치는 대신 경창(京倉)의 쌀로 환급(換給)하소서.

다섯째, 국가에서 때때로 남쪽 백성들을 옮겨 변방을 채우나 곧 도망하여 돌아가 버리고, 또 변장(邊將) 가운데 혹 못된 사람은 변방 말을 많이 사 올 뿐만 아니라, 갈려서 돌아올 적에 수종하는 말[從馬]을 많이 끌고 와 먼 길에 지치게 되고 또 전수를 돌려보내는 사람도 적어, 이 때문에 북도의 인마(人馬)가 날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장삿군들이 긴요하지 않은 물화(物貨)를 싣고 가서 오래 변방에 머무르며 변방의 곡식을 소모하고, 또 군사의 마소[牛馬]를 사서 야인들에게 넘겨 주고 모물과 교역하는데, 이러한 폐단은 금하기 어려우니, 중국의 산해관(山海關)과 같이 마천령(磨天嶺) 위에 관문(關門)을 설치하고, 물망이 있는 5품(品) 이상의 문신 1원(員)을 뽑아 보내어 어사(御史)를 겸임하여 규찰(糾察)하게 하되, 1년 만에 체임하소서.

여섯째, 무릇 적을 방어하는데 철갑(鐵甲)이 없으면 엄심갑(掩心甲)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데, 변방 군사들이 가난하여 마련하지 못합니다. 사섬시에 쥐가 쏜 면포가 많이 쌓여 있으되 쓸 데가 없으니, 적당한 수량을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어 검정물을 들이고 종이로 숨을 만들어, 엄심갑 1천 벌을 제조하여 양계(兩界)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중성부사(鐘城府使) 남순종(南順宗)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능하나 무재(武才)가 모자라니, 모름지기 무재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여 보내소서. 신 등의 생각에는, 봉중(彌中)은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간청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일은 기회가 있는 것이니,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매우 합당하나 화친을 허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 다시 의논해서 하나로 합의(合議)하여 아뢰라.”하였다.

▶ 16권 7년 8월 9일 庚戌

庚戌/御朝講. 大司諫趙元紀曰: “臣受任咸鏡道, 前後民弊, 啓而祛之, 但有一事未祛. 狼尾、土豹皮等物, 國家以爲方土所產, 封而進上, 此固非方土所產, 必貿之於城底彼人, 彼人亦知我國所好, 貿於深處野人. 須以大牛償之, 牛乃國家所禁, 而守令亦禁. 然進上封限臨逼, 則不得已以牛償價. 此物於國家所用關緊, 臣未詳知. 然厥價甚重, 而民之受弊亦鉅, 雖未永蠲, 如此年凶時, 限年蠲減何如?” 上曰: “狼尾、土豹皮, 限年蠲減可也.”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감사로 재임(再任)할 적에 전후의 민폐를 계문하여 없었으나, 다만 한가지 일을 없애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리의 꼬리와 토산 표범의 가죽 따위인데, 국가에서 토산 방물(方物)이라 하여 봉진(封進)하는 것이 실은 토산 방물이 아니고 반드시 성저 야인(城底野人)에게서 사는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것임을 알고 심처 야인(深處野人)들에게서 사 오는데, 꼭 큰 소[牛]로 값을 치릅니다. 소는 곧 국가에서 금하는 것으로, 수령들도 금하기는 합니다만 진봉할 기한이 임박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소로 값을 치릅니다.

이 물건이 국가의 소용(所用)에 긴요한 것인지 신은 잘 알지 못하나, 그 값이 매우 많고 백성이 받는 폐단도 크니, 영구히 면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와 같이 흉년인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리 꼬리와 토산 표범 가죽은 연한을 정하여 면제함이 가하다.”하였다.

▶ 17권 7년 10월 30일 庚午

成均館所餉儒生數夥, 不能繼饌, 以牛肉供饋, 其來已久. 是時生員丁自堅獨不食, 朴薰、尹自任等倡言: “禁肉不可用於學宮.” 群議不食, 而諸生於齋中及明倫堂食之, 唯食堂齋會處不食, 識者憂其矯激.

성균관(成均館)에서 먹여 주는 유생(儒生)의 수가 과다하여 반찬을 대지 못했다. 쇠고기를 공궤(供饋)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이때 생원(生員) 정자견(丁自堅)이 홀로 먹지 않자, 박훈(朴薰)·윤자임(尹自任) 등이 금하는 고기를 학궁(學宮)에서 씹이 불가하다고 주창하매, 여러 의논이 먹지 않기로 하였는데, 제생(諸生)이 재(齋) 안 및 명륜당(明倫堂)에서는 먹고, 오직 식당(食堂)의 일제히 모이는 곳에서는 먹지 아니하므로, 식자(識者)들이 특이한 체하는 것을 우려했다.

▶ 20권 9년 4월 1일 甲午

御晝講. 講《綱目》, 至周制稅牛皮法, 惟禁賣於敵國, 侍講官尹殷輔曰: “我國兩界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人，得賣牛於彼人，已有成法，不廉邊將，不奉國憲，以牛易皮於彼人。由是，農民無耕牛，其弊不貲。觀察使不能時時巡歷檢舉，故如是恣行，節度使辭拜之日，親教丁寧，則自當勉力申禁矣。”

주장에 나아갔다. 《강목(綱目)》을 강하다가 ‘주제(周制)의 세우피법(稅牛皮法)은 오직 적국(敵國)에 발매하는 것만을 금지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양계(兩界)의 사람들이 저들[彼人]에게 소를 팔지 못하게 함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염치 없는 변장(邊將)이 국헌(國憲)을 받들지 아니하고 저들과 서로 피물(皮物)을 교역(交易)하니, 이로 말미암아 농민은 경작할 소가 없어지는 등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찰사(觀察使)가 수시로 순력(巡歷)하여 검거(檢擧)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자하게 행하고 있으니, 절도사(節度使)가 배사(拜辭)하는 날, 정녕(丁寧)하게 친교(親敎)하시면 힘써 더욱 금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 20권 9년 6월 10일 辛丑

敏手曰：“牛馬屠殺，莫甚於此時。聞，義禁府內，禁亂吏不得入，故屠殺尤甚，闕內各司，或託駄物，牽入屠殺云，請各別嚴禁。”

민수(敏手)가 아뢰기를, “소나 말을 잡는 일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습니다. 듣자오니 의금부(義禁府)에는 금란리(禁亂吏)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살(屠殺)하는 것이 더욱 심하고, 대궐 안의 각사(各司)가 혹 물건을 싣고 간다고 핑계하고 끌고 들어가서 도살한다 하니, 각별히 엄금하소서.”하였다.

▶ 21권 9년 10월 13일 壬寅

先是，命兵曹選文武臣知邊事者十四人，各上備邊之策。

~중략~

禮曹參判李長坤書啓曰：

兵倚於農，而農必以牛，牛固兵農之最重也。野人持貂，吾民不惜農牛而易之，又以鐵物者。此，無他，我國之所尙在貂故也。中外貴賤，爭尙豐侈，貂日益貴，而吾民之牛鐵，盡歸於彼。牛以厚其農：鐵以利其兵，數年之後，則雖有善計者，末如之何矣。伏望，三殿之外，勿用貂服，而下諭中外，則下人觀感，不禁而自止矣。平安道滿浦鎮，館待三衛野人，自甲子年，邊將擅開關市，國人持牛馬、鐵器，絡繹輳集，貽害無窮，尤可痛禁。

~중략~

甲山府使黃琛書啓曰：

六鎮軍卒，貧窶莫甚，器械不完，有馬者蓋寡。而城底野人，日益蕃富，皆有戰馬，多者至於作屯放牧。不幸事起倉卒，何以禦之？年例上京之數，豐年則百二十人；凶年則九十人，皆以貂皮進上。而貂非近境所產，故將牛馬、鐵物，市於深處兀狄哈而來，若無貂皮，雖有功勞，上京當次者，不得上來者有之。以馬較之於貂，貂輕而馬重，然在野人，得馬易，得貂難。臣意以謂，定中樞以上幾歲馬、都萬戶以上幾歲馬，不論牝牡，使之減於貂價，而許令從願進獻，則彼將樂從。胡馬，性馴且強，合於戰場。逐年進獻，則其數必多，別爲一場，放養蕃息，以備緩急。

이하생략~

이전에 병조(兵曹)에 명하여 문신(文臣)과 무신(武臣) 중에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14명을 뽑게 했는데 각기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렸다.

~중략~

예조참판 이장곤(李長坤)은 서계(書啓)하기를,

“병(兵)은 농(農)에 의지하고 농은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니, 소는 진실로 병농(兵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인은 초피(貂皮)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이 농우(農牛)를 아끼지 않고서 이것과 바꾸거나 또 철물(鐵物)로 바꾸기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과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두 지나치게 사치를 숭상하기 때문에 초피는 날로 더욱 귀하게 되고 우리 백성의 소[牛]와 철(鐵)은 모두 저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소는 농사를 여유있게 하는 것이요, 철물은 병기(兵器)를 만들어 병력을 돕게 되는 것이니, 몇 해 뒤에는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삼전(三殿) 이외에는 초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중앙과 지방에 유시(諭示)를 내리신다면, 아랫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평안도(平安道)의 만포진(滿浦鎭)에서 삼위(三衛)의 야인(野人)을 관대(館待)하는 것은 갑자년부터인데, 변장(邊將)이 마음대로 관시(關市)를 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마(牛馬)와 철기(鐵器)를 가지고 끊임 없이 많이 모여드니 그 해를 끼치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더욱 엄격히 금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중략~

갑산부사(甲山府使) 황침(黃琛)이 서계(書啓)하기를,

“육진의 군졸은 매우 가난하고 기계(器械)도 완전하지 못하며 말을 가진 사람도 적은 편인데, 성저에 거주하는 야인은 날로 더욱 번성하고 부유하여 모두 전마(戰馬)를 가졌으며 많은 사람은 둔(屯)을 만들어 농아먹이기도 하니, 불행히 사변(事變)이 창졸간에 일어난다면 무엇으로써 이를 막겠습니까? 매년 의례적으로 서울에 오는 수효는 풍년에는 1백 20인, 흉년에는 90인인데, 모두 초피(貂皮)를 진상(進上)하게 합니다. 초피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우마(牛馬)와 철물(鐵物)을 가지고 깊은 곳에 사는 울적합(兀狄哈)에게서 사오게 되는데, 만약 초피가 없으면 비록 공로가 있어 서울에 올라올 차례가 된 사람이라도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말과 초피를 비교한다면 초피는 하찮은 것이고 말은 귀중한 것인데, 야인에게는 말을 얻기는 쉬워도 초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중추(中樞) 이상의 관직에는 몇 마리의 세마(歲馬), 도만호(都萬戶) 이상의 관직에는 몇 마리의 세마라는 것을 정해놓고 암수를 논할 것 없이 초피의 값보다 감(減)하게 하여 소원에 따라 바치도록 허가한다면, 저들은 장차 즐거이 따를 것입니다. 오랑캐의 말은 성질이 사람을 잘 따르고 또 강해서 전장(戰場)에 적합합니다. 해마다 바치게 한다면 그 수효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별도로 한 목장(牧場)을 만들고 거기에 놓아기르고 번식하게 하여,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이하생략~

▶ 21권 9년 10월 25일 甲寅

大司諫崔淑生等上疏, 條陳十二事.

~중략~

其二, 農者, 生民之本, 衣食之源, 爲國先務, 誠不可緩. 頃在廢朝, 四方流離, 道饑相望. 聖上龍興, 滌去煩苛, 流逋自集. 然而疾痛之極, 元氣已衰, 失巢之餘, 安業爲難. 見其故里丘墟, 田野荒蕪. 沾體塗足者, 未見其利; 游手逐末者, 反居優饒, 則相與賣牛買馬, 爭事行販. 外而場門, 奸盜所寄; 內而市井, 濫僞所聚. 以至曲坊、委巷, 莫不出市, 以邀纖利. 日盛月滋, 本業之荒, 實由於此. 失今不圖, 勢將難救, 宜倣炎漢故事, 排抑商賈, 使不得盛, 新立市門, 亦宜盡革, 驅民於農, 以勸本業.

~중략~

其七, 奢侈之禁, 當先宮掖. 蓋源於上, 而流於下者也. 臣等不須遠引前代, 直以目覩之事言之. 今夫貂皮、鼠皮, 蓋出於極邊, 取之甚難. 若求美好, 必買胡中, 易之以牛, 勢已難禁. 雖不可頓革, 固宜節用, 以省其弊. 而今尙衣院所賜耳掩, 其制甚闊、其費亦鉅, 群下化之, 爭務寬大. 昔也只掩其耳, 今也全蒙其首, 甚可怪也. 昔之染草綠爲衣者, 其色只取如草之綠而止耳. 今則其色深於鴨頭, 而染鴨頭者, 則轉爲雅青, 爭效新樣, 功重費廣, 猶不自止, 豈無所尙而然乎? 竊聞, 尙衣院內染之時, 藍草不足, 則又取諸民田, 立牌盡刈, 輸入于內, 務爲深染, 以勸其下, 下豈無甚焉者乎? 此雖細事, 亦關大體. 嗚呼! 變奢從儉, 在上而不在下矣.

이하생략~

대사간 최숙생(崔淑生) 등이 상소하여 12가지의 일을 조목별로 진술하기를,

~중략~

“... 2. 농사는 백성의 근본이고 의식(衣食)의 근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데 먼저 할 일이요 진실로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폐조 때에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고 굶어 죽은 사람이 길에 연했던 것을 성상(聖上)이 왕위에 올라 까다로운 정사를 깨끗이 제거하니 떠돌던 백성이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질병(疾痛)이 극도에 이르렀고 원기가 이미 쇠진되었으며, 근거를 잃은 나머지 직업에 안정하기가 어려웠고, 그 고리(故里)는 구허(丘墟)가 되고

전야(田野)는 모두 황폐되었습니다. 몸에 땀흘리고 밭에 흠뻑히는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밭에 흠 안 묻히고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리어 넉넉하고 부요(富饒)하므로 서로 다투어 소를 팔아 말을 사서 행상(行商)을 일삼게 되니, 밖으로 장문(場門)에는 간도(奸盜)가 기생(寄生)하고 안으로 시정(市井)에는 남위(濫僞)가 모입니다. 적은 부락과 좁은 골목이 모두 시장이 되어서 이(利)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성하고 달마다 불어나니 본업(本業)이 황폐된 것은 실로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형세가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한(漢)나라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상고(商賈)를 억제하여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 세운 시장은 또한 마땅히 다 혁파시킴으로써 백성을 농업으로 돌아가게끔 본업을 권장하소서.

~중략~

7. 사치의 금지는 마땅히 궁궐(宮掖)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은 위에서 발원(發源)하여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신 등은 멀리 전대(前代)의 일을 인용(引證)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직접 본 일로써 말하겠습니다. 지금 초피(貂皮)·서피(鼠皮)는 대개 아주 먼 변방에서 나므로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아름답고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오랑캐 땅에서 사게 되어 소[牛]와 바꾸어야만 하는데 형세가 이를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절용(節用)하여 그 폐단을 덜어야 될 것인데도 지금 상의원(尙衣院)에서 하사하는 이염(耳掩)은 그 제도가 매우 크고 그 비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이를 본받아서 넓고 크게 하기를 다투어 힘씁니다. 옛날에는 귀만 가리었으나 지금은 머리까지 모두 덮어씌우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옛날에 초록색을 물들여 옷을 만드는 사람은 그 빛깔이 다만 풀빛처럼 만드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그 빛깔이 압두(鴨頭)보다도 더 진하고, 압두색(鴨頭色)으로 물들인 것을 다시 아청색(鴉青色)으로 만듦새로 새로운 모양을 다투어 본받으므로 공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스스로 그치지 않으니 어찌 숭상하는 바가 없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상의원에서 내염(內染)할 때에 남초(藍草)가 모자라면 또 민전(民田)에서 취하는데, 패(牌)를 세워놓고 다 베어 켄내로 실어 들여서 될 수 있는 한 진하게 물들이도록 아랫사람에게 권한다 하니, 아랫사람 중에 어찌 이보다 심한 자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마는 또한 나라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 사치를 변경시켜 검소를 따르게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있고 아랫사람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

이하생략~

▶ 21권 9년 12월 15일 癸卯

副提學尹殷輔等上疏, 略曰:

謹按, 前志曰: “信道不篤, 或耀虛僞, 邪勝正, 則火失其性, 自上而降, 及濫炎妄起, 燔宗廟, 燒宮室, 雖興師, 而不能救.” 乃者, 無從之焰, 發逸於尊經閣, 充棟之積, 隨之而灰. 災變之作, 必出於宣聖廟庭, 而又必出於藏書之所, 一何慘乎? 其召災之原, 安知其不篤於信道, 徒耀于虛文, 斯文之廢墜, 先聖之不格耶? 殿下非不驚懼, 而尚未聞修警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之實，減膳、避殿，雖是末節，不可闕也。況躬齋致精，奠禮于先師，責躬罪己，乞言于群僚，飭修籩豆之未潔，興勵儒教之垂崩，豈非消災答天之一大端耶？古昔帝王之治，莫不以道學爲根底；養才爲急務。我朝英廟、文廟、成廟尤篤志文學，崇重儒雅，士爭奮氣植節，出爲國楨者，於是乎彬彬矣。殿下圖小而遺大；先緩而忽急，憂勞頗間於簿牒；誠勤未孚於文教，人才之不振；儒道之墮地，未有甚於斯時也。殿下何不遠覽古昔；近法祖宗，回道脈以正之；扶文教以起之，以爲立國之本乎？彼簿書期會，宰相之所羞道，況人君哉？昔晉武時，國子學生因風放火，焚房舍百餘間。議者以爲：“有育才之名，而無牧賢之實。”因風之火，延及學舍，猶謂之如此，況災發於書籍之藏乎？又聞，頃於民舍，有牛生而五足。考之傳記，其變甚距。天災、物異之層出疊見者，必有所召，豈不深可懼哉？祥無必慶；咎無固凶，視銷伏之如何耳。伏願殿下加意焉。

傳曰：“疏語，正中時病。且尊經閣災變，至爲驚愕。臺諫、侍從，皆言親祭爲當，然於予意，既遣官祭之，則又不可黷也，欲於明春行之。學校，果至頽廢。未知以何道而能興之也，當問於大臣。”

부제학(副提學) 윤은보(尹殷輔) 등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삼가 상소하건대, 옛글에 이르기를 ‘도(道)를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고 혹은 허위(虛僞)를 사랑하여 사기(邪氣)가 정도(正道)를 이기게 되면, 불이 그 본성을 잃고서 위에서 내려와 넘치는 불길이 망령되이 일어나서 종묘(宗廟)를 태우고 궁실(宮室)을 태우는데, 비록 군사를 일으켜 끄더라도 능히 끄지 못하게 된다.’ 하였습시다. 지난번에 원인도 없는 불길이 존경각에서 일어나 마룻대까지 가득 찬 서적이 재가 되었는데, 재변이 일어나기를 하필이면 선성(宣聖)의 묘정(廟庭)에서이며 또 하필이면 장서(藏書)한 곳에서였으니 어찌하면 그리도 가혹하단 말입니까? 그 재변을 초래한 원인은 도를 믿는 데 독실하지 못하였고 한갓 허문(虛文)만 사랑하여 유도(儒道)가 폐추(廢墜)됨으로써 선성이 감동하지 않은 때문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수신(修身) 경성(警省)하는 실상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감선 피전(減膳避殿)하는 것은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몸소 재계하여 정성을 들여 선사(先師)에게 예를 드리고,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어 여러 신하들에게 좋은 말을 청하며, 변두(籩豆)가 정결하지 못한 것을 단속 수정하고, 유교(儒教)의 거의 무너지려는 것을 흥기 장려하는 일이 어찌 재변을 소멸시켜 하늘에 응답하는 한 가지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제왕(帝王)의 정치는 도학(道學)으로써 근저(根柢)를 삼고 양재(養才)를 급무로 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世宗)·문종(文宗)·성종(成宗)께서 문학에 뜻을 돈독히 하고 유아(儒雅)를 숭상하고 존중하니, 선비들이 다투어 기운을 뿜내고 절개를 수립(樹立)하여 나와서, 나라의 정간(楨幹)이 된 사람이 이에 빈빈(彬彬) 해졌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작은 것은 도모하면서도 큰 것은 버리시고, 늦출 것은 먼저하고 급한 것은 소홀히 하시며, 부첩(簿牒)에는 자못 유의하여 근심하고 노고하시지마는, 문교(文教)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의가 나타나지 않으니, 인재(人才)가 진작되지 못하고, 유도(儒道)가 땅에 떨어진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멀리 있는 옛날을 보시고 가까이 있는 조종(祖宗)을 본받아 도맥(道脈)을 만회시켜 이를 바로잡고, 문교를 붙들어 이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을 삼지 않습니까? 저 부서(簿

書)를 기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재상들도 부끄럽게 여기는 바인데, 하물며 군주(君主)이겠습니까? 옛날 진 무제(晉武帝) 때에 국자(國子)의 학생(學生)이 바람이 불때 불을 질러 방사(房舍) 1백여 칸을 태우니,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재를 교육시킨다는 이름은 있어도 현인(賢人)을 양육하는 실상은 없었다.’ 하였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 불이 일어나 학사(學舍)를 태운 것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는데 하물며 화재가 서적을 간수한 데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또 듣건대, 지난번에 민가에서 소가 났는데 발이 다섯 개나 된다고 하니 이는 전기(傳記)에 상고해 보아도 그 변괴는 매우 큰 것입니다. 하늘의 재변과 물건의 괴이함이 겹쳐서 나타난 것은 반드시 그를 초래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상서라고 반드시 경사될 것이 없고 재앙이라고 본디부터 흉한 것이 없으니, 오직 재앙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뜻을 기울이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말은 시대의 병폐에 꼭 맞는다. 또 존경각의 재변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 대간과 시종들이 모두 ‘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미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으니 또 번독(煩黷)할 수는 없다. 내년 봄에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학교가 과연 퇴폐(頹廢)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무슨 방법으로 능히 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야 하겠다.”하였다.

▶ 21권 9년 12월 19일 丁未

大司憲宋千禧曰: “臣前爲慶尙道監司時, 土豪、品官之最强者, 推覈而徙邊矣. 其後孫仲墩語臣曰: ‘土豪, 尙有未及制者, 昌寧、靈山等處, 有數三土豪, 至於田稅, 亦不納官云.’ 耕食國土, 而至於不稅, 頑惡孰甚? 固宜推懲. 金安國前日言: ‘咸安有李季賢者, 家匿才白丁, 多至三十餘人, 人之牛馬, 公然牽來, 其主見之, 畏不敢訴; 有一全羅道人, 推捉逃奴于其家, 右人要諸路殺之, 投之江中.’ 土豪之强暴類此, 不可不深治痛懲.”

대사헌 송천희(宋千禧)가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경상도감사로 있을 때 토호(土豪)·품관(品官)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강한 자들을 추문하고 검색하여 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손중돈(孫仲墩)이 신에게 말하기를 ‘토호 가운데 아직 제어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창녕(昌寧)·영산(靈山) 등지에 있는 두셋의 토호는 관청에 전세(田稅)조차도 바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의 토지를 경작하고도 전세조차 바치지 않으니, 성질이 이보다 더 흉악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마땅히 추문하여 징계해야 되겠습니다. 김안국(金安國)이 전일에 말하기를 ‘함안(咸安)에 이계현(李季賢)이란 자가 있는데, 집에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30여 명이나 숨겨두고 남의 우마(牛馬)를 공공연히 끌어가지만 그 주인이 이를 보고도 두려워서 감히 호소하지도 못하였고, 또 어떤 전라도 사람 이 도망한 종을 그 집에서 찾아서 잡아가지고, 그 자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여서 강물에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토호의 강하고 포악함이 이와 같으니, 엄하게 죄를 다스려 징벌(懲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 21권 10년 2월 8일 丙申

丙申/傳于政府、兵曹、戶曹堂上等曰：“近觀莽哈跋扈之意，是輕我國也。其所以輕之者，乃家在城底，窺覘北方虛疎，故乃曰：‘邊氓得安，皆我之力。’於此可知輕我國之一端也。邊患之作，何疑哉？知有邊患，而不預措置，拱手待亂，其可乎？若不預措，而邊患甚棘，則豈曰朝廷有人乎？予觀祖宗朝舊事，祖宗憂念於兩界，宵旰不忘。其時大臣，亦以邊事爲己任，措置於邊患未萌之前，邊圉按堵。予聞，咸鏡道一路，亘控南北。若備禦失宜，邊患大起，則其勢難支。虜騎長驅，咸鏡一道，蕩然失所，豈不寒心哉？事至於此，雖欲百般措置，不亦晚乎？今者，大臣非不規畫措置，欲加軍糧，或屯田，或移粟，然其移粟，豈能用足乎？邊釁已萌，而設屯田，豈不緩乎？往者南方倭亂將作之勢，言者甚多，而朝廷以爲無虞，別不措置，以致庚午之亂，陷城、殺將，南方之人，爲魚爲肉，豈不參哉？然人皆曰：‘南夷不如北狄之難禦。’北方足食、足兵馬之策，當今之急務也。徒煩論議，不別爲措置，兵、食與馬，何由而足？不可計其小弊也。予意當否，亦未可知。令京外之民，皆納粟於北方，計其多少，不計公私賤，或作良、或免役節目磨鍊，何如？公私賤免役，雖曰非輕，祖宗朝若有邊急之事，隨其功勞，或有免賤者。大抵近來公私賤甚多，而良民少，故軍額因此而耗。雖爲免役，予意以爲不妨。北道節度使則有之，別遣重臣，稱爲巡邊使，留駐中道，一以措置兵糧；一以觀其虜勢，若有變故，則因此而禦之；若無事，則觀勢上來，何如？今抄徙民事，義州則似不急，而北方邊釁可慮。人物稀少，事有緩急，姑停義州，而先入北道，何如？且雖足食、足兵，而軍馬不可單弱。北道牛馬，不與野人興販之法，非不嚴矣。然邊將視爲餘事，故邊氓潛相質賣，別遣剛明文臣，痛行禁止。且本道馬匹稀貴，南方諸道牧場馬匹，量數入送，分給無馬軍丁，何如？足馬之策，其亦議之。此外可議之事，急急措置甚可。”

정부와 병조·호조 당상(堂上) 등에 전교하기를,

“근일 망합의 발호하는 뜻을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경멸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집이 변방 성 밑에 있어서 북방의 허소함을 엿보아 알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기를 ‘변방 백성이 편안할 수 있음은 모두 내 힘이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우리나라를 경멸하는 일면을 알 수 있다. 변방의 환란이 일어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변방의 환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미리 조치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난을 기다려서야 되겠는가? 만일 미리 조치하지 않아, 변방 환란이 심해진다면 어찌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는가? 내가 조종조의 옛일을 알아보니, 조종께서 양계(兩界)를 염려하여 밤낮으로 잊지 않았으며, 그때 대신들 역시 변방 일을 자기 책임으로 삼아 변방 환란이 움트기 전에 조치해서 변경 지대가 안정되었다. 내가 들은즉 함경도 한 지방은 남북으로 빠져 있으니 만일 비어(備禦)가 잘못되어 변방 환란이 크게 일어나면 그 형세가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요, 오랑캐 말발굽이 치달리면 함경 한 도가 텅비게 될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이 이렇게 되면 백방으로 조치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겠는가? 지금 대신들이 계략하고 조치하여 군량을 증가하고, 혹은 둔전(屯田)을 하며 혹은 속[粟]을 옮기려 하지 않음은 아니다. 그러나 속을 옮긴다 한들 어찌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변방의 분쟁이 움텄는데 둔전을 설치한다면 어찌 늦어지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남방에서 왜란(倭亂)이 일어나게 될 형세를 말하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도 조정에서는 근심이 없다 하며 별로 조치를 하지 않다가 경오년의 난을 가져와서 성이 함락되고 장수가 살해되며 남방 사람들이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어찌 참혹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남이(南夷)는 북적(北狄)만큼 막기가 어렵지는 않다.’고 한다. 북방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병마(兵馬)를 넉넉하게 하는 계책이 지금의 급무인데, 번거롭게 의논만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병식(兵食)과 말이 어떻게 넉넉하게 될 것인가? 작은 폐단은 생각할 수 없다. 내 생각이 합당한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경외(京外)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속을 북방으로 납입하게 하고, 그 다소를 계산하여 공사천(公私賤)을 구별할 것 없이, 혹은 작량(作良)하고 혹은 면역(免役)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함이 어떠하겠는가? 공사천의 면역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조종조에서 변방의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공로에 따라 혹은 면천(免賤)하기도 하였다. 대저 근래 공사천이 매우 많고 양민이 적으므로 군액(軍額)이 이 때문에 줄어든다. 내 생각으로는 면천도 무방하다 하겠다.

북도절도사는 있으니, 따로 중신(重臣)을 보내어 순변사(巡邊使)라 하고 중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편으로 군량을 조치하고, 한편으로 오랑캐의 형세를 보다가 변고가 있으면 즉시 방어하게 하고, 일이 없으면 형편을 보아 돌아오게 함이 어떤가? 지금 백성을 뽑아 읍기는 일은, 의주(義州)는 급하지 않을 것 같으나 북방 변방의 사변이 염려된다. 인물은 희소하고 일은 완급이 있으니, 우선 의주는 정지하고 먼저 북도에 들여보냄이 어떠한가? 또 식량과 군사가 넉넉하더라도 군마가 약하여서는 안된다. **북도의 우마(牛馬)를 야인들과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변방 장수들이 여사로 알기 때문에 변방 백성들이 비밀히 서로 팔고 사고 하니 따로 강명(剛明)한 문신을 보내어 통렬히 금지하여야 하겠다.** 또 본도에 마필(馬匹)이 희구하니, 남방 여러 목장의 마필을 수효를 재량하여 들여보내서 말이 없는 군정(軍丁)들에게 나누어 줌이 어떤가? 말을 넉넉히 하는 계책을 또한 의논하라. 이 밖의 의논하여야 할 일을 빨리 조치함이 매우 좋겠다.”

▶ 22권 10년 閏4월 22일 己卯

己卯/全羅道古阜郡, 有牛生五足雄犢, 其一腳生於前兩脚間, 其長相齊, 脚有三節, 屈曲不得踏行.

전라도 고부군(古阜郡)에서 어떤 소가 발이 다섯인 수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다리 하나가 두 앞다리 사이에 생겨 길이는 다른 것과 서로 가지런하나 세 마디로 되어 있고, 굴곡(屈曲)이 저서 딛고 다니지는 못하였다.

▶ 22권 10년 5월 5일 辛卯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全羅道樂安郡正兵趙世亨家畜雌牛，生五足黃雄，犢前右腳邊，別生一脚，短不及地，其蹄三折。

전라도 낙안군(樂安郡)의 정병(正兵) 조세형(趙世亨)의 집에서 기르는 암소가 발이 다섯인 누른 수송아지를 낳았는데, 앞쪽 오른 다리 가에 따로 다리 하나가 더 달려 있으나, 짧아서 땅에 닿지는 않고 그 발굽은 세 갈래로 쪼개져 있었다.

▶ 22권 10년 5월 11일 丁酉

吏曹正郎金正國上疏曰：臣伏見，今五月初三日，京都雨雹。夫雹在四時，皆爲災，夏雹爲尤災也。比年以來，災變之作，無歲無之，驛聞相望，前後不絕。冬月花果，夏月雨雹，牛有五足，雌雞化雄，尤所罕聞。天道一何反常至是哉？

이하생략~

이조 정랑 김정국(金正國)이 상소하기를,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5월 3일에 경도(京都)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은 사계절 어느 때나 모두 재변이 되는 것이지만, 여름 우박은 더욱 큰 재변입니다. 근년에는 재변이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어서, 역(驛)을 통한 보고가 잇달아 들어와서 앞뒤가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며, 여름에 우박이 내리고, 소에 다섯 개의 발이 있는가 하면,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것은 더욱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천도(天道)가 어찌 이처럼 한 결 같이 정상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이하생략~

▶ 22권 10년 5월 17일 癸卯

諫院上筭曰：

頃者，全羅道有牛生犢五足，又於盛夏，京師大雨雹，此皆近古所未有，何大異也？自古明聖之君，雖遇小災，必惕慮恐懼，罪己求言，出自至誠。下亦罄竭心腹，實封以對，無有所隱。上下交修，各盡其職，故能轉災爲福。唯委靡之世，君臣上下，以災異爲尋常，莫之覺悟，甚者至以爲不足畏，自絕于天，禍敗隨之，可不懼哉？臣等伏觀天變物怪，莫今日爲甚，而殿下未有罪己之言、求言之教。殿下側修之實，不待於一言一教之間，而下之觀感，將於是乎在焉？殿下必以爲，前此每下教求言，莫有應者，此特虛文，不如且已。臣等竊惟，上之所好，不命惟從，殿下有命，下莫敢應，殿下何不自思之耶？臣等頃因災異，條上封事。言雖淺近，豈無可採者，而迄未聞有所施行，況於疎遠之士，安敢望開一言，以補於國哉？此，臣等所以痛心者也。

이하생략~

간원이 차자(筴子)를 올리기를,

“근간에 전라도에서 소가 발 다섯 달린 송아지를 낳았으며, 또 서울에서는 한여름에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근고에 없었던 일이니 얼마나 큰 이변입니까? 예로부터 현명하고 성스러운 임금은 비록 작은 재난을 당해도 반드시 두려워하고 위태롭게 여겨 근심하여, 자기에게 죄를 돌리고 직언(直言)을 구하는 것이 모두 지성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아랫사람도 또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써서 봉함하여 구언(求言)에 응대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하가 서로 덕을 닦고 각기 그 직책을 다하였기 때문에 능히 재앙을 돌려서 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쇠퇴(衰頹)한 세상에서는, 군신 상하가 재앙과 이변을 심상하게 여기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며, 심한 자는 겁낼 것이 없다고 하기까지 해서 스스로 하늘과 격절(隔絶)하여 재화(災禍)와 패망(敗亡)이 따르게 되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살펴보니 천변 물괴(天變物怪)가 지금보다 더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아직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말씀이 없으며 직언을 구한다는 하교도 없습니다. 물론 전하의 조심하고 수성하는 사실은, 한 마디의 말이나 한번의 하교를 기다릴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전에도 매번 하교하여 직언을 구하였으나 응대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다만 헛된 형식일 뿐이라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좇는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 명령하셔도 아랫사람들이 감히 응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께서는 어찌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 등이 전에 재이(災異)로 인하여 조목을 들어 소(疏)를 올렸습니다. 말은 비록 얇고 비근하나 어찌 채납(採納)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시행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소원(疎遠)한 선비들이야 어찌 감히 한 마디라도 개진(開陳)하여 나라에 보익(補益)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의 애통해하는 바입니다.

이하생략~

▶ 22권 10년 6월 12일 丁卯

下敎求言. 【因夏月雨雹及樂安郡生五足牛也.】

하교하여 직언을 구하였다. 【여름철의 우박과 낙안군(樂安郡)에서 발 다섯개가 달린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이다.】

▶ 22권 10년 6월 23일 戊寅

戊寅/臺諫啓前事, 不允. 憲府又上疏, 其略曰:

伏觀, 殿下卽政以來, 災沴咎徵, 頻出疊見, 無歲無之, 而今年尤甚. 又於全羅民家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牛生犢五足者，再，此，妖之大者。謹按，京房《易傳》曰：“興徭役，奪民時，厥妖，牛生五足。”劉向亦謂：“近牛禍也。”求以象類，事應昭著。天之譴告殿下者，深矣。而殿下之所以應天者，特狃尋常，苟行故事，而無惕慮修省之實。至於下教求言，亦未見有罪己自反之誠。

~중략~

諫院亦上疏，其略曰：伏觀，殿下遇災而懼，下教求言，誠意懇到。雖遠方下土，猶當披露自效，況臣等職忝諫諍，凡有所懷，宜無所不言者乎？頃者古阜郡，牛生犢五足；今樂安縣，牛又生犢五足，此，近古所未有之大異。而數月之間，駢出一道，天之譴告丁寧，豈不大可懼哉？非但止此而已，樂安縣民，有殺母者；靈光郡吏，有叛邑者，以至群盜恣橫白晝行劫，此又大變也。

이하생략~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재려(災沴)와 구징(咎徵)이 자주 나오고 겹쳐 나타나지 않는 해가 없는데, 금년은 더욱 심합니다. 또 전라도의 민가(民家)에 소가 다섯 개의 발을 가진 송아지를 낳은 일이 두번 있습니다. 이것은 요괴(妖怪)한 일 중에도 큰 것입니다. 삼가 경방(京房)의 《역전(易傳)》을 상고해 보니 ‘요역(徭役)을 일으켜 백성의 농사 짓는 때를 빼앗으니, 그 요괴로 다섯 개의 발을 가진 소를 낳는다.’ 하였으며, 유향(劉向)도 또한 ‘우화(牛禍)에 가깝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류(象類)를 찾아보면 사응(事應)이 소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전하를 깊이 견책(譴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가 하늘에 응대하는 것은 다만 심상한 것처럼 여기고 구차하게 고사(故事)를 행할 뿐이며, 두려워하는 생각과 몸을 닦아 반성하는 실지가 없습니다.

~중략~

간원이 또한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은,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는 재난을 만나 두려워하시며, 하교(下敎)하여 구언(求言)하심이 성의가 간절합니다. 비록 먼 곳에 있는 하찮은 선비일지라도 오히려 의견을 피력하여 스스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신 등은 간쟁(諫諍)의 직책에 있으면서 모든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임에리카? 전일에 고부군(古阜郡)에서 소가 발 다섯 달린 송아지를 낳고, 지금 또 낙안현(樂安縣)에서 소가 발 다섯 달린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근고에 없던 큰 이변으로서 두어 달 사이에 한 도(道)에 잇달아 일어났으니, 하늘이 꾸짖어 고(告)함이 정녕합니다.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만 이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낙안현의 백성이 어미를 죽인 자가 있고, 영광군의 아전은 고을을 배반한 자가 있어서, 못도둑이 함부로 횡행하여 백주에 겁탈을 감행하였으니 이것 또한 큰 변고입니다.

이하생략~

▶ 24권 11년 2월 10일 辛酉

海南民家雌牛産死犢一頭，有兩面，其兩面各有兩目口鼻，兩口有齒。

해남(海南) 민간(民家)의 암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사산(死産)하였는데, 머리가 둘이었으며 각각 눈·입·코가 둘씩이었고 입에도 각각 이빨이 있었다.

▶ 24권 11년 4월 10일 辛酉

大司諫方有寧等上疏，略曰：

殿下即位以來，災異妖孽，無歲無之。天文錯行，地道不寧；晝冥宵光，日食月朧；寒暑失序，雪霜不時；桃李冬實，江水赤色；山陵崩陟，川谷變遷；盲風怪雨，偃禾拔木；牛生五脚，雌雞化雄，是皆政失於此，變見於彼也。自近年以來，飢饉荐臻，癘疫相仍。風俗澆惡，妻妾殺夫，奴婢殺主，子又殺母，人理大變，相繼而起。又於今者，經冬無雪，煖氣如春，春又乾亢，泉脈枯涸，土雨震雹，牛有一頭兩面。天之譴告殿下，欲令覺悟，丁寧切至，必當痛自咎責，懋修實德，追已往之闕失，防未來之禍亂，庶可修人事而答天譴也。 이하생략~

대사간 방유령(方有寧) 등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재변과 요열(妖孽)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천문(天文)이 잘못 운행되고 지도(地道)가 편치 못하여, 낮이 어둡다 밤이 밝다 일식하다 월조(月朧)하다 하고, 추위와 더위가 질서를 잃고 눈과 서리가 시기를 어기며, 복숭아와 오얏이 겨울에 열매맺고 강물의 빛이 붉으며, 산과 구렁에 사태가 나고 내와 골짜기가 바뀌며, 거센 바람과 때아닌 비로 벼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히며, 다리가 다섯인 소가 생기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으니, 이는 모두 사람이 정사를 잘못하므로 변괴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년부터는 기근(飢饉)이 거듭되고 여역(癘疫)이 잇달아 풍속이 야박하고 악독해져, 처첩(妻妾)이 지아비를 죽이고 노비(奴婢)가 주인을 죽이며, 자식이 또한 어미를 죽이는 등 인륜의 큰 변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겨울이 지나도록 눈이 없어 봄처럼 훈훈하다가 봄도 건조하여 우물의 샘이 고갈되고, 흠비가 내리다 우박이 쏟아지다 하며, 머리 하나에 얼굴이 둘 붙은 소가 생겼습니다. 이는 하늘이 전하에게 견고(譴告)하여 깨우치기를 정녕(丁寧)하고 간절 극진하게 하는 것이니, 마땅히 통절하게 스스로 인책하여 실지의 덕을 힘써 닦되 이미 지난 잘못을 추구(追求)하고 닦치지 않은 화란(禍亂)을 예방하여야, 다소 인사(人事)를 닦아 하늘의 견고에 보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하생략~

▶ 24권 11년 4월 25일 丙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慶尙道觀察使孫仲墩狀啓曰：

昌寧縣監金世琬，罷仕還衙，右腰下逢箭致傷。 咸昌縣民家牛，生兩頭雄犢卽死，一項二頭合付，三耳、四目、兩口、兩鼻。

命示大臣等，回啓曰：“金世琬事駭諤，宜下該司，令已下去敬差官推之。”

경상도관찰사 손중돈(孫仲墩)이 장계하기를,

“창녕현감(昌寧縣監) 김세완(金世琬)이 공무를 마치고 관아로 돌아오다 오른쪽 허리 밑에 화살을 맞아 부상했고, 함창현(咸昌縣)에서는 민가의 소가 머리 둘 달린 수송아지를 낳았으나 곧 죽었는데, 목은 하나에 머리가 둘이고, 귀 셋, 눈 넷, 입 둘, 코 둘이 달렸습니다.”

하자, 대신들에게 보이도록 하니, 회계(回啓)하기를, “김세완의 일은 놀라우니, 마땅히 해사에 내려 이미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추문하도록 하소서.”하였다.

▶ 25권 11년 5월 6일 丙戌

丙戌/副提學李荇等上疏，略曰：

臣等頃上封事，殿下乃引董仲舒之言，答之曰：“上不能正心，何有正朝廷；不能正朝廷，何有正百官；不能正百官，何有正萬民乎？此予反覆修省者也。”殿下此言，其眞知爲治之本乎！二帝三王傳授心法，亦在此，殿下此心，若能悠久以持之；誠信以將之，雖二帝三王之治，可指日致矣。然而治道未效，而天怒未弛者，豈無所由哉？變怪之作，在近彌甚，自春迄夏，亢陽爲災，川澤枯渴；種不入地，凶歉之徵，已在目前。 又於正陽之月，南方諸道，同日霜雹；牛生犢兩頭，亦在是日，此尤其可怪之甚也。殿下近下傳旨，辭意懇切，其於應災之方，可謂至矣。而天意之不回、天災之未弭者，豈非殿下側修之誠，容有所未盡乎？

이하생략~

부제학(副提學) 이행(李荇) 등이 상소하였다. 대략,

“신 등이 접때 봉사(封事)를 올리니, 전하께서는 동중서(董仲舒)의 말을 인용하여 답하시기를 ‘위에서 마음을 바루지 못하면 어떻게 조정을 바를 수 있으며, 조정을 바루지 못하면 어떻게 백관을 바를 수 있으며, 백관을 바루지 못하면 어떻게 만민을 바를 수 있으랴? 이 때문에 내가 반복하여 수성(修省)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전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다스리는 근본을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삼왕(二帝三王)이 전수(傳授)한 심법(心法)도 여기에 있었으니, 전하께서 능히 이 마음을 오래 지키고 정성으로 행하신다면 이제 삼왕의 정치도 올 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어찌 까닭이 없으리까? 변괴가 근래 더욱 심하게 일어나서,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의 재앙으로 천택(川澤)이 마르고 씨앗을 땅에 심지 못하여 흉년의 조짐이 눈앞에 있으며, 또 정양(正陽)의 달에 남쪽 여러 도(道)에서 같은 날 서리와 우박이 내리고, 소가 머리가 둘 달린 송아지를 낳은

것도 이날에 있었으니, 이는 가장 괴이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근래 내리시는 전지(傳旨)의 사의(辭意)가 간절하여, 재변에 응답하는 방도가 지극하다 하겠으나, 천의(天意)가 변하지 않고 천재(天災)가 그치지 않는 것은 어찌 전하께서 측수(側修)하는 정성에 혹 미진한 데가 있기 때문이 아니리카?

이하생략~

▶ 25권 11년 5월 16일 丙申

荊山曰：“上教以入居人冤悶不少，然實邊之事，亦不可廢。臣往咸鏡道時，入居人三百七戶，一時入送，其時尹殷輔爲安接從事官矣。此則秋節，預先造家，官給釜鼎、農牛，猶或不能安接。今義州入居人，須於農隙入送，而造家等事，預先措置可也。”上曰：“入居，出於不得已也。新抄入居人，姑徐入送，可也。”金麟孫曰：“敬差官【即推刷入居敬差官】下去八道，必用刑杖，應受刑者二三百人，常聚官門，不得退去。因此，廢農者多，況推刷，必終年未畢，請姑停。”上曰：“當問于大臣。”

형산이 아뢰기를, “상교는, 입거(入居)하는 사람의 억울함이 적지 않다 하여서이겠으나,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도 폐할 수 없습니다. 신이 함경도에 갔을 때에 입거하는 사람 3백 7호(戶)를 한꺼번에 들여보냈는데, 그때 윤은보(尹殷輔)가 안접 종사관(安接從事官)이었습니다. 이는 가을철이라 미리 집을 짓고 솔과 농우(農牛)를 관급(官給)하여도 혹 안접(安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주(義州)로 입거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농사에 틈이 나는 때에 들여보내서 집을 짓는 따위 일을 미리 조치하여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거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니, 새로 뽑혀서 입거하는 사람은 아직 천천히 들여보내는 것이 옳다.”하였다. 김인손(金麟孫)이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곧 추쇄 입거 경차관(推刷入居敬差官)이다.】이 팔도로 내려가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써야 하므로, 형장을 받을 자 2~3백 인이 늘 관문(官門)에 모여서 물러가지 못하니 이 때문에 폐농하는 자가 많은데, 더구나 추쇄는 해를 다하도록 마치지 못할 것이니 우선 멈추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물겠다.”하였다.

▶ 25권 11년 5월 30일 庚戌

長坤曰：“近聞‘六鎮人民，逃散漸多’，此邊將不能撫恤故也。羆暴武人，爲邊方守令，酷用刑杖，人多殘傷，不得蘇復矣。如牛馬、鐵物，轉賣于彼人者甚多，而禁不能止，此非細故。古則胡人箭鏃，皆用鹿角，今則皆鐵鏃，甲亦用鐵。此由我國人用以貿易毛物也，宜嚴加禁斷。”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장곤이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육진(六鎭)의 백성으로 도망하는 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장이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무인이 변방의 수령이 되어 형장을 혹독하게 쓰므로, 사람이 많이 상하고 소복(蘇復)하지 못합니다. **마소나 철물 같은 것을 피인(彼人)에게 파는 자가 매우 많은데도 금하지 못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호인(胡人)은 다 녹각(鹿角)으로 살촉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 쇠 축이고, 갑옷도 쇠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으로 모물(毛物)을 바꾸기 때문이니, 엄하게 금지해야 합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25권 11년 6월 1일 辛亥

辛亥朔/御朝講. 【是日, 上內御澣濯苧衣絳紗袍, 色亦褪損, 左右服其儉素.】掌令金希壽、正言表憑啓忌(晨) [辰] 齋、長利等事, 不允. 特進官成夢井曰: “上日御經筵, 礪精圖治, 期見清明之治, 臺諫所啓之事, 至今不允, 衆心皆以爲未便. 前朝五百年間, 崇佛太甚, 卒以亡國. 至于我國, 則不甚崇信, 成宗既罷祝壽齋矣. 今若革此事, 則人心豈不爲快? 且卽位十年之間, 民物阜盛, 然鄉村舊里流亡甚多, 滿目陳荒者, 皆是良田, 而其稅則猶存. 夫平地陳田收稅之法, 爲惰農而立也. 今之陳荒田地, 民雖欲耕墾, 而不敢者, 恐各年陳稅, 皆徵於已故也. 守令亦不能使民耕墾, 請自明年, 令民耕墾, 而勿徵其稅, 使民樂於耕墾爲便. 且軍額多, 而民丁少, 故守令不得充其數. 如水軍番上時, 雖稚弱, 皆充其丁數, 以徵其價. **故愚民欲姑息免罪, 不計後日之事, 至賣牛馬、田宅, 以備其價而給之. 守令亦不能禁之者, 恐或有闕軍而獲罪也.** 徵其番價於一族、切隣, 其弊不貲, 如此之弊, 須當急救.” 領事鄭光弼曰: “全羅道猶有旅外軍士, 忠淸道, 乃內地, 而防禦不緊. 若不能裁減軍額, 則權減水軍, 何如?” 上曰: “軍籍之弊, 及於一族、切隣, 邦本日縮, 減軍何如?” 光弼曰: “減軍籍亦難. 但兩界之民, 流移死已殆盡, 或投托爲私賤, 若有事變, 其將奈何? 國家雖有甲士、正兵, 亦皆不實. 反覆計之, 未得其宜, 但權減水軍之數, 似當.” 上曰: “良民多, 則軍額自實矣, 近者良民少, 而私賤多. 守令賦役不均, 良民先受其弊, 皆樂爲私賤矣.” 光弼曰: “臣於前日, 以六十年以前, 爲奴良所生, 勿受理事, 已建議啓之. 然恐或有背主者, 故僉議以六十年爲太久, 更限五十年以啓. 若以四十年爲限, 而過四十年後, 勿許本主推尋, 則庶或可矣.” 參贊官尹殷輔曰: “臣前以軍籍敬差官, 往咸鏡道而見之, 己巳年軍籍磨鍊時, 軍士皆無保人. 欲搜括良丁, 以充其數, 則又無良丁. 其元額太多, 若不得充數, 則恐有罪責, 故守令皆虛張其數, 以官糶分給人丁之數, 而充之, 故官糶分給時, 多錄虛名. 六鎭之人, 以人名不足, 故家畜犬名, 亦皆錄焉. 官糶納時, 亦以虛數充之, 故其見存軍額, 皆是虛張. 臣恐軍士元額過多, 故至於虛張.” 希壽曰: “近聞, 北道以皮物貿易之, 故我國鐵物盡入彼地. 古則胡人之箭, 皆以鹿角爲鏃, 今則皆用鐵鏃, 鐵物之多入彼地, 從可知矣. 此必將以鐵物質皮物, 以塞宰相及朋友之請, 或營己私故也, 朝官所着貂鼠皮, 一切禁斷. 且近者朝官好着黃狂皮襖子, 此

亦可痛禁也.” 光弼曰：“此言至當。果以鐵物質皮物則鐵物多入於彼地，又以農牛質皮物，尤爲不當。” 上曰：“鐵物多入彼地，其不利於我國，大矣，專由皮物質易故也。黃狂皮事，予所未知也。” 光弼曰：“黃狂皮作襖，古所未見，自廢朝初年始焉。且咸鏡之民，本皆愚直。國家以採銀質穀之故，許遣商賈，然商賈以絁布質民穀，其地之民貪於綿布，罄盡所儲之穀以易之。以此，商賈深入五鎮，禁物多入於彼地矣。” 上曰：“咸鏡道採銀，初欲補軍資。然所質之穀，皆民之穀，雖採銀，無益矣。” 光弼曰：“臣意，磨天嶺、磨雲嶺，最爲高截，質銀商人，使不得踰越此嶺，只納穀於端川以南，次次輸入於北道，可也。若使商人深入北道，則京商皆奸黠之徒，陰誘其民，率來于京，又多質農牛而來，亦甚不可。” 表憑曰：“勿令採銀，上教至當。商賈之質銀者，誰能載穀而歸乎？皆持有色之衣，往質其地之穀，罄民穀而補軍資，尙安有所益哉？” 上曰：“採銀事，予意則初以爲難，而大臣以爲當採矣。” 表憑曰：“以端川採銀之故，鐵物多入於彼地，銀亦多入於中原，民且盡耗所儲之穀。此，三大弊也。” 光弼曰：“北道之民，常不節用，平居飲食，費用甚多。一遇凶荒，便至飢死，須當質穀，以補軍資，或以此救荒，可也。但二弊，宜可除也。”

조강에 나아갔다. 【이날 상이 세탁한 모시옷을 속에 입었고, 강사포(絳紗袍)의 색도 바랬으므로 좌우가 그 검소함에 감복하였다.】 장령 김희수(金希壽)·정언 표빙(表憑)이 기신재(忌晨齋)·장리(長利)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특진관(特進官) 성몽정(成夢井)이 아뢰기를,

“상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오시어 정성들여 다스리기를 피하시므로, 청명(淸明)한 정치를 볼 것을 기대하였는데, 대간이 아뢴 일을 이제껏 윤허하지 않으시니, 못사람의 마음에 다 온편치 못하게 여겨집니다. 전조(前朝) 5백 년 동안 너무 심하게 부처를 숭상하여 마침내 나라를 망쳤습니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는 전혀 숭상하지 않아, 성종께서 축수재(祝壽齋)를 혁파(革罷)하셨거니와, 이제 이 일을 혁파한다면 인심이 어찌 쾌하지 않겠습니까?

또, 즉위하신 지 10년 동안에 민물(民物)이 번성하였으나, 시골의 옛 마을에는 제 고장을 떠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눈에 가득히 보이는 묵힌 땅이 다 좋은 밭이어서, 그 세(稅)만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저 평지는 진전(陳田)이라도 세를 걷는 법은 게으른 농민을 위하여 세운 것인데, 지금 묵은 전지를 백성이 일구려 해도 구태여 하지 않는 까닭은 여러 해의 묵은 세를 다 자기에게서 거두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수령(守令)도 백성으로 하여금 일구게 할 수 없으니 명년부터는 백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되, 그 세를 가혹하게 거두지 말아서 백성이 경작하기를 즐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군액(軍額)은 많고 민정(民丁)은 적으므로 수령이 그 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군(水軍)의 번상(番上) 때에는 어린 사람이라도 다 그 정수(丁數)에 채워서 그 값을 거둡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우선 죄를 면하려고 뒷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소·논밭·집까지 팔아서 그 값을 장만하여 주는데, 수령도 이를 금하지 못하는 까닭은 군액이 모자라서 죄를 받게 되지만 양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번가(番價)를 일족(一族)·절린(切隣)에게서 거두므로 그 폐해를 속히 구제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전라도에는 오히려 여외(旅外)의 군사가 있고 충청도는 내지(內地)라 방어가 긴요하지 않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으니, 군액을 재감(裁減)할 수 없다면 수군을 임시로 줄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적(軍籍)의 폐해가 일족 절린에게 미쳐서 백성이 날로 위축되니, 군적을 줄이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군적을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양계의 백성이 제 고장을 떠나서 거의 다 죽거나 사천(私賤)으로 몸을 의탁해 들어가니, 만약에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국가에 갑사(甲士)·정병(正兵)이 있기는 하나 역시 다 부실하니,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마땅한 방도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수군의 수를 임시로 줄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민이 많으면 군액이 절로 충실해지거니와, 근자에는 양민이 적고 사천이 많다. 수령이 역(役)을 고르지 않게 부과하면 양민이 먼저 그 폐해를 받으므로, 다들 즐거이 사천이 되는 것이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60년 이전에 노(奴)가 양처(良妻)를 얻어서 낳은 자식은 수리(受理)하지 말 것을 이미 건의하여 아뢰었으나,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 하여 60년은 너무 길다는 것으로 의논이 모여 다시 50년으로 한정해서 아뢰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40년을 한년(限年)으로 하여 40년이 지난 뒤에는 본주(本主)가 찾지 못하도록 하면 혹 될 듯합니다.”

하고, 참찬관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신이 전에 군적경차관(軍籍敬差官)으로 함경도에 가서 보니 이러하였습니다. 기사년에 군적을 마련할 때, 군사에게 보인(保人)이 없어 양정(良丁)을 찾아서 그 수를 채우려 하였으나 양정이 없었습니다. 그 원액(元額)이 너무 많은데도 수를 채우지 못하면 죄책(罪責)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수령들이 다 그 수를 헛되이 늘입니다. 즉 관조(官耀)를 나누어 주는 인정(人丁)의 수로 채우는데, 관조를 나누어 줄 때에 허명(虛名)을 많이 적으나, 육진에는 사람의 수가 모자라므로 집에서 기르는 개의 이름까지 다 적습니다. 또 뒤에 관적(官籍)을 받아들일 때에도 허수(虛數)로 채우므로 현존하는 군액은 다 헛되이 늘인 것이었습니다. 신은 아마도 군사의 원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헛되이 늘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였다. 희수(希壽)가 아뢰기를,

“요즈음 들진대, 북도(北道)에서 피물(皮物)을 무역하느라 우리나라의 철물(鐵物)이 모두 피지(彼地)로 넘어간다 합니다. 예전에는 호인(胡人)의 화살은 다 녹각(鹿角)으로 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쇠 축을 쓰니, 철물이 피지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물로 피물을 사서 재상(宰相)이나 벼들이 청하는 것을 채우거나 사리(私利)를 꾀하려고 하기 때문이니, 조관(朝官)이 착용하는 초피(貂皮)·서피(鼠皮)를 일체 금지하소서. 또 근자에 조관이 황광피오자(黃狂皮襖子)를 즐겨 입으니 이것도 통절히 금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그 말이 지당합니다. 과연 철물로 피물을 사면 철물이 피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또 농우(農牛)로 피물을 사기도 하는데 이는 더욱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철물이 피지에 많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크게 이롭지 못한데, 이는 오로지 피물을 무역하기 때문이다. 황광피의 일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황광피로 겹옷을 짓는 것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인데, 폐조(廢朝)의 초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함경도의 백성은 본디 우직(愚直)합니다. 국가에서는 은(銀)을 캐서 곡식을 사려고 상인(商人)을 보내도록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인이 면포(綿布)로 백성의 곡식을 사는데, 그곳 백성은 면포를 탐내어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죄다 털어서 바꿉니다. 이 때문에 상인이 오진(五鎭)까지 깊이 들어가므로 금하는 물건이 피지로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에서 은을 캐는 것은, 당초에 군자(軍資)에 채우려고 한 것이었으나, 사들이는 곡식이 다 백성의 곡식이니 은을 캐더라도 보탬이 없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마천령(磨天嶺)·마운령(磨雲嶺)이 높이 솟아 경계를 짓고 있으니 은을 사는 상인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고, 단천(端川) 이남에서만 곡식을 받아 들여서 차차로 북도에 날라 들어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상인을 북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면 서울 상인은 다 간교한 무리이므로, 그 백성을 넘지시 피어 서울로 데려오고 또 농우를 많이 사울 것이니, 역시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표빙이 아뢰기를,

“은을 캐지 말게 하는 것은 상교(上敎)가 지당하십니다. 은을 사는 상인으로서 누가 곡식을 싣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보기 좋은 옷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곳의 곡식을 삽니다. 백성의 곡식을 털어서 군자에 채우니, 그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은을 캐는 일은, 내 생각에는 처음부터 어렵다고 여겼으나 대신이 캐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하매, 표빙이 아뢰기를,

“단천에서 은을 캐는 까닭에 철물이 피지에 많이 들어가고, 은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백성 또한 저장했던 곡식을 죄다 쓰게 되니, 이것이 세 가지 큰 폐단입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북도의 백성은 늘 아껴 쓰지 않아서, 평소의 음식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한 번 흉년을 당하면 곧 굶어 죽게 되니, 곡식을 사서 군자에 채웠다가 혹 이것으로 구황(救荒)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폐단은 없애야 합니다.”

하였다.

▶ 25권 11년 7월 29일 戊申

大司諫金砮等上疏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謹按，《春秋》二百四十二年之間，日食、地震、山崩、水溢，以至有蜮、隕石，大無麥禾，鸛鵒來巢，凡災異之可驚怪者，靡不特書，用爲後世人主警懼之實。又按《漢書》、《宋史》、《高麗史》、《五行志》，有雞禍、羊禍、牛禍，有赤眚、黑眚、白眚，雨毛、雨血、雨土，其所載非一代，所致非一端。準諸《洪範》休咎之徵，必人事失於下，然後天變應於上。

이하생략~

대사간(大司諫) 김굉(金磁)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춘추(春秋)》를 상고하건대, 2백 42년 사이에 일식(日食)·지진(地震)·산붕(山崩)·수일(水溢)로부터 역재(蜮災)·운석(隕石)·대흉(大凶), 구옥(鸛鵒)이 와서 등우리를 지은 일 따위까지 놀랍고 괴상한 모든 재이(災異)를 특서(特書)하여 후세의 임금이 경계할 참된 자료로 삼았고, 또 《한서(漢書)》·《송사(宋史)》·《고려사(高麗史)》의 오행지(五行志)를 상고하건대, 계화(鷄禍)·양화(羊禍)·우화(牛禍)가 있고 적생(赤眚)·흑생(黑眚)·백생(白眚)과 하늘에서 털[毛]이 내리고 피[血]가 내리고 흙이 내린 일이 있는데, 기재된 것이 한 대(代) 뿐이 아니고 그런 일을 가져온 까닭이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홍범(洪範)의 휴징(休徵)·구징(咎徵)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된 뒤에야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합니다. ...“

이하생략~

▶ 26권 11년 11월 20일 丁酉

夢井曰：“臣見祭用黃牛黑(生)〔牛〕，令外方定都會官，以供上納。但民間，黑牛本稀貴，黃牛猶可易得，而收合絺布，其價至七八同。【五十匹爲一同。】每年如是，爲弊不貲。言者有曰：‘國家若依馬場，擇可放處，多數放牧，不出數年，其弊可除。’此言似當，請收議處之。”

몽정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제사에 쓰는 황우(黃牛)와 흑우(黑牛)를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도회관(都會官)을 정하여 상납하게 하는데, 다만 민간에 흑우는 희소하고 황우는 그래도 쉽게 구득할 수 있다 하지만, 소값으로 거두어 모으는 면포(綿布)가 7~8동(同)이나 되어 【50필이 1동이 된다.】 해마다 이러하므로 폐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람의 말에 ‘국가에서 만일 마장(馬場)을 놓아 먹일 만한 곳을 가리어 다수 놓아 먹인다면, 몇 해 안되어 그런 폐단이 제거될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합당한 듯하니, 수의(收議)하여 처리하소서.”하였다.

▶ 26권 11년 11월 21일 戊戌

傳曰：“祭用黃、黑牛，設場分畜事，議于三公。”

전교하였다. “제사에 쓰는 황우와 흑우는, 목장(牧場)을 설치하고 나누어 키우는 일을 삼공(三公)에게 의논하라.”

▶ 27권 12년 1월 1일 丁丑

平壤民家，牛一產二犢。

평양(平壤)의 민가(民家)에서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 30권 12년 11월 26일 戊戌

御夕講. 侍讀官趙光祖曰：“近歲牝雞化爲雄，牛而有兩頭，雞有四足，虹又見於慶尙道，月行失道，白氣貫月宮，皆陰盛之災也。人君於宮闈之中，隱微之際，一念一慮，固當省察。宮闈之事，人所不見不知，而天地、鬼神所共鑑臨也。人所不見、不知，故肆之甚易，天地、鬼神所共鑑臨，故掩之甚難，不可不留念也。古者大臣，得以統察宮中事，故曰：‘宮中、府中，俱爲一體也。’今者大臣，不得察識宮中之事，宮中與府中阻隔，不啻如千里。當於聖念，常存此心不忘也。”

이하생략~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근년에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되고, 머리가 둘 달린 소가 있고, 다리가 넷 달린 닭이 있고, 무지개가 경상도에 또 나타나고, 달의 운행이 제 길을 잃고, 백기(白氣)가 월궁(月宮)을 꿰었으니, 모두가 음(陰)이 성(盛)한 재변(災變)입니다. 임금의 궁중에서 은미(隱微)할 때에 생각하는 하나하나를 본디 잘 살펴야 합니다. 궁중의 일은 사람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천지와 귀신이 함께 굽어살피며, 사람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함부로 하기가 매우 쉬우나 천지와 귀신이 함께 굽어살피는 까닭에 엄폐하기 매우 어려우니, 유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대신(大臣)이 궁중의 일을 거느려 살필 수 있었으므로 ‘궁중과 부중(府中)이 모두 일체(一體)이다.’ 하였으나, 지금은 대신이 궁중의 일을 살피 알지 못하므로 궁중과 부중이 천리나 막혀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니 성념(聖念)에 늘 이 마음을 두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31권 12년 12월 28일 己巳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冬月各司, 皆劑煎藥, 殺取生牛皮煮之, 其弊至重. 進上外請一切禁之. 全羅左道水使李宗仁, 性本陰鷲, 管下守令, 舉爲頤指氣使. 順天人朴瀧訟其繼曾祖母奴婢, 至得御決, 而以瀧婢爲妾而欲奪之, 使所知錄事李叔良, 托稱使孫, 訟于樂安, 宗仁囑其倖白壽長, 托以違端, 杖殺朴瀧, 使叔良盡得其奴婢, 仍厚待叔良, 盡取其所欲得者而帶去. 宗仁請先罷後推, 并推壽長、叔良, 其所得奴婢, 并屬公.” 傳曰: “煎藥一切禁之. 李宗仁所犯雖重, 然何可不推而先罷乎? 白壽長、李叔良及奴婢等, 先推後處之, 可也. 餘皆不允.”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겨울에 각사(各司)가 모두 달이는 약을 제조하느라 산 소를 잡아 그 가죽으로 달이게 되니 그 폐단이 매우 큼니다. 진상하는 것 외에는 일체 금지시키기를 청합니다. 전라좌도수사 이종인(李宗仁)은 성품이 본래 음흉하고 사나와 관하의 수령들을 거개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순천(順天) 사람 박해(朴瀧)가 그 계증조모(繼曾祖母)의 노비(奴婢)에 대한 소송을 하여 상(上)의 판결을 얻기까지 하였는데, 그가 해(瀧)의 여비를 첩으로 삼고는 그를 빼앗으려고 서로 아는 사이인 녹사(錄事) 이숙량(李叔良)으로 하여금 사손(使孫)이라 칭하며 낙안(樂安)에 소송하게 하고, 또 그 고을 원 백수장(白壽長)에게 부탁하여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핑계해서 박해를 장살(杖殺)하고 숙량(叔良)에게 그 노비를 모두 가지게 하였고, 이어 숙량을 후하게 대우하여 그가 가지고 싶은 자는 모두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종인은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문하며, 동시에 수장과 숙량을 추문하고 그가 가진 노비는 관부에 소속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달이는 약은 일체 금하라. 이종인의 범행은 비록 중하나, 어찌 추문하지 않고 먼저 파직시킬 수가 있겠는가? 백수장과 이숙량 및 노비 등은 먼저 추문하고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31권 12년 12월 30일 辛未

辛未/刑曹、漢城府, 同檢申壽麟妻所殺婢屍身以啓, 傳曰: “觀此檢屍狀, 非徒殘傷致死, 至用烙刑, 極爲不祥. 速移禁府推之. 且苧滓牛脯, 置于屍身胸上云. 必是妖術也, 并窮推可也.”

형조와 한성부가 함께 신수린(申壽麟)의 아내가 죽인 여비의 시신을 검사하고 아뢰니, 전교하였다. “이 검시장(檢屍狀)을 보니, 잔인하게 상해해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낙형(烙刑)을 쓰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속히 금부로 옮겨서 취조하라. 또 저재(苧滓)와 우포(牛脯)를 시신의 가슴 위에 얹어놓았다 하니, 필시 요술일 것이다. 아울러 끝까지 추문하는 것이 옳겠다.”

▶ 31권 12년 閏12월 1일 壬申

臺諫啓前事。憲府又啓曰：“牛馬，民間最重之物，而宰殺成風。聞義禁府等衙門，禁吏不得入，故奸民依居府內，恣行宰殺，且如漢城府、刑曹奴子，亦依憑恣爲屠殺。請不時搜捕治罪。”傳曰：“牛馬宰殺事，搜捕治罪，可也。餘皆不允。”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우마(牛馬)는 민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도살이 풍조가 되었습니다. 들으니, 의금부 등 아문에는 금리(禁吏)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한 백성들이 이 의금부 안에서 도살을 자행하고, 또 한성부와 형조의 노자(奴子)들도 관아에서 도살을 자행한다 하니, 불시에 수색 체포하여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우마를 도살하는 일은 수색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 31권 12년 閏12월 13일 甲申

下申壽麟妻成氏于禁府，推酷刑其夫之妾致死，用牛脯苧滓禳壓之罪。

신수린의 아내 성씨를 의금부에 가두고, 그 남편의 첩을 혹형(酷刑)해서 죽게 한 것과 우포(牛脯)와 저재(苧滓)를 사용하여 양압(禳壓) 한 죄를 추문하였다.

▶ 32권 13년 4월 4일 壬申

壬申/上將於明日，親祀宗廟，犧牛將入廟門而斃。亞獻官鄭光弼等，請代以他牛。

상이 명일 종묘(宗廟)에 친제하려 하는데, 희우(犧牛)가 묘문(廟門)으로 들어오다가 죽으므로 아헌관(亞獻官) 정광필 등이 다른 희우와 바꾸자고 청하였다.

▶ 32권 13년 4월 4일 壬申

都承旨李紆、左承旨韓效元、右承旨金淨等，自宗廟來啓曰：“臣等欲看審享所事，往宗廟，見犧牛將入廟門而死。此誠莫大之變，而三公禮官以執事，皆在廟庭，臣相與議之，皆以爲‘今之大祭，似不可行。但祀日臨逼，今若不行，後難復行，爲今之計，莫如於祭文，竝載誠敬不足，有以致災之意也。’且弘文館及臺諫，亦多差祭者，又就以議之，則以爲‘災異，必生於犧牲者，必神不享而然也。可於今日，先行告愆之祭，而明日乃行大祭，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但急速草率，事必不及。不如更擇日，改卜牛，隨後行之。’ 且政丞等又以爲 ‘如此之事，古必有之，可兼考史籍。’ 又以爲 ‘明日雖行祭 如賀禮、飲福等事，可勿行之。’ 上從之。李紆等又啓曰：“廣考古史，如此變異，古亦無之。但晉元帝時，郊牛死，然其後事不載，故不知何以處之也。且今之變異至此，當祭而不祭，與不當祭而祭之，無非重難。臣等朝往廟庭時，雖與政丞反覆議之，蒼皇驚懼，未遑詳議。廟中亦有弘文館、臺諫往齋焉，令承旨更往議之。其餘六卿及侍從、臺諫不詣宗廟者，皆以齋戒各會于其司，皆召會于闕庭，議之何如？” 傳曰：“所啓當矣。禮房承旨可往宗廟收議也。其餘宰相、臺諫、侍從，竝如所啓，悉召而議之。且明日雖行祭，如還宮時動樂等事，勿爲之意，預令禮官知之。” 李紆等又啓曰：“政府、六曹堂上之外，從二品以上可與議事者，請竝召之。” 【政府、六曹外宰相，乃姜渾、黃孟獻、金安國也。】 傳曰：“可。”

도승지(都承旨) 이자(李紆)·좌승지 한효원(韓效元)·우승지 김정(金淨) 등이 종묘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향소(享所)의 일을 살피고자 종묘에 갔다가 희우가 묘문으로 들어오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큰 변고라 삼공 예관(三公禮官)이 집사(執事)로 모두 묘정(廟庭)에 있었기에 신이 그들과 의논하니, 모두들 지금의 대제(大祭)는 거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삿날이 임박하였으므로 지금 거행하지 않으면 뒤에 다시 거행하기 어려우니, 지금 할 수 있는 계책이라면 제문(祭文)에다 성경(誠敬)이 부족하여 재변을 부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신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합니다. 또 홍문관(弘文館) 및 대간(臺諫)으로 제관에 차임된 이가 많아 그들에게 의논하니, 재변이 반드시 희생에 발생한 것은 필시 신(神)이 흠향하지 않고자 해서 그런 것이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허물을 고유하는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내일 대제를 거행하였으면 좋겠으나, 급박하고 거칠어서 반드시 예에 미치지 못하리니 다시 택일(擇日)하고 희우를 택하여 후일에 거행하소서. 또 정승 등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있었을 것이니 역사를 상고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내일 대제를 행하더라도 하례와 음복(飮福) 등의 의식은 거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자 등이 또 아뢰기를,

“고사(古史)를 널리 상고하니 이와 같은 변고는 옛날에도 없었는데, 단지 진 원제(晉元帝) 때 교제(郊祭)의 소(牛)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뒤의 사실이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지금의 변고가 이와 같은데 당연히 제사할 것을 제사하지 않는 것과 제사함이 부당한테 제사하는 것이 모두 중하고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아침에 묘정에 갔을 때 비록 정승과 진지하게 의논하였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자세히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 묘중에는 홍문관·대간이 또한 재숙(齋宿)하고 있으니, 승지(承旨)로 하여금 다시 가서 의논하게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육경(六卿) 및 시종(侍從)·대간(臺諫)으로서 종묘에 나아가지 아니한 자는 모두 재계(齋戒)하기 위하여 각각 그 사(司)에 모여 있으니 이들을 궐정(闕庭)에 불러 놓고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이 옳다. 예방 승지(禮房承旨)는 종묘에 가서 수의하라. 그 나머지 재상·대간·시종은 아뢴 말과 같이 모두 불러 의논하라. 또 내일 비록 대제를 거행하더라도 환궁(還宮)할

때와 같이 풍악을 울리는 등의 일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미리 예관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자 등이 또 아뢰기를,

“정부·육조 당상 외 중2품 이상으로 더불어 일을 의논할 만한 자는 모두 부르기 바랍니다.” 【정부·육조 외의 재상은 곧 강혼(姜渾)·황맹헌(黃孟獻)·김안국(金安國)이다.】

▶ 32권 13년 4월 4일 壬申

大司憲李長坤、掌令柳沃等啓曰：“犧牛到廟門自死。豈有如此駭愕之事？夫災變出於犧牲，必有其由。須先自責躬告愆而後，當行夏享也。 今朝政丞等來達變故時，當言災異作興之由，與夫報答神意之方，而智不及此，但言代用預備之牛，亦甚失矣。 當速親詣宗廟，責躬告愆，博採群議，廣求古事，然後方行夏享，使祀事得其正也。”

대사헌 이장곤·장령 유옥 등이 아뢰기를,

“희우(犧牛)가 묘문(廟門)에 이르러 죽었으니, 어찌 이와 같은 해괴한 일이 있겠습니까? 재변이 희우에 발생한 것은 필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라, 모름지기 먼저 자책하여 그 허물을 고유한 다음에 여름의 대제를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승 등이 와 변고를 아릴 때 당연히 재변이 일어나는 까닭과 신(神)의 뜻에 보답하는 방법을 말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예비한 소로 대용할 것만 말했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속히 몸소 종묘에 납시어 자신을 책망하고 그 허물을 고유하실 것이며, 널리 중의를 모으고 고사를 상고한 후에 대제를 거행하셔야 제사의 일이 그 정도(正道)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32권 13년 4월 4일 壬申

姜渾、張順孫、安瑒、高荊山、李惟清等議：“今將有事太廟，有此犧牛之變。按《禮》‘帝牛不吉，以爲稷牛’註，‘帝牛不吉，或死傷，爲用稷牛’。其祭稷之牛，臨時別取牛用之，則古者不以犧牲之故，而廢祭明矣。 況四時大享常事，陵寢、原廟，同日而祭，明日行事，不可進退。於祭文竝述遇災驚懼之由，親享展敬，且將不盡之意，別行親祭，以伸餘敬何如？”崔淑生、黃孟獻、金安國、許砬議類此。趙光祖、任權、李希閔、李認等議：“凡享祀主於誠敬，以致昭格，故祭則神介景福，誠敬小或未至，神必不享。今當省牲，遽有變故，神之示譴，甚嚴且昭。宜先以誠敬虧闕，爲文告愆，不可強冒神威，苟薦明祀。臣等意卽行責告，更卜日修祀，似合情禮。”鄭光弼、申用漑、洪淑、曹繼商、金克愐議：“今當大祭，遇此變告，上意必大驚懼。下至百執事，莫不皆然。誠敬似未專一，然此驚懼之心，出於奉先之或未盡，庶事之未合於祖宗之意耳，非他遇災之例。況親祭已定，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祖宗在天之靈，亦已默昭，今停親祭，輒令攝行，似未合宜。若欲以此，祭爲告變別祭，而退行大祭，則大祭卜日已久，且各陵殿亦皆行之，獨於太廟退行，似未穩便。臣等意於祭文末端，竝述遇災驚懼之意，親行似當。”南袞、李自堅議：“當祭而遇此非常之變，下至諸執事，精意必至解散，歲祀未安。況牛及廟門，不踰闕而有故，祖宗譴告之意，昭然有在。今雖行之，恐不足以當祖宗之心。宜省愆罪己，至誠懇惻，思所以致災之由，以答示譴之意。更擇日齋潔，以寓告謝之誠。今此大祭，雖攝行亦可。”尹殷弼、金正國、申光漢、閔壽元、奇遵、閔壽千、李清、鄭膺、柳庸謹議，與趙光祖等議同。傳曰：“今觀群議不一，莫適所從。今之變異，至於此極，明日之祭，當行而不行，與不當行而行，其失則同。於政院之意何如？”承旨等相視不決者久之。李成童、申公濟、文瑾等曰：“吾等各言所懷，都令公擇之何如？”李紆曰：“然。”成童等曰：“大事臨逼，變生不測，上下恟懼，心志不定。祭祀主於誠敬，明雖親祭，必未專一。明日則遣官致祭，更將恐懼之意，躬詣太廟，以致其誠似當。”金淨曰：“淨之初意，亦如右矣，更思似不可。”李紆曰：“皆不然。豈可如是無稽？”遂更僉議以啓曰：“變異甚大，上下驚惶，必未得行。退而行之，雖似不易，然《家禮》《四時祭》篇言：‘上旬不吉，則中旬爲之，中旬不吉，則下旬不卜而爲之。’陵寢、原廟與太廟，雖同稱大祭，然其實不同。何者，陵寢、原廟之祭，皆無誓戒肄儀之禮。以禮文考之，大有輕重。陵寢、原廟，明日雖行祭，太廟則明日先行告愆之祭，大祭則改卜日、改卜牛爲之，甚未晚也。禮記所載帝牛不吉之事，以本文考之，非如今時臨逼有故之例也，預卜而不吉，遂改其牛，而不退其祭也。又於大祭祭文，竝述祖宗示譴，遇災恐懼之意，語勢亦難。”傳曰：“予之初意，正與政院所啓同也。四時大祭既卜，則不可改易之言，蓋因大臣之意而言之也。若如承旨所啓，通三旬行之無妨，則豈可強冒神意，蒼黃急遽而行大祭乎？明日當躬詣廟庭，告愆責己，更卜吉日，以行大祭爲當。”

강혼(姜渾)·장순손(張順孫)·안당(安瑯)·고형산(高荊山)·이유청(李惟淸)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태묘(太廟)에 제사를 올리려 할 때 이와 같이 희우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기(禮記)》를 상고하건대 ‘제우(帝牛)가 불길하면 직우(稷牛)로 대체한다.’ 한 그 주석에 ‘제우가 불길하여 혹 죽는다면 직우로 대응한다.’ 하였고, 그 직(稷)에 제사하는 소는 임시 별도로 취택한 소를 썼으니, 옛날에 희생(犧牲)의 변경이 있어도 제사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사시(四時)의 대향(大享)은 정해진 행사라 능침(陵寢)·원묘(原廟)도 같은 날 제사를 지내니, 내일의 행사는 물릴 수 없습니다. 재변을 만나 경구(警懼)한다는 사유의 제문을 지어 몸소 경의(敬意)를 펴고, 또 끝없는 뜻으로 특별히 친제(親祭)를 행하여 다 하지 못한 경의를 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최숙생(崔淑生)·황맹헌(黃孟獻)·김안국(金安國)·허평(許篈)의 의논도 그와 같았다. 조광조(趙光祖)·임권(任權)·이희민(李希閔)·이인(李認) 등이 의논드리기를,

“무릇 향사(享祀)는 정성을 다해서 밝게 흠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하면 신(神)이 큰 복을 내리고 정성이 조금이라도 지극하지 아니하면 신이 반드시 흠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희생을 살필 때 갑자기 변경이 있으니, 신이 그 견책을 보임이 너무나도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우선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제문을 지어 그 잘못을 고유할 것이요, 억지로

신의 위엄을 무릅쓰고 제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곧 자신을 책망하는 고유의 제사를 올리고 다시 날을 가려 제사를 받드는 것이 정례(情禮)에 맞을 것으로 봅니다.”

하고, 정광필·신용개·홍숙(洪淑)·조계상(曹繼商)·김극필(金克福)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대제를 당하여 이와 같은 변고를 만나니 성상의 마음은 물론 크게 놀라고 두려웠을 것이요, 백집사(百執事)에 이르기까지 모두 놀라고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성이 전일하지 못한 것 같으나, 지금의 놀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선조를 받들에 미진(未盡)하거나 모든 일이 조종의 뜻에 흡족하지 못한 데에서 나왔을 뿐이라, 다른 재변을 만난 것과는 다릅니다. 하물며 친제가 이미 정해지고 하늘에 있는 조종(祖宗)의 영령 역시 조용히 조림(照臨)할 것임에리까? 이제 친제를 정지하고 문득 섭행(攝行)을 하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대제를 고변(告變)하는 별제(別祭)로 삼고 대제를 물린다면 대제의 복일(卜日)이 벌써 오랠 뿐 아니라 또 각 능전(陵殿)이 모두 행제하는데 유독 태묘만 물린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제문 끝에 재변을 만나 놀라 두려워한다는 뜻을 써서 친행(親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남곤·이자견(李自堅)은 의논드리기를,

“제사에 당하여 이와 같이 비상(非常)한 변을 당하니 백집사에 이르기까지도 정의(精意)가 풀려서 일을 보기에 미안할 것입니다. 하물며 소가 묘문에까지 이르러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변고가 생겼음이라까?” 조종의 건고(謹告)하는 뜻이 분명히 있으니, 지금 제사를 거행한다 하더라도 조종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잘못을 반성하고 자책하며 정성을 다해 재변이 생긴 동기를 생각하여 건책을 보이신 뜻에 보답하고, 다시 날을 가려 재제한 후 고사(告謝)의 정성을 보이소서. 지금의 대제는 섭행하여도 마땅합니다.”

하고, 윤은필(尹殷弼)·김정국(金正國)·신광한(申光漢)·민수원(閔壽元)·기준(奇遵)·민수천(閔壽千)·이청(李清)·정응(鄭應)·유용근(柳庸謹) 등의 의논도 조광조의 의논과 같았다. 전교하기를,

“지금 보건대 여러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어느 쪽도 따를 수가 없다. 지금의 변고가 이와 같이 극심한 데 이르렀으니, 명일의 대제는 응당 거행할 것을 거행하지 않는 것이나 거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행하는 것은 그 잘못이 피차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정원(政院)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 등이 서로 보며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성동(李成童)·신공제(申公濟)·문근(文瑾) 등이 말하기를,

“우리가 각각 소회를 말한 것이니 도영공(都令公)이 택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자(李紆)가 그리하라고 하였다. 성동 등이 말하기를,

“대사가 임박했는데 불측한 변고가 생기므로 상하가 모두 두려워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명일 비록 친제(親祭)하더라도 반드시 전일하지 못할 것이니, 명일은 제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다시 공구(恐懼)하는 마음으로 몸소 태묘에 납시어 그 정성을 베푸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김정(金淨)은 말하기를,

“정(淨)의 생각도 애당초에는 이상과 같았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니, 이자가 말하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모두 옳지 못합니다. 어찌 이처럼 근거가 없소.”

하고, 드디어 다시 여러 의논을 모아 아뢰기를,

“변괴가 몹시 커서 상하가 두려워하므로 필시 대제를 거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뒤로 물리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것 같으나, 《가례(家禮)》의 사시제편(四時祭篇)에 말하기를 ‘상순(上旬)이 불길하면 중순(中旬)으로 하고 중순이 불길하면 하순(下旬)에는 날을 가리지 않고 한다.’ 하였습니다. 능침(陵寢)·원묘(原廟)를 태묘와 함께 대제라고 부르나 그 실상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침과 원묘의 제사는 모두 서계(誓戒)하며 예습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문(禮文)을 상고하면 크게 경중(輕重)이 있으니, 능침과 원묘는 내일로 행사한다 하더라도 태묘는 내일 먼저 고건제(告愆祭)를 지내고, 대제는 다시 날을 택한 다음 희우(犧牛)를 택하여 행하여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실린 ‘제우불길(帝牛不吉)’에 대해 그 본문을 상고해 보면, 지금처럼 임박해서 일이 생긴 사례가 아니라, 미리 정한 것이 불길하므로 드디어 그 희우를 바꾸고 그 제사를 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대제의 제문에 조종이 건책을 보이므로 재변을 만나 두렵다는 뜻을 기록하기에도 그 어세(語勢)가 곤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본의도 정원이 아뢰는 말과 같았다. 사시(四時)의 대제는 이미 결정한 터이라 다시 고칠 수 없다는 말은 대개 대신의 뜻에 따라 말하였거니와, 만약 승지가 아뢰는 바와 같이 삼순(三旬)을 통해 아무 때나 행하여도 무방하다면 어찌 억지로 신(神)의 뜻을 무릅쓰고 황급히 대제를 행하겠는가? 내일 몸소 묘정(廟庭)에 나아가 잘못을 고유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다시 길일(吉日)을 택하여 대제를 행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 32권 13년 4월 5일 癸酉

上御思政殿簷下，召見領議政鄭光弼、左議政申用漑、兵曹判書張順孫、吏曹判書南袞、右贊成安瑒、漢城府判尹洪淑、大司憲李長坤、刑曹判書李惟清、右參贊崔淑生、承旨金淨、大司諫金楊震、副提學趙光祖、直提學尹殷弼、典翰金正國、掌令柳沃·閔壽千、應教申光漢、持平李清·鄭膺、獻納柳庸謹、校理閔壽元·任權·奇遵、正言崔山斗·梁彭孫、博士李希閔、正字李認等。上曰：“大祭犧牛自斃，變異無大於此。予未知其由，朝廷必有可言之事矣。”光弼曰：“犧牛之毛角或傷，猶可謂之災也。此則到廟門乃斃，至爲驚愕。不能先察於變異未著之前，乃臣之愚暗也。既著之後，亦未能的知爲某事之應，庶政、庶事之中，雖無傷於今世，而不能無弊於後世之事有之。請於奉先之誠，民間弊端，無所不究，逆耳之言，亦須深思而處之。以奉先之事言之，非徒奠物也，或有非常之萌兆，違於祖先之意與衆心則不可也。亦須詳究之。”

이하생략~

상이 사정전(思政殿) 침하(簷下)에 납시어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신용개, 병조판서 장순

손, 이조판서 남곤, 우찬성 안당(安瑯), 한성부 판윤 홍숙(洪淑), 대사헌 이장곤, 형조판서 이유헌(李惟淸), 우참찬 최숙생, 승지 김정, 대사간 김양진, 부제학 조광조, 직제학 윤은필, 전한(典翰) 김정국(金正國), 장령 유옥·민수천, 응교(應敎) 신광한(申光漢), 지평(持平) 이청(李清)·정응(鄭應), 헌납(獻納) 유용근(柳庸謹), 교리(校理) 민수원(閔壽元)·임권(任權)·기준(奇遵), 정언(正言) 최산두(崔山斗)·양팽손(梁彭孫), 박사(博士) 이희민(李希閔), 정자(正字)·이인(李認) 등을 불러 보고 상이 이르기를, “대제의 희생에 쓸 소가 스스로 죽었으니 변고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나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으나 조정은 반드시 말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희우의 모각(毛角)이 조금 상하였더라도 재변이라 이를 수 있는데, 묘문에 이르자 죽었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변고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은 곧 신이 혼암(昏暗)하여서입니다. 변고가 이미 나타난 뒤에도 또한 무슨 일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모든 정사 가운데 비록 당세에 해로운 것은 없다 하더라도 후세에 폐단이 없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선조를 받드는 정성과 민간의 폐단을 모두 강구(講求)하소서. 귀에 거슬리는 말도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소서. 선조 받드는 일로 말하면 전물(奠物)일 뿐만 아니라, 혹은 예사가 아닌 조짐이 있을 때 선조의 뜻과 중의를 어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또한 모름지기 자세히 탐구해야 합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32권 13년 4월 8일 丙子

丙子/臺諫啓前事. 憲府啓: “內贍主簿安遇, 比之盧瑋, 【蓋同時薦舉人也.】 頗有不及, 而其褒爵同焉. 此人當用諸百執事, 不當陞之與盧瑋同也. 祥原郡守洪壽, 前任東萊時, 以其子作收養於本縣首戶長, 使之出入衙內, 作弊民間. 祥原亦大邑, 此人不可差遣. 節度使成世貞, 所歷多有所失. 慶尙右道, 防禦甚繁. 此人於無事時, 不能鎮靜, 有事則不能禦敵. 請遞之. 五衛將李坤, 貪污無用之人. 五衛將, 亦統屬禁軍之任, 請遞之. 都摠府經歷朴培根, 與柳子光婚姻家也. 諂事子光以發跡, 物論鄙之. 請改正. 副司正安堯卿, 在廢朝爲領置事, 【領置事, 乃廢朝別設官名, 蓋領獄囚者.】 刻害士林之被拘幽者, 無所不至. 在今時, 多致屠牛人于其家, 屠殺牛畜, 殆無虛日, 人稱屠牛主人. 請不齒士類. ~중략~ 安堯卿, 屠殺牛畜, 可遞. 李承健, 廢朝之事, 未之詳知, 然豈可以舊事, 至於追奪官爵, 禁錮子孫乎? 玄健等十五人, 此正沙汰也. 吏曹察東班賢否, 黜陟之; 兵曹察西班賢否而黜陟之. 沙汰當如是也. 予意似非臺諫之任也. 北道守令, 率皆年少驕猛之武人, 欲立其威, 嚴酷刑罰. 柳沃慣知北方之事, 今若在其處, 武夫之徒庶幾畏戢. 此非不尊重臺諫之意也. 餘不允.”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내섬 주부(內贍主簿) 안우(安遇)는 노필(盧瑋) 【동시에 천거된 사람이다.】 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는데 그 포작(褒爵)은 같으니, 이 사람은 백집사(百執事)에 기용할 것이요 노필과 동등하게 승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원군수(祥原郡守) 홍수(洪壽)는 전에 동래(東萊)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부임하였을 때, 그의 아들을 본현(本縣) 수호장(首戶長)의 수양아들을 삼아 관아에 출입하게 해서 민간에 작폐하였습니다. 상원도 역시 큰 읍이니, 이 사람을 차임해 보낼 수 없습니다. 절도사(節度使) 성세정(成世貞)은 그가 역임한 직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경상 우도(慶尙右道)는 방어가 몹시 중요시되는 곳인데,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제대로 안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유사시에는 능히 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니 체직하소서. 오위 장(五衛將) 이곤(李坤)은 탐오하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오위 장 역시 금군(禁軍)을 통솔하는 소임이니 체직하소서.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 박배근(朴培根)은 유자광(柳子光)과 혼인한 집입니다. 자광에게 아첨하여 발탁되었으므로 물론이 비열하게 여겼으니 개정하소서. **부사정(副司正) 안요경(安堯卿)은 폐조(廢朝) 때 영치사(領置事)【폐조 때 특별히 설치한 관명인데, 대개 옥수(獄囚)를 통솔하였다.】가 되어 못할 짓이 없이 구류된 사림을 괴롭혔는데, 지금에 와서는 백정을 많이 불러들여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소를 잡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백정의 주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사림에 끼우지 마소서.**

~중략~

안요경은 우축(牛畜)을 도살하였으니 체직하라. 이승건은 폐조 때에 무슨 짓을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찌 지난 일을 들어 관작을 추탈하고 자손을 금고하겠는가? 현건 등 15인은 바로 사태(沙汰)하라. 이조는 동반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고 병조는 서반의 현부를 살펴 출척하는 것이니, 사태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내 생각에는 대간의 소임이 아닌 것으로 본다. 북도의 수령은 거의가 모두 연소하고 거센 무인들이라 그 위의를 세우고자 형벌을 엄혹하게 다스리는데, 유옥은 북방의 일을 익히 아는 사람이라 이제 만약 그를 그곳에 두면 무인들이 두려워 복종할 것이니, 이는 대간을 존중하지 않는 뜻이 아니다.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 33권 13년 5월 16일 甲寅

彦卿曰：“臣常有所懷而欲達，然臣之職分，非言事之官，故未敢陳也。今因災變訪問之際，敢陳其常所痛心者也。如宗廟第四室，乃文宗位次也。以文宗爲得罪於祖宗，則雖廟庭之內，亦不宜處，不然則無奈戾於義乎？且聞祝文，不稱祖、不稱孫。此不合於禮文，未安於人情。夫天人一理，幽明無間。前日犧牛之斃，無奈或由於此乎？此事大臣、臺諫欲言之久矣。然若聖學未盡高明，恐徒煩陳啓而無益也。待聖之盡到，欲啓之，非以全無失德而不肯陳啓也。前者犧牛之變，其時趙光祖，嘗陳啓此事矣。先王所失，子孫改之，亦不失爲孝也。”

이하생략~

조언경이 아뢰기를,

“신이 항상 아뢰고자 하던 생각이 있었으나, 신의 직분이 일을 말하는 벼슬이 아닌 까닭에 아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변으로 인하여 아랫사람들에게 물으시니, 평소에 가슴아프게 여기고 있던 바를 감히 아뢰겠습니다. **종묘(宗廟)의 제4실(室)은 곧 문종**

(文宗)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종이 조종(祖宗)에게 죄를 지었다면, 묘정(廟庭) 안이라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듣건대 축문(祝文)에 ‘조(祖)’라는 말도 쓰지 않고 ‘손(孫)’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하니, 이는 예문(禮文)에 맞지 않는 일이며 인정(人情)에도 미안한 일입니다. 대저 하늘과 인간은 한 가지 이치요, 저승과 이승은 간격이 없는 것이니, 전일에 희생(犧牲)에 쓸 소가 죽은 것도 혹은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대신과 대간이 아뢰고자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학(聖學)이 지극히 고명(高明)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번거로울 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성학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기를 기다려서 아뢰고자 하였던 것이지 실덕(失德)하신 일이 조금도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희생에 쓸 소가 죽는 변이 났을 적에 조광조(趙光祖)가 이 일을 말씀드린 일이 있거니와, 선왕께서 잘못하신 것을 자손이 바로잡는 것도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것일 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34권 13년 10월 18일 甲申

慶尙道觀察使韓世桓, 以孝行節義聞:

~중략~

全佛山, 孝誠卓異, 父嘗臥病, 非肉不食, 佛山只畜二雌牛, 而宰之以供. 父沒之後, 朝夕上食, 必皆親執, 冬夏常不穿履, 雖風雷雨雪之夜, 必詣墓側, 俯伏號泣, 以達朝焉. 一夜大虎來繞佛山三匝, 竟不能害. 既終三年, 復以肉饌. 又終三年, 前後六載, 一不到家, 每遇朔望, 則上墓而祭, 得新物, 則必薦而後食.”

경상도관찰사 한세환(韓世桓)이 효행(孝行)과 절의(節義)를 계문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중략~

전불산(全佛山)은 효성이 특이하여, 아버지가 일찍이 병들어 누워서 육미(肉味)가 아니면 먹지 않으므로 그는 기르던 암소 두 마리를 잡아서 봉양하였으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조식의 상식(上食)은 반드시 다 몸소 마련하여 올리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늘 신을 신지 않았으며, 바람이 불거나 눈이 뿌리거나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는 밤일지라도 반드시 무덤 곁에 나가 아침까지 부복(俯伏)하여 묵념하 올었습니다. 하룻밤에는 큰 범들이 와서 전불산을 세 겹이나 둘러쌌으나 끝내 해치지 못하였으며, 삼년상을 마치고서는 다시 육찬(肉饌)으로 또 삼년상을 마쳤는데, 전후 6년 동안에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양 삭망(朔望)이 되면 무덤에 제사지내고, 새로운 음식물을 얻으면 반드시 올린 뒤에 먹었습니다.”

▶ 35권 13년 12월 15일 庚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庚辰/臺諫啓前事，憲府啓曰：“捕盜將等，因興原君家逢賊，搜探獻納韓胤昌家，得牛皮，胤昌不可在諫官之列，請遞之。興原君以其鑰器逢賊事泛啓，搜探朝士家，而至令搜臺諫之家，可爲駭愕。捕盜將則法司當推之，興原君請令宗簿寺推之。”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포도장(捕盜將) 등이 흥원군(興原君)의 집이 도둑을 맞았다 하여, 헌납(獻納) 한윤창(韓胤昌)의 집을 수색해서 우피(牛皮)를 찾아냈습니다. 윤창을 간관(諫官)의 반열에 둘 수 없으니, 체직하소서. 흥원군은 유기(鑰器)를 도둑맞았다 하여 범연히 조사(朝士)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아뢰고, 대간의 집을 수색 하도록 하였으니 놀랄만합니다. 포도장은 법사(法司)에서 마땅히 추문하겠지만, 흥원군도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소서.”하였다.

▶ 35권 14년 2월 15일 己卯

己卯/御朝講. 知事金安國曰: “此云: ‘詔百官坐罪, 免杖黥, 著爲令.’ 此法甚善. 古云: ‘刑不上大夫.’ 此帝王所以待臣之厚也. 待士大夫, 皆宜若是, 而待宰相之道, 則尤當隆禮也. 在大臣之位者, 雖或罪之, 不可一切糾以規律. 【近者崔淑生, 以右贊成被罪, 奪告身四等, 以一品之官, 降至三品之階. 故士論頗以上之待宰相爲薄, 以此安國因文微諷也.】掌令金湜、正言金匡復, 復請革女樂. 檢討官沈達源曰: “近日修舉先王之法者多, 而凡忌祭, 自上例不親行, 四享大祭, 自犧牛之變, 亦不親行, 恐未盡如在之誠. 且我國習俗, 不重祭禮, 如高祖有服之親, 而不與於祭列. 國有著令, 竝行高祖之祭則可也.”

이하생략~

조강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이 글에 ‘백관(百官)은 죄에 걸리더라도 장경(杖黥)을 면제하라고 조서(詔書)를 내리고, 이어 이를 드러내어 법령(法令)으로 만들었다.’ 하였는데, 이 법이 매우 좋습니다. 옛날에는 대부(大夫)에게는 형(刑)을 가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제왕(帝王)이 신하를 후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대부(士大夫)를 대우함에 있어서도 모두 이렇게 해야 하며, 재상(宰相)을 대우하는 도리는 더욱 예(禮)를 높여야 합니다. 대신의 지위에 있는 자는 혹 죄주더라도 일체 구율(矩律)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래 최숙생(崔淑生)이 우찬성으로서 죄를 받았는데 고신 사등(告身四等)을 빼앗았으니, 이는 일품관(一品官)이 삼품(三品)의 계자(階資)로 강등된 것이므로, 사론(士論)이 상이 재상 대우를 너무 박하게 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안국이 글을 인하여 은근히 풍간(諷諫)한 것이다.】 하고, 장령 김식(金湜)과 정언 김광복(金匡復)은 다시 여악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며, 검토관 심달원(沈達源)은 아뢰기를, “근래 선왕의 법을 수거(修舉)한 것이 많은데 무릇 기제(忌祭)에는 위에서 으레 친행(親行)하지 않고, 네 계절의 대제(大祭)는 희우(犧牛)의 변(變)이 있을 때부터 또한 친행하지 않으니, 여재(如在)의 정성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습속(習俗)이 제례(祭禮)를 중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고조(高祖)의 유복친(有服親)으로서도 제사의 반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드러난 법이 있으니 함께 고조

의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35권 14년 4월 9일 壬申

壬申/平安道祥原郡民家有牛產犢。方產，五趾先出，牛主惡其怪，以刀割四足，艱得抽出，則其形一頭八足，鼻孔四，三耳、兩脊、兩尾，自臍下岐爲兩尻，如人相抱而臥者。

평안도(平安道) 상원군(祥原郡) 민가(民家)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낳을 적에 다섯 개의 발이 먼저 나오므로 소 주인이 괴이함을 싫어하여 칼로 네개의 다리를 베었다. 가까스로 꺼내놓고 보니, 그 모양이 머리는 하나, 다리는 여덟, 콧구멍은 넷, 귀는 셋, 등뼈가 둘, 꼬리가 둘, 배꼽 이하로는 갈라져 꿈무늬가 둘이 되었는데,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누워 있는 것 같았다.

▶ 36권 14년 6월 8일 庚午

忠清道大興縣民家，生雌牛六足。

충청도 대흥현(大興縣) 민가에서 발이 여섯 달린 암송아지가 생겼다.

▶ 36권 14년 7월 30일 辛酉

慶尙道豐基郡雌牛，產雄犢三、雌犢二，產後皆弊。

경상도 풍기군(豐基郡)에서 암소가 수송아지 셋과 암송아지 둘을 낳았는데 낳은 뒤 모두 죽었다

▶ 36권 14년 8월 1일 壬戌

光祖曰：“近年災變甚多。昨見一牛生五犢。此何災也?” 袞曰：“考于《文獻通攷》，有牛禍、雞禍，此則乃牛禍也。” 上曰：“今年災變極多，何緣致此?” 因反覆嗟嘆。 瑄曰：“人事失於下，天變應於上，臣等之罪也。” 光祖曰：“此正上下不交修之(時)〔致〕也。”

광조가 아뢰기를, “근년에 재변이 매우 많은데 어제는 소 한 마리가 송아지 다섯을 낳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니 이 무슨 재변입니까?”하고, 곧은 아뢰기를, “《문헌통고(文獻通攷)》를 고찰하건대 소의 재앙, 닭의 재앙이 있었으니, 이는 곧 소의 재앙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해는 재변이 지극히 많으니 무슨 까닭으로 이러는 것일까?”하고, 이어 차탄(嗟嘆)을 되풀이하니, 당이 아뢰기를, “아래서 인사(人事)가 잘못되어 위에서 천변이 감응(感應)하는 것이니, 신 등의 죄입니다.”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이는 바로 상하가 서로 수성(修省)해야 할 때입니다.”하였다.

▶ 36권 14년 8월 3일 甲子

特進官李紆曰: “近日災變甚多, 如慶尙道, 一牛生五犢之災, 古所未聞, 必有所召.” 上曰: “五犢之災, 果可驚怪. 慶尙道風水之災, 多害禾穀, 尤切於民. 災變之生, 必有所由. 此應天不以實所致也.”

특진관 이자(李紆)가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매우 많아, 경상도에서 소 한 마리가 송아지 다섯을 낳은 재변은 옛적에도 듣지 못하던 일이니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송아지 다섯을 낳은 재변은 과연 놀랍고 괴이하거나와 경상도는 풍제와 수제로 벼와 곡식의 해가 많아 더욱 백성들이 절박하다. 재변이 생김은 반드시 연유한 데가 있는 법이니, 이는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지로써 하지 않는 소치이다.”하였다.

▶ 36권 14년 9월 2일 癸巳

癸巳/上以淺淡服、烏犀帶, 御丕顯閣視事.

상이 천담복(淺淡服)에 오서대(烏犀帶) 차림으로 비현합(丕顯閣)에 나아가 정무를 보았다.

▶ 36권 14년 9월 15일 丙午

丙午/上幸大學館, 以大牢親祀先聖, 遂御明倫堂視學, 行飲福禮畢, 餉儒生. 仍命同知事尹倬等, 論難經義, 又講儒士.

【史臣曰: “祭之時, 月星開霽, 廟貌肅然, (邊)〔邊〕豆靜嘉, 環珮鏗鏘, 主上陞降, 誠意不散, 只聞玉聲而已. 及至視學之時, 青矜濟濟, 充溢于庭, 觀聽者猶可以萬計也. 然其講論、問難, 尙愧於明帝, 而未洽於聽聞, 識者大有憾.”】

상이 태학관(太學館)에 행행하여 대뢰(大牢)로 선성(先聖)들에게 친히 제사하고, 드디어 명륜당(明倫堂)으로 나아가 시학(視學)하고 음복례(飲福禮)를 거행한 다음 유생들을 먹였으

며, 이어 동지사(同知事) 윤탁(尹倬) 등에게 명하여 경의(經義)를 논란하게 하고 또한 유사(儒士)들 강을 받았다.

사신은 논한다. 제사할 때 달이 밝고 별이 빛나고 문묘(文廟) 모습이 숙연했으며, 변두(邊豆)가 고요히 아름답게 놓여 있었다. 환패(環珮)가 쟁그랑거렸으며, 주상께서도 오르내릴 때 정성스러운 뜻이 흐리지 않고 오직 옥(玉) 소리가 들릴 뿐이었으며, 시학 때에 미쳐서는 훌륭한 유사들이 뜰에 가득차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만명으로 헤아릴 수 있었는데, 강론과 문난(問難)은 오히려 명제(明帝)만 못하여 듣기에 흠족하지 못하므로, 식자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겼었다.

▶ 38권 15년 3월 14일 壬寅

壬寅/御書講. 參贊官李蘋臨文曰: “疏廣之去, 乃見機也. 一大臣去留, 亦關時運. 比者臣在外, 聞大臣多有退歸者, 其在京師者, 多有稱疾不仕者. 今幸自上善爲處置.” 典經李海曰: “大臣身任國家生民休戚之重, 而卒然去之者, 豈無所見而然歟?” 【李繼孟、姜渾、黃孟獻, 被論而退; 金應箕、沈貞, 稱疾不仕.】 蘋曰: “近來連年凶歉, 人民飢餓. 守令雖欲賑恤, 而倉穀已盡, 故不能措置. 且坡州倉所儲黃豆, 僅二百斛而已, 不能貸民, 民不能畜養農牛. 請給京倉黃豆以濟之. 畿甸之內, 尙或如此. 況遠方不能聞見之處乎? 觀察使雖加檢糾, 守令或有慢不致意者. 臣意以爲, 時遣御史察之, 則庶可使慢懦者勤謹, 而小民亦知朝廷常有憂念之心也.”

주강(書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이빈(李蘋)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소광(疏廣)이 떠난 것은 곧 기미를 알았기 때문이니 한 대신의 가고 머무름은 역시 시운(時運)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신이 외방에 있으면서 들으니 대신 중에 고향으로 물러가려는 자가 많고, 경사(京師)에 있는 자도 많이들 병을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위에서 잘 조치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전경(典經) 이해(李海)는 아뢰기를,

“대신은 몸소 국가 생민의 기쁨과 슬픔을 맡은 중임인데 어찌 소견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었다. 【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황맹헌(黃孟獻)은 물러갔고, 김응기(金應箕)·심정(沈貞)은 병을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고 있었다.】

이빈이 아뢰기를,

“근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아(飢餓)에 허덕이는데, 수령이 비록 진휼(賑恤)하려 해도 창고 곡식이 바닥이 나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파주창(坡州倉)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겨우 2백 곡(斛) 뿐이어서, 백성에게 대여(貸與)할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없으니, 경창(京倉) 황두로 구제해 주소서. 경기 지방도 혹 이러한데 하물며 보고 들을 수 없는 먼 외방이리까? 관찰사가 비록 규검(糾檢)한다 해도 수령 중에는 혹시 태만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시로 어사를 보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살피게 한다면 태만한 자로 하여금 근면하게 할 수 있고, 백성 역시 조정에서 항상 염려한다는 뜻을 알게 될 듯합니다.”하였다.

▶ 39권 15년 4월 8일 乙丑

京畿仁川·南陽·江華·富平·陽川·金浦·衿川, 忠淸道沔川地震; 全羅道長水縣, 連七日隕霜; 忠淸道大興縣, 民家有牛生犢, 後脚大節之下, 又生二足.

경기 인천(仁川)·남양(南陽)·강화(江華)·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금천(衿川)과 충청도 면천(沔川)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7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뒷다리의 큰 마디 아래에 두 다리가 더 났다.

▶ 39권 15년 4월 14일 辛未

辛未/政院啓曰: 宣陵典祀官尹時豪急死. 祭物及熟手, 皆在傍犯染, 以其奠物, 用之甚爲未安. 以其意製文, 徐徐退行其祭可矣. 然明日乃大祭, 闕祭亦未安, 卽遣史官, 收議于禮官及大臣, 更備奠需而送, 行祭何如? 且陵參奉, 皆已犯染, 勢難參祭. 入番忠義衛二人, 給馬以送何如?” 傳曰: “不可以典祀官緣故闕祭. 卽召禮曹郎官, 問于本曹堂上.” 政院又啓曰: “典祀官, 不可以不致齋者差送. 香室入直官員, 給馬以送何如?” 上曰: “然.” 傳曰: “前者文昭殿入直忠義衛急死, 而不親祭, 至於猪掘恭陵塋上及宗廟牛羊之死, 意必示警, 而皆親祭. 此事雖與彼不同, 親祭何如? 改備奠需, 止行明日祭耶? 遣史官, 并問于大臣.” 其議云: “明日之祭, 改備奠物而行爲當. 但上陵之禮, 行之於平時, 則固當矣, 若以人之偶然而死, 非如犧牲示譴之類, 而特爲此別祭, 則恐歸怪誕也.” 禮曹判書議云: “典祀廳亦犯染, 不可備奠物, 姑別設典祀廳何如?” 傳曰: “怪誕事, 未之知也. 非但以人死, 故欲行之, 拜陵乃常時之禮, 今遭此變, 心所未安, 故問之耳. 人物果與犧牲有異, 大臣之議, 亦當也.”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선릉(宣陵)의 전사관(典祀官) 윤시호(尹時豪)가 급사(急死)하였는데 제물(祭物)과 숙수(熟手)가 다 곁에 있었으므로 범염(犯染)되었으니, 그 전물(奠物)을 쓰기가 매우 미안합니다. 곧 사관(史官)을 보내어 예관(禮官)과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게 하고 다시 전수(奠需)를 장만하여 보내어 제사지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능참봉(陵參奉)도 다 범염되었으므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니, 입번(入番)한 충의위(忠義衛) 2인에게 말을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사관의 연고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 곧 예조낭관(禮曹郎官)을 불러 본조의 당상(堂上)에게 묻게 하라.”

하매, 정원이 또 아뢰기를,

“전사관은 치재(致齋) 하지 않은 자를 차출하여 보낼 수 없으니, 향실(香室)에 입직한 관원에게 말을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전자에 문소전(文昭殿)에 입직한 충의위가 급사하였으나 친제(親祭)하지 않았는데, 돼지가 공릉(恭陵)의 영토(塋土)를 밟을 때와 종묘(宗廟)의 우양(牛羊)이 죽었을 때에는 반드시 경계를 보인 것이리라고 생각하여 다 친제하였다. 이번 일은 저번 일과 같지는 않으나 친제하는 것이 어떠한가? 전수를 다시 장만하고 내일의 제사는 멈출 것인지를,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아올러 묻게 하라.”

하매, 대신이 의논드리기를,

“내일의 제사는 전물을 다시 장만하고서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상릉(上陵)의 예(禮)는 평시에 행하는 것이라면 워낙 마땅하겠으나 사람이 우연히 죽은 것 때문이라면 희생으로 경계를 보인 것과 같은 유가 아닌데, 특별히 이 때문에 별제(別祭)한다면 괴탄(怪誕)한 것이 될 듯합니다.”

하고,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의논드리기를,

“전사청(典祀廳)도 범염되었으므로 전물을 장만할 수 없으니, 따로 전사청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괴탄하다는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능에 참배하는 것은 상시의 예이며 이제 이 변을 당하여 마음에 미안하므로 물은 것이다. 사람은 과연 희생과 다르니, 대신의 의논도 마땅하다.”

하였다.

▶ 40권 15년 7월 3일 己丑

江原道三陟府, 牛生兩雌犢.

강원도 삼척부(三陟府)에서 소가 두 암송아지를 낳았다.

▶ 41권 15년 11월 4일 戊午

參贊官崔世節曰: “臣亦聞, 顯之妻家在金山郡, 與報恩縣爲隣, 顯嘗載書冊於牛, 而騎其牛, 往來于金淨之家, 與淨交深, 故得被薦於賢良科, 顯其實行, 則掃如. 且鄭浣被斥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之時，其隣人曰：‘如使我擊浣頭，則當撲殺。’以是觀之，可知取怨之甚也。大抵，其時之人皆無父兄之訓，特以詭言、怪行爲善，故或有白晝騎牛，而行者矣。” 亨允曰：“在前，新進四館之士，徑爲翰林，遷於注書，歷仕五、六年，僅受六品之職。而近來之人，纔脫儒冠，遽(陞)〔陞〕宰相之班，是何理耶？” 上曰：“其時爲子弟者，以謀議父兄爲賢，故爲父兄者，雖欲禁之，而不可得矣。”

참찬관(參贊官) 최세절(崔世節)은 아뢰기를, “신도 듣건대, 김옹(金頤)의 처가(妻家)가 금산군(金山郡)에 있는데 보은현(報恩縣)과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옹이 일찍이 소에다 서책(書冊)을 싣고 자신도 소를 탄 채 김정의 집을 왕래하면서 김정과 깊은 교분을 맺었기 때문에 현량과에 천거된 것이요, 그의 실행을 살펴보면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합니다. 정완이 잔죽당했을 때 그 이웃사람들이 ‘나에게 정완의 머리를 치게 한다면 박살내겠다.’ 했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깊이 원망을 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저 그때의 사람들은 부형(父兄)의 훈계를 무시하고 단지 꾀변(詭辯)과 괴행(怪行)만을 훌륭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백주(白晝)에 소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하고, 형운은 아뢰기를, “전에는 새로 급제(及第)하여 사관(四館)에 분관(分館)된 사람들은 우선 한림(翰林)을 거쳐 주서(注書)로 옮겨가 5~6년을 역사(歷仕)해야 겨우 6품 직(職)을 제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유관(儒冠)을 벗자마자 갑자기 재상의 반열에 오르니 이것이 무슨 사리(事理)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때의 자제들은 부형에 대해서 모의(謀議)하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부형들이 아무리 금지하려 해도 되지 않았다.”하였다.

▶ 41권 16년 1월 1일 甲寅

忠淸道林川, 有牛一產四犢.

충청도 임천(林川)에서 소가 네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 41권 16년 3월 10일 壬戌

濟州牧使李耘馳啓曰：“本州死亡民戶公債之督，及於族隣，竝皆離散，半爲丘墟，請蠲減貢物。頗多土產，則已，如首鬣，無處無之，請移定他道。牧場馬斃，以皮質穀，備冬月別養之用，近來革罷，雪深無養，多致故失，請依前例。年年買民馬，放養官場，故數至萬匹，今耗其半，民馬亦價倍，不喜官買，請以奴婢貢布，加給買買。 甲戌年大風爲災，果木多枯，其未納青橘等及牛毛、奴婢身貢，請并蠲減，奴婢移居陸地者，請皆刷還，其未還者，令所在收貢。祭用黑牛，擇取民間，久養于官，或不中用，虛費廩料。 且柑橘移種沿海各邑，終不結實，請竝停罷。全鰻等物，以貢布代納，而全鰻既減，貢布請限年減半。旌義

牧子、漁戶公賤，多逃散，請刷還，限安業復戶。其邑夏秋陰霾，難用角弓，以貢物馬筋，着諸木弓，以備不虞。大靜，人物流亡殆盡，請割本州今勿、岳里，屬之。且元居私賤，以公賤換爲牧子。校生識字者三、四人，請權革訓導，擇學長教之。竝革軍官，而擇縣人有武才者，帶率何如？”啓下戶曹，回啓曰：“流亡、物故人公債蠲減事，請令開錄其人戶及所受穀數以啓後，更議施行。牛馬皮所貿穀，則已令補軍資，不可輕改，請勿舉行。且其未納青橘等及牛毛，則請依啓蠲減。且沿海居奴婢身貢半減事，請依所啓，限二年半減。”

제주목사 이운이 치계하기를,

“본주(本州)는 민호(民戶)가 사망하면 공채(公債)의 독촉이 친족과 절린(切隣)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들 떠나 흩어져 반은 폐허가 된 실정이니, 공물(貢物)을 견감시켜 주소서. 이곳에서 많이 나는 토산물이라면 모르겠지만, 수채(首鬣) 같은 것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도로 옮겨 분정(公定)하소서. 목장(牧場)의 말이 죽으면 그 가죽으로 곡물을 사서 겨울에 말을 기를 용도에 대비해 왔는데, 근래 이를 혁파하였습니다. 때문에 눈이 쌓이면 기를 수가 없어 죽는 말이 많았습니다. 전례(前例)에 따르게 해 주소서. 과거에는 해마다 민마(民馬)를 사서 관(官)의 목장에 놓아길렀으므로 숫자가 1만 필(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 반수가 없어졌고 민마도 값이 배로 뛰었음은 물론, 관에 팔기조차 즐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비(奴婢)의 공포(貢布)를 더 지급하여 사들이게 하여 주소서. 갑술년에 큰 풍채(風災)가 있어 과목(果木)이 많이 말라 죽었습니다. 아직 바치지 못한 청귤(靑橘) 등과 우모(牛毛)·노비 신공(奴婢身貢)도 아울러 견감하여 주소서. 육지로 옮겨 가 사는 노비는 모두 쇠환(刷還)하게 하고, 쇠환하지 못하는 노비는 있는 곳에서 신공(身貢)을 거두게 하소서. 제사에 쓸 검은 소는 민간에서 가려 뽑아 오래도록 관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기에 알맞지 않은 것도 있어 뇨료(廩料)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감귤(柑橘)은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옮겨 심어 보았으나 끝내 열매가 맺지 않았으니, 아울러 정파하소서.

전복(全鰓) 등의 물품은 공포(貢布)로 대납(代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을 이미 견감하였으니, 공포도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반으로 견감시켜 주소서. 정의(旌義)의 목자(牧子)·어호(漁戶)로 배정된 공천(公賤)·사천(私賤) 가운데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 이들을 쇠환하여 생업이 안정될 때까지 복호(復戶) 시켜 주소서. 이 고을은 여름과 가을로는 늘 음산하고 흠비가 내리므로 각궁(角弓)을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물(貢物)인 마근(馬筋)을 목궁(木弓)에 접촉시켜 뜻밖의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정(大靜)은 인물이 거의 다 유망(流亡)되었으니, 본주의 금물(金物)·악리(岳里)를 떼어서 예속시키게 하소서. 또 원래부터 살던 사천에 대해서는 공천으로 바꾸어 목자(牧子)를 삼게 하소서. 교생(敎生) 가운데 글자를 아는 사람이 3~4인에 불과하니, 임시로 훈도(訓導)를 혁파하고 학장(學長)을 선택하여 가르치게 하소서. 아울러 군관(軍官)도 혁파하고 무재(武才)가 있는 고을 사람을 가려 통솔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 호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유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공채를 견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호(人戶)와 받아갔던 곡식의 숫자를 기록하여 올리게 하소서. 그런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와 말 가죽으로 곡물을 사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소와 말 가죽값으로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하였으니 경솔히 고칠 수 없습니다. 거행하지 마소서. 또 아직 바치지 않은 청귤 등과 우모(牛毛)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는 아된 대로 견감시키소서. 또 연해에 사는 노비의 신공을 반으로 견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된 대로 2년을 한정하여 반으로 견감시키소서.” 하였다.

▶ 44권 17년 2월 30일 丁未

丁未/御朝講, 講《續通鑑綱目》《元成宗紀》, 至禁諸王、駙馬奪民之田, 檢討官沈思遜曰: “頃者, 孝惠公主以放牛場折受事上言. 此乃有關於馬政, 非如閑曠之地, 豈可許人耕墾?” 上曰: “凡上言, 必下該司, 則其許與否, 在該司. 非若奪民田之例, 今又提調防之, 故已令不許矣, 然此言則是.” 領事權鈞曰: “元時法制不備, 故有如此之事, 然馬政, 固不可緩也. 今甚者亦有請受堤堰者, 一開其端, 則後之有力者, 皆將折受而民無灌溉之利. 如牧場及堤堰等地, 不可以閑曠, 而妄授人也.”

조강에 나아갔다. 《속통감강목(續通鑑綱目)》 원 성종기(元成宗紀)를 진강(進講)하였는데 ‘제왕(諸王)의 부마(駙馬)들이 백성의 밭을 탈취했다.’는 때문에 이르러 검토관 심사손(沈思遜)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효혜 공주(孝惠公主)가 방우장(放牛場)을 떼어받을 일로 상언(上言)했었는데, 이는 곧 마정(馬政)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버려두는 땅과 같은 것이 아니니 어찌 사람들에게 경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든 상언은 반드시 해사(該司)에 내리는데 허락 여부는 해사에 달렸으니, 백성의 밭을 빼앗는 예외는 같지 않은 데다가 이번에는 또 제조(提調)가 막기 때문에 이미 허락하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옳은 말이다.”

하매, 영사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원(元)나라 때는 법제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정(馬政)은 진실로 홀만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심한 자는 제방(堤防) 떼어받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한번 그런 발단을 열어놓으면, 뒤에는 세력 있는 자들이 장차 모두 떼어받기 되어 백성이 관개(灌溉)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니, 목장과 제방 같은 땅들을 비워두었다 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45권 17년 6월 1일 丙子

刑曹判書李沆、參判曹繼商啓曰: “憲府書吏李壽光以禁濫, 捉城中橫行僧人, 其僧走入盲人金玉同家, 壽光等卽告憲府, 府發差使五人, 竝力捕僧. 時有仇知者適來被捉, 相鬪致傷而死. 臨死時, 語其母曰: ‘吾爲年少書吏所傷也.’ 據此推之, 年少書吏乃壽光也.”

以此壽光受訊刑三十次，發明，此不可的指爲壽光所傷，而且因公事致此，敢稟。**捕盜將所捉業同家，生牛皮六十二領及生牛肉推之，則辭連者甚衆**，事干八人已受刑致死。今若窮推，則人多死傷，敢稟，作叱金則有順非者插花行路，而作叱金奪其花，順非以劫奪所持之物，告于捕盜將。搜之則但得圓木牌，無贓物，而受刑六次，發明，此亦未知爲賊情狀敢稟。”傳曰：“今觀仇知、李壽光等推案，則仇知言于玉同家及其母且同生，皆云：‘年少書吏所傷。’同去羅將金舜亨亦云：‘壽光所打。’干於殺人者，不可以次數之多，而論以疑獄。憲府別遣五差，彼必乘氣傷打，實爲可罪。如外方則報監司，必待監司回送，然後加刑，故次數之多，固也。刑曹則不如外方，而次數甚多，其於聞見，亦爲不美。然刑曹乃詰奸慝、刑暴亂之地，當更推也。業同事，若干於殺人，則當議于政府。此則雖推之，元非死罪也。作叱金則以劫奪行路之罪命推，而次數甚多，不須更推，而論決可也。業同若窮推，則人必多死，其已服與未服者，俱勿窮推。”

형조판서 이항(李沆)·참판 조계상(曹繼商)이 아뢰기를,

“헌부(憲府)의 서리(書吏) 이수광(李壽光)이 외람한 짓을 금단하는 일로, 도성 안을 횡행(橫行)하는 중을 잡으려 하자, 중이 맹인(盲人) 김옥동(金玉同)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으므로 수광 등이 즉시 헌부에 보고하니, 헌부가 차사(差使) 5인을 내보내 힘을 합쳐 중을 잡았습시다. 이때 구지(仇知)라는 사람이 마침 왔다가 잡히게 되자 서로 싸우다 상처를 입어 죽었는데, 죽을 적에 그의 어미에게 한 말이 ‘내가 나이 젊은 서리에게 상처를 입었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본다면, 나이 젊은 서리라 한 것은 곧 수광입니다. 이 때문에 수광이 형장 심문을 30차례나 받았으나 발명(發明)을 하였으니, 이는 수광이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할 수가 없는 일인데다가, 또한 공무(公務)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포도장(捕盜將)이 잡은 업동(業同)의 집에 있는 생우피(生牛皮) 62장 및 생우육(生牛肉) 일을 추문(推問)해 보니 연루된 사람이 매우 많은데, 사건(事干) 여덟 사람은 이미 형벌을 받다 치사(致死)했습니다. 지금 만약 끝까지 추궁하기로 한다면 죽거나 상처 입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작질금(作叱金)은, 순비(順非)란 사람이 꽃을 꺾고 길을 가자 그 꽃을 빼앗으므로 순비는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겁탈(劫奪)할까봐 포도장에게 고발했었습니다. 수색해 보니 단지 원목패(圓木牌)만 발견했고 장물(贓物)은 없었는데, 여섯 차례 형벌을 받았으나 발명을 합니다. 이도 역시 도둑질을 한 정상(情狀)을 알지 못하겠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구지·이수광 등의 추안(推案)을 보건대, 구지가 옥동의 집에서 한 말 및 그 어머니 동생의 말이 모두 ‘나이 젊은 서리에게 상처를 입었다.’ 했고, 같이 갔던 나장(羅將) 김순형(金舜亨)도 역시 ‘수광이 구타한 것이다.’ 했으니, 살인에 관계되는 일을, 형장 심문한 횃수가 많은 것을 들어 의옥(疑獄)이라고 논해서는 안 된다. 헌부가 따로 다섯 차사(差使)를 보내게 되자 그가 반드시 기세를 타서 상하도록 친 것이니 진실로 죄를 주어야 한다. 외방(外方)이라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반드시 감사의 회송(回送)을 기다린 다음에야 형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으레 횃수가 많겠지만, 형조는 외방과 같은 것이 아닌데도 횃수가 매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많았으니, 듣거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형조는 곧 간특(奸慝)한 일을 따지고 난폭한 자를 형벌하는 자리이니, 마땅히 다시 추문해야 한다.

업동의 일은, 만일 살인에 관한 것이라면 마땅히 정부와 의논해야 하지만, 이는 비록 추문한다 하더라도 원래 사형할 죄는 아니다. 작질금의 일은, 길 가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겁탈한 죄로 추문하도록 했었는데, 횃수가 매우 많았으니 다시 추문할 것 없이 논죄(論罪)하여 결단함이 가하다. 업동의 일은, 만일 끝까지 추문한다면 반드시 죽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이미 자복한 사람이나 자복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끝까지 추문하지 말라.” 하였다.

▶ 45권 17년 8월 17일 庚寅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義州牧使金良弼以唐人竊牛於我境, 乃遣驍勇軍於上國之境, 擒唐人二名而來, 依我國人例, 取招啓聞. 上國之人擅捉而來, 上國聞之則必生大事, 令下去敬差官推之. 且全羅道監司徐祉, 前則以通政爲監司者多也, 近者, 全羅道有倭變, 豈可以通政, 指揮嘉善之兵使乎? 須以秩高可當人差遣, 可以節制鎮壓矣. 良弼捉致唐人事, 刑曹不請使敬差官推之, 亦非矣, 請推之.”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의주목사 김양필(金良弼)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경에서 소 도둑질을 했다 하여 날랜 군사를 상국(上國) 지경에 보내 중국사람 두 명을 사로잡아와 아국인(我國人)의 예대로 취초(取招)하여 계문(啓聞)하였습니다. 상국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온 소식을 상국이 듣는다면 반드시 큰 일이 생길 것이니, 경차관(敬差官)을 내려 보내 추고하게 하소서. 또 전라감사 서지(徐祉)의 경우는, 전에는 통정(通政)으로 감사가 된 사람이 많았으나 근자에는 전라도에 왜변이 있으니 어찌 통정이 가선(嘉善)인 병사(兵使)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품계가 높으니 그에 적당한 사람을 차견(差遣)해야 절제하고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양필이 중국 사람을 잡아 온 일에 대하여 형조가 경차관을 시켜 추고하자고 청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니 추고하기를 청합니다.”

▶ 47권 18년 2월 9일 庚辰

惟淸議: “《大典》禁制條, 潛賣禁物, 牛馬爲重, 而罪亦重. 以馬易馬, 一時權宜之教, 其後《大典續錄》撰定時, 不錄此法. 金叔中須當窮推, 得情抵罪. 然逮繫經年, 多受刑訊, 而不服, 姑依禁府啓, 施行. 今後犯禁者, 雖以馬易馬, 一依《大典》施行.” 上, 落點于右相議, 仍傳曰: “其於金叔中推案, 勿推事判付. 自今以後, 雖以馬易馬, 依《大典》一切禁斷事, 捧承傳.”

이유청(李惟淸)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의 금제조(禁制條)에 ‘몰래 물건 매매하는 것을 금하는데 소나 말은 중한 물건이므로 죄 역시 무겁다.’ 하였는데, 말과 말을 바꾸는 것은 한때의 편의(便宜)를 따라 권도(權道)로 내린 하교였습니다. 그뒤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찬정(撰定)할 때에는 이 법을 수록하지 않았으니, 김숙중(金叔中)은 모름지기 끝까지 추문하여 죄상을 캐내어 죄를 줄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체포된 자가 해를 넘겼고 형신(刑訊)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복(不服)하니, 우선 의금부가 아뢰는 대로 시행하소서. 이후로 금제를 범하는 자는 비록 말과 말을 바꾼 경우라도 한 결 같이 《대전》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우상(右相)의 의논에 낙점(落點)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김숙중 추안은 추궁하지 말 것으로 판부(判付)하고, 지금부터는 비록 말과 말을 바꾸는 경우라도 《대전》에 따라 일체 금단(禁斷)할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라”하였다.

▶ 49권 18년 8월 15일 壬子

壬子/左議政李惟淸來辭曰: “頃者臣適在家, 有當刑之人, 過臣家前, 極口庸言叱辱, 竝及臣亡父母, 其受辱口不可形言. 此乃巨濟永屬爲奴, 三度逃來犯牛盜李貴同者也. 臣爲刑曹判書時承服者, 必以此嫌怨. 卽欲上達, 而以臣之受辱, 不敢也. 昨見奇別, 刑曹以典獄官員不能禁抑, 請罪. 以臣受辱之故, 乃至於此, 至爲惶恐. 臣被辱已極, 廟堂重地, 不可安然在職, 請辭.” 傳曰: “昨見刑曹公事, 未知首末也. 此人將至死地者, 有何所忌憚乎? 不可以此辭職, 勿辭.” 再辭, 不允.

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이 와서 사직하며 아뢰기를,

“접때 신이 마침 집에 있을 때에 처형될 사람이 신의 집 앞을 지나며 상말을 다하여 욕하되 신의 죽은 아버·어미에게까지 미쳤는데, 그 모욕받은 것은 입으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제(巨濟)에 중[奴]으로 영속(永屬)되었는데 세 번 도망하여 와서 소도둑을 범한 이귀동(李貴同)이란 자입니다. 신이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있을 때에 승복(承服)한 자이기 때문에 원망하였을 것인데, 곧 아뢰려 하였으나 신이 모욕 받은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기별(奇別)을 보니 형조에서 전옥서(典獄署)의 관원이 금지하지 못했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이 모욕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신이 심하게 모욕당하였는데 묘당(廟堂)은 중한 곳이므로 태연히 재직(在職)할 수 없으니 사직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형조의 공사(公事)를 보았으나 수말(首末)을 몰랐었다. 이 사람은 죽을 곳에 가는 자이니 무엇을 꺼려했는가? 이 때문에 사직(辭職)할 수 없는 일이니 사직하지 말라.”하매, 다시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51권 19년 8월 9일 辛丑

護軍徐厚承命而來, 見《聖製攻守圖術》而啓曰: “此冊所載, 於兵家制度所無之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而唐、宋之前，所未有也。序中有中統年號，必元世祖時所作也。如掛塔水桶，畢齊安守蜀，而與元戰，以水統制勝，此其器。【掛塔水桶，戰器也。於《聖製攻守圖術》圖其形，此下所書戰器，皆圖其形。】木梯：所以捍矢石之器也。泥漿：敵人攻城時注之，而滅火者也。我國城子，皆以石築之，易破也，中原則以甃築之，故其堅如巖。破城時則必矢石交集，又以火爍之，若注清水，則不可易以滅火，以泥漿注之，然後可滅，故以此用之。城頭、木樓：此皆禦敵之器也。雲梯：上城之具也。雁翅芭：編竹爲之，裏以生牛皮，雖以木石攻之，不易破。蔽之於車上及車傍，此亦攻城時，所用之具也。不掛緒棚，立雁翅芭之機，所以捍矢石也。渾脫皮：古時以羊皮爲之。胡地，泉水不多，故以羊皮全體脫之，入胡地時爲水袋，則以其毛厚，故水不凍。此，攻城時所備也。短刀槍握地竇之時，以此掘之。賊若由外掘之，相遇於地中，亦以此器槍之，攻城器也。風頭斧：亦與短刀槍同也。鐵猫：《兵家》亦有之，但未詳其制耳。火叉：焚敵營時，以此盛火，而焚之之器也。舊聽：亦或謂之聽舊，常時，豪華之家，必以舊埋屋底，爲其響助樂也。凡邊城，若以舊埋之城外，則敵至，可以審其聲，而知其來處；埋之城內，而敵若掘之而入，則審其聲，而可知其所掘之方也。風扇車：我掘地竇時，賊若由外掘之，相遇於地中，則以此蔽之。韋孝寬與高欽戰，用火溝，與此相同，但其制小異矣。木檻：盛湯油及雜物，而與賊相遇，竇中賊在處稍低，則以此油注之。其器之制，如銀匠鎔銀之器。此油又以注盤注之，今中原亦鎔水鐵，賊來注之，則犯之者死，注城門則城門發火，此可用以守城矣。氈簾：其色如土。我掘地，賊由外掘地，相遇於竇中，則以此防之，賊疑其土也，我即舉此，以兵擊賊矣。砲石則於此，不書其制度，難可曉也。望樓：今江邊謂之望德，其體如斗。立高柱於車中，以鐵索貫柱端，繫索于斗，盛人於斗，引之至柱端，以覘敵之虛實，此，用之于軍中者也，如農人守禾之望德矣。但農人之望德，則用四柱而作之矣。輶輻車：所謂木驢，掘地竇時，使人入此，而掘之之器也。木曼：以牛皮裹而爲之。人由此如蟻附而上，以覘賊者也。火車：亦木驢，盛油及炭，火焚城門之器也。凡熱油，若遇水則皆爲火矣。雲梯：上敵城之具，起橋於車上，其輪六，常曳行，使人乘以覘敵，城中賊多則還下，敵少則以弔橋，橫置梯頭及城上，由之而入城中矣。鐻頭：如椎，亦乘之而見城中者也，但未詳其制也。濠橋：見敵城溝子廣狹，作橋，懸四輪如輶輻，引而橫置溝上，由之而渡者也。行炮：此書亦言‘此制乃內出，不知其制，以俟知者。’臣亦不可知也，大抵，此皆元時之制也。此中他器，今不可施行也，如舊聽，則可用也。且我國皆沙石之地，掘竇之事，不可行也。渾脫皮，爲將者臨時用之可也。火鎌、火鉤，可以毀狄人之家也。風扇車，雖不如此制，亦可別造而用之也。木檻、鎔銀，所以毀敵城門也。如我國則胡人，至城下毀城之時，以此攻彼人可也。大凡，邊方彼人來攻我城，以此器防之可也，而多儲人青【糞也。】及他穢物，彼人之來，以此下之亦可也。此冊所載之器，可以施行者寡矣。”傳曰：“所啓之事，皆不可行也。啓意知道。”

호군(護軍) 서후(徐厚)가 명을 받고 와서 《성제공수도술》을 보고 아뢰기를,

“이 책에 실려 있는 것은 병가(兵家)의 제도에 없는 일이고 당(唐)·송(宋) 이전에도 없던 것입니다. 서문(序文) 가운데에 중통(中統) 연호가 있으니, 원 세조(元世祖) 때에 지은 것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패탑 수통(掛塔水桶)은 필제안(畢齊安)이 촉(蜀)을 지키면서 원과 싸워 수통(水統)으로 이겼는데, 이것이 그 기계입니다. 【패탑 수통은 전기(戰器)이다. 《성제공수도설》에 그 형상이 그려 있고, 이하 적힌 전기도 다 형상이 그려 있다.】 목제(木梯)는 화살과 돌을 막기 위한 기계입니다. 이장(泥漿)은 적이 성을 칠 때에 부어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은 다 돌로 쌓아서 부수기 쉬우나, 중국은 벽돌로 쌓으므로 바위처럼 굳어서, 성을 부술 때에는 반드시 화살과 돌이 함께 모여 오고 또 불로 녹이는데, 맑은 물을 부으면 쉽게 불을 끌 수 없고 이장을 부어야 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씁니다. 성두 목루(城頭木樓)는 다 적을 막는 기계입니다. 운제(雲梯)는 성을 오르는 데에 쓰는 기구입니다. 안시파(雁翅芭)는 대를 엮어 만들고 생우피(生牛皮)로 뿔으므로 나무나 돌로 치더라도 쉽게 부수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수레 위와 수레 옆에 가리니, 이것은 또한 성을 칠 때에 쓰는 기구이며, 서봉(緒棚)을 걸지 않고 안시파의 틀을 세우는 것은 화살과 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혼탈피(渾脫皮)는 예전에 양피(羊皮)로 만드는데, 호지(胡地)에는 샘물이 많지 않으므로 양피 전체를 벗겨서 호지에 들어갈 때에 물주머니를 만들면, 그 털이 두꺼운 까닭으로 물이 얼지 않으니, 이것은 성을 칠 때에 갖추는 것입니다. 단도창(短刀槍)은 땅구멍을 팔 때에 이것으로 파고, 적이 밖으로부터 파들어오는 것을 땅 속에서 만나면 또한 이것으로 찌르니, 성을 칠 때에 쓰는 기계입니다. 풍두부(風頭斧)도 단도창과 같습니다. 철묘(鐵貓)는 병가(兵家)에도 있으나, 그 제도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화차(火叉)는 적의 군영(軍營)을 불사를 때에 이것으로 불을 돋우어 불사르는 기계입니다. 웅청(甕聽)은 청웅(聽甕)이라고도 하며, 여느 때에는 호화스런 집에 반드시 독[甕]을 집 밑에 묻어 그 울림이 음악을 돕게 하는 것인데, 무릇 변방의 성에서 성 밖에 독을 묻어 두면 적이 올 때에 그 소리를 살펴서 오는 곳을 알 수 있고, 성 안에 묻어 두어 적이 파고 들어오면 그 소리를 살펴서 파들어오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선차(風扇車)는 아군이 땅 구멍을 팔 때에 적이 밖으로부터 파들어 와서 땅 속에서 서로 만나면 이것으로 가리는 것이니, 위효관(韋孝寬)이 고흐(高欽)와 싸울 때 화구(火鑪)를 쓴 것과 같으나, 그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목함(木檻)은 끓는 기름과 잡물(雜物)을 담아서 적과 땅 구멍 속에서 만났을 때 적이 있는 곳이 조금 낮으면 이 기름을 붓는 것인데, 그 기구의 제도는 은장(銀匠)이 은을 녹이는 기구와 같습니다. 이 기름은 또 주반(注盤)으로 붓는데, 지금도 중국에서 무쇠를 녹여 적이 올 때에 부으면 침범하는 자가 죽고, 성문에 부으면 성문에 불이 나니, 이것을 써서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렴(氈簾)은 그 색이 흙과 같으며, 아군이 땅을 파다가 적이 밖으로부터 땅을 파들어와 땅 구멍 속에서 서로 만나면 이것으로 막습니다. 적은 이것을 흙이라고 여길 때에 아군은 이것을 병기로 하여 적을 칩니다. 포석(砲石)은 여기에 그 제도를 적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망루(望樓)는 지금 강변(江邊)에서 망덕(望德)이라 하며, 그 모양은 말[斗]과 같습니다. 수레 가운데 높은 기둥을 세우고 기둥 끝에 쇠사슬을 꿰어 말에 사슬을 매고 말에 사람을 달고서 기둥 끝까지 끌어올려서 적의 허실(虛實)을 엿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군중(軍中)에서 쓰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벼를 지키는 망덕과 같으나, 농사꾼의 망덕은 네 기둥을 써서 만듭니다. 분운차(轆轤車)는 목려(木驪)라고 하는 것인데, 땅구멍을 팔 때에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파게 하는 기계입니다. 목만(木曼)은 쇠가죽으로 싸서 만드는데, 사람이 여기에 개미처럼 붙어 올라가서 적을 엿보는 것입니다. 화차(火車)도 목려에 기름과 숯을 담아 성문을 불사르는 기계입니다. 모든 더운 기름은 물을 만나면 다 불이 됩니다. 운제(雲梯)는 적의 성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오르는 데에 쓰는 기구인데, 수레 위에 다리[橋]를 세웠고 그 수레바퀴는 여섯입니다. 늘 끌고 다니며 사람을 태워 적을 엿보게 하는데, 성안에 적이 많으면 도로 내려오고, 적이 적으면 조교(吊橋)를 사다리[梯] 끝과 성 위에 가로 놓고 그것을 거쳐 성 안에 들어갑니다. 섭두(鑷頭)는 쪽다리[樞]와 같은데, 이것도 타고서 성 안을 보는 것이나, 그 제도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호교(濠橋)는 적의 성의 해자의 너비를 보아 다리를 만들고 고괘[轆轤] 같은데 수레바퀴를 달아 끌어서 해자 위에 가로놓고 이것을 거쳐 건너는 것입니다. 행포(行炮)는 이 책에도 ‘이 제도는 안에서 나온 것인데 그 제도를 몰라서 아는 자를 기다린다.’ 하였고 신도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이것은 다 원나라 때의 제도인데, 이 가운데에서 다른 기계는 지금 시행할 수 없는 것이나, 웅청 같은 것은 쓸만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 모래와 돌이 섞인 땅이므로, 땅구멍을 파는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혼탈피는 장수가 된 자가 임시하여 써도 되겠습니다. 화겸(火鎌)·화구(火鉤)는 오랑캐의 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 풍선차는 이 제도와 같게 하지 않더라도 따로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목함·용은(鎔銀)은 적의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호인(胡人)이 성 밑에 와서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것으로 저들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저 변방에서는 저들이 와서 우리 성을 치므로 이 기계로 막는 것이 좋겠으며, 인청(人靑)【똥이다.】과 다른 더러운 물건을 많이 저축하였다가 저들이 올 때에 이것을 내려 보내도 되겠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기계 중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된 일은 다 시행할 수 없으나, 아된 뜻은 알았다.”하였다.

▶ 52권 19년 10월 21일 壬子

壬子/下刑曹公事于政院曰: “此云: ‘無告屠剪者, 勿論公、私賤, 徒役定罪, 食肉者, 亦以《制書有違律》論之.’ 今雖不更立新法, 《大明律》與《大典》之法, 非不詳盡, 但有司不能奉行耳. 政府亦見此弊, 故請爲此法也, 然公、私賤, 則徒流等罪, 竝贖者, 律也, 今若勿論公、私賤, 而竝定徒役, 則是毀律也. 食肉人則告官與私屠, 亦未可辨也. 前立之法, 不爲不足, 若立新法, 而又不能奉行, 則是法立而弊又生也. 政府, 但當檢有司之不能奉行者耳, 新法不宜率意便立也, 其以此意, 言于政府.”

형조(刑曹)의 공사(公事)를 정원(政院)에 내렸다.

“여기에 고하지 않고 도살하는 자는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물론하고 도역(徒役)으로 정죄(定罪)하고 고기를 먹는 자도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한다.’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새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대명률(大明律)》과 《대전(大典)》의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다만 유사(有司)가 봉행하지 못할 뿐이다. 정부도 이 폐단을 보았으므로 이 법을 만들기를 청하였으나 공천·사천은 도죄(徒罪)·유죄(流罪) 등을 모두 속(贖)하는 법인데, 이제 공천·사천을 물론하고 모두 도역으로 정한다면 이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고기를 먹는 사람은 관에 고한 것과 몰래 도살한 것을 또한 가릴 수 없다. 전에 세운 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데, 새 법을 세우고 또 봉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법이 서고 폐단이 또 생기는 것

이니, 정부가 유사에게 봉행하지 못하는 것을 단속해야 할 따름이요, 새 법은 생각 나는 대로 문득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을 정부에 말하라.”

▶ 52권 20년 1월 14일 癸酉

大臣等又啓曰：“咸鏡道鍾城居人魯億年，與彼人馬匹買賣事罪重，故彼人亦以死罪照律矣。然我國人，則被重罪可也，彼人不可一樣論斷。前者，鄭孝民亦與彼人買賣牛隻、鐵物，竝以死罪照律。其時，自上特恩減死，開諭放送。今亦依此例何如？且韓哲根故殺人母子，情理痛甚，而但其事干尹石同，受刑四十一次，而發明，況哲根未死之時，或云尹石同；或云金摩尼等共殺云，則事涉曖昧。此實疑獄，何以爲之？敢稟。”傳曰：“魯億年等事，依啓。尹石同等殺人母子，情理痛憤。大抵，罪重者例欲死杖下。償命之事至重，雖多受刑訊，不可不加刑。”

대신들이 또 아뢰기를, “함경도 중성(鍾城)에 사는 노억년(魯億年)이 저들과 말을 매매한 일은 죄가 무거우므로 저들도 사죄(死罪)로 조율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은 중죄를 입어도 되나 저들은 한가지로 논하여 결단할 수 없습니다. 전에 정효민(鄭孝民)도 저들과 소·철물을 매매하였으므로 모두 사죄로 조율하였는데, 상께서 특별한 은전으로 사형을 감면하여 타일러 놓아보내셨으니, 이제도 이 예를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한철근(韓哲根)은 남의 모자(母子)를 고의로 죽였으므로 정리(情理)로 보아 매우 분통하나, 그 사건(事干) 윤석동(尹石同)은 형신(刑訊)을 41차 받아도 변명하고, 더구나 한철근이 죽기 전에 윤석동이나 김마니(金摩尼) 등이 함께 죽었다고 한 것은 일이 애매하니, 이것은 실로 의옥(疑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감히 여쭙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노억년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윤석동 등은 남의 모자를 죽였으니, 정리로 보아 매우 분하다. 대저 죄가 무거운 자는 으레 형장을 맞다가 죽으려 하거니와, 목숨을 갚는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형신을 많이 받았더라도 더 형신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 53권 20년 3월 19일 戊寅

內禁衛徐苞供曰：“上言事，臣乃湯聘妹夫也。以奴婢相爭事，索上言紙於臣，臣以紙一張許之。臣素短文字，亦不楷書，上言書給萬無此事。臣之不能上言起草及不能書寫事，同番內禁衛亦皆知之。若許下問，則可知其狀。柳世昌家歸到謀爲之事，則世昌本掠人財物；或竊人牛馬，爲隣里所賤惡者也。臣則出身，內禁衛，兼習讀，職至三品，萬無與世昌謀爲之事。”刑訊一次，不服。

내금위(內禁衛) 서포(徐苞)가 공술하기를,

“상언(上言)에 관한 일은, 신은 곧 윤탕빙의 매부(妹夫)인데 노비(奴婢) 때문에 서로 다투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는 일로 신에게 상언할 종이를 청하기에 신이 종이 한 장을 주기는 하였지만 신은 본디 글이 모자라고 또한 해서(楷書)를 쓰지 못하니, 상언을 써주었다는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신이 상언을 짓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것은 함께 번(番) 든 내금위들도 모두 아는 일이니, 만일 하문(下問)하신다면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세창의 집에 가서 모의했다는 일은, 유세창은 본디 남의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고 더러는 남의 소나 말을 도둑질하기도 하여 이웃 마을에서도 비천하게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신은 출신(出身)하여 내금위(內禁衛)에다 습독(習讀)을 겸임하여 직품이 3품(品)에 이르렀으므로, 유세창과 함께 모의할 리 만무합니다.”하고, 한 차례 형장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 54권 20년 5월 17일 乙亥

司饗院提調益陽君懷等以咸鏡道觀察使啓本議啓曰：“吉州、明川、鏡城至爲殘弊，而鏡城尤甚。故其所賦快脯，分定于三水、甲山，而猶不能支，宜以本邑所產大口一尾，准快脯一斤，或文魚一尾，准快脯二斤，吉州、明川則限一二年；鏡城限蘇復，代封。”從之。

사옹원제조(司饗院提調)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 등이 함경도관찰사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의계(議啓)하기를,

“길주(吉州)·명천(明川)·경성(鏡城)은 지극히 잔악하고 피폐한데, 경성은 더욱 심하기 때문에 그곳에 부과(賦課)하는 쾌포(快脯)를 삼수(三水)·갑산(甲山)에다 나누어 배정했는데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니,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산출되는 대구(大口) 한 마리를 쾌포 한 근(斤)으로 치고, 혹은 문어(文魚) 한 마리를 쾌포 두 근으로 치되, 길주·명천은 1~2년을 한도로 하고 경성은 회복될 때까지 대신하여 봉진(封進)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54권 20년 6월 7일 乙未

乙未/聽朝啓. 承旨金克愷啓：“鍾城囚百姓鄭孝禮、雲鶴等潛賣牛隻、鐵物于彼人罪，絞待時，三覆。”【雲鶴，孝禮子也。】上曰：“此當如何？”領事張順孫曰：“雲鶴不至刑間，遽卽服招，必不知律文而然也。父子同死，於情理何如？”吏曹參判許砬曰：“北道已成此弊。彼人等或因養獄，出入官門，經年久囚未便。此人若不服，則彼人亦必至三四年被囚，其弊不細。”判尹韓亨允曰：“彼人樂買我國物。如我國人持銀赴京，雖久囚未便。然其性，不同於倭人輕躁，當囚而懲之也。”刑曹參判李思鈞曰：“亨允之言是也。取決案後，自上特減，則有所懲也。”上曰：“依律。”

조계(朝啓)를 들었다. 승지 김극개(金克愷)가 아뢰기를, “중성(鍾城) 죄수인 백성 정효례(鄭孝禮)·정운학(鄭雲鶴) 등이 남몰래 소와 철물(鐵物)을 피인(彼人)들에게 판 죄는 교대시

(絞待時)인데, 삼복(三覆)합니다.”【운학은 효례의 아들이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를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하매, 영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운학은 형장 심문하기도 전에 바로 자복했으니, 필시 율문(律文)을 알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부자가 함께 사형 받는다면 정리(情理)에 어떻겠습니까?”하고, 이조참판 허평은 아뢰기를, “북도(北道)에 이미 이런 폐단이 생겨, 피인들이 더러 옥바라지하느라 관문(官門)에 드나들게 되는데, 해가 지나도록 오래 가두는 것은 편리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복하지 않았다면, 피인들도 반드시 3~4년이 되도록 갇히게 되어 폐단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하고, 관운 한형운(韓亨允)은 아뢰기를, “피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은(銀)을 가지고 북경(北京)에 간 것과 같은 것이라면, 비록 오래 가두기가 미편(未便)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질은 경박하고 조급한 왜인(倭人)들과 같지 않으니, 마땅히 오래 가두어 징계해야 합니다.”하고, 형조참판 이사균(李思鈞)은 아뢰기를, “한형운의 말이 옳습니다. 결안(決案)한 다음 상께서 특별히 감해주시면, 징계하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율(律)대로 하라.”하였다.

▶ 55권 20년 8월 19일 丙午

丙午/領議政南袞等來復命, 仍啓曰: “昨日日本使臣等觀火、觀武才, 臣(時)等令先試武才, 當射貫革, 日本使臣及大內殿使臣則坐觀之, 其餘下人, 皆就射處觀之. 兵曹初抄步射四十人、騎射四十人, 而臣等令他武人雜立, 若盡是善射者, 然乃拔其四十人之類, 而使射之. 四十人者射幾畢, 臣等謂使臣曰: ‘日且暮矣, 其無欲見他才乎?’ 曰: ‘然.’ 臣等即令試騎射, 前則騎射或數巡, 今則只一巡. 當騎射時, 日本使曰: ‘平生未見如此事也. 人人皆善射, 發無不中, 未五中者鮮矣.’ 及放火, 則皆有恐懼之狀, 放火纔半, 請止. 臣等語曰: ‘尙多未放矣. 盡觀後, 可入城矣.’ 使者請還舍館者, 再三不已. 初抄騎射者四十人, 恐其間, 或有事故者, 故又抄預差十人, 昨日四十人騎射後, 日且未暮, 令預差十人, 畢騎射, 騎射則五十人矣. 其中申濱、鄭之河, 尤善於騎射, 故令再次射之, 使者等甚樂之矣. 且於宣醞後, 臣等及使者, 皆平坐相飲, 飲後, 彼以求請書, 示臣袞曰: ‘國王之請, 在前日, 未嘗不從. 況今率還漂流人物, 以通隣國之好, 而反謂出新法, 凡事皆不如請. 吾等初來時, 豈知此法而來, 其於後行, 雖用此法, 而不許貿易, 今則請曲從之. 我等入本國時, 當以此新法之意, 成文持去, 則本國可知立法之意.’ 云. 且其書曰: ‘二十五人之罪, 止予一人.’ 云, 蓋曰, 不得請, 則二十五人皆被罪, 而其罪, 實在於我也. 其下一條: ‘請歲遣船五十隻, 依舊例盡給.’ 云, 臣答曰: ‘君輩奉國命而來, 亦豈偶然乎? 然我國則人人不得爲公事, 必有該掌之官. 貿易之事, 非我等所知. 且此事, 業已一定, 何可更改?’ 因以此書, 傳送禮曹判書. 使者復以通事, 語臣曰: ‘戶曹豈獨爲之? 請須上達. 我等欲陳此懷望, 今日不偶然.’ 云, 臣等不答此語曰: ‘今日欲爲使臣, 設宴致歡而已, 所語事, 自有該掌, 非我輩所知.’ 云. 然使者, 猶懇請不已. 當放大炮及將軍箭時, 客人就遮日見之, 欲跪曰: ‘當以此事, 言于本國, 使聲滿我國也.’ 且大內殿使臣愚室首座, 其持來牛黃、烏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梅子等物，令貿易三分之一，請盡貿云。”傳曰：“押宴事，知道。貫革六分以上者、騎射再次射者，其各賜弓以賞。”仍下倭人書契于禮曹，判書許磁書單子啓曰：“日本使持來胡椒九千九百八十斤、朱紅一千八百八十斤、沈香二千一百八十八斤、龍腦二十八斤等物，命公貿三分之一。紫檀香一百五十斤則以本國所產，故全不貿。水牛角一千本、大狼皮十枚，全貿之。合以所齎商物，都計之，從舊價貿易，則木縣一千七百五十同，【五十匹爲一同。】從新價貿易，則木縣一千一百八十五同。胡椒舊價輕，而新價重，朱紅等物，舊價重，而新價輕，故倭人等他物則請從舊價，胡椒則請從新價，戶曹已爲防啓矣，自下更爲啓達實難，請自上特許公貿。”南袞啓曰：“臣亦聞，戶曹公貿倭物三分之一，而餘皆私貿。倭使曰：‘若然則齎來商物，當全還于國。’若使全還，則於國體埋沒，請自上處之。”傳曰：“此與常倭異矣。可貿者，其許貿。”

영의정 남곤 등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일본 사신 등이 불놀이와 무예(武藝)를 관람할 때 신들이 먼저 무예를 시험하도록 했는데, 관혁(貫革)을 쏠 적에 일본 사신 및 대내전(大內殿)의 사신은 앉은 대로 관람하고 그 나머지 아랫사람들은 모두 활을 쏘는 곳으로 가서 관람했습니다. 당초에 병조가 보사(步射) 40명과 기사(騎射) 40명씩을 뽑았었는데, 신들이 다른 무인(武人)들과 섞어 세워서 모두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해놓고 앞서의 40명을 뽑아 쏘도록 했습니다. 그 40명의 활쏘기가 거의 끝나기에 신들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해가 또한 저물어 갑니다. 다른 무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들이 즉시 기사를 시험하도록 하되 전에는 기사를 더러 두어 번 돌도록 했었지만 이번은 한 번씩만 돌도록 했는데, 기사할 때에 일본 사신이 ‘평생에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잘 쏘아서 쏘면 맞히지 못하는 적이 없고 다섯 번 다 맞히지 못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였고, 불놀이 할 때가 되어서는 모두들 두려워하는 모양이 있었으며, 불놀이를 겨우 절반쯤 하자 그만 두기를 청하기에 신들이 ‘아직도 발사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모두 본 다음에 도성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사신들이 사관으로 돌아가기를 두번 세번 끊임없이 청했었습니다.

당초에 뽑은 기사할 사람 40명이 혹 그 중에 사고가 있게 될까 싶기 때문에 또 예비로 10명을 뽑았었는데, 어제 40명이 기사한 다음 해가 또한 저물지 않았기에 예비한 사람 10명도 모두 기사하도록 하여 기사한 사람이 50명이었고, 그 중에 신빈(申濱)·정지하(鄭之河)가 더욱 기사를 잘하기 때문에 재차 쏘도록 했었는데, 사신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또 선은(宣醺) 다음에 신들 및 사신이 모두 평좌(平坐)하고 함께 마셨는데, 끝난 다음 그들이 구청서(求請書)를 신(臣) 남곤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국왕(國王)의 요청을 전일에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은 표류(漂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웃 나라와의 호의(好誼)를 소통하려 하는데, 도리어 새 법을 내놓아 모든 일들이 모두 소청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당초에 올 때 어찌 이런 법을 알고 왔겠습니까? 다음에 사신이 올 때는 비록 이런 법을 사용하여 무역(貿易)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이번은 굽혀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본국(本國)으로 들어갈 때 마땅히 이 새 법의 뜻대로 문안(文案)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면, 본국에서도 법을 세운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또 그들의 서면(書面)에 ‘25인의 죄가 나 한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개 소청을 얻어내지 못하면 25

인이 모두 죄를 입게 되는데, 죄가 실지는 자기에겐 있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조목에 ‘세견선(歲遣船) 50척을 옛적의 예(例)처럼 모두 허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당신들이 국가의 명령을 받들고 온 것이 또한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공사(公事)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담당하는 관원이 있는데, 무역하는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바가 아니다. 또한 이일은 이미 한번 결정된 것인데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그 서면을 예조판서에게 보냈습니다. 사신이 다시 통사(通事)를 시켜 신에게 말하기를 ‘호조가 어찌 단독으로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위에 주달(奏達)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소망을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했는데, 신들이 이 말에 답변하지 않고 ‘오늘은 사신들을 위해 잔치하며 환대(歡待)해야 할 뿐이고 말하는 일은 본디 담당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알아서 할 바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신이 그래도 간청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대포(大砲)와 장군전(將軍箭)을 발사할 적에 객인(客人)들이 차일(遮日)로 다가와서 인사하고 꿇어앉으려 하며 ‘마땅히 이런 일은 본국에다 말하여 명성이 우리나라에 가득하게 하겠다.’ 했고, 또 대내전의 사신 우실 수좌(愚室首座)는 그가 가지고 온 우황(牛黃)·오매자(烏梅子) 등의 물건 중에서 3분의 1만 무역하도록 한 것을 모두 무역하기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압연(押宴)에서의 일은 알았다. 6분 이상을 관혁(貫革)한 사람과 기사(騎射) 중에 재차 쏜 사람에게는 각각 활을 상으로 내리라.”

하고, 이어 왜인(倭人)들의 서계(書契)를 예조에 내리니, 판서 허굉(許碁)이 단자(單子)를 써서 아뢰기를,

“일본 사신이 가지고 온 호초(胡椒) 9천 9백 80근, 주홍(朱紅) 1천 8백 80근, 침향(沈香) 2천 1백 88근, 용뇌(龍腦) 28근 등의 물건은 3분의 1만 공무역(公貿易)하도록 하고, 자단향(紫檀香) 1백 50근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므로 전부를 무역하지 말고 수우각(水牛角) 1천 개, 대랑피(大狼皮) 10장은 전부를 무역하도록 하소서. 가지고 온 상품을 모두 합쳐 헤아려 보건대 옛 값으로 무역하자면 목면(木綿)이 1천 7백 50동(同) 【50필이 한 동이다.】 이고, 새 값으로 무역하면 목면이 1천 1백 85동입니다. 호초는 옛 값이 헐하고 새 값이 비싸며, 주홍 등의 물품은 옛 값은 비싸고 새 값이 헐하기 때문에 왜인(倭人)들이 다른 것은 옛 값으로 하고 호초는 새 값으로 하기를 청했는데, 호조가 이미 방계(防啓)했으므로 아래서 다시 계달(啓達)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상께서 공무역을 특별히 윤허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신이 또한 듣건대, 호조가 왜인들의 물건을 3분의 1만 공무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역(私貿易)하기로 하자, 왜사(倭使)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가지고 온 상품을 모두 본국으로 도로 가져가야겠다.’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전부 가져가게 된다면 국가의 체면이 매몰되니, 위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들은 평소에 왜인들과 다르니 무역해야 할 것은 무역하도록 윤허한다.”

하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55권 20년 9월 3일 己未

戶曹啓曰：“今年京畿失農，司僕寺及內農牛馬，請分養于各官。” 傳曰：“依啓。”

호조가 아뢰기를,

“올해 경기는 실농했으니, 사복시(司僕寺) 및 내농(內農)의 소와 말을 각 고을에 분양(分養)하기 바랍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55권 20년 9월 6일 壬戌

戶曹、兵曹議：“兼司僕、吹螺赤所乘，請皆減省。內農、外苑牛馬，分養于外，則可除稿草二千五百三十同矣。” 傳曰：“其限年減之。”

호조와 병조가 의논드리기를, “겸사복(兼司僕)과 취라치(吹螺赤)가 타는 말은 모두 감하기 바랍니다. 내농(內農)과 외원(外苑)의 소와 말을 외방(外方)에 분양(分養)한다면 고초(稿草) 2천 5백 동(同)을 제감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연도를 한정하여 감하라.” 하였다.

▶ 55권 20년 11월 13일 戊辰

鍾城囚百姓魯億連、億根於彼人處，牛隻轉賣罪，照律絞待時， 上曰：“何以爲之?” 袁進曰：“當依律.” 上曰：“可.”

종성(鐘城) 죄수 백성 노억련(魯億連)·노억근(魯億根)이 피인(彼人)들에게 소[牛]를 전매(轉賣)한 죄를 교대시로 조율하여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55권 20년 11월 19일 甲戌

傳曰：“引用之物，若牛羊則乃祭享所用，不得已之事。他物則不可引用，而戶曹從該司所報，非但貽苦於百姓，物論亦未便，後勿引用事，并言于戶曹。” 又傳曰：“各道御史發遣事，予與大臣，皆不欲遣之，然今年凶甚，守令不無還上高重之弊，其遣御史。”

전교하기를, “앞당겨서 쓰는 물건 중에 소와 염소 같은 것은 곧 제향에 쓰는 것이므로 부

득이한 일이지만, 다른 물건은 앞당겨 써서는 안되는데, 호조가 해사(該司)들의 신보(申報)에 따라 그렇게 하므로 백성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공론 또한 편리하지 못하게 여기니, 다음에는 당겨서 쓰지 말도록 할 것을 모두 호조에 말해주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각도(各道)에 어사를 내보내는 일은, 나나 대신들이 모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흉년이 심한데 수령(守令)들이 환상(還上)을 고중(高重)하게 받을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사를 보내기로 하라.”하였다.

▶ 56권 20년 12월 14일 戊戌

御晝講. 上謂特進官沈順徑【時爲捕盜將.】曰: “前以捕盜軍少, 令兵曹加給, 其捕之勤乎?” 順徑曰: “聞圓覺寺基地, 作家甚多, 皆南北有戶, 出入莫測. 東大門內, 水尺聚接, 楊州近處, 水尺宰殺牛馬, 以買食者, 皆聚於此. 城內之盜, 恐如此輩所爲, 臣意, 欲令計兩處人家口數, 詳錄于簿, 時時推刷, 若有面生者, 窮詰來處, 則庶有補弭盜之方也.” 上曰: “當議于有司.”

주강에 나아갔다. 상이 특진관(特進官)이 심순경(沈順徑)【이때 포도장(捕盜將)이었다.】에게 이르기를, “전번에 포도군(捕盜軍)이 적기 때문에 병조로 하여금 더 주도록 했는데, 부지런히 잡고 있는가?”하매, 심순경이 아뢰기를, “원각사(圓覺寺) 부지에 지은 집들이 매우 많은데, 모두 남쪽과 북쪽에 문이 있어 드나드는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 안에 수척(水尺)들이 모여 지접하고 있는데, 양주(楊州) 근처에서 소와 말을 도살하여 먹을 것을 사들이는 수척들이 모두 여기에 모입니다. 도성 안의 도둑질은 이들의 소위인 듯싶으니, 신의 생각에는 두 곳의 인가와 인구 수효를 집계하여 장부에 자세히 기록해놓고 수시로 추쇄(推刷)하되 만일 얼굴이 생소한 자가 있을 때는 온 곳을 추궁하여 따진다면, 거의 도둑을 방지하는 방도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의논해야 한다.”하였다.

▶ 56권 21년 1월 9일 壬辰

御夕講. 特進官金克成曰: “臣前任平安道監司時觀之, 義州鴨綠江越邊唐人來居者甚衆. 冬月合冰則與義州居民, 交通買賣, 龍川、鐵山等地居民, 牛馬盜賣無忌, 義州城中牛馬, 亦至於一空. 若欲以聞見逮捕, 則頭頭驍勇, 防禦軍卒多與焉, 或自現, 杖下致死; 或事敗逃亡, 其弊不貲. 臣意, 不出十年, 義州疲弊不振矣. 國家以義州爲防禦重地, 守令皆以武臣差遣. 臣意以爲, 今後判官, 必擇武臣差之, 任防禦之事, 擇有武才者爲軍官, 而牧使以文臣有名望者擇差, 乃可隨宜處置, 以祛此弊.” 上曰: “義州果重地. 以文臣擇差, 其弊自除矣.” 克成曰: “義州新築城之後, 抄徙作罪者以實之, 而曾犯竊盜者, 復恣偷盜, 城中騷擾, 或事敗逃亡, 反無實城之意. 義州人以爲: ‘寧未實城, 願勿送作罪者.’”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云矣. 且驅逐時所擄野人妻子, 多囚江界、渭原及內地三登等處, 年或長成, 慮有逃散之弊, 衣服、料食徒費國廩. 彼亦曰: ‘如此拘囚, 寧使居某地, 則當聽處分.’ 云, 此亦別爲處置何如? 國家以下三道縣布, 入送貿穀, 補軍資, 而各官守令, 以屯田所出, 或還上費耗充數, 所送縣布, 私自用破, 申明禁之. 甚者或用於褒貶, 猶不改如前, 朝廷亦當申明禁戢.” 上曰: “此等事, 言於該司爲公事.”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김극성(金克成)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 평안도감사 때 보건대, 의주(義州)의 압록강 건너편에 와서 사는 중국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강이 얼면 의주에 사는 우리 민중들과 서로 통하여 물건을 사고팔므로 용천(龍川)·철산(鐵山) 등지의 주민들이 소나 말을 기탄없이 도둑질해다 팔아, 의주성 안의 소와 말이 또한 깡그리 없어졌습니다. 만일 듣거나 본 것에 따라 잡아서 보면 모두 사납고 날쌔었으며 방어 나온 군졸도 많이 끼었었는데, 더러는 자수하였다가 형장 아래 죽었고 더러는 일을 실패하고 도망하게 되어 폐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에 10년이 가지 않아 의주가 퇴폐하고 떨치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국가에서 의주를 방어에 중요한 데라 하여 수령(守令)을 모두 무신(武臣)을 차임(差任)하여 보내는데, 신의 생각에는 이 뒤로는 판관(判官)은 반드시 무신을 가려 차임하여 방어하는 일을 맡도록 하되, 무재(武才) 있는 사람들을 가려 군관(軍官)을 삼고 목사(牧使)는 문신 중에 명망 있는 사람을 가려서 차임해야, 형편에 따라 처리하여 그런 폐단을 제거하게 되겠다고 여겼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주는 과연 중요한 데이니, 문신을 가려서 차임하면 그런 폐단이 자연히 제거될 것이다.”

하매, 김극성이 아뢰기를,

“의주에 새로 성을 쌓은 뒤 범죄 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주시켜 채우고 있습니다. 일찍이 절도죄를 범한 자들이 다시 방자하게 도둑질을 하므로 성 안이 시끄러워지고 더러는 일을 실패하고 도망해버려 도리어 성을 채우는 본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의주 사람들은 ‘차라리 성을 채우지 못할지언정 범죄 한 자는 보내지 말기 바란다.’ 했습니다. 또 구축(驅逐)할 때 사로잡힌 야인(野人)들의 처자(妻子)를 강계(江界)·위원(渭源) 및 내지(內地)인 삼등(三登) 등지에 많이 가두어 놓았는데, 더러는 나이가 장성하므로 도망하여 흩어질 폐단이 있게 될까 싶고, 의복과 식량도 한갓 국고(國庫)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하는 말이 ‘이처럼 구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지(某地)에서 살게 한다면 마땅히 처분하는 대로 듣겠다.’고 하니, 이는 또한 따로 처치를 함이 어떠리까? 국가에서 하삼도(下三道)의 면포(綿布)를 들여보내 곡식을 매매하여 군자(軍資)를 보충하도록 하는데, 각 고을의 수령들이 둔전(屯田)에서 나는 곡식 또는 환상(還上)의 소모조(消耗條)로써 충당하고자 보내온 면포를 사사로이 써버리니, 거둬 밝혀 금단해야 합니다. 심한 자는 더러 포폄(褒貶) 때 악용하기를 아직도 고치지 않고 이전처럼 하니, 조정이 마땅히 거둬 밝혀 금단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일들은 해사(該司)에 말하여 공사(公事)를 만들겠다.”

하였다.

▶ 56권 21년 1월 14일 丁酉

丁酉/御朝講. 領事權鈞曰: “肅宗以廩食方屈, 乃禁京城酤酒. 蓋酒之爲物, 其在常時, 猶當禁勅, 況遇凶年, 尤所當禁. 今年凶荒, 非偶然. 若婚姻、祭祀不得已之事, 則已, 如宴飲之類, 法司固宜嚴禁. 但我國用酒之弊, 習俗已成, 不得遽革.” 執義閔壽元曰: “凶年糜穀, 惟酒爲甚. 法司雖別加禁斷, 習已成俗, 一朝革之誠難.” 上曰: “法不嚴則禁不止. 然我國禁酒之法, 可謂至矣, 法司只可申明舊典耳. 但觀近來被禁者, 率皆無勢之人. 此, 法司所當察也.” 正言朴洪麟曰: “護送軍馬多死, 至爲驚愕. 雖因雪深、糧乏, 亦是國家之厄運. 西方人物, 消耗至此, 誠非細故, 防備諸事, 恐至虛疎. 今雖多抄入居人以實之, 若有邊警, 軍無戰馬, 何以應變? 聞, 其道牧場馬多蕃息, 自生自死, 皆爲守場者, 盜賣自利之資. 雖不能遍給邊軍, 令兵使, 擇有武才者, 而頒給.” 上曰: “馬在牧場, 雖蕃無益. 若頒給邊軍, 則果有益於備禦矣.” 權鈞曰: “大抵, 平安道馬少牛多, 赴防軍卒, 鮮有騎持者. 牧場馬數之多少, 未之詳知, 然不能遍給戍卒也, 須遴其武才卓異者, 特命分給, 則必感激上恩, 思有所報効矣.” 上曰: “馬政重事, 該司必以爲難也. 然予意, 非但平安道, 八道各場之馬, 亦多刷出, 則戰馬自有餘矣.” 權鈞曰: “在成宗朝, 牧場生馬, 令軍士調馴. 如此之事, 亦當時時爲之可也.”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숙종(肅宗)이 국고의 양식이 바야흐로 고갈되는 것을 들어 서울에서 술 파는 것을 금했습니다. 대개 술이란 것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마땅히 금단해야 하는데, 더구나 흉년을 만났으니 더욱 마땅히 금단해야 합니다. 올해의 흉년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혼인이나 제사 같은 부득이한 일은 말할 것이 없지만 잔치하며 술마시는 따위는 진실로 엄중하게 금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는 술을 사용하는 폐단이 이미 습속(習俗)이 되어 갑자기 금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집의 민수원(閔壽元)은 아뢰기를,

“흉년에 곡식 허비가 심한 것은 오직 술입니다. 비록 법사(法司)가 특별히 금단하지만 이미 습속이 되어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이 엄하지 않으면 금단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술 금단하는 법은 지극하다 할 수 있으니, 법사가 단지 옛법을 거둬 밝히기만 하면 된다. 다만 보건대, 요사이 금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세력이 없는 사람이니, 이는 법사가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하매 정언 박홍린(朴洪麟)이 아뢰기를,

“정조사(正朝使)를 호송하던 군사와 말이 많이 죽었다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비록 눈이 깊이 쌓이고 양식이 모자라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역시 국가의 액운(厄運)입니다. 서쪽 지방의 인물(人物)이 이처럼 소모되었음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니, 방비하는 모든 일이 허술하게 될까 싶습니다. 지금 비록 입거(入居)할 사람을 많이 뽑아서 채운다 하더라도, 만일 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방의 경계가 있을 때 군사들이 타고 싸울 말이 없다면 어떻게 변에 대응할 것입니까? 듣건대 그 도(道)의 목장(牧場) 말이 많이 번식하여 저절로 생겨났다 저절로 죽는데, 모두 목장을 지키는 사람이 몰래 팔아 스스로 이득 보는 것이 된다 합니다. 비록 변방 군사들에게 두루 줄 수는 없더라도 병사(兵使)로 하여금 무재(武才) 있는 사람을 가려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이 목장에서 아무리 번식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없을 터인데, 만일 변방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과연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매, 권균이 아뢰기를,

“대저 평안도는, 말은 적고 소만 많아서 부방(赴防)나간 군사들이 타거나 가진 자가 적습니다. 목장 말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수하는 군졸들에게 두루 줄 수는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무재가 특이한 사람을 가려 특별히 나누어 주도록 하신다면, 반드시 성상의 은혜에 감격되어 보답하는 공효를 내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 행정은 중요한 일이어서 해사(該司)가 반드시 어렵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단지 평안도만이 아니라 팔도(八道)의 각 목장 말을 또한 뽑아낸다면 전마(戰馬)가 따라서 넉넉해지리라 여긴다.”

하매, 권균이 아뢰었다.

“성종조(成宗朝)에도 목장의 생마(生馬)를 군사들로 하여금 길들이게 했었으니, 이런 일은 또한 때때로 해야 합니다.”

▶ 57권 21년 11월 16일 乙未

捕盜將尹熙平、元彭祖等啓曰：“以朴具謙所告，搜三島，【阿次島、甫老音島、末叱島，乃江華地也。】捕捉七十六人，囚禁于開城府耳。進告曰，具謙以爲：‘三島居人，如大生蛤，非我國所產等物，多數採來，必往來于海浪島之間，以爲水賊。’而臣之意亦以爲，若水賊則其家必有水牛皮、牧場馬皮等物，而今見搜探贓物雖多，而皆不緊，故抽大概，書啓耳。且開城府有一居民，往返于黃海道，乘船而來，敗船于長山串近處。其後船上什物，見於朴側同【乃今被捉在囚者。】家，故開城府人，欲呈狀于官，而竟不爲之。朴具謙亦必聞此奇，而進告也。況七十餘人，豈盡水賊哉？方此凍天，不可久囚，請速分揀而放何如？”傳曰：“以朴具謙所告捕捉，捕盜將豈知水賊與否，而分揀捕之？其以朴具謙速下于刑曹，詰問曰：‘今此捉囚者，誰爲水賊。’而如有辭連之人，則推之，其不干之人，速放事，言于刑曹。”

포도장(捕盜將) 윤희평(尹熙平)과 원팽조(元彭祖) 등이 아뢰기를,

“박구겸(朴具謙)이 고발했기 때문에 3도(島) 【아차도(阿次島)·보로음도(甫老音島)·말질도(末叱島)인데 강화(江華)땅이다.】를 수색해서 76인을 체포, 개성부(開城府)에 수감했습니다.

고발하던 날 박구겸이 ‘3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생합(大生蛤) 등의 물품을 많이 채취(採取)해 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해랑도(海浪島) 사이를 왕래하면서 수적(水賊)노릇을 한 것 같다.’ 했습니다. 신 등의 뜻에도 수적 노릇을 했다면 그들의 집에 반드시 수우(水牛)의 가죽이나 목장(牧場) 말의 가죽 등의 물품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색해 본바 장물(贓物)이 많기는 했으나 모두 긴요치 않은 것이었으므로 대략만 서계(書啓)합니다. 그리고 개성부에 사는 어떤 백성이 배를 타고 황해도(黃海道)를 갔다 오다가 장산곶(長山串) 근처에서 패선(敗船)되었습니다. 그 뒤 그 배의 기구(器具)들이 박측동(朴側同) 【바로 지금 체포되어 갇혀 있는 자이다.】의 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성부 사람이 관(官)에 정장(呈狀)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박구겸도 틀림없이 이 소문을 듣고 와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70여 인이 어찌 모두 수적이겠습니까? 바야흐로 추운 날씨여서 오래 가두어둘 수 없으니 속히 조사하여 석방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박구겸의 고발로 체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도장들이 어찌 수적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체포했겠는가? 박구겸을 속히 형조(刑曹)에 내려 힐문하기를 ‘지금 체포되어 갇힌 자 가운데 누가 수적인가?’ 하여, 관련된 사람은 추문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속히 석방할 일로 형조에 말하라.”

하였다.

▶ 57권 21년 11월 28일 丁未

丁未/右承旨丁玉亨以咸鏡北道兵使柳繼宗啓本、封啓曰：“啓本云：‘京中各日奇別，非徒列鎮皆知之，胡人亦先知之。如此不已，則軍機不爲秘密，故敢封啓。’而啓下時，亦封付於兵曹郎官，勿使勝寫於單抄冊何如？”傳曰：“依啓。”【北道兵使啓本云：“會寧鎮僉節制使金瑚牒呈，今十月十一日，城底居住吾都里彼人中樞阿乙加茂鄉言進告內，請屏左右，就前密告曰：‘吾都里種類，無弓馬之才，本是殘劣。與諸姓亏知介，世世讎也。待我類如蛟蜚，見之則捉去，作爲奴婢。又牛馬、家財年年奪去，未得安接。故會寧城底五十餘戶、高嶺城底八十餘戶，依接居生，盡心仰國矣。去十月間，亏乙未亏知介、尼麻車亏知介與吾郎哈酋長住張哈和親事聞知，以將爲所侵疑慮，而今年七月間，穩城鎮所管美錢城底都酋長吾郎哈中樞每禿，箭一介及手指木，傳諭諸鎮酋長及頭頭被人曰：「彼人等上京，不利。河伊亂水洞住長哈居處竝聚時，五鎮諸部亏吾郎哈及吾都里等或破毀農器、鼎器中，隨所得每戶出持，而貧戶則并五戶牛一首，有實戶則并三戶牛一首，各持來。其鐵物則許給和親亏知哈尼麻車南訥巨、節都骨五姓亏知介等使打造甲冑、箭鏃，牛隻則其徒贈給。」云。我等答曰：「前未聞事，今聽汝言，不可輕易使之。將欲進告于會寧府使。」云，則亏郎哈等力禁，故未果進告，而日夜思慮，從彼則得罪於朝鮮，不從則禍延妻子，慮事，進告奸使。」開諭曰：‘今聞汝言，一以嘉汝和國之誠；一以恨汝決意之不快也。亏知介，於汝世讎，非徒不可輕易和親，五姓亏知介厥類，萬倍於汝種。若以萬倍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衆, 欲求鐵物、牛隻, 非一再則其可當乎? 今年納一物明年納一物, 又明年如是, 而無納物, 則必擒汝如初矣. 汝審此意, 斷不從彼所誑. 此, 汝等之福, 而永保無虞也. 況五嶺諸鎮野人及山外諸屯歸順野人, 皆誠心向國者也. 豈可從誑, 自取禍哉? 萬萬無此理.’ 如是曲諭然後, 厚饋酒食, 別贈鹽醬, 出送. 阿乙加茂進告辭緣與前阿速進告大概相同. 獨諸屯胡處每戶鐵物收取, 兵器打造事阿速進告內所無之事, 阿乙加茂進告內胡人等聚會, 在七月之間云, 則各種亏知介居住處最遠, 至今五朔, 遠屯他境留連似難, 而虜情所向非輕, 以常時鎮屬殘卒, 待變至爲可慮, 而道內凡馳啓事, 纔經一朔, 京中各日奇別下來, 故非徒列鎮皆知, 胡人亦先知之. 右事雖至秘密, 不無漏通, 至爲可慮, 故牒文除執吏, 秘密成送, 而城底胡情, 問于邊人則胡人在前, 鎮將之雖令, 雖赴水火, 無不聽從, 今則雖易如反掌之事, 間或不從, 多有驕慢之心. 道內飢饉癘疫, 人畜俱瘵, 天時人事, 疑若兆亂. 更加措置備邊, 南道軍士, 作急入送, 而各鎮銃箭習放, 則竝不得善放, 火炮匠五六名, 不分晝夜下送事.”】

우승지(右承旨) 정옥형(丁玉亨)이 함경북도 병사 유계종(柳繼宗)의 계본(啓本)과 봉계(封啓)를 올리면서 아뢰기를,

“계본에 ‘서울에서 있었던 각 날짜의 기별(奇別)을 열진(列鎭)들만 다 알 뿐 아니라 오랑캐들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하다면 군기(軍機)가 비밀스럽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감히 봉계합니다.’ 했습니다. 계하(啓下)할 때도 봉하여 병조 낭관에서 주시고 단초책(單抄冊)에 등사(謄寫)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함경북도 병사의 계본은 다음과 같다. “회령진(會寧鎭) 첨절제사(僉節制使) 김호(金瑚)의 첨정(牒呈)에, 11월 11일 성 밑에 사는 오도리(吾都里)와 야인 중추(中樞) 아을가무(阿乙加茂)가 자기들 말로 진고(進告)하면서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직접 밀고(密告)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밀고 내용은 ‘오도리 종족은 무예(武藝)도 없고 본디 잔열(殘劣)합니다. 그래서 제성(諸姓) 우지개(汚知介)와는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따라서 우지개는 우리들을 대하면 구렁이처럼 여김은 물론 보는 대로 잡아다가 노비(奴婢)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나 말, 가재(家財)까지도 빼앗아가고 있으므로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회령성(會寧城) 밑에 사는 50여 호(戶)와 고령성(高嶺城) 밑에 사는 80여 호는 그곳에 살면서 마음을 다해 국가(國家)를 양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사이에 우을미 우지개(汚乙未汚知介)와 니마거 우지개(尼麻車汚知介)가 오랑합(五郎哈) 추장 주장합(住張哈)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노략질당할까 우려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7월 사이에 온성진(穩城鎭) 관할인 미전성(美錢城) 밑의 도주장(都酋長)인 오랑합(五郎哈) 중추(中樞) 매독(每禿)이 화살한 개와 수지목(手指木)을 제진(諸鎭)의 추장과 두두(頭頭)의 야인들에게 전하면서 효유하기를 「야인들이 서울에 올라가 보아도 이로우 것이 없다. 그러니 하이란(河伊亂) 수동(水洞)에 있는 주장합의 거처로 모일 때 오진(五鎭) 제부(諸部)의 우오랑합(汚五郎哈) 및 오도리 등은 개진 농기구나 술을 습득하는 대로 가호(家戶)마다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가난한 집은 5호(戶)당 소 한 마리씩, 부자집은 3호당 소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라. 철물(鐵物)은 화친한 우지합(汚知哈)·니마거(尼麻車)·남눌거(南訥巨)·절도골(節都骨)·오성 우지개(五姓汚知介)

등을 시켜 갑옷과 화살촉을 만들게 하고, 소는 그들에게 대가로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답하기를 「전에 못듣던 일인데 이제 그대들의 말만 듣고 경솔히 따를 수 없다. 회령 부사(會寧府使)에게 진고(進告)하겠다.」 하니, 우랑합 등이 극력 금했기 때문에 진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야로 생각해보니, 저들을 따르면 조선에 죄를 얻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화가 처자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부사에게 진고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유(開諭)하기를 ‘지금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그대들이 우리나라와 화친하려는 정성이 가상하고 한편으로는 그대들이 통쾌하게 즉시 결단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기도 하다. 우지개는 그대들과 대대로 원수이니 경솔히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화친한 오성 우지개는 그 무리가 그대들 무리의 1만 배나 된다. 1만 배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철물과 소를 자주 요구하게 되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금년에 한 가지 물품을 바치고 내년에 또 한 가지 물품을 바치고 그 다음해에 또 바치더라도 나중에 바칠 물건이 없게 되면 반드시 처음이나 다름없이 그대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대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결단코 저들의 미친 말을 따르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대들의 복(福)임은 물론 영원토록 걱정없음을 보장할 수 있다. 더구나 오령(五嶺) 제진(諸鎭)의 야인들과 산외(山外) 제둔(諸屯)의 귀순한 야인들은 모두 성심으로 귀의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어찌 미친 말을 따름으로써 화(禍)를 자초하려 하겠는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극진히 타이른 다음 술과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특별히 염장(鹽醬)을 선사하여 내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아을가무가 진고한 사연은 전에 아속(阿速)이 진고한 내용과 대략 같았습니다. 단 제둔(諸屯)에 있는 야인들에게 가호마다 철물을 거두어 병기를 만든다는 일은, 아속의 진고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아을가무가 진고한 말에 호인(胡人)들이 7월에 모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各種) 우지개의 거쳐 가운데 가장 먼 곳이라 할지라도 이미 5개월이 지났으니 벌써 다 통보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지경에 있는 먼 둔(屯)에 군사를 머물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랑캐들의 먹은 마음이 가볍지 않으니, 평상시 진(鎭)에 예속된 잔악한 군졸로 변란을 대비하기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도(道)에서 치계(馳啓)하는 일에 대해서는 1개월이 지나야 가까스로 서울에서 있었던 여러날의 기별이 내려옵니다. 때문에 열진(列鎭)들만 알 뿐 아니라 야인(野人)들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일은 지극히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누설될 경우가 없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첩보(牒報)는 이를 담당한 관리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작성해 보냅니다. 그리고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의 실정을 변방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야인들이 전에는 진장(鎭將)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종했었지만, 지금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도 간혹 복종하지 않음은 물론 교만한 마음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도내(道內)에 기근(饑饉)이 든 데다 전염병까지 발생해서 사람과 가축이 함께 병들었으니,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로 보건대 아무래도 난(亂)이 일 것 같은 조짐입니다. 다시 변방 방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남도(南道)의 군사를 급히 들여보내소서. 그리고 각진의 총(銃)을 연습으로 쏘아 보았더니 모두 잘 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포장(火包匠) 5~6명을 급급히 시각을 닦아주어 내려보내소서.”】

▶ 58권 22년 4월 28일 甲戌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大司憲韓效元啓曰：“臣前爲威鏡道監司時，聞進上快脯，令刻邑名，至爲驚駭，未知厥由。到京詳聞則東宮退膳，下于翊衛司官員及下人，食之者，皆爲氣絕復甦。自上慮必外方不謹，故令刻邑名。近來，臣等無所不計慮而思之，當其時，所當窮推而治之。自上視爲尋常，而棄之，故奸謀連綿而出矣。今而追思之，至爲寒心。臣等以此啓之，極知其難矣，常留于心，故啓之也。”傳曰：“凡封進之物，次知內官及事知內官，同監出授，熟而進膳。其殿內人，猶或可知，然亦進膳而已，他殿人則尤未知之也。前者，外方海惡時所捕魚物，百姓食之，而有傷事。或有言之者，故海惡寢息後封進事，下諭之時亦有矣。其脯肉，亦疑外方不謹，以雜肉入內，故刻邑名封進事下諭矣。退膳事，不干於灼鼠。大司憲有疑於心，故啓之也。”

대사헌(大司憲) 한효원(韓效元)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함경도감사(咸鏡道監司)로 있을 때 진상(進上)하는 쾌포(快脯)에 고을 이름을 새기게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으나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들으니, 동궁(東宮)의 퇴선(退膳)을 익위사 관원(翊衛司官員)과 하인(下人)에게 내렸는데 이를 먹은 사람들이 모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상께서는 외방에서 틀림없이 삼가지 않은 것이라 여겨 고을 이름을 새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래에는 신 등이 심사 숙고하지 않는 것이 없습디만 그 때 의당 끝까지 주문해서 다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통으로 여겨 방치했기 때문에 간모(奸謀)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신 등이 이런 일을 아뢰기가 지극히 곤란하지만 늘 마음에 유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진(封進)하는 물품은 차지 내관(次知內官)과 사지 내관(事知內官)이 함께 감독하여 내어주는 것을 익혀서 진선(進膳)하는 것이니, 그 전(殿)의 나인(內人)은 그래도 혹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역시 진선(進膳)만 할 뿐이다. 따라서 다른 전(殿)의 나인은 더욱 모르는 것이다. 전에 외방(外方)에서 바닷물에 이변(異變)이 있을 때 잡은 물고기를 백성들이 먹고서 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을 말하기에 바닷물에 이변이 있을 때는 그 이변이 없어진 뒤에 봉진하도록 하라는 유지(諭旨)를 내린 일은 있었다. 따라서 포육(脯肉) 역시 외방에서 삼가지 않은 탓으로 잡된 고기가 들어갈까 의심스러워 고을 이름을 새겨 봉진하도록 하유하였었다. 퇴선(退膳)의 일은 쥐를 지진 일과는 관계가 없다. 대사헌은 이 점에 대해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뢴 것이리라.”

하였다.

▶ 61권 23년 5월 16일 丙戌

上曰：“白岳山鳴之事，未及聞也。大抵天災、時變，必不虛生。且頃者，見平安道監司啓本則金同難者，以我國之人，交通唐人，踰越義州城，偷取人家馬匹云，至爲驚愕。其

唐人等則欲及聖節使之行入送，而捉致金同難也。且唐人已爲無辭服招云，其處置至難，故昨令禮曹，爲公事，報府矣。今方有邊事之時，若此爲之則後弊必大，不可不熟慮，而措置也。”貞曰：“臣亦聞之，至爲驚愕。唐人所居處，與義州地境相連，故其交通甚易。但今於聖節使之行，恐未及入送也。”知事尹殷輔曰：“前則唐人不居于江邊，今則馬頭山【在鴨綠江越邊】下，亦有唐人十餘戶來居。若漸次來居則終必衆盛矣。以其所居，與義州甚近，故若於合冰連陸之時，則雖爲禁抑，乘夜潛通，至如牛馬及雜物，私相買賣，非徒此也。前者體探軍入歸時，唐人等夜間相遇，奪其軍裝而去。如此之事，赴京使行入歸時，言于遼東大人處，使之禁戢其下人。且於所居地方指揮處，并以書諭，令禁戢管下人，則庶可無恣行之弊矣，不得已如此爲之可也。前則唐人不得侵擾於義州之境，今則或乘船而來，奪軍裝，恣意橫行，略無顧忌。當初以交通買賣事，至用刑訊，而不服如是，故公然往來，在古所無，不得已言于遼東都司，使知如是泛濫之事可也。”貞曰：“前者，有往豆羅者交通買賣，其後連有如此之事。但前亦議之則咸曰：‘上國人，來居于我國近境未便之意，不可出諸口矣。’往者，沈順徑赴京時，欲令開說來居之弊，而難於發言，故不得出諸口矣。其來居我國近境之事，若言之，而遼東大人答曰：‘我國人居住，汝何以禁止？’云，則在我反無答說之辭也。且若轉聞于朝廷則亦不無致問之事矣，然則在我甚爲難處也。但言之曰：‘遼東地方，近獐子恣行之路，上國人亦多被擄，至爲可慮。’云，則彼必驚聞而答之矣。唐人居我近京之事，亦可發言也，彼若答曰：‘爾國人亦擅居上國之近境，何如是爲也。’云，則其答說，亦甚難矣。今者，我國人金同難者，既已逃入上國，而唐人等亦被拘于義州，今將押唐人而交割遼東。其時請拿還金同難，且因開說其與我國，交通買賣之事，則猶可也，不可以禁戢之事，公然請之也。”殷輔曰：“果依憑其唐人等數多被擄於獐子之事，而開說則可矣。”上曰：“中原人居中原之地，果不可以禁戢之事，言于上國也。但因金同難之事，而言之則似可矣。”貞曰：“上國人越境作賊之事，遼東若得聞之則必爲驚駭矣，使之禁戢事，不可輕遽言之。今者，我國人既逃入于彼，唐人亦拘留于此，若因此事，而開說則當矣。”

상이 이르기를,

“백악산이 울었다는 것은 미처 듣지 못했지만, 다른 천재와 시변은 반드시 터무니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전번에 평안도감사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김동난(金同難)이란 자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들과 상통하여 의주성(義州城)을 넘나들며 인가(人家)의 마필(馬匹)을 절취한다니 지극히 경악스럽다. 그 중국 사람들은 성절사(聖節使)가 갈 적에 들여보내고 김동난은 잡아오고 싶으나, 또한 중국 사람은 이미 자복 받을 말이 없게 되어 있다고 하여, 처치하기가 지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제 예조로 하여금 공사(公事)를 만들어 정부에 알리도록 했다. 지금 바야흐로 변방에 사단이 있는 때인데 이런 짓을 한다면 뭇 패단이 반드시 클 것이니, 잘 생각해서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신도 들었는데 지극히 놀랍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는 데가 의주의 지경과 서로 잇닿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있기 때문에 상통하기가 매우 쉬운 것인데, 다만 이번의 성절사가 갈 적에는 미처 들여보내지 못할 듯싶습니다.”

하매, 지사 윤은보(尹殷輔)는 아뢰기를,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강 가에서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두산(馬頭山)【압록강 건너편에 있다.】 밑에다 중국 사람들이 10여 호나 와서 살고 있으니, 만일 점차로 와서 살게 된다면 마침내는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데가 의주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 육지와 연결되는 때이면, 비록 금단하고 억제해도 밤을 이용하여 몰래 상통해서 우마(牛馬)와 잡물(雜物) 같은 것들을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고 합니다. 한갓 이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번에는 정탐나간 군사들이 들어올 적에 중국 사람들과 밤에 서로 만났었는데 군장(軍裝)을 빼앗아갔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사(京師)에 가는 사신이 들어올 적에 요동(遼東) 대인(大人)들에게 말을 하여 아랫사람들을 금단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사는 지방을 지휘하는 사람에게는도 아울러 글로 효유(曉諭)하여 관내(管內)의 사람들을 금단하게 한다면 함부로 다니는 폐단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니, 부득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의주 지경을 침입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더러 배를 타고 와서 군장(軍裝)을 빼앗고 조금도 기탄없이 함부로 쏘다닙니다. 당초에 상통하여 사고팔고 하는 것 때문에 형장 심문을 하기까지 했는데도 복종하지 않고 그러는데 공공연히 왔다 갔다 함은 이전에 없던 일이니, 부득이 요동도사(遼東都司)에게 말하여 이처럼 외람된 짓을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이전에 왕두라(往豆羅)란 자가 상통하여 사고팔고 하는 짓을 했는데, 그 뒤로는 잇달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만 전일에도 의논을 하니, 모두들 상국(上國) 사람이 우리나라 근방에 와서 사는 것이 편치 못하다는 뜻을 입밖에 낼 수가 없다고 했었고, 지난번에 심순경(沈順經)이 경사에 갈 때도 와서 사는 폐단을 털어놓게 하려다가 말을 내기가 곤란하므로 입밖에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근방에 와서 사는 것을 만일 말하였다가 요동 대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금단하려느냐?’ 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답변할 말이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만일 조정(朝廷)에 전해진다면 또한 물어오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니, 다만 말하기를 ‘요동 지방은 달자(獐子)들이 함부로 다니는 길과 가까와 상국 사람들이 또한 많이 사로잡히므로 지극히 염려스럽다.’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놀랍게 듣고서 답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서울과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것을 또한 말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이 만일 ‘너희 나라 사람들도 함부로 상국 근방에서 사는데 어찌하여 그러느냐?’ 한다면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김동난이 이미 상국으로 도망하여 들어갔고 중국 사람들이 또한 의주에 구금되어 있으니, 이번에 장차 중국 사람들을 압송하여 요동에서 교할(交割)하게 될 것이므로, 그때 김동난을 잡아서 돌려보내기를 청하고 또한 따라서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상통하여 사고팔고 하는 것을 털어놓은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금단할 것을 공공연히 청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윤은보는 아뢰기를,

“과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달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세우며 설명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이 중국 땅에 사는 것이므로 과연 금단할 것을 상국에 말해서는 안 되고, 다만 김동난의 일을 들어 말을 하면 가할 듯하다.”

하매, 심정이 아뢰었다.

“상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 도둑질하는 것을 만일 요동에서 알게 된다면 반드시 놀라게 될 것이니, 금단하게 하는 일을 경술하고 급작스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미 그쪽으로 도망해 들어갔고 중국 사람이 또한 여기에 억류되어 있으니, 만일 이 일로 인해 실정을 설명한다면 될 것입니다.”

▶ 62권 23년 7월 17일 丙戌

丙戌/下禮曹公事于政院曰：“見此公事，東萊縣令，【盧輔世】 則大內殿使送倭人，不待之以禮，妄加戲弄，以致慙憤；熊川縣監申拘，則小二殿使送倭人，所持牛皮，假托公貿，減價抑買云。此倭人所言，雖未可盡信，然前者西北道邊將，亦於野人處，抑買貂皮。而因此構釁，開邊生事。如此之事，至爲不可。自上深欲嚴治其罪，以懲其後久矣。今禮曹欲令其道監司、兵使推之，似乎當矣。然此事大失待夷之道，不可輕易爲之。豈可以令監司、兵使推之乎？其令禁府，兩縣守令及軍官禹嗣宗暨差備通事、倭禮房等事干各人，并拿來推考。此兩縣守令，卽速罷黜，而及今日政，差出他人，催促赴任可也。”

예조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를 보건대, 동래현령(東萊縣令) 【노보세(盧輔世)이다.】 은 대내전(大內殿)의 사송(使送)인 왜인(倭人)을 예(禮)로 대우하지 않고 망령되이 회롱을 하여 부끄러워하고분하게 여기게 하였고, 웅천현감(熊川縣監) 신구(申拘)는 소이전(小二殿)의 사송인 왜인이 가지고 온 우피(牛皮)를 공무역(公貿易)한다 평계하고 값을 감하여 억매(抑買)했다고 한다. 이 왜인들이 하는 말을 비록 모두 믿을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전일에 서북도(西北道)의 변장(邊將)들이 또한 야인(野人)들에게서 초피(貂皮)를 억매했었는데 이로 인해 사단이 생겨 변방 개척에 일이 터졌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극히 불가한 것이어서, 위에서 참으로 그들의 죄를 엄중하게 다스려 뒷사람들에게 징계되게 하려 한 지 오래다. 이번에 예조가 그 도(道)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추고(推考)하게 하려 하니 합당한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일은 크게 오랑캐들을 대우하는 도리를 잃은 것이어서 경술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금부로 하여금 두 고을의 수령 및 군관(軍官) 우사종(禹嗣宗)과 차비 통사(差備通事)·왜예방(倭禮房) 등 사간(事干)인 각 사람을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게 하고, 이 두 고을의 수령은 즉각 시급히 파출(罷黜)하고서 오늘의 정사(政事) 때 다른 사람을 차출(差出)하여, 재촉해서 부임하도록 해야 한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63권 23년 10월 4일 壬寅

許磁曰：“臣觀本道之人，雖稱有才，然拔出於衆者不多。臣所謂抄之者，非謂抄之於各道，只以諸將之聞見，摘望抄發其武才之絕倫者，一二百人，則何至於紛擾乎？且若四月，則非如冬月，雖南方之人，若有勇猛者，則與邊民何異？故臣於前日啓之。且江邊之人告訴云：‘貧寒之人，困於牛黃、鹿茸等藥材。’牛黃一部價，幾至三十餘匹，民甚苦之云。此乃國用藥材，不可啓之，然牛黃所用之處，只清心元、涼膈元，而其用不多，鹿茸則尤爲不緊，此等藥材，下問于醫司，限年蠲減何如？”上曰：“問醫司限年減之可也。”

허깅이 아뢰기를, “신이 본도 사람을 보건대, 재주가 있다고는 하나 무리에서 빼어난 자는 많지 않습니다. 신이 뽑는다는 것은 각도에서 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제장이 듣고 본 바를 후보로 뽑아 그 중에서 무재(武才)가 뛰어난 자 1~2백 명을 뽑아 보내면 어찌 소요하기에 이르겠습니까? 또 4월이라면 겨울철과 같지 않으니, 남방 사람일지라도 용맹한 자가 있다면 변방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전일에 아뢰었습니다. 또 강변(江邊) 사람이 고하기를 ‘가난한 사람은 우황(牛黃)과 녹용(鹿茸) 따위 약재(藥材) 때문에 시달리는데 우황 1부(部)의 값이 거의 배 30여 필(匹)이나 되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와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쓰는 약재이므로 아될 수 없으나, 우황이 쓰이는 곳은 청심원(淸心元)과 양격원(涼膈元)뿐이고 그 쓰임이 많지 않으며, 녹용은 더욱이 긴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재는 의사(醫司)에 하문하시어 연한을 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의사에 물어서 연한을 정하여 감면하도록 하라.”

▶ 65권 24년 6월 23일 丙戌

黃海道安岳郡，有牛產雌犢，三頭三眼。中眼則一睚兩睛，兩睛間，微有限隔，其下岐成兩面，各有鼻口齒舌。

황해도 안악군(安岳郡)에서 어떤 소가 암송아지를 낳았다. 그런데 머리가 3개고 눈이 3개다. 가운데 눈은 눈자위는 1개인데 눈알은 2개고, 두 눈알 사이에는 약간의 한계가 딱혀 있었다. 아랫몸통은 갈라져서 둘이었고, 얼굴마다 코·입·이·혀가 있었다.

▶ 66권 24년 8월 22일 乙酉

下金克達母李氏上言于政院曰：“克達事，有司則以爲邊方重事，而限輸情加刑事，爲公事當矣。今見其母上言，當初崔有元與彼人等交通，以牛隻，買賣貂皮，而金克達欲捉

囚之時，此人等自知其罪而逃躲。其後崔有元母及其同生等，呈狀于敬差官姜顯曰：‘此牛隻，非皆有元之物，亦有僉使之牛。’云。敬差官推其鎮撫及事干人，則以誣陷僉使事服招，而有司以爲邊方重事，而其服招公事，不爲取實，啓請加刑矣。然其牛隻，初則以爲他人之牛，而後乃以爲亦有僉使之牛，前後所招各異。非但此也，其貂皮領數，或云七領，或云五領，不一言之，此亦違端也。其言亦有僉使之牛之事，初非公反人言之，乃崔有元逃亡後，其母及同生等，欲救有元而言也。克達以朝官，受刑今至十三次。以如此有違端之事，數多加刑何如？邊方將士，交通彼人，皮物貿易，前果有物論矣。然僉使豈可以自己之牛，令通事公然和賣乎？此似不得爲之事也。大抵邊方通事，交通彼人，貿易皮物，而邊將不能檢舉，則自有其罪，以其相當之罪，罪之何如？其招政府郎官，議大臣以啓。”

김극달(金克達)의 어머니 이씨(李氏)의 상언(上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극달의 사건은, 유사(有司)가 변방의 일은 중대하니 실정을 자백할 때까지 형벌을 가하지는 것으로 공사(公事)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 어미의 상언을 보건대, 당초에 최유원(崔有元)이 야인들과 교통하면서 소로 초피(貂皮)를 매매했는데, 김극달이 잡아가두려 하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도망하였다. 그 뒤에 최유원의 어미와 동생들이 경차관(敬差官) 강현(姜顯)에게 정장(呈狀)하기를 ‘이 소들은 모두 유원의 것이 아니다. 첨사(僉使)의 소도 있다…….’ 하였으므로, 경차관이 진무(鎭撫)와 사간인(事干人)을 추고하니, 첨사를 무함한 것으로 복초했다. 그러나 유사가, 변방의 일은 중대한 것이고 그 복초 공사(服招公事)도 사실로 받아들 수 없다고 해서 가형(加刑)하기를 계청하였다.

그러나 그 소에 대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소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첨사의 소도 있다고 하여 앞뒤의 공초(供招)가 각각 달랐다. 이뿐만이 아니라 초피의 벌 수[領數]도 7벌이라고도 하고 5벌이라고도 하여 다르게 말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어긋난 단서이다. 그 말에 첨사의 소도 있단 말도 당초 사간인(事干人)의 말이 아니었고, 최유원이 도망간 뒤에 그 어미와 동생들이 유원을 구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극달(克達)은 조관(朝官)으로서 지금까지 13차나 형신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어긋나는 단서가 있으니, 무수히 형벌을 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변방 장사(將士)들이 저들과 교통하면서 피물(皮物)을 무역한 일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론(輿論)이 있었다. 그러나 첨사가 어찌 자기의 소를 통사(通事)에게 시켜 공공연히 화매했겠는가? 대저 변방의 통사가 저들과 교통하면서 피물을 무역한 일을 변장이 검속(檢束)하지 못하면, 절로 그에 해당되는 죄가 있는 것이다. 상당한 죄로 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부 낭관을 불러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라.”

▶ 66권 24년 8월 28일 辛卯

辛卯/御朝講. 掌令梁淵曰: “臣年前以巡邊使許磁從事官, 往平安道, 巡見江邊各官, 則義州, 境連上國地方, 而關防甚重. 前者古城低微, 故特遣大臣改築. 其城極爲壯高, 殊似關防重地矣. 但人物稀少, 其古城之內, 尙未墳居. 今者令移居于新城之內, 小民安土重遷, 仍居舊城之基, 而新城之內, 則曠爲荒陂. 城雖高大, 將安用之? 凡入居人, 爲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先抄定，以實城內事，已爲公事，而但其入居之人，類是強竊盜及牛馬屠剪，無所依據之人。以其無恒產也，故入送未幾，旋即流亡；以其無恒心也，故相率爲盜，一城之內，盡爲賊(數)〔藪〕。非徒於閭里之間，盜賊興行，越上國之境，作黨爲盜者，滔滔皆是。如金同難者，幸而現出矣，其未現出者，蓋多有之。且前者久遠恒居之人，亦近因年凶，又赴京使臣，必皆治裝於義州，國家不知之弊端，亦不無矣。賦役煩重，生業無由，故亦多流亡，以此戶口日漸減縮。彼處之事，必須別爲措置，其徙民作罪者，計其人丁之多者，抄擇入送，使得久居，以實邊城，然後終必無虞矣。雖入送，無耕食之地。其於東北間山麓及郊野，雖或有之，然其山麓則尙薄，郊野則沮洳，皆不可耕而食也。其徙民，雖有欲居之志，無衣食之資，以此尤不能安接。竊聞之，則麟山海口國屯田，逐年起耕，其石數，則時未的知，但其大概，今至百餘石之地云。然無農民，以道內防戍軍耕之，不能力作，故開墾雖多，猶無益也。其開墾之地，雖止於此，若能耕食，則其於邊方將士糧餉，可補萬一。此事請下問于大臣，又商議于本道監司，給民耕作，以便公私何如？義州，關防重地。須以某條實其人戶，然後萬世無虞。今若不爲，則不數十年間，必至於空虛矣。”上曰：“此言至當。義州入居，以作罪人入送，而不能久居，旋即流亡事，前亦有此議。今後雖作罪人，兵曹計其丁多者，而入送則可矣。義州虛耗，必須多入人丁，然後方可蘇復矣。此事更議之。”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순변사(巡邊使) 허평(許砬)의 종사관으로 평안도에 가서 압록강 가의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보니,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의주(義州) 지방은 매우 중요한 관방(關防)이었습니다. 전에 고성(古城)이 낮고 약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신을 보내 개축케 했으므로 그 성이 아주 높고 웅장하여 자못 중요한 관방 같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적어 고성(古城) 내에도 오히려 사람이 꼭 들어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 성으로 옮겨 살도록 해도 백성들은 토지에 안주(安住)하여 옮기기를 어렵게 여기면서 그대로 옛 성에 눌러앉아 살려고 합니다. 새 성은 넓기만 하고 텅 비어 있으니, 성이 비록 높고 크다한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입거인(入居人)을 우선 가려 뽑아 성을 채울 것을, 이미 공사(公事)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입거인들은 거의 강도나 절도 및 우마를 도살하는 자들로 의지하고 살만한 향산(恒産)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입송한 지 얼마 안 되어 즉시 유망(流亡)하는데 이는 향심(恒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모두 도둑이 되어 온 성이 모두 적도(賊徒)입니다. 여염(閭閻)에만 도둑이 횡행할 뿐 아니라 중국 국경에까지 들어가 무리지어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거의가 이들입니다. 김동난(金同難) 같은 자는 요행히 죄가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는 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금년에는 흉년이든 데다가 부경 사신(赴京使臣)들은 모두 의주에서 행장을 꾸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르는 폐단도 많은 것은 물론, 부역이 많아 살아갈 길이 없어서 유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문에 호구가 날로 감소되니, 저곳의 일은 반드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사민(徙民)시킬 때는 인정(人丁)이 많은 자를 가려서 입송하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변성(邊城)이 충실하게 된 뒤에야, 끝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입송하더라도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동북간 산기슭 및 성밖 들판에 간혹 있기는 하나, 산기슭의 땅은 척박하고 성밖 들판은 저습하여 모두 경작할 수 없는 땅들입니다. 사민(徙民)들이 거주하고자 하나 의식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더욱 정착(定着)할 수가 없습니다. 듣건대 인산(麟山) 해구(海口)에 국둔전(國屯田)이 있는데 해마다 경작은 하지만 생산 양곡의 석수(石數)는 아직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나, 대개 1백여 석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농민도 없이 도내 방수군(防戍軍)이 경작하므로 힘써 농사짓지 않기 때문에, 개간지가 많아도 오히려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개간지가 이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갈아 먹는다면 변방 군사들의 식량을 만분의 일이나마 보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대신들에게 하문하시고, 또 본도 감사에게 상의하시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 경작케 한다면 공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하십니까?

의주는 중요한 관방이니 법에 의거하여 채운 뒤에라야 만세토록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조처하지 않으면 수십 년이 못 되어 반드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아뢴 말이 지당하다. 의주의 입거는 죄지은 사람들을 입송시키는데 오래 거주하지 않고 곧바로 유망한다. 이것에 대해 전에도 논의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죄지은 사람이라도 병조에서 인정(人丁)이 많은 자들을 골라 입송시켜라. 의주는 허술하여 반드시 많은 인정을 입거케 하여야만 소복될 것이다. 이 일은 다시 의논하라.”

▶ 66권 24년 12월 1일 癸亥

大司憲南世準辭職，命勿辭。仍傳曰：“大抵臺諫盡遞，於聞見至爲驚愕。弘文館豈偶然計而論之？其筭子之意甚當。常時監察，差往各陵，凡獻官執事所誤及陵所不當之事，自當來告，而近來未見如此之事。前者有云：‘陵所近處，生牛打殺，供饋祭官者有之。’此亦監察不能檢舉之故也。近日尙震來辭曰：‘自少與安從典相交，故其無事與否，使人探問。臣意欲勿告而問之也。’云。尙震以臺官，如此爲之，至爲非矣。他臺諫等，只啓遞尙震，而不論其是非。此弘文館所謂駭愕也。欲爲庇護同僚，不爲是非。弘文館之意以爲，新臺諫，自當出而糾正，故論之耳。予意亦以爲，新臺諫，出而糾正，然後庶乎紀綱，有所振矣。大抵如此之時，憲府長官，尤不可搖動。勿辭。”世準聞命而退。

대사헌(大司憲) 남세준(南世準)이 사직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명(命)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대저 대간(臺諫)을 다 체직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매우 경악(驚愕)스러운 일이다. 홍문관(弘文館)이 어찌 범연히 헤아려 논하였겠는가? 차자(筭子)의 내용이 매우 타당하다. 평시에 감찰(監察)을 각릉(各陵)에 차견(差遣)하였다가 헌관(獻官)·집사(執事)의 잘못과 능소(陵所)에서의 부당한 일을 보면 스스로 와서 고(告)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근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전번에 능소 근처에서 소를 타살(打殺)하여 제관(祭官)에게 공궤(供饋)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감찰이 잘 검속(檢束)하지 못한 탓이다. 근일 상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尙震)이 와서 사직하면서 ‘안종전(安從典)과는 소시(少時)부터 교우 관계를 맺었으므로 무사(無事) 여부에 대해 사람을 시켜 탐문(探問)하였다. 신(臣)의 의중은 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탐문한 것이다.’ 하였다. 상진은 대관(臺官)으로서 이렇게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처사였다.

다른 대간(臺諫)은 상진을 체직시키자고만 아뢰었을 뿐 그 시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 점이 홍문관이 이른바 경악스럽다는 것이다. 동료들 비호하기 위해서 시비하지 않은 데 대해 홍문관이 ‘신 대간(臺諫)이 의당 스스로 나와서 규정(糾正)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논한 것이다. 내 생각에도 역시 신 대간이 나와서 규정한 뒤에라야 기강이 진기(振起)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대저 이러한 때에는 헌부(憲府)의 장관(長官)을 더더욱 요동시킬 수가 없다. 사직하지 말라.”

하매, 남세준이 명(命)을 듣고 물러갔다.

▶ 67권 25년 2월 8일 戊辰

臺諫啓前事，不允。憲府啓：“軍器寺書員金文孫，當初與智書學同謀，僞造關字，盜用銅鐵。及其智書學前後所犯推鞠時，自知終不能掩覆，而發告，非自首之例，而自上減死。請依前照律定罪。前惠山僉使金克達以官物買牛，交通彼人，潛買貂皮匹段等物，而其事干，皆已承服，其軍官、土兵，則結案取招，而克達則以公罪該論斷。非徒刑政顛例，邊氓亦皆痛憤，軍官金敬孫等，時方刑訊。今不可以免放棄之。請依前兵曹受教，窮推定罪，明示國典。大護軍申玉衡，當初拿來時，在方山遲留，而又從枉道見監司等，至爲非矣。及下詔獄，質問李菡事時，詳問斬獲不實之事，而不卽直達，尤爲非矣。特命只贖，甚爲未便。請依律定罪。”傳曰：“金文孫，罪與智書學有差，故命減死，今啓果當。其依初律定罪。金克達事，通事、土兵，交通彼人，買賣皮物，而克達爲僉使時欲捕，而其人等逃躲，故不得捕也。及敬差官推考時，其逃躲者族人等，訴于敬差官。以此推及克達，而克達受刑十五餘次發明。此事初出於族黨之言，而不出於公言，情有可恕者，故議于大臣，以相當律罪之也。且金敬孫等及事干推訊事，曾與大臣議定，而且已經年。今若更推，則於事體何如？申玉衡事，被拿出來時，不由直路，以此推問，則禁府書吏適患病，而玉衡亦得病，故不卽上來云。且自方山出來時，其間雖有徑路，而以其賊人往來處，故有疊入防塞【疊入其居民，防塞其道路。】之事。禁府堂上亦嘗言之，然則經由義州，亦出於不得已也。故斟酌罪之，今不可更改。”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군기시(軍器寺)의 서원(書員) 김문손은 당초 지서학과 동모하여 관문(關文)을 위조, 동(銅)·납(鐵)·철(錢)을 도용(盜用)했습니다. 지서학이 전후에 범한 죄를 추국 받는 데 이르자 스스로 끝내 속일 수 없음을 알고 고발(告發)했으니, 자수(自首)한 예가 아닌데도 위에서 사형을 감하게 하였습니다. 전의 조율에 의거 정죄하소서.

전 혜산첨사(惠山僉使) 김극달(金克達)은 관물(官物)로 소를 사서 야인(野人)들과 교통, 은 밀히 초피(貂皮)와 필단(疋緞) 등 물건을 샀고 사간(事干)들도 모두 이미 승복했습니다. 그래서 군관(軍官)과 토병(土兵)은 공초(供招)를 받아 결안(結案) 하였는데도 극달은 공죄(公罪)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정(刑政)만 전도되었을 뿐만이 아니므로 변방 백성들 모두가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군관 김경손(金敬孫) 등은 바야흐로 형신하고 있으니, 지금 면방(免放)되었다는 것으로 버려둘 수 없습니다. 전의 병조(兵曹)의 수교(受敎)에 의거 끝까지 추문해서 정죄(定罪), 국법을 명백히 보이소서. 대호군(大護軍) 신옥형(申玉衡)은, 당초 잡혀 올 적에 방산(方山)에서 지체했었고 또 길을 어기고 감사 등을 만났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조옥(詔獄)에 내려 이함(李菡) 등의 일을 질문할 적에도 적을 참획한 것이 부실한 일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만, 즉시 바른 대로 주달하지 않았으니 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특명(特命)으로 속(贖)하게만 하였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율(律)에 의거 정죄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문손의 죄는 지서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죄를 감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지금 아 된 말이 지당하다. 당초의 율에 의거 정죄하라. 김극달(金克達)의 일은, 통사(通事)와 토병(土兵)이 야인(野人)들과 교통하면서 피물(皮物)을 매매했는데 극달이 첨사(僉使)로 있을 때 체포하려 했었으나 그들이 도망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경차관(敬差官)이 추고할 때 도망한 자들의 족인(族人)들이 경차관에게 정소(呈訴)하였으므로 극달을 추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극달은 15차나 형주를 받고도 변명하였다. 이 일은 처음 족인들의 말에서 연유된 것이요 공언(公言)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실정도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합당한 율로 죄준 것이다. 그리고 김경손 등과 사간(事干)을 추신(推訊)하는 일은, 벌써 전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했고 또 이어 해가 지났다. 이제 다시 추문한다면 사체에 있어 어떻겠는가? 신옥형의 일은 잡혀 올 적에 직로(直路)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문했더니 금부(禁府)의 서리(書吏)가 마침 병이 들었고 옥형도 병에 걸렸으므로 즉시 올라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방산에서 나올 적에는 그 사이에 지름길이 있기는 하였으나 적(賊)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방새(防塞) 【그 지방 사람들이 도로 가에다 만들어 놓은 방새로, 자주 들어갔음.】에 들어갔었다는 일에 대해서는 금부 당상(禁府堂上)도 말했었다. 그렇다면 의주(義州)로 질러온 것도 부득이해서였던 것이기 때문에 짐작해서 죄준 것이다.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다.”

▶ 68권 25년 7월 10일 丁酉

政院以禁府意啓曰：“臣等觀咸鏡道觀察使書狀，二十餘人被囚云。不知某人之事干也，意謂在逃金車卜、奇哲、崔有光等【以金克達事，在逃者.】事干也。當初臣等亦慮邊方騷擾之弊，已將此意啓達矣。今此二十餘人，果以車卜等督現事被囚，則防禦緊關之地，不可視以常例。自上裁斷何如？金敬孫、蔡元信等事，【以牛隻貿易於野人事，見囚于本道者也.】當初敬差官，【姜顯】事干及金克達憑閱，已曾取服啓聞，而敬差官上來，事干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皆放後，本道結案時，始知罪重，推調於克達。金敬孫，則京居甲士，蔡元信，則本鎮吏房鎮撫也。非不知法例，而托以庇護主將爲辭，實非本情。因此人等，以致邊方騷擾，事甚關係，然執法之吏，不可擅便，亦在上裁。”傳曰：“金敬孫等及克達事，自各不同，故克達則下傳旨于禁府推閱，而不服，故今方刑訊矣。此事根源，予所不知也。不可以觀察使一時之書狀，謂某可放，謂某不可放也。若觀察使推考事，則可下書狀，使之分揀也。敬差官所推事，則本員雖已上來，自有該司可處。其以大臣所啓之意言之。”政院以兵曹意回啓曰：“敬差官姜顯持去事目，本曹爲之，而其事干推閱事，不舉論矣。今見咸鏡道觀察使啓本，則亦不分明。此前觀察使成世昌所推之事，而遞來未久，必詳知之。下問則可知也。”傳曰：“初以爲，‘此事干於金克達，而啓下禁府矣。克達及金敬孫等事，自各不同。雖不問成世昌，而啓下兵曹，則兵曹自當處之。’

정원이 금부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들이 함경도관찰사의 서장을 살펴보니 20여 인이 구금되어 있다고 했는데 누구의 사건(事干)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망 중에 있는 김거복(金車卜)·기철(奇哲)·최유광(崔有光) 등 【김극달의 일 때문에 도망 중에 있는 사람들임.】의 사건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초 신들도 변방이 소요스러울 폐단을 우려해서 이런 뜻을 이미 계달했었습니다. 지금 이 20여 인을 거복 등의 현신(現身)을 독촉키 위해 구금시켰다면, 그곳은 방어가 긴급한 곳이므로 예사로 여길 수가 없으니 위에서 재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경손(金敬孫)과 채원신(蔡元信) 등의 일 【아인들과 소를 매매한 일 때문에 본도(本道)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임.】은 당초 경차관(敬差官) 【강현(姜顯)임.】이 사건과 김극달을 증빙 조사하여 이미 취복(取服)한 것으로 계문했습니다. 그러나 경차관이 올라오고 사건을 모두 방면한 뒤 본도에서 결안(結案)할 때에야 비로소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고 극달을 추조(推調)했습니다. 김경손은 서울에 사는 갑사(申士)이고 채원신은 본진(本鎭)의 이방 진무(吏房鎭撫)이므로 법례(法例)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도 주장(主將)을 비호했다는 것으로 사연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는 그들의 본정(本情)이 아닙니다. 이들 때문에 변방에 소요를 일으킨 것은 관계되는 것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역시 상의 재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경손 등과 김극달의 일은 각기 다르다. 때문에 극달은 금부에 전지를 내려 추열(推閱)하게 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형신(刑訊)하고 있다. 이 일의 근원은 나도 모르고 있다. 관찰사의 한때 서장에 의거, 아무는 면방해야 하고 아무는 면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관찰사가 추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서장을 내려 분간(分揀)하게 하라. 경차관이 추고한 일은 본원(本員)이 이미 올라왔으나, 해사(該司)에서 조처가 있을 것이다. 대신이 아뢴 뜻을 말해 주라.”

하였다. 정원이 병조의 뜻으로 회계(回啓)하기를,

“경차관 강현(姜顯)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본조(本曹)에서 만든 것이지만 사건을 추열하는 일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경도관찰사의 계문을 보아도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 관찰사 성세창이 추국하던 일이요, 그가 체직되어 온지 오래지 않았으므로 자

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하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처음에는 이 일이 김극달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 금부에 계하였었다. 극달과 김정손 등의 일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성세창에게 묻지 않고 병조에 계하해도 병조가 절로 조치할 것이다.”

▶ 68권 25년 7월 18일 乙巳

乙巳/慶尙道晉州邑內落蟲，形色似蠖，食損禾穀。西風又起，冷氣如秋，禾穀傷損。南海居百姓鄭石家，雌牛產黃犢，無前右腳，以三足起行。

경상도 진주읍(晉州邑) 안에 벌레가 떨어졌는데 모양과 색깔이 자벌레와 비슷하였으며 곡식을 먹어 손상시켰다. 서풍(西風)이 불어서 냉기(冷氣)가 가을과 같아 곡식에 손상을 가져왔다. 남해(南海)에 사는 백성 정석(鄭石)의 집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오른쪽 앞다리가 없어서 세 발로 걸어다녔다.

▶ 68권 25년 7월 22일 己酉

兵曹判書金克成啓曰：“咸鏡道觀察使【韓亨允】及南道節度使【李芑】啓本，義禁府推案，竝皆考之，則人數加減各異，不可以此的知。但大概則既以四牛，爲金克達所犯，歸一于克達，則諸事干，更無可推之事。然克達結案取招時，幸有憑閱事，則諸事干，雖或放送，恐其更復辭連也。如不速斷，則彼軍民逃亡者，疑畏而不肯還集矣，令禁府速斷爲當。”傳曰：“其以兵曹意，言于大臣處議啓。”光弼等議啓曰：“以金克達之事，惠山鎮殆爲虛棄，其處巨族驍健者，多至逃亡云。兩界人心不附，則恐入他處而生變。爲方面者，其憂念豈少哉？邊將之意以爲，克達當速定罪，使此鎮完保也。臣等之意，與兵曹、邊將之意同。邊事繁重，不可以一克達之故，而廢棄邊鎮也。”傳曰：“今見啓意，邊鎮完保爲急。其以相當律，速照律定罪，使其鎮完保如舊，則亦必還集矣。”

병조판서 김극성(金克成)이 아뢰기를,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한형윤(韓亨允)임.】와 남도절도사(南道節度使)【이기(李芑)임.】의 계본(啓本)과 의금부(義禁府)의 추안(推案)을 아울러 상고해 보니 사람 명수(名數)의 가감(加減)이 각각 달라서 이것을 가지고는 적실하게 알 수 없으나 다만 대개는 이미 네 마리의 소를 김극달(金克達)이 범한 것이라고 하여 극달에게 귀일되었으니, 모든 사건(事干)들을 다시 추고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극달을 취초(取招)하여 결안(結案)할 때에 혹시라도 증빙하여 조사할 일이 있으면 모든 사건을 놓아 보냈더라도 다시 말이 관련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속히 결단하지 않으면 저 도망한 군민(軍民)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돌아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모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부로 하여금 속히 결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의 뜻으로 대신의 처소에 말하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광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극달의 일로 하여 혜산 진(惠山鎭)이 거의 텅 비어버리게 되었는바 그곳의 거족(巨族)으로 날새고 건장한 자들이 많이 도망 가버렸다 하니, 양계(兩界)의 인심이 부종(附從)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들어가서 변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방면(方面)의 책임을 맡은 자의 걱정과 염려가 어찌 적겠습니까. 변장(邊將)의 뜻은 극달을 속히 정죄(定罪)하여 이 진(鎭)을 완전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들의 뜻도 병조와 변장의 뜻과 동일합니다. 변방의 일은 긴급하고 중대하므로 한낱 극달의 일 때문에 변진을 폐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아뢴 뜻을 보니 변진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급한 일로 여겼다. 그러니 상당한 율(律)로 속히 조율(照律)하여 그 진을 전처럼 완전하게 보존한다면 군민이 반드시 돌아와 모일 것이다.”

▶ 68권 25년 7월 24일辛亥

辛亥/政院以三公意啓曰：“金敬孫、蔡元信，初非自己之罪犯，欲庇護金克達，謂以吾牛隻，彼人處皮物交易事納招。其後知其出於一罪，更爲受刑發明矣。其罪則皆在于金克達，而慮其惠山鎭之虛棄，末減克達之罪，以爲保邊鎭之計。今敬孫、元信，等亦依他事干例，放送何如？”傳曰：“知道。”

정원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김경손과 채원신이 처음에는 자기의 죄범(罪犯)이 아니라 하여 김극달을 비호하고자 해서 ‘우리 소 한 마리를 야인(野人)들의 피물(皮物)과 교역했다.’는 일로 초사(招辭)를 하였는데, 그 뒤에 그 죄가 일죄(一罪)인 줄 알고 다시 형신을 받으면서 변명하였습니다. 그 죄는 모두 김극달에게 있으나 혜산 진(惠山鎭)이 비어서 버려질까 염려되므로 극달의 죄를 말감(末減)하여 변진(邊鎭)을 보존하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경손과 원신 등도 다른 사간의 예(例)에 따라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68권 25년 7월 24일辛亥

禁府啓曰：“金克達以官物買牛隻，則當計贓矣。然以官物買牛隻事，獨於事干招辭現出，而金克達則以爲非官物，受刑發明，故今不計贓矣。”傳曰：“知道。”

금부가 아뢰기를,

“김극달이 관물(官物)로 소를 샀다면 마땅히 장오(贓汚)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관물로 소를 사는 일은 사간의 초사에만 나타났을 뿐이고 김극달의 초사에는 관물이 아니라고 형신을 받을 적에 변명하였기 때문에, 지금 장오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71권 26년 6월 5일 戊午

戊午/御朝講. 上顧謂張順孫曰: “金安老事, 大臣處, 前已議之, 故敍用矣. 不知大臣之意何如?” 順孫曰: “安老之事, 臣未詳知之, 但雖賤微人事, 不可不取服而罪之. 況如宰相之人, 尤當取服, 然後罪之. 不然, 後弊必多矣.” 上曰: “近者以不取服, 而定罪, 有不可之論. 安老亦不取服, 而罪之者也. 豈可永棄不敍乎?” 執義梁淵曰: “臣聞國家雜物, 皆貿于市廛云. 厥弊不貲. 大抵國家所用之物, 皆有恒貢. 貢案所載之物, 必非不足, 而有司不謹典守, 一應之物, 皆貿於市廛. 市廛所無之物, 則百般旁求, 艱難應貿, 故民甚其苦之. 非徒有弊於民, 國家費財, 尤有大妨. 且牧場馬牛皮, 用之有裕, 而今者片片皮物, 皆爲貿用, 不知其所以然也. 況如鐵鐵, 於工曹尙多有之, 亦爲貿用何哉? 用財之道, 不可不慮. 常貢之數多, 而又爲引用, 須自上省用爲當.” 上曰: “此弊戶曹曾已言之耳. 常貢之物, 雖載在會計, 而及其用之之時, 輒皆貿用, 是必有司不謹典守故也. 省費之事, 所當留念也.”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장순손(張順孫)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김안로의 일은, 전에 대신들과 이미 의논하였으므로 서용하는 것이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다.”하였다. 순손이 아뢰기를, “안로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천한 사람의 일이라도 자복받지 않고는 죄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상 지위의 사람은 더더욱 자복 받은 후에 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자복받지 않고 죄를 정하는 데 대하여 옳지 않다는 의논이 있다. 안로 또한 자복받지 않고 죄준 자이니, 어찌 아주 버려두고 서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집의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국가에서 쓰는 잡용 물건을 모두 시전(市廛)에서 사들인다 하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국가에서 쓰는 물건은 모두 정해진 공물(貢物)이 있어서, 공안(貢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물건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데, 유사(有司)가 삼가 지키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을 일체 시전에서 사들이고, 시전에 없는 물건은 온갖 방법으로 찾아 가까스로 사들이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목장의 마소가 죽은 쓰고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각조각인 가죽을 모두 사다가 쓰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납철(臘鐵) 같은 것은 공조(工曹)에 아직 많이 있는데도, 사다가 쓰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국고금을 씌에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공물의 숫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자가 많은데도 내년도 공물을 앞당겨 받아쓰고 있습니다. 상께서는 비용을 줄이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폐단에 대해 호조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정해진 공물이 회계 문서에 실려 있는데도 쓸 때에는 번번이 모두 사다가 쓰니, 이것은 필시 유사가 삼가 지키지 못한 탓이다. 비용을 줄이는 일은 유념하도록 하겠다.”하였다.

▶ 74권 28년 4월 2일 甲戌

甲戌/憲府啓曰: “廢朝時作弊之人, 罪犯雖重, 累歷年紀, 蕩滌猶可言也, 秦石中、李仇豆金、金壽命、金玉同等, 【潛囑倭人納金者也.】被罪不多年, 皆蒙量移之恩. 其時臺諫累日論啓, 今也永被放還, 殊無懲惡之意, 請勿放.” 諫院啓曰: “前蔚山郡守黃汝獻, 在任時, 貪饕無忌, 非徒使官庫一空, 以守令多買本郡人奴婢, 又潛誘鄉人及才人、白丁, 接置本家, 潛隱役使, 又籍錄民間大牛, 托贈同鄉相交之人, 公然以官價抑買, 而給之, 及其遞來也, 以術還奪其牛, 如釜鼎雜物, 類此頗多. 且以守令造鄉家時, 赍盡胎峯及鄉人墳墓松木, 無所忌憚, 多役本郡工匠, 如營公廨. 又以術漁奪民田, 不知紀極. 在官在鄉, 俱害於民, 請推考痛治.” 答府曰: “此人等皆功臣. 當初若功減, 則不至於流, 而以其罪重, 不可功減云, 故流之耳. 其後因其上言, 而量移之, 今又與大臣議而放之, 故不允.” 答院曰: “黃汝獻事, 依啓.”

이하생략~

헌부가 아뢰기를,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킨 사람의 범죄가 비록 무겁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는 것은 그런 대로 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석중(秦石中)·이구두금(李仇豆金)·김수명(金壽命)·김옥동(金玉同) 등은 【몰래 왜인(倭人)에게 금(金)을 준 자임.】 죄를 입은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모두 양이(量移)하는 은전을 입었습니다. 그때 대간이 여러날 논계하였는데 이제 아주 방환(放還)시켰으니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방환시키지 마소서.”

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전(前) 울산군수(蔚山 郡守)황여헌(黃汝獻)은 재임할 때 거리낌 없이 탐학한 짓을 하여 관고(官庫)를 텅 비게 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수령으로서 본군 사람인 노비를 많이 사들였고 또 향인(鄉人) 및 재인(才人)·백정(白丁)들을 데려다가 본가에 숨겨두고 은밀히 사역을 시켰습니다. 또 민간의 큰 소를 등록하게 한 다음 동향(同鄉)의 친구에게 준다고 핑계하여 공공연하게 관가(官價)로 억매(抑買)하여 주었다가, 그 후 체직하여 돌아올 때 술책을 써서 그 소를 도로 빼앗았는데, 부정(釜鼎)과 잡물도 이렇게 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또 수령으로 있을 때 자기의 시골집을 지을 적에는 태봉(胎峯)과 고향 사람의 분묘(墳墓)에 있는 소나무를 꺼림 없이 모조리 베었고, 부임하여 있는 고을의 공장(工匠)을 마치 공해(公廨)를 지을 때처럼 많이 부렸습니다. 또 술책으로 농어민(農漁民)의 전답을 빼앗은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관에 있을 때와 시골에 있을 때 모두 백성을 해쳤으니 추구하여 통렬히 다스리소서.”

하니, 헌부에 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공신이다. 당초에 ‘만약 공으로 죄를 감한다면 유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공으로 감할 수 없다.’ 하기에 유배한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양이하였고 이제 또 대신들이 의논하여 놓아주었으므로 용허하지 않는다.”

하고, 간원에 답하였다.

“황여헌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이하생략~

▶ 75권 28년 7월 14일 乙卯

乙卯/御朝講.

~중략~

正言崔輔漢曰: “近來星變如此, 而年凶又極. 聞各道, 則禾穀已盡焦傷. 如卑濕之田, 則猶有水氣, 高燥之田, 則盡放牛馬, 已不可食.公私虛竭, 賑救無計, 警省之方, 不可尋常. 古之明主, 遇災修省, 必求直言. 今亦廣求直言, 雖草野之言, 亦皆咨訪何如? 近來避殿、減膳, 修省極矣, 然敬天謹災, 不可以虛文爲之. 前者慶尙道救荒敬差官沈連源入來, 下人皆以爲必即引見, 而竟不爲也, 待黃憲上來, 然後一時引見. 若自上軫念下民之飢饉, 則奚待黃憲上來, 然後引見乎? 今之恐懼修省, 雖若至矣, 而苟非盡誠爲之, 則安能感天心乎? 自上須至誠責躬, 然後變異可消矣.” 上曰: “敬差官入來之時, 如別遣侍從, 則當引見, 此則諸事, 皆具啓本, 且大臣以爲: ‘待黃憲上來, 然後一時引見.’ 云, 故未及思之耳.” 鄭光弼曰: “近見百物彫耗, 市利之徒, 多入兩界, 牽牛而來, 接于士族空舍, 一日所殺, 多至三四牛. 處處皆然, 南大門、西小門城上, 積骨如山. 此雖禽獸, 亦豈當於天心乎? 且農事以牛爲本, 而屠殺成風, 一牛之價, 至八九十匹. 成宗朝, 以去骨爲業者, 皆全家入居. 此雖不載《續錄》, 當時之俗太甚, 故立法如此耳. 今亦不可不禁斷.且見百姓流移困弊之事, 官吏未嘗推恕, 以皂隸定役, 則舉族逃散, 百姓無有田地者. 其有田地者, 唯富商、大賈、士族之家而已. 百姓窮困, 安有如此時乎? 非但皂隸、水軍, 各邑日守、書員, 定役則皆逃散. 蓋守令使之如牛羊, 迫於困苦而然耳.此外細瑣之弊, 豈盡上達? 至於日守、書員, 爲酒漢, 則皆至逃散, 如此之弊, 皆爲飲食而然耳. 外方各官一盤品饌, 幾至十五六器. 觀察使拜辭之時, 須教戒而遣之何如? 其次則如司僕寺、典設司諸員, 亦皆逃散. 且皂隸、羅將, 祖宗朝所無處, 皆爲設立, 如可無處罷之, 使其番稀, 則其役稍寬. 若遇今年, 則皆至逃散云.”

~중략~

權輓曰: “投屬者皆還除下, 而加定者亦下, 則庶乎人丁有餘矣. 且近來遇災減省之時, 臣欲啓之, 故敢啓. 別瓦之弊, 不合於國家設立之本意. 當初設立時, 以都城內, 恐有火災, 故令五部擲奸給瓦, 自庚辰秋更設之後, 今則百姓不得受半片之瓦. 初則猶以百姓名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字, 貿易者有之, 今則士大夫之間, 非有權勢者, 無從得受. 其所費牛隻及食草, 弊甚不貲. 方今士大夫宮室崇侈, 皆資別瓦署爲之. 士大夫若欲營造, 則亦可自備. 國家豈可爲士大夫家, 而設立多弊之官邪? 臣意革罷何如?” 上曰: “當初設官之意, 豈其如此? 其後奉行之人, 不能爲之, 故以貽其弊耳. 且昨日有詐稱東宮佛幀, 誑惑愚民, 至爲驚駭, 故下于禁府. 禁府則尤當驚駭, 多方搜捕可也, 而昨日不知搜於何處, 然其人居接處, 皆(俱)〔具〕啓本, 而搜之不得云. 此雖不可推之, 然亦恐無紀綱而然也. 有捕得一人, 名字頗有疑似, 故姑令囚之, 然恐捕捉之時, 疎漏爲之耳.”

이하생략~

조강에 나아갔다.

~중략~

정언(正言) 최보한(崔輔漢)은 아뢰기를,

“근래 성변이 이와 같은데다가 흉년 또한 극심합니다. 듣기로는 각도에서는 벼가 벌써 다 타서 상하였으며, 낮고 습한 전지는 그래도 물기가 있지만 높고 메마른 전지에는 소와 말을 다 풀어놓아 이미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합니다. 공곡(公穀)이나 사곡(私穀)이 고갈되어서 진구(賑救)할 계책이 없으니, 경성(警省)하는 방법을 심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의 명철한 임금들은 재변을 만나 수성(修省)할 때에 반드시 직언(直言)을 구했으니, 지금 또한 널리 직언을 구하되 비록 초야에 있는 사람들의 말일지라도 모두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래 피전 감선(避殿減膳)하셨으니 수성(修省)을 극진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공경하고 재변을 삼가는 데 있어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번 경상도 구황경차관(慶尙道救荒敬差官) 심연원(沈連源)이 돌아오자 아랫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즉시 인견(引見)할 것으로 생각하였습시다만, 결국 인견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다가 황헌(黃憲)이 올라온 뒤에야 동시에 인견하셨는데, 만일 위에서 백성들의 기근(飢饉)을 진념하셨다면 어찌 황헌이 올라온 다음 인견하였겠습니까? 지금의 공구수성(恐懼修省)은 비록 지극한 듯하나 진실로 성의를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는 모름지기 지성으로 자신을 책망한 뒤에야 재변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차관이 돌아왔을 때에는 별도로 보낸 시종(侍從)이었다면 마땅히 인견해야 했겠지만, 이 경우는 모든 일이 다 계본(啓本)에 갖추어 있었고 또 대신들이 ‘황헌이 올라온 다음 동시에 인견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요즘 보면 온갖 물건이 다 고갈되자 이익을 노리는 무리들이 많이들 양계(兩界)에 들어가 소를 끌어다가 사족(士族)의 빈집에 매어 놓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도살한 소가 많은 경우는 3~4마리에 이르기도 하는데, 곳곳마다 다 그리하여 남대문과 서소문 성 위에는 싸인 뼈가 산더미 같습니다. 이것은 비록 금수라 하지만 이렇게 마구 잡는 것이 어찌 천심에 부합되는 일이겠습니까. 또 농사를 짓는 데는 소로 근본을 삼는데, 도살이 성행하여 소 한 마리 값이 배 80~90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성종조에서는 거골장(去骨匠)들을 전가 사변(全家徙邊)시켰습시다. 이 일이 비록 《속록(續錄)》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풍속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법을 세웠던 것이니, 지금도 엄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떠돌고 곤궁해짐을 보고도 관리들이 돌봐주지 않고 조례(皂隸)로 정역(定役)시키므로 온 가족이 도산(逃散)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전지(田地)를 가지지 못하고, 전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상대고(富商大賈)나 사족(士族)의 집일뿐이니 백성의 곤궁함이 어찌 지금 같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조예(皂隸)와 수군(水軍)뿐 아니라 각 고을의 일수(日守)와 서원(書員)들도 정역되면 모두 도산합니다. 이는 대체로 수령이 그들을 소나 양처럼 부려 고통에 시달리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밖의 잡단 폐단이야 어찌 모두 상달할 수 있겠습니까. 일수와 서원이 주한(酒漢)이 되면 모두 도산하게 되는데, 이런 폐단은 모두 음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방의 각 고을에서는 한상에 차리는 반찬이 15~16 그릇에 이릅니다. 관찰사가 배사(拜辭)할 때에 모름지기 경계시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은 사복시(司僕寺)와 전설사(典設司)의 제원(諸員)들도 모두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나장은 조종조에서는 없었던 곳에도 모두 설립하였으니, 없어도 될 곳에는 없애서 그 번서는 일을 드물게 한다면 그 역(役)이 조금 완화될 것입니다. 금년 같은 해를 만나면 모두들 도산한다고 합니다.”

~중략~

권에는 아뢰기를,

“투탁한 자를 모두 도로 줄이고 더 정한 자도 줄인다면 인정(人丁)이 남아돌 것입니다. 근래 재변을 만나서 경비를 줄이고 있는 이때 신이 아뢰고 싶은 일이었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별와서(別瓦署)의 폐단은 국가가 설립한 본의에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당초 설립할 때는 도성 안에 화재가 있을까 염려된 때문에 오부(五部)로 하여금 척간(擲奸)해서 기와를 주게 하였는데, 경진년 가을 다시 설립한 뒤로는 백성들이 반 조각의 기와도 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백성의 이름으로도 무역(貿易)한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대부들 사이에도 권세 있는 자가 아니면 기와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비되는 우척(牛隻)과 사초(飼草)에 따르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집이 사치스러운 것은 모두 별와서의 힘을 입은 것입니다. 사대부가 만일 영조(營造)하려고 한다면 자력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어찌 사대부의 집을 위해서 폐단이 많은 관(官)을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혁파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관(官)을 설립한 뜻이 어찌 이러했겠는가? 그뒤 봉행하는 사람이 잘 준행하지 않은 때문에 폐단이 생긴 것이다. 또 어제 있었던 동궁(東宮)의 불탱(佛幀)이라고 사칭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인 사건은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므로 금부에 내렸다. 금부는 더욱 경악하여 다방면으로 수색 체포하여야 될 일인데, 어제 어디를 수색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거접처(居接處)가 모두 계본에 밝혀져 있는데도 수색해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추고할 수는 없지만 기강이 없어서 그런 듯싶다.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름자에 자못 의사점(疑似點)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두어 놓게 하였다. 그러나 체포할 때 소루하게 한 듯하다.”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76권 28년 11월 4일 壬寅

壬寅/傳曰：“日者，政丞，雜物貿易勿爲事，啓之，然連三紙、明珀、琥珀、犀角帶、弓角、書冊、白黃絲、各色綵色，則皆不可無之物，貿之若何？各於攸司，問之可也。”

전교하였다.

“지난번 정승으로부터 잡물(雜物)을 무역하지 말자는 아뢰미 있었다. 그러나 연삼지(連三紙)·명박(明珀)·호박(琥珀)·서각대(犀角帶)·궁각(弓角)·서책(書冊)·백황사(白黃絲) 그리고 각색 물감은 모두 없어서 안 될 물건들이니, 무역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해당 관아에 하문하라.”

▶ 79권 30년 3월 14일 甲戌

甲戌/兵曹啓曰：“威鏡敬差官朴守良啓本內，安原堡權管全周南，爲胡人所縛，給牛馬乞得解縛，而固諱不言，推其事干，則皆服之，事甚關係，請與大臣同議處之。”傳曰：“以兵曹所啓，招政府郎官，收議于大臣.”

병조가 아뢰기를, “함경 경차관(威鏡敬差官) 박수량(朴守良)의 계본에 의하면 ‘안원보(安原堡)의 권관(權管) 전주남(全周南)은 야인에게 결박당하여 소와 말을 주고 풀려났는데, 이 사실을 굳게 감추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건(事干)을 추문하면 모두 복죄(服罪)할 것이다.’ 하였으니, 관계되는 바가 큰일입니다.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병조가 아뢰는 것을 정부 낭관(政府郎官)을 불러 대신의 의논을 모으게 하라.”

▶ 80권 30년 11월 15일 壬申

壬申/領議政金謹思議曰：“今觀李亨順緘問答辭，以本國人物刷還，應賞彼人名下，各其所出牛馬，秩秩載錄報使云。此言雖難取實，似有理據，而元舜義招辭，前後不同，此亦可疑。恐不可以無據之言，專責取服於亨順，然重事不可遽釋。今聞舜義，其時同坐所見邊驛程，以祥原郡守，承差到京。若竝逮鞫，則可悉的否，不究竟得實，而遽罪方面之人，恐妨事體。且明年重試。例行別舉，待秋行之，則式年秋場，中外果擾。開春設行，上意允當。”左議政金安老議曰：“初聞元舜義與黃琛所言，給行狀貿皮事，至爲駭愕，及見舜義招辭，與前言不同，似有巧節之狀。今觀李亨順緘答，本國人物刷還應賞之人名下，各其所出牛馬之數，開錄報使云。與舜義所供彼人十二名列書，各其名下，牛馬幾匹載錄之言，大概相同。以是而觀，非路引度送之比，不可以此，指爲行狀。舜義前後之言，乖錯如是，其間恐亦有情，亨順所犯，時不著現。今遽拿鞫，終於無實，則徑拿方面，多失輕遽，似甚未安。若以亨順一緘，遽信爲然，而卽釋不問，則事關重大，亦爲未便。舜義之招

乃云：‘與邊驛程同坐見之。’驛程今以祥原郡守，陪箋到京。若賜下問，君父之前，不敢不以實對，其眞僞，可以立辨也。明年重試、例爲別舉，若待秋成，則式年鄉、漢城試，一時並舉，外方儒生，來往煩擾。開春爲之，上教允當。’傳于政院曰：“今觀兩相議同，而邊驛程乃堂下官也。招問於義禁府可也。重試及別試，則明年正二月間，於農前爲之事，卽捧承傳于禮曹。”

영의정 김근사가 의논드리기를,

“이제 이형순(李亨順)이 함문(緘問)에 답한 내용을 보니, 본국 인물(人物)을 쇄환(刷還)한 공로로 상을 받을 야인(野人)의 이름 밑에 상으로 줄 마소를 차례차례 적어서 저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한편 근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순의(元舜義)의 초사(招辭)는 앞뒤가 달라서 의심이 갑니다.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전적으로 이형순만 문책하여 자백을 받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나, 중대한 일이니 가벼이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순의에게 들으니, 그때 같은 자리에서 목격을 한 변한정(邊驛程)이 상원군수(祥原郡守)의 승차(承差)로서 서울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를 함께 잡아다가 국문을 한다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사실은 규명하지 못하고 지레 관찰사를 죄주는 것도 사체(事體)에 해로울 듯합니다.

그리고 내년(來年)에 있을 중시(重試)와 관례(官例)에 따라 거행하는 별시(別試)는 가을을 기다려 거행한다면, 가을에 있을 식년시(式年試)의 과장(科場)이 과연 안팎으로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앞당겨서 봄에 시행하라고 하신 전하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좌의정 김안로는 의논드리기를,

“처음에 원순의와 황침(黃琛)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만, 행장(行狀)을 발급해 주어서 표피를 무역시킨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원순의의 초사가 처음 한 말과 다르니, 거짓으로 꾸민 정상이 있는 듯합니다. 또 이형순의 함답(緘答)을 보니, 본국의 인물을 쇄환한 공로로 상을 받을 사람의 이름 밑에 각기 그들에게 줄 마소의 수효를 기록하여 알렸다고 한 것은 원순의가 진술한, 야인 열 두 사람의 이름을 열서하고 각기 그 이름 밑에 마소 몇 필 씩이라고 기록했다고 한 말과 대개가 서로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노인(路引)을 발급하여 운반시킨 일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이것을 가지고 행장이라고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순의의 앞뒤 말이 이처럼 어긋나니, 그 사이에는 아마도 정실이 있는 듯합니다. 형순의 범법은, 그때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잡아다 국문을 하였다가 끝내 사실이 아니었다면 경솔히 관찰사를 잡아다 추문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 매우 미안할 듯하며, 만약 형순의 한 번의 함답만을 그대로 믿고서 바로 놓아두고 불문에 부친다면 일이 중대한 관계로 역시 온당치 못한 노릇입니다.

순의의 초사에, 변한정과 같은 자리에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한정이 지금 상원군수의 서신을 가지고 서울에 와 있으니, 만약 하문(下問) 하신다면 군부(君父)의 앞에서 감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진위(眞僞)는 당장에 판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來年)에 있을 중시(重試)와 관례대로 거행하는 별시(別試)를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시행한다면, 식년(式年)의 향시(鄕試)와 한성시(漢城試)가 일시에 함께 거행되어 외방 유생들의 내왕이 매우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앞당겨 내년 봄에 시행하라고 하신 전하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보니 두 정승의 의논이 서로 같다. 그러나 변한정은 바로 당하관(堂下官)이니 의금부에서 문초하도록 하고, 중시와 별시는 내년 1~2월 사이의 농사철 이전에 시행할 일로 예조(禮曹)는 즉시 승전을 받들라.”

▶ 81권 31년 2월 6일 辛卯

辛卯/御朝講. 領事金安老曰: “弓矢造作, 固非偶然, 今軍器寺所藏弓矢, 皆無可用之物. 中朝與我國之事相同, 許多郡縣, 皆藏弓矢. 近聞中國以郡縣弓矢, 皆令上之, 使能作者, 改造還下云. 今軍器寺及郡縣所藏弓矢, 亦不可用云. 然所付之角, 則可以用之. 如久陳不可用者, 分與軍士, 擇其可用者, 改造藏之, 其他郡縣所藏弓矢, 亦令改造, 以備緩急. 如其無用之物, 則雖積如山, 何所用哉?” 上曰: “斯言當矣. 去庚午年倭亂時, 官藏弓矢, 皆不可用云. 今當及其不至於已甚, 使之改造可也.”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김안로(金安老)가 아뢰기를,

“궁시(弓矢)의 제작은 결코 범연히 하는 일이 아닌데 지금 군기시(軍器寺)에 소장된 궁시는 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의 사정과 같아 많은 군현(郡縣)에 모두 궁시가 소장되어 있는데, 요즈음에 중국에서는 군현에 소장된 궁시를 모두 거두어 올려서 기능 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 개조(改造)하여 내려 보내게 한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기시와 군현에 소장된 궁시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착된 우각(牛角)은 다시 이용할 수 있으니, 오랫동안 묵어서 쓸모가 없는 것들을 군사들에게 나눠 주어 사용할 만한 것을 골라 개조, 비치하게 하고 기타 군현에 소장된 궁시도 다시 개조하여 만일에 대비하게 하소서. 만약 쓸모없는 물건이라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지당하다. 지난 경오 왜란(庚午倭亂) 당시 관부(官府)에 소장된 궁기 다 쓸모없이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아주 심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개조하게 하라.” 하였다.

▶ 81권 31년 5월 17일 辛未

辛未/憲府啓曰: “御史所捉物件之中, 官廳應在之物, 付標入啓事, 有敎故附標, 而其中應罷者, 亦附標而啓之. 如豐基、醴泉、眞寶、朔州、中和、新溪、大浦, 右守令、萬戶等, 非理橫歛, 事迹明著. 雖推後, 罪應罷免. 知其必罷, 而猶在其職, 作弊必甚, 故其中尤甚者, 付標以啓, 請先罷. 西生浦、唐浦、多慶浦萬戶等, 事干臧滿, 其罪深重, 不無逃躲之弊. 先罷其職, 令各道監司, 別爲堅囚推考. 三陟生牛屠殺事, 至爲駭愕. 亦當先罷, 而但考其年月, 則前府事鄭允謙時事, 故府方出臧推考. 且全羅御史金璽所捉多慶浦現出文書內, 觀察使關子, 羅州居朴承旨、昌平居金都事等處, 材木各五十條, 上下輸

運云. 考其年月, 則丁玉亨爲監司時也. 水使關子, 以兵船材木, 載持上京, 同船隻, 本營回泊云. 考其年月, 則吳世翰爲水使時也. 又水使關子, 羅正字處, 材木輸給云. 考其年月, 則趙賢範爲水使時也. 又水使關子, 羅州居鄭牧使處, 材木三百條, 斫伐輸給云. 且海菜雜物, 分定捧上書目五度內, 或虞候着署, 或水使着署, 考其年月, 則今水使韓珪時也. 大抵水使等, 侵虐各浦, 橫斂雜物, 類多如此, 故各浦防禦軍人, 不堪(支)〔支〕當, 積弊已久, 所當痛治. 況各道材木, 專爲兵船造作, 監司、水使, 專掌禁伐. 今者非徒不能禁止, 乃公然飛關, 令各浦用軍力, 斫伐輸給, 至爲猥濫矣. 吳世翰則已罷矣, 丁玉亨、趙賢範及時任水使、虞候等, 請竝先罷後推. 朴承旨等稱號各人, 推丁玉亨, 則自當現出矣. 現出後推考治罪.” 傳曰: “今觀所啓, 守令等事, 在前所捉, 不止於此, 而既犯私罪, 則意其將罷, 不顧官事, 亦或有猥濫之弊, 故已令先罷, 而前者大臣等, 以先罷爲未便, 故斯速推啓事, 下書于各道監司矣. 然啓意至當. 竝先罷後推. 且監司、水使, 以乃褒貶官, 所當嚴禁, 而身先犯之, 至爲非矣. 亦先罷後推.”

헌부가 아뢰기를,

“어사가 적발한 물건 중에 관청에 응당 있어야 할 물건은 부표(付標)하여 들여와 아뢰라는 교령(敎令)이 있었기 때문에 부표하였고, 그 중에서 응당 파직할 자를 또 부표하여 아뢰니다. 풍기(豐基)·예천(醴泉)·진보(眞寶)·삭주(朔州)·중화(中和)·신계(新溪)·대포(大浦)의 수령과 만호(萬戶) 등은 비리(非理)로 가렴주구 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으니, 뒤에 추고하더라도 응당 파직할 죄입니다. 자기들이 반드시 파직될 것을 알면서 그 직에 그대로 있게 되면 심한 폐단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부표하여 아뢰니, 먼저 파직시키소서. 서생포(西生浦)·당포(唐浦)·다경포(多慶浦)의 만호 등은 장물(贓物)에 관계되어 그 죄가 더욱 중하니 도망할 염려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직을 파면하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별도로 단단히 가두고 추고하게 하소서.

삼척(三陟)에서 멀쩡한 소를 도살한 일은 지극히 해괴한 일입니다. 또한 먼저 파직해야 마땅하나. 그 연월일을 상고해보니 전 부사(府事) 정윤겸(鄭允謙)이 재직해 있을 때의 일이므로, 헌부가 함사(緘辭)로 추고하는 중입니다. 또 전라어사 김미(金甌)가 포착한 다경포에서 발견된 문서 가운데 관찰사의 관자(關子)에는 ‘나주(羅州)에 사는 박 승지(朴承旨)와 창평(昌平)에 사는 김도사(金都事) 등에게 재목 50조(條)씩을 차하[上下]받아 수송하였다.’ 하였으니, 그 연월일을 상고해 보면 정옥형(丁玉亨)이 감사(監司)를 지낼 때의 일입니다. 수사(水使)의 관자에는 ‘병선(兵船) 만들 재목을 싣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그 배가 본영(本營)으로 돌아왔다.’ 하였는데, 그 연월일을 상고해보면 오세한(吳世翰)이 수사를 지낼 때의 일입니다. 또 수사의 관자에는 ‘나 정자(羅正字)에게 재목을 수송하였다.’ 하였으니, 그 연월일을 상고해보면 조현범(趙賢範)이 수사를 지낼 때의 일입니다. 또 수사의 관자에 ‘나주에 사는 정목사(鄭牧使)에게 재목 3백조를 벌목(伐木)하여 수송했다.’ 하였습니니다. 또 분정(分定)한 해채(海菜)와 잡물(雜物)을 봉상(捧上)한 서목(書目) 5장 안에 우후(虞候)가 착서(着署)하기도 하고 수사가 착서하기도 하였는데, 그 연월일을 상고해보면 현재 수사인 한규(韓珪)가 재직할 때입니다. 대저 수사 등이 각포(各浦)를 침학하고 잡물을 횡령하는 것이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포에서 방어하는 군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폐단이 쌓인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더구나 각도의 재목은 오로지 병선을 만들어야 하고 감사와 수사는 오로지 금벌(禁伐)을 주관해야 하는데 요즈음은 잘 금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관자(關子)를 보내 각포의 군력을 사용하여 벌목하고 수송하였으니, 지극히 외람된 것입니다. 오세한은 이미 파직하였고 정옥형과 조현범 그리고 현재의 수사와 우후 등은 모두 먼저 파직된 뒤에 추고하소서. 박 승지 등 호칭된 여러 사람은 정옥형을 추고하면 자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난 후에 추고하여 죄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제 아된 수령 등의 일을 보니, 전에 포착한 것도 이에 그치지 않는데, 이미 사죄(私罪)를 범한 자는 장차 파직될 것을 생각하여 관청 일을 돌보지 않음은 물론 혹 외람된 것을 저지르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 먼저 파직하라 명하였는데, 전일에 대신들이 먼저 파직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하므로 속히 추고하여 아뢰라는 일로 각도의 감사에게 하사하였다. 그러나 아된 뜻이 지당하니 모두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라. 또 감사와 수사는 포폄관(褒貶官)으로서 마땅히 엄금해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하였으니, 매우 나쁘다. 이들 역시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라.”

▶ 82권 32년 4월 15일 癸亥

甲申朔/傳于政院曰: “前者齊陵、英陵行幸時, 以駝酪爲有弊, 故除之. 今亦不進可也.”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난번 제릉(齊陵)과 영릉(英陵)에 거동할 때 타락(駝酪)이 폐단이 된다고 하여 그만두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그만두라.”

▶ 84권 32년 4월 15일 癸亥

禮曹啓曰: “倭人而羅多羅之弟親秋, 昨與東陽東堂, 同詣禮曹, 呈書契曰: ‘亡兄而羅多羅生時, 受爵於貴邦, 而(祀) [死] 【庚午年來在東平館, 熊川倭變起, 懼誅自殺.】葬於貴邦境內. 其子廉滿, 欲襲父爵, 往來貴邦, 而堯奠於父墳.’ 云, 因獻水牛角二十本. 夫廉滿之果爲而羅多羅之子與否, 未可知也, 似難從願. 且其私獻, 不受之故, 却之也.” 傳曰: “啓意至當.”

예조가 아뢰기를,

“왜인(倭人) 이라다라(而羅多羅)의 아우 친추(親秋)가 어제 동양동당(東陽東堂)과 함께 예조에 와서 서계(書契)를 바치기를 ‘돌아간 형이라다가 생존했을 적에 귀방(貴邦)에서 벼슬을 받았고 죽어서는 귀방의 지역 안에 장사했습니다. 【경오년(1510)에 동평관(東平館)에 와 있다가 웅천(熊川)에서 왜변(倭變)이 일어나자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자살했다.】 그의 아

들 염만(廉滿)이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귀방에 왕래하며 아버지의 무덤에 제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였고, 물소뿔 20본(本)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염만이 과연 이라다라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소원대로 들어주기가 어려울 듯하고, 또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받지 않는 법이기에 도로 물리쳤습니다.”

하니, 아뢴 뜻이 옳다고 전교하였다.

▶ 85권 32년 10월 27일 癸酉

安仁曰:

~중략~

“且箭串牧場，祖宗朝朝官宗親，例皆放一匹馬。自安老爲司僕寺提調，柳遠謂安老曰：‘馬若多放，害草甚矣。’安老信之，又不許人刈草。隣人若欲放馬，則納賂于安老而放之。安老坐江亭見之，若所放馬牛，多於納賂人之數，則必問其不賂而放者，嚴治之。柳遠以驢子六七，封項而受安老署標，出入場內，朝夕刈草。遠之家在射廳，故賣於射廳，而他人則不得刈。遠壟斷專利，因此致富。如此事不可殫論。”

이하생략~

윤안인이 아뢰기를, “~중략~ 또 전관(箭串)의 목장(牧場)은 조종조 때에 조관(朝官)과 종친(宗親)이 으레 모두 말 한 필씩을 방목(放牧)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안로가 사복시제조가 되자 유원이 김안로에게 말하기를 ‘말을 많이 방목하면 목초를 많이 상한다.’ 하니, 김안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풀 베는 것까지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말을 방목하고자 하면 김안로에게 뇌물을 주고 방목했습니다. 김안로는 강정(江亭)에 앉아서 살피다가 만일 방목하는 말과 소가 뇌물을 바친 사람의 숫자보다 많으면 반드시 뇌물을 바치지 않고 방목한 자를 물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유원은 나귀 새끼 6~7마리의 목에다 김안로의 서표(署標)를 받아 목장 안을 출입하면서 조석으로 풀을 베었는데, 그의 집이 사청(射廳)에 있었기 때문에 사청에 다 팔면서 다른 사람은 베지 못하게 하여 그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치부(致富)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86권 33년 1월 20일 乙未

臺諫啓曰：“承文院參校鄭熊，性本貪鄙，前爲定州牧使，多斂牛隻，入送義州，貿易唐物，恣行無忌。且抑買同鄉女人田民家舍，累年不償其價，使之(失)〔次〕知訴冤，其貪污無狀甚矣。曾以此啓罷不敘，今陞三品之列，至爲未便，請改正。奉禮禹安國，前爲守令時，多有貪污之事，且人物庸懦癡鈍。奉禮職掌東宮，禮貌一失，其議朝廷瞻視，所關甚重。素以此爲重而擇差，豈可以如此之人，授此任乎？請遞。”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하생략~

대간이 아뢰기를,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 정웅(鄭熊)은 성격이 본래 탐욕스럽고 비루한 데 앞서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있을 때는 우척(牛隻)을 많이 거둬들여 의주(義州)로 들여보내어 중국 물건과 무역을 하면서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같은 고향 여인(女人)의 전민(田民)과 가사(家舍)를 억지로 사들이고는 여러 해 동안 그 값을 치러주지 않고 그로 하여금 원통함을 호소할 데를 모르게 하였으니, 그의 탐욕스럽고 더러운 행위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심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러한 것을 아뢰어 파면시키고 서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3품의 반열에 승진시켰으니 매우 온편하지 않습니다. 개정하소서. 봉례(奉禮) 우안국(禹安國)은 앞서 수령으로 있을 때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많았으며, 또 인물됨도 용렬하고 나약하며 어리석고 둔합니다. 봉례는 직무(職務)가 동궁(東宮)을 관장하는 것으로 예모(禮貌)를 한 번이라도 잃게 되면 조정(朝廷)에서 보고 논의하는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를 중하게 여겨 가려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을 이 직임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체직하소서.”하였다.

이하생략~

▶ 89권 34년 1월 24일 癸巳

癸巳/政府、禮曹同議啓曰: “近來朝倭, 日漸驕悍, 浦所出入時, 伺其便隙, 恣行殺掠. 今若安於姑息, 不爲之所, 則變生不虞, 勢將難圖. 今當通諭島主曰: ‘貴島自爾祖先, 世事我國, 益篤忠悃, 罔敢或貳. 雖中構變故, 國家不較, 曲加寬貸, 凡干接待, 務從優厚, 固宜感戴國恩, 日益輸款, 邇來來朝倭人, 不遵約束, 各乘體船, 【大船也.】又以小船繫後而來. 在前僅容一二人, 只採薪汲水而已, 今則漸大其形制, 左右各設三櫓, 至乘八九, 留浦時, 假稱釣魚取薪, 變服橫行, 殺掠無忌. 如此兇悍之徒, 不必接待, 以害我邊民也. 且凡物貨買賣, 自有其所, 待開市, 顯與商賈, 低昂其直, 固其宜也, 而必(棄)〔乘〕昏夜, 恣行閭里, 潛相買賣, 或被鬪毆. 容有死傷之弊, 甚爲不可. 如此等事, 島主須常遍諭諸島, 使之無復如是也.’ 且潛賣禁物內, 弓矢最重, 而《大典》潛賣禁物條註, 重者如牛馬、焰硝、珠玉之類, 而不及弓矢焉. 若商賈之輩, 唯利是貪, 賣與倭奴, 致使學射, 則果非細慮. 自今潛賣弓矢犯人, 以潛賣禁物重者, 論斷似當. 但待夷之道, 在所羈縻, 邊將等尤爲慎重, 不必遽加討殺, 以開邊釁. 以此意并諭邊將何如?” 傳曰: “知道.”

정부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근래, 조왜(朝倭)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사나와졌습니다. 포소(浦所)를 드나들 때 범행에 편리한 틈을 엿보아 살인과 약탈을 멋대로 행합니다. 만약 우선 귀찮다고 하여 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뜻밖의 변이 생기게 되어 도모하기 어려운 형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기를 ‘귀도(貴島)는 그대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우리나라를 섬겨 오면서 충성을 돈독하게 하여 조금도 두 마음을 먹지 않았다. 한동안 변고를 꾸밈

지만 나라에서는 이를 따지지 않고 더욱 너그럽게 용서했을 뿐 아니라, 모든 집대에 있어서 너그럽고 후하게 하였다. 나라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정성을 쏟아야 마땅하거늘, 요즈음에 내조(來朝)하는 왜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체선(體船)【큰 배임.】을 타고 오거나 또는 작은 배를 뒤에 매달고 왔다. 종전엔 겨우 1~2명이 뿔감이나 식수를 구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점차 커져서 좌우에 노 3쌍을 설치하고 8~9명이 타고 온다. 포소에 있을 때는 고기를 낚는다니 뿔감을 구한다니 핑계하고는 변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흉악한 무리들을 잘 접대하여 변두리에 사는 백성들을 해롭게 할 필요는 없다. 또 물화를 사고파는 것은 장소가 있는 것이니 시장이 서기를 기다려 상고(商賈)와 드러내 놓고 흥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두운 밤을 틈타 골목길을 쏘다니면서 남몰래 서로 팔고 사다가 더러는 매를 맞아 다치고 죽는 폐단이 있으니,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름지기 도주가 각 섬을 두루 깨우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해야 합니다.

또 몰래 파는 금지품 가운데는 활과 화살이 가장 중요한데, 《대전(大典)》 잠매금물조(潛賣禁物修) 주에, 중요한 것으로는 소·말·염초(焰硝)·주옥(珠玉) 따위를 들었을 뿐, 활이나 화살은 들지 않았습다. 장사꾼들이란 오직 이익만을 탐하는 법이므로 그것을 왜노에게 팔아 넘길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활쏘기를 배우게 한다면 그것은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활이나 화살을 몰래 파는 사람은, 금지된 물품 중에서도 중요한 물품을 판 죄로써 논죄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오랑캐를 대처하는 방법은 잘 무마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국경 수비를 맡은 장수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서, 갑자기 토벌하여 죽이거나 함으로써 국경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뜻을 아울러 국경을 지키는 장수들에게도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94권 36년 1월 20일 丁未

丁未/以平安道觀察使書狀,【道內雲山、甌山、郭山、龍岡、江西、中和、陽德、孟山、肅川、咸從、德川、泰川、順安、价川、順川、祥原、永柔、寧邊、慈山、三登、江界、博川、嘉山等官, 牛染病死合計, 三千五百十五頭, 病猶未寢, 連續故失, 不但不能農耕, 江邊運糧等事, 至爲可慮.】下于政院曰: “各官牛隻之死, 至於三千五百餘頭云, 其於農作, 至爲可慮. 牛隻當及農前入送事, 已言于該曹, 而尙未爲公事入啓也. 黃海道亦已下問, 必有所啓聞也. 預先措置事, 言于該曹.”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의 서장(書狀)을【도내의 운산(雲山)·증산(甌山)·곽산(郭山)·용강(龍岡)·강서(江西)·중화(中和)·양덕(陽德)·맹산(孟山)·숙천(肅川)·함중(咸從)·덕천(德川)·태천(泰川)·순안(順安)·개천(价川)·순천(順川)·상원(祥原)·영유(永柔)·영변(寧邊)·자산(慈山)·삼등(三登)·강계(江界)·박천(博川)·가산(嘉山) 등의 관우(官牛)가 염병에 걸려 병사한 합계가 3천 5백 15마리인데 병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농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변에서 식량을 운송할 수도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다.】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각 고을에서 죽은 소가 3천 5백여 마리에 이른다고 하니 농사지을 일이 매우 염려스럽다.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소를 보내 주라고 벌써 해사(該司)에 일렀는데도 아직까지 그에 관한 공사(公事)가 입게되지 않았다. 황해도에도 이미 하문하였으니, 반드시 계문(啓聞)할 일이 있을 것이다. 앞서서 조치할 것을 해조(該曹)에 이르라.”

▶ 94권 36년 2월 1일 戊午

戊午朔/以平安道書狀，下于政院曰：“平安道牛隻前日之死，三千五百十五頭，今之死者，五百九十一頭，合四千餘頭。西方非但關防重地，奉命使臣，繹絡往來。農事失業，誠非細慮，朝廷上下，所共憂念。已令戶曹，賃牛入送，但牛性非如馬，程途遠處，不易下去，而納者必不肯遠赴矣。牛價似歇，而期限亦急。寬其程限，稍優其價，無乃可乎?”

평안도에서 올린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평안도의 소[牛]가 전일 죽은 것이 3천 5백 15마리였고 지금 죽은 숫자가 5백 91마리로 도합 4천여 마리이다. 서쪽 지방은 관방(關防)의 중요한 곳일 뿐만이 아니라 봉명 사신(奉命使臣)의 왕래가 잦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 참으로 사소한 걱정거리가 아니다. 조정의 상하 모두가 함께 근심해야 할 일이다. 이미 호조에게 소를 구입하여 보내주라고 했으나 소는 그 성질이 말과 달라 길이 먼 곳까지 내려 보내기가 쉽지 않으며 그리고 바치는 사람도 멀리 보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소의 값이 너무 싸고 그 기한은 촉박하니 정해진 기한을 늦추고 소값을 다소 넉넉히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94권 36년 2월 1일 戊午

三公啓曰：“平安道牛隻，病斃殆盡，黃海道亦然云。故令戶曹爲公事賃牛，更聞之，平安道農作，有異於他道，雖入送此處之牛，二三年之內，難習彼地之耕云。又聞於本道之人，牛之病，非比屋皆然，或有十頭而盡斃之家，又有全不病死之家云。令其道監司，推移有無而耕作，使不失業何如?” 答曰：“啓意至當，斯速下書可也。但牛疫未殄，縱有不死之家，不無傳染之害，亦令戶曹，預爲措置.”

삼공이 아뢰기를,

“평안도 소들이 거의 대부분 병으로 죽었고 황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호조로 하여금 공사(公事)를 만들어 소를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으니, 평안도의 농사 일은 다른 도와 달라서 이곳의 소를 보내 주더라도 2~3년 안에 그곳의 밭갈이에 익숙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본도의 사람에게 들으니 ‘소의 병은 집집이 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열마리의 소를 키웠는데 모두 병들어 죽은 집도 있고 또는 한 마리도 병으로 죽지 않은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소를 서로 변통하여 농사를 짓게 하여 생업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지당하다. 속이 이러한 뜻을 써서 내려보내라. 단, 우역(牛疫)이 멈추지 않고 있으니 비록 소가 죽지 않은 집이 있다고 해도 전염될 염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호조로 하여금 미리 조치하게 하라.”

▶ 94권 36년 3월 15일 辛丑

辛丑/上將迎訪大臣, 先傳于領議政尹殷輔等曰: “切民之災, 莫重於旱乾, 旱乾則民失食也. 國之大事, 在於祭祀. 牛羊豕, 則大牢之物, 而無故多斃. 予慮祭祀不謹故也. 予以否德, 承國運之中否, 因臣民之推戴, 于今三十六載之間, 疵政非一, 風俗日下, 無一事可取矣. 予姑以私言之, 廢朝非如平常之時, 每從扈駕, 不計隆冬夜半, 冒風雪無從人, 而匹馬奔馳於禁標之內, 豈無風疾乎? 故予視事, 漸不如卽位之初, 於心未安也. 在戊戌年, 欲倣祖宗朝故事【欲傳位于世子, 而未果也.】者, 若天使出來, 則接待恐多失禮之事也. 上有災變, 下致民困, 豈不關於予身乎? 予之此言, 非欲如戊戌年事也. 不安於懷, 而敢言. 雖日日講求治道, 而不先有意於挽回世道, 則其餘皆區區之末事也. 人心風俗之不美, 非無端而致也. 往者權姦用事, 少不協己意者, 必構成陷之, 故人不能自保, 而終至於變革也. 今雖不如舊時, 然豈可盡變乎? 在祖宗朝, 人雖有顯過, 推覈其實, 然後罪之, 故受罪者甘受, 人亦無他議也. 今時則一發於言論, 不覈而罪之, 故構成虛事中之, 而小人爭窺於其間. 非徒人心之不淳, 大致刑政之誤也. 豈不傷和而召災乎? 大抵凡事, 出於物論, 而自上止之, 則有妨言路. 小事, 不足言矣, 如黯黹難明之大事, 則持論者, 必先審其的否而治之, 則非徒受罪者甘受, 構成虛事者, 恐露其奸, 不爲虛事, 風俗美矣. 且儒生之疏, 有博採廷議之言, 是也, 撤寺已試於京畿、全羅道, 而未見僧徒之漸少, 反致盜賊之紛紜. 予意以爲, 不先使僧人歸俗, 而徒毀寺刹故也. 疏語雖多過越, 亦不咎也. 但今農務方劇, 有此不急之擾, 則人情所不便, 朝廷必有善策矣.” 仍御思政殿, 尹殷輔曰: “近來旱災甚迫, 自上軫念, 固無所不用其至, 而臣等亦不遑暇寐, 講求弭災之方, 而未得其計. 引咎責躬, 雖近於文具, 而不可不爲也. 牛羊豕, 大牢所用, 而多致病斃, 未知由於某事之失也. 聖教以爲, 不謹祭祀之由, 其爲慮至矣, 又慮天使出來, 則恐致失禮. 前者天使接待時, 下人雖有失禮, 而自上無少差也. 今并舉戊戌之事而言之, 臣等之心, 至爲未安. 前者權姦用事時, 異於己者, 構成陷於罪, 故人皆自危, 而恐不得保全, 衆心洶洶, 今則蕩滌, 更安有如此之事乎? 大抵人有作罪者, 推覈得實而罪, 則受罪者甘受其罪, 而無怨辭, 人亦無議矣. 雖小罪, 必須得情而罪之, 然後自無冤憫也. 先罷後推, 未便之意, 前亦啓之矣, 初以爲有罪而罷之, 其後推之, 則竟至無罪, 而不當罷者, 亦或有之. 況黯黹難明之事, 尤當先知虛的而治罪, 則謀害之人, 亦恐其謀之敗露, 而無所用其術矣. 然則風俗歸厚, 而冤枉自無矣. 儒生等連日伏闕抗疏, 每以爲失信而陳辭. 果己亥年上疏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撤寺之日, 秋以爲期, 適年凶, 前年亦失農, 故其令不行. 失信之言, 以儒生觀之, 其似不虛也. 儒生之累日抗章, 固不得已也. 但以前日燒棄材瓦, 而不用爲誤, 則今可撤毀, 用之於院宇公廨修理處也. 但八道之民, 時方飢困, 用民撤毀, 此非其時也. 儒生累日伏闕, 必不卽止. 以待年運, 當毀撤事, 下諭儒生, 則必將快然自退矣.”

~중략~

左參贊權機曰: “連年有旱災, 而今年則三冬無雪, 歷春不雨, 其爲災變也極矣. 牛羊之疫, 古則或發於一村, 而今年平安、黃海、京畿等道, 皆致病斃. 上敎云: ‘大牢所用’, 而 生民命脈, 亦在於耕牛, 乃大變也. 天意未可知也. 古云: ‘政失其道, 寒陰爲災.’ 冬暖春寒, 草木不榮, 其失序若此. 《傳》曰: ‘春無淒風, 秋無苦雨.’ 前年當發穗之時, 大雨, 而去去年, 亦多秋雨. 天時年年失序, 未知某事之應也, 人怨天怒, 至爲恐懼. 大抵臨災修省, 恐未及也. 獄訟政理, 講究於平時, 使人心不乖戾, 則天道順也. 兵家云: ‘當如敵至.’ 《詩》云: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此下民, 或敢侮予.’ 當思患而預防之可也. 自己卯以後, 有罪無罪, 受罪者多矣. 蕩滌之後, 因上言放之, 而未放者亦多. 議于廟堂, 酌其罪之輕重, 時之遠近, 而處之可也. 昔者人君, 因旱放宮女、伸冤獄. 方今無畋遊荒淫之事, 但王子駙馬之家, 過制之事, 人皆以爲未便也. 或以爲過於成廟朝王子女之家遠矣. 昔陰氏云: ‘吾子女, 豈與先帝之子等乎?’ 宮室之壯, 過於先王子女, 亦不可也. 古者薄葬而不侈, 今則陵寢事, 執事者, 務加一等, 其弊亦多. 如此之事, 皆於平時, 講究善處, 使人心和平, 則必無災沴.”

이하생략~

상이 대신을 연방(延訪)하려다가 먼저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등에게 전교하기를,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피해를 주는 재앙으로는 가뭄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가뭄이 들면 백성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의 큰일은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소·양·돼지는 바로 대뢰(大牢)로 쓰이는 희생(犧牲)인데 까닭 없이 많이 죽으니, 내가 제사를 조심스럽게 만들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염려된다. 내가 부덕(不德)한 자질로 국가의 운명이 중도에 비색해졌을 때에 신민(臣民)의 추대로 계승하여 지금까지 36년이 되었는데 결함 있는 정치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풍속이 날로 나빠져 취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내가 우선 내 개인적인 일로 말하겠다. 폐조(廢朝) 때는 평상시와 달리 늘 호가(扈駕)하였고 추운 겨울이나 밤중인 것도 헤아리지 않고 바람과 눈을 무릅쓴 채 따르는 사람도 없이 말을 타고 금표(禁標) 안을 치달렸으니, 어찌 풍질(風疾)이 없겠는가? 때문에 내가 정사를 봄에 있어서 점차로 즉위한 처음과 같지 않으니 마음에 편치 못하다. 그래서 무술년에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를 모방하려고 한 것은 【세자에게 왕위를 전하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약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면 접대하는 데 예를 잃는 일이 많을까 염려해서이다. 그러나 위로는 재변이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으니 어찌 나와 관계가 없겠는가? 나의 이 말은 무술년의 일과 같이 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편치 않기 때문에 감히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날마다 다스리는 도리를 강구하더라도 먼저 세상 사람이 지켜야 할 도의(道義)를

바로잡는 데 뜻을 두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모두 보잘것없는 말단의 일들이다. 인심과 풍속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까닭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번 권간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은 기어코 죄를 만들어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보전할 수 없어 마침내 인심이 바뀌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이 비록 옛날과 다르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모조리 바뀌었을 수야 있겠는가? 조종조에서는 두드러진 잘못을 저지른 자라도 그 사실을 신문하고 조사하여 실상을 캐낸 뒤에 그를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람도 달갑게 받으며 물의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한 번 언로(言路)에서 발설이 되면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거짓 일을 엮어 뒤집어씌우며 소인(小人)은 다투어 그 틈을 엿보니, 인심이 순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정(刑政)도 매우 그르치게 되었다. 이 어찌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부른 까닭이 아니겠는가? 모든 일은 대체로 물론(物論)에서 나오는데, 위에서 그것을 금지시키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작은 일은 말할 것이 아니지만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큰일인 경우는 주장하여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먼저 사실 여부를 살펴서 다스린다면 처벌을 받는 자가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거짓 일을 꾸며서 만든 자도 그 간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거짓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풍속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유생의 상소에, 조정의 의논을 널리 채택하라 하였는데 옳은 말이다. 사찰을 철폐하는 것은 이미 경기와 전라도에 시행하였는데 승도(僧徒)가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도적들만 성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먼저 중들을 환속(還俗)시키지 않고 한갓 사찰만 헐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다. 상소의 내용 가운데 지나친 말이 많지만 타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은 농사일이 한창 바쁜 때인데 그다지 급하지도 않은 일로 소란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이다. 조정에서도 반드시 좋은 계책을 세울 것이다.”

하고, 이어 사정전에 나아갔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요즈음 가뭄의 재해가 매우 절박하여 위에서 진념(軫念)하심이 참으로 극진합니다. 신들도 한가하게 잠잘 겨를이 없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그 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자신을 나무라는 일이 형식에 가까운 것이긴 해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양·돼지는 대뢰(大牢)의 희생으로 쓰이는 것인데 많이 병들어 죽었으니, 무슨 일을 잘못된 데서 말미암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상의 전교에, 제사를 조심스럽게 지내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그 염려하신 것이 지극합니다. 또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면 예모(禮貌)를 잃을까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아랫사람은 예모를 잃은 일이 있었으나 위에서는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술년의 일을 아울러 거론하셨는데, 신들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습니다.

지난번 권간이 권력을 휘두를 때에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자는 꾸며서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면서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인심이 몹시 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끗이 씻어버렸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신문하고 조사하여 실정을 캐어서 처벌한다면 처벌받는 사람도 달게 여겨서 원망하는 말이 없고 물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실정이 밝혀진 다음에 처벌해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파면시키고 나서 추고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뜻을 앞서도 아뢰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있다고 여겨서 파면부터 시키고 나서 추고해 보면 결국 무죄임이 드러나 부당하게 파면된 자가 더러 있습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 더구나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은 먼저 그 사실 여부를 캐낸 다음 죄를 다스린다면 모해하는 자도 그 계책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것이며 술책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풍속이 후덕(厚德)해져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유생들이 날마다 대궐에 엎드려 상소를 올리는데 매번 위에서 신의를 저버렸다는 내용을 진술합니다. 과연 기해년 상소를 올렸을 때에 사찰을 철거시키는 시기를 가을로 기약했었는데, 마침 그해에 흉년이 들었고 지난해에도 실농했기 때문에 그 영(令)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생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를 저버렸다는 말도 일리가 있으며, 유생들이 여러 날 동안 소장을 올리는 것도 진실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날에 재목과 기와를 태워버리거나 내다버려 활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에는 철거한 것을 원우(院宇)나 공해(公廨)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팔도(八道) 백성이 온통 굶주리고 곤궁한 지금 백성의 힘을 빌어 철거한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생이 여러 날 대궐에 엎드려 있는데 곧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 연운(年運)을 기다려 철거하겠다는 것으로 유생들에게 유시를 내리시면 반드시 쾌히 물러갈 것입니다.”

~중략~

좌참찬 권벌(權機)은 아뢰기를,

“해마다 가뭄의 재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삼동(三冬)에 눈이 내리지 않았고 봄이 다 가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재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소와 양의 전염병은 옛날에는 간혹 한 군데 정도로 발생하였는데 금년에는 평안도·황해도·경기 등지에서 모두 병들어 죽었습니다. 상의 분부에 ‘대뢰(大牢)로 쓰이는 것이다.’라 하였고, 백성들의 명맥도 농우(農牛)에 달려 있으니 큰 변고입니다. 하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옛말에 ‘정치가 그 도리를 잃으면 날씨의 이변이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겨울이 따뜻하고 봄날이 추워서 초목에 꽃이 피지 못하니 그 질서를 잃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전(傳)에 ‘봄에는 거센 바람이 불지 않고 가을에는 궂은 장마가 없다.’ 하였는데, 작년에는 이삭이 켈 시기에 큰비가 내렸으며 재작년에는 가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천시(天時)가 해마다 질서를 잃는 것이 어떤 일의 응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하늘의 노여움은 매우 두려운 것이니, 재변이 닥쳤을 때에는 반성하고 수양하기를 행여 미치지 못할 듯이 하고 옥송(獄訟)과 정사(政事)를 평상시에 강구하여 인심을 어긋나게 하지 않으면 천도(天道)가 순조로워집니다. 병가(兵家)에서는, 마땅히 적(敵)이 이른 것같이 하라고 하였으며, 《시경(詩經)》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기 전에 뽕나무의 뿌리를 가져다 출입하는 문들을 동여매면 하토(下土)의 백성들이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하였으니, 마땅히 환란을 생각하여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기묘년 이후로 죄가 있거나 없거나 처벌을 받은 자가 많습니다. 죄를 탕척시킨 뒤에도 상언(上言)에 의해 석방했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자도 많습니다.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그 죄의 경중과 시기의 원근(遠近)을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 임금의 가뭄이 들면 궁녀를 놓아 보내고 원통한 옥사(獄事)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위에서 사냥과 놀이를 일삼거나 주색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만, 왕자와 부마의 가옥이 제도에 지나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온당하지 않게 여깁니다. 더러는 성종조 왕자와 왕녀의 가옥보다도 훨씬 지나치다 합니다. 옛날 음씨(陰氏)가 ‘나의 자녀를 어찌 선제(先帝)의 자녀와 같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듯이, 궁실도 선왕(先王) 자녀의 것보다 웅장하게 해서

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장례(葬禮)를 박하게 치르고 사치스럽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능침(陵寢)의 일은, 주관하는 사람이 한층 더하기를 힘쓰니 그 폐단 또한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 평상시에 강구하고 잘 처리하여 인심을 화평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재변과 요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하생략~

▶ 94권 36년 3월 20일 丙午

丙午/御朝講. 上曰: “國之大事, 莫重於祭祀. 奉常寺官員, 不謹而有誤事, 則臺官當糾檢事, 昨已議之矣. 大抵凡祭, 不謹不潔, 則誠敬缺而神不歆也. 典祀官, 例不親受祭物而陪去, 委諸下人, 而或先或後, 祭物之不精, 其勢亦然也. 且祭官, 飲酒於齋所, 或有顛仆者云. 臺官當嚴加糾察, 如有不謹者, 告諸法司, 而治之可也. 旱災之甚, 無如今時. 豈有三月前祈雨之時乎? 災變若是, 而癘疫方熾, 非但人物疫死, 犧牲多斃, 近日, 黑牛亦染病而死. 祭享之物, 至於如此, 甚可慮也. 若以病斃之數, 支定民間而充數, 則爲弊不貲, 其憂大矣. 召災之由, 未知何故, 而審理冤獄爲上. 今禁府所囚推納布人, 轉相援引, 至六十餘人. 方愼刑之時, 不可滯囚於詔獄, 自有刑官可推, 故移于刑曹也. 其中有罪者已矣, 事干之人, 速爲分揀, 或保放、或處決, 而審理其冤, 斯可也. 且京外罪囚, 以疑事受刑者頗多. 若有疑獄, 書啓而與大臣議之可也. 婚姻、喪事, 過奢之弊, 上下孰不知之? 但婚家之事, 未得詳知, 而無可禁之路. 一一禁之似難, 令禮曹禁之可也.” 大司諫洪暹曰: “自上遇災除弊, 納諫好訪, 可謂至矣. 臣聞侍從、臺諫之言, 自上無未盡之事, 而王子第宅及引納之弊, 不克痛革, 是可憂悶云. 若不革此弊, 則累聖治大矣. 卽位日久, 此正治化大興之時, 而疵政尙多, 臣恐未盡之事或多也. 雖每欲上章極言, 而天聽邈然, 故不果也. 今者無遊畋之樂, 絕聲色之娛, 而唯此等事, 不克矯弊, 恐累聖德.” 上曰: “第宅之事, 材木間閣, 皆有其法矣. 其間未知何緣而過制也, 更加申明禁之可也. 引納事, 非強欲爲之, 且於內用, 無此事. 前者天使時、祭享時, 不得不爲也, 非自內引納也. 如市裏貿易, 若不繁, 則不爲可也. 此則戶曹當斟酌爲之之事也.” 領事尹殷輔曰: “產材各官, 材木已盡, 山藪童楮. 間閣不可踰制也. 忠清道則越鳥嶺伐取, 江原道則踰彌時坡斫來, 皆逆曳轉輸于峻嶺, 一木之輸, 其弊可想. 以此, 產材各官之民, 流亡殆盡, 曠城多矣. 若減間閣及材木尺數, 則其弊少也.” 上曰: “木則隨其長短, 用之可也.”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큰일은 제사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다.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삼가지 않아 그 르치는 일이 있으면 대관(臺官)이 당연히 규찰하여 단속할 것으로 어제 이미 의논하였다. 대저 모든 제사에 삼가지 않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정성과 공경스러움이 결여되어 신(神)이 흠향하지 않는다. 전사관(典祀官)이 준례대로 직접 제물(祭物)을 받아서 정중하게 가지고 가지 않고 하인들에게 맡기고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니, 제물이 정결하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않은 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또 제관(祭官)이 제계(齋戒)하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더러 쓰러지는 자가 있다고 하니, 대관이 마땅히 철저히 규찰하여 만일 조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법사(法司)에 보고하여 다스리게 해야 한다.

가뭄의 재해가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다. 어찌 3월 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때가 있었겠는가? 재변이 이와 같은데다 여역(癘疫)마저 한창 치성하여 사람만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희생(犧牲)도 많이 죽었다. 요즘에는 흑우(黑牛)도 병에 전염되어 죽는데 제향(祭享)하는 물건이 이러하니 매우 염려스럽다. 만약 병이 들어 죽은 숫자를 민간에게 배정(配定)하여 수를 채우게 한다면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큰 근심거리이다.

재변을 불러들인 연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원통한 옥사(獄事)를 심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금부(禁府)에 간혀 추문받고 있는, 베[布]를 납입해야 할 사람이 돌러가면서 서로 끌어댄 사람이 60여 명에 이르렀다. 지금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하는 때를 맞아 오랫동안 조옥(詔獄)에 가두어 체류시켜서는 안 된다. 으레 형관(刑官)이 있어 추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조(刑曹)로 넘기게 하였다. 그 가운데 죄가 있는 자는 그만이었으나 사간(事干)은 빨리 분간(分揀)하여, 보방(保族)도 하고 처벌도 하여 원통한 것을 자세히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경외의 죄수 중 의심스러운 일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자못 많으니, 만약 의심스러운 옥사(獄事)가 있으면 서계(書啓)하게 하여 대신들과 의논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婚姻)과 상사(喪事)를 지나치도록 사치스럽게 하는 폐단은 상하 그 누가 모르겠는가? 다만 혼인하는 집안의 일은 상세하게 알 수 없어서 금지시킬 방법이 없으니, 죄다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조(禮曹)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대사간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위에서 재변을 당하여 폐단을 제거하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하문하기를 좋아하니, 지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시종(侍從)과 대간(臺諫)의 말을 들으니, 위에서는 미진한 일이 없는데 왕자(王子)의 제택(第宅)의 인납(引納)하는 폐단을 통렬하게 개혁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걱정스럽고 민망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폐단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성치(聖治)에 커다란 누(累)가 될 것입니다. 즉위한 지 오래되었으니 지금은 바로 정치와 교화가 크게 일어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사에 아직도 결점이 많으니, 신은 아마도 미진한 일이 많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늘 글을 올려 극력 진달하려고 하였지만 천청(天聽)이 아득히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냥하며 즐기는 것도 없고 음악과 여색(女色)도 끊으셨는데, 오로지 이 일만은 폐단을 바로잡지 않으시니 아마도 성덕(聖德)에 누가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택에 대한 일은 재목과 칸수가 모두 법도(法度)로 정해져 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제도에 지나쳤는지 모르겠다. 다시 거듭 밝혀서 그것을 금하게 해야 한다. 인납(引納)하는 일은 역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내(大內)에서 쓰는 데는 이런 일이 없다. 지난번 중국 사신이 왔을 때와 제향(祭享)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요, 대내에서 인납하게 한 것이 아니다. 저자에서 무역하는 것은 긴급하지 않은 것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호조에서 짐작해서 할 일이다.”

하였다. 영사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에도 재목이 이미 다 없어져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칸수를

제도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청도인 경우는 조령(鳥嶺)을 넘어가서 베어 와야 하며, 강원도의 경우는 미시파(彌時坡)를 넘어가서 베어 오니, 모두 끌고서 높은 재를 넘어 운반하게 됩니다. 한 개의 나무를 운반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의 주민들이 정처 없이 떠나버려 거의 비어 있는 성(城)이 많습니다. 만약 칸수와 재목의 척수(尺數)를 줄인다면 그러한 폐단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나무는 그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활용해야 된다.”

▶ 96권 36년 9월 12일 乙未

乙未/傳于政院曰: “予觀失農各官書啓, 八道皆如是, 民生艱苦至矣. 市上米貴, 近來尤甚. 秋成若是, 明春可知. 救荒等事, 則戶曹及賑恤廳, 勉力圖之, 近者常平倉, 意欲分給, 而戶曹止之. 如此之時, 無乃舉行乎? 頃者大臣等, 請軍士祿俸給之者, 市價由此而增也. 可食之米, 給之然後, 市米可補也. 減省公事, 已啓下矣, 其後各司提調, 還請不減云. 不得已不減事則已矣, 不緊之事則還減可也. 且京外農牛多死, 明年耕種之事, 甚可慮, 計無措置矣. 古云, ‘一民飢, 曰我飢之; 一民寒, 曰我寒之.’ 此人君念民之意也, 予甚憂慮焉.”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실농(失農)한 각 고을의 서계(書啓)를 보았다. 팔도가 모두 이와 같으니 민생의 고통이 심하다. 저자의 쌀이 귀한 것이 근래에 가장 심하다. 가을이 이와 같으니 내년 봄을 알 만하다. 구황(救荒) 등의 일은 호조와 진휼청(賑恤廳)이 힘써 도모하라. 근래에 상평창(常平倉)이 곡식을 분급(分給)하려고 하였는데, 호조가 중지시켰다. 이와 같은 때에 거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난번 대신들이 군사(軍士)에게 녹봉(祿俸)을 지급하자고 요청하였으니, 이렇게 한다면 시가(市價)가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오를 것이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지급하여야 저자의 쌀이 보충될 것이다.

공사(公事)를 줄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계하(啓下)하였다. 그 후 각사의 체조(提調)는 줄이지 말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부득이 줄일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별로 긴급하지 않은 일은 감하는 것이 옳다. 또 서울과 지방의 농우(農牛)가 많이 죽으니 내년의 농사일이 매우 걱정되지만, 아무런 조치할 방도가 없다. 옛말에 ‘한 백성이 굶주리면 내가 곧 주리고, 한 백성이 추우면 내가 곧 춥다.’ 하였으니 이는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는 뜻이다. 내가 매우 우려한다.”

▶ 96권 36년 10월 18일 庚午

庚午/傳于政院曰: “祭用犧牲, 染病故失者頗多, 中外如一. 該司亦不得救療, 責納價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物於各官，而故失如此，則徒貽弊百姓而已。前者分養于近京各官，臨時取用事，下教矣。其後未知舉行，問于該曹。”政院以禮曹意啓曰：“近京各官，牛疫尤甚，故不得分養。前者園墻牢固，各司移養，而今則在於太平館。觀其疫氣，移養何如？不小祭享犧牲，留養外方未安。”傳曰：“有錢穀各司分養事，如所啓。”

정원에 전교하기를,

“제사에 쓸 희생(犧牲) 중에 병들어 죽은 것이 자못 많은 것은 중외가 마찬가지인데, 해사(該司)도 병을 고치지 못하므로 각 고을에서 대가가 될 물건을 바치도록 요구하나, 죽은 것이 이처럼 많으니 백성에게 폐해를 끼칠 뿐이다. 전에 서울에서 가까운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길러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쓰라고 하였는데, 그 뒤로 거행하는지 모르겠다. 해조에 물으라.”

하였는데, 정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서울에서 가까운 각 고을은 소의 병이 더욱이 심하므로 나누어 기르지 못하였습니다. 전에는 담이 튼튼한 각사(各司)에 옮겨 기르다가 이제는 태평관(太平館)에 있는데, 병의 기세를 보아 옮겨 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지 않은 제사에 쓸 희생을 외방에 두어 기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전곡(錢穀)이 있는 각사가 나누어 기르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 96권 36년 11월 2일 甲申

政院以禮曹堂上意啓曰：“卽位一二年間，遼東求請之物不多，只求笠子等物，厥後所求漸煩，比年來行次煩數，而每行求請，其數不少，如綿紬等物，不得已貿易于市裏，其弊甚多。雖送于此行，亦必更求於後，則無窮之弊，不可不慮，故議于大臣，而今行卒迫，未及備送。當送于後行事，爲公事以啓，不得已，今行次當送乎？更取稟。且猪口病斃之事，臣等亦爲憂悶。不小犧牲之用，如此多斃，此莫大之災，至爲驚愕。牛疫則猶或用方法以治之，如猪則無方可治，未知何以爲之？且罪倭狎來倭人，昨日饋享于本曹，而倭人自言曰：‘宗太郎，只持邊將了書契而來，吾等則持禮曹書契而來，與太郎接遇，同禮何也？’答曰：‘宗太郎，多押罪人而來，故差減於特送之例，而已皆優待之事也’云。且前日，以邊民與倭人，交相貿易，必有明文。其有明文者，雖不一一推問，幸因言端，問其有明文與否事，有傳教，故昨日倭人以謂，島主向其本國，盡其誠心，不偶然爲之云，因其言答之曰：‘我國亦待汝島主，甚款厚，至於邊民，有或與汝等相爲欺瞞者，特加重典’云，而其端無有明文之言，故更不問也。”

정원이 예조 당상(禮曹堂上)의 뜻으로 아뢰었다.

“즉위하신 지 1~2년간은 요동(遼東)에서 갓[笠子] 등의 물건만 요구해 왔는데, 그 뒤로

요구해 오는 것이 점점 빈번해지더니 근래에는 왕래가 잦으면서 올 때마다 청구하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명주[綿紬] 등의 물건은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사서 주다 보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이번 길에 보내 준다 해도 뒤에 다시 요구해 온다면 끝없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번 길에는 갑자기 준비하여 보낼 수 없으니 다음 길에 준비하여 보낼 것으로 공사(公事)를 작성하여 아뢰었는데, 어려울지라도 이번 길에 보내야겠습니까? 다시 아뢰입니다.

또 돼지가 병들어 죽는 일에 대해서는 신들도 걱정이 됩니다. 중대한 제물(祭物)로 쓸 희생이 이처럼 많이 죽으니, 이는 막대한 재앙이라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소의 전염병[牛疫]은 치료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돼지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 지은 왜인(倭人)을 압송해 온 왜인에게 어제 본조(本曹)에서 음식을 접대하였는데, 왜인이 말하기를 ‘종태랑(宗太郎)은 변방 장수의 문서만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예조의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어째서 태랑과 같은 대접을 하는가?’라고 하기에 ‘종태랑은 죄인을 많이 압송해 왔기 때문에 특송사(特送使)의 관례에서 차감(差減)했을 뿐이니 모두 우대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난날 변방 백성들이 왜인들과 서로 무역(貿易)을 할 때에 반드시 문서가 있었을 것이니, 그 문서가 있는 자를 하나하나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혹 말 끝에 그러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도록 하라는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왜인이 ‘대마도주가 그 본국에 대해서 성심(誠心)을 다하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므로, 그 말에 따라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도 너희 대마도주에게 매우 후하게 대하고 있다. 변방의 백성들이 혹 너희들을 기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히 중법(重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들에게서 문서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에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 96권 36년 11월 4일 丙戌

傳于政院曰: “見禮曹單子, 犧牲又斃十四口. 不小祭用犧牲, 不多日之內, 多斃至此, 誠非細故. 前見京畿監司【林百齡.】書狀, 廣州牛隻羔猪, 多致故失. 令醫員齋藥救療, 牛則或死, 而猪與羔羊, 則全不死云. 以藥救之, 則亦可救也. 又一處多養, 故如此也. 各司分養一二口何如? 以此言于禮曹可也.”

정원에 전교하였다.

“예조에서 올린 단자(單子)를 보니 희생(犧牲)이 또 14마리나 죽었다 한다. 중대한 제사에 쓸 희생이 며칠 사이에 이토록 많이 죽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전에 경기 감사(京畿監司) 【임백령(林百齡).】의 서장(書狀)을 보니 ‘광주(廣州)에서 소·양새끼·돼지가 많이 죽으므로 의원(醫員)을 시켜 약을 주어 치료하게 하였더니, 소는 혹 죽기도 하지만 돼지나 양 새끼는 전혀 죽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약으로 치료하면 살릴 수도 있다. 또 한 곳에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 각사(各司)에서 한 두 마리씩 나누어 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뜻을 예조에 말하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96권 36년 11월 17일 己亥

政府、六曹、漢城府堂上全數、知邊事宰相等，承命詣賓廳，啓曰

~중략~

殷輔、仁鏡又啓曰：“犧牲故失，上意以爲，不謹祀事之所致。自上孝誠極至，而念及於此。非但犧牲爲然，如馬畜野獸等亦死，而常時觀察使啓本云：‘牛疫相染而死。’然聞民間，以牛死告官，則官徵其筭，故鮮有告者。其告而啓本者，僅五分之一，大抵雜畜多死，恐非不謹祀事之所致也。年運凶荒，自上宵旰憂勤，聖慮無所不至，而下教至此，臣等亦安敢有怠慢之心哉？但資器暗劣，不能小補國事，常懷兢悚耳。”答曰：“啓意皆知道。但卿等以爲，上官未能知下官所爲之事，在所可恕，然全州判官，【具壽延.】特爲殘酷而殺吏，公州判官，【尹彥正.】亦於三日內，屢爲濫杖而殺之。其上官【全州府尹南世健、公州牧使李若氷.】皆不能檢制，今已推考。所失如彼，而安然在職，似爲未便。故予意欲遞而問之耳，非至欲罷之也。今議以爲不當遞云，無乃不知予意乎？更議以啓。”

이하생략~

정부와 육조·한성부의 당상 전원과 변경(邊境)의 일을 잘 아는 재상들이 명을 받들어 빈청에 나와 이르기를,

~중략~

윤은보와 윤인정이 또 아뢰기를,

“희생(犧牲)이 죽는 것이 상께서는 제사의 일을 삼가지 않은 소치라고 여기시지만 상의 효성이 지극하여 그 같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희생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말이나 기타 가축과 들짐승들도 죽습니다. 그러기에 보통 때에도 관찰사의 계본에 ‘전염병이 돌아 소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민간에서 소가 죽었다고 관청에 보고하면 관청에서 소의 힘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가 적고 보고해도 계본에 쓰는 것은 겨우 5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대체로 잡축(雜畜)이 많이 죽는 것을 보면 제사의 일을 삼가지 않은 소치가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 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근면하시어 성상의 걱정이 지극하시고 하교가 이 같으니 신들 또한 어찌 감히 태만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다만 인품이 못나고 어두워서 국사를 조금도 돕지 못하니 언제나 두렵고 죄송할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을 알았다. 다만 경들이 상관(上官)은 하관(下官)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용서해야 한다고 하나, 전주 판관【구수연(具壽延).】이 잔혹하여 부하 아전을 죽였고 공주 판관【윤언정(尹彦正).】도 3일 동안에 여러 번 형장을 써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상관들【전주부윤 남세건(南世健)과 공주목사 이약빙(李若氷).】은 단속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추고하였다. 실수가 그런데도 태연히 그 직에 있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하기에 체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물었던 것이며 파직까지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의논이 체직은 온편치 못하다고 하는데 나의 뜻을 잘 몰라서인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하생략~

▶ 96권 36년 11월 24일 丙午

平安道內，牛隻染病故失，去八月十七日馳啓後，各官所報：熙川一百六十八首，德川三十六首，雲山三十二首，龍崗三百六十七首，甑山二十五首，江西一百二十首，咸從一千一百三十七首，義州二十三首，合一千九百九首。監司尙震狀啓也。

평안도내의 소가 병들어 죽는다고 지난 8월 17일 치계(馳啓)한 뒤로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회천(熙川)이 1백 68마리, 덕천(德川)이 36마리, 운산(雲山)이 32마리, 용강(龍岡)이 3백 67마리, 증산(甑山)이 25마리, 강서(江西)가 1백 20마리, 함중(咸從)이 1천 1백 37마리, 의주(義州)가 23마리 등 모두 1천 9백 9마리라고 감사 상진(尙震)이 장계(狀啓)하였다.

▶ 97권 36년 12월 17일 戊辰

江原道安峽、金城、淮陽等官畜猪，及咸鏡道高原、永興、定平、洪原等官牛隻，多疫死。

강원도 안협(安峽)·금성(金城)·회양(淮陽) 등의 고을에서 기르는 돼지와 함경도 고원(高原)·영흥(永興)·정평(定平)·홍원(洪原) 등의 고을에서 기르는 소가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다.

▶ 97권 37년 1월 4일 乙酉

乙酉/臺諫啓前事。憲府又啓：“近來四學官員等，無意教誨，儒生專不聚會，學舍常空，故典僕，日以殺牛爲事，積骨成丘，而略不禁止。各學掌務官等，請罷，以革其弊。”答曰：“學官員等，不禁典僕殺牛，積骨成丘，至爲不當，如啓罷職可也。餘不允。”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요사이 사학(四學)의 관원들이 교회(敎誨)하는 데 뜻이 없어 유생(儒生)들이 전혀 모이지 않아 학사(學舍)가 늘 비기 때문에, 전복(典僕)들이 날마다 소 잡기를 일삼아 하여 뼈가 구릉(丘陵)처럼 쌓이게 되었는데도 조금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학(學)의 장무관(掌務官)들을 파직하여 이 폐단을 개혁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학교의 관원들이 소 잡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뼈가 구릉처럼 쌓이게 되었으니 지극히 부당하다. 아뢴 대로 파직하라.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97권 37년 1월 7일 戊子

黃海道黃州, 牛二十五首、猪三十一口自斃.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에서 소 25마리와 돼지 31마리가 저절로 죽었다.

▶ 97권 37년 1월 19일 庚子

憲府以西學官員推考公事, 【西學教授李澤、訓導丁璿等, 非徒不能教育, 下人等東西齋近處, 常以殺牛爲事. 今月十二日, 自府摘奸, 則生馬皮、牛骨等見捉云. 學宮反爲屠宰之所, 至爲駭愕. 以行首掌務官, 常時視爲尋常, 專不禁止, 各別治罪云.】 啓曰: “此官員等, 罪則公罪矣. 學宮空虛, 致令爲屠牛之所, 至爲駭愕, 故前日請學掌務官, 各別啓罷, 而猶不懲艾. 掌務官丁璿請罷.” 從之.

헌부가 서학(西學)의 관원들을 추고(推考)한 공사(公事)를 가지고 아뢰기를,

“이 관원들의 죄는 공죄(公罪)이기는 하지만, 학궁(學宮)이 텅비어 소를 도살하는 곳으로 쓰게까지 하여 지극히 해괴하고 놀랍기 때문에, 전일에 학궁의 장무관(掌務官)을 각별히 아뢰어 파직하기를 청했던 것인데 오히려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았으니 장무관 정선(丁璿)을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학 교수(西學教授) 이택(李澤), 훈도(訓導) 정선(丁璿) 등은 단지 교육(教育)하는 일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下人)들이 동·서재(東西齋) 근처에서 항상 소를 도살하고 있었는데 이달 12일에 본부(本府)가 적간(摘奸)하여 생 말가죽과 소뼈 등을 찾아내게 되었다고 했다. 학궁(學宮)이 도리어 도살하는 곳이 되었으니 지극히 해괴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두머리 장무관(掌務官)으로서 평소에 심상한 일로 여기고 전연 금지하지 않았으니 각별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 97권 37년 2월 19일 庚午

咸鏡道會寧府, 癘疫熾發, 男女老少物故者, 二百餘人. 德源、咸興、洪原等官, 牛疫大發, 死亡甚多.

함경도(咸鏡道) 회령부(會寧府)에 여역(癘疫)이 퍼져 죽은 남녀 노소가 2백여 명이고, 덕원(德源)·함흥(咸興)·홍원(洪源) 등의 고을에는 우역(牛疫)이 크게 번져 소가 매우 많이 죽었다.

▶ 98권 37년 4월 12일 壬戌

壬戌/諫院啓曰：“禮文雖稱‘七十以上，惟衰麻在身，飲酒食肉如常’，此老病之人，不得已從權之意，非謂公然設辦，宴飲無忌者也。曹潤孫方在喪中，椎牛設辦，大會賓客，燕飲食肉，略無愧恥，至爲無識，前日論啓，至削仕版。今若復齒宰相之列，則不肖者必曰：‘居喪不謹，固無所害。’甚非激勸薄俗之道，請勿收斂。”答曰：“曹潤孫事，大臣於經筵啓之，予以爲孝者，百行之源，而爲人子者，失其所行，事關治道。但潤孫，武班久仕之人而廢棄，未知何如而可也，議于大臣，則大臣舉禮文以啓，故命爲斂用也。今以啓辭見之，方在喪中，椎牛設辦，大會賓客，似非老病人，不得已從權，欲保性命之類也。大臣議得時，此意知而議啓乎？抑未知，而只舉禮文從權之事而議啓乎？當更議于大臣。”

간원이 아뢰기를,

“예문에 ‘70세 이상이면 쇠마(衰麻)를 입을 뿐이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여느 때와 같이 한다.’하였더라도, 이것은 늙고 병든 사람이 부득이하여 임시방편에 따른다는 뜻이지, 버젓이 장만하여 꺼림 없이 연음(宴飲)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조윤손은 상중에 있으면서 소를 잡아 장만하고 손님을 모아 크게 잔치를 벌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무식합니다. 전일에 논계하여 사관에서 삭제까지 하였는데, 이제 다시 재상의 반열에 낄다면, 불초한 자들이 반드시 ‘상중에 삼가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투박한 풍속을 격려하는 방도가 아니니, 거두어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였다.

“조윤손의 일을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었는데, 나는 ‘효도는 온갖 행실의 근원인데 자식으로서 그 행실을 잃었으니 일이 치도(治道)에 관계된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조윤손은 오랫동안 무반(武班)의 벼슬을 한 사람인데 폐기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옳을는지 몰라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이 예문(禮文)을 들어서 아뢰었으므로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제 아뢴 말을 보건대, 상중에 있으면서 소를 잡아 장만하여 손님을 크게 모았다 하니, 늙고 병든 사람이 부득이하여 임시방편에 따라 목숨을 보전하는 예는 아닌 듯하다. 대신이 의득(議得)할 때에 이 뜻을 알고서 의논하여 아뢴 것인가? 모르고서 다만 예문의 방편을 따르는 일을 들어서 의논하여 아뢴 것인가?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겠다.”

▶ 98권 37년 4월 17일 丁卯

尹殷輔、洪彥弼、尹仁鏡議：“曹潤孫事，嘗因諫院所啓而知之。其時但聞公然對衆食肉無忌而已，椎牛設辦，大會賓客，燕飲之事，則曾所未聞，故臣等所啓如前矣。潤孫所爲，果如諫官初論，則雖削仕版，在所不惜。但潤孫歷仕甚久，累受闕寄，職至參贊、判書，粗識事理，其不謹守喪，恐不至此極。似聞有一兵使【張彥良】慰訪潤孫之日，下人宰牛以供饌具云。此言雖不可信，意或傳說，播聞於人者，以此也。”傳于政院曰：“今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大臣之議，下人宰牛以供饌具云。此雖曹閔孫所不知，而用肉則一也。物論如此，名教所關，敍用承傳，勿用可也。”

윤은보·홍언필·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조운손의 일은 전에 간원이 아뢰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다만 버젓이 못사람을 마주하여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소를 잡아 장만하고 손을 모아 크게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신 일은 듣지 못하였으므로, 신들이 아뢴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조운손이 한 짓이 과연 간관이 처음에 논한 것과 같다면 사판에서 삭제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운손은 벼슬을 지낸 것이 매우 오래고 변방 장수의 직임을 여러 번 받았으며 벼슬이 참찬과 판서에 이르렀으므로 사리를 대강 아니, 상례(喪禮)를 삼가 지키지 않은 것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지 않는 듯합니다. 어떤 병사(兵使)가 조운손을 조위하러 찾아갔던 날에 아랫사람이 소를 잡아 음식을 차려 바쳤다는 말을 들은 듯한데,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으나, 혹 이 말이 남에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대신의 의논을 보건대, 아랫사람이 소를 잡아서 음식을 차려 바쳤다 하였는데 이것은 조운손이 몰랐던 것일지라도 고기를 먹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의가 이러하므로 명교(名敎)에 관계되니, 서용하라는 승전을 쓰지 말도록 하라.”

▶ 100권 38년 6월 29일 壬寅

領議政尹殷輔議曰：“考《大典》喪葬輟朝之條，凡宗戚之死，法應輟朝，則似可不分職秩高下，一依《大典》施行，而但據前例，未聞爲秩卑宗親輟朝之事，故前因永安正之事，收議大臣，大臣以爲，秩卑宗親，不須爲之，而不行，今亦姑從前議，依永安正之例，勿輟朝，而後日本府合坐，同禮曹，參稽《經濟六典》及同曹謄錄，反覆商確，定爲恒規。《大典》內，潛賣禁物重者絞，註云：‘牛馬之類也。’金世弼所犯，以牛馬買賣取服，則法應處絞，而據中朝之法，則罪只充軍。繩以重律，而咨以充軍，似爲未安，但挾持禁物買賣上國者，痛斷無計，自祖宗朝，別立禁制，以防奸濫。今若世弼之罪，有所容貸，則無所懲艾，益肆交市，勢難輕論。以中朝之法，回咨遼東，以我國之法，當以重律，恐爲無妨。” 이하생략~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 상장 철조(喪葬輟朝)의 조항을 상고하여 보니 ‘무릇 종척(宗戚)이 사망하면 법에 응당 철조(輟朝)한다.’고 하였으니, 직질(職秩)의 고하를 가릴 것 없이 한 결 같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근거하여 보면 직질이 낮은 종친을 위하여 철조하였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번에 영안정(永安正)의 일로 인하여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니, 직질이 낮은 종친은 구태여 철조할 것 없다고 하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선 전번의 논의에 따라 영안정의 예에 의하여 철조하지 말

고 뒷날 본부가 합석하여 예조와 함께 《경제육전(經濟六典)》과 동조(同曹)의 《등록(騰錄)》을 대조 상고하여 반복하여 상의, 항규(恒規)로 정하게 하소서.

《대전》에 ‘금물(禁物)을 몰래 매매함에 있어 중한 자는 교수형(絞首刑)에 처한다.’ 한 주에 ‘소와 말의 유이다.’고 하였습니다. 김세필(金世弼)의 범죄가 소와 말을 매매하였다고 자백하였으니, 법에 응당 교수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법에 의거한다면 죄가 단지 충군일 뿐입니다. 무거운 율로 다스리고 나서 회자(回咨)에는 충군시켰다고 한다면 미안한 것 같습니다만, 금물을 가져다 중국에 매매하는 것을 통렬하게 단절할 계책이 없어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별도로 금하는 법을 세워 간사한 짓을 방지한 것입니다. 지금 김세필의 죄를 용서하여 준다면 징계되는 바가 없어서 더욱 방자하게 교시(交市) 할 것이어서 가벼이 논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중국 조정의 법으로 요동(遼東)에 회자하고 우리나라 법으로 무거운 율에 해당시키는 것이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101권 38년 12월 26일 丙申

丙申/傳于平安道觀察使柳灌曰：“予欲面教，而適以齒痛，未盡差復，不得視事，故以備忘教之耳。彼道監司，必擇遣重臣者，深念彼道措置多端，而且見中原之事，漸不如古，豈無其憂乎？以撻子之事計之，前則有利於中原，故雖無我境之患，近則累敗於中原，勢或不利，不無我境之患。非但築城、入居等事爲重大，軍馬雖多，若無軍食，則不可用也，預措軍糧，在所先務。況彼道往者癘疫熾發，軍卒多亡，而農牛繼死乎！雖有築城、入居措置等事，所當休其民力，而勿令飲食奢侈可也。彼道之虞，非一二而防備諸事，兵使主之，監司之措置亦多，故另言之。且邊將等專不恤刑，數少軍民，不無率意濫刑之理，學校之事，亦不務焉，如此等事，皆可檢也。”柳灌啓曰：“平安道之事，自上軫念而別遣臣，臣亦欲竭盡心力而爲之。如自上所教，撻子若不得利於中原，不無作耗於我國之弊，豈不深慮乎？但聞軍馬之殘弊，比古尤甚，防備之事，軍馬爲急，蘇復之策，不可不舉。古云：‘七年之病，求三年之艾。’雖不能猝至於蘇復，擇其富實之人入送，而悠久待之，則庶有成效矣。且作罪入居之輩，率皆貧殘無賴者，必以多丁富實之人入送爲當。弊端之事，臣當往見，而隨卽啓之，但今亦有所聞之事，故啓之。軍士之馬，赴京使臣頻數，故陸續往來之際，日漸凋弊焉。赴京使臣所齎糧料，自有常定之數，而不足於往來之費，故一路各官皆周之。與書狀、質正官，則皆仰給於使臣，不須自齎而往也。近則京畿、黃海所經列邑，例給其備，皆以軍馬輸之，故載益重而馬益困焉。曾以書狀官往還之人曰：‘雖齎糧而往，亦無所用云。’平安道則臣意欲禁之矣，於京畿、黃海，則亦下書諭之何如？且聞東八站使臣下營處，盡爲耕種之地，而無喂馬之芻，故飢往飢來，因致倒損。軍馬入往時，踏其烙印，故割取烙印之處，出而示之然後，知其死也。凡牛馬不得買賣於京外者，國有其法，故如此也。若於未死之前，告於使臣，買賣而來，則亦可因之而買其他馬云，此亦問于朝廷，議之爲當。入居事，初則臣掌之，而以其抄發作罪人之故，使觀察使主焉。若有入居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廳，則可遣從事官，安接其新徙之民，而今則已罷，故不得已以都事、差使員察之矣。然入居人安接重事，而觀察使巡行有時，故不得親任其事焉。前者必遣京官以安接之，今亦別遣京官，則新徙之民，亦知重實邊之意也。”傳曰：“知道。”柳灌再啓曰：“安州關防重地，不可不築城。但今年江邊則稍稔，而路傍則不實云，不可調發烟戶之軍，當以水軍築之，而一年之內，勢未及畢役，故敢啓。”傳曰：“知道。”仍傳于政院曰：“赴京書狀、質正官等不給路費事，下書于京畿、黃海等道可也。他三條似爲立法重事也，後日合坐時議啓。”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관(柳灌)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면대하여 분부하러 하였으나, 마침 이않이가 다 낫지 않아서 시사(視事)하지 못하므로 비망기(備忘記)로 분부한다. 저 도의 감사로 반드시 중신(重臣)을 가려서 보내는 까닭은 저 도에 조치할 것이 여러 가지임을 깊이 염려하기 때문이며, 또 중국의 일을 보면 점점 예전만 못하여 가니, 어찌 그런 근심이 없겠는가? 달자(驛子)의 일을 생각하면, 전에는 중국에서 유리(有利)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변경의 걱정이 없었으나, 요즈음에는 중국에서 여러번 패하였으니 형세가 혹 불리하게 되면 우리나라 변경의 걱정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축성(築城)·입거(入居) 따위 일이 중대할 뿐더러, 군마(軍馬)가 많더라도 군량이 없으면 쓸 수 없으니, 군량을 미리 조치하는 것이 먼저 힘쓸 일이다. 더구나, 저 도에는 전에 여역(癘疫)이 치열하여 군졸이 많이 죽고 농우(農牛)가 잇따라 죽었음에라. 축성·입거를 조치하는 따위 일이 있더라도 백성의 힘을 쉬게 하고 음식을 사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저 도의 걱정은 한둘이 아니라 방비에 관한 일은 병사(兵使)가 맡으나 감사가 조치할 것도 많으므로 특별히 말하는 것이다. 또, 변장(邊將) 등이 전혀 홀형(恤刑)하지 않으므로 수가 적은 군민(軍民)을 맘대로 함부로 형벌할 리가 없지도 않으며 학교의 일도 힘쓰지 않으니, 이러한 일들을 다 살펴야 한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일을 위에서 염려하여 특별히 신(臣)을 보내시니, 신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려 합니다. 위에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달자가 중국에서 이롭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작해할 폐단이 없지도 않을 것이니, 어찌 깊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군마의 잔폐(殘弊)가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하는데, 방비하는 일에는 군마가 급하니 회복할 계책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쭉을 찾는다.’ 하였으니 갑자기 회복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가멸은 사람을 가려서 들여보내어 오래 기다리면 보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작죄입거(作罪入居)의 무리는 거의 다 가난하고 무뢰한 자이니, 반드시 장정이 많고 가멸은 사람을 들여보내야 마땅하겠습니다. 폐단이 되는 일은 신이 가서보는 대로 곧 아뢰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들은 일이 있으므로 아뢰겠습니다. 군사의 말[馬]은 부경(赴京)하는 사신이 찾으므로 잇달아서 왕래할 즈음에 날로 조폐(凋弊)하여 갑니다. 부경하는 사신이 가져가는 양식은 본디 상정(常定)한 수가 있으나, 왕래하는 비용에 모자라므로 일로(一路)의 각 고을이 다 대어줍니다. 서장관(書狀官)·질정관(質正官)은 다 사신에게 지급받으므로 스스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요즈음에는 경기·황해도에 지나가는 여러 고을이 으레 그 비용을 지급하고 다 군마로 나르므로 짐이 더욱 무거워져서 말이 더욱 지칩니다. 전에 서장관으로

다녀온 사람이 말하기를 ‘양식을 가져가더라도 쓸 데가 없다.’ 합니다. 평안도는 신이 금지하려고 생각하거나와 경기·황해도에도 하서하여 타이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동팔참(東八站)의 사신이 하영(下營)하는 곳은 모두 경작하는 땅이 되어 말에게 먹일 풀이 없으므로 굶은 채로 가고 오느라 죽게 된다. 군마가 들어갈 때에 낙인(烙印)을 찍으므로 낙인한 곳을 베어내어 보여야 죽었다는 것을 알거나와, **무릇 마소는 경외에서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나라에 그 법이 있으므로 이렇게 한다.** 죽기 전에 사신에게 고하여 매매하고 오면 또한 그에 따라서 다른 말을 살 수 있다.’ 하니, 이것도 조정(朝廷)에 물어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입거하는 일을 처음에는 신이 맡았으나, 죄를 지은 사람을 뽑아내기 때문에 관찰사가 맡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거청(入居廳)이 있다면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어 새로 온 사민(徙民)을 편안히 붙여 살게 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이미 파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도사(都事)·차사원(差使員)을 시켜 살피게 합니다. 그러나 입거하는 사람을 편안히 붙여 살게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관찰사는 순행할 때가 따로 있으므로 그 일을 친히 맡지 못합니다. 전에는 반드시 경관(京官)을 보내어 편안히 붙여 살게 하였으니, 이제도 따로 경관을 보내면 새로 온 사민도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알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유관이 다시 아뢰기를,

“안주(安州)는 관방(關防)의 중요한 곳이므로 축성(築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의 농사가 강변(江邊)에서는 조금 여물었으나 대로(大路) 곁에서는 여물지 않았다 하니 연호군(烟戶軍)을 조발(調發)할 수 없고 수군(水軍)을 시켜 쌓아야 하겠는데 한 해 안에는 미처 부역을 끝내지 못할 형세이므로 감히 아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부경하는 서장관·질정관 등에게 노비(路費)를 지급하지 말라고 경기·황해도 등에 하서하도록 하라. 다른 세 가지는 법을 세우는 중대한 일일 듯하니, 뒷날 합좌(合坐)할 때에 의논하여 아뢰라.”

▶ 102권 39년 3월 4일 壬寅

上護軍曹閔孫入京肅拜.

【史臣曰：“閔孫服繼母喪，居晉州時，金正國爲觀察使，邀致于其家。宰牛設宴，杯盤極盛，閔孫着喪衣，出待啖肉如常，觀者莫不縮頸。正國業已往見，雖不得(經)〔徑〕出，終不下著而還。厥後被論，不齒於朝列久矣，有言舊將不可永棄者，遂付軍職。至是自晉州上來謝恩。”】

상호군(上護軍) 조윤손(曹閔孫)이 서울에 올라와 숙배(肅拜)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윤손은 계모(繼母)의 복을 입느라 진주(晉州)에 있을 때에 관찰사로 온 김정국(金正國)을 그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소를 잡아 잔치를 차려 술상이 더없이 풍성했는데 조윤손이 상복 차림으로 나와 대접하면서 평상시같이 고기를 먹었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김정국은 이미 만나러 갔었기 때문에 바로 나와 버리지는 못하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지만 끝내 짓가락도 안 대고 돌아왔었다. 그 뒤에 논박을 받아 조정의 반열에 끼이지 못한 지 오래였는데, 전의 장수를 영구히 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드디어 군직(軍職)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진주에서 올라와 사은(謝恩)한 것이다.

▶ 103권 39년 5월 15일 壬子

壬子/諫院啓曰: “軍器寺判官尹興孝, 本以殘忍薄行之人, 【其子伏龍, 與無賴之輩, 結爲花林七賢, 朋淫自恣, 法司欲捕治之, 匿於其祖希仁家. 興孝恐其見忤於法司, 反自捉出, 竟至於死故云. 議者曰: “伏龍事, 雖曰無賴, 未必皆實, 當是時, 許沆、蔡無擇、金賡等方用事, 以其妬忌, 標題羅織.” 云. 怵於禍及, 忘父子相隱之義, 興孝之爲人可知.】又多鄙陋之事, 【其父希仁爲黃海監司時, 托以覲親, 往來各邑, 共誘守宰, 多索農牛而來, 每行如此, 故一道人謂之牛賈. 又其父爲全州府尹時, 來往一路, 惟以徵索爲事.】不可齒在朝列, 請罷.” 答曰: “尹興孝非今始授五品之職也, 曾以此事被論, 而復爲五品久矣, 若至於罷, 則不可也. 不允.”

간원이 아뢰기를,

“군기시 판관 윤흥효(尹興孝)는 본디 잔인하고 야박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의 아들 윤복룡(尹伏龍)이 무뢰배들과 결탁하여 화림 칠현(花林七賢)이라 하며 폐지어 주색(酒色)에 빠지는 것을 방자하게 하므로 법사(法司)가 잡아다 다스리려고 하자 그의 조부(祖父) 윤희인(尹希仁)의 집에 숨었었는데, 흥효가 법사의 거슬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 도리어 자신이 잡아내 주어 마침내 죽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논의(論議)하는 사람들의 말이, 윤복룡의 일은 비록 무뢰배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모두 사실은 아니었고, 그 때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김미(金賡) 등이 바야흐로 용사(用事)하며 그들을 꺼리고 기피하여서 그들을 지목해서 죄를 꾸며 법망에 얹어 넣은 것인데 윤흥효는 화가 미치게 될까 두려워 부자간에는 서로 숨겨야 되는 의리를 망각했으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고 또한 비루한 짓 【그의 아버지 윤희인이 황해도감사(監司)로 있을 때 근친(覲親)한다고 핑계하고 각 고을을 오가며 공모하여 원을 유혹하여 허다히 농우(農牛)를 토색하여 왔는데, 갈 적마다 그랬기 때문에 온 도 사람들이 소장사라고 하였다. 또 그 아버지가 전주부윤(全州府尹)일 때에도 오가는 일로에서 오직 토색만을 일삼았다.】 이 많았습니다. 조정의 반열에 끼일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윤흥효는 지금 처음으로 5품의 직을 제수받은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 일로 논박 받았다가 다시 5품이 된 지 오래이니 만일 파직(罷職)까지 한다면 안 된다. 윤희하지 않는다.”

12. 仁宗實錄

▶ 1권 1년 2월 7일 庚子

洪彦弼啓曰：“醫等詳悉診候，則上非徒顔色(樵)〔樵〕悴，病證已生，寢睡未穩，心氣煩熱，有時驚悸。不久當引飲，引飲則浮證隨發，臣不勝驚慮。傷損已極，醫藥無效，駝駱微寒，治去心熱，且是藥物，非肉汁之類，請自今日進御。且素中，唯鹽醬可以持氣，請於進御時，常常進御。”【內侍朴漢宗告于彦弼曰：“上自初喪，全不進鹽醬，內侍等或有勸進，則上以匙近口曰，予不食乎？然亦不進。”】答曰：“如此罔極之時，脈度其何能不至如此乎？藥及鹽(醫)〔醬〕，如啓。駝駱，當觀而進之。”彦弼又啓曰：“上重證必發於頃刻，雖用百藥，亦無奈何，不得已用肉汁然後，庶可少保。駝駱非肉汁類，而滋潤腸胃，治去心熱，不可不亟進。且上證至重，驚悸漸甚，過此則終必不救。非藥力可治，肉汁不可不進。”答曰：“再再如此言之，尤爲未安。駝駱事，已盡言之。”慈殿傳于藥房曰：“頃者，主上氣候不平，故藥房，診脈進藥，似有稍平，而近日氣候不平，視前爲甚，祀事尙多，將無一日之閑，恐爲勞動重傷也。他餘事，予當自內請止之，肉汁亦欲勸之，而卒哭前，恐爲驚動，故未敢。”彦弼回啓曰：“今日始知上候極爲傷毀。肉膳，明日朝廷，當會啓請，亦自慈殿，須懇請進。駝駱，自上以爲觀勢而進之，請自慈殿，須於今日勸進。”答曰：“勿參祀事，明日大臣等，更啓請之。勸肉事，恐於卒哭前不從。駝駱則非肉膳之比，予亦內自懇請焉。”

홍언필이 아뢰기를,

“의원들이 상세히 진찰하니, 위에서는 얼굴빛이 초췌할 뿐이 아니라 병의 증세까지 이미 생겨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심기가 답답하고 열이 나서 때때로 놀라고 두근거리신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인음(引飲) 하시겠고 인음하면 부증(浮證)이 따라서 발생하게 될 것이니, 신은 놀랍고 염려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상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의약은 효험이 없으니, 타락(駝駱)은 조금 차서 심열(心熱)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이 약물은 고깃국과 같은 것이 아니니 오늘부터 드소서. 또 소식(素食) 중에는 염장(鹽醬)만이 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 음식을 드실 때에 늘 드소서.” 【내시(內侍) 박한종(朴漢宗)이 홍언필에게 ‘위에서 초상 때부터 전혀 염장을 들지 않으므로 내시들이 혹 들도록 권하면 위에서는 숟가락을 입에 가까이 대고는 내가 먹고 있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역시 들지 않는다.’ 하였다.】 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망극한 때에 맥도가 어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약과 염장은 아뢴 대로 하라. 타락은 봐서 들겠다.”하였다. 언필이 또 아뢰기를, “상체로 보아 곧 중한 증세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온갖 약을 써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부득이 고깃국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드셔야 조금쯤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은 고깃국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위장에 자양을 주어 윤택하게 하고 심열을 제거하는 것이니 빨리 드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상의 증세가 지극히 중하여 놀라고 두근거리는 것이 점점 심해지신다 하는데, 여기에서 더하면 끝내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약의 힘으로 고칠 수 없으면 고깃국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거듭 이렇게 말하니, 더욱 미안하다. 타락에 관한 일은 이미 다 일렀다.”하였다. 자전이 약방(藥房)에 전교하기를, “지난번 주상께서 기후가 편찮으시므로 약방이 진맥하고 약을 지어 바쳐서 조금 회복하신 듯하였다. 그러나 근일에는 기후가 편찮은 것이 전보다 심하고 사사(祀事)가 아직 많아서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으니, 아마도 노동으로 인하여 매우 손상될 것 같다. 다른 일은 내가 안에서 청하여 말리고 고깃국도 권하려 하나, 졸곡(卒哭) 전에는 놀라실 듯하므로 감히 못하고 있다.”하였다. 언필이 회계(回啓)하기를, “오늘 비로소 위의 기후가 극도로 손상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육선(肉膳)에 대한 일은 내일 조정이 모여서 계청(啓請)하겠으니 자전께서도 드시도록 간곡히 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타락은 위에서 형세를 보아서 드시겠다고 하셨으니 자전께서 모름지기 오늘 드시도록 권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제사에 참여하지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일 대신 등이 다시 계청하라. 고기를 권하는 일은 아마도 졸곡 전에는 따르시지 않을 듯하다. 타락은 육선과는 다른 것이니 나도 안에서 간곡히 청하겠다.”하였다.

▶ 1권 1년 2월 10일 癸未

癸卯/內醫院提調等啓曰: “上體極弱極傷, 非他藥餌之所能治. 心熱已生, 恐又生他證, 臣等不勝憫極. 前啓駝駱, 今須進御.” 答曰: “駝駱, 自慈殿累有傳教, 提調等累言, 故從之.”

내의원제조 등이 아뢰기를, “상의 육체가 몹시 쇠약하고 몹시 손상되시어 약으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열(心熱)이 이미 일어났는데 다른 증세가 또 일어날까 염려스러워 신들은 몹시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아뢴 타락(駝駱)을 이제는 반드시 드셔야 하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타락은 자전께서 누차 전교하시었고 제조 등도 누차 말하므로 따르다.”하였다.

▶ 1권 1년 3월 18일 庚辰

全羅道羅州, 有雌牛產犢, 一身兩頭, 生而便死.

전라도 나주(羅州)에서 암소가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곧 죽었다.

13. 明宗實錄

▶ 1권 즉위년 7월 14일 甲戌

甲戌/江原道橫城縣有女，一產三男，後母子生存云。忠清道恩津縣，民間雌牛產雌犢，一身兩頭，耳目口鼻分明，生存云。傳曰：“此皆所罕聞之事，院相等共議處之。”院相尹仁鏡、柳灌啓曰：“一產三男，前亦有之，令禮曹，依例處之。牛產一身兩頭，則所謂物怪之大者多，令弘文館，歷考古事何如？”仁鏡等仍啓曰：“成廟初，多置院相，崇品者皆參，今則臣等及洪彥弼只三人，人事不常，豈可預料其終必無故哉？況睿宗初年，贊成金國光亦參院相，今亦以左右贊成，并爲院相。”答曰：“如啓。且贊成外，又有可當之人，【蓋指李芑也。】如考例并爲院相。”仁鏡等又啓曰：“前例必以位在贊成者，爲此院相。雖有一品人，似難爲之。”答曰：“知道。”仁鏡等又啓曰：“明日殯殿，有望祭，凡祭固難一一親行，而明日則乃始事之祭，親行似當。”答曰：“明日親祭之言固當。但近者氣候不調，似難行禮，亦有後日欲退行。且魂殿，禮曹欲於思政殿仍設，但此殿，非唯近大內，而天使來則亦必於斯行禮矣。昌德宮書筵廳，顧不可用耶？大臣等其亟議處之。”仁鏡等回啓曰：“他無可設魂殿處，故禮曹亦不得已以思政殿啓之，而思政殿不可之意，果如傳教。然書筵廳則隘窄，不可爲。更思之，則唯昌德宮東宮儲承殿爲當。且外梓宮本板一面，微有罅漏處，故初欲連三板用之，實所未安。想必於東宮造成餘材中，多有長大可用者矣。今當引鉅而視之，若可用則用之何如？”【領、左相等，方議未決，罔知所計，適有承傳內侍朴漢宗，以此儲承殿爲言。】答曰：“儲承殿設魂殿，果爲便當。外梓宮亦如啓可也。其廣求之，得其可用者用之，勿使有後日之悔。”仁鏡等又以《文獻通考》災異之應，抄書入啓曰：“晉建武中，有牛兩頭，天下將分之象也。其後愍帝蒙塵，見殺於逆胡，元帝渡江卽位，天下遂分，此其應也。太興中，亦有兩頭牛，政在私門，上下無別之象也。其後王敦亂政，此其應也。如此妖異之事，古亦有之。然安知天心，或者仁愛人君所致乎？惟人君知其妖不勝德，側身修行，則妖必轉而爲祥。後之人主不然，有祥而驕其志，見災而忽於心，故有其象，必有其應，亂亡隨之者多矣。伏惟鑑此以爲戒。”答曰：“雖常時猶可戒其變異，況此國家多難之日乎？非唯在上者，更加警省，輔相之人，亦當爲國惕慮之時也。”

강원도 횡성현(橫城縣)에 사는 어떤 여자가 남아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어미와 자식이 살아 있다 하였다. 충청도 은진현(恩津縣)의 민간에서는 암소가 암송아지를 낳았는데, 한 몸에 머리가 두 개이고 이목구비(耳目口鼻)도 분명한데 역시 살아 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는 모두 듣기 드문 일이니, 원상(院相)들이 같이 상의하여 조처하라.”하였다. 원상 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인경과 유관이 아뢰기를, “남아 세 쌍둥이를 낳은 일은 전에도 있었으니, 예조로 하여금 전례에 의해 조처하게 하고, 소가 한 몸에 두 머리를 가진 새끼를 낳은 일은 이른바 물괴(物怪) 가운데 큰 것이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역대의 옛일을 상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윤인경 등이 인하여 아뢰기를, “성종 초에는 원상을 많이 두어서 숭품(崇品)인 자는 다 참여하였는데, 지금은 신들과 홍언필 3인뿐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무상(無常)한 것인데 끝내 무고하리라고 어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종 초년에는 찬성 김국광(金國光)도 원상에 참여하였으니, 지금도 좌우찬성을 아울러 원상으로 삼으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또 찬성 이외에도 가합한 사람 【이기(李芑)를 가리킨 것이다.】 이 있거든 전례를 상고하여 원상으로 삼으라.”하였다. 윤인경 등이 또 아뢰기를, “전례에 의하면 반드시 그 직위가 찬성에 있는 자라야 원상이 되었습시다. 비록 1품인 사람이더라도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윤인경 등이 또 아뢰기를, “내일 빈전(殯殿)에 망제(望祭)를 지내야 합니다. 모든 제사를 일일이 친행하신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지만 내일은 곧 처음 행하는 제사이니 친행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답하기를, “내일 친제(親祭)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로 당연하다. 다만 근래 기후(氣候)가 순조롭지 못하여 행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한 뒷날도 있으니 물려서 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혼전(魂殿)을 예조에서는 사정전(思政殿)에 그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궁전은 대내(大內)와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 사신이 오면 또한 반드시 여기서 행례를 하게 된다. 창덕궁(昌德宮)의 서연청(書筵廳)은 혹 쓸 수 없겠는가? 대신들은 빨리 의논하여 조처하라.”하였다. 윤인경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다른 데는 혼전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예조에서도 마지못하여 사정전으로 아뢰었던 것인데, 사정전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연 전교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서연청은 협착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여 보건대 오직 창덕궁의 동궁 저승전(儲承殿)이 합당합니다. 또 외재궁(外宰宮) 본판(本板)의 일면(一面)에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세 개의 판자를 연이어서 쓰려고도 하였으나 이는 실상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필시 동궁을 짓고 남은 재목 중에 길고 커서 쓸 만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재목을 켜서 살펴보아 쓸 만하면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영상·좌상 등이 바야흐로 의논하다가 결단을 짓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마침 승전내시(承傳內侍) 박한중(朴漢宗)이 이 저승전을 말하였던 것이다.】 답하기를, “저승전에 혼전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편리하겠다. 외재궁도 아된 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널리 쓸 만한 것을 구하여 씌으로써 뒷 날의 후회가 없도록 하라.”하였다. 윤인경 등이 또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수록된 재이(災異)의 보응(報應)을 등초(謄抄)하여 입계하기를, “진(晉)나라 건무(建武) 연간에 머리가 둘인 소가 있었는데 이는 천하가 양분(兩分)될 조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민제(愍帝)가 몽진(蒙塵) 중에 역호(逆胡)에게 살해당하고, 원제(元帝)가 강을 건너가 즉위함으로써 천하가 드디어 양분되었으니, 이것이 그 보응입니다. 태흥(太興) 연간에도 머리가 둘인 소가 있었는데 이는 정치가 사문(私門)에서 나와 상하의 분별이 없을 징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왕敦(王敦)이 정치를 어지럽혔으니, 이것이 그 보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망 괴이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마음이 혹 임금을 사랑하는 소치에서 나온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직 임금이 그러한 요괴가 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덕행을 닦을 경우에는 요일이 도리어 상서가 되었습니다. 후세의 임금은 그렇지 않아서 상서가 있으면 그 심지부터 교만해지고 재이(災異)를 보고도 소홀히

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 조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보응이 있게 되어 혼란과 위망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경계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평상시라도 오히려 변괴와 재이를 경계하여야 될 것인데, 더욱이 이와 같이 국가에 어려움이 많을 때이겠는가? 위에 있는 자만이 경계와 성찰을 가할 것이 아니라 보좌하는 사람도 마땅히 국가를 위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하였다.

▶ 1권 즉위년 7월 14일 甲戌

以備忘記，下于院相曰：“頃者雷震慶會樓，未幾而國有大故，今又外方，有變異之事，**【即指兩頭牛。】**甚可驚駭。自古災不虛生，況於如此哀遽之時乎？上下所當更加恐懼修省，以答天意。而但無以實可答之事，欲爲減膳何如？”柳灌回啓曰：“如此之時，中外災變，又至如此，其在上下恐懼憂慮，宜如何哉？自上修人事以答天意，至欲減膳，丁寧謹災之教，特出尋常，甚盛心也。但減膳事，此非如常時，方在哀疚之中，食飲不過蔬(水)〔食〕，似別無所減。然院相齊會，當共議以啓。”

비망기(備忘記)를 원상에게 내리기를,

“지난번 벼락이 경회루(慶會樓)를 친 지 얼마 안 되어 나라에 큰 상사가 있더니, 지금 또 외방에 변이(變異) **【곧 머리가 둘인 소를 가리킴.】**가 발생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예로부터 재변은 공연히 생기지 않는 법인데 더욱이 이와 같이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이겠는가? 상하가 마땅히 더한층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단 실제적으로 답할 만한 일이 없어서 감선(減膳)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하니, 유관이 회계하기를, “이러한 때 중외의 재변이 또 이와 같이 발생하였으니, 상하가 두려워하고 우려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위에서 인사(人事)를 닦아 하늘의 뜻에 보답하기 위하여 감선까지 하시려 하니 재변을 삼가는 정녕한 분부는 특별한 조처인 것으로 대단히 성대하신 마음입니다. 다만 감선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 평상시와 같지 않아 마땅히 상중(喪中)에 계시므로 음식이 소사(蔬食)에 불과하여 별달리 더 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상이 모두 모여 함께 의논해 아뢰겠습니다.”하였다.

▶ 1권 즉위년 8월 6일 丙申

憲府啓曰：“赴京謀利之徒，依憑公貿，恣行買賣，猥濫無恥，中朝以此待我國，無異獐子，公論多以爲羞辱。況國喪三年內，依例貿易，益爲未安。故大行王時，書冊、藥材及不得已國用緊急之物外，一切勿貿，以雪國家之恥，已奉承傳。**今於冬至使行次，平天冠所入外，其餘綾段、綃絲、采色象毛、牛角等不緊之物，請並停貿。**”答曰：“如啓。”

헌부가 아뢰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연경(燕京)에 가서 이익을 피하는 무리들이 공무역을 빙자해서, 매매를 자행하면서도 외람되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국 조정에서 우리를 달자(獐子)와 같이 대하므로 공론이 매우 수치스럽고 욕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상 중인 3년 동안에도 전과 같이 무역하는 것은 더욱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행 대왕 때 서적·약재 및 부득이한 국용(國用)에 긴급히 쓰이는 물건 외에는 일체 무역을 하지 말아 국가의 수치를 씻도록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이번 동지사(冬至使) 행차에는 평천관(平天冠)을 사오는 외에 그 나머지 능단(綾緞)·초사(綃絲)·채색 상모(象毛)·우각(牛角) 등 긴요하지 않은 물품은 모두 무역해 오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2권 즉위년 9월 21일 辛巳

江原道觀察使金萬鈞啓本：“金化縣監鄭龜朋牒呈內：‘前參奉朴彬言：『漢元帝時有兩頭四角八足之牛，而漢亡，今我國亦有此變，而主上亦有病，不可說不可說。』’龜朋以爲亂言輒囚，問其由則彬曰：『京居金壽昌者，去七月間來言，而其時同縣居沈億齡、李時春，亦預聞。』’云云。”上卽令宣傳官等，拿囚壽昌，而又遣宣傳官，拿致彬等。

강원도관찰사 김만균(金萬鈞)의 계본에,

“김화현감(金化縣監) 정귀봉(鄭龜朋)의 첩정(牒呈)에 ‘전 참봉 박빈(朴彬)이 『한원제(漢元帝) 때 머리가 둘, 뿔이 넷, 발이 여덟인 소가 있자 한나라가 망하였었는데，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변괴가 있고 주상께서도 병이 있으니，참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하기에，그가 난언(亂言)을 한다고 여기어 바로 수감하고 그 연유를 심문하니，박빈(朴彬)의 대답에 『서울에 사는 김수창(金壽昌)이란 자가 지난 7월경에 와서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때 동현(同縣)에 거주하는 심억령(沈億齡)·이시춘(李時春) 등도 참여하여 들었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상이 즉시 선전관 등으로 하여금 김수창을 잡아다가 수감하게 하고 또 선전관을 파견하여 박빈 등을 잡아오게 하였다.

▶ 2권 즉위년 10월 3일 壬辰

南道兵使曹光遠上疏陳：“本道軍卒羸弱，且無弓矢赴防，點閱則畏罪逃避，惠山越邊胡人，占居日盛，此他日門庭之患也。 箭竹魚膠，本非所產，牛角亦貴，請多持此等物，造辦弓箭，巡試其才，賞其能者，爲禦邊之助。”傳曰：“如啓。”

남도 병사 조광원(曹光遠)이 상소하여 진달하기를,

“본도는 군졸이 나약한 데다 활과 화살도 없이 부방(赴防)하므로 점열(點閱)하게 되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도피하고，혜산(惠山) 건너편에는 호인(胡人)의 점거(占居)가 날로 성해지고 있으니，이는 훗날 문정(門庭)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본도는 전죽(箭竹)과 어교(魚

膠)가 본래 생산되지 않고 우각(牛角)도 귀하니 이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재주를 시험하여 능한 자에게 상을 주어 변방의 방어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3권 1년 6월 20일 乙巳

捕盜大將池世芳啓曰：“近聞長湍賊餘黨，來入城中，別令伏兵。去夜成均館後伏兵軍，捉生牛皮持去者，館人成群刼打，奪其牛皮，結縛軍人，置諸館下，至爲驚怪，敢啓。”傳曰：“國法解弛，今之弊也。捕盜軍人，至於刼打結縛，卽下禁府，推問治罪。”

포도대장(捕盜大將) 지세방(池世芳)이 아뢰기를,

“요즈음 들으니 장단(長湍)의 도적 잔당(殘黨)이 성중(城中)으로 들어왔다기에 특별히 군인을 잠복시켰습니다. 지난밤 성균관 뒤편에 잠복했던 군사가 쇠가죽을 가져가는 자를 생포하였는데 관인(館人)이 무리 지어 겁을 주고 구타하면서 쇠가죽을 빼앗고 군인을 결박하여 관하(管下)에 잡아두었으니 몹시 놀랍고 괴이한 일이라 감히 아뢰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국법(國法)이 해이(解弛)한 것이 오늘날의 폐단이다. 도적 잡는 군인을 구타하고 결박하기까지 하였으니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하옥하고 추문(推問)하여 치죄(治罪)하라.”하였다.

▶ 3권 1년 6월 21일 丙午

丙午/傳于政院曰：“昨日成均館人，結縛伏兵軍事，禁府爲公事曰：‘生員一人、幼學三人，坐下輦臺，有人群聚喧闐，儒生使人捉來，則軍士三人，突入儒生坐處頡頏，仍裂破其頭巾。故結縛。’云。自前有禁亂，不得入成均館之言。此必儒生，見館人見捉牛皮，率下人打軍士，遭裂破頭巾之辱矣。儒生若以法持身，則寧有受辱之理乎？禁府只以軍士，凌辱儒生，爲公事不當矣。儒生及聽令下人等，詳悉推問。”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성균관의 관인이 잠복해 있던 군사를 결박한 일에 대하여 금부의 공사(公事)에 ‘생원 1인, 유학(幼學) 3인이 하런대(下輦臺)에 앉아 있었는데 무리지어 시끄럽게 다투는 자들이 있어서 유생이 사람을 시켜 잡아오게 했다. 그런데 군사 3인이 갑자기 유생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와 옥신각신하다가 그의 두건(頭巾)을 찢었다. 그래서 결박한 것이다.’고 하였다. 전부터 금란군(禁亂軍)은 성균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필시 유생이 관인이 쇠가죽 때문에 붙잡히는 것을 보고 하인을 데리고 군사를 구타하다가 두건을 찢기는 봉변을 당하였을 것이다. 유생이 만일 법대로 몸가짐을 하였으면 봉변 당할 리가 있겠는가? 금부가 다만 군사가 유생을 옥보인 것으로 공사를 만든 것은 옳지 않다. 유생과 명령에 따랐던 하인들을 자세히 추문하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3권 1년 6월 22일 丁未

丁未/政院啓曰：“館儒事，今更聞之，當牛皮爭奪時，儒生實不知，只聞其喧闐之聲，捉軍士一人，打鬢數度而已，軍士憤其受打，見儒生出坐泮水之上，以爲此乃打吾之類而凌辱云。昨日多拿儒生，拘諸禁府，此前古所無，物情駭愕。祖宗朝待儒生，每從寬恕，儒生亦以學宮，爲可尊之地。年少儒生，不知事體，豈其不有國法乎？臣等在至近之地，聞物情如是，不敢不達。”答曰：“爲儒之道，當治禮義，以明君臣上下之分，結縛軍士，終夜不解，是不有君上，不有國法。自以爲朝廷知之，國家知之，其如我何哉，其意不亦甚乎？予之命推，非欲必置儒生於罪也，使知其名分而止耳。上無辨正之隙，而自下專爲儒生，爭相啓之，予極爲未便也。”

정원이 아뢰기를, 관유(館儒)의 일은 지금 다시 들으니, 쇠가죽을 빼앗을 때는 유생은 참으로 몰랐고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만 듣고 군사 1인을 붙잡아다 두어 차례 뺨을 때린 것뿐인데 군사가 맞은 것을 분하게 여겨 반수 위에 나와 앉은 유생을 보고, 이는 나를 때린 동류(同類)라고 생각하여 욕을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많은 유생을 붙잡아 금부에 구속하였으니, 이는 예전에 없던 일로 물정(物情)이 몹시 놀라고 있습니다. 조종조에서는 유생을 대함에 있어 항상 관용(寬容)을 베풀었고 유생도 학궁(學宮)을 존중해야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연소한 유생이 사체(事體)를 모른 것이 어찌 국법(國法)을 무시한 것입니까. 지근(至近)한 자리에 있는 신들이 물정을 들은 것이 이와 같으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유생의 할 도리는 마땅히 예의를 다스려 군신과 상하의 분별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군사를 결박하여 밤이 새도록 풀어주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을 업수이 여기고 국법을 무시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조정이 알고 국가가 알고 있으니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그 뜻이 심하지 않은가. 내가 추국하라는 것은 꼭 유생을 죄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名分)을 알게 하려는 것뿐이다. 위에서 변정(辨正)할 틈도 없이 아래에서 오로지 유생만을 위하여 다투어 아뢰니, 나는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 6권 2년 8월 30일 戊申

同知中樞府事曹光遠，以咸鏡南北道鄙弊瘼十二條【其一，六鎮皆爲凋殘，近因凶荒，流亡過半。徙民實邊，旋入旋逃，不能禁抑。若設關於磨尺嶺〔磨天嶺〕，無公牒者，使不得出入，則勢不能潛逃，脫有不幸，敵不得長驅以入。其一，軍民離散，防備虛疎，邊塞無虞者，專由城底野人，而因公上京時，托於印價，濫徵獫狁皮。今後痛革此弊。其一，六鎮軍民，或被擄或潛入者，刷還之後，未久還入，無父母妻子者，使勿居本住，以〔紀〕〔絕〕

潛投之路. 其一, 主鎮不思遠慮, 役其屬堡, 堡兵皆逃. 痛禁主鎮, 使勿兩役. 其一, 南北道魚膠不產, 今後多數入送. 其一, 箭竹依《大典》直送于南北道兵使, 分給軍士. 其一, 南北道各驛殘弊, 驛卒逃散, 野人往來, 驛馬不足, 弊及於民. 道內各場馬, 促出分給, 以期蘇復. 其一, 咸興以南各官進上, 各驛及蘇復間, 令於安邊府封進, 以除其弊. 其一, 鐵嶺東灰峴無峻嶺, 又無渡(步)〔涉〕處, 而路且倍徑. 自鐵嶺至安邊有三驛, 合三驛設一驛於灰峴, 則馬多卒衆, 辦役亦易. 其一, 求請書吏, 絡繹不絕, 弊及於民, 禁抑亦當. 其一, 慶興府造山堡, 彫殘尤甚, 昆布等物, 一朔內三度封進, 民甚苦之. 其一, 南道驚羽進上, 少有微點, 例退不納, 一羽之價, 給牛一頭, 民冤莫甚. 今後雖有微點, 可用, 則封進何如?】 書啓, 上命議于大臣.

동지중추부사 조광원(曹光遠)이 함경 남·북도 변경(邊境)의 폐막(弊瘼) 12조(條)【*】를 서계(書啓)하였는데, 상이 대신에게 의논 하라고 명하였다.

【* 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진(六鎭)이 모두 쇠잔하였는데,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유망한 자가 반이 넘습니다. 백성을 이주시켜 변경을 채우고는 있으나 들어가자마자 도망하는데,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척령(磨尺嶺)에다가 관문(關門)을 만들어서 증명서〔公牒〕가 없는 자는 출입할 수 없게 하면 몰래 도망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불행(不幸)한 일이 있을 경우에도 적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1. 군민(軍民)이 흩어지고 방비가 허술하여도 변방에 걱정이 없었던 것은 오로지 성저야인(城底野人) 때문인데, 공사(公事)로 인해 상경할 때에 인가(印價)라는 핑계로 돈피(獐皮)를 함부로 징수합니다. 앞으로는 그 폐단을 엄하게 고쳐야 합니다. 1. 육진의 군민이 포로가 되거나 몰래 들어간 자를 쇄환(刷還)한 뒤에 오래지 아니하여 다시 들어가곤 하니, 부모와 처자가 없는 자는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여 몰래 다니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 1. 주진(主鎭)에서 원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소속된 보(堡)의 군사를 사역(使役)시키니, 보의 군사가 모두 도망합니다. 주진에 엄명을 내려 양역(兩役)을 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 함경남북도에서는 어교(魚膠)가 생산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많이 들여보내야 합니다. 1. 전죽(箭竹)은 《대전》의 규정에 따라 남북도의 병사(兵使)에게 직접 보내서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1. 남북도의 각역(各驛)이 쇠잔하여 역졸(驛卒)이 도망하고 없으니, 야인이 왕래할 적에 역마(驛馬)가 부족하여 폐가 백성에게 미칩니다. 도내(道內)의 목장(牧場) 말을 내어다가 나누어 주어서 소복(蘇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함흥(咸興) 이남의 각 고을에서 진상(進上)하는 것은 각역이 소복될 때까지 안변부(安邊府)에서 봉진(封進)하게 하여 그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1. 철령(鐵嶺) 동쪽 회현(灰峴)에는 준령(峻嶺)이 없고 또 물을 건너는 곳도 없으며, 거리도 배가 가깝습니다. 철령에서 안변까지는 세 역(驛)이 있는데 그 세 역을 통합하여 회현에 한 역을 설치하면 말도 많고 역졸도 많아서 역사시키기도 쉬울 것입니다. 1. 구청(求請)하는 서리(書吏)가 연락부절하므로 그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니,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1. 경흥부(慶興府) 조산보(造山堡)가 더욱 심하게 쇠잔한데, 곤포(昆布) 등의 물품을 한 달 안에 세 차례 봉진(奉進)해야 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 남도(南道)에서 취우(驚羽)를 진상할 적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오래 물리치고 받지 않는데 취우 하나가 소 한 마리의 값이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심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비록 약간의 흠이 있더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도 쓸 만한 것은 봉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7권 3년 1월 29일 丙午

平安道平壤居民李仁弼家，雌牛生犢，後兩腳下班白，前兩腳上脊間，又一足倒出。上節長周尺七寸二分，下節長六寸三分，蹄高二寸一分，足距本體一分。無骨柔軟，隨行動搖。尾如獐尾，長四寸，作兩岐。祥原郡私奴突衰家，黑雌牛產一犢，一頭兩目三耳，腰上一牛之形，腰下二牛之形，八足兩尾，無毛赤色。竝是雄犢。

평안도 평양(平壤)에 사는 백성 이인필(李仁弼)의 집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뒤쪽 두 다리 밑은 색깔이 반백(班白)이고 앞쪽 두 다리 위의 등뼈 사이에 또 발 하나가 거꾸로 나왔다. 그 다리의 윗마디는 길이가 주척(周尺)으로 7촌(寸) 2푼(分)이고, 아랫마디는 길이가 6촌 3푼이며, 발굽의 높이는 2촌 1푼이고, 발에서 몸뚱이와의 거리는 1푼이었다. 그 다리는 뼈가 없어서 유연하였고 걸어 다닐 때는 마구 흔들렸다. 꼬리는 마치 노루의 꼬리와 같이 생겼는데 길이는 4촌이고 두 갈래였다. 또 상원군(祥原郡) 사노(私奴) 들쇠(突衰)의 집에 검은 암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머리는 하나에 눈이 둘이고 귀가 셋이며, 허리 위로는 소 한 마리의 형상인데 허리 밑은 소 두 마리의 형상이었고, 발이 여덟, 꼬리가 둘에, 털은 없고 몸은 붉었다. 이상의 송아지는 모두 수컷들이었다.

▶ 9권 4년 3월 3일 癸酉

癸酉/上御朝講. 特進官姜顯曰: “各邑水軍元額, 或半缺焉, 或專闕焉, 其所缺者之役, 專責於見存者, 當上番之時, 兵、水營, 發使來督, 陵駕郡縣. 資給供饋, 少不如意, 搆愬本營, 誅責隨之. 欠缺之軍, 以一族切隣, 代赴而不得, 則脅驅其不干之人, 責其立防. 故僅持一月之糧, 以應無窮之橫斂, 加之以重役, 民豈能支保乎? 以此民間困擾, 殆無寧日, 奚暇致力於田畝哉? 非徒此也. 各寺奴婢一番之價, 猶不能備, 分徵於其族及隣, 以此流亡殆盡, 十室九空. 守令目其窮冤之狀, 力不能救, 敢責以南畝之事哉? 至如殺牛, 國之重禁也, 今則公然屠宰, 少無畏忌. 以下吏主其應辦之事, 一月所殺之牛, 幾至五六, 而官不給其價, 故盡殺一家之畜. 而不足則亦及於一族, 驅其方耕之牛而殺之, 少有人心者所不忍. 然守令亦有所不得已. 往來賓客, 以供待之豐約爲毀譽, 故無物產之邑, 則必殺牛爲供以悅之. 弊習已成, 莫可卒變.”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강현(姜顯)이 아뢰었다.

“각읍(各邑) 수군(水軍)의 원액(元額)이 절반쯤 결원된 데도 있고 전부가 없는 데도 있는데, 결원된 자의 신역(身役)을 전부 현재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므로, 상번(上番)할 때를

당하면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서 사람을 풀어 독촉하면서 군현(郡縣)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공궤(供饋)하는 것이 조금만 여의치 않아도 본영(本營)에 알려 벌을 받게 합니다. 또한 결원된 군액(軍額)을 채우려고 그 일족(一族)이나 절린(切隣)을 대신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협하여 입방(立防)하도록 다그칩니다. 겨우 한 달 양식을 가지고 끝없는 가혹한 징수에 응해야 하는데다가 무거운 신역까지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백성들이 지쳐서 거의 편할 날이 없는데 어느 여가에 농사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시(各寺)의 노비(奴婢)는 한 차례 번(番)드는 값도 준비하기가 오히려 힘겨운데 그 일족과 절린의 몫까지 대신 물게 되므로 거의 모두가 유망(流亡)하여 열에 아홉은 빈집입니다. 수령이 이렇듯 곤궁하고 억울한 실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힘써 잘 구원해 주지 않고 있으니 감히 농사를 지으라고 독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소를 도살하는 것은 나라의 중법(重法)인데 지금은 공공연히 도살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리(下吏)가 응판(應辦)을 주관하는데 한 달에 잡는 소가 5~6마리나 되는데도 관에서 그 값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축을 다 잡게 됩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또 그의 일족(一族)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방금 밭을 갈고 있는 소를 몰고 가서 잡으니,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수령에게도 부득이한 사유는 있습니다. 오가는 빈객(賓客)들이 접대의 풍약(豐約)에 따라서 칭찬도 하고 헐뜯기도 하므로 물산(物産)이 없는 고을에서는 반드시 소를 잡아 접대하여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폐습으로 굳어진 지 오래여서 갑자기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9권 4년 3월 8일 戊寅

傳于政院曰：“姜顯所啓禁斷殺牛事，今更申明下書于各道.”

정원에 전교하였다. “강현(姜顯)이 아뢴바 소 도살 금지에 관한 일은, 이제 다시申明(申明)할 것으로 각도에 하서(下書)하라.”

▶ 9권 4년 11월 26일 辛卯

憲府啓曰：“生員、進士等爲試官，設恩門宴，其來已久，近來士習不美，漸成積弊。或於收合榜中之(祭)〔際〕，有父兄爲守令者，則多定米麪、油蜜、牛隻、猪獐等，百端侵責，期於(華)〔畢〕納，其弊已極，將不可救。此乃時和年豐一時偶舉之事，而濫觴至此。況當飢饉之餘，尤不可因循，請革罷。”答曰：“如啓.”

헌부가 아뢰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생원·진사 등이 시관(試官)을 위하여 은문연(恩門宴)을 베푸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근래에는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여 폐단이 큼니다. 그리하여 합격자들이 은문연을 베풀기 위하여 물품을 거둘 때 부형이 수령으로 있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미면(米麪)·유밀(油蜜)·우척(牛隻)·저장(猪獐) 등의 물품을 많이 책정하여 기어코 가져다 바치게 하고 있어서 폐단이 이미 극도에 이르러 장차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는 시화연풍(時和年豐)할 때 한번 우연히 하던 일인데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기근이 든 뒤라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더욱 불가하니 혁파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0권 5년 閏6월 15일 丁丑

丁丑/全羅道潭陽府吏朴仁祖等得犀角金以獻, 【全羅監司南宮淑狀啓: “潭陽府使吳謙牒呈: ‘府書員朴仁祖得片金於山鬱沙石中, 大如手掌. 來獻于府, 看審則前面凹刻以提調官大府監卿馬札兒台, 工部尙書燕帖木兒, 禮部侍郎野里堅住, 至順二字大書, 上都留守賀惟一, 大府監丞陳以實, 經歷八十, 提點八里顏, 庚午年七月日鑄造, 後面凹刻, 以犀角金九成伍重五拾貳兩’. 云.”】命入內.

전라도 담양부(潭陽府)의 아전 박인조(朴仁祖) 등이 서각금(犀角金)을 얻어 바쳤는데 대내(大內)로 들어라고 명하였다.

【전라감사 남궁숙(南宮淑)이 다음과 같이 장계를 올렸다. “담양부사 오겸(吳謙)의 첩정(牒呈)에 ‘부(府)의 서원(書員) 박인조가 편금(片金)을 산기슭의 사석(沙石) 속에서 얻었는데 크기는 손바닥만하다. 부에 가지고 와서 바치기에 살펴본즉 앞면에는 음각(陰刻)으로 「제조관(提調官) 대부감경(大府監卿) 마찰아태(馬札兒台), 공부상서(工部尙書) 연첩목아(燕帖木兒), 예부시랑(禮部侍郎) 야리견주(野里堅住), 상도유수(上都留守) 하유일(賀惟一), 대부감승(大府監丞) 진이실(陳以實), 경력(經歷) 팔십(八十), 제점(提點) 팔리안(八里顏)이 지순(至順)—두 자는 크게 썼다.—경오년 7월 일에 주조함」하였고, 뒷면에는 음각으로 「서각금은 9성(成) 5중(重) 52량(兩)」 이라고 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 13권 7년 3월 30일 壬子

慶尙道大丘府民家, 有牛生雌犢, 其脚有六.

경상도(慶尙道) 대구부(大丘府)의 민가에 있는 소가 암송아지를 낳았는데 다리가 여섯이었다.

▶ 14권 8년 3월 22일 戊戌

全羅道求禮, 地震. 康津有牛三犢.

전라도 구례(求禮)에 지진이 일어났다. 강진(康津)에서는 소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 16권 9년 5월 4일 癸卯

癸卯/憲府啓曰

~중략~

又啓曰: “近來紀綱板蕩, 廉恥大壞, 凡所作弊之事, 士大夫唱之, 在下者效之, 已成弊病, 將不可救. 況古今異宜, 尤不可不變而通之. 水原洪原串之設, 所以養馬也. 養馬之菽, 本官減會計而給之, 養馬之草, 則分定於民間, 而使司僕親捧之, 所以除上納之弊, 而且便於養馬也. 近來無知司僕之輩, 貪其利重, 爭圖差遣, 苟非權門之子弟, 不得與焉. 權門子弟, 憑藉父兄之勢, 恣行胸臆, 無所忌憚. 盡取馬菽爲私用, 不捧黃草, 反納其價, 其所養之馬, 不過三四十匹, 而盡爲羸瘠, 多至病死. 年年所失, 每過十餘匹, 其中幸存者, 亦不忍見. 然則非以養馬, 乃所以殺馬也. 況一邑之民, 困於馬草之價, 且疲於築場之役, 傾家破產, 盡爲流離, 其弊不可勝言. 今將所養之馬, 隨便分養, 以除殺馬之患, 似爲便當. 但設場之地, 極爲沃饒, 若令許民耕作, 則反爲權門之所爭. 頃者金浦泥生之地, 雖給成均館, 亦非長久之地. 況近來牛肉之禁甚嚴, 諸生未免無魚之(難) [歎], 典僕亦皆窮殘, 不能供饋. 移馬之後, 令戶曹, 打量結卜之數, 分給成均館及四學, 以示崇儒重道之意, 亦爲便當. 請令司僕寺提調, 察其可否, 商度施行.” 答曰: “律賦事如啓. 洪原串, 自祖宗朝以來, 馬政甚重. 以一時之弊而廢之, 則於祖宗重馬政之意何如耶? 成均館田地, 非不是也. 司僕提調及大臣處, 其議之.”

또 아뢰기를,

“근래 기강이 문란해지고 엄치가 크게 무너져 모든 작폐(作弊)의 일은 사대부가 먼저 하고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본받아 이미 고질병이 되었으니 구제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고금은 사의(事宜)가 다른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변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水原)에 홍원관(洪原串)을 설치한 것은 양마(養馬)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마에 필요한 콩은 본고을에서 회계(會計)를 줄여 지급하게 하고 양마에 드는 풀은 민간에게 할당시켜 바치게 하여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직접 이를 받들게 한 것은 상납(上納)의 폐를 없애고 양마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무지한 사복시의 무리들이 그 이(利)가 많은 것을 탐해서 차견(差遣)되기를 앞 다투어 도모하는데, 권문(權門)의 자제가 아니고서는 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권문의 자제들은 부형(父兄)의 세력을 빙자하여 제 마음대로 자행하며 꺼리는 바가 없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니다. 그리하여 말 먹이는 콩을 모두 가져다가 사용(私用)으로 삼고 황초(黃草)를 거두지 않고는 그 값을 거두니 기르고 있는 말이 30~40필에 불과한데도 모두 말라 비틀어져서 병들어 죽는 말이 많으므로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10여 필이 넘고 그중에 다행히 살아 남는 것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몰골입니다. 그러니 양마하는 것이 아니고 살마(殺馬)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고을의 백성들은 마초(馬草) 값에 시달리고 축장(築場)하는 일에 지쳐 가산을 파하고 모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니 그 폐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르는 말을 편의에 따라 나누어 기르게 하여 살마의 폐를 없애는 것이 편리하고 온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말기르는 땅이 매우 기름지니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한다면 도리어 권문의 싸움거리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金浦)의 이생지(泥生地)를 성균관에 지급하였으나 이것 또한 장구한 땅이 아닙니다. 하물며 요즘 소고기를 금지하는 것이 매우 엄하여 제생들이 고기 없는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전복(典僕)들도 모두 궁핍하여 공궤(供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읊긴 후에 호조로 하여금 전지(田地)의 결복(結卜) 수를 측량하여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나누어 지급하게 해서 숭유 중도(崇儒重道)하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사복시제조로 하여금 그 가부를 살피어 헤아려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율부(律賦)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홍원관의 일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마정(馬政)을 매우 중하게 여겨 왔는데 한때의 폐단 때문에 이를 폐한다면 조종조에서 마정을 중히 여긴 뜻에 대해 어떻게 되겠는가? 성균관의 전지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사복시제조와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17권 9년 7월 16일 甲寅

甲寅/傳曰: “以全羅御史任輔臣單子觀之, 則全羅之人, 持牛隻屠殺於市場, 而(反)〔販〕賣資生云. 此雖飢荒之所致, 然若不禁止, 則農牛將盡, 實有妨於東作矣. 并以此意, 下書于本道, 使之禁止.”

전교하였다. “전라어사 임보신의 단자(單子)를 보니, 전라도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도살하여 이를 팔아 살아간다고 했다. 이것이 비록 굶주림 때문이기는 하나 만일 금지하지 않는다면 농우(農牛)가 장차 다 없어져 실로 내년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니, 이런 뜻도 아울러 본도에 하서하여 금지하게 하라.”

▶ 17권 9년 7월 24일 壬戌

壬戌/傳曰: “平安道御史李彦憬書啓: ‘黃海道路上, 見牽牛或三四或二三而來者, 問其

所從來，則皆言自平安道來，而所居之邑，則諱而不言．以此見之，農牛買賣者，容或有之’云云．此雖飢荒之所致，若不禁止，則農牛將盡．依全羅道禁止事例，平安監司處，申勅嚴禁事，下書可也．”

전교하였다.

“평안도어사 이언경의 서계에 ‘황해도 노상에서 서너 마리나 두세 마리의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을 보았는데, 어디서 오는가 물어보니 모두 평안도에서 온다고만 하고, 거주하는 고을은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이로 본다면 농사짓는 소를 매매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이다.’ 했다. 이는 비록 굶주림 때문이기는 하지만 금지하지 않는다면 농사지을 소가 장차 다 없어질 것이니, 전라도에서 금지한 사례대로 평안감사에게 신칙하여 엄금할 일로 하서하도록 하라.”

▶ 17권 9년 10월 22일 己丑

領議政沈連源、右議政尹漑、兵曹判書尹元衡、知中樞府事張彥良、工曹判書洪暹、吏曹判書李浚慶、兵曹參判丁應斗、兵曹參議金弘胤、議彌串築城事曰：“彌串，乃權管所居，而與上國地界，只隔一江，爲唐人瞻視之地，則宜有城子，稍存體勢．但彼處居民鮮少，入番軍士亦寡，雖小城權管，不能以其力設築，必假一道之力，則直路要害，如定州、嘉山，則本無城子，宣川、龜城，則雖有舊城，幾盡頽圯，廣梁、老江、宣沙浦諸鎮，亦皆無城．朝議每以此爲慮，而役鉅不能卒舉．可自明年，觀本道農事，於農隙，役水軍及諸處闕軍，隨勢所至，新城漸築，舊城亦修，以圖永遠之計．若以此爲重，則如彌串小堡之城，所當用餘力築之，不甚汲汲．況唐人渡江買賣，奪竊牛馬之事，非築城所能禁也．不可後其重處，而先築小城．”

영의정 심연원, 우의정 윤개, 병조판서 윤원형, 지충추부사 장언량(張彥良), 공조판서 홍섬, 이조판서 이준경, 병조참판 정응두, 병조참의 김홍윤(金弘胤)이 미관(彌串)에 성 쌓는 일을 의논드렸다.

“미관은 곧 권관(權管)이 있는 곳이지만 중국의 지경과 단지 강 하나로 막혀 있어 중국인들이 건너다보게 되는 지역이므로 마땅히 성을 쌓아 다소나마 체모와 기세를 갖추어야 하는 합니다. 다만 그곳은 거주하는 백성이 드물고 입번(入番)하는 군사도 적으므로 비록 작은 성을 쌓더라도 권관이 자체의 힘으로 쌓을 수는 없고 반드시 온 도(道)의 힘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로(直路)의 요해지인 정주(定州)·가산(嘉山)과 같은 데는 본래 성이 없고 선천(宣川)·귀성(龜城)에는 비록 옛 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두 무너졌고 광량(廣梁)·노강(老江)·선사포(宣沙浦) 같은 모든 진(鎭)에도 역시 모두 성이 없으므로, 조정의 의논이 매양 이를 염려하면서도 역사가 커서 갑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도의 농사 형편을 보아 농한기에 수군(水軍) 및 모든 곳의 궤군(闕軍)을 부려 힘이 닿는 대로 새 성을 차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차근 쌓고 옛 성도 또한 수축하여 영구한 계획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중히 여길 것 같으면 작은 성보(城堡)인 미관 같은 곳은 남은 힘을 사용하여 쌓아야 하고 그다지 급급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인들이 강을 건너와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나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는 것은 성을 쌓아 금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중요한 곳의 성을 뒤로 미루고 작은 성을 먼저 쌓아서 안 됩니다.”

▶ 17권 9년 10월 22일 己丑

又遣史官，收議于左議政尙震及府院君申光漢。尙震議：“城者，保民之所。雖非要害之地，力有所可及，則迨其無事而爲之，衛國之急務也。彌串一堡，乃在鴨江，不與狄境相接，故曾無疊入之例，止設木柵，其來已久。然今隔江唐人，不但潛相買賣，至或刼奪邊氓畜產，馴致生釁，固可前知。依洪暹所啓施行不妨。我國方隅關防稍完，獨義州一面，最爲虛疎。其在前朝，置義、麟、靜三州於一州之地，豈爲徒然？必有深意。中宗朝，亦嘗有遠慮，自義順館至彌串築城之議已定，至審城基而啓聞，近來意見不一，其議乃寢。若於清燕之暇，或軫聖念及此，此宜在先，不在後。患生而爲之備，非先事而慮者也。古人遇凶年，建賑救之策，必曰修城郭，則築城爲役，不論豐歉，皆可舉耳。以爲不可者，或曰：‘沙土難築。’或曰：‘爲水所侵。’然前朝既築之，今亦可築。占得岡脊，則何有水患？人既不可，臣不須喋喋，事關國家大勢，不忍容默，而此亦善繼之一事，相時徐議，有益無害。”申光漢議：臣未嘗任邊方，未知彌串堡果何如也。況築城等事，須識邊情地勢者，審度而處之，可得其宜矣。但近來中國之人，與我邊氓，連境而居，只隔一江而已，其往來交通販貿物貨，非一日矣。常懼兩邊之人，交通往來，必有惹起事故，仍致患禍，古今所虞。如有可以限隔兩地，以靖邊方者，盍先圖之？臣今見洪暹所啓，正合今時之衆慮，深副保邦之長算。然臣未識邊情地勢，而斷以築城之可否，實所未敢。”

【史臣曰：“守國之要，雖在於城郭，安民之道，不在於城郭。城郭雖固，而人民困悴，將誰與守之哉？蓋城郭者，有形之險也；人心者，無形之固也。欲固有形之險，而反失無形之固，則其險不足恃也。將焉用彼城郭哉？今歲凶荒，八道皆然，不可用民力之時也，而彌串一堡，非與敵國相連，有朝夕竊發之患也。上國邊氓，難通買賣，時有潛竊牛馬，特在有司之嚴禁，非築城之所能禁也。連源等觀明年農事爲之議，猶可也，尙震賑飢而修城郭之言，不其誤乎？”】

또 사관(史官)을 보내어 좌의정 상진 및 부원군 신광한(申光漢)에게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상진이 의논드리기를,

“성은 백성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비록 요해지가 아니더라도 힘이 자라면 일이 없는 때에 쌓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시급한 일입니다. 미관보(彌串堡)는 곧 압록강가에 있어 오랑캐의 지경과는 서로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 침입한 적이 없었으므로 목책(木柵)만 설치해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 저쪽의 중국인들이 몰래 서로 매매만 하는 것

이 아니라 변방 백성의 가축을 약탈해 가기도 하니, 이러다가 사단이 생기게 될 것은 미리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홍섬이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방 모퉁이의 관방(關防)이 다소 완전합니다마는 유독 의주(義州) 한 군데만이 매우 허술합니다. 전조(前朝)에는 의주 한 고을 지경에 의주·인주(麟州)·정주(靜州) 세 고을을 두었으니, 어찌 헛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반드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종조(中宗朝)에도 일찍이 원대한 생각을 하여 의순관(義順館)에서 미관까지 성을 쌓자는 의논이 이미 결정되어 성터를 살펴보고 계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래에는 의견이 한결같지 않아 그런 의논이 중지되었으니 만일 한가하신 틈에 혹시라도 성상의 염려가 이에 미치신다면, 이는 마땅히 먼저 해야지 뒤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환란이 생긴 뒤에 방비하는 것은 일이 있기 전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이 흉년을 만나 친구할 계획을 건의할 적이면 반드시 성곽 쌓는 것을 말했으니 성 쌓는 역사는 풍년이나 흉년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래땅이라 쌓기가 어렵다.’ 하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는 곳이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전조에도 이미 쌓았으므로, 지금도 또한 쌓을 수 있습니다. 등성이를 따라 쌓는다면 어찌 물이 침입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옳지 않다고 여기므로 신이 여러 말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국가 대세에 관한 일이어서 차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그 전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어가는 일이기도 하니 시기를 보다 서서히 의논한다면 유익함이 있고 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신광한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일찍이 변방 일을 맡아보지 않았었기에 미관보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성 쌓는 등의 일은 변방 사정과 땅의 형세를 아는 사람이 자세히 헤아려서 처리해야 합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사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변방의 백성과 연결한 지경에서 사는데 단지 강 하나가 막혔을 뿐이므로 왕래 교통하며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하루 만이 아닙니다. 양쪽 사람들이 교통 왕래하면 필시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환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항상 염려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염려해온 일이니 만일에 양쪽 땅을 갈라놓음으로써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찌하여 우선으로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지금 홍섬이 아뢴 말을 보니 바로 이 시점의 중론(衆論)과도 맞고 나라를 지킬 장구한 계획에도 매우 부합됩니다. 그러나 신은 변방 실정과 땅의 형세를 알지 못하므로 성 쌓는 일의 가부를 결단하는 것은 실로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나라를 지키는 요새는 비록 성곽에 있는 것이지만 백성을 안정시키는 길은 성곽에 달려 있지 않다. 성곽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곤궁하여 지친다면 장차 누구와 함께 지켜 갈 것인가. 대개 성곽이란 유형(有形)의 요새이고 백성들의 마음이란 무형(無形)의 요새이니 유형의 요새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무형의 요새를 잃어버린다면 그 요새는 믿을 것이 못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차 그 성곽을 어디에 쓰겠는가? 올 흉년은 팔도가 모두 같아서 백성의 힘을 쓸 수 없는 때이고 미관보는 적국과 서로 잇닿아 조석 사이에 환란이 발동할 데도 아니다. 중국의 변방 백성들이 비록 물건을 매매하거나 때로는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다만 유사(有司)가 엄중하게 금단하기에 달린 일이지 성을 쌓음으로써 금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년 농사를 보아서 쌓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자는 연원 등의 의논은 그래도 괜찮지만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해 성곽을 수축하자는 상진의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 18권 10년 1월 11일 丁未

大司諫李夢亮等上劄曰：

伏以主上殿下，臨御往十載，敬天勤民，無所不用其極，而休祥不臻，妖孽疊見，天災、時變，草木、蟲鳥之妖，無歲無之，日以日甚，雖古亂亡之世，未有如此之極。加以水旱之災，近年尤劇，湖嶺二南，國之根本，所恃以爲固者也，井里蕭條，田野荒蕪，飢饉之餘，見之慘目。以殿下仁孝畏天之誠，宜致天心之底豫，而天不悔禍，禍患弘多。迄于去年，秋冬失序，寒暖不中，金星抗陽，黑霧漲空，花卉亂發，震霆交作，野雉入市，草種如雨，皆非佳兆也。況北方鎮堡，農牛皆斃，湖嶺之間，麥苗皆凍。飢餓濱死之民，矯首開喙，以待新穀，而今若此，豈不寒心哉？豈民之厄會，適值流行之機，非人力之所可圖免歟？將民之自絕于天，而天亦厭之醜之而不救之歟？抑天之仁愛，而警戒之，使殿下，震懼惕慮，無少間斷，以底於治歟？是未可知也。今年春首，大陽示咎，重暈、雙珥、虹霓、冠、戴，無所不有。日者，衆陽之宗，正月，一歲之元，而陰邪不正之氣，抗冒至此，憂虞之象甚矣。殿下特命儒臣，博考古事，欲以應答天譴，臣等聞之，不勝感激。夫常人之情，始而懼，中而衰，終而安。今殿下遇災之懼，可謂誠矣，恐有少怠於遇災之後。宮火之災，在於去歲，而今以丹雘之飾爲泰，犯斗之彗，見於前年，而遽以舍度之退爲常，何足以回天而轉災乎？今者土木纔罷，倉儲虛竭，南北失和，邊警騷，儒術不振，異教日盛，陰盛陽衰之證，固足以召災而致禍矣。伏願殿下，尊儒術納諫諍，闢異端節財用。雖在停講之日，必擇溫涼之朝，廣接賢士，通達下情，天心庶乎其可回矣。不然，天怒民怨，逾起而逾甚，禍亂之作，恐無日矣。伏願殿下留神焉。

答曰：“予以眇末之資，承祖宗付托之重，恒懷戰兢之志，于今十有餘載，而衆災連綿，層出疊見，今又日變非常，予心憂懼，罔知所措。人事有失，上天示變。是予不能仰答天譴之所致也。劄辭當留念焉。”

대사간 이몽량(李夢亮)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주상 전하께서 즉위하신 10년 동안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 일에 부지런 하시어 정성을 다하셨는데도 상서로운 일은 생기지 않고 재앙의 조짐만 겹쳐 나타나 천재와 시변(時變) 및 초목(草木)·곤충(昆蟲)·조류(鳥類) 따위의 요망한 것이 없는 해가 없고 날마다 심해지니, 비록 옛적의 어지럽고 멸망하게 된 세상에도 이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습시다.

더욱이 수재(水災)와 한재가 근년에는 특히 심하여, 호남(湖南)과 영남(嶺南) 두 도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마을들이 쓸쓸해지고 전답들이 황무지(荒無地)가 되어버려 기근의 참상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어질고 효성스러우신 전하께서 정성으로 하늘을 경외하시니 마땅히 하늘이 즐거워해야 되는데도 하늘이 화 내린 것을 뉘우치지 않아 환란이 커지고 많아

지기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가을과 겨울이 절서(節序)를 잃어 추울 때 춥지 않았고, 금성(金星)이 태양에 맞았으며 검은 안개가 하늘에 가득하고, 화초(花草)가 철 아닌 때 피고 번개와 천둥이 치고 들쭉이 시가(市街)로 들어오고 풀씨가 비처럼 내리기도 하여, 모두가 아름다운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북쪽 지방의 진보(鎭堡)에서는 농우(農牛)가 모두 병들어 죽고 호남과 영남 일대는 보리싹이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죽을 지경에 이른 백성들이 고개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곡식 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백성들의 액운(厄運)이 마침 유행하는 시운에 걸려 사람의 힘으로는 모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하늘을 어겨 하늘도 역시 싫어하고 추하게 여겨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이 인자하게 애호(愛護)하느라 경계를 내려 전하로 하여금 조금도 간단없이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치세(治世)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에는 봄부터 해에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 겹핍무리·쌍이(雙珥)·무지개·관(冠)·대(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해는 못 양기(陽氣)의 주종(主宗)이고 정월은 한 해의 으뜸인데 음사(陰邪)하고 올바르지 않은 기운들이 이처럼 범하였으니 매우 걱정되는 현상입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유신(儒臣)들을 명하여 널리 옛적의 일들을 고찰하게 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신들이 듣고서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대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두렵게 여기다가도 중간에는 식게 되고 나중에는 태연해져 버리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심이 지성스럽다 하겠습니까마는, 재변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태만해지시는 듯합니다.

궁궐(宮闕)이 불타버리는 화재가 지난해에 있었는데도 이번에 너무나 사치스럽게 단청(丹靑)을 꾸몄고 혜성(彗星)이 북두성(北斗星)을 침범하는 일이 지난해에 있었는데도 궤도가 옮겨진 것을 예사롭게 여기셨으니, 어떻게 하늘의 마음을 돌리고 재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지금 토목 공사를 겨우 끝내느라 창고의 저축이 고갈되고, 남쪽 지방에서나 북쪽 지방에서나 화친(和親)하지 못하여 변방의 경보(警報)로 역참(驛站)이 소란하고, 유술(儒術)은 진흥(振興)되지 않고 이단(異端)이 날로 왕성해 지고 있으니, 이는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쇠퇴한 증거로서 진실로 재변을 불러들이고 화를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술(儒術)을 존중하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며 이단을 물리치고 재용(財用)을 절약하소서. 그리고 비록 진강(進講)을 정지한 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온화한 아침을 택하여 널리 현명한 선비들을 접하시어 아랫사람들의 심정이 통하도록 하신다면, 하늘의 마음을 거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의 노여움과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심해져 아마도 얼마 안 가서 화란이 일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하찮은 자질로 조종(祖宗)들의 막중한 부탁을 받아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 온 지가 이제 10여 년인데, 재변(災變)이 잇달아 나타나고 겹쳐 생기다가 이제는 또 해의 변괴(變怪)가 비상하므로 나의 마음이 근심스럽고 두려워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인사(人事)가 잘못되면 위에서 하늘이 변괴를 보이는 법이니, 이것은 내가 하늘의 꾸지람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응하지 못하는 소치일 것이다. 차자(筴子)에 한 말을 유의하겠다.” 하였다.

▶ 18권 10년 5월 16일 己酉

上引見沈連源等於思政殿.

~중략~

李光軾曰: “南方之倭寇孔熾, 而北方亦非無事也. 臣之子李戡, 今守鍾城. 常簡通於臣曰: ‘尼爾車【北戎部落名.】胡人鋤應、鋤乙貴【胡人名.】牧馬備糧, 常欲作賊, 而自穩城見敗之後, 不敢逞其志也. 若與城底胡人, 約爲婚姻, 與之同謀, 則後日之患, 有不可勝言者矣. 況今六鎮, 春月雨雪, 耕種失時, 農牛盡斃, 田野荒蕪, 今年之秋, 已無望矣. 南方之事, 今方措置, 北方之變, 亦可預備也.” 上曰: “南北皆有釁, 措置之事, 宜無所不至.” 浚慶曰: “人才乏少. 京中諸將, 盡送南方, 北方之事, 亦不可不慮. 武臣之被罪者, 速爲收斂可也.” 上命全羅左道防禦使南致勤、右道防禦使金景錫曰: “倭變如此, 措置之策, 毋失其機. 嚴明軍令, 尙克有濟. 賜卿等藥物, 其勿謝恩.” 景錫曰: “下六浦, 以南方軍卒入防矣, 上六浦則以漕運, 無軍卒守之者, 防禦爲難. 請各別措置.” 致勤曰: “近來連歲凶荒, 軍卒殘弊, 各浦兵船不足. 倭寇之來, 不可以舟師戰. 但當守城保民, 以爲尾擊可也, 兵少食乏, 措置之事, 百計無策.” 上曰: “卿其往哉, 量而處之.”

상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심연원 등을 인견(引見)했다.

~중략~

이광식(李光軾)이 아뢰기를,

“남쪽 지방에는 왜구(倭寇)가 매우 치성하고 북쪽 지방도 또한 일이 없지 않습니다. 신의 자식 이감(李戡)이 지금 중성(鍾城)을 지키고 있는데 항시 신에게 서간(書簡)을 보내기를 ‘이마거(尼爾車)【북쪽 오랑캐의 부락 이름이다.】의 호인(胡人) 서응서을귀(鋤應鋤乙貴)【호인 이름이다.】가 말을 키우고 양식을 비축(備蓄)하며 항시 도적질을 하려고 했었는데, 온성(穩城)에서 실패한 뒤부터는 감히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성저 호인(城底胡人)들과 결탁하여 서로 혼인을 하고서 그들과 함께 모의한다면 뒷날의 환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육진(六鎭)은 봄철인데도 눈이 내려 밭갈고 씨뿌릴 시기를 놓치고 농우(農牛)가 모두 죽어버려 논밭이 묵은 채로 있으니 올해의 추수도 이미 가망이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남쪽 지방의 일은 바야흐로 조치하고 있지만 북쪽 지방의 변도 또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사단이 있으니 조치할 일은 빠진 것이 없이 해야 한다.”

하였는데, 이준경이 아뢰기를,

“인재가 모자랍니다. 서울의 제장(諸將)을 모두 남쪽 지방으로 보내는데, 북쪽 지방의 일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신(武臣) 중에 죄 입은 사람들을 시급하게 거두어

서용(敍用)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전라좌도방어사(全羅左道防禦使) 남치근(南致勤), 우도방어사(右道防禦使) 김경석(金景錫)에게 명하기를,

“왜변(倭變)이 이러하니 조치하는 방책(方策)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군령(軍令)을 엄중하게 밝히어 더욱 일을 잘 이루도록 하라. 경들에게 내린 약품(藥品)에 대해서는 사은(謝恩)하지 말라.”

하니, 김경석이 아뢰기를,

“아래쪽의 6포구(浦口)는 남쪽 지방의 군졸을 들여보내 방어하겠습니다만, 위쪽의 6포구는 조운(漕運) 일 때문에 지킬 만한 군졸이 없어 방어하기 어렵겠으니, 각별히 조치해 주소서.”

하였다. 남치근이 아뢰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졸들이 피폐해졌고 각 포구의 병선(兵船)이 부족하므로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수군(水軍)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을 지키면서 백성을 보호하다가 추격해야 할 것인데 군사가 적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조치해 갈 일을 갖가지로 헤아려 보아도 계책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가서 잘 요량해서 조치하라.”

하였다.

▶ 19권 10년 8월 23일 乙酉

領議政沈連源等議: “弓角貿易, 其來已久. 若優給人情, 而能爲周旋, 則可無生事之理. 前者譯官名錄差批到遼東, 稱病留在, 有此例矣. 然以此爲苟且, 則可令冬至使通事, 貿銅、鐵、鐵, 付團鍊使而送. 今又有麟山牛馬掠奪禁戢事, 移咨遼東, 亦可作別起而遣. 大抵非不知此等貿易之重難, 方當我國緊用之時, 恐難中止也.” 傳于政院曰: “見大臣之議, 大概相同矣. 勿別遣通事, 令冬至使所帶通事, 貿易.”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등이 의논드리기를,

“궁각의 무역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인정물(人情物)을 후히 주고 잘 주선한다면 말썽이 생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는 역관(譯官)이 물명(物名)을 기록한 차비문(差批文)을 가지고 요동에 가서 병을 핑계대고 머물렀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구차스럽다면 동지사(冬至使)의 통사(通事)로 하여금 동·남·철을 무역하여 단련사(團鍊使)에게 부쳐 보내게 하소서. 지금 또 인산(麟山)에서의 소·말의 약탈을 금급(禁戢)시켜 달라는 것으로 요동에 자문을 보내자면 또한 별도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을 무역하는 것이 매우 중난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긴용(緊用)할 때를 당하고 있으니 중지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신의 논의를 보면 대체는 같다. 통사를 별도로 보내지 말고, 동지사가 데리고 가는 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사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라.”
하였다.

▶ 19권 10년 閏11월 21일 壬午

傳于義州牧使柳仲郢【是日拜辭.】曰：“凡守令之治民，皆具於七事矣，若夫救荒、撫恤、防備等事，宜盡力措置可也. 義州接壤於上國，故唐人時或潛來擄掠，我民惹起鬪狠之弊，不可保其必無也. 往哉于彼，便宜從事，俾無此弊.” 柳仲郢啓曰：“義州，地接上國，唐人之來居於越邊者，日盛. 非徒交通我國之人，潛相買賣，或乘夜結黨，剽掠牛馬而去. 乘夜剽掠之人，初不知唐人、胡人或我國之人，則不得已登時捕獲矣，捕獲之後，若知其唐人，則結縛拘囚，似爲未安. 頃者朝廷，有捉付江沿臺、湯站，然後移咨治罪之議. 若然則捉付江沿臺、湯站之際，或千戶拒而不受，雖曰受之，別無朝廷之旨，而義州直移文捉送于上國之人，事體未安. 何以處之?” 傳曰：“知道. 當言于該司，詳議處置.” 仍傳于政院曰：“以啓意，言于禮曹、承文院，使之詳議處置.”

의주목사(義州牧使) 유중영(柳仲郢)에게 전교하기를, 【이날 배사(拜辭)하였다.】

“무릇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칠사(七事)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구황이나 무휼, 방비 등과 같은 일을 다해 조치하라. 의주는 중국과 접하여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간혹 몰래 건너와서 우리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그곳에서 가서 일을 잘 처리하여 이러한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하니 유중영이 아뢰기를,

“의주 지역은 중국과 접하여 있어서 건너편에 와서 사는 중국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 우리나라 사람들과 교통(交通)할 뿐만 아니라, 몰래 서로 사고 팔기도 하며 간혹 밤을 틈타 무리를 지어 와서 소나 말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을 틈타 약탈하는 자가 중국 사람인지 오랑캐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몰라서 부득이 현장에서 사로잡는데, 잡은 뒤에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결박하여 가두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지난번에 조정에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 강연대(江沿臺)나 탕참(湯站)에 회부한 뒤에 이자(移咨)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잡아다가 강연대나 탕참에 회부할 때에 간혹 천호(千戶)가 거절하면서 받지 않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따로 조정의 전지(傳旨)가 없는데 의주에서 바로 이문(移文)하여 중국 사람을 잡아 보내는 것은 사체에 미안합니다. 어떻게 조치하여야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알았다. 해사(該司)에 말하여 상세히 의논해서 조치하라.”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아뢴 뜻을 예조와 승문원에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22권 12년 1월 4일 戊午

諫院啓曰：“近來邊將，率多攀緣雜進之輩，【武夫，類皆奴顏於宰相之門，以爲發迹之地，宰相亦以武夫爲一家之僕隸，以開納略之路故云.】唯務剝民，不知廉恥之爲何事，使下人怨刺，夷虜輕侮，豈不寒心？前穩城府使趙述，到任以後，誅求日甚，稱爲屯田耕牛，橫取民間牛隻，買得胡人良馬，至於五六匹. 非但邊民，被奪其牛，怨讟朋興，胡人於買賣之際，亦苦其抑勒，聞者莫不痛憤.請趙述先罷後推，以革邊將貪縱之弊.” 答曰：“趙述推考可也，不必先罷.” 後累啓，依允.

【史臣曰：“近來廉恥道喪，貪冒競進，故除授於北鄙者，侵漁賄賂，不可勝算，有良馬貢進之誚，有貂皮除役之譏，曲事權勢，有同家奴者，比比有之. 搥髓剝膏，而害及胡人，豈獨一趙述而已哉？”】

【史臣曰：“朝廷官人，以吉不以貨，然後邊將得其人，而百姓安遠人服矣. 有如方好智之貪縱無狀，顯發公論，而只罷其職，濫授二品之崇資，武夫之箕會箒歛者，必彈冠相慶，無所懲艾，惡乎革其弊哉？”】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변장(邊將)들은 모두 청탁에 의해 잡되게 진출한 무리들이라서，【무부들은 모두 재상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종처럼 섬겨 발신(發身)할 계제를 만들었고 재상도 무부를 집안의 노예처럼 여겨서 뇌물을 바칠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한 말이다.】백성들에게서 굶어들이는 데에만 힘을 뿐 염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원망하고 오랑캐들이 경멸하게 만들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온성부사(穩城府使) 조구(趙述)는 부임한 후로 재물의 수탈이 날로 극심해서 둔전(屯田)을 갈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민간의 소를 몇대로 가져다가 호인들의 좋은 말과 바꾼 것이 5~6필이나 되었으니 변방 백성들이 소를 빼앗겨 원망이 때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호인들도 매매하는 사이에 강제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 하니 듣는 자가 통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구는 먼저 파직시킨 다음 추고하여 변장들의 탐욕스런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구는 추고하여야 되지만 먼저 파직시킬 필요는 없다.”

하였다. 뒤에 여러 번 아뢰니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근래 염치의 도가 없어지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다투어 나왔으므로 북방에 제수된 자들이 침탈하여 뇌물을 바침이 헤아릴 수가 없어서 양마(良馬)를 공진(貢進)한다는 비방도 있고 초피(貂皮)를 바치고 역사(役事)를 면제받는다든 조롱도 있을 정도로 권세를 노복처럼 곡진히 섬기는 자가 즐비하였으니 뼈를 깎고 기름을 짜는 해가 호인에게까지 미치게 한 것이 어찌 일개 조구뿐이었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조정에서 벼슬을 시키는 데 있어 인물의 선함에 기준을 두는 것이지 재물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변장들이 적격자로 채워지게 되어서 백성도 편안하고 먼 지방의 사람들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방호지(方好智)의 탐욕과 무례가 공론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발의되었는데도 그 벼슬만 파하였을 뿐 외람되이 2품의 높은 품계를 주었으니 무부(武夫)로서 재물을 거두어들이기에 급급한 자들이 필시 의기양양하게 모자를 털고 경사스러워하면서 조금도 징계됨이 없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폐단을 고칠 수 있겠는가?

▶ 22권 12년 3월 16일 己巳

全羅道靈光, 有牛產犢時, 後二脚先出, 至四日未產, 不得拔出, 以手挾刀, 納于陰門割出. 腰上頭、項、耳、目、前兩足, 一牛如常, 鼻末拆裂一寸許. 腰下, 二牛形體, 兩尾四脚分明, 兩脚付間背上, 逆生一脚兩足.

전라도 영광(靈光)에서 어떤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뒷다리 두 개가 먼저 나오고는 4일이 되도록 낳지 못하였다. 빼낼 수가 없어서 칼로 음문(陰門)을 찢고 꺼내었다. 허리 이상은 머리·목·귀·눈·두 앞발이 있어 한 마리의 보통 소 모양이었으나 코끝이 한 치쯤 찢어졌으며, 허리 이하는 소 두 마리의 형체로 꼬리가 둘이고 뒷다리도 넷이 분명하였으며 두 다리가 붙은 사이의 등 위에 다리 하나에 발 두 개가 거꾸로 나 있었다.

▶ 22권 12년 3월 25일 戊寅

咸鏡道慶興、慶源、穩城、鍾城, 牛疫熾發, 數月之間, 多斃死.

함경도 경흥(慶興)·경원(慶源)·온성(穩城)·중성(鍾城)에 우역(牛疫)이 치성하여 수개월 사이에 많이 폐사(斃死)하였다.

▶ 22권 12년 5월 7일 己未

丹陽郡守黃俊良, 上疏陳民弊十條曰:

伏以天下之事, 因其未弊而補之, 則庸夫易爲力, 至於已弊而起之, 則智者難爲功. 蓋席阜成之勢, 而修頹墮之政, 只煩守令之力, 而不過一規畫之間, 若其擁虛棄之器, 而收散亡之勢, 則非專守土之責, 而必待於恩典之懷綏也. 然則起弊之難, 非補弊之易, 而其措處方略, 決非守宰之所顯, 迂拙之所堪也審矣.

~중략~

其一曰, 材木之弊. 小大之材, 所納異司, 材椽至於四百, 散木幾於數萬, 已不勝其多矣. 以四十之戶, 而運巨萬之木, 越險跨壑, 填阨墜谷, 男女力竭, 牛馬隨斃, 而闔境之

家, 無數十之畜, 則生民之困極矣. 況塞江流筏, 不能徒納, 而三司之賈, 幾至百匹, 則二年未貢, 長被督責, 亦無足怪矣. 天使之供, 雖非恒貢, 而結棚大木, 凡干雜物, 支持之除, 宜在所先也. 伏願久蠲三司之貢, 并除數年之賦, 勿定華使之費, 兼去雜物之弊, 則民生或於是而少蘇矣.

~중략~

其八曰, 皮物之弊. 兵營方物, 有小鹿、獐皮之納, 而竝定惟新, 又有大鹿、黃牛之價, 托名上供, 十分其選, 而小鹿則以鹿之中者, 獐皮則以鹿之小者. 他道皆然, 已爲弊習, 而雜色十餘, 皆定民間, 正木之出, 至於百餘, 而黠退留難之費, 不與焉, 斯亦弊之巨者也. 且惟新一邑之大, 不必待弊邑之助, 則牛鹿之價四十之布, 專定於惟新, 勿責於敝邑, 諒亦扶弱之政也. 伏願量減兵營之皮物, 永除并定之牛鹿, 使免皮盡毛無之弊, 則亦蘇復之一策也.

~중략~

其十曰, 藥材之弊. 蠹蠹村氓, 不辨藥名, 而俾出童叟, 抱布以貿, 則哀我惻獨, 非所任矣. 其最難者, 熊膽、麝香也, 白芨、人蔘也, 茯苓、地黃也. 百匹之布, 未盡其材, 一草之貢, 皆有人情, 則力有所未及, 固也. 且并定牛黃, 亦出民間, 則專委堤川, 惠此下民, 何不可之有? 伏願勿有棄捐之地, 特減難備之材, 使蒙一分之惠, 共躋仁壽之域, 則勿藥有喜, 召和穹壤, 而蘇復之一端也.

이하생략~

단양군수(丹陽郡守) 황준량(黃俊良)이 상소를 올려 민폐 10조를 진달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천하의 일은 피폐되기 전에 보수할 경우에는 보통 사람도 대처하기가 쉽지만 이미 피폐된 후에 진기시키는 경우에는 지혜로운 자도 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형세를 기반으로 해서 피폐한 정치를 수습하는 것은 수령의 힘만으로도 쉽게 도모할 수 있다 하겠지만 텅 비어버린 허기(虛器)만 가지고서 이미 흩어져 버린 것을 수습하는 경우에는 수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유(懷綏)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폐된 것을 진기시키는 어려움은 피폐되기 전에 보수하는 쉬움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한 방략은 결코 수령이 전담하거나 옹졸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중략~

첫째는 재목(材木)에 대한 폐단입니다.

각 관사에 공납해야 될 크고 작은 재목이 연재(椽材)가 4백 개에 이르고 산목(散木)이 거의 수만 개가 되니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숫자입니다. 40호에서 거만(巨萬)의 재목을 가지고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 운반하자면 남녀가 모두 기진 맥진하고 소와 말도 따라서 죽게 되어 온 고을의 농가에 수십 마리의 가축도 없으니, 백성의 고생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강을 이용하여 뗏목으로 운반하므로 쉽게 공납할 수가 없는데, 삼사(三司)의 공가(貢價)가 거의 1백 필에 이르므로 2년 동안 공납하지 못하여 장구히 독촉을 받게 된 것은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중국 사신을 공궤하는 것도 비록 항공(恒貢)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아니기는 하지만 채봉(彩棚)을 만들 때 쓰는 큰 재목과 여기에 관계되는 잡물은 지공을 제거함에 있어 마땅히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삼사의 공납을 오래도록 제해주고 아울러 몇 해 동안 부역도 없애주며 중국 사신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고 겸하여 잡물의 폐단도 제거해 주면 백성들이 혹 여기에서 조금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여덟째는 피물(皮物)에 대한 폐단입니다.

병영(兵營)의 방물(方物)로 소록(小鹿)과 장피(獐皮)의 공납이 있는데 이를 유신현(惟新縣)과 아울러 배정하였고, 또 대록(大鹿)과 황우(黃牛)의 대가(代價)가 있는데 상공(上供)한다는 명목을 핑계로 그 선택을 최고로 하여 소록은 사슴의 중간치로 하고 장피는 사슴 가운데 작은 것으로 합니다. 다른 도(道)도 모두 그러해서 이미 폐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0여 가지나 되는 잡색(雜色)의 세금을 모두 백성에게 배정하였으므로 점퇴(點退)와 유보(留保)에 대한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내야 할 정목(正木)이 1백여에 이르니, 이 또한 큰 폐단입니다. 그리고 유신현은 큰 고을이므로 반드시 폐읍(弊邑)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우록(牛鹿)의 대가인 40필의 포를 유신현에만 배정하고 폐읍에는 독책하지 않는 것이 또한 약한 자를 부지시키는 정치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병영의 피물을 양감(量減)하고 아울러 배정한 우록을 영원히 면제해 줌으로써 가족이 다하면 털도 없어진다는 폐단을 면하게 해주면 이 또한 소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략~

열째는 약재(藥材)에 대한 폐단입니다.

약이름도 모르는 무지한 촌 백성들에게 생판으로 판출하여 내게 하므로 포목을 가지고 가서 사게 되니 하소연할 데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감내할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웅담(熊膽)과 사향(麝香), 백급(白笈)과 인삼(人蔘), 복령(茯苓)과 지황(地黃)입니다. 1백 필의 포목을 가지고도 이 약재 한 가지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는 모두 인정물(人情物)까지 있으므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정된 우황(牛黃)은 백성들이 내게 되니 이는 전적으로 제천(堤川)에만 맡겨서 이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는 것이 불가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한 고을을 버리지 마시고 갖추기 어려운 약재를 특별히 삭감하여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태평 성대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면 모든 병폐가 저절로 없어져 하늘과 땅에 화기가 감돌 것이니 이 또한 소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이하생략~

▶ 22권 12년 5월 8일 庚申

弘文館副提學成世章等上劄曰:

近年以來, 災異之作, 歲無虛月, 入今年春, 氣候寒慘, 霜雹爲災, 迄至于首夏, 雪塞于山, 加以海潮洋溢, 在在而是, 至于異形之犢, 幻體之雞, 言之不盡, 而又有地震之變, 其所以警動譴告者, 不一而累矣. 臣等伏見殿下聖躬無過, 君德有裕, 宜若不致天之怒, 而是何有此等災怪耶? 臣等竊思之, 聖躬雖未有過, 君德雖已盡裕, 而求之政事、號令之

間, 舉措、施爲之中, 則大有所逕庭焉. 殿下以如此政事、號令、舉措、施爲, 而欲望災異之不降, 不亦難乎? 臣等聞之, 納諫, 人君之盛德. 殿下於聽言之際, 或欠如流之美, 則殿下之政事、號令、舉措、施爲, 不可謂的致此等災異, 而其所以逆天心拂人情者, 有一於此, 則亦不可不謂之殿下之所自召也. 臣等聞之, 人君如帝, 端控深宮, 動靜止乎禮, 出入可爲經. 殿下之於舉動, 靡不嚴矣, 無非事祖先恤民生講武備之發, 而或有非時強作者. 自春至夏, 玉趾累舉, 其中豈無可以已之時乎? 頃者儒將試才日, 大臣啓動樂未安之意, 殿下以爲無傷而勿撤. 內雖有恐懼修省之心, 而外爲戲娛泰恬之舉, 非所以示四方也. 今者兩司, 將居僧位田不可給之意, 反復諍論, 越月踰時, 而殿下牢拒愈甚, 臣等竊憫焉. 殿下教之曰: “爲先王陵寢, 給居僧位田, 非始於今日, 不得已給之.” 然則先王陵寢, 非此輩不得以守護之乎? 昔在先王盡孝之道, 故因時而給之; 亦在先王盡孝之道, 故因時而不給. 給與不給, 均爲盡孝之道, 而亦不能無得失於其間, 則殿下必欲排公論而給之者, 何也? 殿下之於爲治, 宜若致休祥之效, 而反召災異之衆, 殿下試於清讌之暇, 思而又思之, 則當知其故矣. 嗚呼! 殿下以一身當天人感動地位, 而尙何不從事於斯乎? 伏願殿下, 改心惕慮, 一切反前失而已. 昔者 成湯反之. 反之之功一成, 而畢竟所得, 都在於“舍己從人, 從諫弗拂”八字上. 殿下所以舍一己, 而從衆議, 盡修省而致中和者, 豈有一念之間斷乎?

이하생략~

홍문관 부제학 성세장(成世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년 이래 해마다 재변이 발생하지 않은 달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봄 기후가 매우 차가와 서리와 우박의 재변이 있었고 초여름까지도 산에 눈이 쌓여 있었으며 더욱이 바다에는 조수가 넘치는 등 곳곳이 그러했습니다. 이상한 형체의 송아지도 있었고 변형된 닭도 있었는데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진의 변도 있었으니, 견고(謹告)하여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은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허물이 없고 군덕(君德)도 크니 하늘의 노여움이 이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러한 재변이 발생한단 말입니까. 신들은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비록 허물이 없고 군덕도 이미 크지만 정사(政事)와 호령(號令), 거조(舉措)와 시위(施爲)에 크게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이러한 정사와 호령, 거조와 시위로 재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은 들으니,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임금의 성덕이라고 합니다. 전하께서 말을 들을 즈음에 물 흐르듯 따른다는 아름다움에 흠이 있으니 전하의 정사와 호령, 거조와 시위가 이러한 재변을 일으켰다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천심(天心)을 거스르고 인정(人情)을 어긴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전하께서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듣건대 임금은 상제(上帝)와 같이 깊은 궁중에 단정히 앉아서 행동을 예(禮)에 맞추고 출입도 법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하의 거동이 근엄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모두가 조상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고 무비(武備)를 강명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만 더러는 때에 맞지 않게 억지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 상께서 여러 번 거동하였는데 그 가운데 어찌 그만두어야 했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지난번 유장(儒將)들을 시재(試才)할 적에 대신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아뢰었으나 전하께서는 무방하다 하면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무리 공구수성(恐懼修省)하는 마음이 있었다 해도 밖으로는 태연히 즐기는 거조가 있었으니 이는 사방에 보여줄 것이 못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양사(兩司)에서 거승위전(居僧位田)의 세를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반복해서 쟁론하여 달이 지나고 철이 바뀌었는데도 전하께서는 더욱 완강하게 거절하시니, 신들은 삼가 민망하게 여깁니다.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선왕의 능침(陵寢)을 위해 거승 위전의 세를 주는 것은 지금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니, 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가 아니면 선왕의 능침을 수호할 수 없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선왕께서 효도를 극진히 하는 도리가 여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주기도 하였고 주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주든 안 주든 모두가 효도를 극진히 하는 것이 되지만 그 사이에 득실(得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기필코 공론을 배척하면서까지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하께서 정치를 함에 있어 의당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러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많은 재변만 부르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조용한 여가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면 마땅히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전하께서 한 몸으로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계신데 어찌 이러한 데에 유념하지 않으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가다듬어 전의 실수를 일체 반성해야 합니다. 옛적에 성탕(成湯)은 본성을 회복하여 성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반성하여 회복하는 공부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얻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은 모두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며 간언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 [舍己從人 從諫弗拂]’는 여덟 글자에 달려있습니다. 전하께서 한몸의 고집을 버리고 중의(衆議)를 따르고 수성(修省)을 극진히 하여 중화(中和)를 이루는 데 있어 어찌 조금이라도 간단(間斷)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하생략~

▶ 22권 12년 5월 11일 癸亥

司諫院司諫金汝孚等上疏曰：

伏以，國家將興，必有禎祥，其將廢也，必有妖孽。祥多者福之兆，異衆者禍之萌。春秋二百四十二年之間，日星、冰霜之變，水火、羽蟲之災，詳記而謹書之，所以示天人相與之際，甚可畏也，而又以見天心之仁愛人君，欲使警懼知變，而不至於仆滅也。恭惟主上殿下，自卽位以來，內絕聲色之娛，外無遊田之樂，夜寐晨興，臨政願治者，十三年于茲，而民不見德，國事日非，悠悠然如在弊船之中，而胥就淪沒，豈不寒心？日月薄蝕，彗孛飛疏，深冬雷出，正月繁霜，是天譴之也；川竭海溢，山崩水湧，甚至於地震王城，是地告之也；牛產異犢，雙頭八蹄，雌雞化雄，畜牝司晨，是物怪驚之也。稽之前史，凡此衆異，有其一，皆足以致滅亡之禍，而況乎數年之內，疊見層出，靡有厭悔者耶？災變之作，雖不可的知爲某事之應，而人爲美惡之極，乃與天地流通，而往來交感，則豈無所以致之之由，而至於如此之甚乎？近年以來，旱澇爲災，風霜作害，禾穀不熟，饑饉連仍，哀我民斯，顛連無告，盼盼睽睽，莫保朝夕，而加之以海寇作耗，邊柝不靜，戍守徵發之役，什

(伯) [佰] 前日, 行者勞苦, 居者資送, 外寇未除, 而本根先傷. 若此不已, 數年之後, 必有腹心潰散之虞, 可不爲深慮, 而思所以保養之乎?

이하생략~

사간원 사간 김여부(金汝孚)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국가가 흥성하려면 반드시 상서(祥瑞)가 있는 것이고 쇠하려면 반드시 요열(妖孽)이 있는 것입니다. 상서가 많은 것은 복을 받을 징조이고 재변이 많은 것은 화가 생길 징조입니다. 춘추(春秋) 시대 2백 42년간에 해·별·일음·서리의 변고와 물·불·조수·벌레의 재이를 삼가 자세히 기록한 것은 하늘과 사람의 관계가 매우 두렵다는 것을 보인 것이고, 또 천심은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시켜 고칠 줄 알게 함으로써 멸망이 이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즉위한 이래 안으로는 성색(聲色)의 오락을 끊고 밖으로는 사냥하는 즐거움도 없이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사에 임하여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 지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덕을 보지 못하고 나랏일은 날로 잘못되어 망망한 바다 위에 낚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함몰될 지경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일식·월식에 혜성이 나타나고 한 겨울에도 천둥이 치고 초여름에 서리가 내렸으니, 이는 하늘의 견책입니다. 냇물이 마르고 조수가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물이 솟구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서울에 지진까지 발생하였으니, 이는 땅의 경고입니다. 소가 괴이한 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에 발굽이 여덟이었으며,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되고 암탉이 새벽에 울기도 하였으니 이는 물괴(物怪)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재변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모두 멸망하는 화가 이르렀는데, 더구나 수년 내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도 뉘우침이 없는 데이겠습니까. 재변의 발생이 무슨 일에 대한 조응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극도에 이르면 천지와 함께 유통하여 왕래하면서 교감(交感)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부른 이유가 없이 이렇게 극심한 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근년 이래 가뭄과 장마의 재변이 들고 바람과 서리의 해가 발생하여 곡식이 익지 않은 관제로 기근이 잇달았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지쳐 쓰러져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원한을 머금은 채 조석(朝夕)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왜구의 노략질로 변방이 조용하지 못하므로 수자리를 위해 징발하는 부역(賦役)이 전일의 열배 백배나 됩니다. 그리하여 부역에 나가는 자는 노고에 시달리고 집에 있는 자는 노자를 장만하여 보내고 있으니 왜구를 제거하기도 전에 뿌리가 먼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마지않으면 수년 후에는 반드시 복심(腹心)이 무너지는 걱정이 있게 될 것이니, 깊이 생각해서 보양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이하생략~

▶ 23권 12년 8월 4일 甲申

甲申/平安道殷山, 有牛產三犢. 二牡一牝, 同日皆斃.

【史臣曰: “近日天變應於上, 地道失其寧, 加之以物怪層現疊出, 史不絕書. 陰盛陽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微，邦國將衰之証也。”】

평안도 은산(殷山)에서 소가 송아지 세 마리를 낳았다. 두 마리는 숫놈이고 한 마리는 암놈이었는데 같은 날 다 죽었다.

사신은 논한다. 요사이 천변이 위에서 응하고 지도(地道)가 그 정상을 잃었으며 거기다가 사물의 괴변이 거듭 나타나, 사책에 기록이 끊이지 않는다.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미미하니, 나라가 장차 쇠할 징조이다.

▶ 23권 12년 11월 30일 己卯

己卯/夜，地震，屋宇皆動。

【史臣曰：“災變之作，人事之所召。是年海溢彗出，大風作於關西，鐵甕飛空，此陰盛之兆也。牛乳三頭之犢，雞產四足之雛，此物怪之大也。今當天地凝閉之時，數月之內，京師再震，災異之重疊，何至於此極耶？時，勳臣、耆耄，居燮理之任者，沈酣於子女玉帛之間，患得患失，苟且度日，則朝廷是非，誰得以正之，賢邪雜進，誰得以卞之？至若陰兇邪佞，如章、蔡之輩，側于耳目之列，羊狠狐伺，羅織異己，構禍士林，將至於一網打盡之域，而誰得以禁之？若然則陰盛之漸，不足怪也，災異之作，不必訝也。豈惟天災地變，重疊而不已哉？人事之變，將有大於此者矣。可勝痛哉！”】

밤에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온통 흔들렸다.

사신은 논한다.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잘못하여 자초하는 것이다. 이 해에 들어 해일이 생겼고, 혜성이 나타났으며 관서(關西) 지방에는 큰 바람이 일어나 쇠붙이와 옹기 조각이 공중에 날았으니 이는 음(陰)이 성한 징조다. 그리고 소는 머리가 셋이 달린 송아지를 낳았고 닭은 네 발이 달린 병아리를 낳으니, 이는 물건의 변괴 치고도 큰 것이다. 지금 천지(天地)가 활동을 중지하는 때에 수개월 사이에 경사(京師)에 두 번씩이나 지진이 일어났으니, 재이가 중첩되는 것이 어찌 이렇게도 심하단 말인가? 당시 섭리(燮理)의 책임을 맡은 훈신(勳臣)과 원로들이 자녀(子女)와 옥백(玉帛) 사이에 빠져 즐기며 지위를 얻지 못해 근심하고 잃어버릴까 걱정하면서 구차하게 날만 보내니, 조정의 시비를 누가 바를 것이며, 현자와 간신이 뒤섞여 나아온들 뉘라서 가려내겠는가? 심지어 음흉하고 사특하기가 송(宋)의 장돈(章惇)과 채경(蔡京) 같은 무리가 이목(耳目)의 반열에 있으면서 염소처럼 고집스럽고 여우처럼 엿보아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화란을 얹어서 일망타진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이라고 보면 음기가 성하여 번져나가는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고 재이가 일어나는 것도 의아해 할 필요가 없다. 어찌 천재지변만이 중첩되어 마지않을 뿐이겠는가? 인사(人事)의 변고도 앞으로 이보다 더 클 것이니, 통탄할 일이다.

▶ 24권 13년 3월 6일 甲寅

傳于尹春年曰：“一路之事，悉書啓。”春年書啓曰：“一路邊牆烟臺，盡爲頽毀，且無哨瞭之人，故獫賊，惟意出入，少無所憚。如高嶺、沙河，距虜境至近之地，則童子、婦人，皆持兵器以自衛焉。且去年飢饉，天下皆然，而南邊倭寇，尙未寢息。臣之所見，則自遼東〔遼東〕至高嶺十六日之程，道〔饑〕〔殍〕布野，不可勝計，飢民剖屍爲食。海州衛則白日城中，公然殺人，主將亦不敢禁云。廣寧、沙嶺之人，惟以潰散死亡爲心，少無安業之心，故時丁二月，尙無輦糞於田者。至於各站馬匹盡斃，靡有孑遺，故臣言序班，發衛所軍士之馬，自備草料而養，或越五六站。車牛則一輛纔駕二三頭，而皆羸瘠，不能輸運矣。”

윤춘년에게 전교하기를,

“일로(一路)의 일을 다 써서 아뢰라.”

하니 윤춘년이 서계하기를,

“일로 변두리의 연대(烟臺)는 모두 무너지고 파수보는 사람조차 없으므로, 달적(獫賊)이 마음대로 출입하여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령(高嶺)·사하(沙河) 같은 오랑캐의 지경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는 아이와 아낙네가 다 병기를 들고 스스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 남쪽 변방의 왜구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본 바로는 요동부터 고령까지 16일 길인데, 그곳은 길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이 들에 깔려 있었으며, 굶주린 백성이 그 시체를 뜯어 먹었습니다. 해주위(海州衛)에서는 대낮에 성안에서 버젓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주장이 감히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광녕(廣寧)·사령(沙嶺) 사람은 패하여 흩어져 죽을 것으로만 생각하여 생업에 안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므로, 그때 마침 2월이었는데도 밭에 거름을 나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참(站)의 말까지 다 죽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므로, 신이 서반(序班)에게 위소(衛所) 군사의 말을 내어 달라고 말하여 스스로 초료(草料)를 장만하여 먹이며 5~6참을 가기도 하였으며, 수레를 끄는 소는 수레 1양(輛)에 겨우 2~3마리를 메우는데 모두 비쩍 말라 제대로 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 24권 13년 閏7월 3일 戊寅

全羅道玉果民家，有牛一產四犢。雌雄形體俱備，卽時竝死。

전라도 옥과(玉果)의 민가(民家)에서 소가 한꺼번에 4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는데 자웅(雌雄)의 형체는 모두 갖추어졌으나 즉시 다 죽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24권 13년 8월 1일 乙巳

京圻水原府民家, 有牛產雌雄二犢.

경기 수원부에서 민가(民家)의 소가 암수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 25권 14년 4월 24일 乙丑

平安道定州民家, 有牛生犢, 一身兩頭.

평안도 정주(定州)의 민가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한 몸에 머리가 둘이었다.

▶ 26권 15년 2월 7일 癸卯

全羅道金堤郡民家, 有牛孕而難產, 裂而出之, 一頭兩面相背, 四目二口, 四耳二鼻.

전라도 김제군(金堤郡) 민가의 소가 새끼를 배었는데 난산이었다. 배를 가르고 꺼냈는데, 머리 하나에 얼굴은 앞뒤로 돌이고, 눈이 넷, 입이 둘, 귀가 넷, 코가 둘이었다.

▶ 26권 15년 6월 9일 甲辰

甲辰/平安道永柔人家, 有牛產犢, 一頭、兩鼻、兩口、三目.

평안도 영유(永柔)의 인가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코가 둘, 입이 둘, 눈이 셋이었다.

▶ 27권 16년 9월 2일 己丑

己丑/京畿豐德郡民家, 牛產犢, 肩又生二足, 無右耳, 卽死.

경기 풍덕군(豐德郡)의 민가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어깨 위에 다리 두 개가 더 있고 오른쪽 귀가 없었다. 낳자마자 즉시 죽었다.

▶ 29권 18년 5월 21일 戊戌

以吳祥爲司憲府大司憲，【祥有才華。上眷詞藻，故眷顧益隆。】奇大恒【己卯清流邊之子也。心無定力，每患得失，與戚倖李樸游。曾爲諫官，時以金弘胤劾李戡爲非，遂彈之，清議薄之。○弘胤受元衡之嗾，欲起禍士林，雖攻李戡，意不在此，爲大恒所駁而止。史臣誤聞而書之。】爲知中樞府事，李瓘【麤豪無識，急於干進。畏人之議己也，潛覓匿形，伺候李樸之門，有同穿窬，其諂媚取容之狀，言之醜也。題書未下，同類已物色之矣，旋忝重任，名器亦辱。時承旨有闕，注書李時憲語之曰：“今日之政，承旨當出，未知何人爲之也？無乃李瓘輩爲之耶？”旣而題目下，果然。瓘諂事李樸、李戡之徒，昏夜出入，蹤迹詭秘。成憲，戡之子也，而預知其所以然，故先語於人。權奸之交通內外，援植黨與，至此極矣。】爲承政院同副承旨。

【史臣曰：“瓘無識貪鄙，事同市井。曾事尹元衡，見元衡勢歇，替事李樸，其趨時附勢，與李戡等焉。嘗爲鍾城府使時，求質牛畜於內地，以爲贖買胡馬與貂皮之資。常向人誇之曰：‘吾質此，當送于關西。’時李樸爲關西方伯也。至是樸還朝，擅弄朝權，瓘之爲此職，實出於彼也。”】

이하생략~

오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오상이 재주가 있었는데, 상이 그의 사조(詞藻)를 좋아하여 더욱 두텁게 사랑하였다.】 기대항(奇大恒) 【기묘 청류(己卯清流) 기준(奇遵)의 아들로 마음에 췌대가 없어서 매양 득실(得失)을 걱정하여 외척으로 사랑을 받던 이양(李樸)과 사귀었다. 간관으로 있었을 때 김홍윤(金弘胤)이 이감(李戡)을 탄핵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드디어 김홍윤을 탄핵하니 청의(淸議)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홍윤이 윤원형의 사주를 받아 사림(士林)의 화를 일으키려고 비록 이감을 공격하였으나 그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 대항에게 논박받아 정지하였다. 그런데 사신(史臣)이 잘못 듣고 쓴 것이다.】 을 지중추부사로, 이관(李瓘) 【거칠고 무식하였으며 벼슬길로의 진취를 서둘렀다. 그러나 남이 자기를 비난할까 두려워서 마치 좀도둑같이 발소리를 죽이고 몸을 숨기며 이양의 문을 엿보았으니, 그 아침으로 용납되기를 바라는 꼴이란 입에 담기도 못했다. 제서(題書)가 채 내리기도 전에 동류(同類)가 이미 물색하여 바로 중한 책임을 맡았으니 명기(名器) 또한 욕되었다. 이때 승지에 궐원이 있었는데 주서 이성헌(李成憲)이 ‘오늘 정사에 승지가 나올 것인데 어느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관의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조금 있다가 제목(題目)이 내려 왔는데 과연 그러했다. 이관이 이양과 이감의 무리를 아침해 섬기는데 깊은 밤에 출입하여 그 자취가 극히 은밀했다. 성헌은 감의 아들이라 그 내용을 미리 아는 까닭에 먼저 남에게 말하였던 것이니 권간이 안팎으로 교통하며 당여(黨與)를 만드는 것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관은 무식하고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하는 것이 시정배와 같았다. 일찍이 윤원형을 섬겼으나 원형의 세력이 약화됨을 보고는 이양을 대신 섬겼으니 시세를 좇아 아부하는 것이 이감과 같았다. 일찍이 종성 부사(鍾城府使)가 되었을 적에 내지(內地)에서 소 등의 가축을 사다가 호마(胡馬)나 초피(貂皮) 등의 물자로 되사면서 항상 남들에게 자랑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기를 ‘나는 이것을 사서 관서(關西)에 보내야 한다.’ 하였는데, 그때 이양이 관서의 방백으로 있었다. 이양이 조정으로 돌아와 조정의 권력을 독단하게 되자 관이 이 직임을 맡았으니 이는 실로 저 이양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하생략~

▶ 29권 18년 8월 7일 癸丑

癸丑/上御朝講.

~중략~

特進官俞絳【性雖剛克，而不能行之於權勢，才雖幹能，而徒致力於家產，於國事何補.】曰：“咸鏡道六鎮，近來疲弊已極，人民凋殘. 苟失農作，則反以胡地爲樂土而投之，極爲寒心. 祖宗朝，立入居之法，爲實邊之策，而近者國法解弛，入居之人，率皆逃還. 在道內者，監司或能推還，他道則不能. 以此列鎮虛疎，若有事變，則必難支矣. 請申明實邊之政. 兩界邊將，前時或以宣傳官，或以六曹郎官差送矣，近者以倭變之故，歸重南方，北方僉使、萬戶，舉皆以無知冗雜之類注擬. 高嶺鎮，關防重地，故常以秩高之人差送矣，甫乙下則關防尤重，城底胡人最多，買賣之是煩，商賈之是聚，最難鎮撫，而每以新出身及未出身者差送. 請將爲堂上之人差遣，因以遷敘六鎮何如？且六鎮地極寒，自前或造衲衣入送，而近來則未聞焉. 雖或造送紙衣，不能遍及，請加例送之數. 且除不緊貢物，而造狗皮衣入送.” 上曰：“啓意皆當. 明日會議時并議事，言于該曹.” 特進官安瑋【奉公頗勤，友於兄弟. 卒左議政玟之兄也.】曰：“自古以兩界爲重地，今者非但防禦解弛，側聞土兵有良馬，則邊將減價奪取，私行往還，守令迎送，皆以土兵馬傳輸，土兵之有馬者，反以爲苦. 痛加禁戢事，監司、兵使處下諭. 咸鏡道邊將，多以牛隻，質換毛物，商(買) [買] 亦多買牛而來，農牛已盡，耕田之祭，人代牛役. 宜嚴勅邊將，禁抑買賣. 且下三道，倭變以後，邊將皆以爲無事，苟過歲月，傳聞濟州牧使【金禹瑞.】致友人書，‘倭人搶去我國人八名’云. 此人通於濟州，傳及都下，本道監司、兵使，皆不以聞. 小臣爲全羅監司時，我國人二名搶去，而追奪以來. 以此觀之，今云八名搶去之言，似不爲虛矣.” 上曰：“下書察之. 實若人物搶去，則極爲駭愕矣.”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중략~

특진관 유강(俞絳) 【성품이 강경했으나 권세 앞에는 나약했고 재간과 능력이 있었으나 가산을 모으는 데만 힘써 나라에는 도움이 없었다.】 이 아뢰기를,

“함경도의 육진이 근래에 피폐함이 극심하여 백성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호지(胡地)를 낙토(樂土)로 여겨 투신해 갈 것이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조종조에서 입거(入居)의 법을 세운 것은 변방을 실(實)하게 하자는 계책이었는데 근자에 국법이 해이하여 입거했던 백성들이 거의 다 도망쳐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내에

도망와 있는 자는 감사가 혹 찾아서 되돌려 보내기도 하지만 타도에 있는 자는 찾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진이 허술해지고 있으니, 만약 사변이라도 생긴다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변방을 실하게 하는 정사를 다시 강구하소서.

전에는 양계(兩界)의 변장을 선전관(宣傳官)이나 육조의 낭관 중에서 차송(差送)했는데 근래에는 왜변 때문에 남방에 치중하여 북방의 첩사와 만호를 모두 무지하고 난잡한 무리들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진(高靈鎭)은 관방(關防)에 중요한 곳이므로 언제나 품질이 높은 사람을 차송하였고 보을하(甫乙下)는 관방이 더욱 중한 곳으로 성저 호인(城底胡人)이 가장 많고 매매의 거래가 번잡하여 장사꾼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진무(鎭撫)하기가 가장 힘든 곳인데도 매양 겨우 출신(出身)했거나 아직 출신도 못한 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래 당상이 될 사람을 택하여 보내고 인하여 육진으로 옮겨 서용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육진은 지대가 매우 추운 곳이어서 전부터 가끔 납의(納衣)를 지어 보냈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혹 지의(紙衣)를 만들어 보낸다고 하나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예송(例送)의 수량을 늘리도록 하소서. 그리고 긴요치 않은 공물은 면제해 주고, 개가죽 옷[狗皮衣]을 만들어 보내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지당하다. 내일 회의 때에 아울러 의논할 것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하였다. 특진관 안위(安瑋) 【봉공하기를 성실히 하였고 그 형제간에 우애하였으니 죽은 좌의정 안현(安玟)의 형이다.】 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양계를 중요한 곳으로 여겨왔는데, 지금은 방비만이 해이해졌을 뿐 아니라, 전하는 말을 듣건대 토병(土兵)들에게 양마가 있으면 변장이 값을 깎아 빼앗고 사행(私行)으로 왕래하거나 수령을 영송하는 데도 모두 토병의 말로 수송하고 있으므로 말을 가진 토병은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하니, 통렬히 금지할 것을 감사와 병사에게 하유(下諭)하소서. 함경도의 변장들은 대부분 소를 가지고 모물(毛物)을 환매(換買)하고 있으므로 장사꾼들이 소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농우(農牛)가 이미 다 없어져 논을 갈 때 사람이 소가 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하니 변장에게 엄히 신칙하여 매매를 억제하게 하소서.”

또 하삼도(下三道)에 왜변이 있는 후로는 변장들이 모두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구차히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제주목사 【김우서(金禹瑞).】 가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왜인이 우리나라 사람 8명을 잡아갔다.’고 했다 합니다. 이 소문은 제주를 통하여 도하(都下)에까지 전해졌는데도 본도의 감사·병사는 모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전라감사가 되었을 당시 우리나라 사람 2명이 잡혀 가는 것을 뒤쫓아 가서 빼앗아 온 적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8명이 잡혀갔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서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진실로 사람을 잡아갔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 31권 20년 8월 14일 戊寅

戊寅/大司憲李鐸、大司諫朴淳等, 上實封其書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治國之要，在順人心；爲邦之道，當伸公論；人心順，則國以之安，公論伸，則邦以之寧也，必然之理也。如或人心拂，而不知順，公論沮，而不知伸，則國勢必至於危，邦本終至於蹶矣。自古興隆之君，莫不順人心，而伸公論；衰亂之主，莫不拂人心，而沮公論。此既往之得失，而將來之龜鑑也。前領議政尹元衡，本一儉邪陰險人也。托國舅肺腑之親，參山河帶礪之盟，身躋具瞻之位，手秉一國之鈞。狐假主威，而與奪隨手，嬰撫廷臣，而榮瘁在口。威權日隆，形勢赫於梁門，溪壑無底，蓄積剩於董塢，百俺馳走，承風旨之必先；八方饋遺，輸上第之恐後。道路心怒而側目，閭巷腹誹而向隅，主勢至於日孤，國步阽於將顛。此豈一朝一夕之故哉？其所由來者漸矣。稔惡已極，擢髮難數；奸狀萬端，不可殫記。臣等姑撮其萬口所騰，萬目所睹者，爲殿下條陳之。

~중략~

武庫鐵工鑄鍊兵戈，以需緩急之用也，而私役其家，不遑國事，車輻之設，運轉戎器，以重軍國之事也，而私輸其物，輟摧牛斃。此其專擅之十也。

~중략~

各處農庄，分養牛隻，成籍點閱，彌滿原野，孳息之數，如或剋減，則侵徵之弊，延及其隣保。此其貪贓之十也。

~중략~

答曰：“前領相事，論執已過一句，疏上二十六條，予雖不敏，豈不識公論之所在乎？每見啓辭之人，予心常爲不寧，予不快從者，但爲宗社之大功，文定之同氣故也。雖不竄謫，一朝免相，竝遞提調，使勿參議於國政。又命杜門謹慎，退居門外，則於國有何害乎？只保功臣爵祿而已。至於竄謫，則決不可從也。兩司須念丁寧之教，毋煩固執可也。不允。”三啓請竄，不允。弘文館請竄，再筭，不允。

대사헌 이탁(李鐸)과 대사간 박순(朴淳) 등이 봉서(封書)를 올렸다. 그 내용에,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인심을 순히 하는 데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공론을 펴야 합니다. 인심이 순하면 나라는 그 때문에 안정이 되고 공론이 퍼지면 나라는 그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이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만약 인심이 거슬렸는데도 순히 할 줄을 모르고 공론이 막혔는데도 펴 줄을 모른다면 나라 형편은 틀림없이 위태롭게 되고 나라의 근본은 결국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융성하게 한 임금들은 모두 인심을 순히 하고 공론을 폈으며, 나라를 어지럽게 한 임금은 인심을 거슬리고 공론을 막았습니다. 이는 이미 지나가 버린 잘잘못이지만 장래의 귀감이기도 합니다.

전 영의정 윤원형은 본래 간사하고 음흉한 사람입니다. 국구(國舅)로서 왕실(王室)과 가깝다는 핑계로 공신의 자리에 참여했으며 영상의 자리에 올라 일국의 정권을 쥐고 임금의 위엄을 빌어 생살여탈을 제 마음대로 하였으며 정신(廷臣)들을 엮어 놓아 성쇠가 그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엄과 권세가 날로 높아져서 형세가 양기(梁冀)의 가문보다 더 빛나고, 축재하는 욕심이 한이 없어 동탁(董卓)의 만세오(萬歲塢) 보다 더 호화롭습니다. 백관이 앞을 다투어 뜻을 받들고 팔도(八道)에서 남보다 뒤질세라 뇌물을 바칩니다. 도로에 다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성을 내고 눈을 흘기며 향간에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비방하고 구석에

서 한탄합니다. 임금의 세력이 날로 약해지고 국운이 장차 떨어지려 하니, 이것이 어찌 일조일석에 생긴 일이겠습니까.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저지른 죄악은 이미 극도에 달하여 머리카락을 뽑아가며 셀지라도 이루 셀 수 없고 온갖 간사한 작태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우선 만인의 입에 오른 것과 만인의 눈으로 본 것을 뽑아서 전하를 위해 조목별로 진술하겠습니다.

~중략~

10. 무고(武庫)에서 일하는 철공(鐵工)은 병기를 만들어 급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사사로이 집에서 일을 시켜 국사를 돌볼 겨를이 없게 하였고, 차량(車輛)을 두는 것은 무기를 운반하여 군국(軍國)의 일을 엄중히 하는 것인데, 사사로이 물건을 운반하여 수레가 부서지고 소가 죽었습니다.

~중략~

10. 여러 곳의 농장에 소를 분양하고 장부를 만들어 점검하며 들판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번식하는 숫자가 더러 줄기라도 하는 날이면 마구 징수하는 폐단이 이웃에까지도 미쳤습니다. ...”

~중략~

하니, 답하기를,

“전 영상의 일은 논집한 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다. 상소한 26조목은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어찌 공론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계사(啓辭)가 들어오는 것을 볼 적마다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내가 흔쾌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종사에 큰 공이 있고 문정 왕후의 동기이기 때문이다. 귀양은 보내지 않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정승의 직위를 면직시키고 체조까지 체직하여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문 밖 출입을 금하고 근신하며 성문 밖에 퇴거하라 하였으니 국가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공신의 관작과 봉록만 보존하고 있을 뿐이니 귀양까지 보내는 것은 결코 따를 수 없다. 양사는 나의 간곡한 분부를 유념하고 번거롭게 고집하지 말라. 윤희하지 않는다.”

하였다. 귀양보내라고 세 번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홍문관이 귀양보내라고 두 번 차자를 올렸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 32권 21년 3월 15일 丙午

丙午/諫院啓曰：“臣等將司僕寺等司，生黃草濫徵之弊，啓請禁革，已蒙允下。畿甸之民，庶被一分之惠矣。更聞之，當初詳定之數甚多云，若那移充用，量減其數，則民力之紓，豈淺淺哉？請令該曹及司僕寺等各司提調，同議酌定。且其數，移文于京畿監司，使之曉諭民間，俾無中間姦濫之弊。”答曰：“如啓。”

【史臣曰：“我國民弊固多端矣，而畿甸爲尤甚。試舉司僕一事而言，其弊有四。箭串牧場，例設木柵，年年而改備，民不勝力，一也。木柵疎漏，馬多逃逸，發軍捕逐，擾亂列邑，二也。濫徵戶草，盡歸私門，而防納者因緣作弊，三也。馳酪乳牛，日次分定，農畜盡斃，民從失業，四也。頃者，官出布帛，而償役石築，則設柵追馬之弊除矣。納草之弊，則與司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畜、典牲、瓦署諸司，大抵皆然，而民怨極矣。今此諫院之論，可謂得矣。惜其不廣也。其他百司之弊，亦令提調申聞，而與該曹議定加減，推此而一之，則豈不盡善？然乳牛之弊尙存，此弊(之)中之大者，而仁人之所不忍爲之事也。且聞司僕下吏輩，欲徵求無術，則故放場馬，任聽所之，而追逐各邑，貽弊亦甚云。以此論之，一司之弊，猶未盡祛，況其他乎？”】

【史臣曰：“畿甸農民，備納芻束之弊，轉輸請賂，艱苦尤甚，而本司視爲奇貨，或代受米布，或倍蓰稱量，以爲情私答應之用，凡曾經本司及時任者，族屬隣里之家，皆仰資於是，遂成故事，而民瘼則置之度外，至是請革焉。然宿弊，豈能遽革哉？”】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사복시 등 사(司)에서 생황초(生黃草)를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단에 대해 금지 개혁하기를 계청 한바 이미 윤허를 받아, 기전 백성들이 거의 조그마한 혜택을 입었습니다. 다시 들건대 애당초에 상정(詳定)된 수량이 매우 많다고 하니, 만약 나이(挪移) 해서 충용(充用)하고 그 수량을 줄인다면 민력에 대한 도움이 어찌 작겠습니까. 바라건대 해조와 사복시 등 각사의 제조로 하여금 상의해서 작정하게 하고 또 그 수량을 경기 감사에게 이문(移文)하여 민간에 알려져 중간에서의 남간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우리나라에 민폐(民弊)가 진실로 여러 가지이지만, 기전이 더욱 심하다. 사복시의 일례를 들어 말하더라도 그 폐단이 네 가지이다. 즉 살곳이[箭串] 목장(牧場)에 으레 목책(木柵)을 치는데 해마다 이를 고쳐서 치므로 민력(民力)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첫째요, 목책이 허술하여 말들이 많이 도망치므로 군사를 풀어 쫓아잡는데 열음이 시끄러운 것이 둘째요, 호초(戶草)를 지나치게 징수하여 죄다 사복(私腹)을 채우고, 방납(防納)하는 자도 이를 계기로 작폐하는 것이 셋째요, 젖을 짜는 유우(乳牛)에 대해 날짜를 분정하므로 농우(農牛)가 다 폐사하여 백성이 따라서 실업하게 되는 것이 넷째이다. 전번에 관부가 포백을 내어 임금을 상환하고 돌로써 쌓았으므로 목책을 치고 말을 쫓아잡는 폐단은 없어졌다. 그러나 호초를 납품하는 폐단은 사축서(司畜署)·전생서(典牲署)·와서(瓦署) 등 각사가 대개 다 그러하여 민원(民怨)이 극에 이르렀다. 지금 간원의 이 의논이 진실로 적절하나 광범위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기타 백사의 폐단도 제조로 하여금 신고한 뒤에 해조와 더불어 의정 가감하게 하고 이를 미루어 일률로 만든다면 어찌 진정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유우의 폐단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이는 폐단 중의 가장 큰 것이니 인인(仁人)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또한 들건대 사복시의 하리(下吏)들이 징수나 요구하는 데 방법이 궁해지면 일부러 말을 풀어 놓고 제멋대로 달아나게 한 뒤에 각 읍으로 쫓아 나서므로 그 폐단 또한 극심하다 하니, 이로써 논한다면 한 사의 폐단도 오히려 다 제거되지 못한 셈인데, 하물며 기타의 것이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기전의 농민이 추축(芻束)을 비납(備納)하는 폐단이 수송 과정에서 뇌물을 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욱 심한데, 본사에서는 도리어 기화로 삼아 흑미포로 대신해서 받기도 하고 혹 수량을 몇 갑절로 늘려 받아서 개인의 사용으로 삼는가 하면, 본사 전임자나 시임자의 족속 또는 그의 이웃집들이 다 여기를 의뢰하여 드디어 고사가 되고 백성들의

폐단은 예외로 방치하다가 이번에는 혁신을 계청한 것이다. 그러나 묵은 폐단이 어찌 갑자기 혁신되겠는가?

▶ 32권 21년 4월 17일 戊寅

豐德郡守李民覺【從容端的，爲人可取。以有門閥，故時論雖惜之，仕宦不達。】上疏曰：

伏以疾痛在身，而必呼父母者，臣子之情也。食芹非美，而欲以獻御者，野人之誠也。臣濫荷聖恩，出宰百里，歲連失稔，黎民阻飢，臣又撫字乖方，賑救無策。臣見殿下之赤子，將至流離顛頓，而既不能救，又不以告，則臣雖萬死，無以贖罪。況害流百姓，弊關一郡者，則不得不達於聖聰。臣寧伏妄言之罪，不忍含默，以負殿下。伏願，殿下恕其狂僭，特垂採擇焉。

~중략~

二曰：除防納，以革積弊。臣伏見，聖上軫念民困，除一年之稅，蠲上納之貢。【以山陵赴役，給畿民租稅。】當饑饉之時，減役民之煩，聖恩洪大，澤被黔黎。凡有血氣，孰不感激？第念各司猾吏，名稱主人，凡上貢之物，必售其己有，而刁蹬其價。假有備納本色者，必百計瞞言，期於點退而後已。故列邑之人，任其侵漁，無有紀極。當此聖政惟新之時，巨蠹猶存，宿弊未祛，誠爲痛心。然其弊之所自來者，亦有由矣。所納之物，未必其邑之產，況有別例之定，又拘期限之迫，雖備本色，不如防納者之預畜，而待時也。不得不有資於主人，其乘時而作弊一也。至如進上之物，多有不及期限，則例稱先上，【前期引用者，諺云先上。】手執尺文，而高索其價。不滿溪壑，文移督迫，舞弊而作弊二也。該掌之官，雖知其術，平日之責辦於典僕者多矣，不得不酬其費，故下人得以哀矜之辭、難對之語，感動其心，而該官亦不能不任其所爲。此其瞞官而作弊三也。以本郡之事觀之，典牲署之羔猪、司畜署之雞鴨、奉常寺之蔬菜、軍器寺之牛角·雉羽，此其甚焉者也。十握之菜，米至二十斗；一頭之猪，米至十餘斛。民生安得以不困？至如其人【各官人吏，供京師柴炭者之稱。】之價，法有定制，而恣意濫徵，其弊尤甚。伏望令有司，申明法制，嚴加禁抑，使斯民庶免侵毒。雖然若不先革侵毒典僕之害，則弊根猶在，法終不行矣。防納之弊，名爲禁斷，而科條不善，則民之受害，反有甚於前日矣。熟講而善處之，必有策矣。

이하생략~

풍덕군수(豐德郡守) 이민각(李民覺) 【종용하고 단정하여 사람됨이 취할 만하였으나 집안에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의논이 그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사환(仕宦)은 영달(榮達)하지 못했다.】 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병이 들어 몸이 아프면 반드시 부모를 부르는 것은 신자의 심정이며, 미나리를 먹으면서 아름답지는 않지만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은 약인의 정성입니다. 신이 지나치게 성은(聖恩)을 입어 지방에 나아가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으나 해마다 흉년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신이 또 어루만져 사랑하는 방법이 어긋나고 진흙하여 구제하는 계책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전하의 적자(赤子)가 장차 유리(流離)하여 넘어지게 될 것을 뵈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미 구제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신이 만 번 죽더라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해가 백성에게 전해지고 폐단이 한 고을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충(聖聰)에 진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신이 차라리 망령되게 말한 죄에 복주(伏誅)될지언정 차마 잠자코 있으면서 전하를 저버리지 못하겠으니 전하께서는 신의 광망(狂妄)하고 참람한 것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채택(採擇)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중략~

둘째는 방납(防納)을 제거하여 누적된 폐단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성상(聖上)께서 백성의 곤궁함을 염려하시어 1년의 세(稅)를 면제시켜 주시고 상납(上納)하는 공물(貢物)을 덜어주시며, 【산릉(山陵) 부역 때문에 경기 백성들에게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기근이 든 때를 당하여 백성을 역사시키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시어서 성상의 넓고 큰 은택이 백성들에게 입혀졌으니 무릇 혈기(血氣)가 있는 자로서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러 관사(官司)의 교활한 아전들이 주인(主人)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공(貢)바치는 물건은 반드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팔되 그 값을 올립니다. 가령 본색(本色)을 갖추어 바치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온갖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여 기어코 중도에서 차지한 뒤에야 그만두기 때문에 여러 고을 사람들이 멋대로 침해하도록 내버려두어 끝이 없이 피해를 받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처럼 성정(聖政)이 새로워지는 때를 만나서도 커다란 좀벌레가 오히려 남아 있어 해묵은 폐단이 제거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폐단의 유래가 까닭이 있습니다. 바쳐야 할 물품이 반드시 그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별례(別例)로 정한 것이 있으며, 또 기한이 임박함에 구애되어 본색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방납하는 자에게 미리 저축해 두고서 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못하여 어쩔 수 없어 주인(主人)에게 의뢰하게 되므로 그 기회를 타고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한 가지요, 그리고 진상하는 물건 같은 등속에 이르러서도 그 기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례 선상(先上) 【기일보다 앞서 끌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말로 선상이라고 하였다.】 이라 하면서 손에 자문(尺文)을 가지고 그 값을 높이 따지다가 값이 제 욕심에 차지 않으면 공문을 이첩하여 독촉하고 핍박하며 술책을 부려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요, 해당 관원이 그 술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일(平日)에 전복(典僕)에게 판비(辦備)하도록 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 비용을 갚아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인(下人)이 애처로운 말과 대답하기 어려운 말로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해당 관원도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두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그들이 관(官)을 속이고 폐단을 일으키는 세 번째입니다.

본 고을의 일로써 관찰하면 전생서(典牲署)의 염소·돼지와 사축서(司畜署)의 닭·오리와 봉상시(奉常寺)의 소채와 군기시(軍器寺)의 우각(牛角)·치우(雉羽)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그중에서 심한 것입니다. 10몸음 채소의 값이 쌀 20두(斗)에 이르며, 1마리의 돼지 값이 쌀 10여 곡에 이르면, 백성의 생활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인(其人) 【각 고을의 인리(人吏)로 서울의 땔나무와 숯을 공급하던 사람을 일컫는다.】의 값에 이르러서도 법으로 정한 제도가 있는데, 마음대로 지나치게 징수하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거듭 법제(法制)를 밝히고 엄하게 금지시키고 억제하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침어의 해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전복들을 침해하는 해독을 먼저 혁파하지 않으면 폐단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법이 끝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납하는 폐단을 명목으로는 금단한다고 하지만 과조(科條)가 홀륭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받는 피해는 도리어 지난날보다 더 심할 것이니, 익히 강구하여 잘 조치한다면 틀림없이 계책이 있을 것입니다. ...”
이하생략~

▶ 32권 21년 5월 15일 乙巳

四方沈霧. 日暈. 慶尙道陝川民家, 有牛產雌犢, 無前左脚, 以三足行步.

사방에 안개가 끼고 햇무리가 졌다. 경상도 합천(陝川)의 민가에 소가 암송아지를 낳았는데 왼쪽 앞다리가 없어 세 다리로 걸었다.

▶ 33권 21년 8월 10일 戊辰

戊辰/上以封書二道, 分下于平安道災傷御史金添慶、咸鏡道巡傷御史朴希立. 仍傳曰: “近來, 御史等尋捉不法, 似不盡情細察, 宜以微服出入民間, 探知民情得實而來” 【御史所授封書, 乃戶曹抽牒災傷田結字也. 同緘小封書, 則乃不法應察, 凡十條也. 民間弊察事, 侵虐王民, 貽弊於民之事、飲食奢侈事、酒庫革罷與否事、農牛盜賣事、私出入官府、濫騎驛馬訪問事、農事豐斂看審事、所經各官農事竝審事、善政守令訪問事.】

상이 봉서(封書) 두 통을 평안도재상어사(平安道災傷御史) 김첨경(金添慶)과 함경도재상어사 박희립(朴希立)에게 나누어 내리고 이어 전교하였다.

“근래 어사들이 불법을 잡는 데 마음을 다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 것 같다. 마땅히 미복 차림으로 민간을 드나들면서 민정을 탐지하여 사실을 얻어 오라.” 【어사에게 준 봉서는 곧 호조에서 추생한 재상 전결(災傷田結)의 자(字)이다. 동봉한 소봉서(小封書)는 곧 불법을 살필 열 조목이다. 1. 민간 폐막(弊瘼)의 일. 2. 백성을 침학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 3.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일. 4. 주고(酒庫) 혁파의 여부에 대한 일. 5. 농우(農牛) 도매(盜賣)에 관한 일. 6. 사사로 관부(官府)에 출입하는 일. 7. 함부로 역말을 타고 방문하는 일. 8. 농사의 풍흉(豐凶)을 살펴보는 일. 9. 지나는 각 지방의 농사를 아울러 살피는 일. 10. 잘 다스리는 수령을 방문하는 일.】

▶ 33권 21년 9월 24일 辛亥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辛亥/司紙成運上疏曰:

伏以, 前者, 臣以病牢不可居官, 上帝具陳, 天聽尙高, 未蒙允許. 今復仰訴, 用煩聽覽. 臣衰極之餘, 千里奔驅, 氣竭力弊, 遂成勞疾, 逆氣橫衝, 咽隘梗塞, 神昏不省, 如醉如醒. 謁醫而問之, 皆曰脈病難治, 投以良劑, 莫之收效. 自始有疾, 今逾旬月, 診候萬狀, 日遠彌篤. 聞之於方書曰: “藥補不如食補.” 臣嘗以此說爲是, 故時或強飯, 旋即吐出. 臣齒算已盡, 又加此疾, 深恐升屋之呼, 不在朝則在夕也. 臣在鄉, 每值冬月, 則入處奧室, 封闔四牖, 獨啓一戶, 以通朝晡之飯. 雖階庭之近, 亦不投足. 至明年三月, 天氣和煦, 乃始出外. 今臣假棲他家, 家壁不完, 竈絕薪火, 長宵抱被, 霜氣入骨, 以故病日增加, 無方能已. 今臣以人而歸則易, 以屍而歸則厚費財糧, 貧力莫支, 故臣欲及未死, 以人而歸, 及家而死. 設若未必及家, 而猶得近家而死, 則駕二牛車, 用挽卒六七人, 可以載歸, 貧家力或可濟. 用是亟欲治具戒僕, 扶疾啓行, 玆用上聞, 伏冀恩命. 臣以不肯, 猥蒙聖恩, 如負丘山, 無路仰答, 但欲謹守一官, 竭誠奉職, 誓不以欺負君上爲心. 此臣區區之懷, 而病奪之志, 卒不得在官, 戀(贍)〔瞻〕闕庭, 未忍亟退, 謹昧死以聞.

【曹植見此疏曰: “身疾何關, 而備達於君上乎?”】傳于政院曰: “遣內醫于成運家, 其令看病以啓.”

사지(司紙) 성운(成運)이 상소하기를,

“전번에 신이 병세가 중하여 벼슬에 있을 수 없으므로 상소하여 사정을 갖추어 진달하였으나 성상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러러 하소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겠습니다.

신이 쇠잔한 몸으로 천리길을 달려오고 보니 기력이 고갈되어 드디어 노독이 발생하였습니다. 욕지기가 나고 목이 막히며 정신이 혼매하여 취한 것도 같고 깬 것도 같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물었으나, 모두들 ‘맥병(脈病)은 치료하기 어려워 좋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효험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병이 난 지가 지금 순월(旬月)이 넘었는데, 온갖 증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들으니 방서(方書)에 ‘약보(藥補)가 식보(食補)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합니다. 신은 일찍이 이 말을 옳게 여겨왔기 때문에 때로는 혹 억지로 밥을 먹어보기도 하나 먹은 즉시 토해 버립니다. 신은 나이가 이미 많은 데다 또 이런 병까지 겹쳤으니, 죽음이 아침에 있지 않으면 저녁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이 시골에 있을 때 해마다 겨울만 당하면 깊숙한 방에 들어앉아서 사방 창문을 꼭 봉하고 단지 문 하나만을 내놓아 조식 밥상을 받을 뿐이며, 아무리 뜰 같은 가까운 땅에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해 3월 날씨가 화창할 때에 가서야 비로소 밖에 나가곤 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남의 집을 빌려있는데, 벽 등이 완전치 못하고 부엌에는 나무가 떨어졌으므로 긴 밤을 이불을 안고 있자니 찬 기운이 뼈에 스며듭니다. 이 때문에 병이 날로 심해지나 능히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신은 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시체로 돌아간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니, 가난한 가세(家勢)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아직 죽기 전에 산 사람으로 돌아가 집에 이르러서 죽을 것입니다. 설령 반드시 집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근처의 다른 집에 달아서 죽는다면 두 마리의 소에 멍에 맨 수레에다가 끄는 사람 6~7명만 동원한다면 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집의 힘

도 혹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기구를 마련하고 노복(奴僕)을 단속시켜 환자를 붙들고 떠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때문에 사유를 상에게 알리고 엎드려 은명(恩命)을 기다립니다.

신은 불초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성운을 산더미처럼 받았는데 우리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벼슬을 삼가 지키고 성의를 다해 공직에 종사하여 맹세코 임금을 속이거나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마음먹는 것이 신의 구구한 소원이었는데 병이 뜻을 빼앗아서 끝내 벼슬에 있지 못하게 만드니, 대궐 뜰을 연연히 바라보며 차마 속히 물러가지 못합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니, 【조식(曹植)이 이 상소를 보고 ‘신병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임금에게 갖추 진달하는가?’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내의(內醫)를 성운의 집에 보내어 병을 살펴보고 아뢰게 하라.” 하였다.

▶ 33권 21년 10월 24일 辛巳

以威鏡道衲衣敬差官鄭澈書啓， 下于政院曰：“令該曹希究詳察回啓.” 【鄭澈書啓： “小臣祇奉聖命， 出入南北道各官各鎮保， 土兵試才、軍士點考， 則其間弊端， 不可勝言。 北方列邑， 沿江設鎮， 豺虎爲隣， 關防甚緊， 事機甚重， 而今日六鎮之勢， 如火消膏， 不覺將盡， 良可寒心。 土兵元額， 隨歲隨減， 庚申六千， 今只五千， 漸至銷縮， 推此可知。 以今現存者言之， 雖大官巨鎮， 能射禦敵者無幾。 其所謂操弓壯健者， 亦多疲癯殘弱， 不可驅使。 飢寒困苦， 著於面目， 甚者單衣破裂， 肌膚赤露。 問其生利， 貯糠爲糧， 煮草爲醬。 不幸老弱， 無衣無食， 分死溝壑， 慘惻之狀， 所難忍見。 臣憫其如此， 留心訪問， 則往時列鎮諸將， 多不得人， 不厭無恥， 唯利是急， 貨貂與馬， 以圖發身， 故剝民膏血， 無所不爲。 或發倉粟， 或收民鹽， 名爲價錢， 而逐口倍徵。 又胡人之持馬與貂者， 率皆索牛， 故奪民牛隻， 略不爲難。 田多荒蕪， 牛利縮民， 甚憫焉。 南道則彼人往來之路， 咫尺相望， 關防之重， 與北無異。 而三水、甲山以道內巨鎮， 殘弊已甚。 甲山則一百九十餘戶， 三水則三百餘戶， 土兵耗縮， 甚於北道。 時存之數， 吾乙足、雙青外， 其餘鎮保， 多則二三十， 少則二、三、六、七， 而亦皆疲癯殘劣， 不可禦敵。 民居零落， 烟火蕭條， 所見慘如。 觀察使洪曇語臣以二官疲弊。 及到甲山， 府民之號訴者滿路， 皆以爲清蜜貂鼠皮之貢， 最難支吾， 山高倍寒， 不能養蜂。 府地所產皮毛， 惡不用， 故臨時則收布於民間， 貿於江原， 貨皮於北道。 或封進事急， 價必以倍。 用此流離， 十室九空云。 誠可慮也。 凋瘵南北皆然， 而又分防軍士， 徒核虛數， 或稱逃亡， 或稱物故， 通謂之絕戶， 而空累掛公。 到防人亦壯勇者少， 殘劣者多， 或以童子充補， 列將論報兵使催理木官事被罷免， 而竟不得充定。 非盡奉職， 不稱民不足而然也。 南道則甚焉。 軍士之關防者， 皆稱農軍營屬。 臣欲知虛實， 移問兵使， 則果皆有言可據， 而竊聞之， 營屬爲任， 憑依主將， 徭役不及， 故丁壯之以從軍爲苦者， 窟穴於此， 數外濫占， 不勝其衆， 積成深弊云。 汰出數外之人， 以補軍額， 似合實邊之策。】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함경도 남의 경차관 정철(鄭澈)의 서계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철저히 궁구하여 자세히 살핀 뒤에 회계하게 하라.”

【정철의 서계는 다음과 같다. “소신이 성상의 명을 받들고 함경남북도의 각 고을과 각 진보(鎭堡)를 다니면서 토병(土兵)의 재주를 시험하고 군사를 점고해 보니, 그간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북방의 여러 고을은 강(江)을 따라 진(鎭)을 설치하였는데 사나운 적들과 이웃하고 있어서 관방(關防)이 매우 긴요하고 사기(事機)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육진(六鎭)의 형편은 불에 타는 기름과 같아서 장차 다 타 없어져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스러웠습니다. 토병의 원액(元額)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경신년에 6천 명이던 것이 지금은 5천 명뿐이니, 점점 줄어들 것은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자들을 말하면 비록 큰 고을이나 큰 진이라 하더라도 활을 쏘아 적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몇 없고, 이른바 활을 다룰 줄 아는 건장한 자들이라는 것도 대부분 지쳐서 잔약하기 때문에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피곤하고 괴로운 빛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고 심한 경우는 걸치고 있는 홀옷이 해지고 찢어져 맨살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물으니 겨를 저장했다가 양식으로 쓰고 풀을 고아 장(醬)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노약자들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어서 이 구렁 저 구렁에 죽어 나뒹굴고 있었으므로 그 참혹하고 가련한 정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이러한 정상을 민망히 여겨 유념하고 찾아가 물어보니, 지난날 열진(列鎭)의 장수들 가운데 적격자 아닌 사람이 많아서 끝없는 욕심에 염치도 없어 오직 사리(私利)에만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서피(貂鼠皮)나 말[馬]을 뇌물로 바치고 출세를 하려고 도모했기 때문에 백성의 고혈을 짜냄에 있어 못하는 것이 없어서, 혹 관고(官庫)의 곡식을 빼내고 혹 민염(民鹽)을 거두어가면서 가전(價錢)이라는 명목으로 식구 수에 따라 배로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이나 초서피를 가진 호인(胡人)들이 대체로 소로 바꾸려 가려 했으므로 어렵게 여기지도 않고 백성들의 소를 빼앗았기 때문에 많은 전지(田地)가 목계 되고 소도 줄어 백성들이 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도는 피인(彼人)들이 다니는 길이 지척에 서로 바라보이므로 관방의 중요성이 북도와 다를 것이 없었는데, 삼수(三水)·갑산(甲山)은 도내(道內)의 큰 진이지만 이미 심하게 피폐되어 갑산은 1백 90여 호(戶)였고 삼수는 3백여 호로, 토병의 액수가 북도보다 더 줄어들어 현존하는 수도 오을족(吾乙足)과 쌍청(雙靑) 이외의 진보에는 많으면 20~30호였고 적으면 2~3호 내지 6~7호였는데, 역시 모두 병들어 파리하고 쇠잔하여 적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마을은 영락할 대로 영락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고 그 때문에 보기에다 비참했습니다. 관찰사 홍담(洪曇)이 두 고을의 피폐한 상황을 신에게 말하며 ‘갑산에 가니 호소하는 부민(府民)이 길에 가득했는데 모두들 청밀(淸蜜)과 초서피의 공납을 가장 감당하기 어렵게 여겼다. 오산(吾山)은 높아서 다른 곳보다 더 추워 벌을 기를 수도 없고, 그곳에서 나는 모피는 품질이 좋지 못해 쓰지 못하므로 공납할 임시가 되면 백성들에게 베[布]를 거두어 꼴은 강원도에서 사오고 초서피는 북도에서 사오는데, 혹 봉진(封進)하는 일이 급하면 반드시 값을 곱절로 줘야 살 수 있다. 이것이 백성들이 떠돌게 되어 열 집 중 아홉 집을 비게 한 원인이다.’ 하였으니, 진실로 걱정됩니다. 백성들이 병들어 시든 것은 남도나 북도가 다 그러했는데 또 분방 군사(分防軍士)도 한갓 빈 숫자만 있을 뿐 어떤 자는 도망쳤다 하고 어떤 자는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절호(絶戶)된 자들이 헛되이 공부(公簿)에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방어하러 오는 자들 역시 젊고 건장한 사람은 적고 쇠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어린애로 보충하기도 하므로 장수들이 병사(兵使)에게 논보(論報)하여 다스리기를 재촉하였으나 본 고을에서는 차라리 파면될지언정 끝내 충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직분을 충실히 봉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남도는 더욱 심하여 관방(關防)하는 군사가 모두 농군(農軍)이 아니면 영속(營屬)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그 허실(虛實)을 알아보기 위해 병사에게 이첩(移牒)하여 물어보니, 과연 모두 증거할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삼가 듣건대 영속으로 들어가면 주장(主將)의 힘을 빌어 요역(徭役)에 나가지 않게 되므로 종군(從軍)을 고생스럽게 여기는 장정들이 여기로 모여들어 정수(定數) 이외로 남점(濫占)한 것이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이므로 큰 폐단이 되고 있다 합니다. 정수 이외의 사람들을 사태(沙汰)하여 군역에 보충하면 변방을 튼튼히 하는 계책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 33권 21년 閏10월 3일 庚寅

全羅道潭陽, 雷聲大作. 咸鏡道德源民家, 牛一產四犢, 二牡二牝.

전라도 담양(潭陽)에 천둥이 크게 쳤다. 함경도 덕원(德源)의 어느 민가(民家)에서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네 마리를 낳았는데 두 마리는 수놈이고 두 마리는 암놈이었다.

▶ 34권 22년 1월 5일 辛酉

慶尙道榮川、龍宮, 地震, 屋瓦微動. 草溪民家, 有牛產兩犢, 其犢一體一尾, 而兩頭、兩口、兩耳、四目、四足, 產後母子俱死.

경상도 영천(榮川)·용궁(龍宮)에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조금 움직였다. 초계(草溪)의 민가(民家)에 암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뚱이와 꼬리는 하나이고 머리·입·귀는 두 개씩이며 눈과 발은 네 개씩이었는데, 산후(産後)에 어미와 새끼가 다 죽었다.

14. 宣祖實錄

▶ 5권 4년 9월 12일 辛未

全羅監司馳啓: “靈巖、康津、海南三邑, 介在兩營之間, 又當濟州直路要衝之地, 貢賦十倍於他官. 自乙卯經變以後, 防備諸事極多, 民甚困苦. 三邑不產鹿尾、鹿舌、快脯, 請移於濟州獐鹿興產之地. 校書館冊紙長、興庫見樣紙, 請令正供都監, 磨鍊移於內地事歇之地.”

전라감사가 치계(馳啓)하였다.

“영암(靈巖)·강진(康津)·해남(海南) 세 고을은 양영(兩營) 사이에 끼여 있는데다가 제주가 곧장 갈 수 있는 길목의 요충지여서 공부(貢賦)가 다른 고을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 특히 을묘 왜변(乙卯倭變)을 겪은 뒤로는 방비에 대한 제반 일이 매우 많아 백성들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세 고을에는 녹미(鹿尾)·녹설(鹿舌)·쾌포(快脯)가 생산되지 않으니 장록(獐鹿)이 많이 생산되는 제주에 옮겨 정하게 하소서. 교서관의 책지(冊紙)와 장흥고(長興庫)의 견양지(見樣紙)는 정공도감(正供都監)으로 하여금 일이 덜한 내륙 지방으로 옮겨 마련하게 하소서.”

▶ 5권 4년 11월 29일 丁亥

柳希春以晝講特進官啓曰: “臣觀察全羅一道, 以朝廷清明之故, 守令之縱恣貪虐者, 罕得聞之, 雖以公事之不能, 爲之殿最, 其實守令不如權臣當國之時. 但邦本不可不救者有二事, 漕軍、水軍自, 乙卯倭變以後, 水軍則專委防禦, 漕軍則加設漕船, 當番則元漕船, 下番加設, 漕軍逢受. 自正月至七八月, 長在海路, 不顧家事, 專廢農業, 多致流亡, 弊及一族切隣. 稅多之軍, 則一年再運, 其苦倍於水軍. 又漕船三年則改槩, 又三年再改槩, 又三年改造, 改槩、改造之材木, 曳運牛價, 船匠糧料報施, 船中什物, 其價甚多, 糜費之苦, 十倍他軍. 以故閑丁, 一爲漕軍, 則如就死地, 百計窺避, 愁怨盈路. 今聞大臣有救弊之策.” 上曰: “頃見兵曹公事, 請以冬月當番水軍, 捧布以給漕軍.” 柳希春又啓曰: “水軍之所患者, 《大典》載各浦大猛船、中猛船、小猛船若干. 今則自乙卯以後, 禦敵所用板屋船、防排船、夾船等爲繁, 而無軍仍存, 船亦依數造作, 作之三四年後, 腐朽不用, 有弊而無益. 此在大臣處置, 各浦水軍, 以方物納于水營者, 紅小鹿皮、結弓獐皮等是病. 臣竊觀, 濟州江豚化鹿, 其產不窮, 地無虎豹、豺狼、鹿羣蕃盛, 其島在大海之中,

而水不中煮鹽，土人貴鹽。今若各浦冬月入番水軍一二名除出，捧鹽石或十斗，官送濟州，俾易獐、鹿皮，則庶乎兩便。”上曰：“濟州雖我國之地，乃海外絕島。如此事如何？”希春對曰：“百聞不如一見，此事其實其便利。”希春又曰：“在前各浦領船，以水軍差定。凡萬戶支供，浦中用度，如白紋席、狗皮、眞麴、眞油、牛力角、魚膠、弓絃、人情木、監、兵、水使公狀紙價，莫不捧上，不勝支當，逃避。頃年兵曹事目，吏、兵房鎮撫當徵事，監司、水使處，下諭何如？”又曰：“今年農事稍稔，故各官報年分等第，只有下之下，而無下之中處。臣令更覈，若有下之中處，更定田稅太。戶曹令大方黃豆備納，甚艱苦，以純色常太代納，便當。又司膳寺納奴婢身貢作(米)〔木〕，每一匹，正米八斗，則適中矣。”上曰：“頃日戶曹，此公事防啓矣。”希春曰：“戶曹乃有司，恤經費之常事。”上語承旨曰：“今此啓辭，下該司，更議施行。”漕運在前，以水軍兵船添運，故漕軍間一年漕運上江。上曰：“漕軍，以敗船，刑問多傷，可怜。”

유희춘이 주장의 특진관(特進官)으로서 아뢰기를,

“신이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보니 조정이 청명(淸明)하였기 때문에 수령으로서 멋대로 탐학(貪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하였습니다. 공사(公事)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전최(殿最)에 기록은 되었지만 그 실상은 권신(權臣)이 나라를 잡고 있을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의 근본을 위해 구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두 가지 일이 있으니, 곧 조군(漕軍)과 수군(水軍)입니다.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난 이후로 수군은 오로지 방어만 맡았고 조군은 조운선(漕運船)을 가설(加設)함에 따라 당번(當番)은 본래의 조운선에서, 하번(下番)은 가설된 조운선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월에서 7~8월까지의 긴 기간을 바다에 있게 됩니다. 때문에 가사를 돌보지 못하고 농사를 전폐하여 많은 사람이 유망(流亡)하게 되고 그 폐단이 일족(一族)과 겨린[切隣]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세미(稅米)가 많은 해에는 1년에 두 번이나 조운(漕運)하므로 그 고초가 수군보다 배나 많습니다. 또 조운선은 만든지 3년이 지나면 개삭(改槳)해야 되고 다시 3년이 지나면 재차 개삭해야 되며, 다시 3년이 지나면 개조(改造)해야 됩니다. 개삭과 개조에 필요한 재목을 운송하는 우가(牛價)와 선장(船匠)의 양료(糧料) 및 배 위에 갖추어 집기물(什器物) 등의 비용이 매우 많아 그것을 부담하는 고초가 타군(他軍)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한정(閑丁)이 한번 조군이 되면 마치 죽을 땅에 나가는 것처럼 여겨 어떻게든 도피할 틈만 노리고 있음은 물론, 시름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지금 대신들이 그 폐단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병조의 공사(公事)를 보니 겨울의 당번 수군의 봉포(捧布)를 조군에 지급하자고 청하였었다.”하였다. 유희춘이 다시 아뢰기를, “수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대전(大典)》에는 ‘각포(各浦)에 대명선(大猛船)·중맹선(中猛船)·소맹선(小猛船) 약간씩을 둔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은 을묘 왜변 이후로 적을 방어하는 데 쓰는 판옥선(板屋船)·방배선(防排船)·협선(夾船) 등이 매우 긴요한데도 군대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배는 여전히 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지 3~4년 되면 썩어 못 쓰게 되므로 이로움은 없고 폐단만 있는데, 이 일은 대신들이 조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각포의 수군이 수영(水營)에 바치는 방물(方物)로서 홍소록비(紅小鹿皮)와 결궁장피(結弓獐皮) 등은 큰 병폐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제주에는 강돈(江豚)이 사슴으로 변하여 그 생산이 끝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 없고 그 지방에는 호표(虎豹)나 시랑(豺狼)이 없어 사슴과 노루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어서 소금을 굽기가 어려워 토착민들이 소금을 귀하게 여기니 지금에 각포에서 겨울에 입번하는 수군 1~2명을 뽑아 소금 1석이나 10두를 받아들여 관(官)에서 제주로 보내어 장록비(獐鹿皮)와 바꾸게 하면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주가 우리나라 땅이기는 하지만 바다 밖에 있는 외딴 섬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양쪽이 편리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앞서 각포의 영선(領船)에 수군을 차정(差定)하였는데 만호(萬戶)의 지공(支供)과 포중(浦中)에서 쓰는 물건으로 백문석(白紋席)·구피(狗皮)·진국(眞麴)·진유(眞油)·우력각(牛力角)·어교(魚膠)·궁현(弓絃)·인정목(人情木), 감사·수사·병사가 공장(公狀)으로 쓰는 지가(紙價) 등을 모두 바쳐야 하므로 이루 감당하기 어려워 도피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병조의 사목(事目)에서 이방(吏房)·병방(兵房)·진무(鎭撫)가 징수하게 할 것으로 하였는데, 감사와 수사에게 하유함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금년 농사는 약간 풍작이므로 각 고을에서 연분 등제(年分等第)를 알려 왔는데 하지하(下之下)만 있고 하지중(下之中)은 없었기 때문에 신이 다시 조사하여 만약 하지중에 해당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세(田稅)로 내는 콩을 호조에서 대황두(大黃豆)로 비납하라고 한 바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순색(純色)인 상태(常太)로 대납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섬시에서 받아들이는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작미(作米)는 매 1필마다 정미(正米) 8두로 환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호조가 이 공사에 대하여 방계(防啓)하였다.”하였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호조는 유사(有司)로서 경비를 아끼기 위해 늘 하는 일입니다.”하니,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지금의 이 계사(啓辭)를 해사(該司)에 내려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조운은, 전에는 수군 병선(兵船)을 보태었기 때문에 조군들이 1년 간격으로 조운하여 강에 올라왔었다.”하고, 또 이르기를, “조군이 패선(敗船)한 것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은 가련하다.”하였다.

▶ 7권 6년 1월 6일 丁亥

丁亥/府啓: “以北兵使張弼武狀 啓, 上京胡人等, 黑角貿易下去, 去辛未年以後, 館官員罷職, 下人等詔獄推考狀啓, 前年十一月啓下, 而不卽回啓, 禮曹堂上、色郎廳罷職.”

헌부가 아뢰었다.

“북병사(北兵使) 장필무(張弼武)가 서울에 올라왔던 호인(胡人)들이 흑각(黑角)을 무역하여 갔다는 것을 장계(狀啓)함에 따라, 지난 신미년 이후의 관(館)의 관원(官員)을 파직하고 아랫사람들을 조옥(詔獄)이 추고(推考)하였습니다. 장계는 지난해 11월에 계하(啓下)하였는데 곧 회계(回啓)하지 않았으니, 예조의 당상(堂上)과 색낭청(色郎廳)을 파직시키소서.”

▶ 7권 6년 2월 23일 甲戌

司諫院啓曰：“漕卒，每以敗船，受刑而被徵。其實專由於捧價造船者之慢忽也。去歲全羅法聖倉漕船，多造於扶安、邊山，而扶安品官等，請於縣監，捧造某字船帖字，合左右，領出大牛八隻，或五升木三同，又米二十石，加設船，則騎敗漕軍十七名，并保率收合木綿五十匹、米五十一斗。又捧山下軍之價，幾盡入己，全不用意造作，淺薄疎漏，未發船前，皆知其將敗。及其既敗，漕卒受罪，縣監見罷，色吏定驛吏而已。私請入己之土豪，則返無毫絲之罰，無所徵艾。人心痛憤，國事日耗，至爲寒心。請令本道監司，摘發受帖字造船品官，囚禁治罪。其所捧之價爲半，生徵還給，漕卒庶蒙一分之惠。”上答依啓。

사간원이 아뢰기를,

“조졸(漕卒)이 번번이 패선(敗船)하였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고 징수를 당하는데, 실은 오로지 값을 받고 배를 만드는 자가 만홀(慢忽)히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전라도 법성창(法聖倉)의 조선(漕船)을 부안(扶安)의 변산(邊山)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부안의 품관(品官) 등이 현감(縣監)에게 청하여 모자선(某字船)을 만들라는 체자(帖字)를 받아, 좌령(左領)·우령(右領)으로 하여금 황소 8척(隻) 또는 오승목(五升木) 3동(同)과 또 쌀 20석(石)을 내게 하고, 가설선(加設船)의 경우에는 패선(敗船)에 탔던 조군(漕軍) 17명과 보솔(保率)에게 아울러 목면(木綿) 50필과 쌀 51두(斗)를 거두어들이고, 또 산하군(山下軍)의 댓가도 받아들이 이를 거의 다 자기 소유로 하고 전혀 마음써서 만들지 않았으므로, 약하고 허술하여 배를 띄우기도 전에 다들 그것이 패물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패물되고 나서는 조졸이 죄받고 현감이 파면되고 색리(色吏)가 역리(驛吏)로 정속(定屬)되었을 뿐이고, 사사로이 청탁하고 자기 배를 채운 토호(土豪)는 도리어 터럭만한 벌도 없어서 징계된 것이 없으므로, 인심이 통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이 날로 쇠퇴하여 가니 매우 한심합니다. 본도의 감사를 시켜 체자를 받아 배를 만든 품관을 적발하여 가두고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받은 값은 반이 생징(生徵)이니, 조졸에게 도로 주면 일분(一分)이나마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7권 6년 9월 26일 癸卯

府啓：“公辦一事，論其害，則在所必革，而掣肘於固陋之見。臣等取見司饗院、禮賓寺、豐儲倉闕內外供饋式例橫看及大典本意，則司饗院饗人之役，掌闕內供饋也。禮賓寺之爲司，主賓客宴享供饋也。外此而大而六曹，至小各司堂上及參上參下之供，若米太鹽醬魚鹽之屬，其俵發有數有差，而別無本衙門熟辦供餉文字，則當立法初，必倣中朝月俸之給，使各自爲供，而公辦之設，不知起於何時，毒生民、毀風俗，一至於此也。一曰害及民命：各司飲食，責辦典僕者，貢物主人嘗食之外，遊宴之具，迎餞之設，無不恣意濫行，典僕之破產流離，私主人之刀澄虐取，勢使然也。二曰倉廩虛竭：大小之司，職務之繁歇不均，坐起之踈數有異，橫看則一樣而無別，稍廩之歸虛者必多。其或加或減，豈無適中之規乎？錢穀之事，責辦於庫直、書員，故爲官員者，坐視偷竊，不能禁止。三曰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恥道喪:本府之徵禁,贖諫院貿豹皮信花萼,最其可駭,而甚至太僕之分馬料,典牲司畜之竊畜廩,原其本,則與禽獸爭食. 四曰宮闕不嚴:大小家宴私會,痛革貽弊,而各司迎餞之設猶舊也. 屠牛有其禁也,士大夫相對而恣食,無恥濫市,有其罪也,而各司之標奪市肆,有若唐之宮市,使商民失業,物價騰踊. 若除公辦,則可以無蠹國病民,而其利豈不博且大乎? 又論,吏曹意不在國家,惟以應人干請,苟填窠闕爲念,因數其事,請罷.” 上命惟考公辦事,當議大臣處之.

헌부가 아뢰기를,

“공판(公辦)에 관한 일은, 그 폐해를 논한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인데 고루한 소견에 견제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옹원(司饔院)·예빈시(禮賓寺)·풍저창(豐儲倉)이 궐내(闕內)·궐외(闕外)에서 공궐하는 식례(式例)와 횡간(橫看) 및 《대전(大典)》의 본의를 살펴보니, 사옹원 용인(饔人)의 일은 궐내의 공궐을 맡는 것이고 예빈시의 직무는 빈객(賓客)의 연향(宴享)에 대한 공궐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 크게는 육조(六曹)부터 작게는 소각사(小各司)의 당상(堂上)과 참상(參上)·참하(參下)에게 지공(支供)하는 미태(米太)·염장(鹽醬)·어염(魚鹽) 따위는 나누어 주는 데 정수가 있고 차등이 있으나 본아문(本衙門)이 익혀 장만하여 공궐한다는 글이 따로 없으니, 법을 세운 당초에는 필시 중국에서 월봉(月俸)으로 주는 것을 본떠서 각각 스스로 공궐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공판의 창설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백성을 해롭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한 결 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폐해가 백성의 목숨에 미치는 것입니다. 각사(各司)의 음식을 전복(典僕)에게 장만하도록 책임지우는데 주인이 항상 먹는 음식물을 바치는 이외에 유연(遊宴)에 드는 것과 영전(迎餞)에 드는 것을 제멋대로 외람되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전복이 파산하여 떠돌게 되고 사주인(私主人)이 멋대로 탐학을 부리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창름(倉廩)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관사(官司)는 직무가 긴급하고 험한 것이 고르지 않아 좌기(坐起)가 드물고 잦은 것에도 차이가 있는데 횡간은 한가지로 차별이 없으니, 얼마 안 되는 창름이 비게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혹 더하거나 줄이는 등 어찌 알맞게 하는 규례가 없겠습니까. 전곡(錢穀)의 일을 고직(庫直)·서원(書員)에게 장만하도록 요구하므로 관원으로서도 흠치는 것을 앓아서 보기만 하고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셋째, 염치의 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본부(本府)가 금속(禁贖)을 징수하는 것과 간원이 표피(豹皮)나 화악(花萼)같은 것의 쟁송을 판결하는 일이 더없이 해피합니다. 심지어 태복(太僕)이 마료(馬料)를 나누어 먹고 전생서(典牲署)와 사축서(司畜署)가 축름(畜廩)을 흠치는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짐승과 먹이를 다투는 것입니다.

넷째, 궁궐이 엄하지 않은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가(私家)의 연회는 폐단을 끼치는 것을 통렬히 고쳤으나 각사가 베푸는 영전은 여전하며, 소를 잡는 것은 금령(禁令)이 있으나 사대부가 서로 마주하여 마음대로 먹으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함부로 매매하는 데에는 해당되는 죄가 있으나 각사가 저자에서 약탈하는 것이 마치 당(唐)나라 때의 궁시(宮市)와 같아서 상민(商民)이 직임을 잃게 되고 물가가 뛰어 오르게 됩니다. 공판을 없앤다면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 이로움이 어찌 넓고도 크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또 이조(吏曹)가 생각을 국가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청탁에 따라 구차하게 빈 벼슬 자리에 채울 것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논하고 인하여 그 사례(事例)를 거론한 다음 파면

하기를 청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하고 공판에 관한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 9권 8년 1월 20일 庚申

庚申/三公問安後，仍啓曰：“人主一身，負宗社生靈之托，決不宜下同士庶，堅守一節，久居而廬次已也。昔宋孝宗百代誠孝之主也，居高宗之喪，百官喪請還內不許。然是月還內，翌月朔，詣廬室。自是朔望皆如之。自上元氣清瘦，脾胃素傷，其在初喪，不進水醬，至於五日之久。又不輟哭臨，聖候已爲重傷，若此不已，積日逾時，則悔無及矣。臣等晝夜慮憂，罔知所爲。前者明宗大王遭文定王后之喪，元氣虛弱，不得已從權。又自廬次，移御于此闕。此實爲宗社大慮也。伏願聖明，法孝宗之事，體先王之意，毋拘小節，亟爲移御。有時往來進膳之間，如駱粥等物，時時頻進，至爲宜當。”上答曰：“卿等勤勞王家，近日又以寡昧微身爲慮，每來問安，孤心已爲未安。不幸今乃見此啓辭，不覺驚慟之至矣。決無是理，願勿更言。且予固不敢以古人之事自處，然子之於親，無賢不肖之殊，則予之欲爲自盡之意，難以筆舌盡諭矣。且駱粥是牛乳，初喪進排之事，全不省料。今見啓辭，問諸下人，始知仍進排之由，尤爲驚怪。當令該司，勿進矣。”再啓曰：“雖在出庶人，苟遇疾病，必強抑其情，以終其孝，以先王之禮，有節制從權故也。自上哀毀已極，機務亦煩，決不可爲士庶人所行者。”上不允。

삼공이 문안한 뒤에 이어 아뢰기를,

“군주의 한 몸은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의 의탁(依託)을 부하(負荷)하였으니, 마땅히 아래로 사서인(士庶人)과 같이 일절(一節) 만을 고수하여 오래도록 여차(廬次)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송 효종(宋孝宗)은 백대(百代)의 효성스런 임금이었습니니다. 송 고종(宋高宗)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백관이 내전(內殿)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 달에 내전으로 돌아갔고, 다음달 초하루 날에 여실(廬室)로 나아갔으며, 이 뒤부터는 초하루·보름에만 여실로 나아갔습니니다. 상께서는 원기가 쇠약하시니 본래부터 비위가 상하셨는데, 초상 때 5일이라는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수장(水醬)도 드시지 않았으며, 또 곡을 멈추지 않았으므로 성후(聖候)가 이미 매우 상하셨으니, 이와 같이 계속하시어 시일이 경과하면 미칠 수 없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밤낮으로 우려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바입니다. 과거 명종 대왕께서 문정 왕후의 상을 당하였을 때 원기가 허약하시므로 부득이 종권하셨고, 또 여차에서 이 궐(闕)로 이어하셨으니, 이는 실로 종사를 위한 큰 사려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도 송 효종(宋孝宗)의 일을 본받으시고 선왕의 뜻을 체득(體得)하시어 소절(小節)에 구애되지 마시고 빨리 이어하시고 때때로 여차에 왕래하소서. 그리고 또 진선(進膳)하시는 사이에도 낙죽(駱粥) 같은 음식물을 때때로 자주 드셔야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들이 이미 왕가(王家)에 근로(勤勞)하였고, 근일 또 변변치 못한 이 몸 때문에 염려하여 와서 문안할 적마다 나의 마음이 미안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계사(啓辭)를 보니, 나도 모르게 놀랍고 애통스러움이 지극해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 결단코 이런 이치는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 내가 감히 옛사람의 일로써 자처(自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현불초의 차이가 없는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자진(自盡)하고자 하는 뜻은 필설(筆舌)로써 다 말하기 어렵다. **또 나 죽은 바로 우유이다. 초상 때 진배(進拜)한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더니**, 지금 계사를 보고 하인에게 물어보고서야 비로소 그 진배한 이유를 알았다. 더욱 놀랍고 괴이하니 해사로 하여금 올리지 말게 하라.”하였다. 두 번째 아뢰기를, “비록 사서인(士庶人)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그 감정을 억제하여 효도를 잘 마치는 것은 선왕의 예에 절제(節制)하여 권도(權道)에 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께서는 애훼(哀毀)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고 기무(機務) 또한 번거로우니, 결단코 사서인이 행하는 바를 하셔서 안 됩니다.”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9권 8년 1월 20일 庚申

三公恭懿殿問安. 傳曰: “主上, 前既勤勞之餘, 近日哀疾過禮, 在此別宮, 尤爲慮悶之至.” 再啓曰: “**自上獨御喪次, 哀毀已極. 臣觀勉酪粥, 亦不從. 臣下之言, 無由得請, 罔知所爲.** 群情惟待自殿多般懇請.” 傳曰: “主上前既勤勞用心, 而至遭大故, 四五日前, 不進水飲, 晝夜慟哭之奇, 聞來極爲悶慮. 爲作陳米飲送勸, 則只歆米飲. 成殯之後, 始御粥物小許云. 素有胃證之中, 聖候何以和平乎? 今亦出臨哭位之時, 內侍扶持行步, 長御喪次, 哀毀過禮, 予心憂悶. 哀感過度, 則必傷聖候, 願抑小節, 以保聖躬, 則全不搖動.” 乃教之曰: “死生有命, 邈然不從, 極爲悶望. **唯此酪粥, 自殿又當勸進, 然大臣等懇勸, 則豈不勉從乎?** 更爲懇請, 是予切望也.”

삼공이 공의전계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주상이 전부터 이미 근로(勤勞)하였는데 요사이 슬퍼함이 예에 지나치니, 이 별궁(別宮)에 있는 나는 더욱 염려되고 민망하다.”

하였다. 삼공이 두 번째 아뢰기를,

“**상께서 홀로 상차(喪次)에 계시면서 애훼가 너무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신이 우유[酪粥]를 권하였으나 따르지 않으시니,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할 방법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공의전계서 여러 방면으로 간청해 주시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상이 전부터 이미 근로하고 마음을 썼는데 상(喪)을 당하기 4~5일 전부터 물도 마시지 않고 밤낮으로 통곡만 하고 있다는 기별(奇別)을 듣고는 지극히 민망하고 염려되어 미음을 끓여 보내서 권하였더니 미음만을 마셨고, 성빈(成殯)한 뒤에서야 비로소 죽을 조금 드셨다 한다. 평소부터 위장병[胃症]이 있는 처지이니 성후(聖候)가 어찌 화평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나아가서 곡할 때에 내시의 부축을 받고서야 걸을 수 있으며 또 상차(喪次)에 오

래 있으면서 애화가 예절에 지나치다 하니, 나의 마음이 근심되고 민망하다. 슬픔이 정도에 지나치면 반드시 성후를 상할 것이므로 작은 예절을 버리고 성공(聖躬) 보호하기를 청원하였으나 전혀 요동도 하지 않고 ‘사생(死生)은 명이 있다.’는 말만 하고 조금도 따르지 않으니 지극히 민망하다. 이 우유를 내가 권하여 들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대신들이 간청한다면 어찌 힘써 따르지 않겠는가? 대신들이 다시 간청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하였다.

▶ 9권 8년 2월 25일 甲午

藥房醫官入診言: “聖候脈度, 肺脈虛數, 脾胃脈虛弱, 比前尤甚. 腎脈微弱, 天顏瘦黃, 血氣漸少, 水刺亦減. 此是脾胃虛弱, 上熱下冷, 滋養之氣不足, 而勞動之氣過多, 虛火上攻而然矣. 須以滋味, 連綿進御, 急扶眞元, 無使少乏, 勿爲勞動, 務求安靜, 以止煩熱. 若於此時, 暫忽調攝, 則後虞漸深. 兼以三仙糕密水調進, 煩熱困倦之時, 加生脈散砂糖如茶呷進. 且酪粥滋補榮衛, 除熱止渴, 生薯蕷粥, 補益元氣. 竝宜頻進.” 答曰: “如啓.”

약방(藥房)의 의관이 입진하고서 아뢰기를,

“성후(聖候)의 맥도(脈度)에 폐맥(肺脈)의 허삭(虛數)과 비위맥(脾胃脈)의 허약이 전보다 심하고, 신맥(腎脈)마저 미약하여 천안(天顏)이 수척하고 누르며 혈기가 점점 줄어들어 수라마저 조금 드시니, 이는 비위가 허약하여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며 자양(滋養)은 부족한데 노동은 지나치시어 허열(虛熱)이 위로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계속 드시어 서둘러 원기를 도와 원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노동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여 번열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잠시라도 조섭(調攝)을 소홀히 하신다면 뒷 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삼선고(三仙糕)와 꿀물을 함께 드시고 번열이 오르거나 피곤하실 때는 생맥산(生脈散)에 사탕(砂糖)을 가미(加味)하여 차(茶)처럼 마시고, 또 우유는 기혈을 보양하여 열과 갈증을 없애며 생마죽[生薯蕷粥]은 원기를 돕는 것이니 이를 모두 자주 드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0권 9년 3월 19일 壬子

全州有牛產兩頭犢.

전주(全州)에서 어떤 소가 머리 둘 달린 송아지를 낳았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0권 9년 5월 24일 丙辰

丙辰/黃海都事書狀: ‘延安府雌牛生犢三足, 尾及後一脚無之, 生存能步事.’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가 서장을 올렸다. “연안부(延安府)의 어떤 암소가 발 셋 달린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꼬리와 뒷다리 하나가 없는데도 살아서 걸어도 됩니다.”

▶ 23권 22년 1월 10일 戊午

戊午/藩胡中樞孝汀, 回到金化縣, 縣監徐仁元, 搜其卜馱, 得黑角若干介, 拘留, 報監司啓聞, 廷議: “孝汀乃藩酋之強梁者也, 以細事拘留, 多發憤怒之言, 人皆憂其生釁也.”

번호(藩胡)의 중추(中樞) 효정(孝汀)이 금화현(金化縣)에 도착하자 현감 서인원(徐仁元)이 그의 짐바리를 수색하여 흑각(黑角) 몇 개를 발견해 내고 그를 구류시킨 뒤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계문(啓聞)하자, 조정이 의논드렸다. “효정(孝汀)은 번추(藩酋) 중에서도 강량(強梁)한 자인데 만약 사소한 일로 구류시켰다가 분노(憤怒)한 말을 마구 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할 것입니다.”

▶ 23권 22년 1월 18일 丙寅

丙寅/府啓: “野人潛買弓角, 庫直通事及潛商人, 詔獄推考, 東平別坐, 其日守直部將, 卜物驗包時當該官, 竝命罷職.” 依啓.

사헌부가 아뢰기를, “야인(野人)에게 몰래 궁각(弓角)을 매매한 고직(庫直)과 통사(通事) 및 잠상인(潛商人)을 의금부(義禁府)에 하옥시켜 추고(推考)하고, 동평관 별좌(東平館別坐)와 그날 수직(守直)한 부장(部將) 및 짐바리를 조사할 때의 당해관(當該官)을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23권 22년 8월 14일 己丑

己丑/慶尙監司書狀: 南海縣私奴林佐元家, 雌牛生雛三口事.

경상감사의 서장에, 남해현(南海縣)의 사노(私奴) 임좌원(林佐元)의 집에서 암소가 새끼 새 마리를 한꺼번에 낳았다고 하였다.

▶ 23권 22년 9월 3일 丁未

及第尹百源在其家，與德城監對坐食薏苡粥及烹牛肉，卽死。德城監允，嘔吐不省人事，至數日僅甦。其妾子尹德敬，以粥中置毒而死，告狀于憲府，其嫡女李弘元妻尹氏，則以中肉毒而死，告狀于刑曹。初令檢屍，則漢城參軍李賚，西部參奉柳永忠等，以別無毒死之狀，以：‘非常致死。’書填實因，諫院以違格書填實因，啓罷李賚等，請改檢，則義禁府都事禹道傳，刑曹佐郎李瑗等，以：‘因毒致死。’書填實因。刑曹推闕事于後啓：“以尹百源毒死分明，其置毒，不出於一家之人。此乃綱常大獄。請移義禁府推鞠。”答曰：“自本曹推鞠，待其端緒現出，處之。”再啓，不允，後因諫院啓，三省交坐鞠之。委官柳堧。

급제(及第) 윤백원(尹百源)이 자기 집에서 덕성감(德城監)과 마주 앉아 울무죽[薏苡粥]과 삶은 쇠고기를 먹다가 즉사하였고 덕성감 윤은 심한 구통에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수일 뒤에 겨우 소생하였다. 그 첩의 아들 윤덕경(尹德敬)은 죽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사헌부에 소장을 내고, 그 적녀(嫡女)인 이홍원(李弘元)의 아내 윤씨는 쇠고기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형조에 소장을 냈다. 처음 검시(檢屍)에서 한성 참군(漢城參軍) 이너(李賚)와 서부 참봉(西部參奉) 유영충(柳永忠) 등이 별로 독사(毒死)된 흔적이 없다고 하여 ‘비상 치사(非常致死)’로 실인(實因)을 기록하였는데, 사간원이 이는 규칙에 위배되는 말로 실인을 기록하였다고 아뢰어 뇌 등을 파직하고 개검(改檢)하기를 청하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우도전(禹道傳)과 형조 좌랑 이원(李瑗) 등이 ‘인독치사(因毒致死)’로 실인을 기록하였다. 형조가 사건(事干)을 추열(推闕)한 뒤에 아뢰기를,

“윤백원은 독사(毒死)가 분명한데, 아마도 독을 넣은 사람은 한 집안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곧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큰 옥사(獄事)입니다. 의금부로 옮겨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본조(本曹)에서 추국하여 그 단서가 잡히기를 기다려 처리하라.”

하였다. 제차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다가 뒤에 사간원의 계청(啓請)에 의해 삼성 교좌(三省交坐)하여 추국하였다. 위관(委官)은 유전(柳堧)이었다.

▶ 26권 25년 5월 5일 甲子

引見兵曹判書金應南，副護軍李薦，左承旨盧稷，檢閱金善餘、金義元。公議豆其渡把守事。薦曰：“不過五六千，可以把守。但今之軍兵，皆農夫，不習軍旅，且小臣秩卑，以臣領之，則必潰散。賊無他長技，惟鐵丸短兵而已。以生牛皮爲防牌，則鐵丸可避矣。”上曰：“各官可及造耶？”應南曰：“菱鐵，使黃海道爲之可也。若到平壤，當申飭將士，使無得搶掠人家。”上曰：“李薦若無所帶軍兵，則以本道兵，率領如何？”薦曰：“欲與黃海監司同行。”上曰：“與大臣議之，依李薦言施行。”賜酒而罷。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병조판서 김응남(金應南), 부호군 이천(李薦), 좌승지 노직(盧稷), 검열 김선여(金善餘)·김의원(金義元) 등을 인견하고 두기나루[豆其渡]를 파수(把守)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이천이 아뢰기를, “불과 5~6천 명만 있으면 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군사들이 모두 농부이어서 훈련이 되지 않은 점과 또 소신(小臣)이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신이 영솔한다면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적도 장기(長技)라곤 별로 없고 오직 철환(鐵丸)과 단병(短兵)뿐입니다. 생우피(生牛皮)로 방패를 만든다면 철환은 피할 수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 고을에서 때맞추어 만들 수 있겠는가?”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마름쇠[菱鐵]는 황해도에서 만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시거든 장병들에게 명하시어 민가(民家)를 약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이천(李薦)이 거느릴 군대가 없으면 본도(本道)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였다. 이천이 아뢰기를, “황해감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천의 말대로 시행하라.”하고, 술을 하사한 후 파하였다.

▶ 33권 25년 12월 9일 乙未

司憲府啓曰: “天兵糧料搬運事最緊急, 而本道牛馬極難調發. 其催運節目, 朝廷雖有指揮, 而斷非一小官所可獨當. 請有計慮, 堂上以上一員, 各別擇差, 預講應行事, 宜趁時給餉, 使無臨時難辦之弊. 我國長技, 只恃弓箭, 而臨敵已久, 繼用無策, 諸道告乏之報, 日且續至, 頃日中和西陣之敗, 已是一驗. 不可不趁時措備, 八道之中, 惟湖南得全, 而物力饒富. 箭竹魚鰾, 且是本道所產, 鄉角牛筋, 並令許人募納, 量其多少, 以米石折支, 依募粟例, 量給影職告身、免賤、免役、免鄉等帖酌定, 都會官數處, 並與竹弓而造作, 則軍糧軍器, 似有并辦之勢. 兵禍彌年, 國儲殫竭, 必於此時, 收聚民間餘粟, 可補前頭軍糧賑民之用. 而備邊司募粟事目, 石數似多, 應募者絕少. 今年農事, 耘穫俱失, 且經蕩敗, 民無宿藏, 其不肯應募者, 勢所當然. 請命有司, 急速改定, 行會各道.”

사헌부가 아뢰었다.

“중국 군사의 양료(糧料)를 운반하는 일이 아주 긴급한데 본도(本道)의 우마(牛馬)는 조발(調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반을 독촉하는 절목(節目)에 대해서 조정에서 지휘하였으나 결코 일개 소관(小官)이 홀로 담당할 일이 아닙니다. 계려(計慮)가 있는 당상 이상의 한 관원을 특별히 가려 뽑아 미리 대응할 조치를 강구하여 때에 맞춰 양식을 대게 함으로써 시기에 임해 조달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長技)는 활만 믿는 처지인데 적과 싸운 지 이미 오래이므로 계속 지탱할 방책이 없어 각도에서 떨어졌다는 보고가 날마다 이르고 있으니, 지난번 중화(中和)의 서진(西陣)이 패한 것이 그 하나의 증험입니다. 불가불 때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데 팔도 중에 호남이 완전하고 물자가 풍부합니다. 전죽(箭竹)과 어표(魚鰾)도 본디 그 도의 소산이니 향각(鄉角), 우근(牛筋)과 함께 모집하여 납부하게 하고 그 다소를 헤아려 미석(米石)을 지급

하되, 곡식을 모집하는 예에 의하여 영직 고신(影職告身)과 면천(免賤)·면역(免役)·면향(免鄉) 등의 첩(帖)을 해아려 주고, 도회관(都會官) 몇 군데를 정하여 죽궁(竹弓)까지 만들게 하면 군량과 군기를 아울러 조달할 듯합니다.

병화(兵禍)가 그치지 않아 나라의 저축이 바닥났으니 반드시 이때에 민간에 남아 있는 곡식을 거두어 모아야 앞으로의 군량과 백성들을 진휼(賑恤)하는 용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변사의 모속 사목(募粟事目)은 석(石)의 수가 너무 많은 듯하여 모속에 응하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금년의 농사는 김매기와 수확을 다 망쳤고 또 양식이 탕진되어 백성들에게는 저축된 것이 없으니 응모하는 자가 적은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청컨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속히 개정(改定)하여 각도(各道)에 알리도록 하소서.”

▶ 35권 26년 2월 7일 壬辰

司憲府啓曰：“人心玩愒，百僚懈慢，以致國家之危，至於此極，而思治之日，舊習猶存。備邊司專任討賊之責，而泛泛隨行，無意於策勵擔當，其所酬應，不過文簿。緊急機務，非但莫爲之察，自上至下成算，而亦不趁時舉行，以致累勤聖教，其不職之罪大矣。有司堂上，請命推考。北賊舉軍深入，徬徨不出，西突之憂，難保其必無，而薛罕之嶺，無防守之軍，極爲寒心。聞江界所屬十三堡內，除防緊四五處，其他土兵及元居內禁兼司僕，其數不少。且許多山尺之輩，皆馳射爲業，最合戰用，而守令私護，專不括出。亟遣一將，嚴加搜點，率往把截，恐或少補。平壤·開城府商賈之輩，持牛馬，入于江界·熙川·渭原等邑者以百數，而皆漏官役，入作之民，亦遍山谷云。此等人及品官之類，無遺驅出，將三邑之穀，刻期輸運，則易以爲力。分遣剛明官各一人，專責運糧，兼募求民間之粟，似合事宜。請令備邊司商議施行。”上從之。

사헌부가 아뢰기를,

“인심은 해이해지고 백료는 태만하여 국가의 위기가 이렇게 극도에 이르렀으니 다스릴 것을 생각할 때인데도 구습이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비변사는 전적으로 적을 토벌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건성건성 따라다니면서 독려하여 담당할 생각이 없고 대처하는 일도 문서에 국한될 뿐입니다. 긴급한 기무(機務)를 살피지 않을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성산(成算)조차 때맞추어 거행하지 않고 여러번 성교(聖敎)를 되풀이하게 하였으니 직임에 충실하지 않은 죄가 큼니다. 유사당상(有司堂上)을 추고하라 명하소서. 북적은 군대를 끌고 깊이 들어가 누비면서 나오지 않으니 서쪽으로 돌격할 걱정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데 설한령(薛罕嶺)에 방수(防守)하는 군대가 없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들으니 강계(江界) 소속의 13보(堡) 내에는 방어가 긴요한 4~5개 처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토병(土兵) 및 원거(元居)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이 그 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척(山尺)의 무리들은 모두들 말달리고 활 쏘는 것을 업으로 삼으니 전쟁에 쓰기에 가장 적합한데도 수령들이 사사로 비호하여 전혀 동원하지 않습니다. 속히 한 장수를 보내 엄격히 찾아내어 거느리고 가서 파수한다면 아마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이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나 개성부의 장사치로서 우마를 가지고 강계·희천(熙川)·위원(渭原) 등지의 고을로 들어간 자가 수백 명인데, 모두 관역(官役)에서 빠진 자들이며, 들어가 경작하는 백성들 또한 산골짜기에 두루 깔렸다고 합니다. 이들과 품관(品官)의 무리들을 남김없이 몰아내어 이 세 고을의 곡식을 기한을 정해 운반하게 한다면 쉽게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직하고 명민(明敏)한 관원을 각각 한 사람씩 나누어 보내어 오로지 군량 운반을 책임지우고 겸하여 민간의 곡식을 모집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해서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 35권 26년 2월 9일 甲午

甲午/備邊司啓曰: “司憲府啓辭, 江界土兵, 元居禁軍, 無遺刷出, 薛罕嶺防守事, 已爲舉行矣. 各官山尺, 其數不下數百云. 今依啓辭, 一一括出. 而李鎰既往嶺下, 今若又送一將, 徒增騷擾, 行會于鎰, 平壤、開城商賈, 持牛馬者, 及入作之民, 品官之類, 亦令洪世恭·黃暹·尹洞刷出, 以運三邑之穀, 使世恭等, 兼募民間之粟.”

비변사가 아뢰었다.

“사헌부가 계사(啓辭)대로 강계(江界)의 토병과 원래 살던 금군(禁軍)들을 남김없이 징발해다가 설한령(薛罕嶺)을 방어하는 일은 이미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의 산척(山尺) 수가 수백 명에 밀돌지 않는가?’ 하였는데 지금 계사에 따라 일일이 색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일(李鎰)이 이미 설한령 아래로 갔는데, 지금 만약 또 한 장수를 보내게 되면 한갓 소요만 더하게 할 뿐이니, 이일에게 행회(行會)하여 평양과 개성의 장사치로 우마를 소유하고 있는 자 및 들어가 경작하는 백성과 품관(品官)의 무리들도 홍세공(洪世恭)과 황섬(黃暹) 및 윤형(尹洞)을 시켜 찾아내어 세 고을의 곡식을 운반하게 하고, 세공 등으로 하여금 겸하여 민간의 곡식을 모집하게 하소서.”

▶ 35권 26년 2월 13일 戊戌

戊戌/引見領議政崔興源, 兼戶曹判書洪聖民, 鵝川君李增, 兵曹判書李恒福, 吏曹判書李山甫, 行吏曹參判具思孟, 行戶曹參判尹自新, 右參贊成渾, 刑曹參判李希得, 行吏曹參議沈忠謙, 大司諫李海壽, 同副承旨李好閔, 執義具成, 弘文館校理李晬光. 上曰: “天兵不進, 糧餉匱乏, 奈何?” 興源曰: “初尙窘乏, 況今駐筭多日, 中原糧芻, 亦不得輸運, 甚可悶也. 提督雖未班師, 而土馬飢餒, 則亦無可奈何. 大駕前進, 號令策應甚當.”

~중략~

渾曰: “遼東大人, 二品之官, 而猶且身親細事, 我國, 則末班微官, 皆自尊大, 甚可寒心矣. 提督回軍時, 君臣上下, 固當泣而挽留. 然軍無食, 雖提督亦奈何? 今雖括民間之穀, 不過補不足而已. 中原運米十三萬碩, 積於義州, 今若勿論土庶, 無遺括出, 晝夜輸

運, 則此今日上策也.” 上曰: “此言是也. 而不能輸運, 以此爲悶也.” 渾曰: “今與其辦出本無之穀, 豈不能輸運見在之穀乎? 臣見村家, 莫不場有穀, 廐有牛馬, 而括出之際, 守令委於吏胥, 吏胥受賂而舞弊, 貧者獨(賢) [勞], 富者優游於其家. 加以天兵打傷牛馬, 顛死者相望, 故民皆納賂而求免矣. 頃者艾主事杖金應南, 宰相受罰, 雖是不幸之事, 而臣竊喜焉者, 他員必懲此, 而盡力故也. 金應瑞以嘉善官, 盡散其軍, 不爲輸運, 而朝廷只奪其資而已. 賞罰如此, 何所懲乎? 募粟官所受告身, 亦宜筭錄所收之穀, 不及告身之數, 則亦可致罰, 而戶曹茫不知頭緒, 甚可駭也.”

이하생략~

영의정 최홍원, 검 호조판서 홍성민, 아첨군 이증, 병조판서 이항복, 이조판서 이산보, 행 이조참판 구사맹, 행호조참판 윤자신, 우참찬 성혼, 형조참판 이희득, 행이조참의 심충겸, 대사간 이해수(李海壽), 동부승지 이호민(李好閔), 집의(執義) 구성(具晟), 홍문관 교리 이수광(李睟光)을 인건하고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은 전진하지 않고 군량은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홍원이 아뢰기를,

“처음에도 오히려 군핍했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주둔한 지가 오래되었고 중원의 군량과 마초 또한 수송할 수가 없으니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제독이 비록 군대를 돌리지 않더라도 군사들과 말이 굶주리게 되면 역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가 전진하시어 호령하고 책임하심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중략~

성혼이 아뢰기를,

“요동대인(遼東大人)은 2품의 벼슬이면서도 오히려 몸소 세세한 일을 살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관말직들도 모두들 스스로 높은 체하니 매우 한심합니다. 제독이 군사를 돌릴 때에는 구신 상하가 진실로 울면서 만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에게 식량이 없다면 제독인들 또한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비록 민간의 곡식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 불과합니다. 중원에서 운송해 온 쌀 13만 석이 의주(義州)에 쌓여 있으니 사서인(士庶人)을 막론하고 모두 징발하여 밤낮없이 운반하는 것이 오늘날 최상의 계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그러나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혼이 아뢰기를,

“지금 본디 없는 곡식을 장만해 내려고 하는데 어찌 현재 있는 곡식을 운반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보니 촌가(村家)의 마당에는 곡식이, 마구간에는 우마가 없는 집이 없는데, 징발해 낼 때에 수령은 이서(吏胥)에게 맡기고, 이서는 뇌물을 받아 농간을 부려 가난한 자만 수고하게 하고 부유한 자는 집에서 편안히 있게 합니다. 게다가 중국군이 우마를 때려 폐사(斃死)하는 것이 잇달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들 뇌물을 바쳐 면하기를 구합니다. 저번에 애 주사(艾主事)가 김응남(金應南)에게 곤장을 쳤는데 재상이 벌을 받은 것이 비록 불행한 일이지는 하나 신은 남몰래 기뻐했으니, 이것은 다른 관원들이 반드시 여기에 징계되어 진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응서(金應瑞)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벼슬로서 자기 군사를 모두 해산하고 군량을 운반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에서는 단지 그의 자급(資級)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상벌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모속관(募粟官)이 수령(受領)한 고신 역시 거둔 양곡의 수량과 비교하여 고신의 숫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한 벌을 주어야 하는데, 호조가 까마득히 두서를 모르니 매우 해괴합니다.”

하고,

이하생략~

▶ 35권 26년 2월 18일 癸卯

慶尙左道觀察使韓孝純馳啓曰：“倭賊所持牛馬，前則盡爲斥賣，自今月二十日，欲攻晉州，晝夜鍊兵，前日所賣牛馬，還爲收買。釜山、東萊、西平、多大浦等處，畫地築城，設計城基，周回大概五十餘里。東萊倉穀，則移置于釜山浦，日本軍糧，則輸到于釜山前渾阿次島云。”

경상좌도관찰사 한효순(韓孝純)이 치계하였다.

“왜적이 전에는 가지고 있던 우마를 전부 팔아 버리더니 이달 20일부터는 진주(晉州)를 공격하려고 밤낮없이 군사들을 조련시키며 전일에 팔아 버린 우마를 도로 사들입니다. 부산(釜山)·동래(東萊)·서평(西平)·다대포(多大浦) 등지에는 지역을 구획하여 성을 쌓으려고 성터를 설계하는데 주위가 대략 50여 리는 됩니다. 동래창(東萊倉)의 곡식을 부산포(釜山浦)로 옮겨두고 일본 군량은 부산 앞바다의 아차도(阿次島)에 운반해 놓았다고 합니다.”

▶ 35권 26년 2월 19일 甲辰

上敎曰：“曾在義州時，勅令禁斷宰牛，而今見支供過豐，至用牛肉。非但此邑，所經各官皆然。欲決杖牧使，而今姑貸之，今後一切勿用牛肉，亦通諭于前面一路可也。亦下諭于領相，內殿上下支供，竝勿用牛肉，如有犯者，使之決罰。”【既食其力，則不忍食其肉。爲人君上在平時，義當切禁，況今兵火之餘，牛畜罕存，民不得耕。而上下所供，非肉不食。丁寧一敎，申勅列邑，不徒惠洽小民，仁德足以及禽獸矣。】

상이 하교하였다.

“일찍이 의주에 있을 적에 칙령으로 소잡는 일을 금지했었는데 지금 지공(支供)하는 것을 보니 지나치게 풍성하고 심지어는 쇠고기까지 사용한다. 비단 이 고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고을이 모두 그러하였다. 목사를 결장(決杖)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우선 용서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고, 또한 앞으로 지나갈 일로(一路)에도 두루 하유함이 가하다. 영상에게도 하유하여 내전(內殿) 상하의 지공도 모두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결벌(決罰)하게 하라.” 【이미 그 힘으로 농사지은 것을 먹었다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다. 임금이 된 이는 평시에도 이를 엄금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전쟁 중이라 남아 있는 소가 드물어 백성들은 농사도 못 짓는 데이겠는가? 그런데도 상하의 지공은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다. 간곡하게 한결같은 전교를 여러 고을에 신칙하시니 비단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미칠 뿐 아니라 인자한 덕이 금수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 36권 26년 3월 14일 己巳

備邊司啓曰：“各邑牛馬，盡被賊掠，餘在無幾，加以運車運糧，顛死道路者亦多，農牛乏絕，耕種無策。而近因本官及并定各官，無供給饌物之路，不得已宰殺。請令司憲府義禁府，一切痛禁何如？”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 고을의 마소가 적에게 다 노략당하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고 게다가 수레를 끌고 양식을 운반하다 도로에서 쓰러져 죽은 것이 또한 많아서 농우(農牛)가 꺾절되어 밭갈이를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사이 본 고을과 함께 배정된 각 고을에 공급할 반찬이 없어 부득이 소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헌부와 의금부로 하여금 일체 금지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37권 26년 4월 6일 庚寅

鐵山人民等，訴於道傍曰：“馬牛盡爲天兵所奪，而本郡刷馬之役甚苦。里廬遍是逃亡之屋，而官家一族之法猶急，願得寬暇，以保餘生。軍士六番，其法最好，而又有所悶迫焉。”上曰：“六番之事，民情以爲如何？”對曰：“當初定爲四番矣，今既復添二番，則當破出四番之軍，更作六番，均分定制，則極爲便好矣。今則不然，元定四番之外，添得二番，拈出元番之軍士，定爲添兵之戶首，年縷十餘，被訴閑丁，遠戍於上土、滿浦等鎮，非但元戶之不充，老除物故，亦不爲充數，此甚悶迫。守令數易，則迎送之弊，有甚於苛政。今郡守，使民以誠，盡心國事，請陞敘官秩，借得六年。”上按轡久之，曰：“當議而處之。”

철산(鐵山)의 백성들이 길가에서 호소하기를,

“말과 소를 모두 중국군에게 빼앗겨서 저희 고을은 쇄마(刷馬)의 역(役)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을은 온통 도망간 집들 뿐인데 관가에서는 일족(一族)에게 추징(追徵)하는 법으로 여전히 독책하니, 관대하게 조치하여 간신히 살아난 목숨들을 보존케 하소서. 군사들이 6번(番)으로 상번(上番)하는 것은 그 법이 매우 좋으나 이 또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6번으로 상변하는 것에 대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아뢰기를,

“당초에는 4번으로 정했었는데 이제 다시 2번을 더했으니, 응당 4번의 군을 폐지하고 다시 6번으로 만들어서 고르게 하도록 제도를 정했으면 매우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원래 정한 4번외에 2번을 덧붙여 놓고 원번(元番)의 군사를 뽑아서 첨병(添兵)의 호수(戶首)를 삼았으므로 해마다 계속 10여 인이 한정(閑丁)으로 제소(提訴)당해 멀리 상토(上土)·만포(滿浦) 등의 진(鎭)에 가서 수자리 살고 있으니, 비단 원호(元戶)가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제(老除)와 물고(物故)의 숫자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령(守令)을 자주 바꾸면 보내고 맞는 폐단이 가혹한 정사보다도 더 심합니다. 지금 이곳 군수는 성심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진심으로 국사를 처리하고 있으니 관질(官秩)을 올려주고 6년을 더 있게 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말고삐를 당기고 한동안 있다가 이르기를,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 39권 26년 6월 1일 甲申

戶曹啓曰：“右議政俞泓狀啓：‘國計板蕩，救荒及陵軍糧料，日就耗減，春而不耕，秋無所收，稷·粟·木麥，今猶可及耕，而畿甸列邑，已無所儲。已令江原道輸送稷·粟·木麥各一百石、忠清道各三百石、全羅道各四百石矣。如江原、黃海等道，又定晚穀之種。至如牛隻，則京畿已無所餘，中朝所送在義州農牛二十一首，業已出來矣。’”

호조가 아뢰었다.

“우의정 유홍(俞泓)의 장계에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구황(救荒)과 능군(陵軍)의 식량이 날로 감축되어 가고, 또 봄에 경작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을이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다. 피(稷)와 조 그리고 메밀[木麥]은 지금이라도 오히려 파종할 수 있으나 경기 열읍에는 이미 저축된 종자가 없으므로 전일에 강원도에서 피와 조 그리고 메밀 각 1백 석, 충청도에서 각 3백 석, 전라도에서 각 4백 석을 수송하게 하였다. 강원·황해도의 경우는 만곡(晩穀) 종자를 또 배정하였다. 소에 있어서도 경기에는 이미 남은 것이 없어 중국에서 보낸 의주에 있는 농우 21마리를 이미 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 39권 26년 6월 7일 庚寅

右議政俞泓，以畿甸之民竝廢耕種，請得空名帖，募牛俵給。上曰：“募兵、(墓)〔募〕粟，無不歸虛。今以爲募牛，予以爲不可施。”

우의정 유홍(兪泓)이, 경기 백성들이 모두 파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명첩(空名帖)으로 소를 모집하여 나누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분부하였다.

“병사를 모집하거나 곡식을 모집하는 일이 근래 모두 허사로 되었으니 이제 소를 모집하는 것도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39권 26년 6월 17일 庚子

劉員外貽書:

有四條: 一, 悔過以畏天命. 夫一爵, 皆天所命. 況曰王哉! 二百年享國升平, 宴安既久, 寧無罪過? 今遭倭患慘毒, 天示其罰, 君臣當度己罪, 不見是圖, 毋戮五倫. 縱淫志溢, 殛于鬼神. 自灼見乃心克底去, 厥念澡新, 以迓休命. 不爾, 卽寸智, 無以復厥基, 念之. 二, 省(簿) [薄] 以安人心. 國遵《大明律》, 然刑用肉. 往見道上, 釘手板者. 殺人似太易, 是干天和. 國稅, 一日之耕, 法若什一種, 取在上, 小民苦焉. 今大兵精芟盡竭, 卽什一多, 蠲厥半, 庶流離不至餓死. 故廣賑惟時之禔. 三, 用猛士以衛邦國. 國好文學, 若晉之清; 唐之逸, 庶事偕隆, 率陰刃相傾, 致豪士散去. 今無一個臣, 橫戈鋌以當關險, 不其痛乎! 卽有纖流, 寧稱熊羆之材, 如庾信、就礪者乎! 亟于山澤中搜羅, 如有應徵而出者, 得百餘人, 以備將相, 則邦式重以興. 四, 鍊兵仗以利戰陣. 今豈不稱有兵乎? 草笠縫掖, 縞若群(揭) [羯], 木枝鈍刃, 勢如兒戲, 倭削之如削麻. 嗚呼愚矣. 每合爾兵結陣, 反累吾兵. 今在尙州之兵, 烏能合營, 相共守與戰乎? 亟募驍健少年, (故) [胡] 纓短後者, 如吾南軍, 赤鞵、白巾, 如吾蜀兵, **牛革甲身, 束如犀**. 造麻牌二萬、扇長標丈八者二萬、烏槍二萬枝; 善射四萬人、刀者二萬人, 牌子前品字形, 後藏八人: 次二槍・次二標・次二弓矢・次二刀. 蓋標一夾以二弓, 《兵法》曰: “長槍之後, 繼以弓弩,” 此之謂也. 必授以坐作進退擊刺之方, 退者斬于陣, 畏主將甚如畏敵. 俾來如驟雨; 去如颯風, 會稽之兵也. 誠能此, 庶乎外禦狡倭內圖自立, 輸爾二百年款貢之心. 否則終難保存. 有孤今經略救援之師, 何以慰吾皇仁眷至意? 惟念四事, 以堅忠順, 欽崇天道哉!

유 원외(劉員外)가 보낸 글에 4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1. 과오를 뉘우쳐 천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명(一命)의 작위도 모두 하늘이 명한 것인데 하물며 왕의 자리이겠습니까. 2백 년 동안 승평 시대를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였으니 어찌 죄과가 없겠습니까. 지금 왜환(倭患)과 그 참독(慘毒)을 만난 것은 하늘이 벌을 보인 것이니, 군신(君臣)은 마땅히 자기 죄를 살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심하여 오륜(五倫)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음탕을 일삼고 욕심을 지나치게 내면 귀신에게 죄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밝게 보고 잡념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세로 천명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지혜로써는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없으니 잘 생각하십시오.

2. 형벌을 가벼이 하고 세금을 박하게 하여, 인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신 나라가 《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명틀》을 준수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형벌에 육형(肉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길에서 판자에 손이 못박혀 죽은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으로 천화(天和)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국세(國稅)에 대해 말한다면, 하루같이 토지에서 법으로 10분의 1을 조세로 받는 듯하나 여러 가지 종목으로 위에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지금 대병(大兵)은 식량과 마초가 고갈되었지만 10분의 1을 받는 조세에서 그 반을 감하여 주면, 혹 유리(流離)하더라도 아사(餓死)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구제하되 때에 맞게 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3. 용맹 있는 장사를 등용하여 국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라가 문학을 좋아함이 마치 진(晉)의 죽림칠현(竹林七賢)과 당(唐)의 죽계육일(竹溪六逸)과 같아 모든 일이 폐지되고 따라서 남모르게 서로 모해하여 마침내 호걸들은 흩어져 떠나게 하였습니다. 지금 신하 중에 한 명도 창을 들고 관방(關防)을 지키려는 자가 없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무리들이 있으나 어찌 웅비지재(熊羆之材)라 칭할 수 있으며 저 김유신(金庾信)과 김취려(金就礪)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속히 산림속에 숨어 있는 인재를 수소문하여, 만일 부름에 응하는 자가 있으면 1백여 인을 선발하여 장상(將相)의 자리에 앉혀서 국가를 부흥시키소서.

4. 무기를 만들어 전진(戰陣)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군사가 없다고 하겠는가 마는, 초립을 쓰고 소매가 늘어진 큰 옷을 입어 마치 흰 양떼와 같으며, 나뭇가지와 무딘 칼날이 마치 어린애 장난감 같아서 왜놈이 한번 후려치면 삼대 베듯이 꺾이니, 아, 어리석음이여! 당신네 군사와 함께 결진(結陣)할 때마다 도리어 우리 군사에겐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주에 있는 군사들과 어떻게 진영을 합하여 지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속히 체격이 건장한 청소년을 모집하여, 갓끈이 뒤로 짧게 하기를 우리 남군(南軍)과 같이 하고, 붉은 갑옷에 흰 두건을 우리 촉병(蜀兵)과 같이 할 것이며, **소가죽으로 몸을 감싸서 마치 물소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패(麻牌) 2만 장과 8장(丈) 되는 장표(長標) 2만 개·조창(鳥倉) 2만 자루를 만들고, 사격 잘 하는 자 4만 인·칼 쓰는 자 2만 인을 선발하여, 패자(牌子)를 앞에 품자(品字)형으로 세우고서, 뒤에 8명이 대열을 이루는데 창 쓰는 자 2명, 다음에 표창 쓰는 자 2명, 다음에 활 쏘는 자 2명, 다음에 칼 쓰는 자 2명씩을 충당해야 합니다. 대체로 표창 하나에 활 쏘는 자 2명이 끼어야 하니, 이는 방법에 이른바 긴 창 뒤에 활 쏘는 자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앉고 일어나고 나가고 물러나며 공격하고 찌르는 방법을 가르쳐서, 물러나는 자는 진중에서 배어 주장(主將)을 두려워하기를 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심하게 하며, 올 때는 소낙비같이 갈 때는 태풍처럼 빨리 하게 하여야 하니 이것이 바로 회계(會稽)의 병법입니다. 진실로 이에 능하면 밖으로는 교활한 왜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안으로는 자립을 도모하여, 귀국이 백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던 예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지금 경략이 원병을 이끌고 나온 뜻도 저버리게 될 것이니, 어떻게 우리 황제께서 인자하게 돌봐주시는 지극한 뜻에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앞에 진술한 네 가지 일을 명심하여 충성을 다하고 천명을 굳건히 받드십시오.”

▶ 40권 26년 7월 14일 丙寅

備邊司啓曰：“近者，京城及下三道公行及文移，皆自黃海道，到長連歷龍岡入來，賣出刷馬步從等事，一邑之力，既不能支，而刷馬不足，耕牛繼之。以長連一水爲界，彼此牛馬，若過一水，皆不得推尋，民間之苦，甚於天兵侵責云。大駕所駐之地，其弊若茲，極爲未安。龍岡去此不遠，長連只二日程，此兩處，以有名望文官差送檢察，如有違者，卽啓聞治罪，似爲便當。”上曰：“依啓。不但此也。側聞凡往來人員，一路作弊，極其侵責，民不堪其苦，處處號冤。如是而欲望民心之安左矣。然未聞有糾劾。今後幸檢飭。”備邊司回啓曰：“聖念及此，臣等不勝感激。此時民生被侵之狀，聞之惻然。如有犯者，隨卽糾劾檢飭之意，下諭于平安・黃海監司。”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자에 서울과 하삼도(下三道)의 공행(公行)과 문이(文移)가 모두 황해도로부터 장련(長連)으로 와서 다시 용강(龍岡)을 거쳐 들어오고 있는데, 쇠마(刷馬)와 보종(步從)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한 고을의 힘으로서는 이미 지탱할 수 없어 쇠마가 부족하므로 농우(農牛)까지 내어 주고 있습니다. 장련과 용강은 냇물 하나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장련과 용강의 우마(牛馬)가 내 하나만 건너가면 모두 추심(推尋)할 수가 없어 민간의 괴로움이 명군(明軍)의 침책(侵責) 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대가가 머물러 계신 곳에 그 폐해가 이와 같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용강은 여기에서 멀지 않고 장련도 이틀 길에 불과하니, 이 두 곳에 명망(名望)이 있는 문관을 보내어 검찰(檢察)해서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치죄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폐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전하는 말을 듣건대 왕래하는 인원이 일로(一路)에서 작폐(作弊)하여 침책이 심하므로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가는 곳마다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고서도 민심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규핵(糾劾)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후로는 검칙(檢飭)하기 바란다.”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성념(聖念)이 이에 미치시니 신들은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백성들이 침책당하는 일은 듣기만 하여도 측은합니다. 만약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규핵, 검칙하라는 뜻으로 평안감사와 황해감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41권 26년 8월 10일 辛卯

上敎禁屠牛，令司憲府糾察。

상이 소[牛]의 도살(屠殺)을 금하고 사헌부로 하여금 규찰(糾察)하게 하라고 하교하였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43권 26년 10월 2일 壬午

傳曰：“勸課農事，當今最急。耕種必待牛隻。我國殺牛之法，非不嚴密，而常時少無忌憚。昨日路上，見天兵列置牛肉，若出市之狀，極爲駭愕。今後屠牛之人，卽令刑曹、漢城府、司憲府，禁斷痛治。”

전교하였다.

“농사를 권면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시급한 일인데 경종(耕種)하자면 반드시 소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의 도살에 관한 법이 엄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평소에 조금도 기탄하는 일이 없었다. 어제 오는 도중 중국군들이 쇠고기를 마치 저자에 내놓듯이 늘어놓은 것을 보고서 매우 놀랐다. 이 뒤로는 소를 도살하는 사람은 즉시 형조·한성부·사헌부로 하여금 금단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 46권 26년 12월 3일 壬子

戶曹啓曰：“全羅屯田事，議于大臣，則以爲必須有農糧，又有農軍，又有勤謹官員，相其原濕之宜，指揮措置，勸課耕耘，無失其時，然後屯田之事，可得成矣。今者雖出屯田官數人，而農糧、農軍，尙無指的辦出之處；種子器具，雖令本道備給，而當此多事解弛之際，所在各官，聞屯田官號令，及時措給與否，亦未可知。以此觀之，則名爲屯田，而實效利益，難可預知。然若慮其無益，而遂廢不爲，則更無生穀之路，不可不就其中，稍得便宜者而行之，以試其效。各處閑曠可耕之地，多在海島，而監牧官別無主管所爲之事，所率牧子，多則百餘戶，少不下數十戶。若以勤幹之人，差爲其任，使率牧子等，隨力耕墾於海邊肥饒之處，種子則推移海邊各官所儲之穀，分給。令牧子等，或五人十人爲耦，蠲除科外侵徵之事，隨力所及，次第耕治，旣耕之後，具其牧子多少，起耕幾何，因此而知其勤慢，以行其賞罰，成熟之後，半以與民，官取其半。若是則公私兩便，海邊可耕之地，漸次日闢，不無其效矣。以此定爲事目，新所出屯田官，如皆可當，則沙汰監牧官之無才者，以此填差責成，以觀其效無妨。且京城十里之內，多有負郭良田，無人耕墾，此則亦當有以處之。訓練都監應募之軍，已五百餘名，此皆京畿近邑之民。試問所願，皆欲於鍊習之暇，耕墾荒田，自爲軍糧。此亦當聽其所願，於耕種之節，量給種子，每以一部爲一運，通力合作，則甚爲便益。且新差屯田之官，凡器具牛種人夫，措置極難，若兵·水使、各浦僉使、萬戶、守令之輩，則有所資藉，爲力稍易。令該司，先擇可爲屯田，以傍近兵·水使、邊將、守令之輩句管，隨便耕墾，與民共利，則不至於齟齬難成。亦令該司，講究措置。”上從之。

호조가 아뢰기를,

“전라도 둔전에 대한 일에 대해 대신들에게 의논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농량(農糧)이 있고 농군이 있고 또 근근(勤謹)한 관원이 있어서 땅이 건조한가 비습한가를 살펴 지휘하고 조치함으로써 농사를 권면, 그 시기를 잃지 않게 한 다음에야 둔전에 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둔전관(屯田官) 몇 사람을 차견한다 해도 분명하게 농량과 농군을 판출(辦出)해 낼 곳이 없고, 종자와 기구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준비해 내게 하더라도 많은 일이 해이된 이런 때에 둔전이 있는 각 고을이 둔전관의 호령을 듣고 제때에 조처하여 지급할지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둔전을 한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드디어 폐기하고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곡식을 생산할 길이 없게 되니, 불가불 그 가운데에서 조금 편의한 것으로 시행하여 그 공효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각처의 농사지를 만한 빈 땅이 해도(海島)에 많이 있는데 감목관(監牧官)은 별로 주관하여 하는 일이 없고, 그의 휘하에 있는 목자(牧子)가 많은 경우는 1백여 호나 되고 적어도 수십 호를 밀돌지 않습니다. 근간(勤幹)한 사람을 감목관에 차임하여 목자들을 거느리고 힘이 닿는 대로 해변의 비옥한 곳을 개간하게 하고 종자는 해변 각 고을에 저축한 곡식을 옮겨다가 나누어 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5인이나 10인 켜로 짝을 짓게 하고 과외(科外)로 침징(侵徵)하는 일은 건감, 힘이 미치는 대로 차례로 개간하게 하고, 개간이 끝난 다음에는 목자의 다소와 개간면적이 얼마인가를 갖추 기록하여 이것으로 근만(勤慢)을 판별하여 상벌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성숙한 뒤에 받은 민간에 주고 받은 관에서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사(公私) 모두가 온편하게 될 것은 물론 해변의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점차 날로 개간되어 그 공효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목을 정하고, 새로 차임하는 둔전관이 모두 합당한 사람이라면 무능한 감목관은 사태(沙汰)시키고 이들로 대체시켜 책임지운 다음 그 공효를 살펴보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성(京城)의 10리 안에 성을 등진 좋은 전지가 많이 있는데도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 또한 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응모한 군사가 이미 5백여 명인데 이들은 모두 경기에서 가까운 고을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소원을 물어보았더니 모두 훈련하는 여가에 묵은 전지를 개간하여 스스로 군량을 마련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또한 원하는 대로 들어주어 경종(耕種)할 철에 종자를 나누어주고 1부(部)를 1운(運)으로 하여 힘을 합하여 농사짓게 하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차임된 둔전관은 기구·소·종자·인부 등을 조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병사·수사, 각포(各浦)의 첨사(僉使)와 만호(萬戶), 수령들의 경우는 도움을 받을 바가 있어서 힘쓰기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먼저 둔전을 할 만한 곳을 가려 근방의 병사·수사 나 변장·수령들에게 관리하게 하고 편의에 따라 개간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같이한다면 어긋나서 이루기 어려운 데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 또한 해사로 하여금 조처를 강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46권 26년 12월 16일 乙丑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備邊司郎廳，以大臣意啓曰：“伏見沈忠謙啓辭，所論屯田一事，參商事勢，極爲該備。臣前日啓辭，亦以爲屯田之策，不過有三。以軍士屯田一也，聚流民屯田二也，此二者，皆須官給農糧、種子、耕牛然後可爲。不然則，惟給民竝作一事而已。今者，雖欲聚軍聚民，屯田於空閑之處，而既無農糧，則勢不可有成也明矣。就其中稍爲可行者，各道牧場，地多肥饒，且有所率牧子，若處處擇地起耕，亦似可爲，所患，今之爲監牧官者，多是無賴之人，割剝牧子，以爲己利。必須澄汰，抄擇其可堪其任者爲之，而起耕之後，或遣戶曹郎官，或備邊司郎官摘奸，而科其勤慢，則庶似有益。然牧子既有耘耕之田，力恐不贍，必種子、耕牛，令本道監司，推移題給，然後可成，此一策也。

~중략~

答曰：“依啓。多方急急措置，毋致失時。今此屯田，議論頗多，而春事將迫，尚未舉行。恐東君，必不待議論之定。予爲是懼，急急施行。”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삼가 심충겸(沈忠謙)이 아뢴 둔전 한 가지 일에 대한 내용을 보건대, 사세를 헤아린 것이 매우 주밀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신이 전일 아뢴 계사(啓辭)에서도 둔전책(屯田策)은 세 가지에 불과하다고 했었습니다. 군사들에게 둔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유민(流民)을 모아 둔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관에서 농량(農糧)·종자(種子)·경우(耕牛)를 지급한 다음이라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백성에게 주어 병작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지금 군사를 모으고 백성을 모아 공한지(空閑地)에다 둔전을 경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농량이 없고 보면 성공할 수 없는 사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좀 실행할 만한 것은 각도(各道)의 목장에 비옥한 땅이 많고 또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이 있으니, 곳곳에 땅을 가려서 경작하게 하는 것은 또한 실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감목관으로 있는 자들 가운데 무뢰한들이 많아서 목자들을 침탈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자들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사태(沙汰)시키고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개간하여 경작하게 한 뒤 호조낭관(戶曹郎官)이나 비변사낭관(備邊司郎官)을 파견하여 적간하여 그 근만(勤慢)을 매기게 한다면 유익함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경작할 농토가 있게 되면 힘이 넉넉하지 못할까 우려되니 반드시 종자와 농우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옮겨다가 제급하게 한 뒤라야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한 가지 방책인 것입니다. …”

~중략~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다방면으로 급급히 조치하여 시기를 잃지 않게 하라. 지금 이 둔전에 관해 의논이 매우 많아 농사철이 박두하여 오는데도 아직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군(東君)은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 틀림없으니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급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48권 27년 2월 21일 庚午

傳曰：“海州問安內官之往來，例騎刷馬，各官至於刷牛以給，當此農時，豈可刷牛？聞之可駭。凡問安往來，不過馬(一)〔二〕三匹，自今司僕寺留養馬，海州、延安、江華、通津，依常時分養例，各置六匹喂養。自此往海州者，騎司僕馬，自海州來此者，則騎其分養馬，次次相遞，人糧馬料，則各其發程處，計其程途而都給之。若於中道，依前責出刷馬及供饋馬料等事，則本官即囚其奴子，移牒于監司，轉啓推治。如此，則儼然一郵傳，而小無中路作弊。東宮問安，亦依此例施行，但南方，則驛馬有無，不能詳知，令有司，爲公事磨鍊行移。”

전교하였다.

“해주(海州)로 문안하러 다니는 내관(內官)이 왕래할 때 으레 쇠마(刷馬)를 타므로 각 고을에서는 소를 쇠출해서 지급하기까지 한하는데 요즘 같은 농사철에 어떻게 소를 쇠출할 수 있겠는가?” 듣고 보니 놀라운 일이다. 무릇 문안(問安)하러 왕래할 적에는 2~3필의 말이 필요할 뿐이니 이제부터는 사복시(司僕寺)에 있는 양마(養馬)를 해주(海州)·연안(延安)·강화(江華)·통진(通津) 등에 평상시 분양(分養)하는 예에 따라, 각기 6필씩 나눠주고 기르게 하라. 이제부터 해주로 가는 자는 사복시의 말을 타고 가도록 할 것이며, 해주에서 오는 자는 분양한 말을 번갈아 갈아타고 올 것이며, 사람의 식량과 말먹이는 각각 그 출발지에서 노정을 헤아려 도급(都給)하라. 만약 중도에서 그전처럼 쇠마 및 공궤(供饋)와 말먹이를 내도록 책임지운다면, 본고을에서 즉시 그 노자(奴子)를 가두고 감사에게 이첩(移牒)하여 전계(轉啓)해서 치죄(治罪)하도록 하라. 이같이 한다면 엄연히 하나의 우전(郵傳)이 되어 조금이라도 중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동궁(東宮)의 문안도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다만 남방에는 역마(驛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공사(公事)로 마련하여 행이(行移)토록 하라.”

▶ 49권 27년 3월 3일 辛巳

備邊司啓曰：“近日，外方盜賊興行，不獨掠奪財物，而殺害生人，相食無忌。當此春耕，雖有還集鄉里者，形勢孤單，不能自保，所持種子，輒爲強賊所掠，以此耕者尤少。加以守令，棄其邑治，栖寄山谷，不事官務，號令尤爲不行，而合併之邑，盡爲荒墟，人吏官屬之僅存者，亦無依(籍)〔藉〕生活之路，惟日填死於道路，慘痛極矣。昔五季時，洛陽殘敗，張全義爲尹，巡視各村，田土肥饒處，輒立一旗，令願耕者，來集旗下，因爲一屯，以其中善於撫綏者，爲屯長，與之耕牛穀種，合力耕作，村村如此。全義又晝夜親自勸課，其有治田善而禾穀茂者，下馬田間，招出婦女老少，慰謝賞給，其不善者怒責之。故其民相語曰‘我公未嘗笑，惟見好禾好蚕則笑。’於是流民四集，田野日闢，而洛陽復完。今日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撫輯之方，必如張全義之治洛陽，然後可也。”

비변사가 아뢰었다.

“요사이 외방에 도적이 성행하여 재물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산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경기(春耕期)를 맞아 비록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자가 있다 하더라도 형세가 고단(孤單)하여 스스로 보전하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던 종자마저 매번 강도에게 빼앗기니 이 때문에 농사짓는 이가 더욱 적습니다. 게다가 수령마저 그 고을을 버리고 산골에 서식하여 관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니 호령이 더욱 시행되지 않습니다. 병합된 고을은 모두 황폐하여 겨우 남아 있는 백성이나 관속들도 의지하여 생활할 길이 없어 날마다 길거리에 죽어 덩구니 참혹하고 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옛날 오계(五季) 때에 낙양(洛陽)이 폐허가 되었는데, 장전(張全義)이 윤(尹)이 되어 각 촌락을 순시(巡視)하면서 토지가 비옥한 곳이 있으면 곧장 깃발을 하나 세워 두고 농사짓기를 바라는 이는 깃발 아래 모이게 하여 그것으로 한 떼의 둔민(屯民)을 삼고, 그 중에서 무마하고 진정시키는 데 솜씨있는 자를 둔장(屯長)으로 삼아 소와 곡식 종자를 주면서 힘을 모아 경작하게 하였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장전은 또 밤낮으로 직접 권장하고 성적을 매기면서 농토를 잘 다스려 곡식이 무성한 곳이 있으면 말에서 내려 남녀노소를 불러 위로하고 상을 주었으며 잘못된 곳이 있으면 화를 내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공은 웃는 법이 없지마는 오직 잘된 곡식과 잘된 누에를 보면 웃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떠돌던 백성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전야(田野)가 날로 개척되어 낙양이 다시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루만지고 모여들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장전의 낙양을 다스린 것과 같이 하여야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50권 27년 4월 22일 庚午

備邊司【大臣柳成龍、有司堂上金命元、李德馨、沈忠謙】啓曰：“中原畜產繁息，牛則用於耕農，馬則用於戰陣。至於任載、騎乘、轉輸，皆以驢、騾爲之。騾之爲物，善行強力，倍於馬匹，負重遠致，飢渴不困，養飼亦易，是畜物中最強者也。我國但有牛、馬，而驢、騾絕少，故各官刷馬，驛站騎載，皆取於牛、馬。若於平安道牧場中，擇其水草肥饒之處，聚牝馬數百餘匹，又於遼東，貿得(牝)〔牡〕驢若干，雜牧於其處，擇曉解馬性者，爲監牧官，課其成效，則數年之間，所產皆騾。況今於義州中江開市，乘此貿換之便，多貿驢頭，勢將易就。令戶曹量給價物，以爲後日無窮之用，何如?” 答曰：“依啓.”

비변사가 【대신(大臣) 유성룡(柳成龍), 유사당상(有司堂上) 김명원(金命元)·이덕형(李德馨)·심충겸(沈忠謙).】 아뢰기를,

“중국은 축산(畜産)이 번식하여 소는 농사짓는 데 이용하고 말은 전쟁에 이용하며, 실거나 타거나 운반하는 일 등에는 모두 나귀와 노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잘 다니고 힘이 말보다 갑질이 강하여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고 기갈(飢渴)도 잘 견디며 먹

이기도 쉬운 것으로 가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와 말이 있을 뿐 나귀나 노새는 아주 적기 때문에 각 고을의 쇠마(刷馬)와 역참(驛站)에서 타고 싣는 일을 모두 소와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목장 중에서 수초(水草)가 잘 되는 곳을 골라 암말 몇 백 필을 모아두고 요동(遼東)에서 또 숫나귀 약간 필을 사들여 한 곳에 섞어 둔 다음 마성(馬性)을 잘 아는 자를 골라 감목관(監牧官)으로 삼아서 책임지고 효과를 얻도록 한다면 몇 해 안가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모두 노새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의주(義州)에서 중강개시(中江開市)를 하고 있으니, 무역이 편리한 이 시기를 이용하면 많은 나귀를 사들이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상당한 값을 책정하여 주게 하여 후일에 끝없이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53권 27년 7월 8일 甲申

訓鍊都監啓曰: “前日李德馨爲都監堂上時, 欲於明年, 令砲手等, 廣開屯田, 以空名告身, 下送于黃海道總攝僧義嚴處, 使之募牛. 今者, 義嚴上送耕牛三十三頭, 而其一頭納者, 求爲影識參奉, 而下去告身中, 無參奉職名. 參奉告身, 令該曹成送. 且黃海道僧人, 呈狀于備邊司告云: ‘義嚴爲都摠攝, 其官教, 願安御寶, 以爲榮耀.’ 義嚴以前後〔盡〕力國事之故, 已爲上護軍. 近者龍津僧軍糧餉, 他道則全不繼送, 而義嚴則連續輸送, 不至乏絕. 今又募得牛隻上送, 其勤勞致力, 不比他僧. 從當俯從其所願, 以爲勸獎之路.” 上從之.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전일 이덕형(李德馨)이 도감당상(都監堂上)으로 있을 때 명년에 포수 등에게 둔전(屯田)을 널리 개간하게 하기 위하여 공명고신(空名告身)을 황해도총섭(黃海道總攝)인 승(僧) 의엄(義嚴)에게 보내 소[牛]를 모으게 하였습니다. 이번엔 의엄이 밭갈이하는 소 33두(頭)를 보냈는데, 그 중 1두를 바친 자가 영직(影職) 참봉(參奉)을 요구하나, 내려 보낸 고신 중에는 참봉 직명이 없다고 합니다. 참봉 고신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황해도 승인(僧人)이 비변사에 정장(呈狀)하여 고하기를 ‘의엄이 도총섭(都總攝)이 되었으니 그 관교(官敎)에 어보(御寶)를 찍어 영광으로 삼기를 원한다.’ 하였는데 의엄은 전후에 걸쳐 국사에 힘을 다한 이유로 이미 상호군(上護軍)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용진(龍津)의 승군(僧軍) 양식을 다른 도는 전혀 계속 보내지 않았는데도 의엄은 끊이지 않고 수송하여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고, 이제 또 소를 모아 올려 보내는 등 그가 열심히 힘을 다하는 것은 다른 승인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어 권장하는 길로 삼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55권 27년 9월 22일 丁酉

傳于政院曰：“養兵，先須務農、積穀。今都監砲、殺手，其數日集，而繼糧無策。京城負郭良田之無主者，數不可計，何不分給各哨，種牛、鋤器并備以給，大開屯田，以爲餉土之資耶？雖如箭串、鄭金院坪，皆可姑給，言于備邊司。”

정원에 전교하였다.

“양병(養兵)하자면 모름지기 먼저 농사에 힘써 곡식을 비축해야 한다. 지금 도감(都監)의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는 그 수요가 날로 증가되는데 군량을 이어낼 방법이 없다. 경성(京城) 성곽 주변의 양전(良田) 가운데 주인이 없는 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하여 각 초병(哨兵)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종곡(種穀)과 경우(耕牛)와 농기(農器)를 갖추어 공급하여 둔전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군사들을 먹일 자본으로 삼지 않는가? 비록 살곶[箭串]이나 정금원평(鄭金院坪)이라도 우선 분급하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 57권 27년 11월 19일 癸巳

備邊司啓曰：“畿甸四境之內，蓬蒿滿目，盜賊縱橫，人不得通行，自東、西兩驛及各處，設立屯田之後，田野漸墾，道梗始通，不無其效。如衿、果之邑里，水原之沙斤，亦是往來要路，行旅止宿之處，合開屯田，招募遺民，故沙斤及衿川邑里，已得自募者若干，而衿川之人，則願入處於衿之山城，修築舊城，據險鍊兵等事，一如禿城之例，應募者亦多。且其山城，與邑居相距數里許。若於此城，募入人戶，積粟鍊兵，以爲保守之計，出而耕墾於邑里，使之漸次開荒，而其所入接之人，特令蠲除雜役，則人必樂赴，而庶有生聚訓練之望矣。然非有武士爲之倡率，則防禦土賊亦難，故以武人定爲召募將，農牛、穀種，令戶曹及本道，隨便備給，而果川邑里，亦令依右例，募得武士數三人掌之，俾有成效。”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기전(畿甸)의 사경 안에는 쭉대밭만이 눈에 띄고 도적이 횡행하여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었는데, 동서(東西) 양역(兩驛) 및 각처에 둔전(屯田)을 설립한 뒤부터는 전야(田野)가 점차 개간되고 막혔던 도로도 비로소 통해졌으니,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금천(衿川)·과천(果川)의 읍리(邑里)와 수원(水原)의 사근(沙斤)도 역시 왕래하는 중요한 도로로 행려(行旅)가 지숙(止宿)하는 곳이니 둔전을 개간하고 유민(遺民)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 때문에 사근 및 금천의 읍리에는 이미 스스로 모여든 자 약간명을 확보하였는데, 금천 사람은 금천의 산성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 성을 수축하고 험지에 의거하여 군사 훈련시키는 일등을 독성(禿城)의 예와 같이 한다면 응모자도 많을 것입니다. 또 그 산성은 읍거(邑居)와 거리가 몇 리밖에 안 되니, 만일 그 성에 인호(人戶)를 모집해 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고 군사를 훈련하며 보수(保守)할 계획을 한 다음, 나아가 읍리에서

농사를 짓게 하여 점차 황무지를 개간케 하고 그 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잡역을 덜어주면 사람들은 필시 즐겨 모여들 것이니, 백성을 모으고 곡식을 저장하여 군사를 훈련시킬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武士)가 그들을 창솔하지 않는다면 토적을 방어하기가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인(武人)으로 소모장(召募將)을 삼고, 농우(農牛)와 곡종(穀種)은 호조 및 본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갖추어 지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천 읍리도 이상의 예에 의하여 무사 2,3명을 모집하여 그 일을 맡겨서 성과를 거두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 58권 27년 12월 12일 乙卯

備邊司啓曰：“黃澗秋風嶺，乃賊路要害之地。自經亂之後，數百餘里，烟火蕭然，行旅不通。明春，所當招集流戶，設屯田於此，以爲關防之計。縣監鄭霍，家在沃川，頗知田作之事，而稻種數十餘石，願以其家所藏，取來爲資。更令該道監司，隨便覓給穀種、農牛，使之協力措置。”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간(黃澗)의 추풍령(秋風嶺)은 바로 적로(賊路)의 요해지입니다. 전란을 겪은 뒤로는 수백여 리에 걸쳐 연화(烟火)가 끊기고 행려(行旅)가 통행하지 않습니다. 명년 봄에는 마땅히 유민(流民)들을 불러모아 여기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관방(關防)의 계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황간현감 정주(鄭霍)는 본집이 옥천(沃川)에 있으므로 농사짓는 일을 꽤 알 뿐더러, 범씨 수십여 석에 대해서는 자기 집에 소장된 것을 가지고와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당(該道)의 감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곡종(穀種)과 농우(農牛)를 공급하여 적극 협력해 주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 59권 28년 1월 26일 己亥

領議政柳成龍劄子，慶尙道應行事宜。其略曰：

自古兵亂之際，必先設營柵，以爲據險之地，使軍民有所憑恃，老弱有所投藏，以其公私積畜，盡在其中，賊至則依險據守，賊去則下山耕種。一處如此，他處皆然，近者十餘里，遠者數十里，複屯相望，形勢連絡，則非徒可以保民，亦可以禦賊。此至切至繁之務，故雖將帥、守令，不知出此，而鄉村有識之人，往往合聚村民，措置方略，猶可以保全鄉曲。今者中外人情，皆以倭賊勢大，不可支撐，至於設策防守之事，一無(徑)〔經〕意，故小民之無知者，亦傳相效倣，竄伏林間，流移轉徙，以求偷活於朝夕，而其於耕種之務，尤不致意。以此賊未至，而南方之蕩破日甚，更無收拾之望，良可痛心。今之議者，言及山城據險等事則以爲：“無食、無兵，不可遽爲。”此知其一，而不知其二者也。欲大舉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城，多用人力，則非今日之所可成也。若於山村要險之處，招集流民，自以其力，略設營柵，而資以種子、牛隻，以爲且耕且守之計，則固人民之所欲爲者，特患爲官員者，不爲指揮經理，而號令不出於上，故民不肯爲耳。

영의정 유성룡이 경상도에서 응당 행해야 할 알맞은 일에 대해 올린 차자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자고로 병란 때에는 먼저 영책(營柵)을 설치하여 요새지로 삼아서 군사와 백성, 그리고 노약자들이 그곳에 의지하여 몸을 보전하게 하고, 공물이건 사물이건 모든 저축물은 다 그 가운데 쌓아두고서, 적이 이를 때에는 요해지인 그곳에 의거하여 지키고 적이 떠나면 하산하여 농사를 지었으니, 모든 곳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까운 경우는 10여 리, 먼 경우는 수 십리 거리에 서로 바라보일 정도로 둔지(屯地)를 중복 설치하여 그 형세가 잇닿게 한다면 한곳 백성만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긴요한 일입니다. 그런 때문에 비록 장수와 수령들은 그렇게 할 줄을 모르더라도, 향촌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이따금 촌민을 취합하여 집단생활 방법을 잘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향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인심들이 모두 왜적의 형세가 커진 때문에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수(防守)를 계획하는 일에 이르러서도 경험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도 전해 내려온 습관을 본받아 수풀 사이에 숨어 살거나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조석을 이어가는 구차한 방법이나 구하고, 경작하는 일에는 더욱 힘쓰지 않습니다. 이런 때문에 적이 이르기도 전에 남쪽 지방의 탕잔은 더욱 심해져 다시 수습할 희망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산성을 요새화할 것 등의 일을 언급하면 ‘식량도 없고 군사도 없으므로 갑자기 할 수 없다.’ 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가사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하여 많은 인력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오늘날에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산촌의 험한 곳에 유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힘으로 소규모의 영책을 설치하고 씨앗과 소를 조달해 주어 한편으로는 경작을 하고 한편으로는 방수를 할 계획을 한다면, 이것은 본디 인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소위 관원이란 자들이 지휘하거나 경리하지 않아 호령이 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

▶ 61권 28년 3월 10일 癸未

戶曹啓曰：“稅入比前半減，經費日漸繁夥，而上年田稅未漕運前，京倉儲米，勢將罄竭。以一朔用度計之，則散料二千九百二十一石零數內，東、西班一千一百十員題給米一千一百八十五石零，太六百二十二石零內。兼砲、殺、射手赴戰人并一千一百四十六員題給米八百六十二石零，下人六百五十名題給米二百五十一石零，雜用度亦至米太一千餘石。以其遺在，計其前頭之用，則僅支數月餘。事若至此，有司雖蒙重罪，有不足恤，其於

國體何? 軍餉廳一朔支用, 砲·殺手、訓練都監農軍并米五百七十五石零, 南下砲手妻料米三十二石零, 訓練都監匠人料米六石零, 同都監射手馬、農牛太并三十二石零, 龍津軍料米九十八石, 飢民賑濟米太并四百五十石, 雜用度四十石, 都合計數, 則大概一千四百二十八石餘, 遺在米、太、皮雜穀, 并僅六千石, 是不過數三朔之用, 此雖不在本曹經費之中, 用之已盡, 則如砲、殺手料, 飢民賑濟之終不可廢者, 勢將以軍資監所儲題給, 亦不可不爲之節用也. 凡干浮費冗官, 議大臣別爲裁減, 及時區處爲當.

이하생략~.”

호조가 아뢰었다.

“세입(稅入)은 전에 비해 반감(半減)되었는데 경비(軍費)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지난해의 전세(田稅)를 조운(漕運)하기도 전에 경창(京倉)의 저미(儲米)가 바닥이 날 형편입니다. 한 달 용도를 계산하면 산료(散料)가 2천 9백 21석이고, 동서반 관원(東西班官員) 1천 1백 10명의 제급미(題給米)가 1천 1백 85석, 그리고 콩이 6백 22석이며, 포수(砲手)·살수(殺手)·사수(射手)를 합해 출전한 사람 총 1천 1백 46명의 제급미가 8백 62석이고, 하인(下人) 6백 50인의 제급미가 2백 51석이고, 잡용도(雜用度) 역시 쌀과 콩 1천여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앞에 쓴 것대로 계산하면 겨우 몇 달 남짓밖에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사는 비록 중죄를 받는다 해도 죽히 못할 게 없지만 국가의 체모가 어찌 되겠습니까. 군향청(軍餉廳)의 한 달 지용(支用)이 포수·살수·훈련도감 농군(農軍)을 합해서 모두 쌀이 5백 75석이고, 남쪽으로 내려간 포수들의 처(妻)의 요미(料米)가 32석, 훈련도감 장인(匠人)의 요미가 6석, 훈련도감 사수(射手)의 말과 농우(農牛)의 콩이 모두 32석, 용진군(龍津軍) 요미가 98석, 기민(飢民)을 진제할 미태(米太)가 모두 4백 50석, 잡용도가 40석 등 모두 합쳐 계산하면 대략 1천 4백 28석이고, 남아 있는 미태(米太)와 피잡곡(皮雜穀)은 모두 해봐야 겨우 6천 석이니, 이것은 두세 달 치의 용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본조(本曹)의 경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써버리고 나면 포수와 살수의 요미와 기민 진제미 등 끝내 없앨 수 없는 것들은 장차 군자감(軍資監)의 저축으로 제급해야 할 형편이므로 역시 절약해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낭비와 관계가 되는 모든 용관(冗官)은 대신과 의논하여 별도로 재감(裁減)하는 등 늦기 전에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하생략~

▶ 65권 28년 7월 2일 癸酉

司憲府【大司憲金玘、執義申湜、掌令李鐵·鄭期遠、持平南以恭·姜籤.】(等)進劄(字)〔子〕:

~중략~

伏願殿下, 命刷現數, 聚爲國籍, 擇其諸宰中盡心國事者, 稱使以領之, 又分其馬數, 屬諸勤謹之人, 而就養於水草茂暢之地, 如秦、唐故事, 較其生息多寡, 以爲賞罰, 則軍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馬之盛，可以着鞭於討賊矣。且田家之牛，一皆蕩盡，農畝之耕，代人以駕，而京外屠殺，至今不止，吁亦盡之矣。民食軍餉，將何所作農而爲資耶？若申其嚴禁，許令相告，各以本律，爲之賞罰，重其牧養之道，可得其實也。

이하생략~

사헌부가 【대사헌 김녹(金玆), 집의 신식(申湜), 장령 이철(李鐵)·정기원(鄭期遠), 지평 남이공(南以恭)·강첨(姜籤).】 차자(筴子)를 올리기를,
~중략~

“... 원컨대 전하께서는 현재의 말 숫자를 조사하여 국적(國籍)에 올리라 명하시고 재상들 중에서 국사에 마음을 다하는 자를 골라서 사자(使者)의 호칭을 띠고 이를 거느리게 하소서. 또 말 숫자를 나누어 부지런하고 근실한 사람에게 맡겨 진(秦)과 당(唐)에서 했던 것처럼 수초(水草)가 무성한 곳에 가서 기르게 하고, 번식시킨 숫자를 비교하여 상벌을 시행하면 군마(軍馬)가 풍성해져 적을 토벌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소가 모두 탕진되어 밭갈이 할 때에 사람이 대신하여 멍에를 메고 있는 형편인데 경향(京鄕) 각지에서는 도살(屠殺)을 지금까지 중지하지 않고 있으니, 아, 이제 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차 어떻게 농사를 지어 백성들의 식량과 군량을 공급한단 말입니까. 만약 엄하게 금지하여 서로 고발하게 하고 각자 본율(本律)로써 상과 벌을 주어 목양(牧養)의 방법을 중히 여기게 하면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하생략~

▶ 65권 28년 7월 9일 庚辰

庚辰/司諫院啓曰：“氷庫別坐安宗吉，以訓練都監屯田次知官，募牛空名告身，任意濫用，不能詳錄，使其所募之數，終無查考之地，無謂已極，而各處屯田給種之時，穀數多少，任自低昂，用斗大小，圖取剩餘，至於屯長，視若奴(隸)〔隸〕，極其侵嚇，公然徵索，鄙陋之事，不一而足。請命罷職。”上從之。

사간원이 아뢰기를,

“빙고 별좌(氷庫別坐) 안종길(安宗吉)은 훈련도감의 둔전 차지관(屯田次知官)으로서 모우(募牛)에 쓰는 공명첩(空名牒)을 멋대로 남용하고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모집한 숫자를 끝내 조사할 곳이 없게 만들었으니 이미 할 말을 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처의 둔전에 종자를 줄 때에는 곡식 숫자를 멋대로 낮추고 올리며 크고 작은 말[斗]을 사용하여 남은 것을 자기가 가졌으며, 심지어는 둔장(屯長)을 노예처럼 여기고 극도로 침탈하면서 공공연히 징수하였으니, 비루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65권 28년 7월 9일 庚辰

備邊司啓曰：“海州爲一道巨邑．通道內形勢而言之，則雖非控制之地，要之爲根本所在．且有山城，地勢險絕，若精抄一邑軍民，盡發爲兵，日加訓練，又爲屯田積粟，爲永久之計，則緩急必有其賴．聖慮指揮，實非尋常，固當遵奉施行，但海之鍊兵難易之勢，與平壤稍異．平壤，常時營府屬，其數甚多，皆立役於官家之人，故以此訓練，不待他求而兵數自足，海州，則無如此元屬之軍，且無糧穀，可以餉軍，不得已稍發境內身有他役之民，又使之自備糧糗．往年鍊閱於官門，則民情有所不便．強其所不便，而勒令爲之，則勸(慕)〔募〕樂赴之心少，怨苦避役之弊，生矣．凡役民之道，移苦而就歇則從，自輕而爲重則違，不可不察也．臣等謹以下教之意，參商便宜之策，則凡鍊兵以精爲貴，老弱、癡鈍之民雖多，而不堪爲兵．海州各面，從其見在民丁，而勿論良人、公私賤、內奴、庶孽，分等抄出，以年少壯健伶俐，可以訓習者爲上等，依兵法束伍之規，十人爲隊，三隊爲旗，三旗爲哨，五哨爲師，而司則隨其各哨之多少，軍多則師司多，軍少則師司少，大將統焉．其束伍、束隊，以鄉里比隣，相附而(圍)〔團〕聚，又以其中之可堪統率者，爲隊長旗總，農時，則定其日數，畫爲番(爲番)次，使之相替就鍊，使不妨農；農隙，則合操於大將之處，而又查覈其成就與否，竝與哨官、旗隊總，而與本兵，同其賞罰，規模省約，而號令明審，知所興起，則雖非海州之人，而他處之自願來募者，亦日多矣．如是，期以數年，行之不已，則保障之成，亦有望矣．仍令兵使，修葺山城，又於山下三城及境內沃饒處，從其民情便否，或爲屯田，或資其農牛、種子，而許其半分，二三年後，生聚漸廣，蓄積漸多，以至操鍊之軍，可食軍餉，則人多來集，而鍊兵之事，唯意所欲矣．其於中下等民，則使之專力農事，而有用軍之事，則各出糧米，以爲軍人之糧，如常時(俸)〔奉〕足之例，似爲便當．至於私賤之成才者，其主或以官爵賞，或以他奴酬之，上教允當，臨時稟旨施行．本道若干郡邑貢稅，量其道里遠近，輸入山城，亦爲便當．此一條，令戶曹，商議處置．”上曰：“依啓．其被抄之人，盡蠲身役，以此啓辭，作爲事目，啓下于監司，使之盡力爲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海州)는 한 도의 거읍(巨邑)입니다. 도내(道內)의 형세를 통틀어 말한다면 비록 다른 고을을 제어할 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요컨대 근본이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또 산성(山城)이 있고 지세가 험준하니, 한 읍의 군민(軍民)을 정밀히 뽑아 모두 징발하여 군사를 삼아 날마다 훈련을 시키고, 또 둔전(屯田)을 만들어 곡식을 비축하여 영구한 계획을 세우며, 위급할 때에 반드시 힘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상께서 지휘하신 것은 실로 평범한 일이 아니니, 참으로 받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주에서의 군사 훈련은 형세상 그 난이도에 있어 평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평양은 평상시 영부(營府)에 소속된 자들의 수효가 매우 많고 모두 관가(官家)에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을 훈련시키면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고도 군사의 수효가 저절로 넉넉할 것이지만, 해주는 이처럼 원래 소속된 군사가 없을 뿐더러 군대를 먹일 식량이 없으므로 경내에서 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른 부역이 있는 백성을 징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백성들에게 자기의 식량을 싸가지고 오게 해야 합니다. 지난해 관문(官門)에서 훈련하여 보니, 백성들이 모두 불편하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을 무시하고 강제로 행하게 한다면 권장되어 즐거이 참여하려는 마음은 적어지고 고달픈 마음에 원망하여 그 일을 피하려는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대저 백성을 부리는 방도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데서 편한 데로 나아가게 한다면 따르지만 수월한 것에서 어려운 것을 시키게 되면 거역하는 법이니, 이 점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들이 삼가 하교하신 뜻을 가지고 합당한 계책을 상의해 보건대, 대저 군사를 훈련시키는 데는 정병 양성이 가장 소중하니 노약자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군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주 각면에 현재 살고 있는 장정은 양인(良人)·공천(公賤)·사천(私賤)·내노(內奴)·서얼(庶孽) 등을 막론하고 등급을 나누어 뽑아내되 나아가 젊고 건강하며 영리하여 훈련시킬 만한 자로 상등(上等)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법의 속오(束伍)의 규정에 따라 10명으로 1대(隊), 3대로 1기(旗), 3기로 1초(哨), 5초로 1사(師)를 만들고, 사(司)는 각초(各哨)의 다소에 따라 군사가 많으면 사사(師司)도 많이 두고 군사가 적으면 사사도 적게 두어 대장이 통솔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伍)와 대(隊)를 묶을 때는 이웃 마을과 서로 나란히 부합되게 결속하고, 또 그 중에서 통솔할 만한 자로 대장(隊長)과 기총(旗總)을 삼아야 합니다. 농사철에는 일수를 정하고 번차(番次)를 정하여 서로 교대로 훈련에 나오게 함으로써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한기에는 대장이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또 성취도를 검사하여 아울러 초관·대장·기총을 수여하고 모두 본병(本兵)과 상벌을 같게 하는 한편, 규모를 간략히 하면서 호령은 밝게 하여 흥기하도록 하면, 비록 해주인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자원하여 모집해 오는 자가 또한 날마다 많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수년 동안 계속 시행하면 보장(保障)을 이룰 가망이 있습니다.

이어 병사(兵使)로 하여금 산성을 수리하게 하고, 또 산 아래의 세 성과 경내의 기름진 땅에 백성들이 편리한 대로 혹 둔전도 만들고 혹 농우(農牛)와 종자를 대주기도 하여 반(半)을 나누어 갖게 하면, 2, 3년 후에는 백성들이 점차 풍부해지고 저축이 차츰 많아져서 훈련하는 군사의 식량까지 조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군사 훈련을 시키는 일이 뜻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중등(中等)과 하등(下等)의 백성들은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군사를 쓸 일이 있으면 각자 곡식을 내어 군인의 식량을 대주도록 하되, 평상시 봉족(奉足)하는 예처럼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사천(私賤)으로서 재능이 성취된 자가 있거든 그 주인에게 상으로 벼슬을 주기도 하고 다른 종으로 갚아주라고 하신 상의 분부는 참으로 마땅하니, 임시하여 품의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본도(本道) 몇 고을의 공세(貢稅)를 노정(路程)의 원근을 헤아려 산성으로 수송해 들이는 것이 또한 온당하니 이 한 조목은 호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선발된 자들은 모두 신역(身役)을 감해주고, 이 계사로 사목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계하(啓下)하여 힘써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65권 28년 7월 18일 己丑

備邊司【司憲府筭(字)〔子〕回啓.】啓曰：“臣等伏見司憲府筭(字)〔子〕，縷縷條陳. 先立其大者，而皆切於時務，無非可舉而行之者也. 中興君臣行事之迹，昭在方策，令館閣之臣，取其切要者，裒成一通，以備乙夜披覽宜當. 妙選宮僚，實是今日之急務. 申飭銓曹，廣詢宰從，并舉在野之賢，教導輔養之方，無過於此. 內殿久留于外，揆之事體，已爲未安. 不但弊滋怨興而已也，進御京城，且令王子，折節就學爲當. 今之備邊司，卽平時所謂賓廳也. 凡有大事，大臣以下，皆會賓廳，得以議事，今以事變未定之故，日日來會，共一廳事，應務攪擾，有不暇論，至於各道之事，各有該堂上，亦不可謂不分所司也. 若有不職者，責之治之，未爲不可.

~중략~

得粟之策，不一其路，而會計磨勘，畢竟皆歸於版曹. 令戶曹，申明查究各道會計，以知出入. 屯田之舉，在所不已，若至於利害相半，有名無實，則亦無所益. 其中役民屯田，最爲妨農，除募民供饋，全收所出，或給官牛、官種，或給口糧，秋成半分，或收三分之一外，其餘役民耕治者，并令禁斷. 操鍊軍兵，欲其得力於緩急(於)〔之〕際，今宜整飭部伍，而且將忠君孝親之道，親上死長之義，抄作書記，隨時教詔，略如鄉射讀法之例，亦爲便當. 才難固然，任用宜廣，破格收用，亦合時宜.

~중략~

末端所論，以復讐之義，恢復之基，天命、人心之說，爲生於憂患之地，惟在終始留神澄省焉. 他餘條件，令各該司回啓，何如?” 答曰：“依啓. 內殿進駐事，前已有教. 并舉草野之賢，固當，若以此除授侍講院則不可.”

비변사가 【사헌부의 차자(筭子)에 대한 회계(回啓)이다.】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사헌부의 차자를 보건대 조목조목 자세히 진달하였습니다. 먼저 큰일부터 설정하여 모두 시무(時務)에 간절하니 다 거행할 만한 것입니다.

중흥(中興)한 군신들의 사적이 서책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니, 관각(館閣)의 신하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 책 1권을 만들게 하여 을야(乙夜)에 열람하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궁의 관료들을 잘 선발하는 것은 실로 오늘날의 급무입니다. 이조에 단단히 타 이르고 재상들에게 널리 문의하십시오. 아울러 재야(在野)의 훌륭한 선비들을 등용하는 것은 세자를 교도하고 보양하는 방법으로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전(內殿)께서 오래도록 외지(外地)에 머물러 계시니, 사체로 헤아려 보건대 매우 미안합니다. 폐단이 불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니 서울로 모셔야 합니다. 또 세자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의 비변사는 바로 평시의 빈청(賓廳)입니다. 대저 큰일이 있을 때는 대신 이하가 모두 빈청에 모여 일을 의논하는데, 지금은 사변이 종결되지 않은 까닭으로 날마다 모여 청사(廳事)를 공동으로 사용하니, 업무가 복잡하여 논의할 겨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각도(各道)의 일은 각각 담당한 당상(堂上)이 있으니, 맡은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꾸짖고 죄를 다스려야 하니 이 또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중략~

곡식을 장만하는 시책은 한두 가지의 방법이 아니지만 회계(會計)를 마감하면 끝내 모두 호조(戶曹)에 돌아가게 되니 호조에게 각도의 회계를 명백히 살피고 조사하여 출납(出納)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둔전(屯田)을 시행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利害)가 서로 비등하고 유명 무실하면 또한 이익이 없습니다. 그중 백성을 부역시켜 짓는 둔전은 농사에 가장 방해가 되니, 모집한 백성의 공궤(供饋)를 제외하고는 생산된 곡식을 모두 징수하되 **혹 관청의 소나 종자를 지급하고 혹 식구의 식량을 주어 추수한 뒤에 반을 나누거나 혹 3분의 1을 징수하는 이외에 백성을 부역시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모두 금단하소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위급할 때 그 힘을 이용하려는 것이니 지금 마땅히 부오(部伍)를 정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도리와 윗사람을 사랑하고 어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중심으로 뽑아 전기(傳記)를 만들어서 수시로 가르쳐 인도하기를 마치 향사 독법(鄉射讀法)의 예처럼 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인재를 얻기가 어려운 것은 참으로 그러하니, 널리 구하여 임용하고 파격적으로 수용하는 것 또한 시의(時宜)에 합당합니다.

~중략~

끝에 논한 복수(復讐)의 의리, 회복(恢復)의 기반,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에 대한 말, 우환 가운데 사는 기반을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은 오직 시종 일관 생각하고 명찰(明察)하실 일입니다. 그 밖의 조목은 각 해사에게 회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내전(內殿)이 나아가 있는 일은 전에 이미 하교하였다. 초야에 있는 어진 선비를 아울러 등용하자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지만, 이들을 시강원(侍講院)에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 66권 28년 8월 29일 己巳

司諫黃是啓曰：“兵亂以後，陵寢蕪(歿)〔沒〕，至於朔望焚香之禮，專廢不舉。參奉受香之日，偃然在家，極爲駭愕。請頻頻擲奸，以祛其弊。”上曰：“近來參奉，多不愼擇，舉皆冗雜之流，安能無此弊乎？”典經尹義立啓曰：“**參奉信有罪矣，而亦出於不得已也。諸陵或在百里之外，已爲無人之境，經夜焚香，勢所不能。宜募集守護軍，給以種子、農牛，俾作根本。誠如是，則參奉自然守陵，而香火不絕矣。**”成龍啓曰：“中殿久在海州，供頓勞費，非止一二。蠲免之音雖降，而怨咨之聲不絕，宜及日氣未寒，急速還都矣。”上不答。尹義立啓曰：“拜陵之舉，極是盛事，而大駕還都之後，獨不省謁於太廟，此是孝理之闕典也。近者秋日漸涼，玉候亦平，太廟展謁之禮，宜先於拜陵之舉，不可緩也。”

사간(司諫) 황시(黃是)가 아뢰기를,

“병란 이후로 능침(陵寢)에 잡초가 무성하고 심지어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焚香)하는 예절까지 전폐하고 거행하지 않습니다. 참봉(參奉)이 향을 받는 날 편안히 집에 있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자주 척간(擲奸)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근래 참봉을 대부분 신중히 가리지 아니하여 거개가 용잡(冗雜)한 무리이니 어찌 이런 폐단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전경(典經) 윤의립(尹毅立)이 아뢰기를,

“참봉에게 참으로 죄가 있기는 하나 또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릉(諸陵)이 혹 백리 밖에 있는 것도 있어 이미 무인지경(無人之境)이 되었으므로 밤새워 분향하는 것은 형세로 보아 할 수 없으니 수호군(守護軍)을 모집하여 곡식 종자와 농우(農牛)를 주어 근본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하면, 참봉도 자연 능을 수호하고 향화(香火)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전(中殿)이 오랫동안 해수에 계시어 공봉(供奉)의 노비(勞費)가 한 두 가지뿐이 아니므로 부세를 감면하라는 윤음(綸音)을 내리셨으나 백성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일기가 추워지기 전에 급히 환도(還都)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윤의립이 아뢰기를,

“능에 참배하는 일도 아주 성대한 일이거니와 대가가 환도하신 뒤에 태묘(太廟)에는 성알(省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효리(孝理)에의 결전(缺典)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차츰 서늘해지고 옥후(獄候)도 평안하시니, 태묘에 전알(展謁)하는 예를 능침 참배하는 예보다 먼저 거행해야 하고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69권 28년 11월 7일 乙亥

備邊司啓曰：“臣等伏見平安監司狀啓及上送老乙可赤文書，與唐官回答票文，夷情固爲難測。然其情，只以當初自爲刷還我國之人，有所希覲，而尙無還償之物，且有渭源〔渭原〕採(參)〔蔘〕胡被殺之怨，故其怒未解，而欲逞兇於邊境。唐將所言以牛償命者，亦以夷狄性貪，欲以此戢其獸心也。渭〈原〉之胡，雖邊將過於斬殺，而虜既越境深入見殺，以此償以牛馬，則似示弱。但初以刷還之功，欲爲宴享，兼且賜物，以慰其心，而虜更發怒不來。此則當以實狀語之曰：‘爾既以好意，刷還我國之民，故我國亦深嘉爾意，多備宴享之需，且辦段衣、人(參)〔蔘〕、紬布等物，以待爾等之來，我國之於汝，意亦不薄。不意渭源〔渭原〕，有偶然格鬪殺傷之事，此亦非我國兵官，與爾有心讐殺也。只是爾的獐子，私自越境，散入山谷，昏夜不知好歹之人，以至於此。然我國，以地方官司，不能禁抑，方爲拿究。以此觀之，我國與爾，無讐可知。今爾反以此爲辭，不來受宴享，此何意也？然當初備設之物，本欲與爾，且以刷還我國人厚意，不可不報，故送與爾的差人云云’，因令唐官發送，則其於止怨之策，似爲便當。大抵兵端，最不可啓。今適唐官在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欲止釁隙，委曲譬諭，此則似是一幸。其處置之權，在於唐將，雖略有贈給，措辭開諭，是唐將爲之，在我別無嫌於示弱也。且見唐官宣諭之辭，深得中朝馭夷之法，至給其所乘之馬，又欲進去虜中面諭，其致力我國之事，甚爲可嘉。此乃胡遊擊所送之人，此意當別致謝於遊擊。且急遣宣傳官一人，往謝在彼唐官，令本道備給禮物，以酬其勞。童汝乙古，同時入去我國之人，未知伶俐與否，若果解事之人，則其還必得虜情，竝爲詳問，急速來報。童汝乙古，亦給物厚待，以悅其意。”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평안감사의 장계 및 올려보낸 노을가적(老乙可赤)의 문서와 중국 관원의 회답 표문(票文)을 보니, 오랑캐의 정황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은 당초 우리나라 사람을 쇄환(刷還)한 뒤로부터 분수에 넘치게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상한 물건이 없으며, 또 위원(渭原)에게 삼케던 호인(胡人)이 살해당한 원한이 있으므로 그 노기가 풀리지 아니하여 변경에서 흉포한 짓을 부리려 한 것입니다. 중국 장수가 소로써 목숨을 보상해주라고 말한 것도 이적(夷狄)의 천성이 탐욕하므로 이것은 짐승같은 마음을 금지시키려 한 것입니다. 위원의 호인을 변장(邊將)이 목베어 죽인 것은 지나치기는 하나 오랑캐가 경계를 넘어 내지에 깊이 들어와서 살해당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소와 말로 보상한다면 약함을 보이는 듯합니다.

다만 처음에 쇄환한 공으로 연향(宴享)을 베풀고 겸하여 물건을 하사하여 마음을 위로하려 하였는데, 오랑캐가 다시 성을 내어 오지 않았습다. 이것은 마땅히 실상(實狀)대로 ‘너희들이 이미 호의로 우리나라 백성을 쇄환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너희들의 뜻을 매우 가상히 여겨 연향의 물자를 많이 장만하고 또 비단옷·인삼·명주·포목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렸으니, 우리나라가 너희들에게 대한 뜻이 또한 박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도 위원에서 우연히 격투하고 살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병관(兵官)이 너희들과 원수의 마음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 달자(獐子)가 사사로이 스스로 경계를 넘어 와서 산골짜기에 흩어져 들어왔으므로 어두운 밤에 좋고 나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 관사에게 금억(禁抑)하지 못하였다 하여 바야흐로 잡아다 구문(究問)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도리어 이것을 구실로 삼아 연향을 와서 받지 아니하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나 당초 설비한 물건은 본디 너희들에게 주려 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을 쇄환한 후의는 갚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너희 차인(差人)에게 보낸준다…….’ 하고, 이어 중국 관원을 시켜 발송하게 한다면 원한을 그치게 하는 계책에 편당한 듯합니다.

대개 전쟁의 사단은 절대로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침 중국 관원이 저곳에 있어 혼단을 그치게 하려고 간곡히 타이를 것이니, 이것은 하나의 다행인 듯합니다. 처치하는 권한이 중국 장수에게 있으므로 증급(贈給)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만들어 타이는 것은 또한 중국 장수가 하게 되니, 우리에게서 약함을 보이는 혐의가 별로 없습니다.

또 중국 관원이 선유(宣諭)한 말을 보건대, 중국에서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을 깊이 체득하였고 타고 있는 말을 주기까지 하였으며, 또 오랑캐의 지역에 나아가서 면유(面諭)하려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일에 힘을 다한 것이 심히 가상히 여길 만합니다. 이는 호 유격(胡遊擊)이 보낸 사람이니, 이 뜻을 별도로 호 유격에게 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전관 1

인을 급히 보내어 저곳에 있는 중국 관원에게 가서 사례하고, 본도로 하여금 예물을 마련해 주어 그 노고를 보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여을고(童汝乙古)와 동시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리한지의 여부를 모르겠으나 과연 일을 아는 사람이면 돌아올 적에 반드시 오랑캐의 정황을 알아올 것이니 아울러 자세히 물어서 급속히 와서 보고하게 해야 하며, 동여을고에서도 물건을 주고 후히 대우하여 그의 뜻을 즐겁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69권 28년 11월 9일 丁丑

韓淡供稱：“臣自壬辰以後，長立從軍，今年四月，被火賊，頭顱盡破，六月至臥痛。三寸姜孝男，牛峰地牛隻收貢，相議屠殺，孝男請臣夫妻，數三日，來住其家。今年七月二十四日，率妻歸到，孝男曰：‘家世獨子相傳，此必葬山不吉。欲問於李成男改葬，其夫妻竝爲請來。’云云。新都可都之言及朴仲宣家北結陣等事，專不得知。”

한담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신이 임진년 이후로 오랫동안 종군(從軍)하다가 금년 4월에 화적을 당하여 머리가 으깨어졌으며, 6월에는 누워 앓기에 이르렀습니다. 3촌 아저씨 강효남이 우봉(牛峰) 땅의 소를 공물로 거두어서 상의하여 도살하고, 신의 부처를 청하여 수삼 일 동안 그 집에 와서 머무르라 하였습니다. 금년 7월 24일 아내를 데리고 가니, 강효남이 ‘집안이 대대로 독자로 전해오니 이는 반드시 묘지가 불길한 것이므로 이성남에게 물어서 개장(改葬)하려 한다. 그의 부처를 아울러 청해오라……’ 하였습니다. 신도(新都)가 도읍할 만하다는 말 및 박중선(朴仲宣)의 집 북쪽에 진을 친다는 등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 69권 28년 11월 23일 辛卯

推鞠廳啓曰：“卽刻罪人萬從入來，故萬從推問，則所供如此，別無端緒之現出。菴豆田，歸在女上典云云之語，及白馬新都，俗離避亂，懷仁結陣等說，更爲推問，猶不直招，則與郭應水，面質何如？”上從之。萬從供曰：“前年五月逃亡，十二月，入來上典家。牛峯地奴婢貢牛隻捧來，不合耕農，韓治家實用。郭應水追後來到，不得其肉，空去曰：‘今年，肉貴可知’云云。上典家飲酒事，則上典言：‘倭亂如此，人生不足恃’，遂會族，間間飲酒。應水招內，變生風雲等言及白馬江等地形勢，將帥在全羅道之事，專不聞知。奴身九月，木麥打作則的實，而郭應水初不來到，先攻清州等言，奴身萬無參聽。奴身逃躲事，則不意捉人之時，如我愚怯之人，豈能安坐乎？”

추국청이 아뢰기를,

“죄인 만종이 들어왔으므로 즉각 만종을 추문하였더니, 공초한 것이 이와 같아 단서가 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타남이 별로 없었습니다. 녹두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상전이 운운한 말 및 백마강(白馬江)에 신도(新都)를 정하고 속리산에 피란하고 회인(懷仁)에 진을 치는 등의 말을 다시 추문 하여도 바로 공초하지 않으니, 곽응수(郭應水)와 면질(面質)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만종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5월에 도망하였다가 12월에 상전의 집에 들어오니, 우봉(牛峰) 땅 노비의 공물로 거두어 온 소가 농사짓는 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한흠(韓洽)의 집에 무역하여 썼습니다. 곽응수가 뒤따라 와서 고기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면서 ‘금년에 고기가 귀함을 알겠다.’ 하였습니다. 상전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일은, 상전이 ‘왜란이 이와 같으니 인생을 믿을 것이 못 된다.’ 하고 드디어 죽친을 모아 간간이 술을 마셨습니다. 곽응수가 공초한 변이 일어난 다스니 풍운을 일으킨다스니 하는 등의 말 및 백마강 등지의 형세와 장수가 전라도에 있다는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원네가 9월에 메밀을 타작한 것은 확실하나 곽응수는 애당초 오지 않았었으니 청주를 먼저 공격한다는 등의 말은 원네가 참여하여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원네가 도망한 일은, 뜻밖에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에 저처럼 어리석은 겁장이자 어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 71권 29년 1월 30일 丁酉

南部主簿申忠一書啓:

臣於上年十二月十五日, 到江界, 適值府使許項, 以防備檢勅事, 出在其境內所屬鎮堡, 仍留本府, 以待其回. 十七日還官, 遂與相會, 問邊上虜情之可問者, 備辦盤纏, 二十日發行, 二十一日到滿浦鎮, 以待嚮道胡人之來. 是日向暮, 梨坡酋胡童女乙古、童復應古等出來. 二十二日朝, 前僉使柳濂, 出在懷遠館, 招兩胡, 饋以酒食, 各給米、布後, 臣與鄉通事羅世弘、河世國、鎮奴姜守及臣奴春起等, 竝晌午離發滿浦, 冰渡鴨綠江, 前向奴酋家進發. 自二十二日, 至二十八日, 所經一路事, 載錄于圖.

~중략~

一, 初五日, 臣等出來時, 汝乙古言於馬臣曰: “欲將熊皮、鹿皮, 賣於滿浦, 買牛耕田. 爾可言於王子, 說與軍官.” 馬臣入告于奴酋, 奴酋曰: “朝鮮不許上京之前, 爾等決不可徑往滿浦買賣.” 云. 一, 十二月二十八日, 到奴酋城外, 合抱之木, 長可十餘尺, 駕牛輸入者, 絡繹於道, 乃外城外設柵之木云. 正月初五日, 回還時見之, 則運入之數, 倍於前日; 役軍, 則三四日程內部落, 每一戶計其男丁之數, 分番赴役, 每名輸十條云.

~중략~

一, 渭原探蓼胡人等, 奴酋乃令其各部落, 刷出每名, 或牛一隻, 或銀十八兩徵收, 以贖其私自越江之罪, 其中貧不能措備銀與牛者, 則竝家口拏去使喚” 云.

남부주부(南部主簿) 신충일(申忠一)이 서계(書啓)를 올렸다.

“신이 지난해 12월 15일 강계(江界)에 이르렀는데, 마침 부사(府使) 허옥(許項)이 방비를

점검하는 일로 그 경내에 소속된 진보(鎭堡)에 나가 있음으로 인해 본부에 머물러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17일 그가 본관으로 돌아와 드디어 서로 회합, 변방 오랑캐의 실정에 대해 물을 만한 것을 문의한 다음에 반전(盤纏)을 마련하여 20일에 출발하여 21일 만포진(滿浦鎭)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향도 호인(嚮導胡人)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날이 저물어지자 이파(梨坡)의 추호(酋胡)인 동녀을고(童女乙古)와 동곽응고(童懷應古) 등이 나왔습니다. 22일 아침에 전 첨사(僉使) 유염(柳濂)이 회원관(懷遠館)에 나와 있었는데, 두 호인(胡人)을 불러 주식(酒食)을 먹이고 각각 미포(米布)를 준 후, 신은 향통사(鄉通事) 나세홍(羅世弘)과 하세국(河世國) 및 진노(鎭奴) 강수(姜守)와 신노(臣奴) 춘기(春起) 등과 함께 정오에 만포진을 떠나 얼음 위로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노추(奴酋)의 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의 지나온 노정의 일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중략~

1. 5일 신들이 출발할 무렵에, 여을고(汝乙古)가 마신(馬臣)에게 말하기를 ‘웅피(熊皮)와 늑피(鹿皮)를 만포(滿浦)에 가지고 가 팔아서 소를 사 밭을 갈려고 하니, 네가 왕자(王子)에게 말하여 왕자께서 군관에게 이것을 말하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신이 노추(奴酋)에게 고하니 노추가 말하기를 ‘조선에서 상경(上京)을 허락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결코 만포에 앞질러 가서 매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 12월 28일 노추의 성밖에 이르렀을 때에는, 길이 10여 척씩 되는 아름드리 나무를 소에다 실어들이는 자가 길에 잇달았었는데, 이는 외성(外城)에 목책을 설치할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1. 위원에서 인삼을 채취하는 호인들을 노추가 각 부락으로 하여금 색출하게 한 다음, 1인당 소 한 마리 혹은 은자 18냥을 징수하여 자의로 강을 건너 죄를 갚게 하였는데, 그 중 가난하여 은자와 소를 구해내지 못하는 자는 그 가솔을 잡아다가 사환으로 부린다고 합니다. ...”

▶ 73권 29년 3월 20일 丁亥

上御別殿, 講《周易》. 講畢, 特進官李軸啓曰: “還都之後, 人家完存, 一二年來, 幾盡毀撤, 雖或有欲還京洛者, 無以爲家. 且閭閻民家, 禾黍極目, 所見慘慘. 民間種穀, 雖不可禁, 公家屯田, 不須開墾. 假使出百石之穀, 安得補其軍需哉?” 上曰: “言于該司議處.” 特進官李齊閔啓曰: “賊在境上, 今逾五載, 禦敵之策, 果爲急務, 而民生撫摩, 尤急之最先也. 民生苟安, 則以之討賊, 以之防戍, 何求而不得哉? 民生安集之術, 不在乎他, 其惟得守令乎! 守令數易, 民間巨弊. 近來, 吏不久職, 或一年之內, 五易其宰, 迎新送舊, 無益有害. 至於新進武士之輩, 徒以割剝爲事, 不知撫恤民生, 以是流離轉徙, 四方嗷嗷, 良可寒心. 爲今之計, 莫如擇人而久任, 毋令數易而貽弊也.” 檢討官趙正立啓曰: “政出多門, 古人所戒. 近日銓曹, 雖一守令之差出, 必議於備邊司, 故備邊司末席堂上, 亦皆薦之. 豈銓曹反不如末席之堂上哉? 國家政體, 不當如是.” 上曰: “備邊司有大臣,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大臣曰可，然後銓曹乃擬之矣。”正立啓曰：“兵使重任，猶可廣採僉論，而守令亦令議之於邊司，則無委任銓曹之意，而事體自此不重。且平日，一被臺論，累年不敘，人皆畏憚公論。比者，今日被駁，明日除職，遏惡之典，安在？江界判官李殷宗，前任咸興通判，以御史狀啓罷，曾未閱月，旋授江界，豈朝廷任人之道哉？殷宗之悖戾，人所共知，爲政若此，外議謂何？駁而授職，人豈畏法？且言官，爲人主之耳目，糾一國之邪正，其任甚重。陽城爲諫議七年，蓋久於其職也。我國則小有所失，輒引嫌而退。謬例已成，不得不爾。今宜命議于大臣，以祛其弊。”上曰：“似難改之。”正立啓曰：“一村有一牛，則一村之民，農功就緒。伏聞都下屠坦之輩，逐日椎牛，與販取利。頃日憲府，嚴加防禁，至令徙邊，近來或以關節而減之，殊爲未便。”上曰：“憲府所當嚴禁。”又啓曰：“武弁出身，不爲不多，若執簿赴防，則可當一隅，而海西出身之徒，自兵曹戍于西邊，而皆以防戍塞上爲苦，納糧還家。當初設科之意，豈爲助糧之舉哉？一自出身，便爲頑民。宜下書于八道，抄錄以送，俾作緩急之(之)用矣。”上曰：“此則兵曹所當爲。”又啓曰：“筵中無犯顏直截之臣，只事承順上意，極爲寒心。古人云：‘君明則臣直。’今則無直臣，君雖有盛德，將何以增益其所不能乎？抑恐天威嚴毅，嘉言或有所伏也。自上當都俞吁咈，上下相厚，然後可致於大猷極善之治矣。”上曰：“此言是矣。”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진관(特進官) 이축(李軸)이 아뢰기를, “환도(還都)한 후 완전하던 인가(人家)가 1~2년 동안에 거의 다 훼손되었으니, 비록 서울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거처할 집이 없습니다. 또 여염의 민가가 화서(禾黍)로 가득하여 보기에 참담합니다. 민간에서 곡식을 심는 것을 금할 수는 없으나 공가(公家)의 둔전(屯田)은 개간할 수 없습니다. 가령 1백 석의 곡식이 난다 한들 어떻게 군수(軍需)에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사(該司)에 말해서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라.”하였다. 특진관 이제민(李齊閔)이 아뢰기를, “적이 국경에 머물러 있는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으니, 적을 방어할 계책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급선무라 하겠지만 민생의 무마책이 더욱 먼저 해야 할 급무라고 봅니다. 민생이 안정되면 그것으로 적을 토벌할 수 있고 그것으로 변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니,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다. 민생을 안집(安集)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훌륭한 수령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자주 바꾸는 것은 민간의 큰 폐단인데, 근래에는 그 직에 오래 있지 않아 혹은 1년 내에 다섯차례 씩이나 그 읍재(邑宰)를 바꾸므로 신관을 맞아들이고 구관을 보내는 데에 유익함은 없고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진 무사의 무리들은 단지 가렴주구만을 일삼고 민생을 구휼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민생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사망에서 울부짖고 있으니 실로 한심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계책으로는 사람을 선택하여 오래 재임시킴으로써 자주 바꾸어 폐단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하고, 검토포관(檢討官) 조정립(趙正立)은 아뢰기를, “정사(政事)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옛사람이 경계하였는데, 근일 전조(銓曹)가 수령 하나를 차출하는데도 반드시 비변사에 의논합니다. 그러므로 비변사의 말석 당상(堂上)도 또한 모두 추천합니다. 어찌다 전조가 도리어 말석 당상만 못하게 되었습니까. 국가의 제도가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 대신이 있으니, 대신이 가함하다고 이른 뒤에 전조가 주의(注擬)하게 하라.”하였다. 정립

이 아뢰기를, “병사(兵使)는 중한 소임이므로 널리 중론을 들어서 임명해야겠지만, 수령까지 비변사에 의논하게 한다면 이는 전조에 위임한 의도가 없고 사체가 이로부터 중하지 않게 됩니다. 또 평소 한번 대간의 논박을 입으면 여러 해 동안 서용되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론을 두려워하였는데, 요즘에는 오늘 논박을 입고도 내일 관직에 제수되곤 하니 악행을 막는 제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강계 판관(江界判官) 이은종(李殷宗)은 전에 함흥 통판(咸興通判)을 맡았을 때 어사의 장계로 인해 파직되었는데, 달을 넘기기도 전에 이내 강계에 제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조정이 인재를 임용하는 도리라 하겠습니까. 은종의 패려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정사를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외방의 의논이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논박을 받고도 관직에 제수되니 사람들이 어찌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언관(言官)은 임금의 이목(耳目)으로서 한 나라의 사정(邪正)을 규찰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양성(陽城)이 7년 동안 간의(諫議)가 되었으니 그 직위에 오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문득 괴롭하여 물러가는 것이 그릇 준례가 되었으므로 그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개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하였다. 정립이 아뢰기를,

“한 마을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한 마을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들건대 도하(都下)의 도살하는 무리가 날마다 소를 잡아 팔아서 이득을 취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헌부(憲府)가 엄히 금제를 가하여 사변(徙邊)하기까지 하였는데, 근래에는 혹 관절(關節)로 인해 감해주기도 하니 몹시 온당치 못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헌부는 마땅히 엄금해야 한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변출신(武弁出身)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약 그 명부를 가지고 부방(赴防)시킨다면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海西) 출신의 무리를 병조(兵曹)에서 서변(西邊)에 배치하였는데, 모두 변방을 수비하는 것으로 괴롭게 여겨 양식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애초 과거를 설치한 의도가 어찌 양식 보충하는 일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한번 출신하게 되면 문득 완민(頑民)이 되니, 마땅히 팔도에 하서하여 초록(抄錄)해 보내서 위급할 때의 쓰임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병조(兵曹)가 마땅히 할 일이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중(筵中)에 면대하여 직간하는 신하는 없고 다만 상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일삼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옛사람의 말에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곧은 신하가 없으니, 임금이 비록 성덕(盛德)이 있으나 어떻게 그 능치 못한 것을 증익(增益)하겠습니까. 아마도 천위(天威)가 너무 엄혹하여 좋은 말이 은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마땅히 진지한 토론을 주도하여 상하가 서로 친후하게 된 뒤에야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하였다.

▶ 73권 29년 6월 14일 庚戌

上曰: “訓練都監屯田, 亦欲罷乎?” 應南曰: “欲罷矣. 當初民無牛隻之時, 欲爲屯田, 以爲安集之計, 而今則民皆勤業, 野無閑曠, 故不願爲屯田矣. 牛則有三百四十餘頭, 設置牛場, 而使之放矣. 大概屯田之事, 監官非人, 其於各邑, 徒作弊事而已, 罷之無妨.” 申礪曰: “屯田之事, 所得不能補其所費. 今者砲、殺手, 受戶曹料, 而實穀不足. 訓練都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監、安集廳，皆一家事也。自今推移，食米五斗之人，食皮穀十五斗定數，可矣。”應南曰：“盧稷之行，停之乎？”上曰：“奏文，付送於其行乎？不可但已也。”

이하생략~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의 둔전도 폐지하려 하는가?”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폐지하려 합니다. 당초 백성에게 소[牛]가 없을 때에는 둔전을 만들어서 안집(安集)할 계책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백성이 다 생업에 부지런하여 비어 있는 들판이 없으므로 둔전 만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소는 3백 40여 마리가 있는데, 우장(牛場)을 설치하여 놓아 먹이게 하였습니다. 대개 둔전의 일은 감관(監官)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각 고을에서 작폐만 할 뿐이니, 폐지하는 것이 무방합니다.”하고, 신잡(申礪)이 아뢰기를, “둔전의 일은 소득이 용도를 채우지 못하므로 지금 포수·살수가 호조의 요미(料米)를 받아도 실곡(實穀)이 모자랍니다. 훈련도감과 안집청은 다 한 집안의 일이니, 이제부터는 옮겨서 쌀 5두(斗)를 먹는 사람은 피곡(皮穀) 15두를 먹도록 수를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노직(盧稷)의 행차는 멈추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문(奏文)을 그 행차에 부쳐 보낼 것이다. 그만둘 수 없다.”하였다.

이하생략~

▶ 74권 29년 4월 23일 己未

己未/引見副天使接伴使右參贊李恒福.

~중략~

上曰：“副使恐我國驚駭，卽有奏聞於天朝，抑上使李爺，多張虛說，熒惑乎觀聽，故使卿爲此來，然上使之張皇，何可防也？”恒福曰：“倭衆皆言：“上天使還來則可，若遲(迎)〔延〕不入，事不濟矣。”上曰：“不與副使相議而輕出，何故也？使下人持節，亦未委如何。前一日觴倭酋云，信乎？”恒福曰：“有之。”上曰：“今日，作何處置耶？請兵乎？請糧乎？”恒福曰：“我國處置，則未知何爲而可也。倭賊，與我國人異，諱不言情。似外貌觀之，則別無變動之形。牛子及重物，皆以賤直相換，且遑遑不靖，必是欲去之計也。”上曰：“我國民情如何？”恒福曰：“左道【慶尙.】皆驚動；全羅道光、羅州，則近營故不驚。全羅以南及湖西，則皆奔走矣。湖南人心不定，脫若有變，則不可使。都體察使雖欲鍊兵而不能矣。”

이하생략~

부천사의 접반사인 우참찬(右參贊) 이항복(李恒福)을 인견하였다.

~중략~

상이 이르기를, “부사는 우리나라가 놀랄까 염려하여 즉시 중국에 주달하고, 또 상사 이노야가 허황한 말을 많이 하여 남의 이목을 현혹시킬까 하여 경을 시켜 여기에 오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가 장황히 하는 말이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왜인이 모두들 말하기를 ‘상천사가 돌아오면 가능하지만 만약 지체하며 들어오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사와 상의하지 않고 경솔히 탈출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인을 시켜 절(節)을 가지게 한 것이 또한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루 전에 왜추(倭酋)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는가? 원병을 청해야 하겠는가? 군량을 청해야 하겠는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조처에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적은 우리나라 사람과 달라서 일체 숨기고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별로 변동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우자(牛子) 및 중물(重物)을 헐한 값으로 바꾸며, 또 당황하여 안정하지 못하니 이는 필시 돌아가려는 계책일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민심은 어떠한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좌도(左道)는 【경상도.】 모두 경동하나, 전라도의 광주(光州)·나주(羅州)는 영문이 가깝기 때문에 경동하지 않으며, 전라 이남 및 호서는 모두 분주합니다. 호남은 인심이 안정되지 않아 만약 변고가 있으면 도체찰사로 하여금 군사를 훈련시키려 하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76권 29년 6월 14일 庚戌

李璽曰：“遊擊欲見六部尙書，而送帖於臣處，欲爲來見云矣，而小臣以司憲府官，而備邊司事，不知首尾故不往，只以回謝之意，答之而已。兵糧措置之事難矣，臣有別策。安集廳之粟，專爲民而設也。甲午年間，民多得活，今則不然。且各道煮鹽，皆爲備糧，而所管非人，盡歸私地，今無處置矣。然則屯田之法罷，而安集廳之粟，屬於戶曹，而補於軍糧，則有餘矣。”應南曰：“李璽之言，然矣。非徒安集廳，訓練都監屯田，亦多矣。所出雖多，而砲、殺手所食，戶曹給之，其間所用，不知其幾耶。然則今秋屯田所收，亦送于軍餉廳，可也。”上曰：“備邊司議爲之。”上曰：“訓練都監屯田，亦欲罷乎？”應南曰：“欲罷矣。當初民無牛隻之時，欲爲屯田，以爲安集之計，而今則民皆勤業，野無閑曠，故不願爲屯田矣。牛則有三百四十餘頭，設置牛場，而使之放矣。大概屯田之事，監官非人，其於各邑，徒作弊事而已，罷之無妨。”申礪曰：“屯田之事，所得不能補其所費。今者砲、殺手，受戶曹料，而實穀不足。訓練都監、安集廳，皆一家事也。自今推移，食米五斗之人，食皮穀十五斗定數，可矣。”應南曰：“盧稷之行，停之乎？”上曰：“奏文，付送於其行乎？不可但已也。”

이하생략~

이기(李璽)가 아뢰기를, “첩 유격이 육부(六部)의 상서(尙書)를 만났으면 한다고 신에게 첩(帖)을 보내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였는데, 소신은 사헌부의 관원이기 때문에 비변사의 일에 대해서는 수미(首尾)를 모르므로 가지 않고, 회사(回謝)하는 뜻으로 답하고 말았습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 병량을 조치하는 일은 어렵지만, 신에게 별도의 계책이 있습니다. 안집청(安集廳)의 곡식은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갑오년에는 많은 백성이 이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각도에서 구운 소금을 모두 양식을 장만하는데 쓰는데 말은 자가 옳은 사람이 아니어서 죄다 사적인 것으로 돌아가는데도 지금 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둔전법(屯田法)을 폐지하고 안집청의 곡식을 호조에 소속시켜 군량에 보태면 넉넉해질 것입니다.”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기의 말이 옳습니다. 안집청 뿐이 아니라 훈련도감의 둔전도 많습니다. 소출이 많은데 포수(砲手)·살수(殺手)가 먹는 것은 호조에서 지급하니, 그 사이에 쓰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올가을에 둔전에서 거두는 것도 군향청(軍餉廳)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해서 하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의 둔전도 폐지하려 하는가?”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폐지하려 합니다. 당초 백성에게 소[牛]가 없을 때에는 둔전을 만들어서 안집(安集)할 계책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백성이 다 생업에 부지런하여 비어 있는 들판이 없으므로 둔전 만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소는 3백 40여 마리가 있는데, 우장(牛場)을 설치하여 놓아먹이게 하였습니다. 대개 둔전의 일은 감관(監官)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각 고을에서 작폐만 할 뿐이니, 폐지하는 것이 무방합니다.”하고, 신잡(申礪)이 아뢰기를, “둔전의 일은 소득이 용도를 채우지 못하므로 지금 포수·살수가 호조의 요미(料米)를 받아도 실곡(實穀)이 모자랍니다. 훈련도감과 안집청은 다 한 집안의 일이니, 이제부터는 옮겨서 쌀 5두(斗)를 먹는 사람은 피곡(皮穀) 15두를 먹도록 수를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80권 29년 9월 24일 丁巳

丁巳/領事金應南、知事金晬、特進官李增、大司憲柳永慶、大司諫李廷馨、特進官許晉、參贊官李好閔、參贊官鄭期遠、檢討官鄭穀、記事官趙澣·尹義立·柳慶宗入侍。卯正，上御別殿，講周易。

~중략~

晬曰：“似好。訓練都監給木花種五十石。若摘取則當給赤脫之軍矣。”上曰：“欲罷訓練都監者，皆妄言也，大概不悅者衆矣。外方貿鹽鐵者，率非其人，徒爲貽弊。如此之事，罷之可也。我國與中朝之事不同。屯田、煮鹽，中朝亦爲，而我國則爲弊不貲，至以爲奪民之利云。此甚不可。”應南曰：“都監遣人，持三升布及紙卷，入於濟州，則每三升一疋，奪牛而來，濟州之人怨都監深矣。”晬曰：“訓練都監穀石，黃海道屯田所出也。”上曰：“今番欲納於首陽山城者，其屯田之粟乎？”晬曰：“全數取之，則萬石將近，竝作故五千餘石。”上曰：“雖築山城，無粟不可入。均是國事，給之無妨。”

이하생략~

영사(領事) 김응남(金應南), 지사(知事) 김수(金晬), 특진관(特進官) 이증(李增), 대사헌(大司憲) 유영경(柳永慶), 대사간(大司諫) 이정형(李廷馨), 특진관 허진(許晉), 참찬관(參贊官) 이

호민(李好閔), 참찬관 정기원(鄭期遠), 검토관(檢討官) 정혹(鄭穀), 기사관(記事官) 조즙(趙澈)·윤의립(尹義立)·유경종(柳慶宗)이 입시하였다. 묘시(卯時) 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을 진강(進講)하였다.

~중략~

김수가 아뢰기를,

“좋은 것 같습니다. 훈련도감(訓練都監)에게 목화 종자 50석을 주었는데 만일 파내게 되면 벌거벗은 군사들에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을 혁파하려고 하는 것은 다 망령된 말로 대개는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외방(外方)에서 소금과 철(鐵)을 무역하는 자가 대개 책임자가 못되므로 그저 폐단만 끼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것은 혁파하도록 하라. 우리나라는 중조(中朝)의 사정과 같지 않다. 둔전(屯田)과 소금 굽는 것을 조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폐해가 적지 않아 민간의 이득을 빼앗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불가한 일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훈련도감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삼승포(三升布) 및 종이를 가지고 제주(濟州)에 들어가서 삼승포 1필로 소를 탈취해 오므로 제주 사람들이 훈련도감을 깊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훈련도감의 곡식은 황해도 둔전(屯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수양 산성(首陽山城)에 넣으려 하는 것도 그 둔전의 곡식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전 수량을 다 받으면 1만 석에 가까운데 병작(竝作)하므로 5천여 석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산성(山城)을 쌓는다 하더라도 곡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다같은 국가의 일이니, 주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이하생략~

▶ 82권 29년 11월 4일 丙申

政院以司僕寺言啓曰：“今見濟州牧使啓本，都體察使行移，五十馬艱得以捉出云云。近年濟州馬匹，多數出來，其勢然矣。今雖更爲行移，加數捉出，必無可用之馬矣。‘前代中國，以茶易虜馬，今中朝亦開市貿換，誠以(以)吾無用之物，易彼追風之足，可以資戰場而收武功也。今宜如六鎮、滿浦等處，多數貿易胡馬，以給嶺南將士，其價則可以端川銀子，或以某物，隨便措置’事傳教矣。相考則去正月間，李德馨請以人參等物，貿易胡馬，蒙允，卽爲入啓行移，知委于兩界監司，則平安道以爲採參之際，必有弊端，咸鏡道以爲胡人換馬，必用牛隻，而本道牛隻無出處，兩道俱以此防啓。今承上教，更與備邊司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相議，胡人以牛隻換馬，他物則雖銀、鐵、青布，皆不以爲貴。若得耕農不合牛隻數百頭入送，則可得善馬。濟州牛隻甚多，而其地方患飢荒，米斛可買牛累隻。今以該司步兵價布二三同，或訓練都監木花千餘斤，同監所儲兩湖鹽二三百石，下送於全羅道，乘此穀賤價歇之時，散給人民，收米而運入，以給濟州仰哺之人，以換牛隻，則彼此俱爲便利。且端川銀子，既不可用於六鎮買馬，則他無措置之策。工曹所儲端川歲納銀五六百兩除出，別定事知譯官及本寺解馬人員，前往義州、中江及寬奠等處，隨便買馬，以備戰陣之急用便當。滿浦則前聞奴酋禁勅管下胡人，他物俱許賣，而馬則一切勿許放賣云。事勢亦不如六鎮，似難舉行。”傳曰：“依啓速爲舉行。且兩界監司防啓云，其啓本已下乎？更欲見之，搜入可也。且奴酋禁馬，勿許放賣，其情極爲兇惡叵測矣。”

정원이 사복시(司僕寺)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이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을 보니 ‘도체찰사(都體察使)가 행이(行移) 한 말 50필은 뽑아 내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근년에 제주의 말이 많이 나온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행이하여 더 뽑아 내게 하더라도 필시 쓸 만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전대(前代)의 중국에서는 차(茶)로 노마(虜馬)를 바꾸었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개시(開市)하여 바꾸니, 참으로 우리의 쓸데없는 물건으로 저들의 바람처럼 빠른 말과 바꾸면 전장(戰場)에 보탬이 되어 무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육진(六鎭)·만포(滿浦) 같은 곳에서 호마(胡馬)를 많이 무역하여 영남(嶺南)의 장사(將士)에게 주고 그 값은 단천(端川)의 은(銀)이나 다른 어떤 물건으로 편리한 대로 조치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상고해 보건대, 지난 정월에 이덕형(李德馨)이 인삼 같은 물건으로 호마를 무역할 것을 청하여 윤허받았으므로 곧 입계하고 양계(兩界)의 감사(監司)에게 행이 하여 알렸더니, 평안도는 ‘인삼을 캐 때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하고 함경도는 ‘호인(胡人)에게서 말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소를 써야 하는데 본도에서는 소를 낼 데가 없다.’ 하여, 두 도가 다 이러한 이유로 방계(防啓)하였습니다. 이제 상교(上敎)를 받아 다시 비변사와 상의한 것은 이러합니다. 호인은 소로 말을 바꾸고 다른 물건은 은이나 청포(靑布)라도 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농경에 부적합한 소 수백 마리를 들여보내면 좋은 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에는 소가 매우 많고, 그 지방은 현재 기근에 시달리므로 쌀 몇 섬이면 소 여러 마리를 살 수 있으니, 이제 해사(該司)의 보병 가포(步兵價布) 두세 동(同)이나 또는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목화 1천여 근(斤)과 훈련도감에 저축된 양호(兩湖)의 소금 2~3백 석(石)을 전라도에 내려 보내어 곡식이 천하여 값이 싼 이때에 백성에게 나눠 주고 쌀을 거두어 운반해 들어가 제주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어서 소로 바꾸면 피차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또 단천의 은을 육진에서 말을 사는 데에 이미 쓸 수 없고 보면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공조(工曹)에 저축된 단천의 세납은(歲納銀) 5~6백 냥을 털어 내어 일을 아는 역관(譯官)과 본시(本寺)의 말을 아는 인원을 따로 정하여 의주(義州)·중강(中江)·관전(寬奠) 같은 곳에 보내어 편의한 대로 말을 사서 전진(戰陣)에서 급히 쓰는 데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전에 듣건대, 만포는 노추(奴酋)가 관하의 호인들에게 금칙(禁勅)하여 다른 물건은 다 파는 것을 허가하되 말은 일체 팔지 못하게 하였다 하니, 사세가 또한 육진과 같지 않아서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빨리 거행하라. 또 양계의 감사가 방계하였

다 했는데, 그 계본은 이미 내렸는가? 다시 보려 하니, 찾아 들이도록 하라. 또 노추가 말을 팔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니, 그 뜻이 지극히 흉악하여 헤아릴 수 없다.”하였다.

▶ 83권 30년 12월 21일 癸未

上曰：“壬辰賊來寇者，其額幾何云耶？曰：“或十萬云，或二十萬云，未知孰是。但結陣連營，相望於道者，自京城迤於北道，自京城又迤於平壤，自釜山迤於漢水，兵非二十萬，必不如是之盛也。”上曰：“秀吉待天使甚惡草，不設儀仗云，然耶？”曰：“倭國無禮義，故別無儀仗，而只以金牛，運行有時，以簡慢之禮待之，則一枝筇竹，徒步來見云。”上曰：“爾之一行上下員役，皆無故出來耶？”曰：“格軍一人，聞我國事勢不順，日本將盡殺信使之行，故無緣逃脫，投入賊中，此外無死亡人。”黃愼將出，上曰：“姑坐”，命黃門引燭，前於史官，以明記事。俄而小黃門持杯盤出，上命賜黃愼飲訖，罷對，漏下三鼓矣。

상이 이르기를, “임진년에 침략해 왔던 왜적의 수효는 얼마라고 하던가?”하니, 아뢰기를, “10만이라고도 하고 20만이라고도 하여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설치한 진영이 길가에 연결되어 그 진영이 경성에서 북도까지 뻗혀 있었고 또한 부산에서 한강까지 뻗혀 있었으니, 병졸이 20만이 아니고서는 필시 이같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길(秀吉)이 중국 사신을 대접할 때 거친 채소로 찬을 만들었고 의장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하니, 아뢰기를, “왜국은 본래 예의가 없는 나라로 특별한 의장은 없이 금우(金牛)로써 운행할 뿐이었고 이따금 소홀하고 오만한 예로 대하였는데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도보로 와서 접견하였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 일행인 상하 원역(員役)들은 모두 사고가 없이 나왔는가?”하니, 아뢰기를, “격군(格軍)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세가 순조롭지 못하여 장차 일본이 통신사 일행을 모두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유없이 도망하여 적중으로 들어갔고, 이 밖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하였다. 황신이 나가려 하니, 상이 잠시 앉으라 이르고 황문(黃門)에게 명하여 촛불을 들고 사관(史官) 앞에 가서 기사(記事)를 확인하게 하였다. 조금 후에 소황문(小黃門)이 술상을 가지고 나오자 상이 황신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인견을 마치니, 밤 3경이었다.

▶ 87권 30년 4월 14일 甲戌

巳時，上御別殿。以耳鳴之症，受鍼面部聽宮、翳風，手部外關、中渚、後谿、腕骨、合谷，足部大谿、俠谿等各二穴；以偏虛之症，受鍼手部肩髃、曲池、通里，足部三里等各二穴；以脅下有氣流注之症，受鍼足部崑崙、陽陵泉、承山等各二穴。都提調金應南、提調洪進、副提調吳億齡，醫官楊禮壽、許浚、李、公沂，鍼醫五員入侍。上曰：“窓戶皆閉，若昏而不便於施鍼，則開之無妨。”醫官等曰：“開之則施鍼時，可以明快矣。”遂開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一問之戶，應南曰：“臣等與諸醫官，外間相議，近來日氣向熱，受鍼未穩云，故下意則皆不欲爲之矣。”上曰：“予意必欲爲之矣。”洪進曰：“醫方以爲，鍼則不灸，灸則不鍼云。今者鍼、灸並施，亦未穩當矣。”上曰：“脅下如有氣流注，而一邊偏虛，必以艾氣入之，方好矣。”應南曰：“灸法，必五十壯、百壯，盡腐爛，然後乃已，此則決不可爲之。必欲灸之，亦須暫入艾氣爲當。”上曰：“一入艾氣而有效乎？”應南曰：“臣聽醫官鄭士敏之言，以牛角灸，一度爲之，而有見效者云，臣亦見胸腹痛者，一灸而得效。不必多灸而有效也。”上曰：“鍼然後灸之乎？”醫官等曰：“先以鍼通氣後，入艾氣可矣。但已施經絡鍼，而又入艾氣，則已有熱氣矣。此後又鍼又灸，則必有損。施鍼畢，而最末以牛角灸，入艾氣何如？此法外間云，人多用之矣。”上曰：“鍼醫議爲。”鍼醫等曰：“鍼而灸，灸而又鍼，則反有傷矣。盡施鍼後，終末灸之宜當。”上曰：“然則如是爲之。且右手屈伸處，有氣時降，倏忽之間，乍有乍無，亦有拘急之時。右脅之下，氣若流行，右膝常覺酸痛。大概右邊偏甚，有時如蟲行之狀，全體不出汗，而此邊則出汗，亦有不耐寒冷之時矣。”醫官等曰：“是風氣也。或有濕痰，藏於少陽經而然矣。上受鍼下部時，命以屏風遮障於前。億齡啓曰：自前受鍼時，臣常入參矣。今則何以爲之？”上曰：“今則異於前。脫足而坐，接見宰臣未安。”再啓曰：“在近侍之列，受鍼時，不得入侍，極爲未安。”上曰：“在屏外矣，雖不入何妨？”上受鍼于下部後，命去屏。上曰：“施鍼時，不覺痛，且不出血。如是而亦有效乎？”醫官曰：“只通氣而已。”上曰：“左、右邊，一時點穴而受鍼乎？”醫官曰：“右邊虛處鍼之，則尤至於虛，今日只鍼左邊，而右邊則他日施之何如？”上曰：“量爲之。”施鍼畢後，藥房提調及醫官等，以次出，王世子以朝問安，因留侍，過畢鍼後，還東宮。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이명증(耳鳴症) 때문에 면부(面部)의 청궁(聽宮)·예풍(翳風), 수부(手部)의 외관(外關)·중저(中渚)·후계(後谿)·완골(腕骨)·합곡(合谷), 족부(足部)의 대계(大谿)·협계(俠谿) 등을 각각 두 혈(穴)에 침을 맞았고, 편허증(偏虛症) 때문에 수부의 견우(肩髃)·곡지(曲池)·통리(通里)와 족부의 삼리(三里)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고, 겨드랑이 밑에 기류주증(氣流注症)이 있어서 족부의 곤륜(崑崙)·양릉천(陽陵泉)·승산(承山)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다. 도제조 김응남(金應南), 제조 홍진(洪進), 부제조 오억령(吳億齡),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壽)·허준(許浚)·이공기(李公沂)와 침의(針醫) 5명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창문이 모두 닫혀 어두워서 침을 놓기가 불편하다면 열어도 괜찮다.”하니, 의관 등이 아뢰기를, “열어 놓으면 침을 놓을 때에 명쾌하겠습니다.”하고, 드디어 한 칸의 창문을 열었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의관과 밖에서 상의한 바에 의하면, 요사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침을 맞기에 온당치 못하다고 하여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은 기어코 맞고 싶다.”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의방(醫方)에, 침을 놓을 때는 땀을 뜨지 않고 땀을 뜰 때는 침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침과 땀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겨드랑이 밑에 기류증이 있어서 한쪽이 너무 허(虛)하니, 반드시 쑥김[艾氣]을 들이는 처방이 좋을 것 같다.”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땀뜨는 법에 반드시 50장(壯)이나 1백 장을 떼서 다 진무를 뒤에 그만둔다고 하였으니, 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기어코 뜨시겠다면 차

라리 잠시 쑥김만 들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번의 쑥김을 들이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의관 정사민(鄭士敏)의 말을 듣건대, 우각(牛角)으로 뜨는 뜸은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본 자가 있다고 하였고, 신도 가슴을 앓는 자가 한 번의 뜸으로 효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필코 많이 떠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은 뒤에 뜸을 뜨는가?”하자, 의관들이 아뢰기를, “먼저 침으로 통기(通氣)를 하고 나서 쑥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락(經絡)에 이미 침을 놓고 나서 또 쑥김을 들인다면 이미 열기가 있게 되는데, 이 뒤에 또 침을 놓고 뜸을 뜬다면 반드시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침을 다 놓은 뒤 맨 마지막에 우각으로 뜨고 쑥김을 들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방법을 외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침의가 의논하여 하라.”하니, 침의들이 아뢰기를,

“침을 놓고 또 뜸을 뜨고 또 침을 놓는다면 도리어 손상이 있을 것이니, 침을 다 놓은 뒤에 뜸을 뜨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오른손의 굴신(屈伸)하는 곳에 어떤 기운이 이따금 내려 잠깐 사이에도 있다 없다 하고 또 당길 적도 있다. 오른편 겨드랑 밑에 기가 도는 듯하고 오른편 무릎이 늘 시리고 아픈데 대체로 오른편이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따금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 온몸에 땀이 나지 않아도 이쪽은 땀이 나는데 또 추위를 견디지 못할 적도 있다.”하니, 의관들이 아뢰기를, “이는 풍기(風氣)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습담(濕痰)이 소양경(少陽經)에 잠복해 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하였다. 상이 아랫 부위에 침을 맞을 적에는 병풍을 앞에 가리라고 명하였다. 역령 등이 아뢰기를, “전부터 침을 맞으실 적에는 신이 늘 입참(入參)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발을 벗고 앉아서 재신(宰臣)을 접견하기가 미안하다.”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근시(近侍)의 반열에 있으면서 침을 맞으실 적에 입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풍 밖에 있으면 된다.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하고, 아랫 부위에 침을 맞은 뒤에 병풍을 걷으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맞을 적에 아픈 줄도 모르고 또 피도 나지 않았으니, 이러고도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하니, 의관이 아뢰기를, “통기만 하였을 따름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른편과 왼편을 일시에 점혈(點穴)하고서 침을 놓았는가?”하니, 의관이 아뢰기를, “오른편의 허한 곳에 침을 놓으면 더욱 허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왼편에만 침을 놓았습니다. 오른편은 다음 날에 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 “헤아려서 하라.”하였다. 침놓기를 마친 뒤에 약방제조(藥房提調) 및 의관들이 차례로 나갔고, 왕세자는 문안 때문에 들어와 머물러 모시다가 침을 마친 뒤에 동궁(東宮)으로 돌아갔다.

▶ 89권 30년 6월 13일 壬申

朝鮮國王，爲朝鮮危在朝夕，事難再延，謹具陳防禦急着，懇乞聖明，亟勅當事諸臣，着實相機，着實舉行，以保屬國等事：

本年六月初七日，准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楊咨前事，本年五月二十三日，准朝鮮國王咨回稱，必須急運天朝糧餉，可以接濟。住糧仍照云云。一面督查料理，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聽候接運，一面希速回復本院，以憑施行，請勿延緩等因.

~중략~

其見在運船，小邦沿海去處，只有哨賊兵船，更無別項公船，可以調集搬運. 只靠各處漁、商等戶，訪出私造船隻，俱係海風船隻，而體樣狹小，大者僅載五六百，小者一二百石. 又慮避役之民，藏匿島嶼，未易拘喚. 專差陪臣知中樞府事柳根，專管海運句當，馳往沿海地方，行督各處，該管陪臣，整點船隻水手，聽候接運. 遼東陸路運至糧米，行令平安道管糧陪臣趙挺，前往義州，專管接收. 但沿路驛站，馬牛缺少，兼又地方民力已竭，委難馱載轉輸. 方擬調集廣梁迤北沿海遺下船隻，將所據義州糧米，亦行運到本處，並與山東運糧米，一齊船運各處. 但海、陸二運，俱會本處，而本處迤南船隻、人力，終是不敷，恐不得刻期搬運，致卸軍餉，日夜憂慮. 所據廣梁迤北、迤南海路，到無阻礙，海運糧船，直到江華交卸，亦爲便益. 今准來咨，卽再行原差陪臣柳根，着令盡心料理，聽候接運，毋得怠緩誤事外，擬合咨復，爲此合行回咨，照驗施行，須至咨者. 右咨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

양 경리(楊經理)에게 보낸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위망(危亡)이 조석간에 달려 있는 조선의 사태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방어에 관한 긴급 사항을 알리니 귀하께서 일을 담당한 여러 신하들에게 속히 명령을 내려 착실히 기회를 살피 거행케 함으로써 속국을 보호해 달라는 등의 일로 자문을 띄웁니다.

금년 6월 7일 함차경리조선군무도찰원우첨도어사(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 양(楊)의 자문을 받았는데 ‘금년 5월 23일 조선 국왕의 회자(回咨)를 보니 「중국의 식량을 급히 운반하여 접제(接濟)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현재 남아 있는 식량 수를 기재한다.」 하였었다. 운반에 관계된 사항을 빨리 조사 처리케 하여 연락이 닿는 즉시 접운(接運)케 할 것이며, 동시에 본원에 속히 회자(回咨)함으로써 우리가 시행하는데 참고가 되게 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중략~

현재 운반할 선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해에는 단지 적을 초탐(哨探)하는 병선(兵船)만 있을 뿐 따로 조발(調發)하여 운반할 만한 공선(公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처의 어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믿고 사사로이 만든 선박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 선박들은 모두 범선(帆船)으로서 선체도 협소하므로 큰 것이라야 겨우 5~6백 석을 싣고 작은 것은 1~2백 석밖에 싣지 못합니다. 또 염려되는 점은 역사(役事)를 피하려는 백성들이 섬 가운데로 숨어버렸는데 쉽게 잡아서 불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 지중추부사 유근(柳根)을 전차(專差), 해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연해 지방으로 달려가 각처의 해당 배신들을 독려하여 선박과 사공들을 점검하면서 소식이 닿는대로 접운(接運)케 하였습니다.

요동(遼東)에서 육로로 운반해 오는 양곡은 평안도 관량배신(管糧陪臣) 조정(趙挺)으로 하여금 먼저 의주(義州)로 가서 전담하여 접수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연로(沿路)의 역참(驛站)에 말과 소가 부족하고 또 여기에 지방의 민력(民力)이 이미 고갈되어 육로로 실어 나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광량진 이북 연해에 남아 있는 선박을 모아서 의주

에 있는 양미도 이곳으로 운반하여 산둥(山東)에서 오는 양미와 일제히 선박으로 각처에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운(海運)·육운(陸運)의 양곡이 모두 본처에 모이게 되면 본처 이남의 선박과 인력으로는 끝내 부족하게 될 것인데 기한 내에 운반하지 못해 군량이 떨어지게 될까봐 밤낮으로 염려됩니다. 광량진 이북과 이남의 해로는 별로 장애가 없으니, 해운해 오는 양곡선이 곧바로 강화에 이르러 하역하는 것도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자문을 받는 즉시 원래 차임했던 배신 유근(柳根)을 다시 보내 정성을 다해 처리하게 하고 연락이 닿는 대로 접운(接運)케 하되 태만히 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회답하는 자문을 보내야 마땅하겠기에 이렇게 회자(回咨)를 드리니, 살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흠차 경리 조선 군무 도찰원에 자문합니다.”

▶ 89권 30년 6월 14일 癸酉

慶尙右兵使金應瑞馳啓曰：“本月初六日，要時羅出來宜寧，求見臣，臣七日，自山城下去，問其來由，則答曰：‘平調信初二日，來到釜山奇別內，調信入歸，則關白云：「朝鮮王子送否？」調信答曰：「王子決不可致。」關白曰：「然則以何事講和乎？」調信曰：「若以歲幣大臣，通好則事可成矣。」關白初以爲然，後日更問曰：「朝鮮已許汝來言乎？」調信未知朝鮮之肯從，恐有後患，以實答之，關白即大怒曰：「如此不實之事，棄陣來問於我？汝罪當斬。」即令諸將，速爲渡海。會諸將約束曰：「朝鮮每此欺我，吾不忍忿。朝鮮所恃而不聽我言者，全羅、忠清二道尙完故也。汝等八月初一日，直入全羅等地，刈穀爲糧，擊破山城，有可保之勢，留屯二道，仍擊濟州。不可則還兵，自固城至西生浦，相連屯結，以待朝鮮之乞和。行長則屯據固城，義智巨濟，竹島倭昌原、竹島、釜山，他將倭機張，安骨倭加德，加德倭、清正西生浦，八處分屯，其餘還入其國，朝鮮終不乞和，或不餘日程，或五六日程，侵掠無常，期於取和。有山城處，雖盡死，不得不攻破，汝等戮力爲之。如不從我言，當盡殺汝等之妻子云云。」調信力陳不可曰：「朝鮮今則兵之利鈍，不如前日，且有舟師，勢甚不便。」關白張目叱之曰：「汝無謀至此，大事何成？蹙踏慶尙、全羅、忠清等道，則舟師勢將自盡，何可懼也？朝鮮之士馬稍強，亦不足道也。」調信又曰：「天兵大至，已到全羅道，此亦勢難。」關白曰：「癸巳年，天朝大兵，雖在近處，晉州尙可攻陷。天兵雖至，豈不得進戰？汝之此言，不過護朝鮮而發也。都在諸將，臨時觀爲之。戰鬥之事，實難遙度。可爲則深入，不可則否。」調信更無所圖之辭，默然而退。六月晦時、七月之初，大兵一時渡海矣云云。平行長與我曰：「關白之意，非戰鬥，欲奪朝鮮之地方也，朝鮮不肯相和，故欲示兵威而取和也。今此之舉，只犯全羅而還兵。沿海動兵之際，清正之類，由慶州或密陽或大丘作路，向全羅，我則由宜寧、晉州之路。所過山城，老弱移送上道，抄出丁壯，入守應戰，自慶尙右道，至全羅道清野，芟刈新穀以待之，則我等雖去，野無所掠，軍無見糧，全羅一境，雖未盡焚蕩，卽爲回兵。日本之人，勢將狼狽。此由告諸關白，則關白必以爲，不售其計，亦不無依前通好之言。此意告諸兵使道，預爲清野如何？我之所言，必以爲詐，而我則以誠言之。前日晉州事，亦爲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預通, 不信我言, 終至敗陷, 有何益哉? 今此之事, 無異晋州之時, 餘存之民, 何忍驅殺賊手乎? 山城亦不可爲也. 倭人常言, 朝鮮山城, 美女、寶物多入, 流涎已久. 若得攻破, 得利甚多, 則更生貪欲之心, 攻之愈力, 攻破山城而無所得利, 則不必力攻矣. 關白之令一出, 則雖盡死, 必爲攻破而後已. 一城見敗, 則非但朝鮮之人, 禰魄奔潰, 實使日本之人, 乘勝逐利也. 如此而見利, 則仍留全羅, 必有蠶食之計矣. 此時朝鮮, 雖請和好, 關白益生驕心, 必發難成之說, 欲充無厭之欲. 莫如待關白之自請, 然後應之可也. 軍糧、軍器、牛馬、老弱, 盡須移海島, 或藏深僻之處, 閭閻無一升之穀 [穀], 抄擇丁壯, 雖未能當戰, 倭兵所住處現形, 或相戰, 或夜擊, 如此拒之, 日本亦不無忌憚矣. 今之日本諸將所可患者, 糧資之窘乏, 若無因糧之路, 則不過十餘日而還退矣. 慶尙邊地, 務爲農作, 禾穀甚盛, 芟刈可也. 若不如是, 則乃爲盜賊給糧資也. 我之所言, 勿以虛僞視之. 近日新兵出來, 則我當移陣于馬山浦. 我與竹島倭, 將同心, 七月之前, 雖卒倭, 使不得竊發, 而安骨、加德之倭則與清正同心, 我等不得禁斷. 戰鬪已定, 近間安骨之倭, 必乘夜竊發於咸安、晋州、鎭海、固城之境也, 此處人民, 預先移置. 雖作農事, 終不得食. 畋獵及竊發之倭, 伏兵勦捕無妨. 左道亦不無其弊, 遮絕要害之處, 亦爲勦捕無妨. 我則雖發兵之日, 悉通無隱, 如此之意, 朝鮮量處爲之. 此言若流入賊中, 轉聞關白, 則我之滅族必矣, 望須秘密. 朝鮮不知此機而應之, 使日本之人見利, 則兵禍雖十年之久, 解去無期. 如此之言, 我亦痛心而發也」云云.’ 要時羅自意言曰 …”

이하생략~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가 치계하기를,

“이달 6일에 요시라(要時羅)가 의령(宜寧)으로 나와 신을 만나자고 하기에, 신이 7일에 산성(山城)에서 내려가 그가 온 까닭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평조신(平調臣)이 2일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그가 기별(奇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조신이 일본에 돌아갔더니, 관백(關白)이 이르기를 「조선이 왕자를 보내는가?」 하였다. 조신이 답하기를 「왕자는 결코 오게 할 수 없다.」 하니, 관백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무슨 일을 가지고 강화(講和)하는가?」 하였다. 조신이 말하기를 「대신(大臣)과 세폐(歲幣)를 보내 통호(通好)해 오면 성사시킬 수 있다.」 하니, 관백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여겼다가 후일에 다시 묻기를 「조선에서 네가 와서 한 말을 이미 허락하였는가?」 하였다. 조신이 조선에서 기꺼이 따를 것인지의 여부를 몰라 혹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대답하니, 관백이 즉시 크게 노하면서 「이처럼 부실(不實)한 일을 가지고서 진영을 버리고 나에게 와서 묻느냐? 너의 죄는 참(斬)해야 마땅하다.」 하고는 즉시 제장으로 하여금 속히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였다.’

‘제장을 모아놓고 관백이 약속하기를 「조선이 매번 이처럼 나를 속이고 있으니 내가 분함을 참지 못하겠다. 조선이 그래도 믿고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전라·충청 두 도가 아직 온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8월 1일에 곧바로 전라도 등지로 들어가 곡식을 베어 군량을 삼고 산성을 격파할 것이며 보장할 만한 형세가 있거든 두 도에 유둔하면서 이어 제주도를 치라. 만약 불가하거든 군사를 돌려 고성(固城)에서 서생포(西生浦)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이

어 둔을 치고서 조선에서 강화를 애걸할 때까지 대기하라. 행장(行長)은 고성, 의지(義智)는 거제, 죽도(竹島)의 왜는 창원(昌原)과 죽도와 부산(釜山), 다른 왜장은 기장(機張), 안골포(安骨浦)의 왜는 가덕도(加德島), 가덕도의 왜와 청정(淸正)은 서생포, 이런 식으로 8개 지역에 나누어 둔거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조선이 끝내 강화를 애걸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이나 5~6일 거리 되는 지역을 수시로 침략하여 기필코 강화하도록 하라. 산성이 있는 곳이면 비록 다 죽더라도 공격해 깨뜨려야 하니, 너희는 죽을 힘을 다하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처자(妻子)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다.’

‘조신이 그 불가함을 극력 진술하여 말하기를 「조선이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정예 군사가 되었고 또 수군이 있어 매우 불편한 형세이다.」 하니, 관백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기를 「네가 이토록 계책이 없으니, 대사를 어찌 이루겠느냐. 전라도·경상도·충청도 등을 짓밟으면 수군의 형세도 저절로 무너질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조선의 군마(軍馬)가 조금 강해졌다 해도 말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조신이 또 말하기를, 「중국 군사가 대거 들어와 이미 전라도에 도착했으니, 이 역시 어려운 형세이다.」 하니, 관백이 이르기를, 「계사년에도 중국의 대군이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진주(晉州)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중국 군사가 나왔다 해도 어찌 나가 싸우지 못하겠는가? 너의 이런 말은 조선을 옹호하여 하는 말에 불과하다. 모든 일은 장수들이 임시(臨時)하여 하기에 달렸다. 전투하는 일은 실로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 깊이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그만두어라.」 하였다. 조신이 더 이상 도모할 말이 없어 잠자코 물러나왔는데, 6월 그믐께나 7월 초에 대병(大兵)이 한꺼번에 바다를 건널 것이라고 하였다.’

‘평행장(平行長)이 나 요시라에게 말하기를 「관백의 뜻은 전투를 하지 않고도 조선 지방을 빼앗으려는 것인데, 조선이 기꺼이 강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의 위력을 보여 강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번의 이 거사에서는 바로 전라도를 범하고 연해로 군사를 돌릴 것이다. 군사를 출동하는 즈음에 청정(淸正)의 무리는 경주(慶州)나 혹은 밀양(密陽)·대구(大丘)를 경유하는 길을 택해 전라도로 향할 것이고, 나는 의령(宜寧)·진주(晉州)의 길을 경유할 것이다. 통과하는 곳의 산성(山城)에 노약자는 상도(上道)로 이송하고 장정을 뽑아 들어가 지키며 응전하게 하는 한편, 경사우도에서부터 전라도까지 청야(淸野)하고 새 곡식을 베어 버리고 기다리면, 우리들이 가더라도 들에는 약탈할 곡식이 없고 갖고 있는 양식도 없게 될 것이니, 전라도 한 경내를 모두 분탕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형세상 곧 낭패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된 연유를 관백에게 고하게 되면 관백은 반드시 그 계책을 이루지 못할 줄을 알고 예전대로 통호(通好)하라는 말이 없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병사(兵使)에게 고하여 미리 청야(淸野)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한 말을 반드시 거짓이라고 여길 것이나 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전일 진주의 일도 미리 알렸었는데 내 말을 믿지 않다가 마침내 패하여 함락 당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었는가? 이번 이 일은 진주의 일과 다름이 없는데, 살아남은 백성들을 어찌 차마 적의 수중에 다 죽이겠는가? 산성 또한 어찌할 수 없다. 왜인들이 항상 조선의 산성에는 미녀와 보물이 많이 있다면서 침을 흘린지 오래이다. 만약 성을 공격해 깨뜨려서 얻는 이득이 많으면 다시 탐욕스런 마음이 생겨 더욱 힘껏 공격하겠지만 산성을 함락시켜도 얻는 이득이 없다면 그렇게 힘들여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백의 말이 한 번 떨어지면 이상 다 죽더라도 반드시 공파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성 하나가 함락되고 보면 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선 사람들의 혼백이 분쇄(奔潰)될 뿐만 아니라 실로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여 이(利)를 쫓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이득을 보고 나면 그대로 전라도에 머물면서 반드시 잠식(蠶食)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때에는 조선에서 강화를 청하더라도 관백에게 더욱 교만한 마음이 생겨 반드시 이루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끝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할 것이니, 관백이 자청(自請)했을 때 응하는 것만 못하다. 군량(軍糧)·군기(軍器)·우마(牛馬)·노약자는 모두 해도(海島)로 옮기거나 깊숙이 감추고, 여염에는 한 되의 곡식도 없게 하라. 가려 뽑은 장정들을 전투시킬 순 없다 하더라도 왜병이 머물고 있는 곳에 모습을 드러내어 싸우기도 하고 야습하기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대항하면 일본 역시 꺼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본 제장(諸將)들이 걱정하는 것은 군량이 군핍(窘乏)한 것인데, 만약 양식을 댈 길이 없으면 10여 일이 못되어 도로 물러갈 것이다. 경상도 변방은 힘껏 농사를 지어 벼가 매우 잘 되었는데, 베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도적에게 양식을 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여기지 말라. 근일에 신병(新兵)이 나오면 나는 마산포(馬山浦)로 진을 옮길 것이다. 나와 죽도(竹島)의 왜는 마음을 같이 하여 7월 이전에는 비록 병졸 하나라도 도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안골포와 가덕도의 왜는 청정과 한 무리이니 우리들이 금단할 수 없다. 전투하기로 정해진 이상 가까운 시일 내에 안골포의 왜적들이 밤을 틈타 함안(咸安)·진주(晉州)·진해(鎭海)·고성(固城)의 지경에서 도발할 것이 분명하니, 그곳의 백성들을 미리 옮겨야 한다. 농사를 지어 놓았어도 끝내 먹지 못할 것이다. 사냥하거나 도발해 오는 왜는 북병으로 잡아 죽여도 관계없다. 좌도(左道) 역시 그런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인데 요해처(要害處)를 차단하고 역시 잡아 죽이는 것이 무방하다. 나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날이라도 숨김없이 모두 통지할 것인데 이런 뜻을 조선에서는 헤아려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만약 적의 진영에 들어가 관백에게 알려지면 우리 집은 반드시 멸족(滅族)되고 말 것이니, 반드시 비밀을 지키라. 조선에서 이런 기밀을 알고도 응하지 않아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면 병화(兵禍)가 10년을 끌어도 끝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상이 요시라가 신에게 전해준 내용이었습시다. ...”

이하생략~

▶ 91권 30년 8월 6일 甲子

陪臣禮曹參判權恢回自京師。欽蒙聖上軫念，小邦與賊對壘，兵器欠缺，特賜太僕銀兩，許買焰硝、硫黃、弓面、牛筋等各樣材料，以資戰用。臣與一國臣民不勝感激，謹奉表稱謝者。伏以，威傳九夏，方恢攘夷之功；寵錫百朋，獲紆除戎之具。銜恩獨厚，拜賜還慙。伏念臣墜三韓之舊基，綿一莒之殘業。瘡痍未起，憫秦寇之又來；疆圉卒荒，悲魯削之滋甚。念茲軍械之欠缺，其奈國計之空虛？疾痛必呼，惟恃父母之過愛；緩急是諒，輒荷乾坤之曲全。爰發太僕之兼珍，俾資小邦之利用。准關石以易賣，悉防侵欺；雇呼金以轉輸，并免稽滯。征繕可底於克詰，備禦足藉乎良材。強弩射疏，喜神武之遐暢；烈砲震遠，佇妖氛之廓清。師旅懽勝，壁壘增固。茲蓋伏遇皇帝陛下，廣運德大，博施仁隆。軫衰微之

莫支，屢加拯濟；憤匈逆之益肆，荐行殄殲。遂令敝藩，偏被洪造。臣敢不臥薪思憤，結草圖酬，殺賊告成，小弛東顧之慮？瞻天薦壽，倍殫北拱之誠。

배신 예조참판 권협(權俠)이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중국에 올린 표문(表文)은 다음과 같다.

“성상께서 우리나라가 왜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진념(軫念)하시어 특별히 태복(太僕)의 은냥(銀兩)을 하사하고 염초(焰硝)·유황(硫黃)·궁면(弓面)·우근(牛筋) 등 각종 재료를 구매하여 전용(戰用)에 보태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신은 일국의 신민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마음을 건딜 수 없어 삼가 표문(表文)을 올려 사례를 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위엄이 구하(九夏)에 전하시니 적을 물리치는 공을 넓혔고, 백봉(百朋)을 특별히 하사하시니 용적을 물리칠 무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은택을 후하게 내려주시니 하사를 받아도 도리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당직(當職)은 삼한(三韓)의 옛 강토를 잃고 겨우 작은 고을을 지키면서 명맥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상처입은 군병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나운 왜적이 다시 쳐들어올까 근심이 되고, 강토가 줄지에 황폐해졌으니 더욱 더 국토를 침탈당할까 서글퍼집니다. 군사와 무기가 부족함을 알고는 있으나 국가의 재정이 텅 비어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부모를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것은 부모가 너무도 사랑해 주는 것을 믿기 때문이요, 급할 때 믿을 곳은 꼭진히 보살펴주시는 천지(天地)와 같은 은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태복(太僕)의 보물을 내어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밑천을 마련해 주시면서, 도량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환매함으로써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하시고, 호금(呼金)을 고용하여 전수(轉輸)케 함으로써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선(征繕)은 충분히 적을 토벌할 수 있겠고 비어(備禦)하는 데에 좋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한 쇠뇌를 멀리까지 쏠 수 있으니 신무(神武)가 널리 퍼져 기쁘고, 맹렬한 포성이 멀리까지 울리니 요기(妖氣)가 깨끗하게 제거됨을 즉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사들은 기뻐서 환호하고 성벽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는 대체로 황제 폐하께서 큰 덕을 널리 펴시고 융성한 인(仁)을 베푸셔서, 지탱할 수 없이 쇠약한 나라를 집념하시어 누차 구제하시고 더욱 방자해지는 흉적을 미워하여 지체 없이 섬멸하심으로써 피폐된 우리나라로 하여금 넓은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감히 와신 상담하고 결초보은하여 흉적을 섬멸하는 일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폐하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만수 무강을 기도하며 북향(北向)하는 정성을 바칩니다.”

▶ 92권 30년 9월 20일 丁未

欽差副都御史邢，爲遵奉明旨，仍仰小邦經理便否事：

準兵部咨，該本部題，職方清吏司案呈，奉本部，送兵科，抄出朝鮮國王李興前事。

~중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大抵賊兵，今方分據慶尙左右道，而釜山、西生浦，爲其巢穴，對馬、釜山之間，海洋數百里，爲其糧道。若於慶尙要(去)〔害〕處，擇形設險，屯重兵、積糧餉，以爲不可拔之勢，時以輕兵，相機攻勦，從陸地以蹙其勢，而又以利艦銳卒，出沒海上，邀絕其後，使賊進無所掠，退有所懼，首尾不得相救，則庶幾有濟，特患小邦，兵力單弱，糧資又竭，自保不暇，不能以圖敵耳。至於屯田足食之策，小邦亦嘗經營，只緣民生子遺，而賊兵未退，調度方急，丁壯出戍於邊，老弱轉餉於內，加以牛隻缺少，農資又乏，不能大設生穀，今蒙自天朝經理，固爲萬幸。若其屯田處所，則小邦土地磽确，林藪山澤，居十之六七，無平原沃野，可收大利。就其中而言之，則慶尙下道，最爲肥饒，地宜五穀，全羅道南原等處，與慶尙道等。平安道肅川、安州之間，黃海道沿海地方，(亟)〔竝〕有可耕田土，決渠灌溉，亦頗宜稔，論其土品，終不如南方耳。今天兵已出，憂在兵食。脫或相持曠日，事不時定，則糧餉一事，最難爲計。臣日夜思惟，不知所出。若山東海糧，得登時接濟，以補今日之急，則相險易之勢，定屯守之所，開原隰之利，廣樹畜之源，以立長遠之規。又是今年以後事，此在統兵諸官經紀如何，而臣亦安敢不倡率臣民，竭力奔走，稟承籌畫，以相先後於其間哉？

흠차부도어사(欽差副都御史) 형(邢)이 보낸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다.

“명지(明旨)를 받들어 우리나라를 경리(經理)하는 편부(便否)에 관한 일입니다. 병부(兵部)의 자문을 받아 보건대, 이것은 해 본부(該本部)가 제본(題本)한 것으로 직방 청리사(職方淸吏司)의 안정(案呈)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안정 속에는 본부의 요청으로 병과(兵科)가 초출(抄出)하여 본부를 경유, 직방 청리사에 보낸 내용이 들어 있었던 바, 그 내용은 조선 국왕 이(李)가 전의 일에 대해 아뢰는 것을 초출한 것이었습니다.

~중략~

대체로 적병이 지금 경상 좌우도(左右道)에 나뉘어 웅거하여 부산(釜山)과 서생포(西生浦)는 그들의 소굴이 되었고, 대마도(對馬島)와 부산 사이의 수백리 바다는 그들의 군량을 운송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경상도의 요충 지역에 지형을 가려 요새를 설치하고 대병(大兵)을 주둔시키면서 군량을 축적하여 함락시킬 수 없는 형세를 만들어 놓은 다음, 때때로 날랜 병력으로 기회를 보아 공격함으로써 육지에서 그들의 기세를 움츠러들게 하고, 또 빠른 전함과 정예병을 해상(海上)에 출몰시킴으로써 그들의 뒷면을 차단하여, 왜적으로 하여금 나아가자니 노략질할 것이 없고 물러나자니 두려워하게 하여 앞뒤가 서로 구원할 수 없게 한다면, 거의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소방의 병력이 약하고 군량도 다하여 스스로 보전할 겨를도 없으므로 적을 도모할 수 없는 점입니다.

둔전(屯田)을 하여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계획은 소방에서도 경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외롭게 살아 남은 처지에서 적병이 물러가지 않아 조도(調度)하는 일이 한창 급했던 까닭에 장정들은 변방으로 방어하러 나가고 노약자들은 내지에서 군량을 운송해야 하며 게다가 소는 부족하고 농사 밭천도 떨어졌으므로 둔전을 크게 설치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조(天朝)에서 경리해 주시니 참으로 천만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둔전 할 만한 곳을 찾아보건대, 소방은 초지가 척박하고 숲과 산택(山澤)이 6~7할을 차지하여, 큰 이익을 거둬들일 만한 기름진 평원이 없습니다. 그 중 할 만한 곳을 말해

본다면, 경상(慶尙) 하도(下道)가 제일 비옥하여 오곡(五穀)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토질이고 전라도의 남원(南原) 등처가 경상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안도의 숙천(肅川)·안주(安州) 사이와 황해도의 연해(沿海) 지방에도 급한 대로 경작할 만한 전토(田土)가 있으니 도랑을 파 물을 대면 또한 벼농사에 제법 적합할 것이나 그 토지의 품질을 논하자면 남쪽 지방만은 결코 못합니다.

지금 천병(天兵)이 이미 나왔는데 군량이 걱정입니다. 만약 왜적과 서로 버티면서 시일을 오래 끌어 제때에 일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군량에 대한 한 가지 일이 가장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신은 밤낮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산둥성(山東省) 바닷가의 군량을 즉시 운송해 와 오늘날의 급박함을 구해준다면 금년 이후로는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을 살펴 주둔하여 지킬 곳을 결정하고 이용할 만한 평원(平原)과 습지(濕地)를 개척하여 곡식을 심어 가꿀 바탕을 넓힘으로서 장원(長遠)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는 통병제관(統兵諸官)들이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신도 어찌 감히 신민(臣民)들을 통솔하여 분주하게 힘을 다하면서 계획을 받들어 그 사이에서 주선하지 않겠습니까. ...”

이하생략~

▶ 93권 30년 10월 11일 戊辰

上幸陳同知【名登，河間人也，主管糧餉。】下處，行接見禮。上曰：“天朝再發兵糧以救，皇恩罔極。大人以小邦事，遠路勤勞，而地殘力竭，事不如情，惶恐。”同知曰：“如是言諭，多拜上。兵馬雖爲勦賊而來，必多擾害之事，未安之至。一路別無怠慢之事，來時於路上，欲呈一封書而不敢耳。”上曰：“兵馬豈有擾害哉？所當卽拜，而適患寒疾，又遭私服，今始來拜，惶恐。”同知曰：“入城之日，委遣陪臣於郊外而迎慰之，昨又遣大臣設酌，多謝。遭服未會，禮也，何傷？”上下座行茶，仍請酒，又下座行酒，同知曰：“請行此爵後，就座，勿更勞。”且曰：“問於都爺，則李舜臣多獲倭級云，甚好甚好。”上曰：“渠憑藉皇威遠暢，稍有所獲，而閑山新破之餘，船隻、機械、士卒、糧餉，尙未完聚。粗得成形，此莫非皇恩，不勝感激之至。”同知曰：“此專由賢王洪福，邊將用力之致，多賀多賀。斬一將，可適獲千人，尤喜。”上還就座，請以陪臣行酒，同知曰：“依命。”同知曰：“賢王屢以此勞動，頗極未安。如可得以止，則請免。”譯官李海龍備言其禮貌曲折，故有是言。李鐵啓曰：“小臣曾爲此人接伴官，禮貌間頗爲疎闊未閑矣。”上曰：“然則請於座上行酒。”同知從之。上曰：“酒雖甚薄，微誠在此，況天氣涼冷，敢請盡。”同知曰：“賢王氣不平，又遭重服，俺亦量小，酒已足矣。”上曰：“天朝以小邦之事，至於發倉輸運，皇恩罔極。小邦固當竭力措置，而小邦糧餉，曾亦不敷，今又兩湖，酷被兵火，滿目灰燼，公私赤立。雖已分遣陪臣，多般措辦，恐不足以供大軍，以此悶慮。”上問李鐵曰：“此大人性度何如？”對曰：“禮貌則不能閑習，而性度則甚爲慈祥矣。”同知曰：“今見經理，則以糧草一事，極爲憂慮。公州、羅州、公山城，已爲失之，是亦可悶也。天朝非無穀未運，重不能輸，故銀二十萬兩及青布、花絨等物，多數出來。已將銀子一千餘兩、青布一千餘疋，交付平安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監司，一同押領官，試令貿穀，而王京以南，極難措辦。須以布貨、銀子，多般貿得，隨市直，賤價而貿之，則豈可難爲？通州稅入軍糧，一歲三百萬餘石，此亦沒數輸來，而中朝船隻不多，未能趁期搬移，故於遼東地方，買驢二千、牛馬一萬，時方運過，而已到義州者，亦多矣。經理已爲當以平安之粟，運到黃海，黃海之粟，運到京城，而又將京城所儲，輸用於忠清，則庶乎其可也，而貴國人力已竭，玆用悶慮。聞貴國軍兵，可至三萬云。今則寇賊少却，防戍似閑，可使散歸，或收軍糧，或運米豆，豈曰小補之哉？大事在頭，每爲空談，何益於事？必須着實舉行，然後事可得成。更須十分極力措置。若過冬春來，日暖冰解，則雖有粟幾萬，計沒奈何？”上曰：“天朝爲小邦，如是竭力拯救，小邦君臣感激皇恩，罔知所喻。況此小邦宗社存亡、人民生死之所係，敢不盡心力而爲之乎？但小邦專靠兩湖，而今皆蕩殘，人民散亡，物力已竭，事勢至此，恐未易辦得。然當竭其心力，十分措備，布貨、花絨等物貿遷事，當問于該管有司，處之。”

이하생략~

상이 진 동지(陳同知)의 【이름은 진등(陳登)이고 하간(河間) 사람으로 군량을 주관하였다.】 하처에 나아가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재차 군사와 양식을 조발하여 구원해 주니 황제의 은혜가 망극하외다. 대인이 소방의 일로 먼 길에 수고하시는데, 지방이 쇠잔하고 힘도 탕진되어 일이 마음과 같이 되지 않으니 황공하외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병마(兵馬)가 비록 왜적을 무찌르기 위해 나왔으나 반드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매우 미안합니다. 오는 도중에 접대에는 별로 태만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 때에 노상(路上)에서 한 통의 서신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감히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병마가 어찌 피해를 끼치겠습니까. 즉시 찾아 왔어야 마땅한데 마침 감기가 들었고 또 상사(喪事)가 있어서 이제야 와서 보니 황공하외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성에 들어오는 날 배신을 일부러 보내 교외에서 맞아 위로해 주셨고 어제는 또 대신을 보내 술자리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상사를 당하면 남을 만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니 무슨 손상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차를 돌린 다음 술을 청하고, 또 자리에서 내려와 술을 권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 술을 마신 뒤에는 자리에 오르시고 다시 수고하지 마십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도야(都爺)에게 들으니 이순신이 왜적을 많이 포획했다 하니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황제의 위령에 힘입어 조금 포획하기는 하였으나, 한산도에서 패한 후로 선척과 기계 및 사졸과 양식을 모으지 못했었는데, 대강 모양을 이루게 된 것은 황제의 은혜가 아님

이 없으니, 매우 감사함을 금할 수 없소이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는 오로지 현왕(賢王)의 큰 복록과 변장들이 힘쓴 데에서 연유한 것이니, 축하를 드립니다. 한 명의 장수를 벤 것은 천 명을 포획한 것과 같으니 더욱 기쁩니다.”

하였다. 상이 도로 자리에 올라가 배신으로 하여금 술을 권하게 하기를 청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현왕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수고롭게 움직이시니 매우 미안합니다. 그만 할 수 있으면 그만 하고 싶습니다.”

하였는데, 통역관 이해룡(李海龍)이 예모(禮貌)에 대한 곡절을 자세하게 말했으므로 이러한 말이 있었다. 이철(李鐵)이 아뢰기를,

“소신이 일찍이 이 사람의 접반관이 되었는데 예모에 대하여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좌상에서 술을 권하겠소이다.”

하니, 동지가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술은 비록 좋지 못하지만 정성을 표하는 것이며 더구나 날씨도 차가우니 다 마시기를 바라오.”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현왕께서 기운이 불편하신데다 또 중한 복제(服制)도 있으시며 저도 주량이 적어 이미 만족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조가 소방의 일로 인해 창고를 풀어서 곡식을 수송까지 해주었으니 황제의 은혜가 망극하외다. 소방이 힘을 다해 식량을 주선했어야 하는데 소방의 식량이 본래 넉넉하지 않은데다 이제 또 호서·호남이 혹독하게 병화를 입어 눈에 보이는 것은 잿더미뿐이니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미 배신을 나누어 보내 여러 방법으로 조처했으나 대군의 식량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이 때문에 걱정이외다.”

하였다. 상이 이철에게 묻기를,

“이 대인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니, 아뢰기를,

“예모는 익숙하지 못하지만 성격은 매우 자상합니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경리를 만나 보았는데, 양초에 대한 일이 극히 우려되며 공주(公州)와 나주(羅州) 산성을 이미 잃었다 하니 이 또한 걱정입니다. 천조에서는 곡식이 없어 운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서 운송하지 못하므로 은 20만 냥과 청포(靑布)·화융(花絨) 등의 물건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미 은자 1천여 냥과 청포 1천여 필을 평안감사에게 교부해서 모두 압령관(押領官)을 시켜 곡식을 무역하게 했으나, 서울 이남은 매우 조치하기가 어려우니 포화(布貨)나 은자(銀子)를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무역하되 저자의 값에 따라 낮은 값으로 무역하면 어찌 어렵겠습니까. 통주(通州)의 세입(稅入)군량이 1년에 3백만여 석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가져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읍니다. 그러나 중국의 배가 많지 않아 시기에 맞추어 운반하지 못하므로 요동 지방에서 노새 2천 마리와 우마(牛馬) 1천 마리를 사서 지금 운반하고 있는데, 이미 의주(義州)에 당도한 것도 많습니다. 경리는 ‘평안도의 곡식은 황해도로 옮기고 황해도의 곡식은 서울로 옮기며 또 서울에 저장한 것은 충청도로 옮겨서 사용하면 거의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지만, 귀국은 인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이 때문에 걱정됩니다. 귀국에 군사가 3만 명에 이른다 하는데 지금은 왜적도 조금 물러서고 방수(防戍)도 한가로우니 해산하여 돌려보내서 혹은 군량을 거두게 하고 혹은 쌀과 콩을 운반하게 하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큰일이 앞에 있는데 항상 공담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착실하게 거행한 다음에야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모름지기 십분 노력해서 조치하십시오. 만약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되어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도 풀리면 비록 곡식이 몇 만 섬이 있다 해도 어찌 할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조가 소방을 위해 이와 같이 힘을 다해 구원하니 소방의 군신은 황제의 은혜에 감격해서 무어라 말할 수 없소이다. 더구나 이는 소방의 종사의 존망과 백성의 생사가 매여 있으니 감히 마음과 힘을 다해 주선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소방은 오로지 호서·호남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 탕잔 되어 백성이 흩어지고 물자도 고갈되어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쉽게 판출하기 어려울까 염려되오이다.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해 십분 주선할 것이며, 포화·화용 등의 물자로 무역하는 일은 담당 유사(有司)에게 물어서 처리하겠소이다.”

하였다.

이하생략~

▶ 93권 30년 10월 14일 辛未

辛未/李鐵以戶曹言啓曰：“下三道避亂之人，江原、咸鏡、平安、黃海等道，散處流離，未免丐乞，還復舊居，似無其期，極爲矜惻。各官倉穀罄竭，賑救之資，雖不得題給，若於明春，官給種子，又給陳荒之田，使之耕墾，而無農牛之人，則或以官家置簿，計日使用，成熟之後，官取三分之一，免其稅入，而自食其二，則渠等有生活之路，國家有得粟之道。其中尤甚貧乏，不能資活者，或令各官，題給鹽醬等物，勿使移來移去，顛仆道路，則生成之恩，渠等必感激。臣等職掌地部，敢此仰稟。”傳曰：“依啓。”

이철(李鐵)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에서 피란하는 사람들이 강원·함경·평안·황해도 등에 흩어져 떠돌며 걸인의 행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약할 수 없을 듯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각 고을의 창곡이 고갈되어 구제할 물자를 나눠 줄 수는 없지만 내년 봄에 관에서 종자(種子)라도 주고 묵은 농지를 주어 개간하게 하며, 농사 지을 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혹 관가에서 문서를 작성해 날짜를 계산하여 사용하게 하고 추수한 뒤에는 관에서 3분의 1을 취득하고 부세는 면제해 주며 3분의 2를 갖게 하면, 저들은 살 길이 있게 되고 국가는 곡식을 얻는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 가난해

살 수가 없는 자에게는 각관으로 하여금 소금이나 간장 등의 물건을 주어 길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없게 한다면 살 수 있게 해준 은혜에 저들도 반드시 감격할 것입니다. 신들은 직책이 지부(地部)를 맡았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웁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93권 30년 10월 22일 己卯

經理接伴使李德馨啓曰：“當日午時有撥報入來，說稱：‘哨探天兵馬得，進入求禮南三十里許，有倭賊數十人，豎白旗坐纛，朝鮮男婦二百餘人在鋪幕，收綿花、禾穀，堆積二百餘間，哨探軍兵，吶喊前進，倭賊向山跑走。招諭朝鮮人，出來者六十餘人，其餘不肯回來。奪得鳥銃等物，而又得免死帖，乃倭賊所爲也。’且我國人乞勿侵於倭賊事及倭賊處通書一張，經理令旗鼓出示之。其倭書，乃行長小將，下帖于其管下，而計關五件，寫說：‘用心戰鬪；招諭人民；收獲田禾；堅守牛馬；擇地下營，勿爲散走被禽等事。’而其下兩將著押，其免死帖，則書行長營下，仰役勿殺云云，而填其名，如腰牌形。我國人通書，則似是谷城、順天隣境居民等所爲，而末端書餘生人等白活，沒有書姓名。李逢陽將經理分付，出說：‘哨探差官，明日發去，爾國詳知光陽等處道路及賊情人，精擇前來。且被擄人，爾國不饒而殺死，故不肯出來，今宜雜以鄉談，作招諭文字，約諸矢射于賊陣，則彼必動念出來。此文，亦趁明日書呈云矣。’傳曰：“知道。依啓。”

경리 접반사 이덕형이 아뢰기를,

“오늘 정오에 급보가 들어왔는데, 그 말에 의하면 ‘중국 병마가 구례 남쪽 30리까지 진입 해가니 왜적 수십 명이 흰 깃발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조선 남녀(男女) 2백여 명을 장막 속에 가두어 두고 면화(綿花)와 화곡(禾穀)을 거두어 2백여 칸이나 쌓아 놓았기에 탐색하던 군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전진하니 왜적이 산으로 달아났다. 조선 사람을 불러내니 나온 자가 60여 명이었고 그 나머지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조총(鳥銃) 등 물건을 뺏고 또 면사첩(免死帖)을 회수했는데 이는 바로 왜인들이 만든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적에게 침략하지 말라고 애절한 것과 왜적들 사이의 통서(通書) 한 장을 경리가 기고(旗鼓)를 시켜 내보였습니다. 그 왜적의 서신은 바로 소서행장(小西行長)과 소장(小將)이 관하에 내린 문서로서 관계된 일은 다섯 가지였으니 ‘마음을 써서 싸울 것, 백성을 불러서 타이를 것, 들에 벼를 거두어들일 것, 소와 말을 굳게 지킬 것, 지역을 골라 병영을 정하고 흩어지거나 사로잡히지 말 것.’ 등의 일인데 그 아래에 두 장수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면사첩에는 ‘행장의 병영에서 부역을 하니 죽이지 말라…….’ 하고, 그들의 이름을 써 넣었는데 모양이 요패(腰牌)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통서는 곡성(谷城)과 순천(順天) 부근의 주민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끝머리에 ‘여생인 등은 아웁니다[餘生人等白活]’라고 쓰고 성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봉양(李逢陽)이 경리의 분부를 가지고 나와서 말하기를 ‘초탐 차관(哨探差官)이 내일 너희 측으로 가서 광양(光陽) 등 지역의 도로와 적정(賊情)을 자세히 아는 사람을 정밀히 선택해서 오게 할 것이다. 또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을 너희 나라가 용서해 주지 않고 죽이므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하니, 이제 언문을 섞어서 타이르는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글을 만들어 화살에 묶어 적진으로 쏘아 보내면 저들도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글도 내일 바로 써서 올리라.’고 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 96권 31년 1월 21일 丁未

掌令宋駿【座目同上.】啓曰: “臣受命下去之後, 往來遂安、成川, 兼察民情, 則自內殿後宮留駐之後, 出站、運糧、積草等徭役, 一切蠲免, 故民甚便之, 而但自成川山郡一帶, 因去年蟲災太甚, 非但民間穀物翔貴, 至於牛馬, 竝爲瘦困, 所見極爲可慮. 臣在成川時, 品官羅孝直等五十餘人呈狀內, 去乙未年, 諸色軍通融作戶時, 色吏不辨存歿, 唯視賂物, 逃亡物故之人, 仍付軍案者尙多, 故隣族侵徵之苦, 倍於他邑云. 且伏聞道內砲、殺手, 多有各司奴子中被抄之人, 既令赴防, 又徵身貢, 以此怨咨甚多云. 竝令本道, 查覈處置, 似爲宜當. 且募粟一事, 在今日最急, 而但募粟衙門甚多, 非但號令多門, 或以無識庸雜之輩, 稱爲募粟官, 搜括民間, 罔遺錙銖, 至於分管一邑, 掌內多有侵擾勒募之弊. 令該司, 商量善處, 恐或宜當.” 答曰: “下該司議處.”

장령 송준(宋駿)이 【좌목(座目)은 위와 같다.】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내려간 뒤로 수안(遂安)과 성천(成川)을 왕래하면서 백성들의 실정을 두루 살펴보니, 내전(內殿)과 후궁(後宮)이 머무르고 난 뒤부터 출참(出站)·운량(運糧)·적초(積草) 등의 요역(徭役)을 모두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천에서부터 산군(山郡) 일대는 지난해 충재(蟲災)가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민간의 곡물이 비싸고 귀할 뿐 아니라 소나 말 같은 짐승들도 모두 수척하여 보기에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신이 성천에 있을 때 품관(品官) 나효직(羅孝直) 등 50여 인의 정장(呈狀)을 보니 ‘지난 을미년에 제색군(諸色軍)을 통틀어 군호(軍戶)를 편성할 때 색리(色吏)가 생사(生死)를 분별하지 않고 오직 뇌물(賂物)만을 받고 처리했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죽은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군적(軍籍)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웃이나 일족들의 징발되는 고통이 다른 고을에 배나 된다.’ 하였습니다. 또 삼가 듣건대 도내(道內)의 포수(砲手)·살수(殺手) 중에는 각사 노자(各司奴子) 중에서 뽑혀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미 부방(赴防)시키고 나서는 또 신공(身貢)을 징수하기 때문에 원망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본도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게 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곡식을 모집하는 일이 오늘날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만 곡식을 모집하는 아문(衙門)이 너무 많아서 호령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일 뿐 아니라, 무식하고 잡스런 무리들이 모속관(募粟官)이라 일컬으면서 민간을 수색하여 조금도 남김없이 가져가는가 하면, 심지어는 한 고을씩 나누어 맡아 그 관할 안에서 백성을 침탈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 하게 함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답하기를, “해사에 내려 의논하여 처리하라.”하였다.

▶ 96권 31년 1월 26일 壬子

戶曹請於諸處牧場，使牧子耕墾，給種子、農牛，官取其半。

호조가, 여러 곳의 목장(牧場)을 목자(牧子)들로 하여금 개간하게 하고 종자(種子)와 농우(農牛)를 나누어 준 뒤 관에서 그 반을 거두게 하자고 청하였다.

▶ 97권 31년 2월 21일 丙子

京畿監司韓浚謙狀啓：

江華地有牛產犢卽死，兩頭七足，二體相連。

경기감사 한준겸(韓浚謙)이 장계하였다. “강화(江華) 땅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즉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둘에 발이 일곱이었으며 두 개의 몸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 97권 31년 2월 23일 戊寅

經理謂李德馨曰：“牛在天爲大牢之星，在地爲耕種緊要之物，不可宰殺。須啓知國王嚴禁之。我亦出告示禁斷矣。”

경리가 이덕형에게 말하였다.

“소는 하늘에서는 태뢰성(太牢星)이 되고 땅에서는 농사짓는 데 긴요한 동물인 만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모조록 국왕께 아뢰어 소 잡는 것을 엄금하도록 하십시오. 나도 금단하도록 고시하겠습니다.”

▶ 97권 31년 2월 30일 乙酉

觀象監官員啓曰：“頃日江華所產兩頭七足犢兒，軍門令我國推占以來，我國無表表能占之人，而只有一二盲人，亦無表表之名。以此占之，殊未爲穩，而軍門日日催之，似不得已以盲人占之矣。”傳曰：“天之賦物，不得其常，是謂之怪。怪者，失其常也；常者，理而已。人事之失其理者，皆是以應之而受其凶，象占昭昭，豈待盲人之占？彼一箇瞽安能知之？設使其占如鬼神，何敢取以告之於天朝大人之前乎？貽笑華人非細。當應之曰：‘小邦僻陋，素無推數、占象之人，只有盲人，掇拾賣卜，以資其口。何敢以此，塵溷於大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人之前乎? 無已則門下必有異人, 幸下問試占如何?’ 云云.”

관상감(觀象監) 관원(官員)이 아뢰기를, “저번 강화(江華)에서 머리가 둘에 다리가 일곱인 송아지를 낳았는데, 군문이 그에 대해 우리나라로 하여금 점(占)을 쳐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드러나게 점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둘 맹인(盲人) 점쟁이가 있을 뿐인데 그들 또한 드러나게 점을 잘 친다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점을 치게 하기는 자못 편치가 못합니다. 그러나 군문이 날마다 재촉하고 있으니 부득이 맹인에게 점을 치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하늘이 물건을 냄에 있어 그 정상(正常)을 얻지 못한 것을 괴(怪)라고 하는데, 괴라는 것은 그 정상을 잃은 것을 말하고 정상이란 것은 이치일 따름이다. 인사(人事)의 그 이치를 잃은 것에는 모두 이것으로써 응하여 그 흉(凶)함을 받은 것으로 그 상(象)과 점(占)이 환히 나타나는 것인데 어찌 맹인(盲人)의 점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저 일개 소경이 어찌 그 이치를 알 수 있겠는가? 설사 그의 점이 귀신같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이것을 취하여 중국의 대인(大人)에게 고할 수가 있겠는가? 중국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소방(小邦)은 편벽되고 고루하여 본디 추수(推數)·점상(占象)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맹인이 있어 주워 맞추어 점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본으로 삼을 뿐이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대인(大人)의 앞에 더럽힐 수 있겠는가? 그만둘 수 없다면, 문하(門下)에 반드시 이인(異人)이 있을 것이니 하문하여 시점(試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응답하였다.”하였다.

▶ 99권 31년 4월 24일 戊寅

政院以麻提督都監堂上言, 啓曰: “李提督身死虛實及致死曲折, 詳問于此人以啓事, 傳教矣. 問于王國綱, 則諱不肯說, 強之則密言: ‘本月初六日間, 遼東薊鎮近處, 獐虜不知幾萬, 來犯遼陽, 過海州衛, 入廣寧之境, 李提督只領兵馬六千禦之, 以衆寡不相當, 爲獐賊所圍逼, 大敗而死, 屍身亦無去處. 副將以下參將、遊擊竝五員, 及千、把總二十四員被殺’云. 問其名則曰: ‘其名則吾不知之’, 其中有姓祖者’云. 大概軍中之事, 不欲漏泄, 故秘之不言其詳矣. 又言: ‘獐賊, 至今圍駐遼陽、廣寧之間, 人不得通行. 頃日督府所送牛羊貿易人沈千摠彥邦還來時, 爲獐賊所陷’云. 祖摠兵承勳, 還陞本職, 使鎮守遼東, 故提督今日出票招來云. 敢啓.” 傳曰: “知道. 此言不足信矣.”

정원이 마제독(麻提督) 도감당상의 말로 아뢰기를,

“이제독(李提督)의 사망 여부와 사망하였다면 그 곡절을 그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 아뢰라는 전교가 계셨기에 왕국강(王國綱)에게 물었더니 숨기고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그쳤더니 비밀히 말하기를, ‘이달 6일경 요동(遼東) 계진(薊鎮) 근처의 달로(獐虜)들이 요양(遼陽)을 침범하여 해주위(海州衛)를 지나 광녕(廣寧) 경계까지 몇만명이나 되는지도 모를 많은 수가 들어왔었는데, 이 제독이 겨우 6천 명의 병마로 막다가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 결국 달로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대패해 죽었는데 시신(屍身)마저도 간 곳이 없었다.

부장(副將) 이하 참장(參將)·유격(遊擊) 등 5명과 천 파총(千把總)을 위시한 24명도 피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중에는 성씨가 조(祖)인 자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군중(軍中)의 일이라서 누설하고 싶지 않은지 숨기고 자세한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또 달로들이 지금까지도 요양·광녕 사이를 포위하여 주둔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못한다고 하였으며, 지난날 독부(督府)에서 보낸 소와 염소를 무역하는 사람인 천총 심언방(沈彦邦)도 돌아오다가 그들에게 함몰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총병 조승훈(祖承勳)은 다시 본직에 승진되어 요동을 진수(鎭守)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독이 오늘 표첩(票帖)을 내어 불러왔다고도 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하였다.

▶ 101권 31년 6월 1일 甲寅

戶曹啓曰: “下三道流離之人, 母論士族、常人, 所到處安接, 題給無主陳田, 或農牛、種子, 使之安接等事, 上年十一月間, 本曹已爲啓下, 知會于諸道觀察使, 而今聞無一處舉行, 極爲駭愕. 司憲府頃日啓辭之意, 亦在於此, 固當及時舉行. 今則時節已晚, 耕作已矣, 唯有秋耕兩麥措置一事. 東西郊及畿甸閑曠之地尙多, 使之自望呈狀, 這這折給, 以爲嗣歲之資, 而兩麥因經理分付, 幾盡作米, 更無餘儲可給. 然尤甚貧乏, 不能自備種子者, 從略題給, 分明無農牛者, 或二三人, 并定給一首. 江原、黃海初面官, 有木麥種子處, 行文題給, 使之自受, 還上置簿, 以爲種子, 而當此等事意, 各別下諭于京畿、江原、黃海、平安道及開城留守處, 訪問流民多少, 存接形止, 而上年啓下公事舉行與否, 竝令啓聞爲當. 敢啓.” 傳曰: “知道.”

호조가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의 떠도는 백성들에 대하여 사족(士族)이나 상인(常人)을 막론하고 그들이 정착해 있는 곳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되, 주인이 없는 진전(陳田)이나 농우(農牛)와 종자(種子)를 제급(題給)하게 하는 등의 일을 지난해 11월 중 본조에서 이미 계하받아 제도(諸道)의 관찰사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듣건대 거행한 데가 한 곳도 없다 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번 사헌부의 계사(啓辭) 내용도 이 점에 있었으니 참으로 제때에 거행했어야 옳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절기가 늦어 경작이 끝났으니 가을같이인 밀과 보리를 조치하는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동서(東西)의 교외와 경기 지방에 경작하고 있지 않은 빈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정장(呈狀)하여 스스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절급(折給)해 주어서 한 해를 넘길 수 있는 밀천으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밀과 보리는 경리의 분부로 거의 작미(作米)하였기 때문에 나누어 줄만한 여분의 비축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핍해서 스스로 종자를 마련할 수 없는 자에게는 부족한 대로 지급해 주고 정말로 농우가 없는 자에게는 두세 사람당 한 마리씩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와 황해도의 초면(初面)인 고을에 메밀[木麥] 종자가 있는 곳은 제급하라고 행문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行文)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받아가게 한 다음, 환자(還子)로 치부(置簿)하게 하여 종자를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뜻을 경기·강원도·황해도·평안도와 개성유수(開城留守)에게 각별히 하유하시어 떠도는 백성들의 다소(多少)와 살아가는 형편을 방문케 하시고, 지난해 계하(啓下)한 공사(公事)를 시행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계문(啓聞)하게 하심이 온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101권 31년 6월 23일 丙子

上御別殿, 引見大臣及備邊司有司堂上. 入侍, 領議政柳成龍、海原府院君尹斗壽、行知中樞府事鄭琢、左議政李元翼、右議政李德馨、戶曹判書韓應寅、兵曹判書李恒福、左承旨許箴、注書權縉、事變假注書崔忠元、史官柳穉·趙中立. 上曰: “楊經理之被參, 未知何故也.” 德馨曰: “其舉(錯) [措] 愾忽, 不可知也. 大概蔚山之役, 南、北兵爭功, 情意乖戾, 乃至於是也.” 上曰: “今日之事, 計將安出?” 成龍曰: “今日之事, 不容但已. 一邊陳奏天朝, 一邊移咨軍門, 反覆辨析, 庶幾朝廷知實狀, 而不爲邪說所惑, 爲今日急務耳.” 上曰: “已爲罷職, 今無及矣. 然被誣之狀, 不可不暴白於天日之下耳.” 成龍曰: “使臣雖星夜疾馳, 終未得如擺撥之速達. 今宜咨請於布政衙門, 得紅旗、撥馬, 急急咨報軍門, 請其陳奏, 亦一策也.” 上曰: “一小人足以壞天下之事. 丁應泰予一見而知其人險詖. 接見之日, 言於予曰: ‘俺入則盡忠, 出則直言.’ 又曰: ‘國王能詩能書云, 此特一藝耳, 將何用哉? 莫如多讀兵書.’ 終言: ‘勿殺牛.’ 以所看一書, 名曰《廣愛錄》, 其書曰: ‘百獸不殺.’ 若然則終至於禽獸逼人, 獸蹄鳥跡之道, 交於中國, 其可乎哉? 予於是乎知其人之詭誕也. 豈知今日至於此也?” 恒福曰: “其書以爲: ‘若殺之, 則必有報應, 殃禍及身’ 云矣.”

이하생략~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해원 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行知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정탁(鄭琢), 좌의정 이원익(李元翼), 우의정 이덕형(李德馨), 호조판서 한응인(韓應寅), 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 좌승지 허성(許箴), 주서(注書) 권진(權縉),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최충원(崔忠元), 사관(史官) 유색(柳穉)·조중립(趙中立)이 입시(入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경리(楊經理)가 참소당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그 거조(舉措)가 분명치 아니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울산(蔚山)의 싸움에서 남병(南兵)과 북병(北兵)이 서로 공(功)을 다투다가 정의(情意)가 어긋났는데, 이로 인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사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의 사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진주(陳奏)하고 한편으로는 군문(軍門)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반복해서 논변(論辯)하면, 중국 조정에서도 아마 실상을 알게 되어 사설(邪說)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파직되었으니 지금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참소당한 데 대한 실상은 천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신(使臣)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파발(擺撥)처럼 속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포정 아문(布政衙門)에 자문(咨文)으로 청하여 홍기(紅旗)와 파발마를 구해서 급히 군문에 자문을 보내고, 그들에게 진주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명의 소인으로도 천하의 일을 망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나는 정응태(丁應泰)란 자를 단 한 번 보고서도 그가 음험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었다. 접견하던 날 나에게 ‘나는 들어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나와서는 직언(直言)을 한다.’고 하고, 또 ‘국왕께서는 시(詩)와 서(書)를 잘 하신다고 하던데, 이것은 하나의 기예일 뿐이니 장차 무엇에 쓰겠는가? 차라리 병서(兵書)를 많이 읽는 것만 못하다.’ 하고, 끝으로 ‘소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가 보는 《광애록(廣愛錄)》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는 ‘모든 짐승을 죽이지 말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끝내는 금수(禽獸)가 인간을 핍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조수(鳥獸)의 발자취가 국중(國中)에 어지러울 것이니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그 사람이 황탄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그 책에는 ‘만일 짐승을 죽이면 반드시 응보(應報)가 있어서 재앙이 자신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였다.

이하생략~

▶ 102권 31년 7월 23일 丙午

丙午/上幸慕華館，迎吳副摠，行再拜，行茶禮、酒禮。副摠曰：“牛一百頭、木枋一百塊、木板一百塊等物，速令措備。此乃攻城之具，也，生牛皮則登城時，蒙被而上，則鐵丸不透，而一卒不傷。”仍出示中丸之痕，曰：“曾與倭屢戰矣，攻城之具，無逾於此。木積於城外，而高其勢，以瞰城內，則勝於雲梯矣。”上曰：“當依教備。”上呈禮單，相揖而出。

상이 모화관에 행행하여 오부총(吳副摠)을 맞이하여 재배(再拜)하고 다례(茶禮)와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제1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소 1백 마리와 목방(木枋)과 목판(木板) 각각 1백 개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성(城)을 공격할 때 쓸 도구인데, 생우피(生牛皮)는 성에 오를 때 뒤집어 쓰고 올라가면 철환(鐵丸)이 뚫지 못하여 한 명의 군사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철환에 맞은 흔적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왜적들과 여러번 싸웠는데 성을 공격하는 도구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무를 성 밖에 높이 쌓아 놓고 그 위에서 성 안을 내려다 보면 운제(雲梯)보다 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씀대로 준비하겠소.”

하였다. 예단을 증정한 뒤 서로 읍하고 나왔다.

▶ 103권 31년 8월 4일 丁巳

司諫院連啓李光庭、趙倬改正事，又啓曰：“東宮輔導之任，不輕而重，雖使久居其職，猶患不能專一。近者春坊僚屬，朝除夕遞，有同閑局，至於實官作窠，亦不填差，每以兼官，僅備上下番而已，其何以講劄專精，責輔導之效哉？況自上屢有勿爲遷動之教，聖意有在，世子亦常以講官多缺爲歉，此好學之誠也。爲臣子者，固當承順之不暇，而銓曹每諉乏人，迄未填闕，極爲無謂。請吏曹堂上、色郎廳，竝命推考，實官盡數填差，勿爲遷動，使之久任。【近日東宮官，多有雜進之譏。名望之不足於兩司、玉堂者，必試可於春坊，識者寒心。今者諫院之啓，唯以填闕爲重，不以擇人爲急，殊失言事之體也。】天朝大小將官，往來絡繹，刷馬之役，罔有紀極。如尊重衙門則已，至於小小將官之行，刷馬之數，初無定限，小不下數百匹。畢竟帶行者，不過數十匹，而其餘則皆受綿布、銀子等物而放之，或至毆打馬主，永奪而去。民間馬匹已盡，繼之以牛，牛已盡，繼之以價。今則民之膏血已盡，價亦奚從而出？設令討賊興復，在於朝夕，本既顛矣，國將焉依？朝廷非不知此，而未嘗畫一策，以爲拯救之計者，意必在係干接待天將，嫌傷體面，馴致至此。然皇上哀憐小邦，拯濟之意，本不如是，雖天將，未必知其弊之至斯也。目今軍門來筭，意在革弊，若將此曲折，呈文直稟，則必見聽納，庶紓此弊矣。今日之事，莫急於此，請令大臣，商議處之。近日通官輩，秩高有知識者外，皆市井無賴，鄉里賤隸，跟隨天將，徒以憑藉作弊爲事。凡教唆天兵，濫責刷馬，奪掠民產，毆辱守令等事，專由於此輩，其爲情狀，不勝痛憤。爲接伴使者，往往任其所爲，莫敢誰何，尤爲無謂。請令各道御史，兼爲查察，一一重究，接伴使不能檢飭者，竝令糾劾。”答曰：“前啓不允。新啓依啓。”

사간원이 잇따라 이광정(李光庭)과 조경에 대해 개정할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는 임무는 가볍지 않고 중한 것이니 그 직책에 오래 있게 하더라도 오히려 전일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춘방(春坊)의 요속(僚屬)들을 아침에 제수하였다가 저녁에 체직하여 한국(閑局)처럼 취급하는가 하면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실관(實官)으로 채우지 않고 항상 겸관(兼官)으로 충당하여 겨우 상·하번(上下番)의 숫자

나 채울 뿐이니,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전일하고 정밀하게 강마하여 보도하는 공효를 이루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위에서 직책을 바꾸지 말라는 분부를 여러번 내리셨으니 성상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고, 세자 또한 항상 강관(講官)이 많이 결원된 것을 꺼려하시니 이는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하된 자로서는 진실로 그 뜻을 받들어 따르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하거늘 전조(銓曹)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지금까지 결원을 채우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조 당상과 색낭청을 아울러 추고하고 모두 실관으로 차임하여 직책을 옮기지 말게 함으로써 오래 재직(在職)하게 하소서. 【근일 동궁의 관원을 아무렇게나 내보낸다는 비방이 많았다. 양사나 옥당에 차임하기에는 명망이 부족한 자를 꼭 춘방(春坊)에서 그 자질 유무를 시험했으므로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지금 간원이 아되면서 결원을 메꾸는 것만 중하게 여기고 인재를 뽑는 것은 급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연관의 체통을 잃었다 하겠다.】

중국 조정의 대소 장관(將官)들이 끊임없이 왕래하므로 쇄마(刷馬)의 역사가 끝이 없습니다. 존귀한 아문의 경우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소소한 장관(將官)의 행차에까지 쇄마의 숫자가 처음부터 한정이 없어서 아무리 적어도 수백 필을 밀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경 데리고 가는 것은 수십 필에 불과한데, 그 나머지는 모두 면포(綿布)나 은자(銀子) 등의 물건을 받고서야 놓아주고, 심지어는 말의 주인을 구타하면서 아주 빼앗아 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간에 말이 동이 나고 나면 소로 대신하고 소가 다되면 값으로 요구하는데, 백성의 고향이 이미 다한 지금의 상황에서 그 값인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설령 왜적을 토벌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눈앞에 와 있다손 치더라도 근본이 이미 무너진 마당에 국가가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뵈히 알면서도 구제할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일이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체면을 손상할까 염려하여 이런 식으로까지 길들여져 온 듯합니다. 그러나 황상(皇上)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구제해 주려는 뜻이 본래부터 이와 같지 않고, 중국 장수들이라 하더라도 그 폐단이 반드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될 줄은 예기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군문에서 보내온 차자(筵子)의 뜻도 폐단을 개혁하려는 데 있으니, 이런 곡절을 가지고 정문(呈文)으로 곧장 품의하면 반드시 받아들여 이 폐단을 없애줄 가망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로 이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대신에게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

요즈음 통역관들을 보면 위계가 높고 지식이 있는 자 외에는 모두 시정의 무뢰배와 시골의 천한 종들로서 중국 장수를 따라다니며 그저 그들의 위세를 빌어 폐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를 교사하여 쇄마를 함부로 요구하며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고 수령을 구타하여 욕보이는 등의 일이 전적으로 이러한 무리들에게서 연유하였으니, 그 정상이 통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접반사가 된 자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는 감히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 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각도의 어사로 하여금 조사하는 일도 겸하여 낱낱이 무겁게 따져 조사하도록 하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접반사도 아울러 규찰하여 탄핵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에 아뢰는 것은 윤택하지 않는다. 새로 아뢰는 것은 아뢰 대로 하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04권 31년 9월 22일 甲辰

藥房【都提調柳成龍、提調洪進·申湜】啓曰：“臣等因醫官，伏聞聖候，與鍼醫等相議，則日氣已爲寒冷，點穴之際，必須袒脫衣襟，恐致風氣之襲，不可爲矣。溫水沐浴，雖下賤之人，亦不敢輕易爲之。津液大泄，耗損元氣，所害極重。如此寒冷之節，尤爲不合，決不可爲矣。胸痛一證，乃是痰飲，聚於胃口，鬱而爲痛。前進加入二陳湯，進御爲當。”答曰：“溫水，祖宗朝爲之，今時豈有不可爲之理乎？醫官等，沐浴鍼灸之事，例爲禁之，渠等之言，不聽可矣。牛角灸，不可不爲，擇日爲之。”

약방(藥房) 【도제조(都提調) 유성룡, 제조(提調) 홍진(洪進)·신식(申湜).】이 아뢰기를,
“신들이 의관(醫官)을 통하여 성상의 기후(氣候)에 대하여 듣고 침의(針醫) 등과 함께 상의하였는데 일기가 벌써 한랭(寒冷)하여 점혈(點穴)하는 데에 반드시 의대(衣襟)를 벗어야 하므로 풍기(風氣)가 엄습할까 두려워 할 수가 없습니다. 온수(溫水)에 목욕하는 것은 천(賤)한 사람이라도 감히 가볍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액(津液)이 크게 빠져서 원기(元氣)가 손상되어 크게 해롭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한랭한 계절에는 더욱 함당하지 않으니 결코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슴앓이[胸痛] 증세는 곧 담(痰)이 위(胃)의 입구에 모여 꼭 막혀서 생긴 통증이니 앞서 올린 가입이진탕(加入二陳湯)을 드시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답하기를, “온수로 목욕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에 해온 것인데 지금와서 어찌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목욕하고 침구(針灸)하는 일을 금하는 것은 의관들이 으레 하는 말이니, 저들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옳겠다. 우각구(牛角灸)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날을 가려 하도록 하라.”하였다.

▶ 104권 31년 9월 22일 甲辰

藥房【座目上同.】再啓曰：“溫水沐浴，祖宗朝雖或爲之，此乃平時所爲，且必待天時和暖，事無妨礙，故偶然爲之，今時斷不可行。此舉動，以疑惑人聽，故非徒醫官難之，臣等亦不敢傳播此教于外矣。牛角灸，欲爲擇日入之，而鍼醫中朴春茂、許任，皆無緣出外，不小擇日，必須廣議，待他鍼醫齊會，議啓爲當。朴春茂、許任爲先推考，令所在官，催促起送何如？”答曰：“予痛百藥無效，諸醫之所共知。今其證，日以益深，死亡無日，人言溫水可治。聞平山有神水，欲乘此未深冬之前，匹馬往還，不過旬日間耳。當與一二內臣，裹糧而行，何敢貽弊於民？古者人君，亦沐浴治病。況祖宗朝有溫陽、醴泉之行，何卿等之強爲拒也？欲於數日內發行。”

仍傳于政院曰：“今下藥房備忘記，傳播閭閻。”

약방 【좌목(座目)은 위와 같다.】이 다시 아뢰기를,
“온수 목욕은 조종조에서 간혹하였으나 이는 평안할 때에 하였을 뿐 아니라 반드시 날씨

가 따뜻한 때를 기다려 아무런 방해됨이 없을 때 우연히한 것이니, 지금은 절대로 이런 거동을 하여 사람들이 의혹스럽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되므로 의관들만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도 이 전교를 감히 외부에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각구는 날을 가려 들여보내려 하나 침의 중에 박춘무(朴春茂)·허임(許任)이 모두 무단히 출타중에 있습니다. 중대한 택일(擇日)이므로 반드시 널리 의논하여야 하니 다른 침의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서 의계(議啓)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박춘무·허임은 우선 추고하고 현재 가 있는 곳의 관원에게 재촉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나의 병은 백약(白藥)이 무효라는 것을 모든 의관들이 다 알고 있다. 이제 그 증세가 갈 수록 더 깊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들이 온천수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평산(平山)에 신표(神效)한 물이 있다 하니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 혼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열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의당 내신(內臣) 한두 명과 함께 양식을 싸가지고 갈 것이니 어떻게 감히 백성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옛날에도 임금이 목욕하여 병을 치료한 일이 있고, 더구나 조종조에는 온양(溫陽)과 예천(醴泉)에 간 일이 있었는데 어찌서 경들은 억지로 막는가? 수일 내에 떠나려 한다.”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약방에 내린 비방기를 민간에 전파하라.”하였다.

▶ 107권 31년 12월 2일 癸丑

陳提督【璘】揭帖曰：

行酋伺舟師鑿戰于露梁，潛踪奔遁，反旆追之，則已漂洋去矣，不能無餘恨也。整兵進擊南海，二十一日四更，薄巢賊，船已空，唯城上猶有火光，良久旋滅。此曉登巢，賊從後山宵遁，而馬糞尙煖，始知去而未久耳。米、梁、菽、粟，搬頓水涯，不能裝載者，委積如山，大約萬數，大小銃砲、火藥、兵械與日用之具，無一不有，牛馬牲畜亦衆。姑俟稍定，當發師徒，入山搜捕，使一喙不留，用光京觀也。李舜臣員缺，亟望簡命，用紓引領。

진 제독(陳提督)이 【진인(陳璘).】 계첩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주 소서행장이, 주사가 노량(露梁) 앞바다에서 격전할 때를 틈타 종적을 감추고 도망치기에 깃발을 돌려 추격하였으나 이미 대양으로 멀리 떠나 잡지 못하였으니 매우 한스럽습니다. 병사를 정돈하고 남해로 진격하여 21일 4경에 적의 소굴에 이르니 적의 배는 텅 비어있고 성 위에만 불빛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곧 꺼졌습니다. 새벽녘에 적의 소굴에 올라가 보니 적들이 밤사이에 뒷산으로 도망쳤는데 말뚝이 아직 파스한 것으로 보아 조금 전에 떠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기장·콩·조 등의 곡식을 물가에 운반해 놓고 신고 가지 못한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대략 몇 만 석쯤 되었고, 크고 작은 총포 및 화약 등의 무기와 일용품까지도 없는 것이 없었으며, 소와 말 등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잠시 안정을 되찾은 뒤에 군사를 풀어 산속에 들여보내 한 명의 적도 남김없이 잡아 전공(戰功)을 크게 빛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李舜臣)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속히 다른 관원을 임명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풀어주소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07권 31년 12월 8일 己未

傳于政院曰：“天兵入去之後，我國雖乞爲防禦，非徒軍卒數少，器械亦乏，以何器械而禦賊乎？軍門在此時，或移咨，或令接伴使周旋，而使軍門，或奏聞，或移咨兵部，而曰朝鮮殘破，無器械，弓角、牛筋、魚鰾、焰硝、硫黃等物，優數請給事，未可圖之耶？此意言于備邊司，議啓。”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군이 돌아간 뒤에는 우리나라가 방어해 달라고 청하더라도 군졸의 수효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무기 또한 부족한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군문(軍門)이 이곳에 있을 때 이자하거나 접반사를 시켜 주선하게 하여, 군문이 황제께 주문하거나 병부에 이자하되 ‘조선이 잔파되어 무기가 없으니 궁각(弓角)·우근(牛筋)·어표(魚鰾)·염초(焰硝)·유황(硫黃) 등의 물품을 넉넉하게 보내 줘야 한다.’고 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내용을 비변사에 말하여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 108권 32년 1월 7일 戊子

戶曹啓曰：“賊退之後，南邊收拾之事，一日爲急，而慶尙道則當此時，監司鄭經世，病臥龍宮縣，曠官已久；新監司柳永慶，亦以病遞，久無道主，凡百渙散，極爲可慮。左右道陷賊地方人民，奔竄于上道各邑者，不知其幾千，而上道則土地瘠薄，殊如下道之膏腴，故皆欲還歸本土，而莽蒼之地，以農牛、農器、穀種難備，爲憂云。目今耕候已迫，若不急急措置，則後悔難及。臣等竊聞，賊兵遁歸之後，本國各陣所得牛馬，無慮千餘匹，而無主管區處之人，故陣將任意花銷云。兵火之餘，一牛最關於耕作，馬則可以換牛，或可分授各邑，以爲刷馬之用。如是處置，則民之受惠非細。往在先王朝，北道勒良入居之人，別遣朝臣，慰撫安集。其時，尹殷輔奉命下去，該用器具，盡心措給，俾有生理。及其竣事還朝之日，入居人等，相率而號泣，如失父母。今亦朝臣中，別擇有幹才慈祥之人，稱以御史，單騎馳下，招集流民，團結於可耕之處，種子、農牛、農器，隨便備給，則似爲便易。今此舉措，係是緊急，今雖晚矣，庶有可及之勢。本曹之意如是，而不敢擅便稟定，令備邊司，議奪施行。全羅道則監司處，此意枚舉下諭何如？”傳曰：“允。”

호조가 아뢰기를, “왜적이 물러간 뒤에 남쪽 지방의 수습에 관한 일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경상도의 경우 감사 정경세(鄭經世)는 병으로 용궁현(龍宮縣)에 누워 있어 직임을 수행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신 감사 유영경(柳永慶)도 병으로 체임(遞任)되어 오랫동안 도주(道主)가 없으므로 모든 일이 헤이해졌으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좌·우도(左右道)가 왜적에게 함몰되었을 적에 상도(上道)의 각읍으로 도망친 백성들이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하도(下道)처럼 기름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본토로 돌아가고 싶어하나 잡초만 무성한 땅인 데다가 농우(農牛)·농기구·곡종(穀種)을 갖추기가 어려워 걱정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 농사철이 눈앞에 박두하였으니 급히 조치하지 않는다면 후회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들으니, 적병이 물러간 뒤에 본국의 각진에서 얻은 우마(牛馬)가 무려 1천여 필이나 되는데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진장(陣將)들이 멋대로 처분한다고 합니다. 병화를 겪은 나머지라 소 한마리가 경작에 크게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말은 소로 바꿀 수도 있고 각읍에 나누어 주어 쇠마(刷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치한다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선왕조(先王朝) 때 북도(北道)에 강제 입주시킨 양인(良人)들에게 특별히 조신(朝臣)을 파견하여 위무하고 안집(安集)시키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은보(尹殷輔)가 명을 받들고 내려가서 필요한 제반 기구(器具)를 마음을 다하여 공급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환조(還朝)할 때에 입주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와 마치고 부모를 여윈 것 같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조신 가운데 재간이 있고 자상한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여 어사(御史)라 칭하고 단기(單騎)로 내려보내 유민(流民)들을 불러모아 경작할 수 있는 곳에 단결(團結)시키고, 종자와 농우·농기구를 형편에 따라 갖추어 지급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조치는 긴급을 요하는 일로서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면 그다지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조의 뜻은 이와 같으나 감히 멋대로 품정할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전라도는 감사에게 이러한 뜻을 낱낱이 들어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다고 전교하였다.

▶ 109권 32년 2월 16일 丙寅

備邊司啓曰: “目今公私赤立, 軍餉蕩竭, 屯田一事, 不可不汲汲措置. 古者設耕取利, 其道不一. 募民以耕, 謂之營田, 部民以耕, 謂之屯田. 漢之屯田以兵, 唐之屯田, 以民. 今欲以兵則鎮將無兵, 以民則民力已竭. 於斯二者, 既不得善處, 則有一策焉. 八道各邑民間出役, 必用八結, 令八結耕食之人, 若干斗所播屯田, 合力耕治, 如井田之制, 八家同養公田者, 則民之用力少, 而公家所收多, 且不費農糧、牛具, 而可獲羨餘矣. 八結之內, 擇其士族中勤幹者, 差授屯長之任, 將率結內之人, 耕之以時, 耘之以時, 而爲守令者, 又能監檢, 查其勤慢, 行其賞罰, 則自不得不用其力. 歲之豐歉, 雖不能預定, 以中年所收言之, 一石屯耕之出, 少不下十五石, 或二十石矣. 八道時起田畝, 未知其幾結, 而大概八萬結, 則可以耕治一萬結之屯田, 十六萬結, (剛) [則] 可以耕治二萬結之屯田, 而其所收可至三十餘萬石矣. 若欲大開一區, 役民以耕, 則各處遠住之民, 招呼耕耨之際, 動經時日, 專廢私農, 此一弊也; 器具不備, 此二弊也; 秋成所收, 不能補其所費, 此三弊也. 八結屯田, 則隨其所居之地, 開墾拋荒之田, 無此二者, 而收穫最多, 此一時救急之長策, 而可以通行於八道. 其中措置事目, 更爲磨鍊, 八道監司處下送, 使之着實舉行何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如?” 傳曰: “弊必隨之, 不可爲也.”

비변사가 아뢰기를,

“현재 공사(公私)의 재정이 바닥나고 군량이 탕진되었으니 둔전(屯田)하는 한 가지 일을 시급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경작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도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을 모집하여 경작하는 것을 영전(營田)이라 하고, 부민(部民)으로 경작하는 것을 둔전이라 하는데, 한(漢)나라의 둔전은 군사로 하고 당(唐)나라의 둔전은 민간으로 하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 군사로 하자니 진장(鎭將)이 거느린 군사가 없고, 민간으로 하자니 민력이 이미 다 되어 이 두 가지 방법에 좋은 수가 없는데, 다른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팔도 각 고을의 민간이 출역(出役)하여 8결(結)을 경작하도록 하되, 8결을 경작해 먹는 사람에게 종자 약간 말[斗]을 파종하는 둔전을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전(井田)의 제도에 여덟 가구가 공동으로 공전(公田)의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게 한다면 민간의 노동력을 적게 써도 공가(公家)의 수익이 많을 것이며, **또 농량(農糧)과 농우·농기구를 마련하기에 낭비하지 않아 그만한 여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8결을 경작하는 가호 중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는 사족(士族)을 뽑아 둔장(屯長)의 직임을 맡겨 결 내의 사람을 통솔하여 때 맞추어 밭갈이하고 김매게 합니다. 그리고 수령으로 있는 자가 또 감찰하여 그 근만(勤慢)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상벌을 시행하면 자연 있는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지는 예정하지 못하더라도 평년작의 수확으로 말하면 종자 한 섬지기의 둔전에서 경작한 소출이 적어도 15섬을 밀돌지 않고 많은 경우 20섬도 됩니다. 팔도에 현재 기경(起耕)한 전답이 몇 결인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8만 결이면 1만 결의 둔전을 경작할 수 있고 16만 결이면 2만 결의 둔전을 경작할 수가 있으며 그 수확은 30여 만 섬에 이를 것입니다. 만약 한 구역을 크게 개설하여 민간을 부려 경작하려고 한다면 각처의 멀리 사는 민간을 불러다가 밭 갈고 김매게 해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날짜가 지나 개인의 농사는 전폐될 것이니, 이것이 첫째 폐단이고, 농기구가 구비되지 않은 것이 둘째 폐단이고, 추수 때 수확한 양이 소비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셋째 폐단입니다. 그러나 8결로 둔전하면 그들이 주거하는 지역에서 버려진 목은 밭을 개간함으로써 그러한 두 가지 폐단은 없고 수확은 가장 많을 것이니, 이는 한때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으로 팔도에 고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조치하는 사목을 다시 마련하여 팔도 감사에게 내려 보내 착실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폐단이 필시 따를 것이므로 시행할 수 없다.”하였다.

▶ 109권 32년 2월 28일 戊寅

巳時, 上幸御史喪次, 以素服詣靈座前, 以牛一、羊一致祭, 行再拜禮, 哭之盡哀, 唐人以衆樂娛尸. 上奠幣而出, 護喪中軍梁材, 斷事惠吳等, 出重門內, 行謝拜. 上曰: “小邦無祿, 大人遽至不淑, 無任慘怛.” 材曰: “老爺銜命萬里, 常欲爲貴國宣力, 不幸中途殞逝. 國王親爲來弔, 又另差重臣, 喪事畢舉, 老爺雖死, 亦且知感矣.”

사시에 상이 어사의 상차에 거둥하여 소복(素服)으로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소 1마리와 염소 1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재배례(再拜禮)를 행한 다음 슬프게 곡하니, 중국 사람이 여러 가지 음악으로 혼령을 달랬다. 상이 폐백을 올리고 나오자 호상(護喪)인 중군(中軍) 양재(梁材)와 단사(斷事) 혜오(惠吳) 등이 중문(重門) 안에 나와서 사배(謝拜)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망이 복이 없어 대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니 슬픔을 금할 수 없소이다.”하니, 양재가 말하기를, “노야(老爺)께서 만리 먼 곳에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오셔서 항상 귀국을 위하여 힘을 다하려고 하시다가 중도에 서거하셨는데, 국왕께서 친히 오셔서 조문하시고 또 별도로 중신을 보내시어 상사를 거행하게 하시니 노야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감사할 줄 아실 것입니다.”하였다.

▶ 110권 32년 3월 3일 壬午

司憲府啓曰: “刷馬一事, 爲今日痼弊. 民生之失業, 專由於此, 極爲寒心. 爲畿伯者, 不爲料理善處, 徒諉之無可奈何, 發遣軍官, 帶率唐兵, 要於京城四面十里之路, 各官運糧馬匹, 東西郊反耕牛隻, 無遺執捉, 至使天兵, 缺糧枵腹之憂已甚, 東作愆期, 西成之望頓絕. 事之切急, 無逾二者, 而致令如此, 無謂甚矣. 請京畿監司推考, 令經理接伴使, 善爲周旋, 差定委官, 運糧之馬, 反耕之牛, 一切勿捉, 以革其弊. 副司勇李國衡, 以接待都監郎廳, 伺候於董郎中, 而本衙門郎廳勤勞之人, 接伴使等第具草, 使呈于政院, 而自憤其不與於抄啓之類, 累日掩置, 乃於郎中出去之日, 呈于郊外幕次. 政院使之還宮後來呈, 則中間沮抑, 終不更呈, 其用心極爲無狀. 請都監郎廳汰去.” 上從之.

사헌부가 아뢰기를,

“쇄마(刷馬)하는 한 가지 일은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으로서 민생의 실업이 오로지 이때문인 것으로 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백(畿伯)으로 있는 자가 재량하여 선처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군관(軍官)을 내보내어 중국 병사를 대동하고 경성(京城)의 사면 10리 길에서 각 고을의 곡물을 운반하는 말과 동서(東西)의 들판에서 밭갈이하는 소를 남김없이 잡아오게 하여 끝내는 중국 군사로 하여금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하였을 뿐더러 봄농사의 시기를 놓쳐 추수할 가망이 없게 하였습니다. 긴급한 일이 이 두 가지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만들었으니 잘못이 큼니다. 경기감사를 추고하소서. 그리고 경리 접반사로 하여금 잘 주선하게 하고, 위관(委官)을 차정(差定)하여 곡물을 운반하는 말과 밭갈이하는 소는 일체 잡아가지 말게 하여 그 폐단을 혁파시키소서.

부사용(副司勇) 이국형(李國衡)은 접대도감의 낭청으로 동 낭중(董郎中)을 사후(伺候)하였는데 본 아문의 낭청으로 수고한 사람을 접반사가 등급을 매겨 초본(草本)을 작성하여 그로 하여금 정원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초계(抄啓) 속에 끼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겨 여러날 동안 덮어두었다가 동 낭중이 떠나는 날 교외의 막차에서 바치기에 정원이 그에게 환궁하신 뒤에 바치게 하였는데, 중간에서 가로막고 결국 다시 바치지 않았습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그 용심(用心)이 극히 무상하니 도감낭청을 파면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112권 32년 閏4월 1일 己卯

持平南暉來啓曰：“商山君朴忠侃貪鄙之狀，國人共知，尙齒宰列，益肆無厭。至以忠勳府所屬田所收，買置家舍，不止一二，且以本府鹽盆所屬牛隻，盡歸私用。其無廉恥貽唾鄙，至此極矣，久據有司堂上，則本府(查)〔些〕少之物，填盡壑欲，蕩竭無餘。一番推考，豈懲其罪？請勿留難，亟命罷職。左、右史之設，其意有在。近日史官，只有一員，已爲可駭，而至於昨日舉動，無一員侍衛，極爲寒心。政院不早處置，以致如此，請都承旨推考，色承旨遞差。邊釁方急，將卒驕惰，民生疾苦極矣。巡按御史之遣，一日爲急，而旋差旋遞，頗有厭避之色，識者寒心。校書館校理呂佑吉，除授已久，不卽拜辭。爲政院者，所當汲汲催促，而遲延至此，極爲無謂。請色承旨推考，呂佑吉催促，一二日內發送。御史爲任，體面極重，自前多有特遣之時。雖自該曹，間或差送，不能彈壓列邑，請今後依平時規，或爲特遣，以重事體。”答曰：“允。商山君不可罷職。承旨竝推考。”

지평 남탁(南暉)이 와서 아뢰기를,

“상산군(商山君) 박충간(朴忠侃)의 탐욕스럽고 비루한 정상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일인데, 아직도 재신(宰臣)의 반열에 끼어 있으면서 더욱 한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심지어는 충훈부에 소속된 전지의 수세(收稅)로 가옥을 사서 둔 것이 한두 채가 아니며 본부 염분(鹽盆) 소속의 소를 모두 사유물처럼 부렸습니다. 그의 몰염치하고 비루함이 이토록 극심하니 유사당상(有司堂上)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본부의 사소한 물건도 그의 욕심대로 하여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인데, 한번 추고했다고 해서 어찌 그의 죄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파직을 명하소서. 좌사(左史)·우사(右史)를 설치한 것은 본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일에 사관(史官)이 1원(員)만 있는 것도 이미 놀랄 일인데 어제 거동에는 1원도 시위하지 않았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정원(政院)이 일찍 조치하지 않아 그런 일을 빚었으니, 도승지는 추고하고 색승지는 체차하소서. 변방의 일이 바야흐로 급박한데 장병들은 교만하고 나태하여 민생의 질고가 극심합니다. 순안어사(巡按御史)의 파견은 하루가 급한데 차임했다가 즉시 체직하여 자못 싫어하여 회피하는 기색이 있으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깁니다. 교서관 교리 여우길(呂佑吉)은 제수한 지 이미 오래인데도 즉시 배사(拜辭)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으로선 급급히 재촉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지연시켰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색승지를 추고하고, 여우길을 재촉하여 하루 이틀 안으로 떠나게 하소서.” 어사의 직임은 체면이 매우 중하여 전부터 특견(特遣)한 때가 많았습니다. 해조(該曹)에서 간혹 차송하였으나 여러 고을을 진압하지 못하였으니, 금후로는 평소의 규례대로 혹 특견하여 사체를 중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상산군은 파직할 수 없다. 승지는 모두 추고하라.”하였다.

▶ 112권 32년 閏4월 2일 庚辰

庚辰/司憲府前啓朴忠侃事，啓曰：“商山君朴忠侃，身居宰列，多行貪鄙，既取勳府之穀，買置家舍，且將鹽盆之牛，盡歸私用。論其罪狀，少無可貸，聖上優容，只許推考。竊恐久據有司之任，則本府些少之物，填盡溪壑而無餘也。請命罷職，以整黷貨之罪。”答曰：“罷職過重，只遞有司堂上。”

사헌부가 전에 아뢰었던 박충간(朴忠侃)의 일을 다시 아뢰기를, “상산군(商山君) 박충간은 재신(宰臣)의 반열이 있으면서 탐욕스런 일을 많이 행하여 이미 충훈부의 곡식을 가지고 집을 사들였는가 하면 염분(鹽盆)의 소를 전부 개인의 용도로 썼으니, 그 죄상은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데, 성상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시어 주고만 하게 하였습니다. 유사(有司)의 직임에 오래 있게 되면 본부의 사소한 물건도 그의 한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남김없이 가져갈 것입니다. 과직을 명하여 재물을 탐한 죄를 바로잡으소서.”하니, 답하기를, “과직은 과중하니, 유사당상만 체직하라.”하였다.

▶ 117권 32년 9월 2일 戊申

戊申/政院【座目同前.】啓曰：“京倉大米，雖有竭乏之時，而不至如今日之無一升遺在也。倉官之訴，悶於該曹，自初秋，呈文告急，無日無之，終至於齊訴判書之家，而亦無所爲，致有今日。各兵之絕食枵腹，已近二旬，管糧唐官，亦不勝其侵苦辱罵，況於我國之官乎？不測之變，頃刻將生，萬分憂悶。百官、坊民之收米，若得一齊輸納，則近五六百石，可支一旬之放，而(雖)〔惟〕緣閭閻窮乏，而人心怠緩，齊捧無期，亦甚可慮。且聞京畿監營刷馬草價米，稍有所儲，而未收之米，亦有裝船上來，預恐天兵掠奪，停泊於海口。畿邑官庫，亦豈無些少之儲乎？此時國事至急，勿分內外彼此，如有一分可助之事，一體盡心輸運，零星湊合，以救燃眉之急，似不可已。且癸巳、甲午年間，分給軍資監所儲木布於自願之人，使之貿粟、貿雜物於外方，而一送之後，遺忘棄置，至於文簿，亦皆散失。上年小帽子換米於各道者，亦累千石，丁酉年間，咸鏡道減稅布之數，亦過千同，民間則盡捧，而上納則無多。空名告身所募之牛，分授於畿邑及諸處屯田者，幾七八百頭，倉儲木花、青布，其數亦多。如得運用心計，收拾貿遷，豈全然無可爲之事，而膠固若此，坐待生變乎？此意言于戶曹，使之趁卽議啓施行何如？”傳曰：“依啓。”傳于右副承旨金尙容曰：“軍資監官員，如是牒報，而戶曹不爲處置乎？虛實問于戶曹。”戶曹回啓曰：“相考文書，則軍資監官員，果有累度牒報矣。”傳曰：“軍資監官員若牒報，則戶曹何不預爲措處，而不小之事，臨時致令如此？戶曹堂上、色郎廳，竝推考。”

정원이 【좌목은 전과 같다.】 아뢰기를,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경창(京倉)의 대미(大米)가 비록 꺾절될 때는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한 되도 남아 있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창관(倉官)이 그 민망함을 호조에 호소하여 초가을부터 급박한 사정을 고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끝내는 판서(判書)의 집에 몰려가 호소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조치하는 바 없이 오늘날의 곤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각 군문의 군사가 식량이 떨어져 굶주린 지 벌써 2순(旬)에 가까워, 군량을 관리하는 중국 관원 또한 그 침욕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담당관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번고가 경각에 일어날 것 같아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백관(百官)과 방민(坊民)에게 거두는 쌀이 만약 일제히 수납된다면 5~6백 석에 가까와 1순의 요미는 지급할 수 있겠으나, 다만 여염이 궁핍하고 민심이 태만하여 일제히 수납될 기약이 없으니 또한 몹시 걱정됩니다. 또 들으니, 경기 감영의 쇠마(刷馬) 마초 값의 쌀이 조금 저축되어 있고 미수된 쌀 또한 배에 실어 올려 보냈는데, 미리 중국군이 탈취할까 염려해 항구에 정박해 있다고 합니다. 경기 각읍 관고(官庫)에 어찌 사소한 저축이야 없겠습니까. 국사가 가장 긴급한 이때 내외 피차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도울 만한 일이 있으면 일체 마음을 다해 수운하며 적은 것이라도 수합하여 초미의 위급함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계사·갑오년 간에 군자감에 저축된 포목을 자원자에게 나눠 주고 그들로 하여금 외방으로부터 곡식과 잡물을 무역하게 하였는데, 한 번 보낸 후로는 잊어버린 채 방치해 두고 그 문서까지도 모두 산실하였습니다.

지난해 작은 모자를 각도에서 쌀로 바꾸어 그 쌀이 또한 수천 석이며, 정유년 무렵 함경도의 감세포(減稅布) 숫자가 또한 1천 동(同)이 넘는데, 민간에서는 다 바쳤으나 상납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공명 고신(空名告身)으로 모집한 소를 경기 각 고을과 여러 둔전(屯田)에 나누어 준 것이 거의 7~8백 두이며, 창고에 저장된 목화(木花)·청포(靑布)의 숫자 또한 많 습니다. 만약에 운용의 묘를 살려 모아들인다면, 어찌 전연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이처럼 융통성 없이 앉아서 변란이 생기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뜻을 호조에 말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의논해 아뢰어 시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고, 우부승지 김상용(金尙容)에게 전교하기를, “군자감의 관원이 이처럼 보고하였는데, 호조는 왜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는가? 그 사실의 허실을 호조에게 물으라.”하였다. 호조가 회계하기를, “문서를 상고해 보니 군자감의 관원이 과연 여러번 보고해 왔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군자감의 관원이 그렇게 보고해 왔는데도 호조는 왜 미리 조치하지 않아 그 중대한 일을 이처럼 다급하게 만들었는가? 호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모두 추고하라.”하였다.

▶ 118권 32년 10월 7일 癸未

戶曹啓曰：“伏觀備忘記，自上特念百官艱難從仕，久未受料，市民納物于官，亦未領價，欲以咸鏡道上送布子，量宜散給，凡在臣民，孰不感激？但國家經費、雜物，一樣板蕩，如布木，則尤無容易取辦之路，御次帳幕陋破，不得改造。此外亦多繁用之處，今不可沒數費用。姑依上教，宰臣及臺侍、侍衛將士、宣傳官以上，各一匹別爲題給，以示自上軫念優待之意。且市民，則近日天朝大官各衙門求請，及許多天將禮單、回禮之物，無數責辦，而其直則不能趁時題給，冤號道路，見聞憫惻。臣等非不欲一一還償，而未得可

給之物，不得已取前日安集都監農牛，分養于各官者，招市中頭頭人，從市直準折，今方連續計給市民，俾知朝家必償之意。今此布匹，勢未能竝爲分給，故敢啓。”

호조가 아뢰었다. “비망기를 보니, 상께서 특별히 백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사(從仕) 하면서도 오래도록 요(料)를 받지 못하고, 시장 백성들이 관에 물건을 바치고도 값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시어 함경도에서 올려 보낸 포자(布子)를 적절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시었으니, 신민들이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국가의 경비와 잡물이 모두 탕진 되었고 포목(布木) 같은 것은 더욱 쉽게 장만할 길이 없어 어차(御次)의 장막(帳幕)이 더럽고 찢어졌는데도 다시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긴급하게 쓰일 곳이 많으니 지금 죄다 소비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교에 의거하여 재신(宰臣) 및 대신(臺臣)·시신(侍臣)·시위 장사(侍衛將士)·선전관(宣傳官) 이상에게 각각 1필씩 제공하여 상께서 진념하시고 우대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 그리고 시장 백성의 경우에는, 요즈음 중국 대관(大官)의 각 아문에서 청구하는 것과 여러 중국 장수에게 보내는 예단(禮單) 및 회례(回禮)하는 물품을 수없이 장만하여 내었는데도 그 값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도로에서 원통하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보고 듣기에 가엾습니다. 신들이 일일이 환상(還償)하려고 하나 지급할 만한 물품이 없어서 부득이 지난날 안집도감(安集都監)에서 각 고을에 나누어 키우게 한 농우(農牛)를 취하여 시중(市中)의 두두인(頭頭人)을 불러다 시가(市價)에 따라 값을 정해 계속해서 시민에게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틀림없이 보상해 준다는 뜻을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포필(布匹)은 형세상 모두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감히 아웁니다.”

▶ 119권 32년 11월 18일 癸亥

癸亥/捕盜大將李潤德啓曰：“自平時捕盜伏兵，例於都城內，及城外十里地，爲限界設立，故兵曹定軍一百二十九名，猶患不足。今則僅定六名，下人名字除出，則所餘只一名。許多伏兵諸處，以烏合軍官，雖號飭分遣，不能成形，而如三江人家稍集之處，則結幕嚴禁，其他無人之境，自古不得設立。本月十六日，唐古介、東山、青坡等處，伏兵軍官來告云：‘騎馬獐子十餘名，各持弓矢，行路所持之物，公然刼奪，又於銅雀江邊，則獐子等，至於刼奪牛隻云。極爲駭愕。如此之人，則猶可得捕，而生擒則非但所傷必多，事係上國，勢甚阻礙，設捕無路，極爲憫慮。令承文院，經理前各別移咨嚴禁何如?’傳曰：“以此輕爲移咨似難，姑爲謹避而已。”

포도대장(捕盜伏兵) 이윤덕(李潤德)이 아뢰기를, “평시부터 포도 복병(捕盜伏兵)은 으레 도성(都城) 안과 도성 밖 10리 지역으로 한계하여 세웠기 때문에 병조에서 1백 29명의 군사를 충정해 줘어도 부족할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6명을 배정했는데 그나마도 하인(下人)의 명자(名字)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1명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허다한 오합(烏合)의 군관(軍官)들로 복병을 세우고 있어 아무리 신칙하여 나눠 보내도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 형편이고, 삼강(三江)의 인가(人家)가 좀 모여 있는 곳은 결막(結幕)

제 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여 엄금을 한다 해도 기타 사람이 없는 경내에는 옛날부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16일 당고개(唐古介)·동산(東山)·청파(靑坡) 등처에 복병했던 군관이 와서 고하기를 ‘말을 탄 달자(獐子) 10여 명이 각기 궁시(弓矢)를 지니고서 행인의 소지품을 공공연히 겁탈하고, 동작강(銅雀江) 가에서는 달자들이 우척(牛隻)을 겁탈하기까지 한다.’ 하였으니, 지극히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자들을 잡을 수는 있지만 사로잡자면 부상자가 필시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사세가 매우 난처하여 잡을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경리(經理)에게 각별히 이자(移咨)하여 엄금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것을 가지고 경솔하게 이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선은 조심해서 피할 따름이다.”하였다.

▶ 120권 32년 12월 19일 甲午

甲午/備邊司啓曰: “光州居前參奉金德龜, 呈狀于本司曰: ‘甲午正月間, 王世子留駐全州時, 大牛三首, 戰馬一疋, 輸納于撫軍司, 以補軍, 而迄未蒙賞.’ 云. 移文于侍講院, 考其時文書, 則所訴不虛. 令戶曹. 照例論賞, 以勸後人何如?” 傳曰: “允.”

비변사가 아뢰기를,

“광주(光州)에 사는 전 참봉 김덕구(金德龜)가 본사에 정장(呈狀)하기를 ‘갑오년 정월에 왕세자가 전주(全州)에서 머무실 때, 대우(大牛) 3마리와 전마(戰馬) 1필을 무군사(撫軍司)에 바치어 군대를 도왔으나 아직까지 그 댓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기에, 시강원에 이문하여 당시 문서를 찾아보게 한 결과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호조를 시켜 전례를 참조해 논상하게 하여 후인들을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121권 33년 1월 6일 辛亥

備邊司啓曰: “馬山, 自亂後荒廢, 已至六七年. 自前年爲始, 以其兩京間宿站, 令屯將朴乃成, 募入流民, 因成一聚, 給牛給糧, 亦慮唐人往來侵責, 不得安接. 咨請經理衙門, 得以委官李承勳, 往察過去唐人, 不敢侵擾, 一屯晏如, 農作無弊, 遂成後日之利矣. 茲者不幸, 委官得病身故, 路傍屯種垂成之事, 又將廢棄, 民之失望潰散必矣. 屯長朴乃成, 與牧使沈日休同議, 具由牒報, 願以承勳同生弟承寵爲代, 使治舊業, 其意甚實. 且稱承寵純厚清謹, 一年同居, 小無弊端云. 此可驗之一端也. 以此意, 移於衙門, 期於得請何如?” 傳曰: “依允.”

비변사가 아뢰기를,

“마산(馬山)은 난리를 겪은 뒤 황폐한 지가 이미 6~7년 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양경(兩京)

사이의 숙참(宿站)이 되었기 때문에 둔장(屯長) 박내성(朴乃成)으로 하여금 유민(流民)들을 모아들여 하나의 취락(聚落)을 이루고 소와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왕래하면서 침책(侵責)하면 편안히 거접(居接)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경리 아문(經理衙門)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위관(委官) 이승훈(李承勳)을 파견, 살피게 해줄 것을 청하는 한편 지나가는 중국인들이 감히 침책하지 못하게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둔(一屯)이 편안하여 폐단없이 농사를 짓게 되었고 드디어 뒷날의 이로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히도 위관이 병을 앓다가 죽음에 따라 노방(路傍)의 둔경(屯耕)이 거의 완성되어 가다가 그만 폐기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들이 실망하여 흩어져 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둔장(屯長) 박내성이 목사(牧使) 심일휴(沈日休)와 함께 의논하여 사유를 갖춰 첩보(牒報)하기를 ‘이승훈의 동생인 승충(承寵)을 대신 위관에 임명하여 전의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니, 그 의도가 매우 신실합니다. 그리고 승충은 순후하고 청렴하며 행신을 삼가는 사람이어서 1년간 같이 있었지만 조금도 폐단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증험할 수 있는 일단(一端)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문(衙門)에 이자(移咨)하여 기어이 허락을 얻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121권 33년 1월 29일 甲戌

恒福曰：“非但南方，舉國已爲殫竭矣。賊若下陸，則防禦難於海中。我兵乘馬乃戰，步兵則不能用武，而國力難辦。牧場馬皆耗縮，一場五六十匹者，亦無之。”上曰：“牧場馬，有名無實。歲時牛馬籍，自上知之。一島只有雌馬，如蘇武牧牝，何能孳息？”恒福曰：“國初牧場，二百餘處。”上曰：“平日籍子，予見之，今則數縮矣。”恒福曰：“國初場馬七萬匹，中廟朝三萬匹，明廟朝萬匹。監牧初設時，一萬八千餘匹。”上曰：“監牧官，有益乎？冗官乎？”恒福曰：“初設時，甚有效驗，至今司僕吏言，其時孳息，至五六千匹云矣。無馬，則武士不能賈勇於戰場。平時國力，亦不能如中國之買給。但使價賤，則人可易賣。今則馬價極其騰湧，如平安道，則砲、殺手及水下武士試才時，狀啓曾爲論賞，而南方，則無之。小臣下去後，試才無所持物。若但賞以加設，則不關矣。直赴殿試，南人聳動，而自下不敢擅便。”

항복이 아뢰기를, “남방뿐 아니라 온 나라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적이 육지에 상륙하면 방어하기가 해중(海中)에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군은 말을 타야 싸울 수 있고 보병으로는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관출할 국력이 없습니다. 목장의 말들은 모두 모축(耗縮)되어 한 목장에 50~60필이 있는 곳도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목장의 말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세시(歲時)의 우마적(牛馬籍)에 의거하여 위에서도 알고 있다. 한 섬에 단지 암말만 있어 소무(蘇武)가 숫양을 기르던 것과 같으니 어떻게 번식시킬 수가 있겠는가?”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국초(國初)에는 목장이 2백여 군데나 되었었습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하였다. 상이 아뢰기를, “평일 내가 그 장부를 보았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줄었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국초에는 목장의 말이 7만 필이었고, 중종조(中宗朝)에는 3만 필이었으며, 명종조(明宗朝)에는 1만 필이었습니다. 감목관(監牧官)을 처음 설치할 적에는 1만 8천여 필이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목관은 유익한가, 아니면 용관(冗官)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처음 설치했을 적에는 매우 효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복시(司僕寺) 관리의 말에 따르면 그때 번식시킨 것이 5~6천 필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이 없으면 무사들이 전장에서 무용(武勇)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평시에도 국력이 중국처럼 사서 지급해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만 값을 싸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말 값이 매우 뛰었습니다. 평안도의 경우, 포살수(砲殺手)와 수하(水下) 무사들을 시재(詩才) 할 때의 장계를 보면 논상을 한 적이 있는데, 남방은 없습니다. 소신이 내려간 다음 시재를 위하여 가지고 간 물품이 없이 상만으로 시재를 더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면 남방 사람들이 용동될것입니만,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 121권 33년 1월 29일 甲戌

斗壽, 則貪濫兇猾, 而與毒澈同心, 於己丑、庚寅年間, 多殺士類, 以逞其憾, 至於構殺崔永慶、德馨則起復爲吏判, 以墨色天益, 每參於政席, 喪紀因此大壞, 物論非之. 是以其呈辭, 亦有徒有史嵩之起復之諂之語. 爲兵判時, 役兵曹軍, 治南大門外舊基而作家, 取砲樓別營之材瓦而用之. 洪敬紹, 以四山監役, 目見而言之. 其父民聖, 爲文化縣令時, 多出空名告身, 鬻牛百餘頭, 放於通津田庄之野, 野爲之黃. 作通津家時, 窓戶皆造於文化而輸用. 其父, 後爲通津縣監, 纔遞, 德馨以經理接伴使, 以通津米百餘碩取用樣, 出公文, 以覲親事往通津, 馳入其縣, 坐於大廳, 急出倉米百餘石, 使送於其縣之家, 縣吏等入訴曰: “新縣監來, 何物食之乎?” 懇請不爲取去, 德馨不聽, 使之急急輸去. 蔡楨先、慶先, 於通津有農庄, 其兄吉先, 爲民聖文化交代, 故明知兩處事. 權盼與德馨婚姻時, 楨先止之曰: “役其父, 使之犯罪, 用心無狀, 不可爲婚姻家.” 盼不能聽. 爲訓練都監提調時, 間二三日, 輒送奴, 取米三四碩、赤豆太豆二三碩以去, 連續取用. 嘗取新粳十五碩以去, 郎廳朴子羽, 適自都監, 因公事, 往德馨家, 則負粳者入德馨家, 布網席曝之於庭云. 德馨且以反覆爲事, 其妻父李山海, 力主東論, 德馨實與山海一心, 而持酒往西人金權家, 大言妻父之非. 庚子年柳成龍被論時, 德馨陳筭攻成龍之類, 成龍之類怨之. 德馨厥後, 反附於成龍之類, 成龍之類, 不知其反覆, 頗有推尊之人. 德馨嘗言於俞大楨曰: “仕宦者, 必累度翻轉, 然後乃可至於高官大爵.” 大楨笑曰: “大(鑑) [監] 幾度翻轉, 至於政丞乎?” 德馨大笑. 斗壽之奸賊, 德馨之貪縱詭譎, 至於此極, 而入於卜相, 可怪之甚也.

윤두수는 탐오하고 음흉하며 교활한데 표독한 정철과 마음을 같이해서 기축년·경인년 사

이에 많은 사류(士類)를 살해함으로써 유감을 마음껏 풀었다. 그리하여 최영경(崔永慶)을 죄에 얹어넣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덕형은 기복(起復)이 되어 이판(吏判)에 제수되었으므로 매양 검은 철릭을 입고 정석(政席)에 참여하였는데, 상기(喪紀)가 이 때문에 크게 무너졌으므로 물론(物論)이 그르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정사(呈辭) 내용에도 사송지(史嵩之)의 기복에 대한 비난만 있게 되었다.’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 병판(兵判)으로 있을 적에 병조의 군사를 사역시켜 남대문 밖 옛터에다 집을 지었는데 포루(砲樓)·별영(別營)의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 썼다. 홍경소(洪敬紹)가 사산 감역(四山監役)으로서 이를 목견하고 말하였다.

덕형의 아버지 민성(民聖)이 문화현령(文化縣令)이 되었을 적에 공명 고신첩(空名告身帖)을 많이 내어 소 1백여 두를 사서 통진(通津)에 있는 전장(田庄)의 들에다 방목(放牧)하였는데, 들판이 누렸었다고 한다. 통진에다 집을 지을 적에는 창호(窓戶)를 모두 문화현에서 만들어 실어다가 썼다. 뒤에 그 아버지가 통진현감에서 체직되자마자 덕형이 경리(經理)의 접반사가 되어 통진의 쌀 1백여 석을 취용(取用)하는 형식으로 공문을 내었다. 그리고는 근친(親親)을 이유로 통진으로 달려가서 대청(大廳)에 앉아 급히 창고의 쌀 1백여 석을 내어다가 그 고을에 있는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러자 고을의 이속(吏屬)이 들어와서 호소하기를, “새 현감이 오면 무엇을 먹으라고 그러십니까?”하면서, 가져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덕형은 듣지 않고 급급히 실어가게 하였다. 채정선(蔡楨先)과 채경선(蔡慶先)의 농장이 통진에 있고 그들의 형 길선(吉先)이 민성(民聖)을 대신하여 문화현감으로 교대하였기 때문에 두 곳의 일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권반(權盼)이 덕형과 혼인할 적에, 정선이 말하기를,

“아버지를 시켜 죄를 범하게 하였으니 용심(用心)이 무례하기 그지없는 자이다. 혼가(婚家)를 정해서는 안 된다.”하였으나, 권반이 따르지 않았다. 훈련도감제조로 있을 적에는 2~3일 간격으로 매번 노자(奴子)를 보내어 쌀 3~4석과 적두(赤豆)와 대두(大豆) 2~3석을 가져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다 썼으며, 한번은 새로 난 밀 15석을 가져간 적도 있었다. 낭청 박자우(朴子羽)가 마침 도감의 공사(公事) 때문에 덕형의 집엘 갔더니 밀을 훔쳐간 자가 덕형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뜰에다 명석을 펴고 이를 말리더라고 하였다. 덕형은 또 반복스럽기가 극심하였다. 그의 처부(妻父) 이산해(李山海)는 동론(東論)을 극력 주장하였는데 덕형도 실은 산해와 마음을 같이 하였었다. 그런데 술을 가지고 서인(西人) 김권(金權)의 집에 가서는 처부의 잘못을 크게 말하였다. 경자년에 유성룡(柳成龍)이 논박을 받았을 적에 덕형이 차자(筭子)를 올려 성룡의 당류에 공박했으므로 성룡의 당류들이 원망했었다. 덕형이 그뒤 도로 성룡의 당류에 빌붙자 성룡의 당류는 그의 반복스러움을 모르고 자못 추존(推尊)하는 자까지 있었다. 덕형이 일찍이 유대정(兪大禎)에게 말하기를, “벼슬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번 번복해야만 고관대작(高官大爵)에 이를 수 있습니다.”하자, 대정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감은 몇 번이나 길을 번복해서 정승에 이르렀소이까?”하니, 덕형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윤두수의 간계함과 이덕형의 탐오하고 궤홀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복상(卜相)에 들었으니, 너무도 괴이한 일이다.

▶ 125권 33년 5월 11일 癸丑

館學儒生李天柱等, 上疏曰: “伏以, 是非不明, 則善惡相混; 邪正不分, 則舉措失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此固國家之禍福，社稷之存亡，甚可畏也。漢有劉陶、郭泰之輩，以激濁相尙，宋有陳東、蔣傳之徒，以直言自任。臣等雖鄙陋微賤，跡忝庠序，粗識禮義，則其所以忠君裨世之志，豈在於古人之後哉？頃者臣等所論洪汝諄一事，初非有所黨比而相攻也，實出於憂時疾惡之心，而欲使公論得行，姦究屏跡，以補殿下清明之治，而聖批丁寧，慰諭懃懃，嘉獎之餘，繼有未安之教。此非臣等，所望於殿下者也。伏觀鄭承閔之疏，兇謀巧說，不一而足，上以欺罔天聽，下以誣陷多士，使一世清流，必欲芟刈誅戮而後已，讒人罔極之禍，吁亦慘矣。臣等竊聞，承閔，一悖惡人也。初名應靈，以醜行，創籍於中庠，乃變名曰之夏，因亂編入殺手，得罪而逋，又變名爲得華。及屬防禦使邊應星軍官，偽造官印，偷取軍糧七十餘斛，囚禁廣州，累受刑訊，越獄逃竊，被捉於楊根，因赦獲放，竊其隣牛，爲主所告。聞捕而求活草間，汝諄誘致於驪州私庄，以爲家臣。今因上疏之喉，假作儒生貌樣，遂改名爲承閔，譸張虛說，熒惑天聽，自以爲得計，疏文既下，皆知其老秦之筆。此汝諄之罪，又所以上通于天者也。當臣等上章之日，覘其一二章甫之與臺諫親屬者，以爲執言之端。竊未知疏中縫掖之徒，果皆臺諫之親屬乎？以至銀臺、翰苑、六署、三館、大小諸司，萬口齊發，則亦豈盡三司之親屬而然乎？當公論激發之日，韋布數十人，慷慨齊憤，自泮宮陪疏，直至闕門，其間未曾有迫脅招集之狀，虛張姓名之事，則天地鬼神，臨之在上，十目所視，其可誣乎？大抵自古奸兇，或蒙蔽聰明，擅弄威福者有之，或密締宮掖，陰結主寵者有之。方今聖明在上，汝諄之姦，未必盡行其胸臆，而以承閔之疏觀之，則安保其必無漸乎？噫！兇章一售，奸類相慶，誘聚無賴，繼承閔而逞毒者，又將接跡而起矣。殿下何辨之不早，以來讒賊之口耶？答曰：“一夫之言，不足與辨。”

관학 유생(館學儒生) 이천주(李天柱)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과 악이 서로 뒤섞이고 사(邪)와 정(正)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모든 조처는 마땅함을 잃습니다. 이는 실로 국가의 화복과 사직의 존망(存亡)이 걸린 것이니 매우 두려워할 일입니다.

한(漢)나라의 유도(劉陶)와 곽태(郭泰)의 무리는 악을 제거하고 선을 드날리는 일을 숭상했고, 송(宋)나라의 진동(陳東)과 장부(蔣傳)의 무리는 곧은 말 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습니다. 신들이 비록 비루하고 미천하지만 성균관에 나아가 대략이나마 예의(禮義)를 배운 이상, 임금에게 충성하고 세상을 돕겠다는 저희들의 뜻만은 어찌 옛사람에게 뒤지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들이 논의한바 홍여순에 관한 일은 애초에 봉당을 짓기 위한 공격이 아니며 실로 시국을 우려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공론(公論)이 행해지고 간소한 무리가 자취를 감추도록 하여 전하의 맑고 밝은 정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하의 비답이 정녕(丁寧)하시고 위유(慰諭)가 간절하시어, 권장까지 하시고서 이어 온당치 못하다는 전교를 내리셨으니, 이것은 신들이 전하에게 기대하던 바가 아닙니다.

정승민(鄭承閔)의 상소를 읽어보니 음흉한 꾀와 교묘한 사실이 다분하였습니다. 위로 전하의 총명을 속이고 아래로 홀륭한 선비들을 모함하여 온 나라의 청류(清流)들을 모조리 죽인 후라야 그만두려고 하니 남을 참소하는 망극한 화가 너무도 참혹합니다.

신들이 들으니 승민(承閔)은 한 패악(悖惡)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응령(應

靈)이며 추행을 저질러서 중상(中庠)에서 삭적(削籍)된 후에 이름을 지하(之夏)로 바꾸고 변란이 일어나자 살수(殺手)가 되었는데 거기서 죄를 짓고 도망쳐 나와 다시 이름을 득화(得華)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방어사(防禦使) 변응성(邊應星)의 군관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또 관인(官印)을 위조하여 군량미 70 여 곡(斛)을 훔쳐내다가 잡혀서 광주(廣州)에 수금(囚禁)되었는데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받다가 탈옥하였고 양근(楊根)에서 체포되었으나 곧 사면으로 인하여 풀려났습니다. 다시 이웃 집 소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고발되었는데 체포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을 듣고 농촌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 홍여순(洪汝諄)이 그를 농장으로 유치(誘致)하여 가신(家臣)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상소하라는 사주를 받고 유생의 행색을 가장하고 이름도 승민(承閔)으로 바꾼 다음 근거없는 말을 거짓으로 늘어놓아 성상의 총명을 현혹시켰는데 스스로 계략에 성공했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상소문이 내려지자 모두들 그것이 홍여순이 대신 시켜 쓴 글씨인 줄 알았으니, 이것은 여순의 죄가 위로 하늘에 통한 것입니다. 신들이 상소하던 날, 그는 한두 유생이 대간의 친속(親屬)이란 것을 알아내고 저들 주장의 꼬투리로 삼았는데, 상소문 안에 있는 유생들이 과연 다 대간의 친속이란 말입니까. 또 은대(銀臺)와 한원(翰苑)·육서(六署)·삼관(三館) 등 크고 작은 여러 부서에서 일제히 입을 열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삼사(三司)의 친속이라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공론이 격렬하게 터져 나오던 날 유생 수십 인이 비분강개하여 반궁(泮宮)에서 상소장을 받들고 곧장 대궐문까지 갔었지만, 그 사이 협박하여 불러 모으거나 거짓으로 서명한 일은 없었으니 천지신명이 위에서 지켜보고 많은 눈들이 주목하는 바인데 속일 수 있겠습니까.

대저 예로부터 간흉(奸兇)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어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는 자도 있고 궁궐(宮掖)들과 은밀히 내통하여 임금의 총애를 은근히 받는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니 간악한 여순이 그의 속셈을 실행할 수는 없겠으나 정승민의 소를 가지고 본다면 그러한 조짐이 결코 없다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아, 흉악한 상소가 한번 나오자 간악한 무리들은 서로 경사로 여기며 무뢰한들을 유혹하여 모으니 정승민의 뒤를 이어서 그 독기를 뿜은 자가 잇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진작 분간하지 않으시어 이런 참소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십니까.”하니, 답하기를, “일개 필부의 말이니 따질 것 없다.”하였다.

▶ 131권 33년 11월 7일 丁未

諫院啓曰: “昆陽郡守趙光瑛, 本以微賤之人, 冒占科第, 武斷鄉曲, 脅制居民, 侵奪田畝, 一鄉之人, 視如虺蜴. 前爲邊將, 剝割軍卒, 惟事肥己, 人皆唾鄙. 乙未、丙申年間, 爲黃海監營軍官, 媚悅監司, 營中雜物, 公然入己. 戊戌年間, 又爲黃海兵使軍官, 適值徵兵抄軍之日, 行遍列邑, 丁壯有實者, 受牛馬而放之, 以老弱貧殘者, 苟充其數, 群怨朋興, 所聞膽播. 主將知其罪惡, 將欲寘諸軍法, 自知難免, 逃身上京, 奔走賄賂, 至圖官職, 濫授臨民之官. 顯被臺評, 曾未幾何, 旋得此郡, 聞者驚怪. 自赴任之後, 益肆奸猾手段, 刑杖慘刻, 徵索多目, 惟以善事要譽爲能事, 予遺之民, 幾盡流散. 此而不懲, 誰可罪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乎? 光瑛之事, 非但海西一道之人, 無不痛憤, 至於同僚中, 亦有耳聞而目見之者. 罷職不敘, 亦云末減. 請勿留難, 亟賜俞音.” 答曰: “依啓.” 仍傳于左副承旨黃廷喆曰: “光瑛若是, 則何以除守令乎? 除授時吏曹推考. 薦舉者, 何人? 亦爲察啓.”

간원이 아뢰기를,

“곤양군수(昆陽郡守) 조광영(趙光瑛)은 본래 미친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과거에 급제되자 향곡(鄉曲)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위협하여 전답을 빼앗으니 온 고을 사람들이 그들 독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전에 변장(邊將)이 되어서는 군졸을 갈취하여 오직 사복을 채우기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습니다. 을미년과 병신년 간에 황해 감영의 군관이 되어서는 감사에게 알랑거리 영종의 잡물(雜物)을 공공연히 굶어 들었으며, 무술년 경에는 황해 병사의 군관이 되었는데 마침 병사를 징집하고 군적(軍籍)을 등록하는 때가 되자 열읍(列邑)을 두루 돌아다니며 재물이 있는 정장(丁壯)에게는 소나 말을 받고 풀어주고 늙고 약한 자나 가난하고 천한 자로 구차하게 그 숫자에 충당하자 원망이 비등하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주장(主將)이 그의 죄를 알고 군법에 부치려 하자 그는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울로 도망하여 뇌물 바치기에 분주하였고 심지어는 관직 얻기를 도모하여 외람되이 수령의 직에 제수되어 대간의 탄핵을 현저하게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문득 이 군(郡)에 제수되니 듣는 자들이 모두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부임한 후로 교활한 수단을 더욱 자행하여 형장(刑杖)이 참혹하였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토색질을 하였으며 오직 상관을 잘 섬겨 칭찬 듣는 것만을 능사로 삼으니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거의 다 흩어져 갔습니다. 이런 자를 징치(懲治)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죄줄 수 있겠습니까. 광영의 일은 해서(海西)지방 사람들만이 통분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동료 중에서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자는 파직 불서(罷職不敘)하는 것도 말감(末減)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유음을 내리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고, 이어 좌부승지 황정철(黃廷喆)에게 전교하기를,

“광영이 이러한 자라면 어떻게 수령에 제수되었는가? 제수할 당신의 이조(吏曹)를 추고하고 천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아울러 살펴 아뢰라.”

하였다.

▶ 133권 34년 1월 11일 庚戌

備邊司郎廳, 以都體察使李德馨意, 啓曰: “南方之事, 一空無形. 前都體察使李元翼下去之後, 以實邊鍊兵, 爲先務, 行文推刷召募, 未知時方收得幾何? 第念無他樂赴之道, 而但欲以官令驅之, 則難就矣. 必須限五六年, 盡除沿海一應稅貢雜役, 使新集之人, 受出票文, 而官家毫不侵責, 然後人皆肯趨, 而來者衆矣. 農牛, 在今最急, 前都體察使, 再次啓請, 而備邊司回啓, 亦久矣, 尙不下送云. 急令該司, 準數刻期下送. 南方鐵物不敷, 如銃筒箭鏃, 雖欲措備, 而其路無由. 前日柳根爲檢察使時, 令前縣令朴琇, 監董採鐵, 一朔所得極多云. 殷栗等各官, 有除雜役, 打造兵器公事. 請下諭本道監司, 依前多數採

鐵, 令前啓下各官, 優備銃筒及箭鏃, 逐朔計工, 上送于備邊司, 使之船運南下, 分給各營. 且聞從事官姜籤, 在東萊, 收聚募兵數三百, 未成司哨模樣. 前都體察使啓請, 軍服次藍布二百匹, 及青布二百疋, 急速下送. 前後天兵, 協帶全、慶之人, 棄置於平安、黃海道各處極多. 此輩無依着, 不得拔還本土. 如得一一刷出, 定其統領沿路, 給糧下送, 則可作數三屯, 漸成邊上土着之民. 請令兩道監司, 行會列邑, 及時小名下送. 且外方, 以鍊兵爲名, 而請教師以去, 皆無其實. 教師, 多出於假名度日之計. 此弊不可不杜. 今全羅道諸處, 方請教師. 令訓練都監, 精抄成才砲、殺手各十名、陣法穀者一二人, 或一時跟行分送, 或留待文移下送, 觀其所爲, 以施賞罰何如?” 傳曰: “允.”

비변사 낭청이 도체찰사(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의 뜻으로 아뢰기를,

“남방의 일은 도무지 형편이 없습니다. 전번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내려간 후 변경을 채우고 군대를 조련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여 추쇄(推刷) 소모(名募)하도록 공문을 돌렸는데 지금 얼마만큼 모여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생각건대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할 다른 방법이 없이 관령(官令)으로만 구박한다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5~6년을 한정하여 연해(沿海)의 모든 세공(稅貢) 잡역(雜役)을 모조리 면제해주고 새로 모여 온 사람들로 하여금 표문(票文)을 받게 한 다음 관가(官家)에서는 털끝 하나도 침해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즐거이 지원하여 오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농우(農牛)가 가장 급하여 전 도체찰사가 두 차례나 계청(啓請)하였고 비변사도 회계한 지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필요한 수를 빠른 시일 내에 내려보내도록 하소서. 남쪽 지방에는 철물(鐵物)이 많지 않아 총통(銃筒)·전촉(箭鏃) 같은 것을 비록 만들어 두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전일에 유근(柳根)이 검찰사(檢察使)로 있을 때 전 현령 박수(朴琇)를 시켜 철 채굴을 감독하게 하여 1개월 동안에 많은 양을 채취하였다고 합니다. 은율(殷栗) 등지의 각 고을에는 잡역을 면제하는 대신 병기(兵器)를 만들라는 공사가 있었으니, 바라건대 본도 감사에게 유시를 내려 종전대로 많은 양의 철을 채취하고 한편 전에 계하한 각 고을로 하여금 총통과 전촉을 충분히 만들어 매월 생산량을 헤아려 비변사에 올려 보내고 비변사에서는 그것을 배에 실어 남으로 운반하여 각영(各營)에다 나누어주도록 하소서. 또 들으니, 종사관(從事官) 강침(姜籤)이 동래(東萊)에 있으면서 3백 명 가량의 군사를 모았으나 사초(司哨)로서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전 도체찰사가 군복(軍服) 마련차 남포(藍布) 2백 필과 청포(靑布) 2백 필을 계청하였다고 하니, 빨리 내려 보내소서.

중국 군대들이 전후에 걸쳐 전라도·경상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가 평안도·황해도 등 각처에다 버린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지할 곳 없어 본토(本土)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만약 하나하나 쇄출(刷出)하여 영술자를 정한 다음 연로에서 식량을 공급하여 내려 보내면 그들로 서너 둔(屯)을 만들 수 있어 점차 변방의 토착민(土着民)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양도(兩道)의 감사로 하여 열읍에 행회(行會)하여 때맞추어 소명(小名)을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

또 외방에서 군대 조련 명목으로 교사(教師)를 청해 갔으나 모두 실효가 없습니다. 교사라는 이름을 빌어 날이나 보내려는 계책들을 청하고 있는데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성재(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才)한 포수(砲手)·살수(殺手) 각 10명과 진법(陣法)을 아는 자 1~2명을 정하게 뽑아 혹 일시에 나누어 보내든지 혹은 공문이 있기를 기다려 내려 보내든지 하고 그 훈련 성과를 보아 상벌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134권 34년 2월 1일 庚午

京畿觀察使南以信, 馳啓曰: “本月十八日到付, 水原府吏文狀曰: ‘順和君, 菜物不好稱云, 園頭干奴林同叔母, 水門毀出, 親自捉入, 刑問二十餘度, 手自決杖.’ 云. 二十八日追到文狀內, ‘邑內居金永水, 以宮上直進去時, 自水門捉入, 刑問二十餘度, 手自決杖, 其所着衣服, 盡爲衝火’ 云. 當日到付文狀內, ‘牛肉生鮮等, 不爲進排稱云, 庫子奴於里孫家舍, 今月二十八日二更, 順和君, 親自出來, 衝火盡燒. 今月二十七日初昏, 以日用燭柄進排事進去, 畫工鄭業水, 自水門捉入, 刑問四十餘度, 手自決杖.’ 云. 宮門封閉之後, 毀牆卽出, 出入閭閻, 前日舉邑一空. 春耕將廢, 極爲可慮事.” 啓下義禁府.

경기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치계하기를,

“이 달 18일에 도착한 수원부(水原府) 아전의 문장(文狀)에 ‘순화군(順和君)이 채물(菜物)이 좋지 않다고 하며 원두(園頭)를 관리하는 노(奴) 임동(林同)의 숙모를 수문(水門)을 부수고 나와 손수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決杖)하였다.’ 하고, 28일에 이어 도착한 문장에는 ‘읍내에 사는 김영수(金永水)가 궁에 상직(上直)하러 나갔을 때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하고, 그가 입고 있던 의복을 전부 불태웠다.’ 하였으며, 오늘 도착한 문장에는 ‘쇠고기와 생선 등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자(庫子)인 노 어리손(於里孫)의 가옥을 이달 28일 2경에 순화군이 직접 밖으로 나와 불을 질러 전소시켰으며, 이달 27일 초혼에는 일용하는 촉병(燭柄)을 올리는 일로 나간 화공(畫工) 정업수(鄭業水)를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4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손수 결장하였다.’ 하였습니다. 공문을 봉하여 폐쇄한 뒤로 즉시 담장을 헐고 나와 여염에 출입하므로 앞으로 온 고을이 전부 비어 봄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 135권 34년 3월 24일 壬戌

藥房都提調金命元、提調柳根、副提調尹暲啓曰: “明日自上, 當受鍼灸矣. 臣等更與醫官等, 反覆商議, 則必先累度受鍼, 以通經脈, 然後觀其虛寒邪氣所聚處, 乃施牛角灸, 以補眞氣爲當. 治病之方, 次第如此, 明日則只先受鍼何如? 敢稟.” 答曰: “依啓.”

약방도제조 김명원(金命元)과 제조 유근(柳根), 부제조 윤돈(尹暲)이 아뢰기를,

“내일 주상께서 침을 맞으셔야 합니다. 신들이 다시 의관들과 반복해서 상의해 보니 반드시 먼저 여러 차례 침을 맞아 경맥(經脈)을 통하게 한 뒤에, 허한(虛寒)과 사기(邪氣)가 모이는 곳을 보아서 그곳에다 우각구(牛角灸)를 떠서 진기(眞氣)를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처방의 차례가 그러하니 내일은 먼저 침만 맞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품합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36권 34년 4월 1일 戊辰

慶尙道暗行御史趙守翼，書啓：“守令政迹賢否，臣在忠州，已爲狀啓矣，抑臣出入村間，民情民事，有所聞見，敢此條陳。南中歲登穀賤，而民心不固，籬居不治，一間之廬，四壁障以草茅，以爲寇至，則去之之計，且無定居，東西徙徙，扶携負戴者，襁屬於途路。其不可恃以爲緩急之用，明矣。湖西、畿(田)〔甸〕之民，流離轉徙，踰鳥嶺而南者，不知其幾。此必嶺南豐熟，而畿甸湖西，賦役煩重故也。甚可矜惻。道內牛畜稀貴，當此東作之時，民不得耕，往往畝畝中，或乘耒僮僮，或以人代耕，十人功力，不如一牛，農事至爲可慮。水軍自平時，比他軍役最苦，而亂後尤甚。陸地水軍，全不解操舟，當番則責木布，雇立海邊鮑作人，而鮑作之輩，亦皆散亡，向來百戶之村，今僅有一二戶，索價倍重，故今年賣犢，明年賣田宅，畢竟逃散而已。密陽降倭，自爲一村，招集村民，作爲藩籬，交相庇護，官差過其民家，則輒群聚(歐)〔毆〕打，使不得接跡，無知逃散之人，相率投入，日後撫(禦)〔御〕乖宜，則必有生梗之患。濱海邊城，乃初面受敵之地，而城頽不修，池廢成陸，如蔚山兵營，乃主將鎮守之處，而城池夷漫，門無扉局。方體察使之在城中，恐惡獸之踰入，噉食人馬，張網子於城上，其城之高低可知，誠可寒心。賊退纔一年，民力枯竭，雖無暇修治，而諉以蕩敗，漸至玩愒，則脫有邊患，雖如乙卯之微細，亦不能抵敵矣。以今之民力，雖不能卽舉重役，亦當念及于是，預爲規畫，以待民力少紓，恐或宜當。東海一帶，村落蕭條，居民不念國事之大，頗以孝敬殿海衣進上爲苦，係是民情，故惶恐敢啓。”

경상도 암행어사 조수익이 서계하였다.

“수령들의 정사에 관한 실적과 현부(賢否)에 대해서는 신이 충주(忠州)에서 장계(狀啓)하였고, 신이 여염에 출입하면서 보고 들은 민정(民情)과 민사(民事)를 감히 조진(條陳)합니다.

남중(南中)은 풍년이 들어 곡식이 지천이나 민심은 확고하지 못하여 울타리나 집을 단속하지 않고 한 칸의 움막에 사방을 띠풀로 막고 살면서 외구(外寇)가 오면 도망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집을 꾸러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자가 노상에 즐비하니 급할 때 그들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또 호서(湖西)와 기전(畿甸)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조령(鳥嶺)을 넘어 남쪽으로 오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는 필시 영남이 풍년이 든 데다 기전과 호서는 부역이 많기 때문일 것이니,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소가 귀하여 농사철이 되었는데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도 백성들이 땅을 갈지 못합니다. 종종 논밭에서 소 대신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쟁기를 끄는데 10인의 힘이 소 1마리의 힘만도 못하니, 농사가 매우 염려됩니다.

수군(水軍)은 평시에도 다른 군역(軍役)보다 가장 괴로웠는데, 난을 겪은 후로는 더욱 심합니다. 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 다루는 것을 전혀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布)를 마련하여 해변에서 포작(鮑作)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립(代立)시키는데, 그 포작하는 무리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가고 없어 그 전에는 1백 호나 되던 마을이 지금은 겨우 1~2호밖에 남지 않아 값을 배나 요구하기 때문에 당변한 수군이 금년에는 송아지를 팔아서 대고 이듬해에는 전택(田宅)을 팔아서 내야 하니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고 맙니다. 밀양(密陽)에는 항왜(降倭)가 저희끼리 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촌민(村民)들을 불러 모아 저희의 울타리로 삼고 서로 비호하면서 사는데, 관(官)에서 사람을 차송하여 그들 민가에 나가면 떼거지로 달려들어 구타하여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도산(逃散)한 무지한 백성들이 날로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으니, 후일 그들을 무마하고 제어하는 방도가 잘못되는 날이면 필시 사건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변성(邊城)은 바로 가장 먼저 적과 대치하는 지역인데도 무너진 성을 수리하지 못하고, 못은 메꾸어져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울산(蔚山)의 병영(兵營)은 주장(主將)이 진수(鎭守)하는 곳인데도 성지(城池)가 무너지고 메워졌으며 문에는 문짝도 없습니다. 지금 체찰사가 성안에 있는데 사나운 짐승이 넘어들어와 인마(人馬)를 살상할까 염려하여 성 위에다가 그물을 쳐놓았으니, 그 성의 높이를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적이 물러간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어 민력이 고갈되어 수리할 겨를이 없기도 하지마는 탕패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하여 점점 방심해져 힘쓰지 않게 되면 을묘년과 같은 미세한 변환(邊患)이 있어라도 적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민력으로는 곧바로 힘든 역사(役事)를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민력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동해(東海) 일대의 촌락은 쓸쓸한데,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국사의 중대함은 생각하지 않고 효경전(孝敬殿)에 해의(海衣)를 진상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민정(民情)에 관계되기에 황공하오나 감히 아웁니다.”

▶ 136권 34년 4월 9일 丙子

藥房都提調金命元、提調柳根、副提調尹墩啓曰：“臣等與醫官等商議，明日當受牛角灸。手足部諸穴中，要切之穴，手部則肩髃、曲池兩穴，足部則三里、絕骨兩穴，議定矣。但或有邪氣所聚處，及虛寒處當取阿是穴而灸之。今日入侍時，更稟定奪宜當。敢啓。” 答曰：“知道。”

약방도제조 김명원, 제조 유근, 부제조 윤돈이 아뢰기를, “신들이 의관(醫官)들과 의논하였는데, 내일 수족(手足)의 여러 혈(穴) 중에 긴요한 혈에 우각구(牛角灸)를 하여야 하는데, 팔 부위는 견우(肩髃)와 곡지(曲池) 두 혈이며, 발 부위에는 삼리(三里)와 절골(絕骨) 두 혈로 의정(議定)하였습니다. 다만 혹시 사기(邪氣)가 모인 곳이나 허한(虛寒)한 곳이 있으면

아시혈(阿是穴)에 뜸을 떠야 하므로, 오늘 입시(入侍)할 때에 다시 품하여 정하여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웁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136권 34년 4월 10일 丁丑

再啓曰：“臣等伏聞下教，與鍼醫等商議，則自上受鍼，已至七度，穴數極多。聖候素有虛熱，竊恐因此添加，常切悶慮，故前者參酌灼艾灸之數，以七壯啓達矣。大凡灼灸，則艾炷至小，牛角灸，則艾炷甚大，雖不灼肌，其薰熱之氣，則倍蓰。近日試之，只於三五壯，便覺艾氣薰入肌膚。以此揆之，切不可過於七壯。況六處灸數，合爲四十二壯，其數亦多。姑依前議，各灸七壯宜當。敢啓。” 答曰：“依啓。”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하교를 듣고 침의(鍼醫)들과 상의한 결과, 성상께서 맞으신 침이 이미 7차례나 되어 혈의 수효가 매우 많은 데다 성후(聖候)에 본래 허열(虛熱)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허열이 더할까 항상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점을 참작해서 쑥뜸의 수효를 7장으로 할 것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작구(灼灸)는 쑥심지[艾炷]가 매우 작지만, 우각구(牛角灸)는 쑥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는 타지 않으면서도 뜨거운 기운은 배나 더합니다. 근일 시험하여 보니, 3~5장 정도에서도 쑥기운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헤아려 보면 절대 7장 이상은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6곳에 뜨는 수효를 모두 합하면 42장이니 그 수효가 역시 많습니다. 우선 전에 의논드린 대로 각각 7장씩만 뜨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37권 34년 5월 12일 己酉

己酉/義禁府啓曰：“備忘記，云云事，【見上.】傳教矣。以內口金等各人之招觀之，則當初傳播之言，似爲過重。但鄉所朴郁、吳德立等，雖皆推調於在逃鄉所田忠器，而軍官田應忠、金應男、宋夢等，皆以擅發官軍，越境圖捕之事，乃聽三鄉所指揮而爲之云。朴郁、吳德立，與田忠器，其罪一樣，軍官田應忠，只聽鄉所之言，率軍越境，焚家殺人之事，雖曰無之，其助官奴勢焰，奪人牛馬，則固難免其罪也。所謂宮奴稱名人等，雖稱各有上典，監司既以宮奴，捉付都事，則其詐稱宮奴，同惡作弊之事，必有顯發而然也。況柳繼先能走馬一匹，朴勗懷牛二首，金漢公黃大牛一首，皆被奪去，現出於各人之招，則其他財產輸去之事，亦不可謂必無也。此人等，似不可全然放釋，而內口全〔內口金〕等，或以奴子，或以事干招辭，則別無同異，而囚禁滿獄，聖念所及，極爲允當。爲先分揀放送何如?” 傳曰：“允。此座首、軍官等，雖有所妄作，而因監司行移，其曰擅發官軍，則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似非其情。奪其牛馬等物，極爲過甚，而亦非王獄可治，然既已拿囚，竝參酌其罪，更爲遲晚取招，照斷可矣。大概此獄，焚殺之目爲重，餘皆細耳。”

의금부가 아뢰기를,

“비망기로 전교하셨습니다. 【위에 보인다.】 내절금(內口金) 등 각인의 초사를 보건대, 당초 전과된 말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소(鄉所) 박옥(朴郁)·오덕립(吳德立) 등이 모두 도망한 향소 전충기(田忠器)에게 미루고 있지만 군관(軍官) 전응충(田應忠)·김응남(金應男)·송몽(宋夢) 등이 모두 멋대로 관군을 동원하여 월경(越境)하여 잡으려고 도모한 일은 바로 세 향소의 지휘를 받고 한 것이라 합니다. 박옥·오덕립·전충기는 그 죄가 똑같고 전응충은 향소의 말만 듣고서 군사를 이끌고 월경하여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인 일은 없다고 하나 그가 궁노(宮奴)의 세염(勢焰)을 도와 남의 우마(牛馬)를 빼앗았으니 그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궁노라고 칭명(稱名)한 사람들이 각기 상전(上典)이 있다고 일컬었지만, 감사(監司)가 이미 궁노를 잡아 도사(都事)에게 붙였으니, 이는 그들이 궁노를 사칭하면서 궁노와 함께 악한 짓을 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반드시 드러났으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유계선(柳繼先)은 잘 달리는 말 1필을, 박옥은 송아지 2수(首)를, 김한공(金漢公)은 큰 황소 1수를 빼앗긴 것이 각인의 초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기타 재산을 실어갔다는 일도 반드시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석방(釋放)하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내절금 등은 종이나 사간(事干)의 초사(招辭)와 별로 이동(異同)이 없습니다. 감옥이 가득 차다는 성려(聖慮)가 언급된 것은 매우 윤당합니다. 우선 분간하여 방송(放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 좌수(座首)·군관(軍官)들이 망령된 짓을 하였지만 감사(監司)의 행이(行移)에 의한 것이니 ‘함부로 관군(官軍)을 동원했다.’는 것은 실정이 아닌 것 같고, 우마 등의 물건을 빼앗은 것은 너무 심했지만 역시 왕옥(王獄)에서 다스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잡아 가두었으니 그 죄를 아울러 참작해서 다시 지만취초(遲晚取招)하여 조단(照斷)하도록 하라. 대저 이 옥사(獄事)는 불태우고 살인한 죄목이 중한 것이요 나머지는 모두 사소한 것이다.”하였다.

▶ 143권 34년 11월 17일 辛亥

辛亥/上御別殿，引見遠接使李廷龜。上曰：“卿如此寒節，何以遠行耶？”廷龜曰：“小臣以不才，冒忝重任，必不堪當，而前後陳啓，未得蒙允，黽勉行公，不意又逢詔使之來，深恐僨事，極以爲悶矣。”上曰：“豈有是乎？但 詔使遲來，則猶可爲也。若以爲頒詔不可逾年，冬前急速出來，則諸事必未及措，極慮。”廷龜曰：“外間亦有此疑矣。小臣受命之後，卽欲發行，而未得的奇，故暫此等待矣。且前者天使之出來我國，稀有故，一聞其奇，則大小臣民，盡皆驚惶，而其時物力全盛，事事稱情，儀式璨然，接待甚易，今則物力儀式

蕩然，而十餘年來，慣待天將，雖聞天使之來，恬不動念，一路館站，亦皆未及造成。如此等事，雖百分檢飭，勢難周旋。天使雖新出，而帶來家丁，則必皆前日之出來者，應多徵索之弊。今番則似與前日之天使，有異矣。”上曰：“此則在天使之如何。當身若繁，則頭目必不如此，當身若緩，則雖以學士爲天使，而頭目輩，亦爲作弊。前日黃洪憲時事可鑑矣。大概何以待之？空爲念慮而已。必須以至誠將之可也。昔者嘗聞，許國天使出來時，嗜食酪粥，一路到處，每持此器而食。嘗到一站將食，而忽還捨。及撤出之後，怪而視之，則將少許酪粥，被其前面，其下則他粥矣。我國凡事類此，卿須十分檢舉。且一路女人，一切不可執役。予嘗接待唐人見之，女人負兒，而應供廚房，兒啼之聲，至徹宴廳，極爲混褻。各別禁斷可也。”廷龜曰：“供億之事，自然支過，館站之事，極爲可悶。”

상이 별전에 나아가 원접사 이정구를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 처럼 추운 절기에 어떻게 먼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소신이 재주가 없는 몸으로 중임을 맡아 필시 감당하지 못할 듯하여 전후 계사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억지로 행공(行公)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또 조사(詔使)가 나옴을 만났으니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 극히 민망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다만 조사가 더디게 나오면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만일 조칙(詔勅) 반포하는 데 있어 해를 넘길 수 없다고 하여 겨울 전에 급속히 나온다면, 모든 일을 반드시 미처 조치하지 못할 것이니 극히 염려된다.”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외간에서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명을 받은 뒤로 곧 떠나려고 하였으나 확실한 기별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전자에는 천사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한 번 그 기별을 들으면 대소 신민이 다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물력이 풍부하여 일마다 정에 맞고 의식이 찬란하여 접대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지금은 물력이 탕진되고 의식도 사라진데다가 10여 년 동안 중국 장수들을 익히 대하였으므로 비록 천사가 온다는 말을 들어도 예사로 여겨 동념(動念)하지 않고 있으며, 일로(一路)의 관참(館站)도 모두 미처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백분 검칙(檢飭)한다 하더라도 형세가 주전하기 어렵습니다. 천사는 비록 새로 나오지만 데리고 오는 가정(家丁)은 모두 전일 나왔던 사람들로 토색하는 폐단이 응당 많을 것이니 이번의 천사는 전일의 천사와 다를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담당자가 제대로 단속한다면 두목(頭目)이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담당자가 만일 느슨히 한다면 비록 학사(學士)를 천사로 임명하였다 하더라도 두목의 무리가 또한 폐단을 일으킬 것이니, 전일 황홍헌(黃洪憲) 때의 일을 거울삼을 만하다. 대개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 공연히 염려가 될 뿐이다. 반드시 지성으로 봉행해야 할 것이다. 전에 일찍이 들으니, 허국(許國)이 천사로 나왔을 때 낙죽(酪粥)을 즐겨 먹었으므로 일로(一路)의 도처에서 매양 낙죽을 먹었는데 한 번은 어떤 참(站)에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이르러 먹으려 하다가 갑자기 도로 놓아버리므로 상을 물린 뒤에 괴이하게 여겨 죽그릇을 보았더니, 위에만 약간의 낙죽으로 덮어놓고 그 속에는 다른 죽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이와 같으니, 경은 모름지기 십분 검거(檢舉)하라. 또 일로의 연인은 일체 일을 시키지 말도록 하라. 내가 일찍이 중국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보니, 여인들이 아이를 업고 주방의 일을 할 적에 아이 우는 소리가 연청(宴廳)에까지 들렸으므로, 극히 혼잡하고 무례하였다. 각별히 금단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공대하는 일은 본시 그대로 치러나가겠지만, 관참(館站)의 일이 극히 민망스럽습니다.”하였다.

▶ 146권 35년 2월 30일 癸巳

癸巳/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李德馨啓曰: “上年十二月間, 慶尙道巡察使李時發, 以本道加定其人十名, 特爲蠲減事狀啓, 而具由牒報於臣. 臣適參備邊司之坐, 與三公同議, 依狀啓蠲減爲當, 仍招工曹郎廳, 三公分付曰: ‘此狀啓, 持告判書, 須與體察使詳議而回啓.’ 云. 其後久無黑白, 臣再問于工曹吏, 則郎吏全不爲告課云. 此是該曹色吏, 與防納之人, 中(聞) [間] 圖謀, 欲收取本道價布, 而過三月, 瞞告堂上, 回啓必矣. 廟堂丁寧分付之語, 終爲下吏所操弄, 請其時分付聽去郎廳, 推考治罪, 瞞告色吏, 囚禁推考, 本道加定其人, 依狀啓蠲(減) [減] 或移定何如?” 【其人者, 供闕內薪炭之役者也.】傳曰: “允.”

【史臣曰: “本國胥吏之弊, 其來久矣. 明廟朝處士曹植 [曹植], 力言其弊, 以爲亡國, 必於斯. 豈無見而然也? 此雖一事, 其蠹國之狀, 不一而足. 無非國綱渙散而然也. ○德馨於亂後, 遭母喪, 起復爲吏曹判書, 着墨色天益, 公然出入政廳. 及爲訓練都監堂上, 日取都監米、布用之, 其父爲文化縣令時, 德馨出空名告身百餘張, 潛鬻於文化地, 買得數百牛, 置於通津農所. 又其父以通津縣監遞職後, 德馨爲經理接伴使, 以縣米百餘石取用樣, 出公文, 公然輸致縣米一百石於農莊. 以得罪倫紀之人, 營私蠹國之狀, 罔有紀極, 而冒受體察重任, 則胥吏之蠹國, 國綱之渙散, 何足怪哉?”】

겸 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 이덕형이 아뢰기를,

“지난해 12월 사이에 경상도 순찰사 이시발(李時發)이 본도(本道)에 가정(加定)한 기인(其人) 10명을 특별히 감면해 줄 것으로 장계하고 사유를 갖추어 신에게 첩보(牒報)하였습니다. 신이 마침 비변사의 좌당(坐堂)에 참여하여 삼공과 같이 의논하여 장계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조 낭청을 불러 삼공이 분부하기를 ‘이 장계를 가지고 호조판서에게 가서 고하고 체찰사와 자세히 의논하여 회계하라.’ 하였는데, 그뒤에 오래도록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다시 공조의 아전에게 물어보았더니 낭리(郎吏)가 전혀 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조의 담당 아전이 방납(防納)하는 사람과 중간에서 도모하여 본도의 가포(價布)를 거두어 차지하려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당상에게 속여 고하여 회계한 것이 분명합니다. 묘당(廟堂)에서 간곡히 분부한 말이 끝내 하리(下吏)에게 농락당하게 되었으니, 그때 분부를 듣고 간 낭청을 추고하여 치죄하고 속여 고한 담당 아전

은 수금하여 추고하며, 본도에 가정한 기인은 장계에 의하여 감면하거나 혹은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기인이란 쉼내에 땀나무와 숲의 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본국의 서리(胥吏)의 폐단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명종조의 처사 조식(曹植)이 그 폐단을 극력 말하여 ‘나라를 망치는 것이 반드시 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본 바가 없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이것이 비록 한 가지 사례이나 그 나라를 좀먹는 형상은 하나 뿐이 아니니, 이는 모두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덕형은 난리 뒤에 어미 상을 만나 기복(起復)해서 이조판서가 되어 흑천릭[黑天益]을 입고 공공연하게 정청(政廳)에 출입하였고, 훈련도감당상이 되어서는 날마다 훈련도감의 쌀과 포목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그 아버지가 문화현령(文化縣令)으로 있을 때는 이덕형이 공명고신(空名告身) 1백여 장을 내어 문화현령 지방에 몰래 팔아서 수백 마리의 소를 사들여 통진(通津)의 농장(農庄)에 두었다. 또 그 아버지가 통진현감(通津縣監)으로 체직된 뒤에는 경리접반사(經理接伴使)가 되어 통진현의 쌀 1백여 석을 취용(取用)하는 것처럼 공문을 내어 공공연히 현의 쌀 1백여 석을 농장에 실어보냈다. 윤기(倫紀)에 죄를 얻은 사람으로 사리(私利)를 경영하고 나라를 좀먹는 짓을 끝없이 했는데 체찰사의 중임을 함부로 받았으니, 서리가 나라를 좀먹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 150권 35년 5월 7일 戊辰

戊辰/憲府啓曰: “山陰縣監具潛, 前爲訓練都監屯田色郎廳時, 多行麁鄙之事. 決不可付之臨民之任, 請命罷職.” 答曰: “具潛多行麁鄙之事, 云何事耶?”

回啓曰: “具潛前任屯田色郎, 屯田農牛, 私自使用於其家, 屯田之穀, 亦多濫用. 以此人皆以爲麁鄙矣.” 答曰: “依啓.”

사헌부가 아뢰기를, “산음현감(山陰縣監) 구진(具潛)이 앞서 훈련도감 둔전 낭청(訓練都監屯田郎廳)으로 있을 때 추잡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결코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구진이 추잡한 짓을 많이 하였는데 어떤 일이 었는가?” 하였다. 회계하기를, “구진이 앞서 둔전 담당 낭관으로 있으면서 둔전의 농우(農牛)를 사사로이 자기 집안일에 사용하였으며, 둔전의 곡물도 남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추잡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51권 35년 6월 10일 庚子

庚子/以備忘記傳曰: “成均館, 今亦屠牛乎? 此事平時, 傳教非一. 國法姑置勿論, 首善之地, 爲屠肆之窟, 豈非可醜? 彼儒生及其師, 何不痛禁? 予聞一草一木, 折之不以其時, 非仁. 古之人, 窓前草不除. 乃反使人恣殺穀觶, 日以十百, 自以爲金城湯池, 有司莫敢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捕詰? 彼牛亦含生之類耳. 其宛轉痛楚之聲, 腥膻血肉之氣, 徹于神聖, 恬不知恥, 人亦不以爲駭. 甚矣陋習之難變也! 今後另加痛禁, 毋使一屠手, 容於其間. 肅清泮宮事, 言于成均館

비방기로 전교하였다.

“성균관에서는 지금도 소를 도살하는가? 이 일은 평소 전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선 국법은 그냥 두고라도 수선(首善)의 곳이 도살하는 소굴이 되었으니 어찌 추하지 않은가. 저 유생과 그 스승들은 어찌하여 엄금하지 않는가? 내가 듣기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시기가 아닐 때 꺾으면 어질지 못하다고 하였고, 옛날 사람은 창문 앞의 풀도 뽑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리어 아무도 탓하지 못하는 성역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하루에도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씩이나 함부로 도살하는데도 유사(有司)는 감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소도 생명체로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소리와 피비린내가 신성한 곳까지 미치는데도 태연스럽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사람들도 해피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비루한 습속을 변화시키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이후로는 각별히 엄금하여 한 사람의 도수(屠手)도 그곳에 용납하지 못하게 해서 반궁(泮宮)을 정숙하고 깨끗이 하도록 성균관에 말하라.”

▶ 153권 35년 8월 21일 庚戌

以有旨, 諭全羅監司韓浚謙曰: “及第鄭渫, 曾以教唆蔡之穆上疏之事, 受刑被竄, 亂離後, 復職補外. 頃年又被削去仕版之罪, 猶不悛改, 移居光陽海曲, 廣築田園, 多占良民, 造船三隻, 專意於魚鹽興販之利, 侵漁豪奪, 取怨於民者甚多. 前僉正奇孝曾, 自爲義兵質穀時, 處事妄戾, 謗言盈路. 近年以來, 離其本土, 不定厥居, 或東或西, 雄據海邊禁地, 侵奪寡弱, 聚畜牛馬, 多造船隻, 專利魚鹽, 一道避役之人, 日集籬底, 取怨之事, 無有紀極. 此二人, 武斷鄉曲, 蔑法自恣之狀, 卿其詳細查覈, 得其實狀, 從速馳啓.”

유지(有旨)로 전라감사 한준겸(韓浚謙)에게 하유하였다.

“급제(及第) 정설(鄭渫)은 일찍이 채지목(蔡之穆)을 교사(敎唆)하여 상소하게 한 일로 형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난리 후에 복직하여 외직에 보임(補任)되었는데, 근년에 또 사판(仕版)에서 삭제되는 죄를 졌다. 그런데도 뉘우칠 줄을 모른 채 광양(光陽)의 해변에 옮겨 가 살면서 널리 전원(田園)을 마련하고 양민의 소유를 다수 점유하였으며, 배 3척을 건조하여 오로지 어염(魚鹽)을 판매하는 이익에만 뜻을 두고 호기를 부리며 침탈하므로 백성들로부터 너무도 원한을 많이 사고 있다. 전 참정(僉正) 기효중(奇孝曾)은 의병을 위하여 양곡을 무역해 올 때부터 처사가 망령되어 비방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했는데, 근년 이래 본토를 떠나 일정한 거처가 없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하면서 해변의 금역(禁域)에 웅거하여 약한 자를 침탈해 우마(牛馬)를 모아다 기르다가 하면 배를 많이 만들어 어염의 이익을 독차지하므로 도내의 역(役)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울타리 아래로 모여들어 원망을 사는 일이 끝이 없다. 이들 두 사람이 향곡(鄉曲)에서 법을 능멸하고 제멋대로 자행하는 정상을 상세

히 조사한 뒤 사실을 알아내어 속히 치게하라.”

▶ 160권 36년 3월 15일 辛未

平安監司許頊啓曰：“滿浦僉使李光岳馳報，‘開春以後，遠近之胡，無不歸順，至如老酋寨胡，續將駿馬，來換耕牛，而爲無朝廷指揮，不得擅許。’傳易梨坡酋童大乃，進告曰：「頃日忘自哈坪古等，拿問一處之事，果爲的實。」正月以後，歸順胡人，享餼甚豐，老酋麾下及寨胡等，聞風歆羨，競願與宴。大抵行一宴犒，以悅其意，又使忘自哈等，終免刑戮，事甚便當。第觀胡意，不在於區區酒食，而要討賞物矣。”

【史臣曰：“苟有豪傑，不以酒食爲輕重者，托關市，而觀虛實，則後患必大。朝廷其可恃目前，而不爲遠慮耶?”】

평안감사 허옥(許頊)이 아뢰었다.

“만포첨사(滿浦僉使) 이광악(李光岳)의 치보(馳報)에 ‘봄이 된 후로 원근에 사는 제호(諸胡)가 모두 다 귀순하고 있다. 심지어 노추(老酋)와 채호(寨胡)도 잇따라 준마를 가지고와서 발가는 소와 바꾸어 가는데 조정의 지휘가 없어서 마음대로 바꾸어 줄 것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 박이리파추(博易梨坡酋) 동대내(童大乃)의 진고(進告)에 「지난날 망자함(忘自哈)·평고(坪告) 등을 한곳에 잡아다 추문한 일은 과연 적실(的實)하다.」 하였다. 정월 이후 귀순한 호인(胡人)을 매우 풍성하게 공궤했더니 노추 휘하 및 채호 등이 소문을 전해 듣고 부러워하며 서로 다투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대저 한번 호궤하는 잔치를 열어서 그들의 뜻을 기쁘게 하고 또 망자함 등으로 하여금 끝내 형륙(刑戮)을 면하게 하면 일이 매우 편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호인의 뜻을 보건대, 구구한 술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물(賞物)을 겨냥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참으로 호궤이라면 술과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관시(關市)를 청탁하여 허실(虛實)을 엿볼 경우에는 후환이 반드시 클 것이니, 조정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서 원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161권 36년 4월 3일 己丑

慶尙道暗行御史權盼書啓：“兵營屯田牛，只有三隻，民不得耕農。戶曹請移送濟州官牛，以資農。”上曰：“聞濟州無牛場之牛。不可如是爲公事，以貽民弊。”

경상도암행어사 권반(權盼)의 서계에 ‘병영(兵營)의 둔전(屯田)에 소가 단지 세 마리 뿐이므로, 백성들이 논밭을 갈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호조가 제주(濟州)의 관우(官牛)를 옮겨와 농사를 돕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일렀다.

“듣건대 제주의 소 목장에 소가 없다고 하니, 공사(公事)를 이처럼 마련하여 민폐를 끼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게 할 수 없다.”

▶ 163권 36년 6월 14일 己亥

僕, 今月十七日, 自王京到島、日本事勢, 小無加減. 凡事千萬勿疑, 速成大事何如? 且中目錄藥材, 內府家康所求之請, 故不敢不達. 厥價, 橘使方留, 則其物換送, 若不及, 則所求之物, 隨後備送. 毋忽毋忽. 專恃專恃. 段則非貴國所產, 隨後無妨. 伏惟不宣. 一, 牛黃五兩, 一, 麝香一斤, 一, 白蘂二斤, 一, 白蠟一斤, 一, 辰砂二斤, 一, 雄黃一斤, 一, 自然銅二斤, 一, 阿膠二斤, 一, 光明朱三十斤, 一, 無文大傳通匹段, 或紅或(青)一, 字五十餘端, 一, 無金線大紅匹段二十端, 一, 煮綠礬一斤, 【已上十種.】一, 烏紅菊, 若儲則惠送、別無土宜, 烏銃二柄進封, 勿退. 調信押.

평조신의 서계는 다음과 같다.

“제가 이달 17일에 왕경(王京)에서 대마도로 왔는데, 일본의 사세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속히 큰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첨부한 목록(目錄)의 약재(藥材)는 내부(內府) 덕천가강(德川家康)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 그 값에 대해서는 사자 끌지정이 현재 머물러 있으니 그만한 물건을 따져 보내겠습니다. 만일 그 값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물건을 뒤따라 준비해 보내겠으니, 소홀히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꼭 믿고 있겠습니다. 비단은 귀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뒤에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약재의 목록은 우황(牛黃) 5냥(兩), 사향(麝香) 1근, 백렴(白蘂) 2근, 백랍(白蠟) 1근, 진사(辰砂) 2근, 옹황(雄黃) 1근, 장연동(自然銅) 2근, 아교(阿膠) 2근, 광명주사(光明朱砂) 30근, 무문대전통필단(無文大傳通匹段) 홍색(紅色) 혹은 【원문 1자 빠짐.】 50여 단(端), 무금선대홍필단(無金線大紅匹段) 20단, 자녹반(煮綠礬) 1근 【이상 12가지.】입니다. 오홍국(烏紅菊)은 저장해 놓은 것이 있을 경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다른 토산품이 없어서 조총(鳥銃) 2자루를 봉진(封進)하니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조신은 보냅니다.”

▶ 166권 36년 9월 4일 丁巳

忠淸道燕岐縣, 百姓白春希家, 畜雌雞兩年伏卵產雛, 今年化爲雄鷄, 羽毛形色, 正如雄鷄. 尼山縣私奴末叱石家, 雌牛產雄犢, 四脚之外, 又有一脚, 出於項脊間, 橫在背上. 觀察使柳根啓聞.

충청도 연기현(燕岐縣)의 백성 백춘희(白春希)의 집에서 기르는 암탉이 두 해 동안 알을 품어 병아리를 낳는데, 올해에는 수탉으로 변하여 깃털의 모양과 빛이 바로 수탉과 같았다. 이산현(尼山縣)의 사노(私奴) 말길석(末叱石)의 집 암소가 숫송아지를 낳았는데, 네 다리 외

에 또 다리 하나가 목과 등뼈 사이에 나서 등 뒤에 가로 걸렸다. 관찰사 유근(柳根)이 계문하였다.

▶ 168권 36년 11월 8일 庚申

備邊司啓曰：“濟州三邑，今年酷罹風水之災，禾穀大無，蟲災又甚，草木根皮，竝食盡無餘。其處之人，稱說冬前，必不能救荒，則人民將難存活。至於國屯、私屯馬牛，并盡爲飢斃云。此乃振古所無之變也。海南等處米穀三千石運入事，前日已爲啓下，移文本道矣，但慮彼中之事，切急如此，而本道穀食，運入小遲，則後雖爲謀，無及於餓殍矣。急速准數畢運，本州民間形止，更爲詳察啓聞事，全羅巡察使處，下諭何如？”上從之。

비변사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세 고을이 올해 풍재(風災)와 수재(水災)를 혹독하게 입어 화곡(禾穀)이 크게 흉작인 데다 충재(蟲災)까지 심하게 겹쳤으므로 초근목피(草根木皮)마저 남김없이 먹어치운 형편입니다. 그곳 사람이 말하기를 ‘겨울 이전에 반드시 구황(救荒)하지 않으면 백성이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고, 국둔(國屯)·사둔(私屯)의 마소까지도 죄다 굶어 죽을 것이다.’ 하니, 이는 예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해남(海南) 등의 미곡 3천 석을 운송해 들여보내는 일을 전일 이미 계하(啓下)하여 본도(本道)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만, 그곳의 일이 이처럼 매우 급하니 본도의 곡식을 운송해 들여보내는 일이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보려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을 구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급히 액수대로 모두 운송하고 그 고을 민간의 형편을 다시 잘 살펴서 계문(啓聞)하라고 전라도 순찰사에게 하유(下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172권 37년 3월 15일 乙丑

備邊司啓曰：“粘連，老土爲賊，不悛其惡，一面佯爲乞款於茂山，一面侵掠會寧藩胡，蓋肆狶突，極爲痛惋。令茂山僉使，以兵使意，往諭老土曰：“爾與會寧藩胡結怨，不得往來，納款於本堡，邊將輕信爾言，申聞朝廷，朝廷嘉爾向國之誠，特命開市，以爲資活之路。爾當革面悔過之不暇，而攻掠會寧藩胡，無月無之。以此觀之，前日之納款，乃詐也，非誠也。朝廷若知其如此，則將必有問罪之事。前後擄去藩胡及牛馬，一一刷納，然後可知爾誠心云云’，以此往諭，試探其情事，兵使處行移何如？”傳曰：“依允。”

비변사가 아뢰기를,

“점련(粘連)에 ‘노토(老土)가 도둑질을 자행하여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무산(茂山)에 화친을 요청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회령(會寧)의 번호(藩胡)들을 침략하고 있으니, 저돌적으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통분스럽다.’ 하였습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무산첨사(茂山僉使)로 하여금 병사(兵使)의 뜻으로 노토에게 가서 개유(開諭)하기를 ‘네가 회령의 번호와 원한을 맺어 오가지 못하게 되자 본보(本堡)에 와서 화친을 청하였는데 변장(邊將)이 경솔하게 네 말만 믿고 조정에 신문(申聞)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우리나라를 향한 너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개시(開市)할 것을 명하여 생활할 수 있는 방도를 삼게 하였다. 따라서 너는 면모를 일신하여 잘못을 뉘우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할 것인데, 달이면 달마다 회령의 번호를 공략하고 있다. 이를 본다면 전일에 화친을 요청한 것은 곧 거짓일 뿐 성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만일 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장차 반드시 죄를 묻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니, 전후로 잡아간 번호 및 우마(牛馬)를 일일이 쇄납(刷納)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야 너의 성심(誠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가서 개유하여 실정을 탐지해 보라고 병사에게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아뢰는 대로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173권 37년 4월 16일 丙申

丙申/憲府啓曰：“訓練都監，雖是亂後權設，非朝夕可罷。衙門操養親兵，需用浩大，故屯田貿穀，營辦多方，而器械錢糧牛馬之數，只於都監置簿，不爲關由於該曹。以此出納之間、替代之際，不無虛疎之弊。請自今後，該色官員，令該曹，依他例，解由憑準，以爲恒式。關西一路田稅，收儲本道，至於私穀，亦禁船運者，其意有在。自中江開市之後，愚民急於目前交易，不計朝夕，濫費米穀。貪官汚吏偷竊官倉之弊，亦因此而益滋。誠非細慮。關上米穀禁斷事，請令該曹商量處置。”答曰：“依啓。”

헌부가 아뢰기를,

“훈련도감은 난리가 일어난 뒤에 임시로 설치한 기구지만 당장 혁파할 수 있는 성질의 아문이 아닙니다. 친병(親兵)을 양성하느라 수요가 방대하기 때문에 둔전(屯田)도 하고 곡식을 무역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해 가고 있는데, 기계(器械)·전량(錢糧)·우마(牛馬)의 수효를 도감에만 치부(置簿)하고 해조에다 관유(關由)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출납할 때나 체대(替代)할 적에 허술해지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 뒤로는 담당 관원에 대해서 해조로 하여금 다른 관원의 예대로 해유(解由)를 빙준(憑准)하게 하는 것을 일정할 격식으로 삼게 하소서. 관서 일대의 전세(田稅)를 본도에 수납하여 저장하고 사곡(私穀)에 대해서도 또한 배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중강(中江)에 개시(開市)한 뒤부터 우매한 백성들이 눈 앞의 교역(交易)에만 급급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곡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으며, 탐관 오리들이 관창(官倉)의 곡식을 도둑질하는 폐단이 이로 인해 더욱 만연되고 있으니, 참으로 작지 않은 걱정거리입니다. 관상(關上) 일대의 미곡도 무역을 금단하도록 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상량하여 처치하게 하소서.”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174권 37년 5월 25일 乙亥

濟州救荒御史趙誠立, 上民弊若干條, 上令兵曹面啓有曰: “濟州三邑, 國屯馬全盛時, 至多萬餘匹, 今者只存四千八百匹, 而乃曰: ‘自古繁息, 未有如今日之盛云云.’ 此非確論也. 雖曰不合進上, 亦當留養本島, 以責孳息之效, 決不可空其本屯, 移放陸場, 故失馬, 限蘇復勿徵, 則海外人心, 尤極解弛, 更無用心看護之理. 遺失馬, 以布木牛隻代納, 則中間恐就花消, 而牛隻尤難處置, 皆不可施行. 但年久遺失, 其數甚多, 侵徵隣族之弊, 果爲矜惻. 況當凶歉之日, 不可無慰悅之策. 牧官四十四, 旌義、大靜各三十四蠲減, 以施貧殘牧子一分之惠宜當. 若不遣點馬, 則有乖留念馬政、委任照管之本意. 每式年入送, 在所不已, 而近來當事之員, 多非其人, 貽害絕島. 今後姑爲停罷, 或於別遣御史之往, 點閱成籍, 則民不受弊, 而馬政亦不至廢墜, 似爲便益, 各司奴婢, 納米二斗於州倉, 此必爲軍餉, 不可移用於他處, 但牧子二名, 除出一人, 所納二斗米, 姑令許給事, 而至定奉足三人, 并力養護, 難以輕施. 民間私屯, 括出有色雌馬一年二匹爲式, 納放於國屯者, 實爲取種而設, 因一時小弊, 輕革爲難, 但衆所共知無色雌(屯)〔馬〕, 則姑勿徵納. 本島三邑, 防備極繁, 而戍卒單弱如此, 至於旌義, 則率皆以女人定給, 極爲寒心. 所當變通, 而各司奴婢, 換得私賤, 盡充軍伍, 係是新規, 率爾舉行爲難. 軍官久留作弊之事, 曾因御史狀啓, 嚴加禁斷事, 已爲行移, 前官軍官後官, 勿爲仍帶事, 令本道監司, 渡海時譏察, 如有違令者, 北邊充軍何如?” 啓. 依允. 點馬以有名文臣擇遣, 兼廉訪民弊, 守令賢否.

제주구황어사(濟州救荒御史) 조성립(趙誠立)이 민폐에 관해 몇 조목을 올리니, 임금이 병조로 하여금 회계(回啓)하게 하였다. 이에 아뢰기를,

“제주 세 고을의 국둔마(國屯馬)가 아주 번성할 때에는 1만여 필(匹)이나 되도록 많았는데 지금은 단지 4천 8백 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예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번식한 때는 없었다.’ 하는데, 이는 정확한 논의가 아닙니다. 비록 진상(進上)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도(本島)에 두고 키워 번식시키는 효과가 있게 해야지 결코 본둔(本屯)을 비우고 육지(陸地)의 목장으로 옮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실마(故失馬)는 회복될 동안까지 징수하지 않는다면 해외(海外)의 인심이 더욱 극도로 해이되어 다시는 마음을 써 보살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실마(遺失馬)를 포목(布木)이나 우척(牛隻)으로 대납(代納)하게 한다면 중간에서 없어질 우려가 있음은 물론 우척은 더욱 처치(處置)하기가 곤란하니, 모두 다 시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오래된 유실마는 그 수효가 매우 많은데,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이 있으니 과연 딱하고 측은합니다. 더구나 흉년을 당하여 위로하는 계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목관(牧官)에 40필,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에 각각 30필씩을 감해줌으로써 빈궁하고 잔약한 목자(牧子)들에게 일꾼의 혜택이나마 베푸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만일 점마(點馬)를 보내지 않는다면 마정(馬政)에 유의(留意)하여 위임시켜 조관(照管)하게 하는 본의(本意)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식년(式年)마다 들여보내는 일은 그만둘 수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없는 일인데, 요사이 일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허다하여 절도(絶島)에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당분간 정과(停罷)하고서 특별히 보내는 어사(御史) 편에 점열(點閱)하여 마적(馬籍)을 만들게 한다면, 민간이 폐해를 받지도 않고 마정(馬政)도 폐기되지 않아 공평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들에게 고을의 창고에 쌀 2두씩을 바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필시 군량을 위한 것으로 다른 곳에 전용(轉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목자(牧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덜어내어 2두씩 쌀을 내게 하는 것은 우선은 허급(許給)하도록 하소서. 그러나 봉족(奉足) 세 사람을 정하여 힘을 합쳐 돌보아주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의 사둔(私屯)에서 빗깍이 있는 암말을 찾아내어 한 해에 두 마리씩 상례로 국둔에 가져다 놓게 하는 것은 실로 종자를 취하기 위해 하는 것이어서 한때의 소소한 폐단 때문에 경솔히 개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중들이 다같이 알고 있는 빗깍이 없는 암말에 대해서는 우선 징납(徵納)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본도(本島)의 세 고을은 방비가 매우 긴요한데 방수(防戍)하는 군졸이 이처럼 단약(單約)하여, 정의(旌義)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인(女人)들로 정해 주고 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마땅히 변통시켜야 할 것인데,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를 사천(私賤)과 바꾸어 모두 군오(軍伍)에 충당시키는 일은 새로운 규정이 되기 때문에 경솔히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군관(軍官)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폐단을 부리는 일은 일찍이 어사(御史)의 장계(狀啓)에 따라 더 엄중하게 금단하도록 이미 행이(行移)했습니다. 전관(前官)의 군관을 후관(後官)이 그대로 데리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본도(本島)의 감사(監司)가 바다를 건널 때 기찰(議察)하도록 하되, 만일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북쪽 변방에 충군(充軍)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윤택한다. 점마(點馬)는 명망이 있는 문신(文臣)으로 가려서 보내되 겸하여 민폐와 수령이 잘하는지의 여부를 염탐하게 하라.”

하였다.

▶ 186권 38년 4월 16일 庚申

忠淸道按問御史成晉善書啓：

臣按行州郡，廉問守令賢否及不法之事爲白乎矣。淸州牧使韓百謙，慈祥愛民，濟以剛明，斥去俗吏浮華之態，務行敦實之政。當此文教頹廢之時，獨能以興起學校爲己任，公退之餘，每與諸生，講論經義，捐出公用餘財，廣買經籍，使士子興起。沃川郡守張世哲，居官甚謹，自奉太薄，心存愛民，民心喜悅。瑞山郡守金順命，持身清謹，爲政慈祥，一心愛民，民賴以安。林川郡守李愼儀，爲政寬和，民無怨言。牙山縣監姜克裕，恭愼奉職，民亦便之。忠州牧使辛慶晉，纔赴所任，已有善治之聲，而在任日淺，未敢輕議。尼山縣監黃宅中，居官履民，不成模樣。下吏乘時群起而作弊，百姓如在水火之中，又濫率成婚女子。恩津縣監李大河，別無病民之政，而濫率成婚女子。臣比到其縣，始爲出送。韓山郡

守金興國，麤鄙近利，多行不義之事，經營生業於隣邑至近之地，十目所視，殊無忌憚之意。又濫率法外家屬，臣巡到其郡，則暫避近地，臣行纔過，又復率來。溫陽郡守柳德新，居官不謹，毀謗甚多，民有蹙額之怨。又濫率成婚女子，聞臣到界，始爲發送。報恩縣監申守淇，非但拙於居官，家在本縣至近之地，多有不美之言。公州判官尹趙，處事顛倒，刑罰慘刻。一度褒獎之後，便生驕恣之心，惟意所在，不顧事宜。州居故品官金得亨，有妾女子，許嫁於人，媒約已成，都事柳仲龍聞其富於財產，欲奪爲妾，其家拒而不從。趙欲悅仲龍之心，盡囚其家奴子，脅以官威，其家迫不得已，涕出而女焉。一道之人，言及此事，莫不扼腕而言曰：‘朝廷無人，使守令，行胸臆至此。’鎭岑一縣，廢屬本州，蓋欲少紓民困。而趙視屬縣若秦瘠，屬縣所納柴草雜物，許令本州之民防納，縣民不勝其苦，見臣號泣，咸願復立其縣，以免州人防納之弊。生牛宰殺，國法有禁，而臣巡到之日，公然以牛肉供具，臣不勝驚駭，卽命撤去，因廉問用肉之路，則皆貧殘人吏，不勝支當，至有破產逃走者云。此外別無所聞。

충청도안문어사(忠淸道按問御史) 성진선(成晉善)이 서계(書啓)하였다.

“신이 주군(州郡)을 안행(按行)하면서 수령들이 현부(賢否) 및 불법에 대한 일을 탐문하였습니다. 청주목사(淸州牧使) 한백겸(韓百謙)은 자상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강명(剛明)하게 다스려, 속리(俗吏)의 부화(浮華)스런 작태를 물리쳐버리고 힘써 돈실(敦實)한 정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교(文教)가 퇴폐된 때를 당하여 홀로 능히 학교를 흥기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아 공무에서 물러나온 여가에는 언제나 제생(諸生)과 함께 경의(經義)를 강론하고, 공용의 남은 재물을 덜어내 경적을 널리 구입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수(沃川郡守) 장세철(張世哲)은 벼슬살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하여 자신을 봉양함을 너무나 박하게 하고 마음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으므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서산군수(瑞山郡守) 김순명(金順命)은 몸가짐을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며 정치를 자상하게 하여 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므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임천군수(林川郡守) 이신의(李愼儀)는 정치를 너그럽고 온화하게 하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산현감(牙山縣監) 강극유(姜克裕)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봉직하므로 백성들이 역시 편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충주목사(忠州牧使) 신경진(章慶晉)은 임소에 부임하자마자 벌써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있지만 재임 날짜가 얼마 안 되어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산현감(尼山縣監) 황택중(黃宅中)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형편없어 하리(下吏)들이 이를 틈타 떼지어 일어나 폐단을 저질러 백성들이 수화(水火) 속에 있는 것 같으며, 또 성혼(成婚)한 딸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은진현감(恩津縣監) 이대하(李大河)는 별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사는 없지만 성혼한 딸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다가 신이 그 고을에 도착하자 비로소 내보냈습니다. 한산군수(韓山郡守) 김흥국(金興國)은 거칠고 비루해서 재리를 가까이 하여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행하는데, 이웃 고을 가까운 곳에서 생업(生業)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시하여도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습니다. 또 법외의 가축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는데 신이 순찰하여 그 고을에 당도하자 잠시 가까운 곳으로 피신시켰다가 신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행차가 지나가자마자 또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온양군수(溫陽郡守) 유덕신(柳德新)은 벼슬살이를 조심스럽게 못하여 비난이 매우 많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또 성혼한 딸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다가 신이 경계에 도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떠나보냈습니다. 보은현감(報恩縣監) 신수기(申守淇)는 벼슬살이에 서툰 뿐만 아니라, 집이 본현(本縣)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불미스러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주판관(公州判官) 윤길(尹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두서가 없어 형벌이 참혹하고 각박하며 한번 포장(褒獎)을 받은 뒤로는 바로 교만 방자한 마음이 생겨 제멋대로 행사하면서 사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주에 거주하는 고 품관(品官) 김득형(金得亨)이 첩에게서 난 딸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시집보내기로 허락하여 중매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도사(都事) 유중룡(柳仲龍)이 그가 재산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빼앗아 첩으로 삼고자 하니, 그 집에서 저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길은 중룡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여 그 집의 종들을 모조리 수감하고 관가의 위세로 협박하니, 그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온 도내 사람들이 이 일에 언급되면 분개하여 말하기를 ‘조정에 인물이 없어 수령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잠현(鎭岑縣)을 폐하고 본주(本州)에 소속시킨 것은 백성들의 곤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길은 속현(屬縣)의 안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속현에서 바치는 시초와 잡물을 본주 백성들로 하여금 방납하도록 하니, 속현 백성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신을 보고는 울부짖으면서, 모두들 그 현을 다시 세워 공주 사람들이 방납하는 폐단을 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소를 도살하는 것은 국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신이 순찰하여 도착한 날 공공연히 쇠고기로 대접하기에 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그 즉시 치우도록 명하고, 이어 쇠고기를 들여온 경로를 탐문해 보니 모두 가난하고 잔약한 아전들이 바친 것으로서,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고 도주한 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 190권 38년 8월 1일 癸卯

卯時, 經筵. 上御別殿, 領事沈喜壽、特進官申礪・金晬同知事許頊、參贊官洪湜、參贊官宋應洵、司諫柳永謹、掌令李忠養、記事官李惕、典經奇協、記事官任章・李倪入侍. 讀《周易》睽卦.

~중략~

晬曰: “今此之災, 古所未聞. 自上修省之道, 非在下之臣, 所敢容喙, 而在下之人, 亦莫不有過. 士大夫及諸宮下人等, 作弊甚多, 災異之作, 豈無所由乎? 途路之言, 雖未盡信, 而折木、山崩之變, 振古亦罕. 諸臣盡爲陳弊, 固無所更達矣. 然而, 此非可娛之時, 而時俗以崇飲爲事, 閭閻聲樂不絕, 人心之不淑, 可知矣.” 喜壽曰: “民之憔悴, 莫甚於此時, 聲音不絕於閭里. 自上若不禁戢, 則其何以止之乎?” 上曰: “今世之崇飲者如是耶?” 喜壽曰: “然矣.” 晬曰: “外方則宴樂, 無異平日云矣.” 永謹曰: “黃州、公州, 殺牛甚多, 一月所屠, 幾至十餘. 徵米民間, 質牛而用, 以爲定式. 公州乃監司所在處, 而尤

甚云, 摘發懲治爲當矣. 上曰: “如此等事, 憲府自爾禁之.” 晬曰: “士大夫, 氣習頓變. 士大夫如此, 奈如之何?” 喜壽曰: “貢物防納事, 實是巨弊, 而膏肓之疾也. 若一分蠲減, 則民生稍蘇矣.” 晬曰: “外方民生之困, 專在於此矣.” 喜壽曰: “諸宮之事, 自上豈能盡爲洞燭乎? 士大夫亦有爲之者云.”

이하생략~

묘시에 경연이 있었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니, 영사 심희수(沈喜壽), 특진관 신잡(申礫)·김수(金晬), 동지사 허욱(許頊), 참찬관 홍식(洪湜), 참찬관 송응순(宋應詢), 사간 유영근(柳永謹), 장령 이충양(李忠養), 기사관 이척(李惕), 전경(典經) 기협(奇協), 기사관 임장(任章)·이현(李僎)이 입시하였다. 《주역》 규괘(睽卦)를 강하였다.

~중략~

김수는 아뢰기를,

“이번의 수재는 전고에 듣지 못하던 것입니다. 상께서 수성(修省)하는 도리에 대해 아래 있는 신하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랫사람들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대부와 제궁(諸宮)의 하인들이 저지르는 작폐가 매우 많았으니, 재변의 발생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거리에 나도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나무가 꺾이고 산이 무너지는 변괴는 옛날에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신(諸臣)들이 폐단을 다 진달하였으니 신은 다시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닌데도 시속이 연음(宴飲)을 숭상하여 여염에서 음악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인심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백성들의 초체함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는데 여염에서는 음악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께서 금지시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연음을 숭상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하자, 희수가 그렇다고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외방은 연락(宴樂)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합니다.”하고, 영근은 아뢰기를, “황주(黃州)·공주(公州)에서는 소를 도살하는 일이 매우 많아서 1개월에 도살하는 것이 거의 10여 두에 이르는데, 백성에게 쌀을 징수하여 소를 사서 쓰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공주는 감사가 주재하고 있는 곳인데도 더욱 극심하다고 하니, 적발하여 정치(徵治)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등 등의 일은 헌부에서 알아서 금지시키라.”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사대부들의 기습(氣習)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사대부들이 이러니 어찌면 좋겠습니까.”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공물을 방납하는 것은 실로 큰 폐단이요 악성 고질입니다. 조금이나마 견감해 준다면 민생이 점차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외방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은 전적으로 이 때문입니다.”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제궁에 대한 일을 위에서 어떻게 다 통촉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대부 가운데도 그런 짓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하생략~

▶ 191권 38년 9월 28일 己亥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己亥/卯時, 上引見體察使韓孝純. 上謂孝純曰: “卿自疇昔, 久勞于外, 今又授體察之任, 殊爲未安. 然國事如此, 更加勉力, 知無不言; 事無不爲.”

~중략~

上曰: “予不知故事, 故問之耳. 古所無者, 今而始出乎? 近來災變, 甚爲駭異, 若指爲某事之應, 則非徒固滯, 亦甚無理. 第未知將來之事, 爲何如也.” 對曰: “臣前在平安道乍聞, 老酋自謂: ‘致誠於朝鮮, 而朝鮮之待我者甚薄.’ 云. 臣之意以爲, 待夷狄之道, 不可激之生變也. 雖與上國密邇, 不可與相交, 然待之之際, 稍示厚意可也. 且臣在平壤時, 通事李海龍以開諭老酋, 轉諭忽 賊之事, 齎咨文往軍門. 臣之妄料, 老酋之心以爲: ‘朝鮮何不直諭, 而藉上國以壓之乎?’ 若然, 則無釁而挑彼之怒也. 業已用權道, 爲此舉則今自我國通之, 或令監司、邊將, 爲書直諭可也. 兵家之事, 不可執一而行之, 或使解彼之怒; 或使感我之德, 務使兇醜, 不爲生變, 策之上也.” 上曰: **“然. 胡俗自中相攻, 必爲殺牛祭天, 而阿叱耳亦如是爲之, 何也?”** 對曰: “胡人進告之說, 例爲不實, 虛言十常八九, 不足信也.” 上曰: “予所問者, 欲知胡俗, 果如是否也? 其言之虛實, 固不可知也. 對曰: “臣未能詳知也.” 忽溫出來時, 必請如許、蒙古合兵而來, 其勢似不强盛矣.”

이하생략~

묘시(卯時)에 상이 체찰사 한효순(韓孝純)을 인견하였다. 상이 효순에게 이르기를,

“경은 전부터 오랫동안 외임(外任)으로 수고하였는데, 지금 또 다시 체찰의 임무를 맡기니 사뭇 미안하다. 그러나 국사가 이와 같으니 더욱 힘써서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모두 성취하라.”

하니,

~중략~

상이 이르기를,

“내가 고사를 모르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옛날에 없던 것이 오늘날 처음 나왔단 말인가? 근래의 재변은 몹시 놀라운데 만약 어느 일에 대한 보응이라고 지적하면 이는 고집스런 생각일 뿐 아니라 또한 매우 무리하다. 그러나 앞날의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니, 아뢰기를,

“신이 전에 평안도에 있을 때 잠깐 들었는데 노추가 스스로 ‘조선에 대해 정성을 다하였는데도 조선은 우리를 대함에 있어 몹시 박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적을 대하는 도리는 공연히 충격을 주어 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록 중국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저들과 서로 사귀기는 불가하나 접대할 즈음에 약간의 후의를 보이는 것이 가합니다. 또 신이 평양(平壤)에 있을 때 통사(通事) 이해룡(李海龍)이 노추(老酋)를 개유(開諭)하여 홀적(忽賊)에게 전유(轉諭)한 일로 자문(咨文)을 가지고 군문(軍門)으로 갔는데,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노추의 마음에, 조선은 왜 직접 개유하지 않고 중국을 빌어 압력을 가하는가 할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혼단이 없는 데 그들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이미 권도를 써서 이 일을 행한 적이 있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직접 통하되 혹은 감사나 변장으로 하여금 글을 만들어 개유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병가(兵家)의 일은 하나만을 고집하여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 저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기도

하고 혹 우리의 덕의에 감동하게도 하여 흉추(凶醜)로 하여금 변을 내지 못하게 함이 제일의 상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나 오랑캐의 풍속은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면서도 반드시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하였는데, 아질이(阿叱耳) 역시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아뢰기를,

“호인이 진고(進告)하는 말은 대체로 진실치 못하여 허언이 십에 팔구는 되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묻는 의도는 오랑캐의 풍속이 과연 이와 같으냐는 것이다. 그 말의 허실을 실로 알 수 없다.”

하니, 아뢰기를,

“신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홀온(忽溫)이 나올 때 여허(如許)·몽고(蒙古)의 군사와 합병하여 왔으니 그들의 세력이 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하생략~

▶ 192권 38년 10월 4일 乙巳

備邊司啓曰：“北塞，寒苦之地，千里防戍之勞，其在平時，已不可勝言。今年爲緣有警，前後調發諸道添防之軍，幾已准到。并與南北道應戍之卒而計之，則其數至於萬餘，軍勢頗振，邊情稍有所恃。而大衆聚會，暴露已久，慰諭聳動之舉，似不可已。宜及此時，別遣御史，齎奉教書，設行犒宴，仍將前日下送落幅紙二千張及狗皮等物，擇軍中尤甚衣薄者俵給，諭以朝廷德意，則未必無挾纊投醪之感矣。犒軍時酒饌，當自本道措備，而既曰犒軍，則不可不宰牛饗之。北道未及入送木綿二百九十一匹，方在本司，御史下去時，使之齎往，令本道優賃牛隻，以補其用爲當，敢啓。”傳曰：“允。”

비변사가 아뢰기를,

“북방은 추위가 극심한 곳이라서 천리 밖에서 방수(防戍)하는 그 노고는 평시에 있어서도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인데, 금년에는 경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전후에 걸쳐 조발(調發)한 제도(諸道)의 첨방군(添防軍)이 거의 다 도착하였습니다. 남북도의 응수군(應戍軍)을 아울러 계산하면 그 숫자가 1만여 명에 이르러 군세(軍勢)가 자못 강대하고 변방의 정세가 좀 믿음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군이 모여 풍찬 노숙을 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들을 위로해주고 권장해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이때 특별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교서(敎書)를 선포하고 호연(犒宴)을 베푸는 한편 이어 전일에 내려보낸 낙폭지(落幅紙) 2천장과 구피(狗皮) 등의 물건으로 군사들 가운데 지나치게 옷이 얇은 자를 골라서 입히고 조정의 덕의를 회유하면 반드시 비단을 내리고 술을 내린 것과 같은 감격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다. 호군(槁軍)할 때의 주찬(酒饌)은 본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미 호군한다고 하였으면 소를 잡아서 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도에 미쳐 들여보내지 못한 목면 2백 91필이 본사에 있으니, 어사가 내려갈 때 그에게 맡겨보내어 본도로 하여금 소를 너덕하게 사서 그 비용에 보태게 하는 것이 좋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195권 39년 1월 2일 辛未

下備忘于政院曰：“工曹，生牛皮外方多數卜定，必有殃及農牛之弊。京中無屠牛處乎？生牛皮貿諸京中，不可勝用矣，何必竝此徵之於外方乎？言于工曹，更爲參酌施行。”

【史臣曰：“大哉，王言！一下而澤洽黎庶；恩及禽獸，仁民愛物之德，嗚呼，至矣。”】

정원에 비망기를 내렸다.

“공조에서 생우피(生牛皮)를 외방에다 다량 복정(卜定)한다면 반드시 그 피해가 농우(農牛)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서울에는 소를 잡는 곳이 없다는 말인가. 서울에서만 사들여도 이루 다 쓰지 못할 터인데 외방에서 징수하려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공조에 일러서 다시 착하여 시행하게 하라.”

사신은 논한다. 위대하다, 임금의 말씀이 한 번 내려지자 그 덕택은 온 백성을 흠족하게 하였고 은혜는 금수에게까지 미쳤으니, 백성을 사랑하고 생물을 아끼는 그 은덕이 아, 그지 없도다.

▶ 195권 39년 1월 22일 辛卯

李德馨遭母喪，起復爲吏曹判書，偃然行公於政廳，以墨色天益，常參政事。亂離中以軍務起復者，則猶有可諉，而德馨則貪戀利祿，無復人理。及爲訓練都監提調，以都監爲私庫，日取米布用之。又於南大門外，私造大家，使兵曹軍士，公然修墓，取用別營材木。如微賤人朴子羽者，亦於衆中，大言其驕鄙縱恣之狀。且士人蔡禎先及其弟文士蔡慶先，言於朝紳間曰：“德馨之父爲文化縣令時，德馨出空名告身百餘張，潛鬻於文化地，買得數百牛，置於通津農所，放牧時野爲之黃。”云。禎先之兄吉先，代德馨父爲文化縣令，又往來通津，故目見於兩處而言之。但少有才，以反覆趨勢爲長技，南人有生氣，則作南人之態；又持酒往西人金、權家，爲西人之言；小北將盛時，首薦柳永慶，一時之人皆見其肺肝。德馨亦自言曰：“爲大官者，必累度翻然後，可以爲政丞。”云。朝士俞大禎笑而答之曰：“然則大監翻轉，幾度乎？”德馨有慙色。鄭澈當己丑羅織之日啓達曰：“鄭汝立起兵湖南，有從嶺南起者；有從京中起者。”云，其意則蓋欲以此，而陷嶺南崔永慶、鄭仁弘、柳成龍等；京中李潑、李洁、鄭彦信、白惟讓等之計也。上曰：“知此言者，與此謀。

卿何從聞此言乎?” 問事郎廳申礪, 往傳此批答, 澈語窮, 言于礪曰: “君爲此言矣.” 礪曰: “小人則不知也.” 澈乃回啓曰: “李恒福言之矣.” 恒福與澈同惡相濟之狀如此, 而至於台鼎, 豈不怪哉?

이덕형(李德馨)이 모상(母喪)을 당한 뒤에 이조판서에 기복(起復)되어 정청(政廳)에서 버섯이 행공(行公)하고 흑색친의 차림으로 늘 정사에 참여하였다. 난리 중에 군무로 말미암아 기복하였다면 그래도 덜 핍계가 있겠지만 덕형의 경우는 이록(利祿)을 탐내어 이렇게 나왔으므로 사람의 도리를 다시 찾아볼 수 없다. 훈련도감제조로 있을 적에는 도감을 사고(私庫)로 삼아 날마다 쌀과 베를 가져다 썼고 또 남대문 밖에 사사로이 큰 집을 지었는데 병조의 군사로 공공연히 터를 닦게 하고 별영(別營)의 재물을 가져다 썼다. 미친한 사람 박자우(朴子羽)도 대중 앞에서 그의 추잡하고 방자한 작태를 큰 소리로 비난하였다. 그리고 사인(士人) 채정선(蔡禎先) 및 그의 아우 문사(文士) 채경선(蔡慶先)이 조신(朝臣)들에게 말하기를,

“덕형의 아버지가 문화현령(文化縣令)으로 있을 적에 덕형이 공명첩(空名帖) 1백여 장을 내어다 몰래 문화현 일대에 팔아 소 수백 마리를 사들여서 통진(通津)에 있는 농장에 두었는데 이 소를 방목할 때 들판이 누렇게 되었다.”

하였다. 이는 정선의 형 길선(吉先)이 덕형의 아버지 후임으로 문화현령이 되었고 또 통진을 오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곳을 직접 보고 말한 것이다. 다만 재주가 조금 있어 기회에 따라 아첨하는 것을 장기로 삼았다. 남인(南人) 쪽이 생기가 보이자 남인의 행세를 하는 한편 또 술을 가지고 서인(西人) 김(金)·권(權)의 집에 찾아가서 서인을 위한 말을 했고, 소북(小北)이 흥성할 무렵에는 맨 먼저 유영경(柳永慶)을 추천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덕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큰 벼슬을 하는 자는 반드시 누차 변절한 뒤에야 정승이 될 수 있다.”

하니, 조사(朝士) 유대정(兪大禎)이 웃으며 답하기를,

“그렇다면 대감은 몇 번이나 변절하였소?”

하자, 덕형이 부끄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정철(鄭澈)이 기축 옥사 때 계달하기를,

“정여립(鄭汝立)이 호남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영남에서 일어나는 자도 있고 경중에서 일어나는 자도 있습니다.”

하였다. 이 의도는 이를 계기로 영남의 최영경·정인홍(鄭仁弘)·유성룡(柳成龍) 등과 경중의 이발(李潑)·이길(李洁)·정언신(鄭彦信)·백유양(白惟讓) 등을 무너뜨리려는 계책이었다. 상이 이르기,

“이 말을 아는 자는 이 모사에 참여한 것이다. 경은 어디에서 이 말을 들었는가?”

하였는데, 문사낭청(問事郎廳) 신잡(申礪)이 이 비답을 전하자 정철이 말이 궁색하여 신잡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이 말을 하지 않았소.”

하였다. 이에 신잡이 자신은 모른다고 하니, 정철이 회계하기를,

“이항복이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항복이 정철과 동악 상제(同惡相濟)한 실상이 이와 같았는데 정승에까지 올랐으니, 어찌 괴이쩍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195권 39년 1월 23일 壬辰

午初, 上御別殿, 引見領議政柳永慶、左議政奇自獻、右議政沈喜壽、館伴李好閔、遠接使柳根、都承旨尹昉、記事官徐景雨、天使假注書郭天豪、記事官吳翊·俞學曾入侍。
~중략~

沈喜壽曰: “去番天使之奇, 適於經筵日入啓, 小臣亦在入侍之班. 自上下教曰: ‘凡接待之事, 專以至誠而已, 酬酢務勝之意, 元是不可. 且雖欲勝, 亦不可及矣.’ 如是下教, 尤爲丁寧矣.” 柳根曰: “今此天使之來, 大臣承命, 來會賓廳, 亦邀小臣, 將屬以遠接之任. 臣於大臣坐間謂: ‘酬酢唱和, 乃是餘事’ 云云, 則大臣或: ‘謂唱和一事, 亦不可忽’ 云矣.” 沈喜壽曰: “前日下教之意至矣. 接待之際, 必致至誠, 至誠之外, 果無他事? 但酬酢一事, 亦不可忽也. 中朝遣使於我國, 必擇文學之士以差之. 至於酬酢之間, 亦有不及, 則此非細事. 臣意以爲, 當爲第二事矣.” 上曰: “此, 自古爲之之事. 予意, 非謂不可爲, 大概待人, 以至誠爲本. 雖在接朋友、待下人, 亦必以至誠, 況於上國之人乎? 予接見天將, 雖至秩卑武將, 不敢小忽, 況於詔使乎? 遠接使去時, 予有教送之事矣. 我國人心巧詐, 無眞實之意, 是甚可慮. 予亦多接天使, 前日所經之事, 尚可歷記. 許國天使, 嗜進駱粥, 每朝早飯, 必進駱粥. 至某地, 亦依前進之, 則天使小領, 還止撤. 後怪而視之, 乃於白粥之上, 被以駱粥矣. 又一天使到館, 上使之撤屏, 則屏風上露見處外, 屏風所障蔽之內, 則全不塗褙, 陋莫甚云, 待人之道, 豈可如是? 唐阜天使到西路, 某官有一僧人, 以詩投呈, 天使曰: ‘汝雖以儒說製來, 我則以禪語製答.’ 遂爲次給云. 僧人敢以詩, 進天使前, 豈有如此事也? 又有一事焉, 男女混處, 元非禮義之事, 是甚可愧者. 前日有一天使, 以女樂及執役女人禁止事, 書于白牌以送云. 大概女人, 不可使行走於天使所見處也. 近來接見天將, 及至門衙, 則熟設之處, 女人負兒執役, 啼哭之聲, 喧聞于外, 豈有如此事乎? 邢軍門作接待之圖, 而女人之戴陶盆, 奔忙之狀, 亦爲繪畫云, 中原女人, 豈有執役之理? 今此天使時都監事目, 嚴禁女人, 而事目, 自前視爲尋常, 慢不舉行, 平安、黃海、京畿一路, 卿可一切嚴禁, 勿使女人執役. 且京中女人皆坐市, 中原豈有女人爲市?” 柳永慶曰: “中原無女人爲市者.” 尹昉曰: “天使留京, 多不過十日十日之內, 市街女人一切禁斷. 且天使入京時, 女人觀光者, 如不能一切禁止, 則臣見山海關出入之人, 男左女右. 今亦男左女右事, 令漢城府五部, 前期知委施行. 若各衙門則各別申飭, 禁斷何如?”

오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영경(柳永慶), 좌의정 기자헌(奇自獻), 우의정 심희수(沈喜壽), 관반 이호민(李好閔), 원접사 유근(柳根)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윤방(尹昉), 기사관 서경우(徐景雨), 조사 가주서(詔使假注書) 광천호(郭天豪), 기사관 오익(吳翊)·유학증(俞學曾)이 입시하였다.

~중략~

심희수가 아뢰기를,

“지난번 사신이 나온다는 기별이 마침 경연(經筵)을 열고 있던 날에 입게되어서 소신도 입시한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때 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무릇 접대의 일이란 오로지 지성으로 할 따름이지 수작으로 승부를 겨루려는 뜻은 본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여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더욱 적절합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이번 사신이 나올 적에 대신들이 명을 받들고 빈청에 와 모여 소신도 불러다가 원접의 임무를 맡기려 하기에, 신이 대신들의 좌중에서 ‘수작하고 창화(唱和)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니, 대신들 가운데 어떤 이가 ‘창화하는 일만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전일 하교하신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접대할 즈음에는 반드시 성의를 다하여야 하는 것으로 성의를 보이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수작하는 한 가지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낼 적에는 반드시 문학하는 인사로 가려서 차출하므로 수작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생각으로는 창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예부터 해온 일이다. 나의 뜻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접대하는 데 지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벗이나 하인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성으로 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중국인의 경우이겠는가? 내가 중국 장수를 접견할 때는 아무리 관질이 낮은 무장이더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조사이겠는가? 원접사가 떠날 적에 내가 분부하여 보낼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인심이 교사하여 진실한 뜻이 없으니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나도 사신을 많이 상대해 보았기 때문에 지난날 경험한 일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조사 허국(許國)이 타락죽을 즐겨 먹어서 매일 이른 아침이면 반드시 타락죽을 대접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인가 전대로 타락죽을 대접하니, 사신이 조금만 먹고 곧 그만두었다. 나중에 꺾이쩍어서 그 죽을 보았더니 이는 흰죽 위예다 타락죽을 띄운 것이다. 또 어느 조사가 관사(館舍)에 도착하여 상사(上使)가 병풍을 걷으라고 하였더니 병풍 위의 보이는 곳에 병풍으로 가려진 곳은 도배를 전혀 하지 않아 더럽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하였다.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조사 당고(唐皐)가 서로(西路)의 어느 고을에 도착하였는데 어떤 중 한 사람이 시를 지어 올리니 사신이 ‘그대가 유가의 학설로 지어 올렸으나 나는 불가(佛家)의 말로 지어 수답하겠다.’ 하고 드디어 차운하여 주었다고 한다. 중이 감히 사신 앞에 시를 지어 올리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다.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은 원래 예의의 일이 아니니,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날 어떤 사신이 여악(女樂) 및 심부름하는 여인을 금지하여 달라고 백패(白牌)를 써서 보내왔었다고 한다. 여인은 사신이 보는 곳에 나다니게 할 수 없다. 근래 중국 장수를 접견하여 문야(門衙)에 이르렀을 적에 음식을 장만하는 곳에서 여인들이 아이를 업고 심부름을 하므로 아이의 울음 소리가 바깥까지 요란하게 들렸으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형 군문(邢軍門)이 접대도(接待圖)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인이 질항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아리를 이고 달음질치는 모양도 그려졌더라고 한다. 중국의 여인이 어찌 심부름을 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이번 사신이 나올 때의 도감사목(都監事目)에는 여인을 엄금하도록 하였으나 전부터 이 사목을 심상히 보아 넘긴 채 거행하지 않았다. 평안·황해·경기 일로(一路)는 경이 일체 엄금하여 여인이 심부름을 하지 말도록 하라. 또 서울에서는 여인이 다 좌시(坐市)하는데, 중국에서야 어찌 여인이 시장을 열겠는가?”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중국은 여인이 시장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하고, 윤방은 아뢰기를, “조사가 서울에 머무를 날이 많아 열흘인데 열흘 동안은 시가(市街)에 여인들을 일체 금단하소서. 그리고 조사가 서울에 들어올 적에 구경하는 여인들을 일체 금할 수가 없다면, 신이 산해관(山海關)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다녔는바, 이번에 우리도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다니게 할 것을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로 하여금 미리 알려서 시행하게 하고, 각 아문은 각별히 신칙하여 금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 201권 39년 7월 11일 戊寅

咸鏡道觀察使李時發馳啓: “忽賊來攻縣城, 翌日退歸, 太似無端. 臣慮或有自中私和之事, 且未知城中入守者幾許, 相戰節次又復何如, 移文北兵使李時言處, 詳細探訪, 得實飛報矣. 今據李時言回報辭緣則 ‘兵使令訓戎僉使元守身, 定送出身李輔仁等, 入送縣城, 密察事情, 則酋胡等皆言: 『二十三日夜間, 不意來襲. 酋胡小者老出外被擄, 忽賊等送言城中曰: 『仇乙伊許給, 則不戰自解.』云云. 所謂仇乙伊, 胡語, 不戰相和之意. 答曰: 『仇乙伊決不可許給. 固爲相戰, 以決勝負.』云云, 則忽賊曰: 『者老, 旣爲被捉, 仇乙伊不給, 則不好.』云云者老哀乞給牛, 刷還其身, 故憐其者老之情, 牛一隻許給, 刷還而已, 別無謁攀退兵之理. 二十四日黎明, 忽賊長梯七十餘造作, 兩處分犯, 一時登城之際, 或射或擊, 盡心力戰, 故不勝退兵. 相戰時忽賊中箭者, 無不穿甲, 而墮落致死者十一名, 二名載去、九名野中埋置, 而軍馬亂踏, 不知埋處, 中箭者不知其數.』云. 守城胡則縣城元居胡三百餘名, 深處時者隱多、雪里多兩部合三十名, 夫汝只酋胡楊雙阿父子及新所羅部落二十餘名、鋤應仇乃十五名、望見部落十餘名, 疊入元居, 合計三百七十五名. 中箭者三十一名內, 二名卽死、二十八名不至死亡, 中箭傷處, 爭相來示於李輔仁處. 城中首倡力戰者, 則酋長吾乙古大、大者老、阿尙、阿萬、浩代叱、耳年老等.’ 云. 據此參詳則其相戰不利退歸, 似爲不虛, 而不爲久圍取服, 一戰遽退, 未曉其故. 聞, 縣城之胡, 初怯於沙砮之見陷, 盡皆散去, 入守者, 壯弱竝三百餘名. 及至忽賊不利而還然後, 散去諸胡, 皆以縣城爲可恃, 還聚入據, 以爲共守之計云. 忽賊密以秋來再攻相議, 前頭事機, 未知如何. 大概忽賊, 旣以件退爲巢穴, 以對會、鍾, 又據沙砮, 以掣穩城, 必將取據縣城, 以敵兩慶. 其連絡形勢, 以爲雄置江外之計, 不容但已, 若縣城更爲此賊所據, 則其密邇, 切迫之患, 不但如件退、沙砮而已. 此後之事, 誠多可虞. 保全縣城之策, 在所汲汲, 而但在我無如之何也已. 臣方密通兵使李時言處, 使水下諸部, 乘此一勝, 更圖

堅守事，勸諭計料。今此縣城守城酋胡等，似不無獎賞之舉。而忽胡聞之，或以爲怨，若不論賞，則亦無以後事之勸，何以處之？朝廷籌度指揮事。”啓下備邊司。

함경도관찰사 이시발(李時發)이 치계하기를,

“홀적(忽賊)이 와서 현성을 공략하다가 이튿날 물러갔는데, 너무나 무단한 짓 같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들 자체에서 사사로이 화친한 일이 있었는가 싶었고, 또 성안에 들어가 수비하고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되며 서로 싸운 절차가 또 어떠하였는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북병사 이시언(李時言)에게 통첩을 보내, 자세히 탐방하여 사실대로 빨리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시언이 회답한 내용에 의하면 ‘병사가 훈융첨사(訓戎僉使) 원수신(元守身)으로 하여금 출신(出身) 이보인(李輔仁) 등을 염탐꾼으로 정하여 현성으로 들여보내 사정을 은밀히 살피게 하였다. 추호(酋胡)들이 모두 말하기를, 「23일 야간에 뜻밖에 습격해 왔다. 추호 소자로(小者老)가 밖에 나갔다가 붙잡혔는데, 홀적 등이 『구을이(仇乙伊)를 허락한다면 싸우지 않고 포위를 풀겠다.』고 성안에 알려왔다. 이른바 구을이란 오랑캐의 말로서 싸우지 않고 서로가 화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화해는 결코 허락할 수 없다. 꼭 서로 싸워서 승부를 가리자.』고 회답하였더니, 홀적이 『소자로가 이미 붙잡혔으니 화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자로가 소를 보내 그의 몸과 바꾸게 해달라고 애걸하였기 때문에 소자로의 사정을 가엾게 여겨 소 한 마리를 주고 교환해 왔을 뿐이고, 별로 군대를 물리라고 찾아가 부탁한 것은 없었다. 24일 먼동이 틀 무렵에 홀적이 긴 사닥다리 70여개를 만들어 두 곳으로 나누어 대고 침범하여 일시에 성으로 오르려고 하였다. 그때에 활을 쏘기도 하고 무기로 치기도 하면서 마음을 다해 힘껏 싸웠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퇴군하였다. 서로 싸울 때에 화살을 맞은 홀적들은 모두 갑옷이 뚫리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망자가 11명이나 되었는데, 2명은 실어 갔고 9명은 들판에 묻어 놓았다. 그런데 군사와 말들이 어지럽게 짓밟아버렸으므로 묻은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으며, 화살을 맞은 자도 그 수효를 알수 없다.」고 하였다. 성을 지킨 오랑캐는 성에 원래 사는 오랑캐가 3백여명이고, 심처야인인 시자은다(時者隱多)·설리다(雪里多) 두 부락을 합해서 30명이고, 부여지(夫汝只)의 추호 양쌍아(楊雙阿) 부자(父子) 및 신소라(新所羅) 부락이 20여명이고, 서응구내(鋤應仇內)가 15명이고, 망견(望見) 부락이 10여명인데, 원래 사는 인원(人溫)에다 더하면 합계가 375명이다. 화살을 맞은 31명에서 2명은 즉사하였고, 29명은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화살에 맞아 상처난 곳을 이보인에게 서로 앞을 다투어 와 보였다.

성안에서 힘껏 싸울 것을 주창한 자는 추장 오을고대(吾乙古大), 대자로(大者老), 아상(阿尙), 아만(阿萬), 호대질(浩代叱), 이년로(耳年老) 등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참작하여 보건대, 서로 싸우다 이롭지 못하자 물러간 것은 헛말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오래 포위하여 항복을 받지 아니하고 한 번 싸워보고 갑자기 물러간 까닭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현성의 호인이 처음에 사채(沙磤)가 함락됨을 보고 겁을 먹어 모두 흩어지고 들어가 지킨 자는 장정과 노약자를 합해서 3백여 명이었습니다. 홀적이 불리하여 돌아간 뒤에야 뿔뿔이 떠났던 여러 호인들이 모두 현성이 믿을 만하다고 여기고 도로 모여들어 자리를 잡고 함께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호적이 오는 가을에 다시 공략하려고 은밀히 서로 상의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사태의 기틀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홀적이 이미 건퇴(件退)로 소굴을 삼아 회령(會寧), 종성(鍾城)과 대치하고 있으며, 또 사체에 웅거하여 온성(穩城)을 견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 현성을 빼앗아 웅거하여 양경(兩慶)과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형세를 연결해 강 밖에서 웅거할 꾀를 꾸밀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 만일 현성이 다시 이 적들에게 점거된다면 국경에 인접하여 절박한 우환이 건퇴나 사체에서와 같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많으므로 현성을 보존할 계책이 시급하지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병사 이시언에게 은밀히 통지하여 수하(水下)의 여러 부락으로 하여금 이번 승기를 타서 다시 굳게 지킬 계획을 세우라고 권유하라고 할까 합니다.

이번에 현성을 지켜낸 추호 등에게 포상의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런데 홀호가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면 원망할 것도 같고, 만일 논상하지 않는다면 역시 뒷날의 일을 권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정에서 헤아려 지휘하여 주십시오.” 하니,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203권 39년 9월 22일 戊子

戶曹啓曰: “備邊司關內: ‘仁川居降倭仇乙於時、河星也所乃己等所志內: 「矣徒等仁川地作農居生. 前年五月分, (金歸)一時北道赴防時, 朝廷別無治裝之物, 只給矣徒等耕農牛隻. 故, 放賣治裝赴防, 經年留戍, 衣服盡破. 上京還住, 而妻料亦不給, 他無連命, 各各逃散, 極天罔極.’ 限明年穀熟間, 料米上下, 俾免顛死事, 移關矣.’ 去壬寅、癸卯年間, 降倭李潔等, 因其自願, 派送于仁川, 令京畿各官, 支給糧料, 而降倭仇乙於時等, 亦厭其奔走傍邑之勞, 呈訴於備邊司, 令本曹給料. 畿甸居生胡、倭, 其數不啻數十餘人, 若援此爲例, 皆欲受料於京倉, 則勢不可支, 依前以各官倉穀題給, 會計減錄事, 京畿觀察使處行移何如?” 啓依允.

【史臣曰: “倭賊辱及園陵; 夷毀廟社, 義不忍一日戴天. 倭之居我土者, 無遺誅戮, 猶不足以雪神人之憤, 乃反受而爲民, 月給廩料, 以濟其生乎?”】

호조의 계목에,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인천(仁川) 사는 항왜(降倭) 구을어시(仇乙於時)·하성야소내기(河星也所乃己) 등의 소지(所志)에 「저희들은 인천 땅에서 농사지으며 사는데 지난해 5월쯤에 모두 일시에 북도(北道)에 부방(赴防)하러 갔다. 그때 조정에서 별로 치장(治裝)할 물건을 주지 않았고 저희들에게 농우(農牛)만을 주었으므로 팔아서 치장하고 부방하여 한 해를 넘기며 머물러 방수(防戍)하느라 의복이 죄다 해졌다. 서울로 올라와 살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요미(料米)를 주지 않은 탓으로 따로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없어 각각 달아났으니, 하늘에 사무치게 망극하다.’ 하였으니, 내년엔 곡식이 익을 때까지 요미를 주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임인년·계묘년에 항왜 이결(李潔) 등을 자원(自願)에 따라 인천에 파송(派送)하고 경기의 각 고을로 하여금 양료(糧料)를 대어주게 하였는데, 항왜 구

을어서 등이 또한 옆 고을에 양식 받으러 가는 노고를 꺼려서 비변사에 정소(呈訴)하여 본조(本曹)에서 양료를 주게 하였습니다. 경기에 사는 호인(胡人)·왜인(倭人)은 그 수가 수십여인 뿐이 아닌데, 만약 이것을 끌어대어 전례로 삼아 다들 경창(京倉)에서 양료를 받으려 하면 형세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니, 전례대로 각 고을 창고의 곡식을 제급(題給)하고 회계하여 기록에서 덜라고 경기관찰사에게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왜적은 원릉(園陵)을 욕보이고 묘사(廟社)를 파괴하였으므로 의리상 차마 하루도 함께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왜인을 남김없이 죽여도 신인(神人)의 분을 씻지 못할 텐데, 도리어 받아들여서 백성으로 삼고 다달이 누료(廩料)까지 주어 구제한다 말인가.

▶ 207권 40년 1월 17일 辛巳

憲府啓曰：“義州，國之西門，守宰之任，比他邑極重。四五年來，判官不得其人，纔赴旋遞，非但官事因此虛疎，迎送之際，民受其害，不可不擇差。新判官李守敬，曾無莅歷，表表名稱。請命遞差，其代勿論職秩高下，十分擇遣。訓練院判官韓璟，人物庸劣；司僕寺主簿李春榮，處事迂疎。請竝命遞差。故參判黃允吉妻安氏，使其奴呈狀：‘宗廟令郭止善，取其奴婢文記，因而不給。’云。臣等考其狀辭，則粘連小紙內：‘郭止善書給曰：『其孽弟目不知書，文記闕失後，身死。』’云。臣等欲知其由而處之，推捉事知奴子則以迷劣童婢、童奴來現，不識事體甚矣。請命推考。宰牛之禁，載在令甲，近來法網解弛，屠殺無忌。舊義禁府內，無賴光棍聚居爲黨，每乘昏夜之間，偷竊牛馬，潛藏其中，日以販肉爲業。若此不已，畿甸農牛，將不久而盡，誠非細故。其牛馬屠殺之人，請令捕盜廳密捕，依律科斷。”答曰：“允。”

헌부가 아뢰기를,

“의주(義州)는 나라의 서쪽 문이니 수령의 책임이 다른 고을에 비해 매우 중합니다. 그런데 4~5년 이래 판관(判官)에 적임자를 얻지 못해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체직하는 바람에 관사(官事)만 이로 인해 허술해진 것이 아니라 영송(迎送)하는 즈음에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으니, 불가불 가려서 차임해야 합니다. 새 판관 이수경(李守敬)은 경력도 없을 뿐더러 뚜렷한 명성도 없으니 체차하고 그 대임으로는 직질의 높낮음을 막론하고 잘 가려서 보내소서. 훈련원 판관 한경(韓璟)은 인물이 용렬하고, 사복시 주부 이춘영(李春榮)은 일처리가 오활하고 서투르니 아울러 체차하소서.

고 참판 황윤길(黃允吉)의 처 안씨(安氏)가 그의 종을 시켜 정장하였는데, 종묘 령(宗廟令) 괘지선(郭止善)이 자기 집의 노비 문기(奴婢文記)를 가져가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그 서장의 내용을 상고해 보니, 점련(粘連)한 쪽지에 ‘괘지선이 글을 써서 주면서 「얼제(孽弟)가 글을 알지 못하는데 문기(文記)를 잃어버린 뒤에 죽었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그 연유를 알아 조처하고자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종을 찾아내어 불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잡으려 하자, 광지선은 아무 것도 모르는 동비(童婢)와 동노(童奴)를 현신(現身)시켰습니다. 너무나 사체를 모르니 추고를 명하소서.

소의 도살에 대한 금령(禁令)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도 근래에 법망(法網)이 헤이해져 도살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옛 의금부 건물 안에는 무뢰배들이 모여 무리를 지어서는 날마다 어두운 밤을 틈타 소를 훔쳐다가 그 속에 몰래 감추어 두고 고기를 파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기전(畿甸)의 농우(農牛)가 오래지 않아 씨가 마를 것이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소를 도살하는 자들을 포도청으로 하여금 비밀히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 附錄 誌文

誌文

~중략~

萬曆二十一年癸巳春, 提督協率軍兵, 大破平壤之賊. 王曰: “今日急務, 只在天兵糧餉, 予欲以匹馬, 策應天兵之後, 而續來天將, 亦當留待. 其令世子, 前進安州, 一以策應; 一以督運, 舊都黎庶陷賊而死者, 竝皆收瘞立標.” 仍令傳諭各邑, 供膳毋過三四器. 夏, 聞官軍收復京都, 群臣請賀, 王曰: “可慰, 不可賀也. 但當率臣民, 行望闕禮, 以謝皇恩而已.” 時, 京外飢荒. 王見內人炙食牛肉曰: “非牛不能耕, 人而殺牛, 不仁甚矣. 且今蕩敗之餘, 雖嚴禁, 猶懼不足以孽息, 況任其屠殺乎?” 嘗於行中, 失御弓. 有司捕拾遺者欲法之, 王曰: “既已失之, 必有得之者,” 卽命放之, 聞者咸悅. 提督聞王筆法精妙, 求之甚懇, 王辭以疾不許, 蓋其微意, 不欲以小技誇示於人也.

이하생략~

지문(誌文)은 다음과 같다.

~중략~

“... 만력 21년 계사 봄에 제독이 군사를 통솔하여 평양의 왜적을 대파하였다. 대왕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급선무는 다만 중국 군사의 식량에 있으니, 내가 한 필의 말을 타고 중국 군사의 뒤를 따르며 책응하려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오는 중국 장수도 마땅히 머물러 기다려야 하니, 세자로 하여금 안주(安州)에 나아가 한편으로는 책응하고 한편으로는 군량 수송을 독려하며, 왜적에게 패하여 죽은 구도(舊都) 백성들의 시체를 모두 거두어 묻고 푯말을 세우게 하라.’ 하고, 인하여 각 고을에 전교하여 반찬은 2~3그릇에 지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여름에 관군이 서울을 수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신하가 하례할 것을 청하자, 대왕이 이르기를 ‘위로할 일이지 하례할 만한 일은 못된다. 다만 신민을 거느리고 망궐례를 행하여 황제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뿐이다.’ 하였다. 당시 서울과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 대왕은 내인(內人)이 소고기를 구워먹는 것을 보고 ‘소가 없으면 밭을 갈지 못하는데 사람이 소를 죽이니 매우 불인(不仁)하다. 현재 탕패(蕩敗)한 나머지 비록 도살을 엄금하더라도 오

히려 번식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도살을 그대로 방치하겠는가?’ 하였다. 일찍이 행차중에 임금의 활을 잃어버렸는데, 유사(有司)가 주운 자를 잡아 형벌을 주려고 하자, 대왕이 이르기를 ‘이미 잃어버렸으니 반드시 습득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하고, 즉시 방면하라고 명하니, 듣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제독이 대왕의 필법이 정묘(精妙)하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간절하게 써주기를 청하였으나 대왕은 병이 있다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대왕의 뜻은 조그마한 기예로써 남에게 과시하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 보다. ...”

이하생략~

15. 宣祖修正實錄

▶ 8권 7년 1월 1일 丁丑

右副承旨李珥上萬言疏，極陳時弊及弭災、進德之說．其疏曰：

臣伏以，政貴知時；事要務實．爲政而不知時宜；當事而不務實功，雖聖賢相遇，治效不成矣．

~중략~

紀綱專委之臺閣，而不過摘抉一二奸細以塞責；銓選專出於請托，而不過安排一二名士以托公，以至庶司之官，漫不知所掌何事，惟知積日累朔以求遷．大小之官，豈無一二奉公忘私者哉？只是形單勢弱，不能有所裨益．監司巡遊自娛，以廚傳豐約；文書工拙爲殿最，能明黜陟者，有幾人乎？節帥嚴刑以自威，剝割以自奉，撫綏、精練，兩失其榮，能不辱闕外之寄者，有幾人乎？守令只知斂民以自利；行媚以干譽，能以字牧爲心者，屈指甚鮮．鎮將先問軍卒之幾何，以計綿布之多少而已，能以防備爲虞者，絕無幸有．惟是胥吏之輩，投間抵隙，執其機要，生民膏血，殆盡於胥吏之手矣．至於籍兵，最是大事，而賄賂交於路，僞券亂其眞，村民欲餽以牛，色吏必求絛布，以牛易布，牛價頓賤．京外皆然，衆口沸騰，況於他事乎？曹植嘗曰：“我國以胥吏而亡．”此言雖過，亦有理焉．此由群臣不任事之過也．官各稱職，則安有以胥吏亡國者乎？今若以爲，所任非人，而欲易之則一時人物不過如此，賢才難以猝辦，以爲刑法不嚴，而欲重之則法重而奸益滋，且嚴法，非救弊之策也．以爲無可奈何，而置之則百弊日增；庶績日敗；民生日困，而亂亡必隨．此其可憂者二也．

이하생략~

우부승지 이이가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에 관한 것과 재변을 없애고 덕을 진취시키는 것에 대한 설을 극진히 아뢰었다. 그 소에,

“신은 삼가 아뢰입니다. 정사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 정사를 하면서 시의를 모르고 일을 당하여 실공을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치적(治績)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대간에게 전달시키고 있는데, 한두 명 간사한 조무라기들만 잡아냄으로써 책임이나 면하는 것에 불과하고, 관리의 전형과 선임(選任)은 오로지 청탁으로 이루어져 한두 명사(名士)만을 벼슬자리에 안배함으로써 공정하다는 구실로 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관아의 벼슬아치들까지도 자신이 관장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지도 못한 채, 그저 날이 쌓이고 달이 감으로써 승진을 추구하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대소 관원 중에 어찌 봉공 멸사(奉公滅私)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이야 없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여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감사는 돌아다니며 스스로 즐기면서 대접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문서를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것을 가지고 수령의 성적을 매기고 있으니, 그 처벌과 승진시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절도사는 엄한 형벌로써 자신의 위세나 드러내고 약탈을 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추구하면서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군사를 조련하는 그 두 가지 일에 다 실책을 범하고 있으니, 곤외(關外)의 책임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수령은 오직 가렴 주구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취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여 명예나 추구할 뿐, 백성을 아끼고 위하는 데 제대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매우 드뭅니다. 진장(鎭將)은 우선 군졸 숫자나 따지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면포(綿布)가 얼마나 될지 계산할 뿐, 나라의 방비를 걱정하는 자는 행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서리배(胥吏輩)들만이 기회를 틈타 중요한 일의 처리를 장악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고향은 서리배의 손에 거의 말라버린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군사를 뽑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뇌물이 요로에 횡행하고 가짜 문서가 진짜 기록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촌민(村民)들이 소를 내주려고 해도 색리(色吏)들은 반드시 면포를 요구하여 소를 가지고 배를 바꾸게 되니 소 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경외(京外)가 다 그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으니 하물며 다른 일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조식(曹植)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나치기는 하나 또한 일리가 있으니, 이는 못 신하들이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관원이 제각기 맡은바 직책을 다한다면 어찌 서리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책임을 진 관원이 적절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한 때의 인물들이 모두 이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명한 인재를 갑자기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형벌과 법이 엄하지 않다 하여 그것을 엄중하게 하려고 할 경우, 법이 엄중해지면 간사한 자들이 더욱 불어나게 됨과 동시에 법을 엄중하게 하는 것 또한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온갖 폐단이 날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날로 그릇되어 민생은 나날이 곤궁해지고 혼란과 쇠망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걱정되는 일의 둘째입니다. ...”

이하생략~

▶ 8권 7년 11월 1일 辛未

質正官趙憲，還自京師。憲諦視中朝文物之盛，意欲施措於東方，及其還也，草疏兩章，切於時務者八條；關於根本者十六條。皆先引中朝制度，次及我朝時行之制，備論得失之故，而折衷於古義，以明當今之可行。先上八條疏，上答曰：“千百里風俗不同，若不揆風氣、習俗之殊，而強欲效行之，則徒爲驚駭之歸，而事有所不諧矣。”由是，憲不復舉十六條。其八條疏：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一曰聖廟配享.

~중략~

四曰、飲食宴飲. 臣竊見, 中原之人無不節用. 官員家供, 止以數器自從, 私家所食, 尤尚儉素. 宴飲之際, 酌以小鍾, 限其行數, 不敢踰節亂性, 荒廢厥事, 所以公私咸裕, 庶政不墜. 而我國之俗, 專以豐饌崇飲爲務, 財盡而不知憂; 民窮而不知恤; 上命而不知從, 暴殄天物, 而斲傷國本者, 罔有紀極. 內司庶官, 雖行家供, 而豪奢之輩, 盛備饌品, 貧約之士羞不能及, 或有無故呈病, 而不勤職事者, 里巷之間, 不計遠慮, 而糜費尤甚焉. 嗚呼! 此是何等風俗, 而不思改之乎? 外方列邑, 雖有限品定器之教, 而視若迂言, 專不奉行. 間有欲遵朝命者, 而經行使臣, 視其饌品之豐約, 以定其人之賢否. 盛其供億則以爲: “某倅賢而敬上也,” 薄於自奉則以爲: “某倅矯情而干譽也.” 紛紜詆罵, 論議靡定. 名爲有識者, 方且屈而從俗, 圖免人言, 無知守令, 又何足責? **是以, 君無故不殺牛, 而營吏、趨從, 亦必屠牛以饗之.** 大夫然後, 乃得三飯, 而七歲衙兒, 或具多品以四飯. 甚至如天使之來, 止於大邑, 間設九爵之宴, 而私行無賴, 亦皆張筵設樂, 窮宵酣飲, 彼酒與肴, 亦非天隕而地湧也. **輪定邑吏爲肉禮房, 月給三牛之價, 而官員所食, 或至十牛; 輪定官婢爲酒母, 月給三石之米, 而官員所飲, 幾至二十石.** 以至客舍將校, 困於燈席; 園頭官奴, 困於菜果, 賣田徵族, 侵索村氓, 而猶不能支, 則裂衣爲囊, 相率而逃之. 嗚呼! 中原庶官, 一雞、一魚, 不敢橫斂于民間, 而我國爲官員者, 以養口腹之故, 而病及于祖宗之赤子者, 不知其幾千萬, 則可不君臣相誓, 汲汲乎非食, 以正供也哉? 而況邊方將士, 尤多崇飲. **於其隣境守帥及兵、水使之往還也, 名爲迎送之例, 而推牛釀酒, 載貨執寶, 棄鎮越境, 而浮觴倒觥, 劇飲連日, 兩界、兩南, 莫不如是.** 此不惟剝割殘卒之爲可慮, 而賊乘其虛, 則誰復防守? 此, 李友曾之所以昏醉, 不知釜山之陷, 而他日之患, 不可謂必無也. 嗚呼! 中原之地, 酒禍猶少, 而我國之人崇飲夭死者, 不可勝記. 雖彼以欲敗身, 而在聖主躋世壽域之心, 定所矜憫. 凡百禍源, 不可不周防, 故臣謹具小鍾十枚以進, 伏願聖上, 法皇祖之禁秬; 體光廟之戒酒, 二以垂樣於京中; 八以垂樣於各道, 使其倣爲白鍾. 於大賓、大祀、鄉飲、鄉射之際, 一從華人之禮, 刻定爵數, 俾勿縱醉以喪身, 其他非時、非禮之宴及與私行, 飲過三爵者, 一依《酒誥》之法, 則庶無糜財病民、妨政廢事之禍矣.

이하생략~

질정관(質正官) 조헌(趙憲)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조헌은 중국의 성대한 문물을 익히 살펴보고 그것을 동방에 시행해 볼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시무(時務)에 절실한 것 8조와 근본에 관계된 것 16조 등 상소문 두 장을 초하였다. 이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먼저 인용한 다음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언급하여 그 득실의 이유를 갖추 논하고, 고의(古義)와 절충하여 오늘날 시행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었다. 먼저 8조 소를 올리자, 상이 답하기를,

“천백 리 풍속은 서로 다른 것인데, 만약 풍기(風氣)와 습속이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본받아 행하려고 하면 끝내 소요만 일으킬 뿐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 때문에 조현은 16조 소를 올리지 않고 말았다. 그 8조 소에,

“첫째, 성묘(聖廟)의 배향에 관한 일입니다.

~중략~

넷째, 음식 연음(宴飮)에 관한 일입니다. 신은 삼가 보건대 중원 사람은 절용(節用)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관원의 가공(家供)은 반찬이 두세 그릇 뿐이었고 사가(私家)의 음식은 더욱 검소하였습니다. 연음할 때에는 작은 잔에 따르고 순배 수를 정해 놓고서 감히 한계를 넘게 마셔 정신이 혼란하게 함으로써 맡은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니, 이것이 공사(公私)의 재력이 다 넉넉하고 서정(庶政)이 잘못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오로지 풍성한 음식에다 많이 마시는 것을 힘써서 재물이 바닥이 나도 걱정할 줄 모르고 백성이 곤궁해도 구제할 줄 모르며, 위에서 명해도 따를 줄 모른 채 자연의 물산을 쓸데없이 소모하고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해치는 일이 끝이 없습니다. 내사(內司)의 서관(庶官)이 가공(家供)을 행하기는 하나 호사하는 무리가 찬품(饌品)을 성대히 갖추므로, 빈약한 선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간혹 까닭없이 정병(呈病)하고 직무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항(里巷) 간에는 원대한 생각이 없어서 소비 풍조가 더욱 심합니다. 아, 이것이 무슨 풍속인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외방 열읍(列邑)에서는 비록 찬품의 그릇 수를 한정된 분부가 있어도 오활한 말로 보아 전혀 봉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조명(朝命)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가 있더라도 몇몇한 임무로 나간 사신(使臣)이 그 찬품의 풍약(豐約)을 보고 그 사람의 현부(賢否)를 정합니다. 그리하여 공억(供億)을 성대히 하면 아무 수령은 어질어서 윗사람을 공경한다고 하고, 자봉(自奉)을 박하게 하면 아무 수령은 본심을 속여 명예를 구한다고 하여 분분하게 비방하면서 논의가 끝이 없으니, 명색이 유식한 자라도 바야흐로 뜻을 굽혀 풍속을 따라서 남의 비난을 면하려고 꾀하는데 무지한 수령이야 나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임금도 이유없이 소를 죽이지 않는 법인데 영리(營吏)와 추종(趨從)까지도 반드시 소를 도살하여 먹이며, 대부(大夫)라야만 세 끼 밥을 먹는 법인데 7세된 관아의 아이가 많은 찬품을 갖추어서 네 끼를 먹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사신이 올 때에만 큰 고을에서 이따금 구작(九爵)의 연회를 베푸는 법인데도, 사행(私行)의 무뢰배들까지 모두 잔치를 열어 풍악을 잡히고 밤새도록 취하여 마시니, 그와 같이 소비하는 술이며 고기는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저절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읍리(邑吏)를 차례로 육례방(肉禮房)으로 삼아 한 달에 소 세 마리 값을 주지만 관원이 먹는 것은 열 마리까지 되기도 하고, 관비(官婢)를 차례로 주모(酒母)로 삼아 한 달에 쌀 세 가마를 주지만 관원이 마시는 것은 거의 스무 가마에까지 이릅니다. 그리하여 객사 장교(客舍將校)는 등석(燈席)의 주선에 시달리고 원두 관노(園頭官奴)는 채과(菜果)의 지공에 시달린 나머지 전답을 팔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일족(一族)에게서 거두어들이며, 더 나아가 촌민(村民)을 침색(侵索)하다가 그래도 지탱하지 못하게 되면 옷을 찢어 거지주머니를 만들어 차고는 서로 무리지어 도망잡니다.

아, 중원의 서관(庶官)은 닭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도 감히 민간에게서 무리하게 거두지 아니하는데, 우리나라는 관원으로 있는 자가 자신의 구복(口腹)을 봉양하는 일로 조종(祖宗)의 적자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 몇 천만 가지나 되는지 모릅니다. 어찌 군신(君臣)이 서로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맹세를 하고 서둘러서 음식을 검소하게 함으로써 진공(進供)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변방의 장사(將士)는 더욱 한 자리에 모여 술 마시는 일이 많습니다. 인경(隣境)의 수수(守帥)와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왕복할 때, 영송(迎送)하는 관례라고 명분을 삼아 소를 잡고 술을 빚으며 짐바리에 보화를 싣는가 하면, 진(鎭)을 버리고 경계를 넘어서 주거니 받거니 연일 통음(痛飲)하는데, 양계(兩界)와 양남(兩南)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잔약한 병졸을 수탈하는 것이 염려스러울 뿐만이 아닙니다. 적이 그 헛점을 틈타 침범할 경우 그 누가 과연 막아 지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우증(李友曾)이 몹시 취하여 부산(釜山)이 함락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까닭인데, 후일 어려움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중원 지방은 주화(酒禍)가 오히려 적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즐겨 마시다가 요사(夭死)한 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야 비록 구욕(口欲) 때문에 몸을 망쳤다 하더라도 세상을 수역(壽域)으로 올려놓기를 추구하시는 성주(聖主)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가련한 일입니다.

모든 화의 근원은 면밀히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은 삼가 작은 술잔 10매(枚)를 갖추어 올립니다.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참쌀 술을 금한 황조(皇祖)를 본받고 음주를 경계한 광묘(光廟)의 뜻을 받들어, 두 개는 경중(京中)에 여덟개는 각도에 건본으로 내려서 그것을 모방하여 술잔을 만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대빈(大賓)·대사(大祀)·향음(鄉飲)·향사(鄉射)하는 때에 한 걸 같이 중국인의 예법을 따라 잔 수를 엄히 정하게 함으로써 많이 취하여 몸을 망치게 하지 마시고, 기타 제때가 아니거나 예가 아닌 연회와 사행(私行)에 술 세 잔을 초과하여 마신 자는 한 걸 같이 주고(酒誥)의 법대로 처벌하소서. 그러면 거의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며 국정을 해치고 일을 망치는 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

이하생략~

▶ 11권 10년 1월 1일 己丑

朔己丑/八道癘疫大熾. 民間訛言: “毒疫神降, 當食五穀雜飯以禳之.” 都下喧傳, 貯雜穀者, 獲贏利. 又訛言: “殺牛食肉, 灑血于門以禳之.” 於是, 處處殺牛, 牛價亦踊. 前歲飢饉, 繼以疫癘, 死者不紀其數. 命近臣行癘祭於平安、黃海兩道. 八路皆疫, 而兩西尤甚故也.

팔도(八道)에 전염병이 크게 치성하였다. 민간에 떠도는 거짓말에, ‘독한 역신(疫神)이 내려왔으니 의당 오곡(五穀)의 잡곡밥을 먹여 물리쳐야 한다.’ 하여, 도성 근처에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잡곡을 저장한 사람은 많은 이익을 얻었다. 또 ‘소를 잡아 고기는 먹고 문에 피를 뿌려 물리쳐야 한다.’는 거짓말이 전해지자, 이에 곳곳에서 소를 잡았기 때문에 소값도 뛰었다. 지난해에 기근이 들고 잇따라 전염병이 돌아 죽은 자의 숫자를 다 기록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근신(近臣)을 명하여 평안·황해 두 도에 여제(癘祭)를 지내게 하였다. 팔도에 모두 전염병이 돌았으나 양서(兩西)가 더욱 심하였던 까닭이다.

▶ 11권 10년 7월 1일 丙戌

朔丙戌/八路大水，傷禾稼，癘疫熾盛。兩界死者尤衆，人畜延染死者，不可勝紀。牛疫尤甚，農家以人代牛，九人之力當二牛。連歲饑饉。

팔도에 큰 물이 저서 벼농사를 망치고 전염병이 치성하였다. 양계(兩界)에 죽은 사람이 더욱 많았는데, 사람과 가축이 전염되어 죽은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소의 전염병이 더욱 심하여 농가에서는 사람이 소를 대신하였는데, 아홉 사람의 힘이 소 두마리에 해당되었다. 해마다 잇따라 기근이 들었다.

▶ 28권 27년 1월 1일 庚辰

以柳根爲京畿巡察使。時，盜賊塞路，根聚民作木柵，以備盜賊，亦使行旅止宿。又移關東、兩湖穀種，募黃海、平安道耕牛，分給農民。根至誠安集，民頗田作，至秋而盜賊始稍息。

유근(柳根)을 경기 순찰사로 삼았다.

이때 도적이 길을 메웠으므로 유근이 백성을 모아 목책(木柵)을 만들어 도적을 방비하는 한편, 행려(行旅)들도 지숙(止宿)하게 하였다. 또 관동(關東)·양호(兩湖)의 곡종(穀種)을 옮겨 오고 황해도·평안도의 농우(農牛)를 모집해다가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근이 지성으로 백성을 안집(安集)시키니 백성이 자못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가을에 가서는 도적이 비로소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 28권 27년 4월 1일 己酉

領議政柳成龍，上劄陳時務，略曰：

殷憂啓聖，多難興邦。蓋以治平之世，人情安於故常；俗士溺於淺見。又有狹小褊滯之論，疑亂名實，破壞大體，雖有先事之言，常患於不見信；救時之策，常至於不得施。至於敗滅之後，人心危懼，往事之失，不得不懲創；善後之圖，不得不經營。天命以此而再續；國脈以此而更固。古之享國長久者，或因中衰而復振，以至於千百年之安。以此觀之，殷憂多難，豈不足爲興邦啓聖之資也耶？此則在殿下加之意而已。

~중략~

臣靜思默念，百分籌度，而近得一策。常時騎兵上番之數，合二萬二千七百餘，而各有三保，則共爲九萬餘人。步兵上番之數，一萬六千二百餘，而各有一保，則共三萬二千餘名，摠計十二萬二千。此乃平時上番騎步，二色軍戶、奉足之數也。至如甲士之上番者，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四千六百四十, 而各有二保, 則一萬三千九百二十名, 定虜衛上番之數, 二千一百六十一, 各有奉足二人, 則六千四百餘名. 別侍衛上番之數, 一千一百十九, 而亦有奉足二人, 則亦合三千三百餘名, 而他色軍不與焉, 此外有各司奴婢. 臣前在己卯冬, 爲刑房承旨, 取考元數, 則三萬七千餘名. 其後以公賤役歇, 漸次增添, 其數不止於三萬七千矣. 此外有各司諸員, 合二千一百七十七戶, 而各有奉足二人; 各司皂隸, 合三千六百二十八名, 而各有奉足一人. 又有掌樂院樂工七百、樂生三百, 而各有奉足二人, 其數亦三千矣. 此乃平日各色名數定額, 其間有流亡未究之處, 而大概則如此矣. 今於兵亂之後, 不可以平時之額求之, 想存者無幾, 然全羅、忠清道, 以及慶尙左右稍完郡邑, 江原、黃海道、京畿等處遺存爲役者, 應亦幾至十萬, 或過之矣. 若除其上番, 各捧人一石米, 使爲糧餉, 則其數將至於十萬餘石, 而勿論牟麥、大小米、大小豆, 充數納之, 則甚爲輕歇, 而人情大喜矣. 因於京城, 招募四方精勇之士, 亦勿論士族、庶孽、公私賤、有無役, 只取其勇力, 得一萬名, 分爲五營, 營各二千人, 依法操練, 則是京城之內, 常有一萬精兵, 而根本壯固, 居重御輕之勢, 得矣. 蓋一萬兵一年之糧, 乃四萬四千石, 假使更出數千餘石, 日給人三升, 使庇家屬, 亦無不足之憂. 因以所餘數萬石, 別儲軍資, 爲食兵之需, 不管於戶曹之經費, 則三年之後, 所畜當倍(筵) [筵], 而軍食不可勝用. 苟食足而兵強, 則何爲而不成, 何賊之足慮哉? 一萬名之軍, 亦當分爲二番, 每營恒留一千, 而其五千, 則別於京畿肥饒閑曠之地, 大備農器、農牛、種子, 分屯作農, 如曹操許下屯田之法,而使自食其半, 官取其半, 則資食之路日廣, 而應募者相繼雲集矣.

이하생략~

영의정 유성룡이 차자를 올려 시무(時務)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깊은 근심 속에서 성명(聖明)한 지혜가 열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흥기된다.’ 하였습니다. 대개 평화로운 시대에는 인심이 무사안일을 즐기고 세속의 선비들이 천박한 식견에 빠지며 또 편협한 의논이 명실을 어지럽히고 대체를 파괴하여 비록 선견지명이 있어도 늘 신용을 받지 못하고 시대를 구제할 계책이 있어도 항상 시행되지 못하다가, 결국 패멸(敗滅)당하고 난 뒤에야 인심이 두렵게 여겨 지난 일의 실수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앞날을 위한 계책을 잘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천명(天命)이 다시 이어지고 국맥(國脈)이 다시 건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래도록 지속된 나라의 경우에도 혹 중간에 쇠퇴해졌다가 다시 펼쳐서 천 년, 백 년 동안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깊은 근심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야말로 어찌 나라를 일으키고 성명을 계발하는 밑받침이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이는 곧 전하께서 얼마나 뜻을 더욱 가다듬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중략~

이에 신이 깊이 생각해 보고 온갖 방도를 헤아린 끝에 겨우 한 계책을 얻었습니다. 평상시 상변하는 기병(騎兵)의 수는 도합 2만 3천 7백여 명인데 각각 3명씩의 보인(保人)이 있으니 모두 9만여 명이 되며, 상변하는 보병(步兵)의 수는 1만 6천 2백여 명인데 각각 보인 1명씩이 있으니 모두 3만 2천여 명이 됩니다. 이들을 합치면 12만 2천 명이 되는데, 이것

이 바로 평상시에 상변하는 기병과 보병 2색(色)의 군호(軍戶)와 봉족(奉足)의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변하는 갑사(甲士)의 수는 4천 6백 40명인데 각각 2명씩의 보인이 있으니 1만 3천 9백 20명이고, 상변하는 정로위의 수는 2천 1백 61명인데 각각 봉족 2명씩이 있으니 합치면 6천 4백여 명이며, 상변하는 별시위의 수는 1천 1백 19명인데, 역시 봉족 2명씩이 있으니 도합 3천 3백여 명입니다. 여기에는 타색(他色)의 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각사(各司)의 노비들이 있습니다. 신이 지난 기묘년 겨울에 형방 승지로 있으면서 그 원수(元數)를 살펴보니 모두 3만 7천여 명이었는데 그 뒤에 공천(公賤)의 역(役)이 힘들지 않으므로 점차 증가되어 그 수가 3만 7천 명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밖에 또 각사의 제원(諸員)이 도합 2천 1백 77호(戶)인데 각각 봉족 2명씩이 있고, 각사의 조례(阜隸)가 도합 3천 6백 28명인데 각각 봉족 1명씩이 있으며, 또 장악원에는 악공(樂工) 7백 명과 악생(樂生) 3백 명이 있는데 각각 봉족 2명씩이 있으니 그 수를 모두 합치면 또한 3천명이 됩니다. 이것이 곧 평상시 각색 명수(名數)의 정액(定額)입니다. 그 사이에 유망(流亡)한 자에 대해 보충하지 못한 곳이 있기는 하나 대략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병란을 겪은 후이므로 평상시의 정액으로 계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자가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전라도·충청도 및 경상좌·우도의 조금이나마 완전한 군읍(郡邑)과 강원도·황해도·경기도 등처에는 남아서 역(役)을 하는 자가 거의 10만 명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상변(上番)을 면제해 주고 1인당 쌀 한 섬씩 받아들여 군량을 삼게 한다면 그 수량이 장차 10만여 석에 이를 것인데, 쌀·좁쌀·보리·콩·팥을 막론하고 그 수량을 채워 납부하게 한다면 매우 가벼워져서 인심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사방의 날래고 용감한 군사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 일 역시 사족(士族)·서얼(庶孽), 공천(公賤), 사천(私賤), 유역(有役)·무역(無役)을 막론하고 다만 용맹스러운 힘이 있는 자 1만 명을 얻은 뒤 5영(營)에 분산시키고 영마다 2천 명씩 법에 의해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항상 1만 명의 정병(精兵)이 있게 되어 근본이 튼튼해질 것이니, 우리의 막강한 힘으로 가볍게 적을 제어할 수 있는 형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개 1만 명의 병력에 소요되는 1년의 양식은 4만 4천 석인데, 가령 다시 수천여 석을 방출해서 날마다 1인당 3승(升)씩 주어 가족까지 보호하게 하더라도 부족하게 될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만 석은 특별히 군자(軍資)로 저축하여 군사를 먹일 수요로 하고, 호조의 경비와는 무관하게 한다면 3년 뒤에는 저축량이 몇 배나 되어 군량으로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식량이 넉넉하고 군사가 강하다면, 무엇을 한들 이루지 못할 것이며 어떤 적인들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1만 명의 군사에 대해서도 두 번(番)으로 나누어 영마다 5천 명만 상주하게 하고 나머지 5천 병력은 경기 지방의 비옥하고 한가히 비어 있는 땅에 옮겨 농기구·농우(農牛)·종자 등을 대폭 구비해 준 다음, 마치 조조(曹操)가 허하(許下)에 둔전하던 법처럼 나누어 둔전하며 농사를 짓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은 관에서 징수한다면 식량을 마련하는 길이 날로 넓어지고 군대에 응모하는 자들이 서로 잇따라 구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

이하생략~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 36권 35년 閏2월 1일 甲午

副司果李貴上疏, 略曰:

上年冬, 臣爲體察使李德馨召募官, 使臣往湖、嶺, 書一紙分付于臣, 採訪民瘼, 其一也. 臣行過湖、嶺, 訪得弊瘼, 則湖南之弊, 不過土豪隱漏軍丁、田結而止耳. 嶺南之弊, 則名爲士人者, 規制守令, 徒流杖殺之權, 皆出其手, 實鄭仁弘爲之倡也. 臣行到居昌, 見下吏文狀曰: “陝川居鄭叅議過去, 故縣監支持, 境上出去.” 云. 臣雖秩卑, 公行也; 仁弘雖官高, 私行也. 各官守令不顧公行, 皆奔走出待, 則仁弘之勢焰, 據此可知. 臣因歷舉道內所聞. 仁弘豪強縱恣之狀, 移關陝川, 推闕其奴. 及入京城, 欲上章直斥, 而李德馨以爲: “此人雖如此, 旣以士自名, 不可輕易爲之.” 臣只泛陳兩南豪強之弊而已. 仁弘乃以此等說, 謂出於臣族姪居昌居李時益, 使其門徒, 通文右道, 竟至黜鄉, 且臣所經宿閭舍, 亦欲焚火. 至於一見面之李誠植、李景一等, 亦被損徒. 臣一言仁弘之過, 渠之徒黨, 擅黜臣族黨, 無所忌憚, 至於破家黜鄉. 時益窮無所歸, 遠來號哭于臣曰: “仁弘罪狀, 不出於我口, 而于何聽聞, 致于此禍?” 云. 由臣狂妄, 蔓禍於族黨及一面之人, 臣不勝痛愕焉. 臣於其時移關中, 條陳仁弘罪目, 所謂諸處義兵, 朝廷皆令罷之, 而仁弘則自爲己物, 使監、兵使莫敢下手. 戊戌年間, 鄭經世爲監司, 究問仁弘別將之狀, 人皆言之. 倭退已經三年, 而義兵所屬官奴及牛馬, 尙置其家使喚之狀, 一道無不知之.

이하생략~

부사과(副司果) 이귀(李貴)가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지난해 겨울 신이 체찰사 이덕형의 소모관(召募官)이 되었을 때 신에게 호남과 영남으로 가게 하면서 종이 한 장에다 신에게 분부하는 말을 써 주었는데 ‘백성들의 고통을 두루 찾아 살피라.’ 한 것이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이 호남과 영남을 지나면서 병폐를 찾아보았더니, 호남의 폐단은 토호(土豪)들이 군정(軍丁)과 전결(田結)을 숨기고 빠뜨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남의 폐단은 이름이 선비라고 하는 자들이 수령(守令)들을 협박하고 절제하여 도류 장살(徒流杖殺)의 권한이 모두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데, 실로 정인홍이 앞장 서서 주창한 것입니다.

신이 거창(居昌)에 이르러 하리(下吏)가 올린 글을 보니 ‘합천(陝川)에 사는 정 참의(鄭參議)가 지나가므로 현령이 경계까지 대접하러 나갔다.’ 하였습니다. 신은 품계가 낮으나 공행(公行)이요 인홍은 벼슬이 높으나 사행(私行)인데, 각 고을의 수령들이 공행은 돌보지 않고 모두 분주하게 그를 마중하러 나갔으니, 인홍의 기세를 이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이 도내에서 들은 인홍의 호강(豪強)하고 방자한 실상을 낱낱이 들어서 합천에 이문(移文)하여 그 종들을 추월(推闕)하고 서울에 들어와 글을 올려 직척(直斥)하러 하였더니, 이덕형이 ‘이 사람이 이러하지만 이미 선비라고 스스로 이름하고 있으니 경솔히 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신이 그저 범범하게 양남(兩南)의 강호들에 대한 폐단을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홍은, 이런 이야기들이 신의 족질(族姪)인 거창에 사는 이시익(李時益)에게서 나왔다고 여겨 자기의 문도들을 시켜 경상우도에 통문(通文)을 돌려 끝내 고향에서 내쫓기에 이르렀고,

또 신이 지나면서 머문 여사(閭舍)를 태워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이성식(李誠植)·이경일(李景一) 등도 손도(損徒)를 당하였습니다.

신이 한 번 인홍의 허물을 말하자 그의 도당들이 멋대로 신의 일족(一族)을 꺼림없이 쫓아내었고 심지어는 집을 부수고 고향에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익이 곤궁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멀리 신에게 찾아와 울며 부르짖기를 ‘인홍의 죄상은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어디에서 들었기에 이런 재앙을 초래했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신의 광망함이 일족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니, 신은 원통하고 경악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이 당시 보낸 관문(關文) 가운데 인홍의 죄목을 조목별로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여러 곳의 의병(義兵)에 대해 조정에서는 모두 해체하도록 명하였는데도 인홍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서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손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술년 간에 정경세(鄭經世)가 감사가 되어, 인홍이 별장(別將)을 거느린 정상을 따져물었던 것은 사람들이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적이 물러간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도 의병에 속했던 관노(官奴)와 우마(牛馬)를 아직도 자기 집에 두고 부리는 실정을 그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

이하생략~

▶ 40권 39년 1월 1일 庚午

《實錄》曰: “德馨之父爲文化縣令時, 德馨出空名告身帖一百餘張, 買牛數百頭於縣地, 放牧於通津農舍, 野爲之黃.” 又以德馨反覆趨勢, 前後翻轉, 引俞大禎之言以證之. 又曰: “恒福當己丑之獄, 言於鄭澈曰: ‘汝立之起兵湖南也, 有從嶺南起者, 從京中起者.’ 蓋欲以此, 陷嶺南崔永慶、鄭仁弘、柳成龍, 京中李潑、李涪、鄭彥信、白惟讓之計也. 同惡相濟之狀如此, 而至於台鼎, 豈不怪哉?” 按, 德馨、恒福俱以賢相, 爲一世所倚重, 故自獻、爾瞻輩媚嫉特甚, 必欲售其陷害之計, 而不得其說, 乃以無根不近之事, 肆加詆辱, 書之史冊. 且以崔永慶之死, 一隊人【東人也.】專攻鄭澈, 而恒福以己丑問事郎, 備知顛末, 常言: “永慶之初被逮也, 澈草笥將救之, 旋有放釋之命, 故不果上. 及其再鞠也, 澈聞臺論驚甚, 對沈喜壽苦口言之, 澈之心事, 終始如此.” 以是, 群小銜之最深, 捏造虛無, 至謂之同惡相濟, 可勝痛哉?

《실록》에 이르기를,

“이덕형의 아버지가 문화현령(文化縣令)으로 있을 때 덕형이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1백여 장을 빼내어 그 고을에서 소[牛] 수백 두를 사가지고 통진(通津) 농사(農舍)에서 방목하니 들이 온통 누렇게 변했다.”

하고, 또 덕형이 반복해서 세력을 좇고 계속하여 수시로 변절한 사실을 유대정(俞大禎)의 말을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항복이 기축 옥사(己丑獄事)를 당했을 때 정철(鄭澈)에게 말하기를 ‘정여립(鄭汝立)이 호남에서 기병(起兵)할 때에 영남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다.’고

제 1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1)

하였으니, 대개 이는 항복이 영남의 최영경(崔永慶)·정인홍(鄭仁弘)·유성룡(柳成龍)과 서울의 이발(李潑)·이길(李洁)·정언신(鄭彦信)·백유양(白惟讓)을 모함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동악상제(同惡相濟)한 모습이 이와 같은데도 정승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괴이하지 않은가.” 하였다. 살피건대 덕형과 항복은 모두 어진 재상으로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기자헌과 이이첨의 무리가 무척이나 시기하여 반드시 그들을 모함할 계략을 꾸미려 했으나 적당한 구실을 찾지 못하자, 마침내 근거도 없는 얼토당토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음대로 비방하고 욕하면서 사책(史冊)에 기록한 것이다. 또 최영경의 죽음을 가지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인이다.】 전적으로 정철을 공격하였으나, 항복(恒福)은 기축옥의 문사랑(問事郎)으로서 그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하기를 ‘영경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철(澈)이 차자를 초안하여 장차 그를 구하려 하였는데, 문득 풀어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차자를 올리지 못하였다. 그를 두 번째 국문함에 미쳐 철은 대간이 논한 것을 듣고 매우 놀라 심희수에게 입이 닳도록 말해주었으니 철의 마음 씀이 시종 이와 같았다.’ 하였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소인배들이 매우 심하게 미워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하여 마침내는 동악상제라고까지 하였으니 통탄하고도 남을 일이다.